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txt

제목: [기적을 품은 아이들 그 후] “시인 꿈 포기 안돼”… 네티즌이 나섰다  
날짜: 201612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30203136001  
본문: 기적(奇蹟).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神)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 6개월간 국민일보와 밀알복지재단은 ‘기적을 품은 아이들’이란 이름으로 저소득 장애아동·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찾아 나섰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한 단어는 ‘불가능’과 ‘포기’였다. “불가능에 가깝다. 수술해도 식물인간이 될 거다.” “이 아이를 키우다간 집안이 망할테니 포기해라.” 하지만 삶의 기로에 섰던 아이들과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운 기적과 꿈을 마주했다. 2016년의 마지막 날 지금도 가슴에 품은 기적을 삶으로 펼쳐 보이는 이들의 소식을 다시 전한다.‘스토리펀딩’으로 희망 잇는 소녀 시인 장유진 선천성 뇌동정맥 기형을 딛고 스프링노트 58권에 1만여편의 시를 써내려간 ‘기적의 소녀 시인’ 장유진(뇌병변 2급)양을 만난 건 지난 8월이었다. 1년 전 뇌출혈과 발작으로 쓰러진 뒤 5개월 만에 기적처럼 깨어나 회복 중이었다. 뇌혈관이 실타래처럼 엉켜 14차례나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유진이는 반가운 웃음으로 기자를 맞았다. 그동안 지나온 역경의 시간이 상상조차 되지 않을 만큼 그녀의 미소는 환했었다. 전신마비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을 들어 인사 대신 ‘기자님’이란 제목의 글을 써줬다. ‘나를 취재하러 오신 기자님. 멋지게 취재해 주세요.’ ‘기적을 품은 아이들’을 통해 가녀린 소녀의 생을 지탱해 준 시(詩)와 사연이 알려지면서 유진이는 ‘시로 희망을 써내려가는 장애인’이란 별명을 얻었다. TV 뉴스를 비롯해 여러 언론 매체들이 유진이의 꿈을 조명했고 구세군자선냄비, 안산시평생학습관, 문인단체 등 각계각층의 후원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익광고 모델로 발탁돼 어머니 이성자(52) 안산제일교회 집사와 함께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보험보장성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다시 멈춰 버렸던 희망 릴레이 계속 이어질 것 같던 희망 릴레이는 지난 10월 말 또다시 찾아온 뇌출혈로 멈춰서고 말았다. 유진이는 회복세를 이어오며 간신히 떼어냈던 콧줄을 다시 붙여야 했다. 자신의 작품 속 ‘코끼리 할머니’와 똑같은 모습이 된 셈이다. 매일 밤 작고 따뜻한 손을 맞잡은 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던 엄마는 지난 성탄절 밤 눈물을 머금고 유진이에게 말했다. “올해는 꼭 유진이랑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주며 잠들게 해주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성탄절이 지나가네. 그래도 우리 유진이는 착하니까 꿈속에서 꼭 예수님한테 ‘생일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줄 수 있겠지.” 엄마는 딸 대신 조용히 펜을 들었다. ‘기적은 일어난다.’ 그리고 유진이의 머리맡에 소중한 친구를 보내주듯 문구를 적어 올려뒀다. 이 집사는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0'>재활치료를 통해 의사표현도 늘고 다시 시도 쓰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한순간에 타임머신을 타고 사경을 헤매던 때로 돌아간 것 같다</span>”며 말을 잇지 못했다.새로 움튼 기적, 스토리펀딩 딸을 향한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위기 속에서 기적을 움트게 한 걸까. 이번엔 다음카카오가 ‘스토리펀딩(Story funding)’을 통해 유진이 소식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 27일 시작된 ‘기적을 품은 아이들’ 펀딩은 여러 분야의 펀딩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을 받으며 이틀 만에 목표 모금액의 45%를 달성했다(storyfunding.daum.net/episode/16850). 모금된 후원금보다 더 눈에 띄는 건 300명이 넘는 후원 참가자들의 응원 메시지였다. ‘아줌마의 아들도 유진이와 같은 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기적처럼 잘 생활하고 있어. 기적을 믿고 함께 기도하자.’ ‘유진아 포기하지 않는 너의 모습에 정신을 차렸어. 희망을 줘서 고마워.’ ‘끝까지 포기하지 마. 유진 어머님 힘내세요.’ ‘얼른 시 잘 쓰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길 응원할게.’ 진심을 담은 격려가 줄을 이었다. 밤새 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 집사는 “유진이와 제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가 됐다”고 했다. 그러곤 “오늘 밤엔 응원글을 하나하나 유진이 귀에 들려줄 것”이라고 했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는 “<span class='quot1'>국내 중증장애아동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 가정 출신이어서 부모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span>”고 현실을 전했다. 이어 “수술이나 치료만으로 장애아동이 비장애인이 될 순 없지만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건강악화를 막는 게 기적의 출발점”이라며 “위로와 격려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심어주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스토리펀딩스토리펀딩은 뉴스 콘텐츠를 넘어 캠페인 출판 음악 영화 신기술 이슈 등을 주제로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자금제공(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 생태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창작자와 후원자를 연결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줌으로써 후원자 또한 창작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1년 동안 900여명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로 풀어냈으며 26만7000여명의 후원자들이 동참해 83억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아졌다. 캠페인 분야 스토리펀딩은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의 현실,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외국인 노동자가 당면한 위기, 위안부 할머니를 향한 응원, 임금체불 아르바이트 직원 돕기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단면을 보여주고 후원자들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응원하는 도구가 돼준다. 특히 후원과 함께 댓글로 전달되는 응원 메시지는 수혜자들에게 물질후원만으론 체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 같은 경험은 ‘불가능’ ‘포기’란 단어에 익숙해져 가던 수혜자들의 삶을 ‘희망’ ‘용기’로 전환시키며 감동을 주고 있다.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txt

제목: [2016 한국교회 10대 뉴스] (3) 성도들도 촛불 들고 광장으로… 시국기도회로…  
날짜: 201612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29201950001  
본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후 주요 교단과 단체, 교회 등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촛불을 들고 직접 광장으로 나간 이들도 많았다. 이들은 촛불 집회 참석이 “정의를 물 같이”(암 5:24)라는 말씀의 실천이라고 여겼다. 혼란스런 시국의 수습과 안정을 위해 기도한 교인들도 적지 않았다. “<span class='quot0'>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span>”(빌 4:6)는 말씀에 따라 각자의 처소에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에 매진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txt

제목: [2016 국민일보 올해의 책] 신앙 기본에서 역사까지… 책에서 만나는 하나님  
날짜: 20161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28214929001  
본문: 기독교 부문 올해의 책 12권 중 최고의 책으로 뽑힌 ‘한나의 아이’를 제외한 11권을 소개한다. 아울러 간단한 책 내용과 추천자의 한줄 평을 싣는다.하나님의 아이들 이야기 성경(데스몬드 투투 지음)은 아프리카 인권운동의 정신적 지주인 노벨평화상 수상자 데스몬드 투투 영국 성공회 대주교가 가장 아끼는 성경 이야기 56편을 들려준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span class='quot0'>손주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할 수 있는 멋진 책</span>”이라고 했다. “<span class='quot1'>성경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맘껏 펼칠 수 있다.</span>”(이재원 선율 대표) “<span class='quot1'>아이는 아이의 눈으로, 어른은 아이의 눈으로 돌아가 성경 이야기를 익히게 해준다.</span>”(민경찬 비아 편집장)원 스텝 포워드(박정호 지음)는 짝사랑에서 고백까지 한 남자 청소년의 내면을 정교하게 묘사한다. “<span class='quot1'>누군가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 졸이는 청소년들이 읽는다면 고민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이다.</span>”(이용상 기자)결혼을 배우다(이요셉 지음)는 사진작가인 저자가 아내와의 결혼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백하게 전한다. “<span class='quot1'>둘이 한몸 되어 배우는 신앙훈련으로서의 결혼을 잔잔하지만 역동적으로 서술한다.</span>”(안성우 일산 로고스교회 목사) 어떻게 믿을 것인가(김형석 지음)는 노학자의 시선으로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조망해볼 수 있다. “<span class='quot1'>신앙의 기본을 잘 알려준다.</span>”(시인 용혜원 목사)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유석경 지음)는 지난 3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암 치료를 거부하고 말씀을 전한 유석경 전도사의 유고집이다. “책 속의 문자를 믿음으로 살아낸 저자. 그의 살아있는 믿음의 이야기이다.”(조형준 SFC출판부 간사)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팀 켈러 지음)은 탕자의 비유에 새롭게 접근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span class='quot1'>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span>”(한재욱 강남비전교회 목사) “<span class='quot1'>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span>”(안성우 목사)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지음)는 오늘날의 교회가 기독교의 ‘기둥’이 되는 언어인 ‘죄, 참회,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섬세하게 묘사한다. “<span class='quot1'>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신앙의 알맹이들을 확인시켜준다.</span>”(김도완 포이에마 대표) 한국기독교 흑역사(강성호 지음)는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기독교의 어두운 역사를 파헤쳤다. “<span class='quot1'>교회 안의 어두움을 속속들이 까발리는 불편한 책, 그러나 이 책을 통과해야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span>”(김기현 로고스서원 대표) “<span class='quot1'>한국교회의 긴 그림자에 대한 뼈아픈 고발, 개혁은 역사적 성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운다.</span>”(고재백 기독인문학연구원 대표) 신학공부, 나는 이렇게 해왔다(김남준 지음)는 목회와 공부에 정진해온 저자의 체험과 지혜가 녹아 있다. “<span class='quot1'>바람직한 목회 방향을 제시해준다.</span>”(한상인 광주순복음교회 목사) “<span class='quot1'>경건과 학문은 어떻게 함께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노목회자의 필생의 역작.</span>”(진짜배기 블로그)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케네스 E 베일리 지음)는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초대 교회사를 분석한다. 성경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어준다. “<span class='quot1'>성경의 땅에서 본 깊고 풍부한 예수 탐구서.</span>”(김아진 규장 실장) “<span class='quot1'>그 시대와 배경 속으로 들어가 성경을 볼 수 있다.</span>”(강신욱 남서울평촌교회 목사) 기독교의 발흥(로드니 스타크 지음)은 초대교회가 널리 전파된 이유를 탐색한다. “<span class='quot1'>우리를 초대교회의 신앙과 헌신으로 초대한다.</span>”(김기현 대표) 노희경 강주화 김아영 기자좋은 책을 내고 추천해주신 기독교 출판사와 번뜩이는 한줄 평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올해의 책’ 부문별 후보 60권 \*붉은색 글씨는 ‘올해의 책 12권’어린이·청소년하나님의 아이들 이야기 성경/데스몬드 투투 지음(옐로브릭)원 스텝 포워드/박정호 지음(홍성사)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나/양승현 글·김보밀 그림(소원나무)컬러 스토리 바이블/마티 마쵸스키 지음(주니어아가페)예수님과 함께 노래해요/김민아 지음(이야기출판사)루터와 이발사/R C 스프로울 지음(IVP)와이즈 워드/피터 J 레이하르트 지음(세움북스)버들부인과 아들/유준경 지음(홍성사)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구원/칼 라퍼튼 지음(생명의말씀사)청소년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박양규 지음(새물결플러스)만화 중세교회사 1·2/서요한 지음(부흥과개혁사)우리아이 처음 ABC/케네스 N 지음(토기장이)일반신앙 (국내)결혼을 배우다/이요셉 지음(토기장이)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유석경 지음(규장)어떻게 믿을 것인가/김형석 지음(이와우)잊지 않았다/케네스배 지음(두란노)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김영봉 지음(IVP)세상에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김기석 지음(꽃자리)엄마는 오늘도 소금땅에 물 뿌리러 간다/최유진 지음(홍성사)특강 종교개혁사/황희상 지음(흑곰북스)여성이 만난 하나님/강호숙 지음(넥서스크로스)21일 동행 기도/무명의 기도자 지음(국민북스)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원석 지음(두란노)나만의 성경/박대영 글·이소연 그림(선율) 일반신앙 (국외)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팀 켈러 지음(두란노)한나의 아이/스탠리 하우어워스 지음(IVP)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지음(비아)선하신 하나님/마이클 리브스 지음(복있는사람들)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고든 맥도날드 등 지음(국제제자훈련원)은혜 받는 습관/데이비드 마티스 지음(생명의말씀사)불변의 소망/리 스트로벨 지음(두란노)하나님 나라의 비밀/스캇 맥나이트 지음(새물결플러스)오늘부터, 다시, 기도/도널드 휘트니 지음(복있는사람)아름다운 노년/제임스 패커 지음(디모데)어둠 속의 비밀/프레드릭 비크너 지음(포이에마)오직 예수/라비 재커라이어스 지음(두란노)목회신학 (국내)한국기독교 흑역사/강성호 지음(짓다)신학공부, 나는 이렇게 해왔다/김남준 지음(생명의말씀사)데칼로그/김지찬 지음(생명의말씀사)마가복음·마태복음 뒷조사/김민석·김영화 지음(새물결플러스)톰 라이트 칭의론 다시 읽기/박영돈 지음(IVP)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옥성득 지음(새물결플러스)리폼처치/이상훈 지음(교회성장연구소)해방신학 이야기/홍인식 지음(신앙과지성사)세상에 없던 교회/김태헌 지음(와웸퍼블)달동네 울보목사/호용한 지음(넥서스크로스)오두막/이재영 지음(IVP) 교회의 윤리 개혁을 향하여 공공신학과 교회 윤리문시영 지음(대한기독교서회)목회신학 (국외)기독교의 발흥/로드니 스타크 지음(좋은씨앗)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케네스 E 베일리 지음(새물결플러스)팀 켈러의 센터처치/팀 켈러 지음(두란노)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제임스 스미스 지음(IVP)팀 켈러의 설교/팀 켈러 지음(두란노)기억의 종말/미로슬라브 볼프 지음(IVP)하나님을 향한 열정/A W 토저 지음(규장)목회자란 무엇인가?/케빈 벤후저 등 지음(포이에마) 창조론자들/로널드 L 넘브스 지음(새물결플러스) 구약의 종말론/게하더스 보스 지음(좋은씨앗)성경과 편견/랜돌프 리처즈 등 지음(성서유니온선교회)NIGTC요한계시록/그레고리 K 비일 지음(새물결플러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txt

제목: 평택 ‘호스피스 가족의 밤’ 열려… 지역 목회자 등 100여명 참석  
날짜: 20161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27212308002  
본문: 평택호스피스(대표회장 박종승 목사)는 26일 경기도 평택대광교회(배창돈 목사)에서 ‘제16회 호스피스 가족의 밤’ 행사를 열었다(사진). 지역 목회자들과 호스피스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표회장 박종승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에선 한국교회호스피스 전인치유협회장 박남규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평택굿모닝병원 오준근 행정원장과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김향순 회장은 각각 축사했다. 박 대표회장은 호스피스 부설로 설립하는 ‘상치모’에 관한 설명회도 가졌다. 그는 “상치모를 통해 초기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며 남은 생을 의미 있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txt

제목: ‘암 혈관 안정화 유전자’ 발견, 항암 치료법 개발 도움 기대  
날짜: 20161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25213237001  
본문: 암은 빠른 성장과 전이를 위해 영양 공급로인 혈관을 스스로 만든다. 하지만 암세포가 만드는 주변 혈관의 구조와 기능은 정상 조직의 혈관보다 불안정하다. 따라서 항암제를 투여해도 암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항암 효과가 떨어진다. 이 때문에 암 혈관을 정상화해 항암 효과를 높이려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연세대 생화학과 권영근(사진) 교수팀이 이런 암 혈관 안정화에 핵심 역할을 하는 특정 유전자(CLEC14A)를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진은 CLEC14A의 정확한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이 유전자만 없는 돌연변이 쥐를 만들고 여기에 암세포를 심었다. 돌연변이 쥐의 암세포 주위에 형성된 혈관은 일반 암 혈관보다 더 가늘고 벽에 틈이 많은 등 구조가 불안정했다. 또 돌연변이 쥐가 암 혈관의 구조 이상으로 과다 출혈을 일으켜 죽는 경우도 많았다. CLEC14A가 있어야 암 혈관의 구조가 유지됨을 알 수 있다. 권 교수는 “<span class='quot0'>새로운 항암 치료법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span>”라면서 “<span class='quot0'>특히 비소세포성 폐암, 신장암 등 치료법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학술지 ‘임상연구저널’ 온라인판 최신호에 실렸다.민태원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txt

제목: 혼술族 급증… 20∼40대 66%가 경험  
날짜: 20161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24000248001  
본문: 혼자 술 마시는 사람들, 혼술족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혼술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40대 중 최근 6개월 내에 술을 마신 적이 있는 2000명을 조사한 결과 66.1%가 혼술 경험이 있다고 23일 밝혔다. 4명 중 1명은 6개월 전보다 혼술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식약처는 “<span class='quot0'>1인 가구가 급증하며 의식주를 혼자서 해결하는 생활상이 음주문화에도 반영됐다</span>”고 풀이했다.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102만 가구에서 지난해 520만 가구로 늘었다. 혼술 경험자 중 55.8%는 함께 마실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음주했다. 대부분 혼자서는 술을 마시는 양이 줄고, 57.1%는 혼자 있을 때 맥주 등 도수가 낮은 술을 마신다고 답했다. 37.9%는 반대로 WHO(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고위험음주량 이상을 마셨다. 여성이 40.1%로 남성 36.1%보다 비율이 높았다. 식약처는 “<span class='quot0'>혼자 마시면 음주량을 자제하기 어렵고 자주 마실 수 있으므로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체크해 건강한 음주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고 밝혔다. 혼술 이유는 ‘편하게 마실 수 있어서’가 62.6%로 가장 많았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거나 ‘함께 마실 사람이 없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가 뒤를 이었다. 서울대 의대 박상민 교수는 “<span class='quot1'>사회생활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지만, 혼자 마시는 분들이라면 알코올 의존이나 중독일 가능성이 크다</span>”며 “<span class='quot1'>적절한 소량의 음주는 심혈관계에 약간의 보호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위암 유방암 대장암 등 암의 경우는 소량이라도 마시는 양에 비례해 위험이 증가한다</span>”고 경고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스트레스는 음주보다 운동이나 음악 감상 등으로 푸는 게 좋다</span>”며 “<span class='quot1'>맥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당분이 없는 시원한 탄산수 등으로 대체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10명 중 7명꼴(69.4%)로 연말 송년회 계획이 있었다. 송년회의 93.2%는 술이 함께 한다고 했다. 2차 이상 마시겠다는 사람은 57.3%, 3차 이상은 11.4%였다.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txt

제목: “후두암·폐암 경고 사진 섬뜩… 금연 생각 절로 들어”  
날짜: 20161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24000248002  
본문: 금연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처음 판매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편의점에는 새 담뱃갑 20여개가 진열돼 있었다. 1시간 남짓 지났지만, 아직 한 갑도 팔리지 않았다. “어, 진짜 나왔네.” 한 50대 남성은 담뱃갑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후두암 폐암 구강암 등의 적나라한 사진이 붙은 끔찍한 경고문이다. 다른 끽연가들도 힐끗힐끗 담배 진열대를 보면서 흠칫 놀라는 눈치였다. 비흡연자들 역시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아이와 음료수를 사러 편의점에 들른 김모(33·여)씨는 “뉴스를 보긴 했는데 저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며 “계산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편의점에도 경고그림이 그려진 담배 12갑이 진열됐다. 오후 2시까지 판매된 경고그림 담배는 4갑. 흡연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30년 동안 하루 1갑씩 담배를 피웠다는 양모(51)씨는 “<span class='quot0'>실제로 보니 심각한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span>”며 “<span class='quot0'>흡연자 대부분은 끊고 싶어도 못 끊는데 이걸 보고 더 스트레스를 받겠다</span>”고 말했다. 동네 주민 하모(41)씨는 “경고그림을 보니까 20년 동안 피운 담배를 끊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며 “항상 금연하고 싶었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고그림 담뱃갑은 서울역 인근 편의점 담배진열대에도 등장했다. 홍콩에서 온 웡추엔웡(24)씨의 손에는 홍콩에서 가져온 담배와 이곳에서 산 담배가 들려 있었다. 홍콩의 경고그림은 더 크고 더 잔혹하다. 웡씨는 “경고그림은 담배를 시작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 효과가 크다”며 “한국도 홍콩의 경고그림처럼 단순하고 직관적이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콩은 2007년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은 이래로 흡연율이 5.4% 감소했다. 한 편의점에서는 담뱃갑 하나가 잠시 진열대에 거꾸로 놓여 경고그림이 가려지기도 했다. 직원이 평소 습관대로 담배를 놓다 실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진열대에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고그림이 없는 기존 담뱃갑을 앞에 세워두거나 스티커 등으로 가리는 일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담뱃갑의 앞뒤 상단 절반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표기했다. 그림은 3가지 암 외에도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사망 등을 경고하는 10가지다. 기존 담배 재고가 소진되는 다음달 중순부터 시중의 모든 진열대에 세워진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span class='quot1'>경고그림이 단기간에 큰 성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청소년과 여성이 폐암과 후두암 등이 그려진 담뱃갑을 보면 예방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태국 같은 금연 선진국들은 경고그림과 문구가 합해서 85%를 넘는데 우리도 그림을 더 키워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김동우 최예슬 기자 love@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txt

제목: ‘32년 흡연’ 구강암 환자 “혀 ⅓ 잘라내… 울면서 밥먹었어요”  
날짜: 2016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23000320002  
본문: “<span class='quot0'>구강암 판정을 받자 인생이 끝나나보다 싶었습니다.</span>” 증언형 TV 금연광고 모델인 임현용(가명·55)씨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회한을 털어놨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어른이 됐다는 우월감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32년 동안 끊지 못했다. 임씨는 두 자식과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 농사일과 막노동을 하면서 매일 한갑반씩 줄담배를 피웠다. “<span class='quot0'>일하다가 힘들 때 피우고, 잠시 끊었다가도 술 마시면 다시 피우게 됐다</span>”고 그는 말했다. 올해 4월 침을 삼키면 목이 아프고 쉰 소리가 나와 병원을 찾았다. 구강암이었다. 임씨는 혀 3분의 1과 임파선을 잘라내야 했다. 허벅지 살을 떼어 그곳에 붙였다. 3개월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구내염이 생겨 음식을 삼키기도 힘들었다. 그래도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눈물 젖은 밥을 먹어야 했다. 집안에 암에 걸린 이가 하나도 없어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그였다. “<span class='quot0'>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span>”며 걱정하는 가족을 보는 게 괴로웠다. 형제자매들이 치료비를 보탰고 최근에는 통원 치료를 받으며 조그만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임씨는 자신과 같이 고통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광고 출연을 결심했다. 그는 인터뷰 중 책상 위로 떨어지는 침을 휴지로 닦아내며 “<span class='quot0'>흡연은 질병이고 치료는 금연</span>”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담배 생각이 나면 사람도 아니다</span>”며 “<span class='quot0'>인생을 되돌린다면 두 번 다시는 담배를 안 피우겠다</span>”고 말했다. 임씨의 아내는 인터뷰 내내 옆자리를 지켰다. 가족도 그의 광고출연을 존중했다. 보건복지부는 임씨가 등장하는 금연광고를 이날 오후 7시부터 내보냈다. 2002년 코미디언 고 이주일씨가 출연한 영상 이후 14년 만에 만든 금연 광고다. 복지부는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표기한다. 경고그림이 담긴 담배 진열을 가리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은 올해 중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 GS25 서울역점과 영등포구 세븐일레븐 여의점 등 6곳 편의점에서부터 경고 그림이 붙여진 담배가 판매된다. 복지부는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1월 중순부터 시중에 이 담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span class='quot1'>흡연과 금연 경험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생활 속의 금연 문화가 퍼지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txt

제목: 암 발생률 3년 연속 줄고 5년 생존율 70% 넘어  
날짜: 2016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21040120001  
본문: 국내 암 발생률이 2012년부터 3년 내리 감소했다. 암 환자가 일반인처럼 5년 이상 살 상대 생존율은 계속 높아져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4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신규 발생 암 환자는 21만7057명(남성 11만2882명, 여성 10만4175명)으로 전년(22만7188명)보다 1만131명(4.5%) 줄었다.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전국 암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연평균 3.6%씩 증가했다. 하지만 2012년 10만명당 323.3명으로 처음 감소한 뒤 2013년(314.1명)에 이어 2014년(289.1명)까지 내림세다. 2014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3만806명)이었으나 전년보다 28.1%(1만2017명) 줄어 전체 암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과도한 초음파 검사를 통한 갑상샘암 발견과 수술 건수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가 검진사업 대상인 대장·위·간의 암 발생도 전년보다 각각 3.2%(892명), 1.6%(474명), 1.0%(166명) 감소했다. 반면 췌장암 7.3%(403명), 유방암 5.7%(983명), 담낭 및 기타 담도암 4.9%(261명), 폐암은 2.7%(62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위·폐·대장·간·전립선 순으로 암이 많이 발생했고 여성은 갑상샘·유방·대장·위·폐 순이었다.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1'>남성은 2013년과 비교해 폐암이 3위에서 2위로 한 단계 올랐고 대장암은 2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span></span>”면서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1'>대장암의 순위 하락은 대장내시경 검진으로 암 전 단계인 용종(폴립) 제거가 활발히 이뤄진 덕분으로 추정되고, 폐암의 순위 상승은 흡연과 연관 있다</span></span>”고 설명했다. 기대수명까지 살 경우 남성(79세)은 5명 가운데 2명, 여성(85세)은 3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2010∼2014년 진단된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3%였다. 2006∼2010년 진단 암 환자(65.2%)보다 5.1% 포인트 향상됐다. 갑상샘암(100.2%), 전립선암(93.3%), 유방암(92%) 환자의 상대생존율이 높았다. 췌장암(10.1%), 폐암(25.1%), 간암(32.8%)은 낮았다. 1999∼2014년 암을 경험한 사람은 146만4935명으로 전체 인구의 2.9%였다.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txt

제목: 보험료 25% 저렴한 ‘착한 실손보험’ 나온다  
날짜: 2016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21000212002  
본문: 보험료가 25% 가량 싼 실손의료보험(가칭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 나온다. 보험료를 낮춘 대신 도수치료(카이로프랙틱), 체외충격파치료, 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를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을 받으려면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고, 보험료도 비싼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해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연간 보험료 할인제도’도 도입된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국민의 약 65%(3296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정은보 부위원장은 “<span class='quot0'>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span>”고 밝혔다. -새로운 상품은 기존 상품과 비교해 뭐가 다른가. “보험사들은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기본형+특약’으로 나눠서 판매해야 한다. 기본형은 5가지 진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질병·상해치료를 보장한다. 5가지 진료에 대해 보장을 받고 싶다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특약은 모두 3개다. 특약①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②는 비급여주사제, 특약③은 비급여 MRI 검사를 보장한다.” -‘기본형’만 선택했을 때 보험료는. “약 25%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40세 남성의 경우 기존에 월 1만9429원인 보험료가 1만4309원으로 26.4% 낮아진다. 특약 세 가지에 모두 가입해도 보험료는 싸진다. 40세 남성이 ‘기본형+특약①②③’에 가입했을 경우 월 보험료는 1만8102원으로 기존 대비 6.8% 저렴하다.” -특약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나. “특약의 자기부담률은 30%에 이른다(기본형의 자기부담률은 20%).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자기부담률(비급여)은 20%다. 또 각 특약의 연간 누적 보장한도를 조정했다. 특약①은 350만원, 특약②는 250만원, 특약③은 300만원이 한도액이다. 연간 보장횟수는 특약①과 특약②는 최대 50회로 제한한다.” -연간 보험료 할인은 어떻게 받나.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해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할인 대상인지를 가릴 때 급여항목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된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 필수 진료까지 꺼리지 않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할인제도 적용대상은 내년 4월 이후 새로운 실손보험의 신규 가입자다.” -사망보험이나 암보험 등에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끼워 파는 관행도 사라지나. “끼워 팔기는 2018년 4월부터 금지된다. 이때부터 실손보험은 기본형과 특약 3가지로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만 팔 수 있다. 금융위는 이미 특약 형태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금 청구나 가입 절차도 바뀌나. “금융위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와 연계해 내년 중에 온라인 전용상품을 모든 보험사가 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중에 모든 보험사가 회원 가입이 필요 없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 서류의 사본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글=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txt

제목: 내년 2월부터 중증질환자 수면내시경 건보 적용  
날짜: 2016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20190136001  
본문: 내년 2월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 질환자가 위·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수면 유도제를 사용하는 61개 내시경 진단 검사와 치료 시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진정의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하기로 했다. 진단 목적 수면내시경은 4대 중증 질환자에, 종양이나 이물(異物) 제거 등 치료 목적 내시경은 전체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으면 현재 평균 6만1000∼10만3000원 정도 드는데 건보가 적용되면 4300∼4700원만 내면 된다. 또 내시경으로 종양을 없애는 치료를 받을 때 20만4000∼30만7000원을 내야 하는데 4대 중증 환자는 6300원, 일반인은 7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1'>단, 건강검진 일환으로 받는 위·대장 수면내시경은 지금처럼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span></span>”고 말했다. 또 국내 19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장재활치료와 희귀난치병인 ‘선천성 메틸말론산혈증’, ‘비타민B12결핍증’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건보 보장으로 연간 100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민태원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txt

제목: [가정예배 365-12월 20일] 장막의 터를 넓히라  
날짜: 20161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9210313001  
본문: 찬송 : ‘내 맘이 낙심되며’ 300장 (통 406) 신앙고백 : 사도신경 본문 : 이사야 54장 1∼10절 말씀 : 본문은 성공과 먼 거리에서 낙심하며 사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사의 특징들 중 하나는 마음먹은 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는 대충만 해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것에는 심혈을 기울여도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인생에는 한편으로 성공과 성취가, 다른 한편으로 실패와 좌절이 늘 되풀이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며 소박맞은 여인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현재와 미래가 캄캄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를 내다보게 했습니다.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라고 해야 할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우선 ‘장막터를 넓히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너진 장막(암 9:11)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인 만남 및 교제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장막이란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회막)입니다(출 30:16).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모두 교회(신앙인)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건강한 영향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표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라는 말씀에서 ‘거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세상을 섬기는 사람, 교회에 찾아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전에도, 쓰임 받는 과정에서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 하나님 쓰시기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8∼29) 물론 하나님은 실패자라고 무조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자신이 실패자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데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순간 그는 순식간에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게’ 됩니다(4절).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넘어진 채 살아가는 인생에 안식처(하나님의 장막)가 되셨습니다. 재기의 터전이 되셨습니다.기도 :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사 54:10)고 말씀하신 하나님, 생활 터전이 흔들리고 나라의 기초가 요동치는 시대에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주기도문정현진 목사(서울 수도교회)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원자력병원 스마트 암 진료 ‘2회 연속 우수내시경실 인증 획득’  
날짜: 2016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8204508002  
본문: 한국인은 위암과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이다. 전문가들은 위·대장 내시경만 잘 받아도 전체 암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이에 위암과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시경은 한 개의 긴 관 형태로 맨 앞부분에 카메라가 있어, 의사는 내시경을 환자 몸속에 넣어 카메라가 보내주는 화면을 외부 모니터를 통해 보고 장기의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실시간으로 환자 몸속 상태를 의사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시경은 암이 의심되는 혹이나 조직을 특수기구로 바로 떼어낼 수도 있어 암을 찾아내는 가장 확실한 검사법이다. 원자력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는 우수한 전문인력과 철저한 감염관리, 그리고 체계화된 시스템 운영으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들은 좁고 어두운 인상을 주는 다른 병원들의 소화기내시경실과 달리 입구 및 대기실이 넓고 환해 시술에 대한 두려움을 덜 수 있고, 검사실과 회복실을 독립적으로 배치해 편안한 환경에서 시술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2012년에 이어 시설 및 장비의 엄격한 소독과 감염관리, 내시경 시술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바탕으로 3년 주기로 평가하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획득했다. 원자력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는 소화기내시경 전문의가 직접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비롯해 다양한 양질의 내시경검사 및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캡슐 내시경은 환자가 알약처럼 작은 크기의 캡슐 내시경을 삼키면 몸속 소화기관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은 환자가 허리에 차고 있는 기록 장치로 전송되어 의사는 그 영상을 바탕으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한다. 관의 길이와 움직임이 한정돼 있는 소장 등의 장기를 진단하기에 좋다.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은 내시경과 방사선투시기를 동시에 이용한 시술로, 십이지장까지 내시경을 삽입하고 십이지장 유두부를 통해 담관과 췌관에 조영제를 주입시켜 질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필요시 조직검사, 담석제거, 담즙배액 등의 치료도 할 수 있어 유용하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은 위장 주변 림프절에는 전이되지 않고 점막에만 국한돼 있는 20mm 이하의 조기 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시경을 통해 위암 병변의 바로 아래쪽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해 위 점막을 부풀린 후 특수기구로 위암 조직만을 도려내는 치료법이다. 조건이 맞아야만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이지만, 최대한 위를 보존할 수 있고 개복수술을 하지 않아 회복기간도 빠르며 비용도 저렴해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김진 소화기내시경센터장은 “<span class='quot0'>40세 이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하고, 속쓰림, 소화불량 등 애매한 소화기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전문의의 진찰을 꼭 받아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내시경은 정확한 진단만큼 감염질환 전파방지를 위한 세척과 소독 등이 중요하므로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받은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txt

제목: [토론회] HIV 감염인 관리 어떻게 “사회적 편견 해소위한 전방위 노력 절실”  
날짜: 2016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8203853001  
본문: 쿠키뉴스는 지난 6일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관리'를 주제로 34회 고품격 건강사회만들기 방송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차원의 올바른 'HIV감염 관리 대책'을 모색했다. ◇주제=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관리 ◇일시=2016년 12월 6일 오후 2시 ◇참석자=송석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김성남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과 연구원, 진범식 대한에이즈학회 총무이사, 홍희윤 국립중앙의료원 에이즈 상담 전문간호사 ◇진행=원미연 쿠키건강TV 아나운서 ◇연출=이지현 쿠키건강TV PD ◇방송=쿠키건강TV 19일 오후 7시20분 -HIV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모두 에이즈에 걸리는 것인가. ◇진범식=HIV와 에이즈는 다른 것이라고 보면 된다. HIV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서 면역기능을 관장하는 세포를 공격해 면역기능이 저하가 된다. 이에 여러 가지 감염이나 암이 발생하는 것을 ‘에이즈’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이라고 지칭한다. 과거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을 때에는 HIV에 감염이 되면 모두 에이즈로 진행했지만, 현재는 조기 진단이나 적절한 치료법을 통해 면역기능을 잘 유지하면 에이즈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에이즈 신규환자가 증가 추세인데◇김성남=2015년 유엔에이즈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생존 HIV 감염인은 약 3670만명이다. 이 중 1820만명(2016년 2월 기준)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라는 것은 신규 감염인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기준으로는 약 210만명의 신규 감염인이 발생해 약 220만명이었던 2010년과 비교해 6% 감소했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만 신규 감염인이 증가한다는 보도도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동유럽 등도 증가세다. -에이즈의 치료법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 ◇진=HIV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HIV 바이러스 증식이나 그에 따른 면역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세 가지 약제를 복용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발전이 되면서 면역상태 저하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치료가 자리를 잡았다. 최근에는 약물의 부작용이나 복용 방법을 편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약제가 개발되면서 하루 한 알만 복용하면 되는 약들이 도입돼, 치료 문제는 상당히 해결됐다. 오히려 질병으로만 보면 당뇨보다는 HIV가 덜 아픈 것 같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진단된 모든 HIV 감염인에게 약제 복용을 권고하고 있다. 면역기능 저하와 관계없이 HIV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약을 복용하는 것이 감염인의 장기 생존이나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WHO에서도 모든 감염인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하는 것을 전세계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김=1985년 국내 최초로 HIV 진단을 받은 감염인도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 HIV 감염인도 약을 꾸준하게 복용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HIV는 치료비 지원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김=국가에서 감염인 진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HIV감염은 희귀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9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10%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한다.◇송석준=지난 5년간 정부가 시행하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사업 대상자 수는 3배 늘어난 데 비해 지원액은 제자리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진=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과거부터 HIV 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진행돼 왔다. 다만 진료 현장에서 보면 급성기 치료가 끝난 감염인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요양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환자분, 의료진들이 선뜻 이들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전문요양병원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이에 대한 견해는◇진=전문요양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장단점이 분명 있다. 비용에 대한 논의는 물론, 수요가 있는 분들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딜레마가 발생될 수 있다. HIV는 만성질환이라고 설득하지만, 현재 있는 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별도의 전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회의적이다.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김=우리나라는 에이즈라는 질환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에이즈 환자만 모여 있는 요양전문병원을 특정 지역에 설립하기 어렵기도 하다. 일반요양병원에 다른 환자들이 같이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 외의 지원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HIV는 조기진단과 예방이 감염 확산을 해결하는 열쇠라는데 ◇홍희윤=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보건소나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검사 하고 있다. 그나마 젊은 친구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은 키트 검사기를 사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피하는 실정이다. ◇김=우리나라는 전국 255개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30% 이상의 보건소에서 신속검사를 도입, 10분 미만 시간을 들여 확인할 수 있다. ◇진=최근 대한에이즈학회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출 전 예방요법(PrEP) 진료지침을 마련했다. ‘노출전 예방’이라는 것은 과거 치료제로 사용하던 약을 비감염인이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게 약제를 복용하게 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에이즈는 완치법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곧 예방이다’라는 개념이 있다. 진단된 모든 감염인들한테 효과적으로 약을 복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방 목적으로 치료제를 투약을 하는 것이다. 실제 HIV에 감염되지 않은 감염인의 배우자가 약제를 복용하게 되면 전파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이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치료뿐 아니라 예방까지 가능한 항바이러스제를 활용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송=잠재적으로 확산성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감염인은 물론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과 치료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희윤=예방약의 도입은 분명 필요한 상황이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치료 목적으로 처방 받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이 되어 비용 부담이 덜한데, 아직 예방약으로는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김=정부에서도 ‘PrEP’라고 하는 ‘HIV 노출 전 예방요법’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정책연구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라서 대한에이즈학회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해서 국내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실행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급여화 문제는 남아 있다. 정책연구용 사업 결과에 따라서 급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다고 들었다.◇홍=환자들은 일단 진단을 받고 나서 내가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가족이나 친구들이 알지 않을까 등 다양한 걱정과 불안이 있다. 이로 인해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근본적으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인식개선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김=일반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 사업을 하고 있다. 민간단체 사업도 활용을 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하는 홍보캠프를 통해서 ‘에이즈 바로알기 캠페인’도 계속 펼치고 있다.◇진=여전히 편견이나 낙인 때문에 환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병은 한 번 걸리면 만성적으로 유지되고 단기간 내에 완치법이 나오기 어려워 새로운 감염인이 발생하면 30∼40년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추가적인 감염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데에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송=정치권에서도 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보겠다. 이들을 사회가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 예방을 위한 급여 문제는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은. ◇홍=사회적인 편견과 더불어 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진료거부 등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소외되신 분들인데, 믿고 온 병원에서 의료진의 태도로 인해 상처를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 의료 환경 내의 인식 개선도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진=감염인들과 고위험군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의료진이나 환자 단체끼리도 공감대를 넓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인식부터 넓혀가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송=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에 대해 단순히 비용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와 국회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김=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HIV유병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다. 이번 6월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2030년까지 HIV 유행을 종식하자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동참할 것이다. 특히 HIV 노출 전 예방요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정리=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txt

제목: [암과의 동행] 대상 2명중 1명 “암 검진 싫어요”  
날짜: 2016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8203238001  
본문: 2014년 주요 사망원인으로 암(악성신생물)이 1위에 올랐다. 201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명 당 7만6611명(사망률 150.9%)에 달했다. 때문에 보건당국이 암 사망률 감소 및 조기치료를 위해 국가암검진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검률이 낮아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5대 암 전체 수검률은 48.3%에 불과해 검진 대상자 2명 중 1명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수검률을 보면 2011년 50.1%였는데 2012년에는 대장암 검진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며 39.4%로 크게 하락했다. 이후 2013년 43.5%, 2014년 45.8%, 2015년 48.3%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5대 암종별 수검률을 보면 2015년 기준 전년대비 △간암 2.5%포인트(55.3%) △위암 2.3%p(57.2%) △자궁경부암 2.2%p(54.2%) △대장암 1.7%p(34.2%) △유방암 1.5%p(60.8%) 증가했다. 2010년 대비해서는 2015년 위암은 12.5%p 간암 9.2%p, 유방암 9.4%p, 자궁경부암 13.9%p 증가했다.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불편함과 검진의 실효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2015년 암검진 수검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암 권고안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건강하기 때문’(42.2%)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는 암검진을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치료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에 인식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3.4%)와 ‘검사과정이 힘들어서’(16.1%) 등 암검진이 불편하다는 답변도 약 40%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부 관계자는 “(수검률이 낮은) 주원인은 대장암 때문이다. 분변검사의 경우 50세 이상에서 매년 해야 하는데 검사가 불편하기 때문에 30%대 밖에 안 된다”며 “현재 수검률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검진항목이나 방법을 암센터에서 제시하는데 대장암검진의 경우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 5년간은 분변검사가 필요 없다고 나와 실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까지 62.89% 국가암검진 수검률 달성을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3차 계획에서는 국가암검진의 한계를 되짚었는데, 권고안 개정체계 미비에 따른 신규 암종 검진의 추가 요구에 대한 대응 미흡이 지적됐다. 또한 유소견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확진검사의 연계도 미흡했고, 검진 인력 대상 교육의 참여율도 저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주요 추진과제로 암 사망자 중 비중이 높은 폐암에 대해 고위험흡연자(55∼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자 또는 금연 15년 이내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기검진(저선량CT)을 도입해 생존율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민간병원 순으로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소견자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위암과 대장암 검진프로그램에서만 시행 중인 확진검사비용 지원이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확대된다. 이상소견 발견 시 결과상담과 추가검사 안내 등을 수행하고, 의심으로 판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진검사 필요성 및 지원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암검진 체계도 고도화된다. 암검진 ‘근거평가연구센터’ 및 ‘권고안 제·개정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암검진의 근거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논란이 많은 검진기관 및 전문인력의 질적 강화에도 나선다. ‘국가암검진 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국가암검진 질 지침 개발, 질 지표(정확도, 양성률, 2차 검사율 등) 산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txt

제목: [질환 통계-폐암] 암 발생 4위…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아  
날짜: 2016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8200739002  
본문: 새해를 앞두고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흡연은 모든 암의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폐암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한 암은 22만5343건으로 그 중 폐암은 남녀를 합쳐 2만3177건(전체 암 발생의 10.3%)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해당 관찰 기간 중 대상 인구 집단에서 새롭게 발생한 환자 수)은 45.8건이었다. 성별로는 남성(1만6171건, 남성 암 중 3위)이 여성(7006건, 여성 암 중 5위)에 비해 2.3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37.2%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6.4%, 80대 이상이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암종 중에서는 선암이 42.4%로 가장 많았고, 편평상피세포암이 23.5%, 소세포암이 10.7%를 차지했다. 폐암의 경우 다른 암에 비해 사망률이 2014년 19.1%로 2위 간암(13.8%)에 비해 5%포인트 이상 높았다. 사람 가슴의 중심에서 약간 왼쪽 앞부분에 심장이 있고, 나머지 공간의 대부분을 좌우 두 개의 폐가 차지하고 있다. 폐암은 폐 자체에서 발생하거나(원발성 폐암)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폐로 전이돼 발생하기도 한다. 원발성 폐암의 종류는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되는데 폐암 가운데 80∼85%는 비소세포폐암이다. 소세포 폐암은 전반적으로 악성도가 높아 발견 당시 림프관 또는 혈관을 통해 다른 장기 등으로 전이돼 있는 경우가 많다.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은 흡연으로 금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폐암의 약 90%는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흡연율(건강검진 수검자 중 흡연관련 문진항목 응답자) 21.9%로 2011년 25.4%에 비해 줄었다. 성별로는 남성 37.9%, 여성 3.2%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성·연령별로는 남성은 △30대 46.9% △20대 이하 44.7% △40대 45% 순이었고, 여성의 경우 △20대 이하 6.2% △30대 4.3% △40대 3.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석면·비소·크롬 따위 유독성 물질에의 장기적 노출(직업적 요인), 벤조피렌을 비롯한 발암물질과 우라늄·라돈 같은 방사성물질의 영향(환경적 요인), 그리고 가족의 병력(유전적 요인) 등 여러 복합적 요소가 있다. 폐암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므로 검진을 통해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 발표된 폐암의 검진권고안에서는 55세에서 74세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고위험흡연자는 매년 저선량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암검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txt

제목: [암과의 동행] ‘키트루다’ 보험급여 적용 매듭 풀리나  
날짜: 2016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8200739001  
본문: 최근 국내에서 획기적인 항암제로 평가받고 있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 논의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키트루다’가 면역항암제 중 최초로 보험 급여 등재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이 영국 국민건강보험(NHS)에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로 MSD의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 펨브롤리주맙) 사용을 권고한다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앞서 영국은 키트루다의 불확실한 치료 기간으로 인한 비용효과성을 이유로 보험 급여 적용을 한차례 고사했다. 당시 담당 기관은 PD-L1 발현율을 기준으로 한 키트루다의 임상 결과에 따라, 키트루다가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연장시킨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제약사가 제시한 치료 기간인 2년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MSD는 추가적인 약가 인하와 함께 업데이트된 최신 데이터를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권고가 결정됐다. 가이드라인에는 “키트루다는 적어도 한번의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EGFR 또는 ALK양성일 경우 표적치료제 경험도)이 있는 PD-L1 발현율 1% 이상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 옵션으로 3주에 1회씩 2mg/kg 권고한다”고 기재돼 있다. 약제를 투여 받은 환자의 질환이 악화되지 않았다면 2년 뒤 투여를 중단한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 이사 캐롤 랑슨(Carole Longson) 교수는 “<span class='quot0'>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한정된 치료 옵션을 갖고 있었지만 향후 일상적으로 키트루다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span>”며, “<span class='quot0'>만약 MSD가 증거 기반으로 불확실한 내용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경우, 국립보건임상연구원은 필요한 환자들이 일상적으로 키트루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국내 역시 항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불리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급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이 같은 영국의 보험 급여 결정이 동일한 국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내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로, 약 30분에 1명 꼴로 폐암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 키트루다는 올해 4월 국내에서 비소세포폐암 2차 및 흑색종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됐으며, 이후 환자들은 시급한 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상황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면역항암제는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서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과 같이 PD-L1 발현율을 기준으로 실제 면역항암제에 효과가 있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급여 대상으로 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으로 보인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면역항암제 급여 등재 진행 상황에 대해 “급여 기준이 확정돼야 보험 급여 적용을 타진해 볼 수 있다. 현재 심평원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며, “다만 영국에서 보험 급여 적용이 됐다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참조할 사항이다. 보험 급여 적용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키트루다 등 면역항암제의 보험 급여 문제를 내년 초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전달한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항암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8개월(240일) 내로 단축시키겠다는 발표도 했다. 영국에서 면역항암제 보험급여 적용이 눈 앞에 다가옴에 따라, 국내에서도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급여 결정에 환자들의 내일이 달렸기 때문이다.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txt

제목: [암과의 동행] ‘병원 알파고’ 암 진료 새 패러다임 연다  
날짜: 2016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8200533001  
본문: 알파고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진단을 내리는 인공지능이 암환자 진료에도 도입됨에 따라 의료계에서도 진단 영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암진단 및 치료는 앞으로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추진단 이언 단장(신경외과)은 “암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많은 환자들이 유명한 의사에게 암치료를 받고자 대기하는 시간도 길고, 좋은 치료를 받고자 병원을 이곳저곳 들르면서 의료비를 낭비하고 있다”며 “수많은 지식을 학습한 인공지능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 간 전 세계적으로 약 4만4000건에 달하는 온콜로지(종양학) 논문이 의료 학술지에 발표됐다. 대표적인 인공지능인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는 300개 이상의 의학 학술지, 200개 이상의 의학 교과서 등의 의료 정보를 이미 학습했다. 이를 의사가 활용하면 더 높은 확률로 정확한 암진단,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정 환자 개개인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학습된 데이터에서 유관 임상정보를 신속하게 추출해낼 수 있게 됐다. 미국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병원에는 왓슨 종양학과가 신설됐다. 인공지능에 환자의 증상을 입력하면 왓슨이 전 세계의 의료 논문과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정확도가 80% 정도의 진단을 내린다. 내년에는 부산대병원 역시 인공지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을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 가천대 길병원은 첫 단계로 미국 IBM사의 ‘왓슨 포 온콜로지’를 유방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 및 위암 치료에 활용할 예정이다. 길병원은 최근 대장암 진단 환자에 대한 왓슨 다학제 진료를 시행했다. 왓슨은 태국, 인도, 중국 등의 병원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지금의 속도로 학습을 하고 진화한다면, 향후 1∼2년 내에 암의 90%까지 분석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주한 서울대의대 의료정보학 교수는 “<span class='quot0'>미래는 진단과 영상의학, 외과수술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의료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노인인구가 늘며, 저비용 고의학 시스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정선 서울의대 유전체연구소장은 “4차 혁명을 앞둔 시대다. 고비용 저의학 시스템에서 벗어나 저비용 고의학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고령화시대 노인인구 증가로 헬스케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예방의학에 필요한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등을 통해 예방·예측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공지능은 보완적 개념이므로 ‘의사’의 영역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향만 가톨릭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1'>인공지능이 의료사고를 낼 경우 환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처벌을 비롯한 법적처리 등에 대해서는 종래의 법적인 틀로 풀어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책임소지에 대한 법적·윤리적 해석이 어렵다는 것은 한계</span>”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span class='quot1'>인공지능은 의사의 환자 간 치료과정에서 느끼는 교감을 대체할 수 없다</span>”고 덧붙였다. 반면, 이언 단장은 “인공지능 도입을 인간 대 기계의 대치 구도로 봐선 안된다”며 “인공지능은 의사가 하기 힘든 영역을 보완해주는 역할이다. 이제는 인공지능 진단을 활용할 수 있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로 구분될 것”이라고 밝혔다.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txt

제목: [암과의 동행] AI ‘왓슨’ 암 진료접목… 10분내 해결책 제시  
날짜: 2016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8200329001  
본문: 컴퓨터와 대화를 나누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알려주는 일은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다. 현재는 컴퓨터와 소통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를 통해 프로그램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 단순한 대화에서 나아가 암이 생겼을 때 어떤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어떤 치료법이 좋을지 컴퓨터가 알려준다면 어떨까? 지난 5일 가천대학교 길병원이 미국 IBM사의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실제 의료현장에 활용한 IBM 왓슨 인공지능 암센터를 개소하면서,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길병원 본관 1층에 위치한 IBM 왓슨 인공지능 암센터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을 기반으로 총 8개의 전문 진료과 30여명 전문의와 왓슨 전문 코디네이터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 병리과, 내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혈액종양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환자 개개인에 대해 협진하는 다학제 진료를 진행한다. 인공지능 왓슨은 지난 2012년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암센터(MSKCC)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해 암환자 진료를 터득해왔으며, 그 결과 선진 의료기관의 자체 제작 문헌과 300종의 의학저널, 200종의 교과서, 1200만 쪽에 달하는 전문자료까지 학습했다. 왓슨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교육받고 있어 프로그램 정확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의료현장에 도입하면서 얻게 되는 이점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최상의 치료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왓슨에 접속해 솔루션을 얻기 까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왓슨에 접속한 다음, 환자의 나이, 몸무게, 수술여부, 병명 등 환자정보를 입력한다. 입력 후 ‘ask watson’ 버튼을 누르면 왓슨이 제시하는 치료옵션 결과가 나온다. 이때 왓슨은 의학정보, 환자정보,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치료옵션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각 옵션의 배경색은 녹색, 오렌지, 레드로 나눠져 있는데, 녹색은 ‘추천’ 오렌지는 ‘고려해볼 만한 경우’ 레드는 ‘하지 말라’는 뜻이다. 왓슨은 각 옵션에 대해 왜 추천했는지에 대한 근거와 생존율 등도 함께 보여준다. 또한 관련 연구 데이터나 초록, 원문 등도 열람이 가능하다. 백정흠 가천대길병원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추진단 기획실장(외과 교수)은 “왓슨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체 암의 85%까지 분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나중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암을 분석하기 어려운 단계가 올 수 있다. 그때 왓슨이 더 수준 높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IBM 왓슨 인공지능 암센터는 인공지능과 다학제 진료의 결합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백 교수는 “일반 진료의 가장 큰 불만은 교수를 만나고 ‘3분’ 진료하는 것이다. 다학제의 장점은 5∼6명의 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때 환자의 만족도는 5배가 아니라 50배 정도 늘어나는 것 같다”며 “의료진끼리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다학제를 통해 조율된 의견을 환자가 받을 수 있고, 여기에다 인공지능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믿음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0.txt

제목: [쿠키가 만난 명의-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기경도 교수] 자궁경부암 진료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초점  
날짜: 2016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8195511001  
본문: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암입니다. 또한 자궁경부이형성증이라는 암 발생 원인(과정)이 밝혀져 조기검진 등을 통한 2차 예방이 가능한 암입니다.” 암환자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강동경희대병원 부인종양클리닉 기경도 교수는 자궁경부암은 예방과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궁은 체부(corpus)와 경부(cervix)로 구성되는데, 질에 연결된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이 자궁경부암이다. 성관계 시 감염될 수 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 교수는 “최근 여성의 10대 암중 발병 빈도가 높고, 발생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궁경부암은 생존율이 증가하고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질병의 생리가 잘 알려져 있어 예방이 가능한 암일 뿐 아니라 조기 발견 시 가장 치료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 중 고위험군 바이러스(16, 18 등)가 있는 경우 자궁경부암 발생위험도가 10배 이상 증가한다. 바이러스 감염의 70∼80%는 1년 이내 자연 소멸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만으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HPV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제기된 백신 부작용 논란으로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됐지만 접종율이 높지 않다. 이에 대해 기경도 교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기 교수에 따르면 일본 이케다 박사가 자궁경부암백신 접종으로 뇌병변이 발견됐다는 동물실험(쥐를 이용한) 결과를 발표했으나, 추후에 동일한 실험을 재현하지 못해 해당 부작용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기 교수는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1'>세계보건기구도 관련 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통상적인 부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백신의 안전성을 확인했다</span></span>”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외에 검진도 중요하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현재 2년에 1회 국가검진에 포함돼 있는 만큼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자궁경부암의 1차 치료 목표는 전암 단계에서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고, 2차 목표는 조기검진을 통해 빨리 암을 발견하는 것이다. 기 교수는 “수술의 경우 1기 중간정도까지 복강경을 시행할 수 있고, 2기에는 외과수술을 시행한다. 복강경 수술을 하는 이유는 환자의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여성 암환자들의 경우 임신 등을 위해 조기에 발견하면 복강경 수술이 적용된다. 물론 자궁경부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환자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동경희대병원 부인종양클리닉은 환자들의 치료는 물론 삶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진료와 수술, 항암 치료를 시행한다. 기경도 교수는 “좋은 수술 결과를 도출하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통해 수술의 완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환자 불편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 수술 후 항암치료를 최소화기 위한 최상의 맞춤형 치료방법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1'>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 수술과 항암(방사선, 항암화학요법)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span></span>”고 덧붙였다. 가장 큰 강점은 여러 진료과와 유기적인 다학제협진 시행이다. 다학제협진은 환자의 암 진단과 수술, 항암치료, 치료 후 관리에 있어 많은 의료진이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다. 또한 암환자의 회복기간 단축을 위해 영양팀이 다양한 식이요법과 식사 관리도 지원한다. 기 교수는 “자궁경부암은 예방백신을 통한 1차 예방과 2년에 1회 정기적인 암검진을 통한 2차 예방이 가능한 만큼 예방과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반 강조하고 싶다. 최근에는 표적치료제 등 좋은 항암제가 개발됐고 세기조절방사선 치료 등 암 세포만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법들이 있다”면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식도암 뜨거운 커피가 주범은 아니다  
날짜: 2016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8195508001  
본문: 식도는 음식을 삼킬 때마다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 일상에서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는 신체기관 중 하나다. 때문에 식도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에 주는 불편이 적지 않다. 식도암은 여타 암 중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은 편에 속해 예방과 조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2015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전체 암 중 식도암의 국내 발생률은 1.1%로 성별 기준으로 남성 1.9%, 여성 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빈도는 다른 암에 비해서 낮은 편이나 식도암의 대부분이 50대 이상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해당 연령대의 남성들은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한다. 흔히 뜨거운 음식이 식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환자들의 경우 술과 담배 요인이 더욱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인천성모병원 외과 김진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술·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식도암은 크게 선암과 편평상피세포암 두 가지가 가장 많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다수가 편평상피세포암이고 식도 선암은 매우 드물다”며 “식도에 나타나는 편평상피세포암은 대개 음주와 흡연에 의한 자극으로 나타나고, 뜨거운 음식도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섭취한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해 나타나는 역류성식도염도 주의해야 한다. 역류성식도염이 계속되면 식도 점막이 위 상피세포로 변하는 바렛식도로 진행되는 등 식도선암으로 이어질 위험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식도선암은 서구에 많이 발생하는데 역류질환 등 소화기계 문제로 나타난다. 역류질환은 과식 등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식도암은 암이 주변으로 빠르게 전이된다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소화기가 점막,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식도에는 종양 확산을 막아줄 장막층이 없다. 또한 림프절을 통해 암세포가 쉽게 확산될 수 있어 생존율이 낮고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식도암 치료·예후에 대해 김진조 교수는 “주로 외과적 절제술이 시행된다. 수술 이후에 목을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는 편이다. 그러나 암의 확산이 빨라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적지 않다. 위암수술을 받은 환자들과 비교하면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말했다. 식도암은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위내시경검사로 식도를 비롯해 위, 십이지장의 질환을 총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 교수는 “식도암 환자들은 중장년층 이상의 남성 환자가 가장 많다. 40대 이상부터는 국가암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미옥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2.txt

제목: [뉴스룸에서-민태원] 웰다잉법, 첫 단추에 성패 달려  
날짜: 2016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8191126001  
본문: 지난 4월 말 기획 시리즈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취재차 대만을 찾았을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곳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였다. 대만인들은 말기 암이나 치매 등 질병으로 임종에 가까워지면 스스럼없이 무의미한 생명연장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2000년 제정된 ‘자연사법’에 따라 19세를 넘으면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는 의미의 ‘DNR(Do Not Resuscitate)’ 의사를 건강보험 IC카드에 표시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관련 법·제도 마련은 물론 ‘존엄한 죽음’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지속한 덕분에 ‘선종(善終)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됐다. 특히 독립 비영리기관인 ‘대만호스피스재단’은 이런 웰다잉 인프라 조성과 확산의 컨트롤타워로 큰 역할을 했다. 대만의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은 59%(2014년 기준)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이용률(15%)보다 4배 가까이 높다. 대만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지난해 전 세계 80개국 대상으로 진행한 ‘죽음의 질 지수’ 평가에서 아시아 1위, 세계 6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도 대만과 비슷한 웰다잉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이 올 초 제정돼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사항은 내년 8월부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련 내용은 6개월 더 준비 기간을 가진 뒤 2018년 2월 본격 시행된다. 요즘 이 웰다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설치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두고 말이 많다. 이 기관은 사전연명의료계획서 등에 대한 DB구축 및 등록기관 지도·감독, 연명의료 중단 이행 여부 조사 및 연구, 대국민 홍보와 교육 상담 등을 총괄하는 한마디로 컨트롤타워가 될 터다. 복지부는 당초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철회했다. 그러자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몇몇 의료기관이 유치 의향을 밝혔다. 그런데 올해 6월 취임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유치를 강력 희망하면서 복지부 의중이 그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같은 서울대병원 출신인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복지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곰곰이 따져봐야 할 문제가 국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의료기관에 맡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하는 것이다.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은 모든 국민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연명의료 결정이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할 기관과 조사받는 기관이 모두 의료기관이 되면 이해관계 당사자끼리 업무가 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의사 중심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의료기관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맡으면 책임자가 모두 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독립성 확보도 쉽지 않다. 의료계에서 모든 업무가 이뤄지면 환자나 보호자, 종교·윤리계, 일반인 등 다양한 관련자의 참여가 어려워 객관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웰다잉법이 자칫 인간 생명을 인간의 뜻에 따라 중지하는 것을 합법화해 주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연간 28만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 중 3만여명이 연명의료 관련 처치를 받다가 숨진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만큼 독립성과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온전하게 갖춘 연명의료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웰다잉법의 성패는 첫 단추를 어떻게 잘 끼우느냐에 달려 있다. 민태원 사회부 차장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3.txt

제목: [신경락한의원 조병준 원장의 해독 이야기] ⑦ 먹는 음식이 곧 몸… 식습관 바꿔라  
날짜: 2016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5211651001  
본문: 현대 의학과 의료기기의 발전은 눈부시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는 만큼 환자는 점점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환자와 난치성 질병은 늘고 의료비도 해마다 폭증한다.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들을 머리 아프게 만드는 난제다. 미국에선 이런 문제를 다룬 ‘맥거번 리포트’가 나왔다. 전 세계 270여 명의 석학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만 2년의 연구 끝에 5000장에 달하는 리포트를 발표한 것이다. 결론은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10대 질병 중 치명적인 6가지(심장병 암 뇌졸중 당뇨병 간경화증 동맥경화증)는 그 원인이 식생활에 있다고 발표했다. 6가지 모두가 만성퇴행성 질환들로, 해결책은 소식과 채식을 기본으로 하는 채식주의 식단을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식과 채식 자연식 중심의 식생활은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고 소화효소의 낭비를 줄이고 대사효소를 극대화하여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킨다. 이미 질병이 발병한 상태라도 체내의 자정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자생적인 치유능력을 높여준다. 질병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다. 흔한 감기로부터 알츠하이머, 근육무력증 등의 희귀병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도 없는 질병과 병명이 있지만 질병의 원인은 독소라고 집약한다. 일찍이 한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외인과 내인(병의 원인이 인체내부에 있다는 것)로 나누고 다시 음식상 노권상 칠정상으로 분류했다. 맥거번 리포트에서 말하는 음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독 외에도, 한의학은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독(칠정상), 과로에 의해 발생하는 독(노권상)으로 구분하여 그러한 독소들이 인체에 들어와 다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돼 염증유발 물질을 뿜어내는 것을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체내로 유입된 독소들이 모두 배출되면 병이 없다. 허나 현대인은 과식, 가공식품, 미세먼지, 활성산소, 과다한 스트레스, 밤늦도록 활동하는 습관 등에 의해 독소의 유입은 엄청 많아졌다. 반면 배출통로인 대변, 소변, 땀, 호흡 등의 상황이 안 좋아지기 쉬운 여건에서 살고 있다. 현대인은 하루 종일 땀을 한 방울도 안 흘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다가 더욱이 대소변의 배출도 시원치 않은 경우가 많아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맛을 위주로 발달하는 음식문화는 조미료, 방부제, 향료, 색소 등 첨가물들을 체내 독소로 쌓이게 하면서 혈전을 유발하여 성인병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 한쪽으로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빼고 혈액을 맑게 하여 대사기능을 높여 주고, 한쪽으로는 위의 축소를 도모해 소식 체질이 되게 하는 것이 해독 치료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점차적으로 지방과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피로, 어깨결림, 변비, 피부의 트러블 등이 사라져가며 부수적으로 요요현상이 없는 다이어트도 되어간다. 또한 허기나 식탐이 사라지고 심장병,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변비 등 대사증후군 질환이 치료되어 다이어트 후에도 지속적으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인도에서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한 선교사는 갑자기 피로가 심해져 기도하기가 힘들고 성경을 읽어도 정작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생리도 원활치 않고 변비 기운도 생겼고. 체중도 늘어나 짜증이 나다보니 후원자들과 트러블이 생겨 결국 사역을 포기하고 입국해 내원한 경우였다. 식사로 늘 현지에서 빵, 피자, 햄버거, 콜라 등을 사서 먹었다고 했다. 먹기도 편하고 맛도 있으니 별 생각 없이 자주 섭취했다고 한다. 일단 자연식 위주로 음식을 바꾸고 대소변 통로를 열어주는 등 해독을 통해 청혈치료에 힘썼다. 한 달쯤 지나니 얼굴에 혈색이 돌고 성경이 이제 머리에 들어온다고 좋아했다. 기도생활은 어떠냐는 질문에 요즘은 길을 다니면서도 계속 기도를 한다고 웃었다. 3개월 뒤 생기를 찾은 이 선교사는 미국 캔자스시티 기도의 집에 찾아 다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해야겠다며 출발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이 된다. 병이 걸리는 음식을 즐겨 먹으면서 몸만 건강하기를 바랄 수 없다. 병을 부르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해독을 해 줌으로 아예 체질을 바꿔야 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4.txt

제목: [인터뷰] 권순철 “일그러진 한국사회, 내면 성찰할 계기됐으면…”  
날짜: 20161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4183235001  
본문: 검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한 남자가 힘에 부친 듯 고개를 떨구고 있다. 고통 때문에 섬뜩할 정도로 일그러진 얼굴이다. 머리칼은 헝클어지고 퀭한 눈에선 피눈물이 흐른다. 가시관을 쓴 그는 예수다. 가로 3m가 넘는 500호 대형 캔버스를 예수 얼굴 하나로 가득 채운 대작을 배경으로 서 있는 권순철(72) 작가. 그의 선한 눈빛에서 피를 토하듯 작품을 제작했을 지나온 시간들이 읽혀졌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저도 모르게 앗, 외마디가 나오며 이내 옷깃을 여미게 된다. 사방이 예수 얼굴과 십자가, 기도하는 사람을 그린 ‘성화’로 가득 찼다. 현대 미술 작가가 중세시대를 방불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라 사연이 궁금했다. 국민일보 창간 28주년 기념으로 본보와 가나아트가 공동기획한 권순철 개인전 ‘영혼의 빛-예수’전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평창 30길 가나아트 갤러리에서 지난 13일 작가를 만났다. 그는 민중미술 작가로 분류되어 오던 사람이다. 고(故) 오윤, 신학철, 김정헌 등과 어울리며 1980년대를 뜨겁게 보냈던 그는 한국의 산과 강, 만고풍상을 겪으며 살아 온 촌로와 촌부의 얼굴 등 시대의 표정을 두터운 마티에르와 거친 붓 터치로 담아냈다. 그런 그가 왜 예수를 그리게 된 것일까. 아내, 먼저 간 아내 때문이다. 작가는 4년 전 암으로 아내를 잃었다. 39세에 만나 첫 눈에 반했던 아내, 12살 어려 더 예뻤던 아내에 대해 그는 “저보다 감각과 재능이 더 뛰어난 도예 작가였지만 고달픈 프랑스 파리 생활에서 두 자녀를 키우며 부부가 함께 작업하기는 벅찼다. 나를 위해 예술가의 삶을 접어야 했다”고 말했다. “아직도 실감이 안나요. 처음엔 충격이 커 몰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 생각이 더 간절해지니….” 어쩔 줄 모를 고독과 깊은 상실감의 끝에서 그는 신앙이라는 외줄에 매달리게 됐다. 그도 교회는 다녔으나 아내 손에 이끌려 건성으로 다녔었다. 잔소리처럼 들렸던 “예수 좀 제대로 믿어라”는 아내의 간구는 세상을 떠난 후에야 실현이 된 것이다. 그렇게 2, 3년 전부터 화폭에 담아온 500호 대작을 비롯한 크고 작은 예수 얼굴 시리즈 20여점, 깊고 고요한 메시지를 담은 십자가 시리즈 4점, 일기 쓰듯 스케치북에 담은 예수 드로잉 10여점 등 40여점이 전시장에 펼쳐졌다. 사후에야 소원을 들어준 절절한 사부곡인 셈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아내가 뭐라고 할 것 같냐고 물었더니 “허허”하고 웃기부터 먼저 했다. “<span class='quot0'>이걸 예수 얼굴이라고 그렸냐고 질책하겠지요.</span>” 예술 동지이기도 해 따끔한 비평을 아끼지 않았던 아내는 그가 화가로 대성하는 데 버팀목이 됐다. 먼저 떠난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더 열심히 그렸다고 했다. 예수의 얼굴은 고통 속에서도 성스럽게 빛나야 한다. 붓질을 하다가도 나이프로 물감을 짓이기다가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몇 시간이고 앉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잡히지 않는 예수의 얼굴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집중하게 되면 칠이 대담해져요. 정신이 고양되면 생각도 못했던 표현적 요소가 나오지요.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아경인 거지요.” 그가 그린 예수의 얼굴은 인자함이 아니라 대속의 고통과 고뇌, 비애 그 자체다. 물감을 켜켜이 2cm는 족히 되게 두텁게 바른 십자가는 고통의 응축 같다. 한국전쟁 때 아버지와 삼촌을 잃은 개인사적 고통에 머물지 않고 촌로, 촌부, 위안부 등 시대의 고통을 담은 얼굴을 그려온 그였기에 예수 시리즈도 시대적 고통을 시각화해온 작가의 예술세계와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탐욕과 비리에 대해서도 일침을 잊지 않았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잘못됐어요. 예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목수 일을 하며 밑바닥 삶을 사셨지요. 그 말구유 정신을 배워야 해요. 기업가들도 나눔의 정신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번 전시는 일그러진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내면을 성찰하고 응시할 것을 권하는 듯하다.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02-720-1020). ■ 권순철은 경남 창원에서 출생해 상주 대구 등지에서 자랐다. 서울대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1989년 프랑스 파리에 정착한 이후 재불작가 모임인 ‘소나무회’를 이끌었고,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1992년 이중섭미술상, 2013년 KBS해외동포상 수상.글=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5.txt

제목: [헬스 파일] 유방암 예방·조기진단법  
날짜: 20161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3040310001  
본문: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여성 암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신규 발견 환자수가 2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학회 등이 해마다 유방암 조기검진의 중요성과 인식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다. 필자도 국내 유방암 전문의로 구성된 한국유방암학회에서 홍보이사를 역임하며 유방암 인식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에 앞장서왔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방암 강의도 많이 하게 됐는데, 매번 듣는 이야기가 있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란 질문이다. 마음 같아서는 족집게 선생님처럼 “이것만 해라!” 말해주고 싶지만, 언제나 “균형 있는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적정 체중 관리를 하라”는 뻔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유전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유방암은 5∼1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요인은 비만이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의 비만은 유방암의 주요 위험인자로 꼽힌다. 낮은 신체활동 역시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 적어도 일주일에 5번, 매회 30분 이상 땀나게 운동하는 것이 좋다. 균형 잡힌 식습관도 암 극복에 도움이 된다. 유방암 예방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 검진과 정기 검진이다. 유방암은 자가 검진이 가능한 암이다. 자가 검진은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생리가 끝난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해야 효과적이다. 임신이나 폐경 등으로 생리가 없으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자가 검진을 진행한다. 만약 검진 시 유방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 유방촬영 및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한다.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예후가 좋고, 생존율이 높아서 그동안 착한 암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필자는 ‘이 세상에 착한 암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30∼60대 여성이 암에 걸리면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초기에 발견해 치료가 어렵지 않다는 말에도 환자들은 ‘유방’을 잃는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고, 가족들까지 자책감을 느끼곤 한다. 유방암의 위험성을 더는 과소평가하지 말자.김성원 대림성모병원 원장, 삽화=공희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6.txt

제목: 한미약품-아주의대 교수팀, 줄기세포 항암신약 개발 협약  
날짜: 20161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3040210002  
본문: 한미약품(대표 이관순·사진 왼쪽)은 최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이관순 대표와 손지웅 부사장, 아주대 김동연 총장과 유희석 의무부총장, 최경희 산학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영 아주의대 교수팀과 줄기세포 활용 혁신 항암신약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해영 교수팀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추출한 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에 ‘사이토신 데아미나아제’(CD)유전자를 삽입한 세포치료제를 항암제로 산업화하는 전(前)임상시험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은 서 교수팀과 손잡고 이 항암신약 개발 연구에 임상시험 단계부터 참여해 산업화 시 우선 사업권을 가질 계획이다. 아주대는 교내 기업협업센터(ICC) 안에 별도의 공간을 공동연구시설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해영 교수는 “<span class='quot0'>글로벌 R&D 능력을 갖춘 한미약품과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 뇌종양 및 다양한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7.txt

제목: 암 혈관 정상화… 암 성장·전이 억제  
날짜: 20161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2212409001  
본문: 기초과학연구원(IBS) 혈관연구단 고규영 단장과 박진성 연구원은 암 혈관을 일반 혈관처럼 정상화해 암 성장과 전이를 억제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팀은 암 혈관 내부 세포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TIE2 활성 항체를 사용하면 암 혈관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을 안정적으로 바꿔 암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찾아냈다. 암세포 자체를 공격하는 대신 암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낸 것이다. 연구 성과는 암 연구 분야 최고 학술지인 ‘캔서 셀’ 온라인에 13일자로 게재됐다.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8.txt

제목: [나의 목회 이야기] 목사님은 그런 믿음도 없어요?  
날짜: 20161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2211522001  
본문: 올해 여름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 촬영을 권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의사는 폐결절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 지역의 종합병원을 찾았고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뒤 “암일 확률이 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짓말처럼 다음날부터 폐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래가 생겼고 기침이 심했으며 열과 땀도 났습니다. 식욕이 줄면서 체중도 감소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진단을 받고자 서울의 암전문 병원을 찾았지만 그곳에서도 의사는 “<span class='quot0'>확실친 않지만 CT 상으로는 암 같으니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span>”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결과 폐암 말기일 경우 20일정도 생존할 수 있고, 혹여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길어야 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안감은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입원 날짜를 예약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겸허히 죽음을 받아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도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주일예배 광고 시간에 교우들에게 건강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으니 함께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교우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격려를 해줬습니다. 권사님들 중에는 저를 위해 철야기도까지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예약한 입원 날짜가 다가와 병원을 찾았고, 며칠에 걸쳐 각종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나흘 째 되던 날 최종 검사결과를 알리러 온 의사는 예상 밖의 말을 했습니다. “암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균이 폐에 침입해서 나타난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균도 생명을 위협하는 균은 아닙니다. 3∼4개월간 약물치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퇴원 후 성도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의 일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한 은퇴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크리스천으로서 죽을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네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런 믿음도 없으세요?” 참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아직 제 믿음이 부족한 것 같네요”라고 답하곤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제가 왜 그렇게 살고 싶었는지, 왜 저를 살려주셨는지를 물었습니다.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루를 사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을 깨닫고 반성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하루를 1000년같이 여기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언제 데려가셔도 후회 없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의 삶을 후회 없이 살고 계신가요. 이상진 목사 약력=△장로회신학대 신대원△예장통합 총회 농어촌선교부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윤리위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9.txt

제목: 노화된 조혈 줄기세포의 회춘 기술 개발  
날짜: 20161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1213855001  
본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최인표, 정해용 박사 연구팀이 조혈 줄기세포의 노화를 조절하는 유전자를 찾아내 젊은 세포로 회춘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혈액을 구성하는 조혈 줄기세포는 백혈구나 적혈구 및 혈소판 등 혈액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다. 이 세포는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차츰 기능을 상실하는데 이상이 생기면 몸 전체의 혈액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면역저하나 빈혈, 암, 노화 등을 유발한다. 연구팀은 조혈 줄기세포에서 활성산소 조절 단백질인 TXNIP가 스트레스에 의해 활성산소의 생성과 노화를 유도하는 인산화 효소 활성화(p38 MARK)에 관여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TXNIP가 결핍된 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활성산소와 p38 MARK가 증가했고 이는 노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최 박사는 “<span class='quot0'>역노화 기술로 면역질환 치료와 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네이처의 자연과학 분야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온라인에 지난 8일 발표됐다.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0.txt

제목: [박승배의 불편한 교회건축 이야기] 교회가 고인의 마지막 길 함께하자  
날짜: 20161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9210748001  
본문: 오늘은 교회의 장례문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정년퇴직 후 말기 암에 걸린 60대 가장의 삶을 그린 ‘엔딩노트’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2011년 일본에서 제작된 영화로 우리나라에는 이듬해 11월 개봉됐다. 주인공인 노신사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남아 있는 6개월의 삶속에서 자신이 해야할 마지막 10가지를 챙긴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0가지 일에는 ‘소홀했던 가족과의 행복한 여행’ ‘손자들과 놀아주기’도 있지만, 노인의 최대 관심사는 ‘평생 믿지 않았던 신을 한번 믿어보기’와 ‘장례식장 사전 답사하기’였다. 그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천주교 신앙을 택하고 성당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생을 마감한다. 그가 장례식장으로 성당을 택한 이유에 대해 영화는 두 가지를 이유로 든다. 첫째 성당장례식이 보기에 좋고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며, 둘째 남은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보기 좋고 경제적인 장례식이 한 인간의 영혼을 구제한 사례다. 2만여명이 출석한다는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주보를 보면 매주 교인들의 혼사와 사망 소식이 담긴다. 매주 5∼6명 정도의 교인이 죽음을 맞고 있으며 죽는 사람의 수가 결혼하는 사람 대비 2배에 이른다. 교회에서 교인의 결혼식을 치르는 건 환영하지만 타계한 교인의 문상절차는 터부(Taboo)시하고 외면하는 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다. 개신교회 내에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은 없다. 반면 천주교는 성당 내 여건이 허락된다면 죽은 자를 위한 장례는 물론이고 성당 내 납골당까지 설치한다. 천주교 흑석동성당은 ‘납골당-평화의 쉼터’를 성당 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대형성당은 유족이 원하면 성당에서 장례를 치르며, 성당 내 시체안치실도 구비하고 있다. 성당의 장례문화는 일반 장례식장보다 비용도 적게 들어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덜어준다. 교인의 반응도 좋고 지역사회에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는다. 한국의 개신교인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죽어서는 교회를 떠나 병원에서 3일간을 어수선하게 보내고 세상을 떠나간다. 개신교회에서 장례문화에 관해 여러 주장이 분분하지만 명확한 해석과 보편적 실천규정은 없는 것 같다. 다만 개신교인은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시신을 화장하지 않으며 따라서 교회에 납골당을 설치하지도 않고 죽은 자를 위한 장례의식도 헛된 일이라 생각하며 돌보지 않는 것이 관습처럼 굳어져 있다. 그러나 이런 신학적 관점을 떠나 평신도의 입장에선 교인이 죽어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두고 병원을 전전하는 게 과연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일까 생각하게 된다. 장례는 사람과 영혼의 문제다. 개신교회는 천주교회와 달리 교회 내 장례공간이 없다. 그러나 개신교회 공간을 들여다보면 일부만 보완하면 장례식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회 내 대체공간들이 얼마든지 있다. 교회식당 소예배실 교육공간 등이 그것이고, 대예배실에서 영결예배도 볼 수가 있어서 장례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서울 대형병원 장례식장 특실사용료는 3일장의 경우 수천만원이 들고 5일장의 경우 억대에 육박하는 게 병원 장례의 현실이다. 만일 교회에서 장례를 치른다면 교인의 장례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비용 일부를 교회에 헌금할 수도 있어 교회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장례문화를 교회 내부로 끌어들여서 신앙적인 근본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배척받지 않는 장례문화를 새롭게 창출했으면 한다. 장례문화에 대한 교회의 공론(公論)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많은 개신교인들은 낯선 병원이 아닌 평생 다닌 교회에서 편안하게 영면하기를 원한다. 800만 교인을 위한 교회의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개신교회 교인의 죽음과 장례문화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일 교회에서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다면 다른 교인도 좋아하지 않을까. 교회가 교인의 마지막 길까지 책임져주면 더 좋지 않겠나. 박승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1.txt

제목: “내 일은 주님의 도구”… 비즈니스 컨설팅사 ‘모라비안프라트룸’ 정의홍 팀장  
날짜: 20161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8190628001  
본문: 정의홍(36·조이어스교회)씨가 일하는 모라비안프라트룸은 서울 성동구 뚝섬로 주택가에 있었다. 1층의 가장 넓은 사무실은 카페 겸 갤러리로 꾸며져 있었다. 화사했다. 2001년 설립된 모라비안프라트룸은 FILA코리아 등의 비즈니스 컨설팅을 해온 업체다. 회사를 둘러본 뒤 정씨는 건물 뒤쪽으로 안내했다. “마당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포도나무 넝쿨이 작은 마당 위를 덮고 있었다. “<span class='quot0'>여름엔 여기에서 차도 마시고 포도도 많이 따먹었다</span>”고 했다. 자유스럽고 여유있는 회사 분위기를 금방 느낄 수 있었다. 한양대 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한 그는 관광지 등 지역개발 관련 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span class='quot0'>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 큐티를 하고, 업무를 마칠 때는 영성일기를 써요.</span>” 회의 시작과 끝은 기도… 컨설팅 여부 결정할 때 기준도 말씀 그는 함께 일하는 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를 한다. 팀 회의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도 기도를 한다. “<span class='quot0'>기도가 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span>” 이 회사는 접대용 골프는 물론이고, 관련 업체에 관행적인 명절 선물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컨설팅 의뢰를 받는 것일까. 실력과 영성이다. “일을 통해 선교를 하려면 완벽한 실력 100%와 완벽에 도전하는 영성 100%를 갖춰야 해요. 실력을 인정받지 않으면 일도, 선교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주요 컨설팅 여부를 결정할 때도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만강 부근에 조선족이 많이 사는 중국 도시의 상가 리모델링 컨설팅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다. “수익성을 생각하면 수락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족 복음화나 탈북자 선교를 고려해 수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모라비안프라트룸은 선교와 관련된 이 컨설팅을 진행했고, 그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확산시킨 데서 큰 보람을 느꼈다.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암 8:11)’이란 표현을 좋아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서 회복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접대용 골프·명절 선물 안해… 기도로 영업합니다 그는 2013년 이 회사에 오기 전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했다. 이 기관은 세계은행 등과 협력하는 곳이었다. “저는 그곳에서 정직하지 않은 결정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제3세계의 한 빈곤국가에 가장 필요한 사업은 농업 생태계 복원이었는데, 엉뚱하게 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죠. 건설업계와 관련된 이권이 개입된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곳을 떠났어요.” 정씨는 자신의 일과 직장을 하나님의 도구로 의식하고 있었다. 1962만 7000여명.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국내 임금노동자 규모다. 개신교 인구 비율 22.5%를 고려하면, 대략 440만여명이 어느 곳이든 사업장에 고용돼 있다. 이들이 만약 회사에서 일할 때 정씨처럼 궁극적 고용주이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빨리 임하지 않을까.글=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2.txt

제목: 첫 수출 국산 원자로， 요르단서 준공식  
날짜: 2016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7210743001  
본문: 대한민국이 첫 원자로 수출을 완료했다. 원자로 도입국에서 공급국으로 전환된 의의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르단 연구용원자로(JRTR)가 핵연료 장전 후 6개월의 성능시험을 마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2009년 1억610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에 따른 것이다. 준공식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니 알물키 요르단 총리가 참석했다. 5㎿(메가와트)의 출력을 내는 JRTR은 요르단 북부 이르비드에 위치한 요르단과학기술대학교에 설치됐다. 원자로 외에도 동위원소 생산시설, 행정동 등도 건설됐다. 또 운영 요원 양성을 위한 요르단 기술자들의 교육훈련까지 마쳤다. JRTR은 중성자를 이용한 기초과학 연구와 신물질 개발연구를 수행한다. 의료용으로 생산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암 환자 진단과 치료에 활용될 예정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전문가를 파견해 중성자 빔 장치 등 공동개발을 추진해 연구로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2년간 원자로의 성공적인 운전을 지원한다. 최 장관은 “<span class='quot0'>가까운 미래에 요르단이 도입할 예정인 발전용 원자로 사업에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span>”고 밝혔다.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3.txt

제목: [오늘의 설교]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라  
날짜: 2016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6211415001  
본문: 룻기는 세 가지의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먼저는 고향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흉년을 면하기 위해 모압으로 피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인간적인 판단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방의 땅 모압으로 출발할 때 나오미의 가족 앞에 커다란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흉년과 기근이 곡식 밭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영적 기근을 경고합니다. “<span class='quot0'>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span>”(암 8:11)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삶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 없이 은과 금을 자랑했던 중세교회의 모습입니까. 나오미 가족처럼 흉년의 시대로 들어선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했습니다(시 107:20).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현재의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때 그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룻기의 두번째 이야기는 고향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웃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불행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불행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룻의 결단을 보여주기 위한 책입니다. 룻의 결단은 룻기를 불행에서 희망의 이야기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과거 육적인 결단을 했다면, 룻은 영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과감히 결단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개혁해야할 것이 너무 많지만 결단하기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해야할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회복되고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려면 육을 버리고 영을 택해야 합니다. 세번째 이야기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슬픔을 토로합니다. 결단 한 번으로 악화된 상황이 단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축복의 사간에 앞서 투쟁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자신, 환경, 현실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결단의 결과로 길고 긴 시간들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결단은 공허한 것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도 수십 년 간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 때로는 전쟁의 피흘림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한국교회가 개혁을 열망하고 개혁을 결단한다면, 개혁을 위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개혁을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미지의 가시밭길을 가고자 하는 각오로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온 룻처럼 우리도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고일호 목사 (서울 영은교회)약력=△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 △장로회신학대 목회전문대학원 목회신학 박사 △독일 개신교 뷔르템베르크주교회 사회봉사국 협동목사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4.txt

제목: AI 닥터, 첫 진료 환자에 최적 치료법 내놔  
날짜: 2016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6005936001  
본문: 5일 가천대 인천길병원 본관 1층 ‘IBM 왓슨 AI 암센터’에 대장암 3기로 진단돼 복강경 수술을 받은 조태현(61)씨가 들어섰다. 혹시 남아있을 암세포를 제거하고 재발을 막으려면 보조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AI 닥터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왓슨은 의학저널 290종, 의학 교과서 200종을 비롯해 1200만 쪽에 달하는 전문 자료를 학습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다. 의료진은 조씨의 나이, 몸무게, 전신상태, 조직 및 혈액 검사 결과,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여러 정보를 왓슨에 입력한 뒤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10초 만에 일반 항암제인 ‘폴폭스’와 ‘케이폭스’ 투여를 조씨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에 의료진이 예상했던 조씨 치료 방법과 동일한 결과였다. 국내 처음 도입된 AI 진료가 성공을 거둔 순간이었다. 가천대 인천길병원은 지난 9월 IBM사의 ‘왓슨’을 암 치료에 전격 도입키로 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첫 진료를 무사히 마쳤다. 주치의인 외과 백정흠 교수는 “<span class='quot0'>조씨가 이미 3D 복강경으로 대장암 절제 수술을 받았음을 왓슨에게 알림과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입력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의료진과 왓슨 모두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span>”고 설명했다. 또 “현재 효과가 가장 뛰어난 최신 항암제들을 제시했으며 이 부분도 예상된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span class='quot1'>언론을 통해 왓슨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주치의와 여러 진료과 의사 의견, 왓슨의 제안 등을 거쳐 결정된 치료 방침인 만큼 신뢰가 가고 벌써 치료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span>”며 기뻐했다. 왓슨은 2012년 미국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MSKCC)’에서 처음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암 환자 진료를 터득했으며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담당 의사가 암 환자 정보와 의료기록, 조직검사 결과 등 100여 가지 항목을 입력하면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내 10∼20초 안에 제시해준다. 이언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추진단장은 “매년 2배로 늘어나는 의료 정보와 최신의학 문헌을 의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왓슨이 빠르고 정확한 암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대장암 등 6개 암에 왓슨을 먼저 적용해 본 뒤, 내년에 전체 암의 85%로 확대할 계획이다.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5.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외국인 남편까지 변화 이끄셔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날짜: 2016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4211357001  
본문: 유난히 노래를 좋아하고 잘 불렀던 나는 성악을 전공했다. 그러나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찾아온 턱 디스크로 노래를 접을 위기를 맞았다. 세 번의 힘든 수술 끝에 겨우 다시 노래하게 돼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다. 유학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음악에만 매진, 유학 1년 반 만에 데뷔했다. 그러나 오디션에 대한 압박과 비인격적 대우로 술과 안정제를 의지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나의 작은 것까지 진실하게 사랑해주는 이탈리아 현지인을 만나 결혼을 했다. 완벽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문화차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고 췌장암 진단까지 받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죗값 같아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했고 기적처럼 병이 치유됐다. 나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찬양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완치 5년 뒤, 이번에는 남편이 혈액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나는 더욱 찬양사역에 몰두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남편을 살려주실 것만 같았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자가 골수이식을 통해 남편도 살려주셨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두 번이나 경험하며 나를 불러주는 어디든 달려가 찬양했다. 그러던 중 이 찬양으로 과연 전도가 될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마음 한 구석이 늘 불편했다. 게다가 어릴 적의 분노와 원망을 품으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자괴감이 들었다. 구원도 흔들리며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엄습했다. 고민 끝에 간증을 보고 큰 은혜를 받은 춘천 한마음교회를 찾아갔다. 그 곳에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알고 싶은 대로 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순간 내가 믿고 있던 예수님의 부활이 내 생각의 틀에 끼워 맞춘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말씀과 마주쳤다.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크게 울리며 막혔던 모든 게 단숨에 풀어졌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부활로 확증되는 순간,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보였다.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분의 사랑 앞에 꼬꾸라져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드렸다. 그 후 남편의 암 재발 소식을 들었다. 그 때 찬송가 한 장이 내 마음을 울렸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는 이미 천국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자가 돼 있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남편도 항암치료를 기쁨과 감사 가운데 받으며 이탈리아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셨다. 전도 한번 못했던 나는 이탈리아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찬양 사역에 대한 마음도 변했다.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며 찬양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사역자의 삶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탈리아와 온 세계에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뤄지는 그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리라. 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6.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아내 교회 데려다주다가 부활 예수님 만나 미디어 중독서 해방되다  
날짜: 2016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4211357002  
본문: 어릴 때, 늘 혼자 집에서 외롭게 자랐다. 10살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때 전학도 자주 다녀 외로움은 나를 무척 힘들게 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오락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는 PC방에서 살다시피 했다. PC방에서 24시간 게임도 하고 집에서는 종일 TV, 영화를 봤다. 이런 생활은 직장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다. 결혼하고 나서 외로움은 해소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내의 삶이 바쁘다보니 나는 다시 외로움을 느꼈다. 마침 스마트폰이 처음 나와 틈만 나면 게임, 영화, TV 등 본격적으로 미디어에 빠져들었다. 10년간 그런 삶에 나를 완전히 잃었고 밀려드는 공허함에 견딜 수가 없었다. 아내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아이들에게도 악영향이 미쳤다. 수없이 다짐을 했지만 나는 이미 중독에 깊이 빠져 있었다. 결국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고 자살생각을 했다. 모태신앙이었던 나는 철저히 내 모습을 가린 채 열심히 교회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원망했다. 삶은 점점 더 망가져갔고, 가짜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 교회에서 나와 버렸다. 이런 나를 끌고 몇 년 동안을 이 교회, 저 교회로 다니던 아내도 지쳐 결국 손을 놓고 말았다. 걷잡을 수 없이 헤매던 나는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냥 지옥 가 버리자’며 평소 안마시던 술도 마시고 욕도 실컷 하고 인터넷 카페에서 기독교에 대해 험담까지 서슴지 않고 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기쁨에 찬 모습으로 다가와 당장 한마음교회에 가자고 했다. 간절한 부탁에 운전만 해줄 생각으로 따라 나섰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새롭게 들렸고 얼어있던 내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예배 후 한 형제와 교제를 했다. 성경의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성경의 예언과 정확히 연결되는 게 너무 새롭게 들렸다. 그러면서 형제는 부활을 직접 본 증인이 있다고 했다. 십자가 앞에서 배신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후 모두 순교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보지 않았다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실제로 보지 못했다면 당연히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겠지.’ 머릿속에 엉켜있던 연결고리가 하나가 되면서 ‘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충격이었다. 부활이 진짜니 성경말씀도 진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 선명했다. 형제님은 요한복음 16장9절을 들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배척한 죄’를 말씀했다. 이 한 마디가 내 귀에 강하게 들린 순간, 나도 모르게 ‘헉!’ 소리를 질렀다. 그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 동안 예수님을 배척하고 살아온 내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 후 큰 기쁨이 밀려오며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 바로 스마트폰의 모든 미디어와 게임을 지웠고, 11년간 활동했던 인터넷 카페도 탈퇴하는 등 미디어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우울한 감정이나 자살생각들도 끊어졌다. 새벽예배는 물론 집에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아이들과 말씀교제도 매일 나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다. 이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생명 다하는 날까지 달려갈 뿐이다. 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7.txt

제목: [진료실에서] 가파르게 늘어나는 전립선암… 50대 이상은 주기적 검진 필요  
날짜: 2016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4193154001  
본문: 최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에서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이미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남성암 중에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여건도 이를 따라 가는 실정이다.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여건이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수명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수록 전립선암 발생이 늘고 있다. 지난해 중암암등록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남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전립선암은 전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그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건국대학교병원 비뇨기과 김형곤(사진) 교수에게 전립선질환과 치료에 대해 들어봤다. 전립선은 방광아래에 밤알을 뒤집어 놓은 형태의 남성만이 가지고 있는 장기이다. 정액의 일부를 만들고, 정자에 영양을 보급하고 운동성을 도와주고, 요로감염의 방어기능이 있어 임신에는 꼭 필요하다. 문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 크기가 커지면서 노년기에 배뇨 불편감을 초래하는데 이것이 60대 이상 남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립선비대증이다. 반면 전립선암은 연령별로 보면 45세 이하의 남성에서는 드물고 대개 50세 이후부터 나이에 따라 빈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증식기능을 잃고 무질서하게 자기증식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유전적 소인과 남성 호르몬 영향, 음식 및 식이습관, 직업 등이 있다. 전립선은 요도를 감싸고 위치하고 있어 전립선암이 발생하면 요도가 눌려 소변을 보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는 데 전립선비대증에서 볼 수 있는 배뇨증상과 저장증상이 나타난다. 암이 요도 및 인접하는 방광 내로 진전된 경우에는 그 부위에서 출혈해 육안적으로 혈뇨를 보게 되기도 하지만 암의 크기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무증상인 경우도 많다. 또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림프절이나 뼈로 잘 전이되기 때문에 체표에 존재하는 림프절로 전이한 경우에는 그 부위가 붓거나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뼈로 전이한 경우에는 그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전이된 부위의 뼈가 약해진 경우에는 골절되기도 한다. 따라서 뼈 전이를 조사하기 위한 골주사검사와 림프절전이나 폐, 간으로의 원격전이를 알아보기 위한 CT검사나 MRI검사를 시행한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전립선암 치료법에는 능동적 추적관찰, 호르몬요법, 외과요법, 방사선요법, 화학요법의 종류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의 세포분화도가 좋고 암의 양이 적으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오랜 기간을 진행 없이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경우 주기적으로 암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능동적 추적관찰을 할 수가 있다</span>”고 말했다. 이미 서구사회에는 이런 능동적 추적관찰이 많은 경우에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여건은 조금 다른 형편이다. 이미 비뇨기과학회 등 여러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립선암은 서구사회에 비해 악성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암이 전립선내에 국한되어 있을 때는 수술로 암을 제거하고 암이 전립선피막을 넘어 진행되어 있거나 원격전이가 있다면 남성호르몬을 차단하는 호르몬치료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비롯한 방사선치료, 호르몬 치료를 병합하는 다학제 치료가 이용되고 있다. 호르몬치료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나 호르몬 치료의 효과가 없어졌을 때는 화학요법을 실시하지만 효과의 지속기간이 짧다. 치료에 따른 전립선암의 예후는 전신상태, 연령, 병기 및 암세포의 분화도 등에 따라서 다르다. 전체적으로 전립선암은 진행이 늦기 때문에 5년 생존률은 전립선내에 국한되어 있을 때가 70∼90%, 전립선 주위에 퍼져 있는 경우가 50∼70%, 림프절전이가 있는 경우가 30∼50%, 뼈나 폐 등으로 원격 전이한 경우가 20∼30%이다. 김형곤 교수는 “50대 초반의 이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립선암이 전신으로 전이된 경우를 여러 번 보아왔다”며 “전립선암은 호르몬요법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른 암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립선암을 완치하려면 무엇보다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50대가 되면 주기적으로 전립선암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8.txt

제목: [센터 탐방] 진료-관련부서 협진시스템 구축… 세심한 환자관리로 치유 지원  
날짜: 2016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4193153001  
본문: “대다수의 혈액암환자가 면역저하상태이기 때문에 항암치료 외에도 감염관리, 영양관리 등이 무척 중요합니다. 혈액암센터에서는 임상약사, 영양사, 전문간호사, 사회사업가 등 전담팀을 구성해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국대병원 혈액암센터는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등 혈액암 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국대병원 혈액암센터장인 이홍기 교수(사진·종양혈액내과)는 혈액암센터 강점으로 ‘진료과와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진’을 꼽았다. 혈액암 치료는 항암치료와 함께 전반적인 환자관리가 동반되는 것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혈액암은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에 암이 나타난 것으로 암세포가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지기 때문에 발병 시 전신성 질환으로 진단한다. 외과적 절제가 없고, 방사능 치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여타 암과는 차이가 있다. 건국대병원 혈액암센터는 암 협진 클리닉을 통해 임상약사, 영양사, 전문간호사 등 전담팀을 구성해 환자 관리에 집중한다. 혈액암의 진단을 위해서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그리고 영상의학과와의 긴밀한 협진을 진행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주 1회 각각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와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각 환자의 진단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진단 후에는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간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혈액암 환자의 주된 치료법이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조사를 통해 암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혈모세포이식클리닉에서는 조혈모세포의 이식과 채취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환자 본인에게서 채취해 이식할 수도 있지만 병기가 많이 진행된 이후에는 이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기증이 매우 중요하다. 이식 전에는 조직적합( HLA Type)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적합한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국내의 조혈모세포 기증 공여자는 약 30만 명 수준으로,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80∼90%는 적합한 공여자를 찾을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조혈모세포이식은 치료에도 중요한 과정이고, 기증 또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기증자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실제 기증자들 사이에서는 서비스가 우수한 병원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조혈모세포 채취는 성분채집실에서 이뤄진다. 골수에서 채집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거치지만, 말초혈액에서 채취하는 경우 혈액성분분리기를 통해 이뤄진다. 담당간호사는 “<span class='quot1'>한번 채집할 시 약 4∼5시간 정도 걸린다</span>”며 “<span class='quot1'>혈액성분분리기를 통해 혈액 속 조혈모세포만 걸러내고 나머지 성분은 기증자에게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혈액소실이 거의 없다</span>”고 설명했다. 채취한 환자 또는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는 화학처리와 단계적 냉동 등 단계를 거쳐 동결 보관된다. 조혈모세포 이식 전에는 혈액 속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통상 항암제 용량보다는 높은 고용량의 항암치료가 동반된다. 또한 이식 후에도 감염관리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식 전후로는 특수 무균실에서 관리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자들의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증 감염에 걸리기 쉽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식 후 최소 1년 동안은 이식환자의 면역상태가 저하돼 있고, 이식에 따른 합병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에 주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혈액암센터의 또 다른 특징은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도 함께 한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적지 않다. 사회사업팀을 통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후원기관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책을 설계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span class='quot0'>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 외에도 영양관리, 감염관리, 진료 외적인 지원 등 환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span>”고 덧붙였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혈액암 환자의 생존률은 60∼7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과거에 비해 항암제 수준이 급속히 발전했으며, 환자들의 체력도 확연히 좋아져 치료효과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면역관리, 감염 예방, 영양요법과 같은 지지요법의 발달도 생존률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혈액암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치료 중 근거 없는 건강보조식품 등을 복용하게 되면 간 기능과 신장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복용을 지양하고,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9.txt

제목: [쿠키가 만난 명의-건국대 산부인과 강순범 교수] “자궁내막암 보전치료 70% 효과… 절반은 임신 성공”  
날짜: 2016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4193053001  
본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이모씨는 임신을 시도하던 중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았다. 자궁내막암 병변이 자궁에 국한돼 있긴 했지만 암조직의 분화도가 높고 자궁근층 및 자궁경부까지 병변이 번져있어, 자궁을 보존하는 약물치료인 호르몬 요법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러 병원을 찾아 가보았지만 이 씨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심정에 마지막으로 찾은 건국대병원에서 이 씨는 강순범 교수를 만나게 됐고, 성공적인 치료를 마친 후 최근에는 임신에도 성공하게 됐다. 건국대병원 여성부인종양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순범 산부인과 교수는 이 씨가 보존적 치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강 교수는 “우선 병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세한 병기설정 검사를 시행했고, 호르몬 치료의 가능성과 실패 시 예후 등에 대해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다행히도 호르몬 치료 시작 3개월 만에 약물 반응이 좋았고, 치료 시작 9개월 후에는 병변이 소실됐다”며, “환자가 의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치료에 임했고, 의료진들도 소신껏 치료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덕분인지 결과가 좋았다”고 말했다. 건국대병원 여성부인종양센터는 병원 자체의 전반적인 발전에 따라 산부인과 진료환자수도 증가하면서, 이와 동시에 부인암을 비롯한 중증환자 진료비율이 대폭 상승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뤘다. 아울러 이러한 의료진의 연구역량과 의료 인프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현재 미국부인종양임상시험과 유럽부인종양임상시험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강순범 교수는 “<span class='quot0'>불과 몇 년 전까지는 서울 동부 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에 국한돼 있다가, 이제는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오는 ‘전국구 병원’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특히 가임기 자궁내막암 환자의 자궁을 보존하는 호르몬 치료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span>”고 말했다. 이 씨처럼 센터에서 자궁내막암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는 현재까지 100명을 넘어선 상태다. 강 교수는 “<span class='quot0'>이중에서 70%는 효과적으로 치료가 성공했으며, 이중 임신을 시도한 여성 절반 이상이 임신에 성공해 분만의 결실을 맺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수의 기관에도 버금가는 치료성적이라 할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부인종양센터의 가장 큰 장점으로 강순범 교수는 ‘원스톱(one-stop) 의료서비스’를 꼽았다. 강 교수는 “부인암으로 진단되는 순간부터 병의 진행여부를 알기 위한 정밀한 병기설정 검사가 바로 시작된다. 이러한 정밀검사결과와 환자의 임상정보 등을 토대로 여러 진료과의 부인암 전문가들과 함께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가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이른바 ‘다학제 맞춤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은 진료 시작 후 3∼4일 이내에 완료가 되고, 수술까지는 1∼2주일 이내에 진행된다. “<span class='quot1'>이처럼 신속한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예후를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암치료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한 마음도 같이 보살필 수 있다는 점이 우리 센터의 특징이다</span>”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현재 여성부인종양센터에서는 미세침습수술을 적용해 융합 복강경수술, 경질 복강경무흉터수술, 단일공 복강경수술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세침습수술 기술에 추가해 최근에는 최신형 로봇수술장비 도입을 추진 중으로, 단일공 로봇수술을 시행하는 게 강순범 교수의 앞으로의 계획이다. 강 교수는 “<span class='quot0'>부인암환자들의 치료 성적을 높이기 위한 항암온열치료장비도 곧 도입될 예정이며, 나아가 향후에는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더욱 확충해 지금의 삼차진료를 더욱 격상시키고 아울러 국제 연구 및 협진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span>”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0.txt

제목: 올 송음의약학상에 한세준 명예교수, 광역학 연구·치료 빛났다  
날짜: 2016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4173117001  
본문: 제19회 송음 의약학상 수상자로 조선대 의과대학 한세준 명예교수와 홋카이도 약학대학 하라시마 히데요시 박사가 선정됐다.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지난달 25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서울에서 제19회 송음 의약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세준 명예교수는 광역학 연구학회인 대한광역학회 감사와 회장을 역임하며 광역학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 분야의 최대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하라시마 히데요시 박사는 DNA 질환을 치료하는데 활용성이 높은 ‘나노입자를 이용한 siRNA의 폐 상피세포로의 delivery’ 연구주제로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역학치료를 받아 효과를 본 환자의 임상사례가 발표됐다. 아내가 동성제약이 임상시험 중인 광역학치료를 받았다는 김모씨는 “<span class='quot0'>현재 동성제약이 임상시험 중인 광역학 치료를 2차례 받았으며 그 결과가 매우 좋았다</span>”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제 집사람은 올해 61살로 평소 건강한 가정주부였다”라고 말문을 연 김씨는 “올 4월 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얼굴색이 조금 검어져 인근 내과병원 내원해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정상범위를 훨씬 초과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병원에 입원해 정밀검사를 했고, 담도암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에서는 혈관에 일부 침투되어 수술이 어렵고,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권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고민을 하던 차에 지난해 동성제약의 약학시상식에 참석해서 아내의 진단과 관련된 광역학 치료 연구로 서울아산병원 박도현 교수가 수상한 사실이 생각나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올 6월 중순 1차, 이어 9월초에 2차 광역학 치료 시술을 받게 됐다”라고 전했다. 특히 김씨는 “시술을 받고난 11월 현재 환부크기는 당초 지름 4cm대에서 절반정도로 줄었고, 제반 혈액검사 수치도 거의 정상범위이다. 또 부작용도 없었고, 현재 일상에서 정상생활을 하고 있다”라며 “이 모든 놀라운 치료효과에 대해 동성제약 관계자들과 이 시술을 집도한 박도현 교수님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span class='quot1'>많은 환자들이 저의 집사람과 같은 광역학 치료효과 얻기를 간곡히 기대한다</span>”라고 전했다. 송음 의약학상은 1998년 동성제약의 창업자인 이선규 명예회장이 약업을 통한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고자 매년 의약학발전에 공을 세운 연구자들을 선정해 수상한다. 국내외 의약학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우리나라 의약학발전을 선도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까지 국내외 연구자 43명이 상을 수상했다. 이양구 대표는 “많은 고객들이 제품을 찾아줬기 때문에 창립 59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내년에는 생리대·마스크 등 제품을 출시해 생활용품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프로바이오틱스나 알레르기성 비염 완화 제품 개발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이선규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광역학치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암 정복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1.txt

제목: 원자력병원 질환 관리, 식도암 진단-치료 방사성의약품 세계 첫 개발  
날짜: 2016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4172944001  
본문: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눈부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수명 100세 시대를 앞두게 되었지만, 인구 고령화로 암과 치매 등 난치병의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의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다. 첨단 의료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사성의약품은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붙여 만든다.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포도당 유사체 ‘F-18 FDG’ 방사성의약품을 체내에 주사하면 포도당 섭취가 활발한 암 세포 주변에 방사성의약품이 집중적으로 모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통해 암의 위치와 크기 등을 진단한다. 또한, ‘구리-64(Cu-64)’ 등과 같은 방사성의약품은 암을 진단하는 동시에 배출되는 방사선으로 암 세포를 파괴하여 암을 치료하기도 한다. 현재 원자력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재단이 방사성의약품 제조사로 등록돼 있다. 원자력병원이 1989년 국내 최초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성공했다. 이후 2005년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요오드-124(I-124)’와 2012년 ‘구리-64(Cu-64)’의 대량 생산기술과 생산허가를 취득해 국내 다수기관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지원함으로써 방사성의약품 국산화가 크게 확대됐다. 방사성의약품의 생산기술 향상은 난치성 암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최근 원자력병원은 식도암의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방사성의약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는 암세포와 결합하는 항체 의약품 세툭시맙에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 ‘구리-64(Cu-64)’와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루테튬-177’을 각각 붙인 이른바 ‘컨버전스 방사성의약품’이다. 기존 항체면역치료에 비해 종양의 크기가 61.5% 감소하는 등 종양성장 억제효과가 입증됐다. 기존 방사성의약품에 비해 암세포 결합력은 2배 높이고, 간에 대한 축적률은 낮춘 방사성의약품도 등장했다. 원자력병원이 ‘구리-64(Cu-64)’를 이용해 개발한 이 방사성의약품을 통하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통한 암 진단율이 높아지게 됐다. 또한 암 외의 염증도 진단할 수 있는 방사성의약품 ‘방사성지르코늄 옥살레이트(Zr-89 oxalate)’는 기존 포도당 유사체 ‘F-18 FDG’ 보다 높은 염증 진단율로 류마티스와 같은 염증성 질환 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사면역치료는 차세대 암 치료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원자력병원 혈액암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유기술로 암세포만 공격하는 항체에 방사성동위원소인 요오드를 결합시킨 방사면역치료제 ‘방사성 요오드-리툭시맙’을 제조해 난치성·재발성 비호지킨림프종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의 약 3배 이상의 치료효과를 확인했다. 현재는 이를 토대로 신규 임상시험을 기획 중이다. 원자력병원 노우철 원장은 “방사성의약품은 투여량이 적고, 신체 내에서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한 약물이므로, 환자들이 방사선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앞으로 암 진단 및 치료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한층 끌어올린 다양한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여 암의 조기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2.txt

제목: 만 12세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시행 5개월됐지만 27.8% 그쳐  
날짜: 2016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4172128002  
본문: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시행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지난 11월2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약 27.8%다. 4명 중 1명꼴로 접종받은 셈이다. 이는 해외의 경우와 비교하면 낮진 않지만, 국내의 다른 백신 접종률과 비교해보면 꽤 낮은 수준이다. 최근 보건통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매년 5만명 이상이 진료를 받는 암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3600여명이 새롭게 진단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20∼30대의 젊은 여성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자궁경부암 발생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다. 그런데도 예방접종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다수 사람들이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시행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낮은 접종률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백신에 대한 일종의 불안감이 형성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인식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과장은 “<span class='quot0'>실제 파악한 결과 학생이나 부모님, 교사들이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 자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0'>무료접종을 알고 있더라도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등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괴담처럼 많이 퍼진 상태다</span>”고 설명했다. 공 과장은 “<span class='quot1'>언론 등에서 희귀한 케이스나 사실과 맞지 않는 케이스를 퍼트리는 경우도 있으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안예모)’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는 자연치유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희귀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부작용을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많다</span>”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른 잘못된 믿음이 부모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해, 오히려 감염병이 증가하고 결국 미스트러스트를 믿게 되고 유행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불임 등이 꼽힌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타 백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지난 2013년 일본에서 나타난 이상사례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해당 증상은 ‘접종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과 긴장에 의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불임과 관련해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난소부전’ 증상에 대해 자궁경부암 백신접종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명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도 자궁경부암 백신이 접종을 중단할 만큼 안전성 우려는 없다고 강조하며 안전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예방접종 대상자들 중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16만 가구에 자궁경부암 접종이 왜 필요하고, 부작용이 큰 문제가 아니며, 언제까지 맞아야 하는지 등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또한 접종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공인식 과장은 “라디오나 TV 광고 등을 통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진행해 의심신고 건에 대한 리뷰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15만명 정도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았고, 이중 15건이 의심신고가 들어온 상태다. 해당 건에 대해 하나하나 어떤 사례인지, 어떤 증상인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등 세부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해당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백신과 분명하게 연관돼 있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박예슬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3.txt

제목: 작년 출생 아이 82세까지 산다  
날짜: 2016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2182007001  
본문: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평균 82.1년으로 1년 전에 비해 0.3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의 ‘2015년 생명표’에 따르면 2015년생의 기대수명은 남자 79.0년, 여자 85.2년으로 여자가 6.2년 높았다. 생명표는 현재 사망 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나이대별로 앞으로 몇 년 더 생존할 수 있는지를 관측하는 통계다. 2005년생의 기대수명 80.2년에 비하면 10년 새 2년 가까이 늘었다. 이들 중 100세까지 장수할 확률은 남자 1.0%, 여자 3.6%였다. 현재의 사망 원인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2015년 출생 남아의 사망 원인 확률은 암이 27.3%로 가장 높았고 심장질환(9.7%), 뇌혈관질환(8.6%) 순이었다. 만약 암이 정복될 경우 지난해 출생아의 수명은 남자 5.1년, 여자 2.9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40세를 맞은 남자는 향후 40년, 여자는 46년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남자는 1.1년, 여자는 1.9년 높았다. 남자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81.3년)였고, 여자는 일본(86.8년)이었다.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4.txt

제목: 갑상샘암 급증은 ‘과잉 진단’ 탓? “94%가 2㎝ 미만 종양”  
날짜: 2016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2000130001  
본문: 국내 갑상샘암 증가의 90% 이상이 의사의 촉진, 증상 등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2㎝ 미만의 암 발견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 미만 암은 크기가 작고 당장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갑상샘암의 급증이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험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무분별한 초음파 검진 등 ‘과잉 진단’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1일 국립암센터 이진수·오창모 박사와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소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갑상샘암 발생률은 1999년 인구 10만명당 6.4명에서 2008년 40.7명으로 약 6.4배 증가했다. 이 기간 갑상샘암 증가분(34.3명)의 94.4%가 2㎝ 미만의 암이었고, 60% 이상은 검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가분의 97.1%는 ‘국한(암이 갑상샘 조직을 벗어나지 않음) 및 국소(림프절로 전이됐지만 다른 장기로는 옮겨지지 않음) 병기’에 해당됐다. 이 단계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00%가 넘는다. 류준선 국립암센터 갑상샘암센터장은 “크기가 작더라도 갑상샘암을 일단 발견하면 대부분 환자들은 지속적 관찰보다는 수술을 택하고, 수술 후에는 갑상샘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하는 등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서 “갑상샘암 의심 증상이나 가족력 등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적인 초음파 검진은 줄이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5.txt

제목: [미래의학포럼] 빅데이터·AI 접목 ‘개인별 맞춤치료’ 준비 끝났다  
날짜: 2016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30185201001  
본문: 전 세계 주요 국가는 물론 기업과 연구단체, 병원 등 많은 의과학자들이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또는 개인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 연구에 본격 나서고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신년 연설에서 획기적인 의료비 지출 감축 방안으로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추진을 발표했다. 환자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치료를 제공해 난치병을 정복하고 의료비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의료비 부담 감축과 환자들의 치료 수준 향상 방법으로 정밀의료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8월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정밀의료’의 적극 육성을 선언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정밀의료는 유전체 정보, 진료·임상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환자 특성에 적합한(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밀의료를 진료 정확도와 치료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년 내로 국민 건강정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정밀의료 코호트(연구 참여자)’ 구축에 나선다. 성별, 연령, 유전정보, 생활습관 등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별로 정보를 수집해 연구하고, 이를 신약개발에 활용 가능하도록 연구자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코호트 구축을 통해 정부는 개별기관이 보유한 유전정보(10만명), 의료정보(병원), 건강정보(약 100만명), 생활환경·습관 정보를 ‘정밀의료 정보통합 시스템’ 하나로 관리한다. 또한 이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정밀의료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밀의료 발전 특별법’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검사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유전체 의학과 생물 정보학 등 정밀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도 설립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250억원을 책정하고, 정밀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밀의료를 통해 우선 ‘암(癌)’ 정복에 나선다. 한국인 3대 암(폐·위·대장암)과 관련한 1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및 첨단 모바일 기기도 개발한다. 직장인, 신고령층(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도구에 적응력이 향상된 50∼60대 인구), 암 생존자들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내외 AI 기술을 활용해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진단·처방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진단·치료지원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ing System)’을 2021년까지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인프라와 연구개발이 구축되면 제약기업은 유전체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신약개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유전질환 등 난치병 치료약 개발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의료계와 산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홍진 인성정보 U헬스산업본부 이사는 “모바일 등 스마트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시장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 수용도뿐 아니라 IT 기술 수준도 높아 의료와 ICT,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역량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의료계 또한 유전체 의학 발전과 빅데이터 활용으로 질병 치료 효과를 높이고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span class='quot0'>체계적인 한국형 암 치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환자 치료의 폭을 넓히는 일이므로 긍정적</span>”이라고 평가했다. 글=쿠키뉴스 송병기 전미옥 기자 songbk@kukinews.com, 사진=김지훈 기자, 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6.txt

제목: [미래의학포럼] 유전학+게놈프로젝트 ‘정밀의학 시대’ 열다  
날짜: 2016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30183104001  
본문: “<span class='quot0'>다가올 바이오 헬스시대에는 빅데이터에 의한 질병 예측을 통해 수명이 연장되고 암 생존율이 증가할 것입니다.</span>” 서정선 서울대의대 유전체연구소장(마크로젠 이사회 회장)은 30일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2016 미래의학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 ‘바이오 의료시대 새로운 패러다임: 정밀 의료’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 소장은 “<span class='quot1'>IT와 모바일이 주도하는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사물 인터넷(IoT)과 로봇을 통한 연결성 확대가 보편화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현실 세계와 사이버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바이오 헬스시대에는 빅데이터에 의한 질병 예측이 가능해질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밀 의학’에 대해선 “개인 유전정보와 생활습관, 환경 정보를 근거로 한 개인별 맞춤 의학”이라고 정의하고 “유전체 정보, 전자의료기록(EMR), 모바일헬스(Lifelog)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로 처리해 질병을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서 소장은 “<span class='quot1'>정밀의학은 유전학 150년 역사와 ‘인간 게놈(Genome)프로젝트’ 이후 15년이 만든 합작품</span>”이라고 단언했다. 인간게놈 프로젝트는 사람 유전체 안에 있는 약 30억 염기쌍이 어떻게 배열돼 있는지 밝혀내 질병을 예측하는 작업으로 1990년부터 국제 공동 연구로 시작됐다. 서 소장은 “<span class='quot1'>정밀 의학의 단기 목표는 암</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개인 유전체 정보에 기반한 정밀 암 면역 치료가 대표적</span>”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암 탐사 계획(Cancer Moonshot 2020)’을 올해 시작했다. 이는 10만명의 암 환자 게놈을 분석하고 그중 2만명을 대상으로 개별 암 특성에 맞는 면역 치료와 백신 개발을 시도하는 프로젝트다. 정밀 의학은 장기적으로 ‘약물 유전체’ 연구와 기타 만성병 치료를 목표로 한다. 약물 유전체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처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을 막으려는 연구 분야다. 서 소장은 “<span class='quot1'>이를 위해 100만명의 자발적 참여자(연구 코호트)를 구축해야 한다</span>”며 자원 봉사자와 연구자, 의사가 함께하는 새로운 참여의학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김종원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유승준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해 논의의 장을 펼쳤다. 정영기 과장은 “<span class='quot2'>정밀 의료를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해 미래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밀의료 연구·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중요과제로 꼽았다. 이어 일반인 최소 10만명의 정밀의료 자원을 수집해 연구·산업화 목적으로 개방하고 한국인 3대 전이암(폐·위·대장암)에 대한 맞춤형 진단·치료법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회나 직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밀의료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 센터장은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높은 의료 수준과 국민건강 데이터 등을 한국의 강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 인프라의 활용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span class='quot3'>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융합신산업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아울러 정부의 정책 지원도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한 규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기업은 융합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원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보험 수가, 연구 개발에 대한 부처 간 논리, 개인정보보호 등 정밀의료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유전체 정보가 개인정보가 되는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실제로 유전자를 기반으로 모든 진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규제를 낮추는 등 사회 규제 어뷰징(오남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span class='quot3'>정부는 민간산업에서 발전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심사 역할로 전환해주길 바란다</span>”고 제안했다.민태원 기자, 쿠키뉴스 박예슬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7.txt

제목: [미래의학포럼] “AI·모바일 헬스케어 업체 10년 뒤 글로벌 톱10 선점”  
날짜: 2016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30180845001  
본문: “<span class='quot0'>2026년에는 인공지능(AI), 의료에 기반한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span>” “<span class='quot0'>개인 ‘헬스 아바타(사이버 의료 분신)’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24시간 건강을 돌보는 시대가 온다.</span>” 전문가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6 미래의학포럼’에서 조만간 우리 사회에 닥칠 미래상을 이같이 예측했다. 선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기조 강연에서 “<span class='quot1'>4차 산업혁명은 3D프린팅과 로봇공학 같은 물리학 기술,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 유전공학·스마트 의료 등 생물학 기술이 융복합되는 파괴적 혁신을 말한다</span>”며 “보건의료 산업이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 이사장은 이어 “<span class='quot2'>이런 변화들은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을 넘어 슈퍼 노멀(Super normal)이 될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10년 뒤에는 구글핏, 스탠다임 등 AI나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업체들이 세계 10대 기업을 선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일보와 쿠키뉴스가 공동주최한 제1회 미래의학포럼에는 국회 심재철 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김상훈 새누리당 간사,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정·관·학계와 보건의료·제약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1세션 ‘정밀 의료’에서 주제 발표한 서정선 서울대의대 유전체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3'>정밀 의학은 개인 유전체(Genome) 정보와 질병기록, 모바일 헬스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로 처리해 질병을 예측하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선 10만명의 암 환자 게놈을 분석해 개별 암 특성에 맞게 면역치료를 시도하는 ‘암 탐사 2020계획(Cancer Moonshot 2020 plan)’을 올해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또 김주한 서울대의대 의료정보학 교수는 이어진 2세션 ‘스마트 헬스케어’ 주제 발표에서 “<span class='quot4'>정밀 의료가 실현되면 모든 개인이 스마트폰 같은 사이버 공간에 자신의 ‘헬스 아바타’를 구현하게 되고 잠자거나 일하는 시간에도 건강정보와 질병을 관리·예측할 수 있게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8.txt

제목: ‘내보험 다보여’ 서비스 오픈… 클릭 한번에 보험 내역 ‘좌르르’ 같은 연령대 보증액 비교도 OK  
날짜: 20161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9040435001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 내역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 보험 다보여’ 서비스가 28일 문을 열었다. 이 서비스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계약현황, 보장내역, 보험료, 납입주기를 한번에 보여준다. 분석통계를 이용하면 같은 연령대, 같은 성별의 다른 사람이 가입한 보험과 비교도 할 수 있다. 기자가 직접 ‘내 보험 다보여’ 서비스를 체험해 봤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내 보험 다보여’ 배너(ins.credit4u.or.kr)를 클릭하면 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가운데 하나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까지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서비스 메뉴는 ‘계약 현황’ ‘정액형 보장 계약내용’ ‘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계약 현황에선 자신이 가입한 전체 보험과 이 가운데 유효계약이 몇 건인지를 알 수 있다.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총액도 볼 수 있다. 30대 초반인 기자는 CI(중대질병)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등 3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있다. 매월 보험료로 약 48만원을 지출한다. 각 보험계약의 남은 보장기간도 표시됐다. 각 보험이 어느 나이까지 보장해주는지 확인하고, 연장 혹은 신규 가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액형 보장 계약내용으로 넘어가면 보험별 상세내용이 나온다. 계약 상태를 ‘전체’로 놓고 조회하면 소멸된 보험을 포함해 모든 보험의 보장 시작, 종료일 등을 볼 수 있다. 보험 리스트를 하나씩 클릭하면 아래쪽에 상해사망, 암진단 등 가입한 보장내역별 보장금액 등이 노출된다. 홈페이지 하단 정액형 보장 분석통계는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서비스다.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과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금액을 비교해준다. 30대 남성의 평균 상해사망 보장금액은 1억2100만원이었다. 상해사망 보장금액이 조금 부족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받는 보험료도 모자랐다. 30대 남성의 평균은 3447만원인 데 비해 기자는 2000만원이었다. 상해 입원비, 급성심근경색 진단은 보장 내역이 없다. 앞으로 다른 보험을 들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었다. 다른 이들의 보험 계약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유용하다. 다만 개별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 명칭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다. 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메뉴에선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실손형 보장 통계분석에선 중복 가입한 실손보험 보장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다. 보장 내역별로 중복 가입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다. 1건만 가입한 경우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되고, 가입돼 있지 않으면 아무 표시도 나오지 않는다. 30대 남성의 실손의료보험 보장별 평균 가입률은 75∼78%다. 기타 실손 가운데 벌금 관련 보험가입률은 50%로 높은 편이다. ‘내 보험 다보여’는 2006년 6월 이후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보험정보 2억2000만건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에서 자동차보험 등은 빠져 있다. 신용정보원은 2018년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9.txt

제목: 시신까지 주고 떠난 첫 간호학 박사  
날짜: 20161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7211434001  
본문: 한국인 ‘간호학 박사 1호’ 김수지(사진) 전 서울사이버대 총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김 전 총장은 급성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장례식장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11호)이며 발인예배는 28일 오전 10시다. 장지는 따로 없으며 시신은 기증한다. 김 전 총장은 평생 간호사로 살았다. 아픈 사람 돌보는 일을 소명으로 삼았다. 간호사가 된 것은 1948년 여순사건 때 총살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남성을 돌봐줬던 간호사 아주머니에게 감명을 받아서다. 그 길로 이화여대 간호학과에 입학했고 78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 보스턴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전 총장은 79년 국내 처음으로 호스피스를 도입했다. 한 여성 암환자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며 편안히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왔던 일이 계기가 됐다. 당시엔 호스피스란 말 자체도 없던 시절이었다. 김 전 총장은 호스피스센터와 요양원, 정신사회재활센터를 건립해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늙어가겠다는 꿈을 꿨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2004년부터 서울사이버대 학생으로 변신, 62세의 나이에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2006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해 서울사이버대 총장으로 취임했고 2009년엔 꿈에 그리던 노인공동생활 시설인 요양센터를 개원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2011년엔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로 선교활동을 떠나 릴롱궤 대양간호대 교장으로 일하며 간호 교육과 행정, 지역봉사 등에 힘썼다. 심리적 약자를 지원하는 ‘좋은의자’와 ‘아하가족성장연구소’ 이사장으로도 활동했다. 이화여대 간호대학장, 대한간호학회장, 대한YWCA 연합회 부회장, 한국정신보건전문간호사회장, 한국호스피스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3년 별세한 고(故) 김인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남편이다.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0.txt

제목: [오늘의 설교] 말씀의 능력으로 마르지 않는 삶의 기적을 경험하라  
날짜: 20161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7211027001  
본문: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아합왕 시대의 선지자로 불신(不信)과 불의(不義)와 불황(不況)의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이런 시대를 맞이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말씀의 기근을 만나서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젊은 남녀가 쓰러졌다고 전합니다(암 8:11∼13).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삶은 불의와 불황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도 평범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특별한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말씀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르지 않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160㎞나 떨어져 있는 시돈 땅의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귀부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조차 없는 과부를 만납니다.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더니 나아가 떡 한 조각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과부는 자신의 형편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한 끼를 때우는 정도밖에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을 위해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도 매정하고 무자비한 요구, 몰염치와 몰상식처럼 보이는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긴 쉬워도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황당한 요구에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도 순종해 말씀을 전했고, 사르밧 과부도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식을 무시하면서 살아서도 안 되지만 상식 수준에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상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곳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 틀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선지자의 황당한 요구와 과부의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기적을 창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근을 만나는 데 이 가정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순종함으로써 경험하는 삶이 불신과 불의와 불황의 시대를 축복의 삶으로 바꾸는 삶의 비결입니다.이병철 목사 (춘천 주향교회)약력=△한국성서대 △총신대신학대학원 졸업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1.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교회가 싫었던 CEO 아들의 고난 통해 부활의 주를 만나다  
날짜: 20161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7210720001  
본문: 지난 해 봄, 기독대안학교에 다니는 고3 아들이 뭔가 �i기는 듯 집에 와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환청과 환상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날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고 상상할 수 없는 힘과 기이한 행동들에 우리 부부는 가슴을 찢으며 살았다. 내 몸무게가 8㎏이나 빠져 암에 걸렸다는 소문까지 났다. 대학시절 운동권에 있었던 나는 기독교를 심하게 비판하며 성경 내용도 내 맘대로 난도질했다. 결혼할 즈음엔 열정만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쫄딱 망했다. 하루 버티기도 어려웠던 그 때 아내는 어린 아들을 업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를 했다. 그에 비해 나는 단지 아내와 결혼조건을 지키기 위해 19년 동안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지방에서 혼자 지내던 나는 우연히 고향사람에게 비구니를 소개받았다. 보살피는 조상이 없어 힘들게 떠돌아다닌다는 그의 말에 전 재산 300만원을 털어 제사를 지냈다. 그 후 일 년 정도 지나 일이 잘 풀려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롭게 됐다. 아내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 했고, 나는 제사를 지내 조상이 돌봐줬다고 했다. 갈등은 있었지만 우리는 다시 안정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아들의 심각한 병증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아내와 밤새 말씀을 보고 기도했지만 혼란스럽고 두렵고 무섭기만 했다.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지금 저를 부르시는 줄 압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시고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결국 일까지 다 놓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러다 춘천한마음 교회의 한 자매를 만났다. 그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인만 바뀌면 아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예수가 하나님, 내 안의 주인을 바꿔라.’ 등 생전 처음 듣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우리 부부는 목사님의 설교영상과 유튜브에 있는 성도들의 간증을 계속 보고 들으며 정말 많이 감격하며 울었다. 얼마 후 춘천 한마음교회를 찾아갔다. 젊은 성도들의 밝은 표정, 자신의 치부를 간증하는 오픈된 강대상, 전국에서 모여든 성도들의 가식 없는 자유로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 확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님 등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다. 목사님의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선명해졌다. 드디어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섰다. 자녀 가족 사업 등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여기며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이 적나라하게 보였다. “주님! 교만과 죄 덩어리인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 되어 주셨는데, 저는 그동안 마귀들의 종노릇하며 속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철저히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온 맘으로 드리며 끝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그 후 거짓말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들의 증상이 눈 녹듯 사라지고 날마다 말씀 간증을 쓰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멋진 대학생이 됐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이다. 아들의 고난을 통해 나를 이 사명자로 불러 세워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린다. 이 기쁨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달려가리라 다짐한다. 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2.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 주가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에서 출발  
날짜: 20161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7210618001  
본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은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요 1:12).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span class='quot0'>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span>”라고 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가치관, 이성, 감성 등으로는 결코 확증할 수 없다. 성령께서는 ‘부활’을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신다(요 2;22).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실제 상황’이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가, 즉 동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복음의 광채를 가릴 뿐만 아니라(고후 4:3∼4),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미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는데 나의 부족한 행위나 모습 등 질그릇에 집중하느라 정작 초점을 맞춰야 할 보배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만왕의 왕, 천국의 주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다(히 11:5,6).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이 기록돼 있다. 이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답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다. “<span class='quot1'>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span>”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 교회에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형제가 있었다. 절망적인 결과를 통보받고 낙심하던 아내에게 이 형제는 “지금 내 병을 붙잡은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은 거야”라고 물었고, 아내는 다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벌떡 일어나게 됐다. 또 암으로 소천한 한 자매는 투병 중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상 감사와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줬다. 고난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 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히 11:6).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고난 중에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3.txt

제목: 20∼ 50대 상해 사망한 경우, 평균 보험금 1억∼ 1억2000만원  
날짜: 20161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7185853001  
본문: 정액 보험에 가입한 20∼50대 한국인이 상해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평균 1억∼1억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가장 많았다. 한국신용정보원은 2006년 6월 이후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정액 보험계약 약 2억2000만건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한국 30대 남성의 평균 보장금액은 1억2100만원으로 남성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30대 여성은 1억700만원이었다. 20대 여성이 1억2200만원으로 여성 중에선 가장 높았다. 20대 남성은 1억1900만원이었다. 40대 남성의 평균 보장금액은 1억1700만원이었다. 여성은 1억1100만원이었다. 50대는 남성 9900만원, 여성 1억100만원이었다. 60대는 남녀 모두 6300만원 수준이었다. 이밖에 후유장해 보장금액은 40대 남녀가 5000만∼5400만원 정도였다. 50대는 4700만∼5300만원, 30대는 5300만∼5600만원을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10대 이하에서 크게 높아졌다. 어린이보험 등을 통해 상해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0대 남녀의 보장금액은 9200만∼9400만원 수준이었다. 10세 이하 남녀는 1억1100만∼1억1200만원 정도였다. 암 진단 보장금액은 20∼40대에서 3300만∼360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분석은 28일 문을 여는 ‘내보험 다보여’ 서비스에서도 공개된다. 자신이 가입한 정액형 보험의 보장과 같은 연령대·성별의 평균 보장금액을 비교해볼 수 있다. 신용정보원은 의료 실손보험 비교 분석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이 늘어나는 원인이 단순 불황보다는 세대 간 소득 양극화 때문일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생명보험업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2010년 1.1%에서 지난 2분기 1.4%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생명보험사가 받은 보험료(수입보험료) 비율도 같은 기간 분기별 평균 0.9%씩 증가했다. 보험 해약이 늘고 있는데 보험사 수입도 증가하는 상충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중고령 부유층은 고령화에 대비해 보험을 구매하고, 젊은 중산층은 경기 불황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나성원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4.txt

제목: 건강검진자 57% 질병 있거나 의심  
날짜: 20161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7183713001  
본문: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10명 중 6명은 질환을 갖고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서 1차 건강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사람은 7.9%에 불과하다고 27일 밝혔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등 자기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34.9%였다. 질환 의심자는 38.5%에 달했고, 유질환자는 18.7%였다. 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검진 대상자와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이 비율에 영향을 미쳤다</span>”고 분석했다. 일반검진 수검률은 2010년 68.2%에서 지난해 76.1%로 늘어났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생산직은 1년에 한 번 일반검진 대상자가 된다. 지난해 일반검진 대상자는 1735만7000여명이었다. 암 검진을 받는 사람의 수도 늘어났다. 2010년 47.8%이던 수검률은 지난해 48.3%로 늘었다. 영유아 건강검진도 같은 기간 50.1%에서 69.5%로 증가했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7.9%로 나타났다. 여성의 흡연율은 3.2%다. 전체 흡연율은 2010년 25.4%에서 지난해 21.9%로 감소했다. 비만율은 같은 기간 32.1%에서 34.1%로 증가했다.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5.txt

제목: 갑상샘암 대도시 빈발… 간암은 울릉군 최다  
날짜: 20161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2181120001  
본문: 우리나라 지역별 발생 격차가 가장 큰 암은 남녀 모두 갑상샘암으로 최대 15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방암과 전립선암 발생률은 건강검진이 활성화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높았다. 담낭(쓸개)·담도암은 부산 강서구 등 낙동강 인근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민물고기 생식으로 인한 간흡충 감염이 많은 탓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22일 시·군·구별 암 발생 통계 및 발생 지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총 24개의 암종을 대상으로 1999년 국가 암 등록 통계가 시작된 이후 5년 단위, 3개 구간(1999∼2003년, 2004∼2008년, 2009∼2013년)으로 나눠 산출했다. 시·군·구별 암 발생률(10만명당 암 진단자 수)은 암 종류에 따라 적게는 2.2배(위암·폐암), 많게는 14.5배(갑상샘암)까지 차이 났다. 갑상샘암은 전남 지역 대부분과 서울·대전·대구 등 대도시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특히 전남 여수는 1999∼2003년, 2004∼2008년 남녀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009∼2013년엔 남성의 경우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분당, 여성은 전남 광양시와 대구 수성구가 각각 발생률 1, 2위에 올랐다. 이들 지역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샘암 검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돼 과잉 진단이 높은 암 발생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 유방암은 1999∼2003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2004∼2008년 경기도 분당과 경기 하남시, 2009∼2013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발생률 1, 2위였다. 이곳에 사는 여성의 초경 연령이 빠르고, 출산 연령이 늦는 점 등이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남성 전립선암의 경우도 서울 강남·서초구와 경기 분당이 최근 15년간 발생률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높은 전립선암 검진율 때문으로 보인다. 담낭·담도암은 남성의 경우 1999∼2003년 부산 강서구, 2004∼2008년, 2009∼2013년 경남 함안군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여성도 부산 강서구가 지속적으로 발생률 1∼2위권을 맴돌았다. 낙동강 인근인 이들 지역의 높은 간흡충증 유병률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암은 남성의 경우 특이하게도 경북 울릉군이 15년간 최다 발생 빈도를 보였다. 또 남녀 모두 경남과 전남 남부 지역을 따라 발생률이 높았다. 이들 지역에서 간암의 주요 원인인 B형·C형간염 유병률이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span class='quot0'>울릉군의 고위험 음주율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과도 관련 있다</span>”고 말했다.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6.txt

제목: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암 환자 위한 ‘식단 전시회’  
날짜: 20161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2000236002  
본문: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병원장 이문성)은 오는 24∼25일 양일간 본관 1층 로비에서 ‘암요! 걱정 말아요! 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식단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 위 절제후식, 장 수술후식, 저균식 등 현재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암 환자식과 식사요법을 비롯해 유방암, 자궁암, 폐암, 간암 등 암 종별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권장식단을 소개하는 행사다. 상세 프로그램은 병원 홈페이지(www.schmc.ac.kr/bucheon)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누구든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7.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89) 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내시경센터] 혁신적 내시경술로 고통↓ 효과↑  
날짜: 20161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2000135001  
본문: 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내시경센터는 한국인 소화기병 극복의 첨병 역할을 하는 전문센터다. 특히 위암, 대장암, 식도암, 담도·췌장암 등 중증 소화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내시경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관심을 끌고 있다. 내시경은 말 그대로 위장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암 검사를 위한 조직 채취는 물론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거울이다. 박종재 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내시경센터장)는 21일 “<span class='quot0'>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법의 발달과 더불어 위장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이상 병변이 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도려내는 것도 가능해졌다</span>”고 강조했다. 최근 소화기내시경 분야는 타 분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검사와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혁신적인 방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늘 한발 앞선 진료를 추구해 온 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내시경센터 역시 과거 개복수술을 하지 않곤 해결을 할 수가 없었던 난치성 소화기병도 혁신적인 내시경술로 합병증과 입원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연간 250여 명의 조기위암, 조기대장암 환자들이 이 곳에서 내시경 시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고 있다. 소화기내시경 시술의 꽃으로 불리는 내시경점막절제술과 점막하박리술(ESD) 시술건수도 연간 600여 건이다. 이를 포함해 각종 소화기내시경 시술건수는 연평균 약 2만여 건에 이른다. 그 뿐이 아니다. 식도암이나 위암 진행으로 식도 또는 위 배출구(유문부)가 막혀서 음식물 섭취가 여의치 않을 때 스텐트(금속성 그물망)삽입술, 풍선 확장술 등으로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소화기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치료도 활발히 시행 중이다. 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내시경센터는 위·식도, 십이지장 쪽의 이상을 체크하고 치료하는 상부내시경실, 주로 대장과 소장질환을 다루는 하부내시경실, 점막 하(下) 병변 감시 및 치료를 담당하는 내시경초음파실, 췌장·담도질환을 살피고 치료하는 췌담도내시경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상부내시경실은 박영태(63) 교수와 박종재(55)·주문경(43) 교수팀이, 하부내시경실은 이범재(45) 교수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또 내시경초음파실은 박종재 교수가, 췌·담도내시경실은 김재선(55)·김효정(46) 교수팀이 각각 담당한다. 박영태 교수는 대한소화관운동학회장(2005∼2007년), 아시아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장(2008∼2011년), 대한소화기학회 부회장(2010∼2011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장(2011∼2012년)을 역임하는 등 위·식도질환 분야 권위자다. 고려대구로병원 개원 이듬해인 1984년 4월부터 고려대 의대 소화기내과학교실 교수로 일해 왔다. 현재 삼킴 장애, 비(非)심인성 흉통을 비롯해 위·식도역류질환 등 식도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김재선 교수는 췌장과 담도계에 생긴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담도내시경술’ 등 다양한 검사 및 시술을 하고 있다. 외과, 영상의학과, 종양내과 등과 함께 하는 다학제 협진 프로그램에 참여,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주는 환자 중심 진료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 교수는 1995∼96년 방문연구원 신분으로 일본 도쿄 데이쿄(帝京)대학 부속 미노조구치(溝口)병원에서 담도내시경 시술 관련 기술을 연마했다. 또 1998년부터 2000년 1월까지 2년여 간 미국 갈베스톤 텍사스대를 방문, 내시경 및 초음파를 이용한 최신 담석증 치료법에 대해 연구하고 돌아왔다. 이범재 교수는 대장·소장 질환 전문가다. 고려대안산병원 전임의와 구로병원 임상교수(2006∼2009년)를 거쳐 2010년부터 구로병원 소화기내과를 지키고 있다. 2009∼2010년 미국 노스웨스턴대, 2014∼2016년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UCSD)를 각각 방문, 염증성 장질환과 대장암 발생원인을 분자생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했다. 최근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대장암 관련 새로운 유전자 발굴을 위한 연구를 새로 시작했다. 이 교수는 캡슐 내시경 및 이중 풍선을 이용한 소장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도 관심이 많다. 김효정 교수는 담석증, 담낭염,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등 췌·담도질환을 세부 전문 분야로 삼고 있다. 2003∼2006년 강원의대 소화기내과 조교수, 2007∼2010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조교수를 거쳐 2012년 3월부터 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내시경센터 의료진에 합류했다. 주문경 교수는 위·식도 질환과 기능성 대장질환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특히 위장관 출혈, 변비, 과민성 장 증후군, 속 쓰림, 명치 통증, 흑색 변, 토혈 등이 소화기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감별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2010∼2012년 미시간대 소화기연구센터를 연구원 자격으로 방문, 2년간 기초 소화기학 분야를 집중 연구하고 오기도 했다. 주 교수는 2013년 3월, ‘비만 세포 활성화에 의한 프르스타글란딘 D2의 식도 미주신경 과민반응 유도 연구’란 제목의 논문을 ‘아메리칸 저널 오브 피지올 가스트로인테스트 리버’지에 게재하는 등 그동안 수십 편의 연구논문을 SCI급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박종재 내시경센터장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 칼로 도려내듯 제거 칼 대신 내시경으로 조기위암을 제거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다. 박종재 센터장은 소화기내과를 전공분야로 삼게 되면서 치료내시경으로 수술이나 다름없는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가 특히 조기위암의 내시경적 치료법으로 불리는 내시경점막하박리술(ESD)의 매력에 빠지게 된 배경이다. ESD는 위 점막 아래층까지 파고든 조기 위암을 마치 칼로 도려내듯 내시경으로 깨끗이 제거하는 치료내시경 시술법이다. 박 센터장은 1996년 고려대 대학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8∼2000년 가천의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조교수, 2001∼2002년 하버드의대 부속 베스 이스라엘 병원 임상의사를 지냈다. 그는 최근 들어 각종 소화기병 환자 진료와 내시경 시술 외에도 학술활동으로 기초 및 임상의학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또 미국소화기학회지, 유럽 내시경학회지 등에 해마다 연구 성과를 발표, 국내외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암치료 적정성 평가위원, 대한소화기학회 학술이사,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보험이사, 대한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글=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사진=구성찬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8.txt

제목: 폐암 장기생존자 95% “몸 속에 암세포 가진 상태서 공생”  
날짜: 20161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2000135002  
본문: 항암 표적치료제는 적어도 폐암에 있어 특효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암과의 공존을 부축하는 도우미가 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폐암학회(이사장 조문준·충남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최근 5년 이상 장기생존 중인 국내 폐암환자와 그 주치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암이 완전 소멸된 상태’는 5%에 그쳤으나 ‘폐암이 있으나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와 ‘폐암이 있어 여전히 치료 중인 상태’가 각각 34%,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말기 직전의 제3∼4 병기 폐암 진단을 받고도 장기 생존 중인 환자들의 95%가 폐암세포를 가진 상태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조사엔 인하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국내 10개 대학병원에서 진행성 폐암 진단을 받고 5년 이상 장기 생존 중인 폐암 환자 41명과 담당 의사들이 참여했다. 조사대상 환자들의 평균생존기간은 7년5개월, 평균연령은 58세였다. 일반 폐암 환자의 평균연령이 70세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 이들 폐암 장기생존자 10명 중 6.6명은 비(非)흡연자였다. 이 역시 우리나라 폐암환자 중 약 30%가 비흡연자인 것에 비해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김승준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 비흡연자라는 장기생존자 특성은 표적치료제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폐암의 임상특성과 일치한다. 말기폐암 진단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치료에 임하면 장기생존 가능성을 높이는데 표적치료제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음식이 폐암 치료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선 장기생존자들 중 18%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정음식이 생존기간 연장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1%가 부정했다. 대한폐암학회는 24일 오후1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2016 폐암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말기폐암 진단을 받았으나 적절한 치료로 이겨낸 폐암 완치 환자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글=이기수 의학전문기자,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9.txt

제목: 치료포기 환자 파악 힘들어 의료사각 확대, 4대중증보장성강화 올 마감… 후속책 주목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10356001  
본문: “남편이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제가 진짜 30만원만 해도 해보겠는데 보장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끝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길면 그게 안 될 거예요. 지금 아이들도 대학생 2명이고 물론 엄마 목숨이 먼저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스럽고.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못 한 거죠.”(유방암 환자) 최근 열린 한국임상암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 발표된 암환자 조사 결과에서 김봉석 한국임상암학회 보험정책위원장(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이 환자들의 코멘트로 가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처럼 암환자들이 치료약이 있음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신에게 발생할까봐 걱정하는 질환’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발병을 걱정하는 질환으로 ‘암’을 꼽았다. 진료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암환자에 대한 최신 항암신약의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암환자의 비급여 항암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환자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암제 지출 비용은 연간 8231억원에 달했다. 이중 비급여로 추정되는 지출 비용은 약 2110억원으로 비급여 항암제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정부재정의 26%에 해당된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2014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따르면 지난 7년간(2008∼2014년) 정부 지출금액은 6% 증가한 반면, 환자의 자가부담은 1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급여시 높은 약가로 인해 치료를 포기한 환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 환자가 겪는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고, 경제력에 따라 치료 양극화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은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치료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물론 정부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기준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렇지만 의료현장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 입장에서는 턱없이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치료제의 접근성 확대를 기대하는 환자로서는 막막할 뿐이다. 암환자의 보장성과 치료제 접근성도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환자들의 주장이다.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항암신약 허가수는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실제 출시되는 신약은 전체의 68%(34개 중 23개) 수준이고, 환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험등재 된 신약은 허가된 신약의 29%(34개 중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나라의 암환자들과 비교해 우리나라 암환자들은 신약의 30%는 접근조차 못하고, 우리나라에 출시는 돼 환자들이 접근 가능한 신약은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암검진 지원을 현재의 847만명에서 890만명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암관리 강화를 위해 263억원에서 291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렇지만 암 치료를 위한 약제의 접근성 확대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치료 약제가 있어도 돈이 없어서,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아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야 제대로 된 전 국민 건강보험적용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0.txt

제목: 비급여 약값 부담에 치료포기 환자 많다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10355001  
본문: 전문가들에 따르면 암환자의 전반적인 치료성적은 좋아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실제 암환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어떨까. 최근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하 협력단)의 암환자 인식 정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암환자는 치료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육체적 어려움은 많은 환자들이 ‘항암치료로 인한 고통’을 꼽았고, 사회적으로는 ‘직장생활에 대한 고민’, ‘결혼·출산에 대한 고민’ 등을 토로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인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급여 신약 치료비 충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치료약제의 사용 또는 사용 횟수를 임의로 줄이는 등 치료효과를 낮추는 역효과를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약치료를 권유받는 경우는 어떨까. 환자들은 비용이 치료를 하겠다는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일부 환자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의사는 신약 권유를 주저하거나 고민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신약 치료를 선택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할 보호자와 동행한 경우 신약 치료를 선택(92.3%)할 확률이 높고, 환자 혼자 듣는다면 환자가 보호자에게 이야기 하지 않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신약 치료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질병의 진행 △전이 △재발 △수술불가 등으로 답했고, ‘비용 때문에 최선의 치료를 못 받았다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라는 답변도 있었다. 특히 환자와 보호자는 신약치료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크고,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었다. 또 신약치료를 중단하거나 복용·투여량을 조절한 환자의 경우도 비용부담 때문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확대의 필요성도 나타났다. 암환자 치료비용의 부담주체는 대부분 보호자로 비급여 신약 치료비용으로 인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4대중증 보장성강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암환자와 보호자의 실제 체감도는 낮게 나타난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 협력단은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비용부담과 5년으로 제한된 보장기관 때문으로 보인다며, 민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고가의 비급여 신약으로 치료받는 암환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은 “환자는 암 치료 등의 육체적 고통보다 신약 비용 마련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에 따른 메디컬푸어 같은 사회문제들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4대 중증질환보장성강화 정책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내년부터는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자들은 신약의 필요성에 대해 ‘신약 외의 대안 부재’와 ‘생명 연장 기대감’ 등 때문이라고 답했다. 우선 표준 항암치료의 육체적인 어려움에 부작용이 개선된 신약에 대한 욕구가 컸고, 뛰어난 치료효과라는 점에서 최선의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재발·전이 등 병의 진행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특히 신약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환자가 신약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신약이 생명연장의 유일한 희망인 환자일수록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1.txt

제목: 호스피스 병동 24시, 아름다운 이별 준비… 가족 화해 자연스레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05940001  
본문: “아프게 낳아서 미안하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며 고령의 아버지는 “<span class='quot0'>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아들아, 하늘나라 가서 건강하게 살아</span>”라고 말했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 하지만 준비된 이별이었기에, 부모는 마음을 다스렸고 고인을 평온하게 떠나보냈다. 그들이 함께 아름다운 이별을 한 곳은 바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이하 호스피스)다. 이곳은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호스피스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통증, 구토, 호흡곤란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도와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상연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단순 암성 통증 경감 뿐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위한 체계도 마련돼 있다</span>”고 설명했다. 여의도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김해리 병동간호팀 수간호사(수녀) 역시 “말기 암환자의 가는 길을 돕기 위해 신체적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가 이뤄진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들의 심리, 영적 문제를 상담하고 돕는 것에 조금 더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녀는 “<span class='quot2'>이곳에서는 환자가 여명에 대한 선고를 받으면,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고 평온하고 준비된 상태로 보낼수 있을지를 돕는다</span>”고 덧붙였다. 호스피스에서는 통증 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처방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자 당사자와 그를 돌보는 가족 또는 간병인의 마음도 돌보는 것이다. 호스피스에서는 미술요법, 음악요법, 심리상담 등이 이뤄지며,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은 정신적인 돌봄 서비스도 받는다. 보통 가족 중 한 사람이 말기 암 등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가족들은 실의에 빠지기 마련이다. 호스피스에서의 이별은 조금 다르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절망’ ‘슬픔’고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말하기조차 꺼리는 문화가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죽음’ 앞에서 가족 간의 화해와 결합이 이뤄진다고들 말한다. 이곳에서는 무뚝뚝한 사람들도 마음을 열게 된다. 70대 노부부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부모 자식 간에는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죽음을 앞둔 사람을 지켜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수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힘든일이죠. 특히 자신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은 괴로운 일일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환자와 간병인에게 늘 응원을 해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같이 있으니 당신의 짐을 나눠달라고. 그러면 많이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호스피스에 머무르는 대다수는 고령환자다. 그러나 20∼30대 젊은 환자들도 이곳을 찾는다. 김 수녀는 “<span class='quot2'>부모들이 자녀가 먼저 떠나는 것을 지켜볼 때는 가슴이 아프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2'>그럼에도 일찍 이별을 준비하신 분들은 대체로 평안하게 아름다운 이별을 하신다</span>”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암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2013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해외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미국 43%, 대만 30%에 비하면 적은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말기 암 ‘호스피스 입원’ 건보 적용 시작했다. 이에 따라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다.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2.txt

제목: [암정복 프런티어] 헬리코박터 감염이 위암 두배이상 발생 확인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05733002  
본문: ◇위암 일차예방을 위한 인구집단 고위험 전략의 효과 예측 연구(박수경 서울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박수경 교수 연구에서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감염 및 감염 외 위험요인과 위암 발생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감염이 위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위암 발생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고병독성 헬리코박터균이 존재할 때 위암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됐고, 다른 생활습관 요인과도 상호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한국인 위암의 80%는 헬리코박터 때문으로 위암 일차예방을 위해 헬리코박터파이로리 예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은 위암 일차예방에 비용-효과적이며, 제균요법의 10년 위암 예방효과는 인당 최소 2400만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경 교수에 따르면 위암 일차예방을 위해 헬리코박터 감염자에 대한 제균요법 정책 수립과 국가 건강보험보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박 교수는 위암의 인구집단 일차예방 전략으로 흡연, 과음, 짠 음식(과-소금), 과체중(비만), 저체중(4과1저: 과음, 흡연, 과소금, 과체중, 저체중) 조절이 한국인 위암 건강수칙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3.txt

제목: [암정복 프런티어] 유방암 환자 증가 원인 ‘과진단 경향’ 판단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05530001  
본문: ◇한국 여성의 유방암검진 지침개발 근거창출(배종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한국인 여성에게 유방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발생율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갑상선암처럼 유방촬영술을 과도하게 시행해 (유방암이) 과진단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배 교수는 판단했다. 이어 배종면 교수는 지난 2015년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유방암 검진 권고안 개정안’에서는 한국여성의 유방암 발생에 관한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여성의 연구결과에 근거해 검진 연령군을 정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보다 발생률이 높은 외국여성에 대한 지침조차 40∼44세 군에 대한 권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해당 연령군을 검진 대상군으로 결정해 이 개정안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배 교수는 외국여성에 비해 한국여성의 유방암 발생 특성이 고유하다는 점에서 이런 현상(한국여성의 유방암 발생위험 증가)이 나타나게 되는 관련 요인들 중 개입 가능한 것에 해당하는 여성호르몬 투여 수준과 발현 정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관련 근거를 정리하고 연구 가설들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한국여성에서 여성호르몬 복용은 유방암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인유방종양바이러스(HMTV), 엡스테인-바(Epstein-Barr) 바이러스 3종에 대해 모두가 유방암 발생을 높인다는 결론을 도출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배 교수는 “이중 HPV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이미 예방백신이 개발돼 현재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이 백신접종은 향후 유방암 발생 감소의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4.txt

제목: [암정복 프런티어] 폴립환자 식이·운동요법 통한 대장암 예방 탐색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05529002  
본문: ◇용종제거 환자 대상 1차 예방적 개입의 유효성 평가연구(김동현 한림대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대장암 전 단계로 알려진 대장용종(폴립)이 있는 환자들에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다. 김 교수는 대장용종이 있는 환자들을 무작위로 식이/운동요법군과 기본적인 예방실천 책자만 제공하는 대조군으로 나누어 결과를 비교했다. 총 151 명을 모집했고, 연구기간을 3년 더 연장해 대장암 발생 여부를 관찰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의 연장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지만, 조건에 맞는 대상자 즉 고위험군 용종 절제 환자가 예상보다 매우 적었고, 2015년 메르스 사건으로 병원 내원 환자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참여 이후 관찰기간을 3년 연장해 대장암 재발가능성을 더 높인다면 두 그룹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김 교수는 전망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5.txt

제목: [암정복 프런티어] 전립선암 수술후 재발 예측 노모그램 제시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05529001  
본문: ◇한국인 전립선암의 원인인자 및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전립선암 선별을 위한 생물학적 표지자의 발굴:포괄적 예측 노모그램 개발(최영득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최영득 교수는 전립선암 발병요인 및 조기발견 및 치료의 유효성 있는 원인인자 탐색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보존적 치료와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전립선암의 선별을 위한 예측표지자 개발 및 한국인 전립선암의 발병요인 탐색하고 통상적인 임상적·병리학적 인자에 추가적으로 조직, 소변 및 혈액의 생물학적 표지자를 병합해 무의미한 전립선암 선별을 위한 포괄적 예측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가 실시됐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노모그램을 개발했다. 첫째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전립선암을 예측하는 한국형 노모그램을 개발했고, 둘째 수술 환자에서 수술 후 생화학적 재발에 대한 예측 노모그램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수술 전 환자의 질병 정도와 전립선암 환자의 생존율을 예측하는 노모그램이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6.txt

제목: [암정복 프런티어] 전립선암 치료 ‘바이오마커’로서 유용성 검증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05528001  
본문: ◇전립선암의 새로운 암표지자 개발 및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의 발생기전 연구(이현무 삼성서울병운 비뇨기과)이현무 교수에 따르면 전립선암 발생률은 1999년 인구 10만명 당 8.5명에서 2013년 26.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고난이도의 진행된 전립선암의 표준 치료는 호르몬 차단 요법으로 대부분의 환자에서 18∼48개월 동안 치료에 잘 반응한다. 하지만, 이후 거세 수준의 혈청 테스토스테론 수준에도 불구하고 질환이 진행하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행하는데 이 경우 평균 생존 기간이 2∼3년으로 매우 불량한 예후를 보이게 된다. 연구팀은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의 발생과 연관된 분자 기전을 살피고, 한국인의 전립선암 조직에서 이러한 인자의 발현 빈도와 패턴을 분석했다. 또한 치료에 대한 바이오 마커로서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했다.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들은 항암제를 투여하는데, 이번 연구결과 ERG 및 SOX9라는 유전자의 발현 여부는 항암제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 마커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환자에 대한 맞춤 치료를 시행할 수 있음을규명했다. 이현무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결과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의 발생기전을 규명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 및 새로운 항암제 치료 표적 발굴에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한국인의 전립선암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해 한국인에 적합한 지침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span>”고 설명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7.txt

제목: [암정복 프런티어] 폐암 가족력 있는 여성 저용량 CT검사 권고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05427001  
본문: ◇폐암 조기발견을 위한 저선량 CT와 유전자 검사의 유효성 평가 및 치료 방침 표준화(이경수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흉부 엑스(X)선촬영으로 폐암 덩어리가 보여서 폐암 진단을 받으면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치료 후 생존율도 낮게 된다. 컴퓨터단층촬영(CT)을 이용해 폐암유무를 알아보는 검사는 유용하나, 반복적으로 촬영할 경우 지나친 방사선 노출로 또 다른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사선 용량이 적은 저용량 CT를 이용한 폐암검진이 새로운 조기발견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저용량 CT를 이용한 폐암검진이 상당량의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대조군보다 폐암특이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을 의미 있게 낮춘다는 미국이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이경수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역설적으로 비고위험군에서 저용량 CT가 단순흉부X선 검사보다 높은 폐암 진단율과 함께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였다. 고위험군의 저용량 CT가 생존율을 높인다는 보고가 되지 못한 것은 고위험군의 수가 비고위험군의 수보다 현격히 작았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비고위험군에서 저용량 CT의 (폐암진단)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비흡연 여성에서 폐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저용량 CT를 45세 이후 권고해 볼 만하다</span>”고 말했다. 병리조직과 영상검사를 연계한 연구결과도 도출했다. 연구에 따르면 수술 후 종양 전체를 스캔해 병리적 다양성과 침습력에 대한 사항들을 평가한 후 radiomics(맨눈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한 대량의 정량적 영상 형태를 자료특성 알고리즘을 통해 병변을 특성화하는 기법)와 비교한 결과, 폐암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다양한 영상기법을 통해 얻은 영상을 분석해 침습적 암과 비침습적 암을 구별할 수 있다고 확인됐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8.txt

제목: [암정복 프런티어] 갑상선암서 나타나는 유전자변이 특성 규명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05427002  
본문: ◇갑상선암 발병요인 및 조기발견/치료의 유효성 평가(정재훈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정재훈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의 갑상선암에서 보이는 유전자변이의 특성을 규명했다. 특히 낮은 생존율을 보이는 유전자변이, 비교적 좋은 예후와 관련된 유전자변이가 발견돼 유전자변이의 종류에 따라 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거나 예후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에 의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미루고 갑상선 유두암에 대해 경과 관찰 중인 코호트의 분석에서는 2∼3년 정도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초음파검사를 통해 측정한 종양 크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의미 있는 크기 증가 소견을 보였다.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조기 갑상선암의 진행과 전이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은 수술치료 여부와 치료의 강도를 결정하고, 적극적인 감시로 경과 관찰이 가능한 환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span>”이라는 말했다. 이외에 정 교수는 감상선암 발생에 관여하는 환경적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조기검진의 유효성 평가도 수행했다. 2011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은 1146명과 암이 아닌 양성 종양 및 결절로 진단받은 대조군 1095명 등 총 22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신체계측, 체성분 측정, 식이섭취빈도조사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 갑상선암인 경우 대조군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체지방량이 더 높은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 흡연과 간접흡연과의 유의한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음주량이 많을수록 갑상선암 위험도가 낮은 역의 관련성을 보였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9.txt

제목: [암정복 프런티어] 폐암 수술후 재발확률 계산 프로그램 집중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05426001  
본문: ◇다중분자지표분석 및 영상학적검사의 조합적 폐암 조기진단 지표 탐색과 유효성 평가(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전상훈 교수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하지 않는 1기 폐암의 경우 ‘어떤 환자가 재발하며 어떤 환자는 재발하지 않는가’라는 의문 해결을 위해 한국인 자료로 수술 후 재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노모그램을 만들고 이를 검증했다. 연구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에서 수술 받은 1071명의 1기 폐선암 환자의 자료를 분석했다. 전상훈 교수팀은 자체 개발한 재발 예측 모델을 이용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서 항암치료를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의 5년 전체 생존율이 각각 87%, 77%로 확인됐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항암치료를 시행한 군에서의 5년 생존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호기 가스를 통한 분석으로 폐암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 연구팀은 “폐암환자가 내쉬는 호기가스를 분석해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수술 전과 수술 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진단 정확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며 “이는 수술로 폐암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호기가스에서 폐암에 대한 특이적 가스가 검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분석하는 호기가스 방법이 폐암의 조기발견에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0.txt

제목: [암정복 프런티어] 암 종류별 보험요율 차등 적용방안 제시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05425001  
본문: ◇우리나라 암부담 분석 및 감축방안 개발(최인근 전 고려대 혈액종양내과·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최근인 교수 연구에 따르면 암 종류마다 환자 본인부담에 차등이 있어 암종류별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해, 암환자들의 치료비 형평성을 이루고 가계 경제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범위를 먼저 정하고 이에 근거해 같은 암종 내에서도 진료의 근거정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근거창출임상연구 국가사업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치료 근거 평가 및 비급여 항목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새로운 항암약제들이 많이 개발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 교수는 치료 근거 평가와 비급여 항목 관리를 위해 좀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결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암)진단 후 1년차 암환자의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은 저소득층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은철(사진)교수는 우리나라 암발생율과 암사망율에 따른 관리의 우선 대상이 돼야 할 암 종류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의 순이었고,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위암, 폐암, 대장암의 순으로 분석됐다. 또한 박 교수는 연구에서 국가 암부담(암비용 총계)의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1년 13조7220억원이었고, 2010년에는 총 24조1120억원으로 약 2배 가까운 규모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가지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의 경제적 부담이 부각됐다. 노년층에서는 대장암이, 다른 연령층에서는 갑상선암이 암부담 증가를 주도했다고 박 교수는 분석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1.txt

제목: [암정복 프런티어] 35억 투입 1차 암부담 감축연구 성과들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05321001  
본문: 대한암연구재단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제1차 암부담 감축연구 지원사업’에는 총 35억원이 지원됐다. 지난 5년간 수행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연구, 우리나라 국민의 암부담 현황분석 및 감축방안 개발 연구, 국민 암부담 감축방안의 실효성 평가연구 등이다. 이와 관련 대한암연구재단 구홍회 집행이사(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해당 연구들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응용연구 분야</span>”라며 “<span class='quot0'>국민들의 암 질환 부담을 감축 할 수 있는 암 관리방안 개발과 실효성을 평가하는 영역에 중점을 뒀다</span>”고 설명했다. 이번 1차 연구 시작 이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암환자는 약 16만2000명으로, 2007년 현재 암 유병자는 44만5300명으로 추정됐다. 또한 2008년 국내 암 사망자 수는 6만8912명이었고, 전체 사망의 28%를 차지하는 사망원인 1위다. 재단에 따르면 2001년 기준 국내에서 암 질환으로 지출된 총 비용은 5조9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2016년 11월말 현재 유효성평가 연구 7개 과제 결과가 도출됐고, 기획연구인 우리나라 암부담 분석 및 감축방안 개발 연구와 용종 제거환자 대상 1차 예방적 개입의 유효성 평가 연구는 결과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되는 2차 암부담 감축연구 지원사업은 국내 암부담 원인인 발병, 사망, 비용 등에 대한 실제 부담 감축 효과를 기대하는 실용연구를 수행하고, 일반 국민들의 암질환에 의한 시간과 비용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침서도 개발 연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홍회 교수는 “<span class='quot1'>또한 발생률은 낮지만 치명률이 높은 희귀암 등 국내에서 의학적으로 등한시된 된 암에 대한 의학적 연구도 수행할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타 연구지원에서 소외된 암 연구를 적극 지원해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span>”고 강조했다. 대한암연구재단이 수행한 ‘1차 암부담 감축연구 지원사업’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정리=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2.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부활복음 깨닫자 암 수술도 두렵지 않았다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04912001  
본문: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폐결핵으로 돌아가시자 활발했던 내 성격은 내성적,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고등학생 때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학생부 활동을 열심히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과 자신을 보면서 회의를 느꼈다.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청소년 캠프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의문만 커져갔고, 내 믿음은 한계에 봉착했다. 지인의 소개로 춘천한마음교회에 다니는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하고 신앙과 사역에 대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한마음교회에 갔다. 목사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부활을 강조하셨다. 말씀을 계속 듣는 도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이 왜 역사적 사실이라는 믿음은 없었을까’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다. 그러다 여름수련회에서 그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다. 답은 로마서 14장 9절에 있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고, 나였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나는 교회에 다니면 다 예수님이 주인인줄 알았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 앞에, 그렇게 ‘주여 주여’ 했던 자가 바로 나였음을 알게 됐다.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시는데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순간 통회의 눈물이 흘렀다. 드디어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다. 그 후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앞에 생각이 정지해 버렸다. “<span class='quot0'>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span>” 이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연결되지 않았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로 맞추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몰랐으니, 당연히 회개할 수 없었다. 그러니 결국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며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청소년 사역을 하며 생겼던 문제점,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부활로 다 풀어졌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눌리는 자에서 누리는 자였다. 부활로 그동안 막연했던 신앙이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변화되었다. 몇 년 전 악성종양이 발견돼 암수술을 받았을 때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고, 마음에 평강이 임했었다. 과거에는 믿는다 하면서도 늘 죽음이 두려웠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어떤 큰일도 두렵지 않았다. 지금 나는 교회 음향팀에서 음향 엔지니어로 섬긴다. 또한 찬양 실황을 녹음하여 홈페이지에 올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번역 팀에서는 외국어로 더빙된 간증을 보정하며 세계 곳곳에 부활복음이 전해지도록 기쁨으로 섬기고 있다. 또 목사님의 외부집회에도 참여해 음향을 통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사역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나 혼자 느끼고 감격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부활복음을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갈 것이다. 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원자력병원 스마트 암 진료… 美 보건원 지원 받아 자궁경부암 임상연구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195604001  
본문: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서만 매년 22만 명 이상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30%인 7만여 명의 환자가 암 치료에 실패해 사망하고 있다.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보다 나은 수준의 치료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암 치료법 개발을 위해 연구자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임상연구는 새로운 암 치료법이 표준 치료로 인정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암 전문병원인 원자력병원은 대표적인 여성암인 자궁경부암의 국제 임상연구를 주관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는 재발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일 경우에만 방사선, 항암치료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원자력병원 자궁암난소암센터 유상영 박사팀은 암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암조직이 자궁벽의 절반 이상 혹은 림프공간을 침투한 경우도 암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이 겹칠 경우에는 고위험군 환자처럼 방사선,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자궁경부암 치료 관련 임상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으며, 유상영 박사는 미국 부인종양연구회의 아시아 최초 책임연구자로 선정되어 임상시험을 주도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기준이 도입될 경우 자궁경부암 수술 환자의 완치율이 현재 75%에서 9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에는 대한부인종양연구회가 주관하고 원자력병원 자궁암난소암센터 연구진이 참여한 자궁경부암의 재발위험도에 관련된 다기관 임상연구가 2016년도 미국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 라인에 인용되는 성과를 냈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는 미국 주요 암센터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다. 이곳에서 정해진 암진료 지침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암진료 가이드라인이 된다. 원자력병원은 난치성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는 차세대 치료기술인 방사면역치료의 다양한 임상시험도 시행하고 있다. 방사면역치료는 방사선치료의 효과와 표적항체에 의한 면역작용의 효과가 결합한 치료로 표적항체를 이용해 암세포에만 방사선을 쏘여 정상세포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최소화해 암치료에 높은 효과를 보이는 첨단 방사선치료 분야이다. 원자력병원 혈액암센터 강혜진 박사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유기술로 제작한 방사면역치료제(방사성 요오드-리툭시맙)로 난치성/재발성 비호지킨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의 약 3배 이상의 치료효과를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신규 임상시험을 기획 중이다. 원자력병원은 방사면역치료를 위한 치료제 제조 및 임상시험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하여 암이나 치매 등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개발 과정 중 인체에 해가 없는 적은 양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해 기존의 임상시험 방법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신약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병원 임상연구부장도 겸하고 있는 유상영 박사는 “<span class='quot0'>원자력병원은 암 진료 뿐 아니라 연구와 임상을 융합한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다양한 암 치료법이 세계적으로 공인 받고 있는 만큼 환자들은 국내 의료진의 치료과정에 믿음을 갖고 암 극복 의지를 북돋우길 바란다</span>”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4.txt

제목: [암과의 동행] 골수성백혈병과 싸우는 우즈벡 환우의 꿈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195604002  
본문: 한국에서 살아온 지 18년이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라크마토 쇼코라트존(41·남)씨. 그는 세 자녀를 둔 건실한 가장이자, 집안의 기둥이다. 그런 그에게 갑작스러운 시련이 찾아왔다. 인천 청라의 한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이다. 의사는 “<span class='quot0'>예후가 좋지 않으니 일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가야한다</span>”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서울성모병원을 찾았고, 담당 주치의인 김동욱 혈액내과 교수와 골수이식 수술 날짜를 잡은 상태다. 가족을 위해서만 헌신했던 평범한 남편이자, 삼남매의 아버지인 쇼코라트존씨에게 찾아온 백혈병 진단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그는 페인트칠부터, 가구공장, 기계업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왔다. 몇 년 전부터는 한 건설회사에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우즈베키스탄 건설 회사에 부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런데 이 마저도 몸이 아파 중단하게 됐다. 그는 “<span class='quot0'>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데, 치료를 받기 위해 일을 그만둬야 했다</span>”고 말했다. 현재 그의 형이 와서 일을 돕고 있다. 아내는 현재 여권이 만료돼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 있다. 아내조차 그가 아픈 것을 모른다. 쇼코라트존씨는 “아내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까봐 아직까지도 말도 못했다. 가장인 내가 가족들을 벌어 먹여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며 “막대한 치료비 부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가 처음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예후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글리벡,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등의 백혈병 치료제만 꾸준히 복용한다면 완치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급성의 경우 치료가 늦어지면 치명적이다. 그가 병이 상당히 진행된 채로 온 것은 병의 증상을 잘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치료는 대부분 전신 항암 화학요법을 받게 되고 재발 위험도에 따라 항암화학요법의 강도 및 횟수, 조혈모세포이식술 등과 같은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일부 환자군의 경우 표적치료제를 처방하기도 한다. 쇼코라트존씨는 현재 글리벡 등의 치료제를 8개월간 복용해왔다. 김동욱 교수는 “<span class='quot1'>급성기 상태에서 골수이식을 바로 하면 성공률이 10%로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표적항암제를 사용해 만성 상태로 도달시킨 다음에 이식을 해야 성공률이 높아진다</span>”며 “<span class='quot1'>다행스럽게도 고용량 표적항암제 치료를 환자가 잘 견뎌서, 무사히 골수이식 수술을 하여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span>”고 설명했다. 통상 무균실 진료와 항암 치료, 골수이식에 소요되는 치료비는 1억원을 훌쩍 넘는다. 그도 외국인 근로자로 등록돼 있어 치료에 필요한 보험급여는 똑같이 적용된다. 문제는 수술비다. 보건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지만 성공확률이 낮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환자(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진료비를 환자가 전액부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진료의사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심사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약 1000여만원의 수술비는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쇼코라트존씨는 한국에 살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한국에서 아들, 딸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나중에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싶다</span>”며 “꿈이 이뤄졌으면…”이라고 말을 흐렸다.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이승은 중앙대병원 외과 교수 “췌장암, 초기발견돼 수술가능한 환자는 생존율 40%”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194948001  
본문: #50대 환자 A씨는 얼마 전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K씨는 평소 잦은 복통으로 집 근처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왔지만 호전이 없어 종합검진을 받기위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했던 것. 담당 의료진은 A씨에게 당뇨 진단을 내리고 CT촬영을 함께 권했다. 50대 이후 갑자기 생긴 당뇨는 췌장암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의료진은 설명했다. 검사 결과 K씨에게서 초기 췌장암이 발견됐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운 암 중 하나다. 췌장암 환자들의 평균여명은 약 14개월로 늦은 진단 때문에 예후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와 같이 췌장암이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췌장암은 아주 나빠지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자각할 만한 특이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승은(사진) 중앙대병원 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췌장암의 증상은 일반적 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체중 저하, 식욕감퇴, 복통 등</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체계적으로 검사하기 전까지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span>”고 설명한다. 진단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췌장의 ‘위치’와 연관돼있다. 췌장은 위, 간과 같은 부피가 큰 장기 뒤에 숨어 있어 X선 촬영이나 복부 초음파검사 등으로 문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대개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판독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해 진단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CT촬영은 보통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활용되고 건강검진을 통해 진행되지는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1'>췌장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진방법이 아직 없는 점이 아쉽다</span>”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증상이 발현될 때에는 대부분 나빠진 장기가 주변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러나 췌장은 다른 장기를 누르거나 건드리지 않는 부위에 있기 때문에 웬만큼 심해지지 않는 한 복통 이외에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췌장암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수술이다. 그러나 진단이 늦은 경우가 많아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전체 환자 중 20∼30%로 낮은 편이다. 암이 생기는 위치도 중요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췌장암의 60%는 췌장 머리 쪽에 생기고 나머지 40%가 몸통과 꼬리 쪽에서 발생한다. 특히 췌장 머리 쪽에는 간에서 내려온 담도와 십이지장이 둘러싸고 있고 동맥도 지나가고 있어 외과적 수술 중에서는 어려운 수술로 꼽힌다. 이때 암 조직이 동맥을 침습한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췌장 머리 부분에는 여러 기관이 연결돼있어 암 절제술뿐만 아니라 각 기관을 잇는 봉합·연결 수술까지 만전을 기해야 한다</span>”며 “합병증의 위험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긴 수술은 이보다는 훨씬 간단한 편</span>”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환자들에게 췌장암 진단은 자칫 ‘사망선고’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 교수는 “췌장암 진단을 받으면 환자와 가족들이 절망하고 치료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깝다”며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전체 10%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초기에 발견돼 수술이 가능한 환자에게는 이 수치가 40%로 올라간다.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전에 미리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6.txt

제목: [암과의 동행] 헬리코박터균, 위암 주범이라는데 반드시 없애야 할까?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194948002  
본문: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암인 위암의 발병 원인 중 하나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대두되고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 속에 사는 균으로 보통 유년기에 감염돼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감염된 채로 지내게 되지만, 일부에서는 위궤양, 십이지궤양, 위선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헬리코박터균이 위암 발생 위험을 2∼4배 높인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60% 정도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일본의 경우 위암퇴치사업의 일환으로 헬리코박터균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균을 박멸하는 제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헬리코박터균이 정말로 위암과 관련이 있는지, 그렇다면 헬리코박터균 제균치료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찬 신촌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헬리코박터균이 위암 발생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며, 우리나라의 헬리코박터균 감염율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다</span>”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궤양이나 종양, 암 등이 있는 환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제균치료를 받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는 치료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와 관련 있다</span>”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건강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치료가 급여화 돼 있지 않다. 또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제균치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위험군에 대해서만 제균치료를 하고 남은 비용을 다른 보건의료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의견이다. 최일주 국립암센터 위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원인인자이므로 모든 사람이 위암예방을 위해 제균치료를 하면 위암이 줄어드는지에 관한 확실한 근거는 아직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만 명 이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추적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또 일본의 제균치료 권고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위암 발생률이 높지만 내시경 검진 등 국가 검진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내놓은 해결책이지, 위암 예방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4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내시경 검사를 통한 국가암검진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2'>따라서 헬리코박터 치료 전략을 통한 1차 위암 예방효과가 있고, 부작용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충분한 근거를 만든 후에 제균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span>”고 강조했다. 또한 제균치료의 문제점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도 고려된다. 최일주 교수는 “모든 사람에게 제균치료를 시행하는 데 따르는 문제는 헬리코박터 세균뿐 아니라 다른 장내 세균들에서 항생제 내성의 증가다. 이 외에도 역류성식도염, 식도암, 천식의 증가 등도 제균치료 후 발생하는 문제로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찬 교수는 “헬리코박터균 제균치료에는 강력한 항생제를 써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성균주가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하면 정작 제균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항생제가 듣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7.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안윤옥 대한암연구재단 이사장 “투병자 의료비 감축 실용적 연구에 힘 모으겠다”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194538001  
본문: 악성종양인 '암(癌)'은 국내 사망원인 1위의 질환이다. 최근에는 진보된 진단법과 치료법, 치료약물들이 개발되면서 생존률이 크게 높아졌다. 그럼에도 암은 중증질환으로 여전히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높다. 암이 불치병으로 인식되던 1980년대 말 국내 의학자들은 암 정복을 위한 다양한 의학 연구자 지원을 위해 뜻을 모은다. 이에 1988년 창립총회를 열고 1989년 1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곳이 '대한암연구재단'이다. "암 정복을 위한 연구 지원과 암 예방과 치료 분야에서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암연구재단은 국내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순수한 학술 목적을 갖는 곳입니다."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28년여간 대한암연구재단 업무를 맡아왔던 안윤옥 이사장(서울대의과대학 명예교수)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대한암연구재단은?=“지난 1988년 여름 서울에서 국내 의학계는 최초로 대규모 암 관련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김진복 박사(서울의대 명예교수)가 대회장을 맡은 아시아·태평양암학술대회였습니다. 당시 학술대회 개최 후에 고(故) 김진복 박사 등 국내 의학자들이 뜻을 모아 설립하게 된 거죠” 대한암연구재단(이하 재단)은 1988년 창립총회 이후 1989년 1월 당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인가를 받고, 설립자산 2억3000만원으로 출범했다. 당시 재단은 정관을 통해 “<span class='quot1'>암의 원인 규명, 새로운 진단법 및 치료법을 개발하고, 대한암학회의 연구·학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암의 예방·치료 등으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pan>”고 명시했다. 안윤옥 이사장은 “<span class='quot2'>재단은 암 정복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핵심과제</span>”라며 그동안 암연구지원사업, 국내 우수 암연구 논문 시상, 암연구 분야 젊은 의학자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성과는?=재단은 암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1989년부터 2002년까지 46명의 연구자들에게 암 연구비를 지원했다. 특히 세계적인 위암수술 권위자이자 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김진복 박사의 이름을 딴 ‘김진복 암연구상’을 지난 2006년 제정해 국내 우수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안 이사장은 “국내에서 암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학회나 단체가 많다. 김진복 암연구상 대상은 순수하게 국내에서 이뤄진 연구, 국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꼭 필요하고 유용한 연구 등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복 암연구상 수상자들에게는 2010년까지 2000만원의 상금이 연구비로 지원됐고, 2011년부터는 상금이 3000만원으로 늘었다. 젊은 의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암연구 박사학위 논문 저술 지원’도 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재단은 암연구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4명을 선정해 1인당 8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8명을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재단 설립 당시부터 국내외 의학자들의 암연구 교류 활동도 적극 펼쳐왔다. 재단 설립 당시인 1989년 제1회 서울국제암심포지엄(Seoul International Cancer Symposium, SICS)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6회의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는 서울국제위암포럼도 매년 열리고 있다. 안 이사장은 “<span class='quot2'>국내외 암연구 학자들이 만나 최근 연구와 임상 사례를 공유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span>”고 평가했다. ◇암부담 감축 대규모 연구=대한암연구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의 암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규모 장기 연구인 국민 암부담 감축연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1차 암부담 감축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5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됐으며, 26명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재단 측은 연구비 지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연구 과제 선정 심사를 위탁해 각 분야별 과제를 선정했다. 1차 연구지원 과제 중 기획연구로 △우리나라 암부담 분석 및 암부담 감축방안 개발이 선정돼 1억6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됐다. 감축방안 유효성 평가 연구에는 △폐암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유효성 평가 △감상선암 발병원인 및 조기진단/조기치료의 유효성 평가 △전립선암 조기지단 및 치료처치의 유효성 평가 등이 수행됐다. 또한 기획연구 결과에 따른 감축방안 유효성 평가연구로 △위암 일차 예방을 위한 인구집단 고위험 전략의 효과 예측 △용종 제거환자 대상 1차 예방적 개입의 유효성 평가 △한국 여성의 유방암 검진 지침개발 근거창출 △암 생존 코호트 구축을 통한 암 생존 향상 요인 탐색 등이 수행됐다. 안윤옥 이사장은 “<span class='quot2'>해당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자, 국민들의 암부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감축할 수 있는 연구</span>”라며 “<span class='quot2'>연구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연구</span>”라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은?=“암정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 활동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인과 환자들을 위한 암 관련 지침서를 개발하고, 올바른 암 예방·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재단은 2017년부터 2020년까 제2차 암부담 감축연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2단계 연구에서는 학술적 가치는 낮아도 꼭 필요하고 유용한 응용연구와 희귀암질환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안 이사장은 “국내 타 연구지원기관에서 지원 우선순위가 낮았던 순수 국내 암연구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의 암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연구들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이사장은 “<span class='quot2'>앞으로 재단은 국민 암부담 절감을 위한 실용적인 연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암정보 알리기에도 나선다. “의학자들은 의료윤리를 지키며 적정진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비과학적인 정보에 질환 치료를 맡기지 말고,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치료 정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암치료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어 의학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한 안윤옥 이사장은 “재단 사업을 통해 올바른 암 치료와 예방 정보를 알리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8.txt

제목: 애완견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날짜: 2016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18204800001  
본문: “우리 요크셔테리어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사는 Y목사는 최근 금요기도회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전달받았다. 아픈 애완견을 위한 기도 요청이었다. 처음은 아니다. 애완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한 적도 있다. 새끼를 밴 치와와였는데, 심방을 갔을 때 주인이 순산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Y목사는 애완견이 아니라 주인인 성도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닌 동물을 위한 기도였던 터라 오래 기억에 남았다. 반려동물(애완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등장한 이색적인 세태다. 지금은 이색적으로 보이지만 언젠가는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 달라진 반려동물 역할, 위상도 달라져 현재 국내 반려동물은 700만 마리로 500만 가구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1인 가구와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의 증가는 핵가족화 영향이 크다. 핵가족화로 약화된 정서적 유대관계를 반려동물을 통해 채우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반려동물의 역할도 달라진 셈이다. 이전에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서 즐거움을 줬다면 지금은 심리적 안정감 및 친밀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노는 대상이라는 뜻의 애완동물에서 동반자, 친구라는 의미의 반려동물로 불리고 있다. 반려동물의 역할 변화는 위상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인간과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경향이 반려동물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병원, 애견호텔에 이어 반려견 장례업까지 생겼다. 교회에서는 반려견 장례 예배를 드리거나 반려견의 구원을 논하게 될지도 모른다. Y목사처럼 목회 현장에서 뜻밖의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잦아질 것이다. 신학적으로 반려동물을 어떻게 봐야 할까. 반려동물도 영혼이 있는가 인간과 동물의 같은 점, 다른 점을 보자. 하나님은 동물도 선하게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5절에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돼 있다. 흙으로 빚은 생명이라는 점에서도 인간과 동일하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인간과 달리 반려동물에는 영혼이 없을까. 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창조신학연구소장 조덕영(조직신학 전공) 박사는 “<span class='quot0'>성경에선 혼(Soul)뿐만 아니라 영(Spirit)을 지칭하는 단어가 동물에게도 129번 사용됐다</span>”고 설명했다. 동물에게도 영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합동신학대학원대 이승구 교수는 “인간 외에는 영혼이 없다”며 “<span class='quot1'>동물은 생물학적 차원에서 유기적인 현상으로서의 생명을 가진 것</span>”이라고 주장했다. 반려동물도 천국에 갈 수 있나 반려동물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복’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구원을 동물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다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후에는 동물을 포함한 피조세계에 회복이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조 소장은 “<span class='quot2'>성경은 반려동물의 구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인간이 회복될 때 동물들도 함께 회복될 것임을 암시한다</span>”고 말했다. 인간과 동물의 우열을 가려보면 어떨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게 성경적 견해다. 그 근거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한 말씀, 시편 8장 3∼8절에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인간은 동물에 대해 지배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동식물에 대한 사용권 및 처분권을 위임받아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착취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받았다’는 인식도 있다. ‘동물의 권리와 하나님의 형상’이란 논문을 발표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구미정 전임연구원에 따르면 전에는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도 “<span class='quot3'>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됐다는 말은 진리를 이해할 능력, 곧 이성과 지성이 담긴 영혼을 소유했다는 뜻으로 이를 갖지 못한 피조물보다 인간이 훨씬 우월하다는 증거</span>”라고 간주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span class='quot4'>인간 본연의 이성 능력 때문에 다른 존재보다 위에 있다</span>”고 봤다. 데카르트와 칸트도 “동물은 도구적 가치만 지녔기 때문에 결코 도덕적 존재들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인식은 변하기 시작했다. 공리주의 철학으로 유명한 벤담은 동물이 처한 위치를 흑인 노예와 비교하면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비판했다. 그는 “차별할 수 있는 근거는 이성을 갖고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라며 “동물을 차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의 공리주의자 피터 싱어는 “<span class='quot5'>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를 배격하듯 단지 인간과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종차별주의도 거부돼야 한다</span>”고 밝혔다. “<span class='quot6'>동물은 신앙의 동반자가 아니다</span>” 최근에는 인간이 동물을 맡아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신학적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 소장은 “<span class='quot2'>무엇보다 창세기 1장 28절의 ‘정복하다’는 말이 잘못 적용됐다</span>”며 “<span class='quot2'>이 구절이 쓰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의지하고 있던 땅을 숭배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span>”고 했다. 인간은 정복자가 아닌 청지기로서 성경에 계시된 창조 질서에 따라 선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씀 속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재고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했다. 인간과 동물은 창조의 제6일에 함께 지어진 피조물로 지구의 안녕과 공동 운명으로 결속돼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으려는 행위의 결과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만 닮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인간은 반려동물을 아껴주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소장은 “동물은 인간 삶의 동반자”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2'>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기거할 때도 동반자였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함께였다</span>”고 했다. 그러나 “신앙의 동반자는 될 수 없다”며 “반려동물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좋으나 반려동물을 기도의 대상, 장례 집도의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성경적 해석을 넘어선 집착”이라고 말했다. 글=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일러스트=전진이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9.txt

제목: 교보생명 ‘교보프리미어CI보험’, 보장은 늘리고 보험료는 대폭 낮춰  
날짜: 2016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16173329001  
본문: 교보생명은 최근 보장을 늘리면서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를 대폭 낮춘 ‘교보프리미어CI보험’을 내놓았다. 교보프리미어CI보험은 사망 보장은 물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 질병(CI)’과 중증치매 등 장기 간병을 평생 보장한다. 주계약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중대 질병’과 연관성이 높은 질병의 추가보장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 보험상품은 ‘중대 질병’에 중증세균성수막염,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등 4가지 질환을 추가했다. 갑상선암 가운데 예후가 좋지 않은 일부 암을 ‘중대한 갑상선암’으로 분류해 보장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갑상선암은 보장을 받지 못했다. 소액보장도 확대했다. 뇌출혈, 뇌경색증처럼 ‘중대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질환이나 ‘중대 질병’과 연관성이 높은 중증질환 9종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중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선지급률을 80%(기본형)와 100%(보장강화형)로 확대했다. 보장강화형의 경우 100% 선지급을 하는 것은 물론 사망시 가입금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교보프리미어CI보험은 보험료를 큰 폭으로 내렸다. 해지환급금을 미리 확정된 예정이율로 보증해주지 않는 대신 공시이율로 적립해 보험료를 10∼20% 가량 낮췄다. 해지환급금은 기존 방식보다 다소 작아질 수 있지만 생명보험 본연의 기능인 보장혜택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상품은 ‘중대 질병’이나 장기 간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면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주계약 7000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면 특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계약 1억원 이상 가입 시 가입금액에 따라 2.5∼3.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0.txt

제목: “100년 전통 파주 장단콩 저렴하게 사세요”  
날짜: 2016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15213950001  
본문: 경기도 파주시는 ‘100년 전통의 1등 브랜드’ 파주 장단콩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제20회 파주장단콩축제를 18일∼20일 임진각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예로부터 맛과 영양이 뛰어나 임금에게 진상됐던 장단콩은 올해 대한민국 농식품 파워브랜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주재배지인 민통선 북쪽 파주 장단지역은 물 빠짐이 좋은 토양과 일교차가 커 장단콩 재배에 적격으로, 이곳에서 재배된 콩은 암 예방 효과가 뛰어난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20년 역사를 담은 영상물과 축하 뮤지컬을 특별 제작하는 한편 콩 체험마을과 7080추억을 되살릴 추억의 교실, 엿장수, 동동구루무 공연 등이 마련됐다. 축제는 전시행사와 체험행사, 판매장터, 먹거리 장터 등 상설행사장과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행사 기간 파주 장단콩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꼬마메주 만들기, 도리깨 콩 타작, 콩 볶기, 콩나누기 등 장단콩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거리가 제공되며 600m 길이의 장단콩 가래떡 나누기 행사와 인기 셰프 박경신씨와 방송인 이광기씨가 장단콩 요리시연회를 연다. 전통줄타기 공연과 창작 마당극, 파주장단콩 힘자랑 대회와 설운도, 김연자, 최유나 등 유명가수 초청공연과 주민자치연합회 동아리 공연, 파주장단콩주부가요대전, 파주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등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판매장에서 구입한 파주 농특산물을 관람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까지 무료 배달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 장단콩은 시 공무원들이 직접 생산단계에서 수확 후 가공, 포장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시행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파주=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1.txt

제목: 오늘의 QT (2016.11.14)  
날짜: 2016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13211734001  
본문: “<span class='quot0'>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span>”(암 5:24) “But let justice roll on like a river, righteousness like a never-failing stream.”(Amos 5:24)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100만 국민대회가 광화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국가의 기본이 되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에 절망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학점을 잘 받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최순실씨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전형을 바꾸고, 출석도 하지 않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교수를 협박해 좋은 학점을 얻을 수 있는 나라,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 땅, 그래서 헬조선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모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미 6:8)입니다. 나와 가정과 이 나라에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2.txt

제목: 촛불 든 크리스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날짜: 2016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13210907001  
본문: “<span class='quot0'>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span>”(잠 6:23) 민심의 명령은 촛불이었다.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밝힌 ‘100만 촛불’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오용(誤用)한 위정자에 대한 준엄한 책망이었다. 광장에 촛불을 밝힌 사람들은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가리지 않았다. 신자들은 구약성경 선지서들을 인용하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암 5:24)”고 외쳤다. 촛불과 관련해 성경이 언급하는 말은 ‘촛대’를 들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7개의 금촛대를 표현한다.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일곱 촛대들과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계신 것을 목격한다(계 1:12∼13). 여기서 촛대는 세워놓거나 달아매는 등잔불이기도 하다(출 25:31, 왕상 7:49, 슥 4:2). 성경은 일곱 개의 촛대들이 일곱 교회라고 지칭한다(계 1:20). 전문가들은 이 촛대가 세상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한다. 혼돈과 어둠이 엄습한 세상을 향해 빛을 전하자는 것이다. 라영환 총신대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마 5:14∼16)”이라고 말했다. 이의용 국민대 교수도 “<span class='quot1'>교회는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 돼야 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 돼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교회가 이 사명에 충실하려면 상황을 바로 읽고 시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일곱 촛대의 메시지가 교회를 향한 경고와 교훈들이라는 점에서 작금의 한국교회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이들 말씀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첫 사랑의 회복과 충성, 그리고 순결성으로 점철된다. 이는 혼돈기에 희망을 전해야 할 교회의 사명과 그대로 맞닿아 있다. ‘금촛대’에 대한 경고로 시작한 요한계시록이 말미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계 22:5)”라는 희망의 묵시를 펼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준다. 13일 주일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자는 주일 설교 메시지가 나왔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이날 ‘지금은 기도할 때(렘 33:1∼3)’라는 제목의 주일예배 설교에서 “주말 대규모 촛불 집회는 최(순실)씨를 중심으로 퍼진 우리 사회에 ‘암’이 발견돼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암이 발견된 것은 암을 도려낼 기회를 의미한다.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임을 믿고 기대하자”고 말했다. 이 목사는 예배 후 “<span class='quot2'>이번 주 대통령의 중대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를 하자</span>”며 국가안정 등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참석을 독려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목회자 30여명은 12일 정오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 모여 시국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에서는 예레미야 7장 3∼7절을 주제 성구로 정했다. 이들은 그동안 교회가 사회참여적 신앙을 멀리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했다. 감리교시국대책위원회도 이날 광화문 감리교 본부 앞 희망광장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국가기도연합도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50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스바구국연합기도회를 개최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기도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span class='quot3'>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듯 성경은 모든 나라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3'>대통령이 아무리 헌법·법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심판을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하려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span>”고 우려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span class='quot4'>대통령이 그간의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설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영과 육이 회복되도록 중보기도하자</span>”면서 “<span class='quot4'>잘못된 선전선동, 미혹의 영이 떠나가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올바로 분별하고 대통령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자</span>”고 말했다. 신상목 강주화 백상현 기자 smsh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3.txt

제목: [슬로 뉴스] 국내에 들어온 ‘AI 닥터’ 사람보다 나을까  
날짜: 20161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11040417797  
본문: 다음 달 초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AI) 진료'가 첫선을 보입니다. 가천대 인천길병원이 IBM의 의료용 AI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도입해 암 환자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당초 지난달 중순부터 진료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왓슨 전용 진료실' 마련, 내부 프로세스와의 연결 작업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늦어졌습니다. 올해 3월 바둑기사 이세돌과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알파고'의 위력을 여실히 지켜봤기 때문일까요. 미래 의료의 아이콘처럼 떠오른 'AI 진료'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사전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아직 생소한 '왓슨 진료'에 대한 일부 과장이나 오해 또한 없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국내 환자 정보의 해외 유출이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br/><br/>지난 7일 찾은 인천 남동구 길병원 본관 1층 로비 한쪽에선 ‘IBM 왓슨 AI 암센터’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81.3㎡(24평) 규모의 AI 암센터는 환자 진료공간과 ‘다학제 진료실’(여러 진료과목 의사들이 왓슨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치료법 등을 논의하는 곳), 코디네이터실 등으로 이뤄집니다.<br/><br/> 병원 측은 올해 폐·유방·대장·위·자궁경부·난소암 등 6개 암 치료에 왓슨을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전체 암의 85%로 확대합니다. 최근 왓슨 진료 예약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도 뒀습니다. 길병원 이언(신경외과 교수)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추진단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 AI 진료는 암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난치성 신경질환 등 의료 전 분야로 확산될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각종 임상연구, 신약개발 등에도 적용돼 미래 대학병원은 AI 없이는 존재하기 힘든 세상이 올 것</span>”이라고 내다봤습니다.<br/><br/> “<span class='quot1'>방대한 데이터 분석, 최적의 암 치료법 제시</span>”<br/><br/> AI는 진료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요. 왓슨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계적 외형의 AI 로봇이 아니라 클라우드(인터넷 접속을 통해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의 ‘인지 컴퓨터’입니다. 수학적 언어가 아니라 인간처럼 자연언어 처리가 가능해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추론까지 할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br/><br/> 왓슨은 2012년 미국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MSKCC)’에서 처음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암 환자 진료를 터득했습니다. 지금도 훈련을 통해 계속 진화 중입니다. IBM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왓슨은 290종의 의학 학술지, 200개 이상의 의학 교과서는 물론 1200만쪽에 달하는 의료정보를 이미 학습했다</span>”고 말했습니다.<br/><br/> 담당 의사가 암 환자 정보와 의료기록, 조직검사 결과, 유전자 데이터 등 100여 가지 항목을 왓슨에 입력하면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내 10∼20초 안에 제시해 줍니다. 이언 단장은 “<span class='quot3'>매년 2배로 늘어나는 의료 정보와 최신 의학 문헌을 의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왓슨이 빠르고 정확한 암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돕는 ‘또 하나의 조력자(secondry opinion)’ 역할을 하는 것</span>”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량 내비게이션이 ‘가장 빠른 길’을 제공해 줄 순 있지만, 그 길을 갈지 다른 길을 선택할지는 운전자의 몫이듯 왓슨도 마찬가지”라면서 “의료진의 효율적인 결정에 도움을 주는 보조 수단일 뿐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환자와 소통하는 것은 결국 의사”라고 덧붙였습니다.<br/><br/> 2014년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발표에 따르면 왓슨의 실력은 전문의사를 능가합니다. 왓슨이 제시한 암 치료법의 정확도는 대장암 98%, 방광암 91%, 췌장암 94%, 신장암 91%, 난소암 95%, 자궁경부암 100%에 달합니다.<br/><br/> 암 치료에서 의사의 오진·오판율은 20%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왓슨 진료를 통해 잘못된 판단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br/><br/> 맞춤형 암 치료법을 제공받으면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돼 의료비용 감소에도 기여합니다. 대개 암 환자는 암 진단을 받으면 2∼3곳, 많게는 10곳 이상 병원을 찾습니다. 하루에 수많은 환자를 보는 담당의사가 과연 내 진료 과정과 기록을 면밀히 살펴봤을까, 매일 쏟아지는 학설과 진료 가이드라인, 신약(특히 최신 항암제) 정보 등을 모두 고려해서 치료 방침을 정할까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br/><br/> 환자 정보 불법 수집, 유출 가능성 대비해야<br/><br/> 해외 환자 데이터 기반의 왓슨이 국내 암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길병원 안희경 혈액종양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4'>암 발생이 인종이나 국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표준 암 치료법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고 그 근거가 충분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4'>미국 환자 데이터 위주라서 국내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span>”고 말했습니다.<br/><br/> 국내 의료법 저촉 여부도 관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왓슨이 ‘보다 발전된 의학 교과서’ 개념으로, 평소 의사들이 진단과 처방을 내림에 있어 관련 서적과 논문 등을 참고하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최근 결론 내렸습니다. 즉 의료기기나 장비가 아닌 만큼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의료신기술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의료법상 왓슨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br/><br/>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span class='quot5'>치료법에 대한 최종 판단과 처방은 의사 몫인 만큼 그 판단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다</span>”고 밝혔습니다.<br/><br/> 환자 입장에선 왓슨 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이 관심사입니다. 이언 단장은 “왓슨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현재로선 진료 수가(진료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돈)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왓슨을 이용하는 데 환자가 부담하는 별도 비용은 없다. 단, 제도가 정비되고 수가로 인정받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br/><br/>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과 유출을 막는 겁니다. 수집된 국내 환자 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 상업적 용도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br/><br/> 특히 길병원은 초창기엔 왓슨 프로그램에 직접 로그인하는 방식을 활용하지만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면 환자의 모든 의료 정보가 담겨 있는 병원 자체 ‘전자의무기록(EMR)’과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정보의 대량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br/><br/> 길병원뿐 아니라 향후 왓슨 도입을 추진 중인 국내 의료기관들 모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보안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4.txt

제목: 암 치료 마다하고 말씀 전하다 떠나며 남긴 메시지  
날짜: 20161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09210011896  
본문: 길지 않은 삶이지만 빈틈없이, 행복하게 꽉 찬 삶을 살았던 유석경 전도사. 그는 죽음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한 명의 영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열두 살 때 예수님을 만난 후로 거리든 직장이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왔다. <br/><br/> 유 전도사는 친밀했던 아버지의 갑작스런 소천 후 2주를 남겨둔 사법고시 2차 시험을 포기하고 깊은 어둠 속에 잠겼다. 그때, 지인의 권유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다. 2011년 잘나가던 직장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헌신했다. 선교사로 준비되기 위해 미국 트리니티신학대 목회학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br/><br/>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귀국해 인턴 전도사로 일을 시작한 그 주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지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가진 후, 항암치료 대신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쪽을 택했다.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고 전국에서 집회 요청이 이어졌다. 매일 살과 피가 장에서 떨어져 나오는 고통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죽기 전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br/><br/> 그는 신자들이 비신자와 별 차이가 없는 무능력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곤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늘의 상속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전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통해 증명했다.<br/><br/> 책의 마지막 장은 저자가 하늘 아버지 품에 안기기 3일 전, 여윈 몸으로 전력을 다해 전한 마지막 메시지다. “난 내가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다. 내가 궁금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이다.” <br/><br/> 그녀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 절대적인 믿음과 십자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br/><br/>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5.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87) 차병원그룹 차움 대사증후군센터] 성인병 근원 대사증후군 막는다  
날짜: 20161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08040724484  
본문: 대사(代謝)는 우리가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속에서 분해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생산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키는 의학용어다.<br/><br/> 대사 작용이 순탄치 않으면(대사 장애) 심뇌혈관질환을 부르는 복부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요소가 복합적으로 싹트게 된다. 복부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죽상동맥경화 등 5가지 성인병 전 단계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대사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br/><br/> 대사증후군은 지속적인 고지방 음식 섭취와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유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다. 대사증후군 환자는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성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사망률도 4배 정도 높다.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br/><br/> 누구보다 대사증후군 억제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계층은 ‘3040세대’ 남성이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다 잦은 고지방 음식 섭취, 음주, 흡연 등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복부비만과 고혈압, 고지혈증, 죽상동맥경화 등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키우기 쉬워서다. 반면 여성은 이 시기를 지나 50세 안팎의 갱년기 이후에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기초대사가 줄어들고 체지방이 증가해서다.<br/><br/> 소아청소년기에도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혈압과 혈중지질 수준, 사춘기의 생리적 인슐린 저항성 등이 성장기에 계속 변하는 특성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한 대사이상은 성인기까지 이어지기 쉽다. 그 결과 심장혈관질환과 제2형 당뇨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조기 발견 및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br/><br/> 차병원그룹 차움 대사증후군센터(센터장 박원근 차의과학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각 환자의 건강상태와 체형별 특성, 라이프스타일, 유전체, 가족력 등을 점검한 후 전문의가 개인맞춤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약사가 복약지도, 영양사가 맞춤 식이요법, 건강운동관리사가 운동요법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박원근(61) 차움 대사증군센터 센터장은 7일 “<span class='quot0'>차움은 일련의 집중치료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 문제가 되는 질병을 치료하고 생활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재발을 막아 일상생활에서도 환자 스스로 건강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 노력하는 곳</span>”이라고 소개했다.<br/><br/> 대사증후군은 질환의 특성상 수술이나 약물요법만으로 단기간 내 치료가 어렵다. 환자에게 꾸준히 치료 동기를 이끌어내고, 체계적인 개인맞춤 치료를 통해 장차 생길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스스로 물리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br/><br/> 차움 대사증후군센터는 ‘1대 1 전담 간호사’의 집중관리 서비스 제도를 통해 다른 병원과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지방 식사, 운동 부족, 잦은 회식 등 잘못된 생활습관만으로도 당뇨병, 암 등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의 특성을 고려해 각 환자가 병원 안팎에서 맞춤형 건강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전담 간호사가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다.<br/><br/> 의료진은 박원근 센터장을 필두로 내분비내과 황세나 교수, 심장내과 조승연 교수, 임상유전체센터 최상운 교수, 정형외과 박명률 교수, 디톡스슬리밍센터 서은경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약사와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가 개인 맞춤 약물 및 식이, 운동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체제다.<br/><br/> 박원근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전담 간호사, 운동 치료사, 영양사 등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건강관리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더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조만간 센터를 더 확충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전신 비만이거나, 마른 체형이지만 복부비만이 심한 경우, 무리한 다이어트나 약물요법으로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 혼자서 체중 관리가 어려워 운동과 식이요법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희망하는 경우 등 고객별 특이사항을 반영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인맞춤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1'>모든 환자를 내 가족과 같이 여겨 그들의 호소를 귀담아듣고 누구든지 진료를 받는 동안 조금의 불편함도 느낄 수 없도록 1년 365일 한 결 같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 센터의 목표</span>”라고 말했다.<br/><br/> 한편 차움은 차병원그룹의 첨단 의료기술에 동서의학과 통합의학을 접목, ‘안티에이징(항노화)’ 개념을 재정립하며 국내 의료계에 혁신적인 발자취를 남겨왔다. 최근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외 왕족과 국가 원수들이 찾아오는 ‘글로벌 라이프 센터’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고 있다.<br/><br/>박원근 센터장은<br/><br/>1981년 경희대 의대를 졸업하고, 85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92년 내분비내과 분과 전문의, 99년 당뇨병 교육지도자 자격을 얻었다. 2000∼2001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당뇨병의 신장 합병증을 연구하고 돌아왔다.<br/><br/>박 센터장은 2002∼2005년 성균관의대 삼성제일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및 건강검신센터 소장을 거쳐 2006년부터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현재 차움 대사증후군센터장 겸 부원장을 맡고 있다.<br/><br/>박 센터장은 간경변증 환자의 당(糖)내인성에 관한 연구로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가 수여하는 최우수 연구논문상을 2년 연속(84∼85년) 수상했다. 85년 제일병원에 내분비연구실을 설립, 현재 당뇨 식이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뿌리를 내린 당뇨뷔페교육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기도 했다. 87년에는 여성 갱년기 증후군과 골다공증 치료를 특화하기 시작한 데 이어 효과적인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국내 첫 가이드라인을 개발, 주목을 받았다.<br/><br/>요즘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대사증후군, 당뇨병, 여성 갱년기 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내분비질환 전문센터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6.txt

제목: 삼진제약 ‘트레스탄’, 환절기 온 가족 입맛 찾아주는 해결사  
날짜: 20161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06190845963  
본문: 요즘 같은 환절기는 피로, 무기력감, 영양 부족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은 계절이다. 특히 질병을 예방하고 체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사를 잘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 그런데 최근 식욕부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입맛이 까다로운 어린이나 고령의 어르신들, 그리고 악성 종양(암)과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이다. 식사를 제대로 못해 고생하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떨어진 식욕을 높여주는 식욕촉진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br/><br/> 대표적인 제품이 삼진제약 트레스탄이다. 이 제품은 다이어트 열풍, 먹거리가 넘쳐나는 영양 과잉의 시대지만, 고령 노인 및 암, 만성질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해피드러그(Happy-Drug)로 역할을 하고 있다. <br/><br/> 트레스탄은 식욕을 당기게 하는 원리와 소화 및 영양소 대사를 돕는 아미노산과 비타민을 공급해 건강한 식사를 유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도와주는 약이다. 한 두 숟가락 만 먹어도 금방 배부른 느낌을 갖는 사람들과 입맛 떨어진 사람들에게 건강과 먹는 즐거움을 찾아주는 일종의 동기부여 의약품인 셈이다. <br/><br/> 트레스탄 주성분인 사이프로헵타딘(Cyproheptadine orotate)과 비타민, 아미노산 등 안전성과 효과는 개발 이후 30년 이상 실제 환자들에게 복용하면서 임상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호르몬 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내분비 대사 교란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암 환자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소아 등 일반적인 식욕부진, 성장부진에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 <br/><br/> 삼진제약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식욕부진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때문에 먹고자 하는 욕구가 소실된 상태로, 지속되면 영양불균형, 영양실조,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가급적 빨리 해결해야 한다</span>”며“<span class='quot0'>트레스탄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넓은 연령, 다양한 환자들의 식욕부진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span>”고 설명했다. <br/><br/>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7.txt

제목: 죽음 문턱에서 구원 받은 송재식 목사, 왜 세번씩이나 살리셨을까  
날짜: 20161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04210227516  
본문: "저는 걸어 다니는 진흙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 있음도 모두 그분의 간섭과 섭리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송재식(63) 목사의 고백록이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광주 북구 경양로 서림교회(옛 전방교회)를 찾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광주노회 소속으로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숭실대 이사장을 지낸 고 김형남 장로가 전남방직(전방) 여종업원 10여명과 1946년에 창립한 일터(직장선교)교회다.<br/><br/>어머니 생각만 해도 눈물 홍수 <br/><br/>목양실은 어느 초등학교 교장실 같았다. 벽엔 정용규 화백 등 교인 10여명이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다. 송 목사는 1953년 영산강 상류 전남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푸실(풀이 많은 동네)이라는 초가집 두 채가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br/><br/> 어렸을 때 ‘솔로몬’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어머니가 일찍 하늘나라로 가시는 바람에 더 이상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 장년의 목사는 금새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에는 신경쇠약과 영양실조에 걸려 죽음의 골짜기를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했다고 간증했다. <br/><br/> “<span class='quot0'>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팽개쳐 두십니까.</span>” 그러던 초겨울 어느 날 서삼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청년은 식음을 전폐하고 철야를 하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br/><br/> 그런데 너무나 뜨거워 가슴을 쥐어뜯었다. 앞엔 빨간 십자가가 나타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길을 가라.” <br/><br/> 순종하라는 메시지였다. 주경야독(검정고시)으로 고교 졸업장을 받고 1973년 호남신학교에 입학했다. 신학생 시절은 누구나 그러했듯이 비참했다. 기숙사에서 나오는 밥 한 끼가 전부였다. 마치고 복학해 신학교 졸업반이던 1979년 나주 영광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span class='quot1'>일찍 목사가 되지 말고 공부 더 하라</span>”는 권면을 해줬다. <br/><br/> 마침내 일반대학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전주대 불어교육과에 합격한 것이었다. 84년 전주대를 졸업한 그는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원에 들어가 신학석사(역사신학) 학위를 받았다. <br/><br/>마피아 일당에 총 15발 맞고도 살아나 <br/><br/> 87년 봄엔 믿음이 좋은 집안의 귀한 딸(조영선 사모)을 만나 결혼을 하고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호사다마였다. 1991년 5월 초 마피아로 추정되는 괴한에게 총을 맞고 쓰러졌다. <br/><br/>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는 순간, 총을 든 괴한들이 송 목사의 차 앞 유리창을 깨뜨리고 난사한 것이었다. 마약을 투여한 괴한들이 자신들을 추격하는 줄 알고 오인사격을 가한 것이었다. 실탄은 복부를 뚫었고 갈비뼈 사이로 지나갔다. 1주일간 의식을 잃었던 송 목사는 살아나도 불구자가 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에도 다시 일어나 의료진을 놀라게 했다. <br/><br/> 사고 후 1년 만에 송 목사는 박사학위도 무사히 마치고 93년에 귀국해 꿈에도 그리던 모교 호남신대 강단에 섰다. 2년 뒤엔 서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고 목숨 건 목회에 나섰다. <br/><br/> 10년 가까이 쉬지 않고 달려온 결과는 참담했다. 2003년 12월 19일이었다. 갑자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 광주기독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급성 간염이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입원절차를 밟았지만 ‘치료 불가능’이라는 사실상의 사망선고를 받았다. <br/><br/> 암흑, 그 자체였다. 새해 들어 송 목사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주도 서귀포로 요양을 떠났다. 그곳에서 송 목사는 신학동기생인 경기도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를 만났다. 그도 죽을병을 앓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갯바위에 올라가 같이 3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했다. <br/><br/>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직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두 목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공유했다. 새 봄을 맞아 새싹이 돋아나듯이 두 목회자의 몸에도 새 삶의 기운이 돌았다. <br/><br/> 4월 부활주일에 광주로 돌아온 송 목사는 배고픈 아기에게 젖을 먹이듯 영감 있는 설교를 했다. ‘잘나가는 목회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던 2011년 어느 날 송 목사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 이번엔 뇌졸중이었다. <br/><br/> 이번엔 정말이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목사님, 억지로라도 감사를 드리자고요. 살려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좋은 성도님들 주심을 감사하고….” 사모의 말대로 송 목사는 무조건 하루에 세 가지 감사를 드리는 감사노트를 쓰기 시작했다. <br/><br/> 왼손으로 비뚤비뚤한 글씨로 101번째 감사편지를 쓰던 날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축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는 순간, 손이 슬쩍 올라가는 것이었다.<br/><br/> 말문도 터졌다. “<span class='quot0'>에…어…아…우∼와… 가아암∼사아∼암∼니다….</span>” 2년 만이었다. 이후 송 목사는 한 편의 설교를 위해 초등학생이 큰 소리로 국어책을 읽듯이 100번이나 반복했다. <br/><br/> 청년 5000여명 수용 ‘텐트 처치’ 건축<br/><br/> 생애 세 번째 사지에서 돌아온 송 목사는 올해 교회 표어를 ‘근원(본질·本質)으로 돌아가자’로 정했다.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이 표어를 잡고 죽을 각오로 본질을 찾아 나서겠다는 각오다. <br/><br/> 그의 꿈은 15년 전에 이루지 못한 다음세대를 위한 새 성전을 짓는 것이다. 현재 예배당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다. 건축비도 절반밖에 들어가지 않고 6개월 정도면 완공할 수 있는 ‘텐트 처치(Tent church)’를 세우는 것이다.<br/><br/> 내년 봄 광주 수완지구에 명소로 떠오를 텐트 처치는 아동부와 청소년, 청년 등 젊은 세대의 교인 5000명이 맘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당이다. 지금의 예배당은 팔거나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역사박물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br/><br/> 교회 앞 교인이 운영하는 국수집에는 이현숙(83) 권사 등 3명의 열성 전도대가 병원선교에 나서기 전 국수 한 그릇을 놓고 기도들 하고 있었다. 식사를 하러 송 목사가 들어오자 노 권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담임목사를 끌어안고 애원하듯 말했다. “<span class='quot0'>목사님!∼ 지발 아프지 마시랑게요.</span>”<br/><br/>광주=글·사진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8.txt

제목: 임신 기간 외래 진료 때 본인부담 44만→ 24만원  
날짜: 20161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04190439849  
본문: 내년 1월부터 임신기간 동안 외래 진찰을 받을 때 1인당 평균 본인부담 비용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20만원 인상된다.<br/><br/> 보건복지부는 4일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임신부의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종별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20%씩 인하하는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br/><br/>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본인부담률이 감소한다. 그동안 임신부의 입원 시 본인부담률은 꾸준히 인하돼 전체 입원 급여비의 12.4%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외래 본인부담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돼 부담이 컸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산전 진찰 중 가장 부담이 큰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기형아·풍진바이러스 등 필수 검사 비용이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span>”고 설명했다. 초음파 검사(7회 기준)의 경우 평균 12만9000원 줄게 된다. <br/><br/> 또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로 늘고 있는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다태아 임신은 임신부 건강은 물론 태아의 합병증 및 조산 위험이 높아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훨씬 많다.<br/><br/> 아울러 임신 37주 미만,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3세까지 외래진료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 정책은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br/><br/> 건정심은 이 밖에 암(백혈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맞춤형 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20종을 새로이 건강보험에 추가토록 했다. <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9.txt

제목: 당당한 납작가슴… 유방암 환자의 ‘커밍아웃’  
날짜: 2016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02180719997  
본문: “가슴 크기를 키울 건가요?”<br/><br/> 유방절제술을 앞둔 미국인 더비 보어(45)에게 의사가 물었다. 절제술 후 이어지는 재건술에서 원래 가슴보다 더 큰 ‘가짜 가슴’을 만들고 싶냐는 뜻이었다. 더 큰 가슴, 특히 ‘실리콘 가슴’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보어는 즉시 거절했다. 그리고 같은 선택을 한 친구 마리앤느 두퀘테 쿠오조(51)와 웃옷을 벗고 가슴에 난 상처를 드러낸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br/><br/> 봉긋한 가슴이 여성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사회에 “<span class='quot0'>가슴이 여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span>”는 메시지를 던지자 수많은 여성의 호응이 쏟아졌다.<br/><br/>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자 1면에 유방절제술을 받고 ‘납작한 가슴’으로 서 있는 여성의 상반신 누드 사진을 싣고 “여성들이 유방재건술보다 ‘고잉 플랫(Going flat)’ 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잉 플랫’은 치료 목적으로 유방을 절제한 뒤 가짜 가슴을 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뜻한다.<br/><br/>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은 그간 여성성을 살린다는 이유로 실리콘 보형물을 집어넣는 재건술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NYT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재건술을 받은 사람은 10만6000명으로 2000년과 비교해 35% 증가했다. 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80%가량이 재건술을 택했다. 재건술을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재건술이 “<span class='quot1'>여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span>”고 주장하지만 환자들은 “<span class='quot1'>삶을 연장하는 데 필수요소는 아니다</span>”고 반박한다. 2차 감염 위험도 지적된다.<br/><br/> 납작한 가슴을 자유롭게 내놓고 ‘고잉 플랫’을 외치는 여성은 늘어나고 있다. 절제술 이후 재건술을 받았다가 응고 장애를 앓고 다시 보형물을 제거한 파울레테 레파트(50·여)는 지난여름 미시시피주 빌록시에서 워싱턴DC까지 웃옷을 벗고 걸었다. 암 환자가 느끼는 재정적 부담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유방암을 앓은 사진가 레베카 파인(40)은 해수욕장을 돌면서 절제술을 받은 여성이 가슴을 내놓은 채 수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 ‘플랫 앤 패뷸러스’(Flat and Fabulous·납작해서 멋진)에는 유방재건술을 거부하는 환자 2000여명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br/><br/>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0.txt

제목: 1인당 月 진료비 ‘전북 부안군’ 최고  
날짜: 2016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02173446365  
본문: 지난해 전국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을수록 진료비가 높아 최고 지역이 최저 지역의 2.7배나 됐다.<br/><b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일 발간한 ‘2015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0만3828원으로 전년 대비 6.4% 상승했다. 2006년 3만8136원이었던 월평균 진료비는 연평균 11.8%씩 증가해 10만원을 돌파했다.<br/><br/> 진료비는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전북 부안군이 19만2995원으로 전국에서 진료비가 가장 높았다. 반면 경기도 수원 영통구는 7만1447원으로 전국에서 진료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격차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진료비 상위 1∼5위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8.5∼36.4%인 반면 하위 1∼5위 지역 노인인구 비율은 5.4∼10.7%였다.<br/><br/> 주요 암 질환 중에선 위암의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암 질환 진료인원은 위암이 30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방암(285.2명) 대장암(272.4명) 순이었다. 암 질환별로 보면 위암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함양군으로 756.3명이었다. 이밖에 간암(신안군·516.0명) 폐암(고흥군·407.4명) 대장암(괴산군·630.3명) 유방암(양평군·425.1명) 자궁경부암(합천군·102.1명) 모두 지방에서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br/><br/>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이 소재한 지역 외부에서 유입된 비율은 51.5%로 조사됐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원정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병원과 강북삼성병원이 있는 서울 종로구로 93.6%였다. 이어 대구 중구(93.0%), 광주 동구(87.0%), 부산 서구(86.8%) 순이었다.<br/><br/> 한편 지난해 총 진료비는 모두 64조8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으로 의료보장을 받은 인원은 5203만명으로 전년 대비 0.5% 늘었다.<br/><br/>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1.txt

제목: 코오롱생명과학 관절염약 5000억 기술수출  
날짜: 2016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02002520949  
본문: 코오롱생명과학은 1일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 퇴행성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Invossa)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수술 없이 단 1회 주사제 투여로 1년 이상 통증완화 및 활동성 증가 효과를 내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br/><br/> 총 기술수출 금액은 약 5000억원(457억엔)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의 단일국 기술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고가다. 계약금은 273억원(25억엔)으로 책정됐고, 이후 인보사의 일본 내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로 4716억원(432억엔)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제품 출시 후에는 일정 수준의 로열티도 별도로 받게 된다.<br/><br/> 향후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은 일본 시장에서 인보사의 독점적 개발 및 판매 권리를 갖고 일본 임상시험 및 품목 허가를 진행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제품을 생산해 일본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은 일본 내 류머티스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50위권 글로벌 제약회사다. 일본의 40세 이상 퇴행성관절염 환자는 현재 약 2530만명으로 추산된다. 일본 특유의 좌식문화와 인구 노령화로 매년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은 전 세계 의약품 시장 매출액의 7∼9%를 차지한다.<br/><br/>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개발을 위해 17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국내에서는 임상3상까지 완료한 뒤 지난 7월 유전자 치료제로는 처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냈다. 미국에서는 코오롱의 현지법인 티슈진(Tissugene)사가 인보사에 대한 임상3상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티슈진은 미국 FDA로부터 인보사를 디모드(DMOAD·퇴행성관절염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약물)로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임상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현재 진행하고 있다.<br/><br/>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0'>이번 계약 체결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유명한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향후 다른 국가에 대한 기술수출도 탄력을 받게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4월 2018년까지 3년간 약 1100억원을 바이오신약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 항암제(종양살상 치료제), 암치료 백신 등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신성장동력인 바이오신약 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2.txt

제목: [미션 톡！] 교회내 ‘최태민 부역자’ 자성을…  
날짜: 2016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01212241911  
본문: “<span class='quot0'>요즘 최태민이 교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확실히 들추고 있는 것 같네요.</span>” <br/><br/> “그 사람한테 돈 받은 목사들은 얼마나 많을까.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br/><br/> 요 며칠간 취재 현장에서 만난 교계 인사들 사이에 오간 대화의 일부입니다. 연일 홍수를 이루고 있는 ‘최순실·최태민’ 관련 보도에서는 ‘목사’ ‘교회’ ‘구국선교’ 등 기독교 용어가 수시로 등장해 마음이 불편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할 때 마다 씁쓸해지는 이유는 그 언어가 주는 성결성이 희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br/><br/> 최태민이 목사인가 아닌가. 이를 두고 1960∼70년대 당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한국교회의 교단·신학교·목사안수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span class='quot0'>그때는 기도원만 다녀와서 30만원, 50만원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곤 했다</span>” “<span class='quot0'>안수 집사 되기보다 목사되는 게 더 쉬웠다</span>”같은 교계 일부 인사의 폭로성 증언도 있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살후 2:11)고 했는데 그 사고치는 자들의 뿌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br/><br/> 당시 군사독재정권은 한국 교회가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자 최태민과 같이 교회 안에 스며든 탁한 세력을 내세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대한구국선교단’이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성회를 기뻐 받지 아니했습니다.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합동 측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은 이 단체를 불건전하다고 규정하고 ‘유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며 당부까지 했지요. 그러나 예장통합 강신명, 예장합동 최훈, 기독교대한감리회 박장원 목사 등은 ‘반공’을 내세운 그들의 술책에 눈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br/><br/> ‘최태민 부역자들’에 대한 교계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사이비 교주나 다름없는 최씨가 당시 ‘구국 선교’를 빙자해 여러 단체와 교계로부터 돈을 챙겨 자신의 수하 목사들에게 뿌리면서 ‘관리’했다는 겁니다. 최태민을 잘 아는 한 목사는 “그때 최씨한테 달라붙지 못해 안달인 목사들이 수두룩했다. 지금쯤 이름이 밝혀질까 봐 모두 벌벌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통탄하더군요.<br/><br/>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암 2:8) 이스라엘을 벌한 하나님이십니다. 돈과 권력에 부역한 그 쓴 뿌리가 이렇게 혹독할 줄 우리가 진정 몰랐을까요. 이제 자성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을 때입니다.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회개의 목소리로 함께 시작한 ‘나부터 □’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나부터 새롭게’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br/><br/>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3.txt

제목: “흑암같은 현실… 하나님의 정의 선포해야”  
날짜: 2016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01212039293  
본문: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失政)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정의 실현 요구가 멈추지 않고 있다. <br/><br/>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사장 홍정길 목사)은 1일 성명을 발표하고 “<span class='quot0'>교회는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기윤실은 “<span class='quot1'>오늘날 대한민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 전 모습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span>”며 “<span class='quot1'>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의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span>”고 촉구했다. <br/><br/> BC 8세기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던 아모스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암 5:24)고 선포했다. 그는 과수원과 양떼를 경영하던 ‘자영업자’(암 7:14)였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다. 현 시국 앞에서 애가(哀歌)를 부르며 위정자의 죄를 지적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과 다르지 않다. <br/><br/> 청어람아카데미 양희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신교인으로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우리 자신의 죄 된 과거를 부여잡고 기도와 비판을 할 일이지 권력자를 향해서만 손가락질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항의하고 저항하고 비판해야 하고 분노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자 시민으로서 마땅히 이 시절을 중하게 맞이해야 한다”고 표현했다.<br/><br/> 미국 UCLA 옥성득 교수는 3·1 운동을 목격한 일인(日人) 목사 사이토 이사무가 쓴 ‘어떤 학살사건’을 인용, “조국이 망하는데, 당국이 무단과 폭력을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불복종하며 자유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우상숭배 하는 자들을 향해 왜 기독교인들이 모여 소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으랴. 아, 1919년 4월 15일 수원제암리교회 그날은 수난주간 화요일이었다”는 내용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며 지금은 기도와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알렸다. <br/><br/> 기윤실은 성명서에서 창세기(1장 2절)와 요한계시록(21장 1절) 두 곳의 성경구절을 언급하고 “국민들은 어둠을 헤쳐가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혜와 용기를 모으자”고 당부했다.<br/><br/>신상목 이용상 기자 smsh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4.txt

제목: 조응천 “당·정·청 곳곳에 최순실 라인… 사악한 무리 ‘십상시’ 버젓이 살아 있다”  
날짜: 2016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01210341019  
본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사진) 의원이 “<span class='quot0'>당·정·청 곳곳에 최순실씨에게 아부하고 협조하던 ‘최순실 라인’과 ‘십상시(十常侍)들이 살아 있다</span>”고 말했다.<br/><br/> 조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회의에서 “<span class='quot0'>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 조직을 망치고, 사리사욕을 채우던 사악한 무리를 끌어내려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한다</span>”면서 이같이 말했다.<br/><br/> 이어 “청와대 최재경 민정수석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와 공기업, 금융계, 심지어 대기업까지 뻗어 있는 암적 존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br/><br/>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그는 이번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조 의원은 “<span class='quot0'>3인방 중 정호성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18년간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과연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끝까지 주시하고 지켜볼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 또 비선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span class='quot1'>최씨가 벙거지를 덮어쓰고 검찰청사에 들어가니까 모든 관심이 최씨에게 집중되는데,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도 김 전 비서실장이 상황을 장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있다</span>”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분이 막후에서 총괄 기획한다면 최순실 게이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리 없다”고 강조했다.<br/><br/>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두고는 “세상에 (우 전 수석 아들인) 의경이 검찰 소환에 수차례 불응했다. 배우자도 조사를 거부하다 우 수석이 그만둔 뒤 검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검찰도 우 전 수석이 물러나자 재물로 삼으려는 것 같다. 이는 임기 말 검찰의 예정된 행태”라고 비판했다.<br/><br/>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pan class='quot2'>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도 최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span>”고 밝혔다. 그는 2013년 7월 “<span class='quot2'>본인의 명예를 위해 체육단체장을 하거나 체육단체를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span>”는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최씨 측근이 작성한 ‘승마협회 살생부’ 내용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 살생부는 2013년 5월 최씨 측근인 박모 전 승마협회 전무가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으며 지역 승마협회장 등을 사퇴시키는 데 쓰였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br/><br/>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5.txt

제목: 고혈압·당뇨 있어도∼ ‘유병자 보험’ 뭐가 있나  
날짜: 2016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01182041224  
본문: 직장인 김모(46)씨는 5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현재 약을 복용하며 건강에 큰 지장은 없다. 그는 최근 중대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보장 보험에 가입하려 했다. 하지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됐다.<br/><br/>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기준 32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52개 보험상품은 김씨와 같은 유(有)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br/><br/> 유병자 보험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간편심사보험은 2년(암은 5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다. 심근경색증·고혈압 등으로 입원했었던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 주로 질병종류와 관계없이 수술비와 입원비를 보장한다. KDB생명은 입원 1일당 3만원, 수술시 10만∼300만원을 주는 상품을 팔고 있다. 한화생명은 암 진단 시 2000만원을 보장하는 간편가입 보험을 출시했다.<br/><br/>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은 ‘실버암보험’ ‘3대 질병 보장보험’ 등의 이름으로 판매된다. 고혈압 등을 현재 앓고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 실버암보험은 일반 암은 2000만원 백혈병 등 고액 암은 최대 4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상품을 가입한 후 고혈압 등이 나았다면 저렴한 일반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br/><br/> 무심사보험은 유병자가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품명에 ‘무심사’ ‘무사통과’ ‘바로가입’ 등을 표기하고 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도 1000만∼3000만원으로 적다.<br/><br/> 금감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건강한 사람이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span>”고 조언했다.<br/><br/>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6.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86) 이대목동병원 암 환자 성재활센터] 성기능 장애 재활 돕는다  
날짜: 201610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31192209748  
본문: 조기 진단 및 치료법 발전에 힘입어 암 환자 생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암 치료 후 성생활 등 삶의 질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 예가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장애다. 남성 비뇨기암 환자가 골반 내 암을 근치(根治) 목적으로 절제했을 때 흔히 겪는 후유증이다. 대개 전립선암과 방광암, 직장암 같은 암 절제수술 후 많이 발생한다.<br/><br/> 신경보존술과 같은 수술기법들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골반 내 암의 경우 수술 후 최대 82%에서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골반 내 암 수술 남성 환자 10명 중 8명꼴로 성기능 장애를 겪게 된다는 의미다.<br/><br/> 이렇게 암 수술 후 성기능 장애를 얻은 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다. 지난 8월 하순 국내 최초로 암 환자를 위한 성재활센터를 개설, 두 달째 운영 중인 이대목동병원이 그곳이다.<br/><br/> 이대목동병원은 암 생존자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서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기능장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곳이 없어 ‘암 환자 성재활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초대 센터장은 남성의학이 전문분야인 정우식(58) 비뇨기과 교수가 맡았다.<br/><br/> 이대목동병원 암 환자 성재활센터의 목표는 이름 그대로 전립선암, 방광암, 직장암 등 골반 내 장기암 치료 후 발생하는 성기능장애 문제를 암 수술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 문제 해결에 나섬으로써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있다. 암 절제수술 때문에 성기능장애 발생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가 경구용 및 주사용 약물 치료로 성기능 재활에 실패했을 때도 보형물 삽입술 같이 적극적 방법으로 성기능을 재건해준다.<br/><br/> 골반 내 장기암 수술 후 성기능장애는 대부분 신경과 혈관손상으로 생긴다. 치료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의 주성분인 ‘포스포디에스트라제-5억제제’(PDE-5i)를 필요 시 복용하거나 혈관확장제를 음경에 직접 주사하는 재활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여러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연구를 통해 수술 후 이들 약물을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음경으로 가는 혈류 상태가 좋아지고 음경 평활근의 위축 현상이 줄어든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br/><br/> 문제는 암 수술 후 1∼2년이 지나도록 약물 치료를 계속했는데도 자연발기가 정상화되지 않거나, 자연발기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약물 치료 초기와 달리 강직도가 점점 떨어져 재활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결국 음경 주사제를 추가하거나 진공식 물리기구를 이용하는 성 재활치료를 시도해보지만, 이 역시 효과가 미미하기 일쑤다.<br/><br/> 정우식 센터장은 이럴 경우 최후의 성기능장애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음경보형물 삽입술(PPI)을 쓴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3-피스 임플란트’(3조각 팽창형 음경보형물 삽입술)다.<br/><br/> 이 수술은 발기력을 잃은 환자의 음경 속에 실린더, 생리식염수 저장고, 펌프 등 3조각이 한 세트를 이루는 팽창형 보형물을 넣어주는 치료법이다. 펌프는 음낭 속에 심는다. 수술 후 성관계를 맺을 때 이 펌프를 누르면 저장고의 생리식염수가 음경 내 보형물의 실린더로 이동하면서 발기가 이뤄지는 원리다. 자연 발기와 유사해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다.<br/><br/> 하지만 암이 방광, 전립선, 직장 등 골반 내 장기에 생겨 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치골 뒤 조직들이 서로 들러붙어(유착) 생리식염수 저장고를 앉히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암 수술 후 인공방광 형성 시술까지 받은 경우 회장(回腸)을 이용한 방광 쪽으로 저장고가 파고드는 치명적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br/><br/> 정 센터장은 골반강을 피해 복막과 복벽(腹壁) 사이에 새 공간을 만들어 저장고를 앉히는 방법으로 이 같은 위험을 피하고 있다. 그는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는 적극적 약물치료와 수술을 통해 얼마든지 재활이 가능하다. 암 수술을 받았다고 속만 끓일 필요가 없다. 암 치료 후 장기 생존자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암 치료 후 성기능장애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br/><br/>정우식 센터장은<br/><br/>음경보형물 삽입술 임상경험 풍부<br/><br/>1983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88년 의학석사, 91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의 수련과정은 84∼87년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에서 이수했다.<br/><br/> 정 센터장은 두 차례 미국 연수를 다녀왔다. 92∼93년 미국 남가주의대, 2002∼2003년 미국 메이요클리닉에서 소아비뇨기 및 성기능 장애 분야를 집중 연구했다. 연세의대 비뇨기과 연구강사(88∼99년)와 건국의대 비뇨기과 전임강사 및 조교수(90∼93년 8월)를 거쳐 93년 9월부터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암 환자 성재활센터’ 초대 센터장도 맡고 있다.<br/><br/> 정우식 센터장의 전문 분야는 남성 성기능장애(발기부전 및 조루증)와 갱년기증후군 진료다. 특히 음경보형물 삽입술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하다. 아울러 선천성 요로 및 생식기 기형을 가진 어린이 비뇨기 수술에도 능숙하다. 음낭수종, 서혜부탈장, 미하강(未下降, 미처 내려앉지 못한) 고환 교정술은 물론 현미경을 이용한 신우성형술, 요도하열 교정술, 방광요관역류 교정수술 경험도 많다.<br/><br/> 지난 2009년부터 홀렙(HOLEP) 레이저를 도입해 나이가 들며 비정상적으로 커진 전립선 조직을 칼 대신 레이저로 깔끔하게 도려내 배뇨장애를 개선해주고 있기도 하다.<br/><br/> 정 센터장은 2012∼2013년 대한전립선레이저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고시위원과 대한남성과학회 편집·학술·홍보이사, 대한남성과학회 학술·홍보이사 및 감사, 대한불임학회 이사, 세계성기능장애연구학회지(IJIR)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br/><br/>글=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7.txt

제목: [건강 단신] 한양아이소리, ‘내 아이 진로’ 학부모 심리강좌 外  
날짜: 201610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31191545889  
본문: ‘내 아이 진로’ 학부모 심리강좌<br/><br/>한양아이소리(원장 박효서·사진)는 오는 4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분당 심리상담센터에서 ‘내 아이의 진로와 미래, 성격을 알면 진로가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무료공개 학부모 심리강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자는 사전에 상담전화(031-717-2111)로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강좌는 앞으로 매달 첫째 주 금요일마다 열린다. 박효서 한양아이소리 원장은 “<span class='quot0'>초·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에 따른 진로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담적증후군 이해하기 강좌<br/><br/>대한담적한의학회(회장 최서영 위담한방병원 이사장)는 오는 7일부터 약 4개월간에 걸쳐 국내 한의과대학생과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담적증후군 이해하기 강좌를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강좌는 담적증후군 이론부터 각 증상 및 질환별 실제 치료 훈련과 응용, 실습으로 구성된다.<br/><br/> 수강 희망자는 대한담적한의학회 홈페이지(www.phlegmmass.or.kr)에 신청하면 된다. 수강생들에게는 대한담적한의학회 명의 수료패를 준다. 위담한방병원에서 실제 담적증후군 환자 진료 및 치료과정을 볼 수 있는 참관 기회도 제공된다.<br/><br/>서울대 암병원 ‘암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출간<br/><br/>서울대학교 암병원(원장 김태유)은 암 진단·치료, 치료 후 관리 과정에서 암 환자와 가족에게 꼭 필요한 의료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암 안내서 ‘암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사진)을 새로 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김태유 서울대학교 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1'>암 경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암을 이해하고 사전에 예방한다는 면에서 아직 암을 겪지 않은 분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span>”고 말했다. 210쪽, 값 1만8000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8.txt

제목: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 10명 중 3명 만성질환자… 진료비 21조 돌파  
날짜: 2016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26000402465  
본문: 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은 하나 이상의 병을 달고 사는 만성질환자로 분류됐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자 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고령화 영향으로 노인 진료비 역시 매년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65세 이상 진료비는 2008년의 갑절을 넘겼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영향으로 의료기관 평균 방문 일수 역시 조사 시작 후 처음으로 줄었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펴낸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11개 질병 만성질환자는 1439만1000명(전체인구 28.5%)으로 전년(1399만2000명)보다 2.9% 늘었다. 진료비 증가폭은 더욱 커 만성질환 진료비는 21조2994억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br/><br/> 만성질환 중에선 고혈압 환자가 570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경계질환(274만1000명), 정신 및 행동장애(262만8000명), 당뇨병(252만1000명) 순이었다. 이에 비해 진료비는 암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암 환자는 123만명으로 7번째로 환자가 많았지만 진료비는 4조9362억원으로 만성질환 전체 진료비의 23.2%를 차지했다. 만성질환 중 환자수 및 진료비 증가폭이 가장 큰 질병은 각각 만성신장병증(8.9%)과 대뇌혈관질환(11.2%)으로 나타났다.<br/><br/> 2008년 1134만명이었던 만성질환자는 지난해까지 연평균 3.5%씩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율은 더욱 커 같은 기간 진료비는 연평균 8.2%씩 뛰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발표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2.9% 증가한 반면 전체 만성질환자는 같은 기간 8.2% 증가했다. 이 밖에 나트륨 섭취량 증가, 신체활동 저하 등도 만성질환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br/><br/> 만성질환은 지난해 사망원인 1∼10위 중 7개를 차지할 정도로 그 자체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비용 역시 크다. 백종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만성질환의 경우 더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병증을 일으키기 전 단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환자 건강이나 건보 재정을 위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세 역시 뚜렷하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진료비는 22조2361억원으로 7년 전(10조7371억원)에 비해 100% 넘게 상승했다. 해당 기간 65세 이상 1인당 연간 진료비 역시 233만4000원에서 362만원으로 높아졌다. 지난해 건보 가입자 1인당 연간 진료비가 113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높다. 노인 환자의 경우 고혈압 관련 진료비가 1조31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입원비로는 노년성 백내장이 2486억원으로 최다였다.<br/><br/> 지난해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 일수는 19.3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의료기관 평균 방문 일수는 2008년 16.8일에서 2014년 19.7일로 지속 증가해 왔다. 입원 일수는 전년과 같은 2.6일이었지만 외래 방문 일수가 전년 대비 0.4일 줄었다. 메르스로 병원 방문을 꺼린 데다 경기 불황으로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br/><br/>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9.txt

제목: [신경락한의원 조병준 원장의 해독 이야기] ⑤ 질병, 원인치료로 뿌리부터 뽑아야  
날짜: 201610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25205859236  
본문: 질병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원인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 원인만 정확히 파악되면 치료가 반은 이미 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방에서는 병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므로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본치(本治)라 하고 증상을 위주로 치료하는 것을 표치(表治)라 하였다.<br/><br/> 병의 증상만 치료하게 되는 표치는 당연히 근본치료가 아니고 본치야 말로 비로소 근본치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병이든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라도 질병이 재발될 수 있으니 본치에 힘써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br/><br/> 예를 들면 고혈압약 복용으로 수치를 관리하는 것은 표치인데 체지방을 줄이고, 지방간을 개선하며 자연식 식사로 혈류를 개선해나가는 등 원인제거에 힘써 혈압이 정상이 되어 약을 끊었다면 본치가 된 것이다.<br/><br/> 한방용어 중 만병일독이란 말이 있다. 독소의 축적이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용어인데 독소는 어떻게 축적이 되는 것일까? 인체는 생명활동을 통해 체내에 독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독소가 생성되기도 한다.<br/><br/> 그런데 체내에 유입된 독소는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이 잘 되도록 배출통로를 잘 만들어져 있다. 독소의 유입통로가 음식, 스트레스, 과로 등이라면 독소의 배출통로는 인체의 모든 구멍이다. 입, 콧구멍은 호흡으로, 땀구멍은 땀으로, 대소변 통로는 대소변으로 독소가 배출된다. 여성들은 생리를 통해서도 독소를 배출한다.<br/><br/> 들어오는 독소만큼 독소가 잘나가면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즉 독소의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이 같으면 질병은 잘 오지 않는다. 허나 현대인은 첨가물 음식과 과식 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 등에 의해 독소의 유입은 많은데 배출이 잘 안돼 문제다. 이처럼 축적되어진 독소가 문제가 되어 의학이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은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br/><br/> 움직이지 않아 땀도 흘리지 않고, 호흡도 잔잔하여 호흡으로도 독소가 잘 나가지 못하고 대소변도 원활치 못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체내에 독소는 피를 엉기게 해 혈전이 만들어지고 말초모세혈관의 순환이 원활치 못하게 하면서 소화불량 및 두통, 비만,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등이 점차 발현된다.<br/><br/> 또 심각하게는 치매, 중풍, 암 등 많은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체내에 쌓여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인체 밖으로 빼주고, 정화시켜주는 것을 해독이라고 한다. <br/><br/> 경기도 화성시에서 올라오는 49세의 이 모 주부는 천식약을 20년간 먹어오고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코막힘이 심해 불편하다고 했다. 키 1m58, 체중이 49㎏로 왼쪽 귀도 안 들리고 세균형 질염도 치료가 안 되어 불편하다고 했다. 머리, 피부도 가렵다고 호소한다. 어지럼증은 초등학교 때부터 생겼는데 병원검사로는 갑상선결절이 있다고 했다. <br/><br/> 그는 필자가 쓴 ‘해독이 답이다’란 책을 읽고 이곳에 오면 꼭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생혈액 검사상 독소의 축적으로 인한 혈구의 연전현상이 매우 심했고 적혈구막이 병형된 극피적혈구가 많았다.<br/><br/> 일단 식사를 구별하면서 청혈(淸血)해독에 힘쓴 결과 환자는 어지럼증, 이명, 질염 등이 사라지고 코가 뻥 뚫렸다고 좋아했다. 전신이 욱신거림이 사라지고 틱증상이 사라지고, 몸이 가볍고 피로가 사라져 살 것 같다고 환하게 웃었다. 해독은 병의 원인규명이 안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동시에 사라지게 한다. 해독은 현대인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질병의 원인을 제거해주는 필수적인 치료라고 생각한다.<br/><br/> 축적된 독소가 해독을 통해 배출되어지면 혈액은 자연히 맑아지게 된다. 즉 해독은 청혈인 셈이다.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청혈이 되면 건강의 기본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해독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증상과 질병은 스스로 치유, 예방할 수 있고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0.txt

제목: “항암제 사용으로 발생한 난청, 감초 뿌리 추출물로 예방 가능”  
날짜: 201610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24174503718  
본문: 한약재 감초 뿌리가 시스플라틴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인 난청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 아주대병원은 이비인후과 정연훈 교수와 김연주 강사 연구팀이 이독성(耳毒性) 약물 시스플라틴 사용 시 ‘코넥신43’이란 단백질이 난청을 일으키는데 관여한다는 사실을 규명, 국제 학술지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나아가 연구팀은 이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는데 감초 뿌리 추출물 ‘카베녹솔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처음으로 밝혀냈다.<br/><br/> 시스플라틴은 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 항암제지만, 부작용으로 난청을 유발하는 게 흠이다. 또 내이에는 청각기능 유지를 위한 국소 칼륨 순환에 관여하는 ‘간극결합’이라는 이온채널이 존재하는데, 이 채널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코넥신 단백질이다.<br/><br/> 연구팀은 복강 내 시스플라틴제제 주사로 난청을 얻은 암 동물모델 생쥐(A군)와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카베녹솔론을 병용 투여한 암 동물모델 생쥐(B군)의 청력검사 및 청각유모세포 소실 정도를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A군은 청력 저하로 40데시벨(㏈) 이하 낮은 소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됐다. 반면 카베녹솔론을 병용한 B군 생쥐는 25㏈ 정도의 낮은 소리도 들을 만큼 청력이 잘 유지·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br/><br/> 카베녹솔론은 감초 뿌리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개발된 항궤양제다. 연구팀은 그동안 이 카베녹솔론을 고막 내 주사 등과 같이 국소적으로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난청 치료제로 산업화할 가능성을 검증해왔다.<br/><br/>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약물이 온몸에 작용하지 않고 귓속 달팽이관에서만 작용하도록 제한하면 시스플라틴의 난청 부작용 방지 효과 이상의 난청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안티옥시단츠 앤드 리독스 시스널링’(ARS) 최근호에 게재됐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1.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인권문제 침묵했던 인권교육 강사, 하나님 중심 참된 인권 찾다  
날짜: 2016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23204903569  
본문: 목사님의 권유로 전공과 관계가 먼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게 되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학대받는 아동과 아프리카와 제3세계 빈곤 아동을 돕는 국제구호 NGO 단체였다. 이웃에게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겠다는 만족감으로 열심히 일했다. <br/><br/> ‘아동학대 지킴이’라는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이버 상담을 하여 상도 받았고, 대학원을 두 곳이나 다니며 사회복지와 상담 관련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공부하면서 인권이 사회복지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권이 개념적이라면 사회복지는 실천적이었지만,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었다. <br/><br/> 그때부터 사회복지의 근거가 되는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에서 인권전문상담위원과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였다. 다른 강사와 달리 사회복지 현장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과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br/><br/> 경력과 자격이 쌓이면서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센터, 대안학교 등 전문분야를 찾아 다양한 일을 했다. 그러다 직장을 그만두고 비영리민간단체를 직접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자신감과 달리 계획한 일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건강도 매우 나빠졌다. 다행히 급한 치료는 되었지만, 치료하는 수개월 동안 혹시 암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삶에 대한 고민은 점점 깊어졌고 영적으로도 매우 힘들었다.<br/><br/> 그럴 즈음에, 아내 친구가 한마음교회에 다니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어떤 목회자 사모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돌파구를 찾는 심정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마침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간증이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직업 현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br/><br/> 또 전역을 앞둔 현역 중령의 ‘군대내 인권과 동성애’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간증은 내게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분은 외쳤지만, 그동안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 <br/><br/>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보였다. 예수님께서는 문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데, 나는 그런 주인을 몰라보고 마음 문을 닫고 박대하며 사람만을 대접한 눈먼 영적 소경이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인본주의 지식과 자격증을 무기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려 살리신 그 귀한 영혼들을 멸망으로 몰고 간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른 자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 지금껏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였다. <br/><br/> 부활은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가신 확실한 증거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성경과 그 하신 말씀을 믿게 된 제자들처럼, 부활을 통한 내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 또한 제자들처럼 달려 나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 <br/><br/> 이제는 사람 중심인 인권교육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인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귀한 존재인 우리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사는 것임을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셨다. <br/><br/> 인권의 소유권은 창조자 하나님께 있고 주인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우리의 권리가 있음은 당연하다. 모두가 자신이 주인이라고 외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로 참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br/><br/>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2.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백혈병에 걸리고도 조금도 흔들림 없던 형 ‘부활의 증인’으로…  
날짜: 2016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23204654701  
본문: 어렸을 때부터 나는 오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다. 학창시절엔 강하게 보이기 위해 내성적이던 성격까지 애써 바꾸었다. 그러다보니 사고를 많이 치게 되었고 보다 못한 부모님은 나와 동생을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 댁으로 유학을 보내셨다. 나는 거기서도 인정받기 위해 교회 일에 열정을 쏟았고 칭찬을 받았다. 그러다 특별히 나를 아끼던 목사님이 한국으로 귀국한 후 나의 신앙생활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세상에 빠져 즐겼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눈앞의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만족감은 그보다 훨씬 컸다. 그래도 교회생활은 열심히 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길고 긴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br/><br/> 방학 때 귀국하여 엄마를 따라 춘천 한마음교회에 갔다. 교회의 어떤 분과 만났는데 대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물었다. ‘말씀, 기도, 기적과 음성…’ 하며 얼버무리며 확신 없는 답변을 했다. 그런데 그 분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불확실했던 하나님의 존재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왔다. <br/><br/> 다시 말레이시아로 돌아갔다. 부활이라는 증거를 알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세상에 빠져 지내다 졸업을 하고 귀국했다. 부모님의 권유로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백혈병 환자와 암 환자가 있었다. 머리카락이 없었지만 너무나 기뻐 보이고 건강하게 보여 전혀 환자 같지 않았다. 놀랍기도 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br/><br/> 3개월간 작은 교회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갔지만 여전히 부활은 안개와 같았다.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라 하지만 역사도 각색되어 변형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여전히 체험, 기적, 음성 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부활이 확실한 증거라면 열두제자나 바울과 같은 부활의 증인들을 보여 달라고 기도했다.<br/><br/> 그때 형의 백혈병이 재발했다. 그러나 형은 재발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똑같이 기쁘고 똑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 온몸에 수포가 생기고 열이 40도가 되어도 형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믿은 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좌절하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직 복음만 전했다. <br/><br/> 나는 직접 부활의 증인을 보고 있었다. “부활이 진짜구나! 진짜가 아니고서야 형이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다!” 오래 교회에 다니면서도 부활로는 부족하다고 내 눈앞에 보여 달라고 하던 나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증인인 형을 직접 보여주셨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br/><br/> 나의 죄 때문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눈앞에 직접 나타나야 믿겠다던 악한 내 모습이 비춰졌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도마와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했다.<br/><br/>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과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 쓰며 살았는데 부활이 확실해지니 나는 이미 다 가진 자이고 하늘에서 보낸바 된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 이제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먼저 하늘나라로 간 형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리라 다짐한다.<br/><br/>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3.txt

제목: 서울대 약학대 교수 연구팀, 고혈압 치료제 활용한 폐암 예방법 제시  
날짜: 2016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23201304892  
본문: 국내 연구진이 고혈압 치료제를 활용한 폐암 예방법을 새로 제시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호영(사진) 서울대 약학대 교수 연구팀이 흡연이나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폐암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고혈압 치료제를 이용한 폐암 예방법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팀은 먼저 흡연 및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쥐에서 폐암 생성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조건에 노출된 쥐의 폐 조직 상피세포가 암 세포로 형질 전환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칼슘채널 차단제를 상피세포에 처리한 결과 폐 상피세포의 형질 전환과 폐 암세포 생성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관찰했다. 이는 칼슘채널 차단제가 담배 및 스트레스에서 유발되는 폐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성과는 폐암 예방법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칼슘채널 차단제는 현재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 중이므로 향후 임상실험을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폐암 예방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br/><br/> 이번 연구 관련 논문은 지난달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와 ‘암 연구’에도 게재됐다. <br/><br/>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4.txt

제목: [나눔설교] 내게 한 것이니라  
날짜: 201610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20205947328  
본문: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고 합니다. 양은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은 것일까요.<br/><br/> 먼저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가장 서럽고 비참한 순간은 배고프고 굶주릴 때입니다. 그런데 2015년 세계 식량 불안정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이 땅 위에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기아인구가 7억950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74억 중 10%가 넘는 수치입니다. 지난달 아프리카 케냐의 밤바라는 마을에 가보니 우갈리라고 하는 묽은 옥수수죽 한 컵으로 하루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굶주림의 고통이 극심한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성장 발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을 안고 배고픔의 서러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br/><br/> 둘째,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습니다. 배고픔이 해소돼도 물 없이는 목말라서 못삽니다. 2020년대가 되면 세계 인구 중 4억∼17억명이, 2030년에는 39억명 이상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 중남미에선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수도시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시급합니다.<br/><br/> 셋째,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그네의 서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국내 다문화 인구만 하더라도 한국다문화학회 발표에 따르면 15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들이 고향산천 부모형제를 떠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br/><br/> 넷째,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습니다. 배고픈 것만 해도 서러운데 헐벗기까지 하면 얼마나 추위에 떨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5∼17)고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주위에 헐벗고 떠는 형제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br/><br/> 다섯째,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는 암, 2위 심장질환, 3위 뇌혈관질환, 4위 폐렴, 5위 자살(우울증)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찾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 5:16)하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br/><br/> 여섯째,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갖가지 억울하고 원통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이제는 그들을 찾아가 사랑으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함께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br/><br/> 우리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한 이들을 사랑으로 찾아가 섬길 때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span class='quot0'>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span>”(40절) <br/><br/><br/>김의식 목사 (서울 치유하는교회)<br/><br/><br/>◇약력=△한양대, 장로회신학대 신대원 졸업 △미국 시카고신학대학원 철학박사 △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국노회장협의회장, 세계치유선교회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5.txt

제목: [바이블시론-채수일]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날짜: 201610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20185539226  
본문: 얼마 전 경주 지역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고, 그 후에도 여진이 지속돼 우리 국민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진 자체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혹 변을 당하면 온 나라가 엄청난 재앙에 휩싸이게 될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지진이 일어나는지는 알지만 언제 어떤 규모로 지진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지진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br/><br/> 그런데 오래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쓰나미를 무슬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발언해서 물의를 일으킨 한 대형교회 목사가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특정 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br/><br/> 인간 때문에 일어났다는 개연성이 확실한 기후변화에서 촉발된 재난은 인간에 대한, 인간에 의한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진처럼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종교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분명합니다.<br/><br/> 그런데 문제는 성서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지진(암 4:11)을, 주전 8세기 예언자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간에 일어난 지진(암 1:1)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지진만이 아니라 가뭄과 메뚜기 떼의 습격 같은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게도, 내리지 않게도 하시고(암 4:7), 메뚜기도 보내시고, 잎마름병과 깜부기병도 내리시고(암 4:9), 기근도 보내신다고 예언합니다.<br/><br/> 성서의 증언과 예언자 아모스의 선언을 우리는 과학혁명 이전 시대에 살았던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 견강부회(牽强附會)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가뭄이 들거나 재난을 당하면 왕이 부덕해서 그렇다고 회개하며 하늘에 제사를 드린 것도 덕치를 이상으로 한 옛 왕정사회의 일이지, 지금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지진을 비롯한 천재지변을 한 나라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백성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은 정신 나간 열광주의자들이거나 누구의 책임도 아닌 재난을 빌미로 권력층을 비판하려는 악의적인 정치세력일 것입니다.<br/><br/> 그러나 성서는 지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천재지변도 한 나라의 지도층과 백성의 윤리적 타락과 부패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지요. 부정부패의 영어(커럽션) 어원은 ‘관계의 단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지도층이 부패했기 때문이고, 이들이 부패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이미 단절되었기 때문에 부패하게 되고, 죄를 짓고, 마침내 심판과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br/><br/> 성서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치명적인 자연재해를 지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한 것은 우매한 미신을 선동하거나 자연과학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니라, 지도층의 ‘무한책임’ 때문입니다. <br/><br/> 한 나라의 지도층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모든 사태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층이 아무리 국민을 동서남북으로, 적과 아군으로 편 가른다고 해도 지진은 누구도 편 가르지 않고 무너뜨리고 삼킬 것입니다.<br/><br/>채수일 경동교회 담임목사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6.txt

제목: 아프리카발톱개구리 유전체 해독 성공, 암·선천성 기형 등 질병 연구에 도움될 듯  
날짜: 2016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9210422959  
본문: 권태준(사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과학부 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진이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유전체를 해독하고 관련 논문을 20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7개국에서 60명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2009년부터 7년간 진행됐다.<br/><br/>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유전자 발현 조절이 쉬워 인간을 포함한 많은 척추동물의 발생과정에서 중요한 유전자를 연구하는 분야에 사용된다. <br/><br/> 하지만 인간을 비롯한 다른 동물이 부모에게 하나씩 물려받아 2개의 염색체 그룹을 가지는 것에 비해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염색체 그룹이 4개여서 분석이 까다로웠다. <br/><br/> 이번 유전체 해독을 통해 인간 유전자의 기능을 찾아내거나 암 등 인간 질병을 연구하는 새로운 모델로 개구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권 교수는 19일 “<span class='quot0'>그간 식물에서만 볼 수 있었던 4배체 유전체를 동물에서 최초로 확인하고 진화적으로 유전자 변화를 살핀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새로운 유전자가 생성되는 과정과 같은 기초 연구뿐 아니라 암이나 선천성 기형처럼 배체수 변화가 흔히 나타나는 질병 연구에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7.txt

제목: 삼성화재 통합보험 ‘모두모아 건강하게’, 사망서 화재까지… 상품 하나로 모두 보장  
날짜: 2016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9191327779  
본문: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10명 중 9명은 질병으로 사망한다.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 심장질환, 3위 뇌혈관질환 순이다. 3대 질환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중 절반에 이른다.<br/><br/> 한 대형 보험사에서 2006부터 10년간 지급한 사망보험금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지급사례 중 질병사망이 77.8%, 상해사망이 13.2%, 기타사망이 9%였다. 하지만 평균 사망보험금은 상해사망이 6796만원인데 반해 질병사망은 2220만원에 불과했다.<br/><br/> 질병 사망에 대비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상해사망보다 비싸다. 갑작스런 상해사망보다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인데, 그 때문에 더 준비가 필요하다.<br/><br/> 삼성화재 통합보험 ‘모두모아 건강하게’는 맞춤 보험설계로 질병사망 보장 보험료를 낮췄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질병사망 보험금 1억원을 준비하는데 1만7000원 정도면 충분하다. 자녀가 독립하기 전인 경제활동기에 집중해서 사망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췄다.<br/><br/> 삼성화재 ‘모두모아 건강하게’는 사망, 장해, 진단비, 수술비, 실손의료비 등 건강보험 외에 손해보험 고유의 담보인 운전자, 화재, 배상책임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모든 보장이 가능한 통합보험이다. 15년마다 보장내역 재점검을 통해 고객 상황에 따른 유연한 재무설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8.txt

제목: [신약강국 현장을 가다] CJ헬스케어 구본철 연구소장 “우수 두뇌 많아 신약개발은 가장 큰 성장동력”  
날짜: 2016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6202521648  
본문: “땅은 좁지만 우수한 두뇌(브레인)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신약개발’은 가장 해 볼 만한 비즈니스죠. 박근혜 정부에서 외치는 ‘창조경제’에 가장 들어맞는 사업이 바로 ‘제약산업’이지 않습니까.” CJ헬스케어 구본철 연구소장은 “신약이야 말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신약 및 바이오, 개량신약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회사 뿐 아니라 국가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br/><br/> CJ헬스케어는 1984년 CJ제일제당의 제약사업부로 사업을 시작, 2014년에 4월 CJ그룹의 제약 전문 계열사로 출범했다. 구 연구소장도 같은 시기, SK바이오팜을 거쳐 CJ헬스케어로 자리를 옮겼다.<br/><br/>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CJ헬스케어 연구소에서 그를 만났다. 구 연구소장에게 신약강국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묻자, “결국 ‘사람’과 ‘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약개발이 성공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과 막대한 임상비용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모든 신약후보 물질이 신약으로 탄생하는 것도 아니다. 성공확률이 10% 안팎이다. 여기에 좋은 인재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많은 리스크(위험부담)를 감수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r/><br/> 한때 CJ헬스케어가 제약 전문 계열사로 출범하자, 일각에선 ‘CJ가 제약산업을?’이라며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럼에도 꾸준한 성과를 냈다. 회사는 1986년 B형 간염예방백신 ‘헤팍신-B’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또 빈혈치료제 EPO제제(제품명 에포카인)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더불어 1997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녹농균백신 신약이 ‘대한민국 7호 신약’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br/><br/> 지금도 CJ헬스케어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는 ‘신약’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회사는 내년 상장도 앞두고 있다. 현재 CJ헬스케어가 개발 중인 신약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CJ-12420’과 항구토제 ‘NEPA’, 류머티스 관절염치료제 ‘JAK Inhibitor’ 등이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와 항구토제는 임상 3상에 들어간 상태며,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는 현재 전임상 단계다. 아울러 회사가 개발중인 바이오의약품은 빈혈치료제 CJ-40001(임상 1상), 수족구 치료제 CJ-40010(전임상), 안과질환 치료제 CJ-40012(후보물질), 독감백신(임상 2상), 3세대 두창 치료제 CJ-40011(전임상) 등이다. 이밖에도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을 목표로 한 개량신악 개발도 진행 중이다. <br/><br/> “우리 역량에서 신약개발 단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후부터가 문제죠. 세계적인 제약사 화이자나 존슨앤드존슨은 신약을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막대한 임상비용과 마케팅 여력을 갖췄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특허 기간 동안 신약의 가치를 충분히 돌려받아야 하거든요. 국내 제약사가 미국이나 유럽 등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돈을 쏟아야 하는데 시간과 자금 모두 여의치 않습니다. 신약을 발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 등의 글로벌제약사와 협업을 해 선진국에 진출하고, 중남미나 동남아 등의 국가에서는 직접 진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br/><br/> 그는 결국 ‘글로벌’ 진출이야 말로 우리가 가야 할 일이라고 했다. 구 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한정돼 있어서 시장 규모를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좋은 신약을 발굴해 한미약품처럼 글로벌 제약사에 ‘라이센스 아웃’(기술수출)을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한미약품,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에 기술수출을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는 “국내 제약사들이 최근 기술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1990년대 이후부터 벤처 붐이 일었다. 당시에도 이미 글로벌기업과의 라이센스 아웃 성과는 나오고 있었다. 이제 앞으로 CJ헬스케어를 비롯해 2∼3년 내에 국내 제약업계에서 좋은 성과들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br/><br/> 성과도 있다. 회사는 중국 제약사 뤄신사에 1000억원 규모의 위식도약류질환 신약 CJ-12420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CJ-12420의 국내 출시는 2018년, 글로벌 출시는 2021년을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br/><br/> 회사는 국내·외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R&D 오픈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벤처·학계·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유망 신약 후보물질 및 기술을 발굴,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다. 지난 1월 태스크포스를 구성, 유망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미국, 일본, 유럽지역 벤처 600여 개 사의 1000여건의 과제를 검토해왔다. 또한 직접 해외 현지를 방문해 암, 면역, 소화기 질환 분야에서 좋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벤처사들과 미팅을 진행하는 등 과제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구 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0'>신약 자체개발, 공동 개발 및 유수 벤처사의 좋은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 도입 등을 통해 회사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성과를 내기위해 주력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br/> 신약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구 연구소장은 “신약 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막대한 임상 비용이 들어간다. 정부가 혁신신약 약가 우대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이같은 지원책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좋은 인재들이 대부분 학교로 임용되길 바라거나 해외로 나간다. 산업의 영역으로 와서 도전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정부가 우수한 인력들이 신약개발 등 기초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br/><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9.txt

제목: [원자력병원 스마트 암 진료] 통증클리닉, 척추질환·대상포진에도 큰 성과  
날짜: 2016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6202518875  
본문: 국내 통계에 따르면 초기 암환자 및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 30∼50%, 진행성 암환자 60∼70%, 말기 암환자 80∼90%가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암환자의 60% 이상은 통증 치료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다. <br/><br/> 암성 통증의 발생원인은 암세포가 주변 장기나 신경, 뼈 등에 전이되는 경우, 수술·방사선치료·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암과 관련 없이 생기는 경우 등 여러 가지다. <br/><br/> 암성 통증은 피부나 뼈, 근육을 예리한 칼로 찌르는 듯 한 체성통, 통증 부위가 불명확한 복부 내장통, 신경계통 손상으로 저리고 따끔거리는 신경병증 통증 등이 있는데, 환자는 여러 증상을 복합적으로 겪을 수 있어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치료해야 한다.<br/><br/> 암성 통증의 기본 치료원칙은 가능하면 입으로 먹는 경구용 진통제를 사용하고, 일정한 간격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다. 가벼운 통증에는 비마약성 진통제, 심한 통증에는 마약성 진통제, 급작스런 돌발성 통증에는 속효성 진통제를 사용한다. 또한 부작용이 심하거나 복용을 잘 못 하는 경우에는 피부에 붙이는 패취형 진통제가 이용되기도 한다. <br/><br/> 암진료 전문병원인 원자력병원의 통증클리닉은 진통제 복용을 원칙으로 신경차단술 등 다양한 신경치료로 통증을 경감시켜 암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br/><br/> 신경차단술은 암세포가 신경이나 뼈로 전이되어 통증이 심한 경우 신경에 치료약물을 직접 투여해 신경주위 염증을 치료하고 신경의 부기를 빼주어 신경을 안정시킨다. 이를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없애는 원리이다. 신경차단술은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1∼2회의 간단한 시술로 부작용 없이 빠른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통증만 전달하는 신경을 파괴시켜 부작용 없이 통증을 경감시킨다.<br/><br/> 통증클리닉은 마약성 진통제로도 통증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척추 부위의 통증 신경이 나오는 부위에 가느다란 관을 삽입하고 약물펌프를 연결해 진통제를 통증 신경 주위에 직접 주입하는 경막외강내 환자자가진통법(무통주사)도 시행하고 있다. 이 치료법은 경구용이나 혈관주사 때 보다 5분의 1 이하의 훨씬 적은 용량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가정에서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r/><br/> 2년 전 위암 절제술을 받은 57세 남자환자는 암이 간 등으로 전이되어 복부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했으나, 점차 진통제 용량이 늘어나 구토 등 부작용이 심했다. 환자는 복부통증을 전달하는 복강신경총 차단술과 파괴술을 시행 받아 진통제를 소량으로 줄이고 복부통증도 없어졌다.<br/><br/> 64세 여자환자는 1년 전 난소암 수술을 받고 진통제 부작용으로 용량을 늘릴 수 없어 극심한 하복부 통증에 시달렸다. 환자는 통증을 전달하는 상하복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여 극심한 통증은 줄었으나, 여전히 통증이 발생해 경막외강내 환자자가진통법으로 진통제 복용 없이 통증이 사라졌다. 현재 환자는 집에서 직접 약물펌프만 바꿔주며 통증을 조절하고 있다.<br/><br/> 이청 원자력병원 통증클리닉 과장은 “<span class='quot0'>암성 통증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므로 통증이 심한 경우 참지 말고 초기에 통증전문의와 상담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원자력병원 통증클리닉은 암성 통증 외에도 디스크병, 척추관협착증, 관절염, 대상포진 등 온 몸의 다양한 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치료도 함께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0.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 면역항암제가 ‘획기적’ 평가받는 이유  
날짜: 2016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6202515944  
본문: 최근 항암치료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았다는 의학계의 평을 받고 있는 약이 있다. 바로 ‘면역항암제’다. 면역항암제가 기존 항암제 대비 높은 치료 효과를 발휘한다는 임상결과들이 의학계에서 연달아 발표되며, 환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약은 부작용 위험이 얼마나 적을까. <br/><br/> 의료계는 면역항암제를 획기적 항암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1세대 항암제는 정상세포에 비해 분화속도가 빠른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한 화학 항암요법은 주로 수술이 불가한 환자나 수술 전 종양 크기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하지만 분화속도가 빠른 정상세포까지 구분 없이 공격하다 보니 탈모, 구토, 합병증 등의 부작용이 심했다. 2세대 표적항암제는 특정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제이지만, 내성 위험과 적용 가능 대상 환자가 제한적인 것이 한계다. 의학계가 면역항암제를 3세대 치료제로 주목하는 이유는 체내 면역체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암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암에서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br/><br/> 면역항암제는 기존에 나와 있던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 강점이다. 면역항암제를 활용한 면역항암요법은 종양에 맞서는 면역 반응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면역 체계의 특정 요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나, 종양 세포가 만들어 내는 면역 반응 억제 신호를 방해한다. 일례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원래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갖고 있는 암세포 공격 역할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암종에서 반응을 보였으며 기존의 항암치료 과정에서 겪는 구토, 탈모, 소화불량, 백혈구감소증과 같은 전신 부작용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난다. <br/><br/> 실제 키트루다의 2상 연구인 KEYNOTE-002에 따르면, 환자 삶의 질 관련 연구 결과 키트루다를 투여 받은 환자들은 화학요법 치료군에 비해 치료 이후 건강상태 및 삶의 질 점수가 떨어지는 폭이 유의미하게 더 적었다. 또한 키트루다로 치료 받은 환자들의 치료 기간이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와 관련해 중증도 의 약물 유해반응 발생률은 키트루다가 2mg/kg에서 11%, 10 mg/kg에서 14%로 화학 요법(26%)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br/><br/> 옵디보는 비소세포폐암 종류와 특정 환자군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게 강점으로 알려져 있다. 옵디보는 조직형에 따라 나뉘는 편평,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였다. 특히 기존 치료 옵션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제(도세탁셀)보다 사망위험률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율을 2배 가까이 개선했다.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면역항암제가 적정 환자에게 투여를 하면 좋은 효과를 가진 약물</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간수치나 자가면역질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신중하게 투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1.txt

제목: [인터뷰] 글로벌헬스케어협동조합 윤여동 이사장 “해외 환자유치·의료관광 활성화 체계적 지원을”  
날짜: 2016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6202304340  
본문: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미용·성형분야 이외에도 암과 장기이식 등 전문 질병치료분야에 우수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혈병치료 분야 등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 각국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리기 위해 의료기관과 기업체, 기관 등이 함께 뭉치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합니다.”<br/><br/> 지난 3월 창립총회를 열고 5월 본격 출범한 한국글로벌헬스케어사업협동조합(이하 헬스케어협동조합) 윤여동 이사장은 “<span class='quot0'>국내 의료수준은 세계가 인정하지만 의료관광이나 해외환자유치 등의 역사와 경험이 부족한 것이 현실</span>”이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환자유치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진출 등은 개별 의료기관이나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성과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 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헬스케어협동조합은 대한민국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의료기관, 헬스케어 업체, 관련 중소기업 등의 힘을 모아 함께 성과를 만드는 목표가 설립 배경</span>”이라고 말했다.<br/><br/> 출범 1년이 안됐지만 헬스케어협동조합에는 현재 개별 의료기관(병의원)과 병원경영지주회사(MSO), 의료관광 대행업체(에이전시), 미용성형·화장품·의료기기·정보통신(IT) 관련 기업들이 조합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헬스케어협동조합의 목표는 조합원사의 △해외 수출사업 활성화 및 강화 △공동사업 강화 및 사업개발 등이며, 조합 내부적으로는 △조직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사회공헌 활동 등이다.<br/><br/> 윤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관련 조합원사를 모으는 과정과 법인 인가, 창립은 시작에 불과하다. 조합이 추구하는 사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합에 참여하는 기관과 기업체들이 해외진출, 해외환자 유치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여동 이사장은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진출 공동브랜드 개발, 해외 시장개척단 지원 등으로 해외진출 판로 개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윤 이사장은 정부와 관련 기관의 소통 확대를 통해 해외사업 분야에서 성과를 내도록 정책포럼, 연구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br/><br/> 이와 함께 헬스케어협동조합은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조합회원사 간의 정보교류는 물론 법률자문 등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매년 학술대회를 열고 정부관계자, 전문법률가, 각 업종 대표들과 함께 관련 현안을 논의해 실현 가능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br/><br/> 정부의 지원과 관련 윤 이사장은 국내 의료기관, 의료관련 기업과 서비스가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윤 이사장은 ‘K-MEDICAL과 K-POP, 한류드라마 등과의 전략적인 협업’,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의료관광 전문시설 확충과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 개발’ 등을 제시했다. <br/><br/>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인공지능을 의료에 접목시켜라” 대형병원들 첨단의학 인프라 박차  
날짜: 2016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6201135310  
본문: 국내 대형병원들이 인공지능 연구(AI), 융복합 의료기기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 융·복합 연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들은 미래융·복합 연구와 사업화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공학기술(BT) 등을 결합한 헬스케어 사업화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국내 주요 병원들이 첨단 의료기술 연구에 뛰어다는 것은 병원의 ‘생존’이라는 절박함과 ‘미래 먹거리’ 산업인 헬스케어를 주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경쟁력 강화라는 의지가 담겨있다.<br/><br/> 이와 관련 분당서울대병원은 오래전부터 의료연구 분야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헬스케어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병원은 혁신파크를 통해 융복합 의료기기, 헬스케어 ICT, 재생의학,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신약 연구 등에 나설 것이다. 헬스케어 클러스터의 구축 확장을 통해 의료복합연구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헬스케어혁신파크에 임상연구센터 건립 등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방침이다.<br/><br/> 연세의료원 윤도흠 의료원장은 최근 ‘스타트업 세브란스 100’을 선언했다. 의료서비스의 100년을 내다보는 인프라 구축, 정밀의료와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하는 연구·개발(R&D), 세계적인 헬스케어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구현 등 임기 내 중점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료원장은 “미래 의료환경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AI가 생각보다 초기 투자가 엄청나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크지만 확실한 로드맵을 세울 것”이라며 “외국 수입한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고 ‘한국형 AI 의료’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는 진료 공간과 연구, 교육 공간을 분리하고, 연세대와 연결되는 공간에 ‘메디컬 이노베이션 파크’를 설립해 산·학융복합연구를 추진한다.<br/><br/> 가천대학교 길병원은 IBM의 인공지능(AI) 왓슨 기반의 의료정보분석서비스 ‘왓슨 포 온콜로지’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첨단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걸음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가천대 뇌과학연구원은 아시아 최초로 연구용 7.0T(테슬라)급 MRI 및 초고해상도 PET시스템 등의 최신 뇌영상 연구시스템을 갖췄다. 고해상도 양전자 방출 등의 첨단 의학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진단할 수 없었던 많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뇌연구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br/><br/> 서울성모병원도 미래 의료시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 암 치료기술’ 등 연구의 사업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유효성이 입증된 암 치료기술에 ‘구글 알파고’처럼 무수한 치료 데이터를 가진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은 스탠퍼드대학과 글로벌 의료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방사선 암 치료계획장치, 난소암, 림프종암 등 악성 암에 대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승기배 서울성모병원장은 “<span class='quot0'>두 기관이 일궈낸 연구성과를 단순히 논문발표 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료현장에서 활용하고 의료기술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모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의학계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힐 수 있도록 성과물 창출을 위해 집중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3.txt

제목: [암과의 동행] 담배는 손에 안댔지만 폐암 발생할수도  
날짜: 2016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6200716376  
본문: 숨을 쉬는 행위는 생존을 위해 필수다. 숨쉬는 행위와 연관된 신체 기관은 ‘폐’인데, 폐에 발생하는 폐암은 국내 암 사망 원인 1위다. 폐암의 주된 원인은 흡연이지만 흡연과 무관하게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립암센터가 폐암 수술 환자 2948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의 약 30%(831명)가 여성이었으며, 그 중 88%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은 비흡연자였다. 세계적으로도 남성 폐암환자의 약 15%, 여성 폐암환자의 53%가 비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흡연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폐암이 발생하는 것일까.<br/><br/>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폐암의 위험요인으로는 직접적인 흡연 외에도 간접흡연이나 석면 등 직업성 발암물질, 연소와 관련된 발암물질, 라돈 따위의 환경 방사능, 폐섬유화증 같은 기존 폐질환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간접흡연과 연소와 관련된 발암물질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먼저 간접흡연은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말한다. 물론 흡연자에 비해 간접흡연자가 마시는 연기의 양은 적지만, 그 연기 속에는 발암물질과 니코틴 등의 독소가 존재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br/><br/> 이진화 이대목동병원 폐암센터장(호흡기내과 교수)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생기는 것은 흡연자가 폐암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된다. 담배의 연기 속 발암물질이 기관지나 폐로 가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요즘 담배는 예전에 비해 퀄리티가 더 좋아져서 연기가 더 멀리까지 도달한다. 연기가 폐의 말초부까지 직접 침투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암이 주로 기관지에 많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폐 자체에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br/><br/> 또한 연소와 관련된 발암물질은 대표적인 예로 요리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음식을 조리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당부했다. 그는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 속에는 여러 물질이 있는데 이중에는 발암물질도 포함돼 있다. 특히 예민하거나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 이러한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암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세먼지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주로 대기에서의 미세먼지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고기를 굽거나 할 때도 엄청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먼지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여러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뿐만 아니라 육류나 생선을 튀기거나 굽는 방법으로 요리를 하면 헤테로사이클릭아민(heterocyclic amines)과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이 발생해 여러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br/><br/> 따라서 음식을 조리할 때는 환기가 잘 되는 환경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밀폐된 상태에서 요리를 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므로 반드시 창문을 열어둬야 한다. 아울러 발열 기구를 이용할 때 연기가 발생되는 가스방식 대신 전기방식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간접흡연은 담배 연기를 피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국가적으로는 금연 인구를 늘리는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금연구역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잦은 휴대전화 사용, 암 위험 노출 된다는데… 인체와 거리두는 습관 길러야  
날짜: 2016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6200714624  
본문: 현대인에게 휴대전화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소지품이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지니고 다니는 필수품이 됐다. 우리 일상생활에는 휴대전화뿐만이 아니라 TV나 컴퓨터, 태블릿 등 각종 전자제품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자기기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br/><br/> 국제암연구소(IARC)는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자가 노출되는 무선주파수 전자기장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Group 2B)’로 분류한 바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을 5가지로 나누는데, Group 1(1군), Group 2A(2A군), Group 2B(2B군), Group 3(3군), Group 4로 분류한다. 휴대전화 전자파는 이중에서 중간 정도의 등급에 해당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으나 근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암이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친 휴대전화 사용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br/><br/> 신준재 인제대 상계백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2011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뇌종양 발생위험이 있다고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이때부터 전자파도 발암물질에 속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 전자파가 발암물질 2B등급에 해당하는데, 같은 등급으로는 자동차 엔진의 배기가스 등이 있다. 흡연처럼 1등급은 아니지만 전자파는 인체 중에서도 특히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br/><br/> 또한 신 교수가 제시한 국내 연구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본 결과 10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들이 10년 이하로 사용한 사람들에 비해 뇌종양 발생률이 18%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종양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전자파는 주로 신경교종이나 신경초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화내용을 잘 듣기 위해 휴대전화를 귀에 붙여 사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청각 신경을 담당하는 곳에 종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귀 위쪽에는 두개골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측두골이 휴대전화를 대는 부위다. 측두골은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이를 통해 뇌신경에 전자파를 계속 쐬게 되면 뇌종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br/><br/> 하지만 실생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전자파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준재 교수는 “<span class='quot0'>최대한 휴대전화와 멀리 떨어진 상태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통화할 때는 스피커폰이나 핸즈프리, 블루투스를 이용하고, 또는 휴대전화를 피부에 바짝 붙이지 말고 1∼2cm 정도 살짝 떨어뜨려서 통화하는 게 좋다.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가면서 양쪽으로 통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KTX, 고속버스, 엘리베이터 등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곳에서는 휴대전화에서 전자파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가급적이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br/><br/>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피부나 두개골도 얇은 상태고 뇌신경이 성장하는 시기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신 교수는 “어린 아이라면 가급적이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되도록이면 아이가 휴대전화와 늦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박예슬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5.txt

제목: [암과의 동행] 방사선 인한 ‘직업성 암’ 걱정되십니까  
날짜: 2016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6200711901  
본문: #원자력발전소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A씨는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피부암 진단을 받았다. A씨의 동료 중 같은 질환으로 입원한 선례가 있어 근무 중 접한 방사선으로 인한 직업성 암이 의심되는 상태다. A씨의 피부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 또한 방사선으로 인한 직업성 암은 어떤 것이 있을까. <br/><br/> 방사선은 인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NA를 손상시켜 유전적 결함을 불러오기도 하고, 각종 암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 외에도 피부의 홍반이나 궤양, 백내장, 혈액 및 조혈기계 질환, 수정체 혼탁, 장기 기능부전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영상의학과 의사, 방사선사, 원자력발전소 종사자, 라듐 다이얼도장공, 지하광부, 비행기 승무원, 우라늄 광부 등 방사선을 가까이 접하는 직종에 근무할 경우 직업성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br/><b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피부암(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급·만성 골수성백혈병 등이 엑스(Χ)선 또는 감마(γ)선과 같은 전리방사선에 노출돼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암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병한 경우 평가절차를 거쳐 ‘직업성 암’으로 인정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br/><br/>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한 암의 경우 먼저 해당 질환과 관련한 기저질환은 없었는지, 방사선에 노출될만한 생활습관 등을 확인하고 평가에서 배재하는 작업이 선행된다. 이후 방사선 피폭 정도를 파악하는데 노출 기간, 강도 등 작업장 환경이 질병을 유발할 수준인지 업무관련성 평가에 들어간다. 김세영 부산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사업장 내의 질병유발물질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개인질환에 대해 평가한다”며 “방사선에 노출된 시기와 기간, 그리고 강도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달라진다. <br/><br/> 또 직접노출인지 간접노출인지, 보호 장비의 노출차단 정도는 어떤지 등 다양한 소인을 복합적으로 검증한다. 해당질환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검증결과 직업성 암으로 진단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진단까지의 과정은 보통 한 달여 기간이 소요되는 편이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면 보상까지 걸리는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br/><br/> A씨의 경우처럼 한 사업장내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에게서 동일한 질환이 발병됐다면 유병률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br/><br/> 이러한 직업성 질환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직업환경의학과’를 찾아 진단과 검사를 받아야한다.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직업성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의심이 든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방사선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한 불안은 금물이다. 다만 사업장에서는 노출원이 물리적으로 차폐(遮蔽)된 공간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br/><br/>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6.txt

제목: [암과의 동행] 끝난 줄 알았는데 ‘2차 암’이라니…  
날짜: 2016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6200502986  
본문: 암을 겪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바람은 하루라도 빨리 암을 완치하는 것이다. 더불어 암이 완치가 됐더라도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계속 안고 가야한다. 그런데 만약 암이 깨끗하게 완치가 됐거나, 혹은 재발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또 몸속에서 암세포가 생긴다면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또 있을까. 하지만 이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암을 겪은 사람이라면 ‘2차 암’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br/><br/> 원래 기존에 발생했던 암을 가리켜 ‘원발암’이라고 한다. ‘2차 암’은 암 치료를 받은 환자가 원발암의 재발이나 전이가 아니라, 또 다른 암이 새롭게 나타나 다른 장기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방암을 겪었던 환자가 유방암과 무관하게 대장암이 생겼다면 이 대장암이 2차 암에 해당되는 것이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암을 한 차례 겪은 환자의 경우 원발암의 재발 위험도 높지만, 2차 암의 발생 또한 같은 연령대의 정상인보다 평균 2.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즉 기존에 암을 겪었던 환자일수록 또 다른 새로운 암이 생겨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암 중에서도 대장암이 2차 암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 이와 관련해 한경수 국립암센터 암예방암검진센터 교수(외과 전문의)는 “실제로 2차 암으로는 대장암만 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암들도 많이 생긴다”며, “다만 암 발생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식습관이다. 식습관과 대장암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교수는 “만약 대장암이 완치된 후 다시 대장암이 생겼다면 5년을 기준으로 재발 암과 2차 암을 구분해야 한다. 5년 이내에 대장에 다시 암이 생겼으면 재발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5년 이상이 지나면 재발은 드물기 때문에 암이 생겼다면 2차 암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 또한 암 환자일수록 2차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한 교수는 생활습관의 영향을 이유로 들었다. 한 교수는 “담배를 피거나 음주를 하거나, 또는 평소에 운동을 잘 안한다거나, 올바르지 않은 식습관 등의 생활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때문에 암 환자들은 암 치료가 잘 돼도 여전히 암 발생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며, “또한 암 환자들은 치료 후에 운동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여러 검사들로 인해 방사선에도 노출되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더해져 2차 암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br/><br/> 그렇다면 2차 암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한경수 교수는 2차 암을 막으려면 일반 암 예방과 마찬가지로 정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대부분의 암 생존자는 치료한 원발암의 재발에 대해서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재발 외의 2차 암 발생을 막기 위해 전반적인 암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권고·시행하는 5대 암(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다. 또한 2차 암으로는 대장암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7.txt

제목: 예방접종 전후 신체이상 꼼꼼 살피세요  
날짜: 2016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6200155540  
본문: 우리나라에서는 독감이 1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항체가 생기는 기간과 예방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을 고려해 9월 하순에서 10월 중순사이 늦어도 11월까지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br/><br/><br/><br/> 예방접종 전 청결은 필수<br/><br/> 예방접종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다. 예방접종 전 계속해서 몸에 열이 난다던지 급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접종날짜를 미루는 것이 좋다. 접종날짜가 정해지면 전날 목욕을 하는 등 청결히 해야 한다. 영유아의 경우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는 것이 좋다. 접종 당일 미리 체온을 재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청소년과 일반성인도 평소와 달리 몸에서 열이 난다거나 몸살, 두통 등 이상기운이 느껴지면 전문의와 먼저 상담 후 접종을 실시한다. 최근에 급성 질환을 앓았거나, 면역결핍증, 암, 경련성 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 항암·방사선 치료 등의 면역억제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 과거 예방접종 후 몸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도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한다. 과거 예방접종 후 과민반응이나 신경계상 이상증상을 경험한 사람, 계란에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 6개월 미만 영아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다.<br/><br/><br/><br/> 접종 후 30분 그리고 3시간<br/><br/> 고려대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윤경 교수는 “<span class='quot0'>예방접종을 받았다면, 30분은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에 머물며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고, 집에 돌아간 후에도 3시간가량은 편히 쉬는 것이 좋다</span>”고 강조했다. 드문 경우지만 예방접종에 대한 이상 반응으로 고열 또는 구토, 경련 등 전신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방접종을 받은 날에는 되도록 과격한 운동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해야 한다. 또, 접종부위가 더러워 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접종 당일에 샤워나 목욕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접종 후 접종 부위에 통증과 부종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개 이틀이 지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호흡곤란, 갑작스런 쉰 목소리, 눈 부위의 심한 부종, 손발가락에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br/><br/>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우리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이 걸린다. 접종 후에도 개인위생과 주변 위생관리를 간과해선 안 되는 이유다. 평소 사람이 많은 곳을 다녀오면 손을 깨끗이 씻고 기침, 재채기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려야 한다. 김윤경 교수는 “<span class='quot0'>충분한 수면과 수분보충으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예방접종 후에도 고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한다</span>”고 당부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8.txt

제목: [질환 통계-전립선암] 고지방식 가급적 피하고 저지방 식품·과일 채소류 섭취해야 예방 도움  
날짜: 2016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6195737680  
본문: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 직장 앞쪽에 있는 밤톨만 한 크기의 남성 생식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암의 대부분은 전립선 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이다. 전립선암 초기에는 증상이 없으나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각종 배뇨 문제가 발생한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줄기도 가늘어지며, 다 보고 나서도 뭔가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된다. 또는 소변을 자주 보고 참기 어렵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기도 한다. 암이 더 진행되면 요관이 막혀서 신장이 붓는 수신증, 신부전 증상, 암이 전이된 뼈의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br/><br/> 50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수명이 10년 넘게 남았다고 예상되는 50세 이상 남성들에게는 매년 혈중(혈청) 전립선특이항원(PSA) 측정 검사와 직장수지검사가 권고된다. 반면 75세 이상이면서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기적인 전립선암 검진을 권하지 않는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2011년∼2015년)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현황을 보면 2010년 3만5688명에 불과하던 환자는 2015년 6만169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요양급여비 역시 2011년 910억원에서 2015년 125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5년 기준 연령별 환자수는 70대가 2만968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2011년에 비해 1만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어 △60대 1만7690명(2011년 1만3548명) △80세 이상 1만2134명(2011년 6554명) △50대 4783명(2011년 3546명)의 순이었다.<br/><br/>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식생활은 환경과 함께 전립선암의 발병과 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붉은색 육류나 유제품 등의 고지방식은 전립선암의 성장을 자극한다고 하므로 이런 것들은 가급적 적게 먹고, 저지방 식품과 신선한 과일, 채소, 콩 종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암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br/><br/>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물질 중 하나가 리코펜(lycopene, 라이코펜)이다. 카로티노이드(carotinoid, 동식물에 널리 분포돼 있는 노란빛 또는 붉은빛 색소의 한 무리)의 한 종류로 토마토와 수박 등의 빨간 색소인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전립선 상피세포의 양성 및 악성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코펜이 아주 많이 들어 있는 토마토는 다른 과일보다 당분이 적어서 대개 설탕을 뿌려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비타민 B₁이 손실되니 그냥 먹는 것이 좋다. 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9.txt

제목: 고령화 치닫는데 50대 이상 남성 전립선은 안녕하신지…  
날짜: 2016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6195530856  
본문: 50대 이상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이 2017년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남성암 중 급증할 위험이 높은 질환이 바로 전립선암이기 때문이다.<br/><br/> 홍성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교수(대한비뇨기종양학회 홍보이사)는 “전립선암은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50대 이상 남성,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남성 등 전립선암 고위험군은 전립선암 예방관리와 조기발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실제 전립선암은 최근 갑상선암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남성암으로 알려져 있다. 연평균 증가율은 11.8%로 다른 암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실제 2013년 한 해에만 9515명이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았고, 2000년 1304명에서 13년 사이 7배 이상 늘었다. 전립선암은 국내 남성에게 다섯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특히 전립선암은 50세부터 발병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 연령대의 남성들은 각별히 전립선암을 눈여겨봐야 한다.<br/><br/> 전립선암은 일명 ‘선진국병’이라고도 여겨진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남성암이다. 생활양식의 서구화되고 고령사회가 전립선암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립선암은 생활요인과 환경요인 및 유전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발생한다. 그 중 나이는 가장 중요한 전립선암 발생의 위험인자로 꼽힌다. 홍성후 교수는 “<span class='quot0'>다른 모든 암이 그렇듯, 고령이 되면 정상세포의 손상이 일어나 암세포가 늘어날 확률은 높아진다</span>”고 설명했다. <br/><br/> 전립선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가족력 등의 유전적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 실제 약 9%에서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홍 교수는 “<span class='quot0'>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는 집안은 그렇지 않은 집안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가능성이 약 8배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아버지나 형제들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는 남성은 40대부터 매년 1회 이상 전립선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 최근 들어 주요한 전립선암 발병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서구화된 식습관이다. 홍 교수는 “<span class='quot0'>동물성 지방이나 육류의 과다섭취는 전립선암 발생의 위험성을 높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섬유질이 많고 동물성지방이 적은 음식은 전립선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무엇보다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만 되면 완치율이 높은 암이다. 조진선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기과 교수(대한비뇨기종양학회 회장)는 “전립선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고, 전립선비대증과 증상이 유사해 암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학적인 검사가 필수다. 초기 전립선암을 치료할 경우 생존율이 100%에 달한다”고 말했다. 암을 방치해, 진행성 전립선암이 되면 5년 생존율이 약 38.6%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 <br/><br/>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 암검진 대상에서 ‘전립선 암’은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홍 교수는 “정부가 비용 대비 효과성을 따져 전립선암 조기검진에 따른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전립선암 증가로 사회경제적 비용은 추후 늘어날 것이다. 전립선암도 암검진 대상에 포함시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0.txt

제목: 아스피린, 암 예방 도움될까?  
날짜: 2016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6194912190  
본문: 우리가 흔히 먹는 상비약인 ‘아스피린’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암을 비롯해 전립선암과 위암에도 일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은다. 본래 해열, 진통, 항염증제로 널리 쓰이는 ‘아스피린’은 가정상비약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1970년대 후반 혈소판 응집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예방목적으로도 처방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효능을 갖춘 아스피린의 ‘암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최근들어 속속 밝혀지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br/><br/> 아스피린의 주성분은 아세틸 살리신산(Acetylsalicylic acid)으로 버드나무 껍질에서 유래됐다. 기원전 1500년 무렵 제작된 파피루스에도 버드나무 껍질을 사용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인류와 오랜 시간 함께한 약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스피린의 암 예방 효과는 ‘항염증작용’과 관련이 깊다. 기존 아스피린은 염증완화 효능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및 퇴행성 관절염 등 근골격계 염증 질환에 사용돼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같은 효능으로 인해 대장암, 전립선암, 위암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br/> 오상철 고려대구로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는 “일부 암의 경우 장기염증으로 인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아스피린이 염증을 막아 만성염증으로 인한 암 발병을 막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 교수는 “당뇨, 고혈압 등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썼을 때 대장암, 위암 등 암 예방 효과도 함께 나타난 것이 대부분이다. 암 예방 차원으로 복용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서 효과가 난다고 확신할 수 는 없다”고 설명했다.<br/><br/>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아스피린의 암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립암센터와 충북대병원의 공동 연구 결과 저용량 아스피린을 장기복용 시 위암 발생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고혈압 또는 제2형 당뇨병 진료 인원 중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한 자를 대상으로 위암 발생 유무를 관찰한 결과, 3년 이상 장기 복용한 경우 위암 발생위험이 60%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br/><br/> 연구를 이끈 최일주 국립암센터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위암에 있어서 염증반응을 매개하는 유전자(COX-2/prostaglandin E2)의 과발현은 암세포의 증식, 암세포 괴사억제, 신생혈관 촉진으로 전이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아스피린은 주로 이 같은 유전자의 경로를 억제해 위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pan>”고 설명했다.<br/><br/> 그러나 아스피린을 ‘만병통치약’으로 바라보기에는 이르다.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아스피린으로 인한 부작용은 미란성 위염, 십이지장염 등의 염증,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등 소화기계통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한 일부 환자에서 과민반응(약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아스피린 천식)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간장애 및 신장장애, 심한 심장기능부전 환자,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 해당 장기와 연관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br/><br/> 최 교수는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저용량의 아스피린(100㎎)을 3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 부작용 발생이 높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주의가 필요해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1.txt

제목: 카이스트 이해신 교수팀, 찔러도 피 안나는 주삿바늘 개발… 지혈 어려운 환자에 유용  
날짜: 2016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06183538883  
본문: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주삿바늘이 개발됐다. 홍합이 바위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원리를 모방한 생체 재료를 활용했다. 혈우병, 당뇨병, 오랜 암 환자,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 등 정상 지혈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br/><br/> 카이스트 화학과 이해신 교수팀은 홍합의 족사(足絲) 구조 성분을 이용해 주삿바늘의 지혈 재료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br/><br/> 연구팀은 홍합에서 분비되는 섬유 형태 물질인 ‘족사’ 구조에 존재하는 ‘카테콜아민’ 성분을 도입한 ‘접착성 물질’(키토산 카테콜)을 주삿바늘에 필름 형태로 코팅했다. 혈액에 필름이 닿으면 순간적으로 젤리 형태 ‘하이드로젤’로 바뀌면서 상처 부위 피를 멈추게 한다.<br/><br/> 이 교수는 “주삿바늘에 코팅되는 지혈 재료는 주사 전 바늘 표면에 단단히 코팅돼야 하고 주사 후에는 혈관 내벽 또는 피부에 붙어 지혈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지혈 재료들은 기계적 물성이 약해 주사 과정에 발생하는 마찰력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br/><br/> 이어 “홍합의 특성을 이용한 주삿바늘은 동물실험에서 모든 혈관 및 근육 주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혈액응고가 잘 안 되는 혈우병 동물에서도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신호에 발표됐다. <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2.txt

제목: 찬바람 불면 독감주사 꼭 맞으세요  
날짜: 201610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05191153932  
본문: 아침저녁으로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이지만,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와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고령자와 영유아 등은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2016∼2017절기(올해 9월∼내년 8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65세 이상 노인과 심장·간·폐·콩팥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임신부와 생후 6∼59개월 소아, 50세 이상 성인 등을 우선접종권장대상자로 정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일부터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중 만 75세 이상(1941년 12월31일 이전 출생) 고령자와 생후 6∼12개월 미만(2015년 10월1일∼2016년 6월30일 출생) 영아를 대상으로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br/><br/> 이에 대해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절기에는 어린아이, 노인, 면역력이 약한 분들의 경우, 병세가 악화되거나 뜻밖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러한 때를 대비해 예방접종을 미리 받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최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가을철 챙겨야할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본다<br/><br/> ◇폐렴구균=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폐렴에 의한 사망이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4718명으로 2011년 대비 약 71% 늘었다. 암이나 다른 질환의 경우 폐렴 등 2차 질환으로의 이환 위험성이 더욱 커 폐렴구균백신 접종으로 예방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은 65세 이후 1회 접종을 하면 된다. 당뇨 등 만성신질환과 심혈관질환, 만성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성인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접종해야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기관지 천식 등 폐질환이 있는 환자는 꼭 접종을 받아야 한다.<br/><br/> ◇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는 감염성이 강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이 걸리게 되면 합병증으로 번지기 쉽고 심하면 사망으로까지 이를 수 있다. 지난해 통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사망자는 2011년 대비 약 235% 증가한 238명이었다. 이 중 50대 이상 사망자수는 전체 95% 이상을 차지했다. 기존에는 50세 이상 성인,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자 등 위험인자가 있는 성인이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모든 성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다르므로 매년 접종이 필요하다.<br/><br/> ◇대상포진=면역력이 떨어지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또 있다. 바로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순간 발병한다. 신체 한쪽 부위의 피부에 심한 통증과 물집을 형성한다. 주로 배나 가슴 부위에 증상이 생기고 얼굴, 목 부위에 나타나기도 한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진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요즘에는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젊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상포진 역시 예방접종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1회 접종으로 60∼7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최천웅 교수는 “백신 외에 환절기에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손을 깨끗이 씻는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환경부 인증 미세먼지용 방진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샤워를 통해 머리카락이나 옷 등 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 음식 등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3.txt

제목: [안기종의 환자 샤우팅] 혈액수가 인하로 헌혈환부적립금 줄이자  
날짜: 201610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05182438059  
본문: 수혈비용이 ‘유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는 헌혈자들을 간혹 본다. 천금 같은 신체 일부인 혈액을 ‘무상’으로 기부했는데 어떻게 환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해 수익을 얻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생수 회사가 땅속에서 원료인 지하수를 공짜로 끌어 올려 만든 생수를 검사, 포장, 운송 등의 과정을 거쳐 편의점에서 최종 판매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수혈 시 혈액이 ‘유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쉽게 이해된다.<br/><br/> 헌혈자가 수혈의 원료인 혈액을 무상으로 기부하지만 헌혈의집이나 헌혈카페에서 채혈하고, 이것을 검사센터에 운반해 검사한 후 검사를 통과한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병원에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에 비용이 투입되고 이것이 수혈비용으로 책정된다. 헌혈자들이 기부한 혈액 관련 비용이 이 수혈비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나 한마음혈액원이 헌혈자에게 무상으로 혈액을 받아 수익을 챙긴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br/><br/>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환자가 병원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수혈을 받았을 때 수혈비용 전부를 내는 것은 아니다. 입원 시 일반 환자는 수혈비용의 20%를 내지만 암환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로 인해 5%만 부담한다.<br/><br/> 예를 들면, 병원에서 환자가 많이 수혈 받는 농축적혈구의 혈액수가는 현재 400㎖당 4만8260원이다. 그러나 입원 환자가 실제 지불하는 수혈비용은 이 금액의 20%인 9652원이고, 암환자는 이보다 낮아 5%인 2413원이다. 이 정도 비용이면 환자가 헌혈증서를 구하기 위해 친척, 지인 등에게 부탁하러 다니는 수고를 하기 보다는 수혈비용을 그냥 지불하는 편이 훨씬 편리하고 비용 효과적이다.<br/><br/> 이렇다 보니 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해 수혈비용을 면제받는 환자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2004년 28.2%, 2005년 20.3%였던 헌혈증서 환부율이 2011년 14.7%, 2012년 13.1%, 2013년 12.0%, 2014년 10.2%로 해마다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10.4%였다.<br/><br/> 이와 같이 헌혈증서 환부율이 줄어들면 헌혈 1회 시마다 수혈비용 등의 보상을 위해 2500원씩을 헌혈환부예치금 명목의 혈액수가로 적립해 마련되는 헌혈환부적립금은 반비례해 늘어난다. 매년 20∼30억원이 수혈비용 등으로 헌혈환부적립금에서 환부되고 있지만 매년 70∼80억원이 적립되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약 50억원의 헌혈환부적립금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적립된 헌혈환부적립금은 약 325억원에 이른다. 은행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헌혈환부적립금은 당연히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된다. <br/><br/> 그렇다면 왜 연간 약 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헌혈환부적립금으로 불필요하게 적립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정부가 수혈비용 보상 관련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혈액수가 인상을 2005년 2월과 2007년 3월에 두 번이나 했고,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환자의 수혈비용 부담 감소와 헌혈증서 환부율 또한 감소했기 때문이다.<br/><br/>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국가 혈액관리사업 최고 심의기구인 ‘혈액관리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시민사회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불필요한 과다 헌혈환부적립금 문제 해소를 위해 2500원인 헌혈환부예치금 명목의 혈액수가를 인하하라고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혈환부적립금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다 보니 정부나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한마음혈액원은 수혈비용 보상이 핵심인 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를 혈액관리법 제15조 제3항과 혈액관리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혈액관리와 관련한 연구, 혈액원 전산관리업무의 전산화 지원 등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움직임이 있다.<br/><br/> 매년 약 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환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은행 창고에 쌓여만 간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인 생명윤리정책과에서는 헌혈환부적립금의 재원이 되고 있는 헌혈환부예치금 명목의 혈액수가를 신속히 인하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정부나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한마음혈액원이 수혈비용 보상 이외 다른 용도로 함부로 헌혈환부적립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해야 한다.<br/><br/>안기종 한국환자단체 연합회 대표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4.txt

제목: [조민규 기자의 ‘건강 백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은 2000만원  
날짜: 201610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05182352397  
본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정부가 암환자의 치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02년 만 15세 이하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만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를 비롯해 성인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를 지원하고 있다.<br/><br/> 현재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크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된다. 성인 암환자의 경우 다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로 나뉘어 지원된다.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당연 선정)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이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해당된다. 악성 신생물, 상피내의 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에 대해 지원되며, 만 18세 미만(1998년 1월1일 출생자∼)이 대상자다.<br/><br/> 2015년도 기 지원대상자 중 2016년도에 만 18세(1997년 1월1일∼1997년 12월31일 출생자)가 도래한 계속 치료 중인 자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등이다. 백혈병(C91∼C95)은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기타 암종은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된다. 당해연도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br/><br/> ‘국가암검진수검자’ 지원의 경우 △2016년도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신규 암환자(단, 국가암검진 1차 검사 수검 필수) △2015년에 국가암검진을 받고 2016년에 진단을 받은 대상자 중 2016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2014년 또는 2015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을 받았던 지원대상자 중 2016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가 대상이다. 2016년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8만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만8000원 이하이다.<br/><br/> 지원은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하는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5대 암종이다.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5.txt

제목: 고위험 음주, 중독 우려 큰 청소년 대책 시급  
날짜: 201610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05182347964  
본문: 최근 술에 취한 여성이 길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은 운전사를 폭행하는 등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음주는 알코올성 행동장애와 알코올성 간질환을 유발하고, 간암·식도암·전립선암·위암 등 다양한 암을 비롯해 심뇌혈관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음주로 질병비용과 사회적 비용에 투입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br/><br/>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위험(고위험) 음주로 인한 질병 비용은 4조6394억원, 중독사망비용 3657억원, 자살사망비용 1조1691억원 등 약 6조17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번 술자리에서 남성 소주 7잔, 여성 소주 5잔을 주 2회 이상 하는 경우를 ‘위험’ 음주로 분류한다. 또한 이를 주 4회 이상 하는 경우 ‘고위험’ 음주로 분류된다.<br/><br/>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료 받은 12만7000명 중 남성은 11만명, 여성은 1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은 50대 51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442명), 40대(324명), 30대(167명)가 뒤를 이었다.<br/><br/>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 국민들의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6개월 동안 음주 경험자 중 하루에 17도 소주 기준으로 남성은 8.8잔 이상, 여성은 5.9잔 이상 섭취하는 고위험음주 경험한 자 비율이 2012년 66.2%에서 2013년 82.5%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 상반기에 58.3%로 감소했다. 특히 음주 경험자 중 45.7%가 폭탄주를 마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3년도 55.8%에 비해 약 10%가 감소한 수치다. 반면 20대의 고위험음주와 폭탄주 경험 비율은 각각 65.2%, 50.1%로 다른 연령대보다 여전히 높았다.<br/><br/> 과일즙 등이 첨가된 과일소주(13∼14도, 식품유형: 리큐르) 선호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음주량은 2013년 2.2잔에서 2016년 6.0잔으로 증가했다. 또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위험 및 고위험 음주율은 15.6%(남성 22.5%, 여성 7.2%)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에서 위험·고위험 음주로 인한 피해가 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br/><br/> 이처럼 음주로 인한 폐해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음주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주류세 인상을 고민했지만 서민증세라는 부담에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주류세 인상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주류세를 올리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주의 경우 증세를 해도 소비량이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민증세 역풍에 대한 부담을 내비췄다. 다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등의 임신부 대상 음주 위험성을 담은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고시를 개정하며 단계적으로 음주정책을 펼치고 있다.<br/><br/>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독성 우려가 큰 청소년 위험 음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청소년의 음주율은 16.7%에 달했다. 술을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 5명 중 1명이 음주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은 음주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br/><br/>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6.txt

제목: 세종시민 건강 책임진다… 세종충남대병원 연내 착공  
날짜: 201610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04210419833  
본문: 세종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세종충남대병원이 올해 안으로 착공된다.<br/><br/> 충남대병원은 4일 대지면적 3만5261㎡에 연면적 7만3845㎡, 지하 4층·지상 13층 규모로 세종 충남대병원을 도담동(1-4생활권)에 500병상으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이다.<br/><br/> 세종충남대병원은 세종시 출범 후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공백기를 맞고 있는 세종시 종합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충북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기능과 연계한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거점이자 연구중심 병원의 역할도 담당한다. 카이스트(KAIST), 충남대와 연계해 중개·임상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신기술개발과 부가가치 창출도 모색한다.<br/><br/> 충남대병원은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명품 의료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했다. 인문학·자연과학·의학 간 융합연구와 최고 수준의 안전 진료, 미래의료를 책임질 의료인 양성에 힘쓸 방침이다.<br/><br/> 이를 위해 암센터와 심뇌혈관센터, 척추센터, 소아청소년센터, 여성의학센터, 국제진료센터, 응급의료센터, 의료혁신연구센터, 건강증진센터와 같은 9개의 특성화센터와 내·외과계 진료부, 특수진료부 등 3개 진료부를 포함한 12개 외래 진료 부문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대전 중구 문화동의 충남대학교병원 본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도 극대화한다. 소화기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그 즉시 수술에서부터 항암치료까지 통합 스케줄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의료서비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br/><br/> 김봉옥 충남대병원장은 “<span class='quot0'>세종충남대병원이 미래의료를 실현하는 의료혁신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동시에 조기 개원을 위한 건축과 운영방안에 대한 플랜을 충실히 준비하겠다</span>”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7.txt

제목: [한마당-염성덕] 생애 마지막 여행  
날짜: 201610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04173233594  
본문: 버킷 리스트(bucket list)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적은 목록을 말한다. 이 말은 같은 이름의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다. 웰빙(well-being)과 함께 웰다잉(well-dying)도 중요하다는 세태를 반영해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br/><br/> 영화 ‘노킹 온 헤븐스 도어’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두 젊은이가 바다를 보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들이 향하는 바다는 평온함과 광활함의 상징이다. 천국의 은유적 표현인지 모른다.<br/><br/> 생애 마지막 여행을 그린 영화로는 단연 ‘버킷 리스트’를 꼽는다. 죽음을 앞둔 백인과 흑인이 버킷 리스트를 실천하면서 임종 순간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장엄한 광경 보기’ ‘문신하기’ ‘스카이다이빙’ 등 두 남자가 펼친 여정의 하이라이트는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가 아닐까. 백인이 헤어진 딸과 재회하면서 처음 본 외손녀의 볼에 입을 맞추고 해당 항목을 지우는 장면 말이다.<br/><br/> 말기 환자의 특별한 여행이 영화 이야기만은 아니다. 구순에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고 치료 대신 미 대륙 횡단에 나선 노마 바우어슈미트 할머니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별세했다. 여행을 떠난 지 13개월 만이다.<br/><br/> 노마 할머니는 이별의 아픔과 병마의 시련에 맞닥뜨렸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지난해 7월 해로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노마 할머니는 병실에 머물지 않고 아들 내외, 반려견과 함께 캠핑카를 타고 여행길에 올랐다.<br/><br/> 옐로스톤 방문, 열기구 탑승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span class='quot0'>사람들이 내 여행을 보고 삶의 마무리 방식에 대해 생각하길 바란다.</span>” “<span class='quot0'>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바로 여기’이고, 생애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span>” 평범하지만 큰 울림을 주는 말이다. 사연이 알려지자 수많은 팔로어가 생겼다.<br/><br/> ‘웰다잉’을 선택한 노마 할머니의 용기와 아들 내외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에 경의를 표한다.<br/><br/>염성덕 논설위원, 그래픽=이영은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8.txt

제목: 日, 3년 연속 노벨과학상… 생리의학상 오스미 교수  
날짜: 2016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03212741710  
본문: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세포 내 청소부’ 역할을 하는 ‘오토파지(Autophagy·자가포식)’ 현상을 발견해 암이나 당뇨병, 치매, 파킨슨병 등 난치병 치료 연구에 기여한 일본 과학자에게 돌아갔다.<br/><br/>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 2014년부터 3년 연속 노벨 과학상을 거머쥠으로써 기초과학 강국의 면모를 입증했다.<br/><br/> 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노벨위원회는 3일 일본 도쿄공업대 오스미 요시노리(71·사진) 명예교수를 2016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span class='quot0'>오스미 교수의 발견은 세포가 어떻게 세포 내 물질을 청소하고 재활용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냈다</span>”고 평가했다.<br/><br/> 오토파지는 세포가 스스로 생존을 위해 불필요한 단백질과 손상된 소기관을 분해하는 메커니즘이다. 세포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불필요한 구성 요소 혹은 노화되거나 변이된 소기관을 파괴하는 식이다. 감염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체내 항상성을 유지한다. 오토파지는 ‘자기(self)’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오토(auto)’와 ‘먹는다’는 뜻의 ‘파제인(phagein)’의 합성어다.<br/><br/>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의약연구단 류훈 박사는 “<span class='quot1'>세포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단백질 등이 이상을 일으키기 전에 청소부가 덤프트럭에 쓰레기를 실어 버리듯이, 뭐든지 분해하는 세포 내 기관인 ‘리소좀’에 투척하는 기능</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이런 활동을 통해 새로운 단백질과 에너지를 만들어낸다</span>”고 설명했다.<br/><br/> 오토파지의 개념은 1960년대 보고됐지만 오스미 교수는 1988년 현미경 관찰로 세포 내(액포)에서 처음 오토파지 현상을 발견했다. 이어 92년 효모 실험을 통해 오토파지의 작동 메커니즘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이듬해 관련 유전자 14개를 찾아냈다.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백찬기 교수는 “<span class='quot2'>오토파지는 생명체의 유지 및 발달에 있어 필수 과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이게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됨으로써 암, 2형 당뇨병, 알츠하이머 치매 등 퇴행성뇌질환, 각종 노화질환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오토파지 현상과 여러 질병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으며 일부 질병의 경우 10년 안에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오스미 교수는 수상 소식을 접한 후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3'>과학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해 주고 싶다</span>”고 했다.<br/><br/> 일본은 지난해 오무라 사토시 일본 기타사토대 특별영예교수에 이어 2년 연속 노벨 생리의학상을 배출했다. 또 지금까지 모두 22명(미국 국적자 포함)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품에 안았다. 오스미 교수에게는 800만 크로네(약 11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9.txt

제목: 암 투병중 美 횡단… 91세 할머니 ‘인생 여행’ 마쳐  
날짜: 2016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03211555338  
본문: 만 90세 나이로 항암치료 대신 자동차로 미국 대륙횡단 여행에 나섰던 노마 진 바우어슈미트 할머니가 여행에 나선 지 13개월 만에 길에서 91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미국 CBS방송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span class='quot0'>노마 할머니가 ‘인생에 있어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소중한 교훈을 세상에 남겨놓고 우리 곁을 떠났다</span>”고 보도했다.<br/><br/> 노마 할머니 가족은 1일(현지시간) 할머니의 여행기를 담아온 페이스북인 ‘드라이빙 미스 노마(Driving Miss Norma)’에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공개했다. 페이스북에서는 13세기 한 시인의 말인 “인생이란 붙잡아두는 것과 놓아주는 것 사이의 균형잡기(Life is a balance between holding on and letting go)”라는 글과 함께 “우리 가족에게 오늘은 놓아주는 날이 됐다”면서 사망 소식을 전했다.<br/><br/> 노마 할머니는 지난해 큰 시련을 당했다. 자신은 자궁암 판정을 받았고, 그녀의 남편은 숨을 거뒀다. 이후 할머니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거부한 뒤 여행으로 생을 마치기로 결심했다. 혼자 다니기 힘든 나이여서 아들 내외와 애완견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br/><br/> 셋은 지난해 8월 커다란 자동차에 침대 등을 마련해놓고 길을 떠났다. 이들은 미 동부 미시간주 할머니 집을 떠나 모두 32개주 75개 도시를 여행했다. 할머니의 마지막 여행지는 서부 워싱턴주에 있는 산후안섬이었다. 할머니는 길을 떠나면서 “길에서 죽고 싶다”고 말했는데 결국 그 다짐을 이뤄냈다.<br/><br/> 외신들은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나이 90세에 이런 행복한 모험과 재미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라면서 할머니의 여행 결심에 찬사를 보냈다.<br/><br/>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0.txt

제목: [방폐장 38년 논란 결론내자 ] 방사능과 원전, 오해와 진실  
날짜: 2016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03183523478  
본문: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원전 가동의 첫 번째 원칙은 안전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근거 없이 확산되는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공포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 방사능 물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서울대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의 의학적 조언과 방사선안전 전문가 포럼이 발간한 책 ‘방사능 무섭니?’를 참고해 문답으로 풀어봤다.<br/><br/> -방사선은 아주 미량만 노출돼도 위험한 것 아닌가.<br/><br/> “방사선의 영향은 노출된 양과 시간이 결정적이다. 과거 역학 연구 결과 100m㏜(밀리시버트) 이상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들의 암 증가 확률은 0.5%로 나타났다. 다만 단시간 전신에 4000m㏜ 수준으로 피폭되면 2∼4주 뒤 골수기능 저하로 감염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br/><br/> -원전 주변 지역의 방사선 노출 정도는 얼마나 될까.<br/><br/> “원전 시설이 정상 가동될 때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방사선량은 연간 0.1∼0.25m㏜다. 경주 방폐장 주민들의 경우 노출 가능 방사선량이 0.01m㏜ 정도다. 원전 관계자·의료인 등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연간 방사선량 한도는 20m㏜다. 지역 주민들은 거의 영향이 없는 셈이다.”<br/><br/> -일반인이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나.<br/><br/> “자연적으로 땅(암석)에서 발산되는 지각방사선 등으로 한국 국민은 연평균 3∼4m㏜의 자연방사선에 노출된다. 또 한국인 평균 X선·CT 촬영 등에 의해 1.4m㏜ 방사선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다. 버섯 등 일부 식품은 자연적으로 방사능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인공 방사능 물질인 세슘도 상당수 식품에서 낮은 농도로 검출돼 왔다. 세슘은 반감기가 길어 과거 전 세계적인 핵실험과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다.”<br/><br/> -원전 사고 시 방사선 피폭 위험은 얼마나 커지나.<br/><br/> “예측은 어렵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인근에서 확인된 최대 방사선량은 시간당 11m㏜였다. 암 검진용인 PET-CT 촬영 시 1회 피폭량이 13∼18m㏜ 수준인 것에 비교해볼 수 있다. 다만 같은 선량이어도 얼마나 오래, 반복적으로 피폭되느냐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다.”<br/><br/> -방사성 물질을 먹게 되면 몸 안에 계속 축적되지 않나.<br/><br/> “반감기가 30년으로 가장 긴 세슘이 물고기 등 식품을 통해 인체에 축적될 수 있다. 그런데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계속 축적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인 반감기가 있지만 배설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체내 세슘은 통상 1년에 걸쳐 배설된다. 오염지역에서 매일 노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내 방사성 물질은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br/><br/> -방사능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긴가.<br/><br/> “방사능이 위험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어떤 이유로든 우리 주변에서 피할 수 없는 만큼 무섭다고 덮어놓고 배척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의료용 방사선처럼 어느 정도까지 관리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br/><br/>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1.txt

제목: 한미약품 또 쾌거… 1조원대 신약 수출  
날짜: 201609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9213709435  
본문: 한미약품이 다국적제약사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표적 항암신약’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8조원대 규모의 기술수출을 기록한 데 이어 다시 기술수출 ‘대박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br/><br/>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RAF 표적 항암신약 ‘HM95573’ 판권을 9억1000만 달러(약 1조원)에 넘기는 기술수출 계약을 제넨텍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금 8000만 달러(879억원) 외에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등에 성공할 경우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로 8억3000만 달러(9120억원)를 받게 된다.<br/><br/> 제넨텍은 이번 계약으로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관련 기술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한미약품은 RAF 표적치료제 개발 완료에 이어 상업화까지 성공할 경우 판매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로열티도 따로 받는다. 이번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br/><br/> RAF는 세포 내 신호전달을 매개하는 미토겐 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MAP kinase·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중 하나다. 3개의 아형(A-RAF, B-RAF, C-RAF)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B-RAF, C-RAF가 암 발생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0'>항암제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보유한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span>”며 “<span class='quot0'>제넨텍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HM95573이 암으로 고통 받는 전 세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2.txt

제목: 식약처 “미허가 물질 함유일 뿐 인체 무해” 진화에도 소비자 “매일 쓰는 치약도…” 공포 확산  
날짜: 201609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8001018605  
본문: 가습기 살균제 파문이 치약으로 옮겨붙었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독물질이 아모레퍼시픽 치약에 함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었던 ‘파라벤 치약’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되지 않은 물질이 함유돼 회수 조치한 것으로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가 다른 제조사에도 공급돼 추가로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br/><br/>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메디안후레쉬마린·메디안바이탈에너지·본초연구잇몸·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그린티스트·메디안바이탈액션·메디안바이탈클린·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뉴송염오복잇몸·메디안잇몸치약)에 함유된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br/><br/>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한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환경부는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유해성을 인정했다. 2012년 9월 환경부 고시를 통해 CMIT·MIT를 유독물질로 지정·고시하기도 했다.<br/><br/> 반면 이 물질은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 보존제로 쓰이고 있다. 안영진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장은 “<span class='quot0'>치약이 화장품으로 분류된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치약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CMIT·MIT는 의약외품에 허용된 보존제 3개에 포함되지 않아 회수 조치를 한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그러나 치약 유해성분 논란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 김재원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내에 허가된 치약의 3분의 2에 유해 논란이 있는 파라벤,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김 의원은 “<span class='quot1'>해당 성분은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거나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span>”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적정기준을 두고 관리하고 있어 무해하다고 해명했지만 2년 가까이 지난 올해 6월 개정 고시안을 통해 트리클로산의 치약 사용을 금지하고, 파라벤은 사용 기준을 강화했다.<br/><br/> 치약에 함유된 CMIT·MIT의 유해성 우려도 크다. 임종한 인하대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이 성분이 소화기를 통해 흡수되면 혈액순환을 통해 폐를 손상한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꽤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치약에 함유된 CMIT·MIT도 결국 폐 손상과 연결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유해물질 함유 사실이 확인된 과정 역시 문제가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모레퍼시픽과 식약처는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모레퍼시픽에 CMIT·MIT가 함유된 원료를 공급한 미원상사는 해당 성분이 유독물질인지도 몰랐다. 아모레퍼시픽 외에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서울화장품 등 30개 업체도 미원상사로부터 해당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CMIT·MIT가 함유된 원료가 어떤 제품 생산에 사용됐는지 확인 중이다. 이 의원은 27일 국감에서 “<span class='quot3'>국내에서 화학물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정보 소통이 안 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이날 심상배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28일부터 구매일자, 사용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해당 제품을 교환·환불해주기로 했다.<br/><br/>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3.txt

제목: 한국, 첫 노벨 과학상 누가 받을까  
날짜: 201609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8000610471  
본문: 우리나라 첫 노벨 과학상에 근접한 한국인은 누구일까. 국내 권위 있는 연구자들은 서울대 석좌교수이면서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김빛내리(46·여) 교수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았다.<br/><br/>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27일∼이달 12일 기초연구본부 전·현직 전문위원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벨상 생리·의학상 분야에 김 교수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27일 밝혔다.<br/><br/> 김 교수는 ‘마이크로 RNA’ 연구의 최고 권위자다. 마이크로 RNA는 동식물의 세포 속에서 유전자가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활동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당뇨병, 암 같은 질병이 발생한다.<br/><br/> 김 교수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60편의 관련 논문을 썼고, 30%는 네이처, 사이언스, 셀 등 이른바 ‘3대 과학 학술지’에 게재됐다. 현재 셀과 사이언스의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br/><br/> 화학상엔 유룡(56) 카이스트(KAIST) 화학과 교수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 교수는 석유화학 공정에 쓰이는 촉매의 일종인 ‘제올라이트(나노 다공성 물질)’ 연구 분야 개척자다. 2011년 유네스코와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이 지난 10년간의 연구성과 순으로 집계한 ‘세계 화학자 100인’ 중 39위에 올랐다. 또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예측·발표하는 톰슨로이터가 2014년 화학상 후보로 지목하기도 했다.<br/><br/> 이밖에 하버드대 김필립·포스텍 임지순 교수(이상 물리학상), 미국 잭슨랩 유전체의학연구소장인 찰스 리(한국명 이장철) 박사·서울대 김진수 교수(이상 생리의학상), 서울대 현택환·포스텍 김기문 교수(이상 화학상) 등도 추천을 받았다. 김필립 교수는 꿈의 신소재인 ‘그래핀’ 분야의 세계적 연구자이며 찰스 리 박사는 개인별 맞춤형 암 치료연구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br/><br/> 한편 연구자들은 앞으로 노벨 과학상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분야로 생리의학(24%), 화학(20%), 물리학(15%) 순으로 꼽았다. 다만 한국인이 최초 노벨 과학상을 수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묻은 질문에 ‘6∼10년’이라고 답한 이들이 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15년’(23%) ‘16∼20년’(22%) 등으로 조사돼 응답자의 78%가 한국이 20년 안에 노벨상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br/><br/> 또 노벨상을 받으려면 ‘한 가지 연구 주제에 대한 장기적 지원’(48%)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연구주제 지원’(17%)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 유지’(14%) 등을 꼽았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4.txt

제목: 폐렴↑… 고령화가 바꾼 사망 원인 순위  
날짜: 201609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8000406750  
본문: 한국의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자살(고의적 자해)을 제치고 4위에 올랐다. 전체 인구의 사망 원인 1위는 이번에도 암이었지만, 10∼30대 젊은층에서는 자살(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다. <br/><br/>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27만5895명으로 통계 작성(198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4년보다 8203명(3.1%) 늘어난 것이다. 80세 이상 고령 인구 규모 자체가 늘어난 데다 지난해 3월의 이상 한파와 황사 등으로 3∼4월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br/><br/> 특히 지난해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5.2명으로 2014년보다 22.0%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대 사망 원인 중 폐렴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05년 10위에서 가파르게 높아진 것이다. <br/><br/> 통계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고령자의 경우 면역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에서 폐렴균이 들어오는데 그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보니 사망률이 높아진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노인 인구 비율 증가로 인한 폐렴 사망률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 폐렴 순위가 한 단계 높아지면서 2014년 4위였던 자살은 5위로 한 단계 낮아졌다. 자살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1만3513명으로 2014년보다 323명 줄었다. <br/><br/> 그러나 젊은층에서 자살은 독보적인 사망 원인이었다. 특히 20대의 경우 사망자의 41.3%, 30대는 35.5%가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에서도 암에 이어 자살이 가장 많은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에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고 심장질환 사망자가 뒤를 이었다.<br/><br/> 암 사망률은 세부적으로 보면 폐암(10만명당 34.1명), 간암(22.2명), 위암(16.7명), 대장암(16.4명), 췌장암(10.7명) 순으로 나타났다. 30대는 위암, 40∼50대는 간암, 60세 이상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br/><br/>글=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5.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81)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폐암센터 악성 중피종 클리닉] 최강 협진팀 가동  
날짜: 201609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6172950028  
본문: 난치성 희귀 암인 ‘악성 중피종’ 발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7∼8년 전만 해도 연평균 5∼30명 수준이던 악성 중피종 환자가 최근 들어 연평균 100∼150명가량 나타난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내리막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3000명 내외의 환자가 생기는 미국 사례를 �i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추측이 나오고 있다.<br/><br/> 악성 중피종은 전암기(前癌期)가 최소 30년에 이르는 석면 노출과 관련이 깊다. 미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해 정점을 지난 상태다. 전암기란 석면 등 발암 위험인자에 노출된 후 암이 생기기 시작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br/><br/> 악성 중피종은 흉막과 늑막에서 약 80%, 복막에서 약 20%가 발생하는 암이다. 장기간 활석(돌가루), 석면 흡입에 따른 폐기능 이상과 가장 관련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채석장이나 석공예장, 자동차 광택 및 도색업소 종사자에게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통 돌가루에 폐·호흡기가 노출되기 시작한 뒤 30∼40년 정도 지나면 암이 나타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우리나라가 석면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다. 1970년대 초반에 규제가 시작된 미국보다 30여년이 늦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직업상 석면에 노출됐던 사람들 중에서 전암기가 지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악성 중피종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가 됐다는 얘기다.<br/><br/> 더욱이 우리나라는 2009년 무렵 발생한 ‘탈크 파동’에서 보듯 그동안 유아용품이나 경구용 의약품 등의 원료로 ‘석면 함유 탈크’를 광범위하게 무차별 사용해왔다. 악성 중피종이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br/><br/> 악성 중피종은 현재 어떤 치료를 해도 1년 생존율이 50% 미만에 그친다. 1년 생존율조차 낮은 이유는 대부분 발병초기 위험신호를 오인해 엉뚱한 치료를 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다.<br/><br/> 악성 중피종의 초기 증상은 흉통이다. 다른 병으로 오인, 진단이 늦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흉통은 심장질환의 주증상이지만, 단순 늑막염이나 결핵성 늑막염, 나아가 악성 중피종의 주증상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악성 중피종 환자들이 정확한 병명을 알기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다.<br/><br/>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문석환 교수는 26일 “<span class='quot0'>엑스레이나 흉부CT 사진을 찍어 봐도 흉막(늑막)에 단순 염증 같은 게 보이거나 약간의 흉수가 고인 것과 같이 보여 결핵성 늑막염 등으로 의심하기 쉽지, 암으로 의심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게 사실</span>”이라고 말했다.<br/><br/> 오진 위험은 복강 내 복막에 암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의사라도 난소, 간, 췌장 등 주변 장기에 뚜렷한 이상 증상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복막에 염증성 조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암세포가 둥지를 틀었으리라고 의심하기란 힘든 노릇이다.<br/><br/> 악성 중피종은 흉강경 또는 복강경을 이용, 흉막 또는 복막 내 염증조직이나 흉수(복수) 속에 암세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최종 진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늑막염이나 복막염으로 보이기 쉬운 염증 조직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가 내시경 수술을 해보자고 환자에게 권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환자 역시 이에 선뜻 응하기가 어렵긴 마찬가지다.<br/><br/> 불행히도 악성 중피종은 ‘빅5 병원’에서도 아직까지 연간 한두 명밖에 겪지 못할 정도로 드물게 발생한다. 수술도 최소 6∼7시간이 소요될 만큼 치료가 힘든 암이다. 결국 진단도, 치료도 쉽지 않으니 환자 2명 중 1명은 1년도 못 버티고 숨지기 일쑤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br/><br/> 이런 상황에서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폐암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악성 중피종 환자 치료 경험이 가장 많은 문석환 교수를 중심으로 악성 중피종 클리닉을 운영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7년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악성 중피종 환자 수는 79명에 이른다. 연평균 5.5명꼴로 국내 최다 실적이다. 앞으로 전암기가 지난 신규 악성 중피종 환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서울성모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br/><br/> 악성 중피종 치료의 핵심은 발병 초기에 최대한 빨리 환자를 발견, 정확한 진단과 병기 설정을 끝내고 정교하게 수술하는 것이다. 그래야 수술 전후 최적의 항암화학요법 및 첨단 방사선 치료를 잘 이뤄낼 수 있다.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후유증과 합병증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다.<br/><br/> 이를 위해 문석환 교수팀은 임상경험이 풍부한 중진급 교수들로 다학제 진료팀을 꾸려놓고 있다. 병원병리과 이교영, 영상의학과 한대희, 핵의학과 유이령, 종양내과 홍숙희, 호흡기내과 김승준, 직업환경의학과 구정완, 흉부외과 문석환(팀장)·김경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연실 교수팀과 악성 중피종 전문간호팀 정수민 코디네이터가 그들이다.<br/><br/> 악성 중피종은 폐암과 같이 이상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암세포가 상당히 퍼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격적 치료계획을 짜기에 앞서 진단 과정에서 정교한 흉강경(복강경) 수술을 통해 충분히 종양조직을 확보해야 한다. 정밀 면역화학 조직검사와 흉부CT, MRI, PET-CT 등 영상의학검사를 통한 조직적 진단 및 병기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br/><br/> 수술을 먼저 할 것인지, 혹은 수술 전에 항암요법과 방사선치료를 할 것인지는 병기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경우든 환자별로 수술 전후 암의 재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개인 맞춤 치료법을 찾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br/><br/> 한 예로 수술 치료도 환자의 전신 상태와 병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최적의 수술법과 수술 후 국소 재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사용된다. 특히 발병 초기에 일찍 발견한 조기 중피종은 완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 시 암 조직 주위를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도려낸다. 흉막, 심낭, 횡격막과 한쪽 폐 전체를 적출하는 고난이도 수술이다. 문 교수는 “<span class='quot1'>무엇보다도 수술로 인해 암세포가 국소적으로 주변에 파종되지 않게 수술 중 광역동 치료, 온열 치료 등을 통해 잡도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6.txt

제목: [기획] 국내서도 ‘AI 진료’ 의사 대체할까  
날짜: 201609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6000606560  
본문: “‘왓슨’은 자율주행차보다는 내비게이션에 가깝다. 운전할 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꼭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 모든 책임은 의사가 진다.”<br/><br/> 지난 8일 암 환자 치료를 돕는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 서비스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언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기반정밀의료추진단장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잘못된 진료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탓이다.<br/><br/> 25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의사가 암 환자에게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기계가 모든 의학 정보를 소화하도록 해 어떤 약을 처방할지,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도 영국에서 암 치료를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br/><br/> 국내에서도 IBM이 가천대 길병원, SK C&C와 각각 손잡고 인공지능 치료를 선도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로 명명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컴퓨터 서비스를 활용해 다음 달부터 암 진료를 시작한다. SK C&C는 고려대 ‘KU-MAGIC’ 연구원과 인공지능 Aibril(에이브릴) 감염병 서비스 개발 협약(MOU)을 체결했다. 에이브릴은 SK C&C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칭하는 플랫폼이다.<br/><br/> 가천대 길병원은 암 치료를, SK C&C는 감염병 진단을 목적으로 한다. KU-MAGIC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감염병은 동일 증상이라도 원인과 병명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법을 잘못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span>”며 “<span class='quot0'>의료진이 인공지능을 적절히 활용해 오진을 줄이고 낮은 발생 확률의 감염병도 감지할 수 있어야만 감염병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span>” 고 말했다.<br/><br/> 하지만 인공지능의 판단 오류 탓에 오히려 진료를 잘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간을 기계가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막연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인공지능이 ‘대체’가 아닌 ‘집단 지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br/><br/> 이언 단장은 “왓슨도 하나의 의사처럼 의견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왓슨은 의견을 제시할 뿐이고, 여러 의사의 의견과 더해서 최종 결정은 진료를 하는 의사가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는 판단력이 있고 실용적 사고가 가능하다.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딜레마도 해결할 수 있다”며 “대화와 토론을 통한 집단 지성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왓슨이 개인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판단은 의사의 몫이다”라고 말했다.<br/><br/>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7.txt

제목: 교보생명 보장 늘리고 보험료 낮춘 ‘프리미어CI보험’  
날짜: 2016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5193845912  
본문: 교보생명이 최근 출시한 ‘교보프리미어CI보험’은 보장을 늘리면서도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를 대폭 낮춘 신개념 CI보험이다. 사망 보장은 물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한 질병과 중증치매 등 장기 간병 상태를 평생 보장한다.<br/><br/> 이 상품은 기존 상품보다 주계약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CI와 연관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도 추가보장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중증세균성수막염,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등 4가지 질환을 새롭게 CI에 추가했다. 또 그 동안 보장에서 제외됐던 갑상선암 중 예후가 안 좋은 일부암에 대해 중대한 갑상선암으로 분류해 보장범위를 넓혔다.<br/><br/> 소액보장도 확대했다. 뇌출혈, 뇌경색증처럼 CI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질환이나 CI와 연관성이 높은 중증질환 9종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CI발생시 선지급률도 80%(기본형)와 100%(보장강화형)로 확대해 넉넉한 치료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장강화형의 경우 100% 선지급 후 사망시에는 가입금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br/><br/> 보험료는 오히려 내렸다. 해지환급금을 미리 확정된 예정이율로 보증해주지 않는 대신 공시이율로 적립해 보험료를 10∼20% 가량 낮췄다. 해지환급금이 기존 방식보다 다소 적어질 수 있지만 생명보험 본연의 기능인 보장혜택에 초점을 맞춰 저렴한 보험료로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br/><br/>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주계약 1억원 이상 가입 시 금액에 따라 2.5%에서 최대 3.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주계약 기본형 1억 가입시 30세 남자 20년납 기준 월보험료는 23만6000원이다. 김진환 기자 goldenbat@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8.txt

제목: NH농협생명 3가지 질문 ‘OK’면 가입되는 보장보험 출시  
날짜: 2016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5193844574  
본문: NH농협생명이 3가지 질문에만 ‘OK’라면 간편가입이 가능한 ‘간편가입NH보장보험(갱신형·무배당)’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이 보험은 가입절차가 간편하고 상품 이해가 쉬운 상품이다.<br/><br/> 가입에 필요한 질문은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에 대한 필요소견이 없는지, 2년 이내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지, 5년 이내 암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지 3가지다. 이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나이가 많거나, 고혈압·당뇨 등 약을 복용하고 병원에 통원 중이라도 가능하다.<br/><br/> 긴 보장기간 또한 매력적이다. 40∼77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질병사망특약은 87세)까지 보장한다. 특히 업계 유사상품들보다 가입가능나이를 2세 더 늘려, 보다 많은 실버층의 건강보장이 가능해졌다.<br/><br/> 이 상품은 다양한 주계약과 특약으로 폭넓은 보장을 자랑한다. 주계약으로 재해사망을 보장하며 1종(만기보험금형)에 가입할 경우 10년 만기 생존 시 가입금액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선택특약을 통해 질병사망, 3대질병 진단, 수술, 입원 등 다양한 보장설계가 가능하다.<br/><br/> 주계약 1종(만기보험금형)에 특약 8종 모두 가입 기준으로 40세 남성 3만1600원, 여성 2만8700원이다. 60세 기준으로는 남성 8만6000원, 여성 5만4300원이다(가입액 1000만원, 10년 만기 기준).<br/><br/> 김기주 NH농협생명 상품영업총괄부사장은 “<span class='quot0'>더 많은 고객들이 더 간편하게 보험의 본래 목적인 ‘보장’ 기능을 누릴 수 있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보험가입이 어려웠던 분들과 농촌지역 어르신들께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span>”고 전했다. 김진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9.txt

제목: 현대해상 암 회복까지 보장하는 ‘암스트롱보험’ 눈길  
날짜: 2016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5193234177  
본문: 현대해상이 암 예방, 치료, 관리를 위한 메디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4기암을 집중 보장하는 암에 강한 암보험 ‘암스트롱암보험’을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br/><br/> 암스트롱암보험은 암 특화 패키지 보장인 ‘메디케어서비스’를 제공해 암에 대한 대비를 너머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회복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고객에게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병원 진료예약 대행, 전담간호사 방문, 24시간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해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지원한다.<br/><br/> 암치료관리 특약에 가입하면 프리미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발병 초기에는 암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심리치료, 면역기능 감소에 대비한 자가면역세포보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치료가 진행되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운동·영양 관리 프로그램, 면역력·세포건강도·PET-CT 검사도 받을 수 있다.<br/><br/> 또 이 상품은 고액의 치료비용이 필요한 4기암을 집중 보장한다. 최초 암 진단 시 진단금을 지급하며, 해당 암이 4기로 진행되면 추가 진단금을 지원해 기존 암보험의 공백을 해소했다. 입원 일당은 입원 첫날부터 180일 한도로 보장되고 수술이 동반된 입원의 경우 일당이 추가 지급돼 보장이 한층 두터워졌으며, 현대해상 암보험에 가입돼 있는 고객은 면책기간과 보험금지급 감액기간 없이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다.<br/><br/> 7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보험기간은 3/5/10/15년 주기의 갱신형 또는 20/30년, 80/90/100세 만기의 비갱신형으로 선택 가능하다. 보험료는 종합형, 40세, 15년납 기준으로 5만원 수준이다. 김진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0.txt

제목: 삼성화재 통합보험 ‘모두모아 건강하게’… 보험료 합리적  
날짜: 2016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5193233574  
본문: 통계청의 ‘2014년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전체 사망자 26만7692명 중 질병사망은 23만8343명, 상해·기타사망은 2만934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9명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망원인 1위는 암(7만6611명), 2위 심장질환(2만6588명), 3위 뇌혈관질환(2만4486)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3대 질환으로 사망했다. <br/><br/> 더불어 한 대형 보험사의 최근 10년간 지급된 사망보험금 통계를 보면, 전체 지급사례 중 질병사망이 77.8%, 상해사망이 13.2%, 기타사망은 9%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사망보험금은 상해사망이 6796만원인데 반해 질병사망은 2220만원에 불과했다.<br/><br/> 질병사망의 위험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보험은 상해사망보다 낮게 가입한다는 뜻이다.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와 자녀 교육비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질병사망 보험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가정을 지키기 위한 완벽한 보장의 마지막은 질병사망 보험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료다. 상해사망보다 질병사망의 보험료가 비싸다.<br/><br/> 삼성화재 통합보험 ‘모두모아 건강하게’는 이런 점에 착안한 상품이다. 고객 상황에 따라 맞춤 보험설계가 가능하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질병사망 보험금 1억원을 준비하는데 1만7000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합리적인 보험료는 자녀가 독립 전인 경제활동기에 집중해서 사망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br/><br/> 이 상품은 사망, 장해, 진단비, 수술비, 실손의료비 등 건강보험 외에 손해보험 고유의 담보인 운전자, 화재, 배상책임까지 하나로 묶어 모든 보장이 가능한 통합보험이다. 또 15년마다 보장내역 재점검을 통해 고객 상황에 따른 유연한 재무설계가 가능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김진환 기자 goldenbat@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1.txt

제목: 신혼 5개월, 임신한 아내가 암에 걸렸다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1215613203  
본문: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모험을 하시겠습니까?”<br/><br/> 서울신대 신학과와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MDiv)를 졸업하고 경기도 고양시 뉴라이프미니스트리(NLM)에서 협력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저자가 ‘결혼은 모험’이라고 단언한 뒤 목소리를 높인다. <br/><br/>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기꺼이 결혼이라는 모험을 결행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살아가노라면 부부는 매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변수에 맞닥뜨린다. 그 변수는 뜻밖의 선물일 수도 있지만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후자에 속한다.<br/><br/> 결혼 후 꿈같은 신혼 기간 5개월이 지날 즈음 아내의 암 선고와 함께 임신 3주의 기로에 선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임산부의 몸으로 11개월간 치열하게 암과 사투를 벌이다 결국 딸을 출산하고 세상을 떠나고 만다. <br/><br/> 사별이라는 잔인한 현실 앞에 서게 된 저자는 하루하루 절망의 늪을 걸으며 사랑, 결혼, 생명, 죽음에 대해 곱씹어 묵상한다. 결혼은 웃을 수도 있지만 울 수도 있는, 알 수 없는 모험이라는 사실이다. <br/><br/> 저자는 수많은 선남선녀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통해 얻거나 잃게 될 모든 가능성에 대해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숱한 문제를 풀어놓는다. <br/><br/> 이 책은 씻어도 씻기지 않는 자신의 상처를 핥으며 써내려간 한 남자의 절박한 치유 일기다. 사랑과 이별, 행복과 슬픔이 공평하게 동행하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애잔하게 담겨 있다. <br/><br/> 저자는 맺는말에서 김현승의 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를 소개하며 낮은 목소리로 고백한다. “<span class='quot0'>제 아내가 겪은 고통과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된 삶의 모습들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span>”(그래도 괜찮을까요?) <br/><br/> 결혼하기 딱 좋은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이다. 혼인을 앞둔 20∼30대 형제자매나 신혼부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배우자와 사별 후 상실의 아픔을 극복해 가는 중이라면 꼭 한 번 읽어봤으면 좋겠다.<br/><br/>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2.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 ‘항암제=고가’ 공식 바이오시밀러가 깰까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1215608367  
본문: 치명적인 암이 발병하면 환자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된다. 특히 고민이 되는 것이 값비싼 치료비와 약값이다. 물론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중증질환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5%, 정부 부담 95%)을 받는 의료 서비스 항목이 대폭 늘어나 환자 부담이 빠르게 줄고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3대 비급여 체계 개편’과 함께 현 정부가 환자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정책 중 하나다. 그럼에도 많은 약제가 비급여로 적용돼 있어 환자들에게 약값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br/><br/> 정부도 마찬가지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약제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비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 호주, 일본, 유럽 국가에서도 약제비 부담을 줄이면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 똑같은 효능이면, 가격이 저렴한 약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의 등장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각국 정부와 의료계에서 기대를 모으는 영역이다. 높은 약가 때문에 항체의약품 항암제의 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바이오시밀러가 더 많은 치료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br/><br/> 국내 기업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 유럽 EMA와 미국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기업이 국내 및 해외에 진출하면 오리지널의약품보다 가격은 낮으면서도 동일한 효능을 가진 약을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대표적인 혈액암 치료제 리툭산은 악성 림프종을 치료하는 항체의약품으로 지난해 전세계에서 7조원 가량 팔린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는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항체 바이오의약품 복제약)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0월 유럽의약품청(EMA)에 판매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EMA 연내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 환자들에게 쓰일 날도 머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회사는 또한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 로슈가 개발한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를 개발해, 국내에서는 2014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9∼10월 안으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SB3’에 대한 유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허셉틴은 2014년 특허가 만료되면서 세계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착수한 항암제다. <br/><br/> 주요 블록버스터 항암제들의 특허 만료가 다가오며, 오리지널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바이오시밀러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항암제=고가’라는 공식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세계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유럽 허가에 이어 미국 FDA 허가를 인정받는다면, 전 세계 항암제 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br/><br/>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3.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통증관리③] 진통제 복용후 통증 조절여부 자세히 체크를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1215607539  
본문: 국가암정보센터와 함께하는 ‘암환자 생활백서-통증관리’ 주제의 4회 연재를 통해 암환자들의 통증, 호흡기계·소화기계 증상, 피로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br/><br/> ◇약물요법=약물요법은 암성 통증을 치료하는 가장 주된 방법으로 비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진통 보조제 등이 있다. 약물요법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먹는 진통제를 우선 사용한다. 약을 건너뛰거나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항상 규칙적으로 복용한다. 이는 약물의 혈중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암성 통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통증이 잘 조절되던 중에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돌발성 통증에 대비해 속효성 진통제를 미리 처방 받아 사용한다. 통증이 없다고 진통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약을 중단하는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진통제는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br/><br/> 진통제 복용 후 통증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자주 평가해 담당 의사에게 이야기한다. 통증 정도에 따른 진통제 사용은 세계보건기구(WHO) 3단계 진통제 사다리의 약물 사용 지침을 따른다.(그림 참조)<br/><br/> ◇진통제 종류=진통제의 종류는 비마약성 진통제와 마약성 진통제로 구분된다.<br/><br/> ▲비마약성 진통제는 크게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나뉜다. 비마약성 진통제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및 내성이 없고, 해열 작용을 한다. 약물 용량을 증가시켜도 일정 용량 이상에서는 진통 작용이 더 상승하지 않고 부작용만 증가하는 천정 효과(ceiling effect)를 갖고 있다. 비마약성 진통제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진통 억제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환자 상태와 부작용을 고려해 부작용이 적은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위장 장애, 신장 장애, 혈소판 억제, 천식 유발 또는 악화가 있다. 혈소판 감소증이나 출혈 경향이 있는 경우, 위궤양과 위출혈이 있는 경우, 신장 장애가 있는 경우, 천식과 과민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우선 고려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아스피린은 천식이 있는 환자가 절대 금해야 하는 진통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소염 작용과 혈소판 억제 작용이 없으나, 고용량 투여 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간 기능 장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비마약성 진통제 사용 시 이전에 사용했던 비마약성 진통제 중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이 없었던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천장 효과가 있으므로 최대 투여량으로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WHO 3단계 진통제 사다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br/><br/> ▲마약성 진통제는 약한 것과 강한 것이 있다. 국내에서 암성 통증에 흔하게 사용되는 약한 마약성 진통제에는 코데인(codeine), 트라마돌(tramadol) 등이 있고 강한 마약성 진통제에는 모르핀(morphine), 펜타닐(fentanyl), 옥시코돈(oxycodone), 하이드로몰폰(hydromorphone) 등이 있다. <br/><br/>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과 신체적 의존성이 올 수 있다. 내성이나 신체적 의존성을 마약 중독과 혼돈해서는 안되며, 통증 환자에서 마약 중독은 드문 일이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는 천정 효과가 없기 때문에 통증 조절을 위해 용량 제한 없이 증량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량의 증량이 마약 중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으로 변비, 구역질, 구토, 졸림, 호흡수가 느려지는 일 등이 생길 수 있다.<br/><br/> ▲진통 보조제가 원래 개발된 목적은 진통이 아니지만 신경병증성 통증, 골성 통증 등 진통제의 효과가 낮은 특정 통증에서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진통 보조제는 WHO 3단계 진통제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착한암’에 묻힌 고통… 급여개선으로 풀자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1215605298  
본문: 쿠키뉴스는 지난 2일 ‘치료가 어려운 갑상선암 환자의 치료 대안과 약제 접근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32회 고품격 건강사회만들기 방송토론회를 개최했다. 갑상선암은 한 해에만 4만2000여명이 진단받는 국내에서 가장 흔한 암이지만, 5년 생존율이 매우 높아 ‘착한암’으로 불린다. 하지만 갑상선암 중에서도 기존의 치료제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거나, 치료에 실패하는 나쁜 갑상선암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료가 어려운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 대안을 살펴보고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 봤다.<br/><br/>◇주제=치료가 어려운 갑상선암 환자의 치료 대안과 약제 접근성 강화 방안<br/><br/>◇일시=2016년 9월 2일 오전 10시<br/><br/>◇참석자=전혜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김원배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장윤형 쿠키뉴스 의학전문기자<br/><br/>◇진행=원미연 쿠키건강TV 아나운서<br/><br/>◇연출=홍현기 쿠키건강TV PD<br/><br/>-갑상선암은 어떤 질환인가? <br/><br/> ◇김원배=갑상선에 생기는 암을 통틀어서 이야기한다. 갑상선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여포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해있는데 이곳에 생기는 암을 갑상선암이라고 한다. 갑상선암은 크게 분화암과 미분화암 두 가지로 나눈다. 분화암 중에서 95%이상을 유두암이 차지하는데 치료 예후가 좋은 편이다. 미분화암은 전체의 0.2%정도고, 인체에 생기는 암중에서도 예후가 나쁜 것으로 유명하다. 진단 시 3∼6개월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전혜숙=갑상선 질환이 발생하는 곳이 목 부분이다. 옛 어른들이 “기가 차 죽겠다”, “목에서 숨이 넘어간다”고 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특히 갑상선암 환자는 여성 환자가 전체 8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br/><br/><br/><br/>-국립암센터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암발병률 1위가 갑상선암이라고 한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br/><br/> ◇김원배=갑상선암이 최근에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의료서비스가 발달하고 암 검진이 늘면서 조기 암이 많이 발견된 것이다. 그 외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식이 습관, 그리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만율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br/><br/> ◇전혜숙=국민건강검진이 확대돼서 조기 암 발견에 많이 기여했다.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식이습관도 원인이다. 과거에는 주로 채소 위주의 식사였다면 지금은 트랜스지방을 많이 섭취한다. 개인적으로는 고령인구보다 40대에서 암환자가 많은 이유도 트랜스지방 섭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br/><br/><br/><br/>-갑상선암은 ‘착한암’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치료는 어떻게 되나?<br/><br/> ◇김원배=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두암과 같은 분화암은 원격전이가 없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80-85% 정도의 환자는 수술과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완치가 되기 때문에 ‘착한암’이라고 불린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방사성 물질에 요오드를 붙여서 환자가 먹게 되면 그것이 암세포만을 죽이는 방식으로 갑상선암에만 적용되는 치료법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10-15% 정도에서는 재발, 원격전이 등으로 요오드 치료가 듣지 않거나 미분화 된 경우가 있어 예후가 좋지 않다.<br/><br/> ◇장윤형=갑상선암이 ‘착한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병기가 높아질수록 또 전이· 재발될 경우에는 치료율이 급격히 낮아져서 방사성 요오드로도 치료가 안되는 사례가 있다. 이때 표적치료제 같은 것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쓸 수 있는 대안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재발·전이가 되어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10년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 <br/><br/><br/><br/>-신약이 등장하면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신약 등장 시 반응은 어떻고, 보험 등재는 어떻게 진행되나 <br/><br/> ◇장윤형=요즘은 환자들이 신약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다. 학회지나 외신, 인터넷을 통해 나에게 적절한 약은 무엇인지, 새롭게 나온 신약은 무엇인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약가다. 약값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항암제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에게 심각한 이슈다. 암환자들이 체감하기에 조금 더 보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 <br/><br/> ◇전혜숙=모든 신약이 다 처음부터 보험등재가 되진 못한다. 임상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날 때까지는 경제성 평가, 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비급여 상태로 환자들에게 투약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7단계로 구분해 국가에서 상환해준다. 그런데 새로 나온 혁신적 신약은 금방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큰 편이다. <br/><br/> ◇고형우=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면 모두 보험 등재가 됐다. 그런데 2006년부터 식약처에 허가가 났더라도 그 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거쳐 비용 효과성이 있는 약만 보험 등재를 하는 선별 등재 제도를 도입해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있다. 보통 신약 등재 기간은 240∼270일 정도 된다.<br/><br/><br/><br/>-보험급여가 안되는 신약이 실제로 환자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궁금하다.<br/><br/> ◇김원배=우리나라는 암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본인부담금은 5%만 내면 되는 제도가 있어서 실제로는 전체 수가의 40분의 1만 부담하면 된다. 만약 보험이 안 되면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해야한다. 그래서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약값이 4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br/><br/> ◇장윤형=최근 조사에 따르면, 갑상선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신약 치료비용은 월 300∼400만원 정도다. 일반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큰 비용이다. 정부에서 속히 보험급여 적용을 해준다면, 환자군이 적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에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br/><br/><br/><br/>-정부에서 희귀질환이나 암환자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br/><br/> ◇고형우=2013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암 환자로 등록 시, 본인 부담 5%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최대 506만원까지만 내면되는데, 그 외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효과가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비를 확대해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항암 신약 등의 보험 등재 기간 단축을 위해 심평원에 사전평가지원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달 내로 팀 구성이 완료돼 등재 기간이 단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br/><br/> ◇전혜숙=재난적 의료비지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난적은 경제적 파산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은 이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국회에 보고해 재정적 부담이 큰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는 각 병원의 비급여분을 심평원에 모두 보고해 국가가 파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가정에 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가정이 경제적 파탄이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급여를 파악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기 위함이다. <br/><br/><br/><br/>-갑상선암을 비롯한 암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br/><br/> ◇전혜숙=국민들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는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br/><br/> ◇김원배=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전문가 집단이자 오피니언 리더로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어떤 것이 가장 유용하고 경제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지 계속 고민하겠다.<br/><br/> ◇장윤형=국민 3명 중 1명이 암이고, 그 중 갑상선암 발생율이 1위다. 암환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될 수 있다. 갑상선암에 대해 정부, 국회, 전문 의료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br/><br/> ◇고형우=갑상선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 대해서 최근 치료제의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다. 이에 대한 심각하게 생각하고, 효과가 있는 우수한 약들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면 신속히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치료가 어려운 갑상선암 환자들의 치료 대안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br/><br/>정리=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전자담배, “금연에 도움될까”… 그저 담배 한 종류일 뿐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1215601895  
본문: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금연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과연 전자담배가 정말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국제담배규제 정책평가 프로젝트 보고서(ITC, 2012)에 따르면 흡연자의 63.9%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금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2013)에 따르면 전자담배와 연초담배(일반담배) 둘 다 사용하는 성인은 86.9%에 달했다. 전자담배와 연초담배의 이중 사용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2014) 결과 청소년의 경우도 77.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서도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것이다.<br/><br/>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1회 흡연 시 정해진 니코틴 흡연량이 없어 니코틴 흡수량을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담배와 연초담배를 이중 사용할 경우 니코틴이 과다흡수 돼 오히려 니코틴 중독을 악화시킬 수 있다. 류정선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전자담배는 니코틴에 대한 내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연 수단으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금연보조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주분 인하대병원 인천금연지원센터 상담 팀장은 “전자담배로 금연에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이는 매우 극소수고 대부분이 못 끊으신다. 니코틴이 액상으로 돼 있어 중독성이 심하고 의존성, 내성, 습관성 등 때문에 사용하다보면 양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금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팀장은 “식약처에서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 대부분의 전자 담배에 기준치 이상의 니코틴이 들어있었다. 판매할 때는 니코틴이 없다면서 판매하는데 실제 임상에서 조사할 때는 일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매스컴에서는 다른 유해성분도 들어있다고 한 적이 있다”며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br/><br/> 그렇다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는 덜 해롭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제 49.2%의 흡연자들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유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공주대 환경교육과 신호상 교수(약물남용연구소장)의 ‘전자담배 액상 및 기체상 중 유해물질 고찰(2013)’ 논문에 따르면 전자담배에는 연초담배에도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자담배 성분조사 결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외에도 발암물질 및 독성화학물질이 검출됐으며, 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에서도 발암물질과 유해성분이 다수 검출됐다. 즉 전자담배도 연기를 통해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br/><br/> 윤주분 팀장은 “니코틴을 흡수하면 모발, 침샘, 땀샘 등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제3자에게 간접흡연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가족에게 호흡기나 접촉 등을 통해 유해성분이 전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직도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전자담배도 담배의 종류 중의 하나일 뿐이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도 과태료 대상이고, 교육할 때 전자담배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정선 교수는 “<span class='quot0'>전자담배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 기관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span>”고 강조했다. <br/><br/>박예슬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6.txt

제목: [질환 통계-간암] 암 발병 6위… 남성이 여성의 3배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1215600721  
본문: 최근 C형간염의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자 간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간질환을 방치해 발생하는 간암의 경우 40∼60대 남성에서 사망자가 많은 암종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큰 질환중 하나이다. 2015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우리나라에서는 22만5343건의 암이 발생했는데 그 중 간암은 1만6192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6위(7.2%)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많았는데 발생 건수는 남자가 1만2105건으로 남성의 암 가운데 4위를 차지했고, 여자는 4087건으로 여성의 암 중 6위였다. <br/><br/> 남녀를 합쳐서 연령대별로 보면 50대(28.0%)가 가장 많았고, 60대(25.5%), 70대(24.0%)가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간암 환자는 2013년 6만3707명, 2014년 7만9816명, 2015년 6만6606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2015년 기준 남성 4만9539명, 여성 1만7067명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은 40∼50대, 여성은 60∼70대에서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2만19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1만9364명 △70대: 1만6452명 △40대: 5909명 △80세 이상: 4869명 △30대: 1064명 △20대: 139명 △10세 미만: 123명 △10대: 100명 순이었다.<br/><br/> 간암(간세포암종)은 간을 이루고 있는 간세포에서 생겨난 악성 종양을 말한다. 2013년 국가암정보 통계를 보면 전체 간암의 96.6%는 암종(carcinoma, 암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표피나 점막, 샘 조직 같은 상피조직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이었고, 육종(비상피성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은 0.2%에 불과했다.<br/><br/> 암종 중에서는 간세포암이 74.0%로 가장 많았고, 담도암(16.0%)이 뒤를 이었다. 간암 환자의 상당수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고, 증상이 있더라도 간암은 기존에 간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주로 생기기 때문에 간암의 증상과 기존 질환의 증상이 혼동되어 간암이 생겨도 잘 모르는 수가 많아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 정기검진(복부 초음파나 경우에 따라서는 CT, 혈액검사-알파 태아단백 검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br/><br/> 대한간학회-국립암센터는 남자 30세(여자 40세) 이상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여러 원인에 의한 간경변증 등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 간암이 생길 위험이 높아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간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B형간염의 예방을 위해 B형간염 항체가 없는 사람은 B형간염 백신을 맞아야 하며, 특히 신생아 접종은 필수적이다. <br/><br/>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칫솔·면도기·손톱깎이 등을 같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암정보센터는 간암은 음식에 의해 생기는 병이 아니며 음식을 바꾼다고 치유되는 병도 아니기 때문에 특정 음식을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7.txt

제목: [암과의 동행] 갑상선암 진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최대 3배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1215445800  
본문: 비급여 진료비용의 병원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비급여 공개항목을 받아 분석(재증명 수수료 및 각종 교육비용은 제외하고 상급병실료, 치료, 검사항목 2015년 기준 23개 항목)한 결과, 다빈치로봇수술료(갑상선 악성종양 근치수술)의 경우 최고금액은 충북대병원(1500만원)이었고, 최저금액은 원광대병원(440만원)으로 106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br/><br/> 다빈치로봇수술료는 공개된 2개 항목 전립선과 갑상선에 대한 진료비 모두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이 가장 비싼 1500만원이었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전립선에 대한 다빈치로봇수술료는 500만원으로 1000만원의 가격차가 있었다. 1인실 상급병실료는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5배에 달했는데 서울아산병원이 44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림대성심병원은 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2015년에 처음 공개 된 치과보철료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이 106만원이었지만, 화순전남대병원의 경우 17만원으로 약 6배의 차이가 났다. 치과 임프란트의 경우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400만원까지 비용을 받았고, 충북대병원은 80만원을 받아 5배의 차이를 보였다.<br/><br/> 시력교정술인 라섹은 강북삼성병원이 240만원을 받았지만 길병원은 115만원을 받았다. 체온열검사료의 경우 한방경피온열검사(부분)의 경우 전체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의 최고·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이었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20만8000원인 반면, 인제대부산백병원은 1만원으로 격차는 무려 20배 이상이 났다.<br/><br/> 비급여진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 비급여 진료비의 인하 등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상급병실료의 경우 2013년과 2015년이 큰 차이가 없었고, 다빈치로봇수술의 경우도 2013년과 비교해 최고 비용와 최저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은 “<span class='quot0'>지난 3년간의 공개 결과를 보면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물론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가격 공시만이 아닌 진료행위 빈도를 포함한 정확한 비급여 진료비 파악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 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8.txt

제목: [암과의 동행] “방사성 요오드도 안 통해요”… 절망감에 경제부담 이중고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1215444992  
본문: 50대 초반 주부 A씨는 10년 전 갑상선암을 진단받아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받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까지 마쳤다. 그 사이 갑상선암이 한 번 더 재발했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한 번 더 했다. 그리고 최근 암이 또 다시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여러 번 반복된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인해 A씨는 누적 방사성 투여 용량을 초과한 상태였다. 따라서 남아있는 치료법은 표적항암제 뿐이다.<br/><br/> 갑상선암 중 ‘역형성암’, ‘수질암’은 치료가 어려운 악성 암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전체 갑상선암 환자의 0.6% 정도다. 흔치는 않지만 워낙 악명이 높아 많이 알려져 있다. 반면 발생비율이 98.7%에 달할 정도로 환자 수가 많은 분화 갑상선암은 초기에 발견해 수술과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으면 치료 예후가 매우 좋다.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이 100%에 가깝고 ‘착한 암’으로 불리는 이유다.<br/><br/> 하지만 착한 분화갑상선암 중 역형성암이나 수질암만큼 치료가 어려운 암이 있다. 바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듣지 않는 경우다. 전체 갑상선암 환자 10명 중 1명 정도가 이 경우에 속한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듣지 않는 분화 갑상선암 환자들의 10년 생존율은 10%에 불과하다.<br/><br/> 세포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알맞게 특수화된 구조로 변하는 분화 과정을 거친다. 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져 요오드를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 암이 진행되고 원격전이가 발생하면 갑상선암의 분화도가 낮아져 요오드를 흡수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진다. 첫 치료 후에 방사성 요오드를 잘 섭취하는 세포는 소멸되고, 분화가 덜 된 세포만 남게 되는 것도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듣지 않는 또 다른 원인이다.<br/><br/> 이렇듯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안 듣고, 재발·전이·진행이 확인된 분화 갑상선암 환자들의 치료 대안은 표적항암제 한 가지 뿐이다. 다행히 임상시험을 통해 무진행생존기간을 18.3개월 연장하고, 64.8%의 높은 반응률을 보인 새로운 표적항암제가 작년 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의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도 새로운 표적항암제의 높은 반응률을 근거로 해 다른 치료제 보다 선호되는 치료제로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신약은 아직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갑상선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1년 전 갑상선암이 폐에 전이 돼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약효가 전 같지 않아서 의료진으로부터 장기적으로는 다른 치료제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나 때문에 지금까지 돈을 많이 썼는데 건강보험도 안 되는 약까지 쓰면 가족들에게 더 큰 짐이 될 것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br/><br/> 전문가들은 갑상선암의 경우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병 연령대가 낮아 재발확률도 이론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특히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듣지 않는 환자의 경우 병기가 높거나, 재발·전이된 환자가 많아 이미 치료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B씨는 “좋은 치료제가 있어도 보험이 안 되면 그림의 떡이다. 마지막 생명줄까지 붙잡고 싶어 하는 환자들에게 제발 희망고문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암 투병만으로도 힘든데 비용 부담까지 이중고를 떠안아야 하는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또 다른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시급한 실정이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9.txt

제목: 비극으로 끝난 ‘나쁜 손버릇’… 말기암 절도 23범 검거 직전 7층서 투신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1175622705  
본문: 전과 23범의 직장암 환자인 이모(67)씨는 충북 충주지역에서 나름 알려진 소매치기였다. 전통시장이나 축제장 등 인파가 몰리는 곳을 돌며 금품을 훔쳐 경찰서를 자주 들락거렸다. 충주 강력계 형사들 사이에 그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br/><br/> 남매를 둔 이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33㎡의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했다. 최근에는 직장암 말기 판정까지 받았다. 이미 손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시한부 인생에도 그의 ‘나쁜 버릇’은 여전했다.<br/><br/> 이씨는 충주지역에서 얼굴이 알려지면서 범행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다른 지역으로 ‘원정’까지 갔다. 그는 이달 초에도 경북 문경으로 옮겨 공범과 함께 소매치기를 하다 범행이 들통 나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다.<br/><br/> 문경경찰서 소속 형사 3명이 이씨의 충주시 모 아파트에 들이닥친 것은 20일 오후였다. 이씨는 경찰관들에게 “암 환자라서 약을 챙겨야 한다. 잡히면 집을 비우게 되니 옷을 챙기고 집 안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살 텐데 지금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사흘만 시간을 주면 공범을 자수시키겠다”는 말까지 했다.<br/><br/> 경찰은 이씨가 환자이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그의 부탁을 들어줬다. 이씨는 아파트 옆동에 사는 지인을 불러 집 열쇠를 주고 베란다 선반에 있는 짐을 정리했다. 베란다 끝에서 짐을 정리하던 이씨는 플라스틱 의자에 올라 갑자기 7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몸을 던졌다. 이씨가 투신하던 순간 경찰관은 베란다와 거실, 현관에 한 명씩 있었다. 이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의 ‘나쁜 손버릇’이 결국 비극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br/><br/>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0.txt

제목: [암환자 의사를 만나다] 고령 폐암4기도 새 빛… 면역항암제 이름값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1173829101  
본문: 60대 가장인 김재석(가명)씨와 가족들은 지난 2013년 겨울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병원에서 듣게 됐다. ‘폐암’ 4기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평소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어 서울성모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아왔다. 그해 겨울 약처방을 위해 내원한 김씨는 이상소견을 확인, CT촬영을 통해 폐암 판정을 받았다. 김씨의 몸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처음 진단 당시만 해도 폐 부위에 있던 암덩어리는 1.6cm 정도로 크지 않았으나, 양쪽 쇄골상 림프절, 갈비뼈와 골반뼈에도 암이 전이돼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김씨는 머리털이 빠질 정도로 독한 세포독성항암제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네차례의 항암치료 후 부분반응(원발 병소의 크기가 치료 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상태)을 보여 항암치료를 중단했다. 이어 2014년 면역항암제인 ‘옵디보’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됐다. 그는 이후 지난 2년 간 옵디보로 치료를 받고 있다.<br/><br/> 일반적으로 폐암 4기라고 하면 말기암으로 치부한다. 폐암은 진단이 늦으면 치료도 어렵고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암종 중 사망률 1위가 바로 폐암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까지 폐암을 정복한 치료제 역시 없다. <br/><br/> 그런데 희소식이 생겼다. 최근 폐암 등의 항암치료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았다는 의학계의 평을 받고 있는 약이 있다. 바로 ‘면역항암제’다. 폐암 4기 환자인 김씨에게 면역항암제 임상시험 참여 기회는 행운이었다. 항암치료 중단 후 추적검사를 하는 과정 도중 2014년 9월, 오노약품공업과 BMS의 옵디보 임상시험이 있다는 소식을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듣게 됐다.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기 위한 자격도 까다로웠지만 그는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였다. 그를 담당하는 주치의는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다.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기 위해 지난 2년간 김재석씨는 강진형 교수를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면역항암제는 2주에 한 번 간격으로 투여해야 한다. 폐암 4기를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환자와 이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됐다. <br/><br/> ◇40년간 흡연생활 끝 찾아온 ‘폐암’, 면역항암제 효과는=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은 흡연이다. 김씨 역시 20대 초반부터 약 40년간 술과 담배를 해온탓으로 폐암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강진형 교수는 “40년이나 흡연을 했기 때문에 폐암이 발병했다”며 “환자의 경우 표적치료제를 사용할 수도 없는 환자였다. 오랜 기간 흡연한 환자들은 표적항암제의 중요한 돌연변이인 EGFR 유전자 변이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br/><br/> 이러한 시점에 면역항암제인 옵디보를 만난 것은 환자에게 좋은 기회였다. 그렇다면 2년간 면역항암제를 투여한 결과는 어땠을까. 강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자는 면역항암제 투여 2개월 후 폐에 있는 원발 병소와 림프절, 골반뼈의 전이 병소까지 암 크기의 50% 이상이 줄어드는 부분반응이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0'>줄어든 이후 현재까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면역항암제는 1년에 약 7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드는 고가의 약물이다.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지 않아, 환자가 100% 본인 부담으로 약값을 내야 한다. 일부에선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를 제한하도록 PD-L1(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 기능을 저하하기 위해 분비하는 단백질)을 통한 선별 기준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다. 강 교수는 “<span class='quot0'>가장 큰 문제는 PD-L1 자체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PD-L1 발현율에 대해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둘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과학적인 근거와 보험재정 이슈 등 여러가지 변수를 잘 고려해 정부와 보험급여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br/> ◇환자 “면역항암제 치료·꾸준한 걷기 병행으로 암 이겨내”= 일반적으로 암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라고 하면 병상에 누운 힘없고 창백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건강한 사람과 동일한 몸상태와 혈색을 가진 김씨에게 폐암 4기라는 딱지는 어느덧 지워졌다. 그는 면역항암제 투여한 지난 2년 간 건강하게 두발로 아내와 함께 힘차게 걸어다니고 있다. 기존 항암제는 구토, 탈모와 같은 전신적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내성발현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개발된 면역항암제는 기존 항암제들의 부작용을 보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김씨 역시 고비는 있었다. 강진형 교수는 “<span class='quot1'>한때 간수치가 정상인보다 많이 올라 간염 증세를 보여 약물을 임시 중단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때는 치료를 중단하고 간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면역항암제를 투여했다</span>”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면역항암제가 놀라운 효과를 가졌으나, 모두에게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적정 환자에게 투여하면 좋은 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r/><br/> 환자 김씨는 “<span class='quot2'>기존 항암제를 투여할 때는 얼굴에 발진도 나고 길에서 사람을 만나고 기피하게 될 정도로 부작용이 심했는데 면역항암제는 그런 증세가 거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2'>무엇보다 암을 이겨내고자 꾸준히 걷고 좋은 음식을 먹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이어 “민간요법 등에 의지하기보다 주치의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면 폐암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br/><br/>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1.txt

제목: 남성도 유방암 걸린다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1173825657  
본문: 최근 한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는 내용이 방영된 바 있다. 유방암 투병 사실을 숨기고자 분투하는 남성의 모습이 유쾌하게 그려져 관심을 모았다. 유방암은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남성에게도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유방암으로 인한 전체 진료인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1년 10만 4293명에서 2015년에는 12만 1379명으로 4년 동안 3만 7086명이 증가했다. 이 중 남성 유방암 진료 환자는 2015년 기준 505명으로 여성유방암 환자의 1% 수준이다. 연령대는 60∼70대 환자가 약 5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30대 유방암 진료환자도 약 4%를 차지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실제로도 있을 법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 문병인 이대목동병원 유방·갑상선암센터 교수는 남성에게도 유선조직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의 경우 유방암의 발병률이 여성보다 적지만, 낮은 질병 인식 때문에 비교적 예후가 좋지 않다. 문 교수는 “남성 유방암의 평균 진단은 여성보다 10년 정도 늦다. 유방암은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에 유방암 징후를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진단을 미루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남성 유방암의 원인으로는 여성 호르몬의 증가 및 남성 호르몬의 감소, 비만, 음주, 유전 및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하다. 그러나 흔히 여유증이라고 부르는 여성형 유방이 남성 유방암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문 교수는 “암 발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원인을 꼽기는 어렵다. 다만 여성형 유방은 단순히 유방 조직이 커진 상태일 뿐 유방암과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다.<br/><br/> 유방암은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 한쪽 유방에 통증이 없는 혹이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면 유방암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 유두 주위 피부에 궤양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혹의 모양은 대체로 불규칙하고 비교적 단단하다. 여성형 유방(여유증)의 경우, 부드럽고 대칭적인 멍울이 만져지고, 눌렀을 때 통증이 동반되므로 유방암과는 차이가 있다. 문 교수는 “다수의 미디어에서 암이 고통스럽게 묘사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 유방암은 통증없이 시작된다”며 “통증이 나타날 정도면 암이 이미 중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본다. 유방암이 의심된다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br/><br/> 남성 유방암의 치료는 여성 유방암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한다. 암이 발견되면 종양의 범위에 맞춰 수술이 시행되고 병기에 따라 방사선 치료 및 항암치료가 병행 될 수 있다. 다만, 남성 유방암 환자들은 여성 환자들보다 진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아로마타제 억제제(항에스트로겐제)의 경우, 여성 환자 대상으로만 진료비가 보장이 되고 있어 남성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높다. 남성 환자에게도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보장이 안 되는 것은 아쉽다”며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진단받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해야한다. 흡연이나 음주를 되도록 줄이고,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br/><br/>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2.txt

제목: 發癌… 發癌… 發癌… 인터넷 언어유희 심각, 진짜 암환자 마음 알까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1173619984  
본문: ‘암 걸리겠다’, ‘발암(發癌)주의’ 말 그대로 암을 유발한다는 뜻의 인터넷 신조어로 답답하거나 불쾌한 상황에 빗대 사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스포츠 경기 중 반칙을 한 상대편 선수가 퇴장당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암 걸리겠다’며 답답함을 표현하거나, 운전 중 불법유턴을 하는 운전자의 모습에 대해 ‘발암주의’라고 지칭하며 불쾌감을 표출하는 식이다. <br/><br/>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암 유발과 관련이 있을까. 김열홍 고려대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스트레스와 암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하나의 암세포가 자라려면 적어도 6개월이 걸린다. 또한 발견되기까지는 대개 2∼3년 이상 소요된다. 암이 나타나는 것은 한 번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간에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다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성을 떨어뜨려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는 필요하다</span>”고 덧붙였다. <br/><br/>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로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다. 또한 남성은 3명 중 1명, 여성은 4명 중 1명이 평균 수명까지 생존 시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암 걸리겠다’는 말은 ‘나도 언젠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자조적인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건강한 사람도 암 질환으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국가 암 검진 등 조기검진에 동참하고 암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암 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보다 긍정적일 것</span>”이라고 조언했다. <br/><br/> 국가에서도 국민 암질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12일 보건당국은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해 2020년까지 10만명당 311.6명에 달하는 암발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10만명당 270.3명)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정책 4대 기본요소(예방, 조기검진, 진단 및 치료, 완화의료)를 바탕으로 암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망자 비중이 높은 폐암 예방을 위해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도입한다. 또한 현재 위암과 대장암 검진프로그램에서 시행 중인 확진검사 비용 지원도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까지 확대한다. <br/><br/> 네티즌 사이에서는 ‘암 걸리겠다’는 용어 사용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쉽게 내뱉는 용어가 실제 암투병 환자와 가족에게는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네티즌(mine\*\*\*)은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셔서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안다. 굳이 암 걸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suez\*\*\*)은 “<span class='quot1'>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span>”고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힘들거나 답답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말인 것 같다. 그러나 암 투병과정이 힘든 만큼 치료를 받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r/><br/>전미옥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3.txt

제목: 장기이식 그것은 사랑 입니다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1172451550  
본문: ‘삶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말기 암환자만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장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삶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30대 미혼여성 환자 천 모씨는 만성콩팥병으로 6년 여간 투석 생활을 해 왔다. 천씨가 평범하게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신장 이식이지만, 적절한 장기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신장이식 기증자가 나타났다. 이제 막 생후 73일 밖에 안된 아기가 그 주인공이다. 출생 직후 뇌에 혈종이 발견돼 자연 회복을 기대했으나, 안타깝게도 생후 2개월만에 뇌사 소견 확인을 받았다. 이후 영아의 부모가 장기기증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밝혔다. 이 아기 천사는 성인의 5분의 1밖에 안되는 신장 2개를 주고 세상을 떠났다. 국내 최연소 신장이식 공여자가 된 것이다.<br/><br/> 또한 국내 최장수 신장이식 부부 공여자도 있다. 지난 5월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말기신부전 환자인 60대에게 배우자인 60대 후반 송 모씨가 신장을 기증했다. 통상 60대 후반에는 장기이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정밀의학검사를 통해 배우자의 신장이 건강하다는 의료진에 판단에 따라 이식을 시행하게 됐다. 이들 부부는 혈액형이 각각 O형(수혜자)과 B형(기증자)으로 불일치했으나, 수혜자의 혈액 내 존재하는 항ABO 항체 제거를 위한 수술로 무사히 이식 거부반응을 없앴다. 수혜자인 남편은 아내의 신장이식으로 인해 수술 13일 만에 퇴원, 현재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br/><br/>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식’ 수술도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 생후 2개월 된 신생아의 장기가 성인에게 이식되는 한편 혈액형 불일치 환자 간의 이식 등 병든 장기를 새 장기로 바꿔, 새 삶을 살게 하는 이식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br/><br/> 영아가 성인에게 … ‘진화하는 장기이식’<br/><br/> 이식은 단순히 기계 부품을 교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식자와 공여자 간의 이식으로 인한 거부반응을 이겨내야 하고 동맥과 정맥(핏줄)도 잇는 수술이다. 장기 이식수술은 과학과 의학, 전문의의 손길 등 모든 것이 동원되는 현대의학의 ‘꽃’이자 종합체다. <br/><br/> 이태승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장기이식 센터장)는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신장 2개를 성인 여성에게 이식한 의사다. 이태승 교수는 “<span class='quot0'>이식은 폐, 간, 신장, 췌장 등의 장기들의 혈관들을 잇는 것이므로 상당한 정교함을 요하는 고난이도 수술</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의학기술 발전으로 어린아이부터 고연령 환자까지 장기이식이 가능한 범위가 이제 넓어졌다</span>”고 설명했다. <br/><br/> 장기 이식이 최초로 이뤄진 것은 1900년대 초반이지만, 성공을 한 시기는 50여년이 지난 1954년 미국 외과의사 조셉 머레이에 의해서다. 그는 일란성 쌍둥이의 신장 이식을 성공했다. <br/><br/> 이식 발전의 역사는 곧 ‘면역학’의 역사다. 인간이 기계와 다른 큰 차이점은 사람마다 혈액형, 유전자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밀의학이나 유전체 검사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도 인간 고유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장기이식에 실패했던 초기, 큰 문제점은 기증자와 공여자 간 장기를 이식하면, 장기가 굳어버리거나 터져버리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면역거부반응인 것이다. 1962년 면역억제제가 등장하며 타인 간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게 됐다. <br/><br/> 국내에서는 1959년 성산 장기려 박사가 최초로 간암환자를 대상으로 대량절제술을 하면서, 간이식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1994년도에 생체 간이식 성공하는 한편 장기이식이 본격화 됐다. 이후 간이식, 신장이식, 골수이식 등을 비롯해 나아가 신체조직 이식까지 발전했다. <br/><br/> 현재는 미국, 독일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안면이식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태승 교수는 “<span class='quot0'>면역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교차검사 등 다양한 검사 기법 등이 도입되며 이식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럼에도 결국 혈관과 혈관을 잇는 봉합기술은 곧 의사의 손기술이며, 이는 곧 수많은 경험에서 비롯된다</span>”고 강조했다. <br/><br/>“기증없이는 이식도 없다” <br/><br/> 이식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기증자가 여전히 제자리수를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기증없이는 장기이식도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br/><br/> 1967년 혈액투석을 시작한 이래 약 50년간 신장질환 영역에 풍부한 임상경험을 쌓아온 곳이 있다. 바로 계명대 동산병원이다. 다만 의료진에게도 장기이식 기증자가 적다는 것은 늘 숙제처럼 다가오고 있다. 조원현 동산병원 외과 교수(대한이식학회 회장)은 “<span class='quot1'>더 많은 환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뇌사자를 적극 발굴하고 장기 이식을 추진할 계획</span>”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1명이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뇌사 기증자는 외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뇌사 기증보다 생존 시 기증비율이 높은 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100만명 당 기증자수(뇌사자/생존시)는 스페인 36명/9명, 미국 27명/15명, 한국9명/37명이다. 또한 기증자 수에 비해 이식이 필요한 이식대기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식대기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2만7000명에 이르고 있어 생명나눔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이식대기자수/이식건수는 2011년 2만1861명/3798건, 2013년 2만6036명/3821건, 2015년 2만7444명/410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br/><br/> 장기 기증자수는 매년 2000여명에서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기증으로 한때 장기기증 서약자수가 늘었지만, 다시 제자리 걸음이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에서 집계한 국내 장기기증 현황에 따르면 국내 장기 기증자수는 2012년 2451건, 2013년 2337건, 2014년 2379건, 2015년 2494건, 2016년 9월 현재 195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br/><br/> 하종원 한국장기기증원 이사장은 “국내에서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뇌사자가 발생해도 가족들의 기증거부로 인해 안타깝게 기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이 장기기증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증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식 기술은 발전했지만, 장기기증 문화는 여전히 발전하지 못한 것이 국내 현실이다. <br/><br/>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4.txt

제목: 국가암관리에 폐암 포함… 골초도 대우 받는다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1172349643  
본문: 지난 12일 정부는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암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국가의 암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번 계획의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여러 과제들을 발표했는데, 그 중 무엇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과제는 폐암 검진을 국가암검진에 도입시키기로 한 것이다. <br/><br/> 폐암은 2013년 기준 1만7177명이 사망해 전체 암 사망의 22.8%를 차지하고 있는 암 사망원인 1위 질환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을 신규 도입해 조기 발견을 통한 폐암 사망률 감소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br/><br/>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폐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내년부터 고위험흡연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CT를 통해 시범적으로 검진을 수행하기로 했다. 고위험흡연군이란 55세 이상 74세 이하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갑년(Pack year)은 1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 소비량으로, 30갑년이란 매일 1갑씩 30년 또는 매일 2갑씩 15년을 흡연한 것 등을 말한다. <br/><br/>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이들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사전 통보하거나 또는 금연프로그램 참가자 기반으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단 기존 암환자 및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br/><br/> 또한 모집된 대상자를 기반으로 저선량 CT를 활용해 검진을 실시하고, 금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검진 결과를 상담 및 통보할 방침이다.<br/><br/>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2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국립암센터에서 총괄 수행한다.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해 김열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은 “폐암검진은 고민할 게 많다. CT검사를 하다보니 방사선검사도 필요하고 검사 비용도 고가인데다 높은 기술 수준도 요구된다”면서 “우선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진단 기준부터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은 “<span class='quot0'>어디까지가 이상이 있고, 어디까지는 괜찮은지 등 검진 판독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또 대상자 선별에 있어서도 흡연력이 주관적이라 고위험군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검진기관도 충분히 확보돼야 할 것이다</span>”고 설명했다. <br/><br/>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 중 제외되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그는 “<span class='quot0'>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까진 정해지지 않았다</span>”고 덧붙였다.<br/><br/> 또한 이번 시범사업과 금연프로그램과의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장은 “<span class='quot0'>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검진 체계를 금연프로그램에 연관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금연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연결되게 할지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span>”라고 말했다. <br/><br/>박예슬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5.txt

제목: “수술 대신 빛으로 암 치료” UNIST 연구팀, ‘광역동 치료’ 물질 개발  
날짜: 2016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19211928331  
본문: 권태혁·임미희·이현우 울산과학기술원(UNIST) 자연과학부 공동연구팀은 빛을 이용해 암 조직만 골라 파괴하는 ‘광역동 치료’의 원리를 규명하고 광역동 치료에 효과적인 물질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연구팀은 광역동 치료에 적합한 분자 설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작용원리, 실제 암세포에 적용한 실험결과를 도출했다. 광역동 치료는 주변의 산소를 활성산소로 만드는 광감각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작용원리가 규명되지 못했다. 이들은 또 산소를 활성산소로 잘 만드는 물질인 이리듐을 기반으로 몇 가지 광감각제를 만들었다. 그 결과 파장이 짧은 파란색이나 녹색 빛보다 파장이 긴 빨간색 빛을 활용하는 물질일수록 활성산소를 더 잘 만들어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점도 밝혀냈다.<br/><br/>김현길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6.txt

제목: 세란병원 비만클리닉, 산모&중년여성 뱃살을 잡는다  
날짜: 2016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19191327451  
본문: 세란병원은 최근 종합건강검진센터 확장과 더불어 성형외과 및 산부인과 진료기능을 확충하면서 뷰티센터(센터장 김정우·성형외과·사진)에 비만클리닉을 새로 개설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보기 흉한 뱃살 때문에 고민하는 산모와 중년여성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서다.<br/><br/> 세란병원은 앞으로 이 클리닉에서 단순 체중조절만이 아니라 비만과 관련이 있는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개인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후 복부비만과 중년 이후 외형상 보기 흉해진 팔뚝 살, 옆구리 살을 규칙적 운동 및 식이요법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암과 고혈압, 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br/><br/> 비만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먹는 약과 주사제, 지방흡입술, 중·저주파 및 체외충격파 요법 등과 같은 각종 시술 외에도 푸드테라피(식이요법), 영양치료, 운동요법, 메디컬 스파 프로그램 등이 두루 동원된다.<br/><br/> 김정우 세란병원 뷰티센터장은 “<span class='quot0'>비만 교정은 몸무게와 비만도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전문의와 함께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면 부작용 없이 체중조절 및 몸매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7.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악성림프종 4기 투병 중 ‘함께 하신다’고 응답… 제2 인생 부활의 증인으로  
날짜: 2016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18191910086  
본문: 둘째아이 임신 7개월 째, 난소에 큰 혹이 발견되었다. 병원에선 임신 중에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할 수 없어 제왕절개수술을 한 후 조직검사를 한다고 했다. 수술하기 전날, 암보다 호르몬 이상으로 난소가 커졌을 확률이 높다 하여 제왕절개수술이 취소되었다. <br/><br/> 36주5일 만에 둘째를 낳았다. 그 후 내 얼굴은 갈수록 핏기가 없어지고 식은땀과 고열이 계속되어 검사를 했는데 혈액암 악성림프종 4기 진단을 받았다. 난소 양쪽 암 덩어리는 19센티, 15센티로 커져 있었고 간, 부신, 복부 뒤 장기까지 전이되어 있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생각에 눈물만 나왔다. 마음을 추스르고 병원 안에 있는 기도실로 갔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병원에 왜 왔는지 말씀으로 새로운 기쁨과 확신을 주셨다. <br/><br/> 얼마 후 같은 병실에 간암 말기로 투병했던 아주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병실로 찾아갔다. 복수가 차고 다리는 퉁퉁 부었고 얼굴은 검게 변해 있었다. 정말 살려주시길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다음 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이다. 죽음 앞에 있는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다. 그 후 만나는 사람마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br/><br/> 어느 날 큰아이가 아파서 입원을 시키는데 갑자기 생각이 치고 들어왔다. 내가 암에 걸린 것, 아직 어린 아이들, 챙겨야 할 친정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염려가 물밀 듯 밀려왔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왜 이리 아픔을 주시나요? 우리 가정은 왜 이리 답답합니까?” <br/><br/> 다음 날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주셨다. 순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생각났다. 그 예수님을 무시한 채 ‘내 생명, 내 자식’ 하며 다 필요 없다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악랄한 내 중심이 보였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부활시키어 온 천하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이분을 믿지 않는 나의 중심은 너무나 악했다.<br/><br/> 이런 자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나는 무너지고 말았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왔다.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니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이 단숨에 깔끔히 정리되었고 내 신분도 정확해졌다. 이미 주 안에서 나는 다 가진 자였고 죽음, 인간관계, 물질 등 모든 부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 <br/><br/> 무균실에 입원했을 때 그곳에서 백혈병으로 입원한 프랑스인과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 아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 감당하기 힘든 항암제를 맞고도 복음을 전하며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투병기간 내내 나와 아픔을 같이해준 교회 지체들은 무엇보다 내겐 큰 힘이 되었다. <br/><br/> 응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주위의 지체들은 아이들과 살림살이를 봐주었고, 공동체는 합심하여 기도해주었다. 응급실로 실려갈 때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눈물로 기도해주기도 했다. 지극히 작은,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어떻게 이런 사랑을 주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감사와 감격을 누를 수 없다. <br/><br/> 지금 나는 완치 판정을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복직하여 출근하고 있다. 이제 나의 제2의 인생은 공동체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전력 질주하는 일만 남았다.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br/><br/>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8.txt

제목: ‘30년 골초’ 폐암 무료검진  
날짜: 2016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12180329784  
본문: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고위험 흡연자에 대한 무료 폐암 검진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137만명에 달하는 암 생존자에 대한 종합 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소아 호스피스 체계도 도입된다.<br/><br/>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암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2016∼20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br/><br/> 이번 종합계획은 폐암을 국가 암검진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폐암은 암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22.8%)을 차지하고, 5년 생존율(23.5%) 역시 낮지만 조기 검진에 따른 효과를 입증할 수 없어 국가 암검진 대상(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2011년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을 이용한 폐암 검진 시 사망률을 20%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는 등 조기 검진에 따른 효과가 입증됐다.<br/><br/> 내년엔 우선 8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55세 이상 74세 이하로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갑년은 1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 소비량이다. 매일 두 갑씩 15년간 피우거나 매일 세 갑씩 10년간 피워도 검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암센터에서 사전 통보 또는 금연 프로그램 참가자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엔 공공 의료기관, 2019년엔 전체 민간 의료기관으로 사업을 확대한다.<br/><br/>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등도 수립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별 교육을 실시하고 인력 양성 단계에 암 생존자 전문교육 과정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1000명 내외의 중증 소아청소년 만성 질환자를 위해 소아 호스피스 제공 체계도 마련한다. 표준 모형을 먼저 개발한 뒤 시범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위암, 대장암에 한정된 확진검사 비용지원 대상에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국가 암검진 수검 여부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암 발생률 집계도 시·도별 방식에서 시·군·구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br/><br/>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9.txt

제목: [사설] 폐암도 국가 검진 대상… 암 예방·관리 더욱 강화해야  
날짜: 2016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12173114428  
본문: 국가의 암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3차(2016∼20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이 12일 확정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가 암검진 대상으로 폐암이 추가되고, 저소득층 암환자는 국가 암 검진 수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 137만명에 이르는 암 생존자들을 돕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권역별 통합센터가 운영된다.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br/><br/> 눈에 띄는 것은 내년부터 폐암 검진이 도입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만 무료로 검진받았다. 폐암은 암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22.8%)을 차지한다. 환자의 절반 정도가 말기에 발견돼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망률을 낮추려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30년간 하루 1갑 정도 담배를 피운 만 55∼74세 고위험 흡연군 8000명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무료 시행키로 했다. 시범사업이라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br/><br/>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다. 2014년 암 사망자는 무려 7만6000여명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암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존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암 진단 후 5년 생존율은 1995년 41.2%에서 2013년 69.4%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들 생존자도 개인적·사회적으로 각종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암 생존자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br/><br/> 각종 암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다. 지난달 말 일본 정부가 내놓은 ‘흡연과 건강영향’ 보고서도 흡연은 7가지 암(폐·구강·인후·식도·위·간·췌장),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등 22개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금연이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0.txt

제목: “기도와 찬양으로 형제는 승리했다 제가 증거해야죠”  
날짜: 201609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09201943936  
본문: “<span class='quot0'>아버지, 어머니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세요.</span>”<br/><br/> 크리스천 래퍼 비와이(본명 이병윤·23) 형인 팝페라가수 이병일(32)이 전한 부모의 근황이다. 비와이가 Mnet 힙합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5’ 우승을 하면서 가족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br/><br/> 지난달 30일 이병일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만났다. 터프한 매력의 동생과 달리 형은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였다. 아홉 살 차이 나는 동생 비와이의 인기에 가족들도 행복한 몸살을 앓고 있었다. “<span class='quot0'>‘쇼미더머니5’ 이후에 모르는 분들에게 하루 30여개의 메시지가 SNS를 통해서 온다</span>”며 미소를 지었다.<br/><br/> 형까지 유명세를 치르게 된 것은 비와이가 ‘쇼미더머니5’에서 “<span class='quot1'>형이 팝페라가수로, 어릴 때부터 계속 발성 연습을 시켰다</span>”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br/><br/> “제가 대학생 때 성악 발성을 5년 동안 가르쳤어요. 복식호흡을 하라고 하면서(웃음). (동생은) 성악의 톤이 좋았어요. 가르치면 잘 따라왔고 워낙에 끼가 있었죠. 그래서 래퍼로서 라이브할 때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보이스가 탄탄해요.”<br/><br/> 발성을 가르친 이유는 꿈이 없던 비와이가 어느 날 래퍼가 되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다. 부모도 랩이 생소했고 특히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다. 비와이는 혼자서 랩을 마스터해갔다. <br/><br/> 그는 “동생은 방안에 틀어 박혀 작사하고 비트 찍고 믹싱하고 다 했다”며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찾아가며 물어가며 했다. 두세 시간밖에 안 자고 한 옷을 거의 매일 입고 다니며 음악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br/><br/> 형제의 어린시절은 행복했다. 중앙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한 어머니와 대기업 연구원을 지낸 아버지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지냈다. 하지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 입원했고 어머니마저 암이 발견돼 운영하던 학원을 접었다. <br/><br/>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잘사는 애들은 돈 걱정 없이 살고, 우리 집도 예전에 잘 나갔었는데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어린 마음에 힘들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지내셨어요.”<br/><br/> 형제의 남다른 신앙의 중심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비와이는 기독교채널이 아닌 일반 방송에서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고백했다. <br/><br/> 이병일은 그런 동생이 자랑스러웠다. 그는 추계예대 성악과 재학 시절 선교단체 ‘대학합창단’에 소속돼 전국의 교회에서 찬양을 불렀다.<br/><br/> “외가는 불교였어요. 어머니만 크리스천이었고 핍박을 심하게 받으셨죠. 어머니가 다 전도하셨어요. 그렇지만 심하게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으셨고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여주셨어요. 늘 예배석에 계셨죠.” <br/><br/> 형제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켰다. 특히 비와이는 ‘쇼미더머니4’ 탈락 이후 하루도 빼지 않고 어머니와 새벽제단을 쌓았다. <br/><br/> 이병일은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5인조 클래식 크로스오버그룹 ‘컨템포디보’ 멤버로 중국에 진출한다. 중국 최대여행사 CTS가 오페라와 웹툰이 결합된 컨템포디보 공연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중국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성사됐다. 컨템포디보는 1년 동안 중국 100여개 대학을 순회하며 공연할 예정이다.<br/><br/> “어릴 때 축구선수가 꿈이었는데 어머니가 권유하셔서 성악을 시작했어요. 참 하기 싫었는데 대학에 가서 뒤늦게 성악의 매력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 전역에서 노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인천주안감리교회에서는 8년째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든 외부 행사든 우리 형제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고 복음이에요. 어떤 장르의 노래도 그 중심은 주님께 향해 있어요.”<br/><br/>글=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 사진=김보연 인턴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1.txt

제목: GMO 콩과 싸우는 함정희 집사 “GMO 콩으로 메주 쑨다 하면 믿지 마세요”  
날짜: 201609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09190011215  
본문: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토종 콩으로 두부와 청국장 등 콩 제품을 만들면서 유전자변형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맞서는 ‘콩 여장부’가 있다. GMO는 하나님이 창조한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윤을 독점하려는 인간 욕심의 산물이다.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우나 실상은 우리를 사망과 저주로 이끈다.<br/><br/>GMO콩과 싸우는 이는 ‘콩의 여왕’으로 불리는 함정희(63·함씨네토종콩식품 대표) 전주안디옥교회 집사이다.<br/><br/>함 대표는 16년째 오로지 국산 콩을 재료로 전통 발효식품을 만들고 있다.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함 대표를 지난 5일 전주에서 만났다. 그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건강한 밥상 차리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GMO식품을 이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br/><br/> 콩 박사 강의, ‘잠자던 거인’ 깨워<br/><br/> 전북 완주가 고향인 함 대표는 어린시절 집 주변이 너른 콩밭이었다고 했다. 또 함 대표의 집은 예배당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교회를 좋아하는 딸이 못마땅했다. 아버지는 교회 종소리가 싫어서 종이 깨지기를 빌었다. <br/><br/> 그런데 정말로 교회 종이 너무 오래돼 깨지는 일이 벌어지자 함 대표의 아버지는 정작 딸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1985년 하늘나라로 떠나기 4개월 전 어머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변화를 보였다. <br/><br/> 1972년 전주 성심여고를 졸업한 함 대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믿음생활에 착실했다. 20대 후반의 어느 날 운명처럼 한 남자가 함 대표의 가슴을 흔들었다. <br/><br/> “두부공장을 크게 한다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에게 두부는 먹거리 차원을 넘어 여러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가난한 이들의 한 끼 양식이자 교도소를 나온 죄지은 자들의 회개를 위한 먹거리이기도 하잖아요.” <br/><br/> 그런 남편은 수입콩협회 전북회장이었다. 돈 세는 기계를 쓸 정도로 돈도 많이 벌었다. 2녀 1남을 둔 행복한 가정생활이었다. <br/><br/> 그런데 46세 때 늦둥이가 생겼다. 함 대표는 고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여기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늦둥이가 세 살 되던 2001년 전주시청 강당에서 교양강좌가 열렸다. <br/><br/> 그때 강사로 나왔던 안학수 농학박사가 함 대표의 가슴속에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웠다. “GMO식품을 계속 먹으면 불치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독이 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콩을 심으면 4㎞ 밖에 있는 벌레도 알고 안 온다고 합니다.”<br/><br/> 늦둥이를 키우는 그녀에게 안 박사의 얘기는 충격이었다. 더는 수입콩으로 만든 두부를 팔 순 없었다.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어기는 죄를 알고도 계속 그럴 순 없었다. <br/><br/> 함 대표는 당장 실행에 옮겼다. 100여개 거래처에 앞으로 국산 콩만 쓰겠다고 통보했다. 남편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했지만 함 대표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남편도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다. <br/><br/> ‘하나님 생명’ 원칙을 따르자 2007년 남편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신지식농업인장을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국세청장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그에 힘입어 건강식품 마늘청국장환도 개발했다. 2009년에는 호남고속도로 전주IC 초입에 ‘함씨네 밥상’이라는 유기농 식당을 차리기도 했다. <br/><br/> 함 대표가 토종콩을 고집하는 이유는 GMO콩의 위험성을 알려서 창조정신을 회복하고 생명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는 돈에 비할 바가 아닐뿐더러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성경말씀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다. <br/><br/> “GMO식품의 메카인 아르헨티나 차고 지역은 GMO콩을 재배한 지 20년 만에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기형아 출산율이 높고 가축도 까닭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br/><br/> 그는 또 GMO식품들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유전자를 조작한 콩, 옥수수, 사과 등이 식탁에 마구 오른다. 그렇지만 크리스천조차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함 대표는 또 GMO식품을 2년간 먹은 실험용 쥐는 제초제에 함유된 ‘글리포세이트’라는 발암 물질로 인해 암에 걸렸으며 생식기능이 사라지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br/><br/> ‘뿌린 대로 거둔다’ 성경말씀 실천<br/><br/> 2014년 한국의 GMO곡물 수입량이 228만t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한 사례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일반 가정에서 매일 GMO식품을 먹어야 하고 대중음식점에선 아무 생각도 없이 GMO곡물을 이용한 요리를 내놓는데도 정작 대책이 없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된장, 고추장, 식용유 등도 GMO식품이 첨가돼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주부들조차 모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br/><br/> 함 대표는 현재 콩 재배농가가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토종콩 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했다.<br/><br/> 그는 지난 7년간 GMO 반대 전도사로 우리 콩으로 만든 전통 음식과 밥상 차리기 운동을 벌여왔다. 요즘은 GMO식품의 반생명적 요소와 식품회사들의 탐욕적 시스템에 대해 늦깎이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고려대 정보경영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원광대에서 보건행정학 박사학위에 도전하고 있다.<br/><br/> 그는 나이를 잊은 듯 생글거리며 해맑은 미소로 6년 전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머니의 애창곡 ‘희망가’를 부르더니 작별의 손을 내밀었다.<br/><br/> “우리 콩으로 만든 발효식품은 가장 좋은 GMO식품의 백신입니다.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콩 우리가 살려야죠.”<br/><br/>전주=글·사진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2.txt

제목: 길병원, IBM 인공지능 ‘왓슨’ 내달부터 암치료에 활용한다  
날짜: 201609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09000333518  
본문: 암 치료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술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다(사진).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이하 왓슨)’로 명명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컴퓨터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가천대 길병원에서 활용된다.<br/><br/> IBM과 가천대 길병원은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왓슨은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의사들이 암환자에게 개별화된 치료를 제공하도록 돕는다.<br/><br/> 왓슨은 300개 이상의 의학 학술지, 200개 이상의 의학 교과서 등 15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의료 정보를 학습했다. 1초에 책 100만권을 읽는 수준이다. 의사들은 왓슨을 활용해 최신 연구 결과와 임상 가이드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br/><br/> 로버트 메르켈 IBM 왓슨 헬스종양학 및 유전학 글로벌 총괄사장은 “<span class='quot0'>의학 문헌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 2020년에는 40일마다 정보량이 2배로 성장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현실적으로 모든 정보를 의사가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왓슨은 의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이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이언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추진 사업단장은 “<span class='quot1'>치료법 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의사이고, 왓슨은 의사가 의사결정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span>”고 강조했다.<br/><br/> 가천대 길병원은 왓슨을 유방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 위암 등 국내에서 많이 발병하는 주요 암 치료에 다음 달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IBM은 길병원과 함께 한국어와 국내 의료 가이드라인에 맞춘 현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br/><br/>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3.txt

제목: “바이오헬스 육성”… 수출 2배 ↑·일자리 18만개 창출  
날짜: 201609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08181242668  
본문: 2020년까지 보건산업 수출을 현재의 배인 20조원까지 늘리고 일자리도 18만개 더 창출하는 보건산업 종합 청사진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정밀의료 기술 및 희귀·난치병 치료제 개발 등으로 국민 건강수명도 76세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br/><br/>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그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부문별 대책은 있었지만 종합 육성 방안이 수립된 것은 처음이다.<br/><br/> 먼저 정밀의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정밀의료는 유전체 정보 등 건강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폐암 환자의 경우 현재는 표준치료에 따라 항암제를 처방하지만 정밀의료 도입 시 가족력, 생활습관 정보 등을 종합해 표적치료제를 처방한다. 이를 위해 최소 10만명을 대상으로 한 정밀의료 자원을 수집·축적할 예정이다. 3대 진행성 암인 폐암, 위암, 대장암 환자 1만명에 대한 유전체 자료도 확보한다. 표적치료제 개발을 통해 2014년 8.4%였던 3대 진행성 암의 5년 생존율을 2025년 14.4%까지 높일 방침이다. 정밀의료 기반 치료 시 국민의 건강수명도 2013년 73세에서 2025년 76세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br/><br/>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첨단재생의료법도 제정해 희귀·난치성 환자 등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지원한다. 병원 내 신속 적용 제도를 도입해 환자가 사용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2∼5년에서 3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한다.<br/><br/>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시장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현재 3개에 불과한 글로벌 신약을 2020년까지 17개로 늘리고, 2018년까지 국내 기업 2곳이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미국·유럽(100%), 일본(59%)에 비해 떨어지는 백신 자급률(39%)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116억원을 투입하는 등 투자를 확대한다. 2019년 3300억 달러로 확대될 글로벌 화장품 시장 공략을 위해 피부과학 원천기술과 항노화 제품의 원천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글로벌 톱10 화장품 기업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br/> 또 2018년까지 병원·기업·연구소가 결합한 ‘한국형 메디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모두 2조8400억원을 투입한다.<br/><br/>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4.txt

제목: 세계 첫 안면이식 佛여성, 수술 11년 만에 사망  
날짜: 201609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07210104254  
본문: 2005년 11월 세계 최초로 안면이식 수술을 받았던 프랑스 여성 이자벨 디누아르(49·사진)가 지난 4월 수술 11년 만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디누아르의 수술을 맡았던 아미앵 종합병원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디누아르가 오랜 투병 끝에 지난 4월 22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 사망 사실을 늦게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다.<br/><br/> 르 피가로 등 현지 언론은 디누아르가 이식수술 후 거부 증세를 겪어 왔다고 보도했다. 강력한 항진제를 맞느라 두 종류의 암에 걸렸고 증세가 악화되면서 입술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다.<br/><br/> 당시 아이 둘을 키우는 미혼모였던 디누아르는 수면제를 복용해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키우던 개에게 얼굴 아랫부분을 물렸다. 아무리 짖어도 주인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누아르는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담배를 피우려다 잘 안돼 거울을 보니 코와 입 부분이 떨어져나간 상태였다</span>”고 설명했다. 개는 도살당했고 디누아르는 자살한 프랑스 여성의 얼굴 일부분을 제공받아 세계 최초로 부분 안면이식 수술을 받았다.<br/><br/>김미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5.txt

제목: 송강호·이병헌·정우성, 9월 스크린서 ‘새로운 놈’ 대결  
날짜: 201609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06173702146  
본문: 송강호(49) 이병헌(46) 정우성(43). 연기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믿고 보는’ 배우들이다. 세 배우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극장가에 나란히 흥행 대결을 벌인다. 이들은 김지운 감독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에서 공동 주연을 맡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이후 다양한 작품에서 활동하다 8년 만에 각기 독특한 배역으로 관객몰이에 나섰다. 카리스마 넘치는 세 배우의 연기와 흥행 싸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br/><br/> 송강호 이병헌 김지운의 재회 ‘밀정’<br/><br/> 송강호는 김지운 감독과 ‘조용한 가족’(1998) ‘반칙왕’(2000) ‘놈놈놈’에 이어 네 번째 호흡을 맞췄다. ‘놈놈놈’에서는 ‘이상한 놈’이었으나 ‘밀정’에서는 ‘수상한 놈’으로 변신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 이정출 역을 맡았다. 송강호는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을 색출하면서 돕기도 하는 회색빛 캐릭터를 특유의 노련미로 연기했다.<br/><br/> 이병헌은 의열단장 정채산 역으로 특별출연한다. 이병헌과 김지운 감독은 ‘달콤한 인생’(2005) ‘놈놈놈’ ‘악마를 보았다’(2010)에 이어 4번째 만남이다. 송강호와는 8년 만의 재회다. 이병헌은 ‘밀정’에서 짧고 굵게 나오는데 “역시 이병헌”이라는 찬사가 쏟아질 정도로 강력한 이미지를 내뿜는다. 송강호와 회동하는 장면에서는 긴장감이 팽팽하다. 7일 개봉.<br/><br/> 7인의 무법자 이병헌의 ‘매그니피센트 7’<br/><br/> ‘놈놈놈’에서 ‘나쁜 놈’을 연기했던 이병헌은 오는 14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개봉되는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매그니피센트 7’에서 ‘착한 놈’으로 출연한다. ‘황야의 7인’(1960)을 리메이크한 영화로 정의가 사라진 마을을 지키기 위해 7인의 무법자들이 한데 모여 통쾌한 복수극을 벌인다. 이병헌은 7인 가운데 미스터리의 빌리 락스 역을 맡았다.<br/><br/>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레드: 더 레전드’ ‘지. 아이. 조 2’ 등 할리우드 영화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이병헌은 이번에도 덴젤 워싱턴, 크리스 프랫, 에단 호크 등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br/><br/> 특히 명사수 굿나잇 로비쇼 역의 에단 호크와 복식조로 등장해 환상의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국내외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br/><br/> 잘 생긴 정우성의 악역 변신 ‘아수라’<br/><br/> ‘놈놈놈’에서 ‘좋은 놈’으로 나왔던 정우성은 ‘아수라’에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강력계 형사 한도경으로 ‘나쁜 놈’이 됐다. 극 중 말기 암 환자인 아내의 병원비를 핑계로 악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배역을 소름 끼칠 정도로 리얼하게 해냈다. 정우성은 ‘마담 뺑덕’ ‘신의 한 수’에서도 이중 캐릭터를 선보였으나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열연했다고 한다.<br/><br/> ‘비트’(1997) ‘태양은 없다’(1998) ‘무사’(2001)의 김성수 감독과 15년 만의 재회이자 네 번째 호흡을 맞추었다. 이권과 성공을 위해 혈안인 악덕시장 박성배 역의 황정민, 한도경의 약점을 쥔 독종 검사 김차인 역의 곽도원, 한도경을 이용해 박성배의 비리를 캐려는 검찰수사관 도창학 역의 정만식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28일 개봉.<br/><br/>이광형 문화전문기자 gh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6.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78)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골연부종양·전이암센터] 골육종 소녀에 희망 건넨 드림팀  
날짜: 201609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05204526248  
본문: ‘유 빌리브, 위 케어!(You believe, we care!)’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골연부종양·전이암센터의 슬로건이다. ‘믿어라, 우리가 치료한다’ 정도로 새겨진다.<br/><br/>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골연부종양·전이암센터(센터장 정양국·정형외과 교수)는 문패 그대로 원발성 골연부 조직에 생긴 종양과 뼈 전이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학제 통합진료를 수행하는 전문 진료소다. 골연부종양이란 뼈와 연골,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근육 및 근막·힘줄·인대 등 섬유조직과 지방조직에서 생긴 신생물(新生物)을 가리킨다. 골연부조직에 발생한 악성종양, 골육종이 대표적이다. 뼈는 또한 전이암이 잘 생기는 부위이기도 하다.<br/><br/>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골연부조직의 원발성 육종은 전체 암의 약 1%를 차지하는 희귀암이다. 하지만 여기에다 내부 장기의 암이 옮겨 간 뼈 전이암까지 포함시키면 그 숫자는 두세 배 이상 늘어난다. 치료를 않고 방치할 경우 모든 암의 80%는 뼈 전이를 일으킨다.<br/><br/> 골연부종양의 진단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뼈 암은 대부분 통증을 동반하는데, 이를 단순 성장통이나 관절통으로 여기다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뼈 주변의 근육, 연골, 지방 등과 같이 연부조직에 생긴 암(연부조직 육종)은 통증이 없는 덩어리가 첫 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많은 육종 환자들이 암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고 종양을 키우게 된다. 특히 여유 공간이 큰 허벅지나 골반 강, 후복막 부위에 육종이 자랄 때는 혹이 상당히 커진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br/><br/> 따라서 팔다리와 골반, 척추 뼈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프거나 주위 살 속에서 혹이 만져질 경우 육종 또는 뼈 전이암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고, 곧바로 전문 의료기관을 찾는 게 안전하다.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골연부종양·전이암센터는 이럴 때 국내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천되는 곳 중 하나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골육종 다학제 협진팀을 조직해 신속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많은 골연부종양 및 뼈 전이암 환자들을 살려내고 있다.<br/><br/> 정형외과 정양국·김영훈·신승한 교수팀과 종양내과 강진형·이지은 교수팀, 혈액종양소아청소년과 정낙균·이재욱 교수팀, 영상의학과 지원희·정준용 교수팀, 병리과 정찬권 교수, 핵의학과 유이령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연실 교수, 전문 간호사 이정훈, 정수민 코디네이터팀 등이 바로 그들이다.<br/><br/> 센터장인 정양국(56) 교수는 2014∼2015년 대한골관절종양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동아시아 근골격계 종양연구그룹(EAMOG)의 주요 멤버로 활동하며 다기관 국제 공동연구를 이끌고 있는 골연부조직 육종수술 전문가다. 정 교수는 2012년 어깨 부위에 생긴 골육종으로 팔을 절단해야 하는 위기에 놓인 페루 소녀 하이디 로리아니(12)양을 치료해 새 삶을 안겨주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로리아니양은 암 절제는 물론 동종골 이식을 통한 팔뼈 재건에도 성공해 당시 큰 화제가 됐다.<br/><br/> 정 교수는 신승한 교수와 함께 종양수술에 미세수술기법을 접목시켜 종양절제 및 재건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구조적으로 복잡한 골반 뼈나 관절 주위에 생긴 종양의 경우 컴퓨터 내비게이션 수술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골반 및 관절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하는 정밀 종양 절제술을 시행해 호평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이 치료법으로 2012년에 제9차 아시아태평양 골관절종양학회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br/><br/> 정 교수는 최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재건체를 제작, 뼈 결손부위를 재건해주는 연구를 적극 추진 중이다. 3D 프린팅 기술로 정 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제작한 맞춤형 재건체(再建體)를 이식받은 견갑골 결손 환자는 관절기능 회복은 물론 겉보기에도 어깨를 다친 흔적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br/><br/> 정 교수팀은 또한 절제 시 대량 출혈이 불가피한 골반 내 거대종양이나 혈행이 풍부한 뼈 전이암의 경우 중재영상의학과 이해규·천호종 교수팀의 지원을 받아 수술 전 혈관색전술(혈관의 일부를 막아 피가 안 통하게 하는 시술)을 시행, 수술 중 출혈과 종양세포의 이동을 극소화하고 있다. 고난도의 복잡한 종양수술이라 특정 진료과목 의료진만으로는 정교한 절제가 어려울 경우엔 대장항문외과 김준기·이인규 교수팀, 산부인과 허수영·이근호 교수팀, 흉부외과 문석환 교수, 혈관외과 김장용 교수, 성형외과 문석호 교수 등과 공동 수술팀을 구성해 성공률을 높인다.<br/><br/>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육종과 뼈 전이암 치료에 있어서도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는 중요하다. 육종의 미세 전이를 억제해 완치율을 높이고, 진행 암의 경우에도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팀은 이를 위해 혈액종양내과 강진형·이지은 교수팀과 혈액종양소아청소년과 정낙균 교수팀의 오랜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수술 전후 표적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맞춤형 항암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김연실 교수팀(폐암센터장)은 국내 두 번째로 사이버나이프를 도입·가동하는 등 방사선 종양치료를 선도해왔다. 최근 모든 육종 암에 대한 3차원 입체조형 장치와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br/><br/>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골연부종양·전이암 센터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암 환자의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뼈 전이암 치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뼈 전이암에 특화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조합, 4병기 암 환자도 정상인 못지않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흔히 시한부 인생으로 여겨지는 진행성 암 환자에게 팔다리 수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기대이상의 좋은 운동기능 회복과 통증 완화로 아주 만족해한다.<br/><br/> 정양국 교수는 5일 “<span class='quot0'>다른 병원, 다른 나라에서 절망적인 소견만 듣고 온 중증 골육종 및 뼈 전이암 환자들에게 서울성모병원 골연부종양·전이암센터 다학제 협진팀은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도 밤샘 수술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7.txt

제목: [사설] 내시경 장비 불량 관리한 동네의원 명단 공개해야  
날짜: 201609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05183646993  
본문: 동네 의원 10%가 위·대장 암 검진 때 사용한 내시경 장비를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급 암 검진기관 3288곳의 내시경 장비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330곳에서 미흡한 점을 적발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 의원 가운데 88곳은 내시경 기기를 깨끗하게 세척·소독하지 않았고, 242곳은 스코프(몸속으로 집어넣는 관)를 기준에 맞게 보관하지 않았다. 내시경 검사가 끝나면 해당 기기는 고온 멸균을 하거나 약품으로 소독하고 증류수로 헹궈야 한다. 스코프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하고 관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예 소독·세척을 하지 않은 의원은 없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다.<br/><br/> 사용한 내시경 장비를 의료기구 사용 지침에 따라 완벽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검진자가 B형간염·C형간염·결핵 등에 감염될 수 있다. 특히 검진 과정에서 조직 검사를 하거나 용종을 제거하면 감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멀쩡한 사람이 위·대장 암 검진을 받고 전염병에 걸린다면 말이 되겠는가. 이번에 적발된 의원들은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내시경 장비의 사후 관리를 등한히 했을 것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검진 대상인데도 ‘더러운 장비’를 사용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의료진은 의술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br/><br/> C형간염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의료진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일부 의료진이 자행하는 비뚤어진 직업윤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의료단체는 의료계의 자정운동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전체 의료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만다. 보건 당국은 하나 마나한 조치를 취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관리 정도가 심한 의원은 명단을 공개해 의료 고객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의료진이 환자와 검진자를 우롱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8.txt

제목: 새집증후군 막으려면… 요리후 반드시 환기, 유아 바닥 접촉 피해야  
날짜: 2016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04204637010  
본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새 집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인 ‘새집증후군’을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윤경 한림대성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새집증후군극복에 대해 알아본다.<br/><br/><br/><br/> 증상은 여러 가지… 집 벗어나면 완화<br/><br/> 새집증후군이란 새로 만들어진 집에 들어갔을 때 비염, 두통, 복통, 잦은 감기 등의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건강 영향 증후군을 말한다. 즉 어떤 특정한 질환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은 다를 수 있다. 특히 아토피나 비염, 천식 등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증상이 보다 더 악화돼 나타나게 된다. 또한 새집증후군은 새집에 들어간 뒤 한 달에서 1년 이내에 발생하게 되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그 집을 벗어나 있을 때는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특징이다.<br/><br/><br/><br/> 아이뿐 아니라 성인도 주의해야<br/><br/> 흔히 새집증후군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아이들에게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인도 아이와 마찬가지로 새집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새집증후군으로 인해 가려움 증상이 생길 경우 성인은 참는 등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아기는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물론 새집증후군은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아기인 경우 아토피가 더 심해지거나 감기,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질환들의 증상이 더 오래가고 경과가 더 악화되며, 치료가 잘 듣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br/><br/><br/><br/> 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가 주원인<br/><br/> 그렇다면 새집증후군은 왜 생기는 것일까? 가장 주된 원인은 ‘포름알데히드’라는 유기화학물질이다. 새집에 들어가는 건축자재물이나 벽지, 바닥재 등을 붙이기 위한 본드나 외장을 꾸미기 위한 시트지 등에 바로 이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돼 있다. 그 외에도 집에 새로 난방 등을 들이면서 배기가 잘 안 돼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나, 밀폐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경우 등도 새집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br/><br/> 예방은 ‘베이크 아웃’이 최선<br/><br/> 새집증후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br/><br/> 첫째는 애초에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지 않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베이크 아웃(Bake out) 공법을 사용하는 것. 베이크 아웃은 이름 그대로 방을 구워내는 것을 말하는데, 포름알데히드는 온도가 높을수록 휘발되기 때문에 방을 밀폐된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을 하면 많은 양의 포름알데히드가 한꺼번에 나오게 된다. 그 다음 환기를 시켜서 배출된 포름알데히드를 바깥으로 내보내서 농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이다.<br/><br/>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는 베이크 아웃 후에도 매일 환기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포름알데히드는 고온에서 많이 휘발되기 때문에 요리를 하거나 겨울철 난방을 할 때도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 또한 바닥 장판이나 타일에 특히 본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토피가 있는 아기가 있다면 아기가 바닥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br/><br/>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9.txt

제목: [신약강국 현장을 가다] 녹십자 박두홍 종합연구소장, 신약 제품화 완성까지 ‘가치 사슬’ 움직여야  
날짜: 2016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04193819914  
본문: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가치를 키워가는 ‘가치 사슬(Value Chain)’이 한국에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제품화 최종 단계를 책임지는 제약기업의 역량과 성공경험의 축적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br/><br/> 녹십자 박두홍 종합연구소장(부사장)은 ‘신약강국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묻자 이같이 밝혔다. 박 소장은 “<span class='quot0'>신약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고, 후보물질 도출부터 CMC 개발, 비임상, 임상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제품화가 완성되는 프로세스</span>”라며 “<span class='quot0'>이 과정이 성공하기까지는 어느 한 연구자의 역량만으로 부족하며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함께 감당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br/> 그를 만난 곳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녹십자 중앙연구소다. 연면적 2만8330㎡(8600평) 규모의 이곳은 우리나라 백신 및 혈액제제 분야 연구개발(R&D)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회사 창립후 50여년간 연구자들은 이곳에서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거듭하며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녹십자는 B형간염 백신을 개발하고, 최근에는 국산 신약인 헌터증후군 치료제를 개발했다. <br/><br/> 박 소장은 녹십자의 신약 후보 물질 연구를 담당하는 목암연구소의 수석연구원과 소장을 거쳐, 지난 2012년 말부터 녹십자 종합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회사에서 23여년을 연구개발에만 주력해왔다. 목암연구소와 종합연구소가 서로 공조하며 신약 개발 및 임상에서 좋은 성과물을 내고 있다. 지난 20년 간 국내 연구개발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박 소장은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며 “당시만 해도 제네릭 중심의 제약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녹십자를 포함해 한미약품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해 성과를 내는 단계에 왔다”고 술회했다.<br/><br/> 박두홍 소장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글로벌 시장에서 안 팔리면 소용이 없다. 차별화 된 의약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신약개발에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사는 혈액제제와 백신 분야에서 집중을 해 온 결과,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내놓았다. 앞으로 희귀질환치료제와 항암제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br/><br/> 녹십자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백신, 바이오의약품 합성신약 등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뉜다. 녹십자는 40여년 동안 백신과 혈액제제 연구개발에 집중해 왔다. 인플루엔자 4가 예방백신(유정란), 조류인플루엔자A(H5N1) 백신, 수두백신,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백신, 탄저균 백신 등 다양한 백신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혈액제제 분야에서도 기대가 되는 제품도 있다. 지난 2년 간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이하 IVIG)’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가 임박했다.<br/><br/> 눈에 띄는 분야는 ‘바이오의약품’ 영역이다. 녹십자는 희귀질환인 헌터증후군인 ‘헌터라제’(미국 임상 2상)과, 선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인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미국 허가 신청)’, A형 혈우병 치료제인 ‘그린진에프’(글로벌 3상)를 국내에서 기출시했다. 또 다른 바이오의약품으로는 B형간염 항체치료제 ‘GC1102’(2상)를 준비 중이다. <br/><br/> 앞으로 기대가 되는 치료는 항암제다. 녹십자는 대장암 치료제 ‘GC1118A’와 유방암(허셉틴의 바이오베터) 치료제 ‘MGAH22’ 등을 개발해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 박 소장은 대장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머크가 개발한 얼비툭스가 대표적인 대장암치료제인데 우리는 이 표적항암제와 다른 부위를 바인딩한다. 기존 항암제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0'>다만 국내에서 임상3상을 끌어가기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2상 초반부터는 라이센싱아웃을 통한 개발 전략으로 계획 중</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 최근 제약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면역’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이다. 녹십자는 백신 개발을 오랫동안 하면서 면역 분야에서 수많은 노하우를 쌓았다. 박 소장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이용해 암과 싸우는 ‘면역항암제’도 관심 분야다. 면역관련 바인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피고 후보물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 신약개발 단계 마다 위기는 따르기 마련이다. 박 소장은 “신약개발은 정신(spirit)만 갖고는 안되고,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 오랜 연구개발을 통해 터득한 것은 문제를 조기에 빠르게 노출해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이다. ‘문제가 있는 것을 없게 하는 것’이 연구 아니겠느냐”며 “후보물질이 나왔을 때 임상 시험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자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왔다. 쉽게 설명하면, 모든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하는 후보물질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 밖에 없다. 프로젝트의 리더는 자신의 약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흐려질 수 있다. 이럴 때 안전성, 약의 효능 등을 객관적으로 체크하고 제품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제약산업을 꼽았지만 여전히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소장은 “<span class='quot0'>정부의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고 길게 가져기발 바란다</span>”고 당부했다. 녹십자는 SK케미칼 등과 선의의 경쟁도 펼치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우리는 좋은 협력을 할 수 있는 곳을 늘 찾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한미약품 같이 랩스커버리 플랫폼 등의 강점을 가진 회사들과 콜라보를 한다면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신약개발과 관련 박두홍 소장은 “우리나라가 제약 분야에 있어서 사실 매출이나 규모는 아직 다른 영역에 비해 영세하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끈기를 갖고 가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br/><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0.txt

제목: 정밀의료를 국가전략으로… ‘醫토피아’ 열리나  
날짜: 2016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04192656742  
본문: 최근 정부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발표한 가운데, 그 중 하나인 ‘정밀의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밀의료는 개인의 유전체정보와 진료정보를 고려한 맞춤의료(유전체 의학)와 건강, 생활환경, 습관(Lifelog) 정보에 기반한 건강관리(모바일 헬스케어)가 통합된 맞춤형 예측 의료(예방·진단·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난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본격 추진을 선언하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의학계에서 정밀의료는 진료의 정확도와 치료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여겨지고 있다.<br/><br/>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내에 국민 건강정보와 AI(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가 개발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에 나선다. 국민들의 성별, 연령, 유전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별 정보를 수집해 연구 및 신약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자원 연계·활용시스템 구축이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의 핵심이다. <br/><br/>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정보, 인체자원정보 등 정밀의료를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였다. 하지만 각 기관과 연계가 미흡하고 정보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정보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을 통해 정부는 개별기관이 보유한 유전정보(10만명), 의료정보(병원), 건강정보(약 100만명), 생활환경·습관 정보를 ‘정밀의료 정보통합 시스템’ 하나로 관리한다. 또한 이를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미국 100만 코호트(구축예정), 일본 15만 코호트(기구축)를 기반으로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도 추진 중이다.<br/><br/> 맞춤형 의료를 위한 의료기술 개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정밀의료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밀의료발전특별법’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말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검사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유전체 의학,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등 정밀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도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전문가에 대한 재교육 과정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250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상태며 현재 5개 과제에 대한 예산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정밀의료분야에 정부는 5년간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br/><br/> 정밀의료를 통해 암 부터 정복에 나선다. 정부는 한국인 3대 암(폐암, 위암, 대장암)과 관련한 1만 명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항암 진단·치료법이 개발되고 실제 환자에 적용한 환자는 유전체, 생활습관 등 자신의 특성에 맞는 치료법과 의약품을 처방받게 된다.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 등 불필요한 비용은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해 이에 맞는 건강관리로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다.<br/><br/>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및 첨단 모바일 기기’도 개발한다. 직장인, 신고령층(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도구에 적응력이 향상된 50∼60대 인구), 암 생존자들이 그 대상이다. 또한 올 초 이세돌 기사와 바둑대전으로 화제가 됐던 AI 인공지능 기술도 활용된다. 정부는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진단·치료 지원 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ing System)’도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시스템이 실제 환자 치료 등 임상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국내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상·임상적 유효성 검증도 진행된다. <br/><br/>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면 제약기업은 유전체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 신약개발 성공확률을 높이고, 유전질환 등 난치병 치료약 개발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다. 연구자 또한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연구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br/><br/> 정부의 정밀의료 발전 추진에 대해 의료계와 산업계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먼저 산업계는 정밀의료를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헬스케어 산업이 진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br/> 김홍진 인성정보 U헬스산업본부 이사는 “모바일 등 스마트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영역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시장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새로운 기술의 수용도가 높고 IT기술 수준도 상당하기 때문에 의료와 ICT,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있게 성장할 역량이 충분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김 이사는 “<span class='quot0'>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정보, 데이터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span>”고 덧붙엿다.<br/><br/> 의료계는 유전체 의학 발전 및 빅데이터 활용으로 의료현장의 질병 치료효과를 높이는 등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br/>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span class='quot1'>체계적인 한국형 암 치료시스템을 만드는 시도는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의 폭을 넓히는 일이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span>”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span class='quot1'>다만 국내의 의료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인데 국민의 의료정보 등을 산업계에 개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의 수순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span>”고 말했다. <br/><br/>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1.txt

제목: [인터뷰] 박웅양 삼성유전체연구소장 “유전체의학 치료활용 수준까지 향상”  
날짜: 2016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04192656097  
본문: “<span class='quot0'>나이, 성별, 생활패턴, 유전체 등의 정보가 현재의 나와 가장 비슷한 사람들에 관한 빅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 등을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span>” 박웅양 삼성서울병원 삼성유전체연구소장은 정밀의료를 통해 변화될 미래의료의 모습에 대해 이같이 예견했다. 박 소장은 “<span class='quot1'>정밀의료는 기존의 유전체 의학과 관련 빅데이터 등의 연구가 실제 환자 치료에 활용될만한 수준까지 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span>”며 “<span class='quot1'>환자 치료에 있어 ‘정답’을 찾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박 소장이 속한 삼성유전체연구소에서는 유전체 연구와 유전체 분석으로 나온 생물데이터를 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술 등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계는 인간 유전체의 염기서열 분석, 암 유발 유전체 파악 및 치료법 연구 등 유전체와 관련한 연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정밀의료 개발을 추진한 배경에는 이러한 높은 의료수준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인 3명 중 1명에게 발병하며 재발률이 높은 ‘암’도 정밀의료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r/><br/> 박 소장은 “<span class='quot1'>이전에는 동일한 항암제를 여러 암 환자에게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유전체 등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맞는 정교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암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표적 항암제를 찾아서 치료 효과는 높이고 항암치료의 부작용은 감소하는 방향</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 정밀의료에 있어 새롭게 떠오른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NGS)은 한 사람의 유전체 분석으로 통해 나오는 여러 개의 유전자와 맞는 표적항암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 사용하던 분석기법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도 크게 절약돼 활용도가 높다. 한 사람의 유전체 분석 시 보통 1TB(테라바이트) 상당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되는 지도 중요한 지점이다. 유전체 검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환자에 맞는 치료제를 매칭하는 한편, 다양한 데이터를 마련해 표적 항암제 등 치료제의 개발도 추진할 수 있다. <br/><br/>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치료법에 대한 해답이 100%나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표적 항암제의 수는 암의 종류 및 다양한 암 유발기전에 비하면 적은 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 효과는 기대해볼만 하다.<br/><br/> 박웅양 소장은 “대개 암 환자의 유전체 분석으로 50%의 환자는 어떤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결과가 나온다. 이는 대개 기존 치료법에 비해 2배 정도 치료 반응이 좋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소장은 “<span class='quot1'>유전자 검사로 유전자의 변이가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을 실시해 실제 치료에 있어 활용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으로 의료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활발한 표적항암제의 개발과 치료제 적용 대상 암종 및 치료제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br/>전미옥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2.txt

제목: 말기암 투병하던 아내·돌보던 남편, 실종 하루 만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날짜: 2016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02001017537  
본문: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돌보던 남편과 아내가 실종 하루 만에 야산에서 나란히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br/><br/> 1일 오전 11시쯤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관 인근 야산 나무에 A씨(68) 부부가 나란히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주변을 수색하던 의무경찰대원이 발견했다.<br/><br/> A씨 부부는 아내 B씨가 60번째 생일을 맞은 전날 오전 10시50분쯤 야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br/><br/> 주민들은 “자신들의 목을 맬 나일론 끈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간 부부의 마지막 길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고 입을 모았다.<br/><br/> 31일 오후부터 A씨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은 아들이 순천시 용당동 소재 부모의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4쪽 분량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br/><br/>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부부의 마지막 위치를 파악하고, 경력을 동원해 수색을 벌여 이들을 발견했다.<br/><br/> 폐암 환자인 B씨는 두 달 전부터 심한 두통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됐다는 사실을 알고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br/><br/> 자녀는 “어머니가 2달 전 말기 암 판정을 받았으며 아버지가 이를 알고 많이 힘들어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 경찰은 폐암 말기 환자인 아내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혼자 떠나보내지 못하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br/><br/>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3.txt

제목: [역경의 열매] 윤희상 지방공연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날벼락’  
날짜: 201608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31203744457  
본문: 내 인생의 히트곡 ‘카스바의 여인’으로 오랜 시간 무명가수로 보낸 설움을 말끔히 씻어냈다. 가수의 꿈을 이루고 세상의 명예도 얻었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다른 가수들보다 빨리 히트곡을 늘려야겠다는 끝없는 조급증에 더 바쁘게만 보냈다. 트로트계 4인방에 들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다.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도 있어서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많은 행사와 밤무대, 공연장 등에서 노래를 불렀다. ‘카스바의 여인’ 이후 발표한 ‘텍사스 룸바’도 많은 인기를 얻었고 신곡을 홍보하며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다. <br/><br/> 2004년 10월 29일 오후 5시42분.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4.5t 트럭과 추돌사고로 차는 전복됐고 나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매니저 없이 직접 차를 몰고 목포로 가던 길이었다. <br/><br/> 몸을 많이 다쳐 전남대병원,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성모병원까지 세 군데를 거쳐야 했다.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참아낼 수 없는 고통에 눈을 뜬 것이다. 이제껏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만한 고통은 이전과 이후에도 없었다.<br/><br/> 정신을 되찾고서야 앞니 6개가 빠졌다는 걸 알았다. 전국노래자랑, 목포가요제 등 TV 녹화를 앞두고 있던 나는 하루빨리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방송 출연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일어나려는 순간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사고로 광대뼈 함몰, 각막 파열, 콧대 함몰, 이빨 빠짐, 갈비뼈 골절, 폐 손상을 입은 것이다. 결정적으로 목뼈가 부러져 ‘경추 5∼6번 사지마비 척수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눈이 썩어 오른쪽 눈을 빼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내가 도저히 그 수술은 할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해 강남성모병원으로 옮겼다. 3∼4번의 수술 끝에 다행히 0.4의 시력으로 회복됐다.<br/><br/> 그러나 노래를 영원히 부를 수 없고 사지마비로 평생 침대에 누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땐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머리 속엔 오로지 죽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가까운 후배를 통해 제초체를 얻어 자살하려 했지만 누가 그 부탁을 들어주겠는가. 자살마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원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br/><br/> 병동이 부족해 암병동으로 옮겨졌다. 암 환자들과 같이 생활하던 어느 날, 옛 친구가 목사님을 모시고 문병을 왔다. 친구는 성경책을 선물로 주며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들은 나는 “다시는 병원에 오지 말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오히려 같은 병동에 있던 암 환자들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들이 목사님께 기도 받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살고 싶으면 저럴까’라며 비웃었다.<br/><br/> 같은 병실에는 성격이 거친 암 환자가 있었다. 그의 친동생이 목회자였다. 동생은 형의 구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형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영접했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떠나게 됐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가 부럽기만 했다. 죽을 수도 없었던 나는 계속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방법만 연구했다. <br/><br/>정리=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4.txt

제목: [미션 톡！] 끝까지 주님만 바라본 ‘담대한 죽음’  
날짜: 201608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30211832056  
본문: ‘담도암 4기입니다. 암은 폐와 뼈까지 전이됐습니다.’ <br/><br/> 기침이 심해 폐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러 갔던 병원에서 전해들은 진단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용준씨에게 병마는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둔 38세의 가장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며 신학교(장로회신학대 신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기독교 포털 갓피플에서 기독교 음반 담당자로 10년 넘게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br/><br/> 암 진단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11월 4일부터 그는 페이스북(facebook.com/azazkoz?fref=ts)에 투병일기를 적어나갔습니다. 원망이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삶을 회개하고, 신앙인으로서 감사와 기도를 통해 병마와 싸운 과정을 남겼습니다. <br/><br/> ‘담도암 12일째, 이 시기를 주님이 주신 새 삶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필요만을 주님께 구하여 연명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시간이 아직 있으므로 언젠가 죽는다 해도 축복입니다.’ 각각 지난해 11월 16일과 18일 올린 글입니다. <br/><br/> 그가 항상 의연했던 것은 아닙니다. 암 발병 사실을 알리며 어머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계속되는 통증에 두려워하며 ‘주여 속히 나에게 오소서. 내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라고 간구했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br/><br/> 그러나 병세가 악화되는 과정에서도 감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드리는 감사의 기도’란 제목으로 ‘주님, 예정된 치료를 마치고 오늘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믿고 또 믿습니다’라고 남겼습니다. <br/><br/> 지난달 6일에는 ‘물 한 모금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입술이 간신히 마르지 않을 정도로 흐르는 물이 주님이 주신 생명수 같습니다. 오직 기도와 예수의 보혈로 내 몸을 덮습니다’, 19일에는 ‘교만에 선봉에 서지 않고, 찬양의 제사장이 되어 이 영적 전쟁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br/><br/> 그의 투병일기를 본 찬양사역자 송정미씨 등 많은 크리스천들이 쾌유를 빌며 격려했습니다. 예수전도단 출신의 고재필 전도사는 ‘이용준 형제를 통해 삶에 닥쳐온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이신 것을 배운다.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br/><br/> 용준씨는 지난 20일 죽음을 맞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동시에 신앙인으로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 지인은 “<span class='quot0'>투병 중에도 남긴 기도와 묵상, 고통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했음을) 기억하며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한다</span>”고 다짐했습니다. 용준씨가 병마와 싸우며 신앙인으로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과정은 크리스천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쏟아지는 세태에 큰 울림이 됐습니다. <br/><br/> ‘주가 나를 돌보사 내게 복을 주셨네…그의 이름 거룩하며 그의 긍휼 영원하네.’ 용준씨의 아내인 찬양사역자 김명선씨가 지난 4월 발표한 찬양 ‘주가 나를 돌보사’의 가사 중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용준씨의 가정에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br/><br/>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5.txt

제목: 항암치료 부작용 예방 주사제, 성인 ADHD 환자도 건보 혜택  
날짜: 201608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30182026375  
본문: 다음 달 1일부터 항암치료 부작용을 막아주는 주사제의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4700여명의 암 환자 주사치료 비용(1주일 기준)이 1인당 84만원에서 4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65세까지로 넓어진다.<br/><br/>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암 환자의 ‘호중구(백혈구 일종) 감소증’을 예방하는 주사에 대해 건보 적용 범위를 넓힌다고 30일 밝혔다. ‘호중구 감소증’은 항암치료를 받을 때 흔히 발생하며 세균 감염 위험을 높인다. ‘과립세포군 촉진인자(G-CSF)’ 주사제는 이런 부작용을 예방·치료하는 약제다. 이 주사약을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건보 적용 대상이 기존 5개 암, 11개 항암요법에서 10개 암, 40개 항암요법으로 늘어난다. 방광암, 골암, 중추신경계, 연조직육종, 횡문근육종, 신경모세포종 등을 앓는 암 환자들이 추가로 혜택받게 된다.<br/><br/> ADHD 치료제의 건보 적용 대상은 기존 6∼18세에서 6∼65세로 확대된다. 성인기에 ADHD 진단을 받은 약 2300명이 추가로 치료비 부담을 덜 전망이다. 성인 ADHD 환자도 사회·경제활동에 제약이 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건보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내야 했다. 건보 적용으로 5개월간 약제비용이 기존 60만7200원에서 18만2160원으로 3분의 1가량 줄어든다.<br/><br/>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정확한 진단 및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최초 치료제 투여 시 소견서를 한 차례 첨부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6.txt

제목: [헬스 파일] 자외선 노출 피부암 주의  
날짜: 2016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29175001852  
본문: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환자를 2000여명이나 발생시킨 폭염이 한풀 꺾였다. 하지만 지금부터 가을볕을 경계해야 한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하지만, 한 낮엔 따가운 가을 햇살을 받으면서 늦더위가 이어지는 날씨도 피부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br/><br/>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자칫 소홀히 하면 피부암에 노출될 수 있다.<br/><br/> 피부암은 피부에 암세포가 발생해 성장하고 다른 기관에까지 전이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부암은 악성 흑색종 같이 극히 일부만 제외하곤 대부분 조기 진단할 경우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다. 다만 피부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점이나 다른 피부병으로 오인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다른 암에 비해 전이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각 발견으로 벌써 전이가 시작된 경우가 적잖다.<br/><br/> 피부암은 자외선, 흡연,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오래된 화상 흉터와 같은 상처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 중 피부암 발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원인이 바로 자외선이다. 악성흑색종과 기저세포암은 어린 시절의 자외선 노출이 어른이 된 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피부암 예방을 위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인공 태닝(살 태우기)을 2013년부터 금지하고 있는 이유다.<br/><br/>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특히 자외선차단제(선크림)를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선크림은 자외선B 차단지수 SPF 30 이상과 자외선A 차단지수 PA+ 이상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br/><br/> 또 오랜 시간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2시간마다 1번씩 선크림을 덧바르고, 긴 소매의 옷을 입거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부러 피부를 갈색 톤으로 태우는 인공 태닝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피부암 발생을 재촉하는 행위나 다름없다.<br/><br/> 피부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검은 점이 새로 생겼다든지 이미 있던 점의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고 통증을 느끼게 됐다면 일단 피부암을 의심하고, 전문의 진찰을 받아봐야 한다.<br/><br/>글=김희수 국제성모병원 피부과 교수, 삽화=공희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7.txt

제목: [300자 읽기] 숨결이 바람 될 때  
날짜: 2016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25211543173  
본문: 36세의 신경외과 레지던트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후 세상을 떠나기까지 마지막 2년을 기록했다. 죽음을 앞두고 삶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 이 젊고 유능한 의사이자 문학적인 청년이 발견한 암, 죽음, 삶, 가족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름다운 문체로 전해준다. 그는 서서히 죽어가는 대신 계속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올 초 미국에서 출간돼 뉴욕타임스 1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화제작.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8.txt

제목: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大 정태기 총장 “상처와 고통 안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께 진정한 회복을…”  
날짜: 2016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25202736661  
본문: “지난 30년간 치유상담을 테마로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치유상담을 통해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회복을 선물하고 서울 방배동 중심가에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며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기적같은 일입니다.”<br/><br/> CCGU 정태기(사진) 총장은 ‘치유상담 분야의 대부’란 접두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자신의 사역을 마치 생명처럼 귀히 여기며 30년 외길을 달려온 정 총장은 “<span class='quot0'>내가 세운 계획은 언제나 작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크고도 놀라웠다</span>”고 고백한다. <br/><br/> “치유상담연구원 및 대학원 설립은 처음부터 저의 계획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신음하는 이 나라 수많은 청년들, 부부들, 가정들, 목회자들을 치유하셔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수많은 치유 동역자들을 도구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br/><br/> 정 총장은 “<span class='quot0'>그동안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했던 3만 여명의 사람들이 계속 그 효과를 이웃에 알려 준 것이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나와 가정, 교회, 민족을 살리는 이 생명운동은 반드시 전 국민의 가슴 속에 파고 들 것</span>”이라고 확신했다. <br/><br/> 강의 듣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닌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사울이 바울로 전환되는 운동이라고 역설하는 정 총장은 “<span class='quot0'>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 암 환자가 낫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춤추는 모습을 늘 보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전 생애를 바치셨듯이 우리 CCGU는 한국교회와 민족에 봉사하는 큰 치유나무로 남고자 한다</span>”고 설명했다. <br/><br/> “앞으로 CCGU를 중심으로 생명치유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합니다. 전국 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도록 돕자는 것이죠.”<br/><br/> 이미 ‘큰 인물-큰 항아리 만들기’ 운동을 펼쳐온 정 총장은 “<span class='quot0'>CCGU가 세계적 학문기관과 연대를 유지하는 한편 치유상담 활동을 기독교인들에 국한시키지 않고 일반 기업체와 정부기관의 사회 각 단체들과 연합하는 운동을 전개시켜갈 것</span>”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r/><br/> 정 총장은 “<span class='quot0'>지난 20년을 되돌아 보면 전문 치유자, 봉사자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를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참여를 부탁드린다</span>”고 말했다.<br/><br/>김무정 선임기자<br/><br/>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 2016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br/><br/><br/>◇ 모집학과 : 주·야간, 토요반 : 치유상담학과 (목회자, 사모, 평신도)<br/><br/>◇ 공개강의 안내 : 9월 3일(토), 9월 5일(월), 12일(월) <br/><br/>◇ 특전 : 상담심리사 자격증 (2급, 1급, 전문가) 취득가능<br/><br/>◇ 문의 : 02-599-2400 / www.chci.or.kr<br/><br/>2017학년도 전기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신입생 모집<br/><br/><br/>◇ 모집학과 및 인원 : 석사과정 <br/><br/> -기독교전인치유상담학과 / 주간 25명, 야간 25명<br/><br/> -가족상담학과 / 주간 25명, 야간 25명<br/><br/>◇ 원서접수 : 2016년 11월 9일(수) ∼ 11월 22일(화)<br/><br/>◇ 지원자격 : 국내ㆍ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br/><br/>◇ 문의 : 02-599-2466 / www.ccgu.ac.kr<br/><br/>◇ 후원계좌: 하나은행 396-910017-68104 <br/><br/>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9.txt

제목: [오늘의 설교]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자  
날짜: 2016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24203903029  
본문: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에녹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br/><br/>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에녹은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죽음을 피하고, 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은총을 받은 걸까요.<br/><br/> 2012년 3월 큰아들이 예고도 없이 “아버지, 저 장가가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을 털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간신히 마음을 가다듬고 배우자 될 사람에 대한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겠지?” 그러나 답변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불신자라고 했습니다.<br/><br/>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또다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제 아들은 목회자 자녀에 신학교까지 나와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녀석이 이런 결정을 하다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br/><br/> 조건을 걸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그 여성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결혼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예비 며느리의 성경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얼마 후에 모든 조건은 갖춰졌습니다.<br/><br/> 결국 그 해 10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정에 딸이 새로 생겼고, 며느리로 인해 저희 가정에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까지 아주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생각과 행동들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했습니다. <br/><br/> 동행은 몸이 같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 등 모든 것이 함께 하나가 될 때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암 3:3)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br/><br/>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빠져 있던 자신의 가치관과 고집, 아집을 다 버리고 고쳐가면서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더욱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최고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을 베푸시고 엄청난 축복을 내리십니다.<br/><br/>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할 줄 아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에녹이 그러했듯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br/><br/>정길조 목사 (천안 참사랑교회) <br/><br/><br/>◇약력=△미국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원 졸업 △기독교한국침례회 천안중앙지방회 소속 △‘호밥의 눈’ 목회자 세미나 강사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0.txt

제목: 가정교회 통해 중남미 선교기지 꿈꾼다  
날짜: 2016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22215401519  
본문: 중남미 선교는 한국교회에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비해 관심을 못 받아왔다. 우선 지구 반대편이라는 물리적 거리감이 컸다. 여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 서구 지배로 가톨릭 국가가 많고, 빈부격차는 심하되 절대빈곤국은 아니다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곤 했다. 하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3년 사실상 중남미 선교의 실패를 시인했을 정도로 이곳은 영적으로 침체된 땅이다. 가톨릭이 국교이긴 하나 실질적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네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샤머니즘적인 면이 강할 뿐,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br/><br/> 바로 이런 남미에서 사역을 하며 중남미 선교의 비전을 키워나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지난 12일 페루 수도 리마 남부의 미라플로레스 외곽 요한장로교회(Iglesia Presbiteriana San Juan)에서 만난 홍종애 선교사와 그의 남편 알프레도 비얄따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br/><br/> 홍 선교사는 1980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계복음화대성회에서 처음으로 라틴 아메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 한국외대 서반어과에 재학중이던 그는 크리스천이었지만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었다. 별 기대 없이 집회에 참석해 하나님께 왜 하필 이런 공부를 하게 하셨냐고 묻던 그는, 집회 마지막 날 라틴아메리카 선교를 위해 스페인어를 공부하게 하셨음을 깨닫고 회심을 했다고 한다.<br/><br/> 하지만 정작 선교사가 되어 남미로 나오기까지는 24년이란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는 “한국의 선교단체에서 7년간 일하면서 다른 이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한국에 온 페루인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사역을 하다 2004년에야 비로소 페루로 오게 됐다”고 했다. 사역 도중 만난 페루인 알프레도와 결혼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br/><br/> 기나긴 준비의 시간을 거친 뒤 현지인 남편과 페루 선교지로 왔지만 막상 사역은 쉽지 않았다. 직전 목회자가 떠난 뒤 교인들 간에 갈등과 분열이 깊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도 끊이질 않았다.<br/><br/> 목회가 안정궤도에 오른 건 2007년 가정교회를 접목하면서다. 한국의 목장 또는 셀 모임 같은 개념으로, 무엇보다 목자들이 전적으로 가정교회 구성원을 섬기도록 했다. 매주 금요일에 모이는데 현재 12개 가정교회가 활동 중이다. 2009년 알프레도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교회 담임으로 취임한 뒤 교회는 더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섰다.<br/><br/> 이날 저녁 8시, 교회 4층에서 택시 운전사인 후안 카를로스(39)와 로시 꼬스뜨란도(33) 부부가 목자로 섬기는 가정교회 모임이 열렸다. 직전 주일 예배의 설교를 목자가 요약 설명하고 난 뒤 저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눴다.<br/><br/> 지난달 세례를 받은 로사 이사벨(62·여)씨는 “마약중독자 아들이 집에 있는 걸 다 가져다 팔아서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온 뒤부터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며 “내가 변하니까 아들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마약을 끊으려 노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로사씨는 “<span class='quot0'>요즘 매일 일어나면 아들이 약을 끊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기도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다</span>”고 말했다.<br/><br/> 보르하 나라(63)씨는 당뇨병이 심했는데 교회에 나오면서 증세가 완화됐다. 그는 “<span class='quot0'>며칠 전 병원에 갔을 때 기다리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 다들 불평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말씀을 전하길래 나도 옆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불만을 터뜨리며 기다리던 때와 달리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다</span>”며 웃었다. 그는 기도제목을 묻자 “<span class='quot0'>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잘 나누게 되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당장 오늘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어려운 가계 상황부터 암으로 투병하던 친구를 떠나보낸 이야기 등 진솔하게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br/><br/>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임이지만 페루에서 이만큼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다. 알프레도 목사는 “<span class='quot1'>한국인들은 한 번 하겠다고 하면 해내는데 페루에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목자로 임명을 해도 어느 순간 도망 가버리는 일이 많았다</span>”고 했다.<br/><br/> 무엇보다 가톨릭이 국교이지만 주일에 선거를 치르고 온갖 행사를 열 정도로 ‘주일 성수’나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어 애를 먹었다고 한다. 홍 선교사는 “<span class='quot2'>처음에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르쳐 익숙해지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2'>1세대들이 조금씩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매주 출석교인 기준으로 장년은 90∼100명,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합하면 250명이 교회를 찾는다. 지난해에는 교회 초기 멤버였던 청년 1명을 파나마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홍 선교사는 “<span class='quot2'>이 교회를 공고히 세우고 일꾼들을 키워서 페루뿐 아니라 중남미 전체로 파송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이 교회가 중남미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 리마(페루)=글·사진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1.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76) 고려대안산병원 암센터] ‘다학제 통합진료’ 수도권 암치료 거점병원으로 우뚝  
날짜: 2016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22182024726  
본문: “암을 처음 의심한 동네병원 의사가 ‘무조건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안 가고 이 병원을 선택했어요. 수술 후 지속적인 건강관리 면에서 훨씬 더 편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정말 편하고 좋아요.”<br/><br/>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차경미(42·가명·여)씨는 2013년 6월 고려대안산병원 암센터에서 갑상선암 절제수술을 받았다. 당시 차씨는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초대형 암병원(암센터)을 가진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였다.<br/><br/> 하지만 차씨는 고려대안산병원 암센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료의 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주저 없이 선택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차씨의 수술 상처는 눈에 띄지 않는다. 겨드랑이에서 목 쪽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 암 조직만 감쪽같이 절제하는데 성공한 덕분이다.<br/><br/> 최근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안은영(38·가명·경기도 평택시)씨도 차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안씨는 건강검진 결과 유방 속에 수상한 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 암센터를 찾았다. 방문 당일 외래진료와 동시에 원스톱으로 검사를 받았고, 4일 만에 유방암 2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씨는 “<span class='quot0'>초음파·조직검사·소독 등 거의 모든 의료 행위를 의사가 직접 해줘 믿음이 갔고, 무엇보다도 검사에서 수술까지 신속 정확해서 더 좋았다</span>”고 말했다.<br/><br/> 암에 걸리면 상당기간 진료 대기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서울의 대형병원 암센터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옳을까. 정답은 ‘아니다’다. 고려대안산병원 암센터(센터장 손길수)처럼 지방에도 상대적으로 몸집은 작지만 수술을 잘 하는 의사들을 보유해 믿고 찾을 수 있는 강소(强小)병원이 있다.<br/><br/> 수도권 암 치료 거점병원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려대안산병원 암센터는 2012년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위암·대장암·간암 수술 사망률’ 조사에서 전 부문 최고 수준인 ‘1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암센터는 2013년 실시된 대장암 수술 적정성 평가조사와 2013∼2015년 유방암 수술 적정성 평가에서도 각각 1등급 평가를 받았다.<br/><br/> 고려대안산병원 암센터의 강점은 암 진단에서 수술까지 걸리는 시간이 1주일 이내로 짧다는 것이다. 환자와 의사 사이도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깝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손길수(54·유방내분비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콜센터에서 1∼2주 후 환자의 상태를 먼저 묻고 주치의와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한 덕분</span>”이라고 설명했다. <br/><br/>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는 예약, 검사, 진료, 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절차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 진료 중 타과 진료가 필요하면 해당 진료과로 이동, 비슷한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할 때도 많다.<br/><br/> 암 치료 시 다학제 통합진료가 필요한 것은 이런 번거로움을 단순화하고, 각종 검사에서 수술 후 관리까지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환자 중심 맞춤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다학제 통합진료란 암 수술에 관여하는 진료과목 뿐 아니라 방사선종양학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진단과 수술, 재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담당 의료진이 환자와 함께 최적의 치료방법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암 환자 한 사람당 1시간 안팎이다. 환자가 궁금한 것을 모두 해소하고, 향후 치료에 순응할 때 결과 역시 긍정적으로 도출된다.<br/><br/> 고려대안산병원 암센터는 이 제도를 특히 유방암과 갑상선암 등 유방내분비질환 극복을 위해 적극 가동하고 있다. 교수진은 유방내분비외과 손길수·장영우(36)·김환수(35) 교수팀을 포함해 서보경(47·영상의학과), 김철한(44·핵의학과), 윤원섭(42·방사선종양학과), 김정선(34·혈액종양내과), 김기훈(41·재활의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br/><br/> 손길수·장영우·김환수 교수팀은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걸려 고통을 받는 여성 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환우회 참여를 통한 자조활동을 돕고 투병 상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유방암 수술 시 자가(自家)피판 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성형을 시도, 흠집 없는 여성성을 복원해주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 팀은 해마다 갑상선암 수술은 350여건, 유방암 절제 수술은 180여건씩 시술 중이다.<br/><br/> 윤원섭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발생하는 암을 리니악, 온열암치료기 등과 같은 방사선 장비를 이용해 치료율을 높이고 있다. 뇌종양이나 두경부암과 같이 수술로 완전 절제가 힘든 경우에 주로 나선다. 윤 교수는 현재 방사선종양학과장도 겸직 중이다.<br/><br/> 김기훈 재활의학과 교수는 척추통증, 어깨 통증, 근·골격계 통증, 소아 재활, 암환자 재활을 담당한다. 암환자 재활이란 암 치료 중 발생한 신경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단순히 암 부위를 절제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치료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는 분야다.<br/><br/> 김정선 종양혈액내과 교수는 고형암의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맡고 있다. 특히 암 수술 후 환자의 상태와 암 종류 및 병기에 따라 개인 맞춤 항암화학요법을 찾아 완치를 돕고 치료 중 겪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주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br/><br/> 암 치료, 특히 암 환자의 생존율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의료진 못지않게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고려대안산병원 암센터는 국내에 단 3대 뿐인 IQON-CT를 비롯해 128채널 PET-CT, 래피드아크 암치료기, 고주파 암치료기, 3T-MRI, 다빈치로봇 등 최첨단 암 진단기기 및 치료기를 두루 갖췄다.<br/><br/> 손길수 교수는 “<span class='quot2'>철저하게 환자 중심의 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암 진료와 관련된 모든 장비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늘 환자의 치료동선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안정감을 느끼는 가운데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2.txt

제목: [책과 영성] 존 파이퍼의 병상의 은혜  
날짜: 2016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17193526028  
본문: ‘기쁨의 신학자’로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가 전립선암으로 병상에서 시간을 보내며 체득한 메시지를 담은 책이다. 병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와 그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독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작고 짤막한 책은 손쉽게 펼쳐 읽을 수 있고 간결한 메시지만 쏙쏙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대로 생이 끝날까봐 두렵고 허망할 때’ ‘하나님도 못 고치실 것이라거나 아무도 아픔을 몰라준다는 생각이 들 때’ 등 10가지 상황별로 말씀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았다. 크리스천은 물론 입원한 비신자 환자에게도 좋은 위로의 선물이 될 듯하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3.txt

제목: “치아보험 횟수 제한 없어” “추가 암 발생도 보험금 지급”… 홈쇼핑 ‘꼼수 보험’ 손본다  
날짜: 2016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17181356217  
본문: A홈쇼핑은 최근 방송에서 치아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모든 충치 치료가 개수 제한 없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약관상 충치 때우기 치료만 무한 보장되는 상품이었다. 금니처럼 보철물을 덧씌우는 치료비는 연 3회까지만 보험금을 준다. 광고를 믿고 보험을 계약한 B씨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추가 치료는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br/><br/> 홈쇼핑 보험상품 광고에선 이처럼 쇼호스트가 “제한 없는 보장” 등의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홈쇼핑 채널의 보험 불완전 판매 비율은 보험업계 평균의 2배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홈쇼핑의 보험 불완전 판매 사례는 다양하다. 장기 간병비의 경우 ‘활동불능 진단 후 90일 이상 지속’ 시 최초 1회만 보장하는 보험인데도 홈쇼핑에서는 암·뇌졸중이 발생할 때마다 보장해주는 것처럼 설명했다. 암보험은 최초 발생 암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일반암(7000만원), 유방암·전립선암(1400만원) 발병 시 최초 1회 지급한다”며 추가 발병암에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다. <br/><br/> 금감원은 보험업계 평균 수준보다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홈쇼핑사의 판매광고는 녹화방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허위 홈쇼핑 광고와 상품 내용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광고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불완전 판매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임직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재하고 리콜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br/><br/>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4.txt

제목: 세상을 깨운 ‘빈 들의 외침’은 살아있다  
날짜: 2016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16211242557  
본문: 탁월한 웅변가이자 활동가. 교회와 사회의 벽을 허무는 대화운동을 통해 새로운 길을 걸어간 인물. 어두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복음의 빛을 쏘아 올리며 기독교적 통찰을 건져 올렸던 우리 시대 목회자. 경동교회에서 보여준 부단한 교회 갱신, 한국 사회 발전에 공헌한 크리스찬아카데미 운동,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의 유산은 한국 사회에 주어진 축복이었다. 사자 같던 용모에서 터져 나왔던 명설교는 아직도 선하다. 17일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의 길을 제시했던 여해(如海) 강원용(1917∼2006) 목사의 10주기이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다. <br/><br/> ◇사회 참여와 복음 선포의 균형을 추구했다=강 목사는 함경도의 가난한 화전민 아들로 태어나 14세 때 그리스도를 만났다. 1935년 북간도 용정으로 건너가 은진중학교에 입학, 평생의 스승인 장공 김재준 목사와 함께 윤동주 문익환 등 동문들과 공부하며 기독교 정신과 민족의식을 내면화했다. <br/><br/> 은진중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메이지학원에서 공부하던 중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다. 이후 만주로 돌아와 농촌선교운동을 펼쳤다. 해방 후엔 경동교회의 모체인 선린전도관을 설립했고, 이후 김재준 목사를 초대목사로 해서 경동교회를 세웠다. 강 목사는 49년 목사 안수를 받고 경동교회 담임으로 취임, 40여년간 목회의 길을 걸었다. <br/><br/> 강 목사는 교파를 초월해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포용과 배려의 에큐메니컬 정신은 보수주의 쪽에도 영향을 끼쳤다. 김명혁(강변교회 원로) 목사가 대표적이다. 김 목사는 “나는 당시 자유주의신학을 비판했던 역할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강 목사는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며 “강 목사는 통이 큰 분이다. 이는 보수주의자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회고했다.<br/><br/> 강 목사는 그의 마지막 저서인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서 신앙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드러냄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던졌다. “<span class='quot0'>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상대화되었으나 신비롭게도 항상 제 삶의 중심, 마음의 저 깊은 곳에는 열네 살 청소년 시기에 믿기로 작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모신 예수님이 늘 떠나지 않고 계셨습니다.</span>” <br/><br/> ◇빈 들의 외침, 그의 자리는 강단이었다=강 목사는 평생 설교자였다. 한 번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 15일 출간된 추모 설교선집 ‘돌들이 소리치리라(사진·대한기독교서회)’는 그의 이런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다.<br/><br/> 선집은 강 목사 인생을 시대 순으로 배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해방 직후∼1960년대) ‘오직 말씀으로’(70년대) ‘순례하는 강단’(80년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은퇴 이후) 등 총 48편의 설교를 담았다. <br/><br/> 한국교회를 향한 애정 어린 권면은 작금의 위기를 일찍부터 간파한 듯 하다. 그는 60년대 한국교회가 중병에 걸린 징후에 대해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던 사데교회(계 3:1∼3)를 본문 삼아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 강 목사는 “<span class='quot1'>오늘의 한국교회는 각종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색맹과 근시(타신학과 교단 비판), 지나친 음성·양성 반응(고립주의, 세속화), 앉은뱅이(실천 없음), 암질환(교세 확장)과 난치병(말씀 포기)으로 병들었다</span>”고 진단했다.<br/><br/> 이에 대한 처방은 “자신의 병든 상태를 확인하고 주님께 치료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회개요, 이것이 교회의 갱신이요, 이것이 교회가 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병든 교회’).<br/><br/> 강 목사는 3·15부정선거와 4·19혁명, 이어진 군사정권 치하의 암울한 시대를 살았다. 서슬 퍼런 시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뤄지길 소망했다. 설교에서는 예언자의 탄식을 그대로 전달했다. 구약성경 예언자의 ‘예’는 ‘미리 예(豫)’가 아니라 ‘맡길 예(預)’를 쓴다.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이다.<br/><br/> “상처를 부둥켜안고 이 거짓의 행렬을 뚫고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무리와 반대하는 무리에게 똑같이 ‘아니오!’를 선고하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앞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진을 막을 힘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진실의 소리가 잠잠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돌들이 소리치리라’)<br/><br/>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는 “<span class='quot2'>이번 선집은 강 목사가 평생 했던 설교 가운데서 시대마다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고 싶었던 예언자적 목소리를 뽑아 묶은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당시 강 목사는 예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의 심정에서 자신을 빈 들의 소리라고 외치고 싶어 했다</span>”고 말했다.<br/><br/> 재단법인 ‘여해와 함께’는 17일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 남한강공원묘원 묘소를 참배하고(오전 11시30분) 경동교회에서 추모음악회(오후 7시30분)와 출판기념회(오후 9시)를 개최한다.<br/><br/>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5.txt

제목: ‘당생물학적 뇌치유 상담 무료 세미나’ 여는 손매남 박사 “뇌 세포 건강이 정신 건강 원리”  
날짜: 2016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16203944676  
본문: “뇌세포가 건강하면 뇌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이번 뇌 치유상담 무료강좌엔 당생물학(Glycobiology)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당생물학은 건강과 질환에 있어서 당(Sugar)의 역할을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입니다.”<br/><br/>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 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는 22일(월) 오후 1∼4시 서울 충정로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801호에서 ‘당생물학적 뇌 치유 상담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br/><br/> 이번 강좌는 정신건강의 근본이 되는 뇌를 통한 치유상담을 연구하는 한국상담개발원이 몸과 마음, 정신적 문제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미국 코헨대학교의 후원을 받아 특별히 마련됐다.<br/><br/> 자연계는 200여 종류의 단당류(monosaccharides)가 존재하지만 이 중 8가지 당(갈락토스, 포도당, 만노스, 퓨코스, 엔-아세틸뉴라민, 엔-아세틸갈락토사민, 엔-아세칠글로코사민, 자일로스)만 우리 몸에 유익한 필수 영양소 역할을 한다.<br/><br/> 이 8가지의 당을 ‘글리코 영양소’라 부르며 이 당들은 세포간의 교신(의사소통)을 통해 면역기능에 필수물질로 작용, 스스로를 질병에서 치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br/><br/><br/><br/> 세포건강은 치유의 근본<br/><br/> 60조 내지 100조 세포로 구성된 우리 몸은 1개의 세포에 10만개의 당사슬이 있어 이들이 자연치유력과 면역기능, 항상성 기능을 유지해 세포를 건강케 함으로 몸의 건강을 지킨다. 그러나 당사슬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면역장애나 뇌 정신건강에도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 자가면역질환만 분류해도 100가지가 넘으며 관절염, 제1형 당뇨병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질병은 면역기능이 건강한 조직들을 공격해 생기는 병이다. 면역기능이 너무 약하면 감기나 독감·암이나 에이즈 등의 저면역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고, 반대로 면역기능이 너무 활발하여서 생기는 과면역장애인 각종 알레르기, 천식, 비염, 습진, 두드러기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br/><br/><br/><br/> 뇌세포건강은 정신건강의 원리<br/><br/> 뇌 신경세포가 잘못 기능하게 되면 중추신경계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뇌간증이나 파킨슨병 그리고 치매등의 뇌 신경학적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뇌 정신장애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자폐증, 학습장애, ADHD, 불안장애, 중독 등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글리코영양소는 태아기의 뇌 발달 뿐만 아니라 뇌신경조직의 주 구성요소인 당지질을 합성하는 물질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글리코영양소는 신경수초와 뇌신경세포막의 주요 구성 물질이기에 부족하면 뇌기능의 이상을 초래,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뇌 세포 건강은 정신건강의 원리며 뇌치유상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br/><br/><br/><br/> 몸과 정신의 건강은 세포건강에 달려있다.<br/><br/> 우리 몸의 세포는 면역세포, 근육세포, 내피세포, 뇌신경세포 등 200여 가지가 넘고 수명도 각각 다르다. 그렇지만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특히 뇌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글리코영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현대인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뇌의 정신건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이번 세미나서 자세히 다룬다.<br/><br/> 미국 코헨대학교 에서는 세미나와 함께 출간되는 “세포건강, 뇌 정신건강”의 당생물학적 뇌 치유 상담 저서를 상담대학원의 교재로 선정했으며, 치유상담자료로 제공키로 했다.<br/><br/>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에서는 가을학기 정규 수강생도 모집하며 이는 9월5일(월) 개강한다. 이번 무료세미나와 신입생 관련 문의는 1544-7509로 전화하면 된다.(www.kcdi.co.kr/web/)<br/><br/>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6.txt

제목: 임산부 암 수술 성공… “아기 포기하지 마세요”  
날짜: 2016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16043403248  
본문: 임신한 상태에서 암 진단을 받는다면 치료를 위해 태아를 포기해야 할까? 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이다. 산모와 태아를 모두 살리는 길이 있고, 그 길을 찾는 게 먼저이기 때문이다.<br/><br/>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박동수(비뇨기과), 장지현(산부인과) 교수팀이 임신 17주차에 신장암 진단을 받은 김모(28·서울)씨를 대상으로 신장 부분절제 수술을 시도해 산모와 태아를 모두 살리는데 성공했다. <br/><br/> 박 교수는 15일 “<span class='quot0'>환자가 임신부라는 점을 감안해 신장 혈류를 차단한 상태에서 얼음으로 신장 온도를 낮춘 후, 신장을 절제하는 저온 신장 부분절제 수술을 시행했다</span>”고 밝혔다. 수술 시 겪을 수 있는 출혈과 소변이 신장 밖으로 새는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였다.<br/><br/> 신장 부분절제술이란 신장 내 종양을 중심으로 신장의 정상부위 일부를 포함한 부분을 절제한 뒤, 남아있는 신장을 재건하는 수술법이다. 신장 기능저하와 임신 중독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신장암 진단을 받았으나 향후 수술 후유증, 태아 건강 손상 우려 등 이유로 치료시기를 늦추는 임신부들에게 도움이 된다.<br/><br/>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임신 중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를 출산 이후로 미루면 산모는 물론 태아에게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7.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75) 서울성모병원 피부암흑색종클리닉] 한국형 흑색종 연구 ‘새바람’  
날짜: 2016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16043055816  
본문: 동양권에선 흔치 않은 병이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피부암, 한국형 흑색종 연구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br/><br/> 서울성모병원은 15일 암병원 피부암흑색종클리닉 다학제 협진팀이 최근 1년간 다양한 통합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 악성흑색종 환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국형 진단 및 치료법 개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는 피부암흑색종 다학제 협진 교수진 20여명이 모두 참여한다. 성형외과 이종원·김지민 교수팀, 피부과 박영민·이지현·서현민 교수팀, 정형외과 정양국·신승한 교수팀, 핵의학과 유이령·박혜림 교수팀,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팀, 방사선종양학과 원용균 교수팀, 병리과 박경신 교수팀, 안과 양석우 교수팀이 그들이다.<br/><br/> 팀장은 성형외과 이종원(60) 교수가 맡았다. 재건성형 전문가인 이 교수는 최근 10년간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인공뼈 대체수술법과 줄기세포를 바탕으로 한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을 집중 연구해왔다. 포스텍(포항공과대) 기계공학과 조동우 교수팀과 공동으로 실제조직과 같은 성분의 인공조직을 만들 수 있는 3D 바이오 잉크도 개발했다. 실제 조직이나 장기를 여러 화학물질로 처리해 세포만 제거한 조직으로 바이오 잉크를 만들고, 여기에 중간엽 줄기세포를 넣어 인공 조직을 만드는 신기술이다.<br/><br/> 이 교수는 앞으로 협진 팀원들과 함께 악성흑색종과 관련이 있는 브라프(BRAF) 유전자 확인 및 맞춤 치료기술,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한국형 흑색종에 대한 새로운 치료 기법을 찾을 계획이다. 악성흑색종과 감별이 필요한 다양한 피부 질환에 대한 한국형 진단 및 치료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관련 학술연구 정보도 공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월 1회 개최하던 협진회의(월례회)도 최근 2주에 한 번씩 월 2회로 늘렸다.<br/><br/> 피부암에는 악성흑색종과 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 등 3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악성흑색종은 검은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검은 점 형태로 자라는 피부암이다. 우리 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멜라닌세포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생길 수 있다. 자외선 노출이 심한 피부에 많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만약 손바닥이나 발바닥 등 멜라닌 색소세포가 많지 않은 부위에 갑자기 점 같은 게 생겼다면 악성흑색종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다</span>”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br/><br/> 현재 한국인 피부암 조(粗)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8.3명꼴이다. 조발생률이란 해당 관찰기간 중 조사대상 인구집단에서 새롭게 발견된 환자 수를 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피부암흑색종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3223명(남자 1437명, 여자 1786명)으로 집계됐다.<br/><br/> 미국에선 해마다 비(非)흑색종 피부암의 하나인 기저세포암 환자가 약 80만명, 편평상피세포암 환자가 약 20만명씩 발생하고 있다. 흑색종 환자 발생도 연간 약 6만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미국의사협회지).<br/><br/> 피부암은 햇빛 속 자외선 노출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햇빛 노출이 많은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흑색종, 기저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등 각종 피부암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br/><br/> 서울성모병원 피부암흑색종클리닉 다학제 협진팀은 이 같은 역학 못지않게 약물에 대한 반응과 피부암 환자들의 생존율 조사연구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데이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데이터를 비축하기 위해서다. 이 교수팀은 향후 한국인 흑색종에 대한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흑색종 진단 및 치료지침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일반적으로 동양인의 발병 패턴이 서양인과 차이가 있듯이 흑색종 발병 양상도 꽤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런 만큼 약을 쓸 때도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치료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 지금까지 국가중앙암등록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암 통계자료를 통해 밝혀진 한국인 흑색종 환자의 남녀 성비는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0.8대 1이다.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많은 편이다.<br/><br/> 연령별로는 60대가 전체의 24.4%를 차지해 가장 많다. 이어 50대 20.4%, 80대 이상 13.2%, 40대 10.5%, 70대 10.4%, 30대 4.8% 등의 순서다. 우리나라 흑색종 환자 10명 중 6.8명은 50대 이상 장·노년층이란 말이다.<br/><br/> 누구에게 발생하든 악성흑색종은 가능한 한 초기에 발견, 그 뿌리를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주위 혈관과 림프절을 타고 다른 장기로 전이도 잘 되는 암이라서 첫 진단 시 전신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필수적</span>”이라고 말했다.<br/><br/> 이 교수팀은 흑색종 진단 및 치료 시 림프종조영술, 감마선 촬영기, PET-CT 등 다양한 방사선 검사와 핵의학 검사들을 총동원한다. 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때는 조직검사도 병행한다. 정밀 진단 및 개인 맞춤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다.<br/><br/> 수술이 가능할 때는 일반적인 암 수술보다 더 꼼꼼하고 보다 많은 조직을 살릴 수 있는 모스(Moh’s) 미세수술을 통해 절제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미용효과까지 높여주고 있다. 수술 후 발생하는 연부조직 결손은 체계적인 재건수술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한다.<br/><br/>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에는 항암화학요법만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때는 인터페론 주사와 함께 베무라페닙, 이필리무맙, 다브라페닙, 니볼루맙 등 면역항암제를 쓴다. 분자생물학 및 종양면역학의 발전으로 개발된 면역항암제 치료는 체내의 면역세포를 조절하여 암세포를 공격하고 조절하는 방법이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8.txt

제목: 대사물질 조절로 난치병 치료 길 열었다  
날짜: 201608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09202334854  
본문: 생체 대사물질이 줄기세포 초기 분화단계의 타이밍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윤홍덕(사진) 서울대 교수팀이 대사물질 중 하나인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의 양적 변화에 따라 줄기세포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세포 분화 초기에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의 양을 증가시키면 세포분화가 지연되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물질의 양적 변화가 줄기세포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윤 교수는 “<span class='quot0'>앞으로 대사물질 조절이 암을 비롯한 난치병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9.txt

제목: 차바이오텍, 美 최고 항체신약 개발사와 항암면역세포치료제 개발 합작법인 설립  
날짜: 2016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08201331968  
본문: 차바이오텍(대표 최종수·사진)은 미국 최고의 항체신약 개발 전문회사인 ‘소렌토 써래퓨틱스’사와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고 ‘CAR-NK’ 세포치료제를 공동 개발해 산업화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CAR-NK 치료제란 기존 암 치료법 중 하나인 ACK(활성화된 자연 살해 세포) 치료를 보완, 항암 효과를 강화한 것이다.<br/><br/> NK세포를 70%이상 활성화한 ACK세포를 암 환자한테 투여하면 암세포가 일부만 죽는 경우가 적잖았다. 하지만 CAR-NK치료제를 투여하면 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히 표적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다. 크루즈 미사일과 같이 표적 암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CAR(키메릭 항원 수용체) 유전자를 결합해놓은 덕분이다. 소렌토 써래퓨틱스사는 이런 CAR유전자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파는 바이오기업이다.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돼 있다.<br/><br/> 차바이오텍은 자사의 NK세포 대량생산 기술에 소렌토 써래퓨틱스사의 CAR유전자 제작기술을 더하면 획기적인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0.txt

제목: [진료실에서] 어떤 폐암환자의 우군 ‘면역항암제’ 2∼3달새 호전돼 일상생활도 가능  
날짜: 201608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07205625274  
본문: 몇 달 전 40대 남성 폐암 환자가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을 찾았다. 환자는 이미 화학항암제 등 3가지 종류의 항암치료를 시도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폐암 중 가장 흔한 유형인 비소세포폐암중 선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였는데 흉수가 차서 호흡이 힘들고 뼈 전이, 림프 전이가 심하여 극심한 통증으로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환자에게 사용해볼 수 있는 치료옵션은 면역항암제였다. 2주 간격으로 면역항암제를 네 차례 투여했을 때 약효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종양의 크기도 현저히 줄어든데다 이전에 있던 통증이 사라져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됐다. 면역항암제로 치료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부작용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br/><br/> 지난 4월부터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항암 치료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 면역항암제는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그 효과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항암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 예로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된 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니볼루맙으로 치료했을 때 환자의 51%가 1년 시점에서 생존한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비소세포폐암은 암세포가 발생한 폐의 구성세포 종류에 따라 편평 비소세포폐암과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으로 나뉘는데 편평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화학항암제(도세탁셀)이 나온 이후 근 20여년 간 새로운 치료제가 없었을 정도로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다. 때문에 니볼루맙의 등장은 폐암의 조직학적 특성과 상관없이 기존 화학항암제 대비 생존기간을 연장시켰다는 점과 부작용이 적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br/><br/>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암세포를 찾아내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암세포가 이 면역반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면역반응을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기전을 통해 점점 더 증식하게 된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로 인해 비활성화 된 면역세포를 다시 활성화시키거나 암세포로 인한 면역세포의 비활성화를 막아서 암을 치료한다. 즉, 암세포를 없애는 동시에 정상세포까지 파괴하는 화학항암제나 특정한 유전자 변이를 타깃으로 하는 표적항암제와는 다르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면역항암제의 전에 없던 새로운 기전은 생존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항암치료에 수반되는 부작용 발생 빈도와 독성을 낮춘다. <br/><br/> 이처럼 환자들에게는 혁신적인 치료제이나 면역항암제가 새롭게 개발된 신약인 만큼 치료에 앞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환자의 전신 상태, 비소세포폐암 종류, 유전자 변이 등을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부작용이 적으나 기존의 약제와는 다른 새로운 기전을 가진 치료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환자 상태를 긴밀하게 살피고 치료 중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한 임상 경험이 많은 종양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가의 항암제이기 때문에 비용효과성도 고려해야 한다.<br/><br/> 폐암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조기발견이 어렵고 치료 예후도 나쁘다. 폐암 치료에 있어 면역항암제는 앞서 소개된 사례와 같이 암과 싸우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br/><br/>김혜련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1.txt

제목: [원자력병원 스마트 암 진료] 암 진료 선도 50년… 전인적 돌봄까지 수행  
날짜: 201608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07205412455  
본문: 호스피스는 원래 ‘손님’이라는 뜻의 라틴어 ‘호스페스’(Hosepes)에서 유래하여 중세시대에는 성지 순례자나 여행자가 쉬어 가던 휴식처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근대에는 아픈 이들과 죽음을 맞는 이들을 위한 간호를 베푸는 장소를 의미했다. 1960년대 후반 영국에 정착되면서, 호스피스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 혹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됐다. <br/><br/> 우리나라는 작년 7월부터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입원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많은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이 비용 부담 없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됐다. <br/><br/>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암 환자의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 서비스이다.<br/><br/> 암 전문병원인 원자력병원은 2003년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을 구성하고 2012년부터 호스피스 전용병실을 소규모로 운영해 왔으며, 2015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동관7층 전 병동을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으로 새롭게 개소했다.<br/><br/> 원자력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전담 의료팀 구성과 함께 1인실 3개, 3인실 4개 등 총 7실 15병상을 갖추고 작년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12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고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게 됐다.<br/><br/> 지난달 세상을 떠난 김민철(가명)씨는 전립선암이 뇌로 전이되어 수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호전 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더 이상 치료의 가망이 없다는 진단에 환자를 공기 좋고 물 맑은 시골로 모시려고 했으나, 가족들 대부분이 도시에 살고 있어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다.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진과 몇 차례 상담 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했고, 원자력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이 환자의 마지막 2개월을 돌봤다. 임종 뒤 큰 딸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가르쳐주신 대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가슴에 안아드렸을 때 숨을 거두셨어요. 아버지의 편안했던 얼굴이 많은 위로가 됩니다”라며 호스피스완화의료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br/><br/> 원자력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환자들 뿐 아니라 임종 후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까지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가족들이 사별 후 소회를 나누며 나뭇잎에 추모의 글을 적어 수반 위에 띄우는 이벤트, 식물을 가꾸는 원예치료 등을 배우는 사별가족 지지모임과 위로행사가 그 것이다. 또한 환자 못지않게 간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가족들에게 직접 준비한 한 끼의 밥을 의료진과 함께 나누는 ‘행복한 밥상’ 등의 이벤트도 제공해 환자의 가족들은 잠시나마 집 밥을 먹는 듯한 평범한 일상을 경험할 수 있다.<br/><br/> 원자력병원 나임일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span class='quot0'>지난 50여 년 간 우리나라 암 진료를 선도해 온 원자력병원은 작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개소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으로 암 진료에서부터 전인적 돌봄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해 암 전문 공공의료기관의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 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2.txt

제목: 다이어트 보조제, 기능 따져보고 체질친화형 선택을  
날짜: 201608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07204444048  
본문: 다이어트의 기본은 식단과 운동이다. 하지만 체중감량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여러 번의 결심과 실행, 그리고 요요를 거치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이때 ‘살 빼는 약’을 고려해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br/><br/> 먼저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약은 크게 식욕억제제, 칼로리차단제, 대사촉진제로 나뉜다. 식욕억제제는 말 그대로 식욕을 억제해 음식의 섭취를 줄여주는 것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의약품이다. 식욕은 단순히 허기를 느끼는 것을 넘어 음식을 원하게 만드는 ‘감정’에 해당되고 우리 뇌 속의 뇌하수체가 이를 주관한다. 따라서 식욕억제제는 탐닉, 욕망 등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뇌의 신호를 조절해 과다한 섭취를 차단하는 식으로 체중감량에 도움을 준다. 김선미 고려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식욕억제계열의 약물 중 펜타민(pentaminum)은 3개월 내외로 사용기간을 제한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종류에 따라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한 식욕억제제도 있으므로 비만환자에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두통, 불면증, 우울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 칼로리차단제 중에는 지방의 흡수를 억제해주는 지방흡수억제제와 탄수화물차단제가 있다. 올리스탯(Orlistat)이 대표적인 지방흡수억제제다. 주로 간이나 신장에 작용해 음식 속의 지방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용변으로 빠져나가도록 유도한다. 다만 지방이 빠져나가면서 용변에 기름기가 섞여나와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사용을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탄수화물흡수억제제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돼 마트나 편의점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이다. 탄수화물 소화효소의 활동을 막아 흡수를 지연·방해해주는 방식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br/><br/> 대사촉진제는 신체의 대사를 활성화해 에너지 소비량을 높여주는 것으로 대표적인 약재로 마황이 있으며 주로 다이어트보조제로 판매되고 있다. 대사촉진제를 사용할 때에는 운동을 동반해야 체중 감량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심박동 증가, 혈압상승, 두통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신진대사가 촉진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span>”고 말했다.<br/><br/> 국내 비만 실태에 대해 김선미 교수는 ‘저체중화와 고도비만의 양극화’를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정상 체중인 사람도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반면, 심각한 고도비만으로 문제가 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 체질량지수(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5이상의 경우 고도비만으로 정의한다. 고도비만은 심혈관계 질환, 당뇨, 암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체중감량이 필수다. 김 교수는 “고도비만 환자는 혼자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운동과 식단조절을 기본으로 적절한 처방약을 사용한다면 보다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다이어트의 목적은 건강이며,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건강’이라는 목표 하에 체중감량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3.txt

제목: [건강 나침반] 발생 1위 치닫는 대장암, 의료진과 상담시간 보장… 환자 교육시간 확보 절실  
날짜: 201608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07184903022  
본문: 국내 발생률 1위를 지켜왔던 위암 대신 ‘대장암’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올해 초 대한암학회지에 실린 중앙암등록본부의 2016년 우리나라에서의 암 발생률 예측연구에 따르면, 남성에서 최초로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여러 암종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수년간의 암 발생 빈도의 시간적 패턴을 보았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며, 급격히 진행된 고령화와 식생활의 변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br/><br/> 그러나 암 진단이 곧 죽음으로 연결되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 전반적으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69.4%로, 1993년부터 1995년 사이 환자의 상대 생존율 41.2%에 비해 개선된 생존율을 보였다. 다시 말해 암 진단을 받은 사람수는 늘고 있으나,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수는 변화가 없거나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폐암, 간암, 위암에 이어 사망률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사망률은 2000년대에 정점에 달한 후 10만 명당 약 10∼20명 정도로 거의 그대로다. 암이 조기에 진단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수술 및 방사선치료 기술의 발전과 신약의 도입에 힘입은 덕분이다. 이에 따라 대장암 경험자, 즉 대장암 치료를 받고 생존한 사람들의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나리라 예상된다. <br/><br/> 그러나 대장암 치료로 인한 여러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장암 중 항문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직장암의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수술 및 화학방사선치료 후 항문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다. 수술 기술의 발전으로 직장암 환자의 90% 이상에서 항문을 보존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변실금과 잦은 화장실 출입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외출 한 번 하기가 어렵고,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간다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도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효과적인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면서 완치율이 높아지고 생존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오심, 구토, 설사, 복통 탈모 등 항암제의 알려진 부작용 외에 손발의 피부변화, 감각이 무뎌지거나 저리고 시린 느낌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할 가능성도 있다.<br/><br/> 대장암은 재발해도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 치료 등을 동원하여 완치를 노려볼 수 있는 몇 안되는 암이지만, 이는 나아질 만하면 반복되는 치료에 심신이 지쳐가는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br/><br/>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치료 후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종종 엉뚱한 해결 방향을 찾는 환자분들을 보며 느끼는 마음은 안타까움이다. 항암제로 인한 손발 저림인데 단순히 증상만을 개선하기 위한 혈액순환 개선제를 사다 드시거나, 암 치료비보다도 비싼 거액을 들여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보완 대체요법을 받는다던지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본다.<br/><br/> 우선은 환자들이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 시간과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대장암 환자 및 경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개발에도 보건당국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환자분들도 짧은 진료시간 동안 의료진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메모를 미리 하는 등 준비를 하신다면, 스스로의 몸을 돌보는 데 있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br/><br/>김선영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4.txt

제목: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7회 健保 적용  
날짜: 201608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06000241926  
본문: 10월부터 모든 임신부가 태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7차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41만(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 드는 초음파 검사비를 24만∼41만원만 내면 된다. 암·심장·뇌혈관·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조직 검사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도 건보혜택을 받는다.<br/><br/> 보건복지부는 5일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선택진료비 축소개편 방안 등을 의결했다.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규모는 1조3800억원(2014년 기준)으로 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12.3%를 차지한다.<br/><br/> 이에 우선 임신부(약 43만명)의 산전 진찰 시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 7회에 대해 건보를 적용키로 했다. 임신 10주 이하(임신 진단 및 태아 생존 확인) 2회, 11∼13주(다운증후군 진단) 1회, 16주(신경관결손 확인 등) 1회, 20주(구조적 기형 진단) 1회, 20주 이후(양수 양 측정, 태아 성장 계측 등) 2회 등이다. 7차례 이상 검사가 필요할 경우엔 임신부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임신중독이나 출혈 등 태아와 임신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생기면 횟수 제한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br/><br/>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 치료 등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된다. 미숙아 발달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 검사의 경우 현재 18만∼25만원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앞으론 약 1만5000원만 내면 된다. 연간 3만4000명 발생하는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br/><br/> 또 기존 진단 목적에만 건보가 적용됐던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시술 부위를 찾거나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약 70종)로 혜택이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초음파 건보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볼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건정심에선 병원별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을 현재 67%에서 3분의 1 수준(33%)으로 낮추는 안도 확정됐다. 현행 선택의사 8405명(올해 1월 기준)에서 3952명(47%)이 줄어든다.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 기회가 높아져 비급여인 선택진료 부담이 연간 48%(41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5.txt

제목: [단독]‘스타강사’ 출신 목사, 학력·경력 세상을 속였다  
날짜: 2016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04211450189  
본문: 가난과 장애라는 이중고에도 굴하지 않고 운명을 개척했다며 교계, 기업체 등에서 ‘희망 전도사’로 활발히 활동 중인 조용모(64·컨설팅사 해피라이프개발원장·아래 사진) 목사가 서울대 대학원 졸업 학력 및 공무원 사무관 경력을 사칭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목사의 사칭 행위는 국민일보가 인터뷰 추진과정에서 알게 됐다. 조 목사 개인의 잘못을 폭로하거나 정죄하는 차원을 넘어 더 이상의 교계 피해를 막기 위해 보도키로 했다.<br/><br/> 조 목사는 지금까지 교회, 기업체 등에서 6000여회 간증 및 강의를 했다고 밝혔으며 8월에도 대전 J교회 집회 등 교계 일정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군소교단 1년 과정의 총회신학연구원 입학 후 2014년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이후 교계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 <br/><br/> 조 목사는 자신의 저서 ‘백만번의 프러포즈’(2005년 발간), ‘고난수업’(2016년) 책날개 프로필에 “간신히 초·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기까지 독학으로 공부했다. 한때 국가기관의 촉망받는 사무관이던 인생이 느닷없이 항로를 바꾸게 된 건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뺑소니차에 치이면서였다”고 설명했다. 뺑소니 사고로 외다리가 됐다는 것이다. 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담은 ‘백만번의…’는 24쇄까지 발행, 스테디셀러가 됐다. <br/><br/> 그는 자기소개에서 “절망 끝에 자살을 시도하고 다시 살아나…110번의 입사지원 끝에 보험회사에 취직해 ‘세일즈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했다. <br/><br/> 아울러 “어느 날 편도암 4기 판정을 받는다…‘왜 내게만 시련이 닥치는 걸까’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본보가 1일 서울대 법대 동창회 사무국 등에 확인한 결과, 사무국은 “<span class='quot0'>우리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span>”고 답변했다. <br/><br/> 서울대 대학원 졸업 여부를 조 목사에게 묻자 “조용히 넘어가 달라”며 “(기사인터뷰 등을)전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다. 아픈 기억이 많아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태도를 바꿨다. “<span class='quot1'>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려는 것일 뿐</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작가와 함께 책을 쓰다보면 과장될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 <br/><br/> 그러면서 자신이 뺑소니차에 치여 ‘지체장애 3급’으로 살아왔으며, 말기 암 환자이고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번 한번만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br/><br/> 그러나 그는 책에서 밝힌 것처럼 절단된 외다리는 아니었으며 한쪽 다리에 비해 약간 말라 있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편도암 4기 판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았다</span>”고 말했다. “<span class='quot1'>교회, 기업체 등에서 100만∼500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6000여회 강의를 했다</span>”고도 밝혔다.<br/><br/> ‘사무관’ 경력에 대해선 “밝혀서 좋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br/><br/> 앞서 조 목사의 ‘인생역정’은 한겨레, 중앙일보 등에 미담성 기사로 크게 보도됐다. 또 SBS ‘인생대역전’, KBS ‘이것이 인생이다’, MBC ‘느낌표’, CBS ‘새롭게하소서‘ 등에 소개됐다. 삼성과 현대, LG, 포스코 등의 많은 기업과 교회에서도 강연했다. <br/><br/> 두 책을 발간한 다산북스 관계자는 3일 “별다른 확인 없이 책을 냈다. 프로필은 조 목사가 써 준 것”이라고 밝혔다. <br/><br/> 박상흠(동아대 법무감사실) 변호사는 “조 목사의 행위는 책을 읽는 독자나 출판사 등에 대한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서울대 졸업이나 사무관 출신이 아니라면 그가 초청 강사가 됐을까 의문이 든다. 외형지상주의에 매몰된 일부 한국교회의 허세를 파고드는 이들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br/><br/> 한편, 조 목사는 인천 계양구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산하 사랑나눔교회 협동목사 직분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br/><br/>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6.txt

제목: [세상만사-민태원] 빅5와 굿5 병원  
날짜: 2016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04173809901  
본문: 대형병원을 얘기할 때 ‘빅(Big)5’라는 용어가 자주 쓰인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병원 5곳을 지칭한다. 다름 아닌 서울아산,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병원이다. 병상 수가 2000개 안팎에 달하고 연간 매출액이 적게는 7000억원, 많게는 2조원을 넘는 곳들이다. 한마디로 병원 덩치로 등급을 매겼다.<br/><br/> ‘빅5’의 어원을 추적해 봤더니 국내 대형병원의 성장과 홍보 전략이 맞물려 있었다. 2000년대 들어 ‘빅3’라는 신조어가 처음 나왔다. 1990년대 후반 급격히 몸집을 불린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대병원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후 세브란스병원이 2005년 새 건물을 지어 1800병상으로 늘렸고 홍보의 일환으로 ‘빅4’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br/><br/> 2009년 서울성모병원이 신관을 건립하고 여의도성모병원과 일부 통합해 1300여 병상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병원 홍보팀에서 빅5란 말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정착시켰다.<br/><br/> 이때부터 의료계와 언론 등에 빅5가 본격 회자됐다. 빅5는 마치 최고, 최선의 의료기관 상징처럼 통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에서 내는 각종 자료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많은 병원들은 지금도 덩치 큰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규모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br/><br/> 그렇지만 빅5 병원들이 정말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는다면 선뜻 ‘예’라고 답할 수 있을까. 얼마 전 빅5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의 산부인과 교수가 대리수술한 사실이 들통 나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의사 개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환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져야 하는 의료기관에 화살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br/><br/>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외과의사로부터 “<span class='quot0'>이제 빅5가 아닌 ‘굿(Good)5’가 거론되는 문화가 새로 유행하면 좋겠다</span>”는 말을 들었다. 그는 분당서울대병원 부원장을 지낸 한호성 교수다. 분당서울대병원이 기존 빅5 가운데 하나를 제쳤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얘기는 의외였다.<br/><br/> 한 교수에 따르면 빅5가 최고 병원이라는 인식의 출발은 환자 수, 즉 환자 치료 경험이 많을수록 병원의 의료 수준이 높다는 다수의 보고에 기인한다. 하지만 일정한 환자 수 이상만 되면 기준에 충족되는 것일 뿐, 과도한 환자 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br/><br/> 빅5로의 환자 쏠림이 심각한 국내 의료계 현실을 볼 때 그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한 교수는 “<span class='quot1'>우리나라에서 빅5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쏠림</span>”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빅5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병상이나 외래환자 수로 병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 병원의 수준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br/><br/> 미국 뉴스&월드 리포트는 1991년부터 매년 암을 포함한 16개 분야에서 병원 등급을 매겨오고 있다. 병원의 규모, 물적 자원 등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얼마나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지 평가하는 진료 프로세스와 치료 효과, 생존율 등 치료결과 척도 등 3가지 기준을 종합해 점수화한다. 우리나라처럼 병원 규모만으로 인지도가 결정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br/><br/> 우리도 큰 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얼마나 최선의 치료를 하는지, 환자 편의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환자 우선 정책이 병원 전체에서 느껴질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필요하다. 빅5 대신 굿5 병원이 어떨까.<br/><br/>민태원 사회부 차장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7.txt

제목: 대형병원 의료진 잇단 ‘결핵 감염’… 환자들 비상  
날짜: 2016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04041159385  
본문: 대형병원 의료진의 결핵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이화여대 목동병원에 이어 3일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 소아혈액암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27·여)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전염성 결핵으로 지난 1일 확진돼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br/><br/> 질본은 병원 내에 ‘결핵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근무기간(7월 1∼28일) 병동을 이용했던 환자 86명과 같이 근무한 직원 43명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보건 당국은 이날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결핵 검사(흉부X선) 및 잠복결핵 검사(피부 반응 및 혈액)를 벌이고 있다.<br/><br/> 1차로 조사가 완료된 직원 37명 중에서 새로 결핵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면역력이 떨어진 암 환자들이어서 추가 결핵 환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br/><br/> 앞서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했던 간호사(32·여)가 지난달 15일 건강검진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결핵에 감염됐고 29명에게서 잠복 결핵균이 발견됐다.<br/><br/> 질본이 지난해 신규 결핵 환자 3만2181명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인은 367명으로 학생(1490명)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군인(234명) 교직원(165명) 식품접객원(162명) 등이었다. 보건의료인 결핵 환자는 2012년 117명, 2013년 214명, 2014년 294명, 2015년 367명으로 매년 느는 추세다.<br/><br/> 현재 의료인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결핵 검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잠복 결핵이다. 잠복결핵은 전염성이 없지만 10% 정도는 결핵이 발병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호흡기내과·응급실·암병동·중환자실·신생아실 등 고위험 부서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한해 의료기관이 자체 비용을 들여 자율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br/><br/> 4일부터는 의료기관을 포함해 산후조리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사자에 대한 결핵과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경우 비용 부담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span class='quot0'>잠복결핵 검사를 하면 의료진 결핵 감염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지만 비용이 만만찮아 의료기관이 부담하기 꺼린다</span>”고 지적했다. 잠복결핵 검사 비용은 한 명당 8만∼10만원 수준이다.<br/><br/> 보건 당국은 내년부터 의료진에 대한 검사비 지원을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이 확보될 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중환자실이나 신생아실, 응급실 등 고위험 부서 의료진만이라도 검사 비용을 정부가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언제 결핵균에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복결핵 검사를 의료진으로 일하는 동안 한 번만 받도록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8.txt

제목: 비싼 유병자보험에 건강한 사람도 마구 가입시켜  
날짜: 2016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03181351254  
본문: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보험인 간편심사보험에 건강한 사람을 가입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심사보험의 보장 범위를 일부러 축소하거나 비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기도 했다.<br/><br/>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보험상품 감리 결과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관행 개선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기로 했다.<br/><br/> 간편심사보험은 병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게 가입 요건을 완화한 상품이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일반 심사보험보다 적다. 보통 3개월 이내 입원 등 소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 5년 이내 암 진단 혹은 수술한 병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는 1.1∼2배 비싸다. 28개 보험사의 간편심사보험의 보유계약 건수는 지난 6월 현재 약 203만건으로 증가 추세다.<br/><br/> 금감원은 우선 보험회사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건강한 사람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시키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한 보험사는 일반보험에 가입한 건강한 고객에게 신상품을 홍보하며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간편심사보험 추가 가입 고객이 건강한 고객인 경우 보험사가 반드시 일반보험을 안내토록 했다. 또 건강한 고객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일반보험과 함께 명확히 비교 설명하도록 했다.<br/><br/> 청약서 고지사항 외에 과거 병력을 이유로 가입 금액(최고 보상한도액)을 축소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청약서 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외의 고객 과거 병력 정보는 활용할 수 없다. 추가 병력 정보가 필요하면 보험안내 자료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br/><br/> 일반보험의 보장 범위 축소도 금지된다. 일부 보험사는 간편심사보험의 3대 질병 진단 가입 금액은 2000만원으로, 일반보험의 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운용했다. 건강한 사람에게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관행을 올해 중 모두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건강한 사람은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게 보험료 등 측면에서 모두 유리하다</span>”고 말했다.<br/><br/>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9.txt

제목: [신경락한의원 조병준 원장의 해독 이야기] ③ “음식 독소 배출시켜야 질병 치유”  
날짜: 201608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02201450637  
본문: 오늘날 의학이 놀랍게 발달해 수명이 100세 시대라 할 정도가 되었다. 허나 이러한 의학의 발달과 수명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더 늘어가고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br/><br/> 통계청에 의하면 총인구수가 점차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132만명이던 암환자가 9년 뒤인 2024년도에는 208만명으로, 17년 뒤인 2032년도에는 약 520만명으로 4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br/><br/> 의학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도 환자가 줄지 않고 늘어가는 이유를 찾으려면 질병의 원인을 잘 이해해야 한다. 오늘은 먼저 질병이 폭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인 음식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br/><br/>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즐겨먹는 피자, 라면, 빵, 과자, 햄버거, 짜장면, 콜라, 아이스크림, 쥬스 등 인스턴트음식 등과 공장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류는 보관과 장시간의 유통을 위해 방부제, 식용표백제, 식용색소, 향료, 감미료 등 많은 첨가물들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br/><br/> 그 첨가물들은 체내에서 우리의 생체활동을 저해하는 독소가 되어 혈액을 오염시키고, 세포기능을 저하시키고, 대사기능을 저하시키고,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부조화등의 문제 등를 발생시키는 등 각가지 질병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br/><br/> 마치 고급휘발유를 써야하는 고급자동차에 질 안좋은 연료를 계속 사용한다면 차가 빨리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이치다. 그러므로 음식의 첨가물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음식을 잘 파악하여 음식을 선별하여 먹는 지혜와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건강 지키기에 매우 중요하다.<br/><br/> 우리는 고혈압, 당뇨 등이 나타나면 병원약 먹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이 치료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약을 먹을 때는 정상수치가 되더라도 약을 끊으먼 다시 정상범위를 벗어나므로 평생약을 먹어 수치를 조절해야 한다면 치료가 아니라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br/><br/> 잘못된 음식으로 독소가 누적되어 그 결과로 병이 왔는데 병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음식습관은 바꾸지 않고 병만 치료하려니 치료가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 병이 낫질 않으니 평생 약을 먹는 평생환자가 되고 또 새로운 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환자는 급증할 수밖에 없게 된다.<br/><br/> 고혈압, 당뇨, 아토피 등 만성질환에 고생한다면 먼저 음식을 바꾸자.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br/><br/> 61세인 어떤 여교수님은 얼굴과 목에 아토피로 고생하시는지 20여년이 되었다고 한다. 염색을 하거나 게나 닭고기 등을 먹고 나면 얼굴까지 올라와 붉고 갈라지며 가렵고 따금거린다고 호소하셨다.<br/><br/> 원래 약질이었지만 산후조리를 못한 뒤 급격히 건강이 안좋아진 채 회복이 안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학생들 앞에서 얼룩덜룩한 얼굴이 창피하기도 하고 소화도 안되고 어질거려 길을 가다가도 내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불안감에 쌓이기도 하니 의욕이 없고 정년이 되기 전에 은퇴를 해야 할까 고심하신다고 했다.<br/><br/> 생활과 음식 속에 원인을 찾아 제거해가며 약 9개월간 해독치료에 힘쓴 결과 피로함도 사라지고, 저혈당증상, 아토피도 사라지고 고질적이었던 비염도 사라졌다. 62.9kg이던 체중은 55.8kg가 되었고 체지방만 6.8kg가 줄어 피부톤도 밝아져 보기에도 10년은 젊어보이는, 보기좋은 깨끗하고 탄력 있는 얼굴과 몸이 되었다.<br/><br/> 정신도 맑아지고 의욕도 생겨 이제 은퇴년령까지 강단을 지켜야겠다고 기뻐하시는 모습에 진료를 맡은 나 역시 흐뭇했다.<br/><br/> 내가 먹는 음식을 바꾸고 생활습관을 바꾸면서 체내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되면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게 된다. 더욱이 내 음식 습관이 달라지면 나와 같은 음식을 먹게 되는 온 가족들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br/><br/>조병준 장로(일산 신경락한의원 원장:031-902-2221·www.new-0m.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00.txt

제목: 암 전이 조기 발견 가능한 영상진단 기술 개발  
날짜: 2016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01200628558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癌) 전이를 보다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영상진단 기술을 개발했다. 몸 안에서 부작용과 독성이 없는지 확인하는 추가 연구를 거쳐 5∼10년 내에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br/><br/> 경북대병원 핵의학교실 전용현(사진)·이재태 교수팀은 고려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융합대학원 임동권 교수와 함께 암 전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각종 질병의 오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체영상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스몰’ 최신호에 발표됐다.<br/><br/> 암의 전이 여부는 통상 ‘감시 림프절’을 탐지해 확인한다. 암이 가장 먼저 전이되는 게 ‘감시 림프절’이다.<br/><br/> 연구팀은 “기존에는 암 조직에 염색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감시 림프절을 찾아낸 뒤 직접 떼어 내 전이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이번에 조직을 떼 내지 않고 영상 촬영을 통해 감시 림프절 전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 연구진은 암 세포에 민감한 방사선 동위원소에 미세한 금 입자를 결합해 민감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인 ‘조영제’를 개발했다. 조영제는 영상 촬영에서 표적이 되는 기관이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다. 전 교수는 “<span class='quot0'>뇌졸중,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환의 조기 진단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01.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73) 강남우리들병원] 내시경 디스크 시술 독보적… 33개국서 배우고 가  
날짜: 2016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01183800007  
본문: 척추관절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울 (강남)우리들병원은 일찍이 척추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고령화 시대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허리건강 튼튼 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곳이다. <br/><br/> 우리들병원은 전문병원 개념조차 없던 1980년대 후반에 이상호(67) 회장을 포함한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원무팀, 인사팀, 재무팀, 홍보팀 등 각 행정부서 직원들도 전문지식으로 중무장시키는 전략으로 척추질환 치료에 돌풍을 일으켰다.<br/><br/> 특히 내시경 디스크 치료 분야에서 연평균 1만건 이상의 임상경험을 쌓으면서 누구도 넘보기 힘든 입지를 구축했다. 지난해 1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국제 최소침습 척추수술학회’(ISMISS)에서 척추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br/><br/> 우리들병원 의료진은 이상호 회장을 중심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개국에서 출판하는 척추수술 관련 의학서적 20권(74편) 제작에도 참여했다.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최신 연구논문도 연평균 40∼50편에 이른다. 지금까지 이상호 회장이 제1저자 및 교신저자로 참여한 연구논문 수는 262편이나 된다.<br/><br/> 우리들병원이 세계최초로 특화한 ‘최소침습 척추수술 및 치료’(MISST·Minimally Invasive Spinal Surgery and Technique)는 가능한 한 상처 크기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내시경 및 현미경으로 환부를 확대해 보며 병변을 레이저로 깨끗이 제거하는 방법이다. 수혈 없이 우리 몸의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고 병변 부위만을 안전하게 치료하는 방법이라 빠른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br/><br/> 이상호 회장 등 우리들병원 의료진은 1996년 허리 쪽에서 접근하지 않고 복부 쪽에서 접근해 병들어 못쓰게 된 디스크를 제거해 만성요통을 해소하는 ‘최소침습 전방 골융합술’을 개발, 미국신경외과학회에 보고했다. 척추관협착증에 따른 다리 저림 증상이 두꺼워진 인대 때문이라는 것도 최초로 밝혀냈다. 이는 요통 치료를 위해 척추관절이나 척추후궁 뼈, 그리고 디스크를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기존의 침습적 수술법을 간단한 비(非)수술 인대성형술로 혁신하는 계기가 됐다. 이상호 회장 등은 이 치료법을 72세 이상 척추관협착증 환자들에게 적용해 치료효과와 안전성을 동시에 증명했다.<br/><br/> 이런 결과로 우리들병원의 최소침습 척추치료술은 이제 디스크 전체를 제거하는 시술인 ‘디섹토미(Discectomy)’를 넘어 내시경으로 찢어진 디스크 파편 조직만 제거한다는 뜻의 신조어 ‘허니엑토미(Herniectomy)’로 진화하는 세계 요통치료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br/><br/> 기존의 디스크 수술은 허리 중앙 피부를 4㎝가량 절개한 후 척추근육과 척추후궁, 척추관절의 일부를 갈아내고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륜까지 잘라낸 다음 디스크 파편과 신경근을 가운데 쪽으로 밀고 당겨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디스크 내부 및 신경손상 위험이 적지 않았다.<br/><br/> 그러나 내시경레이저를 사용하면 이런 위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내시경레이저 척추치료술이란 한마디로 옆구리에 지름 0.6㎝ 정도의 작은 구멍 하나를 내고 그 틈으로 내시경이나 레이저 조사기 등 초정밀 시술기구를 삽입해 병든 디스크 조각만 분리,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시술은 디스크 내부 조직을 그대로 보존해 쿠션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기존 수술과 달리 척추근육과 척추관절의 일부를 손상시키지도 않는 이점이 있다.<br/><br/> 우리들병원은 국내외 척추외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상호 회장은 1일 “<span class='quot0'>지금까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3개국의 의사 350여명이 우리들병원을 방문해 척추 내시경 시술 등 최소침습 척추질환 치료법들을 배우고 돌아가 자국 국민의 허리건강 지킴이로 활약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이상호 회장은<br/><br/>1950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75년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국립의료원에서 인턴 및 신경외과 전공의 수련을 받았다. 석·박사 학위는 연세의대 대학원에서 취득했다. 85∼86년 프랑스 파리 제5대학에서 전문병원 진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돌아왔다.<br/><br/> 이 회장은 92년 척추디스크 수술에 적합한 내시경과 레이저요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척추디스크 밖으로 삐져나온 탈출 조각을 내시경레이저로 제거해 정상 디스크 쿠션을 보존해주는 첨단 의료기술이다. 이 치료법은 93년 '내시경·레이저 병용 디스크 시술법'이란 제목으로 국제 정형외과 및 외상학회(SICOT)에 발표돼 주목을 받으면서 최소침습 척추치료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br/><br/> 이 회장은 이후 94년까지 2년간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OLD), 내시경 허리 디스크 시술(PELD), 내시경 목 디스크 시술(PECD)법을 잇달아 정립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자기공명영상(X-MR)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장치, 내비게이션 3차원 C암(C-arm) 또는 O암(O-arm) 등 방사선 영상진단 시스템과 접목시켜 좀 더 빠르고 정밀한 디지털 척추수술 시대를 새로이 열고 있다.<br/><br/> 이 회장은 우리들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별도로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며 매주 금요일 오전 7∼9시 원격화상 학술세미나를 연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도 적극 독력하고 있다. 끊임없이 연구하며 정진하지 않으면 선두주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다.<br/><br/> 요즘 세계 척추외과 학계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손꼽히는 '엔도스코픽 스파인 프로시져스'(ESP·내시경 척추 시술)가 탄생한 것도 그 덕분이다. 최근 30여년간 우리들병원 의료진의 임상경험과 척추수술 노하우를 집대성한 이 책은 현재 영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번역 출간돼 국내외 척추외과 의사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br/><br/>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내시경 척추수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시아인으로선 처음으로 '더 파비즈 캄빈상(The Parviz Kambin Award)'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파비즈 캄빈은 미국 펜실베니아대 신경외과 교수로, 척추내시경 시술의 산파로 불리는 의학자다. 2005년 인적자원개발 부문 아시아병원경영상(AHMA), 2003년 국제최소침습척추수술학회(ISMISS)가 시상하는 '올해의 거장'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br/><br/> 이 회장은 현재 대한의학레이저학회(KSLMS) 회장과 국방부 의무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미세침습척추수술 및 치료학회장(2005년), 대한근골격레이저및고주파학회장(2005∼2006년),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이사장(2008년), 국제최소침습척추외과학회장(2011∼2014년) 등을 두루 역임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02.txt

제목: 고혈압·당뇨·5대癌 ‘확진검사’ 무료로 받는다  
날짜: 2016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28190325504  
본문: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5대 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로 확진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br/><br/> 보건복지부는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2차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만성질환의 신속한 발견·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상담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br/><br/>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서 질환 의심판정을 받으면 검진기관을 다시 방문해 2차 검진(확진 검사 및 상담)을 받거나, 추가 비용을 내고 다른 병·의원을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고혈압·당뇨병 의심 판정자 115만명(2014년 기준) 가운데 38%(44만명)만이 2차 검진을 받는 데 그칠 정도로 번거로움이 컸다. <br/><br/>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불편이 덜어진다. 확진 검사와 상담을 검진기관이 아닌 집 근처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치료 시에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암 확진검사 비용 지원대상이 기존 위·대장암에서 간·유방·자궁경부암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3가지 암의 확진 검사비 중 50%(종합병원 기준)를 본인이 내야 하는데, 향후 전부 지원된다. 또 현재 40세와 60세에 두 차례 진행되는 생애전환기 검진 때 이뤄지는 음주·흡연 등 생활습관상담을 40세 이후 10년마다 받을 수 있다. <br/><br/> 건강검진을 받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된다. 현재 우편으로만 제공되던 검진결과 통보는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03.txt

제목: 일본인, 한국인보다 2년 오래 산다  
날짜: 2016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28180918048  
본문: 일본 정부통계 결과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약 2년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일본 후생노동성이 27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헤이세이 27년(2015년) 간이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인 남녀 평균수명은 각각 80.79세, 87.05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여성이 0.22세, 남성이 0.29세 늘어났다. 반면 국제 순위에서는 여성 평균수명이 홍콩에 밀려 4년 만에 1위에서 2위로, 남성은 3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br/><br/> 통계에 따르면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한국인보다 남녀 각각 1.80세, 1.57세 많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인 남녀는 각각 78.99세, 85.48세까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끼리 비교하면 양국의 평균수명은 최소 2013년부터 차이가 줄고 있다.<br/><br/> 후생노동성은 평균수명이 올해도 최고치를 경신한 데 대해 암·심장·뇌혈관 등 ‘3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줄어든 덕이 크다고 전했다. 일간 아사히신문은 후생노동성을 인용해 “<span class='quot0'>의료기술 발전과 웰빙 유행 등으로 평균수명이 계속 연장될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에서는 노령화가 가속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br/><br/>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04.txt

제목: [나눔경영-아모레퍼시픽] “여성 암 환우 아름다움 포기하지 마세요”  
날짜: 201607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27211918547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나눔 경영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br/><br/> 2007년 11월 29일 국내 화장품업계 최초로 유엔글로벌컴팩트(UNGC)에 가입해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에 관한 UNGC의 10대 원칙을 기업 활동 전 부분에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br/><br/> 2008년부터 시작된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br/><br/> 환우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방문판매 경로의 아모레 카운슬러가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메이크업을 돕는다. <br/><br/>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국내 최초 유방 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도 설립했다. 유방건강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자기 몸에 대한 관심과 건강을 돌보는 습관 형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4월에는 중국 상하이 동방스포츠센터에서 여성 건강 마라톤 ‘모리파오’를 개최하기도 했다.<br/><br/>김유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05.txt

제목: “아픈 친구에게도 공부 기회… 예수가 주신 돌봄 사명”  
날짜: 201607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27210315450  
본문: 캔틴스쿨(Canteen School)은 소아암 등 희귀난치병 질환으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국내 최초의 건강장애 청소년 대안학교다. 캔틴은 각각 암과 10대를 뜻하는 영어단어가 조합된 ‘캔서 틴에이저(cancer teenager)’의 줄임말이다. 건강장애란 암 등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해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br/><br/> 학교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주택가 속에 있다. 일반주택과 비슷해 보이지만 외벽에 흰색과 연두색 페인트가 곱게 칠해져 있어 눈에 띈다. 홍대 인근의 2층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학교로 꾸민 건 허인영(50·서울 희망감리교회) 교장의 아이디어다. 면역력이 취약한 이곳 학생들의 특성 상 사람이 붐비는 고층 건물보다 단독공간인 가정집이 이용하기 편하다고 봤다. <br/><br/> 현재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건강지원국장을 맡고 있는 허 교장은 캔틴스쿨에선 비상근으로 일한다. 사회복지사인 그가 학교를 세운 건 한 건강장애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계기가 됐다. 당시 허 교장은 백혈병·소아암 환우 가족을 위해 협회가 운영하는 쉼터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일했다.<br/><br/> 지난해 병원 치료를 마치고 엄마와 함께 쉼터에 들렀던 한 건강장애 청소년이 치료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은 것을 비관해 쉼터 건물에서 투신했다.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일어난 일이었다. ‘평소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없어 외로움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시달렸다. 이때를 회상하던 허 교장은 흐느끼며 말했다.<br/><br/> “친구와 통화하는 게 낙이었는데 귀가 안 들리니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집과 병원만 오가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이때 굳혔죠. 설령 내일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오늘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친구 같은 학교를 만들자는 마음에서요.” <br/><br/> 협회와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지난 3월 문을 연 학교에는 입소문을 타고 경기도 수원, 평택, 일산 등 전국 각지의 건강장애 학생 16명이 입학했다.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학비는 받지 않는다. 항암치료를 받거나 후유증을 겪는 학생들의 체력을 고려해 수업은 일주일에 3일만 한다. 기초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물론 악기배우기, 사진촬영, 목공, 요리 등 문화·예술·생활 강의도 진행한다. 장기 치료로 일상이 흐트러진 아이들의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산책과 등산, 요가 등 운동교실도 병행한다. 학교에 올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픈 학생을 위해서는 직접 교사가 방문하기도 한다. <br/><br/> 기독교학교는 아니지만 목회자 사모인 허 교장은 학교 문을 열기 전에 개소예배를 드렸다. 학교가 아픈 아이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회복의 자리가 돼 희망을 선물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오늘 괜찮아도 내일 증세가 악화돼 죽음을 맞을 수도 있는 학생들에겐 특히 더 기도가 필요하다. 허 교장과 9명의 교사·강사들은 개교 5개월 만에 제자 한 명을 하늘나라로 보냈다. <br/><br/> 허 교장은 “건강장애 청소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새로운 사회적 약자”라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아픈 사람을 보살피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다.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02-3144-2413).<br/><br/>양민경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06.txt

제목: 암·우울증·자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날짜: 201607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27040419012  
본문: 앞으로 암과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의 명단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br/><br/>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급여법 등 법률안 5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3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br/><br/>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암, 정신 질병, 자해행위를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br/><br/> 또 희귀 암,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신청자가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상(公傷) 심의 전 전문조사제’를 도입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작업환경측정 지정병원에 업무 연관성에 대한 전문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공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br/><br/> 이에 따라 특수질병으로 공상 신청을 한 공무원의 입증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br/><br/> 중증 부상자에 대한 공무상 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됐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비를 먼저 지급하고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공상 승인이 이뤄진 이후 이를 환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했다.<br/><br/> 또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대형사고 사상자, 장기 입원자를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된다.<br/><br/> 이와 함께 공중위생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br/><br/>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의 명단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br/><br/> 성매매나 도박 장소를 제공한 대중목욕탕, 무허가 의료시술을 하다 적발된 이·미용실 명단도 공개된다. 업소명과 영업정지·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내용, 사유 등이 게재돼 일반인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자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br/><br/> 또 검역 당국이 필요하면 항공사나 선박 운용사에 승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입국심사 정보, 외국인 등록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br/><br/>김재중 민태원 기자 jj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07.txt

제목: 암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 나왔다  
날짜: 201607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26181008805  
본문: 암 조직을 스스로 찾아가고, 탑재한 항암제를 정확히 방출해 암을 치료하는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이 개발됐다. 암세포의 중심부까지 침투하고 인체에 거부 반응이 없는 면역세포를 기반으로 만들어 진일보한 항암치료 기술로 평가받는다.<br/><br/> 전남대 로봇연구소 박석호 교수와 한지원 박사 연구팀은 면역세포의 일종인 ‘대식세포’에 자성(磁性)을 띠는 나노미터(㎚·10억분의 1m) 크기의 구조체와 항암제를 함께 탑재해 대장·유방·췌장 등 고형장기에 생긴 암을 추적·치료하는 직경 2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의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에 발표됐다.<br/><br/> 대식세포는 몸 안에 침입한 세균 등을 잡아먹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항암제와 자성을 띠는 산화철, 생체에 적합한 폴리머(고분자) 등으로 나노 입자를 만든 뒤에 쥐에서 뽑은 대식세포와 결합했다. 대식세포는 나노 입자를 외부물질로 인식하고 수용한다. 이렇게 만든 대식세포 기반 약물 전달체를 주사로 혈관에 투입한 후에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혈관을 타고 암 발생부위까지 능동적으로 이동한다. 이런 성향 때문에 ‘마이크로 로봇’으로 불린다.<br/><br/> 수없이 많은 마이크로 로봇을 암 부위에 위치시킨 뒤 외부에서 열이나 초음파를 쬐어주면 자동으로 터지면서 항암제를 내뿜어 치료를 한다. 연구팀은 대장암과 유방암 세포에 적용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50∼60% 높은 암세포 사멸 효과를 얻었다. 한 박사는 “<span class='quot0'>대식세포는 특히 혈관이 거의 없는 암 조직의 중심부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항암제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08.txt

제목: [가정예배 365-7월 26일]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날짜: 2016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25210934685  
본문: 찬송 :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통 234)<br/><br/>신앙고백 : 사도신경<br/><br/>본문 : 호세아 12장 7∼14절<br/><br/>말씀 :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9)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보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은 두말 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br/><br/>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span class='quot0'>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span>”(13)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br/><br/>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대신 올려놓았고, 세상 것을 즐기는 등 ‘나는 부자’(8)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span class='quot0'>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span>”(14) 수치를 당하게 하고 떠돌이 장막생활로 돌아가게 하리라는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br/><br/> 사실 7절에 상인이라는 히브리말의 어원은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모세를 통해 거듭 당부하신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사람같이 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br/><br/> “<span class='quot0'>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span>”(암 3: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span class='quot0'>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span>”(10) <br/><br/>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선지자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의 모든 우상과 복술과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왜 선지자가 가장 소중하고 복된 선물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 세상의 어떠한 악한 세력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는 다른 것보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들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br/><br/> “<span class='quot0'>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span>”(신 6:4) 구약의 핵심 요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길이 열립니다.<br/><br/>기도 : 사랑의 주님. 가장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따라 주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br/><br/>주기도문<br/><br/>임우성 목사(압구정예수교회)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09.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72)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로봇수술클리닉] 시대 이끄는 名칼잡이들  
날짜: 2016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25172726766  
본문: 고려대구로병원 산부인과가 각종 부인과 질환을 로봇수술로 치료해 한국 여성건강 지킴이의 선두에 서겠다고 25일 선언했다. 지난해 말 새로 도입한 로봇수술 시스템 ‘다빈치Xi’를 올해 들어 각종 부인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 도화선이다. 로봇 수술이란 첨단 수술 기구인 로봇을 환자의 몸에 장착하고 수술자가 원격 조종하여 시행하는 복강경(골반경) 수술을 말한다. 복강경 수술은 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그 틈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 수술을 시행하는 치료행위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복강경 수술을 ‘골반경’ 수술로 부른다.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이 주로 자궁, 난소, 생식기 등 골반 내 장기를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br/><br/> 다빈치Xi 시스템은 환부를 3차원 입체영상으로 확대해 보여주는 수술용 카메라와 로봇 손(팔)을 환자의 몸속에 삽입한 후 의사가 원격 조종해 수술을 진행한다. 현재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로봇수술클리닉에서 사용하는 다빈치Xi 모델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로봇수술 시스템이다. 기존 기종보다 훨씬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집도의가 다양한 각도에서 수술시야를 확보하고, 실제와 거의 똑같은 초고화질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환부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주위 신경과 혈관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을 정교하게 진행해 수술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br/><br/> 첨단 의료장비일수록 뛰어난 의료진과 함께 할 때 효과가 배가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로봇수술클리닉은 같은 기종의 로봇수술 장비를 갖춘 국내 어느 병원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최우수 교수들로 의료진을 구축했다.<br/><br/> 현재 산부인과 과장을 맡고 있는 신정호(44) 교수와 이재관(51), 김용진(45), 홍진화(42) 교수팀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골반경클리닉, 부인암클리닉, 폐경기클리닉, 불임클리닉, 가임력보존클리닉 등 5개 특수클리닉을 기반으로 로봇수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로봇수술에 관한 최신 정보와 지식은 물론 수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워크숍과 심포지엄도 수시로 연다. 1980년대 중후반 부인과 질환 치료에 골반경 수술을 도입해 국내 최초로 골반경 광범위 전(全)자궁절제 수술에 성공하며 국내 의료계에 ‘골반경 바람’을 일으킨데 이어 지금은 ‘로봇 골반경(복강경) 수술’ 시대를 선도할 기세다.<br/><br/> 로봇수술은 집도의가 로봇 팔을 빌려서 진행하는 수술이라 복강경 수술경험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안전성과 치료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신정호 교수팀은 최근 30년간 연평균 1000건 이상의 골반경 수술을 집도해 왔다. 그 결과 로봇수술을 임상에 적용하는데 흔들림이 없다.<br/><br/> 특히 자타 공인 ‘칼잡이’로 정평이 난 이재관 교수는 자궁근종, 난소종양,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등에 대한 골반경 수술 경험을 로봇수술에서 그대로 되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인암 전문 홍진화 교수는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복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난소암 치료에도 로봇 골반경 수술을 적용해 높은 생존율을 시현하고 있다. 부인암 수술 시 로봇을 이용하면 수술 시야가 더 넓어지고 선명해진다. 림프절 절제나 ‘자궁방 조직’ 절제와 같은 고난이도 수술을 할 때 합병증, 신경 손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점이 있다.<br/><br/> 현재 로봇수술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인과 질환은 자궁근종이다. 자궁근종절제술은 자궁을 보전하면서 근종만 절제한 후 정확하고 정교하게 봉합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자궁 근종의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깊을 경우 복강경 수술만으로는 정밀도에 한계가 있어 향후 임신 시 자궁파열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그동안 자궁근종 환자가 미혼 여성일 경우 개복수술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br/><br/> 홍 교수는 “<span class='quot0'>자궁근종을 절제해야 하지만 가임 능력을 유지시켜야 하는 경우에 특히 로봇수술이 유용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수술 시 미세한 손 떨림까지도 잡을 수 있어 보다 세밀한 봉합을 통해 수술 후유증 및 합병증을 극소화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수술 흉터도 작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이점까지 누리게 된다. 불임 전문인 김용진 교수는 “<span class='quot1'>불임환자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 로봇을 활용하면 조직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수술 후 임신 성공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span>”고 덧붙였다.<br/><br/> 로봇수술은 골반 장기 탈출증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골반 장기 탈출증은 폐경 이후 자궁이나 방광, 직장 등이 질 밖으로 빠져나오는 병이다. 이 분야는 신정호 교수가 전문이다. 신 교수는 최근 로봇수술을 골반 장기 탈출증 치료에 적용해 장·노년 여성들을 100명 이상 구해줬다. 신 교수는 그물망으로 장기를 받쳐줘 질 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는 한국형 그물망 수술법도 개발했다. 신 교수는 “<span class='quot2'>골반경 수술 시 로봇을 이용하면 수술 후 환자 삶의 질도 훨씬 좋아져 만족도가 높다</span>”며 “<span class='quot2'>부인과 질환 치료에서 로봇수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10.txt

제목: 유방암 1인당 진료비 20代 가장 많아  
날짜: 2016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25000939425  
본문: 유방암 진료는 40∼60대가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인당 유방암 진료비는 20, 30대 젊은 층에서 더 높았다.<br/><b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유방암 진료 인원은 280명으로 2011년(207명)보다 35.6%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50대 671명, 60대 587명, 40대 419명, 70대 387명 등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40대 이후 유방암의 조기 검진이 늘고, 유방암 재발 후에도 다양한 치료로 장기 생존하는 경우가 다른 암보다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br/><br/> 지난해 유방암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422만원으로 2011년(423만원)보다 약간 줄었다. 20대의 1인당 진료비가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636만원, 40대 489만원 등이었다.<br/><br/>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허호 교수는 “<span class='quot1'>20, 30대 환자들은 전이성이 강한 유방암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동반 질병이 없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항암요법 등 견디기 힘든 치료를 적극 받는 것이 이유일 수 있다</span>”고 분석했다. 최근 젊은 층에서 유방재건수술(유방암 제거 후 복원수술)이 활성화되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br/><br/>민태원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11.txt

제목: [즐감 스포츠] 호날두에겐 영웅의 향기가 난다  
날짜: 2016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20184943011  
본문: “아이들은 아주 작았고, 머리카락이 없었다. 몇몇 아이는 자기가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일들에 비하면 내가 가진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br/><br/>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1·레알 마드리드)가 조국인 포르투갈의 한 병원을 방문해 소아암 환자들을 만난 뒤 한 말이다. 그는 포르투갈을 방문할 때마다 암 투병 아이들을 찾아 격려한다.<br/><br/> 호날두의 소아암 환자들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 모른다. 이번엔 유로 2016 우승 상금 27만5000파운드(약 4억1000만원) 전액을 어린이 암 재단에 냈다. 그는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스포츠 스타이다. 전 세계 다양한 자선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1000만 파운드(약 150억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는 1919년 출범한 국제적인 아동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전 세계 아이들이 굶주림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4년에는 10개월 된 아이가 뇌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br/><br/> 대중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그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이지만 신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거리지 않는다. 호날두에게선 진정한 영웅의 향기가 난다.<br/><br/>김태현 스포츠레저팀 차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12.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71) 문동언 마취통증의학과의원] “통증 참지 마세요” 18가지 치료법 세계 첫 개발  
날짜: 201607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8174032891  
본문: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그냥 참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span class='quot0'>요즘 무리를 했으니 아플 수 있지</span>”, “<span class='quot0'>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 것이 당연하지</span>”라며 원인 규명과 치료에 소홀한 경우다.<br/><br/> 통증을 무시해선 안 된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이기 때문이다. 통증은 때때로 몸에 심각한 병이 생겼음을 알리는 경고일 수 있다.<br/><br/> 장애물에 부딪혀 넘어져 뼈가 부러지고 몸 안에 염증이 생겼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해 이같은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자. 낙상에 의한 골절과 염증을 방치해 패혈증을 자초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br/><br/> 통증은 크게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으로 나뉜다. 급성 통증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려주는 경고의 일종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할 기회를 제공하는 ‘착한 통증’이다. 말하자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상이 통증인 셈이다. 교통사고 뒤 생긴 통증은 부상이 치료되면 사라지는 것처럼, 급성 통증은 원인이 해결되면 금세 없어진다.<br/><br/> 반면 만성 통증은 원인이 사라졌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뒤 상처가 모두 아물었는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수개월이 넘게 지속되는 경우다. 이때의 통증은 신경과 척수, 뇌로 이뤄진 통증 전달 체계가 순차적으로 망가지는 신경계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초신경의 병적 변화로 인해 생기는 통증을 방치하면 척수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는 뇌까지 이상이 와 점차 통증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br/><br/> 만성 통증은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고, 그만큼 치료도 쉽지 않다. 때때로 여러 검사를 해도 아플 이유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꾀병 환자’로 매도되기도 한다. 실제 아파도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참고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만성 통증 환자가 적지 않다.<br/><br/> 문동언마취통증의학과의원 대표 원장 문동언(60·전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박사는 18일 “<span class='quot1'>통증을 참는 것은 어리석은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몸에 이상이 왔다고 알리는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병으로 발전하고, 병이 깊어지면 늪에 빠진 것처럼 고통이 점점 심해져 더 힘들어진다</span>”고 주의를 당부했다.<br/><br/> 문 박사는 ‘경막외 내시경레이저술’을 비롯해 지금까지 18가지 통증 치료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임상적으로 그 효과를 입증해 우리나라 통증의학계의 대부로 통하는 전문의다. 2014년 3월, 현재의 의원을 열기까지 1988년부터 25년간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대한통증학회장도 역임했다. 국내외 학술지에 117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300여회나 초청강연을 했다.<br/><br/> 만성 통증은 또한 혈압과 혈당 상승, 집중력과 기억력 감소, 수면장애, 우울증, 면역력 저하 등과 같은 합병증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통증이 있는 부위를 잘 쓰지 않아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 구조물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다.<br/><br/>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암을 극복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정확한 진단과 발 빠른 치료, 몸과 마음을 아우르는 심신통합 건강관리의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br/><br/> 만성 통증 문제로 통증클리닉을 찾는 환자의 50% 이상이 목과 허리,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척추질환자들이다. 나머지는 만성 두통(편두통), 오십견, 대상포진, 3차신경통 환자들이다.<br/><br/> 일반적으로 허리디스크의 70%는 발병 4주 이내 저절로 통증이 사라진다. 따라서 급성기에는 소염진통제와 근육이완제 복용을 권하는 대증요법 위주로 치료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통증이 심할 때에는 6주 이내에 90% 이상이 호전되는 ‘추간공 경막외 신경주사’와 같은 비(非)수술요법이 필요하다.<br/><br/> 추간공 경막외 신경주사란 영상 유도 장치를 이용해 신경뿌리가 나오는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조영제로 약이 퍼지는 모양을 확인한 후,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치료법이다. 문 박사는 “<span class='quot2'>척추관절 주변의 염증과 부종을 줄여 통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발병초기 목·허리 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 치료에 유용하다</span>”고 설명했다.<br/><br/> 문 박사는 이밖에 신경성형술, 고주파 수핵감압술, 추간공 내시경레이저술 등도 척추 통증 해결을 위해 자주 사용한다.<br/><br/> 신경성형술은 일명 ‘경막외 유착박리술’로 불리는 것으로, 직경 1㎜짜리 특수 카테터(도관)를 꼬리뼈 쪽으로 삽입해 신경 주위 유착 부위를 박리하고, 소염제를 주입해 신경 주위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풍선을 장착한 카테터를 신경 유착 부위 속에 넣은 다음 풍선을 부풀려 통증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 척추수술 후 요통, 추간공협착증 치료 시 사용된다.<br/><br/> 고주파 수핵감압술은 신경을 자극하는 디스크 조각을 제거할 때 주로 권장된다. 영상 유도 장치를 이용해 끝 부위가 휘어지는 카테터를 문제의 디스크 조각에 삽입, 고주파 에너지로 응고시킨 다음 인체에 무해한 산소나 이산화탄소로 기화(氣化)시켜 배출시키는 치료법이다.<br/><br/> 문 박사가 요·하지통 해소를 위해 고주파 수핵감압술을 시행한 환자 77명을 3개월 동안 추적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시술 전 평균 7.6점이었던 통증점수가 시술 후 평균 2.5점으로 평균 5.1점이나 감소했다. 그 결과 시술 환자 10명 중 8명 이상(82%)이 만족감을 표시했다.<br/><br/> 한편 꼬리뼈 또는 추간공 내시경레이저술은 직경 1㎜의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척추관 안으로 밀어 넣고 주위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 조각이나 협착 부위를 제거하거나 개선해주는 방법이다. 꼬리뼈 쪽으로 진입하거나 허리께에서 추간공 쪽으로 직접 내시경을 삽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섬유륜 파열에 의한 요통(디스크내장증),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수술 후 요통 치료시 많이 사용된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1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잃었던 꿈 찾아드려요… 잔잔한 감동 ‘드림 온’  
날짜: 2016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7201844818  
본문: 암 생존자가 늘면서 암환자들의 암 치료 후 삶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암 생존자들은 치료 후 체력 저하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 암재발에 대한 두려움,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우울과 불안에 시달린다. 실제 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팀 발표에 의하면 암 생존자의 15.6%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16.7%가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br/><br/>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암 생존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통합지지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2020년까지 지역암센터를 추가 지정하는 등 총 12개의 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최근 사회적으로 암 생존자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br/><br/> 이런 가운데 암환자의 일상 복귀를 실천하기 위해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이하 ARCON)가 주최하고 한국얀센이 후원한 ‘암환자 꿈 응원 캠페인, 드림 온(Dream -On)’이 눈길을 끌고 있다. ‘드림 온’은 암이라는 질병과 싸우느라, 평소 이루고 싶었던 꿈과 멀어질 수 밖에 없었던 환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암환자 정서지원 프로그램이다. 환자가 암 이전의 삶과 같은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은 환자 자신이다. 드림 온은 암환자가 바라는 삶을 만들고, 원하는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삶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하는 나눔활동이다. 환자의 사연에 맞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들이 함께하며, 실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담당한다.<br/><br/> 드림 온은 난소암 환자 4명과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국가암등록사업에 따르면 난소암은 자궁경부암과 함께 가장 발병률이 높은 부인암으로 5년 내 생존률이 낮고, 사망률이 높다. 환자의 50% 이상이 2∼5년 내 재발한다. 난소암 환자들은 재발과 전이로 긴 항암치료를 받으며 여러 부작용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여성성은 물론 아내, 엄마로서의 역할 상실을 겪게 되고, 다른 여성암 환자들보다 정서적인 고통이 높다. 하지만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비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나 관심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br/><br/> 이번 드림 온 1기에 참여한 박은혜(가명)씨는 2008년 처음 난소암 진단 후 지금까지 4번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반복했다. 드림 온에 참여하는 중에도 암 전이가 발견돼 수술을 받았다. 암 진단 이전에는 하고 싶은 일들을 고민 없이 시작할 만큼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박씨는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로 체력이 떨어지면서 고민의 폭이 줄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박 씨가 용기를 내어 드림 온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포토그래퍼’였다. 투병 기간 동안 힘이 된 난소암 환자들과 친구들의 사진을 더 잘 찍어 간직하고 소통하고 싶었다.<br/><br/> 또 다른 참가자 윤월로씨도 참여를 결정하고 막상 두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월로씨는 암 진단을 받기 전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던 시인이었다. 암 치료 중에도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실제 암 치료 중 자신의 심리 상태와 두려움을 시로 표현하기도 했다. 암을 극복한 후 시인 윤월로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드림 온은 박은혜씨의 꿈을 돕기 위해 사진 교육을, 윤월로씨의 꿈을 후원하기 위해 시 전시와 시 낭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열린 ‘드림 온’ 참여자들의 모임 ‘난소암 환자와 함께하는 드림 온 첫 번째 이야기’ 행사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신들이 만들어낸 꿈의 결과물을 선보였다. 이날 함께 한 또 다른 2명의 참가자들은 꽃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플로리스트, 노래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자 했던 성가대원의 꿈을 이뤘다.<br/><br/> 드림 온 첫 번째 이야기 행사장에서는 환자와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환자가 투병 중 가족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었던 말로 “행복하게 살아요”, “웃으면서 살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등이 꼽혔다. 박은혜씨는 “드림 온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더 좋은 사진을 찍어 다른 환자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의지가 더 많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윤월로씨도 “드림 온을 통해 용기를 얻었고 어느 새 일상으로 한 발자국이 아닌 열 발자국 이상은 다가간 느낌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나의 꿈을 이뤄가면서 자신감이 생겼는데, 이런 나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지니 더 큰 삶의 희망이 생긴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br/><br/> 드림 온 프로젝트를 진행한 ARCON 김민지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0'>드림 온은 암환자들의 암 치료 이후의 삶을 환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환자들 스스로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 좀 더 편안하게 일상으로 복귀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1기 참가자들 모두가 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span>”고 강조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14.txt

제목: [쿡기자의 건강 톡톡] 항암치료 결심했다면 의료진 신뢰 필수  
날짜: 2016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7201638736  
본문: 암 진단을 받았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치료와 회복이라는 만만치 않은 관문을 지나야하기 때문이다. 분명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겨낸 이들도 많은 만큼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암치료 전에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br/><br/> 항암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면 먼저 면역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항암치료제는 암세포와 함께 다른 세포도 함께 공격해 면역력을 낮출 수 있으며, 체력소모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 전부터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 영양을 보충해야 한다. 그런데 종종 ‘고기가 암에 좋지 않다’는 오해를 불러 채식위주의 식단을 고수하는 환자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채소와 고기 모두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 또한 면역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치료 전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 <br/><br/> 김효송 신촌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한약이 면역력을 길러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약도 약에 속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항암치료와 한약복용을 같이 하게 되면 간에 무리를 주어 대사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 항암치료 전에는 ‘상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몸에 남은 상처가 감염의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되도록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주의하는 것이 좋다. 침이나 뜸과 같은 한방처치도 몸에 상처를 내는 방식이므로 항암치료 전에는 자제해야 한다. 특히 치과질환이 있다면 항암치료 전에 치료를 끝내는 것이 좋다. 입 속의 상처 또한 감염원이 되기 쉽고, 항암치료 중 치아나 잇몸의 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항암치료가 끝나고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암치료 전 미리 치과에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br/><br/> 대개 항암치료 중이라고 하면,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 모자를 쓰고 있는 환자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모든 항암치료제가 머리카락을 빠지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 쓰는 약에 따라 탈모여부가 갈린다. 김효송 교수는 “최근에는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돕는 약이 있어 치료와 함께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머리카락이 빠지더라도 치료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자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다.<br/><br/> 암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구토 부작용’이다. 먹은 것을 다시 게워내야 하는 과정은 분명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럽다. 김 교수는 “항암치료 환자들이 치료과정 중 구토가 나타나는 것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구토를 막는 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br/><br/> 특히 김 교수는 “무엇보다 항암치료 전에는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질환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료진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 또한 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환자의 의지와 태도도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br/>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15.txt

제목: [암수술 잘하는 병원-김태유 서울대암병원장] “축적된 연구 바탕 정밀의료에 총력”  
날짜: 2016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7200248434  
본문: “<span class='quot0'>서울대암병원은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암(癌)분야의 정밀의료 플랫폼을 잘 구축하고, 모든 환자가 최상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실현에 앞장 설 것입니다.</span>”<br/><br/> 서울대병원 김태유 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1'>최근 의료가 ‘근거중심의료’에서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요인을 분석해 치료하는 ‘정밀의료’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암병원도 그간 축적된 임상·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밀의료의 임상구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br/> 그는 국내 최고 의료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대암병원 수장이다. 서울대병원은 2011년 3월 지상 6층·지하 4층 규모의 암병원을 개원했다. 암종별 센터 16개, 통합암센터 10개, 암정보교육센터·종양임상시험센터 등 총 28개 센터를 두고 암 치료와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로 개원 5년차를 맞은 서울대암병원은 그 동안 진료역량 강화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왔다. 일평균 외래환자수는 2011년 1280명에서 2015년 1909명으로 약 49% 늘었고, 외래총환자수 2011년 24만8349명에서 2015년 47만5270명으로 약 91%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월평균 암수술 건수만 해도 무려 780건에 달했다. 이러한 성과는 서울대병원의 풍부한 임상·연구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접목시킨 덕분이라는 게 김 병원장의 설명이다. <br/><br/> 서울대암병원은 2014년 선정된 보건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병원 암유닛(Unit)과의 연계를 강화해 임상과 연구를 융합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암맞춤치료센터를 신설했다. 김태유 원장은 “암은 유전자 변화에 의해 생기는데, 같은 종류의 암이라도 암을 일으킨 유전자 변화는 다를 수 있다. 센터에서 유전체 기반 맞춤치료를 시행하는데 이는 암세포의 유전자변이 200∼300개를 차세대유전자기술이라는 방법으로 한 번에 분석해 각 환자에 맞는 올바른 항암제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폐암에서의 EGFR, ALK 유전자, 유방암에서의 HER2 유전자, 대장암에서의 RAS 유전자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br/><br/>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유전체 분석을 위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서울대병원에서도 암환자의 정밀 유전자 분석을 위한 오픈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파운데이션 메디슨’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앞으로 복지부에서 NGS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인정해 급여화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병원에서도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환자 맞춤형 유전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 이어 그는 “검증되고 신뢰가 있는 유전체 분석이 국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곧 모든 대한민국 암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며, 공공의료기관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 파운데이션 메디슨은 암 유전체 의학 분야 연구자에게 파운데이션원(FoundationONE)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방암, 폐암 등의 진단과 이 과정에서 도출된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표적 항암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만 약 2만5000여건 임상서비스가 이뤄졌다. <br/><br/> 지난 10여년 사이 암치료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김 원장은 “과거의 진료패턴은 환자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이미 의료계가 맞춤치료 시대로 접어들었고 미래에는 이런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암 치료의 전망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br/><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16.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통증관리②] 통증 악화요인 자세히 체크를  
날짜: 2016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7195732100  
본문: 암환자에게 있어서 통증은 제5의 활력 징후로 여겨진다. 따라서 통증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극심한 통증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상황에 준하는 신속하고 적절한 통증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환자나 가족이 의료진에게 말해 야 할 통증 병력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br/><br/> ◇통증 부위=통증 부위가 한 곳 이상일 수 있어 환자가 신체의 그림에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의사전달이 쉽다. 아래 그림에서 통증 부위에 원이나 점으로 표시하고, 통증이 가장 심한부위에 X로 표시하면 된다.<br/><br/> ◇통증 성격=통증의 느낌은 자신이 흔히 쓰는 용어로 표현한다. 날카로운 지, 둔한 지, 욱신욱신 쑤시는 지, 타는 듯한 지, 저리는 듯한 지, 칼로 베인 것처럼 아픈 지 등이다. 환자가 표현하는 통증의 성격은 통증 원인을 찾은 데 중요하다. 통증의 성격에 따라 사용할 통증 관리법이나 약 선택이 달라진다.<br/><br/> ◇통증의 세 가지 종류=‘내장통(Visceral pain)’은 내부 장기에 관련된 통증으로, 발생 위치가 애매하며 경련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장기의 조직 손상에 의해서 발생한 통증은 갉는 듯(gnawing)하거나 쑤시는 듯한 느낌이 들며, 날카로운 통증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체성통(Somatic pain)’은 피부, 근육, 뼈에 관련된 통증으로 보통 특정 부분에 나타난다. 찌르는 듯하거나 쑤시는 듯한 느낌이 들며, 박동성이나 압박감 등으로 표현된다.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은 말초 신경 손상될 경우 해당 신경의 지배 부위에 나타난다. 발작적으로 나타나며, 칼로 벤 듯하거나 톡톡 쏘는 듯한 양상(발작적 통증), 특정 부위가 타는 듯하거나 저린 양상, 무딘 느낌, 무감각, 허약 등이 동반되는 양상(지속성 통증)을 보인다. 마약성 진통제를 상당한 용량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는 신경병증성 통증을 의심해야 한다.<br/><br/>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환자에 따라 통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통증을 완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진통제, 마사지, 휴식, 수면, 냉찜질, 온찜질 등),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자세, 기침, 움직임, 배뇨 등)에 대해 의료진에게 자세히 이야기해야 한다.<br/><br/> ◇통증 강도=통증의 강도는 긴급 정도, 진통제 종류·투여 방법·용량 등 치료결정 시 매우 중요하다. ‘약간 아프다’, ‘아프다’, ‘아주 아프다’ 등 단순한 단어로 통증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통증의 정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표현해 환자와 가족, 의료진 간에 원활한 통증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숫자 통증 등급(numerical rating scale)은 통증의 강도를 숫자 0∼10까지 등급을 매겨서 표현한다. 이 척도를 이용하는 경우 1∼10점까지의 통증을 경도(1∼4), 중등도(5∼6), 중증(7∼10)으로 구분한다.<br/><br/> ◇통증 시작 및 시간적 양상=통증은 급성통증, 만성통증, 돌발성 통증(breakthrough pain)으로 구분된다. 급성통증은 보통 신체 조직이 손상되는 것이 신호로 나타난다. 심한 통증이 비교적 짧은 시간 지속되다가 조직 손상이 치유되면 일반적으로 사라진다.<br/><br/> 만성통증은 급성 질환의 일반적인 과정을 넘어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다. 암이 진행될수록 점차 심해지며 통증 범위는 경한 정도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 돌발성 통증은 평상시 통증을 넘어서 일시적으로 악화된 통증이다. 만성통증이 있어서 규칙적으로 적정량의 통증 조절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에도 나타난다. 통증 범위는 중등도에서 중증으로, 짧은 시간 지속되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17.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할라벤] 전이성 유방암에 유용… 2차치료제로 급여 제한 아쉬워  
날짜: 2016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7194754033  
본문: 유방암은 암 중에서도 진행이 느린 암으로 분류된다. 다른 암에서는 완치 기준으로 여기는 5년이 지나고서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오래 두고 관찰해야 한다. 특히 유방암은 전이가 되면 환자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전이성 유방암 완치율은 20∼30% 미만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이성 유방암 치료목표는 완치보다는 환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일이다.<br/><br/> 항암치료는 단일요법과 복합요법으로 나뉜다. 과거에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항암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합요법은 암세포를 빠르게 제거하는 효과가 있지만 비교적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거나, 환자가 치료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또한 복합요법으로 치료 후 신체 상태를 복구하는 시기가 6∼7개월 정도로 항암치료를 받는 시기와 비슷하게 길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최근에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부작용이 적은 ‘단일요법’ 주목 받고 있다. 최근 개발되는 단일요법 치료제는 많은 환자들이 염려하는 탈모 현상도 적고 백혈구 감소증이나 오심, 구토 등 항암 치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작용도 완화시키고 있다. 특히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생존기간을 연장시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r/><br/> 일례로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쓰이는 단일요법 치료제로 ‘할라벤’이 있다. 할라벤은 2014년 12월 HER2 음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대한 2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 승인 받았다. 국내 유방암 환자 중 약 80%를 차지하는 HER2 음성 환자들은 2차 치료부터 할라벤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안트라사이클린계 및 탁산계 약물 치료가 부적절한 환자는 예외로 이전 치료 경험 여부와 관계 없이 할라벤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에자이에 따르면 할라벤은 생존기간을 2.7개월 연장시킨 단일요법 치료제이며 투약 시간이 2∼5분으로 짧고 독성이 낮다는 게 특징이다. 이는 임상연구를 통해 근거를 보여줬다. 에자이에 따르면 19개국 전이성 유방암 환자 7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할라벤을 투여한 전이성 유방암 환자군(508명)의 평균 생존기간은 13.2개월로 임상의가 선택한 단일제제를 투여 받은 대조군(254명)의 10.5개월보다 평균 26% 늘어났다. 1년경과 후 생존율도 할라벤 치료군은 54.5%, 대조군은 42.8%로, 할라벤 치료군 생존율이 더 높았다. 전반적 생존기간 연장과 함께 유방암 환자의 편의성도 최대화했다. 단일제제로 예비투약 및 예비배합이 필요하지 않아 이로 인한 과민 반응이 생길 위험을 줄였다. 기존에 흔히 사용되는 항암화학치료제 병용요법은 부작용 빈도가 높아 유방암 환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으로 꼽혀왔다. 투약시간이 30분∼1시간 걸리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정맥 투여 시간이 2∼5분 정도로 아주 짧아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시간을 줄인 것도 할라벤이 가진 장점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생존기간 연장효과가 있으면서도 독성이 적은 약제를 사용한다면 환자가 겪는 항암제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며, 항암치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 <br/><br/> 현재 할라벤은 2014년 6월 전이성 유방암의 3차 치료제로 보험적용이 고시돼 사용되고 있다. 다만 현재 2차 치료제로 적응증은 확대돼 있으나 급여가 되지 않아 사용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더 많은 치료옵션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2차 치료제로 돼 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br/><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18.txt

제목: [암과의 동행] 원자력병원 방사선영향클리닉, 방사선 피폭 전문 치료… 재난대응 연구 병행  
날짜: 2016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7194547238  
본문: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원자력병원은 2010년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전문 진료를 위해 개설한 ‘방사선영향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방사선 재난에 대응한 전문적인 진료, 연구,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br/><br/>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사선영향클리닉은 축적된 방사선 의료대응 시스템의 운영 노하우로 일본에서 귀국한 방송 취재진, 거주자, 유학생 등 다양한 환자에게 유형별 대응방안의 수립을 통해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현재 방사선영향클리닉은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약 2300여 건의 진료를 실시했다.<br/><br/> 방사선영향클리닉은 여러 진료과의 다학제 진료시스템, 원스톱 외래진료와 함께 입원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을 갖추고 있으며, 사전 검진을 통해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건강문제를 선별해 고위험군은 추적관찰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생활방사선과 의료방사선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해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종합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br/><br/> 높은 방사선량에 피폭 될 경우 신체 여러 곳에 이상증상이 일어나는 급성방사선증후군과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방사선 피폭 피부손상 치료를 위해 암 치료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함께 전문 연구원도 필요한데, 암전문 병원인 원자력병원의 방사선영향클리닉은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br/><br/> 미국과 일본의 경우 방사선 피폭선량 연구소는 있지만, 연계된 병원이 환자 발생시에만 가동되며 일반인 대상 외래진료 창구는 없다. 프랑스도 연구소와 병원이 별도로 존재하며 군 병원에서 담당한다. <br/><br/> 방사선영향클리닉은 2014년 방사선 피폭 환자를 위한 핵심 의료기술인 방사선 피폭 선량평가에 대해 국제표준 ISO 15189를 인정받고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을 세계 최초로 획득했다. 방사선 피폭 선량평가는 방사선에 피폭된 환자의 염색체를 분석해 피폭선량를 추적하는 기술로서 환자의 치료경과를 평가하고 신속한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사결과를 제공하는 기술인만큼 평가기술의 정확성 및 국제적 공인이 요구되는 분야이다.<br/><br/> 최근에는 방사선영향클리닉의 인체에 대한 방사선피폭 영향검사가 보건복지부의 신 의료기술로 인정받아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들과 일반국민들이 좀 더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방사선안전 분야의 연구결과가 의료현장에서 실용화되는 첫 사례로서 산업현장의 방사선안전과 작업종사자 안전에 기여할 전망이다.<br/><br/> 진영우 방사선영향클리닉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방사선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피폭환자 발생에 대비한 적절한 의료적 대책으로, 방사선영향클리닉은 적절한 의료적 대책을 통해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span>”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19.txt

제목: [쿠키가 만난 명의-고신대복음병원 유방외과 전창완 교수] “완치로 가는 길 적극적 자세·순응도 중요”  
날짜: 2016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7192659020  
본문: 유방암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2012년 유방암 완치율이 91.3%나 된다. 암을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 범위가 적고 복잡한 치료 없이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암 판정후 환자들 대다수는 암수술과 항암요법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다. 치료 시작 전 환자의 마음을 챙기고 암과 싸워낼 든든한 지원군 ‘명의’가 필요한 이유다. 부산 지역에서 유방암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명의가 있다. 바로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유방외과 전창완 교수다. 그는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나누려 애쓴다. 지난 4월 고신대복음병원 유방암센터에 합류해 지역 선도 유방센터 재도약의 힘을 불어넣고 있다.<br/><br/> 유방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 교수는 “<span class='quot0'>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어지는 경우, 혹은 만혼기 이후 초산을 하면 그만큼 평생 동안의 생리기간이 길어져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 역시 길어진다</span>”고 설명했다. 또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기도 하다. 다양한 이유로 유방암 환자가 늘고 있지만 조기검진으로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암이 전이되면 환자에게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전이성 유방암 완치율은 20∼30% 미만이다. 전창완 교수는 “<span class='quot1'>전이성 유방암 치료목표는 완치보다는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유방암은 보통 뼈, 폐, 간, 뇌의 순서로 전이가 된다. 그나마 뼈의 일부에만 전이가 된 경우, 혹은 치료 후 2년이 지나고 전이가 된 경우는 비교적 예후가 좋다. 문제는 폐나 간 또는 뼈에 광범위하게 암이 퍼질 경우다. 전 교수는 “평균적으로 뼈에 전이가 되면 생존기간이 36∼48개월 정도고, 폐는 25∼27개월 정도다. 뇌까지 전이되면 10∼11개월 정도로 생존기간이 짧은 편”이라며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환자는 화학요법을 통한 생존기간 연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br/><br/> 최근에는 전이성 유방암의 생존기간을 늘리는 새로운 항암제들이 나와 4기 이상의 환자라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전 교수는 “환자들은 항암치료를 하면서 득과 실 모두를 경험한다. 그 과정에서 생존기간 연장을 비롯해 통증 등의 증상 완화,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하면 상당한 득이 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 치료 시, 치료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항암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복합요법은 암세포를 빠르게 제거하는 효과가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으로 환자가 치료를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최근에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부작용이 적은 단일요법이 주목 받고 있다.<br/><br/> 전 교수는 “최근 개발되는 단일요법 치료제는 많은 환자들이 염려하는 탈모 현상도 적고 백혈구 감소증이나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도 완화시킨다. 특히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생존기간을 연장시켰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득이 많다. 복합요법만큼 생존 기간 연장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적은 단일요법이 있다면 선택할만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단일요법 치료제. 할라벤은 2014년 6월 전이성 유방암 3차 치료제로 보험적용이 됐다. 현재 2차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됐지만, 급여가 되지 않아 사용은 제한적이다.<br/><br/> 인터뷰 중 전 교수의 왼쪽 가슴에 달린 핑크리본 뱃지가 눈에 띄었다. 전 교수는 “핑크리본캠페인은 미국에서 시작된 유방암 인식 개선 운동이다. 리본을 통해 유방암 자가 검진과 조기 발견을 유도할 목적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웃어 보였다. 유방암 환우를 위하는 마음도 각별하다. 전 교수는 부산지역 유방암 환우회인 나눔애사랑 환자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br/><br/> 또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치료와 진료로 최상의 치료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신대복음병원은 환자 맞춤형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시행한다. 그는 “<span class='quot1'>환자가 처음 암을 진단 받았을 때 외과, 영상의학과, 성형외과 등 다양한 분야 전문의들과 협진으로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한다</span>”고 강조했다. 유방암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환자들에게 전 교수는 “폐나 뇌로 암이 전이된 환자 중에서도 7년, 13년 이상 생존하신 분들도 있다. 질병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적극적인 자세와 순응도다. 치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br/><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20.txt

제목: [암과의 동행] 복부 비만 해결하면 암 위험 줄어들까  
날짜: 2016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7192554772  
본문: 비만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뱃살만 유독 나오는 복부 비만처럼 부분 비만도 암 발생과 연관이 있을까. 물론 비만이 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된 바는 없다. 다만 여러 연구에서 비만이 암 발생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비만과의 연관성이 확실한 암으로 대장암, 직장암, 폐경 후 유방암, 자궁내막암, 신장암, 식도 선암을 꼽는다. 또 세계암연구재단(WCRF)에서는 이들 암과 함께 췌장암도 비만과 연관성이 확실한 암으로 분류하고 있다.<br/><br/> 성별로 나누면 남성의 경우 비만으로 인해 혈증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진행성 전립선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여성의 경우 비만으로 인해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유방암, 자궁내막암 등 몇몇 다른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비만은 비알콜성지방간염의 위험요인이 되고 비알콜성지방간염은 간경화로 진행된 뒤 간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특히 세계암연구재단에 따르면 비만인 경우 인슐린과 렙틴 수치가 상승돼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인슐린과 렙틴이 암 세포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지적한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은 복부 비만인 경우 증가하는데, 이때 췌장은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혈중으로 인슐린 분비량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고인슐린혈증은 대장암, 자궁내막암, 신장암, 췌장암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윤이화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과장은 “<span class='quot0'>정상 체중이면서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의 암 연관성 관련 연구는 많지 않고 제한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러나 몇몇 코호트 연구 결과 정상 체중이면서 복부 비만이 있는 마른 비만은 유방암, 자궁내막암, 전립선암, 대장암과 연관성이 있고 암사망률 증가와도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pan>”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우 부분 비만은 유방암, 자궁내막암, 췌장암, 대장암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고, 남성은 전립선암, 대장암, 췌장암이 복부 비만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과장은 “<span class='quot1'>하지만 여성의 유방암과 부분 비만의 연관성에 대한 결과들은 폐경 전후 나이에 따라 연구마다 그 결과에 차이가 있고, 남성의 경우에도 비만과 대장암 및 췌장암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 그렇다면 부분 비만만 해결하면 다시 암 발생 확률이 줄어들게 될까? 윤이화 과장은 “<span class='quot0'>암종에 따라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중감량으로 인해 암이 예방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일부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들에서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유방암 발생 위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윤 과장은 “<span class='quot1'>부분 비만이라고 해서 신체의 일부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건강 체중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식사요법과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시행해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 <br/><br/>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21.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삼성서울병원 근치적 방광 적출 100례 달성 外  
날짜: 2016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7192555178  
본문: 삼성서울병원 근치적 방광 적출 100례 달성<br/><br/>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008년 첫 수술을 시작한 이래 8년만에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방광 적출술 100례를 돌파했다. ‘근치적 방광 적출술’은 방광암이 방광 근육 조직을 침범했거나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재발과 진행 위험이 높을 때 시행하는 수술이다. 방광을 포함해 남성은 전립선과 정낭, 여성은 자궁, 난소, 난관까지 적출할 정도로 광범위한 수술이 시행된다.<br/><br/> 병원 측은 “로봇을 이용한 방광 적출술이 개복술에 비해 합병증 발생은 적은 반면, 생존율 등 치료 결과는 유사하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세계 각국 여러 병원들이 점차 술기 적용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옵디보 대장암 등에서 효과<br/><br/>면역항암제 옵디보가 신세포암, 방광암, 대장암에서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임상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은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임상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옵디보 단독요법이 신세포암 및 방광암에서, 옵디보 단독 및 여보이와의 병용요법이 대장암에서 지속적인 효과를 보였다. 프랑스 빌레쥐프의 구스타브 루시연구소 베르나르드 에스쿠디에르 박사는 “과거 진행성 신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12% 미만에 불과했다. 의사들은 그간 옵디보가 장기 생존율을 평가하는 3상 임상시험 CheckMate-025에 나타난 생존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CA209-003과 CA209-010 두 임상시험 결과는 과거 치료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가 옵디보를 통해 4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줬다. 이는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들의 치료 옵션으로서 옵디보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2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직업성 암’ 호흡기계서 최다 발생  
날짜: 2016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7192245707  
본문: 우리 몸속에 암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만약 암이 생겼을 때는 ‘무엇 때문에?’라는 의문을 갖게된다. 잘못된 식습관, 불규칙한 생활습관, 지나친 흡연과 음주 등 암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많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에도 불구하고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중 하나가 직업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다. 이러한 ‘직업성 암’이란 직업 환경 등 직업적 요인을 통해 발암물질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암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성 암으로 인한 암 사망률은 전체 암 사망의 약 9.7% 정도로 추정된다.<br/><br/> 대표적인 직업성 암으로는 호흡기계 암, 림프조혈계 암, 방광암, 간암, 갑상선암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호흡기계 암인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92∼2005년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99건 중, 호흡기계 암이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폐암이 52건을 차지했다.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화학 물질과 관련한 직업이나 생산 공정 분야의 직업 등이 직업성 암과 연관이 높다</span>”고 말했다. 우선 화학 물질에 따른 암의 종류로는 비소와 비소화합물이 폐암과 피부암, 석면이 폐암과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벤젠이 백혈병, 콜타르와 광물성 오일이 피부암, 염화비닐이 간암과 폐암, 뇌암, 백혈병, 림프종 발생과 연관돼 있다. 이 외에도 니켈과 니켈 화합물이 부비동암과 폐암, 검댕이 피부암과 폐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br/><br/> 생산 공정에 따른 직업성 암으로는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 폐암과 방광암, 림프육종을 발생시킬 수 있고, 고무 공장에서는 방광암, 백혈병,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다. 황색 물감 및 빨간 아닐린 물감 제조시에는 방광암, 철과 강철 주조 시에는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암을 일으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대표적인 물질은 석면, 벤젠, 벤지딘, 6가크롬 불용성화합물 등이 있다.<br/><br/> 직업성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비롯해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 교수는 “발암물질에 직업적인 노출이 있었고, 해당 암과의 관련성이 입증돼야 보상이 이루어진다. 작업환경측정 자료 등을 통해 발암물질에 일정 정도 이상으로 노출되었음이 확인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10여 년 전 과거의 노출자료를 구하긴 쉽지 않기에 실제로 직업성 암으로 보상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0'>일반적으로 직업성 암은 전체 암의 4%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나, 국내에서는 실제로 직업성 암으로 보상되는 사례는 이에 10분 1도 채 안 된다고</span>”고 지적했다. <br/><br/> 현재 국내 작업장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작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가 열악하다. 또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낮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인정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br/><br/>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23.txt

제목: 8개 장애분야 연금수급 요건 완화… 일부 장애 등급기준도 상향  
날짜: 2016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7191112540  
본문: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별 완치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악성신생물 장애 등 8개 장애에 대한 장애연금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더 빨라져 보다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장애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br/><br/>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에 대해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 시기가 앞당겨졌다. 8개 장애로는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 암 등이 해당된다.<br/><br/> 앞서 말했듯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별 완치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초진일이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다. 완치일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안정적 상태가 된 때를 말한다. 단 진행 중인 때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된 시점이다.<br/><br/> 이번 장애급여혜택을 통해 크게 두 가지가 개선됐는데,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완치일 인정기준이다. 먼저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개선사항들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악성신생물의 장애등급을 상향하고,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최고 3급까지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 최고 등급을 현행 3급에서 2급으로 상향했다. 또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장애등급을 기존 장애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기존에는 등급을 미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되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면 장애를 미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br/><br/> 완치일 인정기준 개선사항으로는 우선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하기로 했다. 수술 즉시 장애가 발생하는 후두全적출은 ‘적출일’을 완치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장루 또는 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에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본다. 한편 장애심사서류도 보다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장애심사 시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돼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해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견서 제출이 생략 가능하다. <br/><br/>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24.txt

제목: [살며 사랑하며-유형진] 그 많던 전봇대 다 어디 갔을까  
날짜: 2016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7190128453  
본문: 검은 전봇대가 있었다. 시멘트 거푸집에 넣어 만든 길고 곧은 시멘트 전봇대는 큰길에 있었고, 논 가운데 전깃줄은 나무 전봇대에 걸쳐 있었다. 죽은 나무가 오랫동안 비와 바람을 맞으면 단단해져서, 한전에서는 가지만 다듬어 전봇대 대신 사용했던 것이다. 동생과 나는 논 가운데 난 길에 있던 전봇대를 ‘검은 전봇대’라고 불렀다. 그 검은 전봇대는 우리집에서 사촌들이 사는 큰집으로 가는 길 3분의 1 지점에 있었다. 어느 날 나와 동생이 우리 집에서 큰집까지 걸음수를 헤아리며 걷던 적이 있었다. 내 걸음으론 80걸음이었지만 동생 걸음으론 100걸음도 넘었다. 나는 내가 잰 게 맞다 했고, 동생은 자기가 맞다 우겼다. 그때는 내가 동생보다 훨씬 컸는데. 우리는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큰집에 놀러갔고, 큰집에 가면 우리는 언제 싸웠냐는 듯 까맣게 잊고 언니들과 고무줄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토끼풀과 민들레와 제비꽃을 따다가 다 쓴 큰엄마 화장품 뚜껑에 담아 소꿉놀이를 했다.<br/><br/> 나에게 전봇대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지만 전봇대는 전기를 전달하는 송전탑의 작은 버전일 뿐이다. 어느 순간 동생과 내가 발걸음으로 거리를 재던 논 가운데 작은 길은 사라지고 그 위에 백화점과 아파트와 공원이 있는, 차가 막히는 큰 길로 변해버렸다. 신도시에 전봇대는 모두 지하에 매설돼 이제 내가 사는 도시 어디에도 전봇대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도시에 필요한 전기는 나무 전봇대로 전달하는 전기로는 어림도 없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는, 도시에서 먼 마을에 암이 걸릴 정도로 큰 전류가 흐르는 탑을 설치해야만 한단다. 모두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모두 가진 것을 조금씩 내놓으면 될 텐데. 그리고 많이 가진 이는 조금 더 많이 내놓으면 좋은데. 꼭 없는 이들에게만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는 식이다. 전기로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집으로 올라가는 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것이 몹시 부끄럽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들이 보이지 않는 가까운 곳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데. 그것들은 모두 지하에 있어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다.<br/><br/>유형진(시인)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25.txt

제목: 전자파, 100m만 벗어나면 인체 무해  
날짜: 2016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4040133441  
본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 ‘사드 괴담’이긴 하지만 국방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측면도 강하다.<br/><br/> 우선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다’ ‘불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span class='quot0'>지역 주민이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 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직접적으로 이 전자파에 노출된다면 건강에 치명적이다. 그러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범위는 전방 100m 반경이다. 사드 레이더는 기지 외부 울타리로부터 500m 안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전자파가 기지 근처 주민에게 불임·암을 유발한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br/><br/> 국방부는 전자파가 성주 참외 등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괴담’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사드가 배치될 방공 기지는 해발 400m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레이더를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해 주변 농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br/><br/> 다만 전자파가 하늘을 향해 비행기에 전파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 탓에 미군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2.4㎞ 떨어진 공역을 ‘일반 항공기 비행제한공역’, 5.5㎞ 떨어진 공역을 ‘폭발물 탑재 항공기 비행제한공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드가 배치된 뒤 조치할 예정이다.<br/><br/> 또 국방부는 ‘사드가 중국 미사일을 공격한다’는 의혹에 대해 성주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으로 중국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없다고 했다.<br/><br/>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2014년 2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비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갑자기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미국 측에 1조원가량의 분담금을 해마다 지급하고 있다.<br/><br/>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26.txt

제목: 13년 끌어온 예장합동 납골당, 손해 보고 매각키로  
날짜: 201607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3210123979  
본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이 2003년부터 13년째 특혜와 비리 논란을 일으키며 눈덩이처럼 손실을 키워온 벽제중앙추모공원(납골당)을 27억원에 매각키로 했다. 예장합동은 13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본부에서 제3차 총회실행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이같이 결의했다.<br/><br/> 안건 상정 직후 등단한 은급재단 소위원회 서기 유장춘 목사는 “<span class='quot0'>현재 진행 중인 사안과 향후 발생 가능한 여러 법적 문제를 고려해 공동사업자인 최춘경씨에게 납골당을 완전 매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span>”고 설명했다.<br/><br/> 이후 ‘동의’ ‘반대’ ‘유보’ 등의 주장이 뒤섞이며 격론이 벌어졌다. 논의가 평행선을 보이자 박무용 총회장은 “<span class='quot1'>시간이 흐를수록 손해가 더 커진다는 것이 현재로서의 판단</span>”이라며 “손을 들어 가부를 묻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납골당 매각의 건’은 출석위원 90명 중 찬성 54명, 찬성위임 20명으로 74명의 찬성을 얻어 결의됐다.<br/><br/> 은급재단 소위원회 위원장 김동한 목사는 “<span class='quot2'>실행위 결의를 토대로 조속히 소위원회를 열어 매각 진행사항을 논의한 뒤 이사회에서 최종 매각을 결정할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오는 9월 총회 전까지 납골당 매각을 완료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br/> 납골당 문제는 지난 13년간 예장합동 총회 내에서 암 덩어리 같은 문제로 여겨져 왔다. 2003년 은급재단 전 이사장인 고 임태득 목사와 김장수 국장이 납골당 매입을 위해 은급기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불법 대출한 것을 시작으로 문제는 점점 커져갔다. 당시 은급재단 이사회는 교단 몰래 납골당 사업자인 ‘벽제 영산추모관’에 20억원을 대출해 주는 등 편법으로 기금을 증식하려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br/><br/> 2003년 87차 총회에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납골당 수익사업이 허락됐지만 60억여원이 재차 이사회 승인 없이 불법 전용됐다. 이후 사태 수습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현재까지 은급재단이 납골당 문제와 관련, 최씨와 관련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 금액은 200여억여에 달한다. 이번 결의대로 매각을 해도 70억원 정도는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br/><br/> 그동안 ‘소유권 이전’ ‘처분금지 가처분’ 등 납골당 관련 소송도 100여 건이 진행됐다. 회계법인의 평가를 무시하고 140억원에 사들인 납골당을 3개월 만에 90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하는 등 상식 밖의 일도 잇따랐다. 총회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총회 임원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견제세력 부재가 낳은 참사인 셈이다.<br/><br/> 이 과정에서 매년 총회를 통해 ‘납골당조사위원회’ ‘사법처리전권위원회’ ‘은급재단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거듭된 조사를 통해 내놓은 결론은 “총회의 정규 절차를 모두 거쳤고 정당한 집행이었다”는 원론적인 내용뿐이었다.<br/><br/> 그 사이 총회 산하 목회자들의 은급재단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갔고 지금도 1300여명의 연금가입자들은 노후가 제대로 보장될지 불안해하고 있다.<br/><br/>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27.txt

제목: 암 세포 악성 정도·전이 가능성 조기에 확인 가능한 단백질 발견  
날짜: 201607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3183039746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 세포의 악성 정도와 전이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해냈다. 피 속의 특정 단백질 양을 측정하면 암을 간편하게 찾아내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br/> 고려대 생명과학부 김준(사진) 교수팀은 인간과 동물의 세포실험을 통해 암 세포의 전이와 악성이 심하면 ‘RPS3’라는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고 정상세포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br/><br/> 연구팀은 유방암과 피부 흑색종, 섬유육종 등의 암 세포를 배양해 분석한 결과 ‘RPS3’ 단백질은 암의 악성 정도에 비례해 분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따라서 생체 내에서 혈액으로 나온 ‘RPS3’의 양을 조사하면 암 발생 가능성과 진행 정도를 추정 가능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세포 실험단계를 넘어 암 환자의 혈액에서 똑같은 결과가 증명된다면 간편하게 암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져 암 정복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전문 국제학술지 ‘온코타깃’ 최신호에 발표됐다. <br/><br/>민태원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28.txt

제목: 충북도, 바이오연구 벤처 7곳과 1700억 투자협약  
날짜: 201607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2211702595  
본문: 충북도는 12일 도청에서 바이오의약·의료기기 분야의 연구중심 벤처기업 7곳과 1700억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br/><br/> 이번에 투자협약을 한 기업은 ㈜지플러스생명과학, ㈜메디튤립, ㈜피글, ㈜바이로큐어, ㈜케이메디쿱, ㈜클리노믹스, ㈜SCB라이프사이언스로 국내 대학 교수들이 창업한 연구중심의 벤처기업이다.<br/><br/> 수도권과 다른 지방에 본사를 둔 이들 기업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청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에 연구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지플러스생명과학은 유전자가위 편집기술을 이용해 식물에서 치료용 단백질을 생산하는 회사로 5년 이내에 세계 최대의 식물 유전자가위 연구소를 오송에 세울 계획이다.<br/><br/> 메디튤립은 세계 최초로 암 조직 채취와 장기 봉합이 가능한 복강경·흉강경 스테플러를 개발해 세계적인 기업과 기술 이전 협상을 하고 있다. 바이로큐어는 다양한 종류의 항암바이러스를 발견했고 피글은 세계 최초로 플라즈마 의료기기를 개발했다. 케이메디쿱은 녹내장과 안구건조 환자들에게 치료가 가능한 메디컬 푸드를 제공하고 있다. 클리노믹스는 혈액 암 유전자를 진단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SCB라이프사이언스는 줄기세포 분리기와 배양기가 일체형으로 된 로봇을 개발했다.<br/><br/> 정부는 2009년 대구와 충북 등 2곳을 첨복단지로 지정했다. 오송 첨복단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 113만1000㎡의 부지에 총 사업비 4조3000억원을 투자해 조성된다. 이미 신약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연구개발지원기관이 가동되고 있다.청주=홍성헌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29.txt

제목: [겨자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아내  
날짜: 201607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2202911644  
본문: 영국태생의 미국 작가 에드가 게스트가 암으로 투병하던 아내를 천국으로 떠나보낸 뒤 쓴 일기입니다.<br/><br/> ‘아내가 가고 없는 지금에야 비로소 나는 그녀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참을성이 많았는지, 매일 나를 위해 해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진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참고 웃으며, 때로는 슬픔으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그녀는 그 십자가를 졌겠지요. 나는 그녀의 미소만 보고 그녀가 명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기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그녀의 인생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내가 알기만 했더라도 아니 알려고 노력만 했더라도 그녀를 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 작은 여인에게 내가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녀가 가고 없는 지금에야 비로소 절감합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녀가 보여 준 그 인내와 온화함이 내게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그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br/><br/> 남편인 당신은 지금 어떻게 아내를 대하고 있으며 바라보고 있으신지요.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30.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70) 경희대한방병원 한방 암 클리닉] ‘투 트랙’ 동서의학 협진  
날짜: 201607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1193830743  
본문: 신모(56·여)씨는 7년전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이후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던 중 급격한 체력저하로 경희대한방병원 한방 암 클리닉을 찾았다. 당시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 항암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처지였다. 병원 측은 우선 면역력 부양에 도움이 되는 한약인 ‘건칠단’(乾漆丹)과 ‘생기소암단’(生氣消癌丹)을 처방하고 한방자연요법실에서 기공치료와 뜸 치료를 받도록 했다.<br/><br/> 그 결과 백혈구 수치가 다시 정상화됐고, 신씨는 항암치료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씨는 치료 중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나면 전침(電針) 치료를 항암치료와 병행하며 암을 극복하는데 성공했다. 건칠단과 생기소암단은 경희대한방병원 암클리닉 최도영(61·병원장) 교수팀이 개발한 캡슐 제형의 한방항암제다.<br/><br/> 모진 항암치료로 지칠 대로 지친 심신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한방 암 치료를 선택하는 암 환자들이 있다. 신씨처럼 암 치료 시 동서의학 협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희의료원 환자뿐만이 아니다. 개중에는 서울대병원과 연세암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운영하는 대규모 암 센터 또는 암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말을 들은 환자들도 적잖다.<br/><br/> 이들이 한방 암 치료를 선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부작용 없는 개인 맞춤 항암면역치료와 삶의 질 향상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경희대한방병원 암클리닉은 서양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를 배격하고 한의학적 암 치료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한방 암 치료를 도모해 많은 암 환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br/><br/> 이 클리닉은 현재 암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항암면역치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치료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한의학적으로 검증된 침구요법과 봉독요법, 신개발 천연약제 중심의 한약요법, 그리고 독창적인 한방기공요법을 적절히 조합해 암 환자들의 조기 갱생을 돕기 위해서다.<br/><br/> 의료진은 최도영 교수를 정점으로 김영철(50), 장준복(50), 이범준(43) 교수 등 11명의 암 예방 및 치료 전문 교수요원으로 구성돼 있다. 최 교수는 한방병원장 겸 암클리닉 책임교수로 종합사령관 역할을 한다. 김영철 교수는 간·담도암 및 혈액암 치료, 장준복 교수는 여성암(부인암) 치료, 이범준 교수는 폐·기관지암 치료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다.<br/><br/> 이들은 통합의학적 암 치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임상 연구결과를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경희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등과 함께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의 암 치료 효과를 확인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경희대병원 종양혈액내과 의료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항암치료 후 침 치료가 암 환자의 오심(메스꺼움), 구토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규명하기도 했다.<br/><br/> 항암제를 개발할 때 주요 관건 중 하나는 혈관신생억제 효과가 있느냐 여부다. 암세포는 생존을 위해 혈관을 만들어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생혈관을 막을 수 있다면 암 치료뿐 아니라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br/><br/> 그런가 하면 오랜 시간 동안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대부분 체력저하와 피로감을 호소하기 일쑤다. 3주 간격으로 진행되는 항암치료가 버거워 중간에 포기하거나 항암제 용량을 줄이는 경우도 다반사다. 치료가 끝난 후 피로감이 지속된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br/><br/> 이처럼 직접적인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기존 암의 전이를 막고 수술 후 면역력 및 체력 부양 효과를 얻기 위해 개발된 것이 건칠단과 생기소암단, 홍삼보기고(紅蔘補氣膏), 원기생맥산(元氣生脈散) 등의 한약이다.<br/><br/> 최 교수는 11일 “<span class='quot0'>전통적인 한약 처방 중에서 보기양혈(補氣養血), 청열해독(淸熱解毒), 배농소종(排膿消腫)의 효능을 가진 약재들로 구성해 항암효과 및 부정(扶正·정기를 북돋아 줌) 효과를 나타낸다</span>”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결과 생기소암단과 건칠단 등의 한약을 기존의 항암 치료와 병용할 경우 환자의 전신 상태를 개선하고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br/><br/>◆ 최도영 한방병원장<br/>1987년 금연침 개발… 국내 첫 금연클리닉 개설 <br/><br/><br/>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74년 경복고, 80년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했다. 경희대한방병원에서 인턴 및 침구과 전공의 수련을 받고, 87년부터 경희대한의대 침구학교실 및 부속 한방병원 침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3년부터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을 맡고 있다.<br/><br/> 최 병원장은 대외적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를 역임하고 2004∼2007년 대한침구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는 대한암한의학회 부회장, 대한금연학회 부회장, 대한한의학회 수석부회장, 대한한방임상영양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br/><br/> 최 병원장은 경희대한방병원 임상강사로 첫 발령을 받은 1987년에 금연침을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금연클리닉을 개설해 운영한 한의학자다. 금연침이란 흡연욕구를 줄이고 흡연 시 구역질 등 거부반응이 일어나도록 자극하는 이침(耳針·귀에 놓는 침) 요법을 말한다.<br/><br/> 암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무렵부터다. 담배가 폐암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췌장암, 후두암, 방광암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고(高)위험인자임을 알게 됐고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의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서다.<br/><br/> 최 병원장은 실제 암 환자를 대함에 있어 ‘무엇이 가장 환자에게 도움 되는 치료법인지’ 고민하는 한의사로 알려져 있다. 선친이 위암으로 작고했고, 모친과 아내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암 생존자라서 누구보다 암 환자 가족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br/><br/> 최 병원장이 요즘 경희대병원 일반외과 이길연 교수팀과 함께 진행하는 통합 암 진료는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와 한의사가 동시에 참여하는 대장암 다학제협진팀을 만들어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실시 후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펴 개인 맞춤 한약과 침구치료로 조기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br/><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31.txt

제목: 트립티 대표 최정의팔 목사 “커피나무 심어 네팔 가난한 이들 도와요”  
날짜: 2016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07204933729  
본문: 지난달 23일 네팔 바글룽주 버쿤데 마을. 사회적기업 ‘트립티’ 대표 최정의팔(69) 목사가 커피묘목을 심기 위해 첫 삽을 뜨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30여명의 주민들과 트립티 관계자들은 이날 부슬비를 맞으며 함께 2500그루의 묘목을 심었다. 커피나무는 산사태 방지와 빈곤층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된다. <br/><br/> 최 목사는 지난해 11월 바글룽주 홀리차일드스쿨 케이비 샤히(49) 교장으로부터 학부모들이 등록금을 못내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커피묘목 2000그루를 심어주겠다고 약속했다. 1996년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를 설립해 외국인노동자를 섬겨온 최 목사는 샤히 교장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98년 알게 됐다. <br/><br/> 인도에서 법학을 공부하다 예수님을 알게 된 샤히 교장은 가난한 고향의 발전을 위해 홀리차일드스쿨을 세웠다. 한국에 일하러 온 것도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결정이었다. 2년 동안 한국에서 번 돈은 고향의 지역주민센터를 건축하는 데 고스란히 사용됐다. 센터 건물 4층에는 예배당을 만들어 매주 예배도 드리고 있다. 샤히 교장의 바람은 가난한 고향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잘 사는 지역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을 설득, 5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네팔 컨선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커피 묘목에 잘 생기는 병충해를 예방하고 커피 묘목을 잘 키우는 방법도 공부했다. 연내에 트립티 카페도 열 계획이다.<br/><br/> 샤히 교장과 트립티의 만남은 이주노동자 사역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다 귀국한 이들과 국내 사역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의 빈곤 탈출을 돕는 것이다. <br/><br/>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백범로 트립티 신촌점에서 만난 최 목사는 “본국에 일자리가 없으면 이주민들은 평생 돌아다녀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는 배우자와 장기간 함께 지내지 못해 이혼하고 자녀들도 방치되는 등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트립티는 이런 이주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br/><br/> 최 목사는 지난 1월까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이주민들과 동고동락했다. 아내 한국염 목사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다. <br/><br/> “이주민 사역은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고 끝없이 퍼주는 일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나그네를 사랑하는 사역은 크리스천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요. 그렇다고 저는 이 일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br/><br/> 최 목사는 한국에서 일하다 장애인이 된 이주민의 자립 방법을 모색하다 커피 사업에 주목했다. 최 목사가 2009년 설립한 공정무역사업단 트립티는 2014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트립티는 네팔 출신의 장애인들이 지어준 이름이다. <br/><br/> 트립티는 카페 운영뿐 아니라 바리스타 교육, 공정여행 상품 판매, 청소년 직업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사업 대상도 이주민을 넘어 탈북민과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들로 확대됐다. 최 목사는 서울과 전남 여수 등 국내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네팔 등 해외에서도 트립티 설립을 지원했다. <br/><br/> 트립티 사업을 할 때는 개인보다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다. 최 목사는 “<span class='quot0'>개인이 잘 살게 하는 것보다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등의 절차가 이뤄지면 트립티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span>”고 말했다. <br/><br/> 최 목사는 절망에 빠져있던 이주민들이 새 삶을 시작하고 기쁨을 되찾은 걸 지켜볼 때가 가장 기쁘다. 그는 암에 걸렸던 미얀마 아웅나윙 윈씨가 치료받고 귀국해 결혼한 뒤 건강한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최근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네팔인들이 동영상으로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줬을 때도 진한 감동을 받았다. 최 목사는 중국 단둥, 라오스, 몽골, 인도, 캄보디아 등 여러 지역 선교사들로부터 트립티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br/><br/>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도록 하는 일이거든요. 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트립티를 만들고 싶어요.”<br/><br/>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32.txt

제목: 거침없이 말하고, 속 깊고… 여심 흔드는 男 주인공들  
날짜: 2016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07173419247  
본문: 올 여름 안방극장의 흥행 키워드는 ‘로맨틱’이다. ‘태양의 후예’(KBS)로 시작된 로맨틱 코미디 열풍을 ‘또 오해영’(tvN)이 이어받았고, 다시 ‘닥터스’(SBS)로 연결됐다. 그 사이사이 방송된 ‘미녀 공심이’ ‘딴따라’(이상 SBS) ‘운빨 로맨스’(MBC)와 방송을 앞두고 있는 ‘함부로 애틋하게’(KBS) ‘W’(MBC)도 로맨스를 기반으로 하는 드라마들이다.<br/><br/>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여성 시청자를 흔들어 놓는 남자주인공의 활약이 눈에 띈다는 데 있다. 로맨스 드라마의 남자주인공은 멋진 외모로 달달한 대사를 쏟아낸다는 게 특징이다. 무엇보다 다소 비현실적이거나 오글거리는 대사를 쭈뼛대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네는 ‘천연덕스러운’ 태도가 중요하다.<br/><br/> 닥터스에서 신경외과 의사 홍지홍 역을 맡고 있는 김래원은 방송 6회 만에 명대사 제조기가 됐다. “결혼 했니? (아뇨) 애인 있어? (아뇨) 됐다, 그럼.” 김래원이 13년 만에 재회한 박신혜(유혜정 역)에게 건넨 이 말은 방송 이후 두고두고 회자 되고 있다.<br/><br/> 빙빙 돌리지 않고 거침없이 다가서는 모습과 장난스러운 듯하지만 진심이 담긴 김래원의 연기는 여심을 뒤흔들기 충분했다. 로맨틱 코미디 남자주인공이 대부분 ‘츤데레’(겉으론 퉁명스럽지만 알고 보면 따뜻하다는 뜻) 매력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김래원은 매번 정직하게 돌직구를 날리는 것으로 승부하고 있다.<br/><br/> 닥터스는 김래원과 박신혜의 호연에 힘입어 방송 6회 만에 시청률 19.7%(닐슨코리아 제공)로 월화드라마를 평정했다. 미니시리즈 흥행 대박을 말해주는 ‘시청률 20% 고지’가 눈앞에 있다.<br/><br/> 운빨 로맨스와 최근 종영한 또 오해영의 남자주인공은 츤데레라는 공통점이 있다. 운빨 로맨스의 류준열(제수호 역)은 천재 게임 회사 CEO이지만 연애 경험이 없는 ‘수줍은 츤데레’ 역할을 소화해내고 있다.<br/><br/> 또 오해영의 에릭(박도경 역)은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 하는 ‘츤데레남’을 연기했다. 저돌적으로 다가오는 서현진(오해영 역)을 밀어내는 듯하면서도 “있던거야”라며 선물을 주고, 툭 던지듯 “신경 쓰여”라고 말하는 식으로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다.<br/><br/> 미녀 공심이의 남궁민(안단테 역)은 민아(공심이 역)와 티격태격하고 코믹하면서도 솔직하게 사랑을 말하는 모습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br/><br/> 최근 종영한 ‘디어 마이 프렌즈’(tvN)에서도 조인성(서연하 역)과 고현정(박완 역)의 로맨스는 짧지만 강렬하게 다뤄졌다. 슬로베니아에 살고 있는 조인성은 엄마의 갑작스런 암 수술을 겪게 된 고현정을 위해 한달음에 서울로 찾아온다. 사고로 다리를 잃었지만 휠체어에 앉아 고현정을 안아주는 모습은 백마디 말보다 위로가 되는 장면이었다.<br/><br/> 다음 주자는 한류스타 김우빈과 이종석이다. 함부로 애틋하게의 김우빈은 까칠한 톱스타로, W의 이종석은 청년 갑부로 등장해 로맨틱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33.txt

제목: [쿠키가 만난 명의-세브란스 어린이병원 한상원 원장] 소아중증질환 진료엔 심리도 잘 살펴야  
날짜: 2016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03191808838  
본문: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성인과 다른 점이 매우 많다.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소아의 경우라면 여러 사람이 함께 봐야 한다. 예로 주사를 놓을 때만 봐도 그렇다. 아이에게 주사를 놓는 사람, 아이를 안심시키고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침대 낙상사고의 경우,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대비한 안전장치도 다르다. 질병을 겪었을 때 느끼는 심리변화도 같지 않다. 이렇다보니 어린이병원은 보다 더 섬세해야 하고 세세한 부분에 손이 많이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 있어 지난 2006년 개원한 후로 눈에 띄게 성장해온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은 주목해볼만 하다.<br/><br/> 현재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한상원 원장(소아비뇨기과 교수)은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자수성가’라는 단어를 꼽았다. 한 원장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은 비록 국가적인 지원이나 후원 등 외부의 도움도 없었고 다른 병원들보다 과 구성도 적었지만, 의료진 구성원들이 각자 스스로 주인의식과 희생정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온 덕에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했다. 그 덕에 규모와 인력 모두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면서 “특히 우리 병원은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br/><br/> 한상원 원장은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중증질환 치료만큼이나 아이들의 심리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환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바탕으로 질병을 겪었을 때 아이들의 심리는 어떨지 생각해보게 됐다. 따라서 아이들이 몸이 아픈 경우 심리적으로 억압받고, 주눅 들고, 사회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에 있어 심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실제로 심리치료는 질병치료 후 아이가 사회로 복귀했을 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br/><br/> 지난달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은 대대적인 증축 및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중증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소아중환자실과 소아전용수술실을 마련하고, 소아응급의학과, 소아마취통증학과, 소아청소년산부인과 등도 신설됐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다양한 심리치료실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소아심리실, 언어치료실, 놀이치료실, 가수 싸이가 제공한 그룹치료실인 일명 싸이치료실, 안재현·구혜선 부부의 기부로 이루어진 심리치료실 등이 마련됐다.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곳들을 살펴보면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이 지향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대로 전해진다.<br/><br/>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한상원 원장은 “1차 병원에서 하기 어려운 치료를 하는 게 대형병원의 몫이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간, 콩팥, 소장 등 장기이식 분야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원장은 “특히 다학제 진료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중증질환을 다루는 데 있어 이는 매우 중요하다. 환자 한 명을 두고 얼마나 많은 의사가 의견조합을 하고 진료하느냐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면서, “다만 국가에서 암병원에는 다학제 진료 수가를 마련해줬지만 어린이병원에는 아직 마련해주지 않았다.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다. 어린이가 건강해야 나중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원장은 “<span class='quot0'>지원 확대를 마냥 기다리기보단 어린이병원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br/><br/>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34.txt

제목: 건보가입자 낸 돈의 1.7배 혜택  
날짜: 2016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03181001175  
본문: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월평균 9만9934원의 보험료를 내고 의료 이용을 통해 약 1.7배 많은 16만8725원의 보험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5.5%(745만 가구)가 낸 보험료보다 건보 혜택을 더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가 늘어난 탓으로 보험 혜택은 2011년보다 오히려 줄었다.<br/><b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건강보험료 부담과 급여비 지급(보험 혜택) 현황 분석’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 자격 변동이 없는 1656만 가구, 3843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br/><br/> 건강보험 혜택은 저소득층일수록 컸으며 고소득층은 낸 보험료와 비슷한 혜택을 봤다.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가구당 월평균 2만5366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1배 많은 12만8431원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보험료 부담 대비 혜택이 1.1배에 그쳤다.<br/><br/> 연도별로는 지난해 보험 혜택(월급여비/월보험료)은 1.69배로 2011년(1.8배)보다 줄어들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의료 현장에서 신기술 등 비급여 항목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해소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 질환별로는 4대 중증질환이 보험 혜택을 많이 받았다. 심장질환자가 있는 가구가 7.5배로 가장 높았고 뇌혈관질환(7.3배), 희귀질환(3.9배), 암질환(3.4배) 순이었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 가구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혜택은 12.9배로 나타났다.<br/><br/> 모든 연령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혜택이 더 많았는데, 60세 이상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2.4배, 직장가입자는 2.3배 많았다. 지난해 보험료를 내고도 의료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전체의 7.1%(273만명)였다. 지역가입자(10.8%)가 직장가입자(5.5%)보다 미이용률이 조금 높았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35.txt

제목: 한국인 꼬마 천재화가, 파리를 채색하다  
날짜: 201606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29040514841  
본문: 한국인 소년 화가의 개인전이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공식행사로 선정됐다. <br/><br/> 주인공은 방송 등에 소개되며 ‘꼬마 천재화가’로 알려진 이인후(12)군이다. 이군의 개인전이 프랑스 파리의 화랑 밀집지역에 위치한 갤러리 에티엔느 드 코장에서 28일(현지시간) 개막해 내달 5일까지 열린다. 한국 정부가 아닌 프랑스 한불수교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해 선정됐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한국전통문화예술원은 밝혔다.<br/><br/> 어린이의 미술 전시는 파리에서도 유례없던 일이다. 이 때문에 전시 개막을 앞두고 현지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r/><br/> 이군은 아홉 살이던 2013년 첫 개인전을 열었다. 개인전 소식이 전파를 타면서 관객이 몰려 두 차례나 연장 전시를 하기도 했다.<br/><br/>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미술 수업을 받기 위해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 암에 걸렸던 이군의 어머니는 투병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며 지인에게 파리 유학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br/><br/>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유학길에 오른 이군은 프랑스에서도 마음을 잡지 못했고 어머니 생각에 한동안 단 1장의 그림도 그리지 못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br/><br/> 화가로서의 타고난 소질과 어머니의 암 투병 소식은 지난해 방학을 맞아 귀국했을 때 SBS영재발굴단 프로그램에서 소개돼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이후 심기일전해 다시 붓을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r/><br/> 이군은 서울 장평초등학교 3학년 때 동대문구 장한로에 소재한 아이원(이사장 고정균)에서 발굴해 첫 개인전을 갖게 됐다. 아이원은 한국전통문화예술원이 운영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이후 2014년 한 차례 더 개인전을 가져 이번 파리 개인전은 세 번째 전시다. 현재 파리 뷔퐁중학교 1학년(한국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그는 교지에 삽화를 연재할 정도로 기량을 인정받고 있다. <br/><br/> 파리 전시에서는 과거 두 차례 개인전에서 선보인 작품과 함께 2015년부터 파리에서 생활하며 그려온 신작 20여점 등 총 40여점이 출품된다. ‘우리 가족’ ‘잠자고 있는 우리 엄마’ ‘섹시한 우리 엄마’ ‘혼자 있는 아이’ 등 가족을 소재로 한 그림과 ‘행성들의 탄생’ ‘초록 파랑의 구성’ 등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밝은 색감과 단순화한 형태, 장난기 어린 동심이 일러스트적인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다. <br/><br/> 이군을 발탁한 고정균 이사장은 “<span class='quot0'>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특징을 형상화하고 단순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span>”고 평했다. 권영걸 전 서울대 미술관장은 “<span class='quot1'>발상과 구도, 색감은 물론 그림 제목에서도 범상치 않은 창의성을 엿볼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36.txt

제목: [예수청년] 페북에 매일 성경말씀 올리며 하나님 홍보  
날짜: 2016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28042001327  
본문: 배우 정중지(24·여의도순복음교회)는 페이스북 팔로워를 17만명 이상 보유한 ‘페북스타’다. 그는 페북에 거의 매일 성경말씀을 올린다. 배우들은 통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자신의 홍보용으로 사용하지만 정중지는 하나님을 홍보하는 데 쓴다. <br/><br/><br/><br/><br/>‘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라는 성경구절을 올리자 ‘아멘’이라고 적은 댓글 수백개가 주르륵 달렸다. 최근 서울 상수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중지는 주문한 수박주스가 나오자 먼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한 뒤 빨대를 입에 물었다.<br/><br/> 잠언 말씀처럼 정씨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군대에서다. 강원도 화천군 27사단 수색대 출신인 그는 3일 밤낮을 뜬 눈으로 훈련받는 ‘무박4일 훈련’을 마치고 잠시 주어진 휴식시간에 성경책을 펼쳤다. 다른 병사들은 잠을 자거나 편지를 썼지만 정중지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때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아, 성경이 진리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정씨는 인터뷰 내내 성경구절을 인용했는데 이 대목에서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덧붙였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br/><br/> 정중지는 이등병 때 ‘특급전사’가 돼 포상으로 매달 하루씩 외박을 나갈 수 있었다. 그는 단 하루뿐인 소중한 자유시간에 인근 교회에 갔다. 선임병이 돼선 부대적응을 못한 신병들을 보살폈다. 신병이 “어떻게 하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도 “성경을 보라”고 조언했다.<br/><br/> 전역을 한 뒤에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루는 광고회사 직원이 그에게 다가와 “CF를 찍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치아 교정을 하는 중이라 촬영은 못했지만 그때부터 배우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어머니가 암에 걸린 뒤 매일 새벽 5시30분과 밤 9시, 하루 두 번 서울 삼선감리교회(이상일 목사)에서 기도했는데 그날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br/><br/> 그는 고시원에서 생활했다. 맨밥에 된장을 비벼 끼니를 때운 적도 많았다. 배우들은 방송에서 무명시절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정중지 또한 그랬다. 하루는 서울의 한 예고에서 4시간동안 석고상처럼 앉아있는 모델 알바를 했다. 그날 밤에도 평소처럼 빈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 교회는 건축헌금을 모으고 있었다. 정중지는 주머니에 있던 전 재산 3만원을 헌금하며 봉투에 이름 대신 ‘교회 책상 하나라도 사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저 죄인이니까 10원만 받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치만 용서해주세요.”<br/><br/> 그런데 얼마 뒤 연예기획사에서 연락이 왔다. 방값과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조건이었다. 정중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다. 이 대목에선 누가복음 말씀을 인용했다.<br/><br/>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눅 21: 3∼4)<br/><br/>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연예계에 발을 들였지만 이곳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신인 주제에 종교색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많다. 실제로 페북에 성경말씀을 올리면 팔로워 수백명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술을 마시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도 있다. <br/><br/> 정중지가 말했다. “그렇지만 제가 올린 성경말씀을 보고 교회에 다니게 됐다고 쪽지를 보내오는 이들도 있어요. 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릴 겁니다. 제가 배우가 되려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니까요. 성경 66권을 전부 올려서 ‘페북 성경책’도 만들 거예요.”(웃음)<br/><br/>글·사진=이용상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37.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68) 고대구로병원 비뇨기과] 비뇨·생식계통 8개 클리닉… 다양한 질환, 맞춤형 진료  
날짜: 201606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27171927572  
본문: 비뇨기과(泌尿器科)는 소변을 만들고 운반하고 배설하는 요로계(신장 요관 방광 요도)와 남성 생식기관(고환 부고환 사정관 음낭 음경), 부속 성선(전립선 정낭 구요도선) 및 부신(副腎)에 생기는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科)다.<br/><br/> 고려대 구로병원 비뇨기과는 강력한 팀워크와 연구력을 바탕으로 이들 질환과 기능에 대한 임상경험을 풍부하게 축적, 의료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명성과 신뢰를 얻고 있다. 최근 30여 년 동안 다양한 비뇨기 질환에 대해 각 환자에 부합하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덕분이다.<br/><br/> 현재 의료진은 교수요원 4명에 강사급 3명, 전공의 1명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뇨기과 과장을 맡고 있는 박홍석(49) 교수와 문두건(54) 교수, 오미미(38) 부교수, 김종욱(36) 임상조교수, 채지윤(34) 임상강사, 안순태(32) 임상강사, 박종진(30) 임상강사가 그들이다.<br/><br/> 연평균 비뇨·생식기계 수술 건수는 2015년 기준으로 900여건. 아주 많지도, 적지도 않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30% 가량이 비뇨·생식 계통에 생긴 암을 제거하는 수술이다.<br/><br/> 고려대 구로병원 비뇨기과는 비뇨·생식 계통의 다양한 질환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남성의학 △소아비뇨 △요로감염 △요로결석 △요실금·배뇨장애 △전립선 △혈뇨·비뇨기종양 △요로생식기 기형·손상·재건 등 8개 특수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초음파, 요역동학검사기, 요류검사기, 체외충격파 쇄석기 등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첨단 의료 장비도 두루 갖추고 있다.<br/><br/> ①남성의학클리닉<br/><br/> 남성 갱년기 증후군과 발기부전, 조루증 등 성기능 장애 및 성병을 전문 치료하는 곳이다. 음경해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백막에 섬유성 판(plaque)이 생겨 발기 시 음경이 휘는 페이로니병(음경만곡증)도 수술로 교정해준다.<br/><br/> 현재 아시아태평양 성의학회(APSSM) 사무총장과 대한남성과학회 부회장으로 활약 중인 문두건 교수가 책임지고 있다. 문 교수는 특히 소변이 방광으로 역류하는 방광요관역류질환을 내시경 수술로 바로잡고, 왜소한 성기에 필러를 주입해 정상 크기로 개선해주는 음경귀두확대수술 전문가다. 수면 중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게 되는 성인 야간뇨 원인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주는 치료 분야도 국내 최고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교수는 최근에 건전한 성문화 확립을 위한 성교육과 공공정자은행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br/><br/> ②혈뇨·비뇨기종양클리닉<br/><br/> 박홍석·김종욱 교수팀이 담당한다. 지난해 말에 새로 도입한 최신형 로봇수술기 ‘다빈치 엑스아이(Xi)’를 이용해 수술 상처 및 흉터를 극소화하는 최소 침습 전립선암 절제수술로 주목받고 있다.<br/><br/> 암 수술 후 성기능 보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치료 성공률을 높여 전립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박 교수팀은 비뇨·생식 계통에 생긴 암을 대부분 내시경(복강경)으로 제거해 회복기간을 대폭 줄였다.<br/><br/> 방광암이나 신장암 수술 후 요로전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로전환술이란 체내 소변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시술이다. 암 절제수술 후 요로계 일부가 손상돼 소변의 정상적 흐름이 어렵게 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 주로 시행된다. 박홍석·김종욱 교수팀에게 전립선암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0% 이상이다.<br/><br/> ③전립선 클리닉<br/><br/> 남성에게만 있는 밤톨 크기의 장기, 전립선에 생기는 병을 집중 치료하는 곳이다. 전립선에 병이 생기면 오줌을 눌 때 찌릿찌릿한 통증을 느끼고, 정상 배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급·만성 전립선염과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암 등에 의해 유발되는데, 노화와 관련이 있는 전립선비대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클리닉은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한다. 필요에 따라 고출력 KTP레이저와 내시경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완치를 도모하고 있다.<br/><br/> ④요실금·배뇨장애 클리닉<br/><br/> 남성 못잖게 여성도 배뇨장애를 호소한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과 뒤섞여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껄끄러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여성 전문의가 여성만 따로 진료하는 요실금·배뇨장애 클리닉을 만들었다.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 오미미 교수와 채지윤 임상강사가 여성 환자만 따로 모아 ‘남성 환자 출입금지 구역’으로 특화해 놓은 것이다.<br/><br/> 여성에게 문제가 되는 배뇨장애 증상은 복압성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 신경인성 방광 등이다. 오 교수팀은 남성 환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했다. 현재 연평균 600명 이상의 여성 환자가 클리닉을 이용하고 있다.<br/><br/> ⑤소아비뇨클리닉<br/><br/> 이 클리닉은 비뇨·생식 계통에 문제가 생긴 어린이 환자만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곳이다. 문두건·오미미 교수팀이 소아청소년과 교수들과 협진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br/><br/> 고환 주위에 물 같은 액체가 고이는 음낭수종, 고환이 몸 밖으로 나와 있지 않고 체내에 숨은 잠복고환, 잠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소변을 지리는 야뇨증, 요로감염증 등이 주요 치료 대상이다. 이밖에도 요도구가 음경귀두 끝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위치한 요도하열, 방광요관역류질환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어린이 환자도 이 클리닉에서 치료하고 있다.<br/><br/> ⑥요로결석 클리닉<br/><br/> 1980년대부터 선도적으로 결석 치료를 시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성공률을 기록 중인 클리닉이다. 고도로 숙련된 의술을 자랑한다. 결석 환자의 대부분(98%)을 내시경 시술 등 최소 침습 처치로 치료할 정도다.<br/><br/> 박홍석 교수는 “<span class='quot0'>체외충격파쇄석술을 비롯한 비(非)수술요법은 물론 내시경 시술, 개복수술에 이르기까지 결석제거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술 및 처치가 가능해 최적의 개인맞춤 치료를 기대해도 좋다</span>”고 강조했다.<br/><br/> ⑦요로감염 클리닉<br/><br/> 방광염과 고환염, 부고환염, 신우신염 등 요로생식기의 감염성 질환을 집중 치료하는 클리닉이다. 정확하고 신속·원활한 치료를 위해 영상의학과, 감염내과 등과의 협진체제를 구축해놓고 있다.<br/><br/> 특히 과거 방광염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검사에서 치료까지 방문 당일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만성 방광염 환자의 경우 조기 치료뿐만 아니라 위험요인 파악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까지 세워주려고 애쓰고 있다.<br/><br/> ⑧비뇨생식기 기형·손상·재건 클리닉<br/><br/> 선천성 요로생식기 기형인 다낭성이형성 신장, 거대 요관, 요도하열 및 잠복고환 등을 수술로 교정해주는 특수클리닉이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으로 콩팥과 방광, 요관, 요도 등을 다친 환자도 이 클리닉에서 치료하고 있다.<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38.txt

제목: “암세포가 흘린 유전자 조각 정보 조직검사 대신 액체검사로 알아낸다”  
날짜: 201606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27171734641  
본문: 생체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 분석하는 조직검사(조직생검)가 조만간 사라지게 되거나, 존속한다고 해도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간단한 혈액검사나 체액검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액체검사 시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br/><br/> 손주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학술대회에서 액체검사와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액체검사를 이용한 맞춤 항암치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span>”고 27일 밝혔다. 조직검사는 생체 내 일부 조직을 채취해 분석하는 진단의학기술이다. 대개 암이 의심될 때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의 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반면 액체검사는 생체 내 조직을 찌르거나(천자) 째지(절개) 않고 혈액, 복수, 타액 등 체액 속에 섞여있는 유전자 조각을 건져내 분석한다.<br/><br/> 손 교수는 “<span class='quot1'>혈액이나 체액을 이용하면 CT, MRI, 초음파 등 방사선 영상에 잡힐 정도로 암 덩어리가 커지기 전에도 암세포가 흘린 돌연변이 암 유전자 조각을 탐지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이달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시판을 승인한 ‘코바스 EGFR 돌연변이 테스트’가 대표적이다. 이 검사는 폐암 조직에서 혈액으로 방출된 암 관련 유전자 조각을 환자의 핏속에서 검출하는 액체검사법 중 하나다. EGFR 돌연변이 유전자를 타깃으로 하는 표적치료제(엘로티닙)를 폐암 환자에게 써도 될지 확인해야 할 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손 교수는 “<span class='quot1'>액체검사는 개인 맞춤 항암치료를 위해 필요한 암유전자 변이 정보를 채혈(採血)처럼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조직검사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진단법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span>”고 내다봤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39.txt

제목: 노래는 축복의 날개, 천국 가시는 길 평안히 인도 합니다  
날짜: 2016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24210915505  
본문: 거동하기 힘들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인요양병원 환우들에게 매일 찬양을 들려주는 의사가 있다. 이건훈(44) 세계로요양병원 진료과장. 그는 노래하는 의사다. 그는 오랜 세월 믿음을 잘 지키다가 말년에 예배하지 못해 믿음을 잃어버리는 환우들이 안타까워 천국을 노래하는 새처럼 매일 찬양한다. <br/><br/> 지난 8일 경기도 파주 세계로요양병원 제3병동. 점심식사를 마친 환우들이 보행보조기에 몸을 의지해 복도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나온 80대 할아버지는 찬양하는 의사선생님을 바라보며 조금씩 찬양을 따라했다. 환자복 위에 보라색 조끼를 덧입은 70대 할머니는 찬양할 때 박수 치며 “의사선생님이 불러주는 찬송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라고 했다. 스무 명가량의 환우들은 40여분 동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등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담아 찬양했다. 그는 월요일엔 움직이지 못하는 환우들의 병상을 찾아가 기타를 연주하며 찬양을 한다. <br/><br/> 그에게 찬양 사역을 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의 대답은 명료했다.<br/><br/>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말년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천국을 가까이 느끼는 노년의 신앙생활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찬양을 시작했어요. 사역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워요. 잘 못하지만 함께하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br/><br/> 그는 문화선교단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예배 인도자를 위한 찬양학교’를 수료했다. 현재 그는 서울 홍제동 축복중앙교회 주일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한다. <br/><br/> 처음엔 혼자 기타를 연주하며 찬양했지만 지금은 동역자들이 생겼다. 이지영(41) 한방내과 진료과장이 신디사이저를 연주하며 함께한다. 이지영씨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신앙과 일터가 분리되지 않는 직장생활을 소망했어요. 환우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br/><br/> 또 수요일엔 나관호(53) 목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전한다. 이날 나 목사는 일일이 환우들의 손을 잡으며 찬양했다. 나 목사의 어머니는 이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는 어머니가 집중치료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찬양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했다. <br/><br/> 그 환우들의 육체적인 돌봄을 넘어 영적인 돌봄까지 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한 후 헌신의 삶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학 입학 후 주님보다 세상과 더 가깝게 살았다. 2007년 군의관으로 제대할 무렵이었다. 갑작스러운 고열로 사경을 헤매었다. 유행성출혈열이었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이었고 치사율도 높았다. <br/><br/> 그는 선데이크리스천으로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회개했다. 그리고 이 질병에서 건져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다고 약속했고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다.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라고 생각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어르신들이나 말기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노인요양병원이었다. 그는 중앙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아산병원과 을지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를 마친 가정의학 전문의다. <br/><br/> 그는 환자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찬양이라고 생각했다. 찬양이 상처로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고 잃어버린 신앙의 기억들을 일깨워줄 수 있다고 믿었다. <br/><br/> “한 말기암 환우는 처음엔 듣기 싫다며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런 모습조차 애틋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분이 뭐라고 해도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위로하니까 결국 마음 문을 여셨어요. 그분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br/><br/> 병원엔 치매, 중풍, 말기 환자뿐 아니라 임종을 앞두고 오는 이들도 있다. 그는 오늘도 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길 바라며 찬양한다.<br/><br/>파주=이지현 선임기자 jeehl@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40.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67)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삶의질향상클리닉] 치료 넘어 삶의 질 ‘업’  
날짜: 201606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20213227909  
본문: 암 환자 생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암 진단 및 치료기술 발달 덕분이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평균 69.4%이다.<br/><br/> 암은 더 이상 ‘걸리면 무조건 죽는 병’이 아니란 얘기다. 현대의 암 치료가 암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쪽으로 나가는 이유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이 여러 ‘삶의 질 향상 클리닉’ 팀을 운영하며 암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내 어느 병원보다도 더 힘을 쏟는 이유이기도 하다.<br/><br/>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특히 암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수면장애와 스트레스를 적극 관리해줌으로써 환자의 치료 의지를 북돋워주고, 암성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일을 한다. 암 치료 후 재활훈련과 재발 및 전이 예방, 만성질환 관리도 이 팀에서 도와준다. 가능한 한 빨리, 암 발병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삶의 질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다.<br/><br/> 암 환자 수면장애 클리닉<br/><br/> 암 환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수면장애를 겪는다. 암 환자 수면장애 클리닉은 각 진료과목과 연계해 수면장애의 주원인이 암 자체로 인한 것인지, 암 치료 중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인지를 파악해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처방해주는 곳이다.<br/><br/>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 교수는 20일 “<span class='quot0'>힘든 암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수면장애는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암 치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므로 발생 즉시 적극적으로 치료해줘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 암 스트레스 클리닉<br/><br/> 암 투병은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나 투병 환자들은 늘 근심이 많고 불안해한다. 전이·재발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초조해하는 경우도 많다. 가슴 두근거림과 답답함, 숨 가쁨,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한다.<br/><br/> 암 스트레스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먼저 환자 스스로, 자신의 심리상태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다. 암 스트레스 클리닉은 암 환자들이 암 치료를 하는 중에 가족한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마음 속 말들을 쏟아내 ‘심화’(心火)가 쌓이지 않게 해주는 곳이다.<br/><br/> 암 재활 클리닉<br/><br/> 암이 진행되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기능 저하를 비롯해 치료 중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측, 증상 발생과 동시에 의료진이 개입해 곧바로 진압하는 것이 암 재활 클리닉의 목표다. 암 수술 후 흔히 나타나는 림프부종의 관리 및 재활치료, 폐암환자를 위한 호흡재활 프로그램, 암 환자를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등이 준비돼 있다.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br/><br/> 암성 통증 클리닉<br/><br/> “<span class='quot1'>통증이 없을 때 나는 암 환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span>” 한 장기생존 암 환자의 고백이다. 암성 통증이 암 환자의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진행 암 환자의 경우 64%가 통증을 경험하고, 이중 약 43%는 통증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br/><br/> 이대호 ‘삶의 질 향상 클리닉’ 책임교수는 이를 위해 암성통증 클리닉에 특별히 종양내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교수진의 협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약물치료, 중재적 통증 치료, 방사선 치료, 물리요법, 인지요법 등 환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통증 완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 포괄적 통증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br/><br/> 암 평생관리 클리닉<br/><br/>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암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을 관리해주는 곳이다. 완치판정 순간은 짧지만 2차 암 또는 재발 암에 대한 관리는 평생 이뤄져야 한다. 암 재발예방 관리와 2차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들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br/><br/> 만성질환 클리닉<br/><br/> 암 환자들 역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 클리닉은 암 환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개인 사정에 맞게 동반질환을 관리해주는 곳이다.<br/><br/> 이 교수는 “<span class='quot2'>암 발생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 및 생활 습관을 같이 교정해줘야 만성질환 관리가 쉬워지고, 암 환자들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span>”고 말했다.<br/><br/>■이대호 교수는<br/><br/>1994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2001년과 2007년,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폐암 전문의를 거쳐 2006년부터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에서 일하고 있다.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미국 국립암연구소(NCI)를 방문, 최신 폐암 치료법에 대해 연구하고 돌아왔다.<br/><br/> 현재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부교수 겸 암병원 삶의 질 향상 클리닉 책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종양내과는 진행 단계 암 환자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삶의 질이 중요한 이유다.<br/><br/> 이 교수는 중학교 시절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일을 계기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br/><br/> 의사가 된 후에는 항암치료가 어려운 폐암과 흑색종, 원발미상암 등을 전문 진료 분야로 삼고 유전체 맞춤 암 치료, 임상시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br/><br/> 그동안 치료가 성공적인 경우도 많았지만, 손쓰기 힘든 말기 암의 경우 마지막까지 힘든 항암치료만 계속하다가 삶을 마감한 환자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의사로서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치료를 포기하라고 권할 순 없다고 생각했다. 이 교수가 '삶의 질 향상 클리닉'에 애착을 갖고 정성을 다하는 배경이다. 그는 "삶의 질이 좋아지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암 치료에 임하게 된다"며 "궁극적으로는 치료 결과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br/><br/> 이 교수는 진료실에서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환자에게 직설적 화법을 구사한다. 환자들이 치료법을 선택할 때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다. 겉으로는 퉁명스러워 보여도 환자들과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고 수시로 통화하는 것을 보면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br/><br/> 요즘 이 교수는 암 생존자 또는 암 경험자들이 삶을 마감할 때까지 종합관리를 받을 수 있는 '토털 케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병의 경중과 시기, 환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를 암 환자 진료 현장에서 구현하는 게 목표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41.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통증관리] 진통제 투여해도 효과없으면 의료진에 알려야  
날짜: 2016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9211417485  
본문: 국가암정보센터와 함께하는 ‘암환자 생활백서-증상관리’를 주제로 연재를 진행한다. ‘통증관리’ 주제의 4회 연재를 통해 암환자들의 통증, 호흡기계·소화기계 증상, 피로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br/><br/> 암환자 통증<br/><br/> 통증은 암환자들이 겪는 흔하면서 고통스러운 증상이다. 초기 암환자나 혹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의 약 30∼50%, 진행성 환자의 약 60∼70%, 말기암 환자의 약 80∼90%가 심한 통증을 겪는다. 암환자의 70∼90%가 통증 관리 원칙에 따라 관리를 받으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음에도, 60∼70%의 암환자가 적절한 통증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통증은 일상생활을 방해가 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따라서 암으로 인한 통증은 대부분 먹는 약으로 충분히 조절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도 암 치료에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작용도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꺼리며 통증을 참을 필요는 없다. <br/><br/> 통증의 원인<br/><br/> 원인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이 암 자체에 의한 것(65%)으로, 암이 뼈나 신경계를 침윤하거나 기타 장기를 눌렀을 때 발생한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과 관련된 암 치료 통증(25%)이 있다. 몇몇 항암제는 말초 신경을 손상시켜 신경병증성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방사선 치료도 피부 자극에 의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암환자의 통증은 때때로 암이나 암 치료와 관계없이 발생(10%)할 수 있다. 암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두통이나 근육통 등의 통증이 대표적이다.<br/><br/> 따라서 암환자들은 의료진과 통증 상담시 다양한 증상을 말해야 한다. △통증으로 인해 일어나거나 걸을 수 없을 때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을 때 △통증으로 인해 눈물이 나며 힘들 때 △통증으로 인해 식욕이 감소할 때 △통증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을 때 △진통제를 복용해도 통증이 조절 안될 때 △통증이 조절되다가 새로운 유형의 통증이 새로운 부위에 생길 때 등이다.<br/><br/> 통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br/><br/> 통증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다. 통증은 심할 때보다 약할 때 조절하기가 쉬우며, 처방 된 진통제를 규칙적으로 제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중독에 대한 걱정도 불필요하다. 암환자의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진통제는 습관성이나 중독성을 유발하지 않는다. 다른 치료 방법으로 통증이 줄어들면 약을 줄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약 복용이 통증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간혹 마약성 진통제는 미리 사용하면 나중에 쓸 약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마약성 진통제는 천정 효과가 없어서 통증이 심해지더라도 용량을 늘리면 효과가 지속된다.<br/><br/> 특히 진통제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 내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 용량을 늘리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용량을 늘려야 하는 경우는 진통제에 내성이 생겨서라기보다는 대부분 암이 점차 악화됐기 때문이다. 의료진은 통증 조절을 암환자 치료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한다. 통증이 나타나거나 심해질 경우 진통제를 투여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반드시 말해야 한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4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심찬섭 건국대병원 교수 “말기환자 여한없이 식사하게 도왔습니다”  
날짜: 2016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9210910850  
본문: “<span class='quot0'>정말 내가 죽기 전에 한번이라도 물을 삼키고 식사를 원 없이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span>” 어느 날 말기 식도암 환자의 이 같은 절박한 말을 듣게 된 심찬섭 교수가 어떻게든 그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것이 스텐트를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당시에는 식도암으로 음식물이나 물을 삼키지 못할 경우, 위에 구멍을 내고 호스를 연결해 음식물을 넣을 수 있게 하는 경피적 위루술을 하거나 정맥주사로 수액과 영양만을 공급해 단지 생명을 연장할 뿐이었다. <br/><br/> 심찬섭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그때를 회상하며 “<span class='quot1'>나는 환자의 남아있는 여생이 비록 짧을지라도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일시적이더라도 전신상태의 회복과 잠깐이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식도 스텐트를 삽입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 스텐트는 엑스레이(X-ray)와 내시경을 이용해 시술한다. 내시경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고 삽입기구 안에 스텐트를 넣은 뒤 유도 철사로 정확한 위치를 잡고 스텐트를 기구에서 빼서 넓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삽입된 스텐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조직과 어우러져 단단히 자리를 잡으면서 기능을 하게 된다. <br/><br/> 소화기 스텐트의 장점은 환자의 삶을 질을 개선하고 암 치료의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물도 못 삼키던 환자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못시켜 늘 속이 아프고 답답했던 환자는 속이 편해지고 대변을 못 보던 환자는 화장실을 간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소화기능이 나아지면서 영양 상태와 면역력이 개선되면서 치료의 또 다른 기회를 얻기도 한다.<br/><br/> 심찬섭 교수는 이를 계기로 스텐트 삽관술을 배우기 위해 당시 식도암에서 스텐트 삽관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암스테르담 메디칼센터(AMC)의 타잇갓(prof.Tytgat) 교수를 찾아가게 됐고 그때 스텐트의 역사와 종류 그리고 당시에 사용했던 스텐트를 보고 많은 자극을 받았다. 1986년 국내 처음으로 식도암 환자에서 플라스틱 스텐트를 삽입하고 그 결과를 학회에 발표, 그 후 식도암 부위의 스텐트 삽관 시술은 비교적 잘 진행이 되어 많은 시술에 성공해 주목을 받게 됐다.<br/><br/> 심찬섭 교수가 국내 업체와 함께 개발한 식도스텐트만 5개. 췌장암과 대장암 스텐트까지 소화기 종류별로 스텐트를 개발해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으며 심찬섭 교수가 개발한 스텐트는 현재 아시아는 물론, 유럽 전역과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현재 한국은 심찬섭 교수의 스텐트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스텐트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이제는 스텐트 하면 한국이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한국의 스텐트를 인정하고 있다.<br/><br/> 심 교수의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한국의 스텐트가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미국에는 2개의 스텐트 회사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3개의 스텐트 회사가 생기게 됐고 그 결과 스텐트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br/><br/> 심찬섭 교수는 “<span class='quot2'>사람에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삶의 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span>”이며 “<span class='quot2'>소화기 스텐트로 말기 암 환자들이 잘 먹고 배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span>”이라 강조했다. 이어 심 교수는 “<span class='quot2'>앞으로도 새로운 스텐트는 암과 투병하는 모든 환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될 것을 기대하며 그 노력 또한 끊임없이 지속될 것을 기대한다</span>”고 자부심 가득한 말을 전했다. <br/><br/>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43.txt

제목: [질환 통계-중년기 암] 가계지출 수요 많은 50대 최다 발병  
날짜: 2016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9210909820  
본문: 사회적 활동이 가장 많은 30∼50대 중 가장 가계지출이 많은 50대에서 암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활동 중단에 따른 지원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 진료현황(30∼50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30대(30∼39세) 7만7486명, 40대(40∼49세) 19만2500명, 50대(50∼59세) 32만2557명 순으로 나타났다. 30∼50대 최근 5년간 전체 암환자를 보면 2011년 47만2713명에서 2012년 52만2078명, 2013년 56만1845명, 2014 66만6588명으로 크게 증가하다 2015년 59만2543명으로 약 10% 감소했다. 연도별, 연령 구간별로 10대 다빈도 암을 분석한 결과 30대에서는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갑상선암이 가장 많았다.<br/><br/> 남성의 경우 2011년 ‘갑상선암-위암-간암-결장암-신장암(신우 제외)’ 순이었으나 2015년에는 ‘갑상선암-위암-신장암(신우제외)-골수성 백혈병-결장암’ 순으로 변했다. 여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갑상선암-유방암-자궁경부암-위암-난소암’의 순서가 변하지 않았다. 40대에서도 갑상선암이 가장 많았는데 남성의 경우 2011년 위암(9781명)이 가장 많았으나 2012년 이후 갑상선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암을 보면 ‘갑상선암-위암-간암-결장암-직장암’ 순으로 많았다. 여성은 2011년부터 줄곧 갑상선암이 가장 많았다. 40대 여성의 다빈도 암 순위를 보면 ‘갑상선암-유방암-위암-자궁경부암-난소암’ 순으로 30대에 비해 위암이 자궁경부암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 50대에서는 성별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 위암이 가장 많았다. 반면 여성은 갑상선암이 가장 많았다. 50대 남성의 다빈도 암 순위를 보면 2011년 ‘위암-간암-결장암-갑상선암-직장암’순이었으나 2012년에는 갑상선암이 결장암을 앞질렀고, 2014년부터는 기관지 및 폐암이 직장암보다 많았다. 여성의 경우는 ‘갑상선암-유방암-위암-자궁경부암-결장암’ 순으로 2011년부터 변하지 않았다.<br/><br/> 이렇듯 중년에게서 발병하는 암은 개인적인 부분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미 발병했다면 치료하는데 집중해야 하겠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미리 암을 발견한다면 치료도 빨라지고, 치료효과도 높기 때문에 사회복귀도 빨라진다. 그렇지만 대형병원에서 정기검진을 하거나, 일반검진에서 몇 가지 추가검진을 넣을 경우 비용이 적지 않아 부담 때문에 정기검진을 미루는 중년들도 많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기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기본적인 검진과 연령대별 암검진을 받는다면 최소한의 건강관리는 가능하기 때문이다.<br/><br/> 국가검진 전문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일이 바빠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몰라서, 무서워서 등의 이유로 건강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span>”라며 “<span class='quot0'>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낮은 병기에서 치료하면 생존율이 높아지지만 진행된 후에 발견하게 되면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정기적인 검강검진이 꼭 필요하다</span>”고 강조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연령에 따라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에서는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법정 본인부담금 연간 200만원이내(비급여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연간 12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4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 극복 정보를 당신 손 안에… 병원마다 앱 개발 붐  
날짜: 2016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9210232247  
본문: 암환자 100만명 시대를 맞으며 암질환 및 치료과정에 대해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스마트폰의 활용이 늘면서 손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도 크게 늘었다. 이들 앱은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치료를 위한 일정관리부터 치료 후의 관리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내가 다니는 병원, 내가 먹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에서 개발하며 환자의 신뢰도 높다.<br/><br/> 그렇다면 암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암환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정보요구도가 가장 높다. 단순히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들이 아닌 세계의학논문 등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또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한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는 ‘을’이 되기 때문에 궁금해도 “잘 치료해주겠지”라며 참는 암환자들도 많다. 또 응급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질환자인지 알려줄 수 있는 앱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투병일지, 내가 받을수 있는 복지서비스 등의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현재 개발돼 있는 앱들은 어떤 기능들을 담고 있을까. 삼성서울병원 ‘건강다이어리-암환자수첩’은 일정(치료나 검사, 외래 등의 일정관리), 암치료의 이해(병원이 제공하는 암에 대한 검증된 정보), 치료후 관리(치료 후 생활, 꼭 필요한 연락처), 나의 다이어리(나의 다짐과 심신 기록) 등의 내용을 제공한다. 서울아산병원의 ‘아산스마트암병원’은 암 환자들이 자신의 암 치료과정을 한눈에 보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용은 암환자들이 자신의 진료 검사 치료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나의 일정’을 비롯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차트’, 주기적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을 위해 항암제에 대한 설명 및 주의점을 알려주는 ‘나의 약관리’, 통증·불편감·불안·우울감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나의 삶의 질’ 메뉴 등 유익한 내용을 제공한다.<br/><br/> 충북지역암센터는 암환자들을 위한 ICT(Info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을 통해 통증·부작용·식이·운동 등에 대해 기록을 하면 입력된 정보가 의료진에게 요약된 통계로 제공된다. 의료진은 이를 통해 환자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위별 통증정도, 돌발통증, 수면 중 통증을 비롯해 구토·피로·설사·변비·발진 등 항암 부작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입력해 보다 세세한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약사에서 제공하는 앱 중 한국릴리 ‘지피지기 암치료’앱은 암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에 대해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공한다. 암정보, 나의치료, 힐링공간, 정부정책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는데 암환자의 다양한 증상 및 관리, 식생활, 생활백서 등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 온라인 질의응답 메뉴도 마련해 궁금증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45.txt

제목: 음식섭취 조금만 신경써도 암 예방 도움  
날짜: 2016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9192611580  
본문: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식습관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암이 생기는 다양한 원인 중 식생활에 의한 요인이 20∼30% 정도를 차지한다.<br/><br/> 따라서 암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채소와 과일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강조한다. 암 예방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는 항산화영양소, 식물생리활성물질, 식이섬유 등이 있다. 채소와 과일에 이러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br/><br/> 발암물질 작용 억제하는 ‘항산화제’<br/><br/> 항산화제는 신체 내에 생성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발암물질의 작용을 억제해 세포와 DNA 손상 예방 작용을 한다. 항산화제 성분으로는 비타민C, 비타민E, 비타민A를 비롯해 비타민A의 전구체인 카로티노이드, 셀레늄 등이 있다. 이러한 성분들은 영양보충제를 통해 섭취 가능하나, 채소나 과일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암 예방효과가 더욱 크다. 비타민C 식품으로는 토마토·풋고추·브로콜리·감귤류·딸기·키위·곡류가 있다. 비타민E 식품은 견과류인 아몬드·호두·땅콩 등과 옥수수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 식용유와 고구마가 있으며, 비타민A 식품은 간·우유·계란 노른자가 대표적이다. 셀레늄은 쌀·밀가루·닭·생선 등에 함유돼 있다.<br/><br/> 바이러스 제거하는 ‘식물생리활성물질’<br/><br/> 식물생리활성물질은 식물성 식품에 미량으로 함유돼 있는 성분으로, 신체 내에서 항산화작용·해독작용·면역기능 증진·호르몬 역할조절·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작용을 한다. 대표적으로 자두·딸기·적포도·키위·건포도·토마토·현미는 발암물질의 활성을 억제하며, 녹차와 포도는 항암효과가 있다. 배추·브로콜리·케일·양배추·순무 등은 대장암에 좋다. 대두·두부·된장·청국장·콩나물·감자·옥수수·땅콩·멜론·건포도 등은 유방암 예방효과가 있다. 오렌지·자몽·귤·레몬 등은 폐를 보호하고, 마늘·양파·부추·파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의 예방에 좋은 식품이다.<br/><br/> 발암물질 배설 돕는 ‘식이섬유’<br/><br/> 식이섬유는 체내 소화효소의 부재로 인해 소화할 수 없는 다당류로 장의 운동량을 증가시켜 변비를 예방하며, 발암물질의 장통과 시간을 단축시키고 발암물질의 배설을 촉진시켜 암을 예방한다. 밀제품·현미·호밀·쌀·채소·식물의 줄기·밀겨·보리·귀리·강낭콩 등 곡류와 사과·바나나·감귤류 등 과일이나 채소에 함유돼 있다.<br/><br/> 올바른 식습관도 암 예방에 있어 중요하다.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끼 여섯 가지 식품군(곡류, 채소류, 콩류, 과일류, 유제품류, 당류)을 골고루 섭취하고, 유제품류 및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 <br/><br/> 또한 짠 음식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특히 김치나 젓갈 등 소금에 절인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10% 높은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고농도의 소금은 위 점막의 세포를 자극해 음식 속의 발암물질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 간접적인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br/><br/> 이미 많이 알려져 있듯이 탄 음식도 피해야 한다. 쇠고기·돼지고기 등과 같은 육류를 그릴이나 숯불로 구운 형태로 섭취할 경우, 고기들이 탈 가능성이 높아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붉은 육류나 육가공품의 섭취도 줄여야 한다. 붉은 고기와 육가공품은 대장암 및 직장암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사용되는 아질산염은 접촉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 <br/><br/>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46.txt

제목: 동성제약, 내년 3월엔 신약연구소 개설… 광역학 부문 집중  
날짜: 2016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9192407681  
본문: 동성제약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대구경북첨복단지) 내에 신약개발연구소를 개설한다. 지난 2014년 12월 대구경북첨복단지 내에 연구소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한 이후 외부 인사 영입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대구경북첨복단지에 제2연구소가 준공될 예정이다. 제2연구소에서는 동성제약의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인 광역학치료 분야에 대한 연구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br/><br/> 동성제약은 “<span class='quot0'>내년에 제2연구소가 설립되고, 광역학치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br/><br/> 현재 동성제약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광역학 치료는 PDT(Photodynamic Therapy)라고도 불리며 빛을 이용해 암 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광과민제를 정맥에 주사하면 암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축적이 되는데, 이 광과민제가 종양조직에 달라붙은 후 이를 적정 파장의 레이저광으로 조사해 광과민제가 빛을 받아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세포괴사를 통해 암 종양을 제거하는 방식이다.<br/><br/> 동성제약은 바로 이 광역학 치료에 사용되는 광과민제 ‘포토론’에 주목하고 있다. 2세대 광과민제인 포토론은 1세대 약물에 비해 뛰어난 효과와 편리한 시술 방법 그리고 낮은 부작용으로 광역학 치료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r/><br/>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47.txt

제목: 면역항암제 ‘옵디보’, 폐암 환자들의 새 희망 자리매김  
날짜: 2016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9192203626  
본문: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새로운 임상 결과가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연례회의에서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항암 치료가 암세포에 직접 작용, 공격해서 죽이는 것이었다면 면역항암제는 체내 면역세포를 활용해 암세포를 찾아내 싸우게 하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면역항암제가 항암치료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특히 면역항암제는 환자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환자들의 관심도 높다. 이유는 우선 장기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는 효능 측면이 하나다. 또 기존 화학항암제가 가진 독성이나 내성 문제가 없고 부작용이 적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다.<br/><br/> 대표적인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3상 임상연구(CheckMate-057, CheckMate-017) 결과에 따르면 중요한 지표가 되는 2년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암환자의 전체생존율(1차 유효성 평가변수)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heckMate-057 임상 연구에서 옵디보 투여군의 2년 시점 전체생존율은 29%였으나 비교 대상 항암제인 도세탁셀 투여군은 16%였다. CheckMate-017에서 옵디보 투여군의 2년 시점 전체생존율은 23%, 도세탁셀 투여군은 8%였다.<br/><br/> 이와 관련 미국 폭스체이스암센터 흉부종양내과 호세인 보르가이 교수는 “다양한 조직학적 특성이 있고 안티(Anti) PD-1 면역항암제로 치료받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최장 기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다. 이번 연구에서는 옵디보가 폐암과 같이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의 전체생존율을 장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br/><br/> 국내에서는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이 세계 최초 anti PD-1항체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 니볼루맙)’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4월1일자로 비소세포폐암 및 흑색종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옵디보는 PD-L1 발현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최초의 anti PD-1항체 면역항암제다. 한국BMS 측은 “지난 1999년 화학항암제 도세탁셀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허가 받은 이후, 이보다 우수한 효과를 가진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PD-L1 발현여부와 관계없이 편평,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등장은 의료진 및 환자들이 기다려온 희소식”이라고 설명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48.txt

제목: [신약강국 현장을 가다] 이경준 JW중외제약 신약연구센터장, 선진 외국기관과 네트워크 강화  
날짜: 2016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9192201758  
본문: “<span class='quot0'>신약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국제용’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는 한편, 외국 유수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다져야합니다.</span>”<br/><br/> 이경준 JW중외제약 신약연구센터장(수석상무)은 “<span class='quot1'>혁신신약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장 빠르게 도입한 것이 JW중외제약</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가 집중하고 있는 일반신약과 개량신약을 넘어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혁신신약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span>”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br/><br/> “대한민국 기업들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움직이더라도 오래 전부터 혁신신약 개발에 성공해 온 글로벌 제약사들을 단숨에 따라잡는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신약을 개발해 전세계 환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약을 공급한 온 ‘노하우(Know-how)’를 배우기 위해서는 꾸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br/><br/> JW중외제약은 다른 제약사와 차별화된 연구개발(R&D) 전략으로 미국, 일본 등과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꼽았다. JW중외제약은 축적된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1983년 ‘중앙연구소’를 비롯해 지난 1992년 국내 최초 한·일 합작연구소인 ‘C&C신약연구소’를 설립했다. 2000년에는 미국 시애틀에 화학 유전체학 전문 연구기관 ‘JW Theriac’을 세웠다. 이 연구소는 공동연구 성과물에 대한 외부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고 신약 개발을 통한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2000년 설립됐다. 현재 활성화합물을 이용한 세포내 약물 메카니즘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기반 기술로는 암 관련 세포 신호 전달계 조절 물질 스크리닝(HTS)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최근 제약업계가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개방형 혁신)’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일례로 미국에 설립한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회사의 대표적인 R&D 프로젝트인 ‘CWP291’의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JW중외제약은 항암제 개발에 주력해 왔다. JW중외제약이 퍼스트 인 클래스(first in class)로 개발하고 있는 wnt 표적항암제 ‘CWP291’ 임상 1상 결과는 조만간 발표된다. 이 약물은 암의 재발과 전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wnt 경로를 차단하는 혁신신약이다. 회사는 최근 CWP291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임상 1상 시험을 지난해 12월까지 총 6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현재 통계분석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상 1상 통계분석 후, 주요 결과는 이달 도출될 전망으로 회사는 9월경 최종 결과보고서를 완료해 최종 결과와 앞으로 임상 진행계획에 대한 자율공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임상 1상 결과를 근거로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수출(라이센스 아웃)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br/><br/> JW중외제약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 유명 제약사와 공동투자를 통한 신약개발에도 적극적이다. 회사는 일본 쥬가이제약사와 공동투자로 설립한 C&C신약연구소를 통해 통풍치료제·항암제·항염증제 등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경준 센터장은 “<span class='quot2'>지금까지는 다국적 제약사와 판매 등 공동 마케팅에 대한 제휴를 진행했을 뿐 국적이 다른 제약사가 신약개발만을 목적으로 공동 투자해 설립한 연구법인은 C&C신약연구소가 유일하다</span>”고 했다. 통풍치료제 ‘URC102’는 임상시험 1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14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현재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4개 대형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2상 시험의 조기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쟁품의 상황을 고려해 향후 전략을 결정해 갈 예정이다. <br/><br/> 그는 혁신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은 결국 ‘사람’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나 GSK와 같은 기업이 성공적으로 혁신신약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연구인력”이라며 “결국 승패는 사람에 달려있다. 때문에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연구인력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br/><br/> 그는 JW신약의 자회사 JW크레아젠의 대표도 맡고 있다. JW크레아젠은 세계 최초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신장암치료제(CreaVax-RCC)를 개발해 2007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고 2013년 12월 수출용 의약품으로 전환해 해외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간암치료제(CreaVax-HCC)는 국내 5개 병원에서 15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기관 임상2상을 완료하고, 2014년 3월에 임상3상 IND 승인이 완료되어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차기 목표가 바로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span>”라며 “<span class='quot1'>앞으로도 혁신신약 개발을 선도할 것</span>”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회사는 차별화된 R&D 전략을 통해 고지혈증치료제 리바로, 당뇨병치료제 가드렛 등 개발에 성공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앞으로도 연구 단계에 있는 신약후보물질을 도입해 국내에서 개발 단계를 완료하는 ‘연구개발 역발상 전략’을 추진할 것</span>”이라고 전했다. <br/><br/> 신약개발 과정에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는 질문에 그는 “<span class='quot1'>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신약후보물질 발굴 단계부터 약 개발, 임상시험 단계 단계마다 책임자를 두고 ‘위기 관리(Risk management)’를 해왔다</span>”며 “<span class='quot1'>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과감하게 개발을 접는 경우도 있고, 또 예상 외로 성공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약 개발을 끝까지 진행해 성공한 사례도 많다</span>”고 설명했다. <br/><br/> 끝으로 그는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span class='quot1'>한 개의 신약이 상업화 되기까지 적어도 7년에서 10여년의 세월이 걸린다</span>”며 “<span class='quot1'>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허가당국에 미국 FDA나 유럽 EMA처럼 보다 많은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장기간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었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 <br/><br/> 이어 “기업들이 좋은 신약후보 물질을 발굴해도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벤처, 소규모 제약사들이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게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펀드 조성, 그리고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r/><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49.txt

제목: 원자력병원 스마트 암 진료, 기존치료에 온열치료 더해 치료 효과 높여  
날짜: 2016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9191643872  
본문: 암 진단 후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한다. 이들 3대 암 치료법 외에 최근 제4의 암 치료법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고주파 온열 암치료’이다. <br/><br/> 고주파 온열암치료는 두 전극 사이에 인체를 놓고 인체에 13.56㎒ 고주파 전류를 유도해 전류가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서, 고주파 전류가 인체를 통과할 때 이온농도가 많은 암 세포주위에 전기가 많이 흘러 가열효과에 의해 자연적으로 암세포가 파괴되어 사멸하는 원리를 이용한 최신 암 치료법이다.<br/><br/> 기존의 온열치료는 43도 이상의 온도로 치료하는데, 43∼44도 이상의 열이 가해질 경우 합병증의 위험이 높고 종양 및 종양주변의 혈관이 파괴되어 방사선치료 등을 병행할 경우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 최근에 개발된 온코써미아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는 38.5∼42.5도 사이의 온도를 암세포에만 지속적으로 조사해 암세포만 괴멸시키는 장점이 있다.<br/><br/> 온열치료는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치료와 함께 사용하였을 때 치료 상승효과가 임상적으로 증명되었고, 온열치료 단독 항암효과도 일부 보고 되고 있다.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는 각각 높은 부작용 위험으로 전신 상태 및 종양 위치를 고려해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으나 온열치료는 전신 상태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고형암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수술,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치료를 할 수 없는 말기 암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없이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치료법이다. <br/><br/> 암 치료 전문병원인 원자력병원은 다양한 암 치료기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많은 암환자를 치료해 왔는데, 지난 2014년에는 고주파 온열암치료 시스템인 온코써미아를 도입해 재발성,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치료와 병합요법으로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더 이상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고통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단독으로도 시행하고 있다. <br/><br/> 올해 초 대장암으로 원자력병원을 찾은 52세의 남자환자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모두 받았으나 재발했고, 골반 내 종양의 침범으로 장은 파열되어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장기간의 치료로 환자의 몸과 마음은 지쳐있었으며, 암성 통증과 종양으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어 환자 삶의 질도 악화되고 있었다. 주변 장기의 독성 위험으로 더 이상의 방사선 치료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열치료를 시행했는데, 2개월의 치료 후 경과는 놀라웠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온열치료 단독으로는 종양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데, 컴퓨터 단층 촬영 상 종양의 괴사가 관찰된 것이다. 통증과 삶의 질도 완화됐으며 환자는 현재 추가적인 온열치료를 계획하고 있다. <br/><br/> 지난 4월 미국에서 개최된 제12회 국제온열암치료학회에서 원자력병원과 연구소는 암성장 억제 효과와 관련해 온코써미아 온열암치료와 방사선치료의 순서를 정하는 쥐 실험을 통해, 온열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방사선치료 그리고 온열치료의 순서로 시행하는 것에 비해 효과가 더 좋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br/><br/> 현재 국내에서는 온열암치료와 관련된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원자력병원도 국내에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를 처음 도입한 업체와 연구협력을 맺고, 치료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연구를 통해 기존의 암치료로 치료가 어려운 많은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br/><br/>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50.txt

제목: [건강 나침반] 전이성 대장암도 완치율 높아져… 포기하지 마세요  
날짜: 2016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9191433584  
본문: 농업에 종사하는 김모(63·남)씨는 2007년 1월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당시 간 전이가 심해 삶의 연장을 목적으로 표적항암제를 포함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결과, 간 전이가 현저하게 축소됐다. 이후 2007년 9월에 간전이에 대한 절제 수술을 시행했지만, 이후 경과는 순탄하지 않았다. 2008년 7월에 간전이 절제술, 2011년 1월에 폐전이 절제술 및 항암 화학요법을 두 차례 더 받았지만 재발에 대한 걱정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다행히 암이 재발하지 않았고 마지막 수술 후 5년 뒤 담당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다.<br/><br/> 대장암은 발병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한, 조기 발견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첫 진단을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된 대장암 4기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장암 진단 후 절제 수술을 받더라도,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재발되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대장암 진단을 받으면 ‘사망 선고’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br/><br/> 하지만 그런 인식은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병기가 높을수록 치료 방법이 복잡하고 생존율도 낮아지지만, 최근 진단검사 및 치료 방법이 진보하고 새로운 항암제 개발 등으로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대장암 치료 능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서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의료 선진국의 치료 성적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br/><br/> 이를 반영하듯 2000년대 초 전체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이 66.6%였던 반면, 2012년에는 74.8%로 약 8% 높아졌다. 또한 일반인들이 말기라고 인식하는 4기암과 재발암이 완치되는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4기 전이성 또는 재발성 대장암은 일반적으로 완치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진단 당시 수술이 불가능한 간전이를 동반한 4기 환자에서도 일부환자의 경우 항암치료 후 종양감소를 통한 수술적 절제를 약 30%까지 유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에서도 장기 생존율이 높아졌다.<br/><br/>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암세포에 선별적으로 작용하는 표적 항암제를 항암화학요법제와 함께 사용하면 암의 크기를 줄여 질병 진행을 늦출 뿐만 아니라 생존기간을 약 30개월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 중 일부 환자들은 전이성 또는 재발성 대장암 진단 당시에는 수술이 불가능했으나, 항암치료로 종양이 축소돼 2차적인 절제술을 가능하게 하여 장기 생존 또는 완치를 목표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br/><br/> 특히 간전이 또는 폐전이 절제술은 수술 후 합병증 및 회복 기간 지연 등으로 수술 자체가 과거에는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복강경이나 흉강경을 이용한 절제 수술을 통해 환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밀한 영상 검사들을 통해 미세 전이 암세포까지 확인해 더욱 정확하게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어, 완치되는 대장암 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전이성 대장암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표적항암제를 병용한 항암화학요법 및 수술 치료 등을 병행하면 생존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상당수는 완치도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희망적 마음가짐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의료진을 신뢰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마음가짐일 것이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51.txt

제목: [단독] 말기 환자 연명의료 ‘컨트롤타워’ 질병관리본부 유력  
날짜: 2016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7040219435  
본문: 암, 에이즈 같은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모든 관리를 맡을 ‘컨트롤타워’로 질병관리본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산하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처럼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br/><br/>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span class='quot0'>지난 2월 공포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웰다잉법)’에 따라 의무 설치하게 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를 검토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br/><br/> 웰다잉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말기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19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법 시행은 2018년 2월부터(호스피스는 2017년 8월부터)다.<br/><br/> 복지부는 지난 4월 말 권덕철 보건의료실장과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입법 작업을 진행 중이다. <br/><br/> 특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장기 기증·이식 등 비슷한 생명 관련 업무를 관장해 온 질병관리본부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환자가 건강할 때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입원 시 병원에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등록과 DB 구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도·감독, 연명의료 현황 조사·연구 등을 맡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KONOS처럼 산하에 별도 센터를 두고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아울러 웰다잉법에 따라 종합병원급 국공립병원에 우선 설치될 ‘중앙호스피스센터’에 국립암센터가 지정될지도 관심사다. 국립암센터는 그동안 국가암관리법에 따라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관리 사업을 맡아왔다. 하지만 새로 시행될 웰다잉법에는 호스피스 대상으로 암뿐 아니라 에이즈,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추가돼 암 특화병원으로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52.txt

제목: [책과 길-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의 승리… 지구의 패배  
날짜: 2016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6191933822  
본문: 기후변화는 지구의 암이다. 서서히 진행되지만 치명적인 방향성을 띠고 있고, 치료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그러나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죽는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는 암과 유사하다.<br/><br/> 1988년 ‘타임’지가 ‘올해의 행성’이란 표제로 밧줄에 칭칭 감긴 지구의 모습을 게재한 이후 국제사회는 30년 가까이 기후변화 이슈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3년에 1990년보다 61% 늘어났다. 캐나다 출신의 저널리스트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노 로고’ ‘쇼크 독트린’ 등을 쓴 나오미 클라인의 신간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두 가지 획기적인 관점을 제공하면서 다소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기후변화 논의에 새로운 활기를 제공한다. 2014년 미국에서 출간돼 “‘침묵의 봄’ 이후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환경서”라는 평가와 함께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br/><br/> 저자는 그동안 탄소의 문제로 논의돼온 기후변화 이슈를 자본주의의 문제, 시장근본주의의 문제로 재규정하고자 한다. “<span class='quot0'>문제는 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다</span>”에 저자의 주장이 잘 표현돼 있다.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이 자본주의적 생산 시스템과 생활 방식이라는 얘기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강요하고 개인들에게 내면화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탄소 문제 해결을 포기하게 하거나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자유주의시장체제를 넘어서는 급진적 전환이 아니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br/><br/> “<span class='quot0'>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집이 홀라당 타버릴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는 불을 끄려 하지 않는 걸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들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탈규제 자본주의와 충돌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span>”<br/><br/> 국제적으로 합의한 목표인 섭씨 2도 이하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부유한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연간 8∼10%씩 감축하는 방법밖에 없다. 답은 나와 있는데, 어느 나라도 어느 국민도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기후변화라는 암은 치료약이 없는 게 아니다. 아무도 그 약을 먹지 않으려 한다는 게 문제다.<br/><br/> 저자는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려고 시도했던 시점이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력했던 시점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또 시장근본주의가 기후 대응을 어떻게 왜곡했고 방해해왔는가를 분석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태양의 힘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 관계, 즉 권력을 쥔 주체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br/><br/> 시장자유주의에 경도된 현재의 자본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해서 또 한 번 결정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구 온난화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본주의를 이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자본주의를 이대로 두고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기후변화라는 위기가 과거의 어떤 진보적 운동보다 더 크고 강력한 사회적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br/><br/> “<span class='quot0'>기후변화는 지역 경제를 재건하고 재창조하며,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는 기업의 영향력을 봉쇄하고, 대중교통과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 등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낸다.</span>”<br/><br/> “<span class='quot0'>기후변화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span>”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지는 우리들에게 달렸다.<br/><br/>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53.txt

제목: ‘오토파지’ 작동방식 세계 첫 발견… 퇴행성 뇌질환 등 신약 개발 기대  
날짜: 2016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6020306934  
본문: 영양분이 결핍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의 세포는 스스로 단백질을 분해한다. 세포 내 불필요한 구성요소와 소기관을 제거해 위험에 맞닥뜨릴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오토파지(autophagy)’ 또는 ‘자가포식’으로 부른다. 이 오토파지가 이뤄지는 신호전달 경로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백성희(사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오토파지의 작동 방식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저명 과학학술지 ‘네이처’ 15일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핵 안에서의 유전자 발현이 오토파지 작동에서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진핵생물의 핵 내 DNA에 결합하고 있는 염기성 단백질인 ‘히스톤 단백질’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데 필수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정 아래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과 안정화 과정 등을 관찰해 오토파지가 유도되는 신호전달 경로를 찾아냈다. 백 교수는 “<span class='quot0'>오토파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암이나 퇴행성 뇌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개념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54.txt

제목: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 ‘老·老 학대’ 는다  
날짜: 2016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5040430529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br/> <br/>지난해 7월 한 바닷가에서 서성이다 주민 신고로 경찰 지구대로 인계된 A할머니(88)는 몹시 흥분해 있었다. 서울의 한 버스 터미널에서 무작정 “바다로 갈 수 있는 표를 달라”고 해 도착한 바닷가였다. A할머니는 “며느리의 폭언을 참을 수 없어 바닷물에 몸을 던지려 했다”고 말했다.<br/><br/>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A할머니는 수십 년간 아들, 며느리(61)와 살면서 지속적인 고부갈등을 겪었다. 아들이 암 투병을 하면서 며느리의 폭언은 심해졌다. 며느리는 “네 아들은 아파서 저러고 있는데 왜 아직 이 집에 붙어 있느냐” “꼴도 보기 싫다. 집에서 나가라” 등 말을 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으로 마음을 안정시킨 뒤 양로 시설에 들어갔다.<br/><br/> 인구 고령화로 노인이 더 나이 많은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가 늘면서 ‘노(老)·노(老) 학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1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고 “<span class='quot0'>노·노 학대가 2011년 1169건에서 지난해 1762건으로 50.7% 늘었다</span>”고 밝혔다. 고령의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도 노·노 학대에 포함된다.<br/><br/> 노인문제 전문가들은 노·노 학대 증가 원인을 “<span class='quot1'>평균 수명이 높아져 배우자나 가족과의 삶의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분석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노·노 학대 비율도 높았다.<br/><br/>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기방임’ 노인의 증가도 두드러진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의식주 도움을 받지 않고 병원에도 가지 않아 스스로를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하는 행위다. 이런 노인이 2011년 236건에서 지난해 622건으로 4년 사이 2.6배나 늘었다.<br/><br/>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5t 쓰레기 더미 아파트에서 살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쓰레기를 치운 노인 B씨(74)가 자기방임의 대표적 사례다. C씨(78·여)는 전세 기간이 만료돼 쫓겨날 처지에 처했는데도 “도움이 필요 없다”며 주민센터 담당자의 상담 요청을 거부했다. 김선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과장은 “<span class='quot2'>주변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일부 정신적 문제를 겪는 사례도 있다</span>”고 말했다.<br/><br/>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노·노 학대와 자기방임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미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장기적으로 노인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이를 줄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span>”이라고 지적했다.<br/><br/> 한편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1만1905건으로 2014년의 1만569건에 비해 12.6% 증가했다.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3818건으로 전년도 3532건보다 8.1% 늘었다.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36.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등 순이었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55.txt

제목: [살며 사랑하며-김세원] 진실과 진정이 담긴 삶  
날짜: 201606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4175335161  
본문: 얼마나 근거 있는 정확한 통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세 명 중 한 명은 사망 전 암에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 며칠 전 함께 직장 생활했던 분이 암으로 사망했고 지금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는 분도 있으며, 실제로 주변에 암 환자가 많다. 건강해 보이던 사람의 부고를 갑자기 들을 때마다 잠잠하던 마음에 파도가 출렁이며 삶을 반추하게 된다.<br/><br/>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할 일이지만 열심히 사느라 애만 쓰다가 무엇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분명한 무엇이 되어보지도 못한 채 목적지는 저 멀리 두고 황망히 마지막 길을 가는 이들을 보면 정말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우스갯말로 군대보다 더 힘들다는 세상에서 그때그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물결치는 대로 흔들리며 표류한다면 덧없는 세월만 흘려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움마저 든다.<br/><br/>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치던 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기준은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삶이든 진실함이 담긴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성공한 뉴요커나 깊은 산골의 촌부나 결국 똑같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자연이 주는 천혜의 환경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욕심 없이 순전하게 사는 촌부의 삶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쟁적 이기심 속에서 숨 가쁘게 살아가는 뉴요커보다 못 하다고 할 수 없겠다.<br/><br/>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한 채, 남의 삶을 훼방이나 하고 구경하듯 기웃거리고 엿보며 부질없이 참견질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남이 주는 부당한 상처도 버려야 할 짐과 같은 것이다. 버려야 할 짐을 끌어안은 채 타인의 평가와 시선이 부담스러워 마음에 옥문을 채웠다면 꽁꽁 닫힌 문을 열어젖히고 영혼에 생명의 에너지를 채우고 매 순간 진실함과 진정성을 갖고 올바른 항해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br/><br/>김세원(에세이스트)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56.txt

제목: [신경락한의원 조병준 원장의 해독 이야기] ① 생체 활성화 저해하는 ‘독소’ 적절한 관리·해독치료 필수  
날짜: 2016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09202550910  
본문: 요즘 해독(디톡스)이란 단어가 건강관리에 있어 일반단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해독(解毒)의 의미는 몸 안에 축적된 수많은 독소(毒素)를 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독소는 무엇인가?<br/><br/> 체내에서 생성되거나 외부에서 들어와서 인체의 생체리듬을 깨고 대사기능을 떨어트리는 등 생체 활성화를 저해하는 모든 물질을 독소라 할 수 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미세먼지도 독소의 일종인 셈이다.<br/><br/> 특히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독소가 많은데 1500여가지나 된다는 식품첨가물들이 들어와 몸에 조금씩 쌓이고 싸여 건강에 적색등을 켠다고 보면 된다. 성인 1명이 1년에 먹는 식품첨가물은 무려 25kg 이상이나 되며 실내외의 공기오염 독소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600만명에 이른다고 세계보건기구(WHO)는 밝히고 있다.<br/><br/> 독소가 유입되는 경로는 호흡기로도 들어오지만 가장 큰 요인은 과식, 간식, 야식, 음식을 빨리먹는 습관, 튀긴음식, 인스턴트, 가공식품 등 첨가물 범벅 음식을 자주 먹는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br/><br/> 우리가 섭취하는 채소에 농약 잔유물을 비롯 각가지 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것도 일부 문제지만 과식이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 가령 과식을 하면 음식물에 비해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못해 위장에서 소화를 못시키고 과부하가 걸린다.<br/><br/> 여기서 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 등도 발생하고 또 남은 음식이 대장에서 부패한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활성산소가 나오고 이것이 혈액과 내장에 쌓이면서 피부르산, 젖산, 요산, 암모니아 등 독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결국 질병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로 등장하는 것이다.<br/><br/> 독일의 암연구자 이세르스박사는 먹고싶은 대로 먹게한 쥐와 격일로 단식을 시킨 쥐와 비교한 결과 암 발생률에서 5.3배 차이가 났다고 보고했다. 많은 분들이 과식하고 소화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식은 독소 축척과 모든 질병의 원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br/><br/> 해독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치료에 필수지만 이번 글에는 비만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체중을 뺀다는 것은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해독을 하면 독소 축적물인 지방을 중점으로 제거할 수 있다. 다이어트는 체중감량보다 감량 후 요요현상이 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육은 늘어나고 지방위주로 감량돼야 한다.<br/><br/> 유전과 식습관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군을 찾을 수 있는 비만은 운동과 절식만으론 역부족이다. 적절한 관리와 현재 나의 몸상황에 필요한 한약과 효소 복용 등을 통한 해독치료가 필수적이다.<br/><br/> 60세의 한 부인은 18년 전부터 당뇨약을, 1년 전부터는 혈얍약 고지혈약을 복용했다. 밀가루음식과 가공식품도 즐겨 먹다보니 체중은 증가하고 손발은 저리고 발바닥에는 한겹 뭔가 씌운듯한 느낌이 있다고 호소했다. 작년 12월 내원 당시, 체중 70.9kg에 골격근량은 26.3kg, 체지방은 23.2kg나 되었다.<br/><br/> 해독을 통해 6개월간 꾸준히 독소를 배출한 결과 6월4일 현재 체중이 56.4kg로 14.5kg의 감량이 되었다. 이 중 체지방이 8.1kg로 15.1kg 감량됐다. 근육량은 26.3kg에서 26.1kg로 변동이 없고 체지방만 감량되었다는 것은 60세 나이를 생각하면 경이로운 결과다. 당연히 고지혈, 당뇨, 고혈압, 간수치 등이 정상이 되었다.<br/><br/> 부인의 의지가 강했고 매주 내가 지시한 요청을 철저히 지킨 결과라 그녀에게 상이라도 주고 싶었다. 정상 체중을 지켜가는 그녀를 보며 건강과 날씬 한 몸 두 마리 토끼를 잡게해 준 것에 한의사로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br/><br/> 몸에 자꾸만 쌓이는 독소를 가볍게 여기면 결코 안된다. 언젠가 터지는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이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고 하지만 음식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채소와 과일에 손을 먼저 대고 육류, 밥은 그 다음순으로 먹고 첨가물덩어리인 빵, 과자, 라면, 햄 등 가공식품류와 튀김류는 눈을 질끈 감는 용기를 보여주길 바란다. 이것이 독소해독의 첫걸음이다. <br/><br/> (일산 신경락한의원 :031-902-2221·www.new-om.com)<br/><br/>조병준 신경락한의원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57.txt

제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 준다? 아니죠”  
날짜: 2016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08210108986  
본문: MG손해보험은 고령자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명의 간편 양한방보험’을 이달 출시했다. 업계 최초로 간편심사 보험에 3대 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후 한방치료비와 중증치매 진단비 보장을 넣은 상품이다.<br/><br/> 지난달 알리안츠생명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간단한 청약 과정만 거치면 모든 질병·재해로 인한 입원과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참다행이다 알리안츠 입원보험’을 내놨다.<br/><br/> 간편심사 보험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10여개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간편심사 보험은 나이가 많거나 과거 병력으로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해 인수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품이다.<br/><br/> 최근 들어 상품 출시가 많아지다 보니 오해도 생기고 있다. 2012년 간편심사 보험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AIA생명은 금융소비자들이 간편심사 보험에 대해 갖는 대표적인 오해를 소개하고 답변을 내놨다.<br/><br/> 첫 번째 오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준다’는 것이다. 일반 보험보다는 가입 조건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건강상태에 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심사 질문은 3∼5가지다. 예를 들어 AIA생명의 ‘꼭 필요한 건강보험’은 ①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 없고, ②최근 2년 내 입원·수술력이 없고, ③최근 5년 내 암 진단·입원·수술력이 없어야 가입할 수 있다.<br/><br/> 두 번째 오해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이다. 간편심사 보험의 보험료를 일반 보험과 단순 비교하면 1.5∼2배 비싼 게 맞다. 그러나 보험 소외층이 간편심사 보험 가입을 통해 얻게 되는 혜택과 가입하지 않을 경우의 기회비용(입원·수술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험료가 비싸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AIA생명 상품부문장 강신웅 상무는 “<span class='quot0'>노년층의 연평균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간편심사 보험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천지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58.txt

제목: 이슬람 땅에 ‘하나님의 기대’를 심다… ‘내려놓음’의 저자 인도네시아서 다사다난한 선교이야기  
날짜: 2016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08202449307  
본문: 딱 10년 전이다. 2006년 저자가 세상에 내놓은 책 한 권은 집착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제목은 ‘내려놓음’. 책에는 허황된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내려놓음’은 많은 독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선사했고, 저자는 이듬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까지 내놓았다. 두 책은 100만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서점가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br/><br/> 이들 저작이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저자의 인생 역정이 독특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중동지역학·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누구나 부러워할, 어디를 가든 인정받는 ‘스펙’을 쌓은 셈이다. 하지만 그는 안정된 삶을 포기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몽골로 떠났다. 가진 것을 내려놓은 자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웠다.<br/><br/> 신간은 2012년 사역지를 인도네시아로 옮긴 뒤 저자가 겪은 다사다난한 선교 스토리를 담고 있다. 알려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다. 현재 그는 자카르타에서 교육 선교에 매진하며 한국교육단지 내에 자카르타국제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br/><br/> 이런 일을 준비하면서 저자가 겪은 고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자카르타에서 학교 설립 허가를 얻으려면 건물과 교수진부터 갖춰야 한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드물어 교수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도네시아에 온 지 4개월이 지났을 때는 췌장에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양이 발견돼 한국으로 건너와 수술을 받았다. 비자를 발급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대규모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을 때마다 그가 되새긴 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br/><br/>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학생들이 치러야 할 희생과 지불할 대가가 더 클 터였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전달자도 감당해야 할 희생이 있다는 것이다.”(101쪽)<br/><br/>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명하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소망을 품는 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놓지 않는 하나님께 있다. 아울러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로 그 시기를 통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br/><br/>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소망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라고 결단한다고 갖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그 소망 자체가 능력임을 배웠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건 소망을 마음에 두었을 때 가능하다.”(17∼18쪽)<br/><br/>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59.txt

제목: ‘난공불락’ 췌장암 잡는 비법 나오나  
날짜: 201606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07193723529  
본문: 췌장암은 암 가운데서도 치료가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 일본 연구팀이 췌장암 발병 때 작동하는 특정 유전자를 찾아냈다. 이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면 암의 증식을 막을 수 있어 췌장암 치료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br/><br/> 일본 게이오대 오카노 히데유키 교수(생리학)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대 연구팀은 실험용 쥐에 췌장암 환자로부터 채취한 암세포를 이식한 뒤 관찰을 진행했다.<br/><br/> 그 결과 암세포를 이식한 쥐에게서는 ‘무사시(ムサシ)’라는 유전자 활동이 왕성해진 사실을 발견했다. 1990년대에 발견된 이 유전자는 평상시에는 다른 유전자 작용을 조절하거나 줄기세포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잉 기능할 경우 종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 연구팀은 이 유전자가 항암제 내성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이 유전자의 기능을 중지시키자 암이 증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카노 교수는 “<span class='quot0'>무사시를 겨냥한 새로운 항암 치료제 개발이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연구 내용은 과학학술지 ‘네이처’ 인터넷판에 등재됐다.<br/><br/>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60.txt

제목: [뉴스파일] 강서한강공원에 인공암벽장 조성  
날짜: 201606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06213911275  
본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강서한강공원에 인공암벽장을 조성했다고 6일 밝혔다. 총 예산 3억원을 들인 이 암벽장은 폭 16m, 높이 14m로 암벽 등반장비를 갖춘 시민은 누구나 연중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운영업체를 선정해 암벽등반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서암벽장은 지하철 5호선 방화역 2번 출구에서 07번 마을버스를 타고 생태공원 육갑문역에서 하차한 후 도보로 오면 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61.txt

제목: 악성 뇌종양, 맞춤형 치료의 길 열었다  
날짜: 201606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06203157859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악성 뇌종양의 유전체 변화 과정을 분석해 맞춤형 치료의 길을 열었다.<br/><br/>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 남도현(사진) 교수 연구팀이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과 함께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악성인 ‘교모세포종’이 재발하는 과정의 유전체 진화 패턴을 규명했다고 6일 밝혔다.<br/><br/> 교모세포종은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뇌종양이다. 대부분 환자가 재발해 죽음에 이른다. 진단 후 생존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연구팀은 한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의 교모세포종 환자 114명의 원발암-재발암 유전체 진화 패턴을 분석했다. 그 결과 63% 환자에서 암의 재발 후 종양의 유전형 타입이 변화됐고, 15%에서 과돌연변이가 나타났으며 11%에서는 추가적인 LTBP4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서 환자의 예후가 나빠졌다.<br/><br/> 이는 관련 유전자를 제어하면 뇌종양 치료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으로 LTBP4 유전자가 재발성 뇌종양 치료의 신규 표적으로 입증됐다”면서 “이를 타깃으로 하는 면역치료 및 표적치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저명 과학학술지인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제네틱스’에 게재됐다.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62.txt

제목: [부고] ‘한명회’役 원로배우 정진씨  
날짜: 2016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02214859639  
본문: ‘칠삭둥이 한명회’ 역으로 잘 알려진 원로배우 정진(정수황·사진)이 2일 별세했다. 75세. 유족 측에 따르면 정진은 암 투병 중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연극배우 출신인 정진은 1979년 TBC 공채 특채로 데뷔해 드라마 ‘제1공화국’ ‘제4공화국’ ‘겨울꽃’ ‘완전한 사랑’ ‘기다리는 빛’ 등에 출연했다. 1994년 드라마 ‘한명회’에서 주연을 맡아 강렬한 존재감을 보였다. 이후 드라마 ‘태조 왕건’ ‘왕의 여자’ ‘천추태후’, 영화 ‘칠삭동이의 설중매’ ‘식객’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4일(02-3010-2000).<br/><br/>문수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63.txt

제목: 살균제 권하는 사회… 24시간 박멸태세 세균과 공존할순 없는가  
날짜: 2016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01201051113  
본문: “내가 어릴 적엔 ‘자연주의’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였어. 우리 땐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었어. 1960년대만 해도 살균제라는 개념도 없었어. 그나마 몸을 씻을 때 쓰던 비누가 전부였지. 당시엔 ‘똥비누’(새까만 색의 비누라서 불려진 별칭)라는 것으로 빨래를 했어. 어머니는 주로 ‘쌀뜨물’로 설거지를 하셨어. 그래도 사는 데 지장이 없었어. 세균이라는 것도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존재 아닌가. 지나치게 청결한 것도 문제야. 요즘 세대가 사용하는 제품들 중 화학용품이 아닌 게 없잖아.”<br/><br/>불과 50∼60년 전만 해도 ‘살균제’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1960년대를 겪어 온 김혜자(65·가명)씨가 경험한 어린시절 속 생활환경은 2016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당시에는 김씨의 할머니가 금니 청결을 위해 ‘가루치약’을 처음으로 사용하던 시기였고, ‘샴푸’가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이를 닦을 때도 소금을 사용했다. 그렇다보니 수질오염 우려도 없었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주방세제나 등의 화학제품들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지는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쌀뜨물이나 소금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br/><br/> 언젠가부터 우리는 생활환경에서 세균(박테리아)과 곰팡이를 100% 박멸하지 않으면 당장 심각한 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로인해 건강하고 청결한 생활을 위해서 실내 공기를 방향제로 채우고, 빨래를 할 때도 반드시 살균제로 세균을 박멸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생겼다. 살균제가 정작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기업의 살균제 마케팅에 덩달아 편승한 것도 사실이다.<br/><br/> 지금 현대인의 일상생활 풍경은 어떨까. 시민 1명 당 하루평균 5∼6개의 화학용품을 사용한다는 통계도 있다. 그래서 한 20대 여성의 일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br/><br/> 직장인 김지호(가명)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클렌저로 세안을 하고, 항균작용 효과가 높다는 A사의 치약으로 양치질을 한다. 세균을 99.9% 박멸한다는 B사의 구강청결제도 사용한다. 출근 전 김씨는 로션, 자외선차단제 등의 화장품을 얼굴에 바른다. 출근할 때 이용하는 자가용에는 악취를 없애고자 방향제를 뿌린다. 이후 회사에 도착한 김씨는 책상 위의 먼지를 닦기 위해 물티슈를 사용한다. 손에 세균이 많다는 생각에 손세정제를 사용해 손을 닦고, 이 마저도 부족해 손소독제로 손을 청결히 한다. 김씨가 매일 하루에 사용하는 화학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평균 10∼11개에 달한다. <br/><br/> 수년 전부터 일상생활 속 생활용품의 대다수가 인체 건강에 유해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치약이나 화장품, 살균제 등을 비롯해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학용품에 포함된 유해성분이 몸속에 흡수되면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불을 지핀 것이 바로 수많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부터다. 최대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만든 살균제는 당시 공산품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인체 유독성을 검증하기도 전에 국가표준(KS) 인증까지 받아 판매됐다.<br/><br/> 생활 속 화학용품 중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치약이나 화장품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이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란도 있었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시판 치약의 약 3분의 2 가량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트리클로산이 함유됐다는 내용이 발표되기도 했다. 트리클로산은 해외에서도 유해성분이라고 판명된 물질이다. 미국은 이 성분이 유해 성분임을 인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 ‘화장품’에 함유된 방부제 파라벤도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0월 화장품 보존재로 사용되고 있는 다섯 종류의 파라벤 성분의 사용을 금지했다. 영국에서는 보존제가 여성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에 내분비 장애 등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물티슈에 함유된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br/><br/>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측은 “유럽 등의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발암물질 성분이 함유된 리스트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 물질들이 우리 생활에 쓰이지 않도록 장려한다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상황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P&G가 판매하는 탈취제 ‘페브리즈’에 폐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탈취제 제품에서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돼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제품 회수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모기나 바퀴벌레를 죽이기 위해 뿌리는 살충제, 에어컨 살균제, 향초 등도 검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br/><br/> 또한 최근 화장품(로션, 데오드란트 등)의 미생물 번식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 일종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4월 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 내 모든 화장품에 MIT 성분 사용금지 규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면도크림이나 샴푸와 같은 세정제품에까지 MIT 사용금지 규제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덴마크 오덴세대학병원 피부과 제이콥(Jakob Torp Madsen) 박사는 “<span class='quot1'>MIT가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한다</span>”고 지적하기도 했다.<br/><br/>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우리 주위에서 퍼진 공포증이 있다. 바로 화학물질 포비아(Phobia, 공포증)이다. 일각에선 “지나친 화학용품 사용이 인류에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천연제품을 사용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은 “인체는 수만 년의 진화 과정 내내 장내 미생물과 공존하면서 면역체계를 발달시켜왔다. 우리 몸과 주변 환경에서 미생물을 싹싹 몰아내고서는 건강할 수 없다. 수많은 화학제품으로부터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br/><br/> 반면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50년 전과 달리 현대사회에서 화학용품의 사용은 불가피하다</span>”며 “<span class='quot2'>기업이 만든 해당 화학성분이 유해물질인지를 정부가 철저히 검증하고, 매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위험성(Risk)에 대해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64.txt

제목: [이주호의 고도비만 솔루션] ‘뚱보’도 엄연한 질병, 확실한 해결법은 수술  
날짜: 2016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01192600455  
본문: 유사 이래 인류의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왔으나 향후 비만으로 인해 수명 단축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비만은 21세기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비만은 표준량보다 많은 양의 지방이 체내에 축적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이다. 이러한 지방의 과도한 축적에 우리 몸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이거나 이미 관련 질환이 발생한 경우를 고도비만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고도비만 환자에 있어서 현재까지 수술 외의 어떠한 방법도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 고도비만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수술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 부족과 비만수술에 대한 편견과 오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비싼 수술비, 비만수술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br/><br/> ◇고도비만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다?=흔히 수술을 요하는 고도비만은 미국 등 서양의 문제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여긴다. 그러나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처럼 늘고 있으며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의하면 국내 비만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고도비만 또는 초고도비만의 인구가 지난 십 년간 급속히 증가해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고도비만 비율은 2.5%에서 4.2%로 1.7배, BMI 35 이상 초고도비만 비율은 0.2%에서 0.5%로 2.9배 늘었다. 소아청소년층, 20∼30대 젊은 층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우리의 미래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 단지 그 환자들의 목소리가 부각되지 못해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할 뿐이다.<br/><br/> ◇고도비만 환자는 해결책이 없다, 살을 빼기 위해 칼까지 대야 하나?=고도비만의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이다. 수술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비만수술 후 초과체중(현재 체중-이상 체중)의 50∼80%의 감량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제2형 당뇨병(64∼100%), 고혈압(62∼79%), 수면무호흡증(80∼85%), 고지질혈증(60∼100%), 지방간(86∼90%), 우울증 등 비만과 관련된 질환의 대부분을 경감 또는 완치시키고 암 발생을 예방한다. 결과적으로 수술로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명이 연장된다.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칼을 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br/><br/> ◇비만수술은 미용수술이다?=비만수술(체중 감소 수술 혹은 베리아트릭수술)이란 수술로서 위장관의 구조 변화를 일으켜 섭취량을 줄이거나 영양분의 흡수를 줄여 장기적으로 충분한 체중 감소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비만과 관련된 동반 질환을 치료 또는 개선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비만으로 인한 생명단축을 예방하고자 하는 수술이다. 흔히 비만수술을 피하지방을 흡입해 몸매를 예쁘게 만드는 지방흡입술 등의 성형수술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다른 차원의 수술이다.<br/><br/> ◇비만수술은 위험하다?=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수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이로 인해 꼭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들이 수술을 주저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이 수술의 합병증 발생 확률은 어떤 복부 암 수술이나 담낭수술 보다 낮은 것으로 돼 있다. 이 수술의 유용성과 효과를 고려하면 결코 합병증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되는 수술이다. 수술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학계와 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br/><br/>이주호 이대목동병원 외과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65.txt

제목: [쿠키가 만난 명의-서남병원 박영요 교수] 유명 대학병원도 힘든 인공방광수술 성공  
날짜: 2016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01191547499  
본문: “다른 암도 그렇지만 방광암은 환자의 삶의 질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방광암은 재발률이 70%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재발률을 낮추고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br/><br/> 방광암 환자에게 자연배뇨형 인공방광조성수술(이하 인공방광수술)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 서울시 서남병원 비뇨기과 박영요(사진) 교수. 국내 방광암 치료 권위자로 평가받는 박 교수는 방광암과 전립선암, 신장암 등 비뇨기계 암 수술 건수 3000례가 넘는다. 모 방송의 명의 프로그램에 두 번이나 선정된 바 있는 방광암 명의로, 박 교수의 시술 환자들은 재발률과 합병증이 낮은 것으로 소위 유명세를 타고 있다.<br/><br/> 일반적으로 방광암은 표제성과 침윤성으로 나뉜다. 표제성방광암의 경우 내시경을 통한 경요도절제술을 시행하고 침윤성방광암은 방광 적출술로 치료한다. 하지만 방광 적출술의 경우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고, 수술 후 오줌주머니를 차면 환자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자연배뇨형 인공방광조성수술’이다. 박 교수는 방광적출 후 합병증과 암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20년전부터 인공방광술을 국내에 도입해 시행해 왔다. 도입 초기 고난도의 수술로 12시간의 수술 시간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6시간으로 단축시켰다. 이로 인해 환자들의 회복과 합병증 발생률도 크게 낮아졌다.<br/><br/> 지난해 이화의료원에서 정년퇴임 후 같은 해 9월 서남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박 교수는 최근 서남병원에서 고난이도의 첫 번째 인공방광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지난 2011년 5월 5개 진료과와 3개 진료지원과로 진료를 시작해 개원 5주년을 맞는 서울시 서남병원에서 유명 대학병원들도 하기 힘들다는 인공방광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의미가 크다. 박 교수는 “항상 환자를 대할 때면 환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방광암으로 찾아오는 환자가 오줌주머니를 차는 대신 인공방광수술을 선택하면, 환자를 위한 수술을 결정하고 최상의 치료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남병원은 타 병원에 비해 저렴한 진료비와 쾌적한 진료환경, 친절한 의료진 등 가족같은 분위기와 함께 치료 성적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공방광수술이 의사로서 힘들고 어려운 수술이지만 환자를 위해서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br/><br/> 서남병원에서의 첫 인공방광수술 후 박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간이침대에서 환자를 돌보느라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환자 곁을 지켰다. 하지만 박 교수는 “인공방광수술 직후 환자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환자가 회복되고 나서 웃는 모습을 보면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웃어 보였다.<br/><br/> 최근 비뇨기과 분야로 지원하는 의사들이 줄고 있고, 어려운 수술을 피하는 경향도 있지만 박 교수는 결국 정답은 환자에게 있다고 힘줘 말했다. “<span class='quot0'>의사는 결국 환자 곁에서 최선의 치료 결과를 만들고 환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pan>”는 그는 후배 의사들에게도 진료와 수술 등이 어려운 것일수록 환자를 위해서라면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r/><br/>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66.txt

제목: [소년이 희망이다] 달동네 아이들 희망 합주하며 가난을 지웠다  
날짜: 201605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31214912708  
본문: “수류탄 투척 훈련 중에 제가 던진 수류탄 파편이 제 얼굴 왼쪽 눈 옆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편이 1cm만 옆으로 튀어도 실명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군종 사병으로 성경책을 받기 위해 트럭을 타고 사단으로 출발하려는데 누군가 차를 세웠습니다. 트럭 밑에서 박격 포탄이 발견된 것입니다. 트럭이 포탄 위를 지나가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r/><br/> 조선대 1학년이던 정한수(60·전남 여수열린교회) 목사는 유신반대 운동을 하다 78년 강제 징집됐습니다. 독재정권에 의해 끌려간 그는 실명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평생 살기로 다짐한 그는 공장 생활로 번 돈으로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한 뒤 신문배달과 우유배달 등으로 학비를 대며 어렵게 졸업했습니다. <br/><br/> 그는 28년째 산동네 이웃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공동체가 뿌리 내린 광무동은 선원과 일용노동자, 노점상과 시장 상인 등이 사는 여수에서 가장 가난한 산동네입니다. 아내 이인애(58)씨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무료탁아소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떠돌아다니는 동네 아이들을 데려와 씻기고 먹이면서 공부방을 개설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의 부부는 그야말로 구세주였습니다. <br/><br/> 진영(가명·24)이 아빠는 두 달에 한 번 집에 오는 선원이었습니다. 새엄마에게 정을 붙이지 못한 진영이는 초등 2학년부터 가출을 일삼았습니다. 정 목사 부부는 산동네를 배회하던 진영이를 돌봤지만 절도와 폭력 등의 사고를 일으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부모 대신해 경찰서에서 데려오곤 했습니다. 애정을 쏟았건만 소년은 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입니다. 달동네 목사가 기다리는 것은 부자가 아닌 죄로 얼룩진 청년의 귀향입니다. <br/><br/> 그의 교인은 20명도 채 못 됩니다. 그가 운영하는 여수열린지역아동센터 아동 35명 중 30명은 이혼가정, 한부모,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 아동입니다. 동네가 가난하니 교회도 가난하고 목회자도 가난합니다.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으니 목회자의 가난은 숙명입니다. 그에게 “교회와 목회자가 섬겨야 할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br/><br/> “성경 구약에선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선 이들과 함께 창녀와 세리(세금징수원), 어린이와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우리 동네에는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잘 섬기진 못하지만 가난한 이웃과 함께 살다 죽으려고 합니다.”<br/><br/><br/>그의 교회도 옮길 뻔했습니다. 2004년 여수의 신도시 장성지구가 조성되자 일부 교인들이 “<span class='quot0'>가난한 동네에 있어봐야 골치만 아프니 우리도 신도시로 이전해 다른 교회처럼 성장해보자</span>”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정 목사는 “우리가 떠나면 가난한 동네 사람들을 누가 돌보고, 방과 후에 와서 공부하고 밥 먹던 아이들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들을 두고 떠날 순 없습니다”라고 결정하자 교회 이전을 요구하던 교인들이 떠났습니다.<br/><br/>산동네에 울려퍼진 희망의 오케스트라<br/><br/>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는 아이들.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면서 의욕도 희망도 없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br/><br/> 가난하고 공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산동네 아이들. 동네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게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2003년 한 기업의 후원을 통해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비올라 등을 장만하면서 열린합주단(열린챔버오케스트라)을 창단했습니다. <br/><br/> 동네 이발사 강준아(당시 63세)씨가 악기를 가르쳤습니다. 강씨는 독학으로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를 배운 뒤 교회 성가대와 합주단을 지휘하는 무명의 연주자 겸 지휘자였습니다. 강씨의 지도 아래 1년 동안 연습한 아이들이 작은 음악회 무대에 섰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은 난생 처음 받아본 갈채와 꽃다발에 자못 흥분했습니다. 당시 이야기로 콧날이 시큰해진 정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br/><br/> “불우한 아이들은 보살핌과 애정을 별로 받지 못한 탓에 정서가 메마르고 산만하며 욕설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걸핏하면 싸우고 반항하고 물건을 부숩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면서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br/><br/> 학예회 발표 수준이던 합주단은 지난해 10회 정기연주회에서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전곡을 연주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됐습니다. 2012년부터 전문 음악인인 김사도(44·광신대 음악과 강사)씨의 지도와 객원 연주자가 합류하면서 산동네 오케스트라의 수준이 한껏 높아진 것입니다. 이제는 도처에서 초청할 정도로 지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br/><br/>산동네 출신이라고 낙인찍은 이들에게 고함<br/><br/>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면서 갖게 된 것은 자부심입니다. 이전에는 산동네 출신이란 낙인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너희들은 못하는 악기로 우리는 연주한다!’는 자존심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음악을 배우면서 공부 욕심도 생겼습니다. 합주단 선배들이 음대에 진학하는 것을 보면서 대학 진학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br/><br/> 이인애 사모의 말입니다. 산동네 합주단 출신 4명이 목포, 광주, 전주 등지의 음대에 진학한 것입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이면 산동네로 돌아와 동생들을 가르칩니다. 산동네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단원이 됐지만 여전히 가난합니다. 단원 30명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와 조손가정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아이들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연주하는 미래의 베토벤과 모차르트입니다. <br/><br/> 열한 살 때부터 공부방에서 바이올린을 배운 박지수(24)양은 국립목포대 음악과를 올해 졸업했습니다. 음대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인 그는 공부방 동생들의 악기를 지도하면서 시립합창단 바이올린 연주자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난한 바이올린 연주자의 말입니다. <br/><br/> “개인 레슨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이 음대에 진학하고 열린합주단 단원이 되어 연주회를 갖는 것은 꿈같은 일입니다.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 부잣집 아이들이나 만질 수 있는 악기로 멋지게 연주하는 것을 볼 때마다 묘한 성취감과 희열을 느낍니다.”<br/><br/> 바이올린은 불평등한 사회를 상징하는 악기입니다. 가난하면 바이올린을 살 수도, 개인 레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정한수 목사의 산동네 오케스트라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일으킨 희망의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그의 오케스트라는 더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 희망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br/><br/> 열린합주단은 2009년과 2013년 국제청소년축제에 초청됐고 2010년에는 일본 도쿄, 오사카, 교토 등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2012년부터는 매년 1∼2회 낙도의 섬 주민들을 찾아가 음악을 들려주고, 매년 10차례 이상 노인시설과 병원의 암 환자들을 찾아가 음악으로 위로합니다. 정 목사는 아이들에게 음악만 가르치진 않습니다. 산동네 독거노인들에게 연탄난로를 놓아드리고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연탄을 배달하면서 사랑과 나눔을 가르칩니다. <br/><br/> 그는 음악 사회적 기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대까지 졸업한 단원들이 음악인이 되지 못할 경우 좌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동네 음악가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은 까닭입니다. 연주공간을 만드는 것 또한 소망입니다. 공부방과 교회에서 연습하다 보면 공부와 예배가 뒤섞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br/><br/>“<span class='quot1'>교회는 교인의 것만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체</span>”<br/><br/> 28년 목회에 20명도 채 안 되는 교인. 세속의 시선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겪은 일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br/><br/> 교회를 짓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산동네 사람들이 벽돌과 모래를 져 날랐습니다. 바쁜 사정으로 건축에 동참하지 못한 이들은 간식 등을 댔습니다. 그의 교회는 마을공동체의 힘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산동네 사람들은 그의 공동체에 아이들을 맡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 받으면서 밥상을 같이합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산동네 목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br/><br/> “교회는 교인만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산동네 주민들은 제가 보살피고 섬겨야 할 이웃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교인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주민에게 제가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존재인가 입니다. 산동네 주민들이 저를 필요하다고 해주시니 행복합니다.”<br/><br/> 그를 찾아간 지난 5월 10일 하루 종일 봄비가 내렸습니다. 항구의 갈매기들은 비를 피해 어디론가 사라졌고 산동네에는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비와 어둠이 내리면 산동네는 더욱 우울하기 마련인데 ‘우리 집 같은 신나는 공부방’을 지향하는 ‘여수열린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표정은 참 밝았습니다. 공부하고, 놀고, 악기 연습하던 아이들은 숲의 새처럼 웃고 떠들다 귀가했습니다. 그의 배웅을 받으면서 떠나는데 교회 십자가가 산동네를 환히 밝히는 것을 봤습니다.<br/><br/>가스펠 라이터 조호진(시인)·사진 김진석(작가)jonggyo@gmail.com<br/><br/>▶[다음세대 돌보는 스토리 펀딩 ‘소년이 희망이다’] 펀딩 시작하기<br/><br/><br/>▶[다음세대 돌보는 스토리 펀딩 ‘소년이 희망이다’] 기사 전체 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67.txt

제목: [간추린 뉴스]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의 날’ 5일 개최  
날짜: 201605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31205702440  
본문: 한국암환자와가족을위한기도모임(한가모·실무대표 조무성 교수·사진)과 암퇴치운동본부, 21세기바보모임이 공동주최하고 대전충청호스피스협회가 주관하는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의 날’ 행사가 오는 5일 충북 제천 시온성감리교회(박정민 목사)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한국호스피스협회 시온성감리교회 전인건강학회 제천호스피스가 협찬한다.<br/><br/> 기도회에 앞서 조무성 한가모 실무대표는 ‘암을 이기는 전인건강생활: 샬롬의 삶’에 대해 특강하고 박용준 글로벌내과 원장은 ‘의료진과 대화’의 시간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암환자와 가족, 의료진, 암 정책 등을 위해 기도한다.<br/><br/> 조 실무대표는 “<span class='quot0'>17년째 하고 있는 기도의 날 행사는 환우 및 가족들의 영적 돌봄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랑의 사역</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가난한 암 환자와 가족을 격려하고 이들의 영혼과 몸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절실하다</span>”고 강조했다(pmcp.org·031-701-5256).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68.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3부 ③·끝] ‘가족 품에서 존엄한 마지막’… 美 메디케어가 돕는다  
날짜: 201605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30175625781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br/> <br/><br/><br/>3부: 임종케어 선진국서 배우다<br/><br/>③ ‘메디케어 호스피스’ 미국<br/><br/>지난 3월 브랜든 우드씨는 미국 뉴저지주 자택에서 73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아내와 자원봉사자가 곁을 지켰다. 그는 지난해 12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남은 수명은 6개월가량이며, 수술도 소용없을 거란 진단이었다. 의료진은 무의미한 항암 치료 대신 호스피스를 권했다.<br/><br/> 유튜브에서 찾은 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NHPCO·National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ganization)의 동영상은 고민을 덜어줬다. 가족 품에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는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삶의 끝부분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었던 우드씨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 연명의료계획서도 작성했다. 인공 영양제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호흡이 가늘고 맥박이 없어도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고 서명했다.<br/><br/> 매주 두세 차례 의료진이 우드씨 집을 찾아 통증 처치를 했다. 음악·미술치료도 받았다.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물었다. 호스피스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메디케어(Medicare·노인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했다. 우드씨는 30년 넘게 머물렀던 편안한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 세 달’을 보냈다.<br/><br/> 우드씨의 행복했던 마지막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NHPCO를 지난 10일 찾았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NHPCO는 호스피스 확산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설립된 미국 최대 비영리기구다.<br/><br/> 죽음을 앞둔 모든 이에게<br/><br/> “<span class='quot0'>미국 호스피스의 핵심은 기대여명이 6개월 이하라는 주치의 진단, 환자와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누구나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span>” 미국 호스피스의 특징에 대해 NHPCO 책임운영자 겸 총괄부의장인 존 마스트로존 3세는 한마디로 답했다.<br/><br/> 미국에서는 말기 만성질환자 모두가 호스피스 대상이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질병의 종류가 아니라 의사의 말기 판정과 환자의 의지뿐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이 제정되면서 내년 8월부터 말기 암 외에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말기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br/><br/> 미국도 호스피스 도입 초창기에는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이용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현재는 호스피스 이용자의 63.4%(2014년 기준)가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 치매(14.8%) 심장질환(14.7%) 폐질환(9.3%) 뇌졸중(6.4%) 신장질환(3.0%) 간질환(2.3%) 에이즈(0.2%) 등 다양한 말기 만성질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다. 암 환자는 36.6%에 불과하다.<br/><br/> 메디케어 호스피스<br/><br/> 미국에서는 경제적 부담 없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건강보험인 메디케어가 1982년부터 환자를 대신해 호스피스 기관에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말기 환자들은 진료와 간호는 물론이고 통증 완화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가정간호, 사회복지사 서비스, 영양상담, 영적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br/><br/> 메디케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가족의 휴식을 위해 단기 입원간호를 받을 경우 하루 비용의 5%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정도다. 외래처방 의약품 구입비용의 5%를 부담하지만 의약품당 5달러(약 5900원)를 넘지 않는다.<br/><br/> 2014년 기준으로 메디케어 호스피스 혜택을 받은 호스피스 이용자가 전체의 85.5%를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도 일정 부분 호스피스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br/><br/>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은 말기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삶의 마지막을 호스피스와 함께하려는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 말기 환자 165만6353명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았다. 2010년 138만680명, 2012년 153만2304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마스트로존 부의장은 “<span class='quot1'>미국 전체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호스피스를 경험했다</span>”고 설명했다.<br/><br/> 가족 품에서 존엄한 마지막을<br/><br/> 미국에서는 가정 호스피스가 일반적이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반 가정간호, 지속적 가정간호, 일반 입원간호, 입원 단기간호 등 4가지로 분류된다. 통증 처치나 급성 또는 복잡한 증상의 관리·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가 이뤄진다.<br/><br/> 가정 호스피스는 가족의 응원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14년 기준 호스피스 이용자의 58.9%가 요양원과 노인주거시설을 포함한 주거지에서 숨을 거뒀다. 31.8%와 9.3%는 각각 호스피스 병동이나 병원에서 임종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 중환자실이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죽음을 맞는 환자가 대다수인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다.<br/><br/> 마스트로존 부의장은 “<span class='quot1'>가족 품에서 존엄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 호스피스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치료(Curing)가 아닌 돌봄(Caring)에 집중하는 호스피스의 기본 정신과도 맞닿은 부분</span>”이라고 말했다.<br/><br/>알렉산드리아(버지니아주)=신훈 기자 zorba@kmib.co.kr<br/><br/>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69.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3부 ③·끝] 죽음의 학문이 곧 삶에 대한 학문”  
날짜: 201605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30175621314  
본문: 3부: 임종케어 선진국서 배우다<br/><br/>③ ‘메디케어 호스피스’ 미국<br/><br/>죽음은 두려움을 동반한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말기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경험하는 공포는 가늠하기 힘들다. 타나톨로지(Thanatology)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죽음학, 임종(臨終)학 또는 생사(生死)학 등으로 번역되는 타나톨로지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죽음이 주는 막연한 두려움을 경감하고 나아가 삶의 본질을 탐구한다.<br/><br/> 지난 11일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드릭에 위치한 후드대학(Hood College)을 찾았다. 후드대학은 타나톨로지 석사 과정을 운영하는 소수의 대학 중 하나다. 이 대학 테리 마틴 교수와 학생들을 만나 죽음, 삶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br/><br/> “<span class='quot0'>죽음이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어요.</span>” 흔치 않은 타나톨로지를 공부하는 이유를 묻자 베벌리 롤린스(61·여)씨가 입을 열었다. 롤린스씨는 4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다. 사별이 남긴 슬픔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후드대학의 문을 두드렸다. 죽음에 대한 이해, 호스피스의 원리 및 실습, 슬픔을 애도하고 사별가족을 상담하는 방법 등을 수강했다. 타나톨로지 수업은 죽음 역시 삶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퇴직 공무원인 롤린스씨는 “<span class='quot1'>말기 환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상담하는 역할을 맡고 싶다</span>”고 했다.<br/><br/> 죽음 곁에서 일하는 이들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타나톨로지 과정을 찾는다. 장례지도사 제라드 해링턴(47)씨는 “<span class='quot2'>타나톨로지를 통해 사별 가족이 경험하는 복잡한 슬픔의 감정들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2'>죽음에 대해 공부할수록 소중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span>”고 전했다.<br/><br/> 타나톨로지 석사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은 병원과 호스피스, 순직소방관협회 등 죽음과 관련된 직종에 주로 진출한다. 타나톨로지의 학문적 관심은 죽음의 테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마틴 교수는 “타나톨로지는 죽음의 학문이자 곧 삶에 대한 학문이다. ‘죽음 이후’ 보다 ‘매순간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진다”며 “죽음에 다가서는 일은 존엄한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br/><br/>프레드릭(메릴랜드주)=글·사진 신훈 기자<br/><br/><br/><br/>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70.txt

제목: [문화공방] 결혼축가 비용은 묻지 마세요  
날짜: 2016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29195858733  
본문: 이달에도 지인의 결혼식이 몇 개나 겹쳤다. 이번 봄은 유난히 결혼식이 많았다. 그러고 보니 축가 부탁도 많았다. 가수 누구를 좋아하는데 축가를 해줄 수 없느냐고, 좀 알아봐 달라고 애원한다. 결코 쉽지 않은 부탁이다. 이런 방법도 안 되니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오죽 급했을까.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꼭 이 가수가 축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목된 가수는 거액의 출연료를 받는 행사도 신중하게 가려서 결정하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축가를 돈을 받고 갈 리 만무하다. 신부에게 인기 가수 아무개씨를 축가 섭외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쳐놓았는지,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 가는 게 눈에 보인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눈앞에서 나의 결혼을 축하하며 노래를 불러주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황홀감을 안겨줄 것이다.<br/><br/> 지난 3월 말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웨딩 싱어즈 특집 방송이 시작되었다. 결혼 시즌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신랑 신부들을 축하한다는 취지 자체가 큰 관심을 받았다. ‘무한도전’ 멤버들은 물론, 싱어송라이터 뮤지션 이적, 장범준과 인기 탤런트 김희애부터 정용화, 정상훈 등 화려한 게스트가 결혼 축하 무대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br/><br/> 기쁘고 축하받을 결혼의 이면에는 말 못할 아픔과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숨어 있었다. 그 사연의 무게를 한 뼘이라도 들어주고 힘을 북돋워주기 위한 무한도전의 결혼 축가 이벤트는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봉제공장에서 2년간 5000만원을 모은 젊은 신랑의 사연,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가 가발을 하고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결혼식장 풍경 속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자욱하다.<br/><br/> 결혼 축가 이벤트를 못해줬다고 두고두고 원성을 받고 있다면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몰래 구해 두 손 잡고 공연 보는 감동은 2시간이 넘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사랑은 무르익어 갈 것이다.<br/><br/>강태규(대중음악평론가·강동대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71.txt

제목: 20대 여성 자궁경부암 ‘부쩍’  
날짜: 2016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29182456152  
본문: 최근 20대 여성에게도 자궁경부암이 꾸준하게 발병하고 있다. 해마다 2000명가량의 환자가 나온다. 자궁경부암은 연간 900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으로 대부분 환자는 30세 이상 여성이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자궁경부암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5만4603명이라고 2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자궁경부암 진료인원은 연평균 5만4441명으로 집계됐다.<br/><br/> 지난해 기준으로 진료인원의 96.1%는 30세 이상이었다. 다만 20대에서 자궁경부암 발병이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진료인원은 2011년 2412명, 2012년 2265명, 2013년 2113명, 2014년 2169명, 지난해 2203명에 달했다. 연령별로 전체 암 진료인원 중 자궁경부암 비중을 따지면 30대가 14.9%로 가장 많고 20대가 11.9%로 2위였다. 이어 40대(9.2%) 50대(5.9%) 60대(5.0%) 등이었다.<br/><br/>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입구)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다른 암과 달리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고, ‘전암 단계’(암이 되기 이전 단계)가 7∼20년이나 돼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br/><br/> 올해부터 자궁경부암의 국가 암 검진대상이 30대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20세 이상 여성도 2년 주기로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2003∼2014년 출생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할 예정이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72.txt

제목: [오늘의 설교] 사랑과 정의의 입맞춤  
날짜: 201605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27211743780  
본문: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신학원을 다녔다고 하고, 신대원생이 위조수표로 성매매를 하고, 목사 아버지가 자녀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특정 신학교의 문제라고 덮어놓기엔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 신앙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언자적 영성의 부재라는 진단에 공감합니다.<br/><br/> 예언서는 쉽게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목회자는 예언서 설교를 어려워하고 꺼려하고, 회중들도 예언서 듣기를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언서의 강력한 호소와 질타를 들어야 합니다.<br/><br/>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20㎞ 남짓 떨어진 작은 마을의 촌부였습니다. 양을 치고 뽕나무 잎을 땄고, 종교적인 훈련을 받은 적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BC 760년 즈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영토가 솔로몬 때만큼 확장됐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종교적 타락과 윤리적 부패상이 최악이었습니다.<br/><br/> 아모스란 이름은 ‘짐을 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남유다 출신인 그는 고향을 떠나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아모스가 외칠 때 사람들은 불경하다,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며 그의 말을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 풍요, 군사적 안정, 종교적 열심을 믿고 미래를 낙관했습니다.<br/><br/> 그러나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자기 확신이 자기기만이라고 질타합니다. 특히 종교적 열심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드리는 제사 자체가 잘못됐으며 하나님은 듣지도 보지도 않으신다고 말합니다(암 5:21∼23). 지금 교회는 어떠합니까. 혹시 예배의 자리에서 범죄하고 교회에서 더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br/><br/>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는 곧 공동체 의식 혹은 사회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문제는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 성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편애를 교회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가는 교회가 가난하고 취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렸습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제사입니다.<br/><br/> 이는 결코 예배보다 윤리적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예배는 허구이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과 이웃사랑이 없는 예배자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아모스는 정의를 저버린 예배는 죄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면 더 열심히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짓밟는 현실을 고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br/><br/>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는 일상의 자리가 결정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창조의 산물, 그리스도 보혈의 산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체험할 때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br/><br/>안선홍 목사 (미국 애틀랜타 섬기는교회)<br/><br/> ◇약력=△서울신학대학원 석사 △예일대 신학대학원 석사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73.txt

제목: [살며 사랑하며-김세원] 생기를 찾아서  
날짜: 201605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24181301295  
본문: 양성 혹으로 오진을 내린 의사 때문에 항암치료도 불가한 폐암 환자가 된 반려견과 생활하며, 의사에 대한 원망으로 들끓어 오르는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실행했다. 반려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며 면박을 주는 분도 있었지만, 그분이 듣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암 판정을 받은 다음날부터 암세포가 싫어하는 식재료를 중심으로 찌고 삶고 으깨어 먹여주니 자신에게 벌어진 엄청난 일도 모른 채 주는 대로 잘 먹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딱한 마음이 들어 공기 좋은 곳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산자락으로 이사를 했다.<br/><br/> 나는 강을 좋아해 집을 볼 때 첫째 조건이 강 조망이 좋은 집이었다. 한강변에 붙은 고가의 아파트가 아니라도 약간 지대가 높거나 지가가 조금 낮은 지역으로 가면 한강 야경이 근사한 아파트가 많아, 이 동네 저 동네 한강 조망이 좋은 곳으로만 이사를 다녔지만 지금은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참에 공기 좋은 곳에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강 조망을 버리고 처음으로 산자락을 택했다.<br/><br/> 집을 내놓고 며칠 발품을 팔던 중, 산과 거실이 코가 닿을 만큼 가까이 있어 산 공기를 거실에서 느낄 수 있는 데다 한 달 만에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집을 딱 만났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집이 바로 팔렸고 아파트를 수리하고 이사하기까지 모든 일이 한 달 반 만에 이뤄졌으니 기도 응답인 것만 같아 너무 감사했다.<br/><br/> 아이를 위한 식단이 올바른지 혈액 검사를 하며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암세포는 조금씩 커졌다. 맥이 풀리고 두려웠지만 더 열심히 찾아 먹였다. 그러기를 석 달째. 몇 주 전부터 암세포가 아주 조금씩 작아지는 것이 보였다. 먹거리만으로도 암세포가 작아지다니 정말 기적 같았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 것을 취하니 치유가 일어났다. 땅에 주신 먹거리에 생명이 있음을, 올바른 섭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하는 기회였다. 이제 이사 온 지 며칠. 좋은 산 공기가 생기를 불어넣을 것을 믿는다.<br/><br/>김세원(에세이스트)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74.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3부 ②] “개개인 상황에 맞는 통합 돌봄 위해서는 공동체가 나서야”  
날짜: 2016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23201621404  
본문: 3부 : 임종케어 선진국서 배우다<br/><br/>② 호스피스의 원조, 영국<br/><br/>호스피스의 ‘원조’인 영국은 개개인 상황에 최적화된 ‘통합 돌봄’을 지향한다. 한 환자를 위한 정책은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협업으로 완성된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임종 돌봄 국장을 맡고 있는 비 위(Bee Wee·사진) 박사를 지난달 28일 영국 옥스퍼드대학병원 호스피스센터 ‘소벨 하우스’에서 만났다.<br/><br/> -영국이 이코노미스트의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 지수’ 조사에서 201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영국 임종 돌봄의 ‘키워드’는 무엇인가.<br/><br/> “개인(individual)을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이다. 지난해 NHS와 유관기관이 속한 ‘국가완화의료 및 임종 돌봄 파트너십’에서 ‘지역적 행동을 위한 국가 체제: 완화의료와 임종 돌봄을 위한 포부’를 내놨다. 여기엔 2020년까지 추구할 6가지 지향점이 담겼다. 그건 ①각 사람을 ‘개인’으로 여길 것 ②개개인이 공평한 돌봄을 받을 것 ③편안과 행복을 극대화할 것 ④돌봄이 조화로울 것 ⑤모든 직원들이 준비돼 있을 것 ⑥각 공동체가 도울 준비가 돼 있을 것 등이다.”<br/><br/> -왜 개인이 중요한가.<br/><br/> “영국인의 70%가 집에서 임종하길 원한다는 통계가 있지만 무조건 집이 최고는 아니다. 집안 환경, 가족의 지지, 증상에 따라 집보다 병원이 나은 환자들도 많다. 통계나 정책의 틀에 갇혀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 ‘암 환자’ ‘소아 환자’ ‘저소득층 환자’로 구분해 정답을 찾을 게 아니라 각 사람이 나이, 성별, 인종, 종교, 지위와 무관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양질의 생애 말기 돌봄을 받게 해야 한다.”<br/><br/> -맞춤형 돌봄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이 있나.<br/><br/> “2008년 ‘생애말기 돌봄 전략’을 세워 여명이 길지 않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연계한 ‘통합 돌봄’을 제공해왔다. 불필요한 중복은 줄이고 다면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면밀히 돌보기 위해서다. 오늘 혈액암 3기인 A씨(85·여) 집에 다녀왔다. 근로소득 없이 혼자 사는 그에게 사회복지사가 하루 3번 들러 끼니를 챙기고 건강이 악화되면 담당 일반의(GP)가 동행한다. 오늘은 통증이 심해서 나도 GP와 함께 방문했다. 2∼3일 뒤에도 차도가 없으면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키로 했다. 의료, 복지, 임종 돌봄 전문가가 협업해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br/><br/> -지역이나 시설 역량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br/><br/> “그래서 ‘공동체’를 강조한다.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일상에서 개입하는 게 맞춤형 돌봄에 효율적이다. 지역사회 이웃, 교회 등의 종교단체, 동호회 등 다양한 공동체가 이미 있다. 환자나 가족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 전문가가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길 수 있어 임종의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한다. 다만 교육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호스피스 시설이 ‘교육’을 병행하는 이유다.”<br/><br/> -한국에서는 사회·경제적 형편에 따라 ‘존엄한 죽음’이 ‘사치’로 여겨지기도 한다.<br/><br/> “의료서비스가 무료인 영국과 비용이 드는 한국을 단순 비교하긴 힘들지만 영국도 아직 모두가 죽음 앞에 평등하지 않다. 그래서 수감자, 노숙자, 이민자 등 소외된 개인의 임종에 더 관심을 쏟는다. 호스텔을 떠도는 노숙자를 위해 호스텔 직원에게 임종 돌봄 교육을 하는 식의 시도를 한다. 곧 임종할 수감자에게 계속 수갑을 채워야 하는지 관계 부처와 함께 고민도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료기관, 공동체, 지역사회 등에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실제로 대만 등이 그렇게 해서 죽음의 질을 끌어올렸다.”<br/><br/>옥스퍼드=전수민 기자<br/><br/>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75.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3부 ②] 英 ‘죽음의 질’ 1위 비결은… 공동체에 녹아든 호스피스  
날짜: 2016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23201617394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br/> <br/>3부 : 임종케어 선진국서 배우다<br/><br/>② 호스피스의 원조, 영국<br/><br/>지난달 26일 오전 영국 런던 외곽 시드넘에 위치한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 응접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채 휠체어에 앉은 파텔(69)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주치의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이 두렵습니다.”<br/><br/> 파텔씨는 2년 전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진단과 복부 대동맥류 진단을 함께 받았다. 죽음 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그에게 주치의는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를 권했다. 이날 아내와 함께 성 크리스토퍼를 찾은 파텔씨는 등록 상담을 받기로 했다.<br/><br/> 세계 최초의 호스피스<br/><br/> 봄볕이 쏟아지는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의 응접실은 삼삼오오 모여 다과를 들거나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다. 파텔씨처럼 휠체어를 탄 백발의 노인, 병색이 완연한 중년 남성 등 대부분 말기 환자들인데도 얼굴은 하나같이 평온했다. 환자를 방문한 가족들, 지역 성직자들, 인근 주민 등은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다.<br/><br/> 1967년 의사 시슬리 손더스가 세운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는 세계 최초의 호스피스다. 암뿐 아니라 각종 질병의 말기 환자들을 두루 받아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신념이 뿌리가 됐다. 지금은 임종은 물론 사별 후 돌봄, 전문인력 양성까지 책임지는 ‘종합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br/><br/>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에서 돌봄을 받은 말기 환자는 3300여명을 넘는다.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인근 브롬리, 크로이던, 램버스, 루이스햄과 서더크 지역의 150만명에 이르는 인구가 잠재적인 돌봄 대상자다. 4개 병동, 48개 병상이 있고 가정방문형, 지역기반 센터형, 외래진료형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환자의 상황에 맞는 임종 돌봄을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455명의 직원,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br/><br/> 질적인 성장도 돋보인다. 원하는 장소에서 죽는 환자의 비율이 매년 늘어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성 크리스토퍼 환자의 72%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삶을 마무리했다. 병원에서 죽는 환자 비율은 21%에서 17%로 줄었다. 호스피스 방문 서비스는 같은 기간 1만4000회 진행됐다. 한밤중, 주말 등에 이뤄진 방문도 600여회에 달한다. 심장질환, 치매 환자 등 상대적으로 호스피스 제도에서 소외된 환자들의 유입도 늘었다.<br/><br/> 환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손길’은 이어진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1년 동안 800여명의 성인 유가족이 사별 돌봄을 받았다. 어린이에게는 ‘촛불 프로젝트’라는 맞춤형 사별 돌봄을 통해 죽음을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1년간 어린이 373명이 이 서비스를 받았다.<br/><br/> 지역사회로 파고들다<br/><br/>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는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매년 4000여명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 돌봄,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인근 호스피스기관 직원들이나 일반의(GP) 등 의료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회복지사나 성직자들은 아예 상주하면서 교육받는다. 1년에 1∼2번 열리는 1주일짜리 코스에는 아프리카, 동유럽 등지의 호스피스 전문인력이 ‘유학’을 오기도 한다.<br/><br/>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유가족이 교육과정을 거쳐 ‘자원봉사자’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늘고 있다. 다만 유가족 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사별 후 1년이 지나야 자원봉사가 가능하다. 역할에 따라 8일에서 8주까지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고 나서 현장에 배치된다.<br/><br/> 내년이면 설립 50주년이 되는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녹아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사람의 임종 전과 후의 모든 과정을 연속적으로 돌보려면 그가 속한 이웃, 종교단체, 동호회 등 각 공동체의 지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br/><br/>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는 예술의 밤, 콘서트,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다가가고 있다. 특히 죽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죽음 대화’ 프로그램으로 영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임종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br/><br/> 교육 담당자 겸 도서관 사서인 데니스 브레디씨는 “<span class='quot0'>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는 단순한 호스피스가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사회·신체·정신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돌보는 ‘동반자’</span>”라고 강조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벽을 허물고 공동체가 호스피스와 임종 돌봄에 녹아들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로 모여 상호 작용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span>”고 덧붙였다.<br/><br/>런던=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br/><br/>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76.txt

제목: 필리핀서 한국선교사 피살, 해외선교지 안전주의보  
날짜: 201605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22212001357  
본문: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심재석(57) 선교사가 피살됐다. 최근 대북 선교활동을 하던 사역자들이 살해되는 등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소식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br/><br/> 22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필리핀감리교선교사회에 따르면 심 선교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오전 4시30분 쯤 새벽예배를 앞두고 2층 예배당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교회 문을 열기 위해 아래층인 사택으로 내려갔다. 이때 숨어 있던 범인과 맞닥뜨렸고 퇴로를 확보하지 못한 범인이 주변에 있던 둔기로 가격해 쓰러졌다. 범인은 쓰러진 심 선교사에게 10㎏짜리 빈 가스통을 휘두른 후 도주했다. 심 선교사는 6시 30분 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고 선교사회는 전했다. <br/><br/> 심 선교사는 2000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중부연회 인천동지방 지구촌선교교회 파송으로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동북부인 타이타이 지역에서 활동했다. 그는 지역교회인 ‘기도의 집(House of prayer)’을 설립, 현지인을 대상으로 빈민 구제와 교육 선교 활동을 펼쳐왔다. <br/><br/> 심 선교사는 선교활동 중 암이 발병해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2008년 필리핀으로 복귀해 사역했다. 필리핀감리교선교사회 회장 김승환 선교사는 “심 선교사는 평소 덤으로 살고 있다고 표현했다. 정말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유가족으로는 아내 안정윤(55) 선교사와 남매 하영(20)군, 하은(19)양을 두고 있다.<br/><br/> 사건 발생 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직원과 현지 경찰, 김 선교사 등이 현장 검증을 마쳤으며, 시신은 안타폴로시티 소재 ‘헤븐 오브 엔젤스(Heaven of Angels)’ 장례식장으로 운구됐다. 장례식은 기감 선교국장으로 치르게 되며 21일 입관예배를 마쳤다. 발인예배는 23일 오전 10시다. <br/><br/> 필리핀에서 한국 선교사가 피살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0년 8월에는 조태환 선교사가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필리핀에는 1672명의 선교사가 활동 중이다. <br/><br/> 한편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은 20일 ‘선교안전, 비상상황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선교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성명은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데 안전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선교사들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br/><br/> 신상목 최기영 기자 smsh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77.txt

제목: 한국 연극계 거장들이 돌아왔다… 내달 3∼26일 ‘원로 연극제’ 열려  
날짜: 2016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9211813914  
본문: “연극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작품과 요즘 관객이 새롭게 만나길 기대합니다.”<br/><br/> 김정옥(85) 오태석(77) 하유상(89) 천승세(78) 등 한국 연극사의 산증인인 네 원로 연극인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원로 연극제’가 6월 3∼26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에서 열린다. 김정옥 작·연출의 ‘그 여자 억척 어멈’, 오태석 작·연출의 ‘태(胎)’, 하유상 작·구태환 연출의 ‘딸들의 연인’, 천승세 작·박찬빈 연출의 ‘신궁’이 잇따라 공연된다. <br/><br/>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9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는 암 투병 중인 천승세를 제외한 3명이 자리를 지켰다. 이들 원로 연극인은 오랜만에 자신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것에 설렌 듯 과거 한국 연극계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털어놓았다. 특히 어둡고 암울했던 당시 사회 상황에서 연극을 만들었던 일을 감회어린 모습으로 회고하기도 했다. <br/><br/> 김정옥은 “원래 브레히트의 ‘억척어멈’을 올리고 싶었지만 동독 작가라 오랫동안 무대에 올릴 수 없었다. 그러다가 ‘억척어멈’을 한국사 속 동학혁명, 6·25 등과 엮어 각색한 것이 ‘그 여자 억척 어멈’(1997년 초연)이다”고 말했다. 또 오태석은 “<span class='quot0'>수양대군의 정권 찬탈을 다룬 ‘태(胎)’(1974년 초연)를 1972년 박정희정부의 계엄령 이후 경찰에 붙잡혀 피 흘리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쓰게 됐다</span>”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밝혔다. 반면 하유상은 “‘딸들의 연인’(1957년 초연)은 전생의 상흔이 아직 남아있던 시기에 자유연애를 다룬 코믹극이다. 일제와 6·25 등 어두운 역사에서도 인간 세상의 밝은 면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br/><br/> 기자간담회에는 손병호 성지루 배해선 등 원로 연극인의 작품에 출연하는 중견 배우들도 다수 함께했다. 손병호는 “한국 연극계를 지켜온 거장들의 작품에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원로연극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연속됐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연극에 대한 선생님들의 열정이 후배들보다 뜨거운 만큼 원로연극제라는 이름 대신 청춘연극제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78.txt

제목: [한국의 공교회-행복으로가는교회] ‘하나님 의사’ 모시고 치유상담… 위기 맞은 가정, 행복 찾아준다  
날짜: 201605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8213321339  
본문: #1 우울증이 있던 30대 초반 여성 A씨는 두 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매일 자살을 생각했다. 결혼 후 과묵한 남편과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했는데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남편은 A씨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부부 관계는 결국 파국을 향해 치달았다. 보다 못한 지인의 소개로 2년 전 10주 동안 인천 남동구 문화로 행복으로가는교회(최귀석 목사)에서 진행하는 ‘부부행복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던 상처를 알게 됐다. <br/><br/> A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자주 다투는 것을 보며 성장했다. 폭력적이었던 아버지와 달리 연애시절 자신에게 온순하게 대한 남편에게 이끌려 결혼했다. 남편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자주 갈등 빚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집에 가면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 귀에 귀마개를 끼고 살았다. 이 습관이 남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성격이 됐다. <br/><br/> 부부는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믿음 생활도 시작했다. 지금은 교회에서 다른 가정을 돕는 봉사도 열심히 한다.<br/><br/>#2 늦은 나이에 결혼한 30대 후반의 주부 B씨는 유난히 삶에 의욕이 없었고 무슨 일이든 귀찮아했다. 다혈질의 남편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아내에게 불만이 많았다. 갈등이 쌓이고 쌓여 부부는 이혼 위기에까지 몰렸다. 파국은 피하기 위해 지난해 1월 행복으로가는교회의 부부행복세미나를 찾았다. 상담을 통해 아내는 어린 시절 성폭행 당했던 아픈 기억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그때까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꽁꽁 숨겨왔고 그래서 더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를 부둥켜안고 울면서 아내의 아픔을 보듬어줬다. 이후 가정은 서서히 회복됐고 자녀도 낳았다.<br/><br/> 행복으로가는교회에는 이처럼 가정의 여러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왔다가 회복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들이 많다. 최귀석 목사는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1995년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을 설립했다. ‘카운슬링 코칭’을 바탕으로 한 부부행복학교, 결혼예비학교 등 다양한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카운슬링 코칭은 임상을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 내면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활용된다. <br/><br/> 최 목사는 연구원에 상담하러 왔다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2005년 교회를 개척했다. 개척 2년 만에 200석 상가 교회로는 공간이 부족해 6층 새 성전을 건축했다. 현재 500여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다. <br/><br/> 최 목사는 “의사는 하나님이시고 치유상담을 하는 우리는 간호사”라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개개인의 아픔이 치료된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한 치유상담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br/><br/> 이 교회는 심리치유상담교육과 실전의 임상교육을 전 교인에게 실시한다. 치유상담학교에서는 말씀과 찬양, 기도를 비롯해 심층 분석, 일대일 내적 치유, 토설 등을 통한 치유 방법으로 내면의 갈등을 치유한다. 교육 과정에는 목회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원의 ‘가족(심리) 치유상담전문가’ 과정에는 현재 170여명이 수강하며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br/><br/> 교회는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훈련받은 20여명의 성도들이 지역 주민들을 무료로 상담한다. 부부와 자녀 등의 문제로 교회에 왔던 주민들이 수차례 상담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열매로 이어지고 있다. <br/><br/> 이 교회는 2001년부터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해 ‘가족폭력 제로운동’과 ‘열린 가족 축제’를 진행해왔다. 올해도 오는 21일 인천 남구 광교동 신세계백화점 앞 광장에서 ‘건강가정 헌장 선언문’ ‘가족폭력 제로운동 선언문’ ‘부부 십계명’ ‘가정폭력 예방 십계명’을 발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장미꽃을 나눠준다. <br/><br/> 최 목사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치유가 안 되면 계속 갈등 속에 살게 되고 신앙인으로서 사랑과 섬김, 양보와 배려가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며 “인간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여기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br/><br/> 이어 “우리의 깊은 상처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며 “그래야 아픔이 많은 다른 사람도 넉넉하게 품을 수 있고 행복한 가정생활과 믿음생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br/><br/>행복으로가는교회 최귀석 목사 “<span class='quot0'>가정공동체 위한 내면 치유 사역 적극 나서야</span>”<br/><br/>“내면에 아픔이 있는 사람을 회복시킨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치유사역을 하면서 상담자와 비슷한 저의 상처도 함께 회복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br/><br/>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문화로 행복으로가는교회 목양실에서 만난 최귀석(58·사진) 목사는 가정사역의 보람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최 목사는 “<span class='quot0'>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운 것이 가정공동체</span>”라며 “<span class='quot0'>교회를 통해 많은 가정이 행복되기를 소망한다</span>”고 말했다. <br/><br/>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최 목사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컸다. 결혼 후 아내와도 갈등이 많아 이를 극복하려고 각종 치유상담 세미나와 집회 등을 찾아다녔고, 치유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전문성을 갖게 됐다. 20여년 동안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을 운영하며 활동한 최 목사는 200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br/><br/> 그는 “<span class='quot0'>성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상흔이 잊혀지는 듯하지만 15년 정도 주기로 내면의 상처가 분출하며 정상적 삶을 불가능하게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그 고통이 삶의 위기로 다가올 때는 가족 또는 주위의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괴롭힐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특히 중년에 찾아오는 이 불청객은 갱년기나 우울증과 함께 올 수 있다. 더 큰 위기는 심리적 상처가 고혈압이나 암 등 육체적 질병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br/><br/> 최 목사는 지속적 치유를 통해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봤다. 이어 “가족 전체가 상담,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면 회복의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br/> 그럴려면 본인 스스로 마음이 아팠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분노와 소외감, 버림받은 아픔을 느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 목사는 “<span class='quot0'>시편 109편에서 다윗이 토설한 것처럼 눈물, 소리 지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처를 씻어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래야만 나를 힘들게 한 가족, 배우자,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최 목사는 목회자들에게도 내면 치유 사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면에 아픔이 있는 목회자는 자신도 모르게 설교나 심방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면에 쌓인 것을 표출할 방법이 없는 것은 사모도 마찬가지다. 목회자 자녀도 말과 행동에 제약이 많아 방황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최 목사는 “<span class='quot0'>목회자 가정이 회복되면 이들이 성도들을 건강하게 섬길 수 있고 교회도 성숙하게 자리매김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인천=글 김아영 기자·사진 전호광 인턴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79.txt

제목: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12월까지 확대  
날짜: 201605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8183310717  
본문: 유전자 산업 진흥을 위해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금지·제한된 유전자 검사 항목 19개에 대한 완화도 추진된다.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에 쓰이는 치료제는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아도 허가가 날 수 있게 된다.<br/><br/>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유전자 치료를 유전질환이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법을 고쳐 연구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전자 검사가 금지·제한된 19개 항목도 이달부터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완화 방안을 찾는다.<br/><br/> 또 정부는 ‘원격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을 위해 10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지금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 내 약사와 대면해야’ 약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복약지도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 일부 치료제에서 실시 중인 ‘조건부 허가’를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까지 확대한다. 난치병 등에 쓰이는 의약품 가운데 효과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이라도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br/><br/> 정부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배아 기증자의 병력 정보 확인도 세포 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배아를 기증한 사람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이나 바이러스성 간염 등에 걸렸는지 등을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했다.<br/><br/>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에서 비동결난자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신산업투자위원회의 건의는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아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연구용 난자의 기증이 가능해져 난자 매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처방된 약품을 택배로 배송하게 해 달라는 건의도 ‘미해결 과제’가 됐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유통 중 변질과 오염 가능성이 있고 약사의 지도 기능이 약화돼 사고 우려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80.txt

제목: [헬스 파일] 성인 급성백혈병  
날짜: 2016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6205940514  
본문: 최근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출연한 배우 최성원의 급성 백혈병 진단 및 활동중단 소식으로 급성 백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도 종종 등장하는 백혈병은 급성 백혈병과 만성 백혈병 두 가지가 있다. 두 병은 다시 골수성과 림프구성으로 각각 나뉜다.<br/><br/>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성인에게 나타나는 급성 백혈병 중 가장 흔한 형태다. 급성 백혈병의 약 65%를 차지한다. 반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성인 급성 백혈병의 약 30%에 그친다.<br/><br/> 두 질환 모두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 방사선 조사 외에 환경요인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백혈병으로 진단된 환자 개개인의 사정은 정확히 알려진 게 없다. 일부 환자에게서 암 유전자 또는 염색체 이상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 자식 간의 유전과는 다른 개념이다. 실제 유전도 되지 않는다.<br/><br/> 주의할 것은 급성 백혈병에 따른 이상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증상들이 꼭 백혈병에서만 나타나는 것만도 아니어서 조기발견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골수 내에 백혈병 세포가 늘어나고 정상 혈액세포의 감소로 어지러움, 숨찬 증세, 두통, 피로감 등의 빈혈 증세가 느껴질 때는 일반적인 빈혈과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br/><br/> 급성 백혈병에 걸리면 이 외에도 혈소판 감소로 코피나 잇몸 출혈이 잦고 지혈이 잘 되지 않으며 쉽게 멍이 들고 출혈 반점이 나타난다. 또한 정상 백혈구 감소에 의해 감염에 취약해지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폐렴과 장염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br/><br/> 급성 백혈병은 백혈병 세포가 혈액을 통해 전신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다른 암과 달리 병기를 1∼4기로 구분하지 않고 재발 위험도를 평가해 위험군을 선별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치료는 대부분 전신 항암 화학요법을 받게 되고 재발 위험도에 따라 항암화학요법의 강도 및 횟수, 조혈모세포이식술 등과 같은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일부 환자군의 경우 표적치료제를 처방하기도 한다.<br/><br/> 치료가 끝난 후 관리도 중요하다. 퇴원 후에도 여전히 면역력을 다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집에서 감염방지를 위한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혼잡한 장소는 병원균에 노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br/><br/>황도유 국제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81.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3부 ①] 대만 말기암 환자… 그들은 병원서 ‘마지막 소원’ 이룬다  
날짜: 2016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6202940266  
본문: 3부 : 임종케어 선진국서 배우다<br/><br/> ① ‘아시아 죽음의 질 1위’ 대만<br/><br/>죽음을 눈앞에 둔 자궁경부암 말기 환자인데도 얼굴은 평온했다. 우모(吳·51·여)씨는 지난 2월부터 대만 타이베이 시내에 있는 타이베이의과대학병원의 일반 암병동에 입원해 있다. 호스피스 전용 병동이 아니지만 통증 관리와 증상 완화, 심리·영적 돌봄을 받고 있다. 주치의는 살날이 얼마 안 남았다며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적극 권했다고 한다.<br/><br/> 지난달 26일 만난 우씨는 “암 수술과 항암제 투여로 고통 받느니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고 싶다”고 했다. 주치의의 협진 요청을 받은 완화의료팀(PCT)은 하루 두세 차례 우씨가 있는 암병동으로 찾아와 편안하게 임종하도록 돕고 있다.<br/><br/> 완화의료팀은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이벤트를 종종 연다. 2014년 6월 당시 서른한 살의 대장암 말기 환자 린모(林·여)씨는 약혼자와 ‘병상 결혼식’을 올렸다. 병원 측이 마련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신부’가 됐다. 양가 가족과 친지, 친구도 초청받아 기념사진을 찍고 추억을 쌓았다. 린씨는 사흘 뒤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그때를 기억하는 간호사 찬야루(28)씨는 “<span class='quot0'>가발을 쓰고 화장을 했지만 신부는 매우 행복해 보였다</span>”고 전했다. 이 병원의 일반 암병동에서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죽음을 맞은 환자는 모두 5명이다.<br/><br/> 대만의 대부분 의료기관에는 병동, 가정 호스피스와 함께 ‘자문형 호스피스(Share care 혹은 Combined care)’가 정착돼 있다. 적극적 치료가 주목적인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동에서부터 호스피스 의료진이 협진을 한다. 호스피스 간호사 황슈사(48)씨는 “주치의가 협진 요청을 하면 완화의료팀 의사가 환자 상태를 살피고 상담한다”면서 “매년 450여명이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한다. 80%는 암, 20%는 다른 말기질환”이라고 설명했다.<br/><br/>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대만의 자문형 호스피스팀은 126개에 이른다. 병동형(51개 기관), 가정형(80개팀)보다 많다. 대만 위생복지부는 병동이나 가정 호스피스를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일반 병동→호스피스 병동→가정(지역)’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한 것이다.<br/><br/> 호스피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다. 2009년부터 암과 운동성신경병 외에 알츠하이머치매, 뇌졸중, 만성폐질환, 만성간경화 등 8개 질환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대만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59%에 달했다. 한국의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2014년 기준 13.8%)보다 월등히 높다.<br/><br/> 타이베이의과대학 호스피스 의사 우선치씨는 “<span class='quot1'>대만도 한국처럼 ‘죽음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지만 1996년 가정 호스피스에 첫 건강보험 적용, 2000년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제정 등 일찍부터 국가 차원의 임종의료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에 뛰어들면서 인식이 바뀌었다</span>”고 말했다.<br/><br/>타이베이=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82.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3부 ①] 대만 ‘품위 있는 죽음’ 국가적 배려… 법·시설 亞 최고  
날짜: 2016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6191621179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br/> <br/>3부: 임종케어 선진국서 배우다<br/><br/> ① '아시아 죽음의 질 1위' 대만<br/><br/> 대만은 아시아에서 ‘가장 죽기 좋은 나라’다. 지난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연구소(EIU)가 세계 8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죽음의 질(質) 지수(Quality of death index)’ 조사에서 아시아 1위(전체 6위)에 올랐다. 대만 사람들은 한국, 일본 등 그 어느 아시아 국가 국민보다 편안하고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14위) 한국(18위) 중국(71위)을 훌쩍 뛰어넘는다. 일찍부터 정부와 민간단체가 손잡고 생애 말기 환자의 임종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다.<br/><br/> 민·관이 함께 만든 ‘임종의 질(質)’<br/><br/> 대만이 국민의 ‘마지막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캐나다 선교사가 세운 매케이의과대학병원에 1990년 처음으로 호스피스병동이 생기면서부터다. 같은 해 설립된 대만호스피스재단이 정부와 함께 호스피스 인프라 확산을 이끌었다. 현재는 전국 19개 메디컬센터(종합병원급) 가운데 16곳에 호스피스병동이 마련돼 있다.<br/><br/> 매케이의과대학병원의 호스피스병상 수는 63개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지난달 26일 찾은 이 병원의 호스피스병동은 말기 환자로 꽉 들어차 있었다. 병동 내부에 피아노와 소파, TV, 책장 등이 놓여 있어 병원이라기보다는 일반 가정집 같았다. 특히 1층은 모든 병실이 한가운데 정원으로 통하도록 연결돼 환자들이 꽃과 식물을 보며 안식을 찾도록 했다. 병실 문에는 방 번호 대신 ‘주작’ ‘공작’ ‘설송’ ‘운백’ 같은 새와 나무 이름이 붙어 있었다.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1명이 환자 1명을 전담한다.<br/><br/> 병실마다 벽에 그림이 하나씩 걸려 있었다. 한 간호사가 그림을 옆으로 젖히자 보관함이 드러났다. 벽 보관함에는 산소공급기와 가래제거기, 혈압측정기 등이 들어 있었다. 그는 “병원 느낌이 들지 않도록 평소 보이지 않게 그림으로 가려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쓴다. 말기 환자 가족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귀띔했다.<br/><br/> 임종실은 4개가 있다. 숨을 거두기 직전 환자들은 이곳으로 옮겨와 가족과 이별의 시간을 갖는다. 종교에 따라 맞춤형 공간으로 제공된다. 외국이나 지방 등 먼 곳에서 황급히 찾아온 가족이 대기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갖춰져 있다. 매케이 의과대학병원 호스피스 전담 라이윈량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만성 질환자들이 늘면서 정부는 호스피스병상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병동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을 보내 통증 관리 및 증상 완화, 영적·심리적 케어를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Share care)’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 대만의 호스피스 서비스는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된다. 1996년 ‘가정 호스피스 암 환자’에 건강보험이 처음 적용됐고 2000년 병동 호스피스 입원 암 환자, 2005년 자문형 호스피스 암 환자로 확대됐다. 2009년부터 암 외에 알츠하이머치매, 뇌질환, 만성폐질환, 만성간경화, 만성신부전, 심부전 등 8개의 다른 말기 질환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대만호스피스재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건강보험의 90% 이상이 암 환자에게 지원되고 있지만 점차 다른 만성 질환자로 넓혀지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 2000년 ‘심폐소생술 거부’ 권리 인정한 법 제정<br/><br/>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또 하나의 기폭제는 2000년 아시아 최초로 제정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이다. 이 법은 말기 상황에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Do not resuscitate)’는 연명의료 장치 거부에 대한 자기결정 권리를 명문화했다. 20세 이상의 정상 판단이 가능한 성인은 누구나 사전에 심폐소생술 거부 및 호스피스 의향 신청서를 쓸 수 있다. 2011년부터 신청서 정보를 전 국민의 건강보험카드 IC칩에 저장해 나중에 의식을 잃더라도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br/><br/> 자연사법은 시행 초기엔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정부와 대만호스피스재단이 10년 넘게 ‘선종(善終·좋은 죽음)’의 개념을 알리고 연예인, 유명인사가 나서 사전 호스피스 의향 신청서를 쓰는 등 오랜 홍보전을 펼친 끝에야 효과를 서서히 거두기 시작했다.<br/><br/> 특히 5년 전부터 80대 국민배우 손웨와 현직 방송앵커 장샤엔 등이 참여한 ‘죽음, 듣고 말하고 봐야한다(Facing death, Must listen, Must talk, Must see)’ 캠페인은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대만호스피스재단과 전문학회 등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전국을 돌며 ‘죽음 교육’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의 참여 빈도도 높아졌다.<br/><br/> 자연사법 시행 15년째인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심폐소생술 거부’ 신청서를 작성한 대만 사람은 30만8886명에 이른다. 전체 인구(2300만명)의 1.3% 수준이다. 라이윈량 교수는 “<span class='quot0'>2005년만 해도 한 해 39명에 불과했던 신청자가 2013년부터 연간 6만명 이상 서명하는 수준으로 늘었다</span>”고 말했다.<br/><br/> 츠지의과대 ‘무언의 멘토’…세계가 주목<br/><br/> 조기에 이뤄지는 죽음 교육은 국민이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데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대만에선 중학교부터 교과 과정에 ‘생사(生死) 교육’이 들어가 있다. 초등학교에서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죽음·호스피스 관련 교육 자료가 보급돼 있다. 의과대학의 정규 교과과정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br/><br/> 특히 대만 화롄시에 위치한 츠지의과대학병원이 수년째 의대생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무언의 멘토(Silent Mentor)’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 이 병원은 호스피스를 받고 임종한 말기 환자에게서 해부용 시신을 기증받는다. 의대생들은 기증 시신을 활용하기 전 환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기증자 가족을 일일이 찾아가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슬픔과 위로를 나눈다. 병마로 숨진 환자들은 예비 의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교육용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정신적 멘토’가 되는 것이다.<br/><br/> 이 병원 호스피스 전담 의사인 왕잉웨이 교수는 “<span class='quot2'>이 프로그램은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면서 대만 사람들의 선종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유럽과 미국 등 유수대학 의료진과 의대생들이 ‘무언의 멘토’를 배우러 우리 병원을 찾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신베이·화롄(대만)=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br/><br/>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83.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3부 ①] 노인요양센터에도 환자·가족 위한 ‘임종실’  
날짜: 2016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6191619869  
본문: 3부: 임종케어 선진국서 배우다<br/><br/> ① '아시아 죽음의 질 1위' 대만<br/><br/> 한국 ‘노인요양병원’격인 대만의 ‘노인요양센터(Elderly center)’는 말기 환자들의 존엄한 죽음을 돕도록 배려하고 있다. 대부분 가족과 마지막 이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임종실이 잘 갖춰져 있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의 ‘출장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br/><br/> 지난달 28일 찾은 대만 신베이시 ‘쌍롄노인요양센터’에는 2개의 임종실(사진)이 마련돼 있었다. 2000년 문을 연 이 요양센터에는 암 뇌졸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을 앓는 환자 420여명이 입소해 있다. 요양센터 차이팡윈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0'>입소자 대다수는 ‘심폐소생술 거부’를 신청한 사람</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면 다른 환자와 가족이 보지 않게 임종실로 이동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도록 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임종실을 갖춘 곳이 매우 드물어 대부분 주변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눈을 감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장면이 환자들의 정신건강에 좋을 리 없다.<br/><br/> 차이 국장은 “<span class='quot1'>또 입소자 중 암환자 8명의 경우 치료받던 병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통증 완화와 영적 상담을 하고 있다</span>”고 했다. 대만에는 국공립(30곳)을 비롯해 2000여개의 노인요양센터가 있다.<br/><br/>신베이=민태원 기자<br/><br/><br/><br/>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84.txt

제목: [암과의 동행] 1년에 5.4개… 정부 항암신약 급여 가물에 콩 나듯  
날짜: 2016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5210341497  
본문: 정부가 항암제 등 신약 급여에 노력하고 있지만 환자의 만족도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하 암보협)이 발간한 ‘한국 암치료 보장성의 현주소’에 따르면 2005년 암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암환자 보장성 강화에 나선 지 10년이 넘었지만 4기 암환자의 기대여명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크게 기여하는 항암신약의 보험급여율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항암 신약의 급여고시율은 2008∼2013년 평균 43.3%에서 2014∼2015년 48.3%로 증가했다. 반면 급여등재 품목수는 2008∼2015년까지 연평균 5.4개에 불과했다. 항암신약은 암환자의 기대여명 증가의 주요인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000여개의 잠재적 항암신약이 임상시험을 통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중 80%는 혁신성이 있는 계열 최초의 신약으로 알려져 있다.<br/><br/> 현재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들의 대다수가 4기 암환자(▲위암 45.5% ▲대장암 55.8% ▲비소세포폐암 82.7% ▲간암 54.1% ▲다발성골수종 50.4% 비호지킨림프종 46.5%)로 신약의 접근성 확대요구가 큰 이유다. 한국은 OECD 20개국 중 항암신약에 대한 보험급여가 가장 어려운 국가 17위(2009∼2014년 기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항암제 지출 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항암신약의 보험급여가 어려운 이유로 제한적인 정부의 보험급여 정책을 지적했다. 한국에서 허가된 항암 신약 가운데 68%(34개 중 23개)가 출시됐지만 이중 29%(34개 중 10개)만 보험이 등재됐다. 특히 혁신적이거나 의학적 요구도가 높은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신속 승인절차를 운영중인데 미국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청은 2009년∼2014년 신속 승인절차를 통해 35개의 항암 신약을 승인한바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들 35개 약제 중 단 20개만 허가를 받았고, 출시된 제품은 14개(70%)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 의약품 중 보험에 등재된 약제는 3개뿐이었다. 한국의 항암 신약이 보험 등재되기까지 평균 60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우리나라의 보험급여는 질보정수명에서 측정된 건강이득 대비 신약의 가격에 근거해 비용효과분석에 따라 결정된다. ‘신약의 급여적정성평가 개선방안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복지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 제출한 의약품 급여결정과 관련한 회의자료와 약평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신약 급여 적정성평가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 혁신성, 건강보험재정 영향 등이 고려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비용 효과성이 더 중요하고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평위 회의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임상적 유용성은 인정하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결정‘ 또는 ’임상적 필요성은 인정하나 경제성평가 자료가 미비해 비급여로 평가‘ 등으로 임상의사에 의해 임상현장에서의 필요성이 인정된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제마저도 비용효과성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로 평가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는 결과가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되는 반면, 다른 평가 요소들은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은 회의에서 논의는 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려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평위의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의 급여결정과정에서 비용효과성 뿐만 아니라 임상적 유용성 등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약평위의 의사결정과정 및 방법론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85.txt

제목: [쿡기자의 건강톡톡]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얼마나 효과있을까?  
날짜: 2016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5205226382  
본문: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인 봄철에 황사와 미세먼지는 치명적인 방해요소다. 하지만 어김없이 날씨가 화창한 날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야외활동을 즐기기에 여념 없다. 물론 지난해 메르스나 황사 등의 여파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올바른 마스크 사용을 하고 있는가가 문제다. <br/><br/> 지난달 18일 유한킴벌리와 이화의료원이 함께 20∼40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스크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95%가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호흡기 건강을 걱정하지만, 정작 보건기관이 권고하는 ‘의약외품 황사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의 77.8%가 일반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었고, 의약외품 황사마스크를 사용한 경우는 55.8%였다. 게다가 2회 이상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48.1%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br/><br/>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 몸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미세먼지는 위험요소가 많은 질환이므로 반드시 마스크 사용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미세먼지는 기관지염, 폐렴 같은 염증성 호흡기 질환부터 천식, 만성폐쇄성질환의 급성악화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초미세먼지의 경우 협심증,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폐암 같은 암 발병률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 그렇다면 미세먼지용 황사마스크 대신 일반 마스크로 사용해도 괜찮을까. 최 교수는 “일반 마스크는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일반 마스크를 비롯해 코털 등 인체의 방어막들이 제대로 먼지 유입을 막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황사마스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황사마스크를 구입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의 의약외품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황사마스크 내에는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정전 필터가 들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먼지가 기도로 흡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br/><br/> 또한 황사마스크를 착용할 때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최천웅 교수는 “<span class='quot1'>마스크 착용시 마스크로 코부터 턱까지 완벽하게 가리고 먼지가 유입될 수 있는 코 부분이 밀착되도록 양 손으로 코 지지대를 눌러 안면에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여성의 경우 화장이 지워질까 염려해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휴지로 인해 마스크가 얼굴에 완벽하게 밀착되지 않아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span>”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사마스크는 1회용이므로 재사용하거나 세탁해 쓰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스크 재사용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br/><br/> 한편 최 교수는 황사마스크 사용 외에도 “<span class='quot1'>미세먼지 경보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span>”고 권고했다. 부득이하게 외출시에는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에 맞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 안경 등을 이용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호흡기가 건조해지면 미세먼지나 외부에서 침투한 균을 배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기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br/><br/>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8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원자력병원 스마트 암 진료… 최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병동 운영  
날짜: 2016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5205225316  
본문: 갑상선암 환자는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갑상선 부분 혹은 전체 절제술을 시행 받는다. 갑상선 전체 절제술 후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남아 있을 수 있는 미세한 암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게 된다. <br/><br/> 요오드는 주로 해산물 등을 통해 섭취되며 섭취된 요오드는 갑상선 조직으로 들어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로 이용된다. 이 원리를 이용해 방사선이 나오는 방사성 요오드를 환자에게 투여해 선택적으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이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조직을 제거해 암의 재발을 막고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서, 기존 연구로 입증된 상태이다.<br/><br/> 50여 년 전통의 암 전문 병원인 원자력병원은 갑상선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용 치료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치료실이 1∼2개 정도인데, 원자력병원은 국내 병원 중 최다인 12병상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병동을 가동해 환자들이 오래 대기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br/><br/> 원자력병원은 일반병동과 격리된 장소에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병동을 분리해 병실의 벽과 바닥을 납폐 처리하고, 환자 모니터링시스템, 방사성 동위원소 감지시스템, 방사성 동위원소 전용 정화조 등 특수 시설도 함께 갖춰 환자의 몸이나 분비물에서 나오는 방사능의 전파를 최소화해 일반 환자와 보호자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감을 해소했다. <br/><br/> 원자력병원은 이러한 국내 최다 규모의 방사성 동위원소 전용 치료병동 운영으로 갑상선암 환자를 위한 최적의 치료환경을 제공, 다수의 우수한 갑상선암 치료 성과도 발표하고 있다.<br/><br/>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들 중 약 20∼30%는 치료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법이 요구되어 왔다. 원자력병원 갑상선암센터 연구팀은 갑상선암 환자가 방사성 요오드 치료 전 리튬을 복용할 경우,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암 세포에 오랫동안 남아있어 치료효과가 개선된다는 것을 2014년 제84회 미국갑상선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했으며, 이 연구는 미국갑상선학회 언론 공식 발표대상 연구로 선정됐다. <br/><br/> 갑상선암은 치료가 잘 되고 생존율도 높지만, 전체 환자의 약 2∼5%는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하며, 이들 환자의 치료경과가 좋지 않은 것이 알려져 있다. 원자력병원 갑상선암센터 연구팀은 26년 간 갑상선암 환자의 자료를 분석해 뼈에 전이가 일어난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경과를 대규모로 추적 분석하였고, 첫 국내사례로서 인정받아 2015년 대한갑상선학회 학술대회에서 ‘갑상선암 뼈전이 환자의 장기 치료 성적과 예후 인자’로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br/><br/> 또한 연구팀은 갑상선암 초기 진단시 목 옆 측경부 임파선 전이가 있을 때 뼈나 폐 등으로 원격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고,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음을 밝혀 2015년 대한두경부종양학회 학술대회에서 ‘폐나 뼈 등 갑상선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기관에서 재발한 원격전이로 재발한 갑상선 유두암에 대한 임상적 고찰’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br/><br/> 원자력병원 갑상선암센터는 연간 약 4500여 명의 갑상선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초기 갑상선암은 최소 침습수술, 내시경 수술 등을 시행해 흉터를 최소화하여 환자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국내 최다 치료병실을 가동하여 수술 후 원활한 치료로 현재 국내 암 발생률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갑상선암의 치료에 앞장서고 있다. <br/><br/>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87.txt

제목: [암과의 동행]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조병철 교수 “면역항암제가 암 치료 패러다임 바꿉니다”  
날짜: 2016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5205221647  
본문: “<span class='quot0'>면역항암제의 등장은 우리 몸 안에 파워(The Power in Us)를 일깨워, 암과 싸울 방법을 알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span>”<br/><br/> 면역항암제 임상을 주도해 온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조병철 교수(종양내과·사진)는 “암세포는 분화를 거듭해 정상세포를 친구로 받아들여 암세포 영역을 넓혀나가는 데 탁월하다. 기존 항암제가 암세포라는 적(敵)과 싸우는 데만 집중했다면, 면역항암제는 우리 면역 몸에 작용하는 면역체계를 일깨워 힘을 키워 적을 사멸시키는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암환자들에게 관심을 모은 약물이 바로 ‘면역항암제’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1'>단언컨대, ‘면역항암제’가 항암제 패러다임을 바꾼 약물이 될 것</span>”이라고 확신했다.<br/><br/> 의료계는 면역항암제를 차세대 항암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부작용을 초래한다. 2세대 표적항암제는 특정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제이지만, 내성 위험과 적용 가능 대상 환자가 제한적인 것이 한계다. 의학계가 면역항암제를 3세대 치료제로 주목하는 이유는 체내 면역체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암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암에서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br/><br/> 국내 사망률 1위인 폐암은 아직 정복이 어려운 암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폐암에 면역항암제가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임상결과가 발표되면서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면역항암제가 폐암치료제 쓰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흑색종으로 허가를 받은 키트루다, 옵디보 면역항암제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사용되도록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조 교수는 4기 폐암으로 진단을 받은 56세 한국 남성 환자 임상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이 남성은 말기 폐암환자로 진단돼, 12개월 이상 살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운이 좋게 면역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해 작년 1월부터 약울 투여 받았고, 암의 90% 이상이 사멸됐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1'>당시 임상시험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회복을 보인 환자였다</span>”며 “<span class='quot1'>병상에 누워 죽음을 바라보던 환자가 지금은 회사도 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span class='quot1'>모든 환자가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치료에 적합한 환자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span>”고 덧붙였다.<br/><br/> 지난해 미국 FDA는 키트루다, 옵디보 등의 면역항암제를 혁신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로 승인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면역항암제의 경우, 건보 적용에 대한 환자들에 요구는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회 투여 비용이 1000여만원이나 되는 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에서 95% 부담하기에는 무리수라는 지적도 있다. 조 교수는 “면역항암제가 다양한 암에 적응증을 가진 약물이기 때문에 보험급여가 될 경우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건보재정 한계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기에 어려움이 따르다보니 바이오마커를 도입해 우선적으로 치료 대상을 선별해서 그 환자들에게 먼저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br/><br/> 면역항암제 개발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로슈의 아테졸리주맙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두발루맙도 개발돼, 허가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면역항암제와 기존 표적항암제를 병용해 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88.txt

제목: [암과의 동행] 설탕과의 전쟁… 단맛에 숨은 암 유발요소 경계를  
날짜: 2016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5205220351  
본문: 전 세계가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영국은 2년 내로 설탕 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4월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며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실제 한국인들이 설탕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권장량을 초과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br/><br/> 정부가 이러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를 꼽고 있다. 실제 2014년 국내 진료비 54조5000억원 중 만성질환 진료비가 18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국민운동으로 식습관 개선과 적당량의 운동을 생활화해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br/><br/> 하지만 숨어있는 ‘복병’은 또 있다. 의료계에서는 단맛 중독 현상이 불러올 또 다른 후폭풍으로 ‘암(癌)’을 지목한다.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암진료비는 급격히 늘어 1년 진료비만 4조원을 넘었다. 그런데 암발병의 또 다른 원인으로 ‘단맛’이 지목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점이다. 암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이지만 단맛중독으로 암이 유발된다는 것은 충격적 사실이다.<br/><br/> ◇‘단맛 중독’이 암발병 주요인자?, 당뇨와 간암 인과관계 규명=국내는 불과 몇 백 년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질병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 암이 대표적이다. 간암이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과도한 당류 섭취와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단맛 중독으로 인한 지나친 당류 섭취는 암 발병으로 이어질까?<br/><br/> 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김준호(43·가명)씨는 평소 담배와 술에는 입도 대지 않았으며, 만성 B형간염을 앓는 환자도 아니었다. 김씨는 평소 단맛을 좋아했고 초콜릿이나 설탕 등의 당류가 많이 함유된 탄산음료나 가공식품을 즐겨 먹었다고 했다. 이후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것은 비만과 함께 찾아온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이었다. 비알코올성 간질환은 간경변증, 간암과 같은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당 과다 섭취로 암이 발병한다는 가설에 힘이 실리는 것은 바로 ‘당뇨’와 ‘간암’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최근 학계에서는 당뇨가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중 간암이 대표적이다. 이는 ‘당뇨병과 간암 사이의 연계성’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소화기학회 공식 저널인 ‘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에 실린 논문에서 밝혀졌다. 논문에서는 “13개의 코호트 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당뇨가 있는 사람이 간암 발병 위험이 2배 높다”고 밝히고 있다. 김보현 국립암센터 간암센터 전문의는 “<span class='quot0'>간암의 위험인자 중 당뇨가 있는데, 간암의 발생위험을 2∼3배 높인다는 역학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당뇨환자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간암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 ◇당뇨 등의 만성질환, 유방암 췌장암 등 다양한 암 발병 위험 높여=‘단맛 중독’으로 과도한 당 섭취가 이뤄지면 간암 뿐 아니라 유방암, 췌장암, 대장암 등의 발병위험이 정상인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 미국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환자가 간암, 췌장암, 자궁내막암 발생 위험이 정상인보다 2∼3개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여성들에게 자주 발병하는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의 발병 위험 중 당뇨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과도한 당 섭취로 당뇨가 발병하면 몸속 대사가 과도하게 이뤄져,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것이다. 이밖에도 몸속 대사에 관여하는 췌장에도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다. <br/><br/> 학계는 ‘단맛 중독=암 발병’이라고 규정짓기엔 섣부르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과도한 당섭취가 암의 1차적 원인은 아니어도, 2차적 원인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과도한 당류 섭취가 암발병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연구는 아직 거의 없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그럼에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도한 당섭취로 인해 발병하는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되고 있는만큼 우리 정부와 학계도 중지를 모아 관심을 가져야 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8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치주질환, 췌장암 위험 높이는데 다른 질환은 괜찮을까  
날짜: 2016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5205115925  
본문: 최근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50%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19일 미국 뉴욕대학(NYU) 랑곤메디컬센터와 NYU 로라&아이작 펄머터 암센터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결과를 미국암연구협회(AACR)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br/><br/> 이와 관련 이중석 연세대치과대학병원 치주과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치주질환을 췌장암의 원인으로 규명 짓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치주질환과 췌장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가능성을 보인 데이터들이 몇 차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전은 밝혀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P. Gingivalis나 A. A. 세균이 있는 경우 약 50∼59% 정도 췌장암의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고 보고된 연구결과가 있어 세균과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현재 밝혀진 정도로는 ‘관련성 의심’ 정도로 봐야 적당하다는 것이다.<br/><br/> 그럼에도 치주질환이 단순히 구강 문제만이 아니라 인체 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췌장암 외에도 치주질환과 관련 있는 질환은 또 없는지 이중석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알아본다.<br/><br/> ◇혈관질환=치주질환이 있는 경우 잇몸에 있는 염증에 의해 피가 자주 나게 된다. 이러한 말초 혈관의 손상된 부위에 주위 침착된 세균이 일시적으로 혈행을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건강한 경우 우리 몸의 면역작용에 의해 무시할 정도로 영향력이 없다. 그러나 만성화될 경우에는 혈관질환과 동반돼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해당 질환도 췌장암과 같이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기 보다는 연관성을 다수 연구에서 확인한 것으로, 치주염이 심한 경우 혈관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br/><br/> ◇조기분만=조기분만도 혈관질환과 비슷한 기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주염이 있는 산모가 조기 분만하는 경우가 잇몸이 건강한 그룹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편이다.<br/><br/> ◇당뇨병=당뇨병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치주염의 발생이나 치주염의 급속한 진행이 발견된다. 반면 치주염의 치료 후 잇몸이 건강해진 경우에는 당뇨병의 심도가 감소하기도 해, 당뇨와 치주염과의 연관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br/><br/> ◇만성폐쇄성폐질환=구강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치주염 환자의 경우, 입속의 다량 세균이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건강한 환자의 경우 음식물을 삼키는 연하작용과 호흡작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이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반면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자발 호흡이 어려운 환자에서 발생률이 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고령의 입원환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br/><br/>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이중석 교수는 구강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자기에게 맞는 양치 습관을 들이고, 구강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러나 잇몸병이 있던 환자들은 복잡한 구조물들이 더 많이 노출돼 있어 스스로 100% 깨끗하게 이를 관리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주기적인 내원과 치석제거술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90.txt

제목: [암과의 동행] 소아암 경험자 ‘사회적 약자’ 의식 짙게 느낀다  
날짜: 2016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5205114827  
본문: 소아암 경험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차별보다 암에 대한 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강관련 낙인의 중요성은 다양한 질병을 가진 집단에서 자주 논의돼 왔는데 장애인의 지각된 낙인의 경우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HIV감염인 및 AIDS환자의 경우도 사회적 낙인감이 심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암과 같이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병을 경험하는 환자, 더욱이 소아암 경험자의 경우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탈모나 저신장증 등과 같은 후기효과로 인해 질병을 가진 학생으로 낙인 받게 되고, 교사나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도 많다.<br/><br/> 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지원으로 수행한 ‘소아암 경험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낙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소아암 경험자가 지각한 사회적 낙인(불명예스럽게 생각) 수준을 △회복불가능성 △암환자에 대한 고정관념 △사회적 차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암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평균 1.85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회복불가능성이 1.66점, 사회적 차별이 1.44점이었다.<br/><br/> 이는 소아암 경험자의 주변 환경에 주임을 두고 소아암 경험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및 이웃을 대상으로 한 개입에 앞서 소아암 경험자 본인이 갖고 있는 암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의료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낙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령 △재발여부 △신체적 후유증 유무에 따라 사회적 낙인 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br/><br/> 연령에 있어 만 18세 이하 청소년기 소아암 경험자보다 만 19세 이상 초기 성인기의 소아암 경험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낙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과 학교의 보호적 환경에서 벗어나 사회적 적응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낙인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25세인 성인 초기의 경험자가 지각하는 회복불가능성은 평균 1.76점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암 회복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암에 대한 고정관념도 만 26세 이상에서 평균 1.98점으로 나타나 만 15세∼만 18세(1.66점)에 비해 높았다.<br/><br/> 의료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낙인 지각수준 분석에서는 암을 초등학교 때 진단받은 경우 평균 1.84점으로 미취학이나 중학교 이상에서 진단받을 때보다 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br/><br/> 재발경험이 있는 경험자의 경우는 평균 1.98점으로 더 회복에 대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신체적 후유증이 있는 경험자도 평균 1.80점으로 후유증이 없는 경험자에 비해 암 회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br/><br/> 사회적 차별에 대해 재발여부와 신체적 후유증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발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1.91점으로 재발경험이 없는 경험자(평균 1.35점)에 사회적차별을 높게 느꼈고, 신체적 후유증도 있는 경우(평균 1.67점)가 없는 경우(1.27점)에 비해 사회적 낙인감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어 우선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9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 진단 2년까지 흡연율 줄고 5년후엔 소폭 증가  
날짜: 2016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5204102462  
본문: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다른 암종에 비해 진단 전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진단 5년 후 에도 흡연율이 다른 암종에 비해 높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연구소의 ‘암 경험자들의 건강행태 및 의료이용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암진단 전, 암진단 후 2년, 5년 등 세 번의 국가검진을 수검한 암경험자 5만868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남성 암경험자에서 흡연의 경우 암 진단 전(34.6%)에 비해 암진단 후 2년(15.9%)에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진단 후 5년에는 16.5%로 소폭 증가했다. 운동의 경우는 암진단 전에는 40∼50%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암진단 후 2년, 5년에서는 각각 20%, 1%로 낮아졌다. 특히 중등도 활동군과 고활동군 모두 암진단 후 시간이 갈수록 증가했다. 반면 남성 암 경험자에서 암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습관 중 음주와 운동에 비해서 흡연은 잘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폐암경험자의 경우 암진단 전에 다른 암종에 비해 높은 흡연율을 보였고, 6대 암종 중 가장 낮기는 하지만 암진단 후 5년에도 11.7%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활동율이나 중·고위험음주율도 진단 후 5년에 가장 높았다. 또 암진단 전에 비해 암진단 후 2년에 평균적으로 체질량지수, 혈압, 총콜레스테롤, 비만·고도비만자의 비율도 감소했다. 반면 공복혈당은 암진단 전에 비해 암진단 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br/><br/> 고혈압의 경우 남성 암경험자 중 진단 전 37.1%에서 진단 후 2년 35.8%로 감소했다 진단 후 5년 39.3%로 진단 전보다 유병률이 상승했다. 6대 암종 중에는 위암이 진단 전에 비해 진단 후 2년에 치료중인 고혈압 유별률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br/><br/> 당뇨병의 경우 위암과 폐암을 제외한 6대 암종에서 지속적으로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했고, 여성에서도 위암을 제외한 6대 암종에서 지속적으로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했다. 위암경험자에서 위암 수술 후 대조군에 비해 심관상동맥질환은 23%, 허혈성뇌졸중은 10% 발생위험이 감소했는데 이는 아전절제술이나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골다공증(31%) 및 골절(59%)의 위험은 증가했는데 이는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군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갑상선암경험자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사망은 77%, 관상동맥질환과 뇌경색은 약 15% 발생위험이 증가했다. 특히 수술 후 상태에서 갑상선호르몬 복용량이 증가할수록 사망 및 심혈관질환 발생이 증가했고, 골다공증 및 골절의 발생위험도 증가했다. <br/><br/>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92.txt

제목: [쿠키가 만난 명의-이대목동병원 정지향 교수] “치매환자·보호자에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날짜: 2016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5204101792  
본문: 치매는 조기 발견해 조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질환이다. 이에 못지않게 치매에 있어 중요한 점은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조기검진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도입하면서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경각심은 많이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까진 드물다. 이대목동병원 정신과 정지향 교수는 치매의 치료유지율이 낮은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보호자의 판단 문제, 또 하나는 환자의 판단 문제다.<br/><br/> 정 교수는 “초기 치매인 경우에는 환자 스스로 내원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자가 치료의 주체가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치료를 해도 환자가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는 보호자의 판단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 스스로가 초기에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할 땐 치매 걱정을 하다가, 막상 치매로 넘어가면 판단 능력이 떨어져 본인이 치매임을 인정하지 않아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러한 과도기에 약물치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보호자와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 외국의 경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의 대학병원에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당뇨나 암환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비급여로 인정되고 있으나, 치매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료인이 교육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지향 교수는 “물론 약물이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약물을 쓰든 쓰지 않든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질환이다”면서 “하지만 약물치료를 통해 보호효과를 줄 수 있다. 약물치료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꾸준히 지속할수록 치매환자 스스로 식사를 하거나, 옷을 입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등의 어느 정도의 일상행동들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초기부터 이러한 점들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인식돼 있어야 한다</span>”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br/><br/> 이와 관련 이화여자대학교는 보건복지부 산하 NECA의 후원을 받아 3차 의료기관 내 치매를 전문으로 보는 치매클리닉에서 보호자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현재 임상연구 중인데, 실제로 프로그램 치료를 받은 집단에서 다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호자 교육용 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에서 급여화하려고 추진 중이나 아직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지향 교수는 “<span class='quot1'>현재 치매조기검진사업이나 장기노인요양보험 등은 국가에서 잘 지원하고 있으나, 치매와 연관된 병원 내 의료시스템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태다</span>”고 지적했다. 실제로도 보호자 교육용 프로그램은 현재 9개 병원에서만 시행 중이다. 따라서 약물치료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전문가가 환자와 보호자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국가 지원 하에 많은 병원에 프로그램이 보급돼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br/><br/> 물론 약물만으로는 치매 치료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지향 교수는 보호자들이 얼마나 환자를 잘 돌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1'>그 중의 일환으로 경도인지장애환자 대상 치료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이와 관련한 논문이 조만간 출간될 예정이다</span>”며 “<span class='quot1'>이 논문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갈 때 인지치료와 운동을 하는 것이 신경세포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고 말했다. 인지치료와 운동이 인지기능을 개선시키고 신경세포가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도 현재 국가 지원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정 교수는 “소아과 아이들도 발달장애가 있을 때 관련 치료 프로그램이 급여화 돼 있는데, 현재 치매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다. 경도인지장애인 경우에는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치매부터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br/><br/>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93.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국립암센터 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 外  
날짜: 2016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5203956923  
본문: ◇국립암센터 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국립암센터는 6월 15일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정밀의료: 유전학과 전 주기적 암 관리의 가교’라는 주제로 제10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정밀의료는 진단·치료에서 나아가 예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환자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고려해 최적의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정밀의료의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총 4개 주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br/><br/><br/><br/>◇연세암병원 ‘암환자 건강코칭’ 행사=암예방센터와 암지식정보센터는 19일 오후 1시30분부터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제3회 건강코칭’ 행사를 진행한다. 건강코칭에서는 ‘암환자의 면역’을 주제로 다양한 강의와 미니 건강검진이 제공된다.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되는 미니 건강검진 시간에는 혈압, 혈당 및 체성분 측정과 소변검사,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운동과 영양 관련 상담도 이뤄진다. 이어 오후 2시30분부터 종양내과 정민규 교수가 ‘암환자의 면역치료’를 주제로 강의하며 이후 영양팀 이송미 팀장이 ‘암환자의 면역을 높이는 음식’에 대해 전달한다. 이어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에서 ‘암환자의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을 알려줄 예정이다. 건강코칭 행사는 환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참가접수를 받는다. <br/><br/><br/><br/>◇길병원 폐센터 개소식=가천대길병원은 지난 9일 새롭게 문을 연 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다양한 폐질환 진료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소한 가천대길병원 폐센터는 폐질환과 관련된 전 진료 영역을 치료한다. 총 4개의 세부 클리닉으로 구성되는데 ▲폐암 클리닉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클리닉 ▲천식 및 알레르기 클리닉 ▲폐섬유화증 클리닉 등이 있다. 폐암클리닉은 다학제 개인 맞춤형 진료를 기본으로 하여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종양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폐암코디네이터로 구성된 다학제 치료를 제공한다.<br/><br/><br/><br/>◇서울아산병원 협심증·심근경색 치료 강좌=서울아산병원은 19일 오후 2시부터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대동맥질환의 치료’를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연다. 이날 강좌는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김준범 교수, 심장내과 안정민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이번 강좌에서는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장질환의 최신 치료방법과 올바른 심장건강 관리법에 대한 명쾌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br/><br/><br/><br/>◇고대안암병원 ‘당뇨병 강좌’=고려대 안암병원은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당뇨병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이날 강좌는 ▲당뇨병과 암 그리고 치매(내분비내과 김남훈 교수) ▲당뇨병과 혈관질환 그리고 식사요법(정우향 영양사) ▲당뇨병과 어지러움증(신경과 구용서 교수) 등의 강의가 이뤄져 다양한 당뇨질환의 진단 및 치료, 예방법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 시작 전에는 혈당측정과 당화혈색소 검사가 무료로 가능하며, 참석자 전원에게 강의책자와 기념품, 간식이 제공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94.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다발골수종 신약 ‘포말리스트’] 경제적 부담으로 최종 선택하지만 치료 적기 놓쳐  
날짜: 2016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5203957233  
본문: 국내에서 약 6500여명의 환자가 앓고 있는 희귀암이 있다. 바로 ‘다발골수종’이다. 이 희귀암은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59년 국내 첫 발병 사례가 보고된 이후 최근 환자수가 약 33배 늘어나는 등 기하급수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50세 이상의 환자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년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병률이 높다. <br/><br/> 다발골수종은 과도하게 증식한 형질세포가 골수에 축적돼 주로 뼈를 침범해 골절, 빈혈, 고칼슘혈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다발골수종의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자주 접하는 살충제 등의 각종 화학용품, 유독성 물질, 중금속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자들은 뼈에 침범한 암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곤 한다. 이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은 애가 탄다. <br/><br/>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의 고형암과 달리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은 혈액 내에 암이 침범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다발골수종 치료제로는 가장 오래된 약물인 탈리도마이드가 있으며, 이후 이 약물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효과가 높은 약물들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얀센의 1차치료제 ‘벨케이드’와 2차 치료제인 세엘진의 ‘레블리미드’가 있다. 또한 국내에 허가된 신약 ‘포말리스트’가 등장해 벨케이드와 레블리미드 등 극소수의 약제에 의존했던 환자들에 치료 옵션이 확대됐다. 포말리스트는 기존 치료제 벨케이드와 레블리미드로 치료 실패한 환자들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발골수종 환자들에게 극심한 통증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값비싼 ‘약값 부담’이다. 다발골수종은 진료비 중 약값이 50% 이상 차지한다. 그만큼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보험급여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다보니, 위험분담제 적용 등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약물 등재가 여의치 않다.<br/><br/> 김진석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고형암이 신약 보험급여로 도입되는 데 1년이 소요된다면 다발골수종과 같은 혈액암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가 소수라는 이유로 보험급여가 늦어져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span>”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다발골수종 1차 약제는 벨케이드로 부작용이 있거나 재발할 경우, 2차 약제로 레블리미드를 사용한다. 이후로 병이 계속 진행되면 포말리스트를 사용하는데 대다수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른 항암제를 조합해 사용한 뒤 쓸 약이 없어지면 최종적으로 포말리스트를 생각한다. 하지만 그 때 사용하면 이미 늦는다. 보건복지부의 신약 경제성 평가가 재검토돼야 하는 이유도 이러한 문제 때문이다. <br/><br/>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혈액암의 특성 상 환자가 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약물 옵션들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약물 보험급여 등재에 대한 진입장벽이 막혀있다 보니, 비싼 약값을 부담하기 어려워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 정부가 희귀암 환자들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희소식이 있다면 지난해 오리지널의약품인 벨케이드의 특허만료로 인해 보령제약,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에자이 등의 제약사들이 제네릭(복제약)을 출시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br/><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95.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복지제도] 병원마다 복지팀 운영… 상담 통해 다양 서비스 제공  
날짜: 2016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5202949642  
본문: 국가암정보센터와 함께하는 ‘암환자 생활백서’에서는 암환자를 위한 병원내 사회복지 사업과 암환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br/><br/> 암의 진단 및 치료과정은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충격뿐만 아니라 진료비 마련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비 문제로 치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의료비 지원 사업과 민간 후원단체의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br/><br/> ◇암환자의 복지=종합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의②의 6(의료인 등의 정원)에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급의 대부분 병원에서는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팀을 운영한다.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각 병원의 의료사회복지 담당자 및 연락처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kamsw.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료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지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업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을 돕고 있다.<br/><br/> ◇후원받을 경우 참고사항=의료사회복지사는 후원기관 연결 시 경제력 평가를 위해 제출하신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담 내용을 종합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다른 보호자에게 재산과 수입 등을 말하면서 진료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던 분이 후원을 요청하면 다른 보호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병동 분위기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변질될 우려가 있다. <br/><br/>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웃의 도움을 받지만, 치료 후에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을 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작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br/><br/>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96.txt

제목: [암수술 잘하는 병원-삼성서울병원 소아암센터] 유전체 정보 기반 맞춤형 진료 정착  
날짜: 2016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5202950240  
본문: “소아백혈병이나 신경모세포종, 소아뇌종양 등 소아암의 경우 치료가 어렵지만 치료에 대한 희망을 가져달라고 당부합니다.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에게 치료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완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의료진들도 더 노력하고 있죠.” 삼성서울병원 소아암센터에는 특별함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성적과 함께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과의 끈끈한 유대가 눈에 띈다. 암 치료를 견뎌내야 하는 아이에게나 이를 지켜보며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부모 모두에게 신뢰와 위로를 동시에 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있는 성기웅 소아암센터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암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br/><br/><br/><br/>◇소아암 환자위한 별도 팀 운영=소아암의 경우 소아백혈병, 소아뇌종양, 소아림프종, 신경모세포종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 전체 수는 적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소아암 환자만을 위한 별도의 팀인 소아암센터를 운영하며 치료를 전담한다. 성 센터장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가 펼쳐져 있고, 그 꿈을 이루려면 다른 암환자들보다도 의사로서 의무감이 크다. 소아암센터 전체가 나서 소아암환자 한명 한명마다 완치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 뛰는 이유”라고 강조했다.<br/><br/> 일반적으로 소아암은 항암제 용량을 늘리면 더 좋은 치료반응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함부로 많은 용량의 항암제를 사용하기 어렵다. 함부로 항암제 용량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은 골수 조혈기능의 억제로 인한 감염, 빈혈, 출혈이다. 따라서 골수 기능이 회복될 수 있을 정도의 항암제만 투여할 수 있고 회복되면 다시 투여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성기웅 센터장은 “<span class='quot0'>통상적인 용량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난치성 종양의 대표적인 것이 고위험 신경모세포종, 고위험 뇌종양 등</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런 난치성 종양에서는 고용량의 화학요법을 시행해 항암효과를 높이고,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골수기능의 저하를 막기 위해 미리 채취한 뒤 냉동 보관한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고용량 화학요법 및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다</span>”고 설명했다.<br/><br/> ◇세계에서 주목하는 치료 성과=삼성서울병원은 조혈모세포 이식 실적을 보면 소아암 분야 미국 상위 10개 병원을 월등히 앞선다. 지난 2009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1000례를 넘겼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암센터가 개발한 고용량 화학요법 및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은 2004년 세계 최초로 시도했고 연속 2번 실시하는 방법을 통해 생존율을 기존 30∼40%대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지금까지 보고된 고위험 신경모포종의 성적 중 가장 높은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다른 소아암에도 적용했다. 대표적인 소아 뇌종양인 수모세포종은 ‘수술+표준 방사선치료+일반 화학요법’으로 치료한다. 고위험(수술로 완전제거 못하거나 뇌척수 전이가 있는 경우) 수모세포종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생존율이 40∼50%로 미흡하고 표준 방사선치료에 의한 인지기능저하(IQ 70 전후), 내분비 장애, 성장장애, 2차암 등 여러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성 센터장은 “소아암센터에서는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방사선 치료에 의한 부작용 감소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감량하고 연속적인 고용량 화학요법을 시행하는 임상시험을 시행했다. 그 결과 7년 생존율이 약 75% 정도로 향상됐고, 방사선 치료에 의한 후기 합병증(내분비장애, 인지기능)도 많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임상시험 결과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삼성서울병원 소아암센터가 보고했다. 신경모세포종의 경우 국제적으로 보고된 생존율 1위 기록인 70%가 삼성서울병원이 올해 보고한 것으로, 2위 기록인 62%도 삼성서울병원이 앞서 보고한 결과다.<br/><br/> ◇다양한 치료법 개발로 치료 성적↑=삼성서울병원 소아암센터는 또한 기존 통상적인 치료와는 다른 치료법을 개발하고 이를 임상에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면역치료와 표적방사선치료, 양성자치료다. 면역치료의 경우 고용량 화학요법 후에 재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해 이식 후 동반되는 ‘이식편대종양반응’을 치료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성 센터장은 “최근에는 이러한 치료효과를 더 강화하기 위해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자연살세포를 투여하는 치료도 개발됐다. 이처럼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등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이 재발성, 난치성 소아암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표적방사선 치료는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달아 투여하면 종양에만 방사선 동위원소가 섭취되고 그래서 종양에만 방사선치료를 하는 방법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위험 신경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전신 방사선치료 대신에 표적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결과, 생존율은 이전과 차이가 없으면서도 내분비장애, 성장장애 등 후기 합병증은 현저히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소아암에서 시작한 양성자치료는 생존 후 여명이 긴 소아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성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양성자치료는 일반 방사선 치료의 불가피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앞으로 소아암 치료 후 후기 합병증을 최소화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 삼성서울병원 소아암센터는 ‘유전체 정보에 기반한 환자 별 맞춤치료’에도 적극 나선다. 같은 환자군에서 같은 치료를 시행해도 치료반응이나 치료독성이 환자마다 다양하다. 이는 환자마다, 종양마다 지닌 유전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소아암센터는 2015년 말부터 ‘소아암의 유전체 분석 및 이에 기반한 표적항암제를 이용한 맞춤치료 임상시험’을 시작했다</span>”고 설명했다. 이러한 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삼성서울병원 내 삼성유전체연구소의 유전체 분석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br/><br/> 삼성서울병원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환자와 교감능력이다. 신경모세포종 환자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환자의 절반 가까이 찾을 정도로 늘 붐비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와 부모를 안심시켜 치료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0년동안 지방에서 올라 온 소아암 환우를 위해 병원 앞에 작은 쉼터를 만들었다. 10여년 동안 750여명의 환아들이 거쳐가며 수많은 아픔과 기쁨, 위로와 희망이 함께 어려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성기웅 센터장은 “한가지 바램은 소아암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어 앞으로 더 많은 소아암 환자들이 건강하게 완치되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웃음을 내보일 때면 모든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의욕이 새로 솟는다. 앞으로 더 많은 소아암 아이들을 만나 밝은 내일을 써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97.txt

제목: 이어령 전 장관 “AI·과학 발전할수록 영성의 힘은 더 커집니다”  
날짜: 2016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2190555550  
본문: 이 전 장관은 딸 민아 목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한 경험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통해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의심과 탐구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 진전이 없었다”며 “낮에는 무신론자로 바쁘게 살고, 밤에만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흔들리다가도 AI와 알파고 현상을 보다보니 신앙심이 되돌아오고 있다”며 알파고 시대와 영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보였다.<br/><br/> 그가 생각하는 영성은 결코 비과학적이고 비지성적인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의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영성이란 열린 문틈 사이로 왁자지껄한 파티장의 화려한 모습을 살짝 본 것같이, 한순간 번개처럼 왔다 가는 체험”이라며 “그것을 붙잡고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영성이 없는 기독교, 교회는 복지단체와 다름이 없다. 그는 “영성이 없다면 기독교인이라 해도 윤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컨설팅하는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된다”고 했다.<br/><br/> 이 전 장관은 “<span class='quot0'>기독교는 그동안 이교도와 무신론자, 이른바 마귀하고 싸워왔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큰 도전을 받고 있다</span>”고 말했다. AI의 눈부신 발전은 곧 유물적인 하나님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는 “<span class='quot0'>알파고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결정만으로는 정치, 경제는 물론 아버지 노릇도 못하는 시대가 왔다</span>”며 “<span class='quot0'>하나님에게 매 순간 물으며 기도하듯이 컴퓨터의 운영체제(OS)에 물어보고 살아가는 시대</span>”라고 분석했다. 스마트폰에 각종 일정과 자료, 사진 등을 저장해두고, 실시간 대화와 채팅을 하며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br/><br/> 그는 “<span class='quot0'>인공지능, 구글OS와 하나님 영성과의 치열한 마지막 결판이 이뤄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미래학자들이 특이점에 다다른다고 예상하는 2045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진행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매일매일 흔들리면서도 나는 크리스천인가, 나에게 영성은 있는가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 그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한 뒤 사탄에게 시험받은 것과 똑같은 시험대에 한국교회가 올라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돌덩이를 빵으로 만드는 경쟁에 뛰어들지 않은 교회가 없다.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는 요구처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곳도 많다”며 “지상에서 왕이 되라고 했는데, 현재 정치하는 목사님들은 지상 왕국을 만들려는 유다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로 이것이 영성과의 투쟁”이라며 “<span class='quot0'>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span>”고 덧붙였다.<br/><br/> 강의가 끝난 뒤 참석했던 목회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사회의 뜨거운 이슈인 동성애 문제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르침을 달라는 질문이 나왔다.<br/><br/> 이 전 장관은 “<span class='quot0'>하나님이 다른 죄는 다 용서해주셨지만, 소돔성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인공적으로 조작하고 이상한 짓을 할 때는 멸하셨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인간의 자유라고 적극적 가치로 옹호하는 건 그렇지만, 소돔성을 치려할 때 인간의 편에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구하려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버리면 안 된다고 끌어안아 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기독교는 정의의 하나님에 사랑의 하나님이 더해지면서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될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치유될 수 없는 어떤 환자라도 품어줄 수 있는 톨레랑스를 기독교가 보여줄 때 소돔성은 구해진다</span>”고 전했다. <br/><br/> 이 전 장관은 이날 예정된 강연 시간을 훌쩍 넘긴 뒤에도 목회자들의 질문에 흔쾌히 답하며 시종일관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 전 장관은 두 차례 암 수술을 받았다. 한 참석자가 83세의 나이에도 강연과 저술 활동을 왕성하게 해나갈 수 있는 건강유지 비결을 물었다. <br/><br/> 그는 “<span class='quot0'>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건강의 비결</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하나님께 건강을 맡기는 것이 나의 건강법</span>”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알파고 현상과 지난해 한국사회를 위기로 내몰았던 메르스 현상을 주요하게 다룬 ‘한국인 이야기’ 첫 권을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br/><br/>글·사진=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98.txt

제목: ‘치매 걱정’ 부모님께 실버보험 선물 어떨까  
날짜: 201605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1193019376  
본문: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보험’을 고려해봄직하다. 한창 크는 자녀는 어린이보험, 노년에 접어든 부모님에게는 노후 보장성 보험이 제격이다.<br/><br/> ◇의료비-보험료 세대간 엇박자=자녀 세대와 부모님 세대의 보험을 통한 의료 보장은 크게 미흡한 편이다. 11일 생명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영유아·청소년(0∼19세)의 의료 보장성 보험(상해·질병·건강·암보험) 보유 건수는 2014년 기준 80만5920건으로 전체 계약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 보장성 보험 건수도 379만2825건으로 9.3%에 그쳤다. 생애 의료비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보험 보유 건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생애 의료비의 10% 안팎이 0∼19세 시기에 발생하니 자녀 세대도 보험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br/><br/> ◇혜택 다양한 어린이보험=어린이보험은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병·골절·화상 등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이다. 한번 가입으로 100세나 종신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생명보험사들은 다양한 특징의 어린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br/><br/> 삼성생명 ‘우리아이 통합보장보험’은 임신 기간부터 영유아, 아동, 청소년기까지 시기별 여러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한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암·뇌출혈 등 중대 질병(CI)과 각종 성인 질환이 보장된다. 교보생명 ‘더든든한 교보우리아이 보장보험’도 30세 이후 성인 CI보험으로 자동 전환된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1명만 가입해도 보험료가 1% 할인된다. ‘한화생명 어린이보험’도 동일한 할인 혜택이 있다. 적립보험이나 연금보험으로 전환해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KDB생명 ‘KDB 스마트어린이보험’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자녀의 입학 시기에 여윳돈으로 쓸 수 있도록 총 5회에 걸쳐 중도자금을 지급한다.<br/><br/> 동부생명 ‘영원한 아이사랑보험’은 아토피 피부염, 컴퓨터 관련 질환 등 요즘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의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농협생명 ‘아이행복 NH어린이보험’은 컴퓨터 관련 질환 수술비뿐 아니라 유괴·납치 위로금도 보장한다. 주계약이 2500만원 이상이면 게임중독 상담, 진료 예약 대행, 전문 간호사 방문 등이 포함된 ‘맘e든든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br/><br/> ◇어르신 보험도 간편심사=노후에 발생하는 질환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노후 보장성 보험에는 건강·암·실버보험 등이 있다. 최근에는 간편심사 보험이 등장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예전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연령, 유병(有病)자도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br/><br/> ING생명 ‘효도드림 실버암보험’은 간편심사로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5% 할인되고, 부모 가입 시 자녀가 계약자이면 최대 2% 할인된다. 미래에셋생명 ‘꽃보다 건강보험’도 고연령의 고혈압·당뇨 유병자에게 4대 질병(암·급성심근경색증·뇌출혈·중증치매)을 보장하며, 고혈압과 당뇨가 없으면 보험료를 5% 할인해준다.<br/><br/> 동양생명 ‘수호천사 시니어보장플랜보험’은 은퇴한 뒤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50∼60대를 위한 상품으로 재해장해·골절 등을 보장한다. 신한생명 ‘신한 THE참좋은 실버보험’은 노인성 8대 질병(당뇨·고혈압·신부전 등) 수술비를 보장하면서 치매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중증·경증 치매에 따라 진단비와 간병비가 지급된다. DGB생명 ‘매월 생활비받는 100세 간병보험’은 장기간병 전문보험으로 장기요양 3등급까지 갱신 없이 보장된다. AIA생명 ‘꼭 필요한 건강보험’은 가입 직전 2년(암의 경우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정상 가입이 가능하다. 질병 입원 1일당 최대 4만원, 특약 가입을 통한 재해 입원 1일당 최대 3만원의 입원비가 지급된다.<br/><br/>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99.txt

제목: 피부 레이저 시술 주의보  
날짜: 201605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1183820366  
본문: 이모(58·여)씨는 2013년 동네 성형외과에서 팔자주름 부위 잡티 제거를 위해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가 큰일 날 뻔했다. 얼마 뒤 시술 부위에 검은 점이 생겼고, 계속 치료받으면 없어진다는 얘기에 한 달에 한두 차례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점 부위에서 진물이 나고 시커멓게 썩어들어갔다. 겁이 난 이씨는 지난해 9월 대학병원 피부과를 찾았고 조직 검사에서 피부암의 일종인 ‘색소성 기저 세포암’ 진단을 받았다. 무분별한 레이저 시술로 암 진단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씨의 피부암은 3㎝로 커져 있었다.<br/><br/> 이처럼 피부관리실이나 한의원, 비(非)피부과 병·의원 등에서 점이나 기미, 검버섯, 사마귀, 티눈 등 제거를 위해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가 2011∼2015년 전국 8개 종합병원에서 피부 레이저 부작용 치료 사례 69건을 분석한 결과 87%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나 한의사, 비의료인(피부관리실, 미용실 등)에게 시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00.txt

제목: [역경의 열매] 배영만 후두암 말기 진단 받고 “15년만 더 살려달라” 기도  
날짜: 201605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1174740945  
본문: 2004년 겨울이었다. 말을 못할 정도로 목이 아팠다. 집 앞에 있는 동네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했다. 의사는 검사 사진을 꼼꼼히 보더니 “<span class='quot0'>후두암 말기인 것 같으니 큰 병원에 가 봐야 한다</span>”고 말했다. 소견서를 써 주며 말이다.<br/><br/> 의사의 말을 듣고 바지에 찔끔 오줌을 쌌다. 너무 무섭고 놀랐기 때문이다.<br/><br/> “내가 암이라니…. 후두암이 뭐지? 말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술과 담배를 많이 해서 그런가?” <br/><br/> 아내와 자식 얼굴이 떠올랐다.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두려웠다. <br/><br/>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더 이상 나쁜 짓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br/><br/> 이렇게 서원기도를 드렸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큰 병원에서 다시 내시경 검사를 했다. 그 병원 의사는 “이 증상하고 똑같은 환자가 8층에서 오늘 내일하고 있다. 암이라도 임파선까지만 안 번졌으면 후두만 확 도려내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 “<span class='quot1'>오 하나님, 후두를 확 도려낸다고….</span>” <br/><br/> 의사의 말이 무서웠다. 집에 돌아와 엉엉 울었다. 아내와 자식이 보고 있는데도 창피한 줄도 몰랐다. 정신을 겨우 차려 수술할 병원을 수소문했다. 평소 알고 지낸 의사에게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후두암 명의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전화기를 들었다. <br/><br/> “거기 신촌세브란스 입니까?”<br/><br/> “<span class='quot1'>네, 신촌세브란스 이비인후과 간호사 ○○○입니다.</span>”<br/><br/> “개그맨 배영만인데요. 제가 후두암이래요. 최은창 박사님이 후두암 명의시라던데 오늘 진료 받을 수 있나요?” <br/><br/> “아뇨. 특진으로 진찰 받으시려면 한 달 후에나 가능합니다.”<br/><br/> “아이고, 저는 A형이라 소심해서 신경 쓰다가 죽습니다. 지금 너무 두려워요. 오늘 진료 좀 받게 해 주세요.”<br/><br/> 간호사는 울면서 말하는 나의 딱한 사정을 차분히 들어 주었다. 잠시 뒤, 간호사는 최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진료를 받게 해 주었다. 최 박사님은 이날 비번이었는데, 어찌나 고마운지…. 최 박사는 콧구멍을 통해 검사를 해 보더니 “모양은 말기 암이지만 이걸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하세요”라고 말하고 수술날짜를 잡아 주었다.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과 함께 뜨겁게 기도했다. <br/><br/> “<span class='quot1'>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왕처럼 15년만 수명을 연장해 주세요.</span>”<br/><br/> 사실 15년이 지나면 15년 더 연장해 달라고 기도할 작정이었다. 출애굽기 33장 모세의 삼세판 기도를 생각하면서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참 하나님께 응석부리는 교인이었던 것 같다. 드디어 3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다. 마취를 하고 입을 크게 벌리니 수술 도구가 입을 들락거렸다. 암 조직을 떼어냈다. 그리고 수술 한 달여 뒤, 새살이 나오면서 암 덩어리 모양이 다시 보였다. 암 모양이 더 자라면 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다행히 암 모양은 더 커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그 모양 그대로이다. <br/><br/> 기독교 신자인 최 박사님은 “하나님 은혜”라고 했다. 아마 내가 만난 의사 선생님 중에 가장 좋은 분이고, 환자를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시리라. 나는 이후 많은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후두암 수술 전 서원기도대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널리 전하고 전도할 것이다. <br/><br/>정리=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br/><br/> ▶ 역경의 열매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01.txt

제목: ‘암 치료 보장성 확대 협력단’ 대표에 정현철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  
날짜: 201605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0215804597  
본문: 환자 중심의 암 치료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기구인 ‘한국 암 치료 보장성 확대 협력단(Korea Cancer Care Alliance, KCCA)’이 발족했다.<br/><br/> KCCA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정현철(60·사진)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를 초대 대표로 추대했다. 정 대표는 연세암병원장, 대한위암학회 부회장, 대한항암요법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임상암학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br/><br/> KCCA는 한국인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에 걸맞게 제4병기 진행성 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치료를 확대·보장하는 보건정책이 수립돼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02.txt

제목: 아모레퍼시픽, 여성 암 환우 돕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 시작  
날짜: 201605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0215657034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방문판매원 ‘아모레 카운슬러’와 손잡고 전개하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을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시작했다.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 관리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br/><br/> 캠페인은 아모레 카운슬러 및 교육 강사의 재능 나눔으로 진행된다. 2008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아모레 카운슬러 자원봉사자 3337명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생활의 활기를 찾은 여성 암 환우는 1만30명에 달한다. 올해 캠페인은 상·하반기(5∼7월, 9∼11월)로 나뉘어 서울 및 전국 주요 지역 총 35개 병원에서 1500여명의 환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암 수술 후 2년 이내로, 현재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중인 여성 환우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김혜림 선임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03.txt

제목: [소년이 희망이다] 처벌 대신 내민 사랑의 손… ‘절망 비행’ 벗고 ‘희망 비행’  
날짜: 201605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0214738389  
본문: 배상혁(44)씨는 보호직 공무원입니다. 그가 일하는 곳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입니다. 보호관찰소는 죄 지은 사람을 선도하고 교화시키는 법무부 소속 기관입니다. 직책이 주무관인 그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br/><br/> 언뜻 보면 삭막할 것 같은 직업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선 이들의 손을 주는 직업,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요. <br/><br/> 그는 지난 4월 27일 박기명(21), 소기정(20). 이진실(18) 등 보호소년 3명을 강남구 역삼동의 한 스튜디오로 불러 모았습니다.<br/><br/><br/>아끼는 보호소년들과 ‘희망 화보’ 촬영<br/><br/> 애제자처럼 아끼는 보호소년을 모은 이유는 ‘희망 화보’를 찍기 위해서입니다. 어두웠던 비행(非行)의 시절을 벗고 꿈과 희망의 날개로 비행(飛行)하는 제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화보 촬영에 나선 것입니다. 보라, 절망은 갔으니 희망의 날이 오리라. <br/><br/> 반항하고, 죄를 짓고, 구인하고, 수갑 채우던 관계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으로 띠를 띄우는 관계로 변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사진작가의 요청에 따라 여러 포즈를 취하면서 환한 웃음을 터트리는 그들에게서 희망이 또렷하게 인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은 어두운 터널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지 못했고, 상처와 아픔이 다 낫진 않았지만 끝끝내 성공할 것을 기대합니다. <br/><br/> 배상혁씨의 꿈은 교사였습니다. 그는 2004년 임용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교육청이 한 사립학교에 발령을 냈지만 막상 채용된 이는 뒷돈 기부금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부패사학을 상대로 한 2년간의 민사소송 끝에 승소하면서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부패한 교육 현장을 떠났습니다. 임용의 권리를 주장할 순 있었지만 2년간 싸우면서 부패한 교육환경에 환멸을 느낀 것입니다. <br/><br/><br/><br/>학교 선생님 꿈은 물거품됐지만…<br/><br/> 대신에 학원 강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햄버거를 사달라며 따르던 학원 제자(16)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면서 소년원에 갔습니다. 면회 와달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면회 갔더니 치즈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년원 규정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치즈 케이크를 가져가서 몰래 떠먹였습니다. 소녀에게 “무엇이 되고 싶냐”고 꿈을 물었더니 “소년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br/><br/> 소년원을 교도소와 같은 곳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학교였습니다. 소녀가 있던 여자 소년원인 안양소년원의 다른 이름은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입니다. 제자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의 꿈이 선생이었어. 진실과 정의를 가르치는 선생.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는 선생. 부패 사학 때문에 선생이 되지 못했지만….’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그는 보호소년들의 선생이 되고 싶어서 보호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br/><br/> 2013년 경력직 특채로 보호직 공무원이 된 그는 신명을 다했습니다. 각종 비행으로 재판을 받고 보호관찰소에 온 소년들을 돌보는 일은 천직이었습니다. 반항하던 소년들은 그의 진심에 반했습니다.<br/><br/><br/><br/>“<span class='quot0'>소년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span>”<br/><br/> 도움을 청한 소년들은 어떻게든 도왔고 지켜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의리 있는 선생님’이라며 좋아했습니다. ‘희망 화보’를 촬영한 기명이와 기정이가 그를 따르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유명한 주먹이었던 기정이는 그를 만나면서 회심했고 눈물 짓던 엄마는 요즘 웃음을 짓습니다. <br/><br/> 보호소년 중에 ‘짱’이었던 채문(가명·19)이는 작심하고 소년원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원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은 물론 자동차 정비자격증을 비롯한 3개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죄를 벗어던진 채문이는 “선생님이 소년원에 보내주셔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빛의 아들이 된 채문이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br/><br/><br/><br/><br/>주먹으로 전국구였던 기명이는 4년 전, 승용차로 경찰을 치고 달아났다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공권력에 도전한 기명이를 직접 처벌하기 위해 신병 인수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그가 거절했습니다. 기명이는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기관과 대치한 선생을 보면서 2m 넘는 덩치로 품에 안겼습니다. 기명이 사건 이후 그는 소년 패거리에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보호소년은 훈계와 처분으론 잘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안아주고 이해해주면 잘 변합니다. <br/><br/><br/><br/>긴 터널 지나 청년사업가 된 기명이<br/><br/> 페이스북 스타(팔로워 20만7127명)인 박기명은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타들을 대거 영입해 종합마케팅 엔터테인먼트(디다일리아)를 시작한 청년사업가인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br/><br/> “청소년기를 긴 터널이라 생각합니다. 터널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쓰러진 친구들을 많이 봤고, 저도 그 중에 한명이었는데 선생님(배상혁 주무관)의 도움으로 터널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살면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을 돕는 사업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br/><br/><br/><br/>“보호관찰 연장해주세요” 장관에게 편지 쓴 진실이<br/><br/> “김현웅 법무부장관님! 19년간을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정에도 가고, 학교도 그만둔 일을 돌아보면 후회스럽지만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배상혁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검정고시 학원 추천과 학원 반값 혜택을 지원해주셔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대입 검정고시 전과목을 합격했고 지금은 간호사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만일 그 누구도 손을 안 내밀었으면 미래에 대한 의지도 희망도 갖지 않았을 겁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도 학교 자퇴하고 큰 인물이 되었잖아요. 저는 몇 년 뒤에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보호관찰 1년만 연장해주세요. 엄마는 몸이 아파서 비싼 학원비 부담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장관님 보호관찰 1년만 연장해 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br/><br/> 지난해 9월 보호관찰이 종료된 진실이는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엄기표 판사에게 보호관찰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빠를 암으로 잃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진실이는 배상혁 주무관의 도움을 받아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간호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이 끝나면 도움도 끝나게 됩니다. <br/><br/><br/><br/>검정고시·직업교육 지원… 꿈으로 한 발짝씩<br/><br/> 보호관찰소의 주요 임무는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입니다. 검정고시와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런 도움을 잘 활용하면 소년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과 판사는 진실이의 기특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정택현)는 한국법무복지공단을 통해 진실이의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r/><br/>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은 진실이의 꿈이 대단한 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박한 꿈입니다. 진실이가 직업을 갖고 알뜰살뜰 돈을 모으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병든 엄마는 덜 아플 것입니다. 세상을 망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년범의 대부인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꿈과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br/><br/> “어른들은 가난하다고 다 문제아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어른들의 시대는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다 가난했기 때문에 견딜 만했고, 근면 성실하면 가난에서 탈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난이 구조화되고 세습화되고 있습니다. 소년들은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br/><br/><br/><br/>벼랑 끝 가정을 희망으로<br/><br/> 김영호(가명·56)씨는 지난해 6월 벌금 300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사업에 실패하면서 낼 형편이 못 됐습니다. 법원은 대신에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240시간의 봉사명령을 받은 김씨는 출석 기일을 여러 번 어겼습니다. 그러다 배상혁 주무관에게 내민 것은 아들의 사망진단서였습니다. 20대 아들이 카드 빛에 쫓기다 투신자살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는 병들었고 딸은 장애인입니다. <br/><br/> 김씨가 돈을 벌지 않으면 남은 가족마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 주무관은 일자리를 알선해주었습니다. 일주일 중 5일은 일하고 2일은 사회 봉사하도록 배려했습니다. 화급한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법과 원칙만 요구했다면 김씨 가족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지도 모릅니다. 김씨는 배 주무관에게 “<span class='quot1'>막막한 세상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span>”며 고마워했습니다. 배 주무관은 그런 사람입니다.<br/><br/><br/><br/>믿음의 공복이 가는 길<br/><br/> 배 주무관의 어머니(평촌제일교회)께서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아들을 학교보다 손길이 더 필요한 보호관찰소로 배치했습니다.<br/><br/> 그는 휴일과 퇴근시간을 반납한 채 후원과 협찬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가난한 소년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은 공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지망생들은 안정된 직업을 원합니다. 늦깎이 공무원인 그가 돋보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공복,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소년들이 희망을 갖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공복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br/><br/><br/>가스펠 라이터 조호진(시인) jonggyo@gmail.com<br/><br/><br/>▶[다음세대 돌보는 스토리 펀딩 ‘소년이 희망이다’] 펀딩 시작하기<br/><br/><br/>▶[다음세대 돌보는 스토리 펀딩 ‘소년이 희망이다’] 기사 전체 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04.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양성자 치료기 본격 가동… ‘꿈의 암 치료’ 시대 열어  
날짜: 2016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09200158073  
본문: 삼성서울병원(원장 권오정)이 국립암센터에 이어 ‘꿈의 암 치료법’인 양성자 치료를 새로 선보인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양성자치료센터 개소식을 갖고 그동안 시범 운영해온 양성자 치료기 가동을 본격화했다고 9일 밝혔다.<br/><br/> 이로써 삼성서울병원은 중입자 치료기만 제외하고 수술에서부터 항암, 방사선치료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암 치료 시스템을 거의 모두 갖추게 됐다.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센터는 본관 정문 건너편에 자리 잡은 지상 6층, 지하 4층에 연면적 1만4443㎡(약 4369평)의 독립병동에 들어섰다. 높이 10m, 무게 170t에 달하는 양성자 치료기 2기를 포함한 치료 시설 전체를 2.3m 두께의 순수 강화 콘크리트 차폐벽으로 빈틈없이 에워쌌다.<br/><br/> 양성자 치료는 수소 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를 빛의 60%에 달하는 속도로 가속시킨 뒤 환자 몸에 쏘아 암 조직을 파괴하는 최신 치료법이다. 기존 방사선 치료와 달리 양성자가 몸속을 통과할 때 정상조직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효과는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소아암 환자의 경우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br/><br/> 간암 및 췌담도암,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 두경부 및 안 종양, 뇌종양 및 뇌기저부 종양, 척추 및 척수 종양, 소아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부위 재발 종양 등이 적용 대상이다. <br/><br/> 양성자 치료기는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된다. 병원 측은 모의 치료를 거쳐 치료설계 후 하루 평균 20회 가량 본격적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번 치료를 받을 때 마다 평균 30∼60분 정도 소요된다. 최두호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센터장은 “<span class='quot0'>환자 개개인에 맞춰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05.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62) 고대 안암병원 대장암수술센터] 난치성 대장·직장암 전문 ‘특성화 센터’  
날짜: 2016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09200155126  
본문: ‘난치성 대장·직장암 수술 전문기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병원이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장암수술센터를 운영하는 고대 안암병원(병원장 이기형·소아청소년과 교수)이다.<br/><br/> 이 병원은 정확하고 신속한 진료와 개인 맞춤형 의료 시스템을 통해 수술이 필요한 대장·직장암 환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대장암수술센터(센터장 김진·대장항문외과 교수)를 운영 중이다. 특정 질환에 대한 센터 또는 특수클리닉 형식의 진료소를 운영하는 병원은 많다. 하지만 장 수술만을 위한 특성화센터를 일반 소화기병센터와 따로 분리해 운영하기는 고대 안암병원이 처음이다.<br/><br/> 고대 안암병원 대장암수술센터는 경직장 초음파, 비디오항문내시경 등 대장·직장암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전문 의료기기를 모두 갖췄다. 진료실과 검사실 뿐 아니라 화장실, 탈의실 등 대장·직장·항문질환 환자의 사생활 보호에 꼭 필요한 개인 시설도 구비하고 있다.<br/><br/> 한국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현재 아시아 1위, 세계 4위로 극히 위험한 수위다. 국제암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한국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10만명당 46.92명이다. 슬로바키아(60.62명)와 헝가리(56.39명), 체코(54.39명) 다음으로 높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가장 높은 수치다. 세계 18위 일본(41.66명)은 물론 대표적 대장암 위험 국가로 꼽히는 미국(34.12명·28위), 캐나다(45.40명·9위), 영국(37.28명·26위), 독일(45.20명·10위) 등보다도 높다.<br/><br/> 여성도 10만명당 25.64명의 발병률로 조사대상 184개국 중 19위에 올라 있다. 이 역시 영국(25,28명·20위), 미국(25.03명·21위), 일본(22.78명·30위)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다. 의료계는 2030년 무렵 지금 수준의 두 배까지 대장암 발병률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장암 예방과 치료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br/><br/> 재발성 직장암 환자들의 5년 평균 생존율은 세계적으로 20∼40%로 병원마다 편차가 크다. 고대 안암병원 대장암수술센터에선 이 역시 최근 5년간 평균 생존율이 40%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br/><br/> 이 센터는 또한 직장암 수술 후 항문기능을 상실해 복벽에 인공항문(장루)을 만들어주는 비율이 5%에 불과하다. 직장에 생긴 암을 도려낼 때 가능한 항문기능을 살려놓는 항문보존 괄약근간절제술을 시행해 수술 후 삶의 질이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도록 의료진이 힘쓰는 덕분이다.<br/><br/> 최근 들어 고대 안암병원 대장암수술센터를 찾아 진료를 받는 대장·직장암 환자는 연간 50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45%가 암 절제 시 항문보존이 힘들어 자칫 인공장루를 만들어야 할지도 모를 직장암 환자들이다.<br/><br/> 고대 안암병원 대장암수술센터의 개복수술과 복강경수술 비율은 2%대 98%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모든 수술이 복강경 수술로 진행된다는 얘기다. 직장암과 같이 수술범위가 좁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여다보기가 어렵고, 외과적으로 보다 정교한 처치가 필요하다 판단될 때는 로봇을 활용하기도 한다.<br/><br/> 고대 안암병원 대장암수술센터는 김선한(58) 교수를 필두로 김진(47·센터장), 곽정면(44), 백세진(37) 교수 등 4명의 교수진이 이끌고 있다. 이들은 대장암환우회 ‘장사랑회’를 결성해 수술 및 투병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마당을 조성하는 등 유대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환자와 병원,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암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을 이기고 극복하는 제2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굳게 믿는 까닭이다.<br/><br/><br/>◆ 김진 센터장은 <br/><br/>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라벌고교를 거쳐 95년 고대 의대를 졸업했다. 95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고대 안암병원에서 인턴 및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 98년 석사학위, 2003년 박사학위를 각각 고대 의대 대학원에서 취득했다.<br/><br/> 고대 안암병원 외과 전임의 및 조교수와 부교수(2003∼2009년)를 거쳐 현재 외과 교수 겸 대장암수술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학술위원(2008년∼현재), 대한대장항문외과학회 학술위원회 상임이사(2013년∼현재), 대한소화기학회 학술위원(2014년∼현재) 및 외과대사영양학회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3월 세계 의학계에 재발성 직장암 치료 전문병원으로 명성이 높은 ‘로얄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외과를 방문해 2011년 2월까지 1년간 재발성 직장암 치료법을 집중 탐구하고 돌아왔다.<br/><br/> 지금까지 ‘한국인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들’과 ‘복강경 결·직장암 수술 후 조기 항암치료의 안전성에 관한 비교 연구’ 등 연구논문 30여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다. 고교시절 제2 외국어로 접한 일본어를 혼자서 공부하며 2년여에 걸쳐 일본인 의사가 지은 ‘대장암 수술술기’란 제목의 전문 의학서적을 번역해 출간하기도 했다.<br/><br/> 김 교수의 롤(역할)모델은 고교와 의대의 직계 선배인 김선한(58·고대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와 전공의 수련 시 최고참이었던 김남열(49·고대구로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다. 김 교수는 9일 “<span class='quot0'>대장암 환자들을 대할 때 늘 진지하고, 빈틈이 없으면서도 후배들에겐 소탈한 모습이 보기 좋아 닮으려 많이 애썼다</span>”고 말했다.<br/><br/> “<span class='quot1'>은퇴 후 기회가 닿는다면 비정부기구(NGO) ‘국경없는 의사회’의 한국 멤버로 봉사하는 김남열 교수처럼 외과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지구촌 불우 환자들을 돌보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span>” 김 교수의 바람이다. <br/><br/>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06.txt

제목: [김경철의 닥터 바이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날짜: 201605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06183357138  
본문: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중풍, 심근경색 등 혈관의 노화, 즉 동맥경화증의 무서운 합병증이다. 혈관의 노화를 막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티에이징일 것이다. 이런 혈관의 노화를 촉진 시키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 대사증후군과 비만이다. <br/><br/>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이 한 사람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발병하는 것을 말한다. 각각을 떼어놓으면 약을 먹을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심장병과 암 발생을 높이고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한국인 경우 최근 비만이 증가되면서 성인의 세 명 중 한 명은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매우 흔한 질병이다. <br/><br/> 예전에 그렇게 많지 않던 비만이 왜 갑자기 증가하게 된 것인가. 비만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는 ‘체지방과 비만 관련 단백질(FTO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는 원래 고대 시대에 사냥 중심으로 식사를 하는 원시인들이 며칠씩 음식을 먹지 못할 때 내장의 지방을 연소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좋은 유전자였다. 그러나 현대인에게는 지나치게 음식이 공급되면서 이 유전자는 비만을 일으키는 유전자로 바뀌게 되었다. 여기에 이동 수단의 발달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습관이 고착되면서 비만이 가속되는 것이다. <br/><br/> 비만의 주된 식사 원인은 지방일까, 탄수화물일까. 한국인의 식단에는 고기보다 밥 국수 빵 등 탄수화물이 주된 구성인데 이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가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주된 요인이다.<br/><br/>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 반복되면 몸속에서 탄수화물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자주 분비가 되는데 반복되는 인슐린 분비로 인해 인슐린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아서 더 높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 한다. 이 인슐린이 몸 속의 지방세포를 키워서 비만이 되게 하고 지방간을 축적시켜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게 한다. <br/><br/> 특히 빠른 시간 내 혈당을 올려서 인슐린을 높게 만드는 당지수(GI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쉽게 부서지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 생각하면 좋다. 예를 들면 고구마보다는 감자. 포도보다는 수박, 호밀빵 보다는 식빵 등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다.<br/><br/> 또한 탄수화물의 대사를 좋게 만드는 미네랄 영양소 중 크롬 마그네슘 아연 망간 셀레니움 등이 있다. 이들 미량 영양소는 인체에서 당의 대사 및 인슐린 기능, 미토콘트리아 기능 등을 좋게 해줌으로써 대사증후군의 예방에 기여한다. <br/><br/>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운동의 핵심은 크게 뱃살 줄이기와 허벅지 근육 늘리기로 요약된다. 운동에는 크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근력운동)이 있는데 이런 운동 종류와 함께 운동의 빈도, 운동의 강도, 운동의 시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br/><br/> 혈관의 노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것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반대로 혈관의 노화를 촉진 시키는 것이 욕심과 게으름이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비만이 아닌 근육질의 건강함을 유지하도록 매일 절제의 삶과 부지런함의 삶을 살도록 하자. 성경은 육체를 훈련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하듯 한다고 말한다.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영성의 필요 조건인 것이다. <br/><br/> “<span class='quot0'>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에베소서 5:29)</span>” <br/><br/>김경철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07.txt

제목: ‘효행’ 부문… 59세 김숙현씨, 부모 간호 23년… “내 삶 없어도 후회는 없어요”  
날짜: 201605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04213014057  
본문: “병상에 누워계시는 부모님을 간호하느라 결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자식으로 당연한 도리를 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br/><br/> 제44회 어버이날을 맞아 효행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는 59세 노처녀 김숙현(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씨는 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겸손하게 소감을 밝혔다.<br/><br/> 김씨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폐결핵과 전립선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92)와 고지혈증·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91)를 23년 동안 극진히 봉양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br/><br/> 젊었을 때 영어 동시 통역사로 일했던 그는 오빠와 남동생이 있지만 병세가 악화된 부모님을 모실 형편이 되지 않아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보살폈다. 일과 생활을 포기해야 했지만 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나 원망한 적이 없었다.<br/><br/> 공기 좋은 곳에서 간호하기 위해 모아둔 돈으로 안성의 한 호숫가 옆에 집을 지어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그의 효심 덕에 어머니 병은 호전됐지만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전립선암이 발병했다.<br/><br/> 설상가상 김씨 본인마저 친척 보증을 잘못 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br/><br/> 집을 팔아 빚을 갚았고 지인의 도움으로 부모님과 함께 충북 진천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그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공장에 입사해 생산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혼자 번 돈으로 치료비와 약값,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br/><br/>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그는 5년 전부터 울주군 서생면에 사는 조카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그의 헌신적인 봉양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아버지는 지병이 악화돼 끝내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span class='quot0'>홀로 남은 어머니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마지막 소원</span>”이라고 눈물을 흘렸다.<br/><br/>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08.txt

제목: [한국의 공교회-소사제일교회] 가족도 하기 어려운 일을… 중풍·치매 노인 20여명 돌봐  
날짜: 201605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04192751669  
본문: "내 토끼 귀때기가 없어졌어요." 열심히 색종이를 오리고 붙이던 한윤옥(86) 할머니가 울상을 지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봐도 찾을 수 없다. "거기 오른쪽 팔꿈치 밑에 있잖아요." 전용숙(61·여) 센터장이 분홍색종이를 오려 만든 문제의 '토끼 귀'를 찾아주자 한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br/><br/> 지난달 20일 방문한 경기도 부천 소사구 호현로 소사제일주간보호센터(보호센터)에서는 종이접기 수업이 한창이었다. 중풍이나 치매에 걸린 이 지역의 노인 20여명은 매일 이곳을 찾는다. 192㎡(약58평) 규모의 이 시설은 노인들에게는 사랑방이고, 그들의 자녀에게는 봉양의 노고를 일부 짊어져 주는 곳이다.<br/><br/><br/>보호센터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인 소사제일교회(이진수 목사) 1층에 있다. 교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2006년부터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세대가구가 밀집된 이 지역은 주민 대부분이 차상위계층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병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에요. 특히 치매와 중풍을 앓고 계신 노인들은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점점 고립됩니다. 그들을 돌봐줄 누군가 필요했죠.” 이진수(63) 목사는 보호센터를 설립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br/><br/> 당시 이 지역엔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했다. 소사제일교회도 복지시설을 설립할 재정적 여력이 없었다. 고민하던 중 기회가 찾아왔다. 노인복지시설 건립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한 ‘은빛사랑채’ 사업에 지원해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도에서 물적 지원을 받아 보호센터를 세웠다. 이 목사가 초반 3개월간 센터장을 맡고, 그 바통을 아내인 전 센터장에게 넘겼다. 전 센터장은 서울신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다수의 복지기관에서 10년 이상 복지사로 근무했다. <br/><br/> 보호센터에서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매일 오전 9시에 차량을 통해 노인들을 모셔오며 혈압, 혈당 체크 등 간단한 검진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건강체조 후 최신 시사, 문화 관련 뉴스를 알기 쉽게 요약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한다. 이후에는 요일별로 집중물리치료, 종이접기, 이·미용 서비스, 구슬공예, 요가, 수지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개 오후 6시에 귀가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노인들을 위해 오후 8시 이후까지도 운영한다. 이곳에는 전 센터장을 비롯해 사회복지사 3명, 물리치료사와 조리사 각 1명이 상시 근무하며 10여명의 강사와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업무를 돕고 있다. 전 센터장은 “<span class='quot1'>봉사자 중에는 소사제일교회 성도가 아닌 이들이 상당수</span>”라며 “<span class='quot1'>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해 섬기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 전 센터장은 보호센터의 가장 큰 역할을 노인들의 사회성 증진으로 꼽았다. “여기에 오면 행복해. 외롭지 않아. 친구 같은 동생들이 있고 잘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아.” 보호센터 내 최고령자 김정순(102) 할머니의 말이다. 보호센터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A등급(상위 10%)을 받았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br/><br/> 주민들이 처음부터 소사제일교회에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1998년 현재 위치에 교회 건물을 지을 때만해도 반대가 거셌다. 일부 주민들은 터파기 공사장에 들어가 드러눕기도 했다. 교회가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보호센터가 세워진 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지역 주민 김모(49)씨는 “일용직이라도 맞벌이를 해야만 먹고살 수 있는 이들에게 치매나 중풍에 걸린 부모를 돌보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며 “교회가 그 일을 대신해 주니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성도 수도 100여명으로 성장했다. <br/><br/> 소사제일교회는 앞으로도 노인을 위한 섬김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 목사는 “<span class='quot2'>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보호센터를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독거노인 등을 위한 먹거리 나눔 사역도 진행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br/><br/><br/>◆ 소사제일교회 이진수 목사 인터뷰 <br/>“<span class='quot0'>괴롭히던 병마 거의 완치… 이웃 섬기라는 뜻</span>” <br/><br/><br/>한 올도 없는 머리카락과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걸음걸이, 이진수 목사의 첫 인상은 평범치 않았다. <br/><br/> “<span class='quot0'>오롯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한 이유가 있지요.</span>” 이 목사는 덤덤하게 자신의 개인사를 밝혔다. 그는 무려 28년 동안 병마와 싸우고 있다. 1988년 35세에 근(筋)무력증을 동반한 흉선암에 걸렸다. 흉선은 가슴뼈 뒤에 위치한 면역기관이다. 근무력증은 근육의 수축력이 저하되고 근육이 쉽게 피로해져 힘이 빠지는 질환이다. 병세가 깊어지면 일어서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span class='quot0'>하나님께 살려만 달라고 기도했어요.</span>”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하고, 약으로 근무력증을 완화시켰다. 1년 가까이 병상에서 보내며 투병한 끝에 상태는 점차 호전됐다. <br/><br/> “아프고 나니 과거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약하고 소외된 자를 외면치 안겠다던 신학생 시절의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1970년대 중반 서울신대생 시절 이 목사는 다락방전도협회 활동을 하며 정체성을 찾았다. 다락방전도협회는 이화여대 초대총장을 역임한 고 김활란 박사를 중심으로 1960년에 설립됐으며 윤락여성과 보육원, 군부대 등에 대한 특수선교와 농어촌선교를 펼쳤다.<br/><br/> 경제적 빈곤층이 대부분인 지역을 섬기기 위해 1990년 소사제일교회에 부임했다. “<span class='quot0'>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열악한 환경에서의 사역이었지만 가난한 이웃을 섬기겠다는 생각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span>” 그러나 근무력증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2006년에는 폐에서도 암세포가 발견됐다. “당시 소사제일주간보호센터 설립을 추진하던 중이었어요. 다시 한 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폐 한쪽은 절반 가까이, 다른 쪽은 3분의 1을 잘라내고 가까스로 살아났고 무사히 보호센터를 설립했다.<br/><br/>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2011년, 역시 폐 주변에 암이 생겼다. “이젠 정말 데려가시려나 싶었어요. 유서까지 써놓고, 성도들에게도 더 이상 날 위해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이 목사는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재개발대책위원으로 시민들과 뉴타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다 포기하려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년쯤 지나 암세포가 사라진 거죠.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5년 가까이 괴롭힌 근무력증도 거의 완치됐다. 현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 검진을 받고 있다. 함께 뉴타운 반대운동을 벌인 지역주민들과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됐다.<br/><br/> 자신의 삶을 보너스라 칭한 이 목사는 “<span class='quot2'>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 언제 데려가시더라도 후회 없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부천=이사야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09.txt

제목: 국군수도병원장에 유근영 서울대 교수  
날짜: 201605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02212416949  
본문: 유근영(사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2일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수도병원장에 취임했다. 유 신임 원장은 국립암센터 원장과 대한예방의학회장을 역임한 암 치료·연구의 권위자다. 아시아·태평양 암 예방기구(APOCP) 사무총장도 맡고 있다. 유 원장은 “<span class='quot0'>전문 의료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군수도병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10.txt

제목: 피차이 구글 CEO “미래엔 디바이스 사라지고 AI로 대체”  
날짜: 201605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02001427313  
본문: “미래에는 (컴퓨터 같은) 디바이스는 사라지게 된다. 대신 인공지능(AI)이 하루 종일 사람들을 돕는 시대가 온다. 앞으로는 모바일 퍼스트 시대를 지나 AI 퍼스트 시대가 될 것이다.”<br/><br/> 순다 피차이(사진)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1일 주주들에게 최근 성과를 담아 전달하는 ‘창업자의 편지’에서 AI의 잠재력을 연신 강조했다.<br/><br/> 편지는 원래 구글의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작성해 왔지만 올해는 피차이 CEO가 직접 썼다.<br/><br/> 피차이는 편지에서 지난 3월 있었던 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을 언급했다. 그는 “알파고의 승리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이라며 “그러나 AI와의 경쟁에서 인류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가 일상적인 업무나 여행은 물론 기후변화나 암 정복 같은 인류의 모든 일을 도울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br/><br/> 피차이는 또 컴퓨터와 휴대전화, 가상현실(VR) 등의 기기가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바일 퍼스트 시대에서 AI 퍼스트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구글은 머신러닝 등 각종 인공기능 기술을 구글포토와 구글번역에 쓰고 있다. 매직리프(Magic Leaf)와 같은 가상현실 업체에도 투자 중이다. 2010년 ‘모바일 퍼스트’를 화두로 내세운 이후 6년 만에 방향을 확 바꾼 것이다.<br/><br/> 피차이는 편지 말미에 “<span class='quot0'>우리는 인터넷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한다</span>”며 구글의 사명을 거론한 뒤 “<span class='quot0'>기술 발전을 통해 정보를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궁극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br/><br/>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11.txt

제목: [우리동네 주치의-경기 양평 다남장수의원 정형화 원장] 황토입원실 제공 평안 유지  
날짜: 2016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01194422624  
본문: “의사로서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하고, 새로운 최신 치료법을 끊임없이 공부해 환자 치료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요양과 치료를 접목해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환자 곁에서 함께해야죠.”<br/><br/>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다남장수의원은 조용하고 아늑한 병원, 환우와 의료진이 서로 소통하는 병원,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일으키는 병원, 진료나 입원생활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병원을 설립 이념으로 한 요양과 치료를 접목한 곳이다. 양평군 서종면 명달계곡 안쪽 숲속 중턱에 자리한 다남장수의원 정형화(사진) 원장을 만났다.<br/><br/> 정 원장은 요양과 치료를 접목해 암환자들이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항암 수술이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받고 난 후 요양과 휴식을 겸해 다남장수의원에서 몸을 추스르고 회복할 수 있도록 환자들을 치료한다. 또한 면역항암제 치료를 원하는 암환자들에게 항암치료와 함께 고주파온열암치료도 함께 시행한다. 정 원장은 “기존 큰 병원에서 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가 우선이다. 다남장수의원은 기존 치료와 함께 암환자들이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치료과정에서 삶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 치료를 바탕으로 자연과 치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br/><br/> 이를 위해 다남장수의원은 ‘황토방입원실’을 환자들에게 제공한다. 이는 맑은 공기와 산지에서 나는 입원환자 먹거리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좋은 입원환경을 제공하고, 황토방입원실 생활을 통해 몸고 마음을 함께 치유한다는 개념이다. 특히 다남장수의원이 위치한 곳은 15년 전 정부가 생태산촌 보호 지정마을로 선정한 청정지역이다. 또한 잣나무 분포량이 전체 산림의 90%를 차지하며, 4계절 모두 피톤치드량이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유기농 식사와 피톤치드 트레킹 등 자연치유 건강법을 통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정 원장은 “기존 대형병원의 치료와 함께 다양한 입원환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맑은 공기와 좋은 먹거리, 스트레스 없는 입원생활 등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br/><br/> 정형화 원장의 이력은 특이하다. 1991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약리학을 전공한 뒤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일을 했다. 이후 미국 베스티대학에서 자연의학을 공부한 후 암전문 요양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하다 지난해 10월 다남장수의원을 개원했다. 정 원장은 오는 6월부터 3305㎡(약 1000평) 규모로 병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5개의 황토방입원실을 1인실 20개로 늘리고,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휴게시설과 식당 등도 갖춘다는 계획이다.<br/><br/> 정 원장은 “치료과정에서 환자들의 삶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자들에게 치료와 요양이 함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치료의 주체는 환자이고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12.txt

제목: ‘대상포진’ 72시간내 치료땐 끔찍한 고통 줄여  
날짜: 2016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01194420402  
본문: 서울의 한 옥탑방에 살고 있는 김진학(57·가명)씨는 4년째 수십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고통 받고 있다. 그는 4년 전 대상포진이 발병한 후 직장 뿐 아니라 가족까지 잃었다. 대상포진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이다. <br/><br/> “예전엔 조기축구도 할 만큼 건강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요. 40여개의 바늘이 동시에 콕콕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4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나타납니다. 일은커녕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못 하고 앓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는 지속되는 극심한 통증과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비 부담 때문에 자살시도도 여러 번 했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어린시절 수두를 일으킨 뒤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재활성화돼 발병한다. 심각한 통증과 수년 간 지속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 <br/><br/> ◇장시간 운전과 스트레스로 바닥난 면역력, 대상포진 발병=김씨는 10여 년간 택시운전을 했다. “하루 10시간씩 한 달에 26일을 10년간 일했습니다. 휴식시간도 없이 장시간 운전을 하니 택시기사 대부분은 당뇨나 위장병 같은 성인병을 달고 살아요. 하루에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일했으니 눈 뜨면 일한 셈이었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br/><br/> 특히 대상포진은 피부 발진과 함께 동반되는 통증이 특징이다. “어느 날, 피부에 뭐가 나서 병원을 찾았더니 대상포진이라 하더라고요. 약 바르고 치료해서 수포가 없어져서 다 나았으려니 했죠. 그런데 한 2∼3주 후에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계속 아파서 참다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을 찾은 김씨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대상포진은 산통만큼 극심한 ‘고통’이 따른다. 통증으로 인해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 <br/><br/> ◇심각한 통증으로 3개월 간 20㎏ 빠져, 경제 부담도 커=심각한 통증을 견디지 못한 김씨는 결국 일을 그만두고 10개월간 입원했다. “점점 통증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는지 밥 생각도 없다보니 3개월간 20㎏이 쑥 빠지더라고요.” 대상포진 합병증은 생각보다 더 무서웠다. 지속되는 통증으로 영양실조까지 발생해 병원에서 네 다섯 차례 쓰러지기까지 했다. 결국 김씨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치료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고 신경차단술도 실시했다. 온갖 방법에도 병은 차도가 없었다. 대상포진 치료를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비용은 약 3500만원.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대상포진으로 입원까지 하면서 직장까지 그만뒀다. “병원비 때문에 가족이 살던 아파트 전세금을 뺐습니다.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저로 인해 온 가족이 다 헤어졌습니다.” 김씨는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워 신용불량자가 됐다.<br/><br/> ◇암보다 무서운 대상포진, 72시간 내 조기치료하면 합병증 위험 감소=대상포진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 진료비는 2009년 844억원에서 2014년 1258억원으로 약 46.8% 증가했다. 박경채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대상포진은 피부에 포진 발생 후 72시간 내 치료를 시작하면 끔찍한 통증 및 합병증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몸 한쪽에 띠 모양으로 포진과 함께 통증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며 “예방을 위해선 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13.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대기시간 확 줄여 치료 골든타임 확보  
날짜: 2016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01190337010  
본문: 고령화 시대 만성질환자와 암환자 증가로 국민의료비 부담이 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의원과 종합병원인 1·2차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인 3차 병원으로 나뉜다. 중증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이, 만성질환과 경증질환은 1, 2차 병원이 담당하는 구조다. 하지만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현상으로 병원 간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지역 병·의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고 국민의료비 부담 줄이기를 위해 노력하는 분당서울대병원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br/><br/> 분당서울대병원은 심장·뇌혈관 질환 등 중증 급성질환을 담당하는 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오창완·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를 통해 환자 대기시간을 줄이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 협력체계는 지역 병·의원에서 발생한 응급 심·뇌혈관 환자를 경기심뇌혈관질환센터로 즉시 후송할 수 있게 하는 ‘핫라인(Hot-line) 시스템’과 응급 치료가 종료된 환자가 다시 집 근처 병·의원에서 이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스누비안 파트너스’로 구성된다.<br/><br/> 경기심뇌혈관질환센터 ‘핫라인 응급환자 후송 시스템’은 분당서울대병원 심뇌혈관 의료진이 365일 상주하며 운영한다. 경기도 내 25개의 협력 병원에서 응급 환자 발생 시 의료진 간 환자 상태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후송조치까지 이뤄진다. 이 시스템은 중소규모 병·의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뇌졸중 등 중증 심뇌혈관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응급관상동맥 성형술(primary PCI)이나 개심술, 대동맥 수술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스템이 체계화돼 있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사망이나 신체 기능 저하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br/> 핫라인 응급회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지역 병·의원에서 환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대형병원의 의도에 의구심을 갖기도 했고, 시스템 체계화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도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분당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 지원을 약속했고, 경기심뇌혈관질환센터 교수가 직접 지역 병·의원을 찾아가 신뢰관계를 형성해 시스템을 구축했다.<br/><br/> 이와 관련 분당서울대병원과 경기심뇌혈관질환센터가 시스템 이용 전후 치료 시간을 분석한 결과 차이가 두드러졌다. 응급 이송되는 환자의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치료 프로세스를 최대한 단순화해 환자 대기시간 등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한 것이다. 신속하게 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해 파트너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면서도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분당서울대병원과 경기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br/><br/> 또한 경기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환자진료교류시스템 강화를 위해 ‘환자 수첩’과 ‘협력 병·의원 의료진 세미나’를 활용하고 있다.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시술 치료 후 1년 이상 지난 환자에게 주거지 근처 협력 병·의원을 안내하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시행했던 검사결과와 시술결과, 처방내역 등을 ‘환자수첩’에 기재해 교부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수첩을 직접 소지하고 다니면서 운동, 식습관, 혈압, 궁금한 사항들을 스스로 기재하고 병원 방문 시 질문하는 등 체계적인 자가 관리가 가능해 장기간 질환 관리가 수월해졌다.<br/><br/> 분당서울대병원은 파트너 병·의원과 최신 진료지침, 환자관리체계 등을 공유하는 정기적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파트너 병원에서도 분당서울대병원과 동일한 양질의 진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창완 센터장은 “체계적인 시스템 운용을 통해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함으로써 환자의 예후가 좋아졌고 만족도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중증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는 물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 및 병원산업의 동반 성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br/><br/> 한편, 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2013년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경기권역의 심뇌혈관질환 사망과 장애 후유증 발생을 감소시키고 지역 주민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됐다. <br/><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14.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활 통해 알게되니 모든 문제가 풀렸다  
날짜: 2016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01184307129  
본문: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나는 초기에는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고민을 많이 했다. 그중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였다.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이라고 하니 너무 혼란스러웠다.<br/><br/> 6년 넘게 이 문제로 씨름했는데, 이미 300∼400년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음을 교회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이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理性)이나 이 세상 가치관으로 풀려고 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한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답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다.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br/><br/>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사람이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이다.<br/><br/>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게 한 열쇠는 바로 ‘부활’이었다. 부활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br/><br/>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청년 예수가 예언대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고전 15:3, 4, 마12:39).<br/><br/>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해결되니 다른 많은 문제도 선명하게 해결되었다. <br/><br/> 첫째로 삼위일체가 풀어졌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선명해졌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한 생명,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에 눈이 열렸다(요 17:21).<br/><br/>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성자 하나님의 피’라는 것이 확증되었다(행 20:28). 성자 하나님이 흘리신 보혈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보혈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의 피로 영원한 제사(히 10:12), 영원한 속죄(히 9:12)를 단번에 이루신 것이다. <br/><br/> 세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므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나 보이는 현상의 어려움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오뚝이처럼 일어나게 되었다. 내가 암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 마음에 조금도 요동이 없었다.<br/><br/> 마지막으로 이단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었다.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못한 실패한 선지자로 비하(卑下)하고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되면 교회는 이단을 분별하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게 된다.<br/><br/>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span class='quot0'>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span>”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마16:16∼21).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br/><br/>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15.txt

제목: NH농협생명, 어르신 맞춤형 건강보장 보험 인기몰이  
날짜: 201604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27214301408  
본문: NH농협생명이 지난 2월 15일 출시한 ‘행복한 실버 NH 3대질병 보험(갱신형,무배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br/><br/> 영업일 기준 16일만에 1만건의 계약을 돌파하면서 실버층 건강보장을 위한 맞춤상품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br/><br/> ‘행복한 실버 NH 3대질병 보험’은 61세부터 75세까지만 가입 가능한 어르신 전용 건강보장상품이다. 10년 만기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한다. 만기 시 만기환급금 100만원을 지급한다.<br/><br/> 이 보험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3대 질병을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보장금액은 1구좌 기준 일반암 2000만원,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 1000만원이다. 의무부가특약으로 암 사망시 1000만원을 지급한다. 3대 질병과 암을 하나의 보험으로 보장 받는 셈이다.<br/><br/> NH농협생명 김용복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0'>100세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실버층을 위한 보험상품은 기업과 고객,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상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힘 쏟겠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16.txt

제목: 롯데제과, 기억력 향상·성인병 예방·다이어트 효과  
날짜: 201604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26193150936  
본문: 최근 초콜릿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고혈압·심장질환 등 성인병 예방은 물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코코아 함량이 60% 이상인 다크초콜릿의 경우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 항산화 작용과 항암, 노화방지, 충치 억제 등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성분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정명희 교수팀에 따르면 폴리페놀은 헬리코박터 피롤리균이 일으키는 위점막 손상을 억제해 위염 뿐 아니라 암 억제 효과도 있다고 발표했다. 폴리페놀이 제 4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이유이자, 초콜릿이 몸에 좋다는 증거다. <br/><br/> 롯데 제과는 현재 2종의 드림카카오 초콜릿(사진)을 판매 중이다. 카카오 함량이 기존 초콜릿보다 2∼3배 이상 높고, 폴리페놀 함량도 높은 게 특징이다. 제품별로는 카카오 함량이 56%인 ‘드림카카오56’의 경우 폴리페놀 함량이 960mg에 달하고, 카카오 함량이 72%인 ‘드림카카오72’는 1353mg에 달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17.txt

제목: [가정예배 365-4월 27일] 총회의 결정  
날짜: 201604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26174824058  
본문: 찬송 : '어느 민족 누구게나' 586장 (통 521장) <br/><br/>신앙고백 : 사도신경<br/><br/>본문: 사도행전 15장 12∼35절<br/><br/>말씀 : 베드로의 변론은 청중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행하신 역사들을 보고하고 그것의 증명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총회의 의장인 야고보가 일어나 교회의 공식입장을 정리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갈1:19).<br/><br/> 야고보는 먼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암 9:11∼12) 시몬 베드로의 주장이 올바른 것임을 확인합니다.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이방인들도 함께하게 된다는 예언을 인용해, 하나님이 이방인 중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꾸준히 예언된 것이 성취된 사건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이방 기독교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모든 결정의 최종적인 권위가 됩니다.<br/><br/> 이어서 야고보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도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도덕적인 규칙들을 명령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즉 제사음식을 피할 것, 음행을 멀리할 것,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 것 등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피하라는 것은 우상숭배 문화에 빠지기 쉬운 그 시대에 신앙의 정결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문란한 성행위를 우상숭배 의식의 일부로 삼는 당시 사회에서 육체적인 정결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br/><br/>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런 짐승의 시체에 피가 그대로 들어 있기 때문인데,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율법의 생명존중 사상이 몸에 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항들은 구원받는 데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그 시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 표준들이었으며, 유대 신자들에게도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명해진 것입니다.<br/><br/> 예루살렘 총회는 훌륭한 결정을 내렸을 뿐 아니라 이를 전달하면서도 현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던 유다와 실라에게 편지를 맡겨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가 편지만 들고 되돌아왔다면 반대파들은 그들이 가져온 결정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낸 편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유대주의 운동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의 리더십에 애정 어린 축복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상제물, 음행, 피를 금하는 세 가지 외에는 이방 성도들에게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기로 한 총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합니다. 총회가 ‘성령과 우리는’이란 표현을 사용한 데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모든 결정에 성령을 앞세우는 공동체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br/><br/>기도 : 주님, 저희들이 모든 결정의 최종 권위를 성경말씀에 두고 말씀을 존중하고 힘써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br/><br/>주기도문<br/><br/>권지현 목사(서울 다음세대교회)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18.txt

제목: 올해 남성 대장암 환자 수 위암 넘어설 듯  
날짜: 2016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25212927851  
본문: 국립암센터 원영주 연구원팀은 25일 “<span class='quot0'>올해 국내 남성 대장암 신규 환자 수는 2만3406명으로 위암 신규 환자 2만3355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span>”고 밝혔다. 국내 암 발생률(1999∼2013년)과 사망률(1993∼2014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위암은 수십년째 국내 남성 발생 암 1위였다. 여성은 수년 전부터 대장암 환자 수가 위암 환자를 뛰어넘었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19.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2부 ⑨] 말기 암환자 42% 상황 몰라… 의사 ‘진실 메신저’ 역할 중요  
날짜: 2016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25212037538  
본문: 2부: 웰다잉, 이제 준비합시다<br/><br/>⑨ 죽음의 진실, 의사가 바로 알려야<br/><br/>죽음이 임박한 말기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인가. 환자를 죽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게 하는 게 옳은가. ‘죽음 예정 통보’는 누가 하는 게 바람직한가. 수많은 의료 현장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상황이다.<br/><br/>암 환자 42%, 자신이 말기라는 사실 몰라<br/><br/> 가족들은 환자가 ‘나쁜 뉴스’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을까 걱정한다. ‘하얀 거짓말’을 해서라도 진실을 숨기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br/><br/> 국립암센터가 2010년 11개 병원의 18세 이상 말기 암 환자 481명과 그 가족 38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말기 진단 시점에 가족 83%는 ‘환자가 말기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반면 환자 58%만이 자신이 말기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암 환자 10명 가운데 4명(42%)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것이다.<br/><br/> 자신이 말기라는 걸 알고 있는 환자만 떼어놓고 다시 조사한 결과,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환자는 56%에 불과했다. 가족이 알려줬다(11%)거나 상태가 악화돼 스스로 추측해서 알게 됐다(29%)는 환자도 상당수를 차지했다.<br/><br/> 의사도 ‘말기 통고’를 하는 일이 쉽지 않다.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다는 걸 알지만, 이를 알리는 행위가 환자의 잘못된 선택이나 치료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할까 염려하는 의사도 적지 않다.<br/><br/>의사들 “<span class='quot0'>죽음 예정 통보 때 스트레스 크다</span>”<br/><br/> 암 등 만성질환을 진료하는 의사 10명 가운데 9명은 ‘말기’라는 상황을 환자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죽음 예정 통보’를 하면서 스스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국민일보는 지난 11∼15일 ‘빅5 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의 교수 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암과 간경화, 폐질환,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매 등 만성질환을 다루는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신경과 등에 소속된 의사들이다.<br/><br/> 먼저 ‘환자가 더 이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점차 악화돼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상태일 때, 환자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7%(80명)가 ‘환자 본인이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환자 본인은 모르는 게 좋다’는 응답자는 2명에 그쳤다. ‘말기 상황임을 누가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묻자 87.8%(72명)는 ‘의사가 직접 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4%(2명)는 ‘가족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간호사·가족이 함께 상의해서’라거나 ‘환자 성향에 따라 적절한 사람이 해야’ 등의 기타 의견은 9.8%(8명)였다.<br/><br/> 이어 의료진이 받는 스트레스를 조사했다. ‘환자에게 3∼6개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고 알릴 때,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전혀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0점, 스트레스가 가장 극심한 상태를 100점으로 제시했다.<br/><br/> 그랬더니 24.4%(20명)는 ‘90∼100’점, 29.3%(24명)는 ‘80∼89’점이라고 답했다. 절반 정도가 80점 이상인 ‘상당한 수위’의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이다. 70∼79점은 15.9%, 60∼69점은 10.9%, 50∼59점은 9.8%, 0∼49점은 8.5%로 나타났다. 기타는 1.2%였다.<br/><br/>가족이 함께한 자리서 의사가 직접 알려야<br/><br/> 일부에선 말기 상황임을 알리는 데 적합한 인물로 목사, 신부 등 성직자를 꼽는다. 환자가 심리적 충격을 덜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대다수는 환자에게 ‘말기’와 ‘죽음 예정’을 알리는 역할은 담당 의사가 맡아야 한다고 본다. 환자의 정신·심리·신체·사회적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는 25일 “<span class='quot1'>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할 경우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알려야 하는 심적 부담이 없고 나중에 속이거나 거짓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span>”이라고 말했다.<br/><br/> 특히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상황을 말하는 게 좋다. 오해가 생기지 않고 가족이 더 편해진다. 윤 교수는 “<span class='quot1'>의사의 정확한 설명이 환자를 잠시 당황하게 만들 수 있지만 오히려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치료를 찾아 방황하지 않게 한다</span>”고 했다.<br/><br/> 환자가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의미하고 힘겨운 연명치료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말기 통고가 환자 삶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생각은 기우다. 윤 교수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는 삶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말기 환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br/><br/>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20.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2부 ⑨] 말기 환자·가족에게 ‘나쁜 소식’ 통보할 때 의사 상담기술 갖춰야  
날짜: 2016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25211115563  
본문: 2부: 웰다잉, 이제 준비합시다<br/><br/>⑨ 죽음의 진실, 의사가 바로 알려야<br/><br/>의사는 환자와 가족에게 말기 상황임을 통보할 때 일정한 원칙과 상담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환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전략으로 ‘SPIKES’라는 6단계 프로토콜(규칙·절차)을 제시한다. 의사뿐 아니라 가족이 환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고자 할 때도 쓸 수 있다.<br/><br/> 첫 번째는 ‘환경을 조성하라(Setting up)’.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인 사생활 등이 유지되도록 하고 환자에게 의미 있는 다른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다. 죽음 예정 통보를 전화로 하거나 복도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하면 안 된다. 대화할 때는 앉아서 적절한 신체언어를 사용하고 환자와 눈을 맞춰야 한다.<br/><br/> 두 번째는 ‘환자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라(Perception)’.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점에 대해 물어본다. “<span class='quot0'>의사나 가족에게서 무엇인가 들은 것이 있습니까?</span>” “<span class='quot0'>치료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span>” 같은 질문을 통해 환자가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br/><br/> 세 번째는 ‘환자가 알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라(Invitation)’. “<span class='quot0'>검사 결과에 대해 알기를 원하십니까?</span>” “<span class='quot0'>앞으로 치료계획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span>” 같은 질문을 던져서 환자가 알기를 희망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알아내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br/><br/> 네 번째 단계는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라(Knowledge)’. “<span class='quot0'>유감이지만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span>” 같은 표현으로 시작한다. 가능한 짧은 문장을 사용해 단순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 “말기 암이 의심된다”는 표현은 좋지 않다. 정확한 진단이 나온 후에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좋다.<br/><br/> 지나치게 무뚝뚝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span class='quot0'>당신의 병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수개월 내 사망할 수 있습니다</span>” 같은 표현은 환자를 당황스럽게 하고 분노·체념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quot0'>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span>”는 표현도 삼가야 한다. 시한부 삶이라도 통증이나 증상 조절 같은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도움을 줄 수 있다.<br/><br/> 다섯 번째는 ‘공감하고 응답하라(Emotion)’. 환자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대신 의사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표현해야 한다. “<span class='quot0'>나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당황하는지 압니다</span>” “<span class='quot0'>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span>” “<span class='quot0'>나에게도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span>” 등은 환자의 상황과 마음을 읽어주는 표현들이다.<br/><br/>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마무리하라(Summary)’. 환자에게 다른 중요한 질문이나 논의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지 물어본다. 다음번에 만날 약속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다음 약속은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돌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br/><br/>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21.txt

제목: [조선 문명 개화에 힘쓴 윌리엄 베어드] 이 땅에 묻히는 마지막까지 문서사역 헌신  
날짜: 2016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25183813121  
본문: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은 복음전도 활동과 더불어 기독교 문서의 간행에도 힘을 쏟았다. 성경번역, 찬송가와 사전의 편찬, 기독교 신문의 발간, 학교 교육과 관련된 교과서 편찬,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해설과 기독교 변증을 위한 문서사업은 시급한 과제였다. 이런 현실적 요구에 따라 출판사를 세워 전도문서와 서적, 교재, 사전을 출판했다.<br/><br/> 베어드도 문서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한 초기부터 전도용 소책자들을 출간했고, 평양 숭실학당에서는 부인 애니 베어드(한국명 안애리)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번역, 출간했다. ‘대학문제’의 여파로 1916년 숭실학당의 교장직을 사임한 후에는 1931년 별세하기까지 문서선교 사역에 전념했다. <br/><br/><br/><br/> 한국 사랑 남달랐던 애니 베어드 <br/><br/> 숭실학당 초창기에 학당의 안정과 발전에는 애니 베어드 선교사의 공헌이 컸다. 애니는 중등교육을 위한 교재가 없을 때 미국 교과서들을 들여와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편찬했다. 그녀는 동물학 식물학 물리학 등 자연과학 교재도 출판했다. 1906년 순한글로 편역한 ‘식물도셜’은 우리나라 최초의 식물학 서적이었다. 애니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쉽게 배우도록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50가지 도움들’이란 책자도 발간했다. 한국을 알리기 위해 뉴욕에서 영어로 ‘한국의 새벽: 극동에서의 한 회심에 대한 이야기’도 출간했다.<br/><br/> 이 소설은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자란 한 소녀가 선교사에 의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풀어내고 있다. 1913년 발행한 ‘선교생활의 내면의 모습’은 자신의 선교사 경험을 토대로 쓴 글로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깊은 종교적 영성, 그리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는 창작가의 길을 가려던 그녀의 재능이 잘 드러나 있다. 1911년 예수교서회에서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을 출간했다. ‘고영규전’은 주인공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으며, ‘부부의 모본’은 크리스천 부부의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br/><br/> 무엇보다 애니의 공헌에는 미국 찬송가의 한국어 번역과 편집을 빼놓을 수 없다. 그녀가 작시한 찬송가 387장 ‘멀리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는 구한말 국권의 상실로 절망과 암울함에 싸여 있던 한국인들에게 위안과 소망이 됐다. 이 찬송은 시어가 간결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시인의 시적 영감과 깊은 영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창작 시이다.<br/><br/> 이 밖에도 그녀는 어린이와 어른들을 위한 찬송가를 많이 번역해 당시 교회에서 사용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을 사랑했던 애니는 오랜 기간 선교활동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바쁜 선교사 생활 속에서 안타깝게 1908년 암이 발병했던 것이다. 미국으로 건너가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하자, 가족과 친지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픈 몸으로 한국에 돌아와 1916년 6월 9일 52세의 젊은 나이에 남편 곁에서 하나님 나라로 떠났다. 그녀의 이러한 선택은 죽을 때는 고향에 묻히기를 소망하는 한국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애니의 장례식에는 그녀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 조문객들로 넘쳐났다. <br/><br/><br/><br/> 베어드, 조선의 흙이 돼다 <br/><br/> 베어드는 대학문제의 여파로 1916년 3월 31일 숭실대학 교장직을 사임한 뒤 사역 후반부에는 기독교서회 편집위원, 성서공회 성서출판위원 등을 역임하며 문서 사업에 힘썼다. 베어드는 1918년 안식년 기간 중 로즈 베어드(한국명 배로사)와 두 번째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저술과 번역, 성경공부 교재 번역과 편찬, 성경해설을 포함한 각종 논설을 집필했다. <br/><br/> 이 시기 베어드의 작품은 대략 15종의 저술과 20여종의 역서, 20여편의 영문 논설, 그리고 편집인으로 있던 ‘신학지남’에 기고한 36편의 글 등이다. 베어드는 특히 신학지남 편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문서사역에 심혈을 기울였다. 신학지남은 장로교회의 첫 신학지로, 감리교의 ‘신학세계’가 창간된 지 2년 후인 1918년 3월 20일 창간됐다. 베어드는 1921∼1927년 6년간 편집인으로 일했다.<br/><br/> 이상의 작품들을 분류하면 첫째 ‘사복음대지’ 등 성경연구와 관련된 저술과 번역서, 둘째 ‘쟝자로인론’ 등 전도문서나 기독교 변증 관련 저술과 번역서, 셋째 ‘신행록’ 등 신앙생활에 관한 안내서, 넷째 ‘주재림론’ 등 기독교 교리와 관련된 저술 등이었다. <br/><br/> 한편 베어드는 1911년부터 성경번역위원회 구약개역자회의 개역위원으로 참여해 구약성경을 번역했고, 1920년부터는 성서공회 성서출판위원으로서 성서번역에도 중요한 공헌을 했다. 베어드는 1925년부터 1926년 휴가 기간 동안 미국 시카고대와 프린스턴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한 후 귀국해 개역자회 평양지부의 성경번역 작업을 주도했는데, 1925년 창세기, 1926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완료했고, 1930년에는 17권의 구약성경 개역본을 완성했다.<br/><br/> 그 후 베어드는 1931년 11월 28일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 개역작업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1936년 개역 구약전서가 출간되는 일에 기여했다. 베어드의 문서선교 사역은 한국장로교회의 신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숭실대학 한국인 교수 김인준의 도움을 받아 펴낸 기독교 신앙서적과 교리서적들은 한국교회가 보수적 정통주의 신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br/><br/>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베어드는 1931년 선교 4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3개월 후 장티푸스가 발병해 그해 11월 28일 별세했다. 향년 69세였다. 장례식은 평생 친구인 마포삼열을 위원장으로 학교와 교회 연합장으로 치러졌다. 마포삼열, 언더우드 등 조선에서 활약한 선교사 대부분이 본국에 귀국해 일생을 마쳤지만 베어드는 조선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평양 교외의 선교사 무덤인 장산묘지에 매장돼 조선의 흙이 됐다.<br/><br/>김명배 교수(숭실대 베어드학부대학 주임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22.txt

제목: 일터 신학 웹 사이트 ‘토우’ 한국어 공식 서비스 개시  
날짜: 2016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24205756319  
본문: 전 세계 16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일터 신학 온라인 서비스 ‘토우(TOW·Theology of Work)’가 최근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br/><br/> 토우는 일과 관련된 신학을 연구해 보급하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다. 미국 뉴욕에 있는 투자회사 ‘아르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Archegos Capital Management)’ 앤디 밀스 회장, ‘일과 영성’의 저자 팀 켈러 뉴욕 리디머장로교회 목사, 일터 신학자로 유명한 폴 스티븐스 리전트칼리지 교수 등 138명이 참여하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기독 직장인과 일터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잘 알려져 있다. <br/><br/> 토우 한국어 서비스는 국내 일터 사역단체인 ‘페이스앤워크 인스티튜트(대표 김윤희)’가 맡았다. 김윤희 대표는 “<span class='quot0'>토우가 제공하는 일터 신학 콘텐츠를 비롯해 한국 실정에 맞는 일터 신학 자료와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해 토우 한국어 사이트(theologyofwork.org/ko)를 공식 개설했다</span>”고 말했다.<br/><br/> 토우 한국어 사이트는 일과 관련된 ‘성경 주석’과 관련 콘텐츠를 글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으로 제공한다. <br/><br/> 성경 주석 코너에선 ‘사회 자본의 필요성(학 1:1∼2:19)’ ‘부(富)로 인한 무관심(암 3:9∼15, 6:1∼7)’ ‘불의한 방법으로 일하는 것(호 4:1∼10)’ 등 관련 성경 구절과 해설을 제공한다. ‘예금자와 채권자’ ‘적정한 금액의 채무’ ‘공급하심을 늘리고 가난을 줄이려면’ 등 평소 직장인들이 일과 관련해 고민하는 주제를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설명하는 코너도 있다.<br/><br/> 두 코너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아래에는 ‘댓글’ 기능이 있어 온라인상에서 해당 주제를 놓고 토론할 수도 있다. ‘추천’ 기능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할 수도 있다.<br/><br/> 토우 한국어 사이트는 필요한 주제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세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창세기 출애굽기 등 성경의 각 장별로, 갈등 경쟁 경제 사회 금융 등 주제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모든 콘텐츠에 ‘가난’ ‘가난의 이유’ ‘가업’ 등 태그가 달려있어 태그별로도 찾아볼 수 있다. <br/><br/> 김 대표는 “<span class='quot0'>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려는 크리스천 직장인을 격려하고 이들을 도우려는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23.txt

제목: “오직 복음 만이 희망이란 메시지 이 시대에 절실”  
날짜: 2016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24191340312  
본문: 정암 박윤선(1905∼1988) 목사. 평신도들에겐 그다지 친숙한 이름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주석가로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1949년 4월 요한계시록으로 시작해 79년 10월 에스더를 끝으로 완성한 성경주석이 그의 대표작이다. 최근 그의 이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가 남긴 성경 66권 전체 주석의 핵심을 추린 ‘정암 박윤선 주석성경’이 출간되면서다. 박 목사의 생애와 그가 남긴 신학적 유산을 알리는 일에 매진해온 기독출판 영음사 대표회장 안만수(78) 목사를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음사 사무실에서 만났다.<br/><br/><br/>-이번에 출간된 주석성경에는 박 목사의 개혁주의 신학정신이 고스란히 집약돼 있다고 들었다.<br/><br/> "박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본뜻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개혁주의 성경관을 고수했다. 성경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려고 애썼다. 지금 한국교회에선 성경의 진리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 기복신앙이나 인간 공동체의 교제와 유익 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희망이다'는 메시지를 변함없이 외쳤던 박 목사의 개혁주의 성경관은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가 크다."<br/><br/> -박 목사의 삶에는 놀라운 면이 많다. 성경 66권 주석을 발간했고, 성경연구를 위해 영어는 물론이고 히브리어, 네덜란드어까지 섭렵했다고 들었다. <br/><br/> "한마디로 예수에게 붙잡혀 자기는 없이 오직 주의 일만 했던 분이다. 율법에서 해방돼 생명을 내놓고 평생 원하는 성경해석 사역을 한 것이다. 주변에서 말로는 '박윤선' '박윤선' 하지만, 그 신학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박 목사는 네덜란드 개혁신학도 국내에 최초로 소개했다. 1936년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칼뱅주의 신학을 공부하며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같은 개혁신학자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 네덜란드어를 독학했다. 5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신약성서를 연구했지만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중단됐다. 개인적인 삶보다 성경연구에 평생을 바친 분이었다."<br/><br/> -교단은 물론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많은 목회자들이 '박윤선 주석을 봤다'고 말한다. <br/><br/> "한국교회 초창기는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요즘처럼 다양한 주석서를 보기 힘들던 시절이었다. 박 목사는 강단에 서는 목사들에 포커스를 맞춰 주석을 했기 때문에 설교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최성규 인천순복음교회 목사가 젊었을 적, 설교 준비로 답답함을 호소하자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박윤선 주석을 보라'고 했던 일화가 유명하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전병금 강남교회 목사도 '다른 건 안 봐도 박윤선 주석은 꼭 찾아본다'고 했다. 그만큼 신학의 폭이 넓다는 얘기다.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 88명을 만나 박 목사에 대해 들으려 했는데 여기저기서 나도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총 140명을 만났다. 그분들이 박 목사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를 기록한 게 '박윤선과의 만남' 1·2·3권이다." <br/><br/> -박 목사와는 어떻게 알게 됐나.<br/><br/> "나는 박 목사를 잘 몰랐다. 사업할 때, 박 목사가 성동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 원무과장이 친구라 도와드리러 간 게 첫 대면이었다. 80년대 합동신학교에서 뒤늦게 신학을 공부해 화평교회를 개척했다. 박 목사가 서울 장승배기에 개척한 장안교회와 합쳤지만 화평교회란 이름으로 계속 시무했다. 나는 막차를 탄 셈이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면 옹고집에 외골수라 생각할 수 있는데 박 목사는 어린애 같으셨다. 동물을 좋아해 서울대공원에 모시고 간 적이 있다. 기뻐하며 한참 구경하시더니 갑자기 나무 밑에 와 앉아계셨다.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거기에 마음을 팔린 게 주님한테 죄송해서 그런다'고 했다. 암 투병 중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러 가겠다고 해서 신발을 감췄더니 슬리퍼를 끌고 가셨다. 그런 열정과 순수함이 있었기에 그분 설교는 늘 은혜가 됐다."<br/><br/> -중국어로 '박윤선 주석'을 번역, 출간해 보급하는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br/><br/> "중국에 부흥의 불길이 번지면서 이단과 사설, 거짓도 마구 들어가고 있다. 중국에선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거기에 기초해 설교하고 성도들을 양육해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박윤선 주석'이 중국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br/><br/> 안 목사는 인터뷰 내내 박 목사 이야기만 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박 목사의 딸 박혜란(75) 목사가 쓴 '목사의 딸'에 대해서는 "상처나 아픔은 이해하지만, 목사 안수까지 받은 분이 그렇게 비판과 정죄만 해야 하는지 안타까웠다"고 했다. <br/><br/> 그럼에도 '꼭 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이 일에 매진해온 그의 열정이, '박윤선' 이름 석자를 한국교회가 여전히 기억하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br/><br/>수원=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24.txt

제목: [김경철의 닥터 바이블] 근육의 노화, 근감소증  
날짜: 201604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22181940550  
본문: 최근 뼈의 노화인 골다공증 뿐 아니라 근육의 노화인 ‘근감소증’(Sarcopenia)이 의료계의 주된 이슈이다. 사람의 근육은 40세 이후 해마다 1% 이상씩 감소, 80세가 되면 최대 근육량의 50% 수준이 된다. 그런데 근육량과 근력이 지나치게 많이 낮으면 근감소증이라고 한다. 65세 이상의 남성은 38.3%, 여성은 13.4 %나 근감소증으로 진단될 만큼 흔하기도 하다. <br/><br/> 근감소증이 있으면 일단 화장실 가기·목욕·요리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 신체 기능 장애를 일으킬 위험도 높으며, 병을 이겨내는 힘도 떨어뜨린다. 생체활동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근감소증이 심해질 경우 사망률이 높아지며 같은 당뇨나 암·뇌졸중·심장병에 걸렸더라도 근력이 약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훨씬 높다.<br/><br/> 근감소증이 생기는 원인으로 노인들의 운동부족, 교통수단의 발달로 걷기 등의 기본적인 근육 유지를 위한 일상에서의 근육 사용의 감소,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섭취의 부족, 만성적인 염증, 남성호르몬, 성장호르몬, 부신 호르몬 등 주요 호르몬 등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근감소증이 생긴다.<br/><br/> 특별히 비만이 대표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중년 이후 음식량을 줄여서 체중을 빼는 것에만 몰두하다가 근육만 빠지고 체지방은 그대로인 마른 비만(근육감소형 비만)이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키게 한다.<br/><br/> 이런 근감소증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단백질 중심의 식이 습관,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운동 등이 중요하다. 뼈와 근육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단백질 섭취부족이 근육감소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유기농 콩 등에서 공급되는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고 한다. 하루에 68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85g의 닭고기와 생선 속에는 오직 21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고기 285g 속에는 70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 100g의 콩속에는 35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br/><br/>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대표적인 운동이 근육 저항 무산소 운동이다. 대표적인 운동으로 아령이나 운동 기구 등으로 근육의 수축시 잠시 정지하여 근육의 최대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운동을 말한다. 특별히 몸의 4분의 1이 몰려있는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필수적이다. <br/><br/> 근육감소증을 겪는 고령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체력은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다리 근력과 평형기능이다. 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걷기(유산소운동),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저항성운동), 계단 오르내리기(유산소+저항운동) 등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자. 가능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며, 5층 이하의 건물들은 계단을 이용하고, 6가지 (팔 다리 어깨 배 등 옆구리) 근력 운동하기, 7가지(목 어깨 허리 옆구리 허벅지 앞과 뒤, 종아리) 스트레칭 하기 등을 생활 습관화하자.<br/><br/> 마치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등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처럼,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일 운동하는 등의 훈련이 필요하다. 영혼이 잘됨 같이 몸과 마음도 함께 건강하게 하는 것이 노년기에 중요하고 귀한 영적 생활임을 잊지 말도록 하자. <br/><br/>김경철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25.txt

제목: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 없애 바이오 기업 100개 육성한다  
날짜: 2016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21181114444  
본문: 정부가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제한을 철폐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저성장, 고실업’이 특징인 ‘뉴노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다.<br/><br/>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와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산업의 규제 개선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유전자 치료 관련 연구는 암과 유전질환 등에서만 허가된다. 이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해 임상연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pan class='quot0'>중장기적으로 유전자 치료제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안전성 강화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span>”고 말했다. 골수와 제대혈 등 인체자원을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활용하는 일도 지금보다 쉬워진다.<br/><br/>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1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술혁신 바이오기업을 키우기로 했다. 2025년까지 바이오산업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br/><br/>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26.txt

제목: [소년이 희망이다] 쇠창살 밖의 엄마는 미움이자 그리움입니다  
날짜: 201604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9210528074  
본문: 2014년 겨울, 서울소년원 신입방에서 10호 처분을 받은 열일곱 살 동갑내기 두 소년범을 만났습니다. 훈(가명·이하 ‘소년’ 가명)이는 엄마를 병으로 잃었고 준이는 엄마와 소식이 끊긴지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만난 소년범의 90%가량은 엄마가 없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고 불러도 대답 없는 엄마…그 이름을 지워버리기 위해 울부짖는 소년…. 이들에게 엄마는 그리운 이름이자 미움의 대상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챙긴 이웃집 엄마아빠는 해저물녘에 귀가해 도란도란 저녁밥을 먹는 데 울 엄마아빠는 왜 아니 오시나….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우두커니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압니다. 버림받음, 그건 상처가 아니라 각인(刻印)된다는 것,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인해 만신창이 된다는 것을…. 엄마 잃은 소년범을 만날 때마다 심연 깊숙한 곳에 가라 앉아 있던 아픔이 뿌옇게 일면서 마음이 짠해집니다. <br/><br/><br/><br/>“<span class='quot0'>자식 버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span>” 눈물의 탄원<br/><br/> 훈이는 지방의 한 소년원으로 이송 갔고 준이는 본 방에 배치됐습니다. 준이를 만나러 소년원에 갔습니다. 허름한 추리닝 차림의 까까머리 소년들은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더러는 졸고, 더러는 장난치고, 더러는 창밖을 멍하니 보고…. 준이의 밤톨 같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안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준이는 암 투병하던 엄마를 무척 그리워했습니다.<br/><br/> 준이는 김경수(53· 경산 새생명교회) 목사를 큰아빠라고 부릅니다. 김 목사는 준이와 석이 형제를 7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준이 형인 석(21)이는 지난해 12월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김 목사는 엄마가 떠난 뒤로 가출과 자퇴,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석이를 부모 대신해 돌보며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는데 수인(囚人)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 목사가 형제의 엄마를 찾아 나선 것은 버림받은 상처를 씻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사고뭉치가 된 것은 버림받은 상처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br/><br/> 7년 전, 준이 엄마는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병마와 가정폭력의 이중고에 시달리던 준이 엄마는 살기 위해 두 아들을 떠났던 것입니다. 김 목사는 수소문 끝에 준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큰아들은 교도소 그리고, 작은아들은 소년원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두 아들이 엄마를 몹시 그리워한다는 소식까지 전하자 여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br/><br/> “자식을 버린 저로 인해 죄를 짓게 된 제 아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만 살고자 애들을 떠나온 제 죄를 아이들이 대신 받는 것 같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판사님, 마지막 딱 한번 용서를 베푸신다면 제 아들이 다시는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간곡히 용서를 청합니다.”<br/><br/> 여인은 눈물로 선처를 구하면서 두 아들이 갇혀 있는 교도소와 소년원을 찾았습니다. 큰아들 석이는 오는 8월 석방 예정입니다. 준이 얼굴이 밝아진 것은 꿈에 그리던 엄마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소년원에서 나온 준이는 그토록 먹고 싶던 엄마 밥을 먹으며 엄마와 함께 지냅니다. 엄마는 훌쩍 커버린 아들을 안으면서 속죄의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의 사랑을 되찾은 준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이에게 엄마를 만난 소감을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br/><br/> “엄마랑 사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br/><br/><br/>김 목사 초대로 지난 3월 13일 대구행 KTX를 탔습니다. 지난해 5월 개척했다는 교회는 경북 경산시 경산시장 입구에 위치한 낡은 건물 3층입니다. 스무 명 남짓의 교인들은 가난한 이들입니다. 저를 초대한 까닭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모자의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철(17)이는 드럼을 치고 철이 엄마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는 가스펠송을 불렀는데 어찌나 구슬프고 절절하게 들리던지…. <br/><br/> “<span class='quot0'>억새풀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일 때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쉴 곳 없는 나그네 두 손을 마주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span>”<br/><br/><br/><br/>아들이 연주하고 엄마가 찬양한 ‘사랑하는 내 아들아’<br/><br/> 철이 아빠는 13년 전에 행방불명됐습니다. 네 살배기 아들을 홀로 키우던 엄마는 형편이 어려워지자 보육원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데려와 함께 살았는데 아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순한 눈빛엔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버림받은 상처가 소년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행동도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의 순하던 아들이 아닙니다.<br/><br/> 엄마는 기구한 인생에 쓰러졌고 아들은 버림받은 상처로 사고뭉치가 된 것입니다. 소년재판에 넘겨졌던 철이는 김 목사의 도움으로 구속을 겨우 면했습니다. 그런 뒤로는 ‘슈퍼스타K’ 대구 예선에도 출전하고 교회 찬양팀에서 기타와 드럼을 연주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지난 아픔을 노래하고 아들은 드럼을 연주하면서 고통의 세월을 씻었습니다. 모자의 모습을 보노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철이가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br/><br/> “드럼과 기타를 연주하는 전도사가 되어 과거의 저처럼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br/><br/>교회가 내치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br/><br/> 뒤늦게 목회자가 된 김 목사가 돌보는 소년들은 하나 같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br/><br/> 아빠와 둘이 사는 상록(18)이는 8년 만에 헤어졌던 엄마를 만났습니다. 김 목사의 개입과 중재 덕분입니다. 마트에서 담배 훔치다 붙잡힌 창호(16)가 경찰에 넘겨지지 않은 것 또한 김 목사가 용서를 빌었기 때문입니다. 김 목사는 사택으로 쓰려던 교회 4층을 철이네 모자에게 내어주면서 살길을 마련해주었습니다. <br/><br/> 목사를 목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에선 교인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순하지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여서 길을 잘 잃습니다. 성경에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라고 당부합니다. 은그릇을 훔친 장발장에게 은촛대까지 내어준 ‘레미제라블’의 미리엘 신부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진정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사고뭉치 양을 찾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br/><br/> 새벽에 김 목사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잡혀온 아이가 큰아빠라고 하는데 맞느냐고, 경찰서에 와줄 수 있냐고 형사가 요구했습니다. 소년들의 아빠들은 가정폭력이 심합니다. 살림을 때려 부수고, 아이들을 마구 팹니다. 형사에게 연락이 오면 새벽에도 달려가고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술 취한 아빠를 말리러 가야합니다. 김 목사가 저에게 들려준 말입니다.<br/><br/> “엄마에게 버려지고 아빠에게 매 맞은 아이들은 집을 뛰쳐나가고, 물건을 훔치고, 붙잡혀서 연락이 옵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오면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사고뭉치들이니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우리마저 내치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냐고 설득하고 사정하다보면 눈물이 납니다. 하도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를 울보 목사라고 부릅니다.”<br/><br/><br/><br/>가시밭길을 걷는 ‘울보 목사’를 응원합니다<br/><br/> 대구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이자 대구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인 김 목사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 중입니다. 소년들을 돌보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참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명의 사고뭉치 소년들을 데려오면 아흔 아홉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br/><br/> 어떤 목사가 가정법원 측의 부탁으로 사고뭉치 소년을 가정에 데려왔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소년이 교회에 온 이후로 도난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소년은 교인들의 돈을 훔치고, 교회 아이들을 때리고, 심지어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교회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교인들의 원성과 반발에 못 견딘 목사는 소년을 포기했습니다. 소년은 목사와 교회가 말한 사랑과 용서는 거짓이라며 비난했습니다. <br/><br/> 목사와 교회뿐 아니라 수많은 종교인들과 종교 시설들이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이 관용과 사랑을 강조하지만 행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보다 말 잘 듣는 아흔 아홉 마리 양을 선택합니다. 그게 이익이고 편하니까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는 김 목사의 길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입니다. 소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가시밭길을 택한 김 목사를 응원합니다. <br/><br/>가스펠 라이터 조호진(시인)·삽화 정형일(작가) jonggyo@gmail.com<br/><br/><br/>▶[다음세대 돌보는 스토리 펀딩 ‘소년이 희망이다’] 펀딩 시작하기<br/><br/><br/>▶[다음세대 돌보는 스토리 펀딩 ‘소년이 희망이다’] 기사 전체 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27.txt

제목: 미스코리아 입상자 단체 ‘녹원회’ ‘행복한 아이로 자라기’ 자선 바자  
날짜: 2016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8184608764  
본문: 미스코리아 입상자들의 사회공헌단체인 ‘녹원회’(사진)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녹원회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드레스가든에서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복한 아이로 자라기’란 주제로 바자회를 연다. <br/><br/> 장은진 녹원회 부회장은 “<span class='quot0'>가정폭력, 아동학대로 인한 아이들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이번 바자를 기획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바자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굿피플과 협약을 통해 아동보호사업에 사용할 계획</span>”이라고 18일 밝혔다. <br/><br/> 동화자연마루 보령 등이 후원하는 이번 바자에는 ㈜애스터 코스메틱 등 화장품 브랜드를 비롯해 리빙 브랜드, 여성패션과 액세서리 브랜드, 푸드 및 어린이 용품 브랜드 등이 참여해 다양한 상품을 소개한다. 또 미스코리아 출신 김성령과 이승연, 패션 디자이너 최범석 등 유명인사들이 기증한 애장품 경매도 진행된다. 실제 미스코리아의 왕관을 놓고 기념 촬영할 수 있는 포토 존 ‘나도 미스코리아이지 말입니다’ 코너도 마련된다.<br/><br/> ‘푸른 쉼을 주는 정원’이란 뜻을 가진 녹원회 회원은 400여명이다. 장 부회장은 “<span class='quot0'>1987년 출범한 녹원회는 친목모임으로 봉사활동을 주로 해오다 2013년 사단법인으로 다시 태어난 뒤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span>”고 소개했다. 특히 올해는 1957년 시작된 미스코리아 대회가 60년을 맞는 해이다. 녹원회는 그동안 일년에 두 번씩 펼치는 바자 수익금 등으로 백혈병·소아암환자 수술비 지원, 독거노인·미혼모 입양아 돕기, 에디오피아 식량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br/><br/>김혜림 선임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28.txt

제목: “현대인들은 해독이 필수… 피가 맑아야 건강 지킨다”  
날짜: 2016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8182534096  
본문: “<span class='quot0'>만병의 근원이 되는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길은 결국 피를 맑게 해주는 것입니다.</span>”<br/><b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아이스페이스(I-SPACE)에 있는 신경락한의원 원장 조병준(66) 장로는 “<span class='quot1'>현대인은 질병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질병에 걸려 있거나, 걸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1'>원인은 크게 ‘음식’과 ‘스트레스’, ‘운동부족’이며 그 결과는 피가 탁해진 것으로 나타난다</span>”고 설명했다.<br/><br/> 적절치 못한 인스턴트 및 고칼로리의 기름진 음식 섭취는 장내에 많은 독소를 만들고, 끊임없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활성산소를 만들어 체내에 독소를 만들고 이것이 축적돼 피가 탁해지고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br/><br/> “피는 체조직으로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노폐물을 신장으로 운반해 배설시키고, 체온을 유지시키며 질병면역인자(백혈구)를 가지는,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br/><br/> 즉 피가 건강해 제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 피가 엉기고 피가 흐르는 혈관이 좁아져 역할을 못하면 혈전이나 모세혈관경화,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설명이다. 결국 피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질병 예방과 치유의 지름길이 된다. 체내에서 축적된 독을 빼는 방법은 호흡, 땀, 대·소변으로 나가야 하는데 땀을 흘릴 기회가 적고 대소변으로도 독소배출이 안되니 체내 독소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장의 상태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br/><br/> “또 하나 면역기능의 80%는 장이 담당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기능도 활성화되고 우울증도 사라지며 건강의 바로미터인 체온도 올라가게 됩니다. 수용성 독소가 나가야하니 소변배출도 중요합니다.”<br/><br/> 조 원장은 식생활 속에서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받으라고 권한다. 해독식이라고 거창한 것은 아니고 효소가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 오곡밥과 소량의 싱싱한 고기와 생선 정도에 김치, 오이, 당근, 깻잎, 배춧속, 상추, 양배추, 고추, 양파 등을 장에 찍어 드시면 해독식이 된다는 것. 여기서 꼭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소식(小食)을 해야 하고 생채소 중심의 반찬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피를 맑게하는 10계명 참조)<br/><br/> 조 원장은 “<span class='quot2'>독소와 노폐물들이 혈관과 피하지방, 내장지방으로 쌓이면 결국 고혈압, 당뇨의 원인이 되고, 악화되면 심장질환, 뇌경색, 암 등이 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관절염과 디스크 등 모든 통증질환과 자가면역질환 등도 독소 노폐물을 제거해주면 치료가 된다</span>”고 설명했다.<br/><br/> 체내 독소배출을 주안점으로 처방하고 섭생에 대해 항상 강조하는 조 원장은 “<span class='quot2'>많은 환자들이 다이어트 효과와 함께 질병이 호전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하는 것에 보람이 크다</span>”고 말했다.<br/><br/> 고교 수학교사 출신으로 1983년 경희대 한의대에 새로 입학, 6년간 한의학을 공부해 40세에 한의원을 개원했다. 12년간 진료경험을 쌓고 일산으로 온 뒤 비만 전문한의원으로 이름이 나기 시작했다. 유명 인사들도 앞다투어 모여 들었는데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줌으로써 몸이 가볍고 건강해지도록 한 것이 소문이 난 것이다.<br/><br/> “그러나 제가 너무 무리를 한 탓에 한동안 진료를 접어야 했습니다. 저도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적으로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구요. 교회 장로로 이웃과 사회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의사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게 됐습니다.”<br/><br/> 조 원장은 지방 제거를 위해 먼저 환자의 몸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없애도록 돕는 것에 진료의 초점을 맞춘다. 독소를 빼 혈액을 맑게 하여 대사기능을 높여 주고, 한쪽으로 위의 축소를 도모해 소식(小食)을 하는 체질이 되게 하는 것. 이런 방법으로 부작용 없이 3개월간 15∼25㎏을 감량하게 만든다.<br/><br/> 내방한 환자들은 “소식(小食)을 하는 데도 힘이 나고 체지방은 날마다 줄어가면서 아픈 곳은 사라지고 컨디션은 좋아지니 신기하다. 젊은 시절의 체중과 컨디션을 회복하게 되니 매사에 자신이 생긴다”며 입을 모은다.<br/><br/> “30년 넘는 진료경험을 통해 본치(本治: 원인을 치료하는 것)가 중요하며 표치(表治:증상을 치료하는 것)로 그치면 평생 약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아왔습니다. 하의(下醫)는 병이 드러난 것을 치료하고, 병이 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상의(上醫)인데 해독이 바로 상의입니다.”<br/><br/> 조 원장은 “<span class='quot2'>피로하든지, 변비가 오든지, 비만해지든지,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면이 깊지 않다든지 증상이 오면 반드시 대사성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2'>현대인에게 해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span>”라고 거듭 강조했다. <br/><br/>□해독체험 사례 / 안경자 사모(66)<br/><br/>고양시 화정동에 작은교회를 개척해 한 사람, 한 가정을 온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 주로 남편 목사님과 심방을 많이 다니며 신앙을 독려했는데 반드시 식사접대가 따라와 사양치 않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었다.<br/><br/> 여기에 크고 작은 스트레스, 과로가 겹치면서 독소가 체지방으로 쌓여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을 10년 전부터 복용해야 했다. 역류성식도염도 생기고 당뇨증상이 깊어져 인슐린주사를 맞는 상태까지 되니 항우울제,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몸상태가 심해졌다.<br/><br/> 157cm의 키에 79kg까지 불어나 무릎, 허리관절에 변형이 와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br/><br/> 조 원장님을 만났을 당시 체지방만 33kg로 19kg 정도 오버되었고 기초대사량은 193kcal이 부족한 상태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 여기에 변비, 빈뇨증도 심했다.<br/><br/> 진단을 거쳐 해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바로 대소변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음식관리도 지도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또 청혈(淸血)과 해독(解毒)에 힘쓴 결과 매주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꾸준히 관리를 받았는데 체중은 20kg 정도가 감량되고(78.5→56.6) 체지방은 14kg 정도가 감량되었다(33kg→19.3kg). 아울러 기초대사량이 많이 올라갔고 나를 괴롭히던 고지혈, 고혈압, 관절통, 피로감등의 모든 증상이 개선됐다. 일년이 지난 요즈음도 체지방량은 19.2kg를 유지하는 가운데 깊은 수면도 취하고 우울증에서도 벗어났다.<br/><br/> 원장님은 주로 장(腸)기능이 활성화 되고 불면증이 개선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는데 이것이 체중감량과 신체리듬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건강을 되찾아 남편과 목회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해주신 조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br/><br/>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29.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59) 연세암병원 췌장담도암센터] 췌장·담도암 환자 1년 생존율 70%까지↑  
날짜: 2016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8180357269  
본문: 췌장암은 악질 중 악질로 불린다. 5년 생존율이 약 8%로 10대 암 가운데 최하위다. 특히 췌장암의 일종으로 환자의 약 90%를 차지하는 ‘관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이보다 더 낮은 2∼4%에 불과하다.<br/><br/> 췌장암은 한국인 암 사망원인 5위, 암 발생 순위 8∼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 발생빈도는 인구 10만명당 8∼9명꼴이다.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최근에는 주로 60∼70대 연령층에서 많이 발견된다.<br/><br/> 췌장암 치료의 최우선 방법은 수술이다. 그렇지만 수술이 가능한 1∼2병기는 췌장암 진단 환자 중 15∼30% 정도에 그친다. 다행히 수술을 받는다 해도 2년 이내 재발확률이 60∼80%로 높다. 대부분 수술 후 보조적으로 항암치료나 항암-방사선 동시 치료가 필요한 이유다.<br/><br/> 담도·담낭암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조기 진단이 어렵고 주변 장기나 림프절 전이도 흔해 예후가 좋지 않다. 담도·담낭암은 우리나라 전체 암의 2.6%를 차지해 발생률 8위에 올라있다. 췌장암과 비슷한 순위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것도 비슷하다. 다만 5년 생존율은 약 20%로 췌장암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br/><br/> 연세암병원 췌장담도암센터 소화기내과 방승민(45) 교수팀은 이런 난치성 췌장·담도암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1994년부터 다학제 통합 콘퍼런스를 운영해왔다. 이 회의에는 소화기외과와 방사선종양학과는 물론 영상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양팀 등 췌장·담도암 관련 의료진이 모두 참여한다. 췌장암 또는 담도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br/><br/> 연세암센터 췌장담도암센터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방 교수를 포함해 정재복, 송시영, 박승우, 박정엽, 정문재 교수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방 교수는 이들의 ‘허리’ 역할을 수행한다.<br/><br/> 췌장·담도암은 첫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방 교수팀은 암세포의 무한증식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며 융단폭격을 가하는 방식을 즐겨 쓴다. 항암-방사선 동시 치료 후 완전 췌장절제수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방 교수팀은 암세포가 주위 혈관까지 파먹은 경우에도 항암-방사선 동시치료 후 수술에 들어가는 것이 치료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br/><br/> 방 교수팀은 이런 방법으로 최근 5년간 췌장암과 담도암 환자들의 1년 생존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덕분에 수술이 가능해진 환자 수도 2배 이상 늘어났다. 그 결과 5년 생존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최근 10년 동안 췌장암에 효과가 있는 신약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치료율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br/><br/> 방 교수팀은 췌장·담도암의 기초 및 중개연구와 함께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연구도 적극 추진 중이다. 국내 최초로 진행하는 담도암 신약 코미녹스 임상시험연구, 췌장암에 대한 다기관 2상 폴피리녹스(FOLFIRINOX) 및 리아백스 임상시험 연구 등이 그것이다.<br/><br/> 내시경초음파와 경구담도내시경의 시술 효과를 배가시키는 연구도 하고 있다. 방 교수팀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지정 비가역적 전기천공술(IRE) 시술 전문기관 리스트에 연세암병원 췌장담도암센터의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연세암병원은 향후 3년간 췌장암 환자 중 국소 진행성 병기의 환자를 대상으로 IRE 시술을 독점 시행하는 지위를 얻었다. IRE 시술은 종양 내에 최대 3㎸의 고전압을 전달해 암조직의 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중요 혈관 등이 가까이 있어 수술이 쉽지 않을 때 특히 도움이 된다.<br/><br/> 연세암병원 췌장담도암센터에선 로봇과 복강경을 병용하는 소화기외과 의료진의 활약도 눈부시다. 로봇과 복강경을 이용한 비장 보존 췌장미부(尾部)절제술은 성공률이 95% 이상에 이를 정도다. 이들은 과거 개복 외엔 대안이 없었던 수술도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미세침습수술로 대체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연구결과 복강경 및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췌장절제수술을 받은 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5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br/><br/><br/>◆ 방승민 교수는 <br/><br/>췌장·담도 전문 교수들 중 ‘차세대 리더’… 내시경 기구 개발에도 열정<br/><br/><br/>1971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인천 송도고등학교를 나와 1996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인턴 및 전공의 과정을 1999∼2004년 (신촌)세브란스병원 내과에서 마쳤다. 이때 평생 갈고 닦을 전문분야로 치료율이 가장 낮은 췌장·담도암을 선택했다. 방 교수는 18일 “치료율이 낮다는 것은 의학자로서, 임상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고, 이를 통해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여지도 크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br/><br/> 방 교수는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췌장·담도 질환을 전문분야로 하는 임상교수들 가운데 ‘허리’ 역할을 하는 차세대 리더다. 2006년 스승이자 의업(醫業)의 멘토이기도 한 송시영(59)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에도 유전 경향이 있는 가족성 췌장암 환자가 전체 췌장암 환자의 약 6%에 이른다는 역학조사 연구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해 주목 받았다.<br/><br/> 방 교수는 2010∼2011년에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를 방문, ‘박사 후 연구원’ 자격으로 유전자 조작을 통한 췌장암 동물모델에 대해 집중 연구했다. 이후 췌장암 세포주 구축 및 이를 통한 우리나라 췌장암 환자들의 유전적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br/><br/> 방 교수는 내시경 기구 개발연구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캡슐내시경 미로(MIRO)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산업화한데 이어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 이동형 캡슐내시경’을 개발, 소화기내시경 분야 국제 학술지 ‘가스트로 인테스티널 엔도스코피’에 발표하기도 했다.<br/><br/> 방 교수는 아침식사를 과일 1, 2개로 가볍게 때우고 저녁에 한 끼만 먹는 식습관을 최근 10년간 유지해오고 있다. 방 교수는 “<span class='quot0'>오전에 외래 환자보고, 오후에 바로 내시경검사를 하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따로 찾아먹을 짬이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몸에 배게 된 식생활습관</span>”이라고 말했다.<br/><br/>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30.txt

제목: [조선 문명 개화에 힘쓴 윌리엄 베어드] 서울이냐? 평양이냐? 연합대학 장소 논란  
날짜: 2016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8174407149  
본문: 한국교회는 선교를 시작한 지 30년 만에 10만명의 성도와 노회, 총회를 갖춘 자치적 교회로 성장했다. 이 성공은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베어드가 평양에 부임한 지 15년 만에 그의 교육정책에 따라 평양 지역에만 100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생겼고, 3000명 이상의 남녀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다. 이 학교들은 지역 교회들에 의해 운영됐고, 그가 교육시킨 교사들이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전국 각지에 기독교 중등학교들이 생겨났고 평양에는 가장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으며 모든 기독교 교육체계의 정점인 숭실학당과 숭실대학이 있었다. <br/><br/> 평양외국인 학교의 설립<br/><br/> 베어드는 한국인을 위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외국인학교도 평양에 설립했다. 1899년 3월 첫 안식년을 맞은 베어드는 휴가를 떠나기 전 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 모두를 그의 집에 초대했다. 베어드는 이들에게 외국인학교의 설립을 제안해 동의를 얻었다. 그는 안식년 기간 중 미국 캔자스 주 공립학교 교사인 루이스 오길비를 만나 한국에 외국인학교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녀가 교사로 오는 데 동의를 얻어냈다. <br/><br/> 이듬해 5월 한국으로 돌아온 베어드는 자녀들이 있는 스왈렌 부부, 리 부부, 웰즈 부부 그리고 감리교의 노블 부부 및 폴웰 부부 등과 함께 외국인학교를 출범시켰다. 이것이 평양외국인학교의 시작이었다. 베어드에 의해 시작한 평양외국인학교에는 1920∼1930년대 한국 전역을 비롯해 몽골과 일본,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과 외교관, 상사 주재원들의 자녀들까지 입학했다. 학교는 선교사들이 사역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다. <br/><br/>대학문제의 발생<br/><br/> 에큐메니컬 흐름에 의해 조선에 ‘하나의 연합대학’ 구상이 떠오른 것은 1912년이었다. 하지만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평양이 좋은지, 서울이 좋은지를 두고 미국의 각 선교본부와 조선에 있는 각 선교부에서 대 논쟁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대학문제(College Question)’였다. 문제의 발단은 1912년 3월 서울에서 열린 감리교 선교부 연례회의의 결의였다. “<span class='quot0'>전 한국에 하나의 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되 그 대학의 위치는 서울로 한다</span>”는 내용을 담은 결의는 모든 재한선교부를 대표하는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 감리교의 결정은 평양 숭실대학의 폐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br/><br/> 이 결정의 배경에는 신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보수적인 베어드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감리교의 선교 방법과 정책 때문이었다. 감리교는 토착교회를 세우는 느린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서울에 최고의 대학을 세우고자 했다. 어쨌든 감리교가 한국에 하나의 연합기독교 대학을 설립하고 그것을 서울에 두기로 결정하자 사태는 극도로 악화됐다. <br/><br/> 교육위원회가 각 선교부의 의견을 조사하자 북장로교·남장로교·호주장로교 선교부는 모두 평양의 숭실대학을 폐교하고 서울에 다른 대학을 설립하려는 감리교의 주장을 극력 반대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는 한국에 하나의 대학만을 갖는다는 원칙을 가결하고, 평양의 숭실대학이 기존의 대학이기 때문에 서울에 새로운 대학을 세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토론을 거부했다. <br/><br/> 그러나 감리교 측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교육위원회 탈퇴를 통보하자, 교육위원회는 1912년 12월 이 문제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교육위원회는 대학 위치로 평양을 지지하였고 선교사들도 평양 63표, 서울 37표로 평양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다수가 평양을 지지함에도 장로교 선교부 내부가 감리교의 입장을 지지하는 서울의 언더우드 측과 이를 반대하는 평양의 베어드, 마포삼열 측으로 분열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교육위원회는 그 결과를 미국의 합동위원회에 보고하고 결정을 위임했다. <br/><br/> 교육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합동위원회는 이 문제를 검토하고 대학 위치를 서울로 정했다. 미국 북장로회 선교본부도 이를 승인했다. 미국 선교본부의 결정이 나자 한국선교부는 즉각 거부했고 길고도 격렬한 항의를 지속했다. 1914년을 넘기면서 한국선교부의 항의에 부딪친 미국 선교본부는 본부서한 249호를 통해 두 대학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한 대학과 반(半)대학을 허가한다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 또한 사실상 숭실대학을 초급대학으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대학의 존치를 승인한 것이었다. 한국선교부는 이러한 상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r/><br/> 이때 베어드는 “이 결정은 내 양심을 걸고 협력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그 방법과 정책, 목적, 행정 등은 내가 일생을 바쳐 걸어왔던 길과는 정반대이다. 이후 교육 분야에서 진행될 정책은 내가 자신 있게 지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교본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br/><br/> 대학문제의 결과<br/><br/> 1915년이 되면서 한국선교부는 대학문제의 최종 해결책으로 미국 장로회 총회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총회는 이 문제의 중재인으로 의장이었던 토머스 굿을 임명하고, 1920년 여름까지 선교본부와 선교부의 대표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많은 서신들을 검토했다. 그 결과 총회는 서울과 평양에 대학 설립을 승인해 선교본부와 선교부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답을 제공했다. <br/><br/> 그러나 감리교는 1914년 평양에서의 교육 사업에서 이탈해 1916년 서울에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더불어 조선기독교대학, 곧 연희대학을 발족시켰다. 숭실은 감리교가 이탈한 후에도 남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호주장로회의 지원으로 계속 존속했다. <br/><br/> 그러나 대학문제의 후유증으로 베어드는 1916년 3월 31일 숭실대학 교장직을 사임했고, 안타깝게도 언더우드는 암이 발병해 1916년 미국에서 서거했다. 대학문제는 대학의 설치 장소뿐 아니라 교육 이념과 성격에 관한 문제였다. 선교사들 사이에는 평양이 ‘복음적’이며 서울은 ‘세속적 교육’을 중시한다는 이해가 있었다. 곧 숭실대학의 ‘토착적 기독교교육론’과 연희대학의 ‘기독교사회교육론’의 대립이었다.<br/><br/>김명배 교수 (숭실대 베어드학부대학 주임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3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 웃고 ‘서바릭스’ 울고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90005711  
본문: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약 20만원 상당의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무료로 접종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두 가지 백신인 한국MSD의 ‘가다실’과 GSK의 ‘서바릭스’ 가격을 개별 산정키로 결정했다. 백신 가격은 가다실이 서바릭스보다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br/><br/>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을 위해 국내 시판 허가된 ‘서바릭스’, ‘가다실’ 두 백신의 조달단가를 각각 개별 산정해 4월 중에 백신조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 이번 가격 이원화 결정은 정부가 두 백신의 차이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조달단가를 결정할 때 도입목적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 효능, 안전성 및 접종 편의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각 백신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가격으로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다만 백신의 차이가 있으면 다른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두 백신을 모두 도입할 예정이다. 백신에 대한 식약처 허가 효능에서 두 백신에 차이가 있어 백신별로 조달단가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br/><br/> 두 제약회사는 그동안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도입을 위한 가격 개별 산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한국MSD측은 “<span class='quot1'>질병관리본부가 자궁경부암 백신별로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가격이원화 방침을 정할 것</span>”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결국 가격 개별 산정으로 결론이 내려졌다.<br/><br/> 그동안 한국MSD는 가다실이 서바릭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NIP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4가 백신인 가다실이 자궁경부암 뿐 아니라 HPV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기 사마귀 등도 예방하는 만큼 자궁경부암 예방만을 적응증으로 한 서바릭스보다보다 가격면에서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br/><br/> GSK는 가다실과 서바릭스를 같은 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 성기 사마귀 예방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더불어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사업인 만큼 ‘자궁경부암 예방효과’만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GSK 측은 “4가 백신이냐, 2가 백신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에 있어서는 동일한 효과를 가진 백신이므로 가격에 차이를 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국가 건보재정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br/><br/>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정부가 서바릭스와 가다실의 가격 이원화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MSD가 시장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GSK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부의 가격 이원화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 백신 수요자들이 2가지 백신 중 어떤 백신을 선택을 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br/><br/>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3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이것만은 꼭 지키자” 암 예방 수칙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90004405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br/> <br/>우리 삶 속에는 몸에 좋은 것들보다 몸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이 더 많다.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이 필요하다.<br/><br/> 올해 암 예방의 날 주제는 ‘음주’였는데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하면 음주는 1군 발암요인으로 구강암·인후암·후두암·식도암·간암·유방암·직장암·대장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 EU는 2014년 ‘암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 것’이라며 권고사항을 강화하기도 했다. 2013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74%, 여성의 43%가 한달에 한번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고위험 음주 유형이 14%를 차지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국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3000명 이상 음주로 인해 암이 발생하고 1000명 이상이 음주로 인한 암으로 사망한다. 특히 남성은 암 발생의 약 3%가 음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 대표적인 암 유발요인인 흡연의 위협은 더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흡연과 관련이 있는 질환의 진료인원은 28만명을 넘고, 진료비도 1430억원에 달했다. 여성에게는 특히 위해한데 가임기에 속하는 20∼40대 흡연 여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자궁 외 임신 가능성이 2.2배 높으며, 흡연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은 호흡기 질환이나 정신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보고도 있다. 간접흡연 피해도 큰데 ‘간접흡연과 아동의 건강에 관한 WHO 보고서’에 따르면 신체건강측면에서는 아동의 정상적인 폐기능 발달을 저해하고, 만성 또는 급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며, 정신건강측면에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증상을 일으킨다고 강조하고 있다. <br/><br/> 더 큰 문제는 부모와 손위 형제·자매가 흡연할 경우 청소년의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금연선도학교 2014년 조사에서도 함께 사는 가족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 흡연자(80.3%)가 비흡연자(70.2%)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 부모, 형제자매가 흡연자인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이 각각 1.6배, 4배 높았고, 청소년의 매일 흡연율은 각각 1.9배, 5.6배 높았다.<br/><br/> 암을 예방의 가장 기본은 암검진을 받는 것이다. 반면 국민 10명 중 3명은 국가 암검진 또는 개인 암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2014년 암검진 수검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암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67.3%였다. 암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서 권고하는 검진주기에 따라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료로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국가암검진 뿐만 아니라 개인검진으로 받은 암검진 수검률도 포함한다. <br/><br/> 선진국들과 암검진 수검률을 비교하면 유방암은 한국(66%)이 일본(14.7%)에 비해 높지만 미국(66.5%)과 영국(73.4%)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장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29.1%)이 미국(13.2%)이나 일본(16.1%)에 비해 높았다. 암검진 장기 미수검의 이유는 ‘건강하기 때문’(40.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1.5%)와 ‘검사과정의 힘듦’(16.4%), ‘암 발견의 두려움’(9.6%)순이었다.<br/><br/> 한편. 보건복지부는 암 예방을 위해 고위험 흡연자에 대한 폐암 검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33.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원자력의학원 유방암 전이 촉진 기전 규명 外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85859377  
본문: ◇원자력의학원 유방암 전이 촉진 기전 규명=한국원자력의학원은 유방암 전이의 핵심과정을 촉진하는 기전을 규명해 암 전이억제 기술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원자력의학원 한영훈 박사팀은 세포내 특정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마이크로알엔에이(microRNA) 중에서 암 전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MDM2와 E-cadherin의 발현을 동시에 억제하는 마이크로알엔에이 ‘miR-5003-3p’를 찾아냈다. <br/><br/> 연구팀은 유방암 전이 조직에서 많이 발현되는 ‘miR-5003-3p’가 발암 단백질(MDM2)을 억제해 암 전이 유도 단백질(Snail)을 안정화시켜 전이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br/><br/><br/><br/>◇비소세포성 폐암, 세포 돌연변이 종류 따라 치료효과 달라=비소세포성 폐암의 경우 세포 돌연변이 종류에 따라 치료제의 치료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사용되는 1차 치료로 EGFR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의 효과가 수용체 돌연변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br/><br/>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 최진혁 교수팀(이현우·최용원 교수)은 2011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아주대병원에서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받고 1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로 EGFR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인 게피티닙(gefitinib)을 투여 받은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생존기간과 예후인자를 분석해 이같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br/><br/><br/><br/>◇면역항암제 ‘옵디보’ 비소세포폐암 적응증 획득=면역항암제 ‘옵디보’가 흑색종 환자에 이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도 쓰일 수 있게 됐다. 폐암은 한국에서 사망자가 많은 암 중 하나다. 특히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약 85%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폐암이다.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은 항PD-1 면역항암제 옵디보주(성분명·니볼루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PD-L1 발현여부와 관계 없이 이전 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국내의 추가 적응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br/><br/><br/><br/>◇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없다’=최근 일본의 일부 여성들이 제기한 자궁경부암 백신(HPV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학계의 입장이 나왔다.<br/><br/>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부인종양학회는 최근 논란이 된 자궁경부암 백신 논란과 관련해 “<span class='quot0'>백신은 장기간 안전성 입증이 충분히 됐으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span>”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본 일부 여성들과 법조인들은 일본 정부와 백신 제조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부인종양학회는 6월 자궁경부암 백신의 우리나라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도입을 앞두고, 일본 소수단체의 주장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br/><br/><br/><br/>◇서울아산병원 21일 ‘암환자 통증과 부종치료’ 강좌=서울아산병원은 21일 오후 2시부터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암환자 통증과 부종치료’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br/><br/> 이날 강좌는 재활의학과 전재용 교수와 종양내과 김정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이번 강좌에서는 암 환자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증과 부종에 관한 올바른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한 명쾌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일반인의 궁금증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3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신규 암환자 등록, 남성 70∼74세·여성 50∼54세 가장 많아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85857856  
본문: 대부분의 암 종류에서 신규 암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연보 2013, 2014를 비교·분석한 결과, 신규 중증(암)등록환자는 소폭으로 줄어든 반면 대부분의 암에서는 환자가 증가했다. 2013년과 2014년의 시도별 신규 중증암등록환자의 암 유형별 진료인원 현황(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신규 중증암 등록인원, 사망자·재등록자 포함)을 보면 전체 신규 암환자는 2013년 25만1025명에서 2014년 24만7828명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또 2014년 기준 진료인원은 24만4692명이었고, 이들의 1년간 진료비는 2조1058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는 약 85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신규 암환자의 경우 약 1%만 등록하고 진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암 종별로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폐암(1만9475명에서 2만265명) △유방암(1만7388명에서 1만8405명) △간암(1만6409명에서 1만6562명) △피부암(4568명에서 5078명)△췌장암(4577명에서 4925명) △신장암(3836명에서 4047명) △비호지킨림프종(3566명에서 3620명) △담도암(2371명에서 2548명) △난소암(2223명에서 2400명) △다발성골수종(1289명에서 1451명) 등 대부분의 암 종류에서 환자수가 증가했다. <br/><br/> 반면 △갑상샘암(4만2738명에서 3만2631명) △위암(2만8502명에서 2만8287명) △대장암(2만5333명에서 2만5053명) △자궁경부암(3311명에서 3178명) △후두암(1197명에서 1113명) 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14년 등록 기준 경기지역이 5만39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만8997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서울·부산·광주·대전·충청지역은 신규 암환자가 감소한 반면, 대구·인천·강원·전북·경북·제주 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 2014년 기준 연령별 신규 암 등록인원 중 진료실인원은 △55∼59세(2만9258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70∼74세(2만9066명) △60∼64세(2만6936명) △65∼69세(2만6702명) △50∼54세(2만6453명) 순이었다. <br/><br/> 성별로는 일부 연령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60·70대에서 많았고, 여성은 40·50대에서 신규 암환자가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 70∼74세가 1만8355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1만6654명), 60∼64세(1만5437명), 75∼79세(1만4955명), 55∼59세(1만4577명)가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은 50∼54세(1만5696명), 55∼59세(1만4577명), 45∼49세(1만3313명), 40∼44세(1만1762명), 60∼64세(1만1499명) 순으로 많았다.<br/><br/> 2014년 기준 건강보험진료비는 54조4272억원으로 이중 악성신생물(암 등)에 의한 진료비가 4조58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신생물 진료인원을 보면 2007년 63만6000여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117만2000여명으로 7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진료비 역시 2007년 2조4465억원에서 2014년 4조5806억원으로 전년대비 8.8%, 연평균 9.4% 증가했다. <br/><br/> 한편, 국립암센터 정규원 암등록통계과장이 국립암센터 DB(국가 암 등록사업 결과)에 수록된 1999∼2012년 암 발생기록과 통계청의 1993∼2013년 암 사망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국내에서 28만556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7만6698명이 암으로 인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새로 암 진단을 받게 될 전체 예상 환자(28만556명) 중 여성 환자는 14만2809명으로, 남성 환자(13만7747명)보다 약간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br/><br/>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35.txt

제목: [질환 통계-자궁경부암] 40대 여성 가장 많이 발병, 10대는 3년새 두배이상 늘어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84924880  
본문: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키로 한 가운데 자궁경부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가장 흔한 여성암 중 하나이던 자궁경부암은 조기검진 등으로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성생활 시작 연령은 낮아지면서 자궁경부암 전 단계에서 치료받는 환자는 늘고 있는 상황이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환자는 2010년 5만3243명이던 환자는 2014년 2만751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신규 환자는 2013년 3311명에서 2014년 3178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5년간 자궁경부암 환자수를 보면 2010년 5만3243명에서 2011년 5만3131명, 2012년 5만2996명, 2013년 5만3956명, 2014년 5만7521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40대(40∼49세)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50∼59세), 30대(30∼39세), 60대(60∼69세), 70대(70∼79세), 20대(20∼29세), 80세 이상, 10대(10∼19세) 순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점은 10대의 경우 2011년 11명에서 2014년 3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내원일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는데 2014년 기준 환자 1명당 평균 내원일수는 80세 이상이 21일로 가장 높았고, 이어 △70대 11일 △60대·50대 각각 9일 △40대 8일 △30대 6일 △20대 5일 순이었다. 보험자 부담금은 70대가 16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143만원 △60대 138만원 △40대 121만원 △10대 113만원 △30대 96만원 △20대 7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자궁경부암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9993명이 등록돼 있었다. 이어 서울(8706명), 부산(3280명), 경남(2608명), 인천(2546명), 경북(23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양기관 소재지별 환자수를 보면 서울이 2만3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만615명), 부산(5358명), 대구(4842명), 인천(2412명)이 뒤를 이었다.<br/><br/> 또 항문생식기 사마귀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4만6785명으로 남성(3만1412명)이 여성(1만5373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성·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30대(남성 1만2258명), 20대(1만1165명), 40대(4950명), 50대(1741명)의 순이었고, 여성은 20대(7562명), 30대(여성 3565명), 40대(1883명), 10대(1125명) 순으로 나타났다.<br/><br/> 보건당국은 젊은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증가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국가 암 무료검진 대상을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 여성으로 대폭 확대하며 자궁경부암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2014년 암검진 수검행태 조사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66.1%로 미국 73.8%, 영국 77.8%, 일본 19.4%로 미국·영국보다는 낮고, 일본에 비해서는 높았다. <br/><br/> 또 미국·캐나다 등 서구 선진국들과 일본에서는 자궁경부암검진을 20대부터 시행하도록 권고하거나, 국가검진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조사에서는 20대 여성(500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검진 수검률 조사를 추가한 결과, 최근 2년 이내 검진을 받은 경우가 12.8%로 이는 30대(56.1%), 40대(72.9%)의 수검률과 비교했을 대 20대의 자궁경부암 수검률이 매우 낮았다. <br/><br/>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총무이사는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은 고위험군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의 감염으로 시작되는 질병으로 발병 원리가 밝혀진 만큼 백신접종 등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span>”이라고 조언했다. <br/><br/>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36.txt

제목: [암과의 동행] 흡연, 폐기능 발전 저하시켜 청소년에 더 위험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84923931  
본문: 암 사망원인 1위 폐암의 주 원인은 바로 흡연이다. 성인도 자제해야 할 판국에 청소년 흡연자가 날이 갈수록 문제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국적으로 7만명 정도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을 비롯한 건강관련 생활습관을 조사하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br/><br/>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전체 흡연율은 7.8%로, 남학생이 11.9%, 여학생이 3.2%였다.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또한 15세에 흡연을 시작하면 수명이 8년 짧아지며, 흡연시작 연령이 13세인 경우 23세인 경우에 비해 50세에 폐암에 걸릴 위험성이 3.5배 높다고 한다. 이는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이 위험하다는 신호다.<br/><br/> 박순우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추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지난 10년 동안 남학생의 경우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 3∼4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학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1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span>”고 말했다. <br/><br/> 하지만 일각에서는 흡연 조사시 청소년들이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아 이는 정확한 수치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물론 조사 결과보다는 실제 흡연율이 높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그러나 흡연율 변화의 추이 자체는 인정해야 한다. 흡연 사실을 숨기는 청소년의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br/><br/> 이어 그는 “<span class='quot0'>또한 최근 흡연 문제가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span>”며 이유를 덧붙였다. 그럼에도 남자 고등학생 5명 중 1명이 담배를 피운다는 건,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인 건 사실이다.<br/><br/> 그럼 왜 청소년은 흡연을 하는 것일까. 박 교수는 가장 큰 이유로 ‘스트레스’를 꼽았다. 이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친구가 피우라고 권해서, 습관적으로, 멋으로,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 등이 있다. 박 교수는 “직접적인 이유에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행요인은 또래의 영향이다. 첫 흡연 시작도 담배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친구의 권유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흡연자로 발전하는 것 역시 또래 그룹에서 흡연이 규범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br/><br/> 하지만 청소년 시기는 성장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몸에 세포가 외부 독성 물질에 취약하다고 박 교수는 우려했다. 그는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폐의 조직을 손상시키고, 폐발육과 폐기능 발달을 지연시키며 천식 등 호흡기 증상을 유발한다.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의 초기 증상이 이 시기에 나타나기도 하고, 심혈관계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나아가 확실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와도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br/><br/> 따라서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사회 및 생활환경에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사회 전반적으로 흡연이 비정상적인 행위라는 규범이 자리 잡아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br/>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부모부터 자녀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고,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 집안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교 내에서 흡연예방교육뿐 아니라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청소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금연구역 단속도 강화돼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br/>박예슬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37.txt

제목: [암과의 동행] 미세먼지, 암 발병 연관 드러났지만 마스크 외엔 대처법 없어…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84922318  
본문: 꽃과 새싹들이 피어나는 계절인 봄은 눈을 즐겁지만 호흡기에는 치명적인 계절이다.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박은영 국립암센터 발암원관리사업 과장은 미세먼지는 봄철에만 유의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과장은 “미세먼지가 봄철에 특히 강조되지만 사실 미세먼지의 건강 위해성은 계절과 상관없이 그 농도가 문제다. 겨울철에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유지되는 날이 많다”고 말했다.<br/><br/> 미세먼지는 무수히 많은 자연적, 인위적 배출원에서 기인한 여러 오염물질이 혼합돼 만들어지며, 수송 교통, 발전, 산업 활동 바이오매스(생물연료) 연소, 가정의 난방 및 요리 등 많은 곳에서 배출된다. 지난 2013년 국제암연구소(IARC)는 대기 중 미세먼지에 대해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한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한 바 있다. 또한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 저하를 유발한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입자는 매우 미세해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및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이와 관련 지난달 대만에서는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암 위험이 상승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은영 과장은 해당 연구만으로 일반화시키기엔 부족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박 과장은 “<span class='quot0'>대만의 연구는 대기의 미세먼지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해 초미세먼지 4년 평균 자료를 이용해 간암 발생률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발암기전으로 염증반응을 제시한 것으로 하나의 논문일 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현재까지 미세먼지가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암종은 폐암뿐이다</span>”고 설명했다.<br/><br/> 물론 박 과장은 미세먼지와 암과의 상관관계는 인정했다. 그는 “미세먼지에 발암성이 있다는 결론은 역학연구와 동물실험을 통한 암 연구, 암 관련 기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일관성을 보이며 확인됐다”며 “폐암의 위험 증가는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의 수백만명과 수천의 폐암 사례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와 환자-대조군 연구들에서 한결같이 관찰됐다. 또한 대기오염과 연관된 위험 증가는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연구 대부분이 초미세먼지 연평균 노출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하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수행됐다는 사실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재의 건강 기반 가이드라인 기준보다 낮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생각보다 적은 농도의 미세먼지로 인해서도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br/><br/> 현재 미세먼지를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는 상태라는 것이 박은영 과장의 입장이다. 박 과장은 “특수 제작된 마스크를 쓴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대다수의 국민에게 이를 대처법으로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어린이 등 민감인구집단에서는 더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Air Korea)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처법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 정도다.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보다 확실한 대처법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br/><br/>박예슬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38.txt

제목: [암과의 동행] 하루 2잔이라도 안돼！ 술 해외연구 “모든 암 근원”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84921801  
본문: 매년 3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암 예방의 날’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제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암 예방수칙 관련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음주 관련 암 에방수칙이 눈길을 끈다. <br/><br/> 기존의 음주 관련 암 예방수칙은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됐다.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음주가 암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노혜미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알아본다.<br/><br/> 음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암은 다양하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술은 구강, 인후, 후두, 식도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한 대표적으로 간암 위험성을 높이고 대장, 직장암, 유방암 발생에도 영향을 준다. 노혜미 교수는 “<span class='quot0'>술을 마시면 호흡기관 상부와 식도의 점막이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손상돼 암이 유발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알코올은 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지속되면 바렛식도로 진행되며, 바렛식도는 식도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span>”고 설명했다. <br/><br/> 이어 노 교수는 “간암은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간 손상으로 발생되며,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간경화 등 알코올 간질환이 동반된다. 또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따라서 음주는 식도암 위험을 높이고, 직장 점막에서 세포 증식 속도를 증가시켜 대장암과 대장용종을 일으킨다”고 덧붙였다.<br/><br/>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은 아세트알데히드를 아세테이트로 분해시키는 효소의 기능이 낮은 사람이 많다. 이 경우 아세트알데히드가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돼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갛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암 발생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br/><br/> 하지만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음주를 아예 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 노 교수는 “<span class='quot1'>첫 잔을 한 번에 다 마시려고 하지 말라</span>”고 당부했다. 노혜미 교수는 “술은 되도록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마셔야 한다. 또 빈속에 술을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한다”며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덜 취하게 된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 수분과 당분이 필요하므로, 술을 마시는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안주는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삼가고 북어나 조개, 콩나물 등 알코올 분해에 도움되는 재료가 들어간 국물이나 채소, 과일 등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br/><br/> 금주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노 교수는 “<span class='quot1'>술을 줄이기 위한 자신만의 동기를 만들고 주변에 알릴 것</span>”을 권고했다. 이어 “본인의 건강 챙기기, 가족에게 미안한 일 만들지 않기, 자녀에게 좋은 부모 되기 등 자신이 적정 음주 권고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br/><br/> 특히 노 교수는 “음주를 권하는 환경에 대비해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자신의 음주 습관을 돌이켜 보고 언제, 누구와 함께 하는 술자리에서 폭음을 하게 되는지 파악해봐야 한다”며 “만약 개인의 노력으로도 절주가 어렵다면 지역 보건소나 알코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br/><br/>박예슬 기자 yes22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39.txt

제목: [암과의 동행] 희귀암 환자 ‘보장성 문턱’ 더 낮춰야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84815088  
본문: “차라리 이름이라도 들어본 암이라고 하면 수긍이라도 하죠. 생전 처음 들어본 질병인데 치료제도 마땅치 않아 막막한 심정이에요.” 희귀암을 앓고 있는 남편을 둔 김혜자(가명)씨은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씨는 “<span class='quot0'>값비싼 치료비 부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희귀암에 대한 정보 부족</span>”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br/><br/> 일반인들에게는 이름도 낯선 ‘희귀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가 국내에서 약 20∼35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등록된 환자는 약 3만여명에 불과하다. 정부에서 집계하지 않은 환자들만 합쳐도 수십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희귀암이나 희귀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의 문턱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br/><br/> 희귀암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 본인의 질환을 받아들이고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낸다. 또한 희귀암은 표준화된 치료방법이 많지 않아 재발 시 항암치료를 받더라도 좋은 치료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br/><br/> 이와 관련 최근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도 크게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희귀질환의 종류는 7000여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제는 질환의 5∼10% 밖에 개발되지 않았고, 이 마저도 완치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약제는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환자군이 적어 정부에서 치료 혜택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고통이 크다는 점이다.<br/><br/> 희귀암은 상황이 더 녹록치 않다.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등 획기적인 치료제들이 개발됐지만, 희귀암은 마땅한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완치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수년전부터 글로벌 제약사들이 희귀암과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환자들에게도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에도 희귀암 표적치료제들이 출시되면서 국내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치료제의 경우 비싼 치료비용 때문에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따라서 보장성 문턱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거나, 위험분담제 등을 통해 하루 빨리 환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희귀의약품 지정요건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다.<br/><br/> 이와 관련,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요건’ 개선을 위한 6개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점은 환자들에게 희소식이다. 희귀의약품은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시판 허가를 받은 희귀의약품은 93개 회사의 353개 제품이다. 그 동안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생산 또는 수입 금액이 15억원(미화 15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고가의 제품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앞으로 생산규모 제한이 없이도 환자수가 2만명 이하이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등이 개선된 의약품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희귀암·희귀질환 환자들이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치료 혜택을 밖에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40.txt

제목: [암과의 동행-인터뷰] 리처드 유 한국로슈진단 대표 “저평가된 진단의 중요성 널리 알리겠다”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83857641  
본문: “진단은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 과정, 치료 후 모니터링까지 모든 의료행위에서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앞으로 진단의 가치는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br/><br/> 지난해 4월 취임한 한국로슈진단 리처드 유(Richard Yiu) 대표는 “<span class='quot0'>태아의 다운증후군 판별 여부 검사부터 각종 암 선별검사까지 진단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여전히 진단이 갖고 있는 가치가 ‘저평가’된 측면이 있어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로슈그룹은 1896년 설립돼 110년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매년 매출의 19.5%(약 11조원)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로슈진단은 로슈그룹의 진단사업부로, 전 세계 체외진단(IVD) 분야 선두업체로 평가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질병의 예방, 조기발견, 진단, 치료 및 모니터링을 위한 광범위한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다.<br/><br/> 중국로슈진단 조직진단사업본부장을 거쳐 한국로슈진단 대표이사 취임 1년을 맞은 리어드 유 대표. 그는 한국과 중국의 의료환경 차이점에 대해 “중국은 의료시설이나 환경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지역 의료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의료인들의 수준이 높아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혁신적인 의료솔루션을 신속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진단 분야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br/><br/> 로슈진단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혈액검사기, 패혈증 진단기, 자궁경부암 검사 진단기 등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로슈진단이 중점을 두는 사업이 ‘동반진단’분야다. 허셉틴은 유방암, 위암 환자의 15%, 잴코리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약 3% 정도에만 투여가 가능하다. 회사는 이들 표적항암제로 치료 가능한 환자를 선별하는 동반진단검사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br/><br/> 유 대표는 “특정 암유전자 변이 환자에게만 사용 가능한 표적항암제 치료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 환자 선별을 위한 동반진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키트루다나 옵디보와 같은 면역항암제 환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동반진단의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면역항암제 선별을 위한 진단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br/><br/> 유 대표가 표방한 한국로슈진단의 경영 모토는 ‘개방된 문화(Open Culture)’다. 이와 관련 최근 로슈진단은 ‘HearRo(I hear you, Roche)’ 캠페인 추진 중이다. 이는 ‘경청과 존중’으로 직원 모두가 히어로가 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유 대표는 최근 삼성이 직급 단순화, 수평적 호칭을 담은 전략을 발표한 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 회사도 직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토론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한 기업 문화를 목표로 한다”며 “회의시간에 항상 상급자만 이야기하고 하급자는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직원이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새로운 회의문화와 존중 문화 캠페인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41.txt

제목: [암과의 동행-토론회] 항암신약 경제성평가제 이대로 좋은가… 급여화까지 너무 더뎌 환자만 속탄다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83858424  
본문: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대한혈액학회 산하 다발성골수종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난 15일 ‘신약의 경제성 평가 및 환자 접근성 대안 모색’을 주제로 제31회 고품격 건강사회만들기 방송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항암 신약에 대한 경제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br/><br/>◇주제= ‘신약의 경제성 평가 및 환자 접근성 대안 모색’<br/><br/>◇일시= 2016년 4월 15일 오후 2시<br/><br/>◇참석=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회장, 김진석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 교수, 이제중 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 교수<br/><br/>◇진행= 원미연 쿠키건강TV 아나운서<br/><br/>◇연출= 쿠키건강TV 신소연 PD<br/><br/>◇방송= 2016년 4월 25일 쿠키건강TV<br/><br/>-국내 암환자 보장성 현황과 평가<br/><br/>◇고형우=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201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약제는 155품목을 보험급여 할 예정이었으나 확대해 164품목을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여기에는 항암제도 포함돼 있어 암환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금년에는 희귀질환에 대한 급여를 강화하고, 사회적 요구는 높으나 비용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은 약제에 대해 보장성 강화를 고민하고 있다.<br/><br/>◇김진석= 암 환자는 전체 진료비의 5%만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치료약의 경우 급여가 되기 전까지는 비용을 다 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문제는 속도다. 보장성 강화가 신속히 돼야 환자들이 전체 비용을 다 내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br/><br/>◇백민환=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이 많다. 금년 초 200여 품목을 보험급여 추진하겠다는 정부 시책에 희망을 가졌지만 올해 2월에 신약인 포말리스트가 보험급여에 실패했다.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17조원이라고 하는데 왜 환자들에게 혜택이 못 가고 있는지 답답하다.<br/><br/>◇이제중= 해외에서 좋은 신약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환자들이 실제로 사용하기 까지는 속도가 늦다. 특히 다발골수종은 쓸 수 있는 약이 한정돼 있어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절박하다. 신약이 한정돼 있는 질환은 조금 더 빨리 급여를 해야 한다. <br/><br/><br/><br/>-다발골수종을 통해 본 혈액암 치료와 신약 접근성<br/><br/>◇이= 다발골수종 1차 약제는 벨케이드로 부작용이 있거나 재발할 경우, 2차 약제로 레블리미드를 사용한다. 이후로 병이 계속 진행되면 포말리스트를 사용하는데 대다수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른 항암제를 조합해 사용한 뒤 쓸 약이 없어지면 마지막으로 포말리스트를 생각한다. 하지만 그 때 사용하면 이미 늦는다. 경제성평가는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 환자들이 다른 약제들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포말리스트를 썼을 때, 그것이 경제적으로 유효할지 아니면 좋은 약을 조기에 써서 약가를 줄일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환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처방하게 되는 약이 포말리스트이다. 조기에 사용해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이미 포말리스트의 유효성 평가는 국제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임상적 유효성을 위험분담제 거절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br/><br/>◇김= 우리나라는 신약 보험급여가 해외에 비해 더딘 편이다. 급여를 위해서는 3상 연구를 마치고 추적관찰을 통해 생존율 향상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고형암이 1년이 걸린다면 혈액암은 3∼4년 걸린다. 또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제약사가 약가를 낮추기 어려워 정부와 가격 협상이 어렵다. 정부는 급여 승인을 할 때 대체약제를 고려한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다발골수종은 대체약제가 있어도 신약이 필요하다. <br/><br/>◇고= 다발골수종은 진료비 중 약제비가 50% 이상 차지한다. 정부는 전년대비 2013년에는 15%, 2015년에는 18% 진료비 급여율을 증가시켰다. 약제비 급여율은 24%, 25%까지 증가시켰다. 암질환은 본인부담이 5%로 적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용 효과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경제성평가는 1QALY(1년간 환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효과 분의 약제비) 당 1GDP로 계산한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1GDP 안에서 결정된다. 다만, 항암제는 약가가 높기 때문에 2GDP까지 보험 급여가 가능하다. 약가가 문제될 경우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약가를 낮춰 경제성평가가 유용하게 되도록 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약이 최대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임상적 유용성이나 경제성평가 등 비용효과성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 적정한 가격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br/><br/>◇김= 급여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를 가장 많이 하는데 실제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으로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현재 급여 평가에서 경제성평가 자료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 정부는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구하고 함께 의논함으로써 유동성 있게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br/><br/>◇백= 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성평가가 아니라, 보험급여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여부이다. 급여 결정을 하는데 경제성평가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듯한데 환자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또 경제성 평가를 하기 어려운 치료제가 있다면 정부는 다른 제도나 방법을 통해서라도 환자를 구제해주어야 한다.<br/><br/><br/><br/>-신약의 경제성평가와 위험분담제, 환자는<br/><br/>◇고= 포말리스트 경제성 평가 결과, 비용은 높은 편이지만 임상적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 때문에 약가를 낮추든지 개선 효과를 입증하든지 해야 한다. 비용은 제약사가 제시하며, 효과는 임상시험 데이터로 입증해야 한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br/><br/>◇김= 임상 연구에서 A 약제를 사용하지 못한 환자도, 이후에 A 약제를 사용해 동일한 생존율 효과를 보일 수 있는데 바로 교차 투여다. 때문에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질환은 장기 생존을 입증하기 어렵다. 천천히 진행되는 혈액암은 전체생존율로 약제의 효능을 판단할 수 없으며, 무진행생존율에 차이가 있다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반면 정부는 전체생존율에 차이가 나는 약을 우선적으로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전체생존율에 차이가 없더라도 좋은 약을 가려낸다면 국가 입장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br/><br/>◇백= 현재 환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처럼 생각한다.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인데 경제성평가로 인해 급여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약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상태가 그나마 좋을 때 사용해야지 늦게 사용하면 약의 효능을 많이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포말리스트 외 다잘렉스, 키프롤리스, 파노비노스타트 등 다발골수종 신약이 있다고 한다. 현재 포말리스트 보험급여도 늦는 상황에 이러한 신약들은 또 언제 보험 급여가 될 지 걱정된다.<br/><br/>◇김= 포말리스트에 관심이 큰 이유는 향후 다발골수종 신약들의 급여 방향성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특성을 가진 혈액암에서의 신약들에 대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3상 임상연구를 통해 대조약 대비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검증해 전문가 입장에서는 임상적 유효성은 검증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경제성 지표만으로 급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 이러한 신약들이 급여권 안으로 들어오길 기대한다.<br/><br/>◇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차투여 했을 때 임상 연구 효과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 현재 위험분담제는 계약을 하면 4년 동안 유지되고,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급여 기준 확대가 불가능하다. 또 위험분담제를 적용하는 대상이 대체제가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br/><br/>◇이= 약가가 문제라면 정부와 제약업계가 조금씩 양보해 보험급여 시간을 단축시키길 바란다. 환자들이 항상 물어보는 말이 제 신약이 급여가 되냐는 것이다. 약이 출시됐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불행한 현실이 해결돼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br/><br/>◇백= 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성 평가가 아니라 급여가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슬로건인 힘이 되는 평생 친구가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희망한다. 정부가 환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해 체감도가 높아지길 희망한다.<br/><br/>◇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나 허가초과 사용 등 정비 방안을 검토하겠다. 오늘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리=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42.txt

제목: 홍지영 가천대교수 “경제성 평가 인프라-의사결정 투명성 부족”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83753136  
본문: 홍지영 가천대학교 헬스케어경영학과 교수는 의약품 경제성평가에 대해 개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들과 비교 하면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경제성 평가 기준 자체는 엄격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성평가의 경우 몇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우선 경제성 평가를 담당할 연구인력 및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제성 평가 지침의 명확성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제약사에서 비용효과 모델 개발 시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국가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여러 가정 및 추가자료 수집을 통해 결과물을 따로 산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차투여와 관련해서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문제로 교투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Intention-to-treat(ITT, 임상에서 시험약을 투여 받은 환자는 모두 분석에 포함하는 것으로 중토 탈락하거나 사정상 추후에 약제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약제를 투여 받은 것으로 분석에 포함) 방식으로 신약의 효능을 평가하면 대조군의 임상효과를 과대 추정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ITT방식으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차투여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도 참고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가 면제되는 위험분담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상 환자 수가 적어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및 항암제 경우 경제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험분담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특히 글로벌 임상연구에서의 치료제의 효과성에 대한 기준과 우리나라의 급여기준 간 발생하는 차이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시 자료의 한계로 많은 가정을 하다보니 상당한 불확실성이 생기는데 문제는 가정이 너무 많은 경우 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무리한 가정을 토대로 복잡한 모델을 만들어 경제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br/><br/>홍 교수는 기존의 항암제이든 최적의 지지요법이든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대안과 비교해 비용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은 합리적인데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 경우 당연히 효과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영국 같은 경우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임계값 상향조정을 했지만(질보정수명에 좀 더 높은 가중치 부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필요 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br/><br/>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43.txt

제목: [암과의 동행] 다발성골수종 최근 25년동안 3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83752225  
본문: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MM)은 백혈병, 림프종과 함께 대표적인 혈액종양으로 감염이나 질병과 싸우는 항체를 생성·분비하는 형질세포(plasma cell)의 비정상적인 증식에 의해 전신에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다발골수종(골수종, 형질세포 골수종)은 과증식한 형질세포가 골수에 축적되어 주로 뼈를 침범하여 골절, 빈혈, 신부전, 고칼슘혈증(Calcium elevation)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악성 형질세포에서 분비하는 M단백(myeloma protein)의 양을 통해 암세포의 증식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며, 질환이 만성화 되는 특징이 있다. <br/><br/> 골수종은 일반적으로 골반, 척추, 늑골, 두개골, 어깨와 고관절 주위에 나타난다. 골수종의 증식 속도와 활동성에 따라 한 위치에서 천천히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고 여러 위치에서 급속한 골 파괴 현상을 일으키며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원자방사선, 석유제품, 살충제, 유독성 용제, 중금속, 풍매 입자에 대한 노출 등이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발골수종이 진행됨에 따라 환자 중 다수는 심각한 골 통증과 골절을 경험하며, 특히 척추 골절은 신경을 손상으로 이어져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br/><br/> 다발골수종은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s lymphoma) 다음으로 흔하게 진단되는 암 질환으로 전체 악성종양의 1%, 혈액종양의 약 10∼15%를 차지한다. 전세계적으로 75만명 가량의 다발골수종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매년 10만건의 새로운 다발골수종 환자가 발생되고 있다. 국내 유병률은 2013년 기준 5.5%(연령표준화 유병률)로 2013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환자는 3761명, 신규 등록환자 1540명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1990년 기준 년간 100 명 정도만이 진단되는 비교적 드문 질환이었으나 2011년에는 1000명 이상이 발병해 20년 사이 발병률이 10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며 백혈병이나 악성 림프종과 같은 다른 혈액암보다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다발골수종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급격한 산업화와 평균 수명의 증가함에 따라 최근 25년 동안 적어도 30배 이상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br/><br/> 표적치료제로는 ▲탈리도마이드(성분명:Thalidomide, 이식이 가능한 환자에서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 인정) ▲벨케이드(성분명: Bortezomib,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에 1차 치료제로 멜팔란과 함께 투여하는 것에도 보험급여 인정) ▲레블리미드(성분명: Lenalidomide, 벨케이드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덱사메타손과 병용 투여 가능) 등이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44.txt

제목: [신약강국 현장을 가다]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 광역학·항암치료 분야 연구에 ‘올인’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82941528  
본문: 올해로 창립 59주년을 맞이한 동성제약은 정로환, 세븐에이트 등 유독 롱런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 특히 끓이지 않는 염색약 양귀비 1호 개발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갈색머리 ‘훼미닌’, 7∼8분 만에 염색이 되는 ‘세븐에이트’, 흔들어 쓰는 염색약 ‘이지엔 쉐이킹 푸딩 헤어컬러’까지 동성제약의 역사가 곧 염모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시장을 선점 해왔다. <br/><br/> 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지금의 동성제약을 염모제 리딩기업으로 이끌고 온 원동력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다. 그런 동성제약이 내년에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염모제를 비롯한 일반의약품 품목 강화와 함께, 광역학 치료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제2연구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연구적 성과를 이뤄낼 예정이다. <br/><br/> 이양구(사진) 동성제약 대표는 “‘Health From Nature’라는 슬로건 아래 향후 100년 기업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다”며 “‘Health From Nature’는 자연에서 의약품, 화장품의 소재를 가져와 제품에 실현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동성제약은 실크프로테인과 벌독(벌침액) 등을 주요 원료로 의약품과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개발한 벌독을 함유한 여드름전용 화장품 에이씨케어 개발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br/><br/> 동성제약의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는 바로 광역학 치료분야이다. PDT(Photodynamic Therapy)라고도 불리는 광역학 치료란 빛을 이용해 암 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광과민제를 정맥에 주사하면 암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축적이 되는데, 광과민제가 종양조직에 달라붙은 후 이를 적정파장의 레이저광으로 조사하면 광과민제가 빛을 받아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세포괴사를 통해 암 종양을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br/><br/> 과거 1세대 광과민제를 사용했을 때는 광과민제가 암세포에 영향을 주기까지 최대 72시간이 걸렸고, 치료 이후에도 4주간 햇빛을 차단해야 했다. 그러나 동성제약이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은 암세포에 달라붙기까지 단 3시간이면 되고, 차광시간도 2일로 현저히 줄었다. <br/><br/> 이양구 대표는 “지난해에는 포토론이 식약처로부터 췌장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했으며 현재 서울아산병원 췌담도 내과에서 임상을 시행하고 있다. 1세대 약물에 비해 뛰어난 효과와 편리한 시술 방법, 그리고 낮은 부작용으로 광역학 치료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br/><br/> 이 대표는 “무엇보다 췌장암은 발병 후 1년 내 사망률이 74%, 5년 내 사망률이 94%에 이르는 가장 예후가 나쁜 암으로 유명하다. 이미 세계적인 학술지인 Endoscopy 지에 발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췌장암에 포토론을 이용한 광역학 치료가 효과적인 임상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췌장암 치료에 새로운 접근으로서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2세대 광과민제에 대한 시장성 및 기대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동성제약의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 핵심 전략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 동성제약은 올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대구경북첨복단지) 내에 신약개발연구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양구 대표는 “2014년 12월 대구경북첨복단지 내에 연구소를 건립하겠다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2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대구경북첨복단지 내에 제2연구소를 설립하고 광역학 치료와 항암치료영역의 연구활동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 대구경북첨복단지에 설립된 제2연구소를 위해 올 초 새롭게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동성제약에서도 다양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이양구 대표는 “<span class='quot0'>제2연구소에서는 광역학 치료 연구가 메인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암정복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span>”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45.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 보완대체요법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82940768  
본문: 보완요법들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됐고, 그 효과성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성립됐다. 관련 지식은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 걸쳐 전해져 왔다. 그러나 치료법의 작용기전이 모두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치료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오랜 신념을 근거로 활용된다. 최근 전 세계에 걸쳐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일부 요법들의 임상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br/><br/> 효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제 치료기전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검증 후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완대체요법을 통한 치료는 치료 효과성과 안전성 부분에 작용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 많은 치료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효과를 내는 데 구체적인 기여를 하는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br/><br/> ◇보완대체요법=‘대체요법’은 흔히 기존의 의학적 치료를 대신해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대체요법은 때때로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것이거나 비정통적인 치료법일 수 있다. 실제 많은 요법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작용 기전과 부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일부 요법들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암환자들이 대체요법을 선호해 기존 의학적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하는 경우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 극단적인 대체요법 사용은 권고되지 않는다.<br/><br/> ‘보완요법’에는 침술, 마사지, 향기 요법, 명상, 상담, 음악 치료, 꽃 치료, 영양, 한약, 약초·한방, 반사 요법 등이 있다. 비침습적이고 부작용이 없다고 인정되는 요법들을 중심으로 기존 의학적 치료와 함께 사용되면서 점차 보조적 치료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의 보완요법들은 작용 원리, 안전성,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요법들의 가치를 측정하고 암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및 임상 시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완요법의 적용을 고려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찾고, 요법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치의 또는 전문 의료진과의 논의를 통해 이러한 요법 사용 문제에 대한 찬반양론을 신중히 판단함으로써 사용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br/><br/> ‘통합요법’은 일부 암환자가 화학요법 동안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이완 요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경우와 같이 환자의 마음, 신체, 정신을 모두 포함해 적용하는 통합적인 의료를 의미한다. 암환자의 치료와 증상 완화를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보완 대체 요법을 표준화된 의료적 치료와 함께 받으실 수 있다.<br/><br/>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최근 정보 기술의 발달과 암 발생의 증가에 따라 암 치료와 관련 증상 완화를 위한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과학적 근거 유무와는 상관없이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고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사실이라고 하기엔 믿기 어려운 치료법’의 유혹에 자주 노출되고 그 유혹의 주요 목표 대상이 된다. 암과 싸워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현재 진행 중인 의학적 치료에 진전이 없어 보이거나 치료법들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주변인의 권고나 광고를 통해 소개되는 보완 대체 요법의 시도를 고려하게 될 수도 있다. <br/><br/>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그 방법이 과학적 근거는 있는지, 침습적이거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기존 의학적 치료법을 배제하거나 이에 반하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주치의 또는 전문 의료진과 상의한 후 보완 대체 요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46.txt

제목: [건강 나침반] 당류 섭취 줄이기 모두 한마음으로 나서야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81847296  
본문: 당류의 주된 기능은 우리 몸에 기본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지만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고 식품의 맛과 향미를 증진시키는 기능도 무시 하지 못한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뇌와 신경세포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이렇듯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당이지만 당류의 과잉섭취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계질환과 같은 만성질환과 충치, 일부 암 발생 위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건강 관련 기관이나 국가별로 당류에 대한 섭취기준을 발표하면서 단 음식과 첨가당의 섭취를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br/><br/> 최근 영국은 어린이 비만예방을 위해 유리당에 대한 섭취기준을 총 에너지 섭취의 10% 미만에서 5% 미만으로 줄여서 설정하고 탄산음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자국민의 당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유리당이란 2002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설탕 등 당류 섭취 낮추기를 권고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 가공, 조리 시에 첨가되는 포도당, 과당 등의 단당류와 이 둘이 결합한 설탕 등 이당류의 합으로 꿀, 설탕 및 과일주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당은 비만과의 연관성을 근거로 모든 음식으로 섭취하는 에너지의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해왔다. 2015년에는 치아건강과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적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회원국 사정에 따라 5% 이내로 섭취할 것을 추가로 제안한 바 있다.<br/><br/>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당류 저감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당류 저감화 사업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6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이나(국민건강보험공단),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당류 섭취량을 생각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생각된다.<br/><br/> 식약처에서는 우유를 제외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2020년까지 1일 에너지섭취량의 10% 이내로 관리한다고 한다. 이는 과일이나 우유 등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에서 천연유래 한 당류와 단맛을 위해 첨가된 당류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다.<br/><br/> 식약처의 당류 저감계획이 식품 환경이나 우리의 식생활을 고려해볼 때 너무 강력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도 더 이상 방심할 수 없는 시점에 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유를 제외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평균 섭취량은 약 44.7g으로 총 에너지 섭취량의 8.9%에 해당하여 한국인 영양성분 섭취기준 이내이기는 하다. 또한 체질량지수(BMI) 30kg/m2이상의 비만 유병율도 5.8%로서 영국의 28.1%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안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1980년대 비만 유병률이 10%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유아 및 청소년 계층의 경우, 총 에너지 섭취열량 대비 당류 섭취량이 10∼11%로 증가하였고, 이미 영양섭취기준을 초과한 비율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현재 수준으로 방치할 경우, 식생활이 서구화된 우리나라에서 당류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식약처의 선제적인 당류 저감계획 수립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br/><br/> 식약처가 발표한 당류 저감 계획에 따라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면서 식품회사와 각 부처가 협력한다면, 비만 등 만성질환을 예방을 통해 온 국민이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우리국민의 당류 섭취량과 비만 유병률을 모니터링하면서 당류 저감 정책의 효과를 예의주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당류섭취 줄이기에 함께 나서야 한다.<br/><br/>임경숙 대한영양사협회장 수원대학교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47.txt

제목: [암과의 동행-원자력병원 스마트 암 진료] 방사선 기술 세계가 인정… IAEA와도 협력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74901538  
본문: 수술, 항암요법과 함께 대표적인 암 치료 방법인 방사선치료는 최근 ‘정위신체방사선치료’와 같이 고선량 방사선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기간이 현저히 단축될 뿐 아니라 우수한 치료성적을 보여 크게 각광받고 있다. <br/><br/> 정위신체방사선치료(SBRT: 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란 3차원 좌표계를 이용해 표적인 암세포를 정확히 정렬한 뒤 치료에 필요한 양의 방사선을 여러 방향에서 표적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정상조직은 손상시키지 않고 암 부위만 치료하는 첨단 방사선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암 종 특성이나 노령으로 인해 수술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대체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다.<br/><br/> 고선량 방사선은 직접적으로 종양 세포를 사멸시킬 뿐 아니라, 종양 내 혈관을 손상시켜 간접적인 세포사멸을 일으킨다. 또한 이를 통해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종양항원의 발생과 면역체계 관련 물질인 싸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해 치료 효과가 크게 높아진다. 저선량 방사선에 의해서는 종양 내 혈관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br/><br/> 1963년 개원 이래 방사선을 이용한 암 진단과 치료 그리고 연구에 전념해 온 암 전문병원인 원자력병원은 국내 최초로 코발트 치료기를 도입해 국내 방사선 암 치료 시대를 열었으며, 2002년 국내 최초 사이버나이프 도입 및 2009년 래피드아크 도입으로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의 정위신체방사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br/><br/> 현재, 원자력병원은 정위신체방사선치료 성적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데, 작년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소화기암 환자들 중 복부의 임파절에 암이 전이된 88명을 대상으로, 정위신체방사선 치료를 시행해 5년 이상 무병 생존율이 31%에 달하는 치료성적을 발표해 생존율이 매우 낮은 전이 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br/><br/> 이 같은 방사선 암치료 기술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원자력병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사선 기술분야 협력사업인 ‘아태지역 정위적방사선치료기술 보급사업’에도 참여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위적방사선치료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문을 수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총 111명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사선종양학 의사 및 의학물리 전문가들이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간암 및 폐암에 대한 정위적방사선치료의 가이드라인이 제작, 배포됐다. <br/><br/> 사업총괄책임자인 원자력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조철구 박사는 “첨단 방사선 치료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선진국 위상을 높이고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었다“며, “원자력병원이 아시아에서 최다 사이버나이프 치료실적을 가지고 있던 점이 사업주도국 진출에 큰 도움이 됐으며, 지난 4년 동안의 기술보급성과를 IAEA에서 인정받아 후속사업도 향후 4년 간 수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br/><br/> 한편, 올해 초 원자력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미숙 박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개최하는 간암 방사선치료 프로토콜 개발 회의에 초청받아 미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의 저명 전문가들과 함께 정위신체방사선치료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임상적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한국의 간암 방사선치료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 <br/><br/>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48.txt

제목: [조민규 기자의 ‘건강 백과’] 의료정보는 자주 찾는 병원부터 클릭을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74902115  
본문: 인터넷 환경이 비약적으로 좋아지며 우리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런 환경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정보인척 가장한 광고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들이 인터넷 정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정보라면 ‘아니면 말고’라면 쉽게 넘길 수 있겠지만 질병에 대한 정보라면 다르다. 환자나 환자가족에게 있어 질병정보는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br/><br/> 대다수 의료진은 “<span class='quot0'>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맹신하기보다는 의료진을 믿고 치료를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강조한다. 하지만 ‘3분 진료’의 국내 의료현실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에는 부족함이 많다.<br/><br/> 그렇다면 환자나 가족은 인터넷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어디를 가야 보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내원하는(또는 내원할) 병·의원의 홈페이지를 찾는 것이다. 일부 광고성으로 과대·과장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질병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설명이 있다. 또 대학병원급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희귀질환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어 활용하기 좋다.<br/><br/>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 홈페이지를 찾는 것도 해답이다. 대표적인 질병정보 제공기관은 질병관리본부와 국가암정보센터가 있다. 메르스·지카바이러스 등 최근 해외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큰데 어떤 질병인지, 국내외 상황은 어떤지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홈페이지를 찾으면 된다. 또 국립의과학지식센터(library.nih.go.kr)에서는 전문 의학학술논문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암환자라면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는 필수다. 소아암·희귀암을 포함한 100여개의 암 데이터를 국립암센터 소속 전문의가 작성·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암의 예방과 진단, 치료, 생활가이드 등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br/><br/> 참고로 알아두면 유익한 정부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이 있는데 생활속 건강정보부터 내가먹는 의약품 정보와 진료비확인 등을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hi.nhis.or.kr)에서는 건강검진·나의건강관리·건강생활·의학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자가건강진단의 증상평가 코너는 현재 증상을 통해 진료과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br/><br/> 보건복지부(www.mohw.go.kr)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찾아볼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에서는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49.txt

제목: 암 치료과정 한눈에… 환자 위한 건강관리 앱 출시  
날짜: 2016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1190106834  
본문: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암병원(원장 유창식·외과 교수)에서 암 환자들이 자신의 암 치료 과정을 한 눈에 보고 맞춤 건강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아산스마트암병원’(사진)을 새로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앱은 암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 검사, 치료 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나의 일정’ 메뉴를 비롯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차트’ 메뉴와 ‘약 관리’ ‘진료예약’ ‘암 통합정보’ ‘나의 삶의 질’ 메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유창식 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0'>아산스마트암병원 앱을 활용하면 암 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자신의 상태에 꼭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50.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58) 고려대안암병원 소화기내과] 동네병원서도 추천하는 소화기질환 치료 명가  
날짜: 2016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1185039075  
본문: 자영업자 오모(50)씨는 최근 구토와 오심(가슴 속이 불쾌하고 울렁거리며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심해졌다. 음식을 먹어도 트림이 계속 나오고 소화가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속이 메스꺼워 구토를 하는 경우가 반복되자 동네병원을 찾았다. 검사후 그는 위 점막 아래 암이 의심되는 약 2㎝ 크기 혹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내시경 시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로 가보라는 권고를 받았다.<br/><br/> 오씨는 처음엔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 시술만으로 혹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가능할지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현재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듣고선 안심이 됐다.<br/><br/> 해마다 또는 2∼3년 주기로 한 번씩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때 대부분 빼놓지 않고 해보는 소화기내시경 검사 및 치료. 그래서 더 이상 새롭지도, 특별할 것 같지도 않은 소화기내시경 시술에 새 지평을 여는 의사들이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위장관클리닉 전훈재(57·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차기 이사장)·진윤태(53·소화기내과 과장)·금보라(42)·최혁순(39)·이재민(36)·김승한(36) 교수팀이다.<br/><br/> 오씨를 포함해 지난해에만 내시경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이 클리닉을 찾은 환자 수는 위내시경 1만2000여명을 비롯해 대장내시경 1만여명, 역행성 췌담도 내시경 등 2만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br/><br/> 고려대 안암병원 위장관클리닉은 2014년 점막하 터널 방식을 이용한 내시경 조기위암 절제술에 성공한 것을 비롯해 세계 최초로 비가역적(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전기천공법을 적용해 위장관 종양 치료에도 성공하며 국제 소화기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앞서 2012년에는 내시경 위종양 절제 범위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틱 소재 부속기구와 다광자 현미경을 이용한 위장관 종양 특성 분석기술을 개발하는데도 성공했다.<br/><br/> 고려대 안암병원이 조기 소화기종양 치료에 내시경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훈재·진윤태 교수팀의 스승이자 우리나라 소화기내시경 시술 분야 개척자이기도 한 현진해(75) 전 교수가 1984년 조기 위·식도암 치료에 국내 최초로 내시경을 적용하면서부터다. 이들은 1992년에 당시만 해도 난치병으로 분류되던 성인 위 정맥류를 내시경으로 치료하는데 성공하면서 소화기질환 내시경 진단 및 치료 분야에 새 역사를 썼다. 이어 2002년 국내 최초로 캡슐내시경을 소장질환 진단에 도입해 일반 내시경으로는 병소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원인불명의 장출혈 궤양이나 염증성 장질환 등의 진단 및 치료에 새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br/><br/> 이들은 위장관 종양의 내시경 치료분야 뿐만 아니라 염증성 장질환 및 간, 췌·담도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분야에도 내시경 시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년층에서 많이 발견되는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으로 대별되는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 진윤태·금보라·김은선 교수팀이 대장항문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교수들과 힘을 합쳐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r/><br/> 고려대 안암병원은 지난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소화기내과 진료 환경을 대대적으로 쇄신했다. 외래진료 공간을 종전보다 배 가까이 넓혀 진료실과 대기실을 여유롭게 바꿨다. 널찍하고 쾌적한 내시경실도 별도로 확보했다. 초음파 검사실, 상하부장관 운동 검사실, 초음파 내시경실 등과 분리 배치해 효율성을 높였다. 더불어 1일 입원제도를 도입해 소화기질환 환자들의 입원대기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데 집중하는 등 환자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br/><br/> 진윤태 교수는 11일 “<span class='quot0'>대한민국 소화기내과 진료 및 내시경 시술의 선도적 모델로서의 입지를 더 확실히 다지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과 함께 환자 개인 맞춤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진윤태 교수는… 염증성 장 질환의 권위자… 최근 한·중·일 공동연구 진행 중<br/><br/>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88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 91년과 97년 각각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98년부터 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br/><br/> 현재 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의과대학 소화기 통합 책임교수로 학생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JCI인증 TFT위원장, 적정진료관리위원장, 종합검진센터 소장, 교육수련위원장, 고려대 대학원 내과계 주임교수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br/><br/> 진윤태 교수는 2001∼2002년 하버드대병원 염증성 장질환센터로 연수를 다녀왔다. 이후 중증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생물학적 치료법과 대장암에 대해 집중 연구하고 있다. 그는 염증성 장질환과 대장암의 병태생리와 진단, 치료를 집중 연구하는 대한장연구학회에도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내년 6월 세계 각국의 염증성 장질환 연구 전문가들이 모이는 아시아크론병대장염학회(AOCC) 서울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질관리 이사로 활동하며 위암, 대장암 등 국가암검진 내시경 분야의 질 관리 및 평가를 통솔하고 있기도 하다.<br/><br/> 진 교수는 '국내 중증 염증성 장 질환 환자에서 생물학적 제제의 치료효과 연구' 등 SCI급 논문 30여편을 포함해 지금까지 100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발표했다. 최근에는 염증성 장질환에 관심이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소화기내과 교수들이 참여하는 다기관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br/><br/> 진 교수는 건강관리를 위해 틈날 때마다 의대생 시절부터 즐긴 테니스로 체력을 다지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11일 "현재 진 교수가 고려대 의대 테니스부 지도교수를 맡고 있을 정도로 기량도 수준급"이라고 전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51.txt

제목: ‘목회 인생 43년’ 김국도 서울 임마누엘교회 목사 은퇴  
날짜: 2016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1174835454  
본문: 서울 송파구 임마누엘교회 김국도(71) 목사가 10일 교회에서 은퇴 예배를 드리고 목회 인생 43년을 마무리했다. 김 목사는 예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날을 회고하며 은퇴 후 계획을 밝혔다. <br/><br/> 그는 “30세부터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그때마다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헌신된 일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br/><br/> 김 목사는 1973년 경기도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해 3년 만에 서울로 옮긴 후 지금까지 국내에 9개 지교회를 세웠다. 78년 군선교를 시작해 현재까지 29개 군인교회를 설립했으며 84년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를 처음 파송한 이후 해외에 80개 교회를 봉헌했다. 91년에는 케냐 마사이족 마을에 안찬호 선교사를 파송, 23개 예배당을 세웠다. <br/><br/> 반면 목회를 하는 동안 어려움도 적지 않게 겪었고 논란에도 종종 휩싸였다. 1980년대엔 후두암 진단을 받았다. 대형 교통사고도 당했다. 현 예배당 건축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2007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8대 감독회장 선거에서 44.5%의 지지를 받았지만 후보자격 논란으로 감독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했다. 목회세습을 금지하고 있는 교단법을 피해 편법으로 아들에게 목회를 물려줬다며 세간의 비난도 받았다. <br/><br/> 김 목사는 “<span class='quot0'>은퇴 후에는 과욕을 부리면 안 되지만 은퇴했다고 은둔하는 것도 반대</span>”라며 “<span class='quot0'>관조하듯 바라보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나설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52.txt

제목: 대장암 수술 10명 중 9명은 50代 이상  
날짜: 2016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0202701083  
본문: 대장암 수술 환자 10명 중 9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암이 3기까지 진행된 뒤에 발견됐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267곳 의료기관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1만7600명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89.6%였다고 10일 밝혔다. 70대가 29.5%로 가장 많았고 60대 27.5%, 50대 22.9%, 80대 이상 9.7%였다. 40대는 8.2%, 30대 1.8%, 20대 0.4%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많았다. 암의 병기별로는 3기 환자가 36.3%로 가장 많았다. 2기 28.4%, 1기 21.2%, 4기 14.1% 순이었다.<br/><br/> 심평원은 “<span class='quot0'>정기검진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대장암은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구분되는데 결장암 환자(73.1%)가 직장암(26.9%)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직장암은 항문 입구에서 12∼15㎝ 부위에 생긴다. 나머지 대장 부위에 발생하면 결장암이다.<br/><br/> 심평원에 따르면 대장암 치료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 산출 대상 병원 135곳 가운데 84.5%인 114곳이 1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span class='quot0'>전반적인 대장암 진료수준이 우수하며 전국에 우수기관이 분포돼 있다</span>”고 말했다. 정기검진을 열심히 받으라는 얘기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53.txt

제목: [삶의 향기-송세영] 시한부종말론, 법적 제재해야  
날짜: 201604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08180508737  
본문: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종교국에서 일하다 보면 종종 받게 되는 전화가 있다. 아들과 딸이, 혹은 아내가 사이비 종교집단에 빠져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어떤 곳인지 알아보면 십중팔구는 시한부종말론을 내세우는 집단이다. <br/><br/> 최근에도 한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병원에 근무하던 딸이 직장을 그만둔 사실을 한참 뒤에 알고 이유를 추궁하다 시한부종말론을 내세우는 사이비 종교집단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말도 없이 좋은 직장을 그만둔 것을 책망하자 딸은 가출해버렸다. 이제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며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br/><br/> 서울의 명문대학에 다니던 한 청년은 시한부종말론에 빠진 뒤 대학을 중퇴했다고 했다. 이제 곧 종말이 닥쳐올 텐데 대학 졸업장이 무슨 의미가 있으랴 생각했다고 한다. 뒤늦게 빠져나왔지만 자발적으로 중퇴한 대학에 다시 돌아갈 길은 없었다. <br/><br/> 임신한 아내가 시한부종말론에 빠져든 뒤 낙태를 하고 가출해 버렸다거나,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하고 사라졌다고 하소연하는 이들도 있었다.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집을 떠난 뒤 단체 합숙생활을 하며 이혼을 요구해왔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br/><br/> 이들이 빠진 시한부종말론은 단순히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여기는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정해진 시간이 되거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리고 그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고 믿는다. 종말이 임박했다는 생각, 시곗바늘이 종말을 향해 째깍째깍 가고 있다는 생각은 불안감과 함께 초조함에 조바심까지 불러일으킨다. 결혼도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모두 무의미해진다. 일상적인 도덕감각이나 합리적 사고능력도 마비된다. <br/><br/> 시한부종말론에 더 깊숙이 빠져들면 집단 자살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한 테러 행위도 태연하게 저지른다. 최근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 수니파 테러단체 IS도 시한부종말론을 추종한다. 1995년 일본 지하철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독극물 테러를 저질렀던 옴진리교도 시한부종말론 집단이었다. 한국에서도 시한부종말론이 횡행하도록 계속 방치한다면 이처럼 끔찍한 일로 이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br/><br/> 시한부종말론 때문에 입은 피해를 전화로 호소해온 이들 중에는 국민일보 독자가 아닌 이들도 꽤 있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국민일보에 실린 관련 뉴스를 보고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일보는 시한부종말론 집단의 위험성과 허구성을 지속적으로 고발해온 유일한 종합일간지다.<br/><br/> 한국 사회와 언론은 시한부종말론의 명백한 폐해와 위험성 앞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막강한 국가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판하고 규율하려는 이들이 왜 사이비 종교집단에는 그토록 관대할까. 그 근저에는 시한부종말론도 일종의 종교적 신조이므로 종교 문제에 해당된다거나 기성 종교도 문제가 많지 않으냐는 생각 같은 게 깔려 있는 것 같다. <br/><br/> 하지만 시한부종말론은 어떤 극단적 이념보다 위험하다.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를 앗아간다. 너무나 반사회적이어서 종교라고 볼 수도 없다. 기성 종교에 문제가 많다고 해도 시한부종말론의 폐해나 위험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br/><br/>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한부종말론을 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적 제재다. 시한부종말론을 유포하는 것만으론 처벌하기 어렵다면 이를 내세워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면 된다. 더 확실한 제재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이비종교규제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4·13총선을 통해 구성될 제20대 국회에선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인 시한부종말론 집단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확실한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한다. <br/><br/>송세영 종교부장 sysohng@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54.txt

제목: 양자역학 김명식 교수 등 호암상 수상자 6명 선정  
날짜: 201604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05195706378  
본문: 호암재단은 5일 ‘2016년도 제26회 호암상 수상자’에 김명식(54)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교수 등 6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br/><br/> 과학상에 선정된 김 교수는 양자역학계의 세계적 대가다. 양자역학의 근본이 되는 불확정성의 원리와 양자교환법칙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통일을 위한 기초 마련에 기여했다.<br/><br/> 공학상은 한국 최초의 이족보행(二足步行) 로봇인 휴보를 제작한 오준호(62) 카이스트 교수가 수상했다. 휴보는 지난해 미국 국방부의 ‘다르파 로봇 챌린지’(DRC)에서 우승했다.<br/><br/> 의학상에는 래리 곽(57) 미국 시티 오브 호프 병원 교수가 선정됐다. 곽 박사는 혈액암의 일종인 여포성 림프종 표면 단백질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암 백신을 개발했다.<br/><br/> 황동규(78) 시인은 예술상을 받는다. 황 시인은 1958년 등단한 이후 한국현대시의 지평을 넓혀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즐거운 편지’와 ‘풍장’ 등이 대표작이다.<br/><br/> 사회봉사상 수상자로는 들꽃청소년세상 공동대표인 김현수(61)·조순실(59) 부부가 뽑혔다. 이들은 22년간 가출 청소년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며 대안학교, 직업훈련장을 설립하는 등 청소년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br/><br/> 상금은 3억원이며 순금으로 제작된 메달 등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6월 1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90년 제정한 호암상은 올해까지 총 133명의 수상자를 배출, 214억원의 상금을 수여했다.<br/><br/>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55.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2부 ⑥] ‘웰다잉법’ 제정 후 일선 의료현장에선  
날짜: 2016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04212906375  
본문: 2부: 웰다잉, 이제 준비합시다<br/><br/>⑥ 죽을때 비참한 나라<br/><br/>우리나라에서 매년 20만∼24만명이 암 등 만성질환을 앓다 숨진다. 서울대의대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4일 “<span class='quot0'>매년 20만명 이상이 임종 과정에서 연명 치료를 할지 말지, 또 이미 시작한 인공호흡기를 중단할지 등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span>”고 말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웰다잉법)’이 제정된 후 일선 의료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br/><br/> 2018년 2월에 시행되는 웰다잉법은 질병에 제한 없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면 연명 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중단 가능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다. 단순히 말기 환자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br/><br/> 허 교수는 “말기암은 이전에도 회생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환자와 가족들이 드물지 않게 있었다. 법제정 이후 만성신부전, 만성 심장질환, 희귀난치병(근위축증, 루프스 등) 등 다른 말기 질환에서도 이런 요청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암 외 질환은 회생 가능성 판단이 쉽지 않아 일단 인공호흡기를 끼었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br/><br/> 그러나 여전히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 김영삼 교수는 “임종이 임박했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호스피스로 가거나 일반 병동으로 옮기는 이들은 10명 중 1∼2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중환자실에 머물면서 임종을 맞는다. 가족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고윤석 교수는 “<span class='quot1'>연명치료가 고통의 시간만 연장한다고 판단하더라도 환자와 가족 동의가 없으면 의사가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없는 게 현실</span>”이라고 했다.<br/><br/> 이 때문에 환자, 가족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어떤 임종이 바람직한지를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아직 웰다잉법에 대한 의료진의 이해가 부족한 점도 해결돼야 한다. 허 교수는 “<span class='quot0'>보건복지부가 웰다잉법 시행 전에 하부 법령을 만드는 작업과 함께 의료진, 병원 행정조직을 대상으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민태원 전수민 기자<br/><br/>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56.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2부 ⑥] 의료화로 ‘늦춰지는’ 죽음… 또 다른 고통의 시작  
날짜: 2016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04212907260  
본문: 2부: 웰다잉, 이제 준비합시다<br/><br/>⑥ 죽을때 비참한 나라<br/><br/>지난달 26일 혈액암 말기환자인 A씨(30)가 서울대병원 내과 중환자실로 급히 실려 왔다. 그는 지난해 여름 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계속해 왔지만 최근 급속히 병세가 나빠졌고, 이날 의식을 잃었다. 서둘러 ‘숨길’을 뚫기 위한 ‘기도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꼈다. 떨어지는 혈압을 올리는 승압제도 계속 투여했다. 혈압을 유지하지 않으면 곧바로 생명이 위험해질 지경이었다. 의료진은 “<span class='quot0'>회생 가능성이 없어 며칠 내 임종할 가능성이 높다</span>”고 했다. 그래도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상 치료를 중단할 수는 없다. 가족들도 계속 치료해 주길 바랐다. 다만 승압제 용량을 더 늘리지 않고 혈액투석도 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br/><br/>무조건 붙잡아야 하나<br/><br/> 22개 병상을 갖춘 이 병원 중환자실에는 A씨 같은 말기 환자들이 상당수 입원해 있다. 암 환자 5명을 비롯해 만성신부전과 심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을 앓는 이들이다. 각종 생명유지 장치에 의지한 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의 마지막을 보낸다.<br/><br/> 노화경 중환자실 수간호사는 “이들 중에는 임종이 임박했을 때 심폐소생술(CPR)이나 혈액투석을 하지 않겠다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인공호흡기 착용과 승압제·영양제 투여 등은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71세인 한 남성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의식 없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2년 넘게 인공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다고 노 간호사는 귀띔했다.<br/><br/> 암을 비롯한 중증의 만성 질환자들은 대부분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다 마지막을 맞는다. 적극적 치료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시점에도 말기 환자들은 집중치료실(중환자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요양 중이더라도 임종이 가까워지면 병원을 찾아 연명치료를 받는다.<br/><br/>“죽음은 의료 대상이 아니다”<br/><br/> 의사들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죽음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환자라도, 인공호흡기로 대표되는 최상의 의료기기와 최신 의료기술을 이용해 최대한 죽음의 시간을 늦추려 한다. 환자 가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현실에서 심리·사회·영적 돌봄 같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통한 편안하고 인간다운 죽음은 요원하다.<br/><br/> 과거 자연적으로 맞이하던 임종은 점점 ‘의료화’되고 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징후 앞에서는 죽음의 ‘자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다. 그럼에도 자연적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을 ‘의료화’하려고 시도하면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이 시작된다.<br/><br/> 서울대의대 윤영호 교수는 4일 “<span class='quot1'>질병은 의료의 대상이지만 죽음 자체는 의료의 대상이 아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의사나 가족 모두 죽음을 정복 대상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을 버려야 한다</span>”고 말했다. 역설적이지만 죽음 자체는 의료에서 멀어져야 품위 있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이 가능하다는 얘기다.<br/><br/>임종 직전 집중되는 의료<br/><br/> 과도한 의료화는 죽기 직전에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0년 암 사망자 7만6574명을 분석한 결과 사망 2주 전까지도 CT·MRI·PET 등 각종 검사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적극적 연명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인공호흡기는 사망 3개월 전(896명)에 비해 사망 1개월 전에 12.7배(1만1404명) 많이 쓰였다. 심폐소생술은 3개월 전(99명)보다 무려 59.4배나 많이 이용했다. 중환자실 이용도 사망 3개월 전(2255명)보다 1개월 전에 5.1배(1만1601명) 증가했다. 항암치료는 사망 1개월 전 절반 가까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이 받았다.<br/><br/> 말기에 의료비 지출도 급격히 늘어 사망 전 3개월 의료비(7012억원)가 그해 전체 의료비(1조3922억원)의 절반이 넘는 50.4%에 달했다. 특히 죽기 전 2주 동안 CT·MRI·PET 등 검사와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항암치료, 중환자실·응급실 이용 등에 102억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br/><br/> 다른 말기 질환의 사망 전 의료이용 실태와 씀씀이도 비슷하다.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영순 박사팀이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개 만성질환의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에서의 사망 직전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가 125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성간경화(1060만원) 만성신부전(1009만원) 뇌졸중(900만원) 울혈성심부전(888만원) 만성폐쇄성폐질환(885만원) 파킨슨병(750만원) 루게릭병(668만원) 치매(600만원) 전신쇠약(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br/><br/> 우리나라는 지난해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연구소(EIU)가 발표한 세계 80개국 대상 ‘죽음의 질’ 평가에서 18위를 차지했다. 영국과 호주가 ‘가장 죽기 좋은 나라’ 1, 2위에 올랐다. <br/><br/> 한국은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 양호한 점수를 받았으나 ‘연간 사망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았던 환자 비율’ ‘완화 의료를 제공하려는 의지’ ‘임종 의료비용’ 등 부문은 낮게 평가됐다.<br/><br/>민태원 기자<br/><br/>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57.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2부 ⑥] 암 환자 4만명 육박… 대부분 1∼2개월 머물다 떠나  
날짜: 2016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04211816400  
본문: 2부: 웰다잉, 이제 준비합시다<br/><br/>⑥ 죽을때 비참한 나라<br/><br/>뇌병변을 앓고 있는 이모(92·여)씨는 1400일째 경남 창원 희연병원의 병동 한쪽을 지키고 있다. 이씨는 대부분 시간을 병상에 누워 지낸다. 일주일에 서너 차례 곁을 지키는 아들도 가끔 상태가 좋을 때만 알아본다.<br/><br/> 그는 지난해 몇 번의 고비를 넘겼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애가 탄다. 한 달에 100만원가량 들어가는 병원비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지난달 30일 만난 아들은 “사실상 거의 숨만 쉬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편안히 돌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다”고 말했다.<br/><br/> 병상 433개를 갖춘 요양병원인 이곳에서 한 달에 7명 정도가 임종을 맞는다. 노환으로 숨을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오갈 데 없어 찾아온 말기 환자가 적지 않다. 지난달 4일 세상을 떠난 김모(70)씨도 그렇다. 2013년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도 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대형병원은 병상에 여유가 없어 장기입원이 힘들었다. 김씨는 삶의 마지막을 호스피스병동에서 보내려 했다. 하지만 입원할 만한 호스피스병동이 없어 이곳을 찾았다.<br/><br/> 요양병원은 항암치료를 마친 말기암 환자나 큰 병원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는 만성질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는 2011년 2만3638명, 2012년 2만8353명, 2013년 3만3406명, 2014년 3만8975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기준 암 환자 진료비는 1910억원에 달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부회장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5∼10%가 말기암 환자, 10∼15%가 치매·뇌졸중 등 비(非)암성 만성질환자들이다. 대부분 말기 상태로 와서 평균 1∼2개월 머물다 임종을 맞는다. 죽음의 마지막 통로인 셈”이라고 말했다.<br/><br/>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9년 12월∼2013년 12월 암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12.4%가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맞았다. 다른 말기 질환자 중 요양병원 사망자는 치매(74.1%) 파킨슨병(59.1%) 뇌졸중 (41.2%) 루게릭병(37.9%) 울혈성심부전(26.8%) 등이었다.<br/><br/> 문제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요양병원은 말기 환자 통증관리나 심리상담·영적 돌봄 같은 ‘임종 케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상반기 중에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br/><br/>민태원 기자, 창원=신훈 기자<br/><br/>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58.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57) 아주대병원 부인암센터] 국내 최고 수준… 초기 환자 5년 생존율 95%  
날짜: 2016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04193239707  
본문: 국가암정보센터가 발표한 2013년 암 종류별 여자 사망자수 상위 10대 암을 보면 유방암, 난소암, 자궁경부암이 각각 5위와 8위, 9위에 올라있다. 3대 부인암 중 2개가 여성의 생식기관에 생기는 암이라는 얘기다.<br/><br/> 여성의 생식기관, 즉 자궁과 난소에 생기는 악성종양은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3가지다. 자궁경부암이 가장 흔하고, 최근 들어 자궁내막암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소리 없는 암살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난소암은 1차 치료 후 재발률이 50∼75%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아주대병원 부인암센터 유희석(62·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장석준(47·센터장) 교수팀이 ‘재발이 없는 암 수술, 신속 정확하고 성공률 높은 암 치료’를 모토로 삼는 이유다.<br/><br/> 이들은 첫 진료 후 각종 검사를 거쳐 확진 판정을 내리고 다학제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것인지 설명하기까지 1주일을 넘기지 않는다. 또 부인암 전문 코디네이터(간호사)에게 바로 연결, 개인 맞춤 설명과 교육을 받도록 해준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다급한 마음을 잘 아는데다가 환자들도 자신에게 생긴 암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 순응도가 좋아지는 까닭이다.<br/><br/> 아주대병원의 부인암 다학제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는 모두 9명이다. 산부인과 유희석·장석준·백지흠·공태욱 교수팀과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영상의학과 이은주·김보현 교수팀, 병리과 이용희 교수, 정신건강의학과(마음건강클리닉) 김남희 교수 등이다.<br/><br/> 이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튜머 보드’(Tumor Board, 종양위원회)를 열어 암 치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튜머 보드에 오르는 부인암 환자 사례는 연간 200여명으로, 월평균 16.6명꼴이다.<br/><br/> 아주대병원 부인암센터는 수술 시 복강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최대한 환자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다. 개복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자궁경부암 초기에 시행하는 광범위 자궁절제수술과 자궁내막암 초기에 필요한 병기설정수술 등 거의 모든 수술에 복강경을 활용한다.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 환자의 95%가 복강경을 이용한 근치(根治) 수술(주위 림프절까지 광범위하게 절제, 재발 위험요소를 완전히 뿌리 뽑는 치료)을 받고 있다.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증, 양성난소종양 등 양성 종양치료 역시 90% 이상 복강경 수술로 진행한다.<br/><br/> 복강경 수술은 환자의 배에 5∼10㎜의 작은 구멍을 뚫고, 그 틈으로 내시경 및 부속기구를 넣어 혹을 떼어내는 수술이다. 수술 후 흉터가 눈에 거의 띄지 않고 통증도 적으며 회복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다.<br/><br/> 혹 덩어리가 커서 다른 병원이 개복수술을 권유했던 환자도 이 센터에선 복강경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을 해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배꼽 부위에 단 한 개의 구멍만 뚫고 시술하는 ‘단일공 복강경 부인암 절제수술’에 대한 반응이 좋다.<br/><br/> 신속 정확하고 적절한 치료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아주대병원 부인암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1기 이하 초기 부인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5%에 이른다. 설문조사 결과 환자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 부인암 수술은 임신을 원하는 경우 외엔 기본적으로 근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자궁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임신을 원하거나 미혼 여성 환자의 경우 자궁체부(아기집)를 살리고 혹만 정밀하게 도려내준다. 수술 후 생식기능 유지와 임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br/><br/> 현재 아주대병원 부인암센터의 난소암 치료 성적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특히 3기말∼4기의 진행성 난소암 환자들의 5년 평균 생존율이 45∼50%로, 세계 평균치(18∼35%)보다 15∼27% 포인트나 높다. 이 성적은 미국부인종양학회와 미국종양외과학회 공식저널에도 소개돼 세계 종양학계의 주목을 받았다.<br/><br/> 유희석 교수는 “<span class='quot0'>지난해 싱가포르 산부인과 의사들이 센터를 방문하는 등 다빈치 로봇과 복강경을 이용해 자궁경부암 등 부인암을 제거하는 모습을 참관하려는 동남아시아 의료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span>”고 밝혔다. 장석준 교수는 “<span class='quot1'>홍콩산부인과학회 초청으로 다음 달 21∼22일 홍콩대학에서 ‘진행성 난소암의 종양감축수술과 젊은 자궁경부암 환자가 가임능력 유지를 원할 때 어떻게 수술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한 뒤 수술 시범도 보여줄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br/><br/>유희석·장석준 교수는 스승과 제자 사이로 ‘실과 바늘’ 관계… 왕성한 연구력도 닮아<br/><br/>유희석 교수와 장석준 교수는 아주대병원 부인암센터에서 실과 바늘로 통한다. 그만큼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이여서, 떼어놓고 얘기하기 힘든 '특수 관계'다.<br/><br/> 두 사람은 15년 연상연하의 사제지간으로 시작해 손발 잘 맞는 동료로 발전했다. 유 교수는 1954년생, 장 교수는 1969년생이다. 유 교수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아주대 의대 개교 및 부속병원 개원과 동시에 가르친 첫 제자가 장 교수다.<br/><br/> 1979년 연세의대를 졸업한 유 교수는 옥포대우병원 산부인과 과장을 거쳐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제임스 암센터에서 2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1994년 아주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부임했다. 병원행정에도 밝아 그간 교육수련부장, 연구지원실장, 아주대병원장을 두루 역임했다. 현재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활동 중이다.<br/><br/> 유 교수는 우리나라 부인암 분야 10대 명의로 꼽힌다. 특히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 수술 권위자다. 자궁경부암 치료법으로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용하는 '동시 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국내 최초로 시행해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생존율을 2배 이상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br/><br/> 유 교수는 장 교수에 대해 '연구와 진료 역량이 뛰어난 제자이자 동료 의사'라고 평가했다. 난소암 치료 분야에선 국내 누구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실력파 의사라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해외 연수를 미국부인암학회 내에서도 난소암수술 귄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로버트 브리스토우 어바인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연구실에서 보냈다.<br/><br/> 두 교수의 연구력도 왕성하다. 유 교수는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SCI급 논문 100여편을 포함해 지금까지 30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장 교수도 SCI급 논문만 벌써 50여편에 이른다. 두 사람은 지난해 출간된 난소암 수술 교과서 '난소암 수술(Surgery for Ovarian Cancer)' 3차 개정판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br/><br/> "암 치료 시 수술 기회는 딱 한번이다. 성공률이 떨어지는 재수술은 의미가 없다. 처음 할 때 온 정성을 다해 철저하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 유희석·장석준 교수팀의 부인암 치료 원칙이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 명의&인의를 찾아서<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59.txt

제목: [어려운 교회를 도웁시다-완도 등대교회] 위암 투병하며 낙도에서 사역 선교의 등댓불 꺼지지 않도록…  
날짜: 2016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04192233179  
본문: 전남 완도군 당사도에서 10년째 사역 중인 박정남(73·등대교회) 목사가 의식을 잃은 건 지난 1월 초였다. 속이 좀 불편하고 대변을 보기 힘든 정도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불찰이었다. 위 내시경 검사를 한 동네 병원 의사는 “<span class='quot0'>얼른 큰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해보라</span>”고 말했다. 아내 김현옥(69) 사모와 함께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박 목사는 위암 판정을 받았다. 사모는 3일 전화통화에서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 걱정을 덜었지만 당뇨도 있고 어깨와 허리가 안 좋았던 상황에서 암 판정까지 받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당시를 회고했다.<br/><br/> 검사와 치료를 위해 성치 않은 몸으로 매주 한 차례 대한민국 최남단 섬마을에서 서울을 오가는 일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다. 당사도에서 배를 한 번 갈아타고 완도 화흥포항으로 나오는 데만 1시간 40분. 또 완도에서 버스로 5시간 30분을 달려야 겨우 서울에 도착했다. 김 사모는 “몸도 몸이지만 한 번 오가는 데 15만원 넘게 드는 왕복 교통비와 보험 적용도 안 되는 검사·치료비 등 현실적 부담이 컸다”면서도 “하지만 감사하게도 낙도선교회와 평소 사역을 후원해주던 교회의 도움으로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br/><br/> 박 목사는 지난달 21일 수술을 마친 뒤 2주 만에 당사도로 돌아왔다. 한 달 새 체중이 10㎏이나 줄어 급선무는 체력을 회복하는 게 됐다. 그동안 몸이 불편한 박 목사를 부축해 간병해 왔던 사모도 허리 통증이 심해져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span class='quot1'>그래도 기도의 힘으로 버틸 수 있었다</span>”며 함께 기도해 준 등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br/><br/> 서울과 천안에서 사역하던 김 목사 부부는 2004년 교회가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2년 넘도록 배를 타고 낙도 지역을 탐방했다. 크고 작은 섬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러다 당사도에 정착한 것이 2007년 4월. 배타적인 주민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혀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다.<br/><br/> 김 사모는 “목사님과 ‘죽으면 죽으리라. 선한 싸움을 해보자’고 결단하고 들어갔다”며 “손재주가 좋은 목사님이 동네를 다니면서 망가진 물건을 고쳐주고 짐도 들어주니 서서히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br/><br/> 당사도에 하나뿐인 등대교회의 규모는 단출하다. 성도 수는 10명을 넘긴 적이 없다. 지금은 성도 세 명과 박 목사 부부까지 다섯 명이 예배를 드린다. 목재와 슬레이트 패널로 지어진 10평(33㎡)짜리 예배당은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 박 목사 부부가 걸레질하기에 바쁘다. 그럼에도 김 사모는 “<span class='quot2'>복음 자체가 없던 땅에 씨를 뿌리고 10년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span>”며 웃었다. 박 목사 부부는 “당사도 주민이 25명 정도”라며 “<span class='quot3'>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게 소망</span>”이라고 말했다.<br/><br/>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60.txt

제목: [난소암 백과] 대부분 3∼4기에 발견… 1차 치료 중요성 더 커  
날짜: 2016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03190438594  
본문: ◇상피성 난소암이란=난소암은 발생하는 조직에 따라 크게 상피세포암, 배세포종양(생식세포종양) 및 성삭기질종양으로 구분되며 이중 상피세포암(상피성 세포암)은 전체 난소암 환자의 약 90%를 차지한다. 상피성 난소암은 세포 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장액성 난소암과 점액성 난소암이 주를 이룬다.<br/><br/> ◇난소암의 병기=난소암의 병기는 수술을 한 이후에야 정해지게 되며, 1∼4기로 나눈다. 1기는 암이 난소에 국한된 경우이다. 2기는 암이 한쪽 혹은 양쪽 난소에서 발견되고 골반으로 전이(골반 분계선 아래)된 경우, 혹은 원발성 복막암을 말한다. 3기는 암이 한쪽 혹은 양쪽 난소에서 발견되고 세포학?조직학적으로 골반 외부의 복강으로 전이되거나 후복막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다. 4기는 복강 외부로의 전이를 말한다.<br/><br/> ◇침묵의 살인자=난소암은 암이 상당히 진행하기까지 증상이 비특이적이고 불분명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3∼4기인 진행성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높은 특징을 일컬어 ‘침묵의 살인자’라 칭한다.<br/><br/> ◇아바스틴이란=난소암, 자궁경부암, 직결장암, 폐암, 유방암, 교모세포종, 신세포암 등 총 7개 암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적치료제다. 상피성 난소암(난관암, 원발성 복막암 포함) 환자의 1차 치료, 백금계 약물에 민감성이 있는 재발 환자의 치료, 백금계 약물에 저항성이 있는 재발 환자의 치료에서 허가를 받았다. 지난 2015년부터 저항성 재발 환자에게 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br/><br/> ◇신생혈관생성 억제제란=종양의 크기가 2㎜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생혈관이 필수적이다. 신생혈관은 암 세포가 분비하는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VEGF )가 혈관내피세포 표면에 있는 VEGF 수용체에 결합하여 생성된다. 아바스틴은 최초의 신생혈관생성 억제제로, VEGF와 VEGF 수용체의 결합을 차단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를 억제한다.<br/><br/> ◇난소암 치료 옵션 비교=난소암의 치료 옵션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금까지 난소암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표적치료제는 2개다. 1차 치료로는 아바스틴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유방암의 경우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은 표적치료제는 7개이며, 그 중 5개 치료제가 1차 요법으로 적응증을 획득했다. 이 중 2개 (허셉틴, 타이커브)는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br/><br/>◇재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난소암 환자란=▲복강 외부로 암이 원격 전이된 4기 환자 ▲3∼4 기 환자 중 내과적 질환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 ▲수술 후 잔존암의 크기가 1cm 를 넘는 불완전 수술이 된 환자를 의미한다. <br/><br/>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61.txt

제목: 난소암 환자 치료 보장성 강화 방안은?… 1차치료 투여 표적항암제 보험적용 절실  
날짜: 2016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03190438015  
본문: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지난달 29일 ‘난소암 환자 치료 어디까지 왔나-난소암 치료 보장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30회 고품격 건강사회만들기 토론회를 열었다. 여성암 중 생존율이 가장 낮은 난소암의 경우, 환자들이 치료 보장성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고 치료 여건 개선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난소암 환자들의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안이 모색됐다.<br/><br/>◇주제=‘난소암 환자 치료 어디까지 왔나-난소암 치료 보장성 강화 방안’<br/><br/>◇일시=2016년 3월 29일 오후 3시<br/><br/>◇참석자=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 김병기 대한부인종양연구회 회장(삼성서울병원 교수), 김재원 아시아부인종양학회 사무총장(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단비 쿠키뉴스 보건의료 전문기자<br/><br/>◇진행=원미연 쿠키건강TV 아나운서<br/><br/>◇연출=이동원 쿠키건강TV PD<br/><br/>◇방송=2016년 4월 4일 오후 7시<br/><br/>-현재 난소암 보장은 어느 정도로 이뤄지고 있는지?<br/><br/>◇김재원=난소암은 말 그대로, 여성의 난소에 생기는 암을 말한다. 진단이 될 당시에 대부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진단이 된다. 병기로 따지면 1∼4기 중에서 3기나 4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60∼70%에 달한다.◇김병기=새로운 표적치료제들 중에서 두 개가 난소암에 허가를 받았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재발성 난소암 특히 재발성 난소암 중에도 백금 저항성 재발성 난소암이라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보험 급여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비급여다. 그렇기 때문에 난소암을 보는 의사 입장에서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다. 2007년 이후 유방암의 경우에는, 8개 정도의 1차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와 허가를 받고 있다. 그 중 실제 급여가 되고 있는 것도 2가지다. 그러나 부인과에서 난소암만 1차 치료(Front-line)에서 급여 적용되는 표적치료제는 전혀 없다.<br/><br/>◇고형우=난소암에 대해서 1차 치료제가 보험 급여가 되면 환자 본인 부담액이 5%로 줄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 부담을 해결할 수 있지만, 아직 1차 치료제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지난 국회토론회 이후에 검토를 하고 있다. 이 1차 표적치료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에 다시 (급여에 관한) 신청이 들어 왔다. 그 부분에 대해 심평원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고 전문가나 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마 4월, 다음 달쯤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br/><br/><br/><br/>-난소암환자들은 치료 비용에 대한 불만족이 크다.<br/><br/>◇김병기=3기 난소암은 최소 50∼60% 이상 재발한다. 난소암은 재발에 대한 염려가 대부분 현실이 되는 암이다. 일단 암이 재발하면 치료의 목표가 달라진다. 처음 암을 치료할 때는 완치를 목표로 한다. 환자가 1차 치료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완전히 완치가 되고 더 이상 치료 안 받고 건강히 사실 수 있다고 하면 가장 행복한 일일 테니 그걸 목표로 하고 싶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다. 재발 후에는 현실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다. 수술과 항암치료를 반복하면 할수록 효율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치료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이때 모든 정성을 쏟아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즉, 1차 치료가 골든타임이다.<br/><br/>◇김재원=재발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재발이 되더라도 최대한 그 시기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 치료 때 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치료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두 가지 약제를 병용해 약을 노출하는 기회를 늘리려는 시도도 있었고, 복강 안에 주사약을 주입하는 연구도 진행됐다. 표적치료제를 포함한 3제 병용요법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발표된 임상연구 결과로 봤을 때 세 가지 시도 중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br/><br/>◇김병기=1차 치료에 모든 정성을 쏟아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1차 치료에 모든 자원을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수술 후에 항암제를 어떤 방식으로 투여할 것이냐, 항암제 조절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표적치료제가 있겠는데, 현재 1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바스틴(베바시주맙) 하나 밖에 없다. 이 약은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큰 두 가지 대형 임상 연구를 진행했다. 그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허가가 되었다. 현실적으로는 아바스틴을 파클리탁셀 및 카보플라틴과 함께 투여할 수 있는 근거는 확보된거다. 그러나 정부의 보험 급 기준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많은 환자들이 인터넷이나 저널을 통해 정보를 얻어보고 있는 상황에서,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때 해당 약제를 쓸 수는 있지만 비급여라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린다. 그래서 늘 “실손보험 있습니까”라고 의사가 환자한테 물어보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 보험 있습니다. 혹은 경제적 여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아니라고 하면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다.<br/><br/><br/><br/>-아바스틴은 어떤 치료제인가?<br/><br/>◇김재원=아바스틴은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약제다. 종양이 자라고 전이되려면 영양공급원이 필요한데 그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표적치료제다.<br/><br/><br/><br/>-난소암이 소외받는다는 지적은?<br/><br/>◇김병기=미국 임상연구(GOG218 연구)에서 한 군은 표적치료제(아바스틴)를 맞았고 다른 군은 위약을 맞아 재발을 늦춘다는 임상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 이후 약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임상참여자들)이 연구가 끝난 후 처방을 받아서 아바스틴을 사서 맞았다. 결국 위약군의 40% 정도가 그 뒤에 아바스틴 주사를 맞았다. 이걸 교차투여(cross-over)라고 얘기한다. 두 군간의 교차를 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 생존율을 알기 어렵게 된다. 유럽 연구에서는 5% 정도밖에는 교차투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발도 늦추지만 일부 고위험군에게 생존율도 증가시켰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래서 유럽은 1차에서 허가를 받았고 미국은 재발 환자들에게만 허가를 받게 해줬다.<br/><br/>◇고형우=정부는 미국의 NCCN 가이드라인을 참고만 할 뿐 그대로 따라 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가장 유명하고 많이 보는 게 NCCN이랑 ESMO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ESMO 가이드라인도 참고한다. 의약품의 허가 사항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내와 유럽의 허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럽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허가 외 조건으로 급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br/><br/>◇김병기=용량을 반으로 줄이고, 투여 횟수가 짧고(22 싸이클 VS 18 싸이클) 한 것은 호주나 캐나다에만 해당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국내와 같은 용량으로 아바스틴을 사용하고 있다.<br/><br/><br/><br/>-정부가 해외 가이드라인을 보수적으로 받아들인다는데<br/><br/>◇고형우=국내 급여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의사, 전문가, 학회의 의견이다. 학계에서 난소암 급여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그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br/><br/><br/><br/>-1차 치료에 표적치료제 투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br/><br/>◇김병기=미국 FDA 같은 경우 생존율이 허가에 중요한 기준이다 보니, 실제 생존율 연장을 확인만 할 수 있다면 금방 급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확인이 안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난소암의 특징이다. 난소암이 항암제에 민감한 병이다 보니 한번 재발되고 나서는 2차 치료, 3차 치료, 4, 5차 까지 계속 치료가 이어지고, 그러는 동안 약이 바뀌다 보니, 이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쓴 약들 중 단지 한 개의 약의 효과를 판정하기 너무 어렵다. 또한 치료 과정 중에 1차 치료에서 평가하고자 했던 약을 또 쓰는 경우도 많다보니 단지 하나의 약으로 생존율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br/><br/> 미국 연구 같은 경우 임상 진행 중 높은 교차투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는 아닐지라도 복수가 많이 찬 환자들의 실제 생존율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논문이 작년에 나왔었다. 또는 최초의 논문이 보고될 때도 난소암 4기 환자는 생존율 증가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유럽의 경우, 고위험군이라 해서, 1) 4기 환자나 2) 수술 했지만 너무 진행이 많이 돼서 잔존암을 1cm 이하 줄일 수 없었던 환자, 3) 3∼4기 환자들 중 내과적 질환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와 같은 세 그룹은 생존율 증가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와 호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세 가지 환자들 대상으로 급여를 해 준 것이다. 즉, 충분한 근거는 아니지만 근거는 있다고 말할 수 있다.<br/><br/>◇고형우=물론 보험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여러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난소암의 특징이 1차보다 나중에 치료하기 어려워지니 1차에서 빨리 치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그런 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br/><br/><br/><br/>-난소암 치료 급여화가 10년째 답보상태라는 지적도 있다.<br/><br/>◇김병기=난소암에서 아바스틴은 두 개의 임상 결과로 급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과 암질환심의위원회 담당자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평가할 때 평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 많은 임상시험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뚜렷한 생존기간 연장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다른 암에 비해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희귀암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소암은 연구과제마저도 채택이 잘 안 된다. 정부에서는 폐암 등 다빈도 암의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수암이 어쩔 수 없이 희생할 수 밖에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장성 강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현재, 소수암도 적극적으로 배려해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다.<br/><br/>◇고형우=난소암 같은 경우 1차,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초기 치료에 있어서 표적치료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기준이나 용법, 용량, 기간 등이 학회, 전문가, 가이드라인, 교과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한적으로나마 급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암질환에서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난소암도 확대되고 있다. 난소암 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도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급여가 일부나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br/><br/>◇김병기=난소암은 급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난소암에 특별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난소암은 1차, 2차 계속 치료가 이어지지만 1차가 가장 효율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인프라를 1차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현재 1차에서 사용 가능한 표적치료제는 아바스틴 한 가지뿐이며 향후 10여년 안에는 새롭게 등재될 약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급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br/><br/>◇김재원=1차 치료에서 최대한 생존율, 재발을 늦춰주는 무진행생존기간 연장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br/><br/>◇김단비=난소암 보장성 강화라는 주제로 오늘과 같은 패널 토의도 여러 번 진행됐고, 전문가들도 매번 토론을 하는데 환자들이 이를 보면 분명 희망을 갖게 될 거다. 환자들이 하루빨리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 <br/><br/>정리=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62.txt

제목: 새색시처럼 고운 ‘할미’들의 봄마중… ‘동강할미꽃’의 고장 강원도 정선 기행  
날짜: 2016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30185045368  
본문: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으로 알려진 ‘동강(東江)’은 강원도 정선의 주강이다. 동강 물길 51㎞ 중 태백이 5㎞, 영월이 14㎞인데 정선은 32㎞다. 동강에서 봄철에 유난히 주목받는 것이 있다. 암벽 틈 사이로 빠끔히 고개를 내밀고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동강할미꽃’이다. 고개를 숙이는 여느 할미꽃과 달리 깎아지른 기암괴석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신비스럽게 꽃을 피워 보석 같은 꽃향기를 뿜어낸다. 강인한 생명력이 경이롭다.<br/><br/> 동강할미꽃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15㎝ 정도의 꽃을 피운다. 꽃대 전체에 흰 털이 많다. 잎은 뿌리에서 나는 깃꼴겹 잎으로 작은 잎 7∼8장으로 이뤄진다. 동강 주변의 정선, 영월, 평창의 석회암 바위틈에서 자라는 한국의 자생 야생화다. 1997년 한 식물사진가에 의해 발견돼 세상에 알려졌으며 2000년 6월 ‘동강할미꽃’이란 이름을 얻었다. 가장 늦게 봄이 드는 강원도 땅에 살지만 3월말부터 4월 초순에 어김없이 꽃을 피운다. 현란하게 화려하지 않지만 잔잔한 잔영을 남기는 아름다움이다. 이름만 들어도 정겨운 우리 꽃이다.<br/><br/> 처음 동강할미꽃이 발견된 곳은 정선군 귤암마을이었다. 수직 절벽이 동강할미꽃의 자생지다. 이름은 할미꽃이지만 전혀 할머니 같지 않다. 수줍은 새색시 마냥 가냘프고 고운 미녀 같은 꽃이다. 연분홍, 청보라, 붉은 자주색 꽃이 하늘을 향해 초롱초롱 빛을 낸다. 동강을 붉게 물들인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 동강할미꽃도 활짝 열었던 꽃잎을 서서히 닫는다. <br/><br/> 동강할미꽃을 맞이하러 가는 길은 쉽지 않다. 꼬불꼬불한 동강변 도로를 한참 달려야 한다. 길 한 켠에 ‘낙석주의’ 표지판이 긴장감을 준다. 그렇게 가는 길에 만나는 ‘동강할미꽃 군락지’라는 표지판이 반갑다. 동강할미꽃은 장미나 튤립처럼 흐드러지게 피지 않는다. 군락지라고 해서 빠르게 지나치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눈을 부릅뜨고 바위벽을 찬찬히 살펴야 그 틈에서 손을 들고 있는 보랏빛 꽃을 마주할 수 있다. 그 빛은 장미의 붉은색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다.<br/><br/> 귤암리는 53가구에 138명이 사는 마을이다. 정선에서 유일하게 온대식물인 감나무가 재배 되는 곳으로 예부터 감꽃이 만발해 귤화리라고 칭하던 ‘귤’자와 의암이라는 자연부락 이름에서 ‘암’자를 따왔다. 주민들은 세계 유일종이며 한국특산종인 동강할미꽃을 보존하기 위해 2005년 ‘동강할미꽃 보존·연구회’를 창립했다. <br/><br/> 귤암리 동강생태체험학습장 및 동강 유역에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제10회 동강할미꽃축제가 개최된다. 동강할미꽃 분재 및 사진전시, 마을풍경 그림전시, 동강할미꽃 10년사 자료 전시, 한반도지형 및 수리봉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br/><br/> 동강할미꽃 보존·연구회 서덕웅 회장은 “<span class='quot0'>동강할미꽃축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라기 보다 자연의 고마움을 자연 속에서 느끼고 아름다운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척박한 환경 극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는 동강할미꽃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배우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br/><br/> 귤암리 동강생태체험공원에서 올려다보면 병방산(兵防山·861m)이 웅장하게 서 있다. 위로는 천층 절벽이요,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 강물이라 한 사람만 지켜도 천군만마가 근접하지 못할 요새지여서 이름 붙여진 곳이다. 그 산 중턱에 병방치라는 옛길이 있다. 1974년 강변으로 통행할 수 있는 호박길(동강로)이 생기기 전까지는 산 아래 귤암리 주민들이 정선 5일장터에서 생필품과 비료, 시멘트 등을 운반했던 생명의 길이었다. 병방산의 허리를 가로질러 오르는 고갯길의 경사를 낮추기 위하여 36굽이 뱅글뱅글 돌아 통행했기에 뱅뱅이재라고 불린다. 다람쥐도 한숨짓고 나는 새도 쉬어가는 길이다.<br/><br/> 병방치에 서면 굽이치는 동강의 아름다움이 가슴 뻥 뚫리는 청량감을 준다. 깎아지른 듯한 산세를 따라 뱅뱅 돌아가는 옛길을 따라 가면 동강변 할미꽃마을에 이르게 된다. 약 3㎞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br/><br/> 정선에서 요즘 ‘뜨는’ 곳이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송중기·송혜교 주연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고한읍 ‘삼탄아트마인’이다. 함백산 자락에 위치한 옛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의 폐광시설을 이용해 시간의 흔적과 예술의 희망을 캐는 콘셉트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예술광산으로, 지난해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됐다. 1964년부터 2001년 10월 폐광되기 전까지 3000명이 넘는 광부가 석탄을 캐던 삶의 터전이었다. 갱도로 내려가는 승강기와 석탄을 나르던 레일 등이 모두 보존돼 있다.<br/><br/><br/>◆ 여행메모<br/><br/>영동고속도·42번 국도 이용 3시간 소요… 곤드레나물밥 별미<br/> <br/> <br/>영동고속도로 새말IC에서 나와 42번 국도를 타고 평창읍을 지나 비행기재터널을 통과한 뒤 7㎞가량 가면 광하교다. 이 다리를 지나 강변을 타고 4㎞ 정도 더 가면 ‘동강 할미꽃 축제’가 열리는 정선 귤암마을이다. 약 3시간 걸린다. 동서울터미널에서 정선행 시외버스가 있다.<br/><br/> 정선읍내에서 59번 국도를 따라 가다 남면에서 38번 국도로 갈아타고 고한읍을 지나면 삼탄아트마인에 다다른다. 지난해 한국관광100선에 포함된 삼탄아트마인은 탄광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공간으로 문 닫은 뒤 멈춘 과거의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다. 4층부터 전시 공간 10여 곳을 둘러보면 석탄을 캐서 모으던 시설에 미술 작품을 가미한 레일바이뮤지엄을 거쳐 기억의 정원 등이 있는 야외 공간으로 나온다. <br/><br/> 정선은 곤드레나물의 고장이다. 정선읍내의 싸리골식당(033-562-4554)은 곤드레나물밥(사진)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다. 아라리촌주막(033-563-0055), 동박골식당(033-563-2211), 동광식당(033-563-3100), 짐포리식당(033-562-2479) 등도 맛집이다.<br/><br/>정선=글·사진 남호철 여행선임기자 hcna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63.txt

제목: 노박의원 노태성 원장, 하버드의대서 쓰는 EECP 도입… 심장·뇌혈관질환에 탁월  
날짜: 2016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30184059162  
본문: 책 ‘노박사의 따뜻한 암치료’(생명나무) 저자로 유명한 노태성 원장(61·신촌성결교회 장로)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노박의원은 늘 환자로 붐빈다. <br/><br/> 암전문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노박의원은 최근 몸의 중심기관인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체외역박동치료기(EECP)를 도입, 앞서가는 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br/><br/> “미국 FDA에서 승인하고 하버드의대 존스홉킨스 등 900여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돌연사 하는 것이 결국 심장질환입니다. 결국 몸 속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못해 병이 생기는 것인데 이 기기는 편안히 누워 있는 상태로 심장과 오장육부, 말단혈관까지 혈류량을 증가시켜줍니다.”<br/><br/> 이 박동기 치료원리는 팽창 가능한 커프 세트를 통해 기계적으로 환자혈관을 압축시켜 관상동맥으로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것이다. 수축과 이완작용을 기계가 반복시켜 줌으로 혈액량과 산소량을 증가시켜 심장 및 뇌혈관질환 환자들에게 큰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br/><br/> 현재 고가인 박동기 2대를 도입, 예약을 받아 치료를 해주고 있으며 환자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은 편이다. 이미 구미에서 상당한 치료효과가 임상으로 입증돼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br/><br/> “EECP가 협심증을 가진 암환자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혈류를 빠르게 돌게 함으로 신체기능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협심증을 예방하고 심부전 고혈압 당뇨 등 뇌혈관계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br/><br/> 노 박사는 “<span class='quot0'>이 기기가 고가이지만 환자에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했으며 ‘제2의 심장’으로까지 불리는 이 기기 효과에 대해 의사인 나도 기대가 크고 활용률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span>”고 밝혔다. <br/><br/> 노 원장이 각 암 환자에 맞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는 노박의원을 국내는 물론 중국에까지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병원이 위치한 신길동이 중국동포 및 한족들이 많이 거주해 이들을 통해 본토에까지 소문이 나서 환자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br/><br/> 이에 노 원장은 중국어를 직원들과 배워 의사를 소통할 수준이 되었으며 치료환자들이 감사인사와 휘호까지 보내 오는 등 환자들이 늘고 있다. <br/><br/> 노박의원은 수술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현대의학이 실시하는 암 치료법을 넘어, 영양면역요법과 운동면역요법·정신(영)면역요법 등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무리를 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다. <br/><br/> “저도 많은 환자들을 대하지만 면역력을 극대화 함으로 암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심리적인 안정과 병을 이기겠다는 자신감, 신앙 등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더 커지곤 합니다.”<br/><br/> 노 원장은 환자특성에 맞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래서 자신이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생리학 박사로 미국에서 암유전학을 공부했지만 자연의학을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노 원장은 미국에 갔을 때 베일러(Baylor) 의과대학에서 자연치료의사(ND)들이 따로 있고, 치유의학이 아주 체계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귀국 후 양방과 함께 자연치료도 병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br/><br/> “자연치료는 체온을 올려 면역력을 강화하고 백혈구와 적혈구를 증강하며 체질을 변화시켜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연치료는 보완적 측면에서 환자의 고통이 감소되고 생명이 연장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br/><br/> 노 박사는 “<span class='quot0'>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암 등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 절망감 등을 회복시켜 줄 때 인체의 천연방어력이 가동된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래서 물리적 치료를 넘어 정신적 치료에도 큰 관심을 갖고 환자들과 가능한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한다</span>”고 말했다. <br/><br/> “중국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7층 건물의 입원실은 일부가 가정집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꾸몄구요. 아울러 다양한 의료 보조 기기를 보유해 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약물치료뿐 아니라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균형을 잡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br/><br/> 기독교인이자 교회 장로로서 늘 환자를 사랑으로 대하며 새로운 도전을 주저치 않는 노태성 박사는 “<span class='quot1'>늘 마음 졸이는 환자들의 안타까운 입장을 생각하며 치료에 임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결국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은 저비용에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아 드리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의 직업을 주신 이유와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br/><br/>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64.txt

제목: “전자파 NO”… 답 못찾는 송배전 시설 갈등  
날짜: 201603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9213108177  
본문: 전국 각 지자체에서 도심 속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 송배전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전력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등을 우려해 거세게 반발하는 형국이다.<br/><br/> 29일 전남 나주 한전본사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2005년 12월 시작된 밀양 송전탑(765㎸) 반대투쟁 이후 전국 각지에서 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분쟁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br/><br/> 한전은 현재 가동 중인 인천 영종변전소에서 6.5㎞ 거리에 중산변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운남동 일대 중산변전소는 내년 4월 완공되면 영종변전소에서 공항신도시를 지하로 지나는 고압전력을 넘겨받아 전압을 낮춘 뒤 영종하늘도시 입주민 등에게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br/><br/> 하지만 주민들은 “영종도에 남아도는 땅도 많은 데 왜 하필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가까운 곳에 설명회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변전소를 세우느냐”며 공사철회를 요구하고 있다.<br/><br/> 전주 도심 옛 송천역 부지 4716㎡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설 송천변전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1월 착공, 내년 4월 완공 예정이지만 지역주민과 지방의원, 환경단체 회원 등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는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전 측은 전주 동북부권 전력공급을 위해 변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br/><br/> 원활한 송배전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도 잦은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있다.<br/><br/> 인천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 서부지역에 공급할 목적으로 2014년 6월 착공한 지중 송전선로 설치공사가 대표적이다. 총 23.4㎞구간에 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이 공사는 경기 부천 원미구 구간의 경우 전체 4개 구간 중 3개 구간에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가 상동신도시 아파트 입주민과 시민단체의 집단 민원에 밀려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거나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한전 측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부천시가 불복해 항고한 상태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채 법정 다툼 중이다.<br/><br/> 광주광역시 삼각동 국제고 앞 송전탑 역시 광주시와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중화 공사비의 분담비율을 놓고 지난해부터 해묵은 갈등을 빚고 있다.<br/><br/> 한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도시권역이 확장되면 전력수급을 위한 변전소 건설과 송전선로 추가 설치는 필수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암 발병 등을 걱정하지만 발생하는 전자파는 냉장고와 TV 등 전자제품 수준에 불과하다</span>”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br/><br/> swjang@kmib.co.k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65.txt

제목: [비즈파일] 동부화재, 손보 첫 한방보험 출시  
날짜: 201603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9210022263  
본문: 동부화재는 손해보험사로는 처음으로 한방치료를 보장하는 ‘한방애(愛)건강보험’을 29일 출시했다. 수차례에 걸쳐 이뤄지는 한방치료의 특성을 감안해 첩약은 3회, 약침 5회, 한방 물리치료는 5회까지 보장한다. 3대 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과 상해수술, 골절 시 한방치료뿐 아니라 보험업계 최초로 교통사고 부상, 추간판탈출증 수술, 관절증 수술 후의 한방치료도 보장한다. 100세 만기 상품으로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66.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56) 연세에스병원 림프부종 및 하지정맥류클리닉] 하지정맥류 아시아 최다 치료  
날짜: 2016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8202014275  
본문: 서울 강남구 학동로4길 영동시장 입구 연세에스병원(원장 심영기)은 일반인에게 조금 낯선 병원이다. 다른 전문병원들과 같이 환자나 보호자들로 복작대지 않는다. 그래서 병원 내 외래대기실은 물론 입원실도 적막하다 싶을 정도로 조용한 편이다.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들만 찾는 병원인 까닭이다.<br/><br/> 연세에스병원은 성형외과가 주 진료과목이다. 병원장 심영기(63) 박사도 성형외과 전문의 1세대다. 그런데 이 병원은 서울 강남지역의 여느 성형외과와 많이 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쌍꺼풀 수술이나 코 성형 수술 후 얼굴에 붕대를 감거나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환자들보다는 얼핏 보기에도 비정상적으로 굵은 팔다리에 압박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 바로 하지정맥류와 림프부종 환자들이다.<br/><br/> 심 박사는 국립의료원 성형외과에 근무할 때나 심영기SK성형외과를 개업했을 때 한동안 인공적으로 외모를 가꿔주는 미용성형 수술을 주로 했다. 특히 얼굴에 생긴 주름이나 기미를 레이저로 제거하는 시술을 많이 했다.<br/><br/> 그러나 어느 순간 회의감이 밀려들었다. 심 박사는 28일 “<span class='quot0'>주일 날 교회에서 기도 중 불현듯 같은 미용성형이라도 인공미인을 만들어주기보다 병적으로 일그러진 몸에 자연미를 되살려주는 재건성형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span>”고 털어놨다.<br/><br/> 그래서 일차로 찾은 것이 성형외과 분야인데도 당시로선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하지정맥류 수술이었다. 하지정맥류란 유전 또는 직업의 영향으로 정맥판막기능에 문제가 생겨 혈액이 역류되는 바람에 다리에 굵고 푸른 혈관(속칭 힘줄)이 도드라져 보이는 질환이다.<br/><br/> 국내에서도 점점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인구의 약 5%에서 발견될 정도다. 더욱이 발병하면 자연 치유되지 않고 점점 심해져서 피부 각화현상, 혈전성 정맥염 및 궤양이 생겨 고통이 가중된다. 이런 후유증을 막으려면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치료 전후 악화 및 재발 예방을 위해 의료용 압박스타킹도 신어야 한다.<br/><br/> 심 박사는 1995년부터 수십 차례 독일을 오가면서 수술하지 않고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을 탐문했다. 그 결과 혈관경화제 주사로 도드라져 보기 흉한 혈관을 없애는 치료법을 비롯해 고주파, 레이저, 냉동요법 등 이 분야의 새로운 의료기술을 잇달아 선보이는 개척자가 됐다. 비(非)수술 하지정맥류 치료법을 더욱 발전시킬 목적으로 2001년엔 대한정맥확회 발족도 주도했다.<br/><br/> 연세에스병원이 그동안 국내외에서 치료한 하지정맥류 환자 수는 무려 4만여명이나 된다. 아시아권 최다 진료 실적이다. 정맥류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다 보니 다리 수술 권위자로 소문이 나게 되면서 난치성 림프부종 환자들도 연세에스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둘 다 다리 문제니까 이 병원에선 치료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환자들 사이에 퍼진 것이다. 연세에스병원이 하지정맥류클리닉에 이어 난치성 림프부종클리닉도 전문화하게 된 배경이다.<br/><br/> 림프부종은 림프관이 막히거나 기능부전으로 팔이나 다리가 점점 심하게 부어오르는 병이다. 주위 림프절까지 절제한 암 수술 환자의 약 30%에서 수술 직후 또는 수년 후 나타난다. 유방암 수술 후에는 팔이, 자궁암 수술 후에는 다리가 붓게 된다.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를 받은 환자일수록 림프부종 발생률이 높다. 국내에는 현재 약 3만명의 림프부종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br/><br/>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암 치료 후 합병증으로 생기고, 후진국에선 사상충 감염에 의한 풍토병으로 많이 발생한다. 문제는 선진국 병원, 후진국 병원 가리지 않고 붕대요법, 마사지, 압박스타킹 착용 외에 환자들에게 마땅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점이다.<br/><br/> 심 박사는 수소문 끝에 림프절 미세수술 대가인 프랑스의 코린 베커 교수를 알게 됐고, 2008년부터 직접 프랑스로 날아가 수차례 그의 수술법을 배웠다. 또 연세에스병원으로 베커 교수를 초청, 그의 지도 아래 림프절이식수술을 집도하며 경험을 쌓았다.<br/><br/>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기대 이하였다. 그 때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심 박사 특유의 도전 정신을 자극할 정도로 무척 컸다. 심 박사는 결국 베커식 치료법을 뛰어넘는 자신만의 새 치료법, ‘림프배액술’을 고안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데 성공했다. 소위 ‘심영기식 림프배액술’의 탄생이다.<br/><br/> 이 치료법의 성적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상태다. 심 박사는 “<span class='quot0'>시술 후 모든 환자에게서 부종이 8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span>”고 밝혔다.<br/><br/>심영기 박사는 한국의사 첫 중국 의사면허… 번역서 4권 펴내고 3차례 대변신<br/><br/>1954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다. 서울 경동고등학교를 거쳐 79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인턴 및 전공의 수련과정은 국립의료원 성형외과에서 이수했다.<br/><br/> 87∼92년 국립의료원 성형외과 전문의와 부과장을 역임하고, 93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심영기SK성형외과의원을 개원했다. 이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연세에스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중국 다롄과 베이징 도심에도 각각 분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심영기 박사는 한국 의사로선 최초로 중국 의사면허를 획득했을 정도로 중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한다. 중국인 환자를 보는데 막힘이 없다. 90∼91년 스웨덴 웁살라대병원과 일본 키타사토대병원에서 각각 미세수술기법을 익혔다. 이때의 인연으로 스웨덴 스쿠그(SKOOG)의학회와 일본 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이 됐다.<br/><br/> 심 박사는 이밖에도 98년부터 세계정맥학학회 정회원, 대한성형외과학회 종신회원이면서 국제성형외과학회와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미세외과학회 정회원이기도 하다. 또 95년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학술이사를 역임한데 이어 2001년과 2008년 각각 대한정맥학회 부회장과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동안 도설임상성형외과 강좌I·II, 성형외과의 기본수기, 창상치유 조직이식 등 번역서 4권을 펴냈다. 기초임상성형외과학을 저술했다. 2005년 1월 한국과학기자협회와 손잡고 의료봉사단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창립해 초대회장으로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2011∼2012년 스와질랜드 기독의과대학 설립 추진위원장을 역임했다.<br/><br/> 심 박사는 지금까지 3차례 변신을 꾀했다. 제1기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레이저 주름제거 등 미용성형 분야에 주력하던 때, 제2기는 같은 미용성형 분야이면서도 쌍꺼풀이나 코 성형, 윤곽교정 등에 밀려 관심권 밖에 있던 하지정맥류 치료 분야를 개척해 정맥학회까지 만들어 발전시킨 때다.<br/><br/> 심 박사는 2008년부터 시작된 또 다른 변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 암 수술 후유증으로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부어올라 고통을 받는 림프부종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다. 연세에스병원을 세계적인 하지정맥류 및 림프부종 전문병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꿈도 품고 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67.txt

제목: 간암 투병 중 ‘가스펠계 조용필’ 박종호 장로 “돌보지 않는 곳을 찾아 노래 부르게 허락해 주세요”  
날짜: 2016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5211027852  
본문: ‘제가 주일 저녁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월요일에 수술을 합니다. 간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후 간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었던 지난 10일 박종호(54·동탄지구촌교회) 장로님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풍채 좋은 박 장로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1987년 데뷔 후 전 세계에 은혜와 복음을 전한 찬양 사역자입니다.<br/><br/> 2년 전 이맘때 서울 여의도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국민일보 2014년 3월 8일 26면). 그는 국내외 곳곳의 교회와 선교지를 찾아다니며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례비를 차곡차곡 모아 매년 1억원 이상을 예수전도단에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집을 빌려 살고요. 그는 ‘하나님의 도시락’이 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습니다.<br/><br/> “마음이 가는 곳에 간다”며 밝게 웃던 박 장로가 암 수술 후 간이식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4일 수술 후 박 장로를 돕고 있는 그의 고교 선배 마진(56)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수술은 잘 됐고 경과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장로님을 뵙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진님은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 장로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이지만 수술 후 구토로 누런 위액, 퍼런 담즙까지 토하며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21일 오후 4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서울아산병원 동관 94동을 찾았습니다.<br/><br/> 병원 휴게실에서 만난 그는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23일 퇴원 전까지 암 전이 여부를 알아보는 15가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낯빛이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간암을 발견했는지 물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속이 늘 더부룩했습니다. 이달 초 병원에 갔지만 위나 대장에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간 수치야 늘 높다고 했고…. 매형의 권유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했습니다.”<br/><br/> 의사가 간에서 이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기공명영상(MRI)도 찍었고요. “건강한 사람의 간은 풍선처럼 커다랗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간은 가지처럼 쭈그러들어 있어요. 간경화로 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암세포가 자라나는 중이었습니다. 지난주 한 수술은 그 암세포를 제거하고 전이를 막는 수술이었어요. 앞으로 석 달 안에 건강한 간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br/><br/> 박 장로는 자기 몸을 소홀히 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미국에서 4∼5시간씩 달려 한인교회에 가서 노래하고 당일 다시 그 시간만큼 운전해서 돌아오는 걸 숱하게 했습니다. 제 건강을 믿고 피곤한데도 버텼습니다. 오만방자했던 것 같습니다. 15년 전 미국에서 하나님이 제게 경고를 주셨는데도 알아채지 못하고….”<br/><br/> 그는 2000년 뇌졸중(TIA) 증상으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대화 중 주사를 맞게 돼 병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는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간암 진단을 받은 뒤 처음엔 몹시 괴로웠다고 합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비라고 뭐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두 딸과 아들에게는 입도 안 떨어지고.”<br/><br/> 그런데 그의 오랜 친구가 와서 옛날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고교 때 우리 둘이 강원도 동해에서 수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친구는 물에 뜨려고 발버둥치는데 오히려 가라앉으면서 허우적대기기만 했대요. 근데 저는 바다 위에 이불이라도 깔아놓은 것처럼 머리, 팔, 다리를 누였답니다. 그리곤 둥둥 뜨더랍니다. 그 친구가 제게 ‘종호야, 그때처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더군요.”<br/><br/>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살고 죽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니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하더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는 성구가 떠올랐습니다. 박 장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시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으로 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제 주일에는 병원 교회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시각장애인 여러 분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어찌나 은혜로운지 눈물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는 ‘주는 평화’란 노래를 요즘 흥얼거린다고 합니다. ‘주는 평화/우리의 평화/염려 다 맡기라/주가 돌보시라’란 가사의 노래입니다.<br/><br/> 사진 촬영을 요청하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울 텐데 말이죠. 역시 ‘가스펠 스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마진님이 저를 배웅했습니다. “<span class='quot0'>많은 분들이 박 장로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span>” 매년 거액을 기부하는 박 장로의 수중엔 당장 간이식 수술비를 낼 돈이 준비돼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br/><br/>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남’일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느끼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투병 중인 박 장로. 그가 앞으로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갖길 기도합니다.<br/><br/>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68.txt

제목: [김경철의 닥터 바이블] 후생유전학과 야곱의 지혜  
날짜: 2016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5173615890  
본문: 2003년 인간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30억 개의 염기서열 비밀이 풀렸을 때만 해도 이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밝혀져서 불치병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인간의 질병이나 운명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바뀌어 간다. 이를 포스트게놈이라 하며 그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후생유전학(epigenetics)이다. <br/><br/> 즉 후생유전학은 선천적인 돌연변이가 아닌 후천적으로 음식, 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이 DNA에 영향을 주어 사람에 대한 질병을 일으키거나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연구하는 최신 학문을 말한다. 후생유전학의 한 분야 중 하나는 산모일 때 먹는 음식에 따라 자녀의 질병이 결정된다는 ‘태아 재프로그램(fetal reprograming)’이라는 개념이 있다. <br/><br/> 보통 어른들이 태교를 강조하고 산모의 음식과 정서를 신경 쓰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이는 그 분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로 내린 결론이다. 현대의학에서는 유전학적으로 이를 분명히 증명한 것이다. <br/><br/> 대표적인 연구로는 임신한 어미 쥐에 각기 엽산의 양이 다른 음식을 먹였더니 자녀 쥐의 피부색이 검거나 얼룩무늬 혹은 희거나 노란 피부를 보인 결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구티 쥐에서는 검거나 얼룩무늬(아롱진) 피부의 쥐를 건강하거나 오래 사는 쥐, 노란 피부의 쥐는 암, 당뇨 등 여러 질병에 걸린 쥐라 판단한다. 이 연구를 통해 산모 때 먹는 특정 음식과 스트레스 등의 환경이 후세대에 영향을 주어 질병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r/><br/>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야곱이 장인 라반과 헤어질 때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엉뚱한 제안을 한다. 새로 태어난 양과 송아지의 피부가 아롱(얼룩)지면 자신의 것으로 하고 정상적인 피부로 태어나면 장인의 것으로 한다는 제안이다. 돌연변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적으므로 장인은 이 제안을 받는다.<br/><br/> 그 후 야곱은 임신한 양에게 살구와 단풍나무를 먹이는데 살구는 엽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이다. 앞의 실험대로 엽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양은 얼룩지고 검은 양을 낳고 얼룩 양은 유전적으로 우성이라 자손이 계속 얼룩 양으로 번창한다. 이런 방식으로 야곱은 라반의 양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br/><br/> 야곱이 후생유전학의 원리를 알았을 리는 없었겠지만 임신 중에 무엇을 먹는지가 후손의 질병을 결정하는지를 경험하고 깨닫는 지혜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의 특징이나 질병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지기도 하지만(nature), 살아가면서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다(nurture). <br/><br/> 설사 우리가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났든 그렇지 않든, 매일의 일상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를 멀리하며 적절한 운동과 수면을 통해 더욱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알도록 하자. <br/><br/>김경철(차의과학대학교 차움병원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69.txt

제목: 동부화재, 질병 단계별로 더 받는 건강보험 출시  
날짜: 2016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3193520008  
본문: 동부화재가 한국인의 사망원인 1∼3위를 차지하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은 물론 다양한 질병을 초기부터 말기까지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단계별로 더 받는 건강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출시와 동시에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br/><br/>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질병을 초기부터 말기까지 단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이다. 기존 보험상품들의 보장이 주로 말기·중증질환 위주였던 데 비해 이 상품은 질병의 초기 단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점이 주목할만하다.<br/><br/> 최근 국내에서도 성공사례가 자주 보고된 경피적 심장판막성형술이나 경피적 대동맥류 중재술은 물론 심장박동에 이상이 있는 경우 몸속에 심박조율장치를 삽입하는 수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뇌혈관을 터지지 않게 하는 수술 등이 초기 단계 질병 보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br/><br/> 업계 최초로 병원 종류에 따라 입원일당도 차등 보장한다.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시 1일당 최대 8만원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br/><br/> 또 장기보험 최초로 산업재해로 장해진단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직전 암 진단 후 2년이 경과한 뒤 발생한 암을 보험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고, 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은 초기부터 말기까지 진단비와 수술비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장한다. 단계별 뇌혈관질환진단비 특약 가입시 뇌혈관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최대 4회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br/><br/>김진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70.txt

제목: 교보생명, ‘DIY상품’으로 고객들 생애설계 동행  
날짜: 2016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3193519221  
본문: 교보생명이 선보인 ‘내 생활에 맞춘 보장보험(갱신형)’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DIY 보험상품이다. 이 상품은 사망을 비롯해 각종 재해나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으로 고객의 나이, 라이프스타일, 경제상황에 맞게 필요한 보장을 실속 있게 골라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br/><br/>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과 생활보장특약(4종), 일반특약(7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을 조립해 본인에게 딱 맞는 보험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br/><br/> 생활보장특약은 상해, 암, 2대 질병, 간병플랜 중 1개 이상을 가입해야 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큰 질병이나 재해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진단비와 함께 본인과 남은 가족에게 3년 동안 매월 생활비를 지원한다. 가령 ‘암플랜’으로 1구좌(가입금액 1000만원)를 가입한 경우 일반암 발생시 진단비 1000만원과 함께 매월 생활비 50만원을 3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br/><br/> 또 입원이나 수술·골절 등을 보장하는 일반특약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갱신형(20년) 계약으로 합리적인 보험료로 꼭 필요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br/><br/> 최초 가입시에는 순수보장형과 100% 및 70% 만기환급형 중 선택할 수 있고 만기환급형의 경우 주계약과 생활보장특약의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은 보험료는 갱신할 때 보험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단 20년 후 갱신시에는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수보장형으로만 갱신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갱신시점에 보장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최소납입보험료는 2만원 이상, 납입기간은 전기납(20년)이다. <br/><br/>김진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71.txt

제목: [시사풍향계-윤영호] 최고의 호스피스법 준비 서둘러야  
날짜: 2016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3174831070  
본문: 지난 1월 19대 국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를 공포하면서 2017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음 발의됐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이 이번 국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국회의 치열한 논의와 노력, 정부의 설득 그리고 국민의 염원이 결집돼 극적으로 통과됐다. <br/><br/> 암관리법에 말기암 환자를 위한 완화의료가 포함돼 있어 전국 60여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완화의료수가가 건강보험으로 인정됐고 3월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도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호스피스법은 기존 암관리법과는 차원이 다른 세 가지 커다란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br/><br/> 첫째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의 역할을 치료는 불가능해졌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가진 인간을 전인적으로 돌보는 의료’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죽음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불가능해졌을 때 죽음을 ‘치료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완성’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환자와 가족, 국민 개개인이 져야 했던 죽음이라는 짐을 이제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br/><br/> 개인적으로 우리 호스피스법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법이라고 자부한다. 하지만 법이 온전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구체화하고 표준화된 연명의료결정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서식, 작성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요양병원들로 인해 자칫 ‘현대판 고려장’이나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br/><br/>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제도화의 대상을 말기암 환자에서 다른 질환에 의한 말기 환자로 확대함에 따라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말기 판단 절차와 시기 그리고 제공되는 진료 내용 등을 연구하고, 말기환자 진료지침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br/><br/> 정부는 삶과 죽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 법에서는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를 적극 이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해두었다.<br/><br/> 조직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법에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다. 현재 복지부 내에 관련 업무가 여러 국과 과로 분할돼 있어 차질 없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장급의 추진단장을 임명해야 하며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br/><br/> 마지막으로 내년 호스피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서둘러 내년 사업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br/><br/> 병원들은 법 시행 전에 연명의료계획 서식과 절차, 지침을 만들고 담당 의료진을 교육해 호스피스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들도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가족에게 밝히고 서면이나 녹음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법안이 시행되려면 2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br/><br/> 무엇보다 ‘어디에서’ ‘어떤 돌봄’을 받으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바람직한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래야 정부가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며 병원들도 준비할 수 있고 국민들이 갈등하지 않기 때문이다.<br/><br/>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72.txt

제목: 수도권 초교 우레탄 트랙 절반 이상이 납 기준치 초과  
날짜: 2016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2215104763  
본문: 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학생들은 최대 허용량보다 1.24배 많이 납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br/><br/> 환경부는 지난해 5∼12월 수도권 30개 초등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트랙 유해물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 30곳 중 25곳은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이 모두 설치됐고 5곳은 인조잔디만 있는 학교였다.<br/><br/> 환경부는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에서 납 카드뮴 등 6개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7종의 함유량을 조사했다. 우레탄트랙 25개 중 13개가 한국산업표준(KS) 납 기준치(90㎎/㎏)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시공 과정에서 우레탄을 빨리 굳게 하려고 납을 추가하거나 안료에 함유된 중금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br/><br/> 프탈레이트는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만 검출됐다. 현재 프탈레이트에 대한 기준치는 없다. 인조잔디 파일이나 충진재에서는 모두 기준치 이내의 중금속이 검출됐다.<br/><br/> 환경부는 조사대상 초등학교의 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위해성도 평가했다.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의 경우 93명의 평균 위해도가 평생 노출될 경우 10만명당 3.29명이 암에 걸릴 확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은 최대 허용량보다 1.24배 많이 노출된 상태였다.<br/><br/> 환경부는 교육부에 우레탄트랙 바닥에 앉지 않기, 야외활동 후 손 씻기 등 어린이 행동요령 교육을 요구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프탈레이트 허용 기준치 설정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올해부터 어린이 생활유형을 정밀 분석해 추가 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73.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1부 ⑤] 병상 줄여 수익 포기… 환자들은 쾌적한 마침표  
날짜: 2016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2041319766  
본문: 1부 : 호스피스, 나를 위한 선택<br/><br/>⑤ 공공형 호스피스 확산돼야<br/><br/><br/>“<span class='quot0'>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보시는 모습에 정말 감명 받았습니다.</span>” “<span class='quot0'>아버지를 정성스레 간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span>”<br/><br/>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입구에 세워진 안내판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붙어있다. 이곳을 거친 말기 암 환자 가족이 남긴 고마움의 표시다. 4개 병실(3인실)에는 방 번호 대신 ‘물망초’ ‘은방울’ ‘로즈마리’ ‘자스민’이라는 꽃 이름이 붙어있다. 지난 17일 이곳에서 만난 김연미 사회복지사는 “‘○○○호 환자’라고 하지 않고 ‘물망초의 누구’ 식으로 부른다. 환자가 아닌 인격체로 대하기 위함”이라고 귀띔했다.<br/><br/> 병실과 복도에는 조용하게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무거움이나 엄숙함보다 아늑함과 편안함이 느껴졌다. 환자와 가족들 얼굴에 두려움이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다.<br/><br/> ‘자스민’에 입원한 배모(80)씨는 지난해 4월 국립암센터에서 신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수술 후 1년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지난달 23일 집과 가까운 파주병원으로 왔다. 병실을 찾아오는 친구들은 배씨에게 큰 위로다. 국립암센터에 입원했을 땐 병문안이 흔치 않았다고 한다. 그는 “<span class='quot0'>가까운 곳에 호스피스병동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span>”고 했다. 아내 곽모(70)씨는 “<span class='quot1'>암센터에 있을 때보다 병실이 넓고 환자가 적어 간병하기 편하다</span>”고 말했다.<br/><br/> 파주병원에 호스피스병동이 들어선 건 2012년 11월이다. 병상 30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12개만 놓았다. 환자들은 답답한 병실 대신 쾌적한 공간에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 대신 병원은 줄어든 병상만큼 ‘수익’을 포기해야 했다. 실제 파주병원은 호스피스병동에 매년 2억원가량 적자를 보고 있다.<br/><br/> 하지만 병원 측은 수익 대신 사회적책임을 선택했다. 김현승 원장은 “<span class='quot2'>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마지막을 보살피기 위해 호스피스병동은 반드시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일정 부분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사회적책임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민간병원은 수익이 적은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기 힘들다. 공공의료기관부터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br/><br/> 지난 3년5개월 동안 450여명이 호스피스병동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았다. 대부분 지역주민이었다. 병원에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20일간 입원비를 면제해주고 있다.<br/><br/> 다만 파주병원처럼 호스피스병상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은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7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등을 포함해 31곳(523병상)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212개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6만1650개)의 0.85%에 불과하다.<br/><br/> 국립암센터 장윤정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은 “독거노인, 가족 없는 환자 등 저소득층은 일반병원의 호스피스를 이용하기가 힘들다. 특히 지난해 7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지역에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유휴 병상’을 호스피스로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군산의료원과 원주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등이 호스피스병동을 추가로 준비 중이다.<br/><br/>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span class='quot3'>호스피스 취약지역에 사는 말기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호스피스병상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span>”고 말했다.<br/><br/><br/>민태원 기자, 파주=신훈 기자<br/><br/><br/>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br/><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74.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1부 ⑤] 소외계층 ‘존엄한 죽음’… 공공형 호스피스에 달렸다  
날짜: 2016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2040327198  
본문: 1부 : 호스피스, 나를 위한 선택<br/><br/>⑤ 공공형 호스피스 확산돼야<br/><br/><br/>"얼마만의 외출인지 몰라. 두근두근해요." 봄기운이 완연했던 지난 16일 오전 정모(55·여)씨는 검정 패딩과 털모자에 털장갑까지 끼고 부산 수영구의 집을 나섰다. 털장갑 안의 두 손은 마네킹처럼 딱딱하게 굳은 지 오래다. 정씨는 15년째 피부와 장기가 차츰 섬유화되는 전신피부경화증을 앓고 있다. 부산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김내현 팀장과 손민희 호스피스 전문간호사가 정씨의 외출 준비를 돕고 외래진료가 있는 부산대병원까지 동행했다.<br/><br/> "엄마, 엄마." 같은 날 오후 서수연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다가구주택 문을 두드렸다. 파란 스웨터 차림의 권옥남(82·여)씨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문을 활짝 열었다. 2014년 7월 간암 말기로 절제 수술을 받은 권씨는 합병증과 싸우며 복막투석 중이다. 그는 서 간호사가 맡은 45명의 말기 암 환자 가운데 한 명이다.<br/><br/><br/><br/> 삶도, 죽음도 돌볼 겨를 없는 그들<br/><br/> 남편과 사별한 권씨는 한 칸짜리 방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C형간염이 간경화로 이어지면서 끝내 말기 간암이 됐다. 부산백병원에서 진단 나흘 만에 급하게 수술 일정을 잡았다. 주치의가 수술 포기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했다. 수술 이후 암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신부전증과 당뇨가 합병증으로 찾아왔다. 혈압 조절도 잘 되지 않았다.<br/><br/>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이뤘다. 툭하면 응급실로 실려 갔다. 언제 다시 암세포가 커질지, 삶을 언제까지 이어갈지 알 수 없었다. 때마다 권씨를 챙겨주고 병원으로, 집으로 찾아오는 이는 교회 담임목사뿐이었다. 따로 간병인을 두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을 형편도 아니다.<br/><br/> 정씨도 비슷하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남편과 이혼한 뒤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고 덜컥 희귀난치성 질환이 찾아왔다. 병이 깊어지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폐가 3분의 2 정도 굳어지면서 호흡도 힘들다. 이런 정씨의 보호자는 고관절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89)다. 돌봄이 필요한 어머니와 정씨가 서로를 챙기다 보니 매사가 힘에 부쳤다. 불면증과 우울증이 찾아왔고 죽음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존엄한 죽음'은 사치였다.<br/><br/> 권씨와 정씨의 삶은 지난해부터 달라졌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공공형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남은 삶을 조금이라도 편히 보낼 수 있게 됐다. 두 사람은 한두 달 간격으로 찾아오는 보건소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였는데 가정간호팀이 이들을 부산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안에 설치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로 연계했다.<br/><br/><br/><br/> 보건소, 소외된 말기 환자를 품다<br/><br/> 센터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8명의 호스피스 전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들은 16개 보건소에 배치돼 가정간호팀이나 지역 병원으로부터 인계받은 말기 환자들을 1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2∼4시간을 함께한다. 혈당, 혈압 등을 측정하고 병원까지 동행한다. 아로마 마사지나 임종 교육 등 심리·사회·영적 돌봄도 제공한다. 임종 뒤에는 유족 대상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한다.<br/><br/> 이 호스피스 프로그램은 지역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를 통합한 보건소 기반 공공형 호스피스다. 우리나라에선 최초이자 유일한 모델이다. 가정호스피스와 비슷하지만 본인 부담액이 없다. 암뿐 아니라 비암성 말기 질환자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훨씬 포괄적이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말기 환자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다. 정씨는 "언제든지 달려와 가족처럼 챙기는 선생님들 덕분에 이제 여한이 없다. 하나님 곁에 가는 게 두렵지 않다"고 했다. <br/><br/> 부산시는 2009년 금정구, 부산진구에서 시작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지난해 16개 보건소 전체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만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의 말기 암 대상자 1167명 가운데 490명(41.9%)을 돌봤다. 2014년 기준 국내 완화의료전문기관 서비스 수혜율(13.8%)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부산시는 올해 600명으로 대상자를 늘리고 지역사회 전체가 질 높은 죽음을 맞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br/><br/> 가장 시급한 일은 양질의 인력 확보다. 지금은 전문간호사 한 사람이 2개 보건소를 담당하고, 센터 전속 사회복지사도 2명뿐이다. 서수연 간호사는 "상황에 따라 의사도 간호사도 봉사자도 보호자도 복지사도 돼야 한다. 혼자 50명에 이르는 환자를 돌보다 보니 더 자주, 오래 방문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고 했다. <br/><br/> 지역의료의 '부모' 거점병원<br/><br/> 울산 유일의 호스피스병동을 갖춘 울산대병원은 '말기 암 환자가 어디서든 마음 놓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하자'는 모토로 공공형 호스피스에 접근하고 있다. 호스피스병상이 12개뿐이라 입원 기간을 2주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울산대병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혼자 사는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병동에서 퇴원하면 보건소에 주기적 모니터링을 요청한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1명이 후속 관리를 받았다. 지난해 보건소 가정방문으로 확인한 6명의 말기환자가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기도 했다.<br/><br/> 울산대병원은 2013년부터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완화의료 실무교육도 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원금 4500만원과 함께 지역 모든 병원에 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지역 병원 2곳, 요양병원 4곳 등에서 33명이 말기 암 환자 치료에 대한 노하우를 얻어갔다. 호스피스병동에서 퇴원하는 환자에게는 교육을 이수한 협력병원 4곳을 우선 소개한다.<br/><br/> 환자들도 만족하고 있다. 말기 간암 진단을 받고 지난달 울산대병원 호스피스병동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긴 정모(54)씨는 "통증이 오면 요양병원 간호사가 울산대병원에 전화해 조치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고수진 울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3차병원은 지역 내 말기환자가 편안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병원을 교육하는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br/>부산·울산=전수민·박세환 기자<br/><br/><br/>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br/><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75.txt

제목: [포토] 암 예방 10대 수칙 알아볼까  
날짜: 2016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1212623739  
본문: 강원지역암센터 관계자들이 21일 ‘제9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서 ‘건강한 내 몸을 지키는 국민 암 예방 10대 수칙’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br/><br/> 강원지역암센터 제공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76.txt

제목: 300여 말기암 환자의 벗, 그들 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담의사 정미경씨 투병 끝 영면  
날짜: 2016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1212619115  
본문: “<span class='quot0'>말기암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주면서 행복했고,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고마웠다’는 인사를 건네받을 때 더 없이 큰 보람과 긍지를 느꼈어요.</span>”<br/><br/> 18년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담의사로 말기 환자의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함께했던 고(故) 정미경(57·사진)씨는 생전에 이렇게 말하곤 했다.<br/><br/> 정씨는 1997년부터 서울 금천구 ‘전진상의원’에서 일하며 300여명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왔다. ‘의사의 길은 본래부터 봉사직’이라는 사명을 갖고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 따뜻한 동행이 돼 주었다.<br/><br/> 그렇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한 탓일까. 정씨는 2년여 동안 유방암 투병 끝에 지난 14일 ‘아름다운 생’을 마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령제약은 헌신적 봉사의 삶을 높이 평가해 제32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수상일을 1주일 남겨놓고 눈을 감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br/><br/> 정씨는 벨기에 출신 간호사로 한국에서 의사가 된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의 권유에 호스피스 의사로 첫발을 디뎠다. 수련의 시절 선배였던 배 원장은 ‘함께 좋은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며 호스피스 전담의사를 제안했다.<br/><br/> 전진상의원은 ‘온전한 봉헌(全), 참사랑(眞), 늘 기쁨(常)’의 정신으로 생활하는 국제가톨릭형제회 소속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약사 등이 운영하는 의료복지기관이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제안으로 1975년 문을 연 뒤 진료소와 약국,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유치원·공부방 운영, 재가(在家)노인복지 사업 등을 벌여오고 있다.<br/><br/> 정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주변에 호스피스 의사로서 생의 마지막을 봐야 하는 일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전했다고 한다. 환자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때, 가족까지 모두 행복한 모습을 많이 봤다는 말도 자주 했다고 한다.<br/><br/> 동료들이 전한 그의 평소 얘기는 이렇다. “처음에 그 절망감은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입원한 말기 환자가 괜찮을까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무뎌졌지만 의사가 불안해하면 환자들도 불안해 한다는 걸 알고 더 힘을 냈습니다.” “6남매의 맏이로 살아왔고, 운 좋게 의사가 되면서 무의촌 같은 어려운 곳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우고 있으니, 꿈을 이룬 셈이죠.”<br/><br/> 정씨의 삶은 그 자체로 ‘참된 의사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은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정씨를 대신해 어머니 추선자씨가 상패와 순금 10돈, 상금 3000만원을 대리 수상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77.txt

제목: [한마당-임항] 설탕세와 설탕중독  
날짜: 2016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1174845970  
본문: “투르크인과 무어인은 설탕을 한 조각씩 잘라내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먹어댔다. … 탐식에 길들여진 이들은 더 이상 예전의 용맹한 전사가 아니었다.” 독일의 식물학자 레온하르트 라우볼프가 술탄의 제국을 여행한 후 1573년 출간한 여행기의 한 대목이다. 설탕 남용의 해악을 경고한 첫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가 그린 술탄 군대의 설탕 중독 현상은 월남전 때 미군의 헤로인·마리화나 중독과 매우 흡사하다.<br/><br/> 콜라, 주스, 빵, 과자,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자장면과 심지어 담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무수한 음식에 설탕은 빠짐없이 들어 있다. 설탕은 강력한 중독성과 함께 비만 충치 우울증 치매 관상동맥혈전증 저혈당증 당뇨병 암 등 현대병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품 가운데 인류의 건강에 이토록 큰 해악을 끼치면서도 규제를 가장 덜 받는 것이 아마 설탕일 것이다. 담배나 소금이 받는 규제나 푸대접과 비교해보라. 글로벌 식품 업체들은 설탕의 폐해를 체계적으로 은폐하고, 값싼 액상과당 남용으로 설탕 중독을 부추겨 시장을 확대해 왔다. <br/><br/> 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탄산음료에 설탕세, 또는 비만세를 부과키로 16일 결정했다. 헝가리 멕시코 프랑스 및 뉴욕 등 미국 일부 주가 탄산음료나 가공식품에 이미 세금을 물리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달 말까지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설탕세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하루 설탕 섭취량은 61.4g으로 100g에 육박하는 미국 멕시코 등에는 못 미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25g)는 훨씬 웃돌고 있다. 콜라나 비타민워터 한 병(500㎖)에도 30g, 스타벅스의 화이트초콜릿 모카 한 잔에는 무려 70g의 설탕이 들어 있다. 담배에 붙는 막대한 세금을 감안할 때 설탕에도 세금을 물리는 게 마땅하다.<br/><br/>임항 논설위원 hngl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78.txt

제목: “암 예방하려면 술 한잔도 안 돼”… 암 예방수칙 10년 만에 개정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0211252084  
본문: “<span class='quot0'>암을 예방하려면 술은 하루 한 잔도 안 됩니다.</span>”<br/><br/> 보건복지부는 21일 제9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음주에 관한 암 예방수칙을 고쳤다. 기존 수칙은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였다. 이를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바꿨다. 암 예방수칙 개정은 2006년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br/><br/> 복지부는 “<span class='quot1'>알코올 섭취량 기준 12g 이하인 하루 한 잔의 음주로도 암 발생 위험이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은 7% 증가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참고했다</span>”고 설명했다. 미국 간호사 10만명을 추적 관찰했더니 1주일에 3∼6잔(하루 알코올 섭취 5∼10g) 음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br/><br/> 유럽연합(EU)은 2014년 암 예방 관련 음주 권고를 ‘남성 2잔, 여성 1잔 이내’에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고친 바 있다.<br/><br/> 복지부는 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하기’를 암 예방수칙에 추가했다. 자궁경부암은 주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성생활 시작 전에 HPV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효과가 94% 이상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6월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7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자궁경부암 백신 10대에 접종하는 것이 최상 효과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0184056674  
본문: 매년 3월 21일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암 예방의 날’이다. 혁신적인 항암제들이 등장하면서 암 완치의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으나, 아직 암정복이 길은 멀고도 멀다. 암은 발병 시 환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이다. <br/><br/> 특히 여성 암 발병률 2위인 자궁경부암은 한국인 환자 3명 중 1명이 사망에 이를 만큼 심각한 질환이다. 하지만 정기검진과 예방접종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두 얼굴의 암으로도 불린다.<br/><br/> 올해부터는 정부 주도의 자궁경부암 예방사업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 질 예정이다. 집중해 보아야 할 자궁경부암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br/><br/> ◇자궁경부암무료검진대상 30세에서 20세부터로 연령 낮아져, 증상 없기에 정기적으로 검진해야= 젊은 여성층에서 자궁경부암 환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0기’ 암으로 불리는 자궁경부 상피내암(전암단계)이 흔히 발생하고 있어, 자궁경부암은 여전히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되고 있다. 자궁경부암이 줄어드는 암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다가 오히려 예방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br/><br/>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된 이후 본격적인 암으로 발전하기까지 약 10∼15년이걸리며, 발전 과정이 대체로 증상이 없다.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다.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이유다.<br/><br/> 실제 진료현장에서도 자궁경부암의 예방은 반복적인 검진과 초기 중재에 집중해 관리되고 있다. 이런 진료전략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을 약 75%까지 감소시켰다고 보고 있다. 최근 20세 미만 여성 자궁경부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20대 미만 자궁경부암 검진율은 여전히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 특히 최근에는 특정 인유두종바이러스(HPV)로 인해 자궁경부에 비정상 세포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향후 유방암 발생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여성암 예방에 있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연구결과다.<br/><br/> 정부는 젊은 여성에서 자궁경부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과 조기발견에따른 생존율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무료검진 대상자를 기존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 조정했다. <br/><br/> ◇최선의 ‘예방법’은 백신접종!, 조기 예방이 암발병 위험 낮춰= 자궁경부암은 99.7%가 인유두종바이러스(HPV)로 인해 발병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유일한 암예방 백신인 자궁경부암백신(HPV백신)은 암발병 후 치료와 관리에 드는 비용보다 부담이 적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다. <br/><br/> 자궁경부암백신은 자궁경부상피세포가 변화를 겪어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되기 쉬운 10대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이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 9∼13세 여아는 2회 접종만으로도 면역원성이 충분하게 형성된다. <br/><br/> 실제 4가 HPV백신을 NIP에 도입한 미국에서는 NIP 도입 이후, 10대∼20대 초반에서 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 유형으로 인한 질환 유병률이 현저하게 감소했다.<br/><br/> 특히 젊은층에서의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올해부터 만12세 여아에게 자궁경부암백신(HPV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백신접종을 장려하는 이유는 백신접종이 질환 발병률 감소 및 건강보험재정 절감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br/><br/> 백신을 선택할 때는 자궁경부암을 포함한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계 주요국에서 어떤 백신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선택에 도움이 된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80.txt

제목: [암과의 동행] 김규표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생존율 낮은 것일 뿐… 췌장암 극복불가 아니다”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0184057431  
본문: “제가 살 수 있나요?” 과거 드라마에서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이런 질문을 의사에게 던지곤 했다. 암 치료성적이 좋지 못했던 시절 얘기다. 그러나 그동안 수술법이 진화하고 다양한 항암제가 개발되면서 지금 진료실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췌장암은 아직도 완치가 어려운 암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췌장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안타깝기만 하다. 김규표(사진)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평균 생존율이 낮은 것이지, 모든 췌장암 환자가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span>”고 말했다.<br/><br/> 김 교수는 췌장암 치료율을 수학 성적에 비유했다. 그는 “한 반의 평균 수학 점수가 50점이라도 어느 학생은 100점을 맞기도 한다. 시험공부를 시작했다면 누구나 100점 맞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치료를 시작하라는 의미다. 췌장암 환자의 6∼7명은 수술이 불가능해 항암치료에 의존하고 있다. 항암치료를 받아도 평균 1년 정도를 더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낮은 생존율은 환자들이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긍정적인 치료 결과를 보인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br/><br/> “수술이 불가능해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항암치료를 받아도 6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 치료를 포기한 50세 젊은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6개월만 살더라도 치료를 해보잔 남편의 지원에 치료를 시작했고, 젊은 여성 환자는 사랑하는 남편과 2년을 더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br/><br/> 김 교수는 항암치료 성적이 과거에 비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수술이 불가능했던 췌장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시행해 수술이 가능해진 경우도 있다</span>”고 말했다. 만약 치료를 포기했다면 환자는 수술할 기회마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긍정적인 사례를 들려주는 이유는 췌장암의 낮은 생존율 정보만 듣고 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환자들이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항암치료가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평균 생존율 이상을 사는 환자들이 있고 거꾸로 수술이 가능해진 환자들이 있기에 치료를 섣불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br/><br/> 다행히도 올해부터 췌장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일부가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된다. 한달 평균 300만원을 넘는 약값을 지불해야 했던 췌장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보험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치료비 고민은 줄어들 것 같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그동안 비싼 약값 때문에 약이 무료로 지원되는 임상시험의 기회만을 찾으려는 환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 김 교수는 임상시험 기회가 다른 암종보다 많은 췌장암의 현주소를 긍정적이게 바라봤다. 그는 “아직 만족할만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항암제가 없다보니 여러 제약사에서 췌장암 정복을 위한 치료약을 개발 중에 있다. 이는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의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섣부른 포기보다 주치의와 상담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치료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br/><br/>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81.txt

제목: [암과의 동행] 3월21일은 암 예방의 날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0184055990  
본문: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21일 ‘암 예방의 날’로 정해 다양한 암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에 착안해 ‘3-2-1’을 상징하는 3월 21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암 예방의 날은 암관리법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에 근거한 법정기념일이다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 예방·치료·관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br/><br/> 열에 두 명은 암 환자일 정도로 매년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모든 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그러하듯, 조금만 더 자신의 몸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한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br/><br/> 암 사망의 30%는 흡연, 30%는 식이요법, 18%는 만성감염에 기인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 외 유전 및 호르몬, 음주, 환경오염, 방사선 등의 요인도 암 발생에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암 발생의 주요 요인 중에도 스트레스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스트레스는 바로 풀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취미나 여행, 친구 등 각자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br/><br/>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검진센터 최중찬 원장은 “음주, 유전 및 호르몬, 방사선, 환경오염 등의 요인도 암 발생에 각각 5% 정도 기여하고 있다. 채소와 과일에 존재하는 항산화 영양소 및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고, 발암물질의 배설을 촉진시켜 준다. 흡연, 음주 등 일상생활의 안 좋은 습관만 고치더라도 암 발병률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br/><br/> 아무리 좋은 식품도 한 가지로는 완전하지 못하다. 다양한 식품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야 한다. 식단은 과일과 상추·시금치 등 잎채소, 콩류, 곡류 등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준비한다. 또한 다양한 과일과 채소 섭취가 암을 예방한다. 붉은색 그룹인 토마토와 수박에 들어 있는 ‘라이코펜’은 전립선암과 폐암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 그룹인 브로콜리에 들어 있는 ‘설포라판’은 방광암 예방에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란색을 대표하는 콩에는 유방암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이소플라본’이 들어 있다. 포도에 들어 있는 ‘안토시아닌’은 발암물질을 억제한다.<br/><br/> 최중찬 원장은 “우유는 당질, 단백질, 지방과 칼슘을 공급하는 식품이다. 대장암에 관련한 여러 임상시험에서 우유가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품을 섭취하려면 저지방 제품을 선택한다. 성인 여자는 우유 한 컵이 좋고, 중년 이후 남성은 하루 한 컵 이상 먹지 않는다. 청국장에는 ‘제니스테인’이라는 물질이 풍부하다. 이 물질은 유방암, 결장암, 직장암, 위암, 폐암, 전립선암 예방에 효능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콩에 들어 있는 사포닌 성분 또한 암 예방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8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새 삶 향한 굳은 믿음 어둠 속 희망의 꽃 피우다… 부자간 생체 간이식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0184054665  
본문: 33세 황남욱 씨는 삼남매 중 둘째다. 황 씨는 말기 간암을 판정받은 아버지에게 최근 자신의 간 70%를 주었다. 수술 후 일주일이 흘렀을 때 황 씨를 만났다. 그동안의 회복 과정이 힘들었는지 그의 첫마디는 “생각보다 아팠다”였다.<br/><br/> ◇완치를 위한 아들의 희생=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하지 않았다면 병든 간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국내 생체 간이식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런 영광의 이면에는 부족한 뇌사자 기증 현실과 한국인의 효심이 자리하고 있다. 황 씨는 “<span class='quot0'>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는 아버지께서 하루는 배가 아프다며 병원을 가셨는데 암 진단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평소 건강하셨기 때문에 1기나 2기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말기라며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얘기했다</span>”고 말했다.<br/><br/> 갑작스런 말기 간암 판정. 황 씨 부자는 믿겨지지가 않았다. 수소문해 이대목동병원 간이식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이곳의 의료진도 황씨 아버지의 수술을 망설였다. 건강한 간을 이식하더라도 완치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부전과 간성혼수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3일간 의료진은 고민했다. 그동안 황 씨 형제는 아버지에게 간이식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검사를 받았다. 간이식 공여자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함’이다. 질환이 없어야 하고 간이 건강해야 한다. 첫째 형에게는 지방간이 있었다. 둘째 남욱 씨가 나섰다. 남욱 씨는 “<span class='quot1'>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주치의 선생님께서 ‘해보자’고 말씀하셨을 때 그저 너무 기뻤다</span>”고 말했다.<br/><br/> 의료진은 수술을 결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황씨의 아버지가 수술을 거부했다. 생체 간이식술이 난이도가 높은 수술임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제 아들의 건강을 담보로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설득 끝에 황씨 부자는 같은 날 수술실에 누웠다. 애당초 5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남욱씨의 수술은 9시간을 넘겼다. 수술실 밖 어머니는 아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한다. 남욱 씨는 “<span class='quot1'>어머니께서 기다리면서 많이 힘들어하셨단 이야기를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1'>무사히 잘 끝난 것이 기적 같다</span>”고 말했다. 황 씨 부자는 현재 회복 중이다. 각자 다른 병실에서 회복기를 마치고 부자는 일주일 만에 재회했다. 남욱 씨는 “<span class='quot1'>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서 회복하시라고 말했다</span>”고 한다. 아버지는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의 두 번째 인생은 수술을 포기하지 않은 의료진의 집념과 아들의 효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br/><br/> ◇완치를 위한 의료진의 끊임없는 도전=황 씨 부자를 수술한 건 이대목동병원 홍근 교수다. 그는 지금 병원에서 서른 번의 간이식술을 성공시켰다. 서울의 빅2 병원보다 적은 사례지만 간이식술이 전무했던 이곳에서 간이식술을 시작해 많은 환자에게 새 생명을 선사한 만큼 자부심이 강했다. 홍 교수는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2'>얼굴색이 잿빛이던 간암 말기 환자가 간이식 후 건강을 회복해 건강한 낯빛으로 외래를 왔을 때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span>”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span class='quot2'>생체 간이식은 말기 간질환자의 희망이지만 위험부담이 큰 수술</span>”이라고 덧붙였다.<br/><br/> 실제로 외국에서는 생체 간이식술이 많이 이뤄지지 않는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생체간이식이 뇌사자 간이식보다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span class='quot2'>간이식 자체가 고난이도 수술이고 기증자에게도 위험부담이 큰 수술</span>”이라고 했다. 국내 간이식술은 세계에서도 인정한 실력이다. 간이식술의 성패는 의료진의 술기 못지 않게 간의 크기가 중요하다. 기증자 간의 좌엽과 우엽의 비율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진은 외국서 수술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 수술조차도 훌륭하게 성공시키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번 황씨 부자의 수술도 누군가는 포기한 수술이었다. 홍 교수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한다”며 “<span class='quot2'>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span>”이라고 말했다.<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8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에 새 희망… 임상시험 승인 대폭 늘어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0184054142  
본문: 암환자의 치료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5년 임상시험 승인현황을 보면 항암제의 승인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을 효능군별로 보면 △항암제 255건 △심혈관계76건 △중추신경계 46건 △내분비계 42건 등의 순이었다. 항암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연도별로 △2010년 124건(다국가 72건, 국내 52건) △2012년 184건(다국가(110건, 국내 74건) △2014년 210건(다국가 135건, 국내 75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항암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항체항암제 등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 임상의 증가도 긍정적이다. <br/><br/> 국내 임상시험은 2011년 209건에서 2015년 245건으로 증가했는데 국내 환자들의 임상참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여전히 임상시험이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임상시험 현황을 보면 서울이 1704건으로 5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440건, 14.4%) △부산(196건, 6.4%) △대구(164건, 5.4%) △인천(121건, 4%)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칭)‘의약품 허가지원 특별법’ 추진도 긍정적이다.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 암·AIDS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br/><br/> 치료제의 보험혜택도 늘고 있다. 전이성 췌장암의 경우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라도티닙 역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건강보험이 확대됐고, 연부조직육종에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과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리툭시맙 병용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 예방 리페그필그라스팀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새로운 제품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방사성 요오드에 반응하지 않는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치료제 렌바티닙은 올해 중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다는 계획이며, 간세포암 3상 임상시험을 비롯해 신장암, 비소세포 폐암 등에 대해서도 적응증 확대 임상을 진행 중이다. 반면 진행성 난소암의 경우 일차치료에서 사용이 가능한 표적치료제를 진행성 난소암 일차 항암치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어 일차치료 단계의 환자들은 아무런 급여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br/><br/>이외에도 암 예방적 측면도 강화됐다. 올해부터 국가암검진시 간암은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고,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 확대됐다. 자궁경부암백신은 올해 중에 국가백신접종에 포함될 예정이다. <br/><br/>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에 따르면 암 진료비는 4조4338억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는데 이중 암환자 입원 진료비는 2조9085억원으로 전년대비 6.1% 늘었다. 암으로 입원 진료한 환자는 35만2145명으로 입원환자는 위암이 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폐암 3만8000명, 간암 3만6000명 순이었다. 반면 입원진료비는 폐암이 322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간암 3107억원, 위암 2788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입원진료비 증가는 결장암이 2239억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했고, 이어 방광암(11.4%), 전립선암(10.3%) 순으로 높았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84.txt

제목: [기자수첩] ‘환자 5%부담’ 재설정땐 건보적용 빨라질까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0183057382  
본문: “<span class='quot0'>면역항암제가 폐암에 효과가 좋다는데 하루 속히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돼서 아버지 암치료에 쓰일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span>”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60대 아버지를 둔 아들 김지석(가명)씨의 메일에는 절박함이 묻어나있다. 그는 기자에게 면역항암제가 어느 시기쯤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 수 있을지를 물었다. 좋은 신약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이 약이 아직은 병원에서 치료제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는 절망했다고 한다. 그나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 대상 환자인 경우는 운이 좋은 편이다. <br/><br/> 최근 면역항암제가 폐암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임상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내 암환자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 옵디보, 키트루다 등의 면역항암제는 오는 5월 안으로 폐암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식약처 허가를 앞두고 있다. 다만 비싼 약값은 여전히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했듯, 한국이 선진국인 미국을 능가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제도’다. 정부가 신약 등 치료제에 대해 건보를 적용하게 되면, 환자는 이 중 5%만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정부가 지원한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항암제들이 건보 적용이 안돼 고가의 약값 부담으로 환자들이 생명연장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약이라도 약값이 100% 본인 부담이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은 치료를 망설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신약에 대한 경제성평가 제도와, 위험분담제도 역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br/><br/> ‘마법의 약’이라 불리는 면역항암제의 경우 건보 적용 이슈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면역항암제의 1회 투약 비용은 약 1000만원에 육박한다. 현재 면역항암제는 국내에서 비급여다. 환자가 고가의 약값을 전액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할 경우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1년에 100명의 환자가 면역항암제 10회를 투여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100억원의 약값이 책정된다. 그중 정부가 95%를 부담할 경우에도 약 95억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흑색종, 폐암,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에 적응증을 갖고 있어 대상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br/><br/> 하지만 효과가 좋은 치료제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br/><br/>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건강보험 적용 5% 일괄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의사는 “<span class='quot1'>건보 적용이 되는 모든 치료제에 대해 5% 환자부담으로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건보재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치료제는 환자 본인 부담을 조금 높이되, 치료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span class='quot1'>건강보험제도가 좀 더 유연하게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span>”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비급여 항암 신약에 대한 급여 검토를 하는 동안 많은 환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더 많은 환자가 신속하게 좋은 신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한다. 정부가 머뭇거리는 오늘도 환자들은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85.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명의 만나기까지 켜켜이 쌓인 서러움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0183056345  
본문: 인생에서 가장 예쁘다는 20대 시절 김순희 씨는 매일 비행기를 탔다. 그녀의 직업은 승무원이었다. 300여명의 승객의 안위를 챙기는 승무원 생활은 고됐다. 올해 막내아들 대학 입학 기념으로 그녀는 얼마 전 생애 첫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동안 몸에 소홀했던 것일까. 검진결과에서 유방에 종양이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순희 씨는 집으로 바로 오지 못하고 병원 대기실에서 한참을 앉아 지난 몇 년을 되짚어봤다고 한다. 공부하지 않고 연극하겠다던 막내아들 때문에 속이 썩긴 했지만 스트레스가 심하진 않았다. 젊어서 비행기를 오래 탄 게 잘못된 걸까. ‘왜 나에게 유방암이…’ 김 씨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는 남편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났다고 한다. 여성이 엄마로, 아내로 일생을 보내다 다시 제 몸을 돌보기 시작하는 나이가 50대 후반부터다. 다시 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생의 즐거움을 계획하려는 시기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여성은 크게 낙담한다. 김 씨는 진단 받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서글펐다”고 말했다. 동네의 작은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김 씨는 진료의뢰서를 받아 가장 가까운 대형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김 씨는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하고 만난 의사는 첫 진료에서 내 얼굴도 보지 않고 자신의 유방을 가리켜 손으로 자르는 시늉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잘라내는 손 시늉을 하는 그 의사를 보며 ‘나의 가슴은 암덩어리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span>”고 말했다. <br/><br/> 암을 진단받은 모든 사람은 큰 충격과 슬픔을 경험한다. 그러나 유방암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김 씨의 사례에서 보듯 “열심히 살았다”는 보상심리로 받은 생애 첫 검진에서 유방암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가족을 위해 헌신의 삶을 택한 여성일수록 유방암 진단은 충격을 넘어선 좌절감을 몰고 온다. 김씨는 “<span class='quot0'>환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찾아볼 수 없는 의사의 행동에 크게 상심했었다</span>”고 말했다. 김 씨는 결국 병원을 옮겼다. <br/><br/> 최윤화 씨(2015년 12월 유방암 3기 진단) 역시 치료를 시작하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김씨의 경우와는 달랐다.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잡아준 것은 의료진이었다. 최 씨는 지금의 의료진을 만나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것, 저것 묻는 환자들이 많아 지겨울 법한데도 항상 나의 물음에 정성껏 답해준 선생님들 덕분에 서럽거나 외롭지 않았다”고 말했다.<br/><br/> 암환자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위로가 있어도 괜스레 서글퍼진다. 그런 그들이 의료진의 말 한마디에서 치료에 집중할 용기를 얻는다. 최 씨의 경우가 그랬다. 간호사가, 주치의가 그녀가 상심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세심한 신경을 썼다. <br/><br/> 유방암 환자들은 마음의 안정이 들기 시작한 무렵을 ‘주치의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로 꼽았다. 다시 말하면 ‘믿을만한 주치의를 만났을 때’다. 우리 주변에는 명의가 참 많다. 환자에게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의사와의 첫 만남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는 환자들도 존재한다.<br/><br/>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8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원자력병원 스마트 암 진료… 다학제 통합시스템 적용 환자만족도 상승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0183055495  
본문: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선택진료 개선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의 일환으로 ‘다학제 통합진료’의 수가를 신설했다. 다학제 통합진료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서로 다른 전문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 전문의들이 동시에 한 진료실에 모여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시스템이다. <br/><br/> 다학제 통합진료의 세부 기준은 우선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외래 암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횟수는 원발암 기준 3회 이내, 재발 시 2회이며, 수가는 전문의 4인 참여 시 11만6830원, 5인 이상 참여하면 14만6030원이다. 대상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암관리법에 따른 지정병원, 원자력병원이다.<br/><br/> 다학제 통합진료를 통해 의료진은 진료의 전 과정을 결정하는 협의가 빠르고, 그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어 의료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임상 상황에서 최선의 치료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환자는 각 진료과의 의료진을 매번 만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공간에서 진료를 보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r/><br/> 이에 따라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들이 다학제 통합진료를 도입해 이전부터 꿈꿔오던 ‘환자 중심 진료’를 실현하기 시작했고, 암환자들은 본인부담 5% 정도의 비용으로 한층 개선된 진료방식에 높은 만족도와 치료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br/><br/> 이미 외국에서는 다학제 통합진료로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전체적인 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입 3년 차인 우리나라의 해당 병원들도 암 환자의 생존율 및 만족도 증가 등 도입의 효과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br/><br/> 노우철 원자력병원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최근 암치료는 ‘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도 수직적인 관계에서 환자가 직접 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는 추세</span>”라며 “<span class='quot0'>향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많은 암환자가 다학제 통합진료로 양질의 암진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span>”고 전했다.<br/><br/> 정부 출연기관인 원자력병원은 분자 암 연구, 방사선 인체영향 연구 등 첨단 치료기법을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와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첨단 의료기기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암 치료계획 수립, 국제 임상연구 주관 등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암치료 성적의 꾸준한 향상을 이루어내고 있다. 또한 선진적 암치료 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에도 지속적인 박차를 가하여 지난해부터 다학제 통합진료를 전격 도입해 암 병원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br/><br/> 원자력병원은 다학제 통합진료 수가가 신설 된 당해, 개원초기부터 쌓아온 기관의 암 진료 노하우와 환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2015년 4월에 대장암, 간암 등 소화기암을 시작으로 8월에는 골연부종양에도 다학제 통합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암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br/><br/> 원자력병원의 담당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다학제 통합진료를 받은 후 “<span class='quot1'>한 자리에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뵙는 것만으로도 믿음직하고 좋았습니다.</span>” “<span class='quot1'>암 진단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span>” “<span class='quot1'>많은 의료진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줘 고마웠습니다.</span>” 등 의료진에게 전하는 인사말에 높은 만족도를 실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br/><br/>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87.txt

제목: 변화하는 방사선 치료… 조사 정확도 따라 치료성과 달라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0175903935  
본문: 과거 투병 중인 암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는 피하고 싶은 대상이었다. 인후두암 3기를 진단받은 김성광(가명) 씨는 29회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수술과 항암치료를 끝낸 다음이었다. 성광 씨의 아내는 기자를 만나 “<span class='quot0'>방사선 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span>”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성광 씨는 지금 빠르게 호전 중이다. 의료진도 완치 가능성을 높게 봤다. <br/><br/> 금기창(사진)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방사선 중간 치료결과가 좋아 당초 계획보다 방사선 치료일수를 줄였다</span>”고 말했다. 현재 성광 씨는 건강한 일반인처럼 밥도 잘 먹는다. 성광 씨는 “입 주변에 방사선을 쐬면 밥도 못 먹고 침을 질질 흘린다고 들었다. 모든 방사선 치료를 끝낸 직후에는 밥을 넘길 때마다 따끔한 느낌을 있었지만 몇 개월 지난 지금 별다른 이상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섣부른 두려움이었다고 덧붙였다. <br/><br/> ◇항암보다 덜한 고통 ‘방사선’…10분의 두려움 없애려 노력=금기창 교수는 방사선 치료를 둘러싼 일반인들의 오해를 안타깝게 여겼다. <br/><br/> 수술이나 항암 등 다른 암 치료방법에 비해 유독 괴담 형태의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다. 금 교수는 “많은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거부한다. 부작용이 심하고 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후유증은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보다 덜하다”고 말했다. 실제 그의 많은 환자들이 별다른 부작용을 느끼지 않고 외래를 다니고 있다. 치료일정 따라 매일 병원에 와 암이 자리한 부위에 방사선을 쏘인다. 환자가 방사선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십 여분이다. 누군가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환자에게 고역의 시간일 수 있다. 성광 씨는 방사선실에 누웠던 당시를 회상하며 “세상에서 가장 긴 10분”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은 방사선실 천장을 꽃과 나비가 날아다니는 풍경 사진으로 꾸몄다. 또 환자가 원한다면 10분의 방사선 조사 시간동안 찬송가를 틀어주기도 한다. <br/><br/> ◇방사선 치료에도 ‘명의’ 존재…날로 발전하는 치료법=좋은 방사선기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다룰 의사가 없으면 안 된다. 좋은 기기일수록 방사선 세기의 일정함을 유지하고 조사 정확도를 높인다. 의사의 몫은 울퉁불퉁 생긴 종양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 방사선을 쏠 것인지 치료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병원마다, 의사마다 치료계획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금 교수는 “<span class='quot2'>해당 의사의 의학적 지식, 임상 경험, 관점에 따라 방사선 치료의 성적은 달라질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 방사선 치료는 다양해지고 있다. 방사선 세기 조절이 가능한 IMRT부터 영상유도 방사선치료, 양성자와 중입자를 이용한 입자치료 등이 그것이다. 연세암병원은 중입자를 이용하는 방사선기를 2020년까지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아직까지 해당기기를 보유한 국내 병원은 없다. 금 교수는 “일부 암환자들이 중입자 치료기가 있는 일본으로 가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받고 온다. 우리 환자들이 적절한 비용으로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88.txt

제목: [암수술 잘하는 병원-인하대병원 류정선 교수] 폐암 일반화 오류 경계… 맞춤형 진료 집중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0175903215  
본문: “폐암 하나 주세요”라는 공익광고 문구가 요즘 여기저기서 눈에 띈다. 폐암은 우리나라 암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질환이다. 사망자수로 따지면 연간 1만7000여명의 사람들이 폐암으로 인해 사망한다. 지난 9일 인하대학교병원 폐암센터를 찾았다. 그곳에는 2000여명이 넘는 폐암환자 진료경험을 가진 류정선 교수가 있었다.<br/><br/>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류정선 교수는 폐암은 발견 후 대처하기 어려운 암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폐암은 초기 발견이 어렵고, 이미 병기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치료도 어려운 암이라는 거다. 폐암 사망자수가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br/><br/> 따라서 초기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고 류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초기 발견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미국에서 발표한 폐암 선별검사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담배 한갑씩 태우는 54세 이상의 성인을 선별검사시 폐암사망률을 24%까지 줄일 수 있었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침습적인 검사에 대한 환자의 위험부담 증가와, 매년 CT를 찍어야 하는 검사 특성상 이로 인한 방사선노출 걱정 등이 많다. 생존율을 높이려면 이러한 선별검사 관련 방안이 국가암검진사업에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br/><br/> 초기 발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금연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폐암 발생의 주 원인은 흡연이다. 흡연을 많이 할수록, 흡연 시기가 빠를수록 폐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류 교수는 “<span class='quot0'>물론 흡연 외에도 대기 중의 가스나 발암물질 등의 요인도 있지만 이는 매우 낮은 비율이며, 대부분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연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span>”고 강조했다.<br/><br/> 하지만 똑같이 담배를 피더라도 결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류 교수는 강조했다. 그가 만나본 환자 중에 어떤 어르신은 60여년 동안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워도 폐암이 생기지 않았으며, 반면 어떤 여성은 반갑만 피웠을 뿐인데도 폐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류 교수는 “<span class='quot0'>개인마다 유전자나 방어기적 요인 등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폐암에 대처해야 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 특히 류 교수는 폐암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폐암과 관련한 허구와 오해가 많다. 하지만 무엇이 폐암에 좋았다고 해서 그것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표준진료는 개별마다 다 다르다. 또 표적치료제를 쓴다고 무조건 7∼8년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재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순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1년 후에 재발된다.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br/><br/> 류 교수는 폐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개똥쑥을 섭취하는 환자들과 관련해 “폐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식품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식품은 단지 식품일 뿐이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체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br/><br/> 류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인하대병원 폐암센터는 신속하게 병을 진단하고 정확하게 암 병기를 결정하는 기술에 특화돼 있다. 특히 4차원 방사선치료기, 최소침습수술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폐암치료를 진행한다. 류 교수는 “폐암 진료방법이 표준화되고 있으니 굳이 큰 병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 폐암 환자는 대체로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깝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자신에게 가장 도움 되는 방법에 맞게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br/><br/>박예슬 기자 yes22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89.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션트 수술 환자] 머리에 충격 받게되는 운동은 삼가야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0175753043  
본문: 국가암정보센터와 함께하는 ‘암환자 생활백서’에서는 암환자에게 꼭 필요한 기구관리 네 번째 ‘션트’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알아본다.<br/><br/>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을 받은 환자는 가벼운 뇌 충격에도 두개강내 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일반인의 경우 두부 외상 시 소량의 두개강내 출혈이 생기면 증가된 두개강내 압력으로 인해 지혈이 되지만, 션트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일정이상으로 두개강내 압력이 올라가면 션트에 의해 뇌척수액이 배액되어 지혈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운동 시에도 축구의 헤딩과 같은 두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수술을 받은 환자가 충수돌기염(맹장염)이 생겨 터지는 경우에는 션트 감염으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충수돌기염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br/><br/> 저장소(reservoir)를 삽입한 부위는 눌러 봄으로써 션트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사나 간호사가 시행한다. 션트 수술 후 초기(대략 1주일내외)에는 션트기능을 원활이 하기 위해 저장소를 하루에 5∼6회씩 눌러주어야 하지만 저장소를 너무 자주 누르거나 만지면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으므로 필요 없이 자주 누르는 것은 삼가야 한다. 유의사항은 션트의 흔한 합병증인 감염과 기능 이상이다. 감염은 수술 후 1∼2개월 이내에 나타나며, 가장 흔한 원인균은 피부에 상주하는 포도구균(staphylococcus)으로 수막염, 뇌실염,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뇌실-심방간 션트의 경우는 균혈증이나 치명적인 패혈증, 심내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일단 감염이 되면 션트를 전부 제거하고, 1∼2주간 항생제 치료를 하여 감염이 완전 치료된 후 새로운 션트 수술을 시행한다.<br/><br/> 션트의 기능 이상은 다음과 같다.<br/><br/> ▲션트의 폐쇄=카테터와 밸브에서 폐쇄가 생길 수 있는데, 특히 뇌실 내에 거치된 카테터의 배출용 미세구멍으로 맥락총 혹은 뇌조직이 빨려 들어가면서 폐쇄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또는 수술 직후에 뇌척수액내의 조직파편이나 혈괴에 의해 밸브와 카테터가 막히는 경우도 있다. 복강 카테터의 경우는 내장의 굴곡이나 복강 내의 지방에 의해 막히기도 한다.<br/><br/> ▲션트의 절단 및 이동=카테터의 연결 부위가 분리되거나 카테터가 석회화, 골절을 일으켜서 절단되어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다시 수술을 하여 교정한다. 간혹 키가 자라면서 복강내에 삽입된 카테터가 짧아진 경우 연장술이 필요하기도 하다.<br/><br/> ▲과다배액 & 과소배액=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션트에서도 뇌척수액의 배출 정도로 인한 기능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뇌척수액이 복강 등으로 과다하게 배액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를 과다배액 현상이라고 한다. 이는 자세의 변화나 환자의 키와 연령, 그리고 밸브의 종류 등과 관계가 있으며, 주로 저압 밸브를 사용한 고령의 환자에서 호발한다. 뇌척수액의 과다배액은 두통, 오심, 두개강내 출혈 같은 증상을 유발한다. 반대로 뇌척수액이 너무 적게 배액되면 뇌압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br/><br/> 션트 기능 이상의 초기 증상이 감기증상 (발열, 구토, 재채기)과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션트 기능 이상이 의심 된다면 주저 없이 인근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90.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키트루다·옵디보] 폐암 허가 눈앞… 건보적용까지 갈 길 멀다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0174912869  
본문: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신약이 국내에서 허가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들은 초조하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 최근 암환자들에게서 관심을 모은 약이 바로 ‘면역항암제’다. 면역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값비싼 약값을 환자가 100% 부담하기엔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br/><br/>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모든 약에 대해 건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어떤 약을 빠르게 건보 적용을 해줄 것이냐의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모든 약에 대해 건보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제도가 바로 ‘위험분담제(risk sharing)’다. 이 제도를 통해 제약사와 정부가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나 8개 치료제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적용된 약제가 극히 제한적이고, 새로운 약제가 제도를 통해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br/><br/>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신속 허가를 내줄 정도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면역항암제의 경우, 건보 적용에 대한 환자들에 요구는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br/><br/> 현재 한국에서 흑색종으로 허가를 받은 키트루다, 옵디보가 대표적 면역항암제로 오는 5월 이내에 폐암 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고가의 항암제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가격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관건은 ‘건보 적용’ 가능성 여부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으로 모든 암환자에게 혜택을 줄 경우 정부의 보험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1회 투여 비용이 1000여만원이나 되는 약을 국가에서 95% 부담하기에는 무리수라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면역항암제가 흑색종, 위암, 폐암 등 다양한 암에 적응증을 가진 약물이기 때문에 보험급여가 될 경우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건강보험재정의 한계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기란 무리가 있다. <br/><br/> 이에 따라 최근 면역항암제 치료 대상자를 한정짓자는 움직임도 있다. 면역항암제에 ‘바이오마커’를 도입해 치료 대상이 되는 환자를 한정 짓자는 것이다.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대해 ‘PD-L1 발현율(TPS)’을 바이오마커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인 것. 두 항암제의 주요 임상시험 결과 PD-L1 TPS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환자의 반응률(ORR), 즉 치료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TPS 50%가 바이오마커 기준이 된다. 만만치 않은 가격의 면역항암제를 어떤 환자에게 투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에서 갈리는 것이다. <br/><br/> 조병철 연세대의대 교수는 “PD-L1이 면역항암제 치료반응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라는 것에는 임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다만 고민이 되는 지점은 면역항암제의 경우 바이오마커 대상이 아닌 환자층에서도 치료 반응율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들 환자를 치료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면역항암제가 보험급여로 빨리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치료 대상을 선별해서 그 환자들에게 먼저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많은 암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좋은 약물을 건보 적용 한계로 인해 치료혜택의 제한을 두는 비책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91.txt

제목: [암과의 동행] 고급 인력·노하우 축적… 토종항암제 개발 탄력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0174912240  
본문: ‘8조원 기술수출 신화’의 주인공인 한미약품에 이어 또 다른 성공신화를 기록할 제약사는 어디일까.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R&D) 비용을 대폭 늘리고 토종항암제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br/><br/> 한미약품은 항암신약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제약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미국 제약사 스펙트럼에 기술수출한 항암신약 ‘포지오티닙’의 미국 임상2상 시험을 시작했다. 포지오티닙은 다양한 암에서 관찰되는 HER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항암신약으로 한미약품이 국내에서 비소세포폐암·유방암에 대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과 스펙트럼은 작년 2월 포지오티닙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스펙트럼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0'>스펙트럼을 통해 포지오티닙의 치료효과가 하루빨리 전세계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또한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한 T790 내성 표적 비소세포폐암약 ‘HM61713’은 글로벌 2상을 진행 중이다. <br/><br/> 유한양행은 면역항암제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유한양행은 미국의 항체신약 개발 전문회사 소렌토와 면역항암제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합작투자회사 ‘이뮨온시아’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이 유한양행의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 신호로 보여진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유한양행은 이뮨온시아의 지분 51%를 확보해 현재 개발된 소렌토의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 3개의 글로벌 임상시험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뮨온시아는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 한 개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일본을 제외한 지역에서 독점 실시권을 갖고, 나머지 2종에 대해서는 전 세계 독점 실시권을 갖는다. 내년 하반기에는 3개의 면역 항체 중 1개가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r/><br/>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span class='quot1'>이뮨온시아는 항암제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면역치료제의 연구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span>”이라고 내다봤다. 유한양행은 향후 10년간 60% 이상의 암치료에 면역항암제가 활용되며, 연간 350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r/><br/> R&D 투자 비율을 꾸준히 늘려온 종근당 역시 항암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임상 1상을 끝낸 ‘CKD-516’는 종근당이 밀고 있는 차세대 항암제다. CKD-516은 종양 내에 이미 존재하는 혈관을 파괴해 세포의 괴사를 유도하는 약이다. 종양세포에 대한 약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고 여러 항암제와 항암요법과 병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분야 최초로 먹을 수 있는 항암제다. <br/><br/> 대화제약은 BMS 위암치료제인 ‘탁솔’의 세계 최초 경구용 개량신약 ‘DHP107’에 대한 국내 임상 3상을 마쳤다. 회사는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 상반기 미국 FDA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유방암 적응증 확대도 노리고 있다. <br/><br/> 녹십자는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베터 ‘MGAH22’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대장암치료제 바이오신약 ‘GC1118’를 개발 중이다. 간암 유전자치료제의 ‘JX-594’는 임상시험 2상을 마치고 3상 준비중이다.<br/><br/>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항암제 등 신약개발에 있어 좋은 인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규모 기술수출을 이룩하는 등 자신감이 붙었다. 고령화시대, 암환자 증가로 인해 항암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이제 국산 항암신약으로 승부수를 던질 때”라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92.txt

제목: 줄줄새는 건강보험 재정… 날뛰는 보험사기 ‘봉’노릇 언제까지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0174911567  
본문: #경기 소재 A외과의원은 무릎관절염 등 환자에게 26일의 입원기간 동안 체외충격파치료(177회) 또는 프롤로테라피 주사치료(25회)를 과다하게 부풀려 시행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했다. 또 체외충격파치료는 의사가 시행해야 하는데 자격이 없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br/><br/>#경기 소재 B병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만을 유치한 후 이들과 공모해 고주파온열치료 및 면역제 투약횟수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했다. 또 환자가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거나 입원기간이 아님에도 부풀려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암환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환자 1명 당 10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0명의 환자들은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을 근거로 28개 보험사로부터 52억원의 입원보험금 및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br/><br/> 진료·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줄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들은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병원 홈페이지나 내원 환자들에게 안내해 환자를 현혹하고, 일부 병원의 경우는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와 공모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일부 병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닌 미용·건강증진 또는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해·질병으로 진단병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치료행위를 권유하기도 한다. <br/><br/>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장성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3년 상반기 328억원. 2014년 상반기 358억원, 2015년 상반기 44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입원의 경우 2013년 상반기에 188억5000만원, 2014년 상반기 320억원, 2015년 상반기 430억원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br/><br/> 사무장병원은 더 큰 문제다.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인 사무장병원은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환자를 직접 또는 보험사기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과다 입원시키고 진료기록부의 입원내용 등을 조작·과장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 등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다. 유형도 다양한데 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거나, 의료법일을 설립한 뒤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도 하며, 의료생협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지확인 등으로 환수 결정된 건수는 2013년 677만300건, 2014년 962만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도 2013년 2521억6700만원, 2014년 4487억75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중 사무장병원의 경우 2013년 213개소를 적발해 2152억78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고, 2014년에는 250개소가 적발돼 3863억65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다.<br/><br/>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기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때문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기대감이 큰데 보험사기범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환자 등을 줄여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는데 도움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93.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표적항암제 세리티닙 치료효과 外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0174756459  
본문: ◇표적항암제 세리티닙 치료효과=표적항암제 세리티닙(ceritinib)이 ALK 양성 폐암환자에서 치료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뇌전이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김동완 교수가 1저자로 발표한 이 논문은 11개국 20개 병원에서 ALK 양성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ASCEND-1’ 연구의 최종분석 결과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전에 다른 ALK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72%에서 종양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다른 ALK 억제제를 복용하였던 환자에서도 56%에서 종양이 줄어들었다.<br/><br/><br/><br/>◇먼디파마 타진, 암성통증치료 보험급여=한국먼디파마의 타진 서방정이 암성통증 치료 시에 보험급여가 인정될 방침이다. 한국먼디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달 10일자로 의료용마약성진통제인 타진 서방정의 일일 최대 용량이 기존 80mg/40mg에서160mg/80mg으로 변경, 허가됐다고 밝혔다. 타진 서방정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보험급여가 인정되므로, 암성통증 환자에게 타진 서방정 투여 시 최대 일일 투여 용량까지 동일하게 즉시 확대 적용된다.<br/><br/><br/><br/>◇옵디보, 유럽서 적응증 확대=차세대 항암제로 일컬어지는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가 유럽에서 비소세포폐암과 신세포암까지 적응증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오노약품과 한국BMS제약은 유럽의약품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옵디보에 대해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 후에도 증상이 진행된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NSCLC) 및 치료 경험이 있는 성인 환자의 진행성 신세포암(RCC)의 적응증 확대 승인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94.txt

제목: 암 막는 유전자 찾았다… UNIST 고명곤 연구팀 규명  
날짜: 2016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16211037838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을 막는 새로운 유전자(DNA)를 찾아냈다. 이 유전자를 활용하면 악성 백혈병 등 혈액암은 물론 간암 대장암 폐암 같은 고형암(solid cancer) 치료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br/><br/>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과학부 고명곤 교수가 이끄는 국제 공동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TET’ 단백질이 없거나 부족하면 악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팀은 쥐의 조혈모세포에서 높게 발현되는 ‘TET2’와 ‘TET3’ 단백질을 모두 없앴더니 1주일 안에 조직 및 세포에서 암의 징후를 관찰했다. 이 쥐들은 4∼5주 안에 악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모두 죽었다.<br/><br/> TET 단백질은 DNA에 작용하는 효소다. 이 단백질이 결손되면 DNA 손상을 초래한다. 이런 손상이 자꾸 쌓이면 암세포가 촉진된다. 고 교수는 “<span class='quot0'>TET 단백질의 발현 수준이나 활성을 유전자 단위에서 조절하면 악성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TET 단백질은 간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에서도 암 억제 유전자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신호에 발표됐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95.txt

제목: 구글 ‘500배 장사’… 20억원 들여 1조 홍보 효과  
날짜: 201603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15220916645  
본문: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구글에 진정한 승리를 안겨줬다. 알파고가 인공지능(AI)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는 등 구글이 홍보효과를 톡톡히 거두면서 향후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br/><br/> 구글은 앞서 이 9단과의 대국에서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상금을 내걸었다. 알파고가 승리하더라도 상금은 구글이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및 바둑 관련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여기에 대국 개최에 드는 호텔 대관료 등 일체의 비용을 구글 딥마인드가 부담한다. 이번 대국 개최 비용은 상금을 포함해 약 2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br/><br/> 하지만 20억원으로 구글이 거둬들이는 홍보효과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국 중계 화면에는 구글 딥마인드 로고가 상시 나오는 데다 전 세계 언론들이 알파고와의 대국 관련 기사를 실시간으로 다루고 있다. <br/><br/> ‘AI 분야 선두주자’라는 이미지도 덤으로 챙기게 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AI 분야 선두는 IBM으로 인식됐었다. IBM은 이미 1997년 AI ‘딥블루’를 개발해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었고, AI ‘왓슨’을 개발해 암 치료 등에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는 사업 성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선도 업체에 집중되게 된다. 구글은 이번 대국 홍보효과를 등에 업고 향후 AI 분야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br/><br/> 이밖에도 이 9단과의 대국에서 구글은 알파고가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9단과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패한 지난 13일 대국 직후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는 “<span class='quot0'>이번 대국을 통해 알파고의 약점을 보완할 것</span>”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알파고는 인간이 입력한 기존 기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학습(머신러닝)을 하는데, 데이터가 많을수록 승률과 정교함이 높아지는 구조다. 구글 딥마인드 입장에서는 세계 최정상 바둑 기사와의 대국을 통해 기존에 입력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보 데이터를 얻게 되는 것만으로도 대국 비용이 아깝지 않게 됐다. <br/><br/>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96.txt

제목: “대장암 예방하려면 육류 대신 채소 많이 먹어라”  
날짜: 201603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15041101562  
본문: 해마다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조기진단, 치료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했다.<br/><br/> WHO는 암의 3분의 1은 예방할 수 있고, 3분의 1은 조기진단 및 치료로 완치되며, 나머지 3분의 1도 적절한 치료로 증상완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br/><br/> 올해의 주제는 대장암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10만명당 54.6명꼴로 발생한다. 갑상선암(84.1명)과 위암(59.7명) 다음으로 발생률이 높다.<br/><br/> 대한암예방학회(회장 김나영)는 오는 18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소강당에서 대장암 예방 일반인 강좌를 개최한다. ‘대장암을 이기는 식생활 및 건강수칙 10가지도 발표한다.<br/><br/> 대장은 소장에서 넘어온 음식물 찌꺼기에서 수분을 흡수한 후 직장에 모았다가 항문을 통해 대변 형태로 배설하는 장기다. 영양성분의 소화·흡수보다 생리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유독성 노폐물을 처리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각종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독성 노폐물이 모여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곳이다.<br/><br/> 대장에 암이 생기면 배변습관 변화, 설사, 변비, 배변 후 변이 남은 듯 무지근한 느낌, 혈변, 끈적끈적한 점액성 변, 복통, 복부팽만, 피로감,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이상증상을 겪는다. 때로는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발암 초기에는 대부분 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50세 이후 정기검진이 필요한 이유다.<br/><br/> 국가암검진프로그램도 만 50세 이후 매년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br/><br/> 김나영 암예방학회장(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span class='quot0'>평소 별다른 이상증상이 없어도 50세부터는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br/><br/> 대장암의 원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나뉘지만 식사와 관련성이 많다. 연구결과 육류 섭취량과 대장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br/><br/>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최창환 교수는 “<span class='quot1'>대장에 암세포가 생길 여지를 없애려면 무엇보다 육류 중심의 고지방식보다 채소류 섭취를 늘려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 우리가 자주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모두 붉은색 고기로 구분된다. 생선과 흰색 고기에 비해 동물성 지방 함량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동물성 지방이 많은 붉은색 고기류는 체내 담즙산 분비를 증가시켜 대장점막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br/><br/> 습관성 음주나 과음도 자제해야 한다. 췌장암과 결장암 위험을 2배 이상, 전립선암과 대장암 위험을 80% 이상 높일 수 있어서다. 반면 채소는 어떤 형태로든 충분히 자주 먹는 것이 좋다. 과일 중에는 딸기,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등 베리 종류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베리류는 식이섬유가 바나나보다 2.5배 많아 소장에서 당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장내 유해독소 생성을 막는 작용을 한다.<br/><br/> 최 교수는 “<span class='quot1'>대장 문제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 중에는 좋지 않은 식습관 때문에 병을 얻은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건강한 대장을 가지려면 식생활 개선에 더 신경쓰고, 장이 조금이라도 불편할 경우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 소화기내과 의사와 상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97.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1부 ④] 암 아닌 말기환자 내년 8월부터나 ‘평안한 이별’  
날짜: 2016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14220157906  
본문: 1부: 호스피스, 나를 위한 선택<br/><br/>④ 암 아닌 말기환자는 어떻게<br/><br/>술을 즐기던 김모(75)씨는 2009년 1월 순천향대병원에서 알코올성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의식이 흐려지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간성혼수’ 증상을 보였다. 간 기능과 증상에 따라 간 장애 정도를 분류하는 ‘차일드 퓨’ 등급에서 중간 정도인 ‘B’를 받았다.<br/><br/> 그해 3월 합병증인 십이지장 정맥류 출혈로 두 차례 입원했지만 그래도 견딜 만한 시절이었다. 두 달에 한 번 외래진료를 받고 이뇨제·간장약 등을 먹으면 됐다.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진 건 2011년부터였다. 2012년에는 하체가 붓고 힘이 빠져 발목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는 동안 김씨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김씨는 차츰 활기도, 말도 잃었다.<br/><br/>김씨가 ‘내년 여름’까지 버텨야 하는 까닭<br/><br/> 그는 2014년 결국 C등급 판정을 받았다. ‘말기’란 뜻이다. 1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다. 간성혼수가 올 때마다 1∼2주씩 입원하는 게 일상이 됐다. 집에 머물고 싶어 했지만 빠르게 차오르는 복수를 빼고 관장도 하려면 병원이 나았다. 입맛을 잃어 식사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라 입원을 해야 그나마 영양제를 맞거나 저염식으로 끼니를 챙길 수 있기도 했다.<br/><br/> 말기 간경화 환자의 유일한 희망은 간 이식인데, 그마저도 고령에 쇠약해진 상태라 단념했다. 1억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감당할 엄두도 안 났다. 월 200만원 가까운 입원비 대기도 버거운 상황이었다.<br/><br/> 무릎관절이 좋지 않은 아내 하모(72)씨는 자기 몸을 돌볼 틈이 없었다. 체격 좋은 남편의 병시중을 혼자 하는 게 힘에 부쳤다. 주치의가 요양병원이 어떻겠냐고 권했지만 하씨는 불안했다. 암 말기환자와 달리 손이 많이 가는 간경화 말기환자를 반길 것 같지 않았다.<br/><br/> 김씨는 올 1월 말 간성혼수가 급격히 악화돼 구급차에 실려 온 뒤로 지금까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하씨는 “같은 병실의 암 환자가 호스피스로 간다더라”며 “투병에 지친 남편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삶을 정리할 수 있게 내년 8월까지 꼭 버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br/><br/> 슬픈 얘기지만,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평하지 않다. 호스피스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암 환자와 달리 김씨 같은 다른 질환 말기환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br/><br/>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이 제정되면서 상황은 조금 나아졌다. 내년 8월부터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말기환자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br/><br/> 그동안 이 병마와 지난한 싸움을 벌이다 마무리 시기에 이른 환자들은 종합병원, 요양병원, 집 사이를 구급차로 오가며 몸처럼 마음도 상했다. 말기 암 환자보다 까다롭고 조심스럽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들이 마지막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든 내년 8월까지 버텨야 한다.<br/><br/>“<span class='quot0'>COPD 판정 이후 모든 걸 다했다…평안한 이별만 빼고</span>”<br/><br/> 김모(48·여)씨의 아버지(77)가 COPD 진단을 받은 건 2011년이었다. 폐와 기도에 만성 염증이 생겨 폐기능이 점차 떨어지고 나중에는 숨 쉬기도 힘들어지는 병이다. 10년 전 방광암 판정을 받고 5차례 수술한 뒤 뇌졸중까지 앓은 터였다.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늘면서 기관지와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 ‘흡인성 폐렴’이 왔다. 갑자기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쉴 새 없이 기침을 했다.<br/><br/> 증상은 점차 심해져 기침 횟수가 늘고 삼킴 장애가 왔다. 1년여가 지나자 침대에서 콧줄을 통해 식사하거나 위에 관을 꽂아 포도당을 주입해야 했다. 김씨가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고 흘러나온 변을 처리했다. 폐에 찬 가래는 의료용 석션기로 뽑아냈다.<br/><br/> 산소호흡기 대여비, 약값, 검사비 등 5년간 수억원을 치료에 쏟아 부었다. 페렴이 오면 최소 6개월은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대기자가 많은 다인실에 마냥 있을 수도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루 20만원짜리 2인실을 쓰는 통에 지난해 11월에만 1000만원 넘게 들었다.<br/><br/> 집에서 침대와 호흡기치료기 등을 갖추고 돌보기도 했다. 월 250만∼300만원 간병비가 부담스러워 간병인은 따로 두지 못했다. 대신 김씨가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폐질환을 잘 모르는 요양원과 일부 의료진에 불신이 깊었기 때문이다.<br/><br/> 지난해 7월 김씨는 서울 동대문구 한 병원의 호스피스병동을 찾았다가 말기 암 환자가 아니라서 거절당했다. 방광암은 말기가 아니었고 폐질환은 대상이 아니었다. 그해 12월 중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주치의 얘기를 들었다. 해열제 혈압약 항생제 투약을 멈추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다.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span class='quot1'>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는데, 편히 보내드리지 못한 것 같다</span>”며 눈물을 글썽였다.<br/><br/>“<span class='quot0'>누리지 못한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이라도…</span>”<br/><br/> 발열·인후통·근육통 등을 몸살처럼 앓고 나면 괜찮아진다. 에이즈 초기 증상은 그렇다. 이후 10년쯤 잠복기가 이어지는데 증상 없이 ‘CD4양성T림프구’(면역세포)가 계속 파괴된다.<br/><br/> 악명과 달리 에이즈는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병이 아니다.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센터장은 “<span class='quot2'>에이즈는 암처럼 비가역적이지 않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처럼 꾸준히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span>”고 설명했다.<br/><br/> 문제는 정상일 경우 600∼700인 CD4 수치가 200 이하로 현저히 떨어지며 암·결핵 등 각종 2차 질환에 감염되는 말기 상태다. 병상 신세를 지는 것도 이때부터다. 이런 합병증이 결국 에이즈 환자를 임종에 이르게 한다.<br/><br/> 여기에 다른 질환과 달리 소외감이 더해진다. 말기 환자는 합병증이 악화되기 전까지 지낼 만한 병원을 찾아 전국을 떠돌아야 한다. 에이즈 바이러스 전파력은 B형 감염보다 낮은데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다. 에이즈 환자 10여명이 머무는 경기도의 한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3'>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말기를 견디는 다른 질환자와 달리 에이즈 환자는 가족도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span>”고 했다.<br/><br/>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말 일반 병원에 입원한 에이즈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요양병원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요양병원들은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에이즈 환자는 전문병원이나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래저래 설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태다. <br/><br/> 한국에이즈감염인연합회 손문수 대표는 “<span class='quot4'>존엄한 삶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한 에이즈 환자에게 호스피스를 통한 존엄한 죽음이라도 허락해줬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br/><br/>전수민 박세환 신훈 기자<br/><br/>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98.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1부 ④] WHO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은 심혈관질환·다발성경화증 등 해당  
날짜: 2016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14220153725  
본문: 1부: 호스피스, 나를 위한 선택<br/><br/>④ 암 아닌 말기환자는 어떻게<br/><br/>세계보건기구(WHO)는 말기 암 외에도 만성질환과 희귀질환까지 폭넓게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이즈, 만성호흡부전, 당뇨병, 간경화, 알츠하이머병과 기타 치매, 급사를 제외한 심혈관질환, 신부전증, 다발성경화증, 파킨슨병, 류머티즘성관절염, 약제 내성 결핵 등이 모두 포함된다. 어린이의 경우 선천성기형(심장기형 제외), 혈액 및 면역질환, 뇌수막염, 콩팥질환, 신경계질환, 신생아질환이 해당한다. 영국 대만 미국 등도 돌봄 기간이 길어 부담이 큰 여러 말기질환을 호스피스 대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br/><br/> 우리나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팀이 지난해 11월 20∼69세 500명을 조사한 결과, 96.1%가 “<span class='quot0'>암이 아닌 말기질환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span>”는 의견을 밝혔다. 대상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질환은 치매가 72.5%로 가장 많았고 파킨슨병(64.1%) 뇌졸중(61.6%) 루게릭병(20.9%) 만성신부전(19.4%) 등을 꼽았다. 최근 제정된 웰다잉법도 하위 법령에서 다른 말기질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br/> 호스피스 대상 질환과 서비스 범위를 빠르게 늘릴 경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이 14%를 넘지 못하고 호스피스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 가정호스피스 기반 부재 등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호스피스 대상의 급격한 확대는 되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 다른 질환으로 확대하려면 우선 해당 질병 환자·가족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현실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이사장은 “현 인프라 수준을 고려할 때 다양한 형태의 호스피스가 필요하다. 일본처럼 입원형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로 국한하고 가정호스피스는 비(非)암 질환에 개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br/><br/>민태원 기자<br/><br/>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99.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1부 ④] ‘현대판 고려장’ ‘생명 경시’ 우려  
날짜: 2016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14220152578  
본문: 1부: 호스피스, 나를 위한 선택<br/><br/>④ 암 아닌 말기환자는 어떻게<br/><br/>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세 질환은 병의 진행과 말기·임종기 상황이 암과 확연히 다르다. 기대여명 예측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호스피스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적용하려면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쟁이 뜨겁다.<br/><br/> 암은 항암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진단 이후 평균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로 매우 짧다. 반면 만성간경화나 COPD는 수개월 혹은 수년간 극심하게 아프다가도 극적으로 호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말기 판정 이후 생존기간도 다양하다.<br/><br/> 이 때문에 세 질환의 호스피스 기준과 절차,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오남용을 초래하고 ‘현대판 고려장’ 등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br/><br/> 보건복지부는 2014년 사망자 통계를 토대로 연간 호스피스 대상자가 만성간경화는 2315명, COPD 5014명, 에이즈 121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만성간경화는 간 장애 C등급(차일드 푸 C) 환자로 간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말기라고 할 수 있다. 대한간학회 장재영(순천향대병원 교수) 홍보이사는 “이 단계면 배에 물이 차고 간성혼수로 의식을 잃거나 혈변을 보는 등 손이 많이 간다. 이런 증상에 대한 완화의료 조치로 편안히 임종토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br/> COPD도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거동이 힘들고 호흡곤란을 느낄 경우 호스피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환자는 전체 COPD의 10% 안팎이다. <br/><br/>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정지예 교수는 “말기 COPD는 암환자의 통증 이상으로 호흡곤란 공포와 고통이 심하다. 우울증, 불안 등에 대한 정서적·영적 지지와 돌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br/><br/> 에이즈는 약물치료 내성과 여러 합병증(기회감염)이 생기고 거동을 못할 정도로 악화되면 말기로 본다.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정용필 교수는 “<span class='quot0'>하지만 실제 이런 환자는 전체 에이즈 환자의 5∼10%에 불과하다</span>”고 설명했다.<br/><br/> 문제는 질환별로 ‘말기’를 어떻게 정의할지 전문가 사이에도 아직 일치된 의견이 없다는 점이다. 각 질환 전문가와 호스피스 전문가 사이의 시각차도 있다.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대상 환자 의뢰 기준과 절차, 질환별 돌봄체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br/><br/> 복지부는 세 질환의 호스피스 대상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 절차와 기준은 웰다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할 방침이다.<br/><br/>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상반기에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br/><br/>민태원 기자<br/><br/>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00.txt

제목: 전남의대 약리학교실 김경근 교수, 대장암 조기 선별 검사법 특허 출원  
날짜: 2016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14210028558  
본문: 전남의대 약리학교실 김경근(사진) 교수는 화순전남대병원 종양내과 정익주 교수, 소화기내과 주영은 교수, 병리과 이재혁 교수 등과 함께 소화기계 암 억제에 관여하는 유전자(APC)가 소실된 후 대장선종이 선암으로 변하는 과정을 연구한 결과 ‘키테닌(KITENIN)과 ErbB4 CYT-2 이소폼(isoform)이란 두 유전자가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br/><br/> 김 교수팀은 종양을 가진 생쥐들과 대장암 환자에게서 떼어낸 암 조직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검증하는데도 성공해 키네틴 유전자를 이용한 대장암 조기선별 검사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br/><br/> 연구결과는 미국암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CCR)’ 최근호에 게재됐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01.txt

제목: [역경의 열매] 김양수 <7> 맹학교 후배 빨리 가르치고 싶어 대학 조기졸업  
날짜: 2016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13184343231  
본문: 대학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지금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지만 당시는 그렇지 못했다. 특수교육학과가 있는 대학교도 마찬가지였다. 특수교사가 되려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에게 계속 의지할 수는 없었다. <br/><br/> 나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면 인간관계를 깨뜨린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밥을 사거나 선물을 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일찍부터 터득했다고나 할까.<br/><br/> 친구들의 도움으로 나는 조기 졸업을 했다. 성적이 우수해 7학기 만에 학부를 마친 것이다. 내 안에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맹학교에 가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인지 강의에 집중할 수 있었고 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졸업했으니 이제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좋은 교사가 될 자신이 있었다.<br/><br/> 1992년 모교인 한빛맹학교에 교사로 부임했다. 그런데 상황이 복잡하고 미묘했다. 그동안 기도해주시고 지지해주셨던 한신경 교장 선생님이 90년 암으로 돌아가셨다. 학교에는 이전에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선생님들만 계셨다.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다.<br/><br/> 교장 선생님은 암 투병 중에도 나와 동생 용수를 불러 장학금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곤 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양수야, 네가 똑똑하니 한빛맹학교의 교장을 잘 맡아다오”라고 말씀하셨다. <br/><br/> 서울 종로에 있는 서울맹학교에 비하면 한빛맹학교는 보잘것없었다. 지금 한빛맹학교는 학생 수가 140여명이지만 당시는 얼마 되지 않았다. 서울맹학교는 한빛맹학교를 ‘구멍가게’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한빛맹학교 학생들이 서울맹학교로 가는 예도 비일비재했다. 학생 수도 많이 줄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필요했다. <br/><br/> 나는 설립자이자 교장이셨던 한 선생님의 유지에 따라 언젠가 교장을 맡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빛맹학교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맹학교 제자이자 후배들과 수시로 대화하며 미래지향적인 학교발전 방향을 설정해 나갔다. 내가 교장이 되면서 모토로 삼았던 ‘하나님 중심의 경영, 학생 중심의 경영, 청렴한 경영’이라는 학교 목표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br/><br/> 2003년 한빛맹학교의 교장으로 선임됐다. 내 나이 서른일곱, 젊은 나이였다. 교장이 되고 나니 낙후된 학교 시설, 정체된 학교 분위기, 학생들의 이탈 상황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고민하고 기도했다. 그즈음 아세아연합신학교 교수로 계셨던 학부모 한 분이 교장실에 찾아왔다. 장학금 50만원을 기부하면서 한빛맹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나님의 격려였다.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함께해주시며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br/><br/>정리=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br/><br/> ▶ 역경의 열매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02.txt

제목: 치매, 젊은층을 공격하다… 치매 환자 저령화 비상  
날짜: 2016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11210325484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br/> <br/><br/><br/>소아청소년층에 ‘퇴행성 뇌질환’ 비상이 걸렸다. ‘고령화 사회의 그늘’로 불리는 치매가 각종 질병 및 사고 여파로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치매 발생을 부추기는 생활습관의 교정과 사고 예방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r/><b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2015년 치매의 세부질환별, 연령별, 성별 진료실적을 조사한 결과 국내 병·의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를 받은 30대 이하 환자가 연평균 21.8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1일 밝혔다.<br/><br/> 연도별 환자 발생 수는 2006년 14명, 2007년 13명, 2008년 17명, 2009년 16명, 2010년 12명, 2011년 15명. 2012년 40명, 2013년 37명, 2014년 28명, 2015년 26명이다. 이는 의학계에서 초로기(初老期) 치매로 보는 40∼60세 발병보다 더 빨리 시작되는 초(超)초로기 치매가 적잖다는 뜻이다.<br/><br/> 초로기 치매란 노인성치매 연령보다 이른 초로기(45∼60세)에 갑자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알츠하이머가 대표적이다. 특히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건망증이 심하다가 차차 기억·이해·판단·계산 능력이 둔해지면서 치매가 뚜렷해진다.<br/><br/> 더 심각한 문제는 10대 이하 소아청소년도 초초로기 치매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3명, 1명 발생했고 2010년 3명, 2011년 2명, 2012년 4명, 2013년 6명, 2014년 4명, 2015년 7명이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세불명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타 알츠하이머병’ ‘상세불명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br/><br/>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상윤 교수는 “<span class='quot0'>40세 미만 젊은이와 10대 이하 소아청소년층의 치매 발병은 갑상선기능저하증, 경막하출혈, 뇌수종, 양성 뇌종양, 비타민 B12 결핍 등 다른 기저질환의 합병증이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인 경우가 대부분</span>”이라고 말했다.<br/><br/> 치매 인구, 특히 초로기 또는 초초로기 치매 환자를 줄이기 위해 비만 당뇨 뇌졸중 운동부족 등 치매 위험요인을 피하는 생활과 더불어 각종 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br/><br/> 물론 사고 방지 노력 못잖게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에서 치매를 부르는 위험요인들을 피하는 것이다. 임상의학 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도 2013년 발표한 ‘치매 유행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치매를 부르는 고혈압 암 당뇨 비만 뇌졸중 등이 잘 조절되면 치매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br/><br/> 치매 인구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40세 미만에도 치매 진단 환자가 속출하는 것은 제철 음식을 통해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초로기 고혈압과 비만을 막는 등 치매 위험요인 제거 노력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라는 것이다.<br/><br/>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창형 교수는 “<span class='quot1'>최근 우울증과 운동부족, 중년기 고혈압 및 비만, 흡연, 저학력, 당뇨 등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만 해도 치매 발병 위험을 30∼50%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잇달아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03.txt

제목: 비타민B군, 뇌 기능 활성화 돕는다… 치매 예방에 좋은 봄철 음식 6선  
날짜: 2016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11202224763  
본문: 퇴행성 뇌질환인 치매는 건강하지 못한 식사와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평소 몸을 다지기 위한 운동과 더불어 꾸준한 뇌자극 훈련을 통해 두뇌 건강을 증진시켜야 하는 이유다.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몸 건강과 명철한 기억력을 간직하는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br/><br/>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B군은 심장병과 당뇨 위험을 막고 빈혈을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 또 소화작용을 돕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며 심지어 암세포를 죽이는 일을 하기도 한다.<br/><br/> 최근 주목되는 것은 비타민B군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국대병원 신경과 한설희 교수는 “<span class='quot0'>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B군, 특히 비타민B�扇굳�, 비타민로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비타민B군이 부족해지면 인지기능도 비례해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span>”고 소개했다.<br/><br/> 실제 비타민B군은 우리 신경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거의 모든 음식에서 비타민B군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br/><br/> 추위로 잔뜩 움츠렸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봄철에는 겨우내 운동이 부족한 상태인 데다 상대적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비타민B군과 비타민C 등 영양소 요구량도 늘어나기 마련. 건강한 제철 먹을거리를 통해 우리 몸과 두뇌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더는 치매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보자. <br/><br/>사진·자료 제공=치매, 음식이 답이다(싸이프레스)<br/><br/>(1) 도다리쑥국(열량 2017㎉, 탄수화물 4.3g, 단백질 35.8g, 지방 5.5g)<br/><br/>도다리는 단백질이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 지방은 0.7%에 불과한 생선이다. 비타민B�發�B�碧�E, 니아신(비타민B��)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글루타민산, 글리신, 알리닌, 라이신 같은 아미노산도 균형 있게 들어 있다. 빠른 두뇌 회전이 요구될 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다. 입맛도 돋우고 머리를 맑게 해 치매 예방에 좋다. 쑥은 무기질과 비타민 A, B��, C를 많이 함유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쑥의 독특한 향기는 ‘치네올’이라는 정유 성분 때문이며 봄철 입맛을 돋운다. 또 쑥에 들어있는 키페올키닉산과 페놀릭이라는 성분은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이 강해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br/><br/><식재료><br/><br/>1인분 기준 도다리 160g, 무 50g, 쑥 20g, 쪽파 10g, 국간장 5㎖, 다진 마늘 3g, 소금 약간, 육수 국물용 멸치 5g, 다시마 3g, 대파 10g<br/><br/><만드는 법><br/><br/>①무는 나박 썰고 쪽파는 3∼4㎝ 간격으로 잘라 준비한다. ②멸치, 다시마, 대파를 찬물에 넣고 육수를 낸다. 다시마는 물이 끓고 3분이 지나면 걷어내고 나머지는 익은 뒤 건져낸다. ③육수에 나박 썬 무와 국 간장을 넣고 한소끔 끓기 시작하면 도다리를 넣는다. ④도다리가 익으면 다진마늘, 쑥, 쪽파, 소금을 넣고 살짝 끓인다.<br/><br/>(2) 미나리해물전(열량 29㎉, 탄수화물 33,5g, 단백질 31.5g, 지방 4.5g)<br/><br/>미나리는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C와 플라본, 칼륨, 칼슘, 철분이 많이 들어 있는 알칼리성 식품이다. 엽록소, 엽산, 철분 함유량도 풍부해 빈혈을 예방하는 데 좋다. 혈류를 개선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캄펜, β-피넨, 미리스틴, 카르바크롤, 시아노사이드 등의 정유 성분 때문에 독특한 향이 있어 풍미를 더한다. 특히 카르바크롤은 항염증 작용이 강해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뛰어나다. 시아노사이드는 신경세포 보호기능이 있어 치매 예방 효과를 나타낸다.<br/><br/><식재료><br/><br/>1인분 기준 홍합살 20g, 오징어 30g, 새우살 30g, 미나리 25g, 양파 10g, 홍고추 5g, 부침가루 40g, 물 50㎖, 식용유 5㎖<br/><br/><만드는 법><br/><br/>①홍합살과 새우살은 소금물에 흔들어 씻은 뒤 건져내 물기를 뺀다. 오징어는 껍질을 벗겨 가늘게 썬다. ②미나리는 3㎝ 간격으로 썬다. 양파는 채썰고 홍고추는 어슷하게 썰어둔다. ③부침가루에 물을 넣고 거품기로 저어 부침반죽을 만든다. ④반죽에 가늘게 썬 오징어, 홍합살, 새우살, 미나리, 양파, 홍고추를 넣고 잘 섞는다. ⑤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한입 크기로 동그랗게 부친다.<br/><br/>(3) 두릅·파프리카·무쌈말이(열량 68㎉, 탄수화물 9.4g, 단백질 1.7g, 지방 3.1g)<br/><br/>두릅은 단백질이 많고 지방, 당질, 섬유질, 인, 칼슘, 철분, 비타민B�發�B��, 비타민C 성분과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다. 이들 성분은 혈당을 내리고 혈중 저밀도(LDL) 콜레스테롤을 낮춰 당뇨와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한다. 그 결과 퇴행성 뇌혈관질환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흔히 피망으로 불리는 파프리카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등 다양한 빛깔만큼 맛과 효능도 다르다. 빨간색 파프리카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고, 주황색 파프리카는 베타카로틴이 많다. 노란색 파프리카는 생피라진이란 물질이 많아 심혈관계 질환 예방,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억제에 좋다.<br/><br/><식재료><br/><br/>1인분 기준 두릅 50g, 빨간색 파프리카 20g, 노란색 파프리카 20g, 주황색 파프리카 20g, 쌈무 20g, 소금 약간<br/><br/><만드는 법><br/><br/>①두릅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쳐 물기를 빼서 준비한다. ②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프리카는 채 썰어 준비하고 쌈무도 물기를 제거해 둔다. ③물기를 뺀 쌈무에 두릅과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프리카를 넣고 돌돌 만다. ④믹싱볼에 고추장 참기름 식초 통깨 설탕을 넣고 섞어 초고추장을 만든 후 함께 곁들여 낸다.<br/><br/>(4) 냉이참깨죽(열량 251㎉, 탄수화물 42.4g, 단백질 6.9g, 지방 6.1g)<br/><br/>십자화과 식물인 냉이의 어린 순과 잎을 잘게 썬 뒤 죽에 넣어 끓여 먹으면 밥맛이 좋아지고 기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 냉이에는 단백질, 비타민, 회분, 섬유질, 탄수화물, 칼슘, 인 등의 영양성분이 골고루 들어 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A, 칼슘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냉이는 간에 쌓인 독을 풀어주고 간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하게 하며 지방간을 치료하는 데도 좋다. 또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가진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노화로 인한 뇌신경세포의 퇴행을 막아준다.<br/><br/><식재료><br/><br/>1인분 기준 냉이 40g, 맵쌀 30g, 참깨 5g, 간장 5g, 다진 마늘 3g, 참기름 3㎖, 육수(무20g, 양파 10g, 다시마 약간)<br/><br/><만드는 법><br/><br/>①육수를 만든다. 다시마를 찬물에 최소 1시간 이상 담가둔 다음 무와 양파를 넣고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는 건져내고 무와 양파는 더 끊인다. ②맵쌀과 찹쌀을 깨끗이 씻어 2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후 육수에 넣는다. 중간 불에서 넘치지 않게 끓인다. ③냉이는 깨끗이 다듬어 데친 후 1∼2㎝ 크기로 썰어 간장과 다진 마늘을 넣어 무쳐 놓는다. ④참깨는 믹서에 곱게 갈아 준비하고 ②의 쌀이 끓어 밥알이 퍼지면 잘게 썬 냉이와 참깨를 넣어 끓인 다음 참기름을 넣어 완성한다.<br/><br/>(5) 달래봄동무침(열량 79㎉, 탄수화물 13.6g, 단백질 3.4g, 지방 1.9g)<br/><br/>달래는 특유의 향이 된장찌개나 간장 양념장에 잘 어울린다. 파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희고 동그란 달래의 알뿌리는 국물요리에 개운한 맛을 더해준다. 비타민 A·B�發�C 등이 골고루 들어 있고 칼슘과 칼륨 함유량도 풍부하다. 달래는 보통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익한 봄나물이다. 달래의 칼륨 성분은 우리 몸속에 있는 쓸데없는 염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래는 고혈압 환자에게 약용식물로 통한다. 달래는 또한 마늘이나 양파와 마찬가지로 알싸하고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알리신과 알리닌이 많이 들어 있어 항산화효과 역시 강력하다. 봄철에 달래 나물을 자주, 많이 섭취하면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발생위험을 줄일 수 있다.<br/><br/><식재료><br/><br/>1인분 기준 달래 40g, 봄동 30g, 양념장(고추장 10g, 고춧가루 3g, 식초 10㎖, 설탕 5g, 참깨 2g, 소금 약간)<br/><br/><만드는 법><br/><br/>①달래와 봄동은 깨끗하게 씻어서 한입 크기로 썰어둔다. ②볼에 고추장, 고춧가루, 식초, 설탕, 참깨, 소금 약간을 넣고 양념장을 만든다. ③먹기 직전에 달래와 봄동에 양념장을 얹어 재료의 형태가 유지되도록 가볍게 무쳐 식탁에 올린다.<br/><br/>(6) 주꾸미샐러드(열량 101㎉, 탄수화물 12g, 단백질 7.3g, 지방 3.1g)<br/><br/>해마다 3∼5월 서해안 일대에서 주꾸미 축제가 열릴 만큼 각광을 받는 식재료다.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칼륨, 인, 셀레늄, 철 등 필수 미네랄이 풍부해서다. 비타민A·C, 시아노코발라민(비타민B )이 많아 빈혈예방, 시력보호, 면역증강에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오메가3도 많이 함유, 심혈관질환과 암 예방은 물론 알츠하이머 치매 억제 효과도 기대된다. 몸에 좋은 유기산 성분인 타우린과 불포화지방산(DHA)이 많아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작용도 한다. 낙지보다 덜 질기고 오징어보다 감칠맛이 더 나는 주꾸미는 살짝 데쳐 통째 먹어야 제 맛이 난다.<br/><br/><식재료><br/><br/>1인분 기준 주꾸미 70g, 양파 20g, 양상추 30g, 라디치오 10g, 치커리 5g, 비타민 10g, 풋고추 2g, 고추기름 드레싱(고추기름 5㎖, 올리브오일 5㎖, 매실청 5㎖, 식초 2㎖, 소금과 후추 약간)<br/><br/><만드는 법><br/><br/>①주꾸미는 손질해 끓는 물에 데친 뒤 찬물에 식혀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②양파, 풋고추는 채 썰어 준비한다. ③양상추, 라디치오, 치커리, 비타민 채소는 먹기 좋은 크기로 뜯어 찬물에 담근다. ④볼에 드레싱 재료를 잘 섞어 고추기름 드레싱을 만들고, 그릇에 재료를 담아 곁들인다. 소스는 따로내 조절하며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04.txt

제목: [책과 길-암연대기] 암은 현대병?… 고대인도 암 앓았다  
날짜: 2016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11041104047  
본문: “<span class='quot0'>우리 모두 언젠가는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앉아 있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때가 찾아온다.</span>”<br/><br/> 당신이 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이유는 암일 가능성이 높다. 암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암이 왜 발생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br/><br/> “우리가 무찌른 감염성 질병들은 하나의 인자로 인해 야기된 것이다. 정체를 파악해서 죽이거나 백신으로 무찌를 수 있는 적들이었다. 하지만 암의 경우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으로 인해 뒤죽박죽 엉망이 된 증상들을 비롯해 그 모든 요인들을 통째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너머에 존재할 것이다. 암은 질병이 아니다. 암은 하나의 현상이다.”<br/><br/> 뉴욕타임스 등에 우주과학 기사를 기고해 온 미국의 과학저널리스트 조지 존슨은 아내가 암 판정을 받자 암 공부를 시작했다. “<span class='quot0'>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세포 하나가 사람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에일리언 같은 괴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일까?</span>” 이것이 그의 핵심적 질문이었다. 그는 수백 편의 논문을 읽고, 각종 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계 최고의 암 전문가들을 만났다. 그렇게 해서 알아낸 암에 대한 최신의 지식을 ‘암연대기’라는 책 한 권에 담아냈다.<br/><br/> 우리 주변에는 암에 대한 정보가 넘쳐난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 대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이 책은 알게 한다. 예컨대, 암이 현대병이라는 건 오해다. 저자는 고대사 박물관들을 뒤져 고대인들이 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암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암 발병률이 현대에 와서 급증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역시 근거가 없다. 암이 유전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다. 미국으로 이주한 흑인 노예의 후손들과 그대로 아프리카에 남아 있는 그들의 친족들을 비교해본 1950년대 연구에서 미국의 흑인들에게서 훨씬 더 많은 암이 발병한다는 게 확인됐다. 고기를 피하고 채식 중심의 저지방 식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비타민 C와 E 같은 항산화제를 둘러싼 믿음도, 휴대전화가 뇌종양을 유발한다는 것도, 심지어 흡연이 암의 원인이라는 것도 미심쩍은 얘기들이다.<br/><br/> 이 책에서 가장 공들여 설명하는 것은 암세포의 성장과정이다. 세포 재생 과정에서 태어난 돌연변이 세포가 우리 몸의 수많은 방어 시스템을 통과해 어떻게 하나의 종양으로 정착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종양이 어떻게 무한한 번식력으로 우리 몸을 침탈하게 되는지 상세하게 보여준다.<br/><br/>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암과의 싸움이라는 인류의 목표가 착각이 아닌가, 의학이 암과 싸워온 방식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닌가 의심한다. 우리 몸속에서 매초 400만개의 세포가 세포분열을 하고, 세포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는 게 자연스런 진화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span class='quot0'>암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span>”는 시각을 제시한다. “<span class='quot0'>신체는 암이라는 존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암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span>”이라는 것이다.<br/><br/> “<span class='quot0'>암은 언제나 인류와 함께 해왔고, 암에 걸리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며, 온갖 주의사항을 제아무리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 유전자 속에 들어 있는 무언가가 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어쩐지 위안이 되었다.</span>”<br/><br/>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05.txt

제목: “포도주 내 ‘레스베라트롤’, 심혈관 질환 억제”… 포스텍 류성호 교수팀 원리 규명  
날짜: 2016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10195851857  
본문: 포도주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br/><br/> 포스텍 류성호(사진) 교수팀은 포도주에 함유된 ‘레스베라트롤’이 인체 단백질 ‘엠톨’의 활성화를 억제해 심장 건강을 돕는다는 사실을 처음 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에 발표됐다.<br/><br/> 레스베라트롤은 포도껍질에 많이 들어 있는 천연 생리물질로 심혈관 질환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물질이 몸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br/><br/> 류 교수는 “<span class='quot0'>레스베라트롤이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효과를 내려면 ‘자가소화작용’(손상세포 수리)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세포 실험을 통해 레스베라트롤의 자가소화작용이 엠톨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span>”고 말했다.<br/><br/> 레스베라트롤은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암, 당뇨병, 퇴행성 신경질환,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도 낸다.<br/><br/> 류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레스베라트롤의 치료 효과를 유도하는 물질을 개발하고 부작용을 예측하는 기술을 고안할 수 있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06.txt

제목: [내일을 열며-이기수] 가정호스피스 적극 활용을  
날짜: 201603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9180619014  
본문: 가족 중 누군가가 심각한 병으로 말기에 이르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행동일까? 무조건 집으로, 또는 병원으로 환자를 모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br/><br/> 최근 호스피스 기관이나 요양병원이 오갈 데 없는 말기 환자들의 최후 안식처로 꼽히고, 부족한 호스피스 병상 해결책으로 자택임종 및 가정호스피스 확대가 부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 생각된다.<br/><br/>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13.8%에 불과하다. 영국(95%) 미국(44.6%) 대만(30%)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호스피스 기관과 병상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 주 원인이다.<br/><br/> 호스피스 기관은 형태에 따라 병동형, 독립형, 가정형으로 나뉜다. 이 중 가정형은 호스피스 봉사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 환자를 돌보는 형태다. 병동형이나 독립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도 적어 효과적이다. 말기 환자가 익숙한 집안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도 큰 이점이다. 이 분야 선진국으로 통하는 미국과 싱가포르 등도 가정형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br/><br/> 우리나라 말기 환자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편안하게 맞는 임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4년 8월 19∼30일, 제주도를 뺀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500명(남자 762명, 여자 738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br/><br/> 그 결과 85.8%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임종 장소로 절반 이상(57.2%)이 자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과 병원, 요양원 지지율은 각각 19.5%, 16.3%, 5.2%에 그쳤다.<br/><br/> 정부가 3월부터 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 역시 이 같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연간 25만여명이 숨지며, 이들 중 18만여명이 만성질환을 앓다가 병원에서 사망한다. 문명의 발달 및 급속한 도시화와 더불어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이 모두 병원에서 이뤄지는 소위 메디컬라이제이션(medicalization·의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br/><br/> 행복한 죽음은 행복한 삶만큼 중요하다. 임종 환자들이 다인 병실에서 삶을 마감하는 현실은 실로 환자 본인과 가족은 물론 주위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든다. 임종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보듬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이유다.<br/><br/> “잘 살고 잘 죽기,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순환 고리이다. 최근 들어 웰빙 열풍이 불며 잘 먹고 잘 살기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왠지 잘 죽는 데는 도통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의 말이다. 그는 “임종 과정에서 인간적 돌봄과 배려가 없는 제도는 한낱 허울과 형식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한다.<br/><br/> 이참에 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과 더불어 ‘자택요양 지원진료제’ 도입도 검토해보자. 말기 환자의 경우 동네 주치의와 연대, 24시간 365일 체제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택에서 편안히 방문 진료 및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병원에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진료 및 간호 서비스에 간병 지원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받게 되면 저절로 호스피스 병상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br/><br/>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07.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53)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 의료한류 선도… 외국인 환자들 ‘입소문 내원’  
날짜: 201603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8041709524  
본문: 2015년 한 해 동안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만5000여 명이다. 1만3500여 명이 외래진료를 받았고 605명은 입원 요양, 1100여 명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았다. 조사결과 4년 전인 2011년보다 91%가 늘었다. 그간 입원환자는 123%, 건진 수검자도 35% 증가했다.<br/><br/> 국가별로는 미국인이 25.1%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16.4%로 뒤를 이었다. 특히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환자가 최근 몇 년 새 급증했다. 아랍에미리트 환자는 2011년 18명에서 2015년 1464명으로 81.3배, 카자흐스탄 환자는 같은 기간 111명에서 1726명으로 늘었다. 2011년 63명에 불과했던 사우디아라비아 환자도 4년 만에 572명으로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br/><br/> 서울아산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유명 병원도 포기한 환자를 잇달아 살려내고, 그 소식이 입소문으로 세계 각국에 퍼졌기 때문이다.<br/><br/> ‘이식 후 거부반응이 우려되는 고위험군 환자’라는 이유로 미국이 두 손을 든 아부다비 환자가 2012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신장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2013년에는 일본 병원들이 포기한 알코올성 간경변증 러시아 환자가 2대 1 간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최근에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이식 연수를 받은 이스라엘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자국의 환자를 보내 수술을 받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물론 이 환자도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해 모국으로 돌아가는데 성공했다.<br/><br/> 외국인 환자는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순간부터 진료, 입원, 수술까지 각종 병원행정 처리부터 숙박, 식사까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서울아산병원은 1989년 개원과 동시에 국제진료센터(소장 김영탁·산부인과 교수)를 개소, 외국인 환자가 병원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퇴원해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 최선의 진료 및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한류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컨시어지란 고객의 요구에 맞춰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가이드 서비스를 말한다.<br/><br/>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엔 현재 5명의 전담 의료진이 상주하는 가운데 각과 교수진이 외래 진료실을 개설, 각국 환자의 다양한 진료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또 국제진료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와 행정직원이 외국인 환자의 진료행정 처리는 물론 숙박과 교통 예약 등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br/><br/>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의 모토는 ‘외국인 환자도 내 집처럼 생각하는 서울아산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랍어, 일본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언어별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입원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단도 한식만 고집하지 않고 서양식과 중동식(할랄푸드)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돕고 있다. 외국인 환자에게 익숙한 식사를 통해 체력회복과 향수병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br/><br/> 서울아산병원은 2013년 11월 지금의 국제진료센터로 리모델링하면서 날로 증가하는 중동환자를 위해 진료 프로세스도 대폭 개선했다. 중동 음식 전문가를 초빙해 병원 영양팀 직원을 교육했고 다양한 종류의 할랄푸드를 개발했다. 아랍어 통역사 병동 전담제를 운영해 중동 환자의 편의를 제고한 것도 눈에 띈다. 그런가 하면 아랍어로 된 ‘입원환자 기본의사 표현집’을 제작해 통역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도 간호사들과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시간에 맞춰 기도를 하는 중동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남녀구분 기도실과 휴게실을 설치했으며, ‘중동환자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br/><br/>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는 2020년까지 해외 환자 100만 명 유치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응해 외국인 환자 진료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탁 국제진료센터 소장은 “<span class='quot0'>특히 세계 표준에 맞는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의학자 연수 및 문화적 교류를 통한 국가 간 신뢰를 증진시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설 각오</span>”라고 포부를 밝혔다.<br/><br/>◆ 김영탁 소장은 <br/><br/>부인암 분야 최고 권위자… 세계산부인과연맹 상임이사국 집행위원 활동<br/><br/><br/>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75년 서울고, 1981년 연세의대를 졸업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및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고 1989년 서울아산병원이 개원할 때 산부인과 전임강사로 부임했다. 현재 산부인과 교수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 국제사업실장으로 일하고 있다.<br/><br/> 1994∼1995년 존스홉킨스대, 2003∼2004년 오하이오주립대에 연수를 다녀왔다. 부인암 분야의 기초의학 연구와 최신 암 치료법을 개척하기 위해서다. 2009∼2014년 서울아산병원 부인암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부인과의사 중 최초로 세계산부인과연맹 상임이사국 집행위원으로 선출됐고 오는 10월부터는 대한부인종양학회장도 맡을 예정이다.<br/><br/> 김 교수는 자궁근종, 자궁암, 난소암 등 부인암 치료분야의 자타공인 국내 최고 권위자다. 특히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연구와 자궁암 예방백신 개발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김 교수는 요즘 국제진료센터 소장 및 국제사업실장으로서 낯선 나라에서 치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의 불편함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br/><br/> “<span class='quot1'>권위적 자세를 버리고 국적, 인종, 성별,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진료해야 합니다.</span>” 김 교수의 평소 진료철학이다.<br/><br/> ‘난소암 환자의 불완전 종양축소수술 예측계산도 연구’ ‘젊은 여성에게서 발생한 초기 자궁내막암의 고용량 황체호르몬 치료효과 연구’를 포함해 지금까지 100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2006년 동료교수들과 ‘암에 대한 모든 것’(가림건강신서54)을 펴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08.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1부 ③] “호스피스병동 입원 시기 너무 늦어… 3∼1개월 전에는 시작해야”  
날짜: 201603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8040613714  
본문: 1부: 호스피스, 나를 위한 선택<br/><br/>③ 턱없이 부족한 호스피스 병상<br/><br/>“호스피스병동 입원 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신규 입원 환자가 1∼2주 만에 돌아가시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이 호스피스의 장점을 온전히 활용하기란 불가능해요. 적어도 기대여명 3∼1개월 전에는 호스피스를 시작해야 평안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br/><br/>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고려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사진) 이사장은 “<span class='quot0'>호스피스의 조기 이용을 위해선 인식 전환과 함께 의료계의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암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부터 호스피스를 ‘말기 환자를 위한 최선의 돌봄 장소’가 아닌 ‘죽음의 장소’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임종에 가까워서야 호스피스 이용을 권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3년 한 의과대학 조사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수준이 의사는 20점 만점에 평균 10.3점, 간호사는 평균 9.2점에 그쳤다.<br/><br/> 최 이사장은 호스피스 의사뿐 아니라 암 환자를 다루는 모든 의사·간호사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본 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7∼8년 전부터 암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사에게 호스피스 교육을 의무화한 ‘피스 프로젝트(PEACE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br/><br/>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강조했다. 질 관리를 위해선 의사·간호사는 물론 사회복지사·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중요하다. 현재 호스피스 전문인력 ‘표준교육’은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1년에 60시간, ‘보수교육’은 연간 4시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온·오프라인으로 이뤄지는 교육이 형식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67개 호스피스기관 중 지역별로 10여곳에서만 교육이 진행돼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br/><br/> 최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서비스 목표를 달성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시설·인력·교육이수 등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당 청구를 반복하는 기관에는 단호한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질 향상이 이뤄질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민태원 기자<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09.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1부 ③] 대형병원 중 호스피스 병동 운영 서울성모병원 유일  
날짜: 201603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8040612875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br/> <br/>1부: 호스피스, 나를 위한 선택<br/><br/>③ 턱없이 부족한 호스피스 병상<br/><br/>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은 국내 암 환자의 3분의 1가량(37.7%)을 치료하고 있다. 대부분 500병상 이상(서울대병원은 80여 병상)의 암병원(혹은 암센터)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가톨릭재단의 서울성모병원만 유일하게 호스피스병동을 별도로 운영한다. 대형병원이 말기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인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br/><br/>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3차 병원의 역할은 암 수술이나 뇌졸중 같은 급성기 치료</span>”라며 “<span class='quot0'>말기 환자 호스피스케어는 몇 차례 검토했지만 운영하지 않고 있다</span>”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말기 직전의 4기 암 환자까지 대상을 넓힌 ‘조기 완화의료 병동’을 운영 중이지만 정부의 호스피스지원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서울대병원도 2006년 호스피스병상 28개를 만들었다가 6년 만에 폐지했다.<br/><br/> 대형병원이 호스피스병동 운영에 소극적인 것은 ‘수익성’ 때문이다. 호스피스 병상을 늘려봤자 ‘돈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꺼린다. 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면 평균 4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는다. 이 기간에 병원은 암 종류에 따라 환자 1인당 적게는 약 1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br/><br/> 반면 호스피스 환자는 평균 22일 정도 입원하며 주로 암 통증 및 영양관리 등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병원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5인실의 경우 하루 최대 17만(의원)∼26만원(상급종합병원) 진료수가(일당 정액제)를 인정받는다. 게다가 전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인력 충원과 공간 확보 비용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 수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br/><br/>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빅5 병원의 경우 급성기 병동의 기대수익과 호스피스병동의 진료수가 간 간극이 워낙 커서 현재 수가를 2배로 올려도 참여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span>”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대균 교수는 “<span class='quot2'>대형병원이 항암치료 끝났다고 ‘우린 해줄 게 없으니 가세요’ 하면 말기 환자는 나침반 없이 집 밖으로 쫓겨나는 셈</span>”이라고 지적했다.<br/><br/> 이에 대형병원이 ‘단기 입원 병상’을 늘려 상태가 나빠진 암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는 “<span class='quot3'>호흡곤란이나 통증이 심한 말기 환자는 1주일∼10일 입원시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한 뒤 집에서 가까운 호스피스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4'>빅5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에 ‘자문형 호스피스’ 설치를 하루빨리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span>”고도 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를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찾아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면서 호스피스병동으로 옮기도록 돕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도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br/><br/>민태원 박세환 전수민 신훈 기자<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10.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1부 ③] 품위있는 生의 마무리도 ‘바늘구멍’  
날짜: 201603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8040611564  
본문: 말기 암 환자 하모(72)씨는 두 달을 기다려 지난달 18일 고려대구로병원 호스피스병동에 들어갔다. 폐암 4기에 혈액암 전이 진단을 받은 지 10개월 만이었다. 지난해 가을부터 항암제를 견디지 못할 만큼 쇠약해지더니 올 1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부랴부랴 집에서 가까운 고려대구로병원을 찾아 호스피스 입원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여명이 대기 중이었는데 환자가 숨을 거둬야 자리가 나니 언제 입원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br/><br/>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점철된 우리네 삶은 마지막까지 가혹하다. 하씨 같은 말기 암 환자는 생의 끝자락을 보낼 호스피스 병상마저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며 집과 응급실, 요양병원을 전전한다. 그러는 동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br/><br/> 대기가 길어지면서 하씨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다. 정신력이 떨어져 가족도 잘 알아보지 못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가족은 피가 말랐다. 딸(39)은 사흘 내내 매일 병동에 전화해 “아버지가 안 좋으시다”고 사정을 했다. 1인실에 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병실료만 하루 30만원이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할 무렵 5인실 자리가 났다. 딸은 “조금 더 일찍 호스피스를 선택했다면, 대기하지 않고 바로 입원했다면 아버지 의식이 온전한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삶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br/><br/> 김모(68)씨도 지난달 28일 대구의료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했다. 2012년 재발한 간암이 폐·목·대퇴부까지 전이됐는데 2014년 결핵에까지 걸려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삶의 의지가 강했던 김씨는 이보다 오래 버텼다. 지난달 통증이 악화돼 다시 병원 신세를 졌다. 아들(40)은 주치의의 추천을 받아 호스피스병동 서너 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한결같이 “대기해야 한다”고 했다. 요양병원에서도 ‘까다로운 말기 암 환자’란 이유로 기다려보라고만 했다. 발만 구르다 보름 만에 겨우 대구의료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br/><br/> 대다수 암 환자는 ‘빅5’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치료하다 ‘말기’ 진단을 받으면 서울성모병원이나 고려대구로병원처럼 인지도 높은 병원의 호스피스병동으로 몰린다. 비싸도 시설이 좋고 믿을 만하다는 ‘큰 병원 만능주의’가 여기서도 통한다. 이런 병원에선 10∼30명 말기 암 환자가 평균 2∼3주, 길게는 두 달씩 입원을 기다리고 있다. 대기 기간이 길어져 끝내 자리를 얻지 못한 채 임종하는 경우도 흔하다.<br/><br/> 지난해 7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큰 병원뿐 아니라 중소병원 호스피스병동에도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간병 도우미’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선호도가 갈수록 크게 벌어진다.<br/><br/><br/>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도우미(간병 도우미)를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운영토록 했다. 전문 요양보호사 1명이 환자 3명을 돌볼 수 있도록 자체 인력을 갖춘 호스피스 기관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환자는 하루 8만5000원이던 간병비를 40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당장 간병 인력 충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대다수 호스피스 기관은 선뜻 나서지 못했다. 전국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67곳 중 4분의 1(16곳) 정도만 간병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br/><br/> 환자들은 간병 도우미가 있는 기관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김씨도 그런 경우다. 지난해 7월 간병 도우미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병상의 가동률은 60∼70%에서 90∼100%로 껑충 뛰었다. 서울서북병원도 지난해 11월 도우미제 도입 후 가동률이 20% 이상 높아져 환자가 줄을 섰다. 반면 간병 도우미가 없는 기관은 병상이 오히려 남아돈다.<br/><br/> 김대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호스피스 병상의 양적 확충도 필요하지만 간병 도우미를 전면 의무화해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비용 문제로 호스피스를 생각하지 못하던 환자도 임종케어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br/> 김범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삶의 마지막 돌봄마저 큰 병원으로 몰리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 일부 기관의 과포화를 해소하고, 빅5 등 대형병원은 적극적인 암 치료를 끝낸 환자를 지역 호스피스 기관으로 원활하게 전원(轉院)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br/>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11.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1부 ③] ‘편안한 마침표’ 요원… 호스피스 병상 0.17% 뿐  
날짜: 201603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8040609498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br/> <br/>1부: 호스피스, 나를 위한 선택<br/><br/>③ 턱없이 부족한 호스피스 병상<br/><br/>편안하고 존엄한 죽음,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호스피스 인프라는 매우 미흡하다. 2014년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13.8%에 그쳤다. 사망한 암 환자 7만6611명 중 1만559명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았다는 뜻이다. 영국(95%) 미국(44.6%) 대만(30%)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같은 해 국립암센터 조사에서 국민의 58.5%는 호스피스 이용 의사가 있고, 71.7%는 그 효과에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높아진 인식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배경에는 부족한 인프라가 있다.<br/><br/> ◇호스피스병상 0.17% 불과…1400병상만 늘린다?=국내 호스피스 기관과 병상은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간병 지원 등 제도적 여건도 충분치 않다. 이 때문에 일부 대형병원 호스피스병동과 간병도우미제를 시행하는 기관에 환자가 몰린다. 편안한 임종을 맞으려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br/><br/>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 병상은 올 2월 기준 67개 의료기관에 1118개가 있다. 전체 의료기관 병상 67만4646개의 0.17%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에서 2015년까지 2500개 호스피스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3년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에선 2020년까지 호스피스 이용률을 20%로 높이고 완화의료 전문 병상은 1400여개로 확대하겠다고 했다.<br/><br/> 몇 년 만에 크게 후퇴한 것이다. 1400병상 확충은 사실상 자연증가분 정도에 해당한다. 고령화와 암 환자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늘어나는 호스피스 수요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게다가 웰다잉법 제정으로 내년 8월부터 에이즈, 만성간경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 3가지 말기 질환이 새로 호스피스 이용 대상에 포함되면 수요는 더욱 늘게 된다.<br/><br/>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의 적정 공급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영국의 호스피스 수요 산출 기준(인구 100만명당 50병상)을 적용할 경우 2021년까지 2538병상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br/><br/> ◇수도권·대도시 몰려…지역편차 극복도 과제=호스피스기관의 ‘지역별 불균형’도 해결 과제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 있어 지방 환자의 호스피스 접근성은 크게 떨어진다. 현재 67개 호스피스기관의 1118병상은 서울 254병상(13개 기관), 경기 222병상(14개 기관), 인천 77병상(4개 기관) 등 수도권이 553병상으로 거의 절반(49.4%)을 차지한다. <br/><br/>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고서에서 전국을 27개 진료권으로 나눠 지역별 적정 호스피스병상 수요량을 산출했다. 호스피스병상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지역은 춘천·순천·포항·제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공급 부족 지역은 부산·대전·울산·원주·천안·익산·목포·화순·안동·창원·진주가 포함됐다. 이 중 원주·익산·안동은 공급량이 아예 없어 호스피스 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곳으로 분류됐다.<br/><br/>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는 “<span class='quot0'>부족한 병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갖춰진 병상이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적 지원이 보완돼야 한다</span>”고 말했다. 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도 “정책 목표를 장기적으로 유럽 수준의 호스피스 확충으로 정하되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균형적 배치’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br/><br/>민태원 기자<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12.txt

제목: [난소암 극복-환자는 말한다] 표적항암제 치료후 완치 희망… 돈 때문에 처방 약이 달라서야  
날짜: 2016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6183318757  
본문: “<span class='quot0'>같은 난소암 환자인데, 돈 때문에 맞는 약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span>” 박순자 씨는 처음 난소암 진단을 받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이는 내용은 절망스런 생존율과 재발률. 박씨는 “2년 안에 재발한다는 식의 절망적인 이야기가 인터넷에 많았다. 하지만 15개월째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을 투약받으며 재발없이 살아가고 있다. 나의 이야기가 다른 난소암 환자들에게 희망처럼 들렸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녀는 또 “현재 특별한 부작용 없어 건강할 때 했던 운동과 취미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다른 난소암 환자들도 나처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는 치료로 희망차게 살았으면 좋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br/><br/> 난소암 제거 후 항암치료 중인 그녀도 여느 암환자처럼 세포독성항암제의 부작용을 경험했다. 속이 메스껍고 손발 저림이 심했다. 걷지 못할 정도로 발끝 신경이 예민해진다는 다른 암환자의 비해 비교적 약한 부작용이었지만 항암제의 부작용을 경험할 때마다 완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span class='quot1'>항암제 부작용으로 몸이 아프면 우울해지곤 했다</span>”고 말했다.<br/><br/> 박씨는 세포독성항암제 투여 후 주치의의 권유로 표적항암제 아바스틴 단독 치료를 시작했다. 표적항암제 시작 후 달라진 것은 박씨의 생활이다. 이전처럼 속이 메스껍거나 손발이 저리지 않았다. 심지어 빠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항암하면서 아프지 않다보니 이렇게 쭉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부작용이 없이 견디다보면 완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예전처럼 운동도 적극적으로 하게 됐다”고 웃어보였다. 난소암 치료 중인 박씨가 현재 맞고 있는 표적항암제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의 약으로 꼽힌다.<br/><br/> 박씨는 한달에 300만원 정도를 표적항암제 비용으로 지출한다. 박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표적항암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민의 여지없이 치료를 시작했다. 암환자 입장에서는 살 수 있다면 비용이 얼마든 상관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치료비가 상당했다. 당장 경제적 여유가 없는 암환자라면 표적항암제 치료를 애당초 시작할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씨는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는 다른 암환자로부터 ‘돈이 없어 표적항암제를 맞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녀는 “표적항암제가 완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맞는 동안 최선의 치료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희망을 갖게 된다”며 “돈 때문에 표적항암제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는 같은 병실 환자들을 보며 안타깝고 미안했다”고 덧붙였다.<br/><br/> 환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치료의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 현실은 의료진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br/><br/> 그녀의 주치의 김태중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표적항암제 치료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재발 기간을 늦추고 항암부작용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최선의 치료라 할 수 있다. 만약 이 약제가 첫 번째 치료에서부터 보험급여 적용이 되어 더 이상 비싼 약이 아니라면 많은 환자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br/><br/>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13.txt

제목: ‘비뇨기과’, 전공의 기피 존폐 갈림길… 처우개선 재정 투입 등 정부 특단 지원책 절실  
날짜: 2016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6183319292  
본문: 2011년 이후 비뇨기과 신규 전공의 지원율은 50%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고, 2014년 지원율은 26.1%로 26개 전문과목 중 가장 낮았다. 이후 더 이상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공의 지원율로 인해 현재 비뇨기과는 존폐 위기까지 몰려있다. 이는 서울의 소위 빅5 병원도 예외가 아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비뇨기과 지역별 전공의 최종 확보현황은 추가모집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30% 이하인 지역이 대부분이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율을 비교해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다. 지난해까지 지역별 비뇨기과 수련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수가 0명이거나 1명이 수련병원은 수도권 62%, 비수도권 68%로 전공의 부재로 인한 심각한 진료공백 현상이 발생하기 직전이라는 지적이다.<br/><br/>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기피 지원 진료과의 지원율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신설, 8개과에 월 50만원(4년간 24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기피과 전공의 확보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다른 전공과목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응급의학과를 제외한 다른 과의 지원 폐지를 결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 대상에 비뇨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컸다는 것이 비뇨기과 의료진들의 지적이다.<br/><br/> 또한 노인요양병원도 배뇨장애와 요실금 등 비뇨기과 질환을 담당해야 하지만, 타과에 비해 부족한 비뇨기과 전문의도 문제라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8개 진료과에 대해 전문의 가산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비뇨기과의 경우 전문의 가산이 없고, 일당정액제로 묶여있어 배뇨, 요로감염, 카테터 관리를 할수록 수익성이 좋지 않아 전문의를 두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비뇨기과학회는 최소 8대 전문의 가산 폐지나, 비뇨기과 전문의도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r/><br/> 특히 비뇨기과학회는 비뇨기과 신규 전공의 지원율이 40% 이하로 현재처럼 과 존폐 위기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고난도 비뇨기과 수술을 할 수 없게 되고, 암환자나 외상환자, 응급환자를 정상적으로 진료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비뇨기과 중증환자 또한 진료하거나 수술이 불가능해 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br/><br/> 결국 비뇨기과 전문의가 진료해야 할 환자를 비전문의사가 진료하게 돼 의료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비뇨기과학회의 지난 2012년 조사에 의하면 2차 의료기관에서 비뇨기과에 내원하는 외래 환자수는 하루 평균 39.7명, 비뇨기질환자수 비율은 76.5%이지만 비뇨기과 수술건수는 한달 평균 18.6건에 불과하다. 또 전공의나 보조인력 없이 의사 1∼2명만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많아, 시설이나 장비에서도 제한이 많다는 것이다.<br/><br/> 진료과 존폐 위기 대응을 위해 비뇨기과학회는 최근 비뇨기과 전공의 정원조정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비뇨기과학회 평의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회의를 열고, 신규 전공의 배정 기준안(감축안)에 따라 2013년 87명으로 줄여 2016년까지 적용하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과 진행한 연구를 통해 비뇨기과 신규 전공의를 총 정원을 50명으로 정하고 전공의를 뽑는다면 10∼15년 후 수요와 공급 균형이 맞을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전공의 총정원제(50명)를 시행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에 관련 내용을 제안한 상태다.<br/><br/> 이와 함께 비뇨기과학회는 비뇨기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도 적극 요청하고 있다. 학회 측은 전공의가 비뇨기과를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이 적다는 점을 꼽는다. 비뇨기과 학회 측은 “대다수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비뇨기과의 낮은 보험수가로 인해 3차 대형병원 교수들도 타과 수준의 수익 달성을 위해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흉부외과와 외과에 대한 보험수가 가산을 시행해 이러한 부담은 더욱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또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비뇨기과 개원 의사들은 고가의 장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로 진료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비뇨기과 전문 진료 보다 피부과 등 타과 진료에 주력하고 있어 오히려 비뇨기과 진료영역을 타 진료과에 빼앗기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br/><br/> 따라서 비뇨기과학회는 존폐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비뇨기과 수가 가산 ▲체외충격파쇄석기 신규설치 및 기계 교체시 비뇨기과 전문의 단독전속 인력기준 시행 ▲비뇨기과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료재정 투입 ▲비뇨기과 신설 행위 수가신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5알파환원효소억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요양급여기준의 변경 및 제한 설정 ▲발기부전, 조루증 약제에 대한 비뇨기과 전문의 처방 우선권, 의약분업 예외인정 및 약마진 인정 ▲불합리한 비뇨기과 급여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br/><br/>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 열린 ‘비뇨기과 위기 극복’ 토론회에서 이상돈 대한비뇨기과학회 수련이사(부산의대)는 “<span class='quot0'>장기간 지속되는 비뇨기관 전공의 지원저하를 방관만 하지 말고 쇼크에 빠지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비뇨기과 역시 다른 여러 과들과 같이 수가조정, 가산금 지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비뇨기과 약물처방 우선권, 요역동학검사 판독료 신설, 전립선암 국가암검진 지정,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과 지정 등의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span>”고 밝혔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14.txt

제목: [건국대병원의 제안-더 나은 노년] ‘99팔팔23사’… 충분히 가능하다  
날짜: 2016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6182246584  
본문: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들어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는 ‘건강’일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이 60세에 환갑잔치를 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랑이요 가족의 기쁨이었다. 하지만, 요즘 환갑잔치를 얘기하면 실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에 환갑잔치를 하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수명은 남자는 78.5세, 여자는 85.1세이니, 이 정도라면 80세 정도는 되어야 잔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최근에는 ‘99팔팔23사’라고 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3일 앓다 죽고 싶다’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이고 변화된 건강개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br/><br/> 일반적인 노화의 과정은 만성질환 또는 건강위험요인을 갖게 되거나 노쇠로 인한 기능 장애를 일으키게 되어 인생의 중후반기에 신체기능과 삶의 질이 저하되게 된다. 노쇠는 성년이 된 이후에 노화과정에 따라 생리적 조절 기능이 감소하고 신체의 여러 기관의 조절 장애로 인해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신체적 기능장애, 활력 감소, 기억력 감퇴, 정서 변화, 신경계 기능장애, 일상생활장애 등과 관련되어 있다. 심한 피로, 허약감, 신체활동 감소, 체중감소, 보행속도 감소는 노쇠의 특징적인 신체적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쇠로 인해 나타나는 양상은 애매모호해 현재의 질병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고 그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br/><br/> 노쇠한 노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노화의 과정에서도 건강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건강노화가 필요하다. 건강노화란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절하고 노쇠로 인한 기능장애를 회복시켜 최적의 건강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해지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br/><br/> 건강증진은 우리들 각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각기 다른 능력을 물려받고 태어났다는 데서 출발한다. 건강상태는 개인마다 다르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런 개인의 건강상태는 유전, 환경, 건강관련 행위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중 건강관련 행위가 개인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br/><br/> 건강증진은 질병의 조기진단과 건강증진으로 나누기도 한다. 질병의 조기진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검진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는 외견상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 중요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이다. ‘증상이 없는’이란 말은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질병이 발생했더라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까지도 포함된다. ‘중요한 질병’이란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정도로 흔하고 그 결과로 사망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기에 발견’이라 함은 질병을 발견한 후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주 희귀한 유전병이나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 발견 후에도 치료방법이 없는 질병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고혈압, 당뇨 같은 생활습관병과 암 등의 만성퇴행성질병을 대상으로 한다.<br/><br/> 건강증진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질병이나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 ‘건강한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라는 표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둘째, 개개인의 상태나 특성에 맞게 개인적으로 적용된다. 셋째, 한 가지 질병이나 증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넷째, 질병이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 다섯째, 건강해지려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참여한다. 이에 대해 기존의 전통적인 질병치료와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난다.<br/><br/> 수동적으로 행해지는 기존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개개인이 참여하는 건강증진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아이템이 되고 있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질병을 가진 채로 겨우겨우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에 살게 된 것이다.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인 것이다. <br/><br/>최재경 가정의학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15.txt

제목: [난소암 극복-여성들 울리는 의료정책] 재발때만 표적항암제 급여 혜택… 생명직결 문제 도식적 잣대 적용  
날짜: 2016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6182240964  
본문: #중학생 자녀가 있는 주부 임모(45·여))씨는 최근 월경이 불규칙해져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난소암 3(C)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10시간의 대수술을 견뎌낸 임씨에게 담당의는 수술이 잘 진행됐고, 좋은 예후를 위해 향후 기존 항암제와 함께 표적치료제로 치료 받길 추천했다. 하지만 첫 치료에 실패해 6개월 내 재발한 경우에만 표적치료제의 보험 혜택을 주는 현행 기준이 문제였다. 첫 치료에 해당되는 임씨의 경우는 표적치료제 투약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해야 했다. 임씨도 당연히 표적치료제를 쓰고 싶지만 너무 많은 돈을 본인 치료비로 쓰기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결국 그녀는 기존 항암제 만으로 1차치료를 마무리해야 했다.<br/><br/> ◇재발돼야만 표적치료제 급여혜택, 이상한 난소암 급여 기준=난소암 치료에서 표적치료제의 급여 이슈가 화두다. 지난 해 11월 문정림 의원실에서 주최한 ‘침묵의 살인자 난소암, 극복을 위한 정책은?’ 주제의 국회토론회에서 많은 난소암 환자들이 항암제 치료비용으로 경제적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의료계에서는 난소암 치료의 ‘골든타임’인 ‘1차치료’에서 표적치료제의 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br/><br/> 보건복지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1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난소암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암세포가 골반 밖까지 전이돼 있는 ‘진행성 난소암’ 단계(3B∼ 4기)에서 발견될 만큼 치명적인 질환이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1차치료에서는 난소암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직후, 잔류 암 세포를 죽이거나 성장을 차단하기 위한 항암치료를 필수적으로 진행한다. 재발이 잘 되는 난소암의 질환 특성상 이러한 1차치료 과정은 환자에게 매우 중요하다.<br/><br/> 이에 대해 김태중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일단 난소암이 재발되면 환자와 가족은 힘겨운 난소암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재발 후 거듭되는 항암치료로 치료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여러 항암제의 사용으로 위험한 합병증까지 겪을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따라서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재발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도록 1차치료에서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옵션 적용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 ◇난소암 표적치료제 급여, 1차치료에 중점 둬야=따라서 진행성 난소암 환자 입장에서 지금의 급여 기준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면 현재 1차치료에서 사용 가능한 표적치료제의 경우 진행성 난소암 1차 항암치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어, 1차치료 단계의 환자들은 아무런 급여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br/><br/> 이러한 현실에 환자들은 안타까움을 표한다. 임씨는 “<span class='quot2'>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데 재발 이후부터 표적치료제 급여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span>”며 “<span class='quot2'>암 환자에게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재발’을 그렇게 무감각하게 이야기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아내, 어머니가 없는가 묻고 싶다</span>”고 하소연 했다. 난소암의 일차치료에서 사용 가능한 옵션이 제한적인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현재 난소암 1차치료에서 환자가 급여 혜택을 받으면서 쓸 수 있는 항암제는 15∼20년 된 오래된 세포독성항암제들 뿐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부인과 전문의들도 정체된 난소암 생존율 개선을 위해 1차치료에서 표적치료의 보험급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br/><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우리나라 부인과 의료진들의 수술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항암치료가 과거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치료예후 개선에도 한계가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난소암 치료의 관건이 ‘재발 방지’에 있음을 환자와 의료진 모두 체감하는 상황에서 표적치료제의 급여 우선순위도 ‘재발 지연’이 가능한 일차치료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야 할 것</span>” 이라고 강조했다.<br/><br/> 의료계 일각에서는 올해 마무리되는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적인 완결을 위해 난소암 1차치료 환자처럼 소외된 의료 사각지대 환자들을 정부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고가항암제를 포함한 200여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을 추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br/><br/>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16.txt

제목: [장윤형 기자의 이슈 체크-비타민 C 보충제] 툭하면 효능 논란 … 객관적 근거 더 명확해져야  
날짜: 2016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6182239584  
본문: 만약 종합비타민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어떨까. <br/><br/> 이러한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이 최근 발표된 비타민C 관련 연구다. ‘비타민제 먹지마라’를 외치는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정책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비타민C를 음식이 아닌 보충제의 형태로 복용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메타분석 결과 확인됐다</span>”고 밝혔다.<br/><br/> 국제학회지에 발표된 비타민C 보충제와 암예방의 관련성을 조사한 7편의 임상시험을 메타 분석한 결과, 이 같이 결론 내렸다. <br/><br/> 연구에 따르면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 연구(총 6만2619명 대상자)를 종합해 메타분석한 결과, 음식이 아닌 보충제의 형태로 비타민C를 복용한 군과 위약(placebo)을 복용한 군 사이에 암 발생률 혹은 암 사망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 교수는 “천연비타민과 합성비타민은 화학 구조식은 동일하지만, 입체적 구조는 다르기 때문에 음식이냐 보충제의 형태냐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비타민C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암, 심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바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종합비타민도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있는지 검증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br/><br/> 반면 비타민C를 비롯한 종합비타민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이왕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은 비타민C가 투여량에 따라 암세포 증식 억제뿐 아니라 암세포 사멸까지 유도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기도 했다. 이왕재 교수는 “비타민C가 암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살피는 연구에서 비타민C의 적정량 투여하지 않았을 수 있다. 비타민 용량을 높이는 등의 실험 조건을 맞춘다면 암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우리 몸에 비타민이 부족하면 질병이 발생하거나, 죽을 수도 있다. 또한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날 위험도 있으므로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그럼에도 논란은 가시질 않는다. 종합비타민이 질병 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버드대 공공보건대학원 연구진이 만 65세 노인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종합비타민과 위약을 12년간 섭취하게 한 뒤 기억력 시험을 한 결과, 비타민을 먹은 실험군과 가짜약을 먹은 대조군의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존스홉킨스대 연구에서 비타민 섭취와 심장질환 예방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때 베타카로틴 섭취가 폐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br/><br/> 다만 건강식품회사나 제약사들은 현대인들이 음식을 통해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제 섭취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br/><br/> 명 박사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건기식이 마치 혈당개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잘못됐다. 건기식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식약처도 건기식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 종합비타민이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섣불리 결론내리기는 이르다. 하지만 비타민 연구가 좀 더 객관적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br/><br/>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17.txt

제목: [난소암 극복-의사는 말한다] 난소암 완치의 핵심은 재발 확률 줄이기… 1차치료 표적항암제 보험적용 절실  
날짜: 2016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6182240162  
본문: “난소암은 재발의 두려움이 큰 암입니다. 첫 번째 치료에서 수술로 암을 제거하고 표적항암제를 사용해 재발할 확률을 낮춰주는 것이 최선의 치료지만 현실은 이러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br/><br/> 김태중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난소암 환자의 치료현실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인터뷰에서 김 교수는 “수술 후 첫 번째 항암치료에서 표적항암제를 사용한다면 재발 가능성을 낮춰 완치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또 혹시 재발하더라도 그 재발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때문에 환자의 생존율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br/><br/> 현재 난소암 치료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난소암은 재발률이 높은 암으로 주치의는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 재발을 염두에 두고 항암제 선택에 신중해진다. 그러나 상당수 의사들이 난소암의 적극적인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제한된 1차 치료 옵션을 꼽는다. 즉 1차 치료에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표적항암제가 없어 환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보험이 되는 세포독성항암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난소암은 일단 재발하면 다른 항암제를 사용해도 효과적이지 않고 재발을 거듭한다. 따라서 첫 번째 치료에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치료예후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br/><br/> 그는 또 “재발하면 환자는 크게 낙담한다. 이는 예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표적항암제 치료가 완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1차 치료제로 사용 시 ‘최선의 치료를 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 환자의 정서적 문제 개선과 예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br/><br/> 난소암 치료의 핵심은 재발을 막고 얼마나 재발을 늦추는 가에 있다. 그렇다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재발을 막아줄 수 있는 표적항암제 사용이 절실하다. 현재 난소암 1차 치료에서 처방할 수 있는 표적항암제는 아바스틴이 유일하다. 그러나 김 교수는 “1차 치료에서 쓸 수 있는 표적항암제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값이 비싸다. 이 약이 필요해도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 표적항암제로 치료를 시작하고 난 후 약값 지불이 힘들어져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은 개선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유럽 주요 국가와 호주 등 20여개 국가에서는 1차 치료에서 아바스틴이 건강보험 적용이 돼 많은 환자들이 이 표적항암제를 이용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자들은 3주에 300만원 가까이 되는 약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 다만 표적항암제가 완치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재발을 잘하는 치명적인 암의 1차 치료의 하나로 표적항암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암이 진행하지 않는 기간이 늘어간다는 것이 여러 임상연구로 입증됐다</span>”며 “<span class='quot0'>표적항암제를 투여 받으면서 환자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완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된다</span>”고 거듭 강조했다. <br/><br/> 또 이 약을 투여해 환자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치료의 중요한 요소라며 “삶에 대한 환자의 의지를 끌어 올려주는 것이 예후에도 큰 영향을 준다. 보험이 적용돼 더 이상 비싼 약이 아니라면 희망을 갖는 환자가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br/><br/> 김 교수는 “난소암은 치료기간이 길어 암환자를 힘들게 한다. 치료기간이 길수록 많은 종류의 치료약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약제의 수와 보험급여 제한으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난소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가 미진해 당분간 기존 치료요법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약제가 나오기 쉽지 않다. 현재 근거가 되는 사용 가능한 표적항암제를 최상의 시점인 1차 치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치료보장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18.txt

제목: 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임 원장 “방사능 재난 비상진료 기능 확대”  
날짜: 2016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6180232188  
본문: “<span class='quot0'>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와 임상을 융합해 국내 방사선의학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키겠다</span>”는 포부를 밝힌 최창운(사진) 신임 원장이 지난 1월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최창운 원장은 1995년 한국원자력의학원 산하 원자력병원에 핵의학과 전문의로 입사한 이래 연구소장, 병원장,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등 의학원 산하의 각 단별 요직을 두루 거쳤다.<br/><br/> 방사선은 의료 현장에서 엑스레이(x-ray)나 컴퓨터단층촬영(CT)과 같은 영상 진단 영상과 암 치료에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방사면역치료와 같이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표적치료와 정밀 진단 등 과학기술이 접목된 첨단 의료를 대표하는 분이다. 최창운 원장은 방사선의학이 지금까지는 암 진단과 치료에 집중되어 왔지만, 향후에는 치매, 대사성 질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br/><br/> ◇‘효율 높이고 실용성 강화’, 국민에게 득이 되는 방사선의학=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의학연구소와 함께 암진료에 특화된 원자력병원, 방사선 재난 시 의료적인 대응을 담당하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 원장은 연구, 암 진료, 방사선비상진료의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의학원의 국가적 임무라는 포부를 밝혔다. <br/><br/> 그 첫 단계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각 사업단별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과 실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임무중심형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방사선임상연구조직 신설 등으로 협력 연구 시너지를 강화하며,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부 출연금 사업 재편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br/><br/> 특히 방사선 재난 대비 의료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해 의료 공공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의학원은 지난 2002년 국가적 차원에서 방사선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방사선 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산하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만큼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비상진료기능 확대와 동시에 일반 국민들을 위한 방사선 클리닉,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을 위한 건강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br/><br/> ◇튼튼한 병원경영을 바탕으로 의료 공공성 실현=최 원장은 병원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병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병상가동률 증대와 함께 다학제통합진료, 집중영양치료 프로그램 등 신규 의료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br/><br/> 내부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도입한 ‘텐퍼센트 캠페인’도 반응이 좋다. 직원들이 10%씩 업무목표를 높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 실질적인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원장 취임 후 전년대비 7% 가량 진료수익이 증대되는 성과도 얻었다. 이러한 내실 있는 병원경영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무료의료봉사, 이동건강검진 확대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보건소 재가 암환자 연계서비스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기능을 높여 기관의 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등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이다.<br/><br/> 의학원은 특히 방사선 의학 기술을 이용한 신약산업 성장기반 조성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 해 착공한 방사성의약품 복합연구센터 건설이 완료되면 향후 방사성 의약품의 개발공정에 대한 연구 지원이 강화된다. 최 원장은 “<span class='quot1'>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기반을 마련해 난치성 질환치료제 개발의 가능성도 열어줄 창구가 될 것</span>”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19.txt

제목: 기증·위탁 받은 제대혈로 ‘불법 줄기세포’ 돈벌이  
날짜: 201603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3095114626  
본문: 난치성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산모들로부터 기증·위탁받은 제대혈을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배양했다. 치료 효과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이식했다. 미용 목적의 ‘항노화’ 시술에도 쓰였다.<br/><br/>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 1만5000유닛을 제조하고 그 일부를 팔아넘긴 혐의(제대혈 관리·연구법 위반 등)로 제대혈은행 H사의 전 대표 한모(59)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S사 대표 이모(56)씨 등 유통업체 관계자 11명과 환자들에게 줄기세포를 이식한 의사 15명이 포함됐다.<br/><br/> ◇제조∼유통∼이식, 온통 ‘불법’=한씨는 제대혈은행 H사를 운영하며 2003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제대혈에서 1만5000유닛의 줄기세포를 분리배양했다. 질소탱크에 보관하던 제대혈 줄기세포 중 4648유닛을 2009년 1월∼2014년 7월 유닛당 100만원가량 받고 유통업체, 병·의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46억원가량을 챙겼다.<br/><br/>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 치료제로 배양하는 것은 불법이다. 연골치료제를 만드는 제대혈은행 1곳, 연구 목적으로 허가받은 병원에서만 분리배양을 할 수 있다.<br/><br/> 한씨에게 줄기세포를 사들인 유통업체 11곳은 시술 한 번에 줄기세포 유닛 3개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유닛당 100만∼200만원을 받고 병·의원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식받을 환자를 알선해주고 추가 이익을 얻기도 했다.<br/><br/> 적발된 13곳 병·의원에서는 한 번 시술에 2000만∼3000만원을 받고 환자들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해줬다. 경남 창원 M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50)씨는 H사로부터 직접 제대혈 줄기세포를 구입했다. 유닛당 100만원에 65유닛을 사들였다. 그는 당뇨, 아토피, 척추손상 등의 환자에게 한 번에 약 2000만원을 받고 이식했다.<br/><br/> 제대혈 관련법은 2011년 7월에야 시행됐다. 그 전에는 제대혈 분리배양만 불법이었다. 경찰은 2009년 1월부터 법 시행 이전까지 분리배양한 제대혈 줄기세포를 유통·이식한 데 대해서는 보건범죄단속특별법을 적용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대혈법에선 영리 목적의 제대혈과 그 부산물의 매매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이식받는 것도 불법이다.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곳은 인제대 부속 부산백병원 등 46곳으로 한정돼 있다.<br/><br/> ◇미용 목적으로 이식하기도=경찰은 H사의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한 환자가 1000여명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루게릭병이나 각종 암 등 난치병 환자다.<br/><br/> 다만 일부는 노화 방지(안티에이징) 등 미용을 위해 줄기세포를 이식받기도 했다. 한 명이 여러 번 이식받기도 해 정확한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한 번에 1억5000만원 상당을 미리 결제해 놓고, 4∼6차례에 나눠 이식받은 사례도 있다. 경찰에선 전체 이식환자 가운데 10%가량이 미용 목적이었다고 추정한다.<br/><br/> H사에서 만든 제대혈 줄기세포는 과학적으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식받은 환자 중 부작용을 호소한 이들은 없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반응이 다수였다</span>”고 말했다.<br/><br/>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20.txt

제목: 막장 사라진 주말극, 가족이 채웠다… 지상파 오랜만에 착한 가족극 대결  
날짜: 201603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2041238266  
본문: “아주버님 면전에서 며느리와 정분 운운 했으니 사고는 사고다. 대형급은 아니고 소형급은 넘고, 글쎄 중형급일까.” SBS 주말드라마 ‘그래, 그런 거야’에서 김해숙(한혜경 역)의 혼잣말이다. 남편과 사별한 며느리가 아내와 사별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그런데 ‘듣기 거북한 우려’가 밥상머리에서 나왔다.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은 시이모 양희경(김숙경 역)에 대한 김해숙의 한마디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평범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살면서 숱한 사고를 겪는다. 극 중 양희경처럼 ‘입방정’으로 사고를 치기도 하고, 누군가의 속없는 말로 상처받기도 한다. 소형급부터 대형급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일상인지도 모른다.<br/><br/>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드라마들이 주말에 전면으로 포진했다. 최근 새로 시작한 ‘그래, 그런 거야’, MBC ‘가화만사성’, KBS ‘아이가 다섯’은 모두 평범한 가족이 이야기의 중심이다. 돈과 권력을 둘러싼 음모, 배신과 복수, 불륜과 패륜, 치정, 살인, 출생의 비밀 등 자극적이고 지독한 막장 코드를 쏙 뺐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 평범해 보이는 가족의 삶도 충분히 드라마틱하다는 걸 보여준다.<br/><br/> ◇바람 잘 날 없는 ‘가지 많은’ 나무=지상파 3사의 주말 드라마들에는 등장인물이 많다. 세 드라마 모두 조부모부터 손주까지 3대를 다루다보니 그렇다. 근래 드라마들이 적은 등장인물 몇몇의 사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과는 다른 행보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대가족 드라마들의 기본 공식이다. 이 드라마들 또한 그렇다.<br/><br/> ‘가화만사성’에서 김영철(봉삼봉 역)은 자수성가한 가장으로 나온다. 중국집 배달부로 시작해 차이나타운 최고의 중식당을 열 정도니 남들 보기에 ‘성공한 삶’이다. 자식들도 잘 키웠다. 세상 걱정 없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고민과 갈등이 쌓여 있다. 착하기만 한 큰딸이 어린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겪은 것만으로도 삶의 굴곡을 엿볼 수 있다.<br/><br/> ‘아이가 다섯’은 조금 젊은 가족이 등장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사별남과 이혼녀가 재혼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그린 이 드라마는 가벼움과 무거움을 자연스럽게 넘나든다. 30대 돌싱(돌아온 싱글) 남녀가 겪는 에피소드는 통통 튀지만, 이들이 하루하루 겪어내는 삶은 결코 만만치 않다. 특히 소유진(안미정 역)은 아이 셋을 홀로 키우는 워킹맘의 고달픔을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평가다.<br/><br/> ◇흔한 고민, 평범한 갈등이 주는 공감=‘그래, 그런 거야’는 드물게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을 그렸다. 80대 노부모, 60대 삼형제, 삼형제의 20, 30대 자식들까지 가까이 모여 산다. 20대부터 80대까지 한가족으로 묶여 각 세대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드러낸다.<br/><br/> 이순재(유종철 역)가 가장으로 나오는 드라마 속 대가족은 평범하고 유복해 보인다. 60대 자식들은 대단히 부유하진 않지만 돈 걱정하고 살 정도는 아니다. 중산층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손주들도 의사, 간호사, 출판사 에디터 등 대부분 번듯하게 직장생활을 한다. 가족 간 우애 좋고, 어른 존중할 줄 알고, 자식들도 존중과 바른 가르침 속에서 자랐다.<br/><br/> 여기에서 ‘재미’가 끼어들 만한 구석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 보면서 웃음도 나고, 헛웃음도 난다. “그래,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다 비슷비슷한 거야”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br/><br/> 시부모를 모시고 살며, 주말마다 대가족 점심상을 차려야 하는 야무지고 부지런한 며느리 김해숙은 갱년기 증상을 겪으며 매일이 고달프다. 친한 친구가 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고 심난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막내아들을 지독한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보다 창업을 하고 싶어 한다. 잘난 의사 아들은 결혼 문제로 속 썩이고, 쌀쌀맞은 딸은 신혼인데 남편과 갈등 중이다. 흔한 고민, 평범한 갈등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br/><br/> ‘아이가 다섯’에는 초등학생 아이들의 고민까지 다룰 예정이다. 이혼 가정 자녀들이 받게 될 상처와 고민, 재혼 가정이 온전히 가족이 되기까지의 일상적인 갈등을 유쾌하게 풀어내겠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21.txt

제목: [소강석의 꽃씨 칼럼] 다시 주기철로 돌아가자  
날짜: 2016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1203213053  
본문: 한 남자가 있다. 암흑의 일제강점기, 잔인한 폭압과 위선에 맞서 싸우며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한 사람이 있다. 그는 남강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를 다닐 때부터 민족정신과 신앙 교육을 받았다. 그곳에서 조만식 장로를 만나 강인한 민족정신과 신앙의 정절을 배웠다. 그것이 가슴에 새겨진 삶의 표지가 되어 그 어떤 시류에도 휩쓸리지 않고 올곧은 길을 걷게 했다.<br/><br/> 주기철 목사. 그는 처음 부임한 부산 초량교회에서 인정받은 목회자였다. 설교와 목양에서 흠이 없었다. 얼마 뒤 마산 문창교회 위임목사가 된다. 얼마든지 안정적인 목회를 하며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당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평양의 산정현교회에 부임하면서 그의 인생은 격동의 파고 속으로 들어간다. 일본이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든다는 정신적 식민정책을 펼치며 신사참배를 강요했기 때문이다.<br/><br/>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까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문화적 행위라고 변명하며 신사참배에 동참한다. 그때 그는 아녀자에게 정절의 의무가 있듯 신앙인에게는 믿음의 정절이 있어야 한다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다. 결국 그는 아무 죄도 없이 다섯 번이나 투옥되고 갖은 고문을 당한다. 일제에게는 주 목사의 신사참배 거부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천황 통치를 거부하는 독립운동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br/><br/> 계속되는 일제의 폭압으로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등 대부분의 개신교단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했고 조선예수교장로회마저 1938년 9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만다. 주 목사는 “<span class='quot0'>한국교회가 세상의 명예와 권력 앞에 믿음의 정절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었다</span>”며 통회한다. 그리고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 나아가리라”고 외치며 순교의 길을 간다. 결국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옥중에서 죽음을 맞는다.<br/><br/> 그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고문을 당할 때마다 혹시 정신을 잃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봐 갈등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면회 왔을 때 남긴 말도 숭고한 말이 아니었다. “<span class='quot1'>여보, 동치미에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네.</span>”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런 그가 이어령 교수가 말한 대로 일제라는 악마와 맞서 싸웠다.<br/><br/> 주 목사가 있었기에 일제라는 영적 암흑시대에도 별이 지지 않았다. 한국교회도 겉으로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협조하는 듯 보였지만, 대다수 신앙인들은 민족정신과 신앙으로 무장해 철저하게 일제에 항거했다.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가 “<span class='quot2'>한국 기독교는 일본 통치의 암적 존재와 같다</span>”고 말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초요, 사상의 본류였다. <br/><br/> 이처럼 일제와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요, 믿음의 정절을 지킨 순교자인 주 목사의 일대기가 영화로 제작돼 오는 17일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개봉된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시사회가 있었는데 온통 눈물바다가 됐다. 나 또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br/><br/> “과연 우리는 주 목사님의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산정현교회를 생각할 때, 오늘날 한국교회의 자화상이 얼마나 부끄러운가.”<br/><br/> 영화를 보며 나부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 우리는 다시 주기철로 돌아가야 한다. 일사각오의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 기독교인이라면 ‘일사각오’ 영화를 꼭 봐야 한다. 아니, 목회자들이 먼저 봐야 한다. 신학교 교수와 학생들도 꼭 봐야 한다. 그래서 주 목사의 일사각오의 정신과 사상이 다시 한 번 한국교회와 사회에 파도치게 해야 한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 못지않게 흥행해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불꽃이 되기를 기대한다.<br/><br/>소강석(새에덴교회목사)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22.txt

제목: [살며 사랑하며-김세원] 반려견 예삐와 은별이  
날짜: 2016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1180802090  
본문: 지난 한 주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으로 패닉 상태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나는 두 마리 반려견의 보호자다. 은별이는 나를 세 번째 보호자로 만나 한 살 반에 내게로 와서 올해 열두 살이 됐지만 중증의 중복질환이 있어 수 종류의 약을 복용하며 주기적으로 검사해야만 하는, 손길이 많이 가는 아이다. 예삐는 삼개월 되던 때 내게로 와 열한 살이 됐다. 지금까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아주 예쁘고 건강하게 잘 크는 정말 신통한 아이다.<br/><br/> 재작년 말 예삐의 유선에 팥알보다 작은 혹이 생겨 대학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했다. 양성이고 너무 작으니 관찰해 보자는 소견이 있었다. 이후에도 양성으로 나와 설 이후에 제거하자는 의사 소견대로 지난주 혹을 떼러 갔다. 근데 X선 촬영 결과 혹이 악성으로 변해 폐로 전이됐고 항암제도 쓸 수 없게 됐으니 맛있는 것 해주고 편하게 해주라는 말을 들었다. 세상에 이런 무책임한 의사가 어디 있는가. 끙끙 앓던 아이가 암 판정을 받아도 가슴이 무너질 판인데 너무나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말기암 환자로 만들어놓다니. <br/><br/> 시공을 나누어 쓰고 웃음과 눈물이 섞인 마음을 주고받은 반려견은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는 고마운 아이들이다. 지혜롭지 못한 보호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든다. 다가올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서로 견뎌낼 수 있을까. 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아이의 사랑스러운 눈망울을 어느 날 갑자기 볼 수 없게 된다면 그 상실감과 황망함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br/><br/> 아직 함께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슬픔 속에 침잠하느니 이제부터라도 예삐와 함께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라도 만들어야 하는 걸까. 속히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라도 해야 하는 걸까. 생각하기도 싫지만 언젠가 다가올 우리 아이들과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며 품에 꼭 안고 함께해서 행복하고 고마웠다고, 참 좋은 아름다운 날들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만 가득 담고 따뜻하게 이별할 수 있을까.<br/><br/>김세원(에세이스트)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23.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1부 ②] 입원 첫날 찡그린 그녀… “화장하고 다시 사진 찍을래요”  
날짜: 2016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1040610344  
본문: 1부: 호스피스, 나를 위한 선택<br/><br/>② 그곳의 죽음은 인간적이다<br/><br/>“<span class='quot0'>임○○ 환우가 힘들어하시더니 오전 6시23분 임종했습니다.</span>” 간밤에 환자들이 어땠는지 일일이 상태를 점검하던 회의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망자(亡者)는 췌장암 말기였다. 3주 전 시한부 선고를 받고 지난달 18일 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발길을 돌렸다. 삶의 끝자락에서 평안을 찾으려 했을 테다. 허락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향년 70세.<br/><br/> 지난달 24일 강원도 춘천 대룡산 자락의 ‘춘천호스피스’ 병동은 부고로 아침을 맞았다. 죽음이 드리운 그림자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간호팀장은 환자들의 상태를 계속 설명해 갔다. “<span class='quot0'>김○○ 환우는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였다.</span>” “<span class='quot0'>신○○ 환우는 깊이 잠들어 식사를 걸렀다.</span>” “<span class='quot0'>오○○ 환우는 기침이 끊이지 않았다.</span>”<br/><br/> 말기 암환자의 마지막을 보살피는 이곳에선 죽음이 빈번하다. 대개 입원 한 달을 넘기지 못한다. 하루걸러 임종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다. 하지만 마냥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다. 생과 사의 경계에 놓인 환자 여섯 명은 끝까지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었다. 의료진도 그들의 노력을 응원하며 세심한 손길로 살폈다.<br/><br/>“살아서 나갈 거예요”<br/><br/> 호스피스 병동은 드나듦이 잦다. 떠나간 자리는 금세 다른 환자가 채웠다. 최모(51)씨는 처음 찾은 호스피스 병동이 낯선 눈치였다. 눈길을 옮기며 여기저기를 살폈다. 병동은 판잣집처럼 병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던 종합병원 다인실과 달랐다. 몸을 가눌 여유가 있었다.<br/><br/> 최씨가 인두암 진단을 받은 건 10년 전이다. 시간의 길이만큼 투병도 지난했다. 그 정도 고생했으면, 그쯤 버텼으면 새로운 삶이 주어질 법도 한데, 지난 1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종합병원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야윈 몸은 주삿바늘 하나를 허락할 틈도 없어 보였다.<br/><br/> 한참을 서서 병동을 둘러보던 최씨는 로비 의자에 걸터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봤다. 창밖에선 농부가 밭에 고개를 파묻고 겨우내 아무렇게나 자라난 잡초를 뽑고 있었다. 가까운 봄이면 감자가 싹을 틔울 것이다. 그는 병동이 자리한 이곳 동산면이 익숙했다. 옛 친구가 가까운 과수원에서 사과를 키운다고 했다.<br/><br/> 문병 올 친구가 지척에 있어 힘이 되겠다는 말에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기관절개를 한 터라 말 한마디가 힘에 부쳤다. 최씨는 “살아서 나갈 거예요”라며 빙긋 웃었다. 숨이 새어 나오지 않게 절개부를 손으로 막고서야 겨우 말을 뱉어냈다.<br/><br/> 같은 시간 최씨의 아내는 입원 상담을 받았다. 의료진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아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건강을 되찾을 거라 믿지만’ 등 다른 말을 앞세우고서야 임종 절차를 설명했다. 아내는 “마음 단단히 먹었다”면서도 새어 나온 눈물 탓에 진즉 숙여버린 고개를 좀체 들지 않았다.<br/><br/>“<span class='quot0'>예쁘게 화장(化粧)해 주세요</span>”<br/><br/> A씨(43·여)는 “목욕하기 싫다”며 자원봉사자와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매주 수요일 오전 자원봉사자들이 목욕봉사를 하러 호스피스 병동을 찾는다. 제 몸을 가누기 힘든 환자들은 그날만을 기다렸다. 타인에게 몸을 맡기기엔 아직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걸까. A씨는 지난달 2일 입원 이후 한사코 목욕을 거부하고 있다. “<span class='quot0'>깨끗하게 씻으면 개운할 거예요</span>”라는 간호사의 권유에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대신 “예쁘게 화장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다.<br/><br/> 호스피스 병동에 온 환자들은 입원 첫날 가족, 의료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다. A씨 병상 곁에도 그날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br/><br/> A씨는 “화장을 하고 다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다. 그의 어머니는 “입원 첫날 마음이 편치 못해 사진이 잘 안 나왔다고 딸이 내심 신경 쓰는 듯했다”며 “딸이 ‘얼른 건강해져 봄나들이 가자’는 말을 요즘 들어 부쩍 많이 한다”고 했다.<br/><br/>“<span class='quot0'>놀이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span>”<br/><br/> 점심식사 뒤엔 정월 대보름을 맞아 윷놀이 한 판이 열렸다. 김모(65·여)씨는 썩 내키지 않는다며 머뭇거리면서도 팔뚝만 한 스티로폼 윷 하나를 집어 들었다. 높이 던졌다. 환자와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각각 윷 하나씩을 나눠 들었다. ‘도’에 탄식하고 ‘윷’에 환호하고 ‘모’에 어깨를 들썩였다. 여느 명절 풍경과 다르지 않았다. 김씨는 “<span class='quot1'>놀이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한다</span>”면서도 피어나오는 웃음까진 숨기지 못했다.<br/><br/> 김씨는 1999년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삶은 고단했고 치료에 전념할 여유는 허락되지 않았다. 2012년 결국 말기 진단을 받았다. 4년간 입원과 통원이 반복됐다. 고단한 시간이었다. 웃을 여유도 없었다. 그런 그가 요즘은 조금이나마 웃는다.<br/><br/> 자원봉사자들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피붙이마냥 살갑게 대해줬다. 서로 말벗을 자처했다. 아침드라마 내용부터 살아온 얘기까지 작은 병상에 누워서도 나눌 얘기는 넘쳤다. 간호사들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구석이 있을까 싶어 늦은 밤에도 자주 안녕을 물었다.<br/><br/>가족과 같이, 가족처럼<br/><br/> 환자만 호스피스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 남은 가족이 겪는 감정의 무게는 가늠조차 어렵다. 이금순(64·여)씨는 남은 시간을 아들(37)과 함께 지내고 싶어 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다. 춘천호스피스는 그런 이씨에게 편히 지내라며 기꺼이 1인실을 내줬다. 중환자실 병동에서 마지막을 준비했다면 누리지 못했을 일이다.<br/><br/> 이씨는 2012년 자궁경부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동시에 6개월 시한부 선고도 내려졌다. 요양원과 복지시설에서 지내다 지난해 9월 호스피스를 찾았다. 늘 곁에 있어 주는 아들은 그에게 큰 힘이 됐다. 이씨는 “<span class='quot2'>아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 위안이 될 때가 많다</span>”고 했다. 아들은 “어머니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여태껏 4년 가까이 살았다”면서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br/><br/> 춘천호스피스는 해마다 4월과 11월이면 ‘기러기 가족 모임’을 갖는다. 호스피스를 거쳐 간 환자들의 가족이 다시 병동에 모인다. 한데 모여 밥을 먹고, 떠난 이에게 차마 못 했던 말들을 함께 나눈다. 수신자 없는 편지를 쓰기도 한다. 이 단출한 모임이 사별 가족에겐 심심한 위로가 된다.<br/><br/>‘춘천호스피스’ 병동은 말벗에 궂은일… 60명 넘는 자원봉사자 헌신<br/><br/>정현근(70·여)씨는 매주 수요일 춘천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병동을 찾아 봉사활동을 한다. 빨래가 주업이고, 안마가 부업이다. 지난 2년간 거르지 않고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젊은 환자를 대할 때면 이 병동에서 떠나보낸 동생 생각에 잠기곤 한다.<br/><br/> 정씨의 동생은 지난해 1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대학병원에서 6개월을 보냈지만 차도가 없었다. 정씨는 평소 봉사활동을 하던 호스피스 병동이 떠올랐다. 동생에게 호스피스로 옮기자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이란 생각이 남아 있던 탓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br/><br/> 동생은 지난해 6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뒤 두 달이 못 돼 사망했다. 정씨는 늘 동생 곁을 지켰다. 그는 “삭막한 대학병원 병실 대신 호스피스 병동을 택한 덕분에 동생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었다”며 “이렇게 봉사하는 동안은 사별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삭일 수 있다”고 말했다.<br/><br/> 춘천호스피스는 1999년 이주호 소양제일교회 목사가 설립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등록됐다. 그동안 1044명이 거쳐 갔다. 더 이상 치료가 힘든 말기 암환자에게 병동의 문이 열려 있다. 입원하려면 ‘호스피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1개월 기준 진료비는 45만원. 가족 한 명이 환자와 함께 상주할 수 있으며 숙식을 무료로 제공한다.<br/><br/> 최대 환자 12명이 입원할 수 있다. 박영의 원장을 비롯해 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이 환자를 돌본다. 의료진 외에도 60명 넘는 자원봉사자가 매주 호스피스 병동을 찾는다.<br/><br/> 오덕영(79)씨는 교편을 내려놓은 뒤 16년째 춘천호스피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병동 주변 텃밭에서 고추와 배추, 상추를 기르는 게 그의 일과다. 무공해 채소가 환자들의 건강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까 하는 생각에서다.<br/><br/> 오씨 역시 암환자다. 2012년 방광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당장 몸이 불편한 데는 없지만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씨는 “<span class='quot3'>힘 다할 때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때가 되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을 보내겠다</span>”고 말했다.<br/><br/> 이처럼 춘천호스피스는 의료진과 더불어 자원봉사자의 헌신으로 운영된다.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도 매년 실시한다. ‘호스피스의 개괄적 이해’ ‘암에 대한 이해와 증상’ 등의 강의가 있다. 박상운 춘천호스피스 회장은 “<span class='quot4'>호스피스 병동에서 의료진만큼이나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4'>호스피스 병동의 활성화를 위해선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양성이 시급하다</span>”고 말했다.<br/><br/>춘천=신훈 기자 zorba@kmib.co.kr<br/><br/>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24.txt

제목: [인터뷰] 김수지 아하가족성장연구소 이사장 “신앙 가진 환자들, 두려움·우울증 잘 이겨내”  
날짜: 2016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8182833078  
본문: 2010년 고 이태석 신부를 그린 영화 ‘울지마 톤즈’를 본 뒤 기독 간호사의 사명이 더욱 뜨거워졌다. 그해 12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한 간호사 선교사의 요청에 주저하지 않고 2011년 1월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로 떠났다. 69세 나이였다. 4년 동안 말라위 릴롱궤 대양간호대학 교장으로 간호 교육 및 행정, 지역 봉사 등에 힘썼다. 이 대학은 지난해 종합대학교로 승격됐다.<br/><br/> 아하가족성장연구소 김수지(74) 이사장 이야기다. 1979년 호스피스를 한국에 처음 소개한 그는 이화여대 간호과학대학장과 서울사이버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2001년 간호학계의 노벨상인 국제간호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말 한국YWCA에서 열린 ‘YWCA 제1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을 받았을 땐 “친구가 생각난다”며 눈물을 흘렸다.<br/><br/> “말라위에서 가르친 학생과 동료 교수, 현지 주민의 해맑은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환자와 의료진도 생각났고요. 아무리 바빠도 이들 친구를 대할 땐 하나님께 하듯 했습니다. 일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br/><br/> 최근 한 학술모임에 참석한 김 이사장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만났다. 연구소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데 힘쓰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span class='quot0'>요즘 해체된 가정이 많아 안타까운데 ‘비폭력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곧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 아하가족성장연구소는 상담과 교육, 코칭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아하 패밀리 코칭’ ‘아하 존중 대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가정 전문가 양성에도 주력한다. 김 이사장은 가정 관련 특강을 하면서 가정 회복에 뜻이 있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는 등 연구소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br/><br/> 실버홈 ‘사랑의 집’도 운영하고 있다. ‘사랑의 집’에선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노인들과 동고동락 한다. 노인들의 신체적 돌봄 외에 영적·정서적 치유에 초점을 맞춘 예배와 음악·미술·오락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남은 생애도 사람을 돌보는 간호사로 살고 싶다</span>”고 말했다.<br/><br/> 김 이사장은 지난 50여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봤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정성스런 돌봄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간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다.<br/><br/> 특히 임종 환자를 위한 간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시어머니 덕분이다. 1965년 불신자였던 시어머니가 49세 나이로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수군댔다. “충격이었지요. 시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며 간호했지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했고 시어머니는 이후로 18년을 살았다. 물론 믿음 생활도 하면서 말이다.<br/><br/>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사람들은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희망을 가지려 하고 영원한 세계를 알고 싶어 하는 ‘영적 욕구’를 갖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하나님을 영접한 환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우울증도 잘 극복하는 사례들을 흔히 볼 수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임상을 토대로 1980년대 ‘영적 간호’의 개념을 한국 의료계에 소개했다. ‘영적 간호’ 등을 번역해 출간했고 병원에서 관련 교육과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br/><br/> 영국의 프로렌스 나이팅게일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1'>간호사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전인적으로 돌보는 일을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게 영적 간호의 핵심</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김아영 기자 cello08@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25.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생명을 걸고 전도” 결단하자 두 번 암에서 생명 지켜 주셔  
날짜: 2016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8181820969  
본문: 친구의 전도로 고3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앓고 있던 알레르기성 비염을 고침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때문이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친구 말에 교회의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다 드렸다. <br/><br/> 학력고사 점수가 잘 나와서 국립사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졸업생들의 발령 적체는 아주 심했다. 교육대학을 다니던 한 선배가 4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는데 졸업 후 발령이 금방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발령을 잘 받고 싶어 교회 일은 물론 주일학교 교사로 4년간 열심히 봉사했다. <br/><br/> 그러나 졸업할 때 국립사대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 임용고시 제도가 생겼다. 나는 충성한 대가가 임용고시냐며 하나님께 대적했고 억울한 마음만 들었다. 이후 우울증과 불면증,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br/><br/> 그러다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며 요한복음을 30번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말도 했다. 그래서 열심히 요한복음을 읽어내려가다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다. <br/><br/> 그때 우연히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의 기록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다. 깜짝 놀랐다. ‘뭐? 실제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실제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120명이 봤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잖아!’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다. <br/><br/>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믿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랬다. 그동안 나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내 마음에 주인은 바로 나였다. 내 병과 발령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했던 것이다. <br/><br/>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무서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러자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고 우울증과 불면증도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 <br/><br/> 결혼하고 둘째를 출산한 뒤 조직검사를 했는데 양쪽 눈 모두 임파선암으로 판정되었다. 전신으로 가장 잘 전이되는 암이라 혹시 번졌다면 어려운 상황이었다. <br/><br/>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니 죽음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절대적 평강이 임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서 받을 상(賞)이 없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그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전도와 제자 양육에 생명을 걸겠다는 결단을 했다. 감사하게도 전이가 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전도와 제자 양육에 내 삶의 전부를 쏟아부었다. <br/><br/> 그러다 몇 년 후 이번에는 유방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했다. 두 번의 암을 통해 친정엄마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니 모든 것이 감사하다.<br/><br/> 암이라는 병을 통해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영혼 구원의 축복 통로가 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br/><br/>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26.txt

제목: [데스크 직격 인터뷰-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은 과하다 싶을 만큼 적극적 대응 필요”  
날짜: 2016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6041226743  
본문: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는 국민에게 ‘질병관리본부(질본)’라는 기관명을 각인시켰다. 정부는 여러 실패를 반성하며 질본을 독립적 차관급 기구로 격상시켜 감염병 컨트롤타워를 맡겼다. 그리고 본부장에 정기석(58) 한림대성심병원장을 임명했다. 호흡기질환 권위자인 정 본부장은 취임하자마자 지카바이러스 대응을 지휘하고 있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어떻게 정비해 갈 것인지, 23일 국민일보 본사에서 만나 물었다. 그는 메르스 사태의 최대 실패로 ‘초기 대응’을 꼽았다.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선제적 대응,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지카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오는 건 시간문제란 관측이 있다. 동의하나. 첫 환자가 나올 경우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준비돼 있나.<br/><br/> “감염자 80%는 증상이 없다. 바이러스 대부분이 그렇다. 증상 없이 저절로 낫는 사람까지 검역단계에서 걸러낼 순 없다. 언젠간 들어올 것이다. 중국은 벌써 세 번째 유입됐다. 하지만 메르스와 달리 사람 간 감염은 없고 모기를 통해 옮는 게 문제인데 그건 차후의 일이다.<br/><br/> 들어올 경우 대응 계획은 수립돼 있다. 첫 환자가 나오면 격리까지는 아니라도 1인실 등에 입원시켜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한국인 첫 케이스의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유입 경로를 추적한다. 검역단계에서 거를 수 있는 거였는지 살펴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다.”<br/><br/> -감염병 대응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대비해야 할 텐데, 한국의 기후와 환경에서 지카바이러스가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br/><br/> “토착화하는 것이다. 풍토병이 되는 것이다. 치사율이 낮고 치료는 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른다. 피에서는 없어지지만 체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는 동네 숲에서, 웅덩이에서 모기에 물렸는데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br/><br/> 하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뎅기열 환자가 한 해 200명쯤 생긴다. 대부분 해외에서 감염돼 들어온 경우이고, 올해는 벌써 69명이다. 그래도 뎅기 매개 모기가 국내에서 이를 전파하는 일은 아직 벌어지지 않고 있다. 뎅기의 추이가 지카의 향방과 유사할 것으로 본다.”<br/><br/> -최근 아르헨티나 의사들이 중남미 소두증은 지카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모기를 잡기 위한 몬산토 살충제 때문이란 주장을 내놨다. 당국에서는 부인했는데.<br/><br/>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소두증은 아직 원인을 모른다. 바이러스 때문인지, 완전한 유전병인지. 브라질이 유독 많지만 우리나라도 (소두증 아기가) 1년에 몇 명씩 태어난다. 살충제로 인한 환경호르몬 같은 것이 원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연구가 필요한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br/><br/> -유전자 변형 모기로 지카바이러스를 퇴치하자는 주장이 있다. 영국 업체에서 개발해 실제 방출하기도 했다. 호주에선 모기에 월바키아라는 박테리아를 감염시켜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실험도 하고 있다. 이런 게 모기 매개 바이러스 차단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br/><br/> “그런 시도는 아주 위험하다. 원리는 이렇다. 유전자 변형 모기를 대량으로 풀어서 기존 모기와 교미해도 알을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수많은 모기를 그렇게 퇴치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또 다른 변형을 일으킬 경우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 있다. 아주 거대한 모기가 나오거나 모기의 독성이 강해질 수도 있다. 생태계가 완전히 교란에 빠질 수 있다.”<br/><br/> -올여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우리 선수단을 보내도 괜찮을까.<br/><br/> “아직 결정하기는 섣부르다. 브라질에서 22만명을 풀어 모기를 잡고 있다. 위험하다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다. 가임 여성 선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파견하더라도 선수단 보호를 위해 역학전문가나 감염병 전문가가 동행해야 할 듯하다.”<br/><br/>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가 가장 잘못한 것 하나만 꼽는다면.<br/><br/> “초기 대응이다. 초기 격리를 확실히 했어야 한다. 병원 전체를 격리할 수 없었다면 적어도 환자가 있는 층은 격리했어야 한다. 환자의 동선을 차단하는 게 초기 대응의 핵심이다.”<br/><br/>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br/><br/>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메르스라는 병을 정부는 알고 있었다. 일선 의사들에게까지 전파되지 않았다.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평생 폐렴을 보며 살아온 나도 몰랐다. 나 같은 의사들에겐 관련 정보가 사전에 도착하도록 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br/><br/> 또 조금 과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폐렴은 처음 봤기 때문에 당시 나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못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지카 등 감염병에 대해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지식보다 더 수위를 높여 대응할 생각이다.”<br/><br/> -질병관리본부장이 되기 전까지 병원장이었는데, 메르스 사태 때 숱하게 지적됐던 한국식 문병·간병문화가 달라졌다고 보나.<br/><br/> “약간 바뀌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간 듯하다. 내가 근무한 병원에선 보호자 출입증을 발급했다. 하지만 출입증을 여럿이 돌려가며 사용하면 어쩔 수가 없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br/><br/> -감염병 전문병원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br/><br/> “아직 용역작업이 진행 중이다. 메르스 때 병원들이 환자를 안 받으려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독립 건물의 전문병원을 만들어 환자를 한꺼번에 수용하고 의료진이 같이 들어가 진료하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 인천이나 제주처럼 공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도 필요하다.”<br/><br/> -메르스에 이은 다음 감염병으로 주시하고 있는 것은.<br/><br/>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라싸열이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유행하는데 언젠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 지카와 증상이 비슷하다. 치사율은 1% 정도. 다행히 치료약은 있다. 현재 유사 증상자가 나타나면 라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웨스트나일은 미국에서 이미 토착화됐다. 우려되는 건 웨스트나일을 옮기는 모기가 우리나라에 흔하다. 지카를 옮길 수 있는 흰줄숲모기는 우리나라 모기 100마리당 한두 마리꼴인데, 웨스트나일을 옮기는 모기는 수십 마리다.”<br/><br/> -100세 시대다. 감염병 외에 만성질환 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생각인가.<br/><br/> “질본이 메르스 때문에 주목을 받아 감염병만 보는 줄 아는데 말 그대로 질병관리본부다. 질병을 조절하고 예방까지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4대 질환으로 규정했다. 암은 국립암센터에서 담당하고 질본은 나머지 세 질환에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 이를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국민의 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00세 시대라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아직 70세 정도에 불과한 ‘건강수명’이다.”<br/><br/>태원준 사회부장 wjta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27.txt

제목: [책과 길-처음처럼] 병상에서 매만진 원고… 90여편 새로 추가  
날짜: 2016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6041222533  
본문: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로 두 권의 책을 매만졌다. ‘담론’이라는 책을 지난해 봄에 출간했고, ‘처음처럼’ 개정증보판 작업에 매달렸다. 지난 1월 세상을 떠나면서 ‘담론’은 그의 마지막 책이 됐다. 그가 남긴 유언은 알려진 게 없다. 그의 컴퓨터 속에 어떤 글들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담론’에 죽음을 앞둔 그의 사유가 희미하게 배어날 뿐이다.<br/><br/> 신 교수는 개정증보판 ‘처음처럼’이 출간되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글을 고치고 또 고치는 성격이라서 수정할 게 거의 없는 상태로 출판사에 넘기는 걸로 유명하다. 그런 후에도 출간 직전까지 교정을 거듭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고를 넘긴 후 자기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지 못했다. 서문을 쓸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2007년 ‘처음처럼’을 처음 출간할 때 붙였던 서문을 그대로 실어야 했다.<br/><br/> ‘처음처럼’은 서화에세이집이다. 글씨나 그림에 한 단락, 길어야 서너 단락 분량의 아포리즘을 붙이는 구성이다. 책 제목으로 사용된 ‘처음처럼’이란 글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br/><br/>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 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br/><br/> 그는 ‘어깨동무체’ ‘민체’ 등으로 불리는 독창적인 글씨체를 확보한 한글서예가였으며, 붓이나 펜을 이용한 삽화도 종종 그렸다. 그림은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의 귀퉁이에서 시작됐다. 어깨너머로 그의 편지를 함께 읽을 어린 조카들을 위한 선물이었다.<br/><br/> 이번에 새로 출간된 ‘처음처럼’은 총 215편을 수록했는데, 초판본과 비교하면 새로 추가된 게 90편 가까이 된다. 병상에서 원고를 추리고 수정하고 추가했다. 제목을 바꾸거나 그림을 교체한 경우도 많다. 출판사는 첫 글 ‘처음처럼’과 마지막 글 ‘석과불식’만 그대로 두고 전체 구성을 바꿨다. 전체 4부 중 3부 ‘공부하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에는 그가 ‘나의 대학시절’이라고 부르는 감옥 일화들이 묶여 있다. 초판본에는 실리지 않은 원고들이다. ‘세월호’처럼 비교적 최근에 작성된 글들도 눈에 띈다.<br/><br/> 출판사는 ‘처음처럼’ 개정증보판의 초판을 사는 독자들에 한해 ‘청구회 추억’이라는 소책자를 제공한다. 신 교수가 감옥에서 하루 두 장 제공받는 손바닥만한 재생휴지 29장에 걸쳐 쓴 ‘청구회 추억’은 한국어로 써진 가장 아름다운 산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창동 감독은 젊은 대학강사와 가난한 소년들 사이의 우연한 만남과 우정을 다룬 이 단편소설 같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 했다. 감옥에 갇힌 20대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흘려보낼 수 있었는지 놀랍고, 사형선고를 받은 직후 왜 이 이야기를 써야만 했는지 궁금해진다. 신영복이 누구인가에 대해 그 어떤 글보다 많은 걸 알려준다.<br/><br/> ‘청구회 추억’은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 이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된 원고라고 한다. 지금까지 몇 차례 출간됐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소책자는 그의 육필을 그대로 살려 각별한 느낌을 준다.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28.txt

제목: 조윤제 포스텍 교수, 올 포스코청암상 과학상 수상자에  
날짜: 2016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5192051976  
본문: 조윤제(사진) 포스텍 교수가 올해 포스코청암상 과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포스코청암재단이 25일 밝혔다. 포스코청암상 교육상은 금오공업고등학교가, 봉사상은 무료진료소를 운영해 온 ‘라파엘 클리닉’이 각각 수상했다. 조 교수는 암과 같은 종양을 억제하는 단백질 등의 구조와 치유 메커니즘을 밝혀낸 공로다. 포스코청암재단이 주관하는 포스코청암상은 과학·교육·봉사 3개 부문을 선정하며 상금은 2억원이다.<br/><br/>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29.txt

제목: 사랑에 눈 뜬, 암 투병 시인이 이 땅에 남긴 이야기… ‘사랑이 힘들었습니다’  
날짜: 2016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5183822665  
본문: 암 투병 새내기 시인의 못 다한 사랑이야기다. 저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1984년 덕수중을 시작으로 서운중, 풍납여중, 풍성중, 신명중, 월곡중학교에서 감수성 풍부한 중학생들을 가르쳤다. 2009년 학교에서 시 연수를 받은 것을 계기로 시모임 ‘해토머리’에 참여했다. 사랑을 듬뿍 담은 50여 편의 시를 남겼다. <br/><br/> “<span class='quot0'>사랑이 힘들었습니다/사랑은 의무라/사랑은 책임이라/사랑은 희생이라 생각했습니다/사랑은 기쁨이고 환희이며 감사라는 것 말고는 아직도 방법은 모릅니다/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줄도 몰랐습니다</span>”(31쪽)<br/><br/> 저자가 2012년 초 암 수술을 받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쓴 시의 일부다. 저자는 간에서 암이 발견된 전년 말부터 2014년 10월까지 투병하는 3년 동안 사랑에 눈을 뜨고 사랑 덩어리로 살았다.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닫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느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가족과 환우들, 지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사랑을 틈틈이 시와 기도문,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등에 남겼다. 자신은 물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가족들 곁을 떠나 긴 잠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록을 생생하게 남겼다. <br/><br/> 책을 엮은이는 남편 김재호씨다. 그는 55년간 무신론자로 살다가 아내가 암에 걸리고 나서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듭났다고 했다. 그는 아내처럼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이루고 싶었는데 아내를 왜 갑자기 잠재우셨는지 알 수 있게 해 주시리라 믿고 있다. <br/><br/> “세상살이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아무도 정답을 모르니 사는 길은 사람 수만큼이나 많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죽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지요. 투병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 부부의 경험이 참고가 되어 치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286쪽)윤중식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30.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윤영호 교수 “웰다잉법, 치료 포기 아니라 환자 돌봄에 무게”  
날짜: 2016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4040501057  
본문: 가정의학전문의인 윤영호(5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삶’보다는 ‘죽음’에 더 익숙한 의사다. 살리는 일이 본업인 그는 주로 죽음을 이야기한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다. 윤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웰다잉법)이 지난달 8일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의료기관 등 80여개 단체와 1만5000여명이 참여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실무 책임을 맡은 운영간사로서 의료계와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법률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시행을 앞두고 (호스피스·완화의료는 2017년 하반기, 연명치료 중단은 2018년 상반기 도입) 보완할 점이 적지 않지만 이 법률은 ‘죽음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웰다잉’의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지난 15일 서울 대학로 서울대 의대 교육관 306호에서 윤 교수를 만나 이 법률의 제정 의미, 과제 등을 포함해 삶과 죽음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br/><br/> <br/>-웰다잉이 뭔가.<br/><br/>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죽음을 통해 삶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죽음은 치료의 실패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를 받아들이고 ‘잘 죽어야 된다’는 자세로 죽음에 대처하는 것이 웰다잉이다. 김 할머니 사건(2009년 5월 대법원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 중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허용한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죽음의 과정이 너무 힘들고 비참해진다는 성찰이 이뤄졌다. 특히 요즘처럼 거의 모든 환자가 집이 아닌 병원에서 황망하게 마지막을 맞는 상황에서 존엄한 죽음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죽음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며 법적 절차까지 명확히 해놓자는 실천이 웰다잉이다.”<br/><br/> -웰다잉 법률의 제정 의미는.<br/><br/> “의료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다. 지금까지 의료는 질병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이 법은 인간 중심의 ‘돌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의료의 기능을 수정한 것이다. 나아가 죽음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같이 맡아야 한다는 의미를 법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br/><br/> -과제나 보완할 점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br/><br/> “가장 아쉬운 점은 시민의 자발적 동참 등을 유도하는 조직을 만드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법이 통과됨으로써 얼개는 짜였다. 그러나 효과를 거두려면 시민 등 민간 부문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돈과 제도만으로는 웰다잉의 철학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론 조성, 캠페인 확산 등 민간의 역할을 결집할 재단법인 같은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이 근거가 삭제됐다. 원래 있었는데 아마 ‘위인설관’을 우려해 뺀 것 같다. 정부에서 앞으로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br/><br/>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려움은 없었나.<br/><br/> “정부는 당초 호스피스 부문에는 소극적이었다.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연명의료 파트에만 관심을 보였다. 호스피스 관련 내용이 법률에 포함된데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컸다. 특히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많이 도왔다. 김 의원의 경우는 18대 국회 때 발의한 내용이 폐기되자 19대 때 재발의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다.”<br/><br/> -호스피스는 뭐고 왜 중요한가.<br/><br/> “호스피스는 삶에 대한 통제권과 의사결정권을 의사가 아닌 환자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세 측면에서 호스피스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신체적으로는 통증을 완화하고 정신적으로는 삶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게 한다. 사회적으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또는 실존적 의미다. 불안하고 두렵게 여겼던 죽음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이를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이다. 호스피스와 관련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흔히 호스피스를 연명치료 중단으로 여기는데, 아니다. 완화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생존기간이 늘고 특히 항암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삶의 질과 생존율 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난다. 경험에 의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보다 조금 일찍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들은 본인 스스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 더 좋은 결과를 드러낸다. 기대여명이 1년 정도 남았을 때 호스피스를 시작할 것을 권한다.”<br/><br/> -국내 호스피스 실태는.<br/><br/> “양과 질 모두 열악하다. 대체로 인구 100만명당 50병상 정도의 호스피스 병상이 적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500병상 정도가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1000병상 조금 넘는데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선제적 완화의료 등 질적인 부분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br/><br/> -정부는 2020년까지 병상을 1400개로 늘린다고 했는데.<br/><br/> “당연히 늘려야 한다. 다만 숫자에 너무 연연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호스피스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운 곳에까지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병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 종합병원 등 상급병원들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은 실정이다. 증설 못지않게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호스피스를 허용하면 자칫 ‘현대판 고려장’을 늘린 것이란 비난이 나올 수도 있다.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br/><br/> 매년 국내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7만5000명 중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3.8%, 전체 사망자 대비 3.3%에 불과하다. 영국은 95%, 미국과 대만은 각각 44.6%, 30%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59%가 호스피스 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또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자료를 보면 말기 및 진행 암 환자 89%가 가정호스피스를 원했다.<br/><br/> -병상 확충보다 가정호스피스를 중점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3월 2일부터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보완점은 뭔가. <br/><br/>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가정형, 병동형, 자문형으로 나뉜다. 이 중 가정형이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가장 원하고 건물 신축 등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도 돼 건보재정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분야가 활성화되면 의료 보조인력 충원 등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의사 등 전문 인력의 서비스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데 현실적 고민이 적지 않다. 당장 가정방문을 의사가 할 경우 이에 따른 부담, 병원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고와 제도 등 모든 것이 환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걸맞은 효과를 얻는다. 아마 시범 시행 과정에서 손봐야 될 내용이 많이 드러날 것이다.”<br/><br/>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등 이른바 ‘빅5’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적 책임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br/><br/> “수익성이 낮으니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병원을 탓하는 것 못지않게 시스템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상급병원들은 말기 환자들을 위한 단기 입원 병동을 세우려는 계획을 짜고, 정부는 일종의 공공 투자인 이런 시설에 지원을 해야 한다. 단기 입원 병동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능을 맡으면 환자의 연명치료가 줄고 이는 결국 건보재정에 득이다. 과도기적으로는 큰 병원들이 우선 임종실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은 거의 중환자실에서 옆의 환자와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는다. 죽음의 질은 고사하고 환자와 가족의 프라이버시조차 지켜지지 않는 지경이다.”<br/><br/> -외국의 경우 자원봉사자와 기부금이 호스피스 운영의 원동력인데.<br/><br/> “영국은 호스피스가 가장 앞선 나라다. 거의 모든 국민이 무료로 이용한다. 2000년에 호스피스 제도를 법제화한 대만도 잘하는 편이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호스피스를 우리의 품앗이처럼 여긴다는 점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다음에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식이다. 자연스레 자원봉사와 기부가 활성화된다. 정부가 큰 틀을 짜면 민간이 실천하는 이런 흐름이 당연히 바람직하다.”<br/><br/> -말기 환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br/><br/> “가족의 경우 우선 말기임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환자와 가족 모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주변에 말기 환자가 있으면 병문안을 가 감사 인사를 전한다든지,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든지 등 대화를 통해 환자와 나의 교류를 재확인하는 게 좋다. 경험에 의하면 이럴 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즐거워한다. 단 너무 늦게 찾아가면 환자가 힘들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br/><br/> -왜 죽음에 관심을 갖게 됐나.<br/><br/> “중1 때 누님이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고민했다.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재수를 해 의대에 진학했다. 전공을 뭐로 할까 선배들에게 상의했더니 가정의학이 가장 적합하다고 조언해주더라. 전공의 입국식 때 인사를 하며 ‘호스피스 하러 왔다’고 했더니 모두 웃더라. 당시만 해도 호스피스는 성직자들이나 간호사들이 전담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다.” <br/><br/><br/>◆ 윤영호는<br/><br/>△서울대 의대 졸업, 석·박사 △국립암센터 사회사업호스피스 실장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객원교수 △서울대 의대 건강사회정책실장 △서울대 의대 암통합케어센터 및 완화의료센터 교수 △저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2015·공저)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2014) ‘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의사입니다’(2012)<br/><br/><br/>만난 사람=정진영 논설위원 jyjung@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31.txt

제목: [어려운 교회를 도웁시다-인천 강화군 황산교회] “교회 건축 지연·암 투병… 극복하도록 기도를”  
날짜: 20160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2181114850  
본문: 인천 강화군 황산교회(고영재 목사)는 택배기사도 찾기 힘들어 할 정도로 나무가 우거진 산 속에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교인이 오가기 편한 곳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성전 부지 일부를 되팔아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말 사모가 유방암에 걸리면서 교회는 어려움에 직면했다.<br/><br/> 교회 건축은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황산교회 성도들의 염원이었다. 그러나 교회 재정으로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고, 기존 교회 건물도 워낙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 팔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2014년 10월 기회가 생겼다. 인근 경매 부지를 생각보다 싼 값에 낙찰 받게 된데다 때마침 기존 교회 건물을 사겠다는 업자가 나타난 것이다. 교인들과 함께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모자란 돈 1억9000만원 정도는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난해 7월 건축을 시작했다.<br/><br/> 그러나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았다. 황산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한다. 남편들은 뱃일을 하며 고기를 잡고 아내는 횟집을 운영한다.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교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는데 지난해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게다가 이곳 지역경제의 핵심인 새우젓 사업마저 흉년이 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결국 지난해 걷힌 건축헌금은 작정했던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황산교회는 어쩔 수 없이 낙찰 받았던 부지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되팔았던 것이다. 이러는 동안 지난해 11월 완공 예정이던 공사가 늦어져 여전히 진행 중이다.<br/><br/> 와중에 배태성 사모가 지난 연말에 암 진단을 받았다. 처음 경기도 군포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만해도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겨드랑이 부근에서 탁구공 같은 게 만져져 좀 더 큰 병원을 찾았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암 덩어리의 크기는 6㎝ 정도나 됐다. 배 사모는 지난 4일 1차 항암치료를 받은 뒤 요양 중이다.<br/><br/> 황산교회에서 배 사모의 역할은 컸다. 남편들은 대부분 주일에 뱃일을 나가 예배가 아내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고영재 목사의 건강도 최근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해 말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다시피 했다. 망막 쪽 혈관이 터지는 바람에 1.5였던 시력이 순식간에 0.1까지 떨어어진 것이다.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었다.<br/><br/> 고 목사는 “<span class='quot0'>시골교회 특성상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 매주 거르지 않고 심방을 했었는데 오히려 저와 아내의 건강이 악화돼 성도들에게 미안하다</span>”고 안타까워했다.<br/><br/> 이런 악재를 겪고 있으면서도 그의 목소리는 어둡지 않았다.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어 보였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밝은 모습만 올리고 있다고 했다. 고 목사는 “<span class='quot0'>예수님께서 든든히 버텨주고 계시니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0'>주변에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 큰 힘이 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 인터뷰를 마칠 때쯤 고 목사는 이런 기도를 부탁했다.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 목사나 교인, 혹은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온다고 합니다. 저와 아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교회 건축으로 인한 것이라면 저희가 대표로 받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혹은 교인 중 누군가가 또 다른 시련을 겪지 않고 저희가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br/><br/>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32.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1부 ①] 생애 마지막 날을 집에서… 환자도 가족도 ‘평안’  
날짜: 20160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2041752134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br/><br/>1부 : 호스피스, 나를 위한 선택<br/><br/>① 삶의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br/><br/><br/>내 집만큼 편한 곳은 없다. 익숙한 공간, 낯익은 냄새,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집에서 돌봄을 받다 임종하는 경우 환자와 가족 모두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여러 차례 제시됐다.<br/><br/> 2010년 미국 학술지 ‘임상 암 저널’에 말기 암 환자 342명과 그 사별 가족을 연구한 논문이 실렸다.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며 임종한 환자는 병원 입원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경우보다 삶의 질, 신체적 편안함, 심리적 안녕 등 모든 지표가 월등히 높았다.<br/><br/> 사별 가족이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비율도 집에서 임종한 경우 4.4%로 병원 임종(21.1%)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가족이 사별 후 일상에 복귀하지 못하는 ‘장기간 애도 장애’를 겪을 확률도 병원(21.6%)보다 집(5.2%)이 훨씬 낮았다.<br/><br/>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연구팀도 최근 ‘BMC의학저널’에 비슷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생의 마지막 날을 집에서 보내면 환자는 물론 가족도 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이다. 단,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봤다. 그 필요성에 환자와 가족이 모두 동의해야 하고, 통증을 줄여줄 간병이 가능해야 한다.<br/><br/>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 의료비용도 적게 든다.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는 “<span class='quot0'>대만의 호스피스 비용·효과 분석 연구를 보면 전통적인 병원 치료 대신 병원호스피스를 택한 경우 사망 전 1개월간 의료비용이 64.2% 줄어들고, 가정호스피스는 병원호스피스의 절반에 불과했다</span>”고 말했다.<br/><br/>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들도 임종 장소로 ‘내 집’을 선호했다. 2012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말기 및 진행 암 환자 465명을 조사했더니 75.9%가 돌봄 장소로 ‘가정’을 택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익숙한 장소가 주는 안정감’(88.9%)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72.4%)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51.4%) 등을 꼽았다. 또 89.1%는 ‘가정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br/><br/> 일반인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2014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성인남녀 1500명을 조사한 결과 57.2%가 임종 장소로 자택을 선택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19.5%) 병원(16.3%) 요양원(5.2%)이 뒤를 이었다.<br/><br/> 하지만 현실은 이렇지 않다. 간병할 사람이 없어 입원을 택하고, 많은 말기 암 환자가 요양시설에 머문다. 말기 암 환자의 병동호스피스 이용률도 13%(2014년)에 불과하다. 암 환자의 89.2%(2013년)는 여전히 병원에서 임종하고 있다.<br/><br/> 유럽과 북미 국가의 대부분은 호스피스 서비스 가운데 가정호스피스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대만과 일본도 가정호스피스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br/><br/>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2003년부터 ‘병동호스피스’ 중심으로 시행돼 왔다. 지난해 말에야 ‘암관리법’ 개정으로 가정호스피스가 제도화됐다. 다음 달 2일부터 가정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서울성모병원 등 17개 기관에서 시작된다. 환자 집에 찾아가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방문료와 교통비 등을 진료비(일당 정액제)로 책정해 지원한다. 그동안은 병동호스피스를 갖춘 일부 의료기관이 기부금 등 자체 비용을 들여 운영해 왔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1부 : 호스피스, 나를 위한 선택<br/><br/>① 삶의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33.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1부 ①] 내 집서 ‘행복한 이별’  
날짜: 20160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2040657127  
본문: 서울 용산구의 한 다가구주택 4층 집에 지난 15일 서울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식(73) 명예교수가 들어섰다. 김인경(41·여) 간호사와 자원봉사자 남명희(53·여)씨가 동행했다.<br/><br/> “할머니 저희 왔어요.”<br/><br/> 핼쑥한 얼굴로 안방 침상에 누워 있던 김모(85)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김 간호사는 손을 꼭 잡으며 “진지는 드셨고? 불편한 데는 없어요?”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는 기운이 없어 보였다. “어∼”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br/><br/> 딸 고모(51)씨는 “<span class='quot0'>통증이 오면 진통제 먹고 주무시기만 한다</span>”고 했다. 심할 때는 몸에 통증 패치를 붙인다. 김 간호사는 팔에 꽂힌 영양수액을 체크했다. 혈압을 재고 욕창은 없는지 이리저리 살폈다. 그 사이 남씨가 다리 마사지를 시작했다. 혈액순환이 안 돼 부어 있는 다리를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닦아내곤 계속 주물렀다.<br/><br/> 할머니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다. 군인이었던 남편과 평생을 바쳐 일군 삶의 공간이다. 구석구석 남편의 체취가 있다. 지난해 10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다”고 말했을 때 할머니는 “집에 가겠다”고 했다.<br/><br/>40년을 산 집에서…<br/><br/> 할머니의 암이 발견된 건 3년 전이다. 이미 위암 4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간에도 퍼진 데다 암 덩어리가 위와 대장 연결 부위를 막고 있어 수술도 위험했다. 살고 싶었다. “항암치료를 해보자”는 의사의 말이 눈물나게 고마웠다. 할머니는 암과 싸웠다. 2년간 60여 차례 독한 항암치료를 버텨냈다.<br/><br/>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지난해 9월 마지막 항암치료가 끝난 뒤 의사는 “길어야 3개월, 짧으면 한 달입니다. 호스피스를 알아보시죠”라고 했다. 억울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 정도로 생각했다.<br/><br/> 가족들은 입원이 가능한 호스피스 병동을 알아봤다. 그런데 할머니는 “병원은 무섭다”며 한사코 “집에 가자”고 했다. 딸 고씨는 “암 병동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옆 환자가 아프다고 소리치고 끙끙거리는 걸 보셨다.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br/><br/>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했다. 응급상황이 오더라도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치료를 일절 하지 말라고 가족에게 당부했다.<br/><br/> 고씨는 “<span class='quot1'>솔직히 집에서 어떻게 보살필지 걱정이 많이 됐다</span>”고 했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는 거동이 불가능하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고씨 가족은 할머니 집 아래층에 살면서 간병하고 있다. 주말마다 언니 가족이 찾아온다. 고씨는 “거동하실 수 있을 땐 같이 여행도 다니곤 했다. 이제 평안히 보내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br/><br/>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가정호스피스의 문을 두드렸다. 통증 완화, 욕창 관리 등 말기 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간호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가정호스피스팀의 도움을 받는다. 가정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기대여명 6개월 안팎의 말기 암 환자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br/><br/>찾아가는 호스피스, 아름다운 동행<br/><br/> 호스피스 자원봉사 5년째인 남씨는 “다른 봉사자와 함께 2주에 한 번씩 와서 샴푸와 마사지를 해드리는데 할머니가 무척 시원해하신다”며 “함께 기도하고 찬송가를 불러드리면 할머니 얼굴이 편안해 보여 좋다”고 말했다.<br/><br/> 김 간호사는 가정호스피스 경력 6년의 베테랑이다. 현장 경험이 풍부해 의사 왕진이 필요한지, 병동에 입원해야 하는지, 임종 순간이 임박했는지 가늠한다. 그를 비롯한 간호사 2∼3명이 번갈아 주 2회 할머니를 찾는다. 보호자와 전화 통화는 수시로 이뤄진다. 이번에도 할머니 상태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필요해 이 교수와 함께 왔다.<br/><br/> 이 교수가 왕진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내 할머니 가슴에 댔다. “<span class='quot2'>숨을 크게 쉬어 보세요…아이고, 좋으시네.</span>” 이번엔 손으로 아랫배를 만져보더니 “변이 좀 차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고씨는 “<span class='quot1'>사흘에 한 번씩 (대변을) 본다</span>”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3'>관장이 효과 없으면 약국에서 둘코락스를 사서 드시게 하라</span>”고 조언했다.<br/><br/> 그러곤 할머니에게 고씨 칭찬을 했다. “좋은 따님 두셨네요. 효녀를 두셨어. 간병도 잘 하고….” 할머니 입가에 미소가 잠시 번졌다. 고씨는 “<span class='quot1'>엄마를 위해 한달음에 와준 분들이 정말 고맙다</span>”며 말을 잇지 못했다.<br/><br/> “죽음을 정복 대상으로 착각”<br/><br/> 이 교수는 1988년 서울성모병원에 국내 첫 ‘병동 호스피스’가 생겼을 때부터 말기 암 환자들과 함께해 왔다. 한국 호스피스의 선구자다. 2008년 은퇴 후에도 1주일에 두 번씩 호스피스 병동과 가정에서 환자들을 살핀다.<br/><br/> 이 교수는 “말기 암 환자가 통증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봤다. 마지막 삶을 가장 아름답게, 여한이 없도록 해주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호스피스는 단순히 신체적 돌봄에 그치지 않는다. 가족과 삶에 관한 영적 돌봄까지 제공한다. 물론 환자의 종교를 존중하며 이뤄진다.<br/><br/> “60, 70년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가족이 다 모여 작별인사도 하고 집에서 모셨어요. 우리의 전통문화입니다. 그게 의학이 발전하면서 변질된 거죠. 죽음을 정복 대상으로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삶의 마지막을 대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br/><br/> 이 교수는 “살 수 있는 병은 치료하는 게 맞다. 하지만 말기 환자는 치료에 집착하는 것보다 하루라도 의미 있게,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도리”라고 했다.<br/><br/> “호스피스는 뜻있는 몇몇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사업입니다. 복지국가의 역할이에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가정호스피스가 더욱 활성화돼야 합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34.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1부 ①] “입원 때와 같은 서비스, 사후에도 유족 위로”  
날짜: 20160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2040653818  
본문: 충남대병원은 대전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원하는 환자에게 가정호스피스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간호사 3명이 10∼20명 환자 가정을 주 2∼3회 직접 방문해 치료와 심리 상담을 한다. 환자가 사망해 공식적인 호스피스 기간이 끝나도 김 간호사처럼 주기적으로 보호자의 집을 찾아 유족의 마음을 달래준다. <br/><br/> “꽃방석에 앉았다 간다”<br/><br/> 유씨는 지난해 5월 암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박씨와 남편이 교대로 병원에 머물며 간병했다. 낯선 병원 밥을 힘들어하던 유씨를 위해 세 끼를 집에서 만들어 날랐다. 메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여서 면회가 금지되자 유씨는 “왜 다른 가족은 보이지 않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모습을 본 가족들은 가정호스피스를 결심했다.<br/><br/> 박씨는 “<span class='quot0'>석 달 만에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간 뒤에야 한숨 놓을 수 있었다</span>”고 했다. 평소 먹던 반찬으로 상을 차리자 병원에서 식사를 거부하던 유씨가 조금씩 죽을 먹기 시작했다. 남들 눈치 볼 필요가 없어 목욕도 편해졌다. 병원에서 쪽잠을 자다 집 침대에서 푹 쉬니 간병생활이 덜 피곤했다. 담즙 주머니와 수액 등은 김 간호사가 사나흘에 한 번씩 찾아와 관리해줬다. 입원했을 때와 똑같은 서비스였다.<br/><br/> 무엇보다 함께 산 지 1년밖에 안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 박씨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하고 안아드렸어요. 병원에 있었으면 남 눈치 보느라 쑥스러워 못했을 거예요.” 유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숨을 거뒀다. 임종 전 박씨 손을 잡고 “내가 꽃방석에 앉았다 간다”며 고마워했다고 한다.<br/><br/> 호스피스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다. 박씨는 장례를 치른 뒤 가족들이 사소한 일로 싸우고 화내는 과정을 겪었다. 김 간호사의 조언으로 가족끼리 감정이 폭발할 때 잠시 자리를 피하는 지혜가 생겼다고 했다. “가정호스피스는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br/><br/> 온 가족이 지켜본 마지막<br/><br/> 김 간호사가 두 번째로 간 곳은 가장동의 한 주택이었다. “우리 양반이 이 방에서 임종을 했어. 그래선지 이 방에 들어오면 아직도 함께 있는 것 같아.” 앨범을 꺼내 생전 남편의 모습을 넘겨보던 이규정(81)씨가 눈물을 흘렸다.<br/><br/> 평생을 공직에서 보낸 남편 김모(사망 당시 81세)씨는 3년 전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이듬해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다. 이씨는 주저 없이 남편을 집으로 데려온 뒤 충남대병원에 가정호스피스를 신청했다.<br/><br/> 이씨는 “<span class='quot1'>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나도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는 도저히 모실 수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1'>40년 넘게 산 이 집에서 편하게, 내 손으로 마지막을 준비해주고 싶었다</span>”고 했다.<br/><br/> 김 간호사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15차례 이씨 집을 방문했다. 다리 마비에 의한 배뇨 장애와 통증 관리를 주로 했다. 거실에 작은 풀장을 설치하고 간호사와 이씨, 자녀들이 함께 김씨를 목욕시켰다. 간병인과 자원봉사자도 도왔다.<br/><br/> 이씨는 남편이 떠난 날을 똑똑히 기억한다. 지난해 8월 셋째아들이 먼저 안방 침대에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한 뒤 식구들이 모두 시신을 확인했다. 평생 살던 집에서 맞는 편안한 죽음이었다. 이씨는 “무섭지 않았다”며 “<span class='quot1'>오히려 편하게 떠난 남편을 보니 여한이 없다</span>”고 했다. 이후 이씨가 장에 나가 직접 사온 수의를 입히고 장례를 치렀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본 아이들은 김 간호사와 함께 찾아온 미술치료사의 상담도 받았다.<br/><br/> 인터뷰를 마치기 전 이씨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남편이 몰래 녹음해둔 음성 유언이 담겨 있었다. “얘들아 잘 들어라. 혼자 된 어머니 잘 모셔라….” 눈물을 흘리던 이씨는 “그래도 이 양반이 집에 누워 있었으니 이런 거라도 했지. 병원이었으면 이런 흔적도 못 남겼을 것”이라고 말했다.대전=박세환 기자<br/><br/> foryou@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35.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1부 ①-단독] 10일도 안남았는데… 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 파행 우려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221221012  
본문: 가정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첫걸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전용차량 지원 문제, 임종 가산 건보수가(환자가 사망할 경우 호스피스 기관에 추가 지급되는 비용) 요건 등을 놓고 혼란스럽다. 일부 기관은 ‘시범사업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br/><br/> 가정호스피스가 활성화되려면 가정 간병비 지원, 기관 지정요건 완화, 전국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br/><br/> ◇전용차량 등 논란에…시범사업 파행하나=가정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환자 집에 찾아가는 일이다. 의약품과 장비를 운송할 차량이 필요하다. 암 환자 통증 조절에 필요한 마약류 의약품을 운반하려면 차량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br/><br/> 암관리법과 시범사업 규정에 전용차량 운용을 명시하긴 했지만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자체 전용차량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br/><br/> 한 시범기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당국에선 기존의 ‘가정간호’ 차량을 이용하라는데 그 차량도 하루 수차례씩 쓰고 있어서 가정호스피스에 이용하는 건 불가능하다</span>”고 말했다. 다른 시범기관도 “마약류를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져갈 순 없지 않으냐”며 “전용차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범사업을 반납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실제 17개 시범기관 중 고대구로병원은 내부적으로 ‘시범사업 포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 가정으로의 마약류 운송 및 투여 지침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운송 관리 지침’은 종합병원 안에서 혹은 제약사에서 병원으로 운반할 때만 적용된다. 별도 지침이나 식약처 유권해석이 요구되고 있다.<br/><br/> ‘임종 가산’ 요건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가정호스피스 도중 환자가 임종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의 30%를 가산해 지급한다. 현 규정은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의 임종을 직접 볼 때 가산 수가를 적용토록 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다. 예를 들어 돌봄 방문 이후 몇 시간 안에 임종했을 때도 가산되도록 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 이밖에 가정호스피스 의뢰를 받으면 ‘24시간 안에 전화하고, 48시간 안에 첫 방문을 해야 한다’는 규정과 ‘병원 외래진료를 통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문제’ 등도 논란거리다.<br/><br/> ◇보호자 간병 부담 줄여줘야=전문가들은 가정호스피스가 하루빨리 정착하려면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병동호스피스의 간병 서비스에는 건강보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br/><br/> 울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고수진 교수는 “<span class='quot1'>가정호스피스 대상자 중에는 간병할 사람이 없어 요양원이나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런 현실을 반영해 가정호스피스의 범위를 ‘가정’에서 ‘거주지’로 확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span>”고 제안했다.<br/><br/> 가정호스피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병동형 호스피스 기관에 국한된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병동을 갖추지 못한 작은 병·의원에도 가정호스피스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br/><br/> 전국적인 가정호스피스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고 교수는 “<span class='quot2'>말기 암 환자가 퇴원할 경우 거주지역 암센터를 통해 적당한 가정호스피스 기관을 연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민태원 전수민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36.txt

제목: [웰다잉, 삶의 끝을 아름답게 1부 ①] 가정호스피스 표준지침 26일쯤 나온다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221219718  
본문: 국내 최초로 ‘가정호스피스 표준지침(가이드라인)’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말기 암 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 편람’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br/><br/> 편람은 가정호스피스의 운영체계와 대상자 등록기준, 서비스 범위, 호스피스팀원별 주요 임무, 환자 방문 및 돌봄 요령과 환자 등록을 위한 표준 서식 등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기관에서 자체 매뉴얼로 시행해 운영이 천차만별이었다.<br/><br/> 국립암센터 장윤정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장은 “<span class='quot0'>2014년 말부터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의 사례와 기존 가정간호 업무 편람을 참고해 만들었다</span>”고 말했다. 병동형 호스피스의 경우 ‘표준 매뉴얼’이 보급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마무리 작업 중이다. 26일쯤 시범기관들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br/><br/> 하지만 시범사업 개시를 불과 며칠 앞두고 마련돼 준비시간이 촉박하다는 볼멘소리가 시범기관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17개 가정호스피스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br/><br/> 이 자리에 참석한 40∼50명 실무자들은 “당장 3월 2일 시범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임박해서 운영지침이 나올 경우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범기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해 2일 시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민태원 전수민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37.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병원쇼핑 나서는 환자 탓 하지말고 병원유목민 만드는 현실부터 바로잡자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81916035  
본문: 한 중소병원 외과 교수의 얘기다. 암 수술을 잘하는 의사이지만 근래 들어 암 수술 건수가 부쩍 줄었다고 한다. 사정은 이렇다. 수술로 완치를 장담하기 어려운 환자는 다른 대형병원으로 보내라는 병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높은 수술 성공률을 유지하기 위해 소위 그 수치를 반감시키는 어려운 케이스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라는 의미다. 또 수술을 해서 오히려 병원 재정에 적자를 내는 환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외과 교수는 이런 사정을 기자에게 말하며 “환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br/><br/> 그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 보호자에게 “수술이 어렵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의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이내 환자를 유명 대형병원으로 데리고 가면서도 크게 슬퍼한다. 완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환자의 가족을 덮친다. 슬픔을 넘어선 불안과 좌절로 가족은 크게 흔들릴 것이다. 또 보호자는 환자를 살려줄 명의가 누구인지 백방으로 알아보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그러는 와중에 환자는 홍보인지 의학정보인지 알 수 없는 인터넷 정보에 휩쓸리기도 하고 최신 의학보다 민간요법에 빠질 수도 있다. 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수술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다른 대형병원을 보낼 때 마음이 너무 착잡하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이 문제는 중증의 환자를 수술할수록 적자를 보는 잘못된 의료수가체계와 3차병원을 손쉽게 갈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span>”고 말했다.<br/><br/> 김모 환자는 최근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다. 책과 인터넷, 입소문으로 명의를 찾아보고 명의가 있다는 서울아산병원을 찾아갔다. 그러나 해당 교수 얼굴을 보려면 3개월을 더 기다려야했다. 진행이 느린 갑상선암일지라도 환자 마음은 느긋할 수 없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병원 다른 교수에게 진료를 보기로 했다. 수술을 잘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첫 진료를 봤다. “당장 수술해야한다”는 의사의 말에 환자는 더 다급해졌다. 그러던 중 본래 만나길 희망했던 명의를 만나는 날이 잡혔다. 그가 애당초 지목한 명의는 직전에 만난 의사와는 다른 의견을 냈다. 당장 수술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1년 더 기다리자고 했다는 것이다. 환자는 “똑같은 병원인데 의사간에 의견이 이렇게 다르나 싶었다”고 말했다. 한 병원에서 정반대의 소견을 듣고 불안해진 김모 환자는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갔다. <br/><br/> 앞 사례에서 외과 의사는 고령의,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했다. 병원의 속사정도 모른 채 환자와 보호자는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만 듣고 명의들이 있는 서울 대형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상업화된 의료계가 병원 유목민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최신 의학과 경험이 결합한 게 의술이라 갑상선암 같은 최신 암은 의사의 소견이 저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 믿고 찾아간 병원에서 ‘나만의 명의’를 찾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떠돌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환자는 왜 소견이 다른지 정확히 묻고, 의료진은 환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지 도와줘야한다. 불안에 떠밀려 무조건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환자 스스로도 결정을 내려야한다. 우리 사회는 병원 쇼핑을 다니는 환자의 행동만 나무랄 게 아니라 왜 병원 유목민이 만들어졌는지 들여다 봐야한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38.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자궁경부암 백신 중년여성에도 효과 있을까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80932691  
본문: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여아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r/><br/> 동네 병의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40∼50대 여성들도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진다. 또한 3회 접종 대신 2회 접종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도 많다.<br/><br/> 결론은 중년 여성도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효과가 일부 있고, 일정 연령에서는 2회 접종과 3회 접종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2회 접종만 해도 된다는 점이다. <br/><br/> 이는 대한부인종양학회가 건강한여성재단 후원으로 발표한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정 3판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권고안에 담겨 있다. 부인암 진료권고안은 2006년 1판, 2010년 2판에 이어 3판이 공표됐다. 부인종양학회에 따르면 해당 권고안은 진료 최신 지침으로, 진료 오류나 무분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의료를 근거중심 자료로 제시하고 진료 표준화를 위해 개정됐다.<br/><br/> 자궁경부암 백신을 2회 접종과 관련, 기존에 연구에서는 6개월에 걸쳐 총 3회 접종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권고안은 4가 백신인 ‘가다실’과 2가 백신인 ‘서바릭스’ 모두에서 9세와 13세 사이에 2회 접종과 3회 접종이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규정했다. <br/><br/> 그렇다면 성경험이 있거나 바이러스 접촉 확률이 높은 중년 여성에게서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효과가가 있을까?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있다. 권고안에서는 4가 백신이 27세와 45세 사이, 2가 백신은 26세와 45세 사이의 연령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별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접종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해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br/><br/> 그럼에도 백신의 최적 접종 연령은 국내 성행태 연구와 면역원성 연구를 토대로 11∼12세로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적정 접종 연령은 가다실, 서바릭스 백신 모두 9세와 25세 사이 성 접촉이 있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권고안은 3회 접종 연령 기준도 제시했다. 4가 백신의 경우 9∼26세 여성, 2가 백신은 9∼25세 여성이라고 한정지었다. <br/><br/> 임산부에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서로 다른 백신 간 교차접종에 대한 예방효과다. 4가 백신 접종 시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31형에 대한 교차 예방효과가 있다고 규정했으며, 2가 백신 접종 시에도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인유두종바이러스 31, 33, 45형에 대한 교차 예방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br/><br/> 배덕수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부인암에 대한 수술을 비롯한 진료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발 앞으로 나아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번 진료권고안 개정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제약사가 9가 등의 자궁경부암 백신 개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이들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자궁경부암 백신에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39.txt

제목: [2016 눈길끄는 암 치료법-광역학치료] 암 덩어리에만 선택 축적-괴사 시켜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80929994  
본문: 국민일보 건강섹션 암과의 동행에서는 '2016년 주목 해야 할 암치료'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최근 암 치료분야에서 새로운 치료법으로 많은 임상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광역학 치료', '면역항암제', '온열암치료'에 대해 소개합니다.<br/><br/>빛을 이용해 암 세포를 파괴하는 광역학치료는 이제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빛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광과민제를 정맥에 주사하면 암 덩어리에만 선택적으로 축적돼 빛으로 암 덩어리만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이다. 광역학치료를 영화속 뱀파이어로 비유하기도 한다. 지난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광역학학술대회에 참가해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했던 러시아연방정부 산하 영상의학연구센터 미하일 A. 카플란 박사는 “광역학 치료를 설명하기 가장 쉬운 것은 영화속에 나오는 뱀파이어다. 뱀파이어가 햇빛에 노출되면 타들어가는 증상처럼, 광감작제에 반응한 암세포가 빛에 의해 사멸되는 원리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며 “현존하는 암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발전된 치료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br/><br/> 최근에는 여러 암치료에 대한 광역학치료의 임상결과들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암치료법 중에서 그 동안 비주류로 자리잡고 있던 광역학치료가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는 암치료에서는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닌 주치료법으로서 떠오를 전망이다.<br/><br/>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 췌장암에 대한 치료를 예로 들어 보자. 췌장암은 국내의 경우 췌장암은 1년 이내 사망률이 최고 74%, 5년 이내 사망률이 최고 94% 에 이르는 가장 예후가 아주 나쁜 암종이며, 이는 여타 국가와도 크게 차이가 없다. 지난 2013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아브락산이라는 항암제를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로서 승인했다. 그 주된 이유가 젬자를 단독투여한 기존의 치료법과 비교하여 아브락산을 병용했을 경우에 환자의 생존기간을 평균 2.1개월 남짓 연장해 준다는 결과 때문이다. 이 임상시험에서 ‘아브락산’과 ‘젬자’ 병용투여群은 평균 생존기간이 8.7개월로 연장되어 ‘젬자’ 단독투여群의 6.6개월 보다 약 2.1개월 연장됐다. 지난 17년 동안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평균수명을 연장해 주는 어떠한 약제나 치료법이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러한 생명연장의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br/><br/> 그런데 2015년 박도현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수술할 수 없거나, 기존의 화학요법에 실패한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세계최초로 초음파 유도하의 내시경적 광역학치료를 시행했다. 해당 결과를 세계적인 학술지인 Endoscopy(내시경학)에 발표했다. 해당 임상심험 결과는 아무런 치료를 기대할 수 없었던 췌장암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결과라는 평가를 받았다.<br/><br/> 박도현 교수가 당시 치료에 사용한 광민감제는 기존의 1세대 광민감제보다 훨씬 개선된 2세대 약물이다. 2세대 광민감제는 종양침투 깊이의 증가와 치료 후 차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광민감제이다. 기존 1세대 광민감제의 경우 시술 후 4주간 햇빛을 보지 말아야하는 단점이 있었으나, 2세대 광민감제는 기간을 2일로 단축시켰다.<br/><br/> 췌장암 뿐만이 아니라 광역학치료는 피부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식도암 등 다양한 고형종양의 치료영역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외과적, 수술적 절제로 인한 장기기능 소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다른 화학요법과 같이 사용하는 ‘동시 항암화학 광역학치료법’을 통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를 할 수 있어 환자의 삶의 질뿐 아니라 항암치료의 치료율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br/><br/> 그 동안 전통적인 약물치료에만 의존해 왔던 광역학치료가 여러 암치료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제는 변방에서 중앙무대로 성큼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역학치료를 하는 국내 의료진들은 “<span class='quot0'>수십 년에 걸친 많은 연구에서 광역학치료 효과가 입증됐고, 앞으로 국내에서도 광역학에 대한 활발한 임상 적용과 연구가 이뤄질 것</span>”으로 전망했다. 또한 광역학치료는 화학과 약학, 생물학, 물리학, 공학 등 자연과학 전 분야가 의학에 접목된 융합기술로 미래 암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br/><br/>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40.txt

제목: [인터뷰] 세브란스병원 노성훈 교수 “환자 배려하는 작은 변화가 회복에 긍정적 영향”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80929255  
본문: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20대 대학생이 복통을 호소하며 실려 왔다. 병원에서 실시한 영상검사에서 위암으로 판정됐다.<br/><br/> 곧바로 노성훈(사진) 외과교수는 대학생의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수술실을 나와야 했다. 배를 열고 들여다본 학생의 위는 엑스레이 영상검사의 결과와 달랐다. 이미 여러 장기로 암이 퍼져 수술로 회복의 가망이 없었다. 결국 위암으로 학생은 숨졌다. 벌써 10여년 전 이야기다. 노 교수는 아직도 이 학생의 죽음을 잊지 못한다. 지금은 엑스레이 외 각종 영상검사기법이 개발돼 수술 전 위의 정확한 상태를 알고 수술 전 항암치료를 할지, 방사선치료를 할지 결정한다. 또 복강경, 로봇 등이 보급되며 개복수술의 환자부담을 줄여주는 수술방법이 등장하기도 했다.<br/><br/> 당시 대학생의 응급수술을 맡은 노성훈 교수는 “한동안 괴로웠다”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환자를 보냈을 때 참담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후 개발된 각종 영상기법으로 수술 전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러 장기로 퍼진 진행성 위암이라면 수술 전 다양한 항암제를 사용해 암 크기를 줄인 다음 수술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 치료율이 한 단계 높이는 방법이다. 의료진은 연구를 거듭하며 각 환자에 상태에 적합한 치료계획을 세운다. 모든 위암환자가 동일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것도 치료법이 다양해지고 환자의 상태도 세분화되었기 때문이다. <br/><br/> 노 교수는 자신을 가리켜 ‘개복수술 하는 의사’라고 하면서도 “<span class='quot0'>모든 환자가 제일 먼저 개복수술을 받는 건 아니다</span>”라고 말했다. 암의 진행정도와 환자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해 맞춤 치료계획을 세우는 시대라는 것이다. 치료율을 높이는 다양한 항암제와 방사선기기가 개발됐고 수술방법 역시 출혈을 줄이고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다. 노 교수는 “환자를 만나보면 나보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또는 복강경 전문가를 만나는 게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에 맞는 진료과로 안내한다”고 말했다. <br/><br/> 그는 수십 년간 암치료를 해온 암 전문의다. 국내에 유능한 의사가 많지만 위암 판정을 받은 환자라면 그를 떠올리기 쉽다. 노 교수의 명성을 입소문과 인터넷 정보를 통해 쉽게 접한다. 무조건 그를 보기 위해 먼 지방에서 3∼4시간 달려오는 환자와 보호자도 적지 않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노 교수는 경증 환자라도 시간을 쪼개 진료상담을 한다고 한다. 노 교수는 “<span class='quot0'>더 아픈 사람들, 중증 암환자의 치료에 집중하고 싶다가도 나를 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오는 환자를 외면할 수 없다</span>”고 말했다.<br/><br/> 유명세를 믿고 찾은 병원에서 환자는 때때로 서글픔을 느끼기도 한다. 검사를 위한 긴 기다림, 병실 문제 등이 치료에 집중하기도 벅찬 환자 마음을 애타게 한다. 노 교수는 연세암병원장직을 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환자의 편의의 생각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숙면을 취해야할 새벽시간에 시행하는 검사를 최대한 줄이자는 의견을 내놓고 검사대기시간을 줄여나갔다. 시간과 돈, 노력을 기울여 찾아간 병원에서 도리어 환자가 마음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론이다. 노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자를 배려하는 작은 변화가 환자의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41.txt

제목: [2016 눈길끄는 암 치료법-온열암치료] 고주파 등 열 가해 암세포 자살유도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80926285  
본문: 최근 제4의 항암치료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고주파온열암치료’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 기본적인 암 치료의 보조적 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온열치료에 대한 의학자들의 많은 임상연구가 발표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고주파온열암치료는 다양한 암종과 암치료에 따른 환자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r/><br/> 온열치료(Hyperthermia)는 암 조직에 고주파 등 열을 가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 자살을 유도해 서서해 파괴시키는 방식의 치료방법이다. 이는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열을 가하는 것으로, 암 세포에 대한 인체의 면역기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많은 임상 연구자들이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혹은 면역치료 등과의 병용방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육종, 악성흑색종, 두경부암, 폐암, 신경교종, 췌장암, 식도암, 유방암, 방광암, 직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을 대상으로 한다.<br/><br/> 암환자 대상의 ‘온열치료’가 방사선치료와 면역치료, 항암화학요법 등에 대한 치료 상승 효과가 있다는 임상연구들이 발표됐다.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주최로 지난해 12월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내외 임상 결과가 제시됐다. 국내 온열암치료를 주도하고 있는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회장 김승철·이화의료원장)은 지난 2010년 6월 설립됐으며, 온열암치료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목표로 한다.<br/><br/> 김승철 회장은 “현재 국내에서 온열암과 관련한 전임상·임상 시험이 20개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임상시험들이 종료되는 2017년 또는 2018년에는 한국의 여러 연구들과 해외 연구들을 공유하는 국제학술대회를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 최근 임상 연구에 따르면 온열치료는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 치료 효과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치료는 암세포 살상 기본 작용기전은 자유산소기를 만들어 암세포 DNA를 공격한다. 하지만 저산소 상태, pH가 낮은 경우, 세포 유전자 복제기(S-phase)에서의 암 세포는 방사선 치료에 저항성을 갖는다. 이때 암 조직에 온열치료를 시행하면 혈류가 증가되고, 세포에는 산소가 풍부해진다. 이런 혈류 증가와 산소 농도 상승이 암세포가 방사선 치료에 민감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br/><br/> 또한 세포독성 항암제와 온열치료 병용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온열치료의 직접적인 암 세포 살상 능력과 열 치료가 항암제의 효과를 증대 시킨다는 실험실 및 임상실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자들은 온열치료로 유도되는 열 기울기(temperature gradients)가 암치료에 있어 중요한 생물학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찾아, 이를 기반으로 온열치료기기 온코써미아를 개발했다. 온코써미아는 조직에 대한 거시적 온열치료 기능과 악성세포의 특이적인 치료가 가능한 미시적 온열치료 기능(nanothermia)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전용량 결합방식의 온열치료기기다. 이윤한 연세대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지난해 학술대회에서 “<span class='quot0'>온코써미아는 전임상시험을 통해 암세포의 세포자살(apoptosis)을 유도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것과 암줄기세포를 줄여 주고 줄기세포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을 확인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는 암치료에 온코써미아를 적용할 경우 암세포 전이와 재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pan>”고 말했다.<br/><br/> 국내에서 고주파온열암치료기(Oncothermia)는 지난 2007년 하스피가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이 장비(온코써미아 EHY-2000)는 암발생 부위 또는 전이 부위에 13.56MHz의 고주파를 통과 시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자연사 (Apoptosis) 또는 괴사(Necrosis)시킨다. 또한 선택적으로 암 조직에만 에너지를 가해 암 조직에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이 치료기기는 생체 대사율을 증가시켜 암세포에 산소 공급을 막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 암세포를 파괴한다. 송병기 기자<br/><br/>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42.txt

제목: [2016 눈길끄는 암 치료법-면역항암제] 암 접근방식 달라 부작용 적고 안전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80925620  
본문: 말기 암으로 투병중이던 지미 카터(91)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암이 완치됐다고 공개 선언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간과 뇌로 전이돼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간에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더니 뇌에서 약 2㎜크기의 종양 4개가 또 발견됐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희망이 된 것은 ‘면역항암제’였다. 전이된 암에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를 투여받았고, 암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br/><br/> 최근 등장한 면역항암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놀라운 치료 효과까지 기대되기 때문이다. 1세대 항암제들은 독성이 강했다. 때문에 암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상세포까지 구분 없이 사멸시켜 환자에게 구토나 탈모 등의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어 등장한 치료제가 1997년 등장한 2세대인 ‘표적항암제’다. 표적항암제는 특정 유전자 변이에 의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해 항암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다만 표적항암제는 암 유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만 치료제로 쓸 수 있다는 것, 치료제 내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표적항암제는 수많은 유전체 과학자, 의사들에 의해 개발이 진행 중인 약물이다. 뒤이어 등장한 것이 3세대 치료제인 면역항암제다. 면역항암제는 체내 면역체계에 합성 면역 단백질과 같은 요소를 추가, 면역체계를 활성화 해 종양 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이다. 이는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PD-1, CTLA-4, LAG-3 등 억제기전의 수용체와 종양세포 사이의 신호경로에 작용해 종양세포를 억제한다. 기존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사멸시켜 환자에게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 하지만 면역항암제는 암세포 변형으로 생기는 약의 내성 문제나 부작용 등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FDA에서 면역항암제를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해 신속허가를 내 준 것은 면역항암제에 대한 임상결과에 근거한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인 방영주 교수는 “임상을 통해 면역항암제가 기존 세포독성치료제에 비해 치료효과와 생존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것이 밝혀졌다”면서도, “다만 일부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이 약이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이 오용 또는 남용될 위험이 있다. 의사들이 신중하게 약을 투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br/><br/> 한편 주요 제약사들도 차세대 항암제로 알려진 면역항암제를 출시했거나, 개발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면역항암제는 한국MSD ‘키트루다’와 BMS의 ‘옵디보’와 ‘여보이’ 등이 있다. 면역항암제는 흑색종암, 두경부암 등을 비롯해 최근 폐암에도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제약사인 로슈, 화이자, 사노피, 노바티스, 암젠 등도 면역항암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br/><br/> 문제는 면역항암제도 내성 가능성이나 유전자 변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몸은 외부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적응한다. 암세포가 진화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도 변화한다. 면역항암제로 치료할 경우, 일부 환자에서 일정 투여 시간이 지나면 생존곡선에서 평형상태를 유지해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항암제 투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면역계의 교란이 일어나 암이 재발될 우려도 있다. 가장 크게 직면한 문제는 면역항암제의 1회 투약 비용이 약 1000만원에 육박하다 보니 환자 가격 부담이 크다는 점에 있다. 현재 면역항암제는 국내에서 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가 고가의 약값을 전액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br/><br/> 정부에서 보험급여 적용이 된다고 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있어, 향후 제약사와 정부가 약가 협상을 통해 보험급여 적용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면역항암제가 흑색종, 위암, 폐암 등 다양한 암에 적응증을 가진 약물이기 때문에 보험급여가 될 경우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이 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이 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한계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br/><br/>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43.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 난소암 표적치료 3파전… 여성암 사망률 3위 극복 기대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80925109  
본문: 난소는 자궁의 양측에 위치한 생식기관으로 난자를 생산하며, 월경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배란 및 여성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난소암은 발병 초기에는 절제수술을 하지만 이후에도 암이 줄어들지 않거나, 재발될 위험이 있을 경우 표적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br/><br/> 난소암은 종양을 먼저 제거한 뒤, 항암치료를 통해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3기· 4기의 난소암은 광범위하게 전이하기 때문에 수술 전 검사에서 개복을 하더라도 암의 완전한 절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항암화학요법을 우선 실시해 암이 작아진 이후에 수술을 하기도 한다. <br/><br/> 특히 난소암 치료제에서 효과가 좋은 표적항암제들의 등장으로 난소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를 제외하고 특정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해 치료하는 치료제로, 암환자들에게 많이 쓰이고 있다. 현재 출시된 난소암 치료제는 ‘아바스틴’, ‘케릭스’ 등이 대표적이며, ‘린파자’가 최근 국내에 출시돼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됐다. <br/><br/>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로슈의 ‘아바스틴’이 난소암에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아바스틴은 유방암, 폐암 등 다양한 영역의 질병에서 적응증을 갖고 있는 치료제로, 난소암 영역에서는 최초로 국내에서 급여를 적용받았다. 아바스틴의 난소암 건강보험적용의 근거가 된 것은 AURELIA 임상 연구다. 이 연구를 통해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아바스틴과 항암화학요법 병용 투여군과 항암화학요법 단독 투여군을 비교해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 연장(6.7개월 vs. 3.4개월) 및 객관적 반응률의 향상(27.3% vs. 11.8%, P=0.001)을 확인했다. <br/><br/> 얀센의 ‘케릭스’ 역시 국내 난소암 환자들에게 지난해부터 처방 가능한 약물이다. 케릭스는 지난 1998년에 진행성 난소암 치료제로 허가돼 2013년에 난소암 2차 이상 단독요법과 2차 이상에서 카보플라틴 병용요법으로 보험급여가 승인됐다. 한때 쉐링푸라우가 약가협상 과정에서 발매를 포기했다가 얀센과 합병된 뒤 공급문제를 겪는 우여곡절 끝에 나왔다. <br/><br/> 최근 출시된 린파자 역시 주목 받는 난소암 표적항암제다. 린파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난소암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적응증을 획득했다. 린파자는 바이오마커 중심의 분석에서 BRCA 변이 난소암 환자에게 유지 요법을 진행했을 때 해당군의 무진행 생존 기간이 11.2개월로, 위약군(4.3개월)에 비해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린파자는 난소암에서 바이오마커를 진단에 활용한 최초의 난소암 치료제라는 점으로 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영태 연세대 의과대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린파자는 난소암에서 바이오마커를 진단에 활용한 최초 표적치료제로 의료진으로서 이번 국내 시판 승인을 통해 BRCA 유전자 변이로 재발하는 환자들 치료 및 삶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br/> 잇따른 표적항암제들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난소암 여성 환우들의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여성에서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이어 난소암은 사망률이 3번째로 높기 때문이다. 난소암의 5년 생존율은 3∼4%로 매우 낮다. 무엇보다 난소암 환자는 2차 치료 후 환자의 약 70% 이상에서 5년 이내 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난제다. 비싼 약값에 비해 환자들의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44.txt

제목: [암과의 동행-완치를 향한 위대한 도전] 인생 100세 시대 암수술이 대수일까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80924722  
본문: 식도암은 췌장암과 더불어 치료경과가 아주 나쁜 암으로 분류된다. 식도는 근육층이 얇고 주변에 림프관과 혈관이 아주 잘 발달해 있어 식도에 암이 발생하면 초기에 전이를 잘 하는 편이기 때문에 5년 생존률이 20% 미만이다. 이러한 암의 특성을 알게 되면 많은 환자들은 지레 겁을 먹고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서는 수술로 완치될 수 있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 치료를 결정해야 한다.<br/><br/> 60대 초반의 환자는 식사할 때마다 음식물이 가슴에 걸리는 느낌이 들어 동네병원에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얘기에 본원을 방문하였다. 환자는 암세포가 식도를 절반 정도를 막고 있었고 조금 진행된 상태였다.<br/><br/> 환자는 인터넷을 통해 얻어들은 식도암에 대한 상식으로 지레 치료를 포기하고 무작정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했다. 의료진은 수술 가능한 병기에서는 완치율이 50%대이므로 치료를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했고, 가족들도 몇 달 남지 않은 환자의 회갑연을 꼭 치르겠다는 일념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 마침내 환자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br/><br/> 환자의 식도암 종양덩어리는 주변장기 침범은 없었으나 림프절전이가 몇 개 있어 림프절의 완전 제거에 집중해 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이 많아 스무 개 이상의 림프절을 제거했는데, 다행히 전이된 림프절의 개수는 많지 않아 식도암 병기는 2기 후반이었다. <br/><br/> 환자는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지병도 있는 상태에서 하루에 담배를 두 갑씩 피우는 흡연자였기 때문에, 수술 후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 중환자실에서 5일 간 가래배출 및 호흡치료를 했다. 이후 환자는 폐렴 등이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기게 됐고,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br/><br/> 환자는 수술사망률이 5∼10%에 이르는 어려운 식도암 수술을 잘 견뎠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운동시키고, 가래배출과 호흡치료를 돕는 등 병간호를 잘해 정상적으로 퇴원이 가능했으며,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실시했다.<br/><br/> 환자는 정기검진으로 외래를 방문하면 회갑연도 못 치르고 죽을 뻔 했는데, 지금은 담배도 끊고, 고혈압과 당뇨병도 잘 관리해 새 삶을 살고 있다며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br/><br/> 인생의 후반이 시작되는 60대에 찾아온 암은 누구에게나 최대의 난관일 수 있다. 그러나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고, 난치병에도 치료의 용기를 낸다면 인생 100세 시대에 6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암수술이 대수일까라는 생각이 든다.<br/><br/>이해원 원자력병원 식도암센터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4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악성흑색종 동양인이라고 안심하면 곤란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80814706  
본문: 지난달 15일 타계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사인은 악성흑색종이었다. 피부암 중 가장 위험하다는 악성흑색종은 피부에서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악성으로 변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비교적 멜라닌 세포가 적은 서양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는데, 최근 들어 동양인에게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br/><br/> 지난달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악성흑생종 환자는 2009년 2819명이었던데 비해 2013년에 3761명으로 33.4%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br/><br/> 악성흑생종은 이제 더 이상 머나먼 곳의 얘기가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기양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는 서양인은 주로 몸통에서 악성흑색종이 생기는 반면, 동양인은 반 이상이 주로 발바닥, 발톱, 손톱 등 몸의 끝부분에서 생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증상도 따로 없기 때문에 이미 병기가 많이 진행된 다음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br/><br/> 악성흑색종이 가장 처음 생길 때는 표피 아래에서 옆으로만 번지는데 이를 제자리 흑색종이라고 한다. 이때는 수술로 깨끗이 제거만 하면 예후가 매우 좋다. 그러나 만약 종양이 표피와 진피의 경계를 짓는 막을 뚫고 진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는 혈관과 림프관을 타고 전이할 수 있다. 특히 악성흑색종은 전이가 굉장히 빠르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표피에서부터 침투한 깊이가 1㎜를 기준으로 그 이하(1기)면 전이율이 2%도 안 되지만, 1㎜가 넘어갈 경우(2기) 전이율은 10%가 넘어간다. 만일 림프절로 전이가 되면(3기) 생존률이 5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br/><br/> 그럼 악성흑색종은 왜 생기는 것일까. 정기양 교수는 일반적으로 악성흑색종은 햇빛이나 자외선 노출로 인해 생기거나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동양인의 악성흑생종 환자 증가 추세도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만 손톱이나 발바닥 등에 생기는 것은 압박이나 압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는 상태다.<br/><br/> 따라서 정 교수는 악성흑생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br/><br/> 간혹 악성흑색종을 일반 점이나 검버섯으로 오해해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 안에서는 전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br/><br/> 또한 악성흑색종은 침투깊이가 1㎜를 넘는지 안 넘는지 등 매우 사소한 차이로 인해 예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악성흑색종을 알아볼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검사받아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br/><br/> 한편 이와 관련해 정기양 교수는 양성 점과 악성 점을 구분하는 기준 5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양성 점은 장축을 그으면 대칭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점의 주변 경계가 명확하고, 진하든 옅든 색이 균일한 것은 양성이다. 6㎜ 이상의 큰 점은 나쁠 확률이 높고, 악성 점은 색이나 크기 등 서서히 변형이 일어난다.<br/><br/> 박예슬 기자 yes22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46.txt

제목: 젊은 유방암 환자일수록 우울 증세 심해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75928622  
본문: 유방암 3기 A씨는 암 치료를 위해 병원 두 곳을 다닌다.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멀리 떨어진 대형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발톱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이 나타나자 불안장애가 그녀를 덮친 것이다. <br/><br/> A씨의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는 “치료 중 우울감을 호소하는 암환자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A씨처럼 정신과를 찾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A씨가 정신과상담을 받게 된 것은 자신의 수술을 담당한 유방외과 주치의 덕분이었다.<br/><br/> 노동영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는 “수술 후 항암치료 중에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다. 우울과 불안은 바른 수면에도 영향을 줘 결과적으로 암 치료를 방해한다. 우울과 불안 증세가 심한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한다”고 말했다.<br/><br/> ◇암환자 우울 나타나도 알아줄 의사 없어 방치=그러나 한 병원 내 정신과와 유방외과가 함께 있지 않는 경우 암환자의 우울증세를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정신과 전문의가 없거나 암환자를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이 없는 병원일수록 암환자의 심리상담을 받는 비율이 낮다. 우울증세를 경험하면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 배경에는 정신과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 외에 의료진의 견해도 한 몫 한다. 암 치료에 집중한 나머지 환자 심리 상태를 치료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r/><br/> 함봉진 서울대병원 정신종양학 교수는 “<span class='quot0'>과거보다 암환자의 심리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었지만 여전히 치료개입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함 교수는 “모든 병원에 암환자를 위한 정신과 전문의가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우울과 불안 증세로 수면장애를 호소한다면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대형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암 치료 중에 발생한 불안과 정서 장애는 간단한 약물요법으로 빠른 호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br/><br/> ◇국내 유방암 환자 40대 가장 많아…심리적 증상 위험 높아=유방암 환자는 암 치료로 달라진 자신의 모습과 항암제 부작용, 완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우울이나 불안, 수면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한다. <br/><br/> 함봉진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서구 여성들에 비해 한국에서는 비교적 젊은 유방암 환자들이 많다. 특히 40대에서 유방암 환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어린 자녀가 있거나 생계의 책임이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암으로 인한 충격이 더욱 큰 편”이라고 말했다.<br/><br/> 의료진의 말처럼 한국의 유방암은 40대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40대라는 호발연령은 발생하는 심리적 증상과도 관련 있다. 완치하더라도 남은 긴 여생동안 재발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다. 60대 암에 걸려 완치한 경우와 마음가짐이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또 암 치료로 단절된 경제적 활동은 치료 후에도 경력단절로 인한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함 교수는 “치료가 끝났어도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다. 30∼40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완치한 사람은 치료가 끝났어도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고 경제활동 문제에 직면해 힘들어하는 특성이 있다. 이들을 위한 의료진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47.txt

제목: [암과의 동행]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년… 항암신약 급여 통과율 절반 이하 치료 양극화 심각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75929264  
본문: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온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환자들의 실제 의료비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암환자의 경우 치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암환자들에게 필요한 항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통과율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절반 이하로 낮아져 환자(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효과가 증명된 신약의 경우 허가 이후 신속한 보험등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br/><br/>◇4대중증 보장성 강화 정책 3년 어떻게 진행됐나=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하고, 2013년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암과 심장·뇌혈관, 휘귀난치성 질환 등 고가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의 건강보험적용 범위와 상한에 제한을 줄여 질병 치료에 투입된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br/><br/>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급여 전환을 지난 3년간 추진해 왔다.<br/><br/>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6150억원의 국민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약 2200억원을 경감하는 등 총 8350억원을 경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올해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신규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당시 업무보고에서 지난 2013년 25개, 2014년 100개, 2015년 258개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쿠키뉴스 주최로 실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어디까지 왔나’ 방송토론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최근 발표된 ‘2013년 진료비실태조사 결과’,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총액은 10조3465억원이었고, 이 중 비급여(환자 100% 부담) 비용은 1조5790억원(15.3%),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제외하고 검사·수술·약제 등을 위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학적 비급여는 7344억원(7.1%)였이었다</span>”고 설명했다.<br/><br/> ◇항암 신약 급여 통과율 감소=항암제 비급여 환자 부담과 관련 정부도 2010년 항암제 급여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적용했다. 당시 복지부는 항암제 급여확대에 연간 212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2014년 건강보험 급여확대 항목별 추계 및 연도별 실지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급여확대에 따른 재정추계는 2120억원이었던데 반해 2014년 급여청구액은 437억원에 불과했다.<br/><br/> 하지만 지난해 3월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재정에서 항암제 급여비로 지출된 금액은 8300억원이었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4년 비급여 항암제 약품비는 211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실제 의료현장에서 쓰이는 재정은 정부가 예상한 재정추계의 약 20%에 불과했고, 정부의 급여확대가 말 뿐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br/><br/>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했지만, 여전히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 효과를 체감하는 정도는 낮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김봉석 한국임상암학회 보험위원장은 “<span class='quot1'>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기록 행진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9년 65%에서 2013년 62%로 해마다 감소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 또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부담이 20%, 10%, 5%로 낮아져 실제 금액적인 면에서는 환자가 내야할 부담이 줄어든 편이다. 그러나 치료에 필요한 검사 자체가 잦은 편이어서 개별 수치로 본다면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전체 지출 의료비를 따져보면 환자의 체감도는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br/><br/> 특히 4대 중증질환의 절반 이상이 넘는 암환자들의 경우 치료 효과가 입증된 고가의 항암제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국내 중증환자등록현황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환자는 대략 140∼16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약 90만명이 암환자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러한 암환자들에게 사용될 항암 신약의 급여율이 박근혜 정부 들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br/><br/> 본지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신약의 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와 최종 고시결과를 분석한 결과, 항암 신약의 보장성은 타 질환과 비교해 2배 가량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년간 암 이외 질환의 약제 고시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급여로 최종 고시된 약제 비율)은 51.4%였지만, 항암제는 30%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 이를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3년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항암제 고시율은 더 떨어졌다. 분석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항암제 고시율은 20%대로, 항암제 10개 중 8개에 대한 약제 비용은 환자들이 100%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br/><br/>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이전과 비교해도 항암제 급여율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이전인 2008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비항암제 고시율은 55.2%였고, 항암제 고시율은 40.0%였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추진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비항암제 고시율은 44.4%, 항암제 고시율은 20.0%로 각각 10.8%포인트와 20.0%포인트 감소했다.<br/><br/> ◇빨라진 항암 신약 개발, 더딘 보험급여…환자만 속탄다=최근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등 항암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진 반면, 항암 신약에 급여화는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항암 신약 개발 속도가 2배로 증가했다. 급여 속도는 제자리걸음이다. 항암 신약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넒히는 것이 환자 치료에 효과적인 만큼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br/> 실제 난소암을 앓고 있는 한 환자 가족은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난소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가족이 노력하지만 힘든 것이 현실이다. 지금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항암 신약은 수백만원 정도다. 치료를 미루고 있는데, 아내는 물론 가족들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기종 대표는 “암환자들의 신약의 혜택을 기다리고 있지만, 돈이 없어 여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명과 직결되고 위급한 질환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때 급여전환이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과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항암 신약의 빠른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힘이 실린다. 김봉석 위원장은 “<span class='quot2'>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서 암환자 보장성 강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증명된 신약이 빨리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허가 후 보험등재가 가능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span>”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허가 항암신약은 26개로 이중 급여화가 된 품목은 8개다.<br/><br/> 김 위원장은 “<span class='quot1'>해당 암질환에 효과가 확인된 신약에 대한 신속한 국내 도입과 빠른 보험등재만이 해결책</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지난해 국회에서 항암제 보장성과 환자접근성, 항암제 보험급여 지연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상설기구 설치를 권고했다</span>”며 다학제적 상시위원회도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다학제적 상시위원회’는 보다 향상된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심평원·국민건강보험, 환자(단체), 의료진(학계), 정책입안자(국회), 미디어, 개발자(제약사) 등 암질환과 관련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현안을 공유하고 암과 관련된 정책개선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를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 3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됐지만, 여전히 암치료에 있어서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치료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항암 신약의 신속한 급여화를 바라는 암환자들과 가족, 국민들은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정부의 빠른 정책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48.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션트] 뇌척수액을 심장부위에 전달하는 튜브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75927635  
본문: 국가암정보센터와 함께하는 ‘암환자 생활백서’에서는 암환자에게 꼭 필요한 기구관리 네 번째 ‘션트’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알아본다.<br/><br/> 사람의 뇌는 두부와 같이 부드러운 구조로 되어 있고, 이를 둘러싼 두개골은 딱딱한 뼈로 구성된다. 뇌를 보호하기 위해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뇌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두개골 등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일을 한다. 뇌를 둘러싸고 있는 완충재가 없다면 우리 뇌는 몸이 흔들릴 때마다 두개골에 부딪혀 남아나지 못하게 된다. 우리 뇌 주위에는 약 150㏄∼200㏄의 뇌척수액이 들어 있고, 하루 약 500㎖의 뇌척수액이 생성·흡수돼 순환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뇌척수액의 생성과 흡수에 균형이 이루어져 있지만, 수두증이 생기면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되고 흡수가 되지 않은 뇌척수액이 두개강내 압력을 증가시켜 여러 가지 증세를 나타내게 된다. 이런 수두증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수술적 치료는 환자의 뇌척수액 통로에 ‘션트(shunt)’라는 유연한 튜브를 집어넣어 뇌척수액을 신체의 다른 부위(주로 복강, 흉강 또는 심방이라 불리는 심장의 한 부분)에서 흡수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수술은 증가된 두개강 내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뇌의 탄성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겐 소량의 뇌척수액을 빼내더라도 효과적으로 두개강 내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br/><br/> ◇션트의 구성과 원리=션트 튜브는 직경이 2㎜정도이고,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갖는 실라스틱(실리콘과 흡사한 재질)으로 만들어지며 우리 몸과 잘 융화된다. 션트는 여러 모델이 있지만 비슷한 구조다. 2개의 카테터(근위부·원위부 카테터)와 흐름 조절 장치로 구성된다. 카테터는 삽입되는 부위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근위 카테터는 뇌실에 들어가는 뇌실 카테터, 원위 카테터는 복강에 넣어지는 복강 카테터, 심방 내에 넣어지는 심방 카테터, 흉강 내에 넣어지는 흉강 카테터로 나뉜다. 흐름조절 장치는 뇌척수액 흐름의 압력을 조절하고 뇌척수액이 뇌실 내로 다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어떤 션트는 흐름 조절 장치가 없는 것도 있다. 션트장치에는 작은 크기의 유연한 저장소가 있는데 이는 흐름 조절 장치와 같이 있기도 하고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다. 이 장치는 션트 기능을 알기 위해 뇌척수액을 주사기로 채취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고 펌프 기능을 한다.<br/><br/> ◇션트의 종류<br/><br/> ▲뇌실-복강간 션트(VP Shunt, Ventriculo-Peritoneal Shunt):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뇌실에 삽입된 카테터를 통해 밸브를 지나서 복강내 삽입된 복강 카테터로 뇌척수액이 배액된다. 이곳으로 배액된 뇌척수액은 복강내에 있는 많은 작은 혈관을 통해 흡수된다.<br/><br/> ▲뇌실-심방간 션트(VA Shunt, Ventriculo-Atrial Shunt):뇌척수액이 목에 있는 정맥을 지나 우심방에 삽입된 심방 카테터로 배액되며, 복막염 등과 같이 복강내 질환으로 뇌실-복강간 션트가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된다. 이곳에서 뇌척수액은 쉽게 혈류를 따라 다른 체액과 같이 걸러지게 된다. <br/><br/> ▲뇌실-흉강간 션트(VP Shunt, Ventriculo-Pleural Shunt):뇌척수액이 폐가 들어있는 흉강에 삽입된 흉강 카테터로 배액되며 뇌실 심방간 션트와 같이 복막염 등으로 복강내 질환이 있어 뇌실 복강간 션트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된다.<br/><br/> ▲요추-복강간 션트(LP Shunt, Lumbo-Peritoneal Shunt):요추의 지주막하강에 카테터를 삽입해 뇌척수액을 복강으로 배액시키는 방법으로 교통 수두증(Communicating Hydrocephalus)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소아에게는 소뇌편도 탈출 이나 뇌경막하 혈종을 일으킬 수 있어 잘 사용하지 않는다. <br/><br/>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4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침·피 한방울로 암 진단 척척… 첨단기술 어디까지 진화할까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75819644  
본문: 단 한 방울의 침이나 혈액을 통해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시대다. 최근 제약사, 벤처기업, 연구자들이 새로운 암 진단기기 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 가능하며, 3분의 1은 조기진단과 치료로 완치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로 극복이 가능하다. 암은 조기 발견만 해도 완치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최근 암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br/><br/> 해외에서는 침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타액 속에 암 유전자정보(DNA)를 검출하는 ‘액체 생체검사’ 방식으로 집에서 10분이면 암 진단이 가능하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LA) 데이비드 웡 종양학 교수가 개발의 주인공이다. 그는 “타액을 이용한 암 진단 키트는 환자의 집이나 치과, 약국 등 어디서든 조기 검사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놀라운 진단 정확성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br/><br/> 국내에서도 다양한 암 진단 기술이 개발 중이다. 색깔로 대장암과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자, 나노캡슐이 담긴 주사 한 번으로 24시간 이내에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송현석 선임연구원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오석 전임연구원팀과 공동으로 빠른 시간 안에 두 종류의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는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와 예일대학교 연구진도 참여했다. 공동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형광물질을 이용해 암 조직을 찾아내는 것으로, 형광물질이 사람의 몸속에서 암 조직과 만나면 서로 달라붙도록 만든 것이다. 그 다음 적외선과 같은 인체 투과율이 높은 빛을 쪼이면 암 조직에서 형광 빛을 내 암 부위를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원리다.<br/><br/> 안국약품은 난소암 진단키트 ‘오바체크(OvaCheck) Dx’로 5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자용 임상시험을 마쳤다. 오바체크 Dx는 난소암의 조기진단 정확도를 기존 방법 보다 20% 이상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안국약품은 바이오마커 3종 기술을 기반으로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종 진단장치에 대한 연구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br/><br/> 혈액검사만으로 암 진단이 가능한 기술도 있다. 파나진은 혈액검사 암진단 기술인 ‘c-melting’ 개발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암 진단방법처럼 고통이 따르는 조직을 채취하지 않고도 혈류를 순환하는 종양의 DNA를 탐지해 분석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c-melting은 조직 채취없이 혈액 내 DNA 검출로 초고감도 진단이 가능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파나진은 폐암과 대장암의 주요 바이오마커들에 대해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 개발도 추진 중이다.<br/><br/> 99달러만 내면 244가지의 개인 건강 정보와 유전적 특성, 암 발병 가능성까지 예측하는 유전자 검사 기관까지 등장했다. 유전자 검사 기관 ‘23앤미(23andme)’에 사람의 타액을 보내기만 하면 1주일 안에 개인의 유전자 특성, 암이나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 등을 분석해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러한 암 진단기술 발전은 고령화사회에 진입으로 건강하고 오래 살려는 사람들의 요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많은 첨단화된 암 진단기술이 등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50.txt

제목: [암과의 동행] 반도체-난소암 상관 인정… 예방책 서둘러야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74936260  
본문: 지난 1월 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난소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사망한 A씨의 부친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전까지 반도체 관련 직업병으로 뇌종양과 백혈병이 인정된 바 있다. 하지만 난소암이 반도체와 연관 있다고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다면 난소암은 정말 반도체와 연관 있는 것일까?<br/><br/> 임종한 인하대학교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먼저 난소암이란 난소에서 발생한 암으로, 발병원인으로는 유전, 환경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신체의 과도한 지방을 가진 사람일수록 발생위험이 높다. 이 외에도 여성의 다양한 폐경기 증상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호르몬 대체 치료는 사용기간이나 약물 종류에 따라 난소암 발생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울러 여성호르몬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호르몬에 노출이 잦아도 발생위험이 높아진다.<br/><br/> 그럼 반도체와는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임 교수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접착제, 세척제 등 유해화학물질에 상기 노출됐고, 인근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임 교수는 “<span class='quot0'>특히 접착제가 가열됐을 때 배출되는 휘발성물질에는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이 포함돼 있었고, 그 중에는 난소암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도 있다</span>”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6년 넘게 교대근무를 했는데, 오랜 기간 교대근무를 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난소암 발병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임 교수는 “따라서 A씨는 이러한 유해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난소암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보면 이번 판결에서 반도체와 난소암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br/><br/> 또한 교대근무와 암 발병 연관성에 대해 임 교수는 “교대근무로 밤 시간에 빛에 노출되면 생체리듬이 파괴되고, 암 발생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이 줄어드는 등 호르몬 교란을 가져와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이를 기초해 주야간 교대근무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인정하는 발암요인”이라고 설명했다.<br/><br/> 현재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분야인 만큼 관련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따라서 “<span class='quot0'>반도체 분야의 취급물질과 관련해 높은 위해성 평가와 관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 박예슬 기자<br/><br/>yes22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51.txt

제목: “비타민C 보충제 암 예방 효과 없다”… 국립암센터 등 연구팀 밝혀  
날짜: 20160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18211026272  
본문: 비타민C 보충제는 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음식을 통해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br/>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교수와 서울대병원 오승원 교수 등 연구팀은 비타민C 보충제를 복용한 집단과 가짜 보충제(placebo)를 복용한 집단 사이에 암 발생률 또는 암 사망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논문 7편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6만2619명을 분석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br/><br/> 비타민C 용량, 복용 기간, 성별, 흡연 여부, 암 종류 등 변수를 다르게 설정해도 비타민C와 암 예방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이 암 발생률이 낮다는 관찰역학 연구 결과는 많다. 명 교수는 “<span class='quot0'>화학적 구조가 같은 물질을 섭취하더라도 음식이냐 보충제 형태냐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뜻</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비타민C 보충제를 고용량 복용하면 암이나 심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span>”고 말했다.<br/><br/>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섭취 기준인 하루 100㎎보다 약간 많은 비타민C를 음식으로 섭취하고 있다.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성인 남성은 평균 104㎎, 여성은 109㎎의 비타민C를 음식으로 먹는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52.txt

제목: 한화생명‘빅플러스’ 종신·CI보험, 보장 내용은 유지… 보험료 최대 18% 줄여  
날짜: 2016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17185423342  
본문: ‘재테크 난세’에도 통할 효자상품 없나요<br/><br/> <br/><br/>재테크도 난세(亂世)다.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선진국 금리와 불안한 국내 금융시장 상황은 원금을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든다. <br/><br/> <br/> 이럴 때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위험 속으로 뛰어들기 보다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선택이 권장된다. 올해들어 보험사들은 장기가입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중도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줄어들지만, 만기까지 가면 더 낮은 보험료로 같거나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거래통장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몰아 쓰는 것은 기본이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br/><br/>‘빅플러스’라고 이름 붙인 한화의 새 종신보험과 CI(치명적 질환)보험은 기존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종신·CI보험과 보장 내용은 같은 수준이면서도, 해지환급금 적립 기준을 바꿔 보험료를 최대 18%까지 줄였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하면 기존 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br/><br/> 빅플러스 통합종신보험은 정년은퇴 전 가장이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에게 매달 보험금을 지급한다. 은퇴 전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가입금액의 2%를 정년까지 지급한다. 물론 은퇴 이후에 가장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한다.<br/><br/> 빅플러스 CI보험은 중대한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13가지 치명적 질환을 진단 받으면 가입금액의 8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53.txt

제목: 교보생명‘내 생활에 맞춘 보장보험’, 나이·경제형편 따라 맞춤형 보장 선택  
날짜: 2016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17185419432  
본문: 나이와 라이프스타일, 경제상황에 맞게 필요한 보장을 레고처럼 쏙쏙 뽑아 만드는 맞춤형 보장보험이 교보생명에서 나왔다. ‘내 생활에 맞춘 보장보험(갱신형)’은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에 생활보장특약 4종, 일반특약 7종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br/><br/> 생활보장특약은 상해, 암, 2대질병, 간병플랜 중 1개 이상을 고를 수 있다.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는다. 큰 질병이나 재해이 닥친 경우 3년간 매달 생활비를 지원한다.<br/><br/> 입원이나 수술·골절을 보장하는 일반특약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처음 가입할 때는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70% 또는 100%) 중 선택할 수 있다. 만기환급형은 20년 뒤 갱신할 때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다. 갱신 시에는 보장을 추가하거나 줄여서 순수보장형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54.txt

제목: 할리우드 코믹 액션 ‘데드풀’, 패러디·19禁 막말 웃기려고 작정한… 그런데 진짜 웃기네  
날짜: 2016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17041524271  
본문: 영화가 시작되면서 오르는 제작진 소개 자막부터 웃긴다. 이름 대신에 감독(팀 밀러)을 ‘초짜’라고 하고 제작자(라이언 레놀즈 등 4명)를 ‘호구’라고 한다. 17일 개봉되는 ‘데드풀(Deadpool)’은 웃기려고 작정하고 만든 영화다. 할리우드 마블 코믹스의 데드풀 캐릭터가 탄생하게 된 과정을 그리면서 ‘엑스맨’ 등 기존 히어로 영화를 패러디하고 B급 19금 농담을 속사포처럼 내뱉는다.<br/><br/> 특수부대 출신인 웨이드 윌슨(라이언 레놀즈)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혼내달라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해결해주는 것으로 먹고사는 용병이다. 단골 술집에서 만난 바네사 칼리슨(모레나 바카린)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약속하지만 곧 불행이 닥쳐온다. 말기 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수상한 남자 아약스(에드 스크레인)가 비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암을 고칠 수 있다고 제안한다.<br/><br/> 돌연변이의 방법으로 사람을 생체무기화해 ‘슈퍼 노예’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가한 윌슨은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애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서성거린다. 그러면서 예전 외모를 되찾고자 아약스의 뒤를 쫓는다. 영화는 주연배우 레놀즈가 출연한 ‘그린 랜턴’을 비롯해 다양한 영화를 비꼬고 액션 장면 도중에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기도 한다.<br/><br/> 마블에서 그려진 데드풀의 특징은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수다와 현실 세계로 넘나드는 판타지에 있다. 자신이 만화 캐릭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데드풀은 만화의 칸을 탈출해 직접 독자들과 대화를 시도한다. 영화는 이런 데드풀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요소들을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부터 엔딩 크레디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깨알같이 배치했다.<br/><br/> 할리우드의 숱한 액션 영화를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온다. 가령 이런 식이다. “리암 니슨이 꿈에 나오는 악몽을 꿨다. ‘테이큰’에서 딸이 세 번이나 납치됐는데, 이쯤 되면 딸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상한 것 아냐?” ‘엑스맨’에 대한 대사도 계속 나오는데 이들 영화를 보지 않은 관객으로선 다른 사람들이 웃을 때 어리둥절할 수도 있다.<br/><br/> ‘데드풀’이 제작되기 전 ‘엑스맨: 울버린의 탄생’에 데드풀이 잠깐 등장했을 때 팬들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당시 데드풀은 문자 그대로 풀이 죽은 바보처럼 입이 꿰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데드풀의 캐릭터를 제대로 살렸다. ‘엑스맨’ 멤버 중 강철 인간 콜로서스와 불꽃소녀 네가소닉 틴에이지 워헤드가 함께 등장한다.<br/><br/> 지난 12일 미국에서 개봉된 ‘데드풀’은 3일 만에 1억5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1편의 성공으로 2편이 제작될까. 그 해답은 1편의 마지막에 나온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면 안 된다. 데드풀이 “아직도 안 갔어? 뭐가 있는 줄 알고?”라며 너스레를 떠는 장면은 마지막 보너스다. 청소년 관람불가. 108분.<br/><br/>이광형 문화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55.txt

제목: [사설] 가정 호스피스 확대 前 인프라·인력 보강해야  
날짜: 2016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15175238031  
본문: 보건복지부는 14일 “<span class='quot0'>전국 17개 병원이 다음달 2일부터 ‘말기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span>”고 밝혔다. 이는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말기암 환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처방·통증완화와 가족 교육·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의 방문 횟수에 따라 월 5000∼4만8000원만 내면 된다.<br/><br/> 복지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암 환자를 지금처럼 병원에만 묶어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4년 각종 암으로 숨진 사람은 7만6600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90%가량이 병원에서 숨졌다고 한다. 가정에 있던 말기암 환자가 임종 상황이 되면 응급실로 실려가 사망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입원한 말기암 환자는 1·2인실과 다인실을 오가다 결국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중환자실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태에서는 환자의 품위 있고 존엄한 임종을 기대할 수 없다. 장기간 간병에 따른 가족의 정신·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치료수단이 없는데도 말기암 환자가 중환자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중환자도 속출했다. 임종 직전의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실에서 인간다운 진료와 보살핌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우리나라 호스피스 병상이 전국 1108개에 불과한 탓이다. 말기암 환자와 가족이 호스피스 병실을 이용하려 해도 얼마를 기다려야 할지 기약할 수 없는 구조다.<br/><br/> 정부는 가정 호스피스 사업을 내년 8월부터 만성간경화·만성폐쇄성폐질환·에이즈 환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호스피스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준비하는 기간도 짧다. 이 사업의 부작용·혼란을 막고 환자와 가족의 피해·불안을 줄이기 위해 인프라와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경남·충북·강원·광주·제주 등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56.txt

제목: 말기 암 환자 가정 호스피스 한 달 5만원 내면 받는다  
날짜: 2016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14214622188  
본문: 다음 달 2일부터 말기 암환자들은 월 5만원 정도를 내면 집에서 의사 진료와 통증 관리, 영적 상담, 가족 교육 등 ‘전인적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br/><br/>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환자 대상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주 1회 이상 말기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br/><br/> 서울성모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서울시립북부병원, 부산성모병원, 아주대병원, 부천성모병원, 안양샘병원,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수원기독의원, 모현센터의원,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성가롤로병원, 대구의료원, 울산대병원이 서비스기관으로 지정됐다. 모두 ‘입원형(병동형) 호스피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당초 18곳이 신청했지만 전주엠마오사랑병원은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의혹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 탈락했다.<br/><br/>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때, 혹은 호스피스병동 입원 후 퇴원하면서 신청하면 된다. 의료진이 24시간 안에 전화를 하고 48시간 안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뒤 구체적 돌봄 계획을 짠다. 의료진과의 24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환자는 간호사 혼자 방문할 경우 회당 5000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모두 방문할 경우 1만3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1개월 이용료가 5만원 수준이다.<br/><br/> 내년 8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이 시행되면 말기암뿐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된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57.txt

제목: [김경철의 닥터 바이블] 만성피로를 이겨내는 지혜  
날짜: 20160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12203355586  
본문: 진료실에서 만나는 상당수 환자가 만성피로를 호소한다. 굳이 병원에 와서 피로를 호소하지 않아도 일상 곳곳에서의 주부 회사원 노동자 등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천근만근의 피곤함을 달고 산다. 심지어는 아이들도 피곤하다고 한다.<br/><br/> 특별히 목회자를 비롯한 기독교 사역자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만성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성경의 다윗도 사울왕을 피해 이리저리 쫓겨 다니며 피곤함을 호소한다. “<span class='quot0'>내가 피곤하며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span>”(시 38:8). 이런 피곤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br/><br/> 만성적인 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나 당뇨, 간염, 암 등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건강검진을 해봐도 이상이 없는데 피로감이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한다. 피곤하고 귀찮아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잠을 푹 자도 피로에 시달리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br/><br/> 기능 의학적 관점에서 만성피로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 특히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속되는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부신 기능 저하이다.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코티졸 및 DHEA 호르몬이 저하되면서 저혈압, 반복되는 염증, 추위 탐, 무력감 등이 지속되는 것이다. <br/><br/> 특별히 DHEA 호르몬이 떨어지면 면역기능이 약화되면서 입안에 궤양이 잘 생기고 감기에 자주 걸리기도 한다. 또 부신 기능 저하가 지속되면 기억력 감퇴가 된다. 부신 저하가 되면 쉽게 당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겨서 몸은 달콤한 탄수화물의 유혹에 쉽게 지게 되어 어느덧 탄수화물 중독이 되고 부실한 식단으로 연명하게 만들어 만성피로를 더욱 악화시킨다. <br/><br/> 따라서 피로를 이기는 지혜로는 첫째가 급성 스트레스가 만성 스트레스로 넘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이완과 회복의 시간을 늘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적절한 단백질 보충도 필요하다. 필요하면 부신 강화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br/><br/> 특히 부신 호르몬인 DHEA는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본원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방식의 운동이 부신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일등 공신이었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영육간의 강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육체는 상호 영향을 미친다. 몸이 지속적으로 피곤한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영혼마저 무너진다. 영혼의 회복 없이는 궁극적인 신체의 회복은 무의미한 것이다. 올 한 해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영육간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br/><br/> “<span class='quot0'>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span>”(사 40:29∼31) <br/><br/>김경철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58.txt

제목: [따뜻한 밥 한 끼] 우편 전신환과 국밥 한 그릇  
날짜: 20160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11211055646  
본문: 1980년대 초, 나는 부산에서 사역하던 교회를 떠나 군목 입대를 위해 서울에 올라와 지내게 되었다. 그해 겨울은 어찌나 추웠는지…. 어느 날 광운대역 인근 누님 집에 가기 위해 교회 근처에 있는 시흥 전철역까지 가는데 추위에 여간 고생스럽지 않았다. 군대 간다고 입던 옷들도 다 맡겨놓은 터라 겨울옷이 시원찮기도 했고 서울 날씨에 익숙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게다가 연말 성탄절이며 신년 절기를 맞게 되어 헌금을 준비해야 했는데 돈이 없어 기도를 ‘쎄게’ 할 지경이었다. <br/><br/> 그 궁핍함과 추위에 고생하고 있을 때 내 앞으로 전신환이 왔다. 부산에서 함께 교사를 하던 집사님이 3만원짜리 우편 전신환을 보내주신 것이다. <br/><br/> ‘전도사님, 이 돈으로 책도 사 보시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드세요.’ <br/><br/> 우체국에 가서 돈으로 바꾸어 정말 국밥을 사 먹었다. 물론 그해 성탄감사헌금과 신년감사헌금도 드리게 되었다. 지금도 시흥시장의 국밥을 잊을 수 없다. <br/><br/> 요사이 병문안을 가면 대개가 암 환자다. 암 환자를 위한 예배와 상담, 기도가 이어진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암 환자가 많아졌다는 증거이다. 일반적으로 암은 진단받는 것이 아니라 ‘선고’받는 것처럼 절망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사회에서도 암을 고칠 수 없는 병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암 환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대인관계도 피하게 된다. <br/><br/> 결국 암 환자는 세상으로부터 혼자 이탈되어 가는 실존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외로운 여정’을 가는 것이다. 암을 상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암은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만은 아니다. 나만이 외롭게 짊어진 아픔도 아니다. 주변에서 숱한 사람이 같은 암 질환을 겪고 있으며, 역시 숱한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암 환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과 자원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많다. 암 진단을 받고 제일 먼저 할 일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는 일’이다. <br/><br/> 암 환자들은 식욕부진 때문에, 밥 냄새가 싫어서, 항암치료 과정 중 메스꺼워서, 때로는 암세포가 환자로 하여금 많은 영양소를 소모하게 하므로 식사를 잘 못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암 환자들은 병원을 자주 출입해도 영양불량 상태가 되기 쉽다. <br/><br/>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여 환자가 암을 가지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옛날 내가 경험했던 따뜻한 국밥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암 환자에게 가장 좋은 식사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환자의 상황에 맞게 준비된 정성스러운 식사이다. <br/><br/>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사역자와 교사를 위해 권사님들이 밥 한 끼를 차려주신다. 식사한 후에는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한다. 아내는 무얼 먹었느냐고 묻는다. 나는 “보약 한 그릇 먹었소”라고 답한다. 주일 아침 찬바람에 권사님들이 나와서 찬물에 손을 담그며 정성스레 차려주는 아침 식사는 정말 보약이다. 암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보약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밥 한 끼다. 이 땅의 암 환자들이 주님 치유의 손길로 고침 받고 낫기를 소망한다. <br/><br/>최종인 서울 평화교회 목사<br/><br/>◇약력=△성결대학교 △중앙대학교(M.A) 서울신학대학교(Th.D) △공군 군목 역임 △서울 구로 평화교회 담임목사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59.txt

제목: ‘웰다잉법’ 2년 뒤 시행… 가족 2인 ‘환자 뜻’ 진술하면 연명의료 중단  
날짜: 2016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03222201390  
본문: 2018년 2월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일명 ‘웰다잉법’)이 3일 공포됐다. 연명의료 중단 관련 사항은 2년 뒤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사항은 1년6개월 뒤(2017년 8월)부터 시행된다.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br/><br/>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은.<br/><br/>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제한된다. 임종 과정에 있다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했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뜻한다. 말기환자이거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br/><br/>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나.<br/><br/> “<span class='quot0'>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판단한다.</span>”<br/><br/>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종류는.<br/><br/>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br/><br/>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가.<br/><br/> “임종 과정에서 의식이 있고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고 환자 의식도 없는 경우 환자가 충분한 기간 일관되게 연명의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가족 2인 이상이 똑같이 진술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간주할 수 있다. 가족 전원이 합의할 경우에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br/><br/> -환자 가족은 누구까지를 포함하나.<br/><br/>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해당된다. 해당하는 가족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어떤 경우든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br/><br/>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하나.<br/><br/> “<span class='quot0'>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 뜻을 밝히면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중단할 수 있다.</span>”<br/><br/>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작성하나.<br/><br/>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통해 작성한다. 의료기관에서는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서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며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다.”<br/><br/>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달라지는 것은.<br/><br/> “<span class='quot0'>지금은 말기 암환자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이지만 법이 시행되면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 환자로까지 확대된다.</span>”<br/><br/> -호스피스서 말기 환자 기준은.<br/><br/>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다. 세부 절차와 기준은 시행령 등으로 정해질 예정이다.”<br/><br/> -왜 당장 시행하지 않나. 호스피스 확대와 연명의료 중단 시행 시기가 다른 이유는 뭔가.<br/><br/>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호스피스 시설과 제도를 먼저 갖추고 본격 도입하기 위해 6개월 더 늦게 시행된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60.txt

제목: 치솟는 실손보험료 다이어트법 없나요… 보험료 다이어트 위한 맞춤형 상품 잇따라 출시  
날짜: 2016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03202827105  
본문: 병원비를 90%까지 내주는 의료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새해부터 20% 안팎으로 크게 오르면서 가입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1인당 5000원씩만 올라도 4인가족이면 보험료를 매달 2만원이나 더 내야 한다. 여기에다 나이가 들면서 보험료가 갱신되면 오름폭은 더 커진다. 수입이 뻔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데 언제 필요할지도 알 수 없는 돈을 계속 내야할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br/><br/>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은 지금도 보험료보다 20∼30% 더 많은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대표적인 적자 보험”이라며 “이제 겨우 보험료를 현실화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만큼 보험 가입자에게 이익이 크다는 의미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손해만 보면서 실손보험을 팔아온 것은 아니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실손보험은 대부분 종신보험이나 변액유니버설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돼 있기 때문에 1인당 보험료 수입으로 따지면 손해는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다만 가입자가 워낙 많아 정부 차원에서 보험료를 관리해온 것이 부담스러웠다</span>”고 밝혔다.<br/><br/> 실손보험과 함께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자동차보험은 보험료가 내리는데, 왜 실손보험만 오르고 있을까? 금융당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보험시장 선진화 조치 이후 정부 차원의 가격 조절은 더 이상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이 바뀌는 특성 때문에 유치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보험료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지만, 실손보험은 가입 기간이 긴데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시장경쟁만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1'>실손보험료는 그야말로 국민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해 정책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계속 자제하도록 해 왔던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보험료 인상 억제는)지속가능하지 않다</span>”고 말했다.<br/><br/> 실손보험료의 인상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다.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은 통원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하고, 암 뇌출혈 등 중대질병이나 입원비만 보장 받는 보험으로 전환해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보험사들도 특화된 상품들을 내놓았다. 교보생명은 나이와 경제상황, 생활환경에 맞춰 보장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내 생활에 맞춘 보장보험’을 이달 출시했다. 한화생명 빅플러스CI보험처럼 중도해지 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낮춘 보험들도 여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김지방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61.txt

제목: 췌장암 약값 年 1314만원→64만원, 백혈병 약값 年 2000만원→100만원… 2월 1일부터 희귀 암 건보 적용  
날짜: 201601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31211930747  
본문: 약값으로 연간 수천만원이 들지만 환자가 극소수인 전이성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호지킨 및 비호지킨 림프종 등 질환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br/><br/> 보건복지부는 전이성 췌장암의 새로운 항암요법 치료제 ‘아브락산주’ 등에 대해 1일부터 건보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환자가 약 900명인 전이성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돼 생존율이 낮고 치료제가 극히 제한돼 있다. 새 항암요법 치료제에 건보가 적용됨에 따라 환자 1인당 본인 부담이 연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br/><br/> 환자가 26명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제 ‘라도티닙’에도 건보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다른 항암제가 효과 없을 때만 건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처음 사용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당 약제비가 연 2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br/><br/> 호지킨 및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 50명도 신규 항암제가 건보에 등재됨에 따라 연간 약제비 부담이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변연부B세포림프종 및 연부조직육종 환자 약 280명은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승인받은 의료기관에서만 특정 요법의 항암 치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해당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항암 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도 새로 건보에 포함돼 1회 약값 부담이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감소한다.<br/><br/>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환자 수가 적어 지원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 질환에 대해 건보 보장성을 확대한 조치</span>”라고 말했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62.txt

제목: [암수술 잘하는 병원-이대목동병원 위·대장암협진센터] 환자 불안 잘 알기에 한번 진료에 총력 집중  
날짜: 201601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31181256565  
본문: “지난 5년 동안 이화의료원 위·대장암 협진센터는 양적, 질적으로 고루 성장해왔습니다.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보다 규모는 작지만 최고의 의료진과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센터를 찾는 환자들에게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br/><br/> 이주호 이화의료원 외과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협진센터 위분과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에게 이대목동병원만의 차별화 전략을 묻자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실을 따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병원 규모가 작은 것은 일종의 장점이다. 대형 병원에 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할애해 환자에게 심적 안정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 너무 많은 환자에 치여 기계적이고 사무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잘못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br/><br/>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협진센터만의 또 다른 강점은 암을 치료하는 여러 진료과 간의 협진이다. 위암은 외과,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가 협력해야 최상의 치료성적을 낼 수 있는 질환이다. 많은 병원이 협진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큰 병원에서 유기적으로 협진이 이뤄지기란 여건상 어렵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치료에 필요한 전문 의료진 사이에 소통이 신속하게 이뤄진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는 환자가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신체적 괴로움과 심적 부담을 줄여준다</span>”고 설명했다.<br/><br/> 이 교수 자신이 소속된 위암팀에 대해서는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의사와 위암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병동 코디네이터, 전임의, 전공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어떠한 응급 상황도 대처할 수 있고 필요시 중환자실이나 격리실로의 입실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자부했다.<br/><br/> 또한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건강정보 제공으로 적극적인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위암 예방을 위한 건강지도(사진)를 만들어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위암 예방을 위해 어떻게 식습관을 개선해야하는 지 모른다. 건강지도는 쉬운 사진 이미지를 이용해 식습관 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br/><br/> 현재 이 교수는 조기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절제술을 시행한다. <br/><br/> 기존에는 복강경을 이용해 암 덩어리를 절제한 뒤 위와 소장을 배 밖으로 꺼내 따로 문합하는 복강경 보조 위 절제술이 시행돼 왔다. 그러나 이주호 교수는 위와 소장을 잇는 과정 역시 복강경을 이용해 복강 내에서 이뤄지는 전과정 복강경 위 절제술을 시행한다.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전 복강경 위 절제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지난해 우리팀이 이 수술의 안전성을 입증한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 추가 임상 데이터가 모아지면 일부 진행성 위암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br/><br/> 주 진료 분야인 위암과 관련 이 교수는 위암 조기진단을 위해 정기적인 위 내시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수면내시경의 위험 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갖는 것은 금물</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드물게 수면내시경 중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확률 상 매우 낮고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수검자의 호흡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의료진이 철저히 관찰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내시경을 받는 동안 잠깐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혹시 모를 위암의 조기진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63.txt

제목: 한방약 넥시아 효능 논란 커져… 말기 암 극복 환자들 명단 공개  
날짜: 2016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29211959220  
본문: 효용 논란이 일고 있는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에 대해 환자들이 직접 치료 경험을 공개하며 ‘암 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br/><br/> 대한암환우협회는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기 암 판정을 받은 뒤 넥시아 치료로 5년 이상 생존한 환자 중 신상공개를 허락한 1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환자단체연합회가 넥시아의 효능 검증을 위해 4기 암 환자의 5년 이상 생존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br/><br/> 넥시아는 최원철 단국대 의무부총장이 1996년 옻나무 추출액을 원료로 개발한 한방 암 치료제다. 2006년 최 부총장이 넥시아로 치료한 3·4기 암 환자 216명 중 절반 이상이 5년 넘게 생존했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지만 논란이 계속돼 왔다. <br/><br/> 회견에 참석한 생존 환자 정미자(74·여)씨는 “1998년 8월 소세포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로 생니가 6개 빠지는 등 고통을 겪었는데, 넥시아 복용 후 18년째 무리 없이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장암 말기 진단 후 9년째인 전종범(58)씨도 “<span class='quot0'>대형 병원에서 치료 포기 통보를 받고 시작한 넥시아 치료로 건강한 삶을 되찾았다</span>”고 증언했다.<br/><br/> 의협은 여전히 넥시아의 효용이 입증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견을 참관한 의협 산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은 “<span class='quot1'>과학적 검증이 아닌 회복 환자 명단 공개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체계적인 검증에 응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64.txt

제목: 목회자를 흔드는, 다섯가지 유혹 ‘목회의 덫’  
날짜: 2016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29204033556  
본문: 최근 경기도의 한 대형교회 목회자 A씨가 사임했다. 성추행이 문제 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해당 목사는 응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한 목회자가 육욕, 물욕, 권력욕, 교만, 나태와 같은 죄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한다. 목사도 죄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br/><br/> 하지만 그의 죄는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한다.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는 오명을 듣게 만든다. 실망한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게 한다. 한국교회엔 영적으로 성숙한 목회자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러나 자기 목회(自己 牧會)를 못하면 넘어지기 쉽다. 목회자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하고, 자기 삶에 적용해야 한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한다. 목회 완주는 오직 그분께 달려 있다.<br/><br/> 국민일보가 논란이 된 목회자, 다양한 연령대의 목사, 상담 전문가 등에게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 물었다.<br/><br/> <br/>◆ 육욕 - 교만한 눈으로 女성도 보지 말라 <br/><br/> A씨는 청년부 소속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목사는 29일 그에 대해 “목사들 모임에서 ‘이런 얘긴 교인 수가 좀 되는 목사가 얘기해야’라며 교회 규모를 자랑하더라. 교만해 보였다”고 했다. 서울 S교회 목사는 여신도에게 안마 등 부적절한 행위를 요구하다 사임했다. 다른 목사는 그에 대해 “<span class='quot0'>교인 수가 늘수록 점점 거만해지더라</span>”고 전했다.<br/><br/> 한 목회상담 전문가는 “카리스마를 지향하는 목회자는 교인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려 한다. 교만한 태도로 힘을 과시하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경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으로 ‘교만한 눈’(잠 6:16∼17)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양이다. 이 양을 돌보기는커녕 해친다면 목회자라 할 수 없다.<br/><br/> 조심성 있는 목회자는 교회에서 누구를 만날 때 방문자를 교역자들에게 미리 알린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용차 조수석에는 여성도를 앉히지 않는다. 여성도와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고, 심방을 할 때는 동역자를 반드시 동반한다. 30여년 동안 목회를 해온 홍문수 신반포교회 목사는 “혼자 된 여자 집사님이 급히 심방을 요청했을 때 당황했다. 혼자 가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외출 나갔던 아내를 기다려 함께 간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br/><br/> 적극적인 예방은 사역과 가정사에 아내와 동행하는 것이다. 70대 중반의 한 원로 목사는 “집에서 진수성찬을 먹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햄버거를 찾지 않는다. 목회자가 아내와 자주 대화하고 즐거운 부부 생활을 한다면 성적 일탈은 없을 것”이라며 “영적 거장도 가정 목회에 실패하면 최종적으로 실패”라고 단언했다.<br/><br/> <br/>◆ 물욕 - 헌금을 ‘내 돈’처럼 쓰지 말라 <br/><br/>서울 양천구 한 대형교회를 담임하다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산 목회자 B씨. 그는 제자훈련으로 교회를 부흥시켰고, 한때 신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은 목회자였다. 그러던 그가 왜 추락했을까. B씨와 교류가 있던 한 목회자는 “그는 당회의 의사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명의나 제3의 계좌를 이용해 각종 행사에 공금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br/><br/> 사법 당국은 공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시점부터 불법적인 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교회 자금은 대부분 교인들이 낸 헌금이다. 사도 바울은 헌금을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했다. 비자금 조성 등 교회 자금 횡령은 하나님의 창고를 터는 것이다.<br/><br/>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목회자들은 모든 교회 지출을 당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재정부서 담당자가 직접 집행하도록 한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50대 목사는 “<span class='quot0'>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에는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제출한다</span>”고 했다. 예를 들어 지난 연말 교회 여선교회가 바자회 수익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목사는 해당 기관 은행 계좌에 이체한 뒤 영수증 2부를 받아 1부는 교회 행정실에, 1부는 자택에 보관 중이다.<br/><br/> <br/>◆ 권력욕 - 장(長) 되려고 발버둥치지 말라 <br/><br/>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총회장 선거 때마다 ‘돈 봉투’ 살포 논란이 있었다. 약 10년 전부터 보수교회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금권 선거를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 기간 대표회장을 지낸 목회자 C씨는 “여러 유혹이 많았지만 기도로 대표회장이 됐고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고 했다. 최근 연임한 이영훈 대표회장은 선거 없이 박수로 추대됐다.<br/><br/> 한 원로급 목회자는 “목사들은 일반 기업과 달리 승진이 없다. 평생 목사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명예욕이나 권력욕이 강해지다 보니 돈을 써서라도 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교회 연합 조직의 직함을 얻거나 교계 행사의 순서를 맡기 위해 애쓰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 한 소장파 목사는 “직책이나 순서를 맡으려면 후원금 등을 내야 한다. 돈을 내려고 무리하다 보면 교회 재정을 낭비하거나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br/><br/> 예수는 제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만 했다(요 21:17).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몇 해 전 암 투병을 했던 60대 후반의 원로 목사는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목회라는 소명을 다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예수라는 ‘빛’을 가슴에 품고 매순간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br/>◆ 교만 - 성도들을 이기려 하지 말라 <br/><br/>목회자 D씨는 교회 개척 후 3년 가까이 장로와 당회에서 사사건건 다퉜다. 어느 날 장로 한 명이 그를 찾아왔다. “○장로가 목사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욕하고 다닌다. 제가 목사님을 보호해주겠다.” 입지의 위기를 느낀 D씨는 동료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목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엎드려라. 목사는 교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갈라진다.”<br/><br/> D씨는 그 목사의 말을 듣고 당회에서 장로들의 입장을 듣게 됐다. 그러자 교회가 조용해졌다. 그는 “당시 나는 독단적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했다. 장로가 원했던 것은 ‘경청’이었다”고 회고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어떤 면에서 목회자는 각 지체가 하나가 되도록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 자신을 낮추고 희생할 때 공동체는 오히려 살아난다.<br/><br/> 수도권의 대형 교회 50대 목사는 “나는 사소한 결정이라도 당회 등 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를 거친다. 공론화 과정에서 더 좋은 의견도 나오고 공유가 돼 일이 잘된다”고 했다.<br/><br/> <br/>◆ 나태 - ‘천국 티켓’ 받은 걸로 착각 말라 <br/><br/>목회자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김대동 한국상담목회자협회 회장은 “<span class='quot1'>목사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기 전에 본인을 대상으로 먼저 목회를 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교인 수와 헌금 액수에 연연하는 것은 맘몬 숭배의 한 모습이다. 세속주의 조류 속에 ‘불안’이나 ‘나태’의 노예가 되는 목회자도 있다.<br/><br/> 생계에 대한 염려로 안정된 교회 보직에 안주하거나 자신의 영장인 성장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40대 중반의 수도권 교회 부목사 E씨는 “교회 개척을 해야 할 때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빙하기’라는 말에 위축이 된다. 아내와 자녀가 있다 보니 생계를 걱정하게 된다. 이것도 죄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김기홍 Faith목회아카데미 학장은 “<span class='quot2'>목회자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에게 적용해 실천해야 한다</span>”고 강조한다.<br/><br/> 주찬양선교단을 창단한 최덕신(54) 전도사는 지난 25일 저녁 자서전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더드림)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열었다. 북콘서트는 흔들렸던 한 사역자의 회복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그는 2003년 첫 부인과 이혼한 뒤 2006년 현재의 아내와 재혼했다. 이 과정에서 이혼 전 일부 그의 부적절한 사생활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br/><br/> 최 전도사는 이날 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차남 의선, 재혼한 아내, 그 아내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 의로미, 처형과 함께 무대에서 자작곡 ‘주의 은혜라’를 불렀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아름다운 가족을 이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과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았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하나님, 가정, 사역 순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됐다. 목회자를 포함한 크리스천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65.txt

제목: [김경철의 닥터 바이블] 스트레스 사회에서 생존하는 법  
날짜: 2016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29180915393  
본문: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스트레스라는 주제만큼 격렬한 공감을 얻는 것이 또 있을까.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본(61%), 미국(40%)에 비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보유율(95%)을 자랑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직장인뿐 아니라 주부 청년층 노년층 심지어 아이들까지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다.<br/><br/> 그러다보니 진료실 내 거의 대부분 증상과 질병들이 스트레스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다. 불면 우울 만성피로 두통 요통 소화장애 체중증가 변비 탈모 등 일상생활에서 흔한 증상뿐 아니라, 심장병이나 암 같은 질환의 유발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스트레스이다. 항암제나 최신 기법의 수술보다도 어쩌면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치료가 있으면 그것이 환자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br/><br/> 성경에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탈진했던 인물들이 많다. 모세는 끝없는 불순종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며 십계명 돌판을 던졌으며,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지며 자살충동을 고백했다. 불임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 내내 이어진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시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몇 번이고 인류 구속의 큰 부담을 내려놓고 싶어 했다. <br/><br/>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첫 단계는 영어로 ‘파이팅(Fighting, 투쟁)’ 하는 단계다. 스트레스가 주는 공포감을 극복하기 위해 아드레날린과 호르몬이 증가하고 온 신체 리듬을 최대한 끌어올린다.<br/><br/> 이 때 경험하는 것이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 우세 증상들이다.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자율적으로 조절해 다양한 외부 반응 속에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이 자율신경이 망가지는 상태에선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것이다. <br/><br/>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열쇠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인데, 교감신경이 곤두세워지는 급성 스트레스 시기엔 반드시 한던 것을 잠시 멈추고 신경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음악과 명상 그리고 깊은 호흡이다. 필자의 병원에서도 이 훈련을 시키는 장치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클래식 음악이다. 마치 사울 왕이 극심한 번뇌에 쌓였을 때 다윗이 연주하는 하프가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음악은 자율신경을 회복하는 좋은 도구이다. <br/><br/> 녹차에서 추출되는 테아닌 같은 식품들도 교감신경을 낮추는 좋은 처방이다. 급성 스트레스가 식욕부진, 불면으로 이어져 체력저하, 몸의 탈진, 만성피로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하며,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수면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br/><br/>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과 잘 곳을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이 사용한 회복 첫 단계 방식이다. 스트레스란 어쩌면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일깨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영적 신호일 수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잘 다루어 멋지게 극복하도록 하자.<br/><br/> “<span class='quot0'>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span>”(약 1:2) <br/><br/>김경철<차의과학대학교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66.txt

제목: 노인 자살자 90% 질병에 시달렸다  
날짜: 20160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26174948152  
본문: 노인 자살자 10명 중 9명은 유서를 남기지 않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55%는 사망 당시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br/><br/>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6일 심리부검 대상 121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20명을 별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유서를 남긴 사람은 2명(10%)에 불과했다. 전체 자살자 42.1%가 유서를 남긴 것과 대조적이다.<br/><br/> 노인 자살자들은 대부분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았다.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노인이 90%(18명)였다. 질병 종류는 당뇨병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 4명, 신장 문제와 파킨슨씨병이 각 2명, 암 간경화 뇌졸중 골절 전립선비대증 관절염 등이 각 1명이었다. 3명은 장애가 있었다.<br/><br/> 정신 질환이 있는 노인이 80%(16명)였지만 이 중 치료를 받은 사람은 43.7%(7명)에 불과했다. 그중에도 입원 치료는 2명만 받았고 나머지는 외래 치료만 받았다. 사망 한 달 전에 찾아간 기관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병·의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과를 찾은 경우는 4명에 불과했다.<br/><br/> 노인 자살자의 70%(14명)는 사망 전 3개월간 직업이 없었다. 사망 당시 월평균 소득도 50만원 이하가 55%(11명)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이 20%(4명)로 뒤를 이었다. 3명은 기초생활수급자, 2명은 차상위계층이었다.<br/><br/> 노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살하는 비율이 전체에 비해 낮았다. 20명 가운데 20%(4명)만 사망 시 음주상태였다. 121명 전체 자살자는 약 2배 높은 39.7%가 술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인 자살자의 55%(11명)는 사망 전 가족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스트레스는 자녀 문제로 인한 경우(9명·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가족의 질병 및 사망(6명), 형제자매와의 갈등(4명) 순이었다.<br/><br/>권기석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67.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암환자·가족 생활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날짜: 20160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25201646848  
본문: 삼성서울병원은 암 병원 소속 전문의 100여명이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해 집필한 생활가이드북 ‘암치유 생활백과’ 개정판을 새로 발간했다.<br/><br/> 개정판은 표적치료 이해하기 같은 최신 정보를 추가하고 암 증상관리, 치료 후 생활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 환자와 가족이 궁금해 하는 문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백과사전식으로 엮었다. 510쪽, 2만4800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68.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날짜: 2016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24175534428  
본문: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전능자가 오셨다가 가셨으면 그냥 가셨겠는가?”(요 16:28)<br/><br/> 이것은 2011년 12월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에서 열렸던 ‘다시 복음 앞에’ 연합집회에서 전한 말씀이다. 나에게 복음은 생명이며 삶의 이유다. ‘복음’으로만 사람이 변하고, ‘복음’으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br/><br/> 한국교회의 복음화 비율이 20%라지만 20대는 3.7%, 10대는 4%에 불과하다. 한국교회의 이런 위기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유럽 교회의 몰락 절차를 그대로 밟을 것이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br/><br/> 해답 이전에 정확한 원인 진단이 앞서야 한다. 나는 이 시대가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 즉 복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오직 해답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 즉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br/><br/> 복음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다(요19:30, 롬14:7-9).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사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복음의 능력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 <br/><br/>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고전15:17, 히2:14,15),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요일3:8). 또 영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요10:10), 옛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다(고후5:17). 이것뿐이 아니다. 복음은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킨다. <br/><br/> 복음은 지식도 이론도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롬1:16)이다. 이 복음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한다면 세상 것들로 마음이 혼미해져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고후4:4).<br/><br/> 나는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를 고민하면서 오직 한 길만을 달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초대교회를 세운 원형의 복음인 부활의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과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br/><br/> 이제 전진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2009년, 폐암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그 암 선고가 내게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였다. ‘전능자가 오셨다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신 복음의 능력’이 죽음 앞에 선 나에게 그대로 임했다. 내 마음에는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염려나 두려움도 없이 큰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쳤다.<br/><br/>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고, ‘복음’과 ‘공동체’를 위해 생명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폐암을 완치시켜 주셨고, 나는 더욱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복음에는 인간의 죽음조차 삼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임한 사람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다.<br/><br/> 다 가진 자(고후 6:10)는 오직 푯대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br/><br/>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69.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남편의 이혼 요구·빚 폭탄·암… 모든 문제 풀어주신 예수님  
날짜: 2016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24174517352  
본문: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나는 대학생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는 총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능력 있었고, 연애 중에 300통의 편지를 쓸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다.<br/><br/> 그러던 어느 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는 말씀이 마음에 크게 다가와 군복무하던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나 그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탈영도 했고, 기찻길에 뛰어들기도 했다. 결국 9년을 사귀고 결혼했다.<br/><br/> 결혼 후 남편의 반대로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1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내게 이혼하자고 했다. 앞이 캄캄했다. 남편과 함께라면 이 세상 끝날까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의 이런 생각과 이 세상 모든 가치관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 이 세상이 어둠이고(요1:5),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곳(요일2:16)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다. <br/><br/> 이 일로 처음 내 시선이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되었다. 하늘나라가 실상이고, 이 세상이 다 허상이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이라는 것과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제야 정확해졌다. <br/><br/> 주인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욕심대로 결혼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다. 내 인생은 내것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다. 정말 가슴 아프게 통회가 되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들였다. <br/><br/> 그때부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가정이 지켜지고, 어떤 고난이 와도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다. 내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삶의 모든 것은 해결되었다. <br/><br/> 당시 남편은 춘천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했다. 그러다가 IMF사태 때 부도가 났고 2억원이라는 빚이 폭탄처럼 떨어졌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2층 양옥집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남편과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지냈다. 나 또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야반도주하듯 33㎡(10평) 원룸으로 이사했다. 단칸방에서 어린 아들 둘과 함께 감자와 김치로 끼니를 때우는 힘든 생활을 했다. <br/><br/> 이렇게 비록 삶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은 점점 깊어갔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니 돈에 대한 모든 염려가 사라졌다. 불평이 사라졌고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졌다. 아이들도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10년 넘게 월급을 차압당하는 등 고난은 여전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 위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늘 주셨다. 남편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은 다시 번창했다. <br/><br/> 그러나 고난은 다시 내 앞에 찾아왔다. 유방암 선고를 받은 것이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남편과 나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내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확신이 들어 암도 주님께 맡겼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고 주님만을 위해 살고 있다.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맡아 아이들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다. 오늘도 나는 아이들에게 말한다. “<span class='quot0'>절망이 찾아와도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행복한 사람이란다.</span>” <br/><br/>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70.txt

제목: [이기수 기자의 건강쪽지] 한국도 피부암 안전지대 아니다  
날짜: 20160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22212715208  
본문: 구미 각국과 달리 피부암 안전지대로 꼽히던 한국도 피부암에 대해 더 이상 안심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br/><br/>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유명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지난 15일, 75세의 나이에 타계한 것이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고인은 2015년 중반 암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진단부터 사망까지 6개월여밖에 안 걸린 셈입니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피부암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 1만980명이던 환자 수도 2013년 1만5826명으로 44.1%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br/> 악성 흑색종은 피부암 중 가장 고약한 암입니다. 멜라닌 색소 세포가 악성종양으로 변하면서 생깁니다. 어느 부위서 시작됐든 뇌와 척수로의 전이가 주요 사망 원인이 됩니다.<br/><br/> 조심해야 할 것은 가려움이나 통증 같은 자각 증상이 없고 그저 평범한, 검은 반점으로 보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에 없던 검은 점이 새로 생긴다든지, 이미 있던 점이라도 모양과 크기, 색조가 변할 때는 흑색종을 의심,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br/><br/> 특히 60세 이후 손과 발, 얼굴 부위에 이 같은 현상이 생길 경우 꼭 피부과를 방문,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이준영 교수는 “<span class='quot0'>악성 흑색종 환자 중 24.8%가 60대이고, 37.4%는 70세 이상 노인이라는 보고가 있다</span>”고 지적했습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이기수 의학전문기자의 건강쪽지 전체 목록 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71.txt

제목: 4대 중증질환·임산부·노인 健保 적용 늘린다… 복지·여가부 업무보고  
날짜: 2016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20222851585  
본문: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유도초음파와 수면내시경 검진에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읍·면·동 주민센터가 ‘복지허브’가 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br/><br/> 보건복지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가진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과 임산부·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관련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새롭게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환자 부담이 약 2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와 관련해서도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33%까지 낮출 계획이다. 간호사가 환자의 간병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옛 포괄간호서비스)를 하는 병원도 지난해 말 기준 112곳에서 400곳으로 늘린다.<br/><br/> 7월부터 무료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제왕절개 시 입원비 본인부담은 20%에서 0∼10%로 줄어든다. 9월부터 분만 전후 1인실 등 상급병실 이용에 대해 입원료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br/><br/> 또한 복지부는 2018년까지 전국 읍·면·동 3496곳 모두를 복지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올해 700곳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할 방침이다. 각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 전담팀은 찾아가는 서비스, 가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복지인력을 1600명 더 확충한다. 지난해 말 구축한 빅데이터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br/><br/>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액(생계+주거)도 월평균 45만6000원에서 51만7000원으로 높아진다.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전국 153곳에서 지정·운영된다.<br/><br/> 한편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연·재택근무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20만∼3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에게 모성보호제도를 미리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비정규직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72.txt

제목: 고령층·유병자도 가입… 삼성화재 건보상품 출시  
날짜: 2016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20210837379  
본문: 삼성화재는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과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간편하게 건강하게’(사진)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 검사(재검사),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수술, 5년 이내 암 진단·입원·수술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상해·질병 사망 시 최고 3000만원,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br/><br/> 고세욱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73.txt

제목: 한방진료비 보장되는 보험 출시  
날짜: 2016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20183555892  
본문: 현대라이프생명이 업계 최초로 한방치료비까지 보장하는 ‘현대라이프 양·한방건강보험’을 지난 10일 출시하면서 그동안 보험이 보장하지 못했던 한방 진료의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졌다.<br/><br/> 현대라이프생명이 출시한 상품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중대질환 발생 시, 진단금과 병의원 치료비는 물론 첩약, 약침, 물리치료 등 한의원 치료비도 정액 보장한다. 또 재해로 인한 수술 및 골절치료까지 보장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재해사고부터 중대질환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질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는 물론 양한방 협진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비까지 고려한 상품이다. <br/><br/> 한방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은 현대라이프의 ‘양·한방건강보험’이 업계 처음이다. 한방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과도한 보험금 지급과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부족으로 그동안 상품개발이 어려웠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한의학 의료기관의 숫자는 1만4903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20%를 차지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54조5275억원 중 한의학 치료비는 2조4005억원으로 4% 수준에 불과했다.<br/><br/> 현대라이프생명은 기존의 보장성보험이 양의학의 병원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한방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br/><br/>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상품개발은 6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MOU를 맺고 공동작업을 하는 등 1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치면서, 양방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한방치료비를 보장한다는 역발상으로 통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br/><br/> 상품 가입 후 일반암으로 진단받고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협진 치료를 받는다면 진단비 3000만원, 항암방사선 치료비와 항암 약물 치료비로 각 100만원씩 보장되고, 첩약은 3회까지 회당 100만원, 약침과 물리치료는 5회까지 회당 10만원씩 보장받을 수 있다. 40세 남자 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 20년납 순수보장형 선택 시 월 보험료는 4만4700원이고, 보장 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은 없다. 만 20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br/><br/> 김진환 기자 goldenbat@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74.txt

제목: [단독] 가정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 서울성모·고대구로병원 등 18곳 신청  
날짜: 2016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9214330097  
본문: 3월부터 시행되는 말기 암환자 대상 ‘가정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서울성모병원 등 18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려는 암환자 수요가 많아 대부분 시범기관으로 지정될 전망이다.<br/><br/> 가정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집에 머무는 말기 암환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통증완화치료, 상담, 영적 지지, 보호자 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제도적 지원이 미흡해 활성화되지 못했다.<br/><br/> 보건복지부는 지난 4∼14일 기존 호스피스전문기관(66곳)을 대상으로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7곳, 종합병원 7곳, 병원 2곳, 의원 2곳 등 모두 18곳이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br/><br/>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고려대구로병원, 서울시립북부병원, 부산성모병원, 아주대병원, 부천성모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안양샘병원,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주엠마오사랑병원, 순천성가롤로병원, 울산대병원, 대구의료원, 수원기독의원, 모현센터의원 등이다.<br/><br/> 복지부 관계자는 “모두 입원형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곳이어서 노하우가 많다. 암 관리법의 필수인력 기준 등을 충족하면 대부분 시범기관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되도록 많은 시범사업을 통해 적절한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적정 방문 횟수 등), 서비스 모델, 예산지원 규모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br/><br/> 복지부는 가정호스피스를 받는 환자가 월 5만원 정도를 부담하도록 설계했다. 환자 부담액은 간호사 단독 방문일 경우 1회 5000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하면 1만3000원 수준이다. 월 진료비는 전담 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 기준으로 산출된다. 복지부는 29일 최종 선정된 기관을 발표하고, 다음 달 시범기관 교육 및 건강보험 청구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75.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47) 코 알레르기 전문 영동한의원 김남선 원장팀] 한방 ‘칵테일 요법’으로…  
날짜: 2016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9040740375  
본문: 에이즈에는 물론 유전자 타입이 달라 표적치료가 어려운 진행 암을 치료할 때 두 가지 이상 약물을 동시에 쓰는 경우가 있다. 여러 약물을 같이 써 파괴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현대의학의 다제(多劑) 병용요법, 즉 ‘칵테일 요법’이다.<br/><br/> 한방에도 이런 치료법이 있다. 한 가지 질환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코에서 폐에 이르는 호흡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 잡기 식이다. 알레르기 비염부터 기관지천식,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섬유화증까지 다양한 호흡기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 심지어 키가 작아 고민하던 소아청소년은 코 알레르기 치료 후 키가 쑥쑥 자라는 효과를 덤으로 얻기도 한다.<br/><br/> 코 알레르기 전문 영동한의원(원장 김남선)이 주로 처방하는 한약 ‘김씨영동탕(金氏永東湯)’ 얘기다. 이 처방에는 전통 한약 소청룡탕(小靑龍湯)과 소건중탕(小建中湯)을 기반으로 신이화(辛夷花), 금은화(金銀花), 삼백초(三白草) 등 35가지 약초가 배합돼 있다. 여기에 체질에 따라 손상된 폐·기관지 점막을 재생하고 면역력도 강화시키는 녹용(鹿茸), 녹각교(鹿角膠), 우슬(牛膝), 홍화자(紅花子), 토사자(娼悠?, 속단(續斷) 등 한약재를 적절히 가감한다.<br/><br/> 김남선(64) 영동한의원 원장에 따르면 소청룡탕은 코와 기관지, 폐에 작용해 기침, 가래, 콧물, 코 막힘을 잡는다. 소건중탕은 위와 장·콩팥의 면역력을 올리고 수독(水毒)을 빼는 역할을 한다. 금은화는 염증과 점막의 부종을 치료한다. 신이화는 호흡곤란과 숨찬 증상, 코 막힘, 입 호흡 습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녹용과 녹각교는 흡연, 미세먼지, 자동차배기가스 등 공해물질로 손상된 폐포(肺胞)를 재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연구결과 녹용·녹각교에 포함된 ‘판토크린(pantocrine)’ 성분이 죽은 폐포에 새싹을 틔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화자는 폐의 점액 순환 부족을 근본적으로 다스려 폐 기능을 활성화시킨다.<br/><br/> 영동한의원이 알레르기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을 잘 고치는 의료기관으로 유명세를 탄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전국 어느 지역보다 교육열이 높은 서울 강남지역답게 주위가 산만해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머리가 띵해 학습에 방해가 된다며 한의원을 찾는 초중고생 환자가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진찰을 하면 신기하게 코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span>”고 회고했다.<br/><br/> 김 원장이 코 질환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배경이다. 같은 동양권이면서도 동양의학, 한의학, 중의학 등의 이름으로 전통의학을 제도권에서 허용하는 일본, 대만, 중국의 최신 연구보고서도 열심히 구해 읽었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소아 알레르기는 콧물, 코 막힘 증상 외에 정상적인 성장·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많아 흥미로웠다</span>”고 강조했다.<br/><br/> 유아기, 성장기 코 질환은 저절로 치유되는 경우가 약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축농증이나 만성비염으로 발전하고 성장·발육에 악영향을 주며 정서불안까지 합병하기 일쑤다. 아이들의 바른 성장·발육을 위해 코 알레르기 퇴치가 우선이라는 말이다.<br/><br/> 영동한의원이 주목하는 코 알레르기의 한의학적 원인은 수독이다. 수독이 몸에 쌓여 넘치는 것이 콧물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수독이 폐, 기관지, 코 점막에 쌓였다가 찬 공기, 먼지, 진드기 같은 알레르기 소인을 만나면 재채기나 콧물을 유발한다</span>”고 말했다.<br/><br/> 같은 이치로 수독이 기관지에 쌓이면 가래, 기침을 유발하고 천식의 원인이 된다. 폐에 쌓이면 폐렴,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발전하며, 성장판이 자리한 관절과 척추에 쌓이면 키 성장을 방해한다. 성장판 연골의 온도가 낮아져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덩달아 성장세포 분열이 둔화돼서다.<br/><br/> 실제 영동한의원이 수독으로 콧물·코막힘, 수족냉증 증상이 있는 여중고생 152명을 조사한 결과 같은 연령대의 평균 키에 못 미치는 학생이 8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수독을 제거하면 알레르기 비염은 물론 키가 잘 자라는 성장 및 발육 촉진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김남선 박사는<br/> ‘코 박사’ 소문에 외국인도 북적… 틈만 나면 외국어 ‘열공’<br/><br/><br/>1952년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났다. 서울 경복고를 거쳐 1978년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했다. 석·박사학위는 1984년 모교 경희대에서 취득했다. 현재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위원, 전(全)일본 침구학회 정회원이다. 미국 LA 경산대학교 한의대(KSU) 교수와 경희대 한의대 외래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br/><br/> 우연인지 필연인지 코가 잘 생긴 이 한의사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코 알레르기 치료의 권위자다. 한의원을 처음 연 것은 1979년이다. 그간 진료한 환자가 50만여명에 이른다. 대부분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천식, 아토피 환자다.<br/><br/> 김 박사의 진료철학은 ‘난치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치료하자’이다. 그 탓일까. 그는 누구보다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하다.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늘 연구한다. 글이나 미디어를 통해 환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려 애쓴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대만, 중국에서 세계동양의학회와 일본동양의학회가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에 해마다 참가해 한방 임상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큰 호응을 얻은 ‘명의가 가르쳐주는 코 알레르기 치료법’ 외에도 ‘코가 잘 생긴 코 박사의 코 알레르기 이야기’ ‘코 건강한 아이가 키도 쑥쑥 크는 이유’ ‘기침·천식·비염 한방으로 잠재우기’ 등 저서도 20권이나 된다.<br/><br/> 신동우 국회의원(새누리당),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유지수 국민대 총장,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김윤 삼양그룹 회장과 막역한 사이다. 모두 고교 동창이다. 서울대병원 내과 오병희(병원장), 강남성심병원 내분비내과 유형준.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오정환, 인천성모병원 성형외과 김봉겸, 한양대류마티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신규, 가천대길병원 산부인과 박종민 교수도 마찬가지다.<br/><br/> 김 박사는 요즘 틈만 나면 하는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가족이나 마음에 맞는 친구와 즐기는 골프다. 다른 하나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익히기다.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를 통역 없이 직접 봐주기 위해서다. <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76.txt

제목: [인사] 관세청 外  
날짜: 20160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8213457629  
본문: ◆관세청<국장급>△인천세관장 김대섭<br/><br/>◆특허청<일반직 고위공무원>△산업재산정책국장 김태만△특허심판원 심판장 권혁중△기획조정관 손영식<br/><br/>◆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이세열△전문위원 서남덕△방사선규제단장 정재학△비상대책단장 김균태△원자력안전연구실장 강성식△법령기준실장 이진호<br/><br/>◆한국천문연구원△광학천문본부장 경재만△우주과학〃 조경석△행정부장 곽우근△우주위험감시센터장 조중현<br/><br/>◆삼성서울병원△진료부원장 박윤수△기획총괄 고광철△QI실장 박승우△건강의학본부 건강의학센터장 최윤호△진료운영실 실차장 정철원△암병원 위암센터장 김재준△〃 간암〃 백승운△〃 암치유〃 안진석△심장뇌혈관병원 심장뇌혈관병원장대행 전은석△〃 심장센터장 권현철△대외협력실장 이준혁△전략기획팀장 손태성△CRM〃 양광모△QPS〃 이준행△환자행복〃 성기선△위기대응·PI〃 김덕경△골관절센터장 문영완△감염병대응〃 정두련△연구전략실장 윤엽△연구전략실 실차장 유규하△중개융합의학연구소장 고재욱△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장 장동경△임상역학연구〃 서지영/엘리세오(공동)△임상의학연구소장 박영석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77.txt

제목: ‘사색의 삶’ 추모 발길… 한줌 유해, 학교 수목장으로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211551668  
본문: 감옥 독방조차 그에겐 사색의 공간이었다. 지난 15일 세상을 떠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사색했을까? 가까이에서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에 따르면 신 교수는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을 정리했다.<br/><br/> 16일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성공회대에서 만난 출판사 돌베개의 한철희 대표는 “<span class='quot0'>교수님은 집에서 죽음을 맞고자 하셨다</span>”며 “<span class='quot0'>본인이 원하는 대로 죽음을 맞으셨다</span>”고 말했다.<br/><br/> 신 교수는 2014년 말 암 진단을 받았다. 처음엔 갑상샘 문제 정도로 알고 있었으나 정밀 진단 결과, 피부암으로 확인됐다. 폐의 피부에 종양이 생긴 것으로 동양인에게는 희귀한 암이다.<br/><br/> 암 진단 이후 신 교수는 신약 실험 그룹에 참여하는 등 치료에 적극 나섰고, 상태가 호전되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 10월쯤부터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했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신 교수는 그 뒤로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올 들어서는 모든 치료를 끊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다.<br/><br/>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의식이 있으셨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시고 편안히 가셨다.” 신 교수의 제자로 임종을 지켜봤다는 공연연출가 탁현민씨는 이렇게 전했다. 고인은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도 제자들과 상의해 결정했다. 임종 며칠 전 찾아온 제자들이 학교장이 어떻겠냐고 말씀드리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br/><br/> 장례식은 18일 오전 11시 성공회대 학교장으로 치러진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장례식 사회를 보며, 가수 정태춘씨가 추모곡을 부른다. 시신은 화장한 뒤 유해는 성공회대 교정에 있는 나무에 뿌려진다.<br/><br/> 성공회대는 ‘신영복 기념관’(가칭)을 조성할 예정이다. 장례식 대변인을 맡은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는 “<span class='quot1'>신 교수님은 우리 학교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신 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장례식 이후 기념사업을 어떻게 할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선 기념관을 짓자는 의견은 모아진 상태</span>”라고 말했다.<br/><br/> 성공회대 성미가엘 성당에 차려진 빈소에는 많은 시민이 찾아와 조문했다. 16일 하루에만 2500여명이 다녀갔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 노회찬 전 의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조문했다.<br/><br/> 빈소 옆 건물에서는 ‘고 우이 신영복 석좌교수 추모전시회’가 자그맣게 열리고 있다. 고인의 글씨와 책들을 생전의 영상과 함께 만날 수 있다. 17일 오후 7시30분에는 교내 피츠버그홀에서 ‘신영복 추모의 밤’ 행사도 열렸다.<br/><br/> 신 교수는 20년20일을 감옥에서 보내고, 이후 27년5개월을 자유인으로 살았다. 향년 75세였다. 고인은 빼어난 문장가이자 동양고전학자, 서예가로도 유명했다. 감옥에서 쓴 편지를 모아 엮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1988년 출간된 후 시대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으며 ‘어깨동무체’로 명명된 그의 글씨는 ‘처음처럼’(소주) 등 여러 브랜드에 사용되기도 했다. 돌베개는 다음 달 저서 ‘처음처럼’ 개정판을 발간한다.<br/><br/>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78.txt

제목: [암과의 동행-뇌종양 치료] 장종희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 “양성종양도 제거하는게 최선”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85522044  
본문: 뇌종양은 한국인을 위협하는 암 중 발생률 10위권 밖에 자리한 암이다. 발생률은 낮지만 언어장애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남기기 때문에 전조증상과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br/><br/> 뇌종양은 뇌의 특정 위치에 암이 생겨난 것을 말한다. 암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나타나는 전조증상이 다르다. 커진 종양이 시신경을 누른다면 시력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커다란 종양이 뇌압을 상승시켜 두통을 일으킨다. <br/><br/> 이와 같은 증상을 한 달 이상 느꼈다면 뇌를 보는 신경과와 신경외과를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 종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촬영(MRI)검사가 필수다. MRI 검사는 종양이 위치한 해부학적 위치를 판단하는 검사방법이다. <br/><br/> 뇌종양이 무서운 질환인 점은 특별한 전조증상이 없고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종양이 커진 상태라는 것이다. 장종희 신촌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사진)는 뇌종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당부했다. 장 교수는 “뇌에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종양이 커질 때까지 주변 뇌를 압박하지 않는 한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주변 신경과 뇌를 압박할 때는 악성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br/><br/> MRI 영상검사를 통해 양성의 뇌종양을 진단받았으나 증상이 없다면 환자는 치료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최선의 치료전략이 두개골을 열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기 두려운 것이다. 장 교수는 “일단 뇌를 연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일반인의 두려움이 크다. 이렇다보니 특별한 자각증세가 없으면 일단 수술을 미루려는 환자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br/><br/> 양성이라도 뇌종양은 제거가 기본 치료원칙이다. 주변 뇌를 눌러 장애를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종희 교수는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양성종양은 즉시 제거하지 않고 경과 관찰한다. 그러나 뇌종양은 양성이라도 제거해야한다.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들에게 질환 설명을 길게 하는 까닭도 뇌종양만의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 성인에서의 뇌종양은 주로 전이가 원인이다. 다른 신체 부위에서 기인한 암이 뇌로 퍼진 것이다. 다행인 점은 과거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옵션이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악성 뇌종양의 경우 수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 선택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요법과 항암제도 다양해졌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span class='quot0'>재발한 환자라도 방사선치료 용량을 줄여 재시도할 수 있고 항암요법도 일부 환자에서 효과를 보인다</span>”고 말했다.<br/><br/> 전이성 뇌종양의 비율이 높은 만큼 암환자에게 뇌종양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장 교수의 생각이다. 장종희 교수는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이 뇌로 전이될 수 있다. 뇌종양의 전조증상을 미리 알고 그 증상을 느꼈다면 MRI검사를 통해 뇌 전이 유무를 확인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7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일평생 동안 암 걸릴 확률 36.6%… 암 발병여부 확인하는 것이 효도 첫 걸음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85520454  
본문: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가 밝았다. 신년이 되면 부모님의 건강을 우려해 건강검진을 권장하는 자녀들이 많다. 혹시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癌)이 발병한 것은 아닐지 염려하는 효녀, 효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한 살 더 들면서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암발병 확률도 증가한다. 현재 국내 주요 7대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갑상선암이 꼽힌다. 그 만큼 발생 비율도 높다는 의미다. 따라서 고령인 부모님들의 경우 7대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고령인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br/><br/>위암은 우리나라 암 사망률 3위이자, 남자에서 발생률 1위를 차지할 만큼 흔하게 발병한다. 위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며, 수술 후 큰 통증이나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 발견으로 완치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이 필수다. 유항종 원자력병원 위암센터장은 “위암은 다른 암에 비해 내시경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점막에서 발생된 암이 점막하층까지 진행하는 데 평균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초기에만 발견하면 100% 완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 간암은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의 특성상 초기에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증상만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렵다. 우상복부의 통증이나 체중 감소 또는 황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간암에 의해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병이 급격히 진행된 경우다. 따라서 부모님 중 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거나 만간경변 환자들은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로 조기에 간암을 발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가 간암의 암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현행 1년의 검진주기를 6개월로 조정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br/><br/> 기름기가 많은 음식, 지나친 육류섭취 등으로 대장암 역시 늘고 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대장암 검진을 통해 혹시 모르게 발견될 수 있는 대장용종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가족 구성원은 필히 조기 검진을 해야 한다. 이보인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장내시경으로 미리 대장용종을 찾아서 제거해주면 대장암의 약 80%를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없는 50대 이상 남녀에게 건강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을 하면 20∼30%에서 용종이 발견되므로 50세 이상이면 주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고 당부했다.<br/><br/> 폐암은 사망률이 높은 암이다. 흡연은 폐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수십 년째 담배를 끊지 못하는 집안의 어르신이 계시다면 필수로 금연과 함께 폐암검진을 권유하는 것이 좋다. 폐암은 약 30% 정도만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정기적인 검사하는 것이 좋다. 폐암의 예후는 병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폐암의 완전절제가 가능한 제 1기∼2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이 수술 시 각각 80%, 50%까지 보고돼 있으나, 수술이 불가능한 3기 후반 또는 4기 환자의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다. 최근에는 새로운 항암제가 개발되고 부작용이 적어 생존율이 증가했고 획기적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br/><br/> 7대 암에 속하지는 않지만 발병 후 예후와 생존율이 좋지 않은 췌장암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주요 암의 5년 생존율 중 유일하게 한 자리 수의 생존율(9.4%)을 보이고 있는 것이 ‘췌장암’이었다. 조기검진과 의학의 발전으로 우리나라 전체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69.4%로 대폭 상승했다. 그러나 췌장암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주요 암 중 췌장암의 예후가 나쁜 것은 발견이 어렵고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려운 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췌장은 우리의 뱃속에 있기는 하지만 등 쪽에 가깝게 위치해 있고 다른 장기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췌장암의 발견이 어려운 것이다. <br/><br/> 정철운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외과 교수는 “실제 췌장암 환자의 20% 정도만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단을 받는다. 췌장암은 발견하기 힘든 암이다. 췌장 건강 유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식사와 금주, 금연이다. 췌장암은 당뇨나 췌장염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당뇨나 췌장염이 있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도 잘 다스려야 한다. 정 교수는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80.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 기관절개공 관리… 외부 노출 삼가고 항상 습도 유지를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85517791  
본문: 국가암정보센터와 함께하는 ‘암환자 생활백서’에서는 암환자에게 꼭 필요한 기구관리 세 번째 ‘기관절개공’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br/><br/> 후두부분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 후 일시적으로 기관절개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호흡이 가능하고, 기도분비물을 제거하게 된다. 수술부위 붓기가 빠져서 기관캐눌라 없이도 기도가 확보돼 호흡하는 것이 가능하면 기관캐눌라를 제거할 수 있다. 이는 후두부분절제술 후 중요한 재활과정이다. 수술 후 기관캐눌라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 평균 1주 정도이다 이 기간 동안 기관캐눌라와 기관절개 부위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소독하는 것은 중요하다.<br/><br/> 기관캐눌라를 통해 호흡하는 경우, 흡입공기를 따뜻하고 습하게 해 주는 상부기도의 역할을 우회하여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직접 들이쉬게 된다. 따라서 폐에 분비물이 많이 생기고, 이러한 분비물이 기관캐눌라에 말라 붙어서 막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캐눌라가 막히게 되면 호흡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실의 습도를 유지하고 가습공기를 들이쉬게 해 주는 것이 이러한 상황의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 증가한 분비물에 대해서는 세심한 흡인을 통하여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캐눌라 종류에 따라서 환자 본인이 막힌 분비물을 제거하고 반복적으로 재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것도 있다. <br/><br/> 후두전절제술을 받게 되면, 영구적 기관절개공으로 평생 호흡해한다. 기도로 직접 연결되는 구멍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법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기관캐눌라 관리와 비슷하다. ▲기관절개공으로 이물질, 곤충, 먼지, 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다. 따라서 목욕이나 샤워시 잘 가려주어야 하고, 평소에 두툼한 천으로 만들어진 앞가리개(덮개)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외부에 기관절개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습도가 유지되는 환경에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차가운 날씨에서는 외부공기의 직접호흡을 삼간다. ▲앞가리개는 그 자체로서 외부공기의 가습과 온도조절이라는 상부기도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도 하므로 적극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좋다. ▲기도분비물은 자주 가볍게 닦아서 제거하여 기관절개공이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br/><br/> 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81.txt

제목: [암과의 동행] 국회 통과 웰다잉법 주요 내용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85518523  
본문: 말기암 등 임종기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말기암 등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자기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br/><br/> 법안의 핵심 내용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암 이외의 다른 질병 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법안에서 정의된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다. 또한 법안에는 ‘말기환자’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규정했다.<br/><br/> 이와 함께 법안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정의도 포함됐다. 법안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라고 정의됐다. 말기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의견을 사전에 담도록 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법적 규정도 포함됐다.<br/><br/> 연명의료 결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도록 했다.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 법안은 담당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고 담당의사 등의 확인을 거친 때로 한정했다.<br/><br/> 법안 통과 후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정부가 호스피스 법안통과를 시작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말기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비참함이 가속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호스피스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 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가 마련돼 환영한다”며 “적절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 수에 대한 새로운 추계와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말기환자 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 등의 노력 역시 시급히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82.txt

제목: [암과의 동행] 간암은 간염부터 다스려라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84423542  
본문: 간질환은 질환 발병 초기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간세포가 서서히 파괴돼 간 기능이 절반 이하로 저하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간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조기 예방을 통해 ‘간 건강’을 지켜야 한다.<br/><br/> 대표적인 간질환인 간암의 경우 국내에서는 남성은 암 사망원인 3위이자, 40∼50대 남성은 암 사망원인 1위 질환이다. 또한 연간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간암 사망자도 1만여명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다.<br/><br/> 지난해 서울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충격을 준 것은 C형간염이 ‘간암’을 일으켜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감염질환이기 때문이다.<br/><br/> 간암은 주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B형 또는 C형간염 보유자, 간염 환자나 간경변 환자에서 잘 발생한다. 따라서 만성 간질환 환자로 진단되면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해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나 CT, 혈액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br/><br/> B형,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대표적인 국내 만성 간질환이다. 국내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자 중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다는 과거 통계도 있다. 알코올성 간질환을 제외하고 간암 예방을 위해 B형, C형간염이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br/><br/> B형간염은 혈액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매년 약 2만여 명이 간질환으로 사망하는 데 이 중 만성 B형간염이 원인인 경우가 약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간경변, 간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정기검진은 필수다. <br/><br/> C형간염 역시 바이러스가 혈액에 침입해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수혈이나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 소독되지 않은 침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감염될 수 있다. 증상이 초기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상 C형간염이 진행된 후에야 감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성인이 C형간염에 감염되면 75% 이상이 만성간염으로 발전하며 만성 C형간염은 간경변증이나 간부전, 간암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 없는 C형간염은 자각증상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간경화나 간암으로 악하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C형간염 항체를 확인하는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br/><br/>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 감염은 예방백신 접종이나 오염된 체액 접촉 회피 등 감염 경로를 차단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간염에는 약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었으나, 최근 B·C형간염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 약들이 개발돼 상당한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B형간염에서 대표적인 치료제는 BMS제약의 바라크루드와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비리어드 등이 있다. <br/><br/> C형간염 치료제로는 BMS제약 다클린자와 순베프라가 있고, 최근 길리어드가 소발디와 하보니를 개발했다. C형간염은 ‘완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 치료제에 의존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자들의 유전자형에 따라 맞는 치료제가 달라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조세현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간염 등 간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이 간암 발병 위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br/><br/> 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83.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사노피, 서울대와 항암면역세포치료게 개발 外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84316372  
본문: ◇사노피, 서울대와 항암면역세포치료게 개발=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최근 서울대 산업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과 차세대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플랫폼(Immune Cell Therapy Platform) 개발을 내용으로 공동 연구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구협약은 서울대 의과대학 정준호 교수팀이 개발한 신규 항체와 KAIST 전상용 교수팀이 개발한 신규 펩타이드를 서울대 의과대학 최경호 교수팀의 면역세포기술을 이용해 면역세포에 결합시키는 내용이다. 공동연구는 개선된 항암 면역 세포치료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br/><br/>◇아스트라제네카 오시머티닙 유럽서 시판 승인 권고=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유럽의약국(EMA)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오시머티닙(AZD9291)80㎎’의 시판 승인을 권고하는 긍정적인 의견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오시머티닙은 1일 1회 투여 정제로, 국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를 위한 치료제이다. 이번 결정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 저해제(EGFR-TKI) 치료 중 혹은 치료 후에 질환이 진행된 비소세포성폐암 환자 및 EGFR-TKI 치료를 받지 않았던 T790M 변이 환자의 오시머티닙으로의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포함한다.<br/><br/>◇암젠코리아 ‘키프롤리스’ 식약처 허가=암젠코리아는 자사의 다발성 골수증 치료제 ‘키프롤리스(성분 카필조밉)’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키프롤리스는 세포 내 단백질 축적을 유도하는 프로테아좀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제다.<br/><br/>◇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보건복지부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 뿐만 아니라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84.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오신김에 검사 하나 하시죠”… 신뢰 깨는 의료진의 말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83427003  
본문: 60세 홍 씨는 얼마 전 대장의 삼분의 일을 잘라냈다. 잘라낸 부위에서 암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장의 일부를 잘라낸 탓이 본래 대장의 기능은 저하됐다. 장의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방귀를 뀌어대는 횟수가 잦아졌고 잦은 변의로 삶의 질이 떨어졌다. 그러나 ‘환자복’을 벗는 순간 그는 더할 나위 없는 자유를 느꼈다. 답답하고 지루한 병실 생활, 온갖 수액줄로 퉁퉁 부은 손등, 주삿바늘을 더 이상 꽂을 때가 없어 발가락에 놓는 상황을 견뎌온 그는 환자복을 벗고 병실을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 메마른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그렇게 그는 암환자에서 벗어났다.<br/><br/> 홍 씨는 자신을 수술해준 의사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다. 위급했던 그의 몸상태는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건강을 회복할수록 이 모든 게 의료진 덕분 같다. 그날은 홍 씨가 수술 후 세달여 만에 주치의를 다시 만난 날이다. 그날 주치의는 대장을 일부 떼어낸 홍 씨에게 위 내시경검사를 권했다.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추적관찰이라면 위가 아닌 대장내시경을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상했지만 홍 씨는 주치의 말을 믿기로 했다. 아팠던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따로 없다. “당신 위 내시경 받아야 해”라고 하면 아픈 사람은 여지없이 의사의 말을 따르게 된다. <br/><br/> 위 내시경을 받기로 한 날 홍 씨는 주치의와의 약속대로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위 내시경을 받아야할 대상자 목록에 홍 씨의 이름은 없었다. 예약이 안 되었나 싶어 주치의를 찾았다. 주치의는 애당초 홍 씨에게 위 내시경 검사를 오더내린 적이 없다며 이참에 췌장 초음파검사를 해보잔 얘기를 꺼냈다. 홍 씨는 황당했다. 고가의 검사는 아니지만 환자의 건강에는 별 관심이 없는 말투라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기자에게 “<span class='quot0'>검사 당 인센티브가 붙는다고 하던데 설마 이게 그런 상황인가 싶었다</span>”고 털어놓았다.<br/><br/> 많은 암 생존자들이 추적관찰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 재발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건강한 일반인보다 받는 검사의 수가 많고 그 간격이 짧다. 환자였기에 질병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검사하자’는 의사의 말에 환자 대부분이 수긍한다. 정석대로라면 왜 이 검사를 받는지,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검사인지 의사와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추가검사가 필요합니다” 식의 단출한 대화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닌지 환자 스스로 의문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주치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앞서 사례에서도 대장서 용종을 떼어낸 사람에게 위 내시경을 권하고 췌장 초음파 검사를 권했다.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내린 의학적 판단일 수 있지만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의사와의 면담은 단순히 다음 검사 날짜를 잡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애썼다”는 서로를 향한 고마움과 격려를 표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85.txt

제목: [암과의 동행-완치를 향한 위대한 도전] 90%가 겪는 허리통증 디스크 아닌 척추암일수도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83425347  
본문: 의료진과 환자는 진료 결과를 기다릴 때마다 긴장하게 되는데, 인생의 황금기라는 20∼30대의 젊은이에게 ‘암’이라고 진단 결과를 말 하는 일은 20여 년의 세월에도 매번 쉽지 않다.<br/><br/> 28세의 젊은 남자환자가 갑자기 걸을 수 없게 되었다며 본원을 방문했다. 환자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걸을 수 있는지,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등 의료진이 말 할 겨를도 없이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다. <br/><br/> 환자를 진찰한 결과 몸통 아래로는 발가락도 움직이지 못했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환자는 자기공명영상 MRI 촬영 검사를 시행했고, 등뼈인 흉추의 5번과 6번에서 발생한 척추암이 뼈를 무너뜨리고 척수신경을 심하게 압박해 하지 마비 현상이 생긴 상태였다. 조직검사 결과는 신경 껍질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진단됐다. <br/><br/> 환자는 처음 진료실 방문 당시의 경황없던 모습은 사라지고, 병명이라도 알게 되어 시원하다며 수술을 잘 부탁한다고 담담하게 얘기해 오히려 의료진들을 숙연하게 했다.<br/><br/> 환자는 종양을 제거하고 척추체를 보강한 뒤 나사못으로 고정시켜 주는 수술을 시행 받았고, 다행히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되었다. 환자는 수술 후 꼭 다시 걷겠다는 굳은 의지로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 걸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수술한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br/><br/> 허리 통증은 인구의 90%가 일생에 한 번은 겪는 흔한 증상이다. 이러한 허리 통증의 원인은 대부분 허리 디스크 병이나 퇴행성 관절 질환일 경우가 많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척추암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br/><br/> 허리통증과 다리가 당기는 통증이 나타났을 때 대개 물리치료, 약물요법 등으로 치료하지만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자기공명영상 MRI 촬영 등 적극적인 진단검사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 척추암의 치료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유방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등 기존의 다른 암으로 치료받던 환자가 목이나 허리 통증을 느낀다면 척추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검사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 <br/><br/> 척추암은 외과적 절제수술 뿐 아니라, 척추암의 범위가 넓거나 동시에 여러 곳에 암이 발생하여 절제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치료 등 첨단 치료법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br/><br/> 척추는 몸의 기둥 역할을 한다. 건물도 기둥이 무너지면 전체가 주저앉듯이 몸의 기둥인 척추건강도 무너지면 몸 전체 건강 또한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허리통증을 누구나 겪는 흔한 증상이라고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진단으로 척추건강을 잘 관리해야 하겠다. <br/><br/>장웅규 원자력병원 척추암 센터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86.txt

제목: [인터뷰] 올림푸스한국 오카다 나오키 대표 “송도 트레이닝센터 건립으로 의학기술 발전 토대 제공”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83424313  
본문: “올림푸스한국은 한국 기업이다. 연구와 생산은 일본에 있지만, 한국 고객을 위해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br/><br/> 지난 32년 동안 올림푸스에서 내시경과 외과수술장비 등 의료분야 업무를 담당해 왔던 오카다 나오키 올림푸스한국 대표이사. 그는 지난해 4월 한국에 부임한 뒤 고객서비스 실천과 회사 성장, 보람 있는 회사만들기,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 등 다양한 고민을 통해 올림푸스한국만의 경영방침과 성장 전략을 세웠다.<br/><br/> 이를 위해 오카다 나오키 대표는 지난해 전 직원들과 1대1 면담을 통해 올림푸스한국 만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다. 오카다 나오키 대표는 “<span class='quot0'>최고의 광학기술, 의료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고 한국사회의 건강과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비전</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명확한 경영 비전 제시로 최고의 광학·의료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span>”고 강조했다.<br/><br/> 비전 선포와 함께 올림푸스한국 임직원들은 ▲프로페셔널리즘 추구 ▲다양성과 팀워크의 융합 ▲최고의 고객대응품질 확보라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러한 핵심가치는 ‘건전경영 실천’,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 실천’, ‘일하는 보람 있는 회사 만들기’ 등 3개 경영방침 위에 수립됐다. 이와 관련 오카다 나오키 대표는 “<span class='quot0'>우리는 고객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한국사회와 한국민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내시경 장비를 통한 암진단, 복강경 등 외과장비를 통한 암수술 등에서 보다 좋은 제품가 기술력을 선보일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특히 인천 송도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트레이닝센터’는 올림푸스의 첨단 기술력과 한국 의료진들의 의학적 성과가 만나는 장으로 암은 물론 여러 질병 진단과 치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r/><br/> 오카다 나오키 대표는 “<span class='quot0'>암 등 질환 진단과 수술 등과 관련해 국내 관련 의학회와 의료진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의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꾸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 또한 올림푸스한국은 신제품이나 솔루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치료방법과 수술방법 등을 보급하기 위한 국내 의료진과의 공동연구 개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카다 나오키 대표는 “한국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발전을 위해 의료관계자와 얼마만큼 신뢰를 쌓았는가이다. <br/><br/> 이러한 점에서 오랫동안 올림푸스 내시경이 의료진과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이는 올림푸스와 올림푸스한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br/><br/> 이와 함께 오카다 나오키 대표는 앞으로 내시경을 이용한 질환 진단과 복강경을 활용한 암수술 등에서도 질환과 진료과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소화기내과(위, 대장)와 산부인과(자궁)외에도 비뇨기과 분야의 비뇨생식기 질환과 이비인후과 분야의 질환에서도 보다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카다 나오키 대표는 “<span class='quot0'>우수한 기술과 제품으로 좋은 치료환경을 만들고, 우수한 진단과 수술 방법들을 개발함으로써 고령사회에 있는 한국의 국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 “항상 의료진과 고객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질병 정복과 암을 이겨내기 위해 올림푸스한국은 노력할 것입니다.” <br/><br/> 한국사회 건강과 행복에 공헌할 수 있는 회사로서 한국인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오카나 나오키 대표. 그는 “<span class='quot0'>지난 30여년 동안 내시경을 통해 의료발전에 공헌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강한 자부심을 느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것</span>”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87.txt

제목: 2030 여성들이 ‘유방촬영술’ 거부당한 이유는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82435603  
본문: 38세 여성 김모씨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을 찾았다. 유방촬영술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의료진은 김 씨를 검사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유방촬영술은 유방암을 알아보는 대표적인 검진 방법이다. 국가에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암검진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이기도하다. 그런데 왜 의료진은 유방촬영술을 하지 않고 김씨를 돌려보냈을까.<br/><br/> 한국인 3명 중 1명은 평생 중 암을 한 번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방암은 여성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암으로 갑상선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가장 높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만의 특징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의 발병률이 높다는 점이다.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은 여성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거론되는 이유다.<br/><br/> 당시 김 씨로부터 유방암 검사를 요청받은 A 대형병원 방사선과 의료진은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0∼30대에서도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 유방촬영술이 40세 이전 연령대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연구결과가 없다”며 해당 여성을 돌려보낸 이유를 설명했다.<br/><br/> TV와 신문에서 젊은 나이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여성의 이야기가 제법 자주 소개된다. 매년 6% 증가하는 추세를 살펴본다면 유방암은 경각심을 가져할 질환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암 가족력이 있지 않다면 20∼30세 초반 이른 연령서 유방촬영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br/><br/> 건강한 여성이 이른 연령에서 시작한 유방촬영술은 이득보다 위해가 많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 이 때문에 국내 유방암 검진 권고안에는 “유방촬영술로 인한 피폭 문제는 이른 연령에 시작할수록 검진간격이 짧을수록 방사선에 의한 암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며 “20∼30대는 유방촬영술을 매년 시행하는 경우 이익보다 위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서술돼 있다. <br/><br/> 그러나 예외도 있다. 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다. 정승필 고대안암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는 “어머니나 여자 형제 중 유방암이 있으면 발생빈도는 2∼4배 증가하다. 유방암 발생 억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도 젊은 나이의 유방암 발생빈도가 높다. 이러한 고위험군이라면 특이적으로 이른 연령에 검진을 시행할 수 있다. 알려진 방사선 피폭의 실제 위해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br/><br/>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서양에 비해 유방의 크기가 작고 지방 분포가 적은 치밀유방의 비율이 높다. 이는 유방촬영술로 멍울 관찰이 효과적이지 않은 단점을 갖고 있다. <br/><br/> 유방촬영술보다는 방사선 피폭 우려가 적고 치밀 유방에서 진단율을 높일 수 있는 초음파 검사가 권장된다. 정 교수는 “과밀도 치밀 유방의 비율이 높아 초음파검사가 유용하다. 그러나 검사비가 유방촬영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게 단점이다. 방사선 피폭을 걱정하는 20∼30대 초반 젊은 여성에게는 초음파검사를 권한다”고 강조했다. 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88.txt

제목: 폐암 2차 적정성 평가 1등급 기관 전체 85%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82431522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4년 폐암 1차 적정성 평가에 이어 최근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폐암 2차 적정성 평가 대상은 117개 기관 1만174건이었고, 대상환자는 폐암으로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 항암치료를 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였다. 폐암 평가대상 환자는 비소세포 폐암 83.0%, 소세포 폐암 16.7%, 기타(불분명·비소세포와 소세포 폐암 동반) 0.3%였다.<br/><br/> 이번 폐암에 대한 2차 적정성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95.11점으로 지난 2014년 1차 평가 94.65점 보다 소폭 상승했다. 올해 2차 평가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했다. 평가 결과 1등급 기관이 전체의 84.9%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 공개된 1차 평가는 110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7월∼12월까지 5010건의 진료실적을 대상으로 했다. 폐암 1차 적정성 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등급 산출 대상인 88개 기관 중 1등급은 67개(76.1%)였다.<br/><br/> 2차 평가 결과 남성 환자가 69.7%로 여성 30.3%보다 약 2배 많았다. 폐암 환자 연령은 70대가 34.0%, 60대 33.4%, 50대 20.4%, 80대 이상 5.9%였고, 40대 폐암 환자도 5.0%였다. 이는 전체 폐암의 87.8%가 50대∼70대로 대부분 중년 이상에서 많이 발생(항암치료 실시환자)했고, 남성 60대(35.3%)와 70대(35.4%), 여성은 70대(30.9%)가 많았다.<br/><br/> 폐암은 병리조직검사에 따라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심사평가원 평가 결과에서는 ‘비소세포 폐암’이 ‘소세포 폐암’보다 5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암 병기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폐암의 8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은 1∼4기로 구분되며, ‘다른 장기에 암 전이(4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46.6%였다. 또한 폐암의 16.7%를 차지하는 ‘소세포 폐암’은 ‘암이 반대편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확장병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69.7%였다. 이는 폐암은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되어 치료효과가 떨어지거나 재발이 잘 될 수 있는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br/><br/> 1차와 2차 폐암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역별 의료기관 등급을 분석한 결과 2014년 1차와 올해 2차 평가에서 8개 기관이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5등급 평가를 받았다. 지난 폐암 1차 평가시 5등급 기관은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서울시 서울의료원, 인제대부속 백병원, 한전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광주기독병원, 대전선병원, 청주성모병원 등이었다. 지난 2014년 1차에 이어 2차 평가에서도 5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성바오로병원, 백병원, 대전선병원, 청주성모병원 등 5개였고, 창원파티마병원과 순천향대 구미병원, 유성선병원, 한도병원이 2차 평가 5등급을 받았다. 지난 1차 평가에서 5등급이었던 한양대 구리병원과 한전병원은 2차 평가에서 4등급(80점 이상 85점 미만)을 받았고, 1차 평가 때 5등급이었던 서울의료원은 2차 평가에서 3등급(85점 이상 90점 미만)을 받았다.<br/><br/> 1차 평가와 비교해 2차에서 등급이 오른 의료기관은 안동병원과 강원대병원이었다. 지난 폐암 1차 적정성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던 2개 병원은 이번 2차 평가에서 모두 1등급(95점 이상)을 받았다. 또한 1차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던 국립중앙의료원은 2차 평가에서 1등급으로 올라섰다. 이번 2차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지샘병원과 한림대부속 춘천성심병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3곳이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89.txt

제목: 방사선 피폭 위해성 판별시스템이 없다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82324936  
본문: 컴퓨터단층촬영(CT) 또는 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PET-CT) 검사에 따른 방사선 피폭을 우려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br/><br/>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피폭에 따른 암 발생 위험이 보고되면서 일부 환자들은 검사실을 들어와 방사선사에게 피폭량이 얼마인지 묻고 얼마큼 위해한지를 묻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일단 특정 진료과에서 검사 의뢰가 내려진 이상 방사선사는 위해와 이득을 비교해 환자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br/><br/> 세브란스병원 한 방사선사는 “환자 개인의 누적피폭량이 많다고 판단돼도 검사항목을 빼달라고 요구하거나 검사를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다. 검사의 이득과 위해성을 해당과 의료진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선사에게 물어도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답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몰라서가 아니라 판단의 근거를 검사를 의뢰한 해당과 의료진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br/><br/> 하지만 문제는 검사를 의뢰한 진료과에서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영상의학 분야 전문가가 아닌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질병의 진단을 위해 검사를 의뢰한다. 하지만 해당 검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검사별 선량을 알고 있거나 선량이 끼치는 위해 여부를 알고 비교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br/><br/> 강건욱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사무총장(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은 “<span class='quot0'>환자의 피폭정도가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상의학과와 핵의학과 외 타 진료과에서도 (방사선 피폭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 취재결과 검사 때마다 환자의 피폭량을 기록하고 환자의 1년치 누적량을 알아보는 시스템이 갖춘 의료기관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 서울의 대형병원 몇 곳이 환자들에 대한 CT와 PET-CT의 1년치 누적 선량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 중 세브란스병원은 미국 특정 회사에서 X선을 사용하는 모든 검사의 선량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 환자 개인의 각 검사 선량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환자의 누적 피폭량을 알 수 있고, 이전 검사의 선량과 비교해 유달리 높게 설정된 선량의 정도를 파악해 제어하는 방법이다.<br/><br/> 서울대병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선량 추적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다. 이창현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CT 선량을 의무기록에 기록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검사를 시행하기 전 어떤 의료진도 환자의 누적 선량을 알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검사의 누적 선량을 아는 것이 불필요한 검사와 이에 따른 방사선피폭을 막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창현 교수는 “<span class='quot2'>병원과 의료진은 방사선 피폭량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여의치 않다면 수기로 작성해 방사선 피폭량 추적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br/> 또한 강건욱 교수는 “선량표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해당검사로 피폭되는 선량의 위해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또 지금까지 누적치를 보고 피폭량이 많다면 CT검사 대신 초음파 또는 MRI로 대체할만한 검사가 있는지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김단비 기자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90.txt

제목: [조민규 기자의 ‘건강 백과’] 정부 의료비 지원 받기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81440822  
본문: 정부는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의료지원은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치료에 소요된 비용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기적·지속적·종합적인 의료비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한 질병 등으로 입원에서 퇴원까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단기간·일시적인 의료서비스 지원(300만원 내에서 최대 2회까지)을 전제로 설계돼 있는데 반드시 입원 전 신청이 원칙이다. <br/><br/> 긴급의료비지원 재신청은 상이한 상병일 경우 가능한데 동일상병이라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이 가능하다. 또 지원 요청 후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치료 목적상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에만 지원된다.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는 전문의사, 수술 장비가 없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br/><br/>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도 있다. 복지부, 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뇌혈관(비수술포함),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질환으로 인한 수술 또는 치료목적으로 입원한 환자 등으로 중증화상의 경우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며,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항암치료(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색전술)는 외래진료도 기준 충족시 지원된다. 최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선택진료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하는데 지원일수는 입원 및 외래(항암치료) 진료를 합해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된다. <br/><br/> 또 결핵환자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의 결핵진료(합병증 포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50%를 국가가 지원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에 의한 치료중단을 방지하고 치료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 환자가 대상이며, 결핵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2분의 1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9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식습관 고치면 암으로부터의 공포 막을수 있다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80454986  
본문: 암이 생기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식습관은 암 발생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실제로 모든 암의 원인 중 30% 이상은 음식으로 인해 발생된다</span>”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식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주로 암이 생기기 전보다는 암이 생긴 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미리 건강한 식습관을 길들여 놓아야 작은 탈도 덜 수 있다. 그렇다면 암을 부르는 식습관은 무엇이며, 어떤 식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좋을까?<br/><br/> 가장 먼저 대한민국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국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찌개를 자주 먹기 때문에 짜게 먹는 식습관을 주의해야 한다. 고병준 강북삼성병원 서울종합검진센터 교수는 “음식을 짜게 먹는 것은 위에 좋지 않다. 짠 음식은 위의 점막을 변형시키는 위축성 위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는 위암의 전 단계다. 따라서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어야 한다. 특히 밥을 국물에 말아먹으면 밥 먹는 속도도 빨라져서 위염이나 위궤양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br/><br/> 흔히들 탄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린다고 한다. 실제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육류나 생선류를 숯불이나 그릴 등으로 굽다가 타는 경우, 벤조피렌이나 헤테로사이클릭아민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된다. 이러한 물질은 췌장암을 비롯해 여러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고병준 교수는 강조했다. 따라서 고기를 구울 때는 타지 않게 조리해야 하고, 직화구이나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아서 먹는 방식이 좋다고 권장했다.<br/><br/> 붉은 육류와 육가공품을 많이 먹는 습관도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를 하루 100g 이상 먹으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br/><br/> 나아가 담낭암이나 전립선암의 위험도 높아진다. 이미 1군 발암성 물질로 분류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가공품은 위암, 식도암, 신장암, 대장암 등 여러 암과 연관돼있다. 따라서 붉은 육류와 육가공품은 하루 80g 이하로 먹는 것이 좋다는 게 고 교수의 설명이다.<br/><br/> 또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으면 암 예방에 좋다.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영양소(카로티노이드, 비타민C, 비타민A, 비타민E, 셀레늄)와 식물생리활성물질(피토에스트로젠, 플라보노이드, 클로로필 등), 엽산,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고병준 교수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5접시(최소 400g) 섭취하면 좋다. 이때 염장한 채소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생야채를 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br/><br/> 그 외에도 음식을 너무 뜨겁게 먹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명승권 교수는 “뜨거운 음식은 식도암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 마테차 등 너무 뜨거운 상태의 음료를 마시는 것은 식도에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 교수는 “음식을 빨리 먹다보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전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는 비만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만은 대장암, 유방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15분 내에 빨리 먹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r/><br/>박예슬 기자 yes22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92.txt

제목: [질환 통계-폐암] 4기 환자 5년 생존율 23.5%로 높아져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80453972  
본문: 새해 들어 다시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흡연은 각종 암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폐암은 흡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10여년 전만 해도 4기 폐암환자의 생존기간은 10개월에 불과했지만 다양한 치료제 개발로 5년(2009∼2013년) 생존율이 23.5%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폐암은 암 중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1만7440명으로 전체 암사망자의 22.8%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1만2785명, 전체 암 사망자의 26.7%)이 여성(4655명, 전체 암 사망자의 16.2%)의 2배 이상 높았다.<br/><br/>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폐암 2차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비소세포 폐암 83.0% △소세포 폐암 16.7% △기타(불분명, 비소세포와 소세포 폐암 동반) 0.3% 순으로 나타났다. 또 비소세포 폐’은 ‘다른 장기에 암 전이(4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46.6%였고, 소세포 폐암은 ‘암이 반대편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확장병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69.7%로 나타났다. 즉 폐암은 다른 장기까지 전이돼 치료효과가 떨어지거나 재발이 잘 될 수 있는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70대(34.0%)가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33.4%), 50대(20.4%), 80대 이상(5.9%), 40대(5.0%), 30대 이하(1.3%) 순이었다. 특히 항암치료 실시환자의 약 87%는 50대에서 70대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69.7%)이 여성(30.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성 60대(35.3%)와 70대(35.4%), 여성은 70대(30.9%)가 많았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폐암환자는 2009년 5만1183명(입원 3만202명, 외래 4만6094명)에서 2013년 6만8448명(3만9481명, 6만1099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진료비도 2009년 3421억7470만원에서 2013년 4383억51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4년 6월 기준 폐암환자는 6만7454명(입원 3만580명, 외래 5만9393명)인데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만5552명 △종합병원 2만5403명 △병원급 6846명 △의원급 4773명 △보건기관 11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3만1127명이었으며, 이어 경기(1만3694명), 부산(5059명), 대구(4898명), 전남(4298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70대(1만6911명)와 60대(1만6027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7933명), 80세 이상(4120명), 40대(1971명)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도 60대(6866명)와 70대(6728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5553명), 80세 이상(2318명), 40대(1806명) 순이었다. <br/><br/> 한편 폐암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아무런 증상 없이 종합검진 등의 흉부 단순 X선 촬영이나 전산화단층촬영(CT)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폐암은 조기인 경우가 많으나, 이는 폐암 진단을 받는 환자 전체의 5∼15%에 불과하다. 비소세포암 환자 중 수술이 가능한 1∼2기로 진단되는 비율은 20∼25%이고, 25% 정도는 주위 림프절(림프샘)로 전이된 상태여서 일부 환자만 수술이 가능하다. 나머지 55%는 다른 장기로의 전이돼 있어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폐암 검진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93.txt

제목: [암과의 동행] 믿을수 있는 암정보는 어디에?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80347101  
본문: 내가 암이라면, 또는 내주위에 암 환자가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떻게 하지”이다. 다음으로 정보수집에 나서는데 문제는 정확하고 최신의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면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정보가 있어 제대로 된 정보가 어떤 것인지 알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br/><br/> 가장 대표적으로 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이다. 국가암정보센터는 다빈도 암 17종을 시작으로 소아암·희귀암을 포함한 100개의 암 데이터를 국립암센터 소속 전문의가 작성·검토해 구축했다. 암의 명칭별, 계통별로 분류해 암의 예방·진단·치료·생활가이드 등의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암 관련통계를 비롯해 암 정보를 리플렛, 소책자, 그림동화, 동영상 강좌, 애니메이션 등 쉽고 재미있게 제공한다. 전화상담(1577-8899)도 효과적인데 암 전문 상담사가 암예방, 암의 진단·치료·재활·식생활, 완화의료, 호스피스 등 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 암검진 및 중증(암)환자 등록·신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재가암환자 서비스를 원할 때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보건팀(재가암환자관리)에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신청, 응급의료비 대불 및 신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여부 등을 알려주고, ‘건강정보’ 앱을 통해서도 병원별 진료비, 내가먹는 약 알아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r/><br/>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문의는 국가암정보센터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 가능하며, 병원의 사회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로, 조혈모세포 기증·이식 등에 대해 궁금하다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한국의료지원재단 등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외 병원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r/><br/> 한편 환자들이 모여 만든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호객을 하는 경우도 있어 활동 회원이 적은 곳보다는 많은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곳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94.txt

제목: [암과의 동행] 국가 암 검진 대상 질환 “폐·전립선암도 포함시켜주오”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75504454  
본문: 효율적인 암 치료를 위해 국가 암검진 대상 질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br/><br/>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요구가 많은 암은 ‘폐암’이다. 대한폐암학회를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저선량 흉부CT(LDCT)를 국가암검진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폐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흡연자들에게는 금연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저선량 흉부CT를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에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br/><br/> 지난해 폐암학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가 폐암 검진을 국가차원에서 시행하자는 데 동의했다.<br/><br/> 폐암학회 관계자는 “폐암은 늦게 발견할수록 치명적인 만큼 조금만 일찍 발견하면 생존율은 급격히 올라간다. 그동안 마땅한 조기검진 방법이 없어 국가 암검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저선량 CT를 통한 조기진단은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반드시 국가 암검진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폐암 검진 권고안을 보면 폐암의 경우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금연 후 15년이 경과한 과거 흡연자는 제외) 55∼74세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CT를 이용한 폐암선별검사를 매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br/><br/> 정부도 폐암검진권고안에 근거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폐암 검진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폐암검진권고안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는 약 155만명으로 추정된다.<br/><br/> 전립선암의 경우도 2013년 기준 남성암 중 발생빈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진행속도가 느리고,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어렵다. 학계에서는 조기진단 시 완치율이 80% 이상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간단한 혈액검사와 직장 수지검사만으로도 조직검사 대상을 감별해 판별할 수 있다.<br/><br/> 일부에서는 난소암의 국가암검진 요구도 있다. 난소암 1기 환자의 경우 생존율이 80% 이상이지만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거나 미미해 진행된 뒤에나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학계에 따르면 난소암 진단을 받은 여성들의 3분의 2 이상이 3기 이후에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5년 생존율은 62%로 낮다. 난소암은 혈액검사에서 난소표지자를 확인하거나, 질식초음파를 통해 검진이 가능하다. <br/><br/> 한편 국가 암검진은 1999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 등 현재 5종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간암의 경우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검진 연령기준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95.txt

제목: [암과의 동행]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비용중심 전환 바람직”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75503859  
본문: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br/><br/> 이렇듯 정부가 꾸준히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환자들의 체감도는 낮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이외의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확대의 목소리가 높은데 신장투석이나 간이식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들이 4대 중증질환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br/><br/> 이에 일각에서는 질환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중심에 두고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질환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환자들은 치료에 필요한 검사 자체가 많다보니 보장성이 높아져도 지출한 의료비에서는 환자의 체감도는 낮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비급여 등으로 인해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비급여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비급여실태조사도 계획 중에 있다.<br/><br/> 한편 정부는 2013년 초음파 검사 등 25항목, 2014년 고가항암제 및 첨단 진단·치료법 등 100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2015년에는 고가항암제, 고비용 치료법, 첨단 필수검사 등에 대한 급여 확대 및 희귀난치질환자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이 강화된다. 우선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 검사 전면급여, 수면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올해 중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암·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희귀질환 진단 114종, 특정 항암제 처방 5종, 혈액암진단·치료반응 평가·예후 15종 등)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br/><br/> 또 오는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도 적용된다. 저소득·취약계층이 4대 중증질환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도 본인부담액 100∼200만원 발생 시 100만원 초과금액 지원에서 전체 금액의 50% 지원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수면내시경의 경우 검토 시작 단계인데 암환자 위주로 논의를 하겠지만 건강보험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일반인 적용 등도 포함한 총체적인 검토가 될 수도 있다</span>”라고 밝혔다. <br/><br/>또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2016년 마무리됨에 따라 2017년 이후부터는 중기 보장강화정책 등에 따라 보장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br/><br/>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적용(2017년) △선천성 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적용(2018년) △아동의 언어치료, 구순구개열 수술과 치아교정치료 건강보험적용(2018년) △청소년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2017년) △병적 고도비만 환자의 효과적인 수술치료 건강보험적용(2018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MRI검사,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적용 확대(2018년) 등이 있다. <br/><br/> 이를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보장률이 2018년 68%대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96.txt

제목: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교수 별세  
날짜: 2016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5233801741  
본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으로 유명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75세.<br/><br/> 신 교수는 2014년 희귀 피부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으며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서 끝내 숨졌다.<br/><br/> 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육사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일하던 중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년20일을 복역한 신 교수는 88년 광복절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89년부터 성공회대에서 강의한 그는 20년간 수감생활을 하며 느낀 한과 고뇌를 230여장의 편지와 글로 풀어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98년 출간했다. 이후 출간한 ‘나무야 나무야’ ‘더불어 숲 1·2’ ‘강의-나의 동양고전독법’ ‘처음처럼’ ‘변방을 찾아서’ 등도 베스트셀러가 됐다. 장례는 성공회대 학교장으로 치러진다. 유족으로는 부인 유영순(68)씨와 아들 지용(26)씨가 있다.<br/><br/>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97.txt

제목: [김경철의 닥터 바이블] 장수 시대 품위 있게 살아가는 법  
날짜: 2016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5180634535  
본문: 한국인 평균 수명은 1960년 52세에서 2014년 81세로 크게 늘었다. 2014년 안전행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은 전국적으로 1만 4592명이나 되었다. 노아 홍수 이전의 구약 시대의 평균 수명이 912년이나 되었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175세, 야곱 145세, 요셉 110세로 수명이 급강하 하더니 그 이후 인류의 수명은 더욱 짧아졌다. <br/><br/> 시편 기자는 인생의 나이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했다. 최근의 수명 증가는 인류가 다시 창세기 시절로 돌아가는 듯하다. 유엔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2100년 경에는 100세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br/><br/> 인류가 다시 오래 살게 되면서 많은 신체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를 양산하고 있지만 그래도 손주에 증손주까지 보면서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숨길 수 없는 본능이리라. 문제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늙어가는 것이다. <br/><br/> 노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텔로미어(telomere)이다. 텔로미어란 염색체 양 끝에 있는 뚜껑 같은 부분을 가리킨다. 특정 염기서열이 수천 번 이상 되풀이되는 구조와 길이를 지니고 있어서 염색체의 말단 부위가 분해 되거나 염색체끼리 서로 융합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흔적을 남기는데 DNA의 끝부분인 텔로미어가 짧아져가는 것이 그것이다. <br/><br/> 앞선 관찰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장내세균 등 내독소가 많은 경우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짧아졌음을 보여주었다. 최근의 실험실적 연구에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임으로써 생명의 수명을 연장하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런 이론이 현대의 인류에게 불노초를 안겨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최근 텔로미어에 대한 임상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무엇이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지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br/><br/> 예를 들면 5년간의 지중해식 식이요법을 통해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졌고, 전립선 암환자가 1년간 운동 등을 통해 텔로미어가 길어졌다는 연구가 발표 되었다. 6주간의 기공이나 명상 등을 통해서도 텔로미어가 길어졌다는 연구 등도 있었다. 이런 연구들은 성공적인 노화가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 아닌 건강한 상태에서의 연장임을 지향한다. <br/><br/> 올해는 독자들과 함께 아름답고 건강하게 늙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단순히 외모의 안티에이징을 넘어 몸의 안티에이징, 즉 활기차고 튼튼한 몸을 통해 활력 있게 살아가기다. 마음의 안티에이징도 필요하다. 우울과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즐겁게 살아가기다. 뇌의 안티에이징도 언급하려고 한다. 치매의 공포를 이겨내고 올바른 판단과 총명함을 잃지 않는 품위 있는 노화를 어떻게 이루어갈지 등에 대해 총체적인 항노화를 다루고자 한다. <br/><br/> 무엇보다 영혼의 안티에이징이 중요하다. 80세에 소명을 좇아 길을 떠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영적 건강함을 포함한 진정한 장수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잠 10:27)<br/><br/><차의과학대학교 교수><br/>◇약력 △연세대 의대(노화과학 박사) △강서미즈메디병원 가정의학과장, 파푸아뉴기니 국제협력의사(KOICA)·서울경기누가회장 역임 △차의과학대학교 차움병원 안티에이징 센터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98.txt

제목: [한마당-성기철] ‘古木’ 엄앵란의 여유  
날짜: 2016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4173331494  
본문: 엄앵란(80)과 신성일(79)의 결혼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1964년 11월 결혼식이 열린 서울 워커힐호텔은 3000여명의 축하객과 구경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두 사람이 그해 히트 영화 ‘동백아가씨’와 ‘맨발의 청춘’에서 콤비를 이뤄 인기 절정을 구가해서다. 하지만 톱스타 엄앵란의 결혼생활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신혼 초기 시집살이는 혹독했으며, 남편 선거 빚 갚느라 대구에서 18년간 식당일을 해야 했다. 2년 동안 남편 옥바라지를 하기도 했다.<br/><br/> 더 힘든 것은 남편의 외도였다. 신성일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람둥이 아닌가. ‘아내는 한 명이지만 애인은 여럿일 수 있다’는 말을 자랑삼아 하고 다녔다. 자서전을 통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김영애(연극배우·사망)가 내 아이를 임신했었다”고 공개 고백해 엄앵란이 충격에 빠진 적도 있다.<br/><br/> 엄앵란은 그러나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웃음을 선사하며 노년을 즐기고 있다. 왕년의 은막스타라기보다 후덕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부부관계, 자녀교육 등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털어놔 공감을 산다. 별거 중인 남편에 대한 얘길 하면서도 욕하기보다 “잘난 내 남편”이라고 감싸는 걸 보면 천생 조강지처다.<br/><br/> 그런 엄앵란이 최근 TV 건강프로그램 녹화 중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그는 13일 밤 방송에서 “아이고 80 넘은 고목나무가 암 걸렸다는데, 뭐 괜찮아요. 초기에 발견한 것만도 감사한 일이지요”라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내심 엄청 불안할 텐데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 데서 원로배우의 연륜을 느끼게 했다.<br/><br/> 엄앵란은 언젠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꽃피는 봄인가 싶으면 어느새 겨울이고, 추운 겨울인가 싶으면 또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요. 인생에서 희망의 끈은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그는 15일 서울대병원에서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술을 받는다. 빠른 쾌유를 빈다.<br/><br/>성기철 논설위원 kcsung@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99.txt

제목: [세상만사-민태원] 웰다잉법이 정착되려면  
날짜: 2016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4173329923  
본문: “<span class='quot0'>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span>”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통화한 서울대병원 통합암센터 윤영호 교수가 던진 첫마디였다. 윤 교수는 웰다잉법의 제정과 국회통과에 크게 기여한 인사 중 하나다. 그는 지난 25년간 대한민국의 형편없는 ‘죽음의 질’을 연구해 왔고 이는 웰다잉법 제정의 자양분이 됐다.<br/><br/> 웰다잉법은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숱한 논쟁을 거쳐야 했다. 막판에는 한의사들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참여 문제를 놓고 발목이 잡히는 듯했다. 윤 교수는 그때마다 언론 등을 통해 웰다잉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자 그제야 “한숨 돌렸다”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내비쳤다. 그리고 통화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법이 통과됐지만 벌써부터 여러 우려가 나온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br/><br/> 그 말에 백분 동의한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왔다. 웰다잉법은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8년부터 시행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이보다 6개월 앞서 전면 제도화된다. 호스피스는 지금도 말기 암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2017년 6월부터는 대상자가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병변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환으로 확대된다. 가정 호스피스도 본격화된다. 앞으로 2년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웰다잉법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br/><br/> 일각에선 웰다잉법이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의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짓도록 하자’는 법 취지를 제대로 지키며 시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지 않다. 웰다잉에 대한 첫 입법이라는 ‘선언적 의미’에 치중한 나머지 일부 쟁점 사안은 향후에 다루기로 하고 넘어갔다.<br/><br/> 연명의료 중단 결정 대상과 절차에서 특히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임종 과정의 말기 환자’로 정의했는데, 암 환자의 경우 큰 쟁점이 없다. 하지만 만성간경변이나 폐쇄성호흡기질환자 등은 말기와 경계가 모호해 ‘임종 과정’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게 의료 현장의 말이다. 법 통과 후 일선 병원에선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아니지만 식물인간처럼 ‘말기 경계’에 있는 질환자와 보호자들이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본인 의사 확인이 안 될 경우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가능토록 한 조항도 위험하다. 만약 가족들이 입을 맞춘다면 어쩔 것인가. <br/><br/> 따라서 시행령이나 규칙 등 하위법령에 구체적 대상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담아놓지 않으면 생명 경시나 인간 존엄성 훼손 등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웰다잉법이 자칫 ‘현대판 고려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표준 서식 및 등록 시스템 개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선정, 턱없이 부족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확충 등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에게 웰다잉법의 취지와 바람직한 ‘임종 문화’를 알릴 루트도 자주 마련해야 한다.<br/><br/> 그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보건복지부는 실·국장급이 지휘하는 태스크포스(TF)를 하루빨리 구성해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년이란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br/><br/>민태원 사회부 차장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00.txt

제목: 물리치료·뼈 교정 추나 등 한방 요법에도 건보 적용  
날짜: 20160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3212917680  
본문: 정부가 한약을 알약, 짜먹는 약 등으로 제형을 현대화해 올해 안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한방물리치료나 추나요법(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척추관절 교정 치료) 등에 대한 건보 적용도 추진된다. 달여 먹는 첩약은 건보 대상에서 제외됐다.<br/><br/>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3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키로 했다. 올해 감기·기능성소화불량·암·치매·난임·아토피피부염·화병·비만 등 20개 질환에 대한 표준지침을 먼저 개발·보급하고 향후 5년간 30개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br/><br/> 또 현재는 침 뜸 등 행위별로만 수가(진료에 대한 대가)를 적용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진료받은 질환의 경우 질병 단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포괄수가제 개발도 모색하기로 했다. <br/><br/> 알약 등 한약제제에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는 가루약 56개 품목에 대해서만 건보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요법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검토된다. 양·한방 협진 모델과 관련 수가를 개발해 양방과 한방 사이의 협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01.txt

제목: 위암 환자 생존율, 과체중일 때 높다  
날짜: 20160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3204903334  
본문: 60대 여성 이모씨는 2006년 위암 1기 판정을 받아 위를 3분의 2쯤 잘라냈다. 수술 후 줄어든 위 때문에 예전처럼 먹지 못했다. 한 달 뒤 몸무게가 10㎏이나 빠졌다. 이씨는 암 수술 환자의 식사 3원칙인 ‘조금씩, 자주, 천천히’를 철저히 따랐다.<br/><br/> 그러자 6개월 뒤부터 체중이 불기 시작해 1년 후 수술 전 몸무게(58㎏)를 되찾았다. 이달 정기검진에선 몸무게가 79㎏으로 늘었다. 이씨의 키가 167.6㎝인 점을 감안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는 28.15다. 과체중에 해당한다.<br/><br/> 이처럼 적당히 살찐 위암 환자가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뚱뚱한 사람이 장수한다는 이른바 ‘비만의 역설’이 위암에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br/><br/>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박재명·송교영 교수팀은 2000년부터 8년간 위절제술을 받은 위암 환자 1905명을 분석한 결과, 수술 전후 모두 BMI 과체중군(25 이상)이 저체중군(18.5 미만) 혹은 정상체중군(18.5∼24.9)에 비해 5년 생존율이 높았다고 13일 밝혔다.<br/><br/> 수술 전 BMI에 따른 5년 생존율은 과체중군 84.7%, 정상체중군 74.2%, 저체중군 69.1%였다. 수술 1년 후 체중이 확인된 1418명의 5년 생존율은 과체중군 93.6%, 정상체중군 83.6%, 저체중군 67.5%였다. 수술 후 BMI가 생존율에 더 큰 영향을 줬음을 보여준다. 반면 저체중군은 수술 후 생존율이 오히려 떨어졌다.<br/><br/> 송 교수는 “위암 환자는 수술 후 영양학적 요구량이 많고, BMI가 높으면 특정 호르몬이나 효소 등의 발현이 향상돼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암 환자는 수술 전후 적극적인 영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암학회 공식저널에 발표됐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02.txt

제목: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래리 호건 “암 투병 중 한인들의 기도·성원 못잊어”  
날짜: 2016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2212546429  
본문: “<span class='quot0'>암 투병 중 한국인들이 보내준 기도와 성원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span>”<br/><br/> ‘한국의 사위’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부인 유미 호건 여사와 한인들이 보는 공개 석상에서 목이 멘 듯 눈물을 글썽였다. 11일(현지시간) 아나폴리스 소재 메릴랜드주 의사당에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 자리에서였다. 미주 한인의 날은 1903년 1월 13일 한국인 102명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날을 기념해 미 연방의회가 2005년 제정했다. 미국에서 주지사가 한인의 날 행사를 공식 주관한 건 이날 메릴랜드가 처음이다.<br/><br/> 태권도 사범으로 유명한 이준구씨의 아들 지미 리씨가 메릴랜드 주정부의 소수계 장관 자격으로 행사를 진행한 이날 기념식에서 호건 주지사는 한인 이민자들이 미 주류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호건 주지사는 또 “<span class='quot1'>미 역사상 최초의 한인 (주지사) 퍼스트레이디인 유미는 내 아내이자 메릴랜드의 자랑</span>”이라고 부인을 치켜세웠다.<br/><br/> 그는 특히 지난해 암 투병 중일 때 한인들의 기도와 격려가 쇄도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호건 주지사는 “<span class='quot1'>여러분의 기도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span>”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이 대목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지난해 6월 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린 사실을 공개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이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으나 같은 해 11월 암 완치 진단을 받았다. 이날은 머리카락이 엄지손가락 굵기만큼 자란 모습으로 나타나 밝은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안호영 주미 대사는 인사말에서 “<span class='quot2'>호건 주지사 부부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span>”며 “<span class='quot2'>한때 미국의 수도였던 메릴랜드주 의사당에서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마련해줘 감사하다</span>”고 말했다.<br/><br/> 호건 주지사 부부는 주지사 취임 이후 아시아 순방 일정 중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고, 또 주지사 관저에 처음으로 김치냉장고를 들여놓는 등 한국 사랑으로 유명하다.<br/><br/>아나폴리스=글·사진 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03.txt

제목: 효모에 항암제 담아 암세포에 전달 기술 개발… KAIST·GIST 연구진 공동연구  
날짜: 2016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2211537901  
본문: 빵·맥주 발효에 쓰이는 ‘효모’에 항암제를 담아 표적 암세포에 전달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인공 소재와 달리 독성이 없는 데다 항암 효능이 3배 이상 높아 기존 암 치료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전상용(사진) 교수팀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영수 교수팀과 공동으로 효모 기반의 바이오 소재를 이용해 항암제를 암세포에 전달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효모에 존재하는 ‘액포’(막으로 싸인 세포소기관)가 항암제 전달 수단으로 활용됐다.<br/><br/> 연구팀은 기존 효모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유방암에 결합할 수 있는 ‘표적 물질’로 만들었다. 여기에 항암제인 ‘독소루비신’을 담아 약 100㎚ 크기의 암 치료용 약물 전달체를 구축했다. 이어 유방암에 걸린 쥐에 투여했더니 기존 치료제보다 3배 이상의 항암제를 암 조직에 전달했다.<br/><br/> 전 교수는 “인공 소재들은 생체 적합성이 낮고 몸속에 장기간 남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효모의 액포는 인간 세포막에 존재하는 성분과 비슷해 암세포와의 막 융합이 수월하고 항암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말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04.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46) 고려대안산병원 순환기내과] 응급 심장환자 ‘생명 지킴이’로 우뚝 섰다  
날짜: 2016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2041312124  
본문: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는 암 못지않게 중년남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강 복병이다. 갑작스럽게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느끼며 숨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br/><br/>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은 암, 뇌혈관 질환에 이어 3위다. 인구 10만명당 50.3명이 심장병으로 사망했다.<br/><br/> 2014년에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7만66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심장질환(2만6588명), 뇌혈관질환(2만4486명)은 그 뒤를 이었다. 2014년 기준 심장질환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52.4명이었다. 1년 새 10만명당 2.1명이 늘었다.<br/><br/> 날씨가 추우면 신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킨다. 이때 관상동맥이 막히면 피를 공급받지 못한 심장근육 일부가 죽어 제 기능을 못한다. 바로 심근경색이다. 겨울철 급격한 온도 저하에 고혈압 환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br/><br/> 격렬한 운동으로 맥박수가 급격히 증가해도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종종 운동선수가 ‘심장이 터지도록’ 뛰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그렇다. 나이가 들면 증가하는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흡연, 과음도 돌연사를 부르는 관상동맥질환 위험인자로 꼽힌다.<br/><br/> 고려대안산병원 순환기내과 송우혁(53) 교수팀은 각종 심장병으로 돌연사 위험에 노출된 경기도 서남권역 주민에게 평온과 안식을 제공하는 보금자리 같은 진료소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 심장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대기하며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곳이다.<br/><br/> 송 교수팀은 최근 초음파실, 심장기능검사실, 심장혈관촬영실, 심혈관교육실을 두루 갖춘 심장혈관검사센터도 개소했다. 진료할 때 검사 및 처치, 시술 후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 교육까지 한번에 다 할 수 있는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2013∼2014년 2년 연속 허혈성 심장질환 적정성 1등급 평가도 따냈다.<br/><br/> 그만큼 이 지역 주민들이 송 교수팀에 거는 기대도 크다. 송 교수팀은 순환기내과 진료가 시작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심장혈관초음파검사 8만여건과 심장혈관 촬영 및 중재시술 1만여건을 시행하며 높은 신뢰도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14년 기준 연간 외래진료 환자 3만여명, 입원환자 5000여명까지 성장했다.<br/><br/> 송 교수팀은 현재 심근경색(흉통),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실신, 말초혈관 클리닉 등 특수클리닉 7개를 운영하고 있다.<br/><br/> 흉통클리닉은 송 교수를 필두로 안정천(53)·임상엽(45) 교수 등 국내 최고 심장병 전문 의사들이 포진, 흉통을 주 증상으로 한 심근경색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돌보고 있다. 특히 근육계 흉통을 다루는 재활의학과 교수들과의 수시 협진을 통해 발병 원인을 정확히 규명, 뿌리째 제거하는 완전치료로 인기를 얻고 있다.<br/><br/> 김성환(46) 교수가 이끄는 심부전클리닉은 심부전증 진단과 더불어 원인질환을 규명하고 각 단계를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환자별 맞춤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다. 호흡 곤란, 피로, 폐울혈, 말초부종 증상을 보이는 심부전은 심장기능 저하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혈액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몸이 요구하는 수준의 혈액을 충분히 내보낼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br/><br/> 부정맥클리닉은 김진석(47) 교수가 담당한다. 김 교수는 고려대안암병원 부정맥센터에서 부정맥 전임의로 일하다 미국에 유학, 미시간대학병원(University of Michigan Health System)에서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등 최신 부정맥 치료기술을 연마했다. 이후 고려대안산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로 부임, 현재까지 부정맥 환자 500여명에게 완치의 기쁨을 안겼다.<br/><br/>송우혁 교수는<br/><br/>택견·수벽치기 등 전통무예에 관심… 환자 운동요법으로 활용 연구<br/><br/>1963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1982년 신일고, 1988년 고려대 의대를 졸업했다. 인턴·전공의 수련과정은 고려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이수했다. 1998년부터 고려대안산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로 일했고, 2014년부터는 기획실장과 순환기내과장을 겸직하고 있다.<br/><br/> 송 교수는 2002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미국 코넬대 부속 뉴욕장로병원 심혈관연구센터에서 재미의학자 홍문경 교수팀과 심근경색증 치료를 위한 신생혈관 형성법을 연구했다.<br/><br/> 송 교수는 택견, 수벽치기 등 전통무예에 관심이 많다. 이를 심장질환 환자 운동요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수년째 연구 중이다. 하지만 좀처럼 뜻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고민이다.<br/><br/> 송 교수의 진료철학은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늘 환자 편에 서는 진료’다. 조금의 무리나 욕심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게 심근경색증 치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든지 뜻밖의 상황은 생길 수 있고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 시술에 들어간다”고 털어놨다.<br/><br/> 운동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지 않는다. 출근할 때 차를 멀리 주차하고 걷는다든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식이다. 또 매일 자기 전과 잠에서 깬 후 이부자리 속에서 5∼10분 스트레칭을 한다. 고교 시절부터 테니스와 스키를 즐겼으나 수년 전 운동 중 무릎연골이 파열돼 수술을 받은 후 접었다.<br/><br/> 술은 한 모금도 못 마신다. 체질적으로 몸이 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턴·전공의 시절 몇 차례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간 뒤론 주위에서도 술을 아예 권하지 않는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05.txt

제목: 퍼진 뒤에야 발견되는 폐암… 환자 절반, 말기에 항암치료  
날짜: 20160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1215140249  
본문: 국내 폐암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퍼진 상태인 ‘4기’에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수술 및 항암치료를 하는 93개 의료기관 중 10곳이 하위인 4∼5등급을 받아 폐암 진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117개 의료기관의 폐암 치료 1만174건에 대한 진료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폐암의 83%를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의 46.6%가 반대편 폐나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된 4기에 발견됐다. 16.7%를 차지하는 ‘소세포폐암’의 4기 발견 비율은 69.7%로 더 높았다. 비소세포폐암은 조기에 진단해 수술로 완치될 가능성이 소세포폐암보다 높은 편이다. 악성도가 강한 소세포폐암은 ‘골초’들이 잘 걸린다.<br/><br/> 심평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폐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돼 치료효과가 떨어지거나 재발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비율이 매우 높다</span>”고 지적했다. 남성 환자(69.7%)가 여성(30.3%)보다 배 이상 많았다. 폐암 환자의 87.8%는 50∼70대의 중노년층이었다. 남성은 60대(35.3%)와 70대(35.4%), 여성은 70대(30.9%) 환자가 제일 많았다.<br/><br/> 117개 의료기관 중 종합점수 산출 기준에 해당하는 93곳을 평가한 결과 전체의 84.9%(79곳)가 1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한전의료재단한전병원, 한양대구리병원 등 2곳은 하위인 4등급을 받았다. 또 가톨릭대성바오로병원(서울)과 인제대서울백병원,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순천향구미병원, 대전선병원, 유성선병원, 청주성모병원 등은 5등급이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06.txt

제목: 英 가수 데이비드 보위, 암 투병 사망  
날짜: 20160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1212123394  
본문: 영국의 세계적 명가수이자 배우인 데이비드 보위(사진)가 암 투병 끝에 눈을 감았다. 자신의 69번째 생일인 지난 9일 새 앨범 ‘블랙스타(Blackstar·★)’를 발매해 뮤지션으로서 건재함을 과시한 직후 전해진 비보라 안타까움을 더했다.<br/><br/>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들은 11일(현지시간) 보위가 18개월간의 투병 끝에 69세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br/><br/> ‘로큰롤의 혁신가’ 보위는 몽환적인 분위기의 음악에 화려한 패션과 시각적인 무대연출 등 비주얼을 강조해 1970∼80년대를 풍미한 ‘글램록(glam rock)’을 선도했다. 2000년 저명 음악잡지 NME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br/><br/> 공상과학적 상상을 모티브로 한 몽환적 싱글 ‘스페이스 오디티(Space Oddity·1969)’와 가상의 록스타 ‘지기 스타더스트’로 분한 콘셉트 앨범 ‘지기 스타더스트(The Rise and Fall of Ziggy Stardust and the Spiders From Mars·1972)’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미국 음악전문지 롤링스톤은 ‘지기 스타더스트’를 ‘역대 가장 위대한 록 앨범 50’ 중 하나로 선정했다.<br/><br/>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난 팝의 천재인 보위를 듣고 보면서 자랐다. 재창조의 대가인 그의 죽음은 커다란 손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팝스타 마돈나 역시 “이 위대한 예술가는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면서 “당신을 만나 행운이었다. 사랑한다”고 애도했다.<br/><br/>조효석 문수정 기자 promen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07.txt

제목: [오늘의 설교] 육이 먼저인가 영혼이 먼저인가  
날짜: 20160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1173917332  
본문: 병원목회 현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장기 투병 중인 환우를 많이 만납니다. 특히 믿음이 돈독한 환우들이 고통스럽게 투병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비환우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삶을 누렸을 텐데 말입니다. 뇌졸중이나 암, 안전사고 등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br/><br/> 왜 우리 삶은 풍요롭지 못하고, 영혼과 육신마저 건강치 못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영혼을 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br/><br/>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br/><br/> 이를 위해선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됨 같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환우들 가운데 “병만 나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세속적인 복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구원의 복이 먼저입니다.<br/><br/>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후에 축복은 따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돼야 합니다. 범사가 잘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span class='quot0'>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span>”(마 18:18)<br/><br/> 가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한 번 잘못 들어가게 되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계속 꼬이게 됩니다. 한 번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이내 내리막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span class='quot0'>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span>”(잠 16:3) 탕자는 인생의 막다른 내리막길을 달려가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br/><br/> 마지막으로 육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악의 질병으로 오염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으로 투병하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병을 찾아내는 진단의술은 최첨단의 길을 가고 있으나 치료의술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물질의 풍요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으나 인생은 날로 괴롭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육신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입니다. 자아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혼과 몸이 질병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br/><br/>김영림 목사(인천적십자병원 원목)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08.txt

제목: [시선] 헬조선을 헤븐조선으로…  
날짜: 2016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8214718631  
본문: 사막과 광야의 길을 내는 소명 가졌던 아브라함·모세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인생의 길을 가자 <br/> <br/><br/>지금 이 땅이 지옥같이 살기 어렵다고 해서 붙여진 ‘헬조선’. 지난해 한반도를 관통한 이 신조어는 최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 ‘수저계급론’으로 확산되면서 그 ‘위세’를 이어가고 있다. 꿈과 비전을 찾는 것보다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현 시대를 빗댄 말로, 답이 없는 현실을 일컫는다. 젊은이들에게 헬조선은 ‘하면 된다’는 신념이 통하지 않는 절대절망 상황을 포함한다.<br/><br/>헬조선은 불공정과 불의가 만연된 한국 사회 구조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래서 ‘노력하면 된다’고 조언하는 기성세대를 향해 청년들은 ‘노력’을 ‘노오력’으로 풍자하고 “해도 안 된다고 전해라∼”며 응수한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병관 웹젠 대표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span class='quot0'>흙수저와 헬조선을 탓하는 청년에게 ‘노오력 해보았나’를 물어서는 안 된다</span>”고 밝히기도 했다. 3포(취업 결혼 출산 포기)와 5포(내 집 마련, 인간관계도 포기), 7포 세대(꿈, 희망까지 포기)가 회자되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정부의 부실 대응,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 잇따라 터진 전 세계적 테러 등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새해 벽두부터 울리는 경제위기 경고음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br/><br/><br/><br/> 헬조선과 다니엘 시대<br/><br/> 헬조선과 견줄 만한 성경 시대는 언제일까. 전문가들은 예언자 다니엘이 살았던 시절을 꼽는다. 다니엘서는 신(新)바빌로니아 제국의 왕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 2세(느부갓네살·BC 604∼562) 시절이 역사적 배경이다. 미국 노스코스트교회 래리 오스본 목사가 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두란노)에 따르면 신바빌로니아는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과 거의 다름없다. <br/><br/> 당시 바벨론은 악의 화신이었다. 느부갓네살은 악독한 통치자였다. 그는 자존심과 허영이 강했고 성미가 급하고 살인을 즐겼다. 비이성적인 데다 잔혹하기로 유명했다(단 2:4∼12; 3:1∼6, 13∼15; 4:27∼32). 요즘 ‘이슬람국가(IS)’의 만행은 저리 가라다. <br/><br/> 그는 예루살렘 정복 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각종 성물을 탈취해 ‘므로닥’이라 불리는 사악한 신의 신전에 두었다.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려고 높이 25m나 되는 황금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절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어길 시엔 즉각 처형했다(단 3:1∼15). <br/><br/>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강제 개명까지 당했다.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이었는데 ‘벨’은 므로닥 신의 칭호였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세까지 당하는 굴욕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환관(宦官)이 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부인과 가족이 있었다는 말은 없다. 다니엘의 훈련 책임자가 환관장(단 1:3,7,9)이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시편은 다니엘 시대의 지옥 같은 상황을 이렇게 요약한다. “<span class='quot1'>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span>”(시 137:4) 일명 ‘복수를 구하는 기도’의 한 대목이다. <br/><br/>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을 오롯이 견디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오스본 목사는 “다니엘은 소망과 겸손, 지혜로 무장하고 세상과 맞섰다”며 “힘들다고 떠나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강하다”고 말했다. <br/><br/> 헬조선을 ‘천국’으로 바꿔보자<br/><br/> 이런 가운데 최근 헬조선 세태를 반성하고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희망을 던지는 메시지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강력한 헬조선 시류에 대한 긍정적 ‘반격’인 셈이다. 이 새로운 분위기는 헬조선 탈출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 ‘지옥’ 같은 이 땅의 구조를 어떻게라도 바꿔보자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헬조선 기류에 편승해 절망만 하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와도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br/><br/> 첫 포문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열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탈출의 자리가 아닌 소명과 소망의 자리로 바꾸는 게 소명 받은 자의 역할</span>”이라며 “헬조선을 천국으로 바꾸라”고 제안했다. 이재철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목사도 지난해 11월 15일 주일설교에서 “한반도는 헬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언약의 땅”이라며 “사막과 광야의 길을 내는 소명을 가졌던 아브라함과 모세, 예레미야, 바울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자. 인생을 던져보자”고 말했다.<br/><br/> 작가 이외수는 최근 한 인터넷 서점이 발간하는 월간지 인터뷰에서 “요즘은 몽땅 포기하는 시대가 됐는데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암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위암 투병 중이다. 8차례에 걸친 항암치료를 끝냈고 몸무게도 20㎏이나 줄었다고 한다. 그는 “세상 돌아가는 판국에 울화통이 터지지만 주저앉지는 말자. 희망은 버리지 말자”고 했다.<br/><br/><br/><br/>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br/><br/> PPL(Peace & People Lab)재단 상임이사 김범석(46) 목사는 8일 전화통화에서 “<span class='quot2'>헬조선을 무너뜨릴 최고의 무기는 믿음의 도전</span>”이라고 단언했다. 김 목사는 “<span class='quot3'>유대민족을 이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응답하신다</span>”며 “<span class='quot3'>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span>”고 주문했다.<br/><br/> PPL재단은 그동안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해 왔다. 올해도 26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들 예정이다. 김 목사는 최근 청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라면집을 열고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br/><br/> 백석신학대학원 채영삼(신약학) 교수는 헬조선 시대 교회의 사명을 강조했다. 채 교수는 “사회 구조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헬조선의 핵심인데 교회마저 ‘예수 믿고 복 받자’만 되풀이하고 ‘상급론’을 오용하며 세속적 욕망과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희망은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미 와 있고, 오고 있고, 반드시 오게 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자”고 말했다.<br/><br/> 총신대 라영환(조직신학) 교수는 자본가들의 기독교적 윤리 회복을 주문했다. 라 교수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인용, “<span class='quot4'>오늘의 한국 자본주의는 자본가만을 위한 ‘자본가주의’라 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베버의 정신은 기독교적 자본주의의 산물인 분배와 선순환 등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span>”고 말했다. 그는 또 남강 이승훈 선생의 재산 공개념을 예로 들며 “<span class='quot4'>20세기 초 한국의 희망은 소수의 가진 자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준 데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4'>크리스천 기업가들부터 헬조선 청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분배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span>”고 제안했다.<br/><br/>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09.txt

제목: 보건사회硏, 작년 전국 ‘의료서비스 질’ 살펴보니… 울산·서울 가장 높고 광주·전남은 열악  
날짜: 20160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040618459  
본문: 암과 심혈관질환, 뇌졸중을 다루는 ‘의료의 질’은 좋아졌지만 당뇨와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의료의 질은 울산과 서울이 가장 높은 점수를, 광주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br/><br/>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질병 관련 검진율, 사망률, 환자 안전, 의료 인프라 등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집대성해 의료의 질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상당수 암에서 검진과 치료가 향상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br/><br/> 특히 위암은 검진율이 2005년 39.4%에서 2014년 76.7%로 향상됐고 사망률은 10만명당 22.5명에서 12.1명으로 낮아지는 등 눈에 띄게 ‘의료의 효과성’이 좋아졌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5년 상대생존율(2008∼2013년 평균)이 각각 77.8%, 7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br/><br/> 다만 유방암은 발생률이 연평균 3.03% 증가하고 사망률도 평균 1.23% 늘었다. 간암은 지역 간 사망률 격차, 소득계층 간 검진율 격차가 컸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가 최고는 21.3명, 최저는 12.0명으로 9.3명이나 차이가 났다.<br/><br/> 심혈관질환도 성적이 좋아지고 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하고 30일 이내 사망하는 비율이 2005년 11.5%에서 2013년 8.3%로 떨어졌다. 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율도 낮아졌다. 뇌졸중은 OECD 국가 가운데 치료 성과 2위를 기록했다.<br/><br/> 반면 당뇨는 의료의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당뇨 입원율(2013년 기준)이 310.7명으로 OECD 평균 149.8명보다 크게 높았다. 관리되지 않은 당뇨로 인한 입원율도 연평균 11.2%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과 관련한 자살률은 2003년 이후 11년 동안 OECD 1위다. 19세 이하 자살률도 연평균 3.3% 증가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br/><br/> 의료의 질을 점수화해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는 울산이 100점 만점에 6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67.3점) 부산(67.2점) 경기(58.5점) 순이었다. 의료의 질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43.7점이었다. 전남(49.2점), 충남(49.3점) 제주(49.5점) 등도 낮았다. 보고서는 “수도권에서 먼 지역이 의료의 질 점수가 낮았다”면서 “충남의 점수가 낮은 것은 수도권과 가까워 수도권으로 환자 유출이 많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10.txt

제목: 안정 수입원 있을때 ‘장수 리스크’ 대비하라… 직장인 위한 ‘4대 필수보험’  
날짜: 20160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040615755  
본문: 소득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금리는 낮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고정지출을 줄이고 현금 보유량을 늘리려 한다. 그래서 먼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은 당장 불요불급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직장인은 회사를 통해 4대 보험과 퇴직연금을 들어놨다는 이유로 보험의 필요성을 간과하기 쉽다.<br/><br/> 하지만 퇴직 후 평균 30년 이상을 더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자녀 양육, 질병 치료 등 이런저런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을 때 보험을 마련해놔야 한다. 6일 하나생명은 새해를 맞아 직장인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으로 연금저축·실손의료·질병·종신보험을 꼽았다.<br/><br/>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은 꼭 필요하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연말정산 시 개인퇴직연금(IRP)을 포함해 700만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가 된다. 온라인 전용 상품에 가입하면 오프라인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연금수령액을 확보할 수 있다.<br/><br/> 직장인들은 스트레스와 피로, 식습관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돼 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질병 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크게 늘어난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과 질병보험이 필요하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해두면 뜻밖의 사고를 겪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 치료와 중대 질병의 경우 특약 추가가 필요하므로 가입 전에 보장내역을 확인해야 한다.<br/><br/> 암과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중병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고 치료비도 불어난다. 이 때문에 암보험을 비롯한 질병보험은 연령별로 보험료 차등이 존재한다. 또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기간을 두기 때문에 되도록 일찍 가입해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연금 기능을 결합한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br/><br/> 사망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도 연금형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가족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사후 혜택만 있던 종신보험에 생전 혜택을 추가한 것이다. 종신보험의 절반 수준인 보험료를 내면 일정 기간 내 사망 시 사망 원인을 따지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의 대체상품으로 활용 가능하다.<br/><br/>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11.txt

제목: 위암, 남성이 여성 2배… 대부분 조기 발견  
날짜: 2016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6211447119  
본문: 국내 위암 환자 4명 중 3명은 암세포가 주변 조직이나 장기로 퍼지지 않은 ‘1기’에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실시된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빅5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총 85곳이 위암 수술을 잘하는 1등급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7∼12월 201개 의료기관이 실행한 위암수술(위절제술·내시경위절제술) 9969건을 평가한 결과, 74.5%는 원격 전이가 없는 1기에 해당됐다고 6일 밝혔다. 상당수 암이 위 점막에만 머물고 림프절을 침범하지 않은 초기 상태였다는 뜻이다.<br/><br/> 건강검진의 대중화가 위암 조기 발견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초기 위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설령 증상이 있어도 윗배·명치 통증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증상과 구분되지 않는다.<br/><br/> 연령별 위암수술은 남성(68.7%)이 여성(31.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남성은 60대(31.7%) 50대(27.8%) 70대(24.4%)순으로 많았다. 여성은 70대(24.1%) 50대(23.7%) 60대(22.9%) 순이었다.<br/><br/> 수술 적정성 평가 결과, 전체 종합점수는 평균 95.3점으로 높았다. 암 치료를 위한 5개 진료과의 전문인력 구성 등 ‘치료 대응력’은 전체 평균이 81.7%로 다소 낮았다. 또 내시경절제술 후 절제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전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위절제수술을 실시하는 비율도 평균 76.3%로 비교적 낮았다. 재발을 막기 위해 수술 후 8주 안에 권고되는 보조 항암치료 실시율은 병원급이 77.8%로 전체 평균(84.0%)보다 낮았다.<br/><br/>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12.txt

제목: 어설픈 백화점 강도 사연에 밀려든 온정  
날짜: 2016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5040201928  
본문: 끼니를 때우지 못할 정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다 어설픈 강도 행각을 벌였던 50대 가장에게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답지했다.<br/><br/>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백화점 주차장 강도사건의 피의자 이모(53)씨에게 시민 80여명이 모은 성금 약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5일 서울 강남의 백화점 주차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차에 오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다. 당시 이 여성과의 몸싸움에 밀려 힘없이 흉기를 떨어뜨리고 달아났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은 닷새 뒤 경기도 문산의 한 컨테이너에서 이씨를 붙잡았다.<br/><br/> 연매출 100억원대 중견 건축자재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잇따른 사업 실패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로 회사가 부도나자 범행에 나선 터였다. 강도짓을 하기 이틀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흉기를 떨어뜨렸다고 경찰관에게 고백하기도 했다. 두 자녀를 키우며 암 투병 중인 80대 노모까지 돌봐야 했던 가장이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사건이었다.<br/><br/> 사연이 알려지자 30대 주부와 중년 사업가 등이 이씨를 돕겠다고 나섰다. 사업에 실패했다가 재기했다는 남성은 500만원을 선뜻 내놨다. 한 중년 남성은 강남경찰서 강력팀 사무실로 찾아와 30만원이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 마트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생필품을 이씨 집에 보냈다고 한다. 시민들의 성금은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이씨의 딸과 고교 2학년 아들의 학비로 쓰일 예정이다.<br/><br/> 이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씨는 경찰에 편지를 보내 “<span class='quot0'>범죄자지만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출소하면 꼭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span>”고 했다.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13.txt

제목: [2016년 새해 연령대별 건강관리 가이드] 40대 심장질환-50대 뇌졸중, 돌연사 방아쇠  
날짜: 2016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5040202393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br/> <br/><br/>2016년 새해가 밝았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란 말이 있다. 그 탓일까. 새해 소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건강이다. <br/> <br/> 하지만 ‘작심삼일 금연, 다이어트’란 말처럼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질병은 발병 후 잘 치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루 7∼8시간 수면, 아침식사 챙겨먹기, 간식 안 먹기, 적절한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음주, 금연 등 7가지 건강행동 중 6개만 실천해도 남자는 11년, 여자는 7년이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새해를 맞아 평생건강을 위해 연령대별로 주의할 것을 해운대백병원 가정의학과 박승국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 최윤호 교수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br/> <br/>◇20, 30대=아직 질병보다는 사고사가 많은 연령층이다. 사망원인 1위는 운수사고다. 교통사고 등을 뜻하는데 대부분 술이 원인이다. 따라서 과음을 삼가는 것이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 되는 시기다.<br/><br/> 20, 30대의 사망원인 2위는 자살이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만한 가정생활,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스스로 양식을 쌓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울증이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자칫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br/><br/> 30대는 간 질환 사망률이 높은 시기다. 많은 사람이 간 질환을 40대 질환으로 알고 있지만 30대 사망률도 꽤 높다. 원인은 알코올성 급성간염과 간경변, 바이러스성 급성간염 및 간부전이다. 급성 간질환은 치료도 치료지만 무엇보다 술부터 줄여야 한다.<br/><br/>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후천성(2차성)보다는 선천성 심뇌혈관 이상에 의한 사망과 급사가 대부분이다. 돌연사의 경우 과도한 음주, 흡연, 스트레스가 방아쇠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피해야 할 것에는 문란한 성 접촉도 있다. 성병과 에이즈는 물론 B형 간염 등 성 매개 감염질환을 옮기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br/><br/> 건강관리를 위해 적어도 1∼3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혈액검사, 대변검사, 흉부 X선 검사, 갑상선 검사는 매년 하는 것이 좋다. 각종 성인병이 이 시기에 발아하기 때문이다. 만성위염이 있는 사람은 35세 전후부터 해마다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50대부터 급증하는 위암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다.<br/><br/> ◇40대=100세 시대 남은 삶의 질과 건강 수준을 좌우하는 연령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br/><br/> 40대는 간 질환과 심장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때다. 특히 간 질환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창 일할 나이의 중견 직장인 남성이 간암으로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다.<br/><br/> 일반적으로 이 연령대의 협심증, 부정맥 등 심장질환 위험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3∼4배 더 높다. 아무래도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스트레스 등 심장에 악영향을 주는 생활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br/><br/> 고혈압은 고지혈증과 더불어 뇌졸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한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체중조절과 지속적인 식이·운동요법을 통해 정상혈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장애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장검진도 1∼2년마다 거르지 말고 받아야 한다.<br/><br/> 튼튼한 심뇌혈관과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 40대 성인에게 알맞은 운동으로는 조깅, 자전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향상을 위한 웨이트트레이닝이 추천된다.<br/><br/> ◇50대=특히 뇌졸중(중풍) 등 뇌혈관질환 발생을 경계해야 하는 연령층이다. 중풍은 50, 60대 나이에 빈발한다. 일단 발병하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다.<br/><br/> 주요 위험인자는 40대와 마찬가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대사증후군이다. 이들 위험인자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은 과도한 음주, 흡연, 스트레스다.<br/><br/> 그래서 어느 때보다 사전예방 노력이 중요하다. 평소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자며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길들여야 한다.<br/><br/> 50대는 또 직장암,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다. 5년마다 직장수지검사 및 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장 건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좋다.<br/><br/>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60대 이후부터 급증하는 호흡기계 질환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금연을 결심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비록 오랫동안 흡연을 했더라도 금연을 한 뒤 수년이 지나면 비(非)흡연자와 같은 수준으로 신체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끊을수록 유리하다.<br/><br/> 보통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은 50대 장년의 근력은 20대 청년의 80% 수준이다. 이를 막으려면 규칙적인 근력운동이 필요하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부상 위험을 낮춰야 하는 여성은 더욱 그렇다. 남성도 낙상 및 골절 위험이 있는 격렬한 대인접촉 스포츠는 삼가야 한다.<br/><br/> ◇60대 이후=노년에 접어드는 때로 뇌혈관질환, 기관지질환, 암 등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퇴행성 만성질환에 의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쉽다.<br/><br/> 노년기 5대 사망원인 질환은 뇌혈관질환, 기관지질환, 위암, 심장질환, 간 질환이다. 위암, 심장질환은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발견 및 치료가 용이한 편이다.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와 심장검사를 받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적절한 처방을 받아 퇴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br/><br/> 60대 이후에 생기는 질환은 대부분 노화에 의한 장기적인 신체 약화 및 악화 때문에 발생한다. 퇴행성관절염을 비롯해 파킨슨병,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질환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병의 진행을 최대한 억제해 삶의 질과 만족도를 한껏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14.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 김열홍 교수는… 최신 유전자검사·항암표적치료 연구 등 암 극복 최선봉에  
날짜: 20160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4191024304  
본문: 1959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1977년 광주제일고, 1983년 고려대 의대를 졸업했다.<br/><br/> 미국 텍사스 휴스턴 MD앤더슨 암센터를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박사후 연구원 자격으로 두 번, 방문 교수 자격으로 한 번 등 세 번 방문해 최신 유전자검사 및 항암표적치료를 공부했다. 이후 지금까지 고려대 의대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br/><br/> 김 교수는 암 극복을 위해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행동하는 의사’다. 고려대 안암병원 암센터장 외에도 고려대 암연구소장, 고려대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 소장을 겸직하고 있다.<br/><br/> 대외적으로는 대한암학회 상임이사·총무이사·학술이사를 역임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심사평가위원 및 암질환심의위원,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회장, 한국유전체학회 회장,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 기획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부의장 등을 두루 거쳤다. 대한암학회 학술위원장을 4년째 맡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25회 아시아태평양암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및 아시아임상암학회 차기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br/><br/> 위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 보조치료가 재발 억제 및 암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처음 규명,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방영주 교수와 공동으로 국제학술지 란셋(2013년)에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 160여편의 연구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보고했다. 지금은 암유전체 분석·검사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br/><br/> 전문 분야는 위암, 대장암 등 소화기암 진단과 치료다. 월·목요일 반나절만 진료한다. 하루 평균 외래 진료 환자는 40∼50명.<br/><br/> 김현웅 법무부장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비뇨기과 이영구 교수와 광주일고 동기동창이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15.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45) 고려대안암병원 암센터] 환자 마음까지 치유… ‘암과의 전쟁’서 승기  
날짜: 20160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4191022897  
본문: 암을 치료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몸 속 어디에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을 할지,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지를 결정해야 한다.<br/><br/> 암 치료에 다학제 협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다학제 협진이란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는 의사뿐 아니라 환자를 볼 일이 거의 없는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타과 의사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정도(正道)를 찾는 과정이다.<br/><br/> 물론 수술을 결정해도 간단치 않다.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개복수술, 복강경 수술, 냉동수술, 로봇수술 등 다양한 의료술을 총동원해 부작용이나 큰 후유증 없이 암을 제거하기 위해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br/><br/> 고려대안암병원 암센터(센터장 김열홍·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암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이 모든 무기를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곳이다. 특히 대장·직장암, 갑상선암, 자궁암·난소암,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암 치료에 로봇수술을 접목시켜 미래의학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br/><br/> 로봇수술은 혈관상태, 혈류흐름, 조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안전성과 정교함도 뛰어나다. 한 개의 배꼽 구멍에 여러 개의 미세한 로봇 팔을 삽입해 수술 후 흉터가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환부를 10배 이상 확대한 3차원 화면을 보며 시술하므로 주위 정상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br/><br/> 첨단 수술 장비는 뛰어난 의료진과 함께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얻게 마련이다. 고려대안암병원 암센터가 그런 곳이다. 대장암·직장암 수술 분야 대가로 인정받는 김선한 외과 교수, 전립선암 수술 최고 권위자 천준 비뇨기과 교수, 아시아 최다 방광암 로봇수술 기록을 자랑하는 강석호 비뇨기과 교수 등 세계최고 의료진이 포진하고 있다.<br/><br/> 후두부 머리카락 경계선을 이용해 흉터가 눈에 띄지 않는 갑상선수술을 선도하는 정광윤 이비인후과 교수와 입안으로 수술해 작은 흉터마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경구(經口) 갑상선수술을 세계최초로 선보인 김훈엽 내분비외과 교수, 흉터 없는 유방재건성형 수술로 유명한 윤을식 성형외과 교수도 있다.<br/><br/> 고려대안암병원 암센터는 김열홍 센터장을 중심으로 암 세포의 특정 유전자변화를 타깃으로 삼아 정밀 항암 표적치료제 개발을 위한 다국적 임상시험 연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암의 진행과 전이를 막는 표적치료제도 활발하게 연구 중이다.<br/><br/> 표적치료제를 이용한 최적의 정밀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김 센터장은 암 치료 역사를 바꿀 유전자 검사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을 이용해 혈액에 떠다니는 암세포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를 이용하면 조직검사 없이 피 한 방울만으로 암환자의 몸속에 어떤 유전자변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br/><br/> 고려대안암병원 암센터는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는 ‘암 치유 희망병동 안암동(安癌棟)’을 바탕으로 환자와 동행하는 의료기관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안암동은 암센터가 있는 행정구역 안암동(安岩洞)에서 따온 이름이지만, 환자가 내 집같이 편안하게 머물며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br/><br/> 병동에는 국내 어느 병원에도 없는 ‘희망우체국’이 있다. 일반 우편물을 발송하는 우체국이 아니라 우편물을 보내면 1년 뒤 배달되는 느린 우체국이다. 안암동서 치료를 받은 암 환자가 1년 뒤 자신의 투병생활을 돌아보거나, 가족의 곁을 떠나기 전 남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이다.<br/><br/> 김열홍 교수는 “암은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꾸준히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설사 암 진단을 받아도 적절하게 치료하고 잘 관리하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정도로 위험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희망을 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16.txt

제목: [사설] 음주·흡연·비만 사회적 비용 증가추세 방치 말라  
날짜: 20160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4174954658  
본문: 음주·흡연·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3조3477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4일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평가’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 음주·흡연·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이같이 추산했다고 밝혔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음주 9조4524억원, 흡연 7조1258억원, 비만 6조7695억원에 달했다. 이 비용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비 22조원과 올해 국토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0조7632억원보다 많은 규모다.<br/><br/> 문제는 음주·흡연·비만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5년부터 2년 간격으로 추산한 결과 첫해 13조5000억원인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9년 2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11년 21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8년간 사회경제적 비용이 음주 1.56배, 흡연 1.62배, 비만 2.22배로 늘어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건강위험요인 중에서 비만의 영향력이 흡연과 음주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br/><br/> 음주·흡연·비만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2·3위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발병·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음주교통사고, 폭행, 성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음주·흡연·비만은 서로 연관성도 깊은 편이다. 대체로 술을 마실 때 담배를 많이 피우고, 고열량인 술과 안주를 즐기면 비만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흡연과 비만은 본인 책임이 크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말고 즉각 금연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금연클리닉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식사량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 비만도 해결할 수 있다.<br/><br/> 하지만 음주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권하고 있다. 회식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때다. 취객의 일탈과 범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도 쇄신해야 한다. 음주·흡연·비만으로 파생되는 각종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와 단체, 기업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안 마시고, 안 피우고, 더 걷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17.txt

제목: 가수 서유석 집사 “가는 세월,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 은혜·섭리”  
날짜: 2016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3184339727  
본문: 1970년대 인기곡 ‘가는 세월’로 사랑받은 가수 서유석(71·연세대학교회) 집사가 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은 안수집사로 교회를 섬긴다</span>”며 근황을 소개했다.<br/><br/> 최근 기독문화선교회(대표 서정형)와 함께 간증집회를 다니고 있는 서 집사는 “<span class='quot1'>칠십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였다</span>”고 털어놨다. 그는 “<span class='quot1'>요즘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부쩍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기도하는 동안 세상 시름 잊으니 좋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행복하다</span>”고 말했다. <br/><br/>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생활을 하고 우연치 않게 가수가 돼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 반(反) 정부 발언으로 방송에서 하차하고 또 복귀한 것, 기도 받고 병이 치유된 것, 간증집회 강사로 인도하신 것 등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br/><br/> 그는 간증집회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를 얻는다고 말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구하고 찾으라’ 등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구성진 목소리로 서너 곡 부르면 많은 교인이 ‘할렐루야’로 화답해 준다고 했다. <br/><br/> 1969년 ‘사랑의 노래’로 데뷔한 서 집사는 ‘아름다운 사람’ ‘타박네’ ‘가는 세월’ ‘구름 나그네’ ‘홀로 아리랑’ 등의 히트 곡을 냈다. 라디오 교통방송 프로그램을 30년 넘게 진행한 전문MC로도 유명하다. <br/><br/> 그는 ‘가는 세월’에 대해 “기독교와 무관하지 않다”며 “<span class='quot1'>이 곡을 한창 부를 때는 곡의 의미를 알지 못했는데 10여년 전 성경을 읽으며 깨달았다</span>”고 귀띔했다. <br/><br/> “노래 가사가 전도서 1장 2∼11절 말씀의 의미와 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는 세월’은 얼핏 들으면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암울했던 시대상황과 함께 소나무처럼 늘 푸른, 변하지 않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렇잖아요.” <br/><br/> 그는 요즘 제2 전성기를 맞고 있다. 최근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를 발표해 인기몰이 중. 1990년 발표한 ‘홀로아리랑’ 이후 처음 발표한 자작곡이기도 하다. 중장년층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아낸 해학적인 노랫말이 눈길을 끈다. <br/><br/> ‘삼십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튕겨 나와 길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백수라 부르지/ 월요일에 등산가고 화요일에 기원 가고 수요일에 당구장에서/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상가 집∼’(‘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중)<br/><br/> 그는 “<span class='quot1'>이 노래는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서 힌트를 얻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중장년층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갖기 바라는 마음에서 곡을 만들었다</span>”고 밝혔다. <br/><br/> 이 곡은 음원 공개 전부터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2014년 6월 60대 남녀 네 명이 이 곡을 연주하고 노래한 ‘너는 늙어봤냐?-60대 어르신 자작 뮤비’란 제목의 영상이 폭발적 인기를 누렸던 것. 서유석 곡이었던 것이다. 3일 현재 조회수는 148만여건이다. <br/><br/> 5년 전 암 진단을 받았던 사실도 들려줬다. <br/><br/> “암 진단을 받았어요. 목사님께 기도 받고 깨끗이 나았다면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죠. 기도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적은 믿음이지만 하늘에 상달된 것 같습니다. 새삼 기독교 신앙체험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br/><br/> 그는 한국교회의 성장이 정체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국교회와 목사님을 무작정 욕하는 것도 경계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교회가 위기일수록 더 기도해야한다</span>”고 조언했다. <br/><br/> 한편 서 집사는 ㈔독도사랑회 대표도 맡고 있다. 전국순회 공연을 하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그는 “젓가락 하나를 부러뜨리기는 쉽지만 여러 개가 뭉쳐 있으면 부러뜨리기 쉽지 않다”며 “모두 함께 주의 복음과 이 나라를 위해 뭉쳤으면 한다. 그러면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br/><br/>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18.txt

제목: [한설희 칼럼] 매생이국 내어준 장모의 특별한 사랑  
날짜: 2016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3182329175  
본문: ‘미운 사위에게 매생이국 준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아무리 밉살맞은 사위일지언정 입천장을 데고야 말게 하는 뜨거운 매생이국을 내주는 장모가 있을까 싶다 만은 어느 모로 보아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이다. 매생이는 가늘고 조직이 촘촘하며 점도가 높기 때문에 뜨겁게 끓여 놓아도 모락모락 김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니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친절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는다면 누구나 영락없이 입천장이 벗겨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매생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가를 알고 나면 장모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야 할지도 모르겠다.<br/><br/> 매생이는 겨울철 오염되지 않은 청정 해역에서만 자라는데, 겉모양이 파래와 비슷한 녹조류다. 매생이라는 이름은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라는 순수 우리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매생이의 학명은 Capsosiphon fulvescens인데 의학 논문집을 조사해보면 어렵지 않게 매생이의 의학적 효능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Cancer Cell International라는 학술지 2015년 판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매생이는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는 물론 강력한 항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 안에서 발생되는 유해산소를 중화시켜주는 효소의 생산과 활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유해 산소의 양이 증가되어 우리 몸은 세포가 노화하거나 손상되고 암 세포로 변환되기 쉬운 상태로 변하게 된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노화와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br/><br/> 둘째, 2014년 유럽 영양학회지와 2015년 Marine Drugs에 잇달아 매생이 추출물이 당뇨 및 그 합병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특히 중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제 2형 당뇨병의 경우,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포도당이 혈액 내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최종당산화물(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AGE)’이라는 화합물이 합성된다. 그런데 이 AGE라는 물질이 노화와 당뇨병 합병증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매생이의 생활성 성분이 AGE의 생성을 억제하여 당뇨 합병증을 막아주는 것이다. <br/><br/> 셋째, 매생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물성은 혈액의 항응고 작용인데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해준다’는 속설이 사실이었음을 말해준다. 혈전생성을 억제하여 뇌졸중 위험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해조류들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포화지방의 함량이 낮고 오메가-3, EPA, DHA, 리놀렌산(linoleic acid) 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 함량은 매우 높다. 매생이도 예외는 아니어서 혈중의 지방 농도를 낮춰주는 저지방 식품인 동시에 열량은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는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제격이다. 겨울철 운동량이 부족하여 비만과의 전쟁을 치르려는 사람에게 좋은 무기가 되어준다. <br/><br/> 다섯째, 매생이는 엽록소 이외 다양한 비타민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비타민의 보고라 할 수 있는데 특히, 비타민 A, B1, B12, C, D, E, 리보플라빈, 니아신, 엽산 등이 골고루 들어있어 생체 기능 활성에 도움을 준다. 빈혈을 예방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며 스트레스와 우울증 해소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매생이에는 요오드, 칼슘, 인, 나트륨, 칼륨 등 무기염류(미네랄) 의 함량이 풍부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웬만한 감기 기운 정도야 매생이국 한 사발이면 쉽게 물리칠 수 있다. 이쯤 되면 미운 사위에게 준다는 매생이국이 어쩌면 장모의 사랑이 가득 담긴 건강식일지 모른다. “<span class='quot0'>다시 장가든다면 목포와 해남 사이쯤, 매생이국 끓일 줄 아는 어머니를 둔, 매생이처럼 달고 향기로운 여자와 살고 싶다</span>”로 시작되는 시인 정일근의 ‘매생이’라는 시가 생각나는 겨울이다.<br/><br/>한설희 건국대병원 신경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19.txt

제목: [탐방-건국대병원 폐암센터] 막강 팀워크 구축… 예후·환자신뢰도 높여  
날짜: 2016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3174312092  
본문: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원인은 ‘흡연’이다. 하지만 최근 흡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폐암 발생이 증가하면서 학자들은 비흡연자 폐암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br/><br/> 이계영 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겸 폐암센터 소장은 아시아권에서 비흡연자인 여성에게서 폐암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흡연 여성도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요리과정에서 노출되는 발암성 연기와 그 외 유전학적 원인들이 비흡연자 여성에게의 폐암 발생 원인인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흡연자만 폐암에 걸린다는 선입견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 여성 폐암 환자의 증가와 함께 주목할 점은 이들에게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같은 폐암이라도 유전자변이로 발생한 경우라면 표적항암제가 큰 치료효과를 거둔다. 이 교수는 “비흡연 폐암환자에게서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진행성 폐암환자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면 해당 유전자에 맞는 약물을 투여한다. 이것이 표적항암제 치료의 원리”라고 설명했다.<br/><br/> 건국대병원 폐암센터에서는 진행성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항암제의 표적이 되는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다면 표적항암제 치료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유전자 변이를 검사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 방법과 예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span>”라며 “<span class='quot0'>EGFR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는 검사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ALK 유전자 검사도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 진단 당시 조기 폐암이라면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나 3기라면 두 가지 이상의 치료법을 적용해야한다. 폐암치료에 있어 의료진의 경험과 팀워크가 중요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건국대병원 폐암센터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 교수는 “팀워크가 좋아 각 진료과의 폐암 전문가가 한 데 모여 환자의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방사선 치료 후 수술을 할지, 항암치료 후 수술을 할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폐암 전문가 팀을 구성해 3기 환자를 대상으로 다학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 예후가 좋고 의료진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장점도 있다</span>”고 덧붙였다.<br/><br/> 폐암 4기 이상 즉 다른 장기로 전이했다면 항암치료가 최선의 치료방법이다. 이 교수는 “환자마다 암의 특성이 다르다. 암 조직학적 특성에 맞춰 항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폐암센터 내 병리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폐암은 1,2기 환자에서 절반 가까이 재발하는 악명 높은 암이다. 이 때문에 병원은 치료를 마친 환자라도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이점을 의료진에게도 교육하고 강조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재발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노력해야한다</span>”고 당부했다.<br/><br/> 한편, 이계영 교수는 폐암의 낮은 생존율을 타파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기진단법이 개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현재 체액을 이용한 폐암 검사법을 연구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또한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에게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저선량 CT 검진 방법을 비흡연자에게도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한다</span>”고 강조했다. 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20.txt

제목: 수면내시경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  
날짜: 2016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3173309432  
본문: 올해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적용이 보다 확대된다.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 검사의 전면급여가 추진되고, 수면내시경에도 급여가 적용되는 등 고비용 필수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1월부터는 암·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3월부터는 희귀질환(질병코드가 없는 희귀질환 등) 및 상세불명희귀질환자도 본인 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br/><br/> 국가암검진 중 간암 및 자궁경부암의 검진주기 및 연령도 조정된다.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현행 1년의 검진주기를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에서 발생증가를 반영해 검진 시작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에 어린이(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을 추가해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의 경우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현재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기준 199만원) 이하’에서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3만5000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br/><br/> 위조·불량의약품 차단시스템도 본격 도입된다. 의약품의 최소 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토록 해 위조·불법의약품 차단에 나선다. 2015년 생산된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2016년에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단계적(제약·수입사 2016년 7월, 의약품도매상 2017년 7월부터)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토록 의무화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체계를 구축한다. <br/><br/> 한약제제에서 짜먹는 약(연조제)와 알약(정제)도 1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한약제제는 가루약(산제) 형태만 보험적용이 가능해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 등은 복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제제로 개발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또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인력·시설의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추가 신고해야 한다.<br/><br/> 한편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확대된다.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11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2016년에는 127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27만원으로 인상됐다. <br/><br/>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전국 700개 읍면동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 600만원을 지원 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지원한다. 단전, 단수,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br/><br/>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우선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9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4월 이후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 신규 설치(개소당 4억7000만원), 행동발당증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개소당 4억원), 발당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서비스 확대(10억원), 공공후견서비스 확대(15억원)한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21.txt

제목: [새해 달라지는 것 (2)] 간암 검진 6개월 간격으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날짜: 20160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1050306770  
본문: 금융 <br/> <br/><br/>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대출받을 때 담보 가치보다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수도권은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한다. <br/> <br/> <br/> ◇신용대출자 긴급구제 도입=신용대출 만기를 앞두고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고객을 미리 찾아서 상환방식 변경, 이자 유예, 분할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 조정을 해주거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연계해 연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용대출119’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br/> <br/> <br/>◇만능통장 ISA 도입=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관리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이다. 연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총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르면 3월 시판될 예정이다. <br/> <br/> <br/>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18일부터 시행된다. <br/> <br/> <br/>◇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특례=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의 해외주식 매매와 평가 차익, 이에 따른 환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 기간은 새해 첫날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세제 혜택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받을 수 있다. 1인당 납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br/> <br/> <br/>◇계좌 이동 서비스=2월부터 각 은행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자동이체 등의 계좌를 바꿀 수 있게 된다. <br/> <br/> <br/>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 개설 등이 가능해진다. <br/> <br/> <br/>◇개인 워크아웃 비율 확대=신용회복위원회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의 채무를 덜어주는 개인 워크아웃을 실시할 때 원금 감면율을 최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폭도 70%에서 90%로 확대한다. <br/> <br/> <br/>◇자동차 보험 맞춤형 비교 도입=보험다모아(e-insmarket.or.kr)에서 4월부터 개인별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해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보험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도 비교 가능하다. <br/> <br/> <br/>◇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연매출 3억원 이하 카드가맹점은 31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0.7% 포인트 더 적게 낸다. <br/> <br/> <br/>◇실손의료보험 개선=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된다. 해외 3개월 이상 체류 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br/> <br/> <br/>◇자동차 보험 서비스 축소=사고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렌트비의 기준을 동종 차량 최저요금으로 바꾼다.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 사고 때에는 실제 수리비만 지급한다. <br/> <br/> <br/><br/>복지·의료·여성 <br/> <br/><br/>◇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였던 것에서 127만원 이하로 바뀐다. 최저 보장수준도 127만원으로 오른다. <br/> <br/> <br/>◇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시간당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는 가구는 전액(월 200시간 이용할 경우 13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r/> <br/> <br/>◇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 확대=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자립촉진수당(10만원)의 자녀 연령 조건(24개월 이하)이 폐지된다.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br/> <br/> <br/>◇국가 암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간암 검진은 기존 1년에서 6개월 간격으로 당겨진다.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낮춰진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br/> <br/> <br/>◇한약 건강보험 확대=짜먹는 한약(연조제)과 알약(정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가루약(산제) 형태의 한약만 보험적용을 받았다. <br/> <br/> <br/>◇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적용=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인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본인 부담률도 낮춘다. <br/> <br/> <br/>◇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자 확대=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99만원(전국 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에서 263만5000원(기준 중위소득 60%)으로 넓어진다. <br/> <br/> <br/><br/>교육 <br/> <br/><br/>◇자유학기제 전면 시행=다양한 체험활동 및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는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학교가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학기를 정한다. <br/> <br/> <br/>◇수능 한국사 필수 과목 지정=한국사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 응시과목이 된다.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쉽게 출제하고 성적은 절대평가로 등급(9등급)만 부여한다. <br/> <br/> <br/>◇수능 국어 A·B형 폐지=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국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은 가/나형으로 운영된다. 국어 및 수학 영역 수준별 시험(A/B형)은 폐지된다. <br/> <br/> <br/>◇교원평가제도 개선=학교성과급제는 폐지되고 개인성과급 평가로만 교원성과급을 지급한다. 근평 대상기간은 연도에서 학년 단위로, 다면평가 반영비율이 30%에서 40%로 바뀌며 정량평가가 추가된다. <br/> <br/> <br/>◇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대학 교육과 사회수요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PRIME 사업을 신규 추진해 2012억원을 지원한다. <br/> <br/> <br/>◇대학 인문역량 강화=인문학을 기초학문으로 육성하고 사회 수요를 반영한 학과·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CORE 사업을 신설, 인문학 발전계획 수립한 대학을 지원한다. <br/> <br/> <br/> <br/><br/>사법 <br/> <br/><br/>◇소년법 보호처분 감독 강화=3월부터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잘 집행되는지 직접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하게 된다. <br/> <br/> <br/>◇특허재판 관할 집중=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침해 소송의 경우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 5개 법원으로 1심의 재판 관할권이 집중된다. 2심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된다. <br/> <br/> <br/>◇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개선=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형식이 하반기부터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로 개선된다.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정보만 선택해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br/> <br/> <br/>◇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업무처리 개선=재외공관 직무파견자 사건 처리 범위를 사망사건 외 사건으로 확대한다. 공관 사무담당자용 실무교재가 출간되고, 사무소 홈페이지가 개선된다. <br/> <br/> <br/>◇전자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외국 기관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 필요한 아포스티유(공문서 효력 확인 인증서)의 인터넷 발급이 9월부터 가능해진다. 재외국민이 개별 컴퓨터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br/> <br/> <br/> <br/><br/>날씨 <br/> <br/><br/>◇기상기후 빅데이터 정보 개방=6월부터 기상기후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br/> <br/> <br/>◇3차원 기상분석 해설영상 제공=2월부터 날씨에 대한 전문가의 입체적 해설 동영상을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br/> <br/> <br/>◇태풍정보 동적 제공=5월부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태풍 상세 정보를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br/> <br/> <br/>◇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신청시스템 운영=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리자에게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등을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4월부터 개인이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br/> <br/> <br/> <br/><br/>환경 <br/> <br/><br/>◇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확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중금속 함유량, 유해물질 방출량 등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br/> <br/> <br/>◇5개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위반하는 사업장은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br/> <br/> <br/>◇지자체 간 인접지역 가축사육 제한=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br/> <br/> <br/>◇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환경책임보험이 도입돼 환경오염 피해도 자동차 보험처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원인 제공자 미상, 무자력(無資力·경제력 없음) 등 사유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br/> <br/> <br/>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22.txt

제목: [뉴스파일] 강원도 삼척시, 100세 건강지킴이 육성 추진  
날짜: 201512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30210559106  
본문: 강원도 삼척시는 미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6년 100세 건강지킴이 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로면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통합건강증진 전문강사와 외부강사가 직접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방문해 절주, 금연, 걷기운동, 우울증, 당뇨병, 암검진, 콜레스테롤 관리 등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사둔2리와 하거노3리 등 5개 마을에서는 2개월 간 노인실버체조,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실버레크리에이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23.txt

제목: 헤비메탈 그룹 ‘모터헤드’ 리더 레미 킬미스터, 암 투병 끝 사망  
날짜: 201512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9182932320  
본문: ‘록스타들의 록스타’ 모터헤드의 리더 레미 킬미스터(보컬·베이스·사진)가 28일(현지시간) 숨졌다. 향년 70세.<br/><br/> 영국 록밴드 모터헤드의 공식 페이스북은 “이 얘길 어떻게 해야 할지…우리의 위대하고 훌륭한 친구 레미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지난 26일 암에 걸린 것을 알았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비디오게임을 하면서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떠났다”고 적었다.<br/><br/> 록밴드 호크윈드 등에서 보컬과 베이스로 활동했던 킬미스터는 1975년 모터헤드를 결성했다. 영국 헤비메탈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던 모터헤드는 이후 멤버 교체 등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지난 8월 22번째 앨범을 내면서 음악적으로 건재함을 드러내기도 했다.<br/><br/>문수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24.txt

제목: [역경의 열매] 김진호 <13> 홀사모 섬기기·미자립교회 돕기… ‘은퇴 없는’ 사역  
날짜: 201512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9180920980  
본문: 목회자 유가족을 돕고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운동을 벌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들 운동을 왜 시작했는지 설명하려면 2009년 4월로 돌아가야 한다. 당시 나는 서울 도봉구 도봉교회에서 은퇴예배를 드리고 강대상에서 내려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는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은퇴식을 열어주기도 했다. 이때는 나의 목회자 인생이 새로운 길로 접어든 시점이었다.<br/><br/> 은퇴한 뒤 나는 고민을 거듭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가장 소홀히 한 분야가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 유가족을 돌보는 일과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운동이었다. 이들 두 운동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br/><br/> 특히 목회자 유가족 문제는 한국교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은퇴하고 4개월쯤 지났을까. 어느 날 목회자 남편을 잃은 홀사모들이 나를 찾아왔다. 이들은 나를 붙잡고 고충을 털어놨다.<br/><br/>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남들처럼 자식 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필요한데 너무 곤궁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br/><br/> 결국 나는 2010년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본부를 설립하고 홀사모 돕기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한 오피스텔 건물에 24㎡(7평) 남짓한 사무실도 마련했다. 그해 12월 막내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이 일에 더 애착을 갖게 됐다. 나는 최선을 다해 이들을 섬기기로 결심했다.<br/><br/> 운동본부는 매년 2월과 8월, 홀사모 자녀 중 도움이 필요한 학생 30여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생에게는 20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홀사모 자녀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br/><br/> 문제는 재원이었다. 장학금을 꾸준히 지급하려면 1년에 5000만∼6000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했다. 다행히 나와 뜻을 함께 하는 전국 감리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운동본부에 십시일반 후원금을 기탁해주기 시작했다. 덕분에 목회자 유가족을 돕는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br/><br/> 운동본부에는 매년 후원금과 함께 따뜻한 사연도 답지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오랫동안 매달 5만원씩 기부한 70대 교인, 암 수술을 받은 뒤 받은 보험금 1000만원을 내놓은 50대 남성, 단체 설립 때부터 지난해 소천할 때까지 매년 100만원씩 기탁한 고 나원용 목사….<br/><br/> 장학금 전달식에서 장학금을 받고 기뻐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 행사 때마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누군가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br/><br/>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초대해 여는 ‘신바람목회세미나’도 내가 은퇴 이후 추진한 사역 중 하나다. 세미나는 매년 3월과 10월 미자립교회 목회자 70∼80명을 초청해 이들에게 부흥 노하우 등을 전하는 행사다. 세미나를 여는 이유는 미자립교회 문제가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숙제라고 판단해서다.<br/><br/> 한국교회의 60∼70%는 미자립교회다. 이들 교회 목회자들은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젖어 있다. 나는 세미나를 통해 이들에게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라도 전하고 싶었다.<br/><br/> 한국교회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려면 큰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을 가져야 한다. 작은 교회 목회자에게 매달 5만∼10만원씩 후원금을 전달하는 일로는 부족하다. 해외에 선교사를 파견하듯 5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라면 미자립교회에 평신도 가정을 파송해야 한다. 그래야 상생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br/><br/> 정리=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br/><br/> ▶ 역경의 열매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25.txt

제목: 최대 18% 싼 온라인전용 車보험 잇따라  
날짜: 20151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8200259654  
본문: 새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보험업계에선 핀테크 경쟁이 시작됐다.<br/><br/> 롯데손보는 28일 보험 온라인슈퍼마켓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와 자체 홈페이지 ‘롯데하우머치 다이렉트(lottehowmuchdirect.com)’에서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기존의 통신판매 보험보다 보험료가 17.6%가 더 저렴하다. 판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기존에 보험 가격을 규제하던 1보험 2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온라인 전용보험 출시를 서둘렀다</span>”며 “<span class='quot0'>다른 보험사들도 온라인 상품을 곧 내놓을 것으로 안다</span>”고 말했다.<br/><br/> 현대해상은 새해 첫날에, 메리츠화재는 1월 4일에 각각 온라인 보험 전용 사이트를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다. 기존 보험료보다 15∼18% 저렴한 자동차보험을 선보이면서 운전자를 위한 연금보험, 실손보험 등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기존 설계사나 텔레마케팅의 반발도 있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가는 큰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가장 비교하기 쉬운 자동차보험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 업계에서도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지난 23일 인터넷에서만 판매하는 암보험을 선보였다. 생보업계는 비교적 비교가 쉬운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품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 보험업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한화생명은 온라인보험 판매뿐 아니라 핀테크 산업 전반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인터넷 대출중계(P2P크라우드펀딩)업체인 디안롱과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P2P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디안롱과의 합작은 김승연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전사혁신실 부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온라인 신용평가 모델 개발, 인공지능 자산관리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br/><br/> 금융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내년 4월 1일부터 보험다모아에서 개인 맞춤형 자동차보험 가격 비교가 가능해지고 여행자보험이나 어린이보험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개편할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새해에는 온라인 보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26.txt

제목: [그 후] 얼굴이 꽃처럼 환하게 피었다네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선물’ 받은 사모 27명  
날짜: 20151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5202620912  
본문: 27명의 사모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 벳산국립공원반형극장 무대에서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러 순례객들에게 박수세례를 받았던 기사 기억나시나요?(12월 5일자 17면) 그 사모들이 ‘다비드 힐링 사모회 1기’를 만들었습니다. 기도와 친목을 위한 모임입니다. ‘아니 벌써’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사실 사모회 임원진 구성은 순례 마지막 날 현지에서 이미 했답니다. 그만큼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사모님들의 열망이 컸던 모양입니다. 사모회 첫 모임이 지난 14∼15일 대전에서 열렸습니다.<br/><br/> 순례를 다녀온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지요. 전국에서 사모 20명이 참가했습니다. 열일 제쳐놓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모임의 백미는 오전 2시 무렵까지 이어진 기도회였습니다. 사모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폭력, 부교역자와의 갈등, 암 투병…. 나중에는 다들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고 해요.<br/><br/> 정규원(62·경기도 양평 양동성실교회) 사모회 회장님은 25일 앞으로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들은 각자 하나씩 가져온 선물을 나눠 갖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선옥(51·안산 대부도 양떼교회) 총무님의 아이디어였다고 해요. <br/><br/> 이 모임에는 순례를 후원한 다비드투어 이윤 대표님과 김화연 인솔자도 함께하셨어요. 정 회장님이 이 대표님께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이 대표님은 “사모님들의 얼굴이 꽃처럼 환하게 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순례를 후원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네요. 다른 사모님들도 기대되시죠?<br/><br/> 사모님들은 요즘 모바일 메신저 그룹 채팅방에서 좋은 성경 말씀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사모님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궁금해집니다.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27.txt

제목: [올해 과학기술 10대 뉴스] ‘스마트 인공피부 개발’ 등 꼽혀  
날짜: 20151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4223130183  
본문: 사람 피부처럼 신축성 있고 부드러우며 온도와 습도, 촉감까지 느낄 수 있는 '스마트 인공피부 개발'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가 방역체계 재정비 시급' 등이 올해 주목을 끈 과학기술 10대 뉴스로 꼽혔다.<br/><br/>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부섭)는 3200여명의 과학기술인 및 일반인 투표로 6건의 연구 성과와 4건의 과학기술 뉴스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인공피부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김대형 교수팀이 개발했다. 내장된 센서들이 인공피부에 닿는 물체의 온도와 습도는 물론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하고, 피부가 늘어나는 정도까지 감지할 수 있다. 발열체는 인공피부 온도를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해준다. 연구진은 인공피부의 센서에서 감지된 촉각 신호를 쥐의 말초신경을 통해 뇌까지 전달하는데도 성공했다. 실제와 똑같은 기능의 '인공 손발' 제작도 조만한 실현될 전망이다.<br/><br/> 사람 몸의 체온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을 기존보다 2배 높인 열전(熱電)소재 기술(성균관대), 섬유처럼 자유자재로 휘는 배터리 기술(삼성SDI·LG화학),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마이크로RNA 비밀 규명(서울대), 무한 재사용이 가능한 신소재 '그래핀 연료전지 촉매' 개발(울산과학기술원), 가볍고 강도 높은 친환경 철강 신소재 개발(포스텍) 등이 주요 연구 성과에 포함됐다. 또 국내 제약업계 사상 최고인 8조원대 신약 수출계약(한미약품), 핀테크 금융혁신-전자화폐 시대 개막, 스마트 원자로 수출 첫걸음 등의 소식이 과학기술 뉴스로 선정됐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28.txt

제목: ‘칼데스몬’ 단백질, 진행성 방광암에 많이 발현… 을지대병원 박진성 교수팀 처음 밝혀  
날짜: 2015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1185421610  
본문: 사람의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특정 단백질로 방광암의 진행 및 악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내 의료진이 처음으로 밝혀냈다.<br/><br/> 을지대학교병원 비뇨기과 박진성(사진) 교수팀은 방광암 조직과 정상 방광 조직에서 발현되는 단백질 600여개를 조사, 분석했다. <br/><br/> 그 결과 ‘칼데스몬(Caldesmon)’이라는 단백질이 정상 조직보다 방광암세포, 특히 근육층까지 암세포가 침범한 진행성 방광암일수록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칼데스몬 단백질이 방광암의 발생 또는 진행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칼데스몬은 사람의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그동안 세포의 미세섬유 조절이나 세포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다.<br/><br/> 이에 따라 박 교수팀은 일차성 표재성 방광암 환자 132명을 대상으로 과연 칼데스몬 발현이 암의 진행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증하는 연구를 다시 실시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칼데스몬이 발현되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재발 위험이 3.5배나 높고, 암의 진행 및 성장속도도 5.3배나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br/><br/> 박 교수팀은 이 단백질 유전자를 조작하면 암 세포의 이동이나 침윤(진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후속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방광암 표적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진다.<br/><br/> 박 교수는 “방광암이 근육층까지 파고들면 재발 및 사망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새 종양 표지자 칼데스몬 발현 정도를 보면 그 위험도를 평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항암 표적치료 분야 국제 학술지 ‘온코타깃(Oncotarget)’ 최근호에 게재됐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29.txt

제목: [암과의 동행] 다시 뜨는 온열암치료… 학회 “면역반응 증진시켜 방사선 치료등 병용시 큰 성과”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81338881  
본문: 암환자 대상의 ‘온열치료’가 방사선치료와 면역치료, 항암화학요법 등에 대한 치료 상승 효과가 있다는 최근의 임상연구들이 발표됐다.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주최로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내외 연구자들의 임상 결과가 제시됐다.<br/><br/> 온열치료(Hyperthermia)는 암 조직에 고주파 등 열을 가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 자살을 유도해 서서해 파괴시키는 방식의 치료방법이다. 이는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열을 가하는 것으로, 암 세포에 대한 인체의 면역기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많은 임상 연구자들이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혹은 면역치료 등과의 병용방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육종, 악성흑색종, 두경부암, 폐암, 신경교종, 췌장암, 식도암, 유방암, 방광암, 직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을 대상으로 한다.<br/><br/> 최근 임상 연구에 따르면 온열치료는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 치료 효과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치료는 암세포 살상 기본 작용기전은 자유산소기를 만들어 암세포 DNA를 공격한다. 하지만 저산소 상태, pH가 낮은 경우, 세포 유전자 복제기(S-phase)에서의 암 세포는 방사선 치료에 저항성을 갖는다. 이때 암 조직에 온열치료를 시행하면 혈류가 증가되고, 세포에는 산소가 풍부해진다. 이런 혈류 증가와 산소 농도 상승이 암세포가 방사선 치료에 민감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세포독성 항암제와 온열치료 병용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온열치료의 직접적인 암 세포 살상 능력과 열 치료가 항암제의 효과를 증대 시킨다는 실험실 및 임상실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온열치료는 암조직 부위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물질의 세포막 투과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암세포에 보다 높은 농도의 항암제가 투입되게 만든다는 것이다.<br/><br/> 최근 연구에서는 온열치료의 중요한 기능은 항암 면역기능 증강작용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자들은 지난 20여년 동안의 전임상과 임상시험 결과는 39∼45℃의 온도로 암을 가열하면 항암 면역 효과가 좋아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온열암치료의 미래 전망’을 발표한 미국 미네소타대학 송창원 교수는 “암 조직은 정상조직에 비해 혈관이 덜 발달돼 있다. 국소 온열치료 즉 종양조직부위에서 경도의 온도상승(39∼41℃)은 종양조직내의 산소분압을 상승시키거나 항암제의 분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암줄기세포를 줄여주며, 대식세포의 식세포 활동을 활발하게 허거나 세포독성 T-세포의 작용을 활성화 하는 등 암 면역반응을 증진시켜 방사선치료나 항암제 치료와 병용할 경우 암치료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 과학자들은 온열치료로 유도되는 열 기울기가 암치료에 있어 중요한 생물학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찾아, 이를 기반으로 온열치료기기 온코써미아를 개발했다. 온코써미아는 조직에 대한 거시적 온열치료 기능과 악성세포의 특이적인 치료가 가능한 미시적 온열치료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전용량 결합방식의 온열치료기기다. 이윤한 연세대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온코써미아는 전임상시험을 통해 암세포의 세포자살을 유도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것과 암줄기세포를 줄여 주고 줄기세포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을 확인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는 암치료에 온코써미아를 적용할 경우 암세포 전이와 재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pan>”고 말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30.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캄캄하다 느낄땐 바로 구원의 손길 붙드세요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81339406  
본문: 유방암 3기를 투병 중인 김준화 씨는 병원 가는 날 외에는 외출을 하지 않는다. 암환자란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다. 심지어 김 씨는 어렵게 응한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다</span>”는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 암 진단 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할수록 충격과 인생의 허무함을 금방 털어버리는 것이 어렵다. 또 오랜 시간 지속되는 우울한 감정은 환자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넘어 치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 <br/><br/> 한 대형병원 두경부외과에서는 암 수술 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두경부암의 특성상 치료과정에서 외모와 목소리의 변화가 크다. 종양이 입술과 입 안쪽에 자리한 경우 해당 부위를 절제함으로써 얼굴 변형이 오고, 목소리를 관장하는 후두를 넓게 절제한 경우 수술 후 쉰 목소리를 가질 확률이 높다. 해당 진료 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암 수술 후 외모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변한 암환자는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보다 이 얼굴과 목소리로 평생을 살아야한다는 걱정으로 한탄스런 감정에 빠진다</span>”며 “<span class='quot1'>신체적 회복만큼이나 마음의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신과에 의뢰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 모든 암 전문의가 자신의 암환자를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의뢰하는 것은 아니다. 진료실에서 무기력한 환자라 할지라도 이 증상이 피로에서 기인한 감정의 저하인지, 실제 우울증의 증상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br/><br/> 대형병원은 그 크기만큼이나 내부가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건 그만큼 암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음을 뜻한다. 다수의 병원에서 암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암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교육을 파악해 필요한 때 스스로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심리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암환자는 “암 치료 시작 후 항상 우울했다. 웃는 일이 잘 없었고 밤엔 잠도 잘 자지 못했다. 가족의 권유로 심리상담을 받고 짜증도 줄고 홀가분해졌다”고 말했다. <br/><br/> 정신적 증상을 무시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진단 초기 적극적이던 암 치료의지도 금방 바닥을 보인다. 최근에는 암환자를 전담으로 하는 심리치료사가 병원에 근무하며 마음이 약해진 암환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 얼마 전 심리치료를 받은 암환자 오순희 씨는 “<span class='quot2'>병원 로비에 붙은 포스트를 보고 상담을 받으러 갔다</span>”며 “<span class='quot2'>통증을 느낄 때마다 항암치료의 불확실성에 불안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했는데 상담 받으면서 한결 잠드는 것이 쉬워졌다</span>”고 고백했다.<br/><br/> 많은 암환자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 주치의 얼굴을 잠깐 보고 집으로 돌아온다. 너무도 짧은 대면의 시간은 완치에 대한 확신을 얻기에는 부족하다. 암 진단 후 치료에 매진하는 암환자의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듯 보여도 불확실성으로 불안해한다. 그러다 통증이 심하면 불안함은 두려움으로 바뀐다. 알 수 없는 우울한 감정으로 캄캄한 감정의 숲에서 홀로 헤매기보다 전문가를 만나 마음의 힘을 길러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31.txt

제목: [암과의 동행] 힘겹게 癌 이기고 일상 복귀하려는데… 암 종별 회복운동 모델 부재 개발 절실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73720522  
본문: 암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은 이들을 암 생존자라 부른다. 다른 표현으로 암 경험자라도 한다. 암 경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2차 암 발생 위험이 높고, 암 치료에 따른 후유증과 만성질환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최근 암 경험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현실은 암 경험자 스스로가 건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br/><br/>◇암 경험자 완치 후 후유증 문제 직면=이와 관련 최근 국립암센터는 ‘암 생존자를 위한 지지와 재활’ 주제로 제56회 암정복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암 생존자를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모델이 없는 현실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했다. <br/><br/> 토론에 참석한 유방암 생존자는 “유방암 수술 후 림프 부종을 앓았지만 사전에 병원에서 림프 부종 예방법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 뒤늦게 재활의학과를 찾았지만 유방암환자의 재활의학과 치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허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종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재활의학과에 의뢰해 부종을 제거했어야 하는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것이 후유증을 남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br/><br/> 이처럼 재활의학과를 찾는 유방암환자 상당수는 림프부종을 방치하다 팔이 퉁퉁 붓는 경우가 많다.<br/><br/> 이에 대해 유방암 전문의들은 “환자들에게 림프부종 예방을 강조하지만 암 경험자 상당수가 치료에 따른 합병증 관리를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자들의 합병증 관리가 ‘자기관리’ 몫으로 맡겨진 채 기나긴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br/><br/> ◇암 전문의 ‘암경험자 위한 운동’ 몰라…운동 처방 부재=암 경험자의 경우 2차 암 발생 위험이 높다. 일례로 유방암 경험자가 과체중을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반대 측 유방암 발생 확률은 1.37배 높고 자궁내막암 발생 위험은 1.96배, 대장암 발생 위험은 1.89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비만과 부적절한 영양, 신체활동 부족은 암 발생의 원인 인자다. <br/><br/> 따라서 전문가들은 2차 암 발생위험이 높은 암 경험자에게 체중관리와 운동은 필수라고 조언한다. <br/><br/> 문제는 적절한 운동 처방이 없다는 점이다. 암정복포럼에서 토론에 참여한 유방암 경험자는 “한 측 유방을 절제해 몸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다.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다보니 자세 이상과 목, 어깨 통증을 경험했지만 섣불리 재활을 위해 아무 운동이나 할 수 없었다. 수술한 부위의 팔을 사용해도 되는지, 얼마만큼의 강도로 움직여도 되지는 몰랐다. 병원에서도 한 측 유방 절제 후 적합한 운동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br/><br/> 물론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휴식을 권하고 강도 높은 운동은 삼가라고 조언한다. 반면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운동방법을 따로 처방하지 않는다.<br/><br/> 최근 전용관 연세의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와 김승일 연세암병원 유방암클리닉 교수는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암 전문의 중 60%가 따로 운동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암 전문의가 진료시간에 마주한 암환자에게 운동을 권하지 않는 이유로 ‘진료시간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24%, ‘어떤 운동을 권고해야할지 몰라서’ 21%, ‘환자에게 운동이 안전한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20.4% 순으로 조사됐다.<br/><br/> 이러한 운동 처방 부재는 암환자의 신체활동 부족으로 이어졌다. 또한 연구팀은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유방암과 대장암 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에는 운동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운동법을 알려주고 다른 한 그룹에는 운동을 권고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운동 처방을 받은 환자 그룹이 주당 87분 이상의 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 ◇암종별 운동 개발-보급…암 경험자 후유증 개선에 관건=암정복포럼 토론회 참가했던 유방암 경험자는 유방 절제 후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법을 몰라 림프부종 관리에 미숙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암경험자의 암 치료 후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전문가들도 암 경험자의 건강관리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보급도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br/><br/> 특히 암 치료로 골절 위험이 높아졌거나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진 암 경험자는 운동 전 의학적 평가와 신체활동 평가가 필요하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화된 운동처방이 내려져야한다.<br/><br/> 송욱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 교수는 “암종별 치료 후 나타나는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며 “대장암 경험자는 변실금, 장 기능 장애를 개선시킬 운동이 필요하고, 전립선암 경험자는 운동계획 시 요실금과 골밀도 감소를 고려해야한다. 또 유방암 경험자는 상체기능장애와 림프부종 해결을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 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32.txt

제목: [암수술 잘하는 병원-이대목동병원 김한수 교수] 완벽한 협진 구축…두경부암 수술 시간 대폭 줄여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81341694  
본문: 두경부암으로 고통 받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 두경부암은 오랜 흡연과 지나친 음주 습관, HPV(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단어에서 그 뜻을 유추할 수 있듯 먹고 말하는 기능을 관장하는 얼굴과 목에 생겨난 악성 종양이다.<br/><br/> 두경부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쉰 목소리와 2주 이상 낫지 않는 궤양, 출혈, 입냄새 등이다. 모두 간과하기 쉬운 증상이다. 이에 대해 김한수 이대목동병원 두경부암센터장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상당수는 내원 당시부터 심한 입 냄새가 난다. 가벼운 증상이지만 구강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 병을 키운다”고 말했다.<br/><br/> 두경부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후두암은 흡연이 강력한 원인으로 꼽힌다. 오랜 기간 흡연을 했다면 후두암 예방을 위해 이비인후과 조기검진은 필수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비인후과를 내원해 간단하고 저렴한 후두내시경만 받아도 후두암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두경부암이 폐암이나 위암과 비교했을 때 그 발생빈도는 낮지만 흡연 인구와 술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의 생활패턴을 고려하다면 결코 간과해선 안 되는 암</span>”이라고 강조했다. <br/><br/> 두경부암 치료의 기본 원칙은 완벽한 암 절제다. 주변으로 전이가 빠른 두경부암 특성 때문에 과거에는 암 덩어리 주변까지 충분한 절제를 지향했다. 하지만 수술도구와 수술법 진화로 초기 후두암의 경우 레이저 절제술과 방사선 치료만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 수술범위가 넓더라도 인공성대 삽입술과 같은 재건술로 기능의 상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절제술 후 기능의 상실로 삶의 질 저하를 겪는 환자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구강암이나 후두암에서 수술 후 장애 비율을 최소화하는 재건술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br/><br/> 김 교수가 속한 이대목동병원 두경부암센터는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전문의와 재건을 위한 성경외과, 항암-방사선치료를 위한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등으로 구성됐다. 김 교수는 성공적인 두경부암 치료를 위해 협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여생의 가치를 고려한 치료 계획에 있어 종양의 절제만큼이나 기능의 상실을 막는 재건술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협진이 얼마나 이뤄지느냐의 따라 기능의 보존과 수술 후 삶의 질 정도가 달라진다</span>”고 설명했다.<br/><br/> 두경부암은 절제부터 재건술까지 수술 시간도 반나절이 소요된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수술시간을 3분의 1정도 줄였다. 비결을 묻자 팀워크라고 답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특정 진료과가 진두지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가 능동적으로 수술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참여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에게 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술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br/> 두경부암센터의 또 다른 강점은 수술 후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도록 한다는 점이다. 암 수술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노력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암만 떼어내는 시대를 지나 완치 후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span>”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3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유수종 서울대병원 교수 “간암의 최대 적은 음주·비만”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74923883  
본문: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간암 고위험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 의지와 가족의 독려가 중요합니다.”<br/><br/> 간암은 한국인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암이다. 최근 조사에서 사망률이 높은 암 2위를 기록했다. 다른 암과 달리 간암을 일으키는 요인은 비교적 명확하다. B형·C형간염 바이러스, 음주로 인해 발생한 간경변증이 간암의 뚜렷한 발병 원인이다. 유수종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교수는 간암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고 정기검진을 빼먹지 않는다면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br/><br/> 유수종 교수는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국가 간암 검진 대상자로 분류돼 6개월에 한 번씩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라는 혈액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잦은 음주 습관을 갖고 있거나 과체중이면서 혈당 조절이 어렵다면 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도 간암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가암검진 중 간암 검진 대상자로 선정돼있지 않더라도 간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패턴과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간암 유무를 알아보는 혈액검사가 필요하단 이야기다. 혈액검사에서 간암이 의심되면 간 초음파검사를 받아야한다. <br/><br/> 유 교수는 음주 습관이 개선되지 않고 체중조절에 실패하는 간경화 환자에 대해서는 혈액검사 간격으로 6개월 이내로 잡는다고 한다. 환자에게 질환의 경각심과 체중-간수치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유 교수는 “알코올성 간경변증 환자들 중 음주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알코올 중독 치료가 필요하다. 신경정신과에 의뢰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한다. 환자의 치료 의지를 북돋고, 치료 성과도 내기 위해 신경정신과와 협진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치료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환자라 할지라도 중독 치료는 알코올로 인한 간경화 치료에 필수적인 부분인 셈이다. <br/><br/> 알코올성 간경화나 만성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 모두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희망적이다. 문제는 환자의 치료 의지다. 단 한 번의 치료로 완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함이 요구된다. 유 교수는 간염 환자의 상당수가 시간이 갈수록 약물 순응도도 낮아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span class='quot0'>현재 B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약물이 나와 있지만 평생 복용해야하기 때문에 치료 초기에만 약 복용법을 잘 이행하고 이후에는 게을리 하는 경향이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br/> 일단 중증 이상의 간경화로 진행되면 좀처럼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약물복용의 성실함과 꾸준한 생활습관 개선이 병의 진행을 막는 방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br/><br/> 유 교수는 “<span class='quot0'>B형간염은 모태감염이 주된 감염원인이므로 가족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술과 비만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술을 마신 다음날에는 또 술을 마시는 행동을 삼가고 과체중일 경우 평소 먹는 밥의 양부터 조절해가는 식습관을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34.txt

제목: [암과의 동행-암과 영양] 배병노 상계백병원 외과 교수 “대장암 예방은 회식 줄이는게 최선”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80133453  
본문: 암의 예방과 치료에서 식습관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식습관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암이 대장암이다. 대장암은 노년층에게 많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젊은층인 40∼50대에서도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과 배병노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잦은 회식을 피해야 하고 저칼로리의 식습관이 중요하다</span>”고 당부했다.<br/><br/> 배 교수는 “젊은층의 대장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장은 소화기관과 관련돼있기 때문에 식습관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노년층의 어르신들은 원래도 주로 토속적인 식단으로 식사를 하시기에 식습관이 대장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중년층은 다르다. 중년층은 잦은 회식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대장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령자들의 경우 평소에 먹던 식습관을 유지해도 괜찮다. 중장년층의 경우 육류 섭취나 음주 등을 줄이는 것이 좋다.<br/><br/> 특히 고기와 함께 과음을 하게 되는 회식 자리가 대장암에는 치명적이다. 배 교수는 “<span class='quot1'>따라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술과 고기를 함께 먹는 회식은 일주일에 1번 정도가 적당하며, 2번 이상은 자제해야 한다</span>”고 권고했다.<br/><br/> 또한 고칼로리 섭취도 주의해야 한다. 배 교수는 “<span class='quot1'>실제로 3500㎉ 정도의 고칼로리를 섭취하는 사람이 1500∼1700㎉ 정도의 저칼로리로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70%, 즉 1.7배 정도 높다</span>”라며 “<span class='quot1'>또한 식습관에 있어서는 신경 써서 먹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30∼35% 더 낮게 나타난다</span>”고 말했다.<br/><br/> 우리 식습관이 보통 6세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배 교수의 지론이다. 그는 “요즘 아이들은 패스트푸드 등 가공육을 많이 선호하는데 이보다는 잡곡밥이나 채소 등 토종 식단 위주로 먹도록 해야 한다. 또 많은 양의 탄수화물 섭취도 자제해야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br/> 대장암 환자의 식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이에 대해 배병노 교수는 “대장암에는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하기에 백미보다는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추천한다. 또 육류보다는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물론 단백질 섭취도 필요하기에 고기도 필요량은 섭취해야 한다. 단 붉은 고기는 피해야 하고 생선이나 콩 등 식물성 단백질과 닭고기 정도가 좋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조리방법도 신경 써야 한다. 특히 고기는 직접 굽는 직화구이는 피하고 찌거나 삶아서 수육처럼 먹는 것이 좋다.<br/><br/> 특히 배 교수는 대장암 수술 초기 동안에는 식단 관리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술 초기에는 속이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맵고 짜고 차가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한다”며 “식욕이 없는 경우에는 입맛을 돋궈줄 수 있는 식단을 권한다. 주로 새콤한 신맛의 음식들을 추천하는데, 색감이 있으면서도 항산화 역할도 하는 키위나 딸기 등이 좋다. 이 속에는 화이토케미칼이라는 항산화물질도 함유돼있어 암 발생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br/><br/> 이어 배 교수는 “만약 그래도 식욕이 생기지 않는 분들은 주로 식욕을 돋궈주는 약을 통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신다. 5cc 정도의 소량의 약을 살짝 입에 털어 드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도 어르신 분들이 부담 없이 잘 드시고 식욕을 되찾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br/><br/> 대장암은 식습관이나 음식과 매우 밀접하다고 강조한 배 교수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고칼로리 식단을 피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대장암이 발생했다면 자극적인 음식이나 오래된 음식은 장 활동에 무리를 줄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반드시 안정기까지는 전문가 상담을 거쳐 식사조절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r/><br/>박예슬 기자 yes22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3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아름다운 눈에도 암세포가 살아있다고?… ‘맥락막흑색종’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73719154  
본문: 우리는 흔히 ‘암’이라고 하면 폐나 위, 간 등 주로 우리 몸속의 장기에 생기는 암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우리 몸의 바깥에서 보이는 부분, 그중에서 바로 눈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br/><br/>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은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눈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br/><br/> 이에 대해 이성철 신촌세브란스병원 안이비인후과 교수는 “안암은 일반적인 모든 암에서 전이돼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눈에서 먼저 생기는 암도 있는데, 성인에게 생기는 안암으로는 ‘맥락막흑색종’이 있다”고 설명했다.<br/><br/> 맥락막흑색종은 다른 말로 악성흑색세포종이라고 부른다. 이 질환은 눈에 흑색세포(멜라노사이트)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정확한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맥락막흑색종은 서양인(백색인종)에서는 많이 발생되지만 동양인(유색인종)에서는 발생빈도가 매우 낮아 희귀병에 속한다는 점이다.<br/><br/> 이성철 교수는 “동양인의 맥락막흑색종 발병률은 서양인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매우 빈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정확한 요인은 알 수 없지만 인종간의 유전적인 차이와 관련된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br/><br/> 맥락막흑색종 증상은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br/><br/> 이 교수는 “종양이 생길 때 모두 같은 위치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대개는 주로 맥락막 뒤쪽인 포도막 후부에 종양이 생기는데, 그중에서도 시력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생기면 시야에 지장을 주게 된다. 하지만 만약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에 생긴다면 별다른 증상을 못 느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br/><br/> 이어 이성철 교수는 “<span class='quot0'>내부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엔 눈앞에 마치 물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시야에 지장을 준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렇듯 증상이 저마다 다르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엔 안암이 생긴 줄 모르고 있다가 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다</span>”고 덧붙였다.<br/><br/> 안암인 맥락막흑색종 치료는 항암 화학요법 등 약물적 치료는 하지 않고 방사선으로 종양을 쬐는 근접방사선치료가 사용된다. 이 교수는 “위치나 크기에 따라 수술적 치료도 하는데 이는 보통 종양이 모양체 앞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종양이 앞쪽에 생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주로 근접방사선치료로 종양의 크기를 점점 줄이는 식으로 치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br/><br/> 이렇게 치료된 맥락막흑색종은 재발 확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치료율은 90%가 넘을 정도로 예후가 좋다. 반면 상대적으로 전이율은 높은 편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성철 교수는 “맥락막흑색종이 주로 전이되는 부분은 간이다. 종양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5년 안에 간으로 전이될 확률은 25% 정도다”고 말했다.<br/><br/> 치료율은 높은데 전이는 잘 되는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눈에 종양이 발견됐을 때, 지금의 진단방법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암세포가 이미 생겨서 그것이 점차 퍼진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span>”고 설명했다. <br/><br/>박예슬 기자 yes22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36.txt

제목: [암과의 동행-완치를 향한 위대한 도전] 증세 속단 치료포기는 금물… 난치암도 기적을 낳는다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81340740  
본문: 골연부종양 전문의로서 지난 20여 년 간 암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되어 찾아와 완치나 정상적인 생활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환자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br/><br/> 성탄절을 앞두고 한껏 들뜬 이맘때면 특별히 생각나는 환자가 있다.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대퇴부의 연부육종 진단을 받았으나, 더 이상 치료방법을 찾을 수 없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본원을 찾아왔다. 연부육종은 뼈와 피부를 제외한 장기, 지방, 근육, 신경, 인대, 혈관, 림프관 등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br/><br/> 50대 초반의 이 여성 환자는 왼쪽 넓적다리 뒤쪽에 생긴 가로 18cm, 세로 33cm, 깊이 15cm의 거대 종양으로 타 병원에서 골반뼈와 넓적다리뼈가 만나는 고관절 부위의 절단이 불가피 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환자는 다리 절단만은 피하고 싶어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종양의 크기는 오히려 커졌고 극심한 부작용으로 항암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br/><br/> 진찰 당시 종양은 이미 넓적다리 뒷부분의 피부를 뚫고 나오기 시작했고 환자는 휠체어에 간신히 의지한 채 터져 나오는 혹만 좀 빼 주고 일 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br/><br/>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였다. 그러나 다리에 엄청난 혹을 달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환자의 눈물어린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다. <br/><br/> 환자는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 중 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우선 종양만 제거해도 환자의 고통을 일부 덜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3시간에 걸쳐 종양을 제거하였다. 다행히 발로 가는 신경도 살릴 수 있었다. 수술 후 환자는 거대 종양으로 인한 모든 통증이 사라졌고, 넓적다리 뒷부분의 근육이 전혀 없는데도 잘 걸었다. <br/><br/> 환자는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6개월 이내에 수술부위의 재발과 폐전이가 예상됐다. 과연 환자는 수술 1년 후 넓적다리 뒷부분에 1cm 크기의 종양 한 개와 2년 후 폐에 0.5cm 크기의 종양 두 개가 발견됐지만 치료를 했고,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없이 건강하다.<br/><br/> 환자는 인생의 후반이 시작되는 50대 초반에 한 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기에, 한 걸음 뗄 때마다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도 환자는 정기검진으로 진료실을 방문하면 국내외 여행을 다니면서 구입한 특산품을 선물로 건네곤 하는데, 나는 이미 기적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터이다. <br/><br/> 의료진은 제한된 의학상식으로 병의 경과를 속단해 치료를 포기하면 안 되며,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모든 치료법 시도에 주저함이 없어야한다. <br/><br/>전대근 원자력병원 골연부종양 센터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37.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블린사이토] 혈액암중 진행속도 빠른 ‘급성 림프모구성’에 효과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80130025  
본문: 이름도 낯설고 환자에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암이 있다. 혈액암 중에서도 질병 진행 속도가 급속도로 빠른 혈액암이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다. 이 질환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암이다. 이 백혈병은 혈액 및 골수 내 림프구 계통 세포에서 발생하는 희귀 혈액암이다. 암이 재발되는 경우 환자의 생존기간은 극히 짧다. 올해 한국에서만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진단 받는 성인 환자는 약 210∼230명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적지 않은 환자들이 원인 불명의 이 백혈병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br/><br/> 이와 관련 최근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는 면역항암제가 국내에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암젠코리아가 국내에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놓은 혈액암 치료제 ‘블린사이토’가 바로 그 약물이다. <br/><br/> 암젠코리아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블린사이토주 35μg(성분명·블리나투모맙)’가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의 치료제로 시판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br/><br/> 블린사이토 약물은 이중특이성 CD19 항체와 CD3 T세포 항체가 연결된 플랫폼인 ‘BITE’로, B-계통에 기반된 세포의 표면에 발현된 CD19와 T세포 표면에 발현된 CD3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해 신체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해 스스로 종양 세포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법인 바이트(BITE) 플랫폼을 활용한 치료제로, 현재 치료 대안이 없는 난치성 암부터 여러 혈액암까지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br/><br/> 바이트 항체는 T세포를 종양 세포로 유도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활성화된 T세포를 통해 종양 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이 전체적 구조다.<br/><br/> 블린사이토의 치료 주기는 4주간의 지속적인 정맥 투여와 이후의 2주간의 휴지 기간으로 구성된다. 블린사이토는 45kg 이상인 환자에서 1일차부터 7일차까지9㎍/일 용량으로 정맥 투여하고 8일차부터 28일차까지(1차 주기)는 28㎍/일 용량으로 투여하며, 이후 2주간의 치료 휴지 기간을 갖는 용법용량으로 승인됐다. 블린사이토 치료는 이 약을 유도요법으로 최대 2회주기 투여한 후 공고요법으로 추가적인 3회 주기를 투여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다.<br/><br/> 블린사이토는 임상시험 결과 좋은 치료 효과를 인정받아 미국 FDA로부터 혁신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및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았다. 또한 올해 11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성인 필라델피아 염색체-음성 재발성 혹은 불응성 전구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치료제로 조건부 시판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br/><br/> 한편 이 약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은 감염, 발열, 두통,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말단부위 부종, 구토, 변비 및 빈혈 등이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38.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국립암센터 소아암 환우 공연 外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74924343  
본문: ◇국립암센터 소아암 환우 공연=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21일 저녁 7시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소아암 아이들이 프로 뮤지션과 협연하는 ‘소아암 아이들이 연주하는 기적의 하모니’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국립암센터에서 치료 중인 10명의 소아암 환아들이 복합예술 앙상블 그룹 ‘사운드클러스터’의 프로 뮤지션 8명과 협연으로 진행된다.<br/><br/><br/><br/>◇한미약품, 항암보조용 구내염치료제 뮤코가드 출시=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이 항암보조용 구내염치료제 ‘뮤코가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무향무취의 가글제인 뮤코가드는 암환자 치료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 안 염증을 가글로써 치료·예방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다. <br/><br/><br/><br/>◇동산병원 자궁경부암 단일공 로봇수술 성공=계명대 동산병원이 지난해 자궁내막암을 단일공 로봇으로 수술한데 이어 자궁경부암까지 ‘단일공 로봇수술’에 성공했다. 이번 수술은 미국 존스 홉킨스병원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이다. 동산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이자 암센터장인 산부인과 조치흠 교수는 지난 7일 50세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단일공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br/><br/><br/><br/>◇미분화 갑상선암도 조기 진단·치료 중요=예후가 나쁜 미분화 갑상선암도 조기에 치료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하정훈 교수팀(내분비내과 박영주, 고대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이도영 교수)은 이 결과를 갑상선 질환의 연구와 진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갑상선학회지 ‘갑상선’ 온라인판 11월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완전 미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4.3%에 그쳤다. 반면 저분화와 일부 미분화 환자의 생존율은 각각 65.8%와 81.3%에 달했다. 또 수술이 가능한 미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71.4%)도 미분화가 많이 진행되어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의 생존율(26.5%)보다 크게 높았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39.txt

제목: 강석호 고대안암병원 비뇨기과 교수 “혈뇨있는 흡연자 방광암 검사 받아야”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81336330  
본문: 방광염의 강력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담배 속 발암물질은 폐를 거쳐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때 발암물질이 방광의 점막세포를 공격한다. 오랜 기간 흡연했거나 하루 흡연량이 많으면서 혈뇨를 본다면 방광염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br/><br/> 방광암 환자의 80∼90%에서 혈뇨를 보고 빈뇨, 급뇨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 그러나 혈뇨를 피로에 따른 일시적 증상으로 간과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강석호(사진) 고대안암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흡연 이력이 있으면서 원인 모를 혈뇨가 지속되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을 느낀다면 방광암 검사가 가능한 비뇨기과를 내원할 것을 당부했다. <br/><br/> 강 교수는 “<span class='quot0'>방광암 예후가 좋지 않은 암환자의 상당수는 혈뇨와 잔뇨감과 같은 증상을 가벼운 신체적 변화로 넘기고 뒤늦게 병원을 찾은 경우였다</span>”며 “<span class='quot0'>고령에서 발병위험이 높은 만큼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신체적 증상에 관심을 갖고 검사를 권유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방광암은 남성이 여성보다 발병률이 3∼4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발률이 가장 높은 암이기도 하다. 발견이 늦어질 경우 방광 전체를 떼어내는 수술이 불가피하다.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 치료방법과 예후가 달라지므로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광암은 방광내시경을 이용해 진단한다. 강 교수는 질환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span class='quot0'>통증을 동반하지 않은 혈뇨라도 방광암의 신호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조기에 발견하면 방광을 보존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 수술기구와 수술법의 진화로 국내 방광암 생존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방광암 1기의 5년 생존율은 90%에 이른다. 근육 아래까지 암세포가 침범했다면 방광 전체를 떼어내고 새 방광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시행된다. 강석호 교수는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해 근치적 방광절제술과 요로전화술을 시행하고 있다. 강 교수는 “<span class='quot0'>방광암 수술은 방광을 적출하고 새 방광을 만드는 대수술</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로봇수술은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비뇨기과 수술에 적합해 고령의 방광암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여준다</span>”고 말했다. <br/><br/> 병기에 따라 남성의 경우 방광과 함께 전립선이 함께 제거되고 여성은 방광과 함께 인접한 질의 일부 또는 자궁을 포함한 골반적출술이 시행된다. 이후 요로전환술이 통해 요도를 만들어준다. 따라서 건강한 방광을 지키기 위해 혈뇨를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br/><br/> 강 교수는 “<span class='quot0'>합병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돕는 최소침습수술법이 개발돼 고령이더라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치료방법을 의료진과 함께 고민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40.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죽음은 남의 일로 여겼던 건강맨, 삶 위기서 부활의 주 만나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91657524  
본문: 나는 돌도 씹어 먹을 만큼 건강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잘했고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토바이에 부딪쳐 10m 정도 날아갔을 때도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을 보고 의사들이 놀라기도 했다. 해병대에 가서도 2200명 중에서 딱 26명만 뽑는 상륙작전 선봉부대에 뽑혀 1등으로 수료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살았다.<br/><br/> 그렇게 늘 건강할 것만 같았던 나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야간근무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 군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다. 병명은 흉선암이었다. 가슴에서 가로 16㎝, 세로 9㎝의 암 덩어리를 떼어냈다. 수술 후 마취가 풀렸을 때의 아픔은 이 세상에서 처음 겪는 고통이었다. 처음으로 건강에 대해 걱정이 되었다.<br/><br/>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그동안 나는 왜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죽음은 고사하고 늙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내 앞에 닥치니까 그동안 교회를 다니며 수없이 들어왔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br/><br/>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냥 인정하고 살았는데,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부활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믿었던 내가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br/><br/>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했다. 아버지는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 기록한 책과 고등학교 세계사, 사회과부도를 주셨다. 나는 한 줄 한 줄 책장을 넘기면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부분을 읽어 내려갔다.<br/><br/> “<span class='quot0'>예수는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했다.</span>”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로 쓰였던 세계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적혀 있었고, 사회과부도의 세계연대표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br/><br/> 이 내용을 읽는 순간, 나는 소리를 지를 뻔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부활이 정말로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이었다. <br/><br/>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부활을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해 주셨는데도 나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살았었다.<br/><br/>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셨다. <br/><br/>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갖게 되니까 주님께 받을 상도 소망되었다.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이 하늘에 쌓이는 상이라는 생각이 들자 자연스럽게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다.<br/><br/> 부활의 주를 만난 나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멋진 남자가 되리라 다짐한다.<br/><br/>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41.txt

제목: 연명의료 중단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 관련법률안 의결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81336958  
본문: 말기암이나 중증질환으로 인해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받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암관리법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 7개 법안을 병합심리한 후 대안으로 마련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내에서 최초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br/><br/> ◇어떤 내용 담겼나?=법안의 핵심 내용은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암 이외의 다른 질병 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법안에서 정의된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고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말기환자의 질환 대상으로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등으로 넓혔다.<br/><br/>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 법안은 담당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도록 했다.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고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내용을 확인했다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로 보도록 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고 담당의사 등의 확인을 거친 때로 한정했다.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과 물, 산소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된다.<br/><br/> 이와 함께 정부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치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등록·보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br/><br/> ◇의학계·의료계는 환영=관련 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span class='quot0'>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완화의료 등 최선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국회는 물론 의료·법조·종교·환자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정된 법안이라는 점도 의미를 갖는다.<br/><br/> 이에 대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박진노 법제이사(보바스기념병원장)는 “<span class='quot1'>전인적 돌봄이 필요한 말기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돌봄서비스가 호스피스완화의료임을 인정받은 것이고, 임종기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안녕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갖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1'>환자 자신의 의미있는 여생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으로 국민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span>”고 말했다. 또한 암 이외 질환인 만성 말기환자가 포함된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br/><br/>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측은 연명의료결정시 의사 2인과 가족 진술 등과 관련해는 보완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회 측은 “가족 범위나 의사들 의견일치 여부 등 해결할 문제들도 보이지만, 의료시스템 상 가능하도록 다양한 의료현장의 경우를 고려한 시스템적으로 보완은 필요하다”며 연명의료계획서 세부기준의 경우 “법이 통과되면 정부 관련 부서와 전문가 모두가 참여 가능한 태스크포스팀(TFT)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민감한 문제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법안에서 언급이 안 된 대리인에 대한 인정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4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위험분담제’ 한계 개선 방안을 찾아라… 진입장벽된 ‘경제성 평가’ 기준 낮추자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74925842  
본문: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지난 1일 '환자 중심의 암 보장환경을 위한 의약품 평가정책 점검-위험분담제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29회 고품격 건강사회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암, 희귀질환 등 주요 중증질환 환자들을 위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도입한 '위험분담제도'는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개선했다. 다만 여전히 이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부, 학계, 업계, 미디어를 통해 두루 형성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험분담제 개선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br/><br/>◇주제='환자 중심의 암 보장환경을 위한 의약품 평가정책 점검-위험분담제 중심으로'<br/><br/>◇일시=2015년 12월 1일 오후 2시<br/><br/>◇참석자=김열홍 대한암협회 이사(고려대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br/><br/>◇진행=김단비 쿠키뉴스 기자<br/><br/>◇연출=정현호 쿠키건강TV PD<br/><br/>◇방송=2015년 12월 21일 오후 7시<br/><br/>-위험분담제란 무엇이고 현재까지 위험분담제에 적용된 약제가 모두 몇 개인가<br/><br/>◇이윤신= 위험분담제도는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에 임상적 유용성이나 재정영향이 불확실할 때 그 재정영향을 제약사와 공단이 나눠서 분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br/><br/>◇이재현=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적용 대상이 된 약제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8가지다. 주로 항암제나 희귀의약품이다.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혈색소뇨증 치료제, 폐섬유증 치료제 등이 있다. <br/><br/><br/><br/>-현재 위험분담제도에 대해 환자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가.<br/><br/>◇안기종= 위험분담제는 약이 갈급한 말기 암환자들, 중증환자들에게는 생명 같은 제도다. 다만 현재 위험분담제가 적용되는 치료제들은 최근 허가된 것이 아니라 4∼5년 전에 허가된 약들이다. 한달 약값이 1000만원에 달하는 약들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약을 먹지 못하는 환자들이 전체 환자의 약 70%에 달한다. 안타까운 것은 좋은 신약이 나왔어도 정부, 제약사의 약가 줄다리기로 인해 수많은 환자들이 비싼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약 복용을 포기해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br/><br/>◇김열홍= 위험분담제가 생기게 된 근본적 취지는 환자들이 수년간 비급여로 부담해온 많은 약제들을 제약사들이 어느 정도 분담하면서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하자는 공감대로 만들어 진 것이다. 식약처 허가를 받고도 보험 등재가 되지 않은 치료제들이 많다. 이러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위험분담제가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보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br/><br/><br/><br/>-위험분담제도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은?<br/><br/>◇이재현= 위험분담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 자료를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적용 대상이 되는 약제들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제도운영상에 있어서 약이 임상시험을 통해 계속 효능을 넓혀가는 여지(적응증 확대)들이 남아있는데,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들은 급여기준이 확대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br/><br/>◇김열홍= 기존 제도의 틀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행 보험급여 등재 시스템 상에서는 들어오기가 어려운 약, 소수의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지만 약의 보험적용 시 재정추계가 정확히 나오기 어려운 약 등에 대해 유연하게 제도가 적용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최근에 등장한 약제들은 과거 약제들처럼 모든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투여해서 효과가 있는 치료제들이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약가에 대한 비용부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차원이 아닌, 약제 특성에 따라 적응증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제약사의 제안들을 제도에 활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br/><br/><br/><br/>-위험분담제도에서 ‘경제성 평가’는 약의 보험 등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가. <br/><br/>◇이윤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단일 보험의 형태이며,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이라는 한계 속에서 운영되다 보니 가격운영체계를 갖게 됐다.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이 있는 약들을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이것을 선별등재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경제성평가는 이 중에서 비용대비 효과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br/><br/>◇김열홍= 위험분담제 도입의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했던 것처럼 필수 의료가 빨리 의료 현장에 접목되기 위해서다. 그러나 위험분담제를 통하는 약제들은 의학적 유용성이 경제성평가보다 우선적 판단의 근거가 돼야 한다는 조건이 많다. 경제성 평가는 필요하지만, 특정 약제가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환자가 그 약에 접근하는 턱이 낮아지도록 경제성평가를 기준을 낮춰야 한다. 대신 임상적, 의학적 유용성의 가치를 높이는, 가치 간의 차이를 나누는 판단이 필요하다.<br/><br/>◇이윤신= 정부도 약가 등재 시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총 8개 성분의 위험분담 약제가 등재가 돼 있는데, 그 중 총 4개 성분은 소위 말하는 경제성평가 지표를 가지지 않고 보험에 등재가 됐다. 진료 상 필수가 인정되는 약제나 근거생산이 필요한 약제들에 대해서는 완화해서 위험분담 평가에 적용해왔다. 또한 혁신적인 신약의 가치를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는 부분은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올해 5월에는 관련 법령들과 평가 규정을 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체약제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 <br/><br/><br/><br/>-신약의 등재를 어렵게 하는 것이 ‘경제성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br/><br/>◇이재현= 경제성 평가는 기존 치료법이나 기존 약제와의 비교를 전제로 한다. 제약산업에 있어 신약의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맞춤형 치료가 대세가 되고 있다. 즉, 대중적인 약에서 환자의 질병에 따른 치료제 사용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약과는 개념이 다른 약들에 대해 기존 약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경제성평가 제도를 대입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br/><br/>◇김열홍= 과거에는 100명이면 100명 모두 해당 질환을 갖고 있는 전체 환자한테 A라는 약제를 투여했다는 점이다.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 환자마다 다른 치료가 적용된다. 최근 영국에서는 신약을 등재할 때 경제성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약제의 타당성을 판단한다고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 평가 이전에,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위험분담제도를 통한 약제 급여 기준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표적항암제다. 표적치료제의 작용기전은 특정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여러 암 종에 넓게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현재 위험분담제로 적용된 항암제의 경우에도 다른 암으로 추가 적응증을 받았을 경우, 현재로서는 위험분담제를 통한 급여확대가 제한돼 있다. 좋은 약이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환자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험분담제를 통해 보험급여가 적용된 약제가 다른 암에 추가 적응증을 받을 경우에도 보험급여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br/><br/>◇안기종= 진퇴양난이다. 환자의 약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제도가 도입된 것인데, 적응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항암제들이 위험분담제도 등을 통해 급여권에 들지 못한다면 결국 환자도 비용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약을 먹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묘수가 필요하다. <br/><br/><br/><br/>-정부에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자의 접근성 확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방안이 있다면.<br/><br/>◇이재현= 정부가 제도를 얼마나 탄력적으로 운영 하느냐가 중요하다. 약가를 무작정 통제한다고 정부 재정이 절감되지 않는다. 위험분담제를 약제비 통제 수단으로 운영하면,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곧 국가 재정손실이다. 정부가 무조건 규제하기 보다는 ‘협상’의 형태로 자리를 갖고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br/><br/>◇안기종= 위험분담제 가장 큰 약점은 적응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좋은 항암제들이 이 제도를 통해 들어오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br/><br/>◇이재현= 우리보다 앞서 위험분담제를 시행했던 유럽 스톡홀롬 네트워크라는 정책연구소의 2010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위험분담제는 성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미성숙한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행정절차와 협상과정에 드는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위험분담제의 실패요인을 살펴보면 약의 효과로 의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제도 설계가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약제비 절감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와 제약사 모두가 ‘위험을 분담한다는 것’ 원래의 취지를 기억하고, 공익을 목표로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br/><br/>◇김열홍= 위험분담제는 결국 반드시 필요한 의료가 환자에게 빠르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 운영에 있어서의 핵심은 정부가 얼마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본 제도의 처음 설립취지로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br/><br/>◇이윤신=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제를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표에는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했던 것이다. 제도상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br/><br/>정리=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43.txt

제목: [‘저출산·고령화’ 극복하는 교회들] 35명 ‘노인 교회’를 130여명 ‘젊은 교회’로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205934060  
본문: 지난 16일 전북 임실군 관촌면 임실전원교회(최형 목사)를 찾아가는 길. 택시기사가 “여기가 교회예요”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아름답다”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br/><br/> 너른 들판 가운데 배를 연상시키는 건물이 발걸음을 잡아끌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니 저마다 다른 크기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실내를 포근히 감쌌다. 높은 천장과 강대상 뒷면의 큰 창문 덕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줬다. 튀지 않는 연녹색 의자와 잔잔한 조명이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서도 평안하게 만들었다.<br/><br/> “대부분 시골 교회는 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저희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고 생각했어요. 노인들이 많지만 주저앉기보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배처럼 동적인 느낌으로 지었습니다.”<br/><br/> 2009년 6월 43세에 부임해 1년여 만에 교회를 건축한 최형 목사의 설명이다. 그가 아내 전윤희 부목사와 함께 부임했을 당시 교회는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마을 가운데 있었다. 당시 교회에는 교인 35명이 나왔다. 70%가 65세를 넘긴 노인이었다.<br/><br/> “평생 교회를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는 했지만 어느 목사님도 그걸 진짜로 할 생각은 못 했다니깐. 그런데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는 겁도 없이 저질러 버렸당께.” <br/><br/> 평생 교회를 섬겨온 한 권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젊은 목사의 열정에 감복한 박복여 임남례 권사는 “이거라도 내겠다”며 헌금 봉투에 금가락지를 넣었다. ‘나도 건축을 위해 뭐라도 하겠다’는 마음이 교인들 사이로 번져나갔다.<br/><br/> 기존 교회 건물을 귀농한 교인에게 팔고 건축헌금을 보태 교회 건축을 시작했다. 재능기부를 받아 최 목사의 바람대로 역동적인 모습으로 교회 설계를 하고, 직영 건축을 해서 건축비를 아꼈다. 당시 ‘병’과 ‘암’을 연상시키는 병암교회라는 기존 이름을 버리고 공모를 통해 ‘임실전원교회’라는 새 이름도 붙였다. 최 목사는 “<span class='quot0'>전원은 단순히 시골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동산이라는 의미를 넣은 것</span>”이라고 말했다. 2010년 10월 입당 예배를 드렸다.<br/><br/> 교회가 달라지자 교인도 달라졌다. “<span class='quot1'>옛날 교회는 너무 추워서 교회에 있으면서도 집 생각이 났는데 지금 교회는 자꾸만 오고 싶어졌다</span>”는 권사부터 누가 묻지 않았는데 “저기가 내가 다니는 교회”라고 자랑하는 학생까지 생겼다. 건축 1년 만에 교인이 60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br/><br/> 무엇보다 노인들은 교회에 안 나오던 자녀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다.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늘자 최 목사 부부는 교회학교를 시작했다. 처음에 교인들은 “우리 동네에 무슨 아이들이 있느냐”며 손사래를 쳤다. 최 목사는 자녀 둘을 등하교시키는 길에 이웃의 아이들을 함께 태우고 다니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했다. “<span class='quot1'>아니, 이 아이들이 다 어디서 왔다냐</span>”라면서 권사들이 나와 밥을 해주고 간식을 챙기며 도맡아 일했다.<br/><br/> 지금은 교회학교에 30여명, 중고등부 6명, 청년 7명이 나오고 있다. 장년과 노인을 합쳐 87명이 나오면서 총 인원이 130명을 넘었다. 이렇게 애써 세운 교회가 노인들이 떠난 뒤 텅텅 비면 안 된다는 마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노년 교인들이 나서서 다음세대 전도에 앞장섰다고 한다. 교회는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고 ‘봉숭아 꽃잔치’라는 지역 축제까지 자체적으로 해냈다.<br/><br/> “일부 농촌교회에는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대부분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새로 할 수 없고 밖에서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주저앉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지금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노인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최 목사가 밝힌 임실전원교회의 노인목회 성공 비결이다.<br/><br/>임실=글·사진 김나래 기자<br/><br/> nara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44.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기구관리] 포트 사용시 감염 우려… 항상 청결 유지해야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80129554  
본문: 국가암정보센터와 함께하는 ‘암환자 생활백서’에서는 암환자에게 꼭 필요한 기구관리 두 번째 ‘중심정맥관·케모포트·히크만 카테터’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br/><br/> ◇중심정맥관=암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항암 화학요법의 경우 정맥 혈관을 통해 약들이 투입된다. 정맥 혈관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한다. 암환자에게 혈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호해야 한다. 장기간 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사람들은 혈관이 굳어져 주사바늘이 들어갈 수 없거나, 정맥 혈관이 잘 보이지 않거나 통증을 동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맥 혈관에 주사바늘을 삽입하거나 혈액을 채취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팔에 주사바늘을 수시로 삽입하는 대신 정맥 혈관을 일시적으로 유지시켜 놓는 방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치료가 끝난 후에는 대부분 정맥 혈관의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온다.<br/><br/> 혈관 상태를 이완시키기 위해 피부를 따뜻하게 유지한다. 충분한 영양 및 수분 섭취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하여 채혈이나 혈관 주사 시 주사 바늘 삽입을 용이하게 한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에는 가벼운 아령이나 500㏄물통 등 가벼운 물건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이 있다. 채혈이나 혈관 주사 시 순간적으로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채혈이나 혈관 주사 시 심호흡을 하는 등의 이완 요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혈관 주사에 집중하는 것도 혈관 관리에 도움이 된다.<br/><br/> ◇케모포트=항암제를 주기적으로 안전하게 맞기 위해 신체 깊숙이 있는 굵은 중심정맥에 삽입된 기구(카테터)인 케모포트는 보통 심장 쪽의 피부 밑에 있으며 약물의 투입구만 피부 밖으로 나와 있다. 일반적인 정맥 카테터보다 오랫동안 몸 안에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포트 사용 역시 감염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가 중요하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달 한번 외래를 방문해 혈전으로 인해 카테터가 막히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주입해야 한다. 샤워나 통목욕은 가능하다. 포트는 몸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빠질 위험이 일반적인 정맥 카테터보다 훨씬 덜하다. 발열이 있거나 포트가 뒤집어 지거나 피부 밖으로 나올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br/><br/> ◇히크만 카테터=히크만 카테터는 삽입된 기구의 줄 부분이 피부 밖으로 나와 있는 걸 말한다. 이 카테터 삽입 시술을 받았다면 퇴원 후에 관리방법에 대해 미리 교육을 받고 충분히 실습해야 한다. 이러한 카테터를 삽입하게 되면 부작용이 없는 한 장기간 유치하게 되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아이오다인 캡을 매주 한번 교환해야 한다.<br/><br/> 항응고제 투여와 삽입부위 소독은 매주 한번 하되 같은 날, 한꺼번에 교환하는 것이 좋다. 정맥 내 카테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통원 치료가 가능하지만, 기간은 한달을 넘지 않도록 한다. 교환한 날짜를 미리 기입해 두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몸 밖으로 나와 있는 카테터 부위는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통목욕은 삼가고 삽입 부위를 제외한 부위에 샤워만 가능하다. 카테터의 경우 몸 밖으로 나온 부위가 있기 때문에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빠질 위험이 있어 운동을 하는 데 제한이 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밖으로 나온 부분은 심장보다 높이 위치하는 것이 좋으며 카테터의 고정은 서있는 자세에서 밖으로 나온 부위보다 약간 위쪽으로 고정하도록 한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45.txt

제목: [질환 통계-피부암] 작년 신규등록 환자 경기도 최다… 자외선 신체 차단이 필수 예방책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74924617  
본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나며 직장인들이 평소 햇빛을 보는 시간을 줄고 있다. 때문에 여가시간에 야외활동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피부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자외선이 피부에 직접 쏘이면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어 선크림을 바르거나 의료 등으로 가려주는 것이 중요하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피부암 환자는 2010년 1만1079명에서 2011년 1만2098명, 2012년 1만3687명, 2013년 1만4601명, 2014년 1만7351명 등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에 50%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14년 기준 연령별 피부암환자 현황을 보면 남성의 경우 70대(2378명), 60대(1958명), 50대(1474명), 80세 이상(1012명), 40대(702명) 순이었고, 0∼9세 사이에서도 26명의 환자가 있었다. 여성은 70대(2932명)와 80세 이상(2343명)이 높았고, 이어 60대(1827명), 50대(1453명), 40대(701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9519명)이 남성(7832명)에 비해 많았는데 연령별로는 남·여 모두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br/><br/> 201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시도별 피부암 등록인원(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신규 등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은 전체 5078명 중 경기도가 9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839명 △경남 401명 △경북 395명 △부산 356명 △전북 300명 △전남 295명 △충남 294명 △대구 225명 △인천 223명 △강원 203명 △충북 171명 △대전 125명 △광주 100명 △울산 88명 △제주 65명 △세종 14명 순이었다. <br/><br/> 한편 처음부터 피부에 생긴 암을 원발성 피부암, 다른 장기에서 발생해 피부로 전이된 경우를 전이성 피부암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피부암은 원발성을 말하는데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악성 흑색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햇빛에 의한 손상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비소와 바이러스 감염도 피부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장기이식 등 면역이 억제된 환자들에게서 더 흔히 나타난다.<br/><br/> 암 종별로 보면 ‘기저세포암’은 오랜 기간의 자외선 노출이 주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얼굴에서 발생하며, 보통 표면이 밀랍처럼 매끈하고 반투명한 결절로 시작해 서서히 자라면서 대개 병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궤양이 생긴다. ‘편평세포암’ 역시 자외선 노출이 주요 원인으로 대부분 광선각화증이나 보웬병 같은 질환이 먼저 발생한다. 얼굴 상부, 손등, 팔등, 아랫입술, 귓바퀴에서 주로 발생하며, 대개는 만져보았을 때 딱딱하다. ‘흑색종’의 원인은 확실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전적 요인과 자외선 노출이 관여할 것으로 의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피부암의 약 80%는 태양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br/><br/> 물론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고 해서 장신간 자외선에 피부에 노출해서는 안 된다. 쉽게 자외선 차단제에 의한 차단만을 생각하는데 양 긴 팔의 옷을 입는다든지, 모자를 쓰는 것도 자외선 차단에 좋은 방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46.txt

제목: [조민규 기자의 ‘건강 백과’] 정부 의료비 지원 받기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80128849  
본문: 정부는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의료지원은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치료에 소요된 비용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기적·지속적·종합적인 의료비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한 질병 등으로 입원에서 퇴원까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단기간·일시적인 의료서비스 지원(300만원 내에서 최대 2회까지)을 전제로 설계돼 있는데 반드시 입원 전 신청이 원칙이다. <br/><br/> 긴급의료비지원 재신청은 상이한 상병일 경우 가능한데 동일상병이라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이 가능하다. 또 지원 요청 후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치료 목적상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에만 지원된다.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는 전문의사, 수술 장비가 없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br/><br/>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도 있다. 복지부, 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뇌혈관(비수술포함),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질환으로 인한 수술 또는 치료목적으로 입원한 환자 등으로 중증화상의 경우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며,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항암치료(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색전술)는 외래진료도 기준 충족시 지원된다. 최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선택진료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하는데 지원일수는 입원 및 외래(항암치료) 진료를 합해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된다. <br/><br/> 또 결핵환자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의 결핵진료(합병증 포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50%를 국가가 지원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에 의한 치료중단을 방지하고 치료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 환자가 대상이며, 결핵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2분의 1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47.txt

제목: [암과의 동행] ‘적응증 확대시 위험분담제 제한’ 규정 고쳐야… 비교약제 선정시 의학계 의견 반영을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74923354  
본문: 보건복지부가 이달 위험분담제의 약제 급여기준 확대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지적돼 온 위험분담제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감과 함께 개정안에 또 다른 한계가 있을지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br/><br/> 제약업계는 특히 항암제의 특성상 적응증이 늘어나 허가 확대가 됐을 때 위험분담제를 제한하는 현재의 규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환자수가 적은 희귀 암종 치료제로서 위험분담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제가 환자수가 더 많은 다른 암종에서도 허가를 받는 경우가 되면 앞서 희귀 암종으로서의 위험분담제는 포기 할 수 밖에 없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위험분담제도의 급여 기준 확대 허용은 반드시 필요한 개선사항이다. 위험분담제 시행 2여년이 지나간 지금 논의되는 것 자체가 늦은 감이 있다”면서, “위험분담제의 취지가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약회사가 비용을 분담하더라도 비급여 약을 유연하게 급여권으로 들여오자는 것인데, 지금처럼 제도 진입이 어렵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밝혔다. <br/><br/> 특히 세계적 제약회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신개념 패러다임의 항암제를 개발, 출시하는 현 상황에서 먼저 신청한 항암제에 위험분담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후발 다른 항암제들의 위험분담제 신청을 봉쇄시키는 문제 역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r/><br/> 한편 또 다른 진입장벽인 ‘경제성평가 필수’와 관련하여 비교약제 선정의 불합리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성평가는 기존 치료법이나 기존 약물과의 비교를 전제로 하는데, 과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하는 오래된 약제들을 신약의 경제성평가의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br/><br/>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정부기관에서 경제성평가를 위한 비교약제로 선정하는 약들은 대다수 20∼30년 전의 오래된 약”이라며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새로운 표적항암제와의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이 어렵다”고 강조했다.<br/><br/> 또한 KRPIA는 “<span class='quot1'>진료 현장에서 실제로 약을 처방하는 의료진들의 의견을 비교약제 선정할 때 충분히 수용해야 약물경제성평가가 의미 있어질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위험분담제 관련 제도들이 경제성평가나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너무 엄격한 조건을 달아 시행되고 있다 보니, 12월 중 발표될 것이라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대감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br/><br/> 한편 김열홍 대한암협회 이사(고려대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는 비교대상 약제의 선정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 개진의 기회가 넓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는 “<span class='quot2'>터무니없는 약제가 신약의 대조군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해당 약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서 등재될 때 비교 대상 논문에서 그 약제를 사용했더라도 그건 현재까지 치료약제가 없었기 때문이지 경제성평가의 대조군이 되기는 어려운 때가 많다</span>”고 말했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48.txt

제목: 암 발병 최대 90%, 유전 아닌 본인 탓… 흡연·비만 등 잘못된 습관이 원인  
날짜: 20151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17214702394  
본문: 암 대부분은 유전이 아닌 현대인의 나쁜 생활습관 때문에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br/> 미국 스토니브룩대학 연구팀은 16일(현지시간)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등 흔한 암의 70∼90%가 운동부족, 환경오염, 스트레스, 흡연, 잘못된 식습관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BBC방송 등이 전했다. 다만 뇌암 등 일부 암은 신체 내부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br/><br/> 이번 연구는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 연구결과 암은 유전적 요인 등 불운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전했다.<br/><br/> 젠민위안 교수는 55세에 금연한 사람은 85세에 금연한 사람과 비교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절반이었고, B형간염 백신이 간암의 가장 흔한 형태인 간세포 암종에 걸릴 확률을 70% 낮춘다는 사례를 제시했다.<br/><br/> 영국 암연구센터의 엠마 스미스는 “<span class='quot0'>수많은 암 사례를 손쉽게 피할 수 있다는 뜻</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우리는 외부적 요인을 통제할 힘이 있다</span>”고 강조했다.<br/><br/> 그는 “<span class='quot0'>금연, 건강한 식단, 적정 체중 유지 등의 변화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런다고 암에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은 크게 낮출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br/><br/> 정건희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49.txt

제목: 세상 떠난 딸과 함께한 엄마의 웨딩사진  
날짜: 20151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17214705482  
본문: 암으로 세상을 떠난 딸아이, 새로운 사랑을 만나 결혼을 앞둔 엄마는 딸을 아직 가슴에 묻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위해 사진작가인 친구가 특별한 웨딩사진을 선물했다. 딸의 투명한 영혼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엄마를 축복해주는 감동적인 장면은 그렇게 탄생했다.<br/><br/> 가슴을 울리는 웨딩사진의 주인공은 아만다 크로 프리버드와 세상을 떠난 그녀의 딸 애즐리. 허핑턴포스트 등 외신들은 이들 모녀의 사진(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애즐리는 암으로 투병하다가 2년 전 6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아만다는 애즐리가 떠난 이후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br/><br/> 하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딸이 눈에 밟혔던 아만다는 친구인 사진작가 애슐리 프란츠에게 하늘나라로 떠난 애즐리를 기리는 특별한 사진을 부탁했다.<br/><br/> 웨딩촬영과 합성을 통해 아만다와 애즐리의 아련한 만남을 담아 낸 프란츠는 “<span class='quot0'>아만다는 딱하게도 그 순간을 애즐리와 함께하고 싶어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내가 여태껏 작업한 것 중 가장 아름답고 또 어려웠던 사진 중 하나</span>”라고 뿌듯해 했다.<br/><br/> 프란츠가 페이스북에 올린 이 사진은 6000번 이상 공유되고 6만개 이상의 ‘좋아요’를 얻으며 엄마인 아만다뿐 아니라 많은 이에게 감동과 치유를 선사하고 있다.<br/><br/> 이후 치러진 아만다의 결혼식에서 부부는 애즐리와의 추억을 담아 나비들을 하늘에 날려 보내는 의식을 가졌다. 날려 보낸 나비 중 한 마리가 마치 애즐리의 영혼인 듯 엄마의 왼쪽 가슴에 내려앉아 식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했다고 프란츠는 SNS를 통해 전했다.<br/><br/>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50.txt

제목: [치매관리 종합계획] 치매 환자 가족 부담 줄인다… 검사비용 40만원→8만원  
날짜: 20151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17213354793  
본문: 정부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에서 초점을 맞춘 건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다.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br/><br/>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 신경인지기능검사를 내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세라드케이(Cerad-K) 에스앤에스비(SNSB) 등의 검사는 현재 비급여로 환자가 최대 40만원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20%를 부담해 최대 8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여기에 연간 1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치매 검진에 쓰이는 혈액검사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은 지금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br/><br/> 또 앞으로는 환자 가족이 환자 대신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와 상담할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암 환자 상담 수가가 5만원임을 감안해 최종 수가를 정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 복지부는 치매 가족의 휴식을 위해 2017년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도입하고 여행바우처 지원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24시간 방문 서비스 대상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1등급 수급자 1만3000명과 2등급 2만5000명이다. 또 치매 가족용 여행 패키지를 만들고 2인 가족 기준 3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60세 이하인 치매 가족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br/><br/> 치매 환자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에는 별도 공간(치매 유닛)을 조성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치매노인과 비치매노인을 분리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치매환자의 신체·인지 기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의사결정 능력에 한계가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에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51.txt

제목: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15년째 1500여교회 지원”… 미자립교회 돕기 앞장 서는 동선교회  
날짜: 20151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17175116215  
본문: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이란?<br/><br/>암흑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년.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반대로 한국교회의 복음화 율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br/><br/> 한국도 서유럽처럼 복음화 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동선교회 박재열 목사는 낙심되고 지친 미자립 작은 교회 목회자와 사모들에게 영적 힘과 소망을 주고 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복음전파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교회 부흥성장을 통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운동이 바로 작은 교회 살리기이다. 이 운동은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윤택 속에 신앙의 무관심이 점점 커지는 위기 의식 속에 목회자 부부가 전심으로 전도와 기도를 통해 한국의 많은 미자립 작은 교회들을 살려내기 위한 순수 복음 전도와 교회갱신운동이다. <br/><br/><br/><br/> 작은 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br/><br/> 박재열 목사는 33년전 서울 천호동 달동네에서 불신자였던 형과 집사누님 총 3가구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10년 만에 재적 1000여명이 됐다. 그러나 이웃교회는 물론 한국교회는 1990년 후반부터 복음화가 감소추세로 접어들며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유럽의 전철을 밟게 되는 현상이 도래하지 않을까 가슴아파 하며 기도하던 중 주의 음성을 듣는다. “<span class='quot0'>냇물이 살아야 강이 살 듯 작은 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span>” 였다. <br/><br/> 소득에 반비례해 개인소득이 높아질수록 교세감소가 더 해져 교회가 텅텅 비는 공동화 현상으로 교회수가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큰 모교단의 경우 교인 수가 2년 새 30만 여명이 감소했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된다. 개 교회 자립 현황도 극소수 대형교단만 40% 내외가 미 자립 교회인 반면 대부분 교단은 50∼90%가 미 자립이며 한국교회 평균 70%이상이 미 자립 교회 상태인 셈이다. <br/><br/> <br/><br/> 매년 120∼150개의 작은교회를 선정, 목회사관훈련 실시<br/><br/> 박재열 목사는 15년 동안 30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 1500여개를 선정하여 목회사관훈련을 실시했다. 그 중 60% 이상(800교회)이 회생되는 성과를 거뒀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선이다. 우리끼리 편하게 유람하듯 세상을 살아가거나 기성교인 유입을 기뻐하며 교세확장을 꾀하는 유람선이 절대 아니다. <br/><br/> 교회의 본질은 주의 복음을 모른 채 살다가 죽음과 함께 영원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이다. 주의 교회가 유람선이라면 작은 대로 폐쇄하는 대로 두지만 구원의 방주인 구원선이기에 영혼구원의 역사가 없는 교회들을 그냥 둘 수 없고, 부흥 성장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자신의 만족인 목회로 끝낼 수 없었다. <br/><br/> 이에 고기 잡는 법을 전수하는 목회사관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자립 작은 교회를 초교파적으로 살리기 위해 월 30만원을 현금과 물품으로 한 해 동안(10개월) 후원하며 목회와 전도 사역에 전념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다. 이를 지키기 위해 목회자 부부는 세상직장인 보험설계사 이상으로 열심히 전도, 설교,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서약서 내용 실행 상황을 보고하여 점검받는다. 그 결과만큼 매월 차등 후원받으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함께 기도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룬 선배들의 간증과 세미나로 영적 충전과 함께 새 힘을 얻게 한다. <br/><br/><br/><br/> 넉넉지 않은 재정으로 교회후원<br/><br/> 동선교회는 재정이 넉넉한 대형교회가 아니다. 현재 출석2000명(재적4000명)이지만 교회재정은 같은 교세 교회의 60%정도로 오히려 빚이 50억이 넘는 상태다. 처음 시작할 때 당 회원들의 반대를 무마 하며 작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자는 뜻으로 50%를 교회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담임인 박재열 목사와 후원 교회가 담당키로 했다. <br/><br/> 박 목사는 한국교계에서 불신영혼을 사랑하며 무슨 사역이든지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부흥회 및 세미나를 인도하는 명강사로 쓰임 받고 있다. 매년 수 많은 부흥회 인도와 세미나 인도 등으로 들어온 강사비와 뜻있는 교회와 목회자분들의 후원(10만∼40만원)과 그동안 교회 살리기 목회사관 훈련을 받고 살아난 150개 교회들이 1∼2만원씩 하는 후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여전히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에 필요한 재정의 1/4은 박재열 목사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향후 은퇴 후에도 은퇴금으로 계속할 계획이다.<br/><br/><br/><br/> 주여 해마다 3000만원씩 후원하는 의인 열 명을 주소서!<br/><br/> 무엇보다 향후 작은 교회에 월50만원씩 후원하면서 목회사관훈련을 실시하면 작은 교회 목회자와 교회에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사역효과도 지금보다 배가 될 것인데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래서 이런 후원을 위해 “주여 해마다 3000만원씩 후원하는 의인 열 명을 주소서” 기도하고 있다. “주여 한국의 큰 교회들이 유람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불신자 영혼구원을 급하고 크게 여기는 구원선이 되게 하소서.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살리는데 힘쓰고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므로 영혼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소서” 박 목사는 오늘도 기도한다.<br/><br/> 2009년과 2010년에 교회마다 재적의 10% 세례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 중에 한 해 동안 세례를 50명 이상 준 교회나 10명이상 세례를 준 개인을 선발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교회는 500만원씩, 개인은 30만원씩 상금을 수여하는 행사를 백주년기념관에서 열었다. 당시에 두 교회가 수상하였고 개인은 10명 이상이 수상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재정이 허락 하는 대로 또 다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br/><br/><br/><br/> 농어촌교회 1000개 이상 살리기<br/><br/> 한국의 농. 어촌교회의 열악함을 알기에 2007년과 2009년에 여비를 지급하면서 300여 교회 부부 초청 집중세미나를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2박3일간 실시했다. 당시 농. 어촌에서 한마을 100여 가구를 90%이상 전도하여 교회 나오게 한 사례 발표 등 많은 도전과 영적 충격을 주는 세미나가 되었다.<br/><br/> 1년간 전도지원을 받은 남양주 별내 교회 원종덕 목사는 “<span class='quot1'>개척 초기에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동선교회 전도지원을 통해 매월 전도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가운데 전도의 의욕과 하면 된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 결과로 지금은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매일 매일 전도를 생활화 하고 있어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span>”고 밝혔다. <br/><br/> 은혜의강교회 유근재 목사도 “<span class='quot2'>아는 분 소개로 동선교회를 알았고 지원을 받아 열심히 전도하다가 보니까 성전도 큰 성전으로 확장해 이전을 하게 되었다</span>”며 “<span class='quot2'>우리 팀은 2년째 같이 전도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감사드린다</span>”고 말했다. <br/><br/> <br/><br/> 2016년도 목회사관훈련 선정계획<br/><br/> 목회사관 훈련 선정 세미나를 2016년 1월7일(목 오전9시30분-오후8시<추첨자 8일재소집>)진행하며 2016년 선정세미나는 120개(대신교단40, 초교파60, 해외20)교회를 선정하며 사전 등록 후 참여 할 수 있다. 선정되려면 반드시 2016년 1월7일 세미나에 참석해야 한다. 참석 교회 중 세미나 마칠 때 추첨을 통하여 1차 선발하고 그 교회 목회자들이 8일 다시모여 전도실습을 거쳐 2016년 불신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된다. 선발된 교회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지원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에 박재열 목사는 함께 하는 작은 교회들이 많이 신청하여 참석하기를 기대하며 기도로 섬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br/><br/> 접수마감일은 1월4일 이며 기타 궁금하거나 안내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홈페이지 www.church91.kr·02-488-5957 동선교회, 010-5492-2230).<br/><br/>특집기획팀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52.txt

제목: [내일을 열며-이기수] 인간다운 죽음을 위하여  
날짜: 20151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16173659976  
본문: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과 위로 덕분에 건강할 때는 물론 긴 투병기간에도 행복했습니다.<br/><br/> 이제야 저의 장례식을 통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많은 분이 이미 간 길이고, 또 모두 갈 길이기 때문에 삶을 당연하게 여기듯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 익숙한 일상과 영원히 헤어진다 생각하면 아득한 느낌인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br/><br/> 제게 주어진 가장으로서의 소임은 부족한 대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많은 분의 축복 속에 아들의 혼사를 치렀습니다. 가장 슬퍼할 제 처와 사랑스러운 딸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리라 맡기고 나니 홀가분해졌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두 사람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br/><br/> 최근 한 상가 입구에 걸린 고인(故人)의 특별한 인사말이다. 다른 회사 후배가 부친상을 당한 지인을 위로하러 갔다가 보고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br/><br/> “(세상에) 아름다운 죽음은 없다. 그러나 인간다운 죽음은 있다!” 책 ‘어떻게 죽을 것인가’(부키)의 저자 아툴 가완디(50·미국 보스턴 브리검여성병원 외과 의사)의 지적이다.<br/><br/>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웰다잉(well-dying·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 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br/><br/>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법안은 거의 그대로 내년 2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18년부터 시행된다. 임종 과정의 말기 환자에게 웰다잉에 대한 선택권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br/><br/> 행복한 죽음은 행복한 삶만큼 중요하다. 이 방정식을 풀려면 무엇보다 합당한 의료지침 개발과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불우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br/><br/> 우리나라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말기 암 환자가 97.4%에 이르고, 완화의료 서비스에 몸을 맡기는 환자는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말기 암 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br/><br/>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절대 부족한 제도권 호스피스 시설이다. 정부 지원이 없고 운영도 안 되니 병원들이 투자를 하지 않은 탓이다. 무엇보다 부족한 호스피스 병상을 늘리는 정부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가정호스피스 장려를 위한 공적 간호서비스 지원 같은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하다.<br/><br/> 웰다잉에 대한 범국민 사고전환운동도 실시해야 한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 특히 인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삶의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웰다잉법은 말기 질환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됐을 때 이를 부인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임종 문화와 풍토에서만 정착이 가능하다. 산 사람 원이라도 없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본다는 식으로 죽음을 부인하는 풍조가 팽배한 사회에선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다 한들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인간적 돌봄과 배려가 없는 제도는 한낱 허울이자 형식에 불과할 뿐이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53.txt

제목: 나노입자 이용한 망막질환 치료법 개발  
날짜: 20151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16212732607  
본문: 나노입자를 이용해 실명을 초래하는 망막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됐다. 나노입자는 크기가 10억분의 1m인 초미세 입자다. 그동안 의학계에서 영상 진단이나 약물 운송체로만 활용됐다. 나노입자 자체를 질병 치료에 적용해 효과를 입증하기는 세계 최초다.<br/><b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나노바이오측정센터 이태걸 박사팀과 서울대 의대 김정훈 교수팀은 금과 규소(실리카) 나노입자를 망막병증이 있는 쥐의 안구에 투여한 결과 나노입자가 혈관을 생성하는 단백질 ‘VEGF’와 결합해 그 기능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br/><br/> 망막질환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발병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신생혈관’이 실명의 주원인이다. 미숙아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 노인성황반변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태걸 박사는 “나노입자가 투여되면 신체는 이물질로 판단해 입자 주변을 특이 단백질로 균일하게 코팅하기 때문에 VEGF와 결합하는 성질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VEGF가 혈관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br/><br/> 연구팀은 나노입자의 종류보다 ‘크기’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달라지는 것도 밝혀냈다. 나노입자의 크기가 100㎚일 때보다 20㎚일 때 더 효과적이었다.<br/><br/>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나노 메디신’ 최신호에 발표됐으며 관련 기술은 미국에 특허 출원됐다. 이 박사는 “<span class='quot0'>금이나 규소는 몸에 무해한 물질로 알려져 있어 나노입자의 독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암이나 류머티즘 질환 등 혈관 생성과 관련된 질병에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54.txt

제목: “무당집 아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사 됐다고요”… 개그맨 출신으로 간증집회 인도하는 배영만  
날짜: 20151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16181420596  
본문: 연예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밝히기를 꺼린다. 그러나 개그맨 배영만(56·부천 우리교회좋은교회) 전도사는 달랐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만난 배 전도사는 파란만장한 과거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부터 꺼냈다. 이야기하는 중간중간 그의 감사고백은 계속 이어졌다.<br/><br/>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도박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온 것, 술 담배를 끊고 후두암에서 치유된 것, 아내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된 것 등.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 투성이입니다(웃음).”<br/><br/> 그의 모친은 법당에서 굿을 하는 무속인이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그는 교회에서 놀고 찬송가를 들으며 자랐다. <br/><br/> “충북 청주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희한하게도 어머니가 무속인 인데 교회 목사님은 우리 무당집 아이들을 잘 돌봐 주셨어요.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분이시지요.”<br/><br/> 그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서 입상하며 개그맨이 됐다. ‘참 나∼ 왜 그러냐고요’ ‘맞다고요’ ‘아니라고요’ ‘알았다고요’ 등 여러 유행어로 스타덤에 올랐다.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 역을 맡아 연기자로도 이름을 알렸다.<br/><br/> 한창 잘 나가던 그는 그만 도박에 손을 대면서 하루아침에 인생 곤두박질을 쳤다. 잠시 당시를 떠올리던 배 전도사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사랑고 은혜였다”고 고백했다.<br/><br/> 그는 나이트클럽에서 DJ를 하며 돈을 많이 벌었다. 밤무대를 뛰는 사람들과 노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재밌어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다.<br/><br/> “어느 날 장모님이 타짜(도박전문가)를 데려왔어요. 타짜가 제 앞에서 카드를 섞으며 속이는 카드가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그것을 보고나서야 ‘그동안 내가 속았구나'란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리곤 바로 도박을 끊었습니다.”<br/><br/> 경제적 어려움 외에 가정적으로 큰 아픔도 있었다. 98년 갓 돌이 지난 딸이 돌연사했다. 그는 “딸은 갑자기 호흡 곤란으로 목숨을 잃었다. 딸이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눈물을 흘렸다.<br/><br/> 10년 전에는 후두암 진단을 받았던 사실도 들려줬다. 그는 “당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너무 놀라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웃었다. “며칠 밤낮을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시면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기도까지 드렸어요. 그 덕분에 지금은 완치돼 복음 전하는 일에만 힘쓰고 있습니다.”<br/><br/>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다. 늘 성경을 읽고 찬송하며 생활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처음부터 선택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세아연합신학대(ACTS)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강도사가 된 뒤 국내외를 돌며 간증집회를 열고 있다.<br/><br/> 배 전도사는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 가정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영육간에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치유사역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함이다. 배 전도사는 “밤무대를 나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며 “예수 복음만을 전하는 온전한 사역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55.txt

제목: 백혈병 환자 SOS에 응답한 또래 의경… 팍팍한 삶, 그래도 세상은 따뜻합니다  
날짜: 20151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16212734422  
본문: 백혈병은 혈액세포의 하나인 백혈구에 발생한 암이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골수에 암세포가 축적돼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출혈이 쉽게 발생한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수개월 내에 목숨을 잃기도 한다.<br/><br/> 평범한 대학생이던 이승철(23)씨는 지난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확진을 받았다. 입원한 뒤 힘겹게 투병생활을 하던 이씨에게 11월 초 위기가 찾아왔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백혈구 수치와 혈액 내 세균 감염으로 항생제가 듣지 않았다. 세균 감염을 치료하려면 최소한 10명에게서 백혈구를 수혈해야 할 상황이었다.<br/><br/> 백혈구 헌혈은 일반 헌혈과 달리 병원에 3차례 방문해 혈액검사→백혈구 촉진제 투여→헌혈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마지막 헌혈 단계는 3시간가량 소요된다. 이씨는 하루에 1명씩 열흘간 10명에게서 매일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중간에 끊기면 백혈구 수치를 유지하기 어려워 헌혈자를 미리 구해 놓아야 했다.<br/><br/> 대구에서 올라온 이씨에게 백혈구 헌혈해줄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달 23일 병원과 가까운 경찰서 몇 곳에 Rh+ AB형 백혈구 헌혈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br/><br/> 응답한 이들이 있었다. 서울 관악경찰서 방범순찰대 3소대 오정원(23·사진) 수경, 신영상(23) 일경, 박준영(24) 이경은 사흘 뒤 이 소식을 듣고 “<span class='quot0'>(이씨가) 우리 또래인데 우리가 하겠다</span>”고 나섰다. 곧바로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했다. 신 일경과 박 이경은 일반 혈액 헌혈을 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오 수경만 백혈구 헌혈을 하게 됐다. 이달 1일 백혈구 촉진제를 맞은 오 수경은 다음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3시간30분에 걸쳐 백혈구를 헌혈했다.<br/><br/> 오 수경과 지인 9명에게서 백혈구를 수혈한 뒤 이씨는 혈액 내 세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과 비슷한 증상의 환자가 백혈구 수혈이 중간에 끊겨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봤다.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 오 수경이 도와줬다”며 “한창 바쁠 때였지만 시간을 내서 찾아와준 이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br/><br/> 오 수경은 15일 “헌혈 당일 아침에 조금 피곤했는데 이 때문에 헌혈을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며 “병원에서 ‘피곤한 것은 전날 맞은 촉진제의 영향’이라고 얘기해줘 안심하고 했다. 백혈구 헌혈이 낯설어 부대원 중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말했다. 세종대 일어일문학과에 재학 중인 오 수경은 “졸업하면 경찰처럼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항상 베풀며 살라’ 하신 부모님도 얘기를 듣고 자랑스러워하셨다”고 덧붙였다.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56.txt

제목: [뉴스파일] 서울시, SPC그룹 등 민관협력 우수기관에  
날짜: 2015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15215359817  
본문: 서울시는 단체와 기업 4곳과 개인 2명을 올해 민관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취업·자립지원을 하고 있는 SPC그룹, 저소득 가정 학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국엡손, 암 환자 가족 대상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선정됐다. 서울시 보도환경 개선에 기여한 서울경인인터로킹블록사업협동조합, 서울-프라하 교류행사를 지원한 마하엘라 리 주한 체코문화원장, 청소년 학습환경 개선에 공헌한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도 포함됐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57.txt

제목: [한국경제 위기가 기회다] 노후준비도 시작이 절반… ‘연금+3’ 전략 세워볼만  
날짜: 20151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14001806419  
본문: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다. 그러나 실천은 여전히 미비하다. 당장 눈앞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 훗날을 준비할 여력이 없다. 또 미래보다 현재의 만족을 중시하는 요즘 젊은층의 성향도 충실한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런 대비 없이 살다가 은퇴와 노후를 맞는다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다. 노후를 위한 자금을 세금처럼 먼저 떼고 생활하는 식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br/><br/> ◇중산층 40% “은퇴 후 빈곤층 될 것 같다”=최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2인 가구 이상 30∼50대 중산층 112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9%가 “은퇴 후 소득이 월 100만원도 안 될 것”으로 예상했다. 5명 중 2명꼴로 자신이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br/><br/> 그러나 48.7%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은 본인 소유의 102.4㎡(31평) 아파트에서 살면서 중형차를 굴리며 6200원짜리 점심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중산층이 따로 노후 대비를 안 한다면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남아 있기는 어렵다.<br/><br/> 노후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조사결과는 넘쳐날 정도로 많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성인 17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4%가 “<span class='quot0'>은퇴 후 필요한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해본 적이 없다</span>”고 답했다. <br/><br/> 부부가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은 노후 준비의 출발점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은퇴 전부터 은퇴 후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눠온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경제·건강·인간관계 등 전반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돼 있었다. 그래서 실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도 대화를 안 나눈 부부보다 배 이상 높았다.<br/><br/> ◇연금이 기본, 집도 노후자산으로 활용해야=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노후 소득의 기본은 연금이다. 연금계좌를 만들고 꼬박꼬박 돈을 넣어 기본적인 노후생활비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퇴직 후 다른 일을 할 계획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노후 의료비 등 갑자기 필요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해놓는 계획도 세워놔야 한다.<br/><br/>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서동필 수석연구원은 “<span class='quot1'>집에 대한 소유·상속 의식을 버리고 집을 노후자산으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span>”고 강조한다. 노년에 다른 일을 하기 힘들고 노후 자금도 소진됐을 때 집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서 연구원은 “<span class='quot1'>집을 팔아 전세 등으로 옮겨 차액을 활용하거나 평수를 줄이거나 집값이 싼 지방으로 이사하라</span>”면서 “<span class='quot1'>살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면 주택연금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span>”고 조언했다.<br/><br/> 연구소에 따르면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고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으로 이사할 경우 평균적으로 1억8600만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한다. 지방으로 안 가고 살던 지역에서 평수만 줄여서 이사하는 경우엔 평당 1100만원을 마련할 수 있고, 집을 팔아 전세 등으로 주거형태를 바꾸면 평균 1억원 정도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윳돈은 월지급식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즉시연금, 수익형 부동산 등을 활용해 연금화할 수 있다. <br/><br/> ◇간병보장+종신보험, 시니어 종합보장보험 등 노후대비 상품 다양=기본적인 노후생활비로 쓸 연금과 함께 질병·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자금도 필요하다. 의료비와 간병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바로 그런 용도다. 보험사들은 노후 대비 상품으로 연금보험과 간병보험, 시니어용 종신보험 등을 내세우고 있다.<br/><br/> 삼성생명 ‘통합유니버설LTC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에 장기간병(LTC)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다. 치매·중풍 등으로 장기요양 상태가 되면 간병자금으로 일시금과 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망할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br/><br/> 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은 중장년층을 위한 종신보험으로, 나이가 들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노인성 질환을 다양한 특약으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40세부터 78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br/><br/> 교보생명 ‘교보시니어플랜연금보험’은 노후 준비가 미흡한 5060세대를 위한 상품이다. 보험료 일부를 목돈으로 내는 일부일시납 제도를 활용해 단기간에 연금 재원을 늘릴 수 있다.<br/><br/> 동양생명 ‘수호천사시니어보장플랜보험’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종합보장보험이다. 재해사망·장해·골절과 중증치매 등 시니어층의 주요 질환을 보장하고 수술비와 입원비도 지원한다.<br/><br/> 오래 유지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AIA생명 ‘골든초이스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매년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0.5%를 유지 보너스로 가산 적립해준다.<br/><br/> 미래에셋생명 ‘연금전환되는 종신보험Ⅱ 인생은 교향악입니다’는 은퇴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하면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br/><br/> 생명보험사뿐 아니라 손해보험사도 다양한 노후 대비 상품을 내놓고 있다. 삼성화재 ‘NEW새시대건강파트너보험’은 질병 진단부터 입원 수술 장애 요양 사망까지 전 단계의 체계적 보장에다 각종 상해, 배상책임, 의료비 실손까지 해결할 수 있다.<br/><br/> 현대해상 ‘모두에게간편한건강보험’은 손보업계 최초로 유병(有病)자·고령자 대상 간편심사를 도입했다. 50세부터 70세까지 5년 내 암 병력을 비롯한 3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서류제출이나 건강진단 없이 가입할 수 있다.<br/><br/> KB손해보험 ‘KB110LTC간병보험’은 최장 110세까지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보장, 치매부터 다양한 노인성 질환까지 대비가 가능하다.<br/><br/>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br/><br/>▶창간 27주년 특집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58.txt

제목: [한국경제 위기가 기회다] 노후준비도 시작이 절반… ‘연금+3’ 전략 세워볼만  
날짜: 20151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850988  
본문: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다. 그러나 실천은 여전히 미비하다. 당장 눈앞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 훗날을 준비할 여력이 없다. 또 미래보다 현재의 만족을 중시하는 요즘 젊은층의 성향도 충실한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런 대비 없이 살다가 은퇴와 노후를 맞는다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다. 노후를 위한 자금을 세금처럼 먼저 떼고 생활하는 식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br/><br/> ◇중산층 40% “은퇴 후 빈곤층 될 것 같다”=최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2인 가구 이상 30∼50대 중산층 112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9%가 “은퇴 후 소득이 월 100만원도 안 될 것”으로 예상했다. 5명 중 2명꼴로 자신이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br/><br/> 그러나 48.7%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은 본인 소유의 102.4㎡(31평) 아파트에서 살면서 중형차를 굴리며 6200원짜리 점심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중산층이 따로 노후 대비를 안 한다면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남아 있기는 어렵다.<br/><br/> 노후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조사결과는 넘쳐날 정도로 많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성인 17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4%가 “<span class='quot0'>은퇴 후 필요한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해본 적이 없다</span>”고 답했다. <br/><br/> 부부가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은 노후 준비의 출발점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은퇴 전부터 은퇴 후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눠온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경제·건강·인간관계 등 전반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돼 있었다. 그래서 실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도 대화를 안 나눈 부부보다 배 이상 높았다.<br/><br/> ◇연금이 기본, 집도 노후자산으로 활용해야=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노후 소득의 기본은 연금이다. 연금계좌를 만들고 꼬박꼬박 돈을 넣어 기본적인 노후생활비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퇴직 후 다른 일을 할 계획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노후 의료비 등 갑자기 필요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해놓는 계획도 세워놔야 한다.<br/><br/>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서동필 수석연구원은 “<span class='quot1'>집에 대한 소유·상속 의식을 버리고 집을 노후자산으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span>”고 강조한다. 노년에 다른 일을 하기 힘들고 노후 자금도 소진됐을 때 집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서 연구원은 “<span class='quot1'>집을 팔아 전세 등으로 옮겨 차액을 활용하거나 평수를 줄이거나 집값이 싼 지방으로 이사하라</span>”면서 “<span class='quot1'>살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면 주택연금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span>”고 조언했다.<br/><br/> 연구소에 따르면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고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으로 이사할 경우 평균적으로 1억8600만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한다. 지방으로 안 가고 살던 지역에서 평수만 줄여서 이사하는 경우엔 평당 1100만원을 마련할 수 있고, 집을 팔아 전세 등으로 주거형태를 바꾸면 평균 1억원 정도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윳돈은 월지급식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즉시연금, 수익형 부동산 등을 활용해 연금화할 수 있다. <br/><br/> ◇간병보장+종신보험, 시니어 종합보장보험 등 노후대비 상품 다양=기본적인 노후생활비로 쓸 연금과 함께 질병·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자금도 필요하다. 의료비와 간병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바로 그런 용도다. 보험사들은 노후 대비 상품으로 연금보험과 간병보험, 시니어용 종신보험 등을 내세우고 있다.<br/><br/> 삼성생명 ‘통합유니버설LTC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에 장기간병(LTC)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다. 치매·중풍 등으로 장기요양 상태가 되면 간병자금으로 일시금과 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망할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br/><br/> 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은 중장년층을 위한 종신보험으로, 나이가 들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노인성 질환을 다양한 특약으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40세부터 78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br/><br/> 교보생명 ‘교보시니어플랜연금보험’은 노후 준비가 미흡한 5060세대를 위한 상품이다. 보험료 일부를 목돈으로 내는 일부일시납 제도를 활용해 단기간에 연금 재원을 늘릴 수 있다.<br/><br/> 동양생명 ‘수호천사시니어보장플랜보험’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종합보장보험이다. 재해사망·장해·골절과 중증치매 등 시니어층의 주요 질환을 보장하고 수술비와 입원비도 지원한다.<br/><br/> 오래 유지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AIA생명 ‘골든초이스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매년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0.5%를 유지 보너스로 가산 적립해준다.<br/><br/> 미래에셋생명 ‘연금전환되는 종신보험Ⅱ 인생은 교향악입니다’는 은퇴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하면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br/><br/> 생명보험사뿐 아니라 손해보험사도 다양한 노후 대비 상품을 내놓고 있다. 삼성화재 ‘NEW새시대건강파트너보험’은 질병 진단부터 입원 수술 장애 요양 사망까지 전 단계의 체계적 보장에다 각종 상해, 배상책임, 의료비 실손까지 해결할 수 있다.<br/><br/> 현대해상 ‘모두에게간편한건강보험’은 손보업계 최초로 유병(有病)자·고령자 대상 간편심사를 도입했다. 50세부터 70세까지 5년 내 암 병력을 비롯한 3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서류제출이나 건강진단 없이 가입할 수 있다.<br/><br/> KB손해보험 ‘KB110LTC간병보험’은 최장 110세까지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보장, 치매부터 다양한 노인성 질환까지 대비가 가능하다.<br/><br/>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br/><br/>▶창간 27주년 특집 모두보기<br/>SQ: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59.txt

제목: 내년 3월부터 가정호스피스 시범 실시… 환자부담 한달 5만원 정도  
날짜: 20151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11231305807  
본문: 내년 3월부터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한 달에 5만원 수준에 그친다.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집에 머무르는 말기 암환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통증 완화치료와 상담·영적지지·보호자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br/><br/>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호스피스를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내년 1∼2월 공모를 거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중 최소 5곳, 최대 20곳을 뽑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한다. <br/><br/>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6개월간 시행한 뒤 수가와 의료진 방문 횟수의 적절성 등을 따져 큰 쟁점이 없으면 바로 가정 호스피스의 전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수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보완해 2017년 상반기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br/><br/> 환자 부담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방문할 경우 1회에 5000원, 의사와 간호사·사회복지사가 모두 방문하면 1만3000원 수준이다. 한 달 진료비는 전담 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 기준으로 산출된다.<br/><br/> 현재 복지부에 등록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64곳 가운데 21곳이 가정 호스피스를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식 제도가 아닌 데다 건강보험 수가가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반면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높다. 2012년에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조사했더니 말기 및 진행 암환자의 75.9%가 가정에서 지내길 원했고, 89.1%는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br/><br/>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15일부터 ‘병동형 호스피스’에 건보를 적용해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이 하루 5만원에서 1만5000원(간병급여 시 1만9000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60.txt

제목: 내년 3월부터 가정호스피스 시범 실시… 환자부담 한달 5만원 정도  
날짜: 20151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749672  
본문: 내년 3월부터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한 달에 5만원 수준에 그친다.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집에 머무르는 말기 암환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통증 완화치료와 상담·영적지지·보호자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br/><br/>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호스피스를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내년 1∼2월 공모를 거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중 최소 5곳, 최대 20곳을 뽑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한다. <br/><br/>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6개월간 시행한 뒤 수가와 의료진 방문 횟수의 적절성 등을 따져 큰 쟁점이 없으면 바로 가정 호스피스의 전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수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보완해 2017년 상반기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br/><br/> 환자 부담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방문할 경우 1회에 5000원, 의사와 간호사·사회복지사가 모두 방문하면 1만3000원 수준이다. 한 달 진료비는 전담 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 기준으로 산출된다.<br/><br/> 현재 복지부에 등록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64곳 가운데 21곳이 가정 호스피스를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식 제도가 아닌 데다 건강보험 수가가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반면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높다. 2012년에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조사했더니 말기 및 진행 암환자의 75.9%가 가정에서 지내길 원했고, 89.1%는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br/><br/>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15일부터 ‘병동형 호스피스’에 건보를 적용해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이 하루 5만원에서 1만5000원(간병급여 시 1만9000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SQ: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61.txt

제목: [한국·한국인에 묻다] ‘야근공화국’ 얻은 건 질병이란 불청객… 출근은 있지만 퇴근이 없는 근로현장  
날짜: 20151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609165  
본문: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여기에 노사 합의 아래 12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1주일에 최대로 일하는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br/><br/>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원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근로자는 357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9.0%를 차지했다.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자로 범위를 넓히면 54.3%에 이른다. 절반이 넘는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다. 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해도 장시간 근로라는 악습은 여전하다.<br/><br/>현실 앞에 법정근로시간 있으나마나<br/><br/>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김모(33)씨는 자정이 가까워 퇴근하는 일이 잦다. 오전 8시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초과근로수당은 받지 못한다. 주말에 일해도 휴일수당은 없다. 연장근로·야근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임금으로 정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br/><br/>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추가로 야근·휴일근로수당 등을 줄 필요가 없는 포괄임금제를 선호한다. 이렇게 근로계약을 하면 출근시간은 있어도 퇴근시간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주어진 일이 끝나는 때가 퇴근시간이다. 노동연구원이 2010년 직장인 1만15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가 포괄임금제였다.<br/><br/> 다른 자동차 부품업체의 관리직인 김모(25·여)씨는 퇴근 때만 되면 눈치를 살핀다. 이사부터 팀장까지 상사들은 업무시간(오전 8시∼오후 6시)이 끝난 뒤에도 ‘당연히’ 회사에 남는다. 공정이 종료되는 오후 9시가 넘어야 일어선다. 김씨 회사는 야근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데도 직원의 절반 이상이 업무시간을 넘겨 일한다.<br/><br/> 생산설비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가동되는 교대근무제는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완성차 업계에선 ‘10/10’(하루 8시간 노동에 2시간 고정 잔업 추가)이라 불리는 2교대가 고착돼 왔다. 휴일근로도 거의 매주 이뤄진다. 2011년 현대자동차 기술직 노동자는 2678시간을 근무했다. 현대차는 2012년 노사 합의를 거쳐 이를 주간연속 2교대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8시간 노동을 하며 서로 교대하는 ‘8/8’ 형태를 도입한다.<br/><br/> 대학병원 간호사 박모(26)씨는 3교대로 쉬는 시간 없이 일한다. 3교대는 ‘낮 근무’(오전 7시∼오후 3시) ‘저녁 근무’(오후 2∼11시) ‘밤 근무’(오후 10시∼오전 8시)로 구성된다. 실제 근무시간은 1시간∼1시간30분 더 길게 이어진다. 환자가 몰리는 시간에는 ‘칼퇴근’을 할 수 없다. 박씨는 차트 관리, 의사와 환자 간 소통, 관장·투약 등 잡다한 업무부터 응급환자 관리에까지 투입된다. 업무 중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식사를 거르는 게 일상이다.<br/><br/>“아빠 몇시에 와” “야근이니 먼저 자”<br/><br/> 에너지 관련 대기업의 계열사에 다녔던 오모(54)씨는 3년 전 대장암 수술을 했다. 암 발생 초기에 발견해 그나마 다행이었다. 의사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권하면서 술을 멀리 하라고 했다. 오씨는 수술자국을 훈장처럼 안고 30년을 바쳤던 직장을 떠났다.<br/><br/> 젊은 직장인에게도 직업병 혹은 직업 관련성 질병이 찾아온다. 대학병원 간호사 박씨는 소화제를 달고 산다. 근무시간이 끝난 뒤 폭식을 하거나 짧은 시간에 급하게 끼니를 때우면서 만성 위염을 앓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다른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이 건강을 해치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씁쓸하다</span>”고 했다.<br/><br/> 제조업계 대기업에 다니는 이모(29)씨는 매년 건강검진 때가 오면 두렵다. 이씨는 “잦은 야근과 술자리 등으로 체중이 늘고 건강도 나빠진 것이 느껴지지만 그것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르다”며 “나이가 많은 상사들 중에는 건강을 심하게 해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나의 미래인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br/><br/> 초과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지난 8월 “초과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은 정상 노동시간 근무자들보다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초과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장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시간을 늘린다.<br/><br/>사람 잡는 야근… 건강검진이 두렵다<br/><br/>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3년 산업재해현황분석’에 따르면 2013년에 업무상 질병에 걸린 사람은 7627명이었다. 허리 통증이 369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폐·특정화학물질 중독 등은 1414명, 뇌·심혈관 질환은 684명이었다. 뇌·심혈관 질환자 중 348명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br/><br/> 근로자가 건강해야 기업도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면 장시간 근로, 잦은 야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br/><br/> 이 고리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안태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이 건강 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규칙적인 운동습관 확률을 높이고 흡연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span class='quot1'>근로시간 단축이 장시간 근로가 관행이 된 사회에서 근로자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br/><br/>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결국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김 선임연구원은 “특례사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 등 예외로 규정된 부분을 축소해야 한다. 법이 있고 벌칙이 있어도 벌칙 적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62.txt

제목: [한국·한국인에 묻다] ‘야근공화국’ 얻은 건 질병이란 불청객… 출근은 있지만 퇴근이 없는 근로현장  
날짜: 20151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10000943914  
본문: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여기에 노사 합의 아래 12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1주일에 최대로 일하는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br/><br/>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원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근로자는 357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9.0%를 차지했다.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자로 범위를 넓히면 54.3%에 이른다. 절반이 넘는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다. 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해도 장시간 근로라는 악습은 여전하다.<br/><br/>현실 앞에 법정근로시간 있으나마나<br/><br/>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김모(33)씨는 자정이 가까워 퇴근하는 일이 잦다. 오전 8시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초과근로수당은 받지 못한다. 주말에 일해도 휴일수당은 없다. 연장근로·야근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임금으로 정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br/><br/>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추가로 야근·휴일근로수당 등을 줄 필요가 없는 포괄임금제를 선호한다. 이렇게 근로계약을 하면 출근시간은 있어도 퇴근시간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주어진 일이 끝나는 때가 퇴근시간이다. 노동연구원이 2010년 직장인 1만15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가 포괄임금제였다.<br/><br/> 다른 자동차 부품업체의 관리직인 김모(25·여)씨는 퇴근 때만 되면 눈치를 살핀다. 이사부터 팀장까지 상사들은 업무시간(오전 8시∼오후 6시)이 끝난 뒤에도 ‘당연히’ 회사에 남는다. 공정이 종료되는 오후 9시가 넘어야 일어선다. 김씨 회사는 야근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데도 직원의 절반 이상이 업무시간을 넘겨 일한다.<br/><br/> 생산설비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가동되는 교대근무제는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완성차 업계에선 ‘10/10’(하루 8시간 노동에 2시간 고정 잔업 추가)이라 불리는 2교대가 고착돼 왔다. 휴일근로도 거의 매주 이뤄진다. 2011년 현대자동차 기술직 노동자는 2678시간을 근무했다. 현대차는 2012년 노사 합의를 거쳐 이를 주간연속 2교대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8시간 노동을 하며 서로 교대하는 ‘8/8’ 형태를 도입한다.<br/><br/> 대학병원 간호사 박모(26)씨는 3교대로 쉬는 시간 없이 일한다. 3교대는 ‘낮 근무’(오전 7시∼오후 3시) ‘저녁 근무’(오후 2∼11시) ‘밤 근무’(오후 10시∼오전 8시)로 구성된다. 실제 근무시간은 1시간∼1시간30분 더 길게 이어진다. 환자가 몰리는 시간에는 ‘칼퇴근’을 할 수 없다. 박씨는 차트 관리, 의사와 환자 간 소통, 관장·투약 등 잡다한 업무부터 응급환자 관리에까지 투입된다. 업무 중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식사를 거르는 게 일상이다.<br/><br/>“아빠 몇시에 와” “야근이니 먼저 자”<br/><br/> 에너지 관련 대기업의 계열사에 다녔던 오모(54)씨는 3년 전 대장암 수술을 했다. 암 발생 초기에 발견해 그나마 다행이었다. 의사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권하면서 술을 멀리 하라고 했다. 오씨는 수술자국을 훈장처럼 안고 30년을 바쳤던 직장을 떠났다.<br/><br/> 젊은 직장인에게도 직업병 혹은 직업 관련성 질병이 찾아온다. 대학병원 간호사 박씨는 소화제를 달고 산다. 근무시간이 끝난 뒤 폭식을 하거나 짧은 시간에 급하게 끼니를 때우면서 만성 위염을 앓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다른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이 건강을 해치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씁쓸하다</span>”고 했다.<br/><br/> 제조업계 대기업에 다니는 이모(29)씨는 매년 건강검진 때가 오면 두렵다. 이씨는 “잦은 야근과 술자리 등으로 체중이 늘고 건강도 나빠진 것이 느껴지지만 그것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르다”며 “나이가 많은 상사들 중에는 건강을 심하게 해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나의 미래인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br/><br/> 초과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지난 8월 “초과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은 정상 노동시간 근무자들보다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초과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장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시간을 늘린다.<br/><br/>사람 잡는 야근… 건강검진이 두렵다<br/><br/>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3년 산업재해현황분석’에 따르면 2013년에 업무상 질병에 걸린 사람은 7627명이었다. 허리 통증이 369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폐·특정화학물질 중독 등은 1414명, 뇌·심혈관 질환은 684명이었다. 뇌·심혈관 질환자 중 348명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br/><br/> 근로자가 건강해야 기업도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면 장시간 근로, 잦은 야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br/><br/> 이 고리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안태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이 건강 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규칙적인 운동습관 확률을 높이고 흡연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span class='quot1'>근로시간 단축이 장시간 근로가 관행이 된 사회에서 근로자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br/><br/>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결국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김 선임연구원은 “특례사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 등 예외로 규정된 부분을 축소해야 한다. 법이 있고 벌칙이 있어도 벌칙 적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63.txt

제목: 한국 갑상샘암 수술 1년 새 35% 줄었다… 의학 학술지 ‘NEJM’ 논문 게재  
날짜: 20151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707820  
본문: 우리나라 갑상샘암 수술이 1년 새 35%나 줄었다. 지난해 초 ‘과잉 진단’ 문제가 제기된 뒤 국민 스스로 조기검진을 자제해 나타난 현상이다. 세계적 의학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은 이처럼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흐름을 조명했다.<br/><br/> NEJM은 10일 고려대 의대 안형식 교수와 미국 다트머스대 길버트 웰치 교수의 공동연구 논문 ‘한국의 갑상샘암 유행병-큰 흐름을 돌리다’를 실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갑상샘암 수술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3년 4월∼2014년 3월 4만3000건 이상 수술이 시행됐다. 하지만 2014년 4월∼2015년 3월에는 2만8000여건으로 35%가량(약 1만5000건) 줄었다.<br/><br/> 안 교수 등 일부 의사들은 지난해 3월 갑상샘암 과잉 진단 문제를 제기하며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갑상샘 초음파검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국가암검진위원회도 ‘무증상 성인에게는 갑상샘 초음파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지침을 변경했다.<br/><br/> 연구팀은 수술 감소의 원인이 갑상샘암 진단 자체가 줄어서인지, 진단된 환자가 수술을 안 받아서인지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술뿐 아니라 갑상샘암 발생 건수도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자 스스로 조기검진을 자제해 갑상샘암으로 진단되는 건수 자체가 줄었다는 의미</span>”라고 설명했다.<br/><br/> 갑상샘암 진단·수술 감소가 암 사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SQ: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64.txt

제목: 한국 갑상샘암 수술 1년 새 35% 줄었다… 의학 학술지 ‘NEJM’ 논문 게재  
날짜: 20151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10214611767  
본문: 우리나라 갑상샘암 수술이 1년 새 35%나 줄었다. 지난해 초 ‘과잉 진단’ 문제가 제기된 뒤 국민 스스로 조기검진을 자제해 나타난 현상이다. 세계적 의학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은 이처럼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흐름을 조명했다.<br/><br/> NEJM은 10일 고려대 의대 안형식 교수와 미국 다트머스대 길버트 웰치 교수의 공동연구 논문 ‘한국의 갑상샘암 유행병-큰 흐름을 돌리다’를 실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갑상샘암 수술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3년 4월∼2014년 3월 4만3000건 이상 수술이 시행됐다. 하지만 2014년 4월∼2015년 3월에는 2만8000여건으로 35%가량(약 1만5000건) 줄었다.<br/><br/> 안 교수 등 일부 의사들은 지난해 3월 갑상샘암 과잉 진단 문제를 제기하며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갑상샘 초음파검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국가암검진위원회도 ‘무증상 성인에게는 갑상샘 초음파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지침을 변경했다.<br/><br/> 연구팀은 수술 감소의 원인이 갑상샘암 진단 자체가 줄어서인지, 진단된 환자가 수술을 안 받아서인지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술뿐 아니라 갑상샘암 발생 건수도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자 스스로 조기검진을 자제해 갑상샘암으로 진단되는 건수 자체가 줄었다는 의미</span>”라고 설명했다.<br/><br/> 갑상샘암 진단·수술 감소가 암 사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65.txt

제목: 연명치료 중단 가능 ‘웰다잉’ 첫발… ‘호스피스·연명의료’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날짜: 20151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09215147843  
본문: 죽음을 앞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존중하는 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되면 한국인 삶의 마지막 시기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br/><br/> 국회 보건복지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기반을 마련한 첫 독자적 법률이다.<br/><br/> 이 법은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평소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 놓거나 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사람은 임종시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br/><br/> 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평소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족에게 표시했다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단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 일치해야 한다. 가족 중 누군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 가족이 1명이면 그 1명의 의견이 존중된다.<br/><br/> 환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없을 때도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한 경우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가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 병원 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br/><br/> 연명의료 결정은 죽음이 수일∼수주로 임박한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환자가 임종시기에 있는지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한다.<br/><br/> 개인이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가에 등록돼 데이터베이스(DB)화된다. DB를 관리하고 의료기관 요청 시 확인해주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생기게 된다.<br/><br/>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이 암 환자에서 말기 환자로 확대된 것도 작지 않은 의미다. 앞으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과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질환 등을 앓는 말기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추가로 관련 질환을 정할 수 있다.<br/><br/> 이렇게 되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찾는 사람이 지금보다 약 10%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호스피스 병상 부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span class='quot0'>병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span>”고 말했다. <br/><br/>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임종시기 판단, 호스피스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 호스피스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br/><br/> 연명의료에 관한 조항은 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2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날 막을 내려 임시국회가 열려야 법을 의결할 수 있다. 여야가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66.txt

제목: 연명치료 중단 가능 ‘웰다잉’ 첫발… ‘호스피스·연명의료’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날짜: 20151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602013  
본문: 죽음을 앞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존중하는 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되면 한국인 삶의 마지막 시기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br/><br/> 국회 보건복지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기반을 마련한 첫 독자적 법률이다.<br/><br/> 이 법은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평소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 놓거나 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사람은 임종시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br/><br/> 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평소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족에게 표시했다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단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 일치해야 한다. 가족 중 누군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 가족이 1명이면 그 1명의 의견이 존중된다.<br/><br/> 환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없을 때도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한 경우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가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 병원 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br/><br/> 연명의료 결정은 죽음이 수일∼수주로 임박한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환자가 임종시기에 있는지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한다.<br/><br/> 개인이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가에 등록돼 데이터베이스(DB)화된다. DB를 관리하고 의료기관 요청 시 확인해주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생기게 된다.<br/><br/>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이 암 환자에서 말기 환자로 확대된 것도 작지 않은 의미다. 앞으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과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질환 등을 앓는 말기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추가로 관련 질환을 정할 수 있다.<br/><br/> 이렇게 되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찾는 사람이 지금보다 약 10%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호스피스 병상 부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span class='quot0'>병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span>”고 말했다. <br/><br/>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임종시기 판단, 호스피스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 호스피스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br/><br/> 연명의료에 관한 조항은 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2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날 막을 내려 임시국회가 열려야 법을 의결할 수 있다. 여야가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67.txt

제목: [역경의 열매] 김종인 <19> 장애인이 가진 ‘또 다른 능력’ 개발하도록 도와야  
날짜: 20151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09174802862  
본문: 연재하는 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다. <br/><br/>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50만명이다. 이 중 지체장애인이 51%로 제일 많고 65세 이상 노인장애인도 40%나 된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는 21만명으로 전체 장애인구의 8.3%이다. 0∼30세 장애인 중 53%가 발달장애인으로 교육과 재활, 생애주기별 복지의 핵심적 대상으로 부상되고 있다. 10년 전이었다. 발달 장애인에게도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한 대학의 사회복지 교수가 내게 핀잔을 주었다. <br/><br/> “<span class='quot0'>교육효과도 없는 지적장애인에게 나사렛대학은 왜 그렇게 많은 등록금을 받고 교육을 시킵니까?</span>”<br/><br/> 당시 지적장애인 고등교육은 부정적 견해가 훨씬 많았고 무용론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사렛대 재활자립학과는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소위 ‘서울대’로 불릴 만큼 경쟁력 있는 학과로 크게 부상했다.<br/><br/> 첫 졸업생부터 90%이상 높은 취업률을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2년 재활자립학과 학과장을 지내며 발달 장애인 영어교육(SLD)를 직접 가르쳤다. 일반 학생도 아닌 발달 장애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무척 부담이 되어 의사소통과 가르침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다. 나는 이때 확실히 깨달았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이며, 사람과 사람의 소통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지와 감각적 영어소통기법으로 시도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효과도 탁월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교육의 수월성을 찾게 돼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br/><br/> 2014년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발달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종개발 및 고용을 위해 국내 최초로 ‘발달행정보조사’ 자격증을 개발했다. 노동부 승인을 통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이 자격증은 자격연수교육과 함께 의사소통, 직업일반, 문서수발, 정리정돈 등 4과목을 심층면접과 실기시험으로 검정 60점 이상 받아야 자격증을 준다. 올해 113명이 이 자격증을 받아 일선에서 일하고 있다.<br/><br/>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나름대로 강점이 있다. 다운증후군의 경우 낙천적인 성격으로 밝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충직한 청지기로 보조업무를 잘 수행한다. 암에도 걸리지 않는다. 자폐성은 한 가지 일에 몰입해 단순직업에 탁월하며 맡은 일에 강한 소신이 있고 일부는 아이큐가 150 이상으로 나타난다.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는 천재성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유형을 잘 살펴 각자에 맞는 직업과 일을 찾아주는 것이 장애인 재활이며 큰 틀에서 고용확대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늘 노심초사하고 기도하며 장애인 재활과 직업개발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올해 초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br/><br/>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발달장애인 사업제안이 공모됐는데 내가 몸담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서 제출한 ‘발달장애 인재개발센터설치 운영프로젝트’가 선정된 것이다. 나와 연구원들은 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발달장애인을 인재로 개발한다는 것을 아직도 역설이자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하지만 난 그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br/><br/> “발달장애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체입니다. 각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고유한 사명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또 다른 능력(Differently Able)을 찾고 개발시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br/><br/>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br/><br/> ▶ 역경의 열매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68.txt

제목: [역경의 열매] 김종인 <19> 장애인이 가진 ‘또 다른 능력’ 개발하도록 도와야  
날짜: 20151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529762  
본문: 연재하는 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다. <br/><br/>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50만명이다. 이 중 지체장애인이 51%로 제일 많고 65세 이상 노인장애인도 40%나 된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는 21만명으로 전체 장애인구의 8.3%이다. 0∼30세 장애인 중 53%가 발달장애인으로 교육과 재활, 생애주기별 복지의 핵심적 대상으로 부상되고 있다. 10년 전이었다. 발달 장애인에게도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한 대학의 사회복지 교수가 내게 핀잔을 주었다. <br/><br/> “<span class='quot0'>교육효과도 없는 지적장애인에게 나사렛대학은 왜 그렇게 많은 등록금을 받고 교육을 시킵니까?</span>”<br/><br/> 당시 지적장애인 고등교육은 부정적 견해가 훨씬 많았고 무용론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사렛대 재활자립학과는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소위 ‘서울대’로 불릴 만큼 경쟁력 있는 학과로 크게 부상했다.<br/><br/> 첫 졸업생부터 90%이상 높은 취업률을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2년 재활자립학과 학과장을 지내며 발달 장애인 영어교육(SLD)를 직접 가르쳤다. 일반 학생도 아닌 발달 장애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무척 부담이 되어 의사소통과 가르침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다. 나는 이때 확실히 깨달았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이며, 사람과 사람의 소통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지와 감각적 영어소통기법으로 시도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효과도 탁월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교육의 수월성을 찾게 돼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br/><br/> 2014년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발달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종개발 및 고용을 위해 국내 최초로 ‘발달행정보조사’ 자격증을 개발했다. 노동부 승인을 통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이 자격증은 자격연수교육과 함께 의사소통, 직업일반, 문서수발, 정리정돈 등 4과목을 심층면접과 실기시험으로 검정 60점 이상 받아야 자격증을 준다. 올해 113명이 이 자격증을 받아 일선에서 일하고 있다.<br/><br/>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나름대로 강점이 있다. 다운증후군의 경우 낙천적인 성격으로 밝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충직한 청지기로 보조업무를 잘 수행한다. 암에도 걸리지 않는다. 자폐성은 한 가지 일에 몰입해 단순직업에 탁월하며 맡은 일에 강한 소신이 있고 일부는 아이큐가 150 이상으로 나타난다.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는 천재성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유형을 잘 살펴 각자에 맞는 직업과 일을 찾아주는 것이 장애인 재활이며 큰 틀에서 고용확대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늘 노심초사하고 기도하며 장애인 재활과 직업개발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올해 초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br/><br/>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발달장애인 사업제안이 공모됐는데 내가 몸담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서 제출한 ‘발달장애 인재개발센터설치 운영프로젝트’가 선정된 것이다. 나와 연구원들은 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발달장애인을 인재로 개발한다는 것을 아직도 역설이자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하지만 난 그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br/><br/> “발달장애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체입니다. 각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고유한 사명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또 다른 능력(Differently Able)을 찾고 개발시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br/><br/>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br/><br/> ▶ 역경의 열매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69.txt

제목: 국제성모병원, 말기 암환자에 24시간 호스피스 간병 서비스  
날짜: 2015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345634  
본문: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준식)은 지난 1일부터 인천 지역 최초로 말기암 환자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br/><br/>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 40시간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1일 3교대 24시간 말기암 환자를 간병하는 시스템이다. 건강보험 적용 혜택도 주어진다. 이로써 말기암 환자 간병비 부담금이 하루 4000원으로 대폭 줄었다.<br/><br/>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사진)은 33병상을 갖추고 환자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요구까지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이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70.txt

제목: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아직은 멀다  
날짜: 2015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425219  
본문: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집을 보면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한다’고 적혀 있다. 특히 ‘2016년에는 4대 중증질환은 비급여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고 돼 있다. 환자 본인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br/><br/> ◇4대 중증질환 보장률 큰 변화 없어=공약대로라면 내년부터 암 진단을 받아도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br/><br/> 현 정부는 출범 이후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실시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70개 건강보험 항목을 확대했다. 올해의 경우 양성자 치료와 유전자 검사, 폐암 항암제 등 245개 항목에서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거나 대상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현재까지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자 부담 비급여 의료비가 약 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span>”고 밝혔다.<br/><br/>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큰 변화가 없다. 이 비율은 2010년 76.0%, 2011년 76.1%, 2012년 77.7%, 2013년 77.5%다.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는 대부분 환자는 치료비가 줄었다고 느끼기 힘든 수치다.<br/><br/>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 분야는 애초부터 다른 질환에 비해 보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다. 전체 질환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기준 62%다.<br/><br/> 비급여 항목이 계속 늘고 있는 것도 이유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속속 도입되고 있고 낮은 수익을 비급여 의료행위로 보전하려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했다는 비급여 항목에는 극소수 환자에게만 쓰인 치료행위와 약제가 많다.<br/><br/> ◇처음부터 지켜지지 못할 공약=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013년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10%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게 하고,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까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자는 내용이었다.<br/><br/> 그러나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모두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국회 전문위원실의 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span class='quot0'>모든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안정적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span>”고 했다. 건보공단은 “<span class='quot1'>과잉진료로 재정이 필요 이상으로 쓰일 수 있고 국민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span>”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달 1일 해당 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br/><br/> 정부와 건보공단의 반대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 부담’ 공약이 처음부터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었음을 보여준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span class='quot2'>법정 본인 부담금을 깎아주지 않는 한 보장성 강화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2'>국가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정치적 쇼이고 생색내기였을 뿐</span>”이라고 말했다.<br/><br/> ◇전체 의료비 부담 해소해야=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 의료비가 체감할 만한 수준으로 줄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 아산병원의 예를 들어 “<span class='quot0'>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최근 3개월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43.4%에서 38.2%로 감소했다</span>”고 말했다. 유방 절제술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의 경우 지난해 5월 수술 시 327만원이 들었다면 올해 9월에는 144만원만 부담하면 됐다.<br/><br/> 그렇지만 전체 국민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합한 ‘가계직접 부담률’은 2009년 35%에서 2013년 38%로 늘었다. 정 정책국장은 “<span class='quot2'>4대 중증질환인 뇌졸중 환자의 경우 수술만 건강보험 보장이 되고 재활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span>”라면서 “<span class='quot2'>4대 질환뿐 아니라 전체적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보편적 보장성 강화’로 가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71.txt

제목: 1217억 투입 국립부산과학관 11일 개관  
날짜: 2015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420813  
본문: 부산·울산·경남지역 과학꿈나무들의 요람인 국립부산과학관이 착공 3년 만에 문을 연다.<br/><br/> 국립부산과학관은 11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br/><br/>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 11만3000㎡ 부지에 총사업비 1217억원으로 건립된 국립부산과학관은 지역 밀착형 과학테마파크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br/><br/> 동남권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항공우주, 선박, 에너지, 방사선 의학을 주제로 180여개의 다양한 과학전시물이 설치돼 있다. <br/><br/> 자동차와 항공우주관에는 고대인들이 발명한 바퀴를 시작으로 엔진과 자동차의 진화, 항공,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도전과 창조를 다양한 전시물로 보여준다. 선박관에는 잠수함이 수중에서 무게중심을 바로 잡는 원리를 익히고, 선박 설계·조립·운항을 체험할 수 있다.<br/><br/> 에너지·방사선관에는 풍력·조력·태양열 등 청정에너지 활용기술을 배우고 방사선을 활용해 난치병인 암을 치유하는 첨단 방사선의학의 원리를 체험한다. 특히 천문관측소에는 국내 과학관에서 가장 규모가 큰 360㎜ 굴절천체망원경을 보유하고 있다.<br/><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72.txt

제목: [건강 나침반] 착한암도 癌이다！ 갑상선암은 위치·성격 세심히 살펴야  
날짜: 2015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241848  
본문: 얼마 전 필자가 수술한 50대 초반 환자 이야기다. 작년 건강 검진 때 왼쪽 갑상선에 아주 작은 결절이 발견됐었는데, 수술도 두렵고,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어 6개월 가량 고민만 하다가 우리 병원을 찾아 재검사를 받았다. 그 동안 8㎜에 불과했던 결절은 3㎝로 커져 있었고, 림프절에도 전이가 돼 갑상선 전절제 수술과 림프절 수술을 받았다. 현재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받고 안정화된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추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다.<br/><br/> 우리나라 여성암 1위가 갑상선암이다. 갑상선 암은 5년 생존율이 높고, 진행이 느린 경우가 많아 ‘착한 암’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별칭 때문에 갑상선 암의 이면이 가려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갑상선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재발이 될 수 있고, 임파선 등 근처 기관으로 전이되기 쉬워 악성으로 판명된 경우 초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다.<br/><br/> 또 하나의 복병은 발병연령이다. 갑상선암을 가장 많이 진단받는 연령대가 40대 혹은 50대 초반이다. 유방암에 이어 발병 연령대가 제일 낮다. 이렇다 보니 실제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에게는 5년 생존율이라는 수치가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 있다. 50대 초반 환자에게 5년 후라고 해봐야 채 60세도 되지 않는 창창한 나이니까 말이다. 이들에게는 사실 수술과 치료를 받기만 하면 그 후에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보다 필요하다.<br/><br/> 최근 갑상선암의 이러한 이면 때문에 국내외에서 갑상선암 진단 및 수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 전 국내에서 개최된 아태평양 갑상선학회에서도 각국의 의료진들이 갑상선암 수술에 있어서 단순히 암의 크기만을 고려하기보다 암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크기가 작아도 전이가 심하거나 신경 가까이 있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면 수술해야 한다는 것. 다만, 돌연변이 검사 등 미세한 암의 악성 여부를 구별해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 갑상선학회에서도 갑상선암의 진행 경과를 관찰하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병원은 많지 않다. 암의 크기 여부에 관계없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수술을 결정한다는 것.<br/><br/> 미국 갑상선학회가이드라인도 이와 같은 의견을 뒷받침한다. 2015년 업데이트 된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상선암 진단 시 사이즈에 관계없이 수술이 첫 번째 치료 옵션이다. 다만, 1cm 미만의 작은 암 중에서도 림프절 전이가 없거나 위치상으로 위험하지 않은 부위에 위치한 암인 경우에는 지켜볼 수 있다. 종양의 크기를 떠나 결국에는 전문의의 종합적인 판단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미다.<br/><br/> 암의 크기에 따른 수술 여부를 두고 논의하는 사이, 놓치고 지나간 것이 있다. 착한 암도 암이라는 사실이다. 갑상선암 환자들은 오늘도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혹시 암이 재발하지는 않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로 전이되진 않았을까’라는 걱정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갑상선암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10명 중 7명이 재발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수술 예후가 좋고 진행 속도가 더딘 갑상선암일지라도 크기와 상관없이 암은 암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암 치료의 첫 번째 원칙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때다.<br/><br/>남기현 연세암병원 갑상선암센터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73.txt

제목: 빛 이용한 ‘광역학 시술’ 차세대 치료법 부상  
날짜: 2015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249824  
본문: “<span class='quot0'>신속하고 선택적으로 종양에 흡수되는 광과민제와 정확한 레이저 전달기법이 개발된다면 광역학은 기존 암 치료법과 병행하거나 단독으로 쓰이면서 암환자의 생존율 높이는 치료법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span>”<br/><br/> 박도현(사진)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차세대 암치료기술로 등장한 광역학 치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광역학 치료란 빛을 이용해 암 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다. 빛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광과민제를 정맥에 주사하면 암 덩어리에만 선택적으로 축적된다. 암 조직 주변에는 염증세포의 하나인 대식세포가 많은데, 이런 환경적 차이 때문에 광과민제가 대식세포가 많은 종양세포 주변에 모여든다. 광과민제가 종양조직에 선택적으로 달라붙은 후 레이저광을 조사하면 광과민제는 빛을 받아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세포괴사가 일어난다.<br/><br/> 이론적으로 광역학은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치료법이다. 그러나 아직 한계도 존재한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부작용이 적은 광과민제의 개발과 종양부위에 정확하게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는 빛 전달기법 개발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현재 2세대 광과민제가 국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처음 진료현장에 들어온 1세대 광과민제는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일단 정맥에 투여한 광과민제가 종양세포에 달라붙기까지 48∼72시간 시간이 걸렸고, 4주간 햇빛을 보지 말아야하는 단점이 있었다. 최근 임상에는 1세대 광과민제의 단점을 보완한 2세대 광과민제가 사용되고 있다. 광과민제와 암세포가 달라붙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으로 단축됐고 차광시간도 2일로 줄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환자가 체감하는 부작용도 줄었고 종양조직까지의 빛의 전달 깊이도 깊어져 큰 사이즈의 종양에도 시술이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 <br/><br/> 광역학 치료에 대한 의학계의 기대가 큰 점은 종양의 종류의 제한 없이 치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상조직과 구별되는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암에 적용될 수 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일단 수술이 어려운 췌장암 환자에서 치료효과가 나타났다</span>”고 말했다. 박 교수가 췌장암 환자에게 실시한 초음파를 이용한 내시경적 광역학 치료 결과를 외국학술지에 소개했다. 이런 공로로 최근 동성제약 송음 이선규의약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br/><br/> 광역학 치료는 빛이 종양조직 깊숙이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4㎝미만의 국소 고형암의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전이 양상이 있다면 광역학 치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수술이 어려운 국소 췌장암, 담도암에서 활발히 적용 중이다. 현재는 항암치료 후 재발했거나 방사신 치료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광역학 치료 결과가 축적되면 새로운 암 치료요법으로 수술과 병행하거나 다른 암치료기술과 병행될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국내외에서 광과민제와 레이저 전달기법 연구가 활발하다. 앞으로 적용가능한 암 종은 늘어날 것이며 다른 치료법이 절실한 환자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74.txt

제목: 빛 이용한 ‘광역학 시술’ 차세대 치료법 부상  
날짜: 2015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06192132345  
본문: “<span class='quot0'>신속하고 선택적으로 종양에 흡수되는 광과민제와 정확한 레이저 전달기법이 개발된다면 광역학은 기존 암 치료법과 병행하거나 단독으로 쓰이면서 암환자의 생존율 높이는 치료법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span>”<br/><br/> 박도현(사진)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차세대 암치료기술로 등장한 광역학 치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광역학 치료란 빛을 이용해 암 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다. 빛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광과민제를 정맥에 주사하면 암 덩어리에만 선택적으로 축적된다. 암 조직 주변에는 염증세포의 하나인 대식세포가 많은데, 이런 환경적 차이 때문에 광과민제가 대식세포가 많은 종양세포 주변에 모여든다. 광과민제가 종양조직에 선택적으로 달라붙은 후 레이저광을 조사하면 광과민제는 빛을 받아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세포괴사가 일어난다.<br/><br/> 이론적으로 광역학은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치료법이다. 그러나 아직 한계도 존재한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부작용이 적은 광과민제의 개발과 종양부위에 정확하게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는 빛 전달기법 개발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현재 2세대 광과민제가 국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처음 진료현장에 들어온 1세대 광과민제는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일단 정맥에 투여한 광과민제가 종양세포에 달라붙기까지 48∼72시간 시간이 걸렸고, 4주간 햇빛을 보지 말아야하는 단점이 있었다. 최근 임상에는 1세대 광과민제의 단점을 보완한 2세대 광과민제가 사용되고 있다. 광과민제와 암세포가 달라붙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으로 단축됐고 차광시간도 2일로 줄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환자가 체감하는 부작용도 줄었고 종양조직까지의 빛의 전달 깊이도 깊어져 큰 사이즈의 종양에도 시술이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 <br/><br/> 광역학 치료에 대한 의학계의 기대가 큰 점은 종양의 종류의 제한 없이 치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상조직과 구별되는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암에 적용될 수 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일단 수술이 어려운 췌장암 환자에서 치료효과가 나타났다</span>”고 말했다. 박 교수가 췌장암 환자에게 실시한 초음파를 이용한 내시경적 광역학 치료 결과를 외국학술지에 소개했다. 이런 공로로 최근 동성제약 송음 이선규의약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br/><br/> 광역학 치료는 빛이 종양조직 깊숙이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4㎝미만의 국소 고형암의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전이 양상이 있다면 광역학 치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수술이 어려운 국소 췌장암, 담도암에서 활발히 적용 중이다. 현재는 항암치료 후 재발했거나 방사신 치료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광역학 치료 결과가 축적되면 새로운 암 치료요법으로 수술과 병행하거나 다른 암치료기술과 병행될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국내외에서 광과민제와 레이저 전달기법 연구가 활발하다. 앞으로 적용가능한 암 종은 늘어날 것이며 다른 치료법이 절실한 환자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75.txt

제목: 등재 30일 만에 급여신청하라니… 말뿐인 신의료기술 진흥책, 개발자들 시일촉박 자료확보 애로  
날짜: 2015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06192135240  
본문: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암 진단을 할 수 있다면 중증 단계를 암환자 비율을 낮추고 조기 암환자의 비율을 지금보다 높여 결과적으로 국내 암환자의 완치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암 진단을 보통 CT나 MRI 등 영상의학적 진단 장비를 이용하지만 종양의 사이즈가 작거나 다른 장기 뒤로 숨어있는 경우 영상장비로도 놓치는 암이 있다. <br/><br/> 실제 혈액검사만으로 암세포의 유무를 판단한 수 있는 진단키트가 국내 연구자에 의해 개발됐다. 이 기술은 현재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있다고 인정돼 국내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신의료기술은 한 병원이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결정을 신청해야한다. 심평원은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급여여부를 결정한다. <br/><br/> 간단한 혈액검사로 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상용화됐다. 최초 사용일부터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에 급여결정을 신청해야한다. 이때 신의료기술을 개발한 연구팀은 진단키트의 안정성, 유효성평가결과,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국내외 실시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게 된다.<br/><br/> 암 진단 키트 개발자는 급여평가 신청을 위해 신의료기술 등재 후 정해진 30일이란 기간 내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심평원에 제출했다. 해당 의료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는 “<span class='quot0'>신의료기술로 시판허가를 됐으나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신의료기술의 특성상 허가한지 30일 만에 보험급여 결정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span>”고 토로했다. 심평원이 제한적 의료기술 도입이란 제도를 통해 신의료기술의 등재의 문턱을 낮췄지만 신의료기술의 특징을 살리지 못한 경직된 평가가 신의료기술의 보험등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br/><br/> 한편 개발자는 지난해 가을 급여평가를 신청했지만 지금까지도 급여결정 신청 결과는 듣지 못한 상태다. 신의료기술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심평원이 급여 또는 비급여를 결정·논의하는 과정 동안 허가된 신의료기술은 별도의 의료기관 코드를 받아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신의료기술 보험등재 신청 연구자는 “급여 또는 비급여라는 결정이 이뤄져야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시판허가됐으나 별도의 의료수가를 산정해주지 않으면 사용이 늘지 않아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다. 또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그 빈도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안정성과 효능이 평가된 신의료기술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인정해주는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76.txt

제목: 등재 30일 만에 급여신청하라니… 말뿐인 신의료기술 진흥책, 개발자들 시일촉박 자료확보 애로  
날짜: 2015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248334  
본문: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암 진단을 할 수 있다면 중증 단계를 암환자 비율을 낮추고 조기 암환자의 비율을 지금보다 높여 결과적으로 국내 암환자의 완치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암 진단을 보통 CT나 MRI 등 영상의학적 진단 장비를 이용하지만 종양의 사이즈가 작거나 다른 장기 뒤로 숨어있는 경우 영상장비로도 놓치는 암이 있다. <br/><br/> 실제 혈액검사만으로 암세포의 유무를 판단한 수 있는 진단키트가 국내 연구자에 의해 개발됐다. 이 기술은 현재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있다고 인정돼 국내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신의료기술은 한 병원이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결정을 신청해야한다. 심평원은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급여여부를 결정한다. <br/><br/> 간단한 혈액검사로 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상용화됐다. 최초 사용일부터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에 급여결정을 신청해야한다. 이때 신의료기술을 개발한 연구팀은 진단키트의 안정성, 유효성평가결과,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국내외 실시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게 된다.<br/><br/> 암 진단 키트 개발자는 급여평가 신청을 위해 신의료기술 등재 후 정해진 30일이란 기간 내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심평원에 제출했다. 해당 의료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는 “<span class='quot0'>신의료기술로 시판허가를 됐으나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신의료기술의 특성상 허가한지 30일 만에 보험급여 결정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span>”고 토로했다. 심평원이 제한적 의료기술 도입이란 제도를 통해 신의료기술의 등재의 문턱을 낮췄지만 신의료기술의 특징을 살리지 못한 경직된 평가가 신의료기술의 보험등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br/><br/> 한편 개발자는 지난해 가을 급여평가를 신청했지만 지금까지도 급여결정 신청 결과는 듣지 못한 상태다. 신의료기술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심평원이 급여 또는 비급여를 결정·논의하는 과정 동안 허가된 신의료기술은 별도의 의료기관 코드를 받아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신의료기술 보험등재 신청 연구자는 “급여 또는 비급여라는 결정이 이뤄져야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시판허가됐으나 별도의 의료수가를 산정해주지 않으면 사용이 늘지 않아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다. 또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그 빈도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안정성과 효능이 평가된 신의료기술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인정해주는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77.txt

제목: ‘퍼제타’ 보험적용 언제쯤 이뤄질까요…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 애타는 호소  
날짜: 2015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06182107565  
본문: 지난 11월 30일, 대표적인 유방암 환자 단체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이하 한유총회)’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의게시판에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의 보험급여를 요청하는 유방암 환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br/><br/> 환자는 진단 시 간(肝)까지 암이 전이된 말기(4기)상태였지만, 유방암 치료제 신약 퍼제타 효과가 좋아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상태라며 퍼제타를 유방암계의 불로초 같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비용 때문에 곧 치료를 포기해야 할 지 모른다며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br/><br/> 일반적으로 유방암은 5년 생존율이 97%에 이르는 쉬운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조기에 발견한 0기 환자들에 해당한다. 이 환자처럼 암이 다른 곳으로 퍼진 전이성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35.9%로 절반은 5년 내에 사망하고 있다. 특히 HER2 유전자가 과발현되는 HER2 양성 유방암은 재발 전이의 위험이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퍼제타는 이러한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1차 치료 시에 허셉틴과 도세탁셀과 병용치료하며, 치료 효과가 높아 임상 현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치료제다. 주요 임상 결과에 따르면 퍼제타는 전이성 유방암 분야 사상 최고 긴 5년의 전체 생존 기간을 보였다. <br/><br/> 이는 기존 표준 요법 보다 1년 4개월 이상 연장한 수치다. 현재 치료 옵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생존 기간을 보였다고 평가 받고 있으며, 국제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권고되고 있다. <br/><br/> 하지만, 퍼제타는 2013년 국내에 허가를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지난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건강보험급여에 등재되지 못하면 비용 부담이 큰 항암제 특성 상, 환자들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퍼제타 치료를 포기 할 수밖에 없다. <br/><br/> 한유총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연을 올린 환자는 글의 말미에 절망스럽기 그지없는 4기 유방암의 고통에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희망을 얻게 됐고, 평생 유방암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고 즐겁게 살고 싶다고 했다. 계속해서 퍼제타가 비급여로 남아있다면 이 환자의 바람이 이루어질 날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br/><br/> 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도 앞으로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방암 환자들의 퍼제타 보험 급여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br/><br/>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78.txt

제목: ‘퍼제타’ 보험적용 언제쯤 이뤄질까요…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 애타는 호소  
날짜: 2015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237163  
본문: 지난 11월 30일, 대표적인 유방암 환자 단체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이하 한유총회)’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의게시판에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의 보험급여를 요청하는 유방암 환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br/><br/> 환자는 진단 시 간(肝)까지 암이 전이된 말기(4기)상태였지만, 유방암 치료제 신약 퍼제타 효과가 좋아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상태라며 퍼제타를 유방암계의 불로초 같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비용 때문에 곧 치료를 포기해야 할 지 모른다며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br/><br/> 일반적으로 유방암은 5년 생존율이 97%에 이르는 쉬운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조기에 발견한 0기 환자들에 해당한다. 이 환자처럼 암이 다른 곳으로 퍼진 전이성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35.9%로 절반은 5년 내에 사망하고 있다. 특히 HER2 유전자가 과발현되는 HER2 양성 유방암은 재발 전이의 위험이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퍼제타는 이러한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1차 치료 시에 허셉틴과 도세탁셀과 병용치료하며, 치료 효과가 높아 임상 현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치료제다. 주요 임상 결과에 따르면 퍼제타는 전이성 유방암 분야 사상 최고 긴 5년의 전체 생존 기간을 보였다. <br/><br/> 이는 기존 표준 요법 보다 1년 4개월 이상 연장한 수치다. 현재 치료 옵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생존 기간을 보였다고 평가 받고 있으며, 국제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권고되고 있다. <br/><br/> 하지만, 퍼제타는 2013년 국내에 허가를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지난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건강보험급여에 등재되지 못하면 비용 부담이 큰 항암제 특성 상, 환자들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퍼제타 치료를 포기 할 수밖에 없다. <br/><br/> 한유총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연을 올린 환자는 글의 말미에 절망스럽기 그지없는 4기 유방암의 고통에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희망을 얻게 됐고, 평생 유방암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고 즐겁게 살고 싶다고 했다. 계속해서 퍼제타가 비급여로 남아있다면 이 환자의 바람이 이루어질 날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br/><br/> 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도 앞으로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방암 환자들의 퍼제타 보험 급여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br/><br/>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79.txt

제목: [한설희 칼럼] 눈 즐거워지고 몸도 즐겁게 해주는 연<蓮>  
날짜: 2015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241272  
본문: “내가 연꽃을 사랑함은 진흙 속에서 나왔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출렁이는 물결에 씻겼으나 요염하지 않으며 속은 비었고 겉은 곧으며, 덩굴은 뻗지 않고 가지를 치지 아니하며 향기는 멀어질수록 더욱 맑다. 꼿꼿하고 깨끗이 서 있어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없다.”<br/><br/> 위 시는 연꽃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그려낸 중국 북송 시대의 유학자 주무숙(周茂叔)의 애련설(愛蓮設)이다. 그는 연꽃의 고고함에 감탄해 “연꽃은 꽃 중에 군자로다”라고 칭송했을 정도다.<br/><br/>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우리 눈을 호사하게 하는 연꽃을 연화차로, 그 잎은 연잎차로, 뿌리는 연근차로 음용해 왔다. 꽃부터 뿌리까지 알뜰하게 식용으로 이용해왔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물속 진흙아래 숨어 있는 뿌리, 연근은 전분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데 100g당 74 칼로리의 열량을 내며 식이 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 C의 함량은 100g당 44mg에 이르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73%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연근은 비타민 B6, 엽산, 나이아신, 리보플라빈, 판토테닉산, 치아민과 같은 비타민 B 복합체의 보고(寶庫)이다. 이밖에 세포 내 각종 효소 보조인자로 작용하는 구리, 아연, 철, 마그네슘, 망간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연근은 섭취함으로써 건강증진 효과로 이어진다. <br/><br/> 첫째 연근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우리 몸 구석 구석에 산소를 원활히 공급해준다. 적혈구 생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리와 철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빈혈을 막아주고 혈류를 개선하여 에너지와 활력을 보충해준다.<br/><br/> 둘째 비타민B 복합군이 신경세포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원활하게 해준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정서를 안정시켜주고 맑은 기억력을 유지해준다. 두통과 과민성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비타민 B복합체는 심장과 뇌혈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낮추어서 심근 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br/><br/> 셋째 연근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고혈압을 일으키는 나트륨의 해로운 작용을 반감시킨다. 더구나 칼륨은 혈관 확장 효과도 가지고 있어 혈압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도 있다. <br/><br/> 넷째 연근은 식이 섬유 함량이 높아 장 운동을 도와주고 영양분 섭취를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변비를 예방하고 다이어트효과도 있다. 또한 연근에는 뮤신(mucin)이란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당질과 결합된 복합단백질로서 세포의 주성분인 단백질의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위벽을 보호하고 해독작용도 가지고 있으며 덤으로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어 심혈관질환 예방에 힘을 보태준다.<br/><br/> 다섯째 연근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A가 높은 농도로 분포한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항염증,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노화 억제와 함께 암의 발생을 낮추어 준다. 비타민 A는 피부의 신진대사를 도와 젊은 피부와 건강한 머리 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노화와 관련된 눈의 퇴행성 질환으로 노인 시력상실의 주요 원인인 황반변성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br/><br/> 마지막으로 연근은 가래를 삭히고 폐를 보호해주어 천식, 기관지염 및 감기예방 효과가 있다. <br/><br/> 한 여름 작렬하는 태양아래서 순백의 기품을 보이며 군자의 꽃으로 우리에게 눈으로 즐거움을 주던 蓮이 기온이 차가워지는 겨울에는 그 뿌리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 입동과 소설이 지났다. 올 겨울에는 연입차로 기관지를 보호하고 다양한 연근 요리로 건강을 챙겨보자. 아름다운 꽃과 푸르른 잎새와 건강한 뿌리까지, 아낌없이 온 몸을 바쳐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蓮이야말로 생각해볼수록 귀하디 귀한 식물이요 요긴한 먹거리다. <br/><br/>한설희(건국대병원 신경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80.txt

제목: 올해 건보 3조 흑자… 고갈 시점 늦춰질 듯  
날짜: 2015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06215057449  
본문: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 가까운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5년 연속 흑자로 누적 적립금은 17조원에 육박했다.<br/><b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51조9838억원, 총지출은 48조9870억원으로 2조996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16조9779억원이다. 2011년 1조6000억원의 재정 흑자로 돌아선 뒤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공단 측은 건보 누적 적립금이 내년 17조3010억원, 2017년 18조3962억원, 2018년 19조2095억원 등 해마다 늘어 2019년에는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br/><br/> 건보 흑자 요인으로는 질병의 조기 발견, 암 사망률 감소, 노인 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이 꼽힌다. <br/><br/> 흑자 규모가 크게 늘면서 건보 재정의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정부가 전망한 10년 뒤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2060년까지 장기 재정을 전망하며 건보 재정이 2016년을 정점으로 꺾여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2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추산했다.<br/><br/> 건보 흑자를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80%)에 한참 모자란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81.txt

제목: 올해 건보 3조 흑자… 고갈 시점 늦춰질 듯  
날짜: 2015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309833  
본문: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 가까운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5년 연속 흑자로 누적 적립금은 17조원에 육박했다.<br/><b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51조9838억원, 총지출은 48조9870억원으로 2조996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16조9779억원이다. 2011년 1조6000억원의 재정 흑자로 돌아선 뒤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공단 측은 건보 누적 적립금이 내년 17조3010억원, 2017년 18조3962억원, 2018년 19조2095억원 등 해마다 늘어 2019년에는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br/><br/> 건보 흑자 요인으로는 질병의 조기 발견, 암 사망률 감소, 노인 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이 꼽힌다. <br/><br/> 흑자 규모가 크게 늘면서 건보 재정의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정부가 전망한 10년 뒤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2060년까지 장기 재정을 전망하며 건보 재정이 2016년을 정점으로 꺾여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2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추산했다.<br/><br/> 건보 흑자를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80%)에 한참 모자란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82.txt

제목: 동성제약 ‘포토론’, 2세대 광과민제… 췌장암 임상시험 승인  
날짜: 2015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06184517163  
본문: 동성제약은 작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Photolon)’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췌장암 환자 대상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서울아산병원 췌담도내과에서 진행된다. 동성제약 측은 “<span class='quot0'>포토론은 1세대 약물에 비해 뛰어난 효과와 편리한 시술, 낮은 부작용으로 광역학치료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1세대 광과민제는 투여 후 48∼72시간의 대기시간이 있고, 시술 후 최소 4주간의 차광기간을 가져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은 1세대 광과민제와 달리 투여 후 3시간의 대기시간과 차광시간도 2일이면 충분하다. 또한 치료 깊이도 4㎜정도였던 1세대에 비해 12∼15㎜로 깊어졌다는 장점이 있다. 광역학치료는 PDT<br/><br/>(Photodynamic Therapy)라고 부르며 포르피린 계통과 클로린 계통의 광과민성 물질이 정상 건강 세포보다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축적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암치료법이다. 광과민성 물질을 정맥주사한 후 암세포에 축척되면 일정 시간 후 암세포에 내시경을 이용해 630nm 혹은 663nm의 파장을 갖는 적색광을 조사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시키는 치료법이다. 광역학치료는 피부암, 자궁경부암, 췌담도암, 대장암, 식도암, 설암, 두경부암 등 다양한 치료영역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br/><br/> 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박도현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초음파 유도하의 내시경적 광역학치료에 의한 췌장암 환자에 대한 임상을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 ‘내시경검사(Endoscopy)’에 소개했다. 해당 논문에는 악성 종양환자에서 초음파 내시경과 광과민제 포토론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예비 결과가 포함됐다. 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83.txt

제목: 동성제약 ‘포토론’, 2세대 광과민제… 췌장암 임상시험 승인  
날짜: 2015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239462  
본문: 동성제약은 작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Photolon)’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췌장암 환자 대상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서울아산병원 췌담도내과에서 진행된다. 동성제약 측은 “<span class='quot0'>포토론은 1세대 약물에 비해 뛰어난 효과와 편리한 시술, 낮은 부작용으로 광역학치료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1세대 광과민제는 투여 후 48∼72시간의 대기시간이 있고, 시술 후 최소 4주간의 차광기간을 가져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은 1세대 광과민제와 달리 투여 후 3시간의 대기시간과 차광시간도 2일이면 충분하다. 또한 치료 깊이도 4㎜정도였던 1세대에 비해 12∼15㎜로 깊어졌다는 장점이 있다. 광역학치료는 PDT<br/><br/>(Photodynamic Therapy)라고 부르며 포르피린 계통과 클로린 계통의 광과민성 물질이 정상 건강 세포보다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축적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암치료법이다. 광과민성 물질을 정맥주사한 후 암세포에 축척되면 일정 시간 후 암세포에 내시경을 이용해 630nm 혹은 663nm의 파장을 갖는 적색광을 조사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시키는 치료법이다. 광역학치료는 피부암, 자궁경부암, 췌담도암, 대장암, 식도암, 설암, 두경부암 등 다양한 치료영역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br/><br/> 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박도현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초음파 유도하의 내시경적 광역학치료에 의한 췌장암 환자에 대한 임상을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 ‘내시경검사(Endoscopy)’에 소개했다. 해당 논문에는 악성 종양환자에서 초음파 내시경과 광과민제 포토론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예비 결과가 포함됐다. 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84.txt

제목: 난소암 재발 환자 울리는 6개월의 덫  
날짜: 2015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248787  
본문: 난소암은 첫 번째 항암치료의 종료시점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언제 재발했는지에 따라 약제와 건강보험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몇 년 새 난소암에 대한 새로운 신약들이 나왔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백금 기반 항암요법으로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보험적용이 가능한 환자군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가령 아바스틴은 6개월 이내 재발한 난소암 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후 재발했다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엄격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유무가 결정되다보니 진료현장에서는 재발 시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저울질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한다.<br/> <br/> <br/>익명의 한 의사는 “재발을 판단하는 몇 가지 검사방법이 있는데, 각 검사가 보여주는 재발시점이 겹치지 않을 때도 있다. 그 재발시점이 모호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첫 항암치료 후 6개월 이내 재발한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적용을 받도록 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br/><br/> 난소암에서 유병기간 6개월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첫 치료 후 6개월 이후 재발한 환자들은 악성도가 높고 6개월 이전 재발한 환자들은 비교적 약제에 반응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개념이 수십년 전 설정된 개념이라 이를 토대로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보험적용 범주를 판단하는 것은 현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재원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난소암을 진료하는 세계 의사들이 모여 재발시점을 6개월로 정의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공통적으로 재발시점을 다시 설정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span>”고 말했다.<br/><br/> 임상적 또는 관습적으로 6개월 기준으로 재발시점을 나누는 것이 환자의 암치료 보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난소암 치료에 사용 중인 아바스틴은 다른 항암제와의 효능을 비교하는 임상시험에서 백금 기반 항암제 치료 후 6개월 미만 이내에 재발한 재발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br/><br/> 그 결과 아바스틴을 사용한 그룹에서 무진행생존기간 연장을 보였고, 임상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6개월 미만 에서 재발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습적으로 설정한 6개월이란 절대적 기간 때문에 동일한 치료효능을 볼 수 있는 비슷한 기간 내 재발한 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br/><br/> 김재원 교수는 “<span class='quot1'>25년 전 개념으로 임상시험을 설계하는 것은 추후 보험등재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6개월이란 임상적-관습적 재발 기간에 대한 변화 요구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존재한다</span>”며 “<span class='quot1'>향후 재발시점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 한편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난소암 환자들의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최근 나온 신약들은 생존기간 연장 측면에서 혁신적이지 않지만, 합병증 정도를 떨어뜨려 난소암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역시 문제는 약값이다. 6개월 이후 재발한 난소암 환자는 신약의 혜택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다.<br/><br/> 한 난소암 환자 가족은 “한 병실 안에서 누구는 저렴한 값으로 신약을 맞고 배에 물이 차지 않고 평온한 상태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지만 누구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어 앙상한 팔다리에 배에 복수만 찬 채 죽는 날을 기다린다. 극단적인 삶이 한 병실에 공존한다”며 재발시점에 따라 보험적용이 달라지는 의료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br/><br/> 25년 전 도출돼 관습적으로 사용돼 온 6개월이란 엄격한 재발시점이 난소암 환자들의 치료보장성 마저 발목잡고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em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85.txt

제목: 난소암 재발 환자 울리는 6개월의 덫  
날짜: 2015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06193841497  
본문: 난소암은 첫 번째 항암치료의 종료시점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언제 재발했는지에 따라 약제와 건강보험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몇 년 새 난소암에 대한 새로운 신약들이 나왔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백금 기반 항암요법으로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보험적용이 가능한 환자군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가령 아바스틴은 6개월 이내 재발한 난소암 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후 재발했다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엄격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유무가 결정되다보니 진료현장에서는 재발 시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저울질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한다.<br/> <br/> <br/>익명의 한 의사는 “재발을 판단하는 몇 가지 검사방법이 있는데, 각 검사가 보여주는 재발시점이 겹치지 않을 때도 있다. 그 재발시점이 모호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첫 항암치료 후 6개월 이내 재발한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적용을 받도록 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br/><br/> 난소암에서 유병기간 6개월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첫 치료 후 6개월 이후 재발한 환자들은 악성도가 높고 6개월 이전 재발한 환자들은 비교적 약제에 반응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개념이 수십년 전 설정된 개념이라 이를 토대로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보험적용 범주를 판단하는 것은 현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재원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난소암을 진료하는 세계 의사들이 모여 재발시점을 6개월로 정의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공통적으로 재발시점을 다시 설정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span>”고 말했다.<br/><br/> 임상적 또는 관습적으로 6개월 기준으로 재발시점을 나누는 것이 환자의 암치료 보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난소암 치료에 사용 중인 아바스틴은 다른 항암제와의 효능을 비교하는 임상시험에서 백금 기반 항암제 치료 후 6개월 미만 이내에 재발한 재발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br/><br/> 그 결과 아바스틴을 사용한 그룹에서 무진행생존기간 연장을 보였고, 임상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6개월 미만 에서 재발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습적으로 설정한 6개월이란 절대적 기간 때문에 동일한 치료효능을 볼 수 있는 비슷한 기간 내 재발한 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br/><br/> 김재원 교수는 “<span class='quot1'>25년 전 개념으로 임상시험을 설계하는 것은 추후 보험등재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6개월이란 임상적-관습적 재발 기간에 대한 변화 요구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존재한다</span>”며 “<span class='quot1'>향후 재발시점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 한편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난소암 환자들의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최근 나온 신약들은 생존기간 연장 측면에서 혁신적이지 않지만, 합병증 정도를 떨어뜨려 난소암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역시 문제는 약값이다. 6개월 이후 재발한 난소암 환자는 신약의 혜택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다.<br/><br/> 한 난소암 환자 가족은 “한 병실 안에서 누구는 저렴한 값으로 신약을 맞고 배에 물이 차지 않고 평온한 상태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지만 누구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어 앙상한 팔다리에 배에 복수만 찬 채 죽는 날을 기다린다. 극단적인 삶이 한 병실에 공존한다”며 재발시점에 따라 보험적용이 달라지는 의료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br/><br/> 25년 전 도출돼 관습적으로 사용돼 온 6개월이란 엄격한 재발시점이 난소암 환자들의 치료보장성 마저 발목잡고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em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86.txt

제목: [선물] 하나님 종의 아내, 예수 태어난 땅에 서다… 사모 27명이 받은 특별한 선물 ‘이스라엘 성지순례’  
날짜: 2015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205346  
본문: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목사는 목회를 통해 그 선물을 나눈다. 사모는 그의 돕는 배필이다. 그 사모에게 평생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부르심’(요 21:17)일 것이다. 전국 각지의 사모 스물일곱 명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라는 선물을 받았다. 이들은 성지 순례가 “올해 하나님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다. 사모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헌신과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종이 된 남편에게 순종했고, 하나님의 몸이 된 교회에 헌신했고, 하나님의 양된 성도들을 사랑했다. 목회하겠다는 남편을 울며불며 말린 이도 있었고, 남편을 목사로 만들었다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 자랑하겠다는 이도 있었다. 사모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다. 국민일보와 다비드투어(대표 이윤)가 공동 기획한 여행을 최근 기자가 동행했다.<br/><br/>“<span class='quot0'>은퇴 전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span>”<br/><br/>사모들이 주일 늦은 밤 인천공항에 모였다. 일행 중 최고 연장자인 박향순(70·부천 만평교회) 사모는 아이처럼 들뜬 얼굴이었다. “<span class='quot0'>목사님 저녁 밥 차려주고 얼른 챙겨서 왔어.</span>” 박 사모는 한참 연하인 기자가 편한지 말을 낮췄다. 대부분 초면이지만 사모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일행은 친숙감을 느끼는 듯했다.<br/><br/> 박 사모는 비행기를 탑승하는 시간까지 내내 혼잣말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처음 가는 해외여행지가 이스라엘인 게 얼마나 고마워.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목사님과 난 내년엔 은퇴하려고 해. 이번 순례가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야.”<br/><br/> 첫날 사모들은 1947년 구약사본이 처음 발견된 쿰란 동굴에 갔다. 바로 앞 사해(Dead Sea)에 몸을 담그기도 했다. 사모들은 몸에 점토를 바른 채 해변에 일렬로 서서 일명 ‘미스코리아’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다.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한 손을 들어 흔드는 것이다.<br/><br/> 신나게 찍는 중에도 “성도들이 보게 되면 민망한데” “목사님이 이건 하지 말라고 할 텐데”라고 걱정 아닌 걱정을 했다. 버스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어지는 와디켈트 계곡에 가는 길이었다. 현지 안내를 맡은 조형호 재이스라엘 한국문화원 목사는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황량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입니다”라고 했다.<br/><br/> 목회도 어쩌면 광야의 연속이다. 박 사모의 얘기다. “서른일곱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 우리 목사님이지. (웃음) 버스 토큰(Token) 하나가 없어 서울에서 부천까지 걸어 다닌 적도 있어. 지난해까지 성도가 스무 명쯤 됐는데 근처에 종말론 내세우는 큰 교회가 생겼어. 아이고, 거기로 다 빠져나가고 지금은 딱 다섯 명 남았네.” 그는 교회 자모실에서 잠을 자고 기도한다. 왜 그러냐고 묻자 “그게 편해”라고 했다.<br/><br/> 강원도 산골 사택 섬돌 위 ‘냉이 한줌’ 아직도 생생<br/><br/> 사모들은 순례 중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오순흥(49·원주 화평교회) 사모는 처음 남편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 거절했다. “사모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남편)이 ‘제 옆에만 있어주면 된다’고 해서 마음을 돌렸어요. 하지만 사모가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91년 강원도 정선에서 1시간 더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시골 임지로 갔다.<br/><br/>산골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어르신을 차로 모셔야 할 일이 많았다. 차 살 돈을 마련하기위해 도시 교회의 여름 수련회 신청을 받았다. “제가 밥을 해주고 청소를 했어요. 어느 여름 쉴 새 없이 일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더라고요. 한 성도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목사님은 제가 혹시 정말 물에 빠져죽은 건 아닌가 하고 어두워질 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찾으러 다니고….”<br/><br/> 사모는 쉴 새 없이 봉사해야 하는 자리였다. 순례 중 점심 도시락을 먹고 정리를 할 때다.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이 일어나 도시락을 정리하자 한 사모가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이상하네”라며 불편해했다. 늘 성도들보다 먼저 봉사하는 습관이 배어 있기 때문이었다.<br/><br/> 오 사모의 기억 한 토막. “강원도 교회 사택에 이사 갔을 때예요. 봄이었는데, 누군가 섬돌 위에 냉이 한줌을 올려놓고 갔더라고요. 어느 성도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겠죠? 얼마나 좋던지….” 어제 일인 양 그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아름다운 기억도 많아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커요.”<br/><br/> 김화자(69·성남 영광교회) 사모는 평생 시각장애인인 목회자 남편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고, 2년 전 남편이 소천했다. 김 사모는 “임종 직전 남편에게 ‘나 당신 참 사랑했어’라고 말하니 남편이 손을 펴면서 편히 눈을 감더라”며 눈물을 보였다. 지금도 그는 시각장애인 성도 10여명과 말씀을 나누며 교회를 지키고 있다.<br/><br/> “내가 암에 걸려 다행”이라 기도<br/><br/> 목회자의 딸인 조혜경(55·여수 여천은현교회) 사모는 신앙이 깊지 않던 남편을 결혼 후 목회자로 만들었다. “남편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뭐했냐고 물으시면 할 말 있어요. ‘하나님, 저는 남편을 목회자로 만들었어요’라고.”<br/><br/> 박호경(60·대구 갈보리은혜교회) 사모는 순례지 중 갈릴리의 베드로수위권 교회가 마음에 오래 남았다. “하나님이 목회자와 사모에게 명한 것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지를 다닐수록 드는 생각은 우리의 영원한 성지는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br/><br/> 전남의 ‘땅끝마을’에서 온 강미애(51·해남 함께하는교회) 사모는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 말씀을 전한 갈릴리 호숫가, 십자가에 매달린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걸었다. “<span class='quot0'>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span>” 강 사모는 99년부터 해남에서 목회를 해왔다.<br/><br/> “남편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바닷가에 아담한 집과 터가 마음에 들어 목회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디 가다가 마을에 교회 십자가가 안 보이면 ‘여기 교회가 들어오면 좋겠네’ 그러면서 다른 목회자에게 소개해주곤 했어요.” 함께하는교회는 성도 수가 많지 않은 시골 교회다. 강 사모는 학습지 교사로 생활비를 벌어 오다 2013년에 그만뒀다.<br/><br/> “사실 제가 그때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어요.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5년까진 안심할 수 없어요. 이번 여행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그는 김화연 인솔자의 자상한 안내에 따라 일주일간의 순례를 무사히 마쳤다.<br/><br/> “처음 암 진단 받고선 왜 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일주일쯤 지나니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만약 저희 남편이 걸리면 교회는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편이나 성도가 아니라 제가 병에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사모의 기도이다. 이 사모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큰 선물이 있을 것이다.<br/><br/>예루살렘·갈릴리(이스라엘)=글·사진 강주화 기자<br/><br/>rula@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87.txt

제목: [선물] 하나님 종의 아내, 예수 태어난 땅에 서다… 사모 27명이 받은 특별한 선물 ‘이스라엘 성지순례’  
날짜: 2015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04202944288  
본문: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목사는 목회를 통해 그 선물을 나눈다. 사모는 그의 돕는 배필이다. 그 사모에게 평생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부르심’(요 21:17)일 것이다. 전국 각지의 사모 스물일곱 명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라는 선물을 받았다. 이들은 성지 순례가 “올해 하나님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다. 사모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헌신과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종이 된 남편에게 순종했고, 하나님의 몸이 된 교회에 헌신했고, 하나님의 양된 성도들을 사랑했다. 목회하겠다는 남편을 울며불며 말린 이도 있었고, 남편을 목사로 만들었다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 자랑하겠다는 이도 있었다. 사모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다. 국민일보와 다비드투어(대표 이윤)가 공동 기획한 여행을 최근 기자가 동행했다.<br/><br/>“<span class='quot0'>은퇴 전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span>”<br/><br/>사모들이 주일 늦은 밤 인천공항에 모였다. 일행 중 최고 연장자인 박향순(70·부천 만평교회) 사모는 아이처럼 들뜬 얼굴이었다. “<span class='quot0'>목사님 저녁 밥 차려주고 얼른 챙겨서 왔어.</span>” 박 사모는 한참 연하인 기자가 편한지 말을 낮췄다. 대부분 초면이지만 사모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일행은 친숙감을 느끼는 듯했다.<br/><br/> 박 사모는 비행기를 탑승하는 시간까지 내내 혼잣말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처음 가는 해외여행지가 이스라엘인 게 얼마나 고마워.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목사님과 난 내년엔 은퇴하려고 해. 이번 순례가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야.”<br/><br/> 첫날 사모들은 1947년 구약사본이 처음 발견된 쿰란 동굴에 갔다. 바로 앞 사해(Dead Sea)에 몸을 담그기도 했다. 사모들은 몸에 점토를 바른 채 해변에 일렬로 서서 일명 ‘미스코리아’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다.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한 손을 들어 흔드는 것이다.<br/><br/> 신나게 찍는 중에도 “성도들이 보게 되면 민망한데” “목사님이 이건 하지 말라고 할 텐데”라고 걱정 아닌 걱정을 했다. 버스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어지는 와디켈트 계곡에 가는 길이었다. 현지 안내를 맡은 조형호 재이스라엘 한국문화원 목사는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황량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입니다”라고 했다.<br/><br/> 목회도 어쩌면 광야의 연속이다. 박 사모의 얘기다. “서른일곱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 우리 목사님이지. (웃음) 버스 토큰(Token) 하나가 없어 서울에서 부천까지 걸어 다닌 적도 있어. 지난해까지 성도가 스무 명쯤 됐는데 근처에 종말론 내세우는 큰 교회가 생겼어. 아이고, 거기로 다 빠져나가고 지금은 딱 다섯 명 남았네.” 그는 교회 자모실에서 잠을 자고 기도한다. 왜 그러냐고 묻자 “그게 편해”라고 했다.<br/><br/> 강원도 산골 사택 섬돌 위 ‘냉이 한줌’ 아직도 생생<br/><br/> 사모들은 순례 중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오순흥(49·원주 화평교회) 사모는 처음 남편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 거절했다. “사모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남편)이 ‘제 옆에만 있어주면 된다’고 해서 마음을 돌렸어요. 하지만 사모가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91년 강원도 정선에서 1시간 더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시골 임지로 갔다.<br/><br/>산골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어르신을 차로 모셔야 할 일이 많았다. 차 살 돈을 마련하기위해 도시 교회의 여름 수련회 신청을 받았다. “제가 밥을 해주고 청소를 했어요. 어느 여름 쉴 새 없이 일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더라고요. 한 성도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목사님은 제가 혹시 정말 물에 빠져죽은 건 아닌가 하고 어두워질 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찾으러 다니고….”<br/><br/> 사모는 쉴 새 없이 봉사해야 하는 자리였다. 순례 중 점심 도시락을 먹고 정리를 할 때다.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이 일어나 도시락을 정리하자 한 사모가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이상하네”라며 불편해했다. 늘 성도들보다 먼저 봉사하는 습관이 배어 있기 때문이었다.<br/><br/> 오 사모의 기억 한 토막. “강원도 교회 사택에 이사 갔을 때예요. 봄이었는데, 누군가 섬돌 위에 냉이 한줌을 올려놓고 갔더라고요. 어느 성도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겠죠? 얼마나 좋던지….” 어제 일인 양 그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아름다운 기억도 많아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커요.”<br/><br/> 김화자(69·성남 영광교회) 사모는 평생 시각장애인인 목회자 남편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고, 2년 전 남편이 소천했다. 김 사모는 “임종 직전 남편에게 ‘나 당신 참 사랑했어’라고 말하니 남편이 손을 펴면서 편히 눈을 감더라”며 눈물을 보였다. 지금도 그는 시각장애인 성도 10여명과 말씀을 나누며 교회를 지키고 있다.<br/><br/> “내가 암에 걸려 다행”이라 기도<br/><br/> 목회자의 딸인 조혜경(55·여수 여천은현교회) 사모는 신앙이 깊지 않던 남편을 결혼 후 목회자로 만들었다. “남편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뭐했냐고 물으시면 할 말 있어요. ‘하나님, 저는 남편을 목회자로 만들었어요’라고.”<br/><br/> 박호경(60·대구 갈보리은혜교회) 사모는 순례지 중 갈릴리의 베드로수위권 교회가 마음에 오래 남았다. “하나님이 목회자와 사모에게 명한 것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지를 다닐수록 드는 생각은 우리의 영원한 성지는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br/><br/> 전남의 ‘땅끝마을’에서 온 강미애(51·해남 함께하는교회) 사모는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 말씀을 전한 갈릴리 호숫가, 십자가에 매달린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걸었다. “<span class='quot0'>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span>” 강 사모는 99년부터 해남에서 목회를 해왔다.<br/><br/> “남편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바닷가에 아담한 집과 터가 마음에 들어 목회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디 가다가 마을에 교회 십자가가 안 보이면 ‘여기 교회가 들어오면 좋겠네’ 그러면서 다른 목회자에게 소개해주곤 했어요.” 함께하는교회는 성도 수가 많지 않은 시골 교회다. 강 사모는 학습지 교사로 생활비를 벌어 오다 2013년에 그만뒀다.<br/><br/> “사실 제가 그때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어요.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5년까진 안심할 수 없어요. 이번 여행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그는 김화연 인솔자의 자상한 안내에 따라 일주일간의 순례를 무사히 마쳤다.<br/><br/> “처음 암 진단 받고선 왜 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일주일쯤 지나니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만약 저희 남편이 걸리면 교회는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편이나 성도가 아니라 제가 병에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사모의 기도이다. 이 사모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큰 선물이 있을 것이다.<br/><br/>예루살렘·갈릴리(이스라엘)=글·사진 강주화 기자<br/><br/>rula@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88.txt

제목: [통계청 ‘2014년 생명표’]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2.4년… 10년 전보다 4.4년 늘어  
날짜: 20151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150012  
본문: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10년 전보다 4.4년 늘었다. 수도권의 기대수명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기대수명 중에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br/><br/>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4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각각 79.0년, 85.5년이다. 10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해 남성은 4.5년, 여성은 4.1년 증가했다. 생명표는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연령별로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를 정리한 표다. 보험회사들의 각종 보험금 지급 지표로 활용된다.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83.6년)과 경기(82.9년)의 기대수명이 길었다. 울산(81.3년)과 강원(81.4년)은 가장 짧게 나타났다.<br/><br/> 남녀 기대수명 차이는 6.5년으로 1985년 8.4년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하는 추세다. 그 이유에 대해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span class='quot0'>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간 질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간 질환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2년, 여성은 2.4년 길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남성의 경우 스위스(80.7년), 여성은 일본(86.6년)이다.<br/><br/> 그러나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유병(有柄) 기간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생아가 기대수명 중 유병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남성 14.1년, 여성 19.6년으로 나타났다. 남녀 평균 유병기간은 17년이다. 2년 전에 비해 1.6년 늘었다. 기대수명보다 유병 기간이 더 빠르게 늘어나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2년 전보다 0.6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br/><br/>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태어난 아이도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이 높았다. 암으로 인한 사망 확률은 남성의 경우 28.4%로 전년보다 0.3% 포인트 늘었고, 여성 역시 전년보다 0.3% 포인트 늘어난 16.9%였다.<br/><br/>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89.txt

제목: [통계청 ‘2014년 생명표’]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2.4년… 10년 전보다 4.4년 늘어  
날짜: 20151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03211845069  
본문: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10년 전보다 4.4년 늘었다. 수도권의 기대수명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기대수명 중에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br/><br/>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4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각각 79.0년, 85.5년이다. 10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해 남성은 4.5년, 여성은 4.1년 증가했다. 생명표는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연령별로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를 정리한 표다. 보험회사들의 각종 보험금 지급 지표로 활용된다.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83.6년)과 경기(82.9년)의 기대수명이 길었다. 울산(81.3년)과 강원(81.4년)은 가장 짧게 나타났다.<br/><br/> 남녀 기대수명 차이는 6.5년으로 1985년 8.4년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하는 추세다. 그 이유에 대해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span class='quot0'>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간 질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간 질환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2년, 여성은 2.4년 길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남성의 경우 스위스(80.7년), 여성은 일본(86.6년)이다.<br/><br/> 그러나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유병(有柄) 기간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생아가 기대수명 중 유병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남성 14.1년, 여성 19.6년으로 나타났다. 남녀 평균 유병기간은 17년이다. 2년 전에 비해 1.6년 늘었다. 기대수명보다 유병 기간이 더 빠르게 늘어나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2년 전보다 0.6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br/><br/>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태어난 아이도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이 높았다. 암으로 인한 사망 확률은 남성의 경우 28.4%로 전년보다 0.3% 포인트 늘었고, 여성 역시 전년보다 0.3% 포인트 늘어난 16.9%였다.<br/><br/>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90.txt

제목: [세상만사-민태원] ‘재활 유목민’ 방치할 건가  
날짜: 20151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03181130230  
본문: 얼마 전 지인의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50대 초반인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언어와 신체 재활치료를 받는데, 병원 측 요구로 6주 만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는 것. 그런데 옮긴 병원에서도 한 달 남짓 만에 퇴원을 종용해 지금 세 번째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br/><br/> 아내는 남편이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조기에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도 한 곳에서 집중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분노했다. 거기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고 간병인을 다시 구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소연했다.<br/><br/> 지인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뇌졸중이나 교통사고, 외상 등으로 장애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적 있는 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봤을 일이다. 이로 인해 ‘재활 유목민’이나 ‘재활 난민’이란 말이 생겨났다. <br/><br/> 현행 건강보험 심사기준은 대학병원에서 수술 등 급성기 치료를 받고 1∼2개월 지나면 퇴원해야 한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수가(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주는 진료 대가)를 깎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 환자를 내몰 수밖에 없다. <br/><br/> 정부는 과도한 진료비 청구를 막아 의료비를 아끼려 하지만 결국 환자가 ‘유목민’처럼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면서 의료비를 더 많이 쓰게 만든다. 최근엔 환자가 퇴원을 거부해 병원과 소송을 벌이는 일까지 빈발하고 있다.<br/><br/> 이런 ‘유랑 환자’의 최종 기착지는 요양병원이다. 하지만 장기간 요양 및 치료를 추구하는 요양병원 특성상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 때문에 ‘아급성기’(급성기와 만성기 사이 회복단계) 재활치료를 전담할 ‘재활병원’이 절실한 실정이다.<br/><br/> 현재 우리나라에는 10곳의 재활전문병원과 6곳의 권역별 재활병원이 있으나 250만명에 달하는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맡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낮은 건강보험 수가와 무원칙한 진료비 삭감 등으로 대형병원은 ‘돈 안 되는’ 재활의학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은 전국에 4곳밖에 없다. 일본이 202곳, 독일 180곳, 미국 40곳에 이르는 것과 비교된다. 이로 인해 국내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장애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전국을 ‘난민’처럼 떠돌고 있다. 어렵사리 재활치료시설을 찾아도 최소 수개월에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한 병원에서 1∼2개월 치료하면 또 다른 병원을 찾아 떠나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br/><br/> 이 같은 난맥상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법에 ‘재활 의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전달 체계는 병상 규모에 따라 1-2-3차 의료기관으로 나뉘어 있다.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분류돼 있다. 요양병원 조항에 ‘의료재활시설’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에 전담 부서도 없다. <br/><br/> 전문가들은 질병의 기능적 상태에 따라 ‘급성기-아급성기-만성기’로 의료전달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향후 인구 고령화로 증가할 신경계·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암, 심장·폐질환의 급성기 치료 후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의 사회적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우리보다 10년 일찍 시작된 일본은 벌써부터 이렇게 바꿨다. <br/><br/>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은 긍정적이다. 보건당국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때다. 민태원 사회부 차장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91.txt

제목: [세상만사-민태원] ‘재활 유목민’ 방치할 건가  
날짜: 20151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115380  
본문: 얼마 전 지인의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50대 초반인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언어와 신체 재활치료를 받는데, 병원 측 요구로 6주 만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는 것. 그런데 옮긴 병원에서도 한 달 남짓 만에 퇴원을 종용해 지금 세 번째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br/><br/> 아내는 남편이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조기에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도 한 곳에서 집중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분노했다. 거기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고 간병인을 다시 구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소연했다.<br/><br/> 지인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뇌졸중이나 교통사고, 외상 등으로 장애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적 있는 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봤을 일이다. 이로 인해 ‘재활 유목민’이나 ‘재활 난민’이란 말이 생겨났다. <br/><br/> 현행 건강보험 심사기준은 대학병원에서 수술 등 급성기 치료를 받고 1∼2개월 지나면 퇴원해야 한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수가(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주는 진료 대가)를 깎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 환자를 내몰 수밖에 없다. <br/><br/> 정부는 과도한 진료비 청구를 막아 의료비를 아끼려 하지만 결국 환자가 ‘유목민’처럼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면서 의료비를 더 많이 쓰게 만든다. 최근엔 환자가 퇴원을 거부해 병원과 소송을 벌이는 일까지 빈발하고 있다.<br/><br/> 이런 ‘유랑 환자’의 최종 기착지는 요양병원이다. 하지만 장기간 요양 및 치료를 추구하는 요양병원 특성상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 때문에 ‘아급성기’(급성기와 만성기 사이 회복단계) 재활치료를 전담할 ‘재활병원’이 절실한 실정이다.<br/><br/> 현재 우리나라에는 10곳의 재활전문병원과 6곳의 권역별 재활병원이 있으나 250만명에 달하는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맡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낮은 건강보험 수가와 무원칙한 진료비 삭감 등으로 대형병원은 ‘돈 안 되는’ 재활의학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은 전국에 4곳밖에 없다. 일본이 202곳, 독일 180곳, 미국 40곳에 이르는 것과 비교된다. 이로 인해 국내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장애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전국을 ‘난민’처럼 떠돌고 있다. 어렵사리 재활치료시설을 찾아도 최소 수개월에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한 병원에서 1∼2개월 치료하면 또 다른 병원을 찾아 떠나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br/><br/> 이 같은 난맥상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법에 ‘재활 의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전달 체계는 병상 규모에 따라 1-2-3차 의료기관으로 나뉘어 있다.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분류돼 있다. 요양병원 조항에 ‘의료재활시설’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에 전담 부서도 없다. <br/><br/> 전문가들은 질병의 기능적 상태에 따라 ‘급성기-아급성기-만성기’로 의료전달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향후 인구 고령화로 증가할 신경계·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암, 심장·폐질환의 급성기 치료 후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의 사회적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우리보다 10년 일찍 시작된 일본은 벌써부터 이렇게 바꿨다. <br/><br/>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은 긍정적이다. 보건당국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때다. 민태원 사회부 차장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92.txt

제목: 백세건강연구소 김서곤 이사장 “건강에 좋은 수소수… 수소샘으로 간편하게 드세요”  
날짜: 2015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004629  
본문: 건강관련 제품은 물론 각종 기능성 물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수소수(水素水)는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이미 일본 음료시장에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인기 상품 중 하나다. <br/><br/> 이처럼 수소수의 탁월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끌며 판매되고 있는 수소수 생성기 ‘수소샘’의 인기가 높다. <br/><br/> ‘수소샘’은 수소(H2)가 환원제, 즉 강력한 항산화제인점에 착안, 이를 상시 음용함으로써 몸 안의 활성(독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특허품으로 백세건강연구소 김서곤(76) 이사장과 소장 임동수(58)박사가 만들었다. <br/><br/> 김 이사장은 42년간 의료기기에만 매달려 연구해 온 한국 의료기 시장의 산 증인으로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공로로 대통령 포장 동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가 운영하는 ㈜솔고는 아태지역 최우수헬스케어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br/><br/> 수소수 제품개발에 앞장선 소장 임동수(58) 박사는 “<span class='quot0'>가장 이상적인 항산화 물질 농도를 가진 수소수를 생성하는 기계를 만들어 내는데 집중했다</span>”고 말한다. 임 소장은 서울대와 KAIST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애크론(Akron)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고분자공학)를 받았다.<br/><br/> 김 이사장과 임 박사가 개발한 수소수 생성기 ‘수소샘’은 가벼워서 잘 날아가는 성질의 수소를 장시간 녹이기 위해 6중 티타늄백금을 이용한 전기분해 시스템으로 잘게 쪼개진 수소 분자를 물 분자 사이에 용존시키는 기술을 담은 제품이다. <br/><br/> 이 분야에서만 13개 특허출원을 이룬 임 박사는 “<span class='quot1'>최대 용존 수소량이 1,200ppb 이상, 용존 기간이 3일, 고온에서도 수소가 용존되는 기술은 국내는 물론 해외업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br/> 버튼 조작만으로 수소수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한 기기 ‘수소샘’은 정수나 생수를 생성기에 넣으면 간편하게 수소수가 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다 음용수 뿐 아니라 요리와 세정 등에도 적절히 사용해 항산화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br/><br/> 성인 평균 하루 1.5∼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으나 이만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유해산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해주는 수소수 음용이야말로 충분한 수분도 섭취하고 건강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br/><br/> 수소수를 음용해 건강에 도움을 얻은 체험사례가 많다. 김만철 씨(71세)는 “<span class='quot2'>수소수 음용 후 혈압약과 전립선약을 모두 끊을 수 있었다</span>”고 했고, 극심한 당뇨로 고생했다는 엄순자 씨(74세)는 “<span class='quot2'>수소수를 하루 1.2L씩 마시니 얼굴의 검버섯이 엷어지고 혈당수치도 200에서 110으로 떨어졌다</span>”고 했다. 이밖에 수소수 장기음용으로 치매, 불면증, 비염 및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과 암, 고지혈증, 탈모, 변비 등의 증상에 효과를 얻은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br/><br/> 수소수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부작용이 없고 몸에 유익하다고 전하는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3'>수소수 체험사례를 살펴보면 당뇨와 혈압 등 만성병에 높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물만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점이 수소샘 기기가 내세우는 제일 큰 장점</span>”이라고 밝혔다.<br/><br/> 김 이사장은 수소수의 이 신기한 효능을 알리기 위해 임동수 박사와 공저로 『백세건강 수소수가 답이다』(상상나무)를 출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책에는 수소수가 어떻게 인체에 유익한지 항산화작용의 이론과 원리, 수소수 생성기의 활용도가 담겨 있다.<br/><br/> 독실한 크리스천인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3'>지구촌 모든 인류가 건강해져 장수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여긴다</span>”고 전했다. (1522-4547,www.sspark24.com)<br/><br/>김무정 선임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93.txt

제목: 백세건강연구소 김서곤 이사장 “건강에 좋은 수소수… 수소샘으로 간편하게 드세요”  
날짜: 2015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02182136737  
본문: 건강관련 제품은 물론 각종 기능성 물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수소수(水素水)는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이미 일본 음료시장에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인기 상품 중 하나다. <br/><br/> 이처럼 수소수의 탁월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끌며 판매되고 있는 수소수 생성기 ‘수소샘’의 인기가 높다. <br/><br/> ‘수소샘’은 수소(H2)가 환원제, 즉 강력한 항산화제인점에 착안, 이를 상시 음용함으로써 몸 안의 활성(독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특허품으로 백세건강연구소 김서곤(76) 이사장과 소장 임동수(58)박사가 만들었다. <br/><br/> 김 이사장은 42년간 의료기기에만 매달려 연구해 온 한국 의료기 시장의 산 증인으로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공로로 대통령 포장 동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가 운영하는 ㈜솔고는 아태지역 최우수헬스케어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br/><br/> 수소수 제품개발에 앞장선 소장 임동수(58) 박사는 “<span class='quot0'>가장 이상적인 항산화 물질 농도를 가진 수소수를 생성하는 기계를 만들어 내는데 집중했다</span>”고 말한다. 임 소장은 서울대와 KAIST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애크론(Akron)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고분자공학)를 받았다.<br/><br/> 김 이사장과 임 박사가 개발한 수소수 생성기 ‘수소샘’은 가벼워서 잘 날아가는 성질의 수소를 장시간 녹이기 위해 6중 티타늄백금을 이용한 전기분해 시스템으로 잘게 쪼개진 수소 분자를 물 분자 사이에 용존시키는 기술을 담은 제품이다. <br/><br/> 이 분야에서만 13개 특허출원을 이룬 임 박사는 “<span class='quot1'>최대 용존 수소량이 1,200ppb 이상, 용존 기간이 3일, 고온에서도 수소가 용존되는 기술은 국내는 물론 해외업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br/> 버튼 조작만으로 수소수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한 기기 ‘수소샘’은 정수나 생수를 생성기에 넣으면 간편하게 수소수가 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다 음용수 뿐 아니라 요리와 세정 등에도 적절히 사용해 항산화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br/><br/> 성인 평균 하루 1.5∼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으나 이만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유해산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해주는 수소수 음용이야말로 충분한 수분도 섭취하고 건강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br/><br/> 수소수를 음용해 건강에 도움을 얻은 체험사례가 많다. 김만철 씨(71세)는 “<span class='quot2'>수소수 음용 후 혈압약과 전립선약을 모두 끊을 수 있었다</span>”고 했고, 극심한 당뇨로 고생했다는 엄순자 씨(74세)는 “<span class='quot2'>수소수를 하루 1.2L씩 마시니 얼굴의 검버섯이 엷어지고 혈당수치도 200에서 110으로 떨어졌다</span>”고 했다. 이밖에 수소수 장기음용으로 치매, 불면증, 비염 및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과 암, 고지혈증, 탈모, 변비 등의 증상에 효과를 얻은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br/><br/> 수소수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부작용이 없고 몸에 유익하다고 전하는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3'>수소수 체험사례를 살펴보면 당뇨와 혈압 등 만성병에 높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물만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점이 수소샘 기기가 내세우는 제일 큰 장점</span>”이라고 밝혔다.<br/><br/> 김 이사장은 수소수의 이 신기한 효능을 알리기 위해 임동수 박사와 공저로 『백세건강 수소수가 답이다』(상상나무)를 출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책에는 수소수가 어떻게 인체에 유익한지 항산화작용의 이론과 원리, 수소수 생성기의 활용도가 담겨 있다.<br/><br/> 독실한 크리스천인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3'>지구촌 모든 인류가 건강해져 장수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여긴다</span>”고 전했다. (1522-4547,www.sspark24.com)<br/><br/>김무정 선임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94.txt

제목: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약관 해석 제각각… 점점 악화되는 암보험 분쟁  
날짜: 2015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01192317541  
본문: 1998년 2월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8월 후두암 진단을 받고 1차 수술을 받았다. 재수술이 필요해 2∼3차례 추가 수술을 받고 암 수술비 및 입원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추가로 받은 수술이 ‘암의 직접적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일부만 주겠다고 했다. A씨처럼 암 보험에 들고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br/><br/>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암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92.5%(208건)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금을 지나치게 적게 주는 경우가 157건, 보험금 지급을 아예 거부한 경우도 51건이나 됐다. 암 종류별로는 유방암 관련 피해가 30.2%(68건)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14.2%(32건), 갑상샘암 13.3%(30건), 위암 8.9%(20건) 순이었다.<br/><br/> 암 입원비와 수술비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보험사가 암 보험 약관 지급기준표에 표시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을 좁게 해석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암 보험 가입자들은 이 조항을 ‘암과 관련된 수술이나 입원’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와 가입자의 해석이 달라 분쟁에 돌입하더라도 가입자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31.8%에 불과했다. 특히 생명보험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이 30.0%로 가장 낮았다. 손해보험은 35.7%, 공제 44.4%였다. 소비자원은 금융 당국에 암 입원비 지급 범위에 종양 치료나 제거를 위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말기암 환자 치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좀 더 명확한 암 보험 표준약관 신설을 건의하기로 했다.<br/><br/>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95.txt

제목: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약관 해석 제각각… 점점 악화되는 암보험 분쟁  
날짜: 2015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0906277  
본문: 1998년 2월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8월 후두암 진단을 받고 1차 수술을 받았다. 재수술이 필요해 2∼3차례 추가 수술을 받고 암 수술비 및 입원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추가로 받은 수술이 ‘암의 직접적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일부만 주겠다고 했다. A씨처럼 암 보험에 들고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br/><br/>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암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92.5%(208건)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금을 지나치게 적게 주는 경우가 157건, 보험금 지급을 아예 거부한 경우도 51건이나 됐다. 암 종류별로는 유방암 관련 피해가 30.2%(68건)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14.2%(32건), 갑상샘암 13.3%(30건), 위암 8.9%(20건) 순이었다.<br/><br/> 암 입원비와 수술비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보험사가 암 보험 약관 지급기준표에 표시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을 좁게 해석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암 보험 가입자들은 이 조항을 ‘암과 관련된 수술이나 입원’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와 가입자의 해석이 달라 분쟁에 돌입하더라도 가입자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31.8%에 불과했다. 특히 생명보험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이 30.0%로 가장 낮았다. 손해보험은 35.7%, 공제 44.4%였다. 소비자원은 금융 당국에 암 입원비 지급 범위에 종양 치료나 제거를 위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말기암 환자 치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좀 더 명확한 암 보험 표준약관 신설을 건의하기로 했다.<br/><br/>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96.txt

제목: 대장암, 내시경 하나로 진단·치료한다… IBS 김대형·최승홍 연구위원팀  
날짜: 2015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130214713739  
본문: 국내 연구진이 내시경 하나로 대장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다.<br/><br/>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연구단 김대형 최승홍 연구위원팀은 첨단 신소재 ‘그래핀’과 나노입자 기술을 접목해 대장암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다기능 대장 내시경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됐다.<br/><br/> 전체 암 중 발병률이 세 번째로 높은 대장암은 보통 내시경으로 검진한다. 하지만 확진까지 추가 (조직)검사가 필요하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작은 종양은 제때 발견하기가 어렵다. 연구진은 내시경 전면에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하는 센서를 갖춘 투명한 그래핀 복합체를 붙여 별도 조직검사를 할 필요가 없게 했다. 또 암세포에만 결합하는 나노치료입자를 정맥주사로 주입한 뒤 내시경에 달린 광원을 통해 빛을 쪼이면 암세포를 파괴하고 빛에 반응한 나노치료입자는 항암 약물을 동시에 풀어 치료하게 했다. 쥐 실험을 통해 이 내시경 장비의 효과를 확인했다.<br/><br/> 김대형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그래핀과 나노입자를 동시에 의료기기에 적용하기는 처음</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향후 임상시험을 거쳐 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질병 진단·치료에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97.txt

제목: 대장암, 내시경 하나로 진단·치료한다… IBS 김대형·최승홍 연구위원팀  
날짜: 2015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0834801  
본문: 국내 연구진이 내시경 하나로 대장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다.<br/><br/>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연구단 김대형 최승홍 연구위원팀은 첨단 신소재 ‘그래핀’과 나노입자 기술을 접목해 대장암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다기능 대장 내시경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됐다.<br/><br/> 전체 암 중 발병률이 세 번째로 높은 대장암은 보통 내시경으로 검진한다. 하지만 확진까지 추가 (조직)검사가 필요하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작은 종양은 제때 발견하기가 어렵다. 연구진은 내시경 전면에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하는 센서를 갖춘 투명한 그래핀 복합체를 붙여 별도 조직검사를 할 필요가 없게 했다. 또 암세포에만 결합하는 나노치료입자를 정맥주사로 주입한 뒤 내시경에 달린 광원을 통해 빛을 쪼이면 암세포를 파괴하고 빛에 반응한 나노치료입자는 항암 약물을 동시에 풀어 치료하게 했다. 쥐 실험을 통해 이 내시경 장비의 효과를 확인했다.<br/><br/> 김대형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그래핀과 나노입자를 동시에 의료기기에 적용하기는 처음</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향후 임상시험을 거쳐 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질병 진단·치료에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98.txt

제목: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필요하다는데… ‘호스피스 법안’ 물건너가나  
날짜: 2015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0825910  
본문: ‘웰다잉’(존엄한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렵게 됐다. 국민 10명 중 9명은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의 우선순위에서는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br/><b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넣었다. 최근 복지위 최대 쟁점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의료 해외진출사업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적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아 정부와 여당이 매우 적극적이다.<br/><br/>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에 밀려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올라갔으나 다른 법안에 순서가 밀렸다.<br/><br/>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결정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은 현재 말기 암환자에게 적용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모든 말기 환자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br/><br/> 국회 전문위원실은 이 법안들을 검토하고 종합해 통과될 수 있는 ‘대안’까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이를 채택할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최초의 독자적 법률이 된다. 지금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 관리법의 일부 조항에서 다뤄왔다.<br/><br/>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이를 논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복지위는 1일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법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복지위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이후에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쌓인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다음 임시국회가 총선을 두 달 앞둔 내년 2월이어서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기 어려우리란 관측이 많다. 최근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95.5%나 됐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99.txt

제목: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필요하다는데… ‘호스피스 법안’ 물건너가나  
날짜: 2015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130213449877  
본문: ‘웰다잉’(존엄한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렵게 됐다. 국민 10명 중 9명은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의 우선순위에서는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br/><b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넣었다. 최근 복지위 최대 쟁점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의료 해외진출사업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적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아 정부와 여당이 매우 적극적이다.<br/><br/>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에 밀려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올라갔으나 다른 법안에 순서가 밀렸다.<br/><br/>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결정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은 현재 말기 암환자에게 적용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모든 말기 환자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br/><br/> 국회 전문위원실은 이 법안들을 검토하고 종합해 통과될 수 있는 ‘대안’까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이를 채택할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최초의 독자적 법률이 된다. 지금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 관리법의 일부 조항에서 다뤄왔다.<br/><br/>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이를 논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복지위는 1일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법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복지위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이후에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쌓인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다음 임시국회가 총선을 두 달 앞둔 내년 2월이어서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기 어려우리란 관측이 많다. 최근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95.5%나 됐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00.txt

제목: [헬스 파일] 성인 ADHD 예방법  
날짜: 2015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130202413345  
본문: 성인 ADHD는 아동기에 시작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어린 시절 부주의하거나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을 병적으로 여기지 않고 크면 좋아질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방치한 것이 원인이다.<br/><br/> 성인 ADHD는 직장인의 경우 화를 잘 참지 못해 지적받거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 실수가 잦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다. 성인기에 나타나는 ADHD는 매사 자기중심적인데다 충동적인 성향을 보여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동기 때와 다른 양상이다. 모임이나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고 어떤 일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행동이 잦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한번쯤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br/><br/> 성인 ADHD 환자는 뇌기능검사를 해보면 자율신경계의 조절능력이 저하돼 있는 경우가 많다. 좌우 뇌가 고르게 발달되지 않은 것이 자율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친 탓이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으로 나뉘는데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교감신경계가 일반인보다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감 신경이 흥분되면 불안, 초조, 불면, 주의력 결핍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br/><br/> 자율신경으로 이어진 대장과 뇌는 항상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다. 뇌가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 분비가 중요하다. 세로토닌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다. <br/><br/> 이 호르몬의 95%는 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려면 무엇보다 음식물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몸에 흡수되면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트립토판 함유 식품이 좋다. 트립토판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붉은 살 생선, 콩, 바나나 등에 많이 들어있다. <br/><br/> 최근 세계보건기구(WTO)가 붉은 고기가 암을 일으킨다고 보도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고기를 무조건 안 좋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요한 것은 편식 및 과식을 삼가고 채소와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다. <br/><br/> 성인 ADHD 질환을 예방하려면 좌우 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균형 있는 뇌기능 발달을 위해선 가급적 유제품 섭취를 줄이고 고기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좋다.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의 대부분이 장에서 생성되는 만큼 평상 시 장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이상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개선해야 한다. <br/><br/>변기원 변한의원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01.txt

제목: [헬스 파일] 성인 ADHD 예방법  
날짜: 2015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0753533  
본문: 성인 ADHD는 아동기에 시작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어린 시절 부주의하거나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을 병적으로 여기지 않고 크면 좋아질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방치한 것이 원인이다.<br/><br/> 성인 ADHD는 직장인의 경우 화를 잘 참지 못해 지적받거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 실수가 잦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다. 성인기에 나타나는 ADHD는 매사 자기중심적인데다 충동적인 성향을 보여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동기 때와 다른 양상이다. 모임이나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고 어떤 일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행동이 잦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한번쯤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br/><br/> 성인 ADHD 환자는 뇌기능검사를 해보면 자율신경계의 조절능력이 저하돼 있는 경우가 많다. 좌우 뇌가 고르게 발달되지 않은 것이 자율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친 탓이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으로 나뉘는데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교감신경계가 일반인보다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감 신경이 흥분되면 불안, 초조, 불면, 주의력 결핍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br/><br/> 자율신경으로 이어진 대장과 뇌는 항상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다. 뇌가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 분비가 중요하다. 세로토닌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다. <br/><br/> 이 호르몬의 95%는 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려면 무엇보다 음식물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몸에 흡수되면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트립토판 함유 식품이 좋다. 트립토판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붉은 살 생선, 콩, 바나나 등에 많이 들어있다. <br/><br/> 최근 세계보건기구(WTO)가 붉은 고기가 암을 일으킨다고 보도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고기를 무조건 안 좋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요한 것은 편식 및 과식을 삼가고 채소와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다. <br/><br/> 성인 ADHD 질환을 예방하려면 좌우 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균형 있는 뇌기능 발달을 위해선 가급적 유제품 섭취를 줄이고 고기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좋다.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의 대부분이 장에서 생성되는 만큼 평상 시 장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이상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개선해야 한다. <br/><br/>변기원 변한의원 원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02.txt

제목: ‘침묵의 살인자’ 무증상 당뇨합병증을 잡아라… 학회 ‘주의 대상 1000만명’ 경고  
날짜: 2015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130202433693  
본문: 2008년 11월 건강검진 중 우연히 알게 된 고혈당으로 처음 병원을 찾은 김모(51)씨. 의사가 스스로 혈당을 관리하고 당뇨망막증 등 합병증 치료도 받으라고 했지만 김씨는 한 달 만에 치료를 그만두었다. 일상생활 중 큰 불편함이 없고 통원 치료가 번거롭다는 이유에서다. <br/><br/> 그로부터 꼭 7년이 지난 현재, 그는 극심한 고혈당으로 내분비내과를 다시 다니는 중이다. 검사결과 공복혈당 수치가 300㎎/㎗이 넘고 당화혈색소 비중도 13.6%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br/><br/>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수치가 100㎎/㎗이 넘으면 비정상(공복혈당장애)으로 간주된다. 당분을 많이 함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정도를 말하는 당화혈색소 수치는 6% 미만이 정상이다.<br/><br/> 당뇨합병증으로 눈이 멀고 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과 콩팥 질환을 합병,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br/><br/> 대한당뇨병학회는 최근 발표한 ‘2015 한국인의 당뇨병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당뇨 환자 수가 2014년 기준 320만 명으로 추산되고 당뇨 전 단계로 불리는 공복혈당장애자도 65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br/><br/> 장차 치명적인 당뇨합병증을 경계해야 될 계층이 무려 1000만 명이나 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다. 의료계가 급속한 식생활의 서구화와 더불어 우려해온 ‘당뇨대란’의 재앙이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다.<br/><br/> 실제로 당뇨병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한국인 사망원인 4위에 올라있다. 10여 년 전 10위권에서 수직상승한 것인데, 지난 한 해만도 1만1242명이 당뇨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당뇨망막증에 의한 실명원인 1위, 교통사고를 제외한 족부절단 위험 1위, 신장이식을 필요로 하는 만성신부전 유발 위험 1위라는 불명예가 붙어있기도 하다.<br/><br/>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소화과정을 거쳐 핏속의 혈당으로 전환돼 조직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혈액 속에 과잉으로 남아있는 고(高)혈당은 일종의 가시돌기 역할을 한다. 피돌기를 따라 전신을 돌며 혈관내벽을 갉아먹고 장기조직에도 위해를 가한다. 말초신경도 손상시킨다.<br/><br/>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전숙 교수는 “발가락 괴사부터 머릿속의 뇌졸중까지, 또 심장부터 신장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을 소리 없이 해칠 수 있는 침묵의 살인자가 바로 당뇨병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당뇨 환자 중 38%는 아직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br/><br/> 당뇨 합병증에는 혈당의 급격한 변화로 생명과 직결되는 급성 합병증과 장기간 고혈당 상태로 발생하는 만성 합병증이 있다. 대표적으로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장혈관질환, 중풍과 같은 뇌혈관질환, 망막증, 신장병, 신경병증 등이 꼽힌다.<br/><br/> 당뇨 합병증은 일단 발생하면 완치가 쉽지 않다. 따라서 예방이 최선이다.<br/><br/> 당뇨 합병증 발생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약물, 식사, 운동 등 3대 치료법을 통한 철저한 혈당조절 및 관리가 중요하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질환도 적극 관리해야 한다. 철저한 금연생활도 요구된다.<br/><br/> 더불어 평소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 관상동맥질환과 눈, 콩팥, 신경계 등에 이상이 없는지 선별검사를 받는 게 좋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는 “<span class='quot0'>초기엔 대부분 큰 이상을 못 느끼기 때문에 혈당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당뇨 합병증 발생을 막는 길은 조기발견 및 정기검사를 통한 철저한 혈당관리뿐이라는 사실</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03.txt

제목: ‘침묵의 살인자’ 무증상 당뇨합병증을 잡아라… 학회 ‘주의 대상 1000만명’ 경고  
날짜: 2015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0750472  
본문: 2008년 11월 건강검진 중 우연히 알게 된 고혈당으로 처음 병원을 찾은 김모(51)씨. 의사가 스스로 혈당을 관리하고 당뇨망막증 등 합병증 치료도 받으라고 했지만 김씨는 한 달 만에 치료를 그만두었다. 일상생활 중 큰 불편함이 없고 통원 치료가 번거롭다는 이유에서다. <br/><br/> 그로부터 꼭 7년이 지난 현재, 그는 극심한 고혈당으로 내분비내과를 다시 다니는 중이다. 검사결과 공복혈당 수치가 300㎎/㎗이 넘고 당화혈색소 비중도 13.6%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br/><br/>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수치가 100㎎/㎗이 넘으면 비정상(공복혈당장애)으로 간주된다. 당분을 많이 함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정도를 말하는 당화혈색소 수치는 6% 미만이 정상이다.<br/><br/> 당뇨합병증으로 눈이 멀고 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과 콩팥 질환을 합병,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br/><br/> 대한당뇨병학회는 최근 발표한 ‘2015 한국인의 당뇨병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당뇨 환자 수가 2014년 기준 320만 명으로 추산되고 당뇨 전 단계로 불리는 공복혈당장애자도 65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br/><br/> 장차 치명적인 당뇨합병증을 경계해야 될 계층이 무려 1000만 명이나 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다. 의료계가 급속한 식생활의 서구화와 더불어 우려해온 ‘당뇨대란’의 재앙이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다.<br/><br/> 실제로 당뇨병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한국인 사망원인 4위에 올라있다. 10여 년 전 10위권에서 수직상승한 것인데, 지난 한 해만도 1만1242명이 당뇨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당뇨망막증에 의한 실명원인 1위, 교통사고를 제외한 족부절단 위험 1위, 신장이식을 필요로 하는 만성신부전 유발 위험 1위라는 불명예가 붙어있기도 하다.<br/><br/>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소화과정을 거쳐 핏속의 혈당으로 전환돼 조직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혈액 속에 과잉으로 남아있는 고(高)혈당은 일종의 가시돌기 역할을 한다. 피돌기를 따라 전신을 돌며 혈관내벽을 갉아먹고 장기조직에도 위해를 가한다. 말초신경도 손상시킨다.<br/><br/>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전숙 교수는 “발가락 괴사부터 머릿속의 뇌졸중까지, 또 심장부터 신장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을 소리 없이 해칠 수 있는 침묵의 살인자가 바로 당뇨병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당뇨 환자 중 38%는 아직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br/><br/> 당뇨 합병증에는 혈당의 급격한 변화로 생명과 직결되는 급성 합병증과 장기간 고혈당 상태로 발생하는 만성 합병증이 있다. 대표적으로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장혈관질환, 중풍과 같은 뇌혈관질환, 망막증, 신장병, 신경병증 등이 꼽힌다.<br/><br/> 당뇨 합병증은 일단 발생하면 완치가 쉽지 않다. 따라서 예방이 최선이다.<br/><br/> 당뇨 합병증 발생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약물, 식사, 운동 등 3대 치료법을 통한 철저한 혈당조절 및 관리가 중요하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질환도 적극 관리해야 한다. 철저한 금연생활도 요구된다.<br/><br/> 더불어 평소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 관상동맥질환과 눈, 콩팥, 신경계 등에 이상이 없는지 선별검사를 받는 게 좋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는 “<span class='quot0'>초기엔 대부분 큰 이상을 못 느끼기 때문에 혈당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당뇨 합병증 발생을 막는 길은 조기발견 및 정기검사를 통한 철저한 혈당관리뿐이라는 사실</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04.txt

제목: [힐링노트-박강월] 나의 수호천사 이야기(1)  
날짜: 20151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0625112  
본문: 수술 이후 투병생활을 시작한지 꼭 5년의 시간이 흘렀다. 내 생애 가장 고통스럽던 날들이어서인지 20년도 더 된 것만 같다. 되돌아보면 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해 주시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신 날들이기에 값없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br/><br/> 쓰러졌던 때가 성탄의 계절이었기에 겨울을 맞이하는 내 마음이 남다르다. 뇌종양 제거 수술을 앞두고 밀려드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수많은 지인들과 가족들의 위로와 응원이 답지했지만, 그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한사람이 떠오른다.<br/><br/> 그는 아내와 두 아이를 둔 40대의 가장으로 내가 문자 메시지로 띄워 보내는 묵상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가끔 내게 “세상에 아름다운 파장을 퍼뜨리는 권사님을 닮고 싶습니다”라는 답신을 보내왔었다. 그런 그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일본선교를 꿈꾸고 있는 초신자로 묵상편지를 받을 당시는 말기 암으로 투병하는 환자라는 사실이 고작이었다. <br/><br/> “아- 권사님, 아프지 마시길 희망합니다. 잠시 쉬어가라는 뜻일 거예요. 이 상황이 예수님과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시고, 더 행복해지시기 위한 전 단계이길 희망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스런 종을 지켜주소서! 주님, 이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저를 번제물로 올립니다. 권사님의 수술 시에 의료진에게 하나님의 오른팔을 빌려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아멘!”<br/><br/> 나는 이 편지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수신자들에게 전송했고, 예상대로 모두 놀라워하며 진한 감동을 받았다는 답신이 날아들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그 누가 스스로 번제물이 되겠다는 기도를 올릴 수 있단 말인가. 나 역시 단 한 번도 그런 기도는 드려 본 일이 없는데, 하물며 얼굴조차 모르는 나를 위해서 말이다. <br/><br/>박강월(수필가·주부편지 발행인)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05.txt

제목: 위암 환자마다 치료효과 다른 이유 밝혀냈다  
날짜: 2015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0446124  
본문: ‘진행성 위암’(암세포가 위 점막 아래까지 침범한 상태)이 유전체에 따라 4가지 형태로 구분돼 발생한다는 사실을 국내 의료진이 처음 밝혀냈다. 같은 위암이라도 사람마다 치료 효과가 다른 원인을 찾아낸 것이다. 이번 연구는 암 환자의 유전체 정보를 정확히 분석해 치료법을 달리하는 ‘맞춤형 치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br/><br/> 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 김성(소화기외과·사진) 이지연(혈액종양내과) 김경미(병리과) 교수팀은 머크와 릴리 등 다국적 제약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최근 진행성 위암의 유전체 지도를 완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팀은 2004∼2008년 수술받은 진행성 위암 환자 300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4가지 유형(MSS/EMT, MSS/TP53(-), MSS/TP53(+), MSI)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br/><br/> 유전자 돌연변이가 거의 없는 MSS/EMT형은 젊은 층, 특히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며 암 진행 속도가 빠르고 증상이 거의 없어 치료 경과가 나쁜 경우가 많다. 반면 MSI형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하는 대신 암의 진행이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었다. 암 억제유전자(TP53)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나머지 두 유형도 진행 유형이 다르고 예후 및 재발 위험도가 달랐다. 이번 연구결과는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 최근호에 발표됐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06.txt

제목: [한마당-정진영] 건강의 역설  
날짜: 2015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0422656  
본문: ‘술, 커피, 붉은 살코기, 비만’의 공통점은? 다수의 사람은 ‘건강에 해로운 것’이라고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술의 해악이야 말할 필요가 없고 커피와 붉은 살코기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해 놓고 있다. 비만 역시 건강의 적이라는 것은 통설이다.<br/><br/> 최근 이 사실들을 다소 거스르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하루 소주 3∼4잔을 마시면 뇌졸중 위험도가 낮아진다’ ‘커피가 암 및 당뇨병 발병률과 사망률을 낮춘다’ ‘붉은 살코기가 동양인 여성에겐 암 발생률을 낮춘다’ ‘50대 이상엔 적당한 비만이 사망위험률을 줄이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식이다. 공신력 있는 곳의 자료라 허투루 들을 수 없다. 서울대 의대,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고려대 의대 같은 전문가 집단이 이달에 내놓은 결과다.<br/><br/> 일반적인 건강상식과 모순인 듯한 이 데이터들은 대체로 호메시스(Homesis)이론과 부합한다. 미국 미주리대 러키 교수가 정립한 이 이론은 다량의 방사선은 피해를 주지만 소량의 방사선은 생리활동을 자극해 수명 연장, 성장 촉진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호메시스는 그리스어로 ‘자극한다’ ‘촉진한다’는 뜻이다. 의료계는 ‘낮은 농도의 독은 오히려 건강에 이롭다’는 논거로 받아들인다. 독으로 치유하는 역설적 건강법인 셈이다. 술, 커피, 붉은 살코기, 비만도 마찬가지다.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관건은 ‘적정 여부’다. 건강한 사람에게 적당 양의 술과 커피, 붉은 고기는 몸을 각성시키고 재생 체계를 가동해 몸 상태를 최적화한다고 한다. 장년 이상에게 중간정도 비만은 좋은 면역세포 생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br/><br/> 연말이 다가온다. 추워지면서 활동량은 줄고 모임은 잦다. 건강에 적신호를 울릴 소지가 크다. 즐기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과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나 알지만 그것마저 지키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긴 하다.<br/><br/>정진영 논설위원 jyjung@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07.txt

제목: “세상 먼저 떠난 아내 추억해주세요”… 미국 울린 한국계 남편 ‘편지 100통’  
날짜: 2015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0447183  
본문: “우리 둘은 같이 낯선 음식도 먹어봤고요, 낯선 러시아 연극도 봤지요. 그럼… 이제 우리 입 맞추면 어색할까요?”<br/><br/> 지난 20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한 소도시 길거리에서 한 남성과 두 아이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행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연인이 나눌 법한 사랑스러운 대화가 가득했다.<br/><br/> 최근 미국 주간 피플 등 외신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보조행정담당관으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 이형씨의 사연을 전했다. 지난해 15년을 함께한 아내 캐서린 장가를 암으로 잃은 이씨는 지난 20일 아내의 1주년 기일을 맞아 100통의 편지를 딸 안나(10)와 아들 알렉스(7)와 함께 행인들에게 나눠주며 아내를 기렸다.<br/><br/> 50통은 이씨의 시점에서, 나머지 50통은 아내의 시점에서 쓰인 이 편지들은 대부분 부부가 생전 함께 나눴던 대화로 구성됐다. 이씨는 이 편지들을 나눠주며 “<span class='quot0'>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건네 달라</span>”고 권했다.<br/><br/> 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내와의 추억을 담은 페이스북 페이지와 편지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열었다. 또한 ‘#100LoveNotes’(100통의 연서)라는 해시태그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내와의 사랑을 알렸다.<br/><br/> 이씨는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죽기 전) 가장 두려워한 게 잊혀진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걸 아내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아내를 잃은) 내게는 늦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다”며 “편지를 읽은 이들이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br/><br/> 이씨의 부인 캐서린은 생전 공익 변호사이자 지역 검사로 지역사회에서 일했다. 이씨 역시 한국계로 흔치않게 수도 워싱턴DC 등에서 1995년부터 공직에서 일하고 있다.<br/><br/>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08.txt

제목: [따뜻한 금융-농협생명 ‘내맘같이NH유니버셜종신보험’] 24개월 이후 연 12회까지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  
날짜: 2015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0427694  
본문: 보험 입출금이 자유로워 고객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거나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내맘같이NH유니버셜종신보험(무배당·사진)’이 고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추가납입은 물론 의무납입기간인 24개월 이후 연 12회까지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br/><br/> 종신보험 가입자의 가장 큰 고민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노후를 위해 보험금을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점이다. 연금전환특약을 가입하면 종신보험 본연의 사망보장 기능과 노후대비도 함께 준비할 수 있다. 연금전환은 가입후 5년이 지나고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br/><br/> 또 행복플러스3대질병진단특약(무)으로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의 3대 질병도 두배로 보장한다. 이들 3가지 질병은 한국인 사망 원인의 절반을 차지한다.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이다. 주계약 가입금액 5000만 원 이상 고객에게는 헬스케어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전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09.txt

제목: [따뜻한 금융-삼성화재 ‘NEW새시대건강파트너’] 질병 진단·입원·수술·장애·요양·사망 체계적 보장  
날짜: 2015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0434369  
본문: 삼성화재의 대표 종합건강보험 ‘NEW새시대건강파트너’(사진)는 질병 진단부터 입원 수술 장애 요양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체계적인 보장뿐만 아니라 각종 상해, 배상책임, 운전자비용 및 의료비 실손보장까지 하나의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다.<br/><br/> 만 15세부터 65세까지 폭넓게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은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5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br/><br/> 이 상품은 질병·상해뿐 아니라 장기 간병 및 다양한 생활 위험을 두루 보장한다. 3대 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갱신과 비갱신 중 고를 수 있다. 상해로 인한 장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가입금액을 일시금 대신 월지급식 생활자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br/><br/> 입원 첫날부터 입원 일당을 지급하고 골절·화상·깁스치료비·충수염수술 등 일상생활 중에 빈번히 발생하는 생활 위험을 보장해주는 담보가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10.txt

제목: [비만 한국인 위한 지침] 정부 ‘흡연 폐해 실험실’ 문 연다… 오송 질병관리본부 건물內  
날짜: 20151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0330948  
본문: 담배 성분을 분석해 중독성과 위해성을 찾아내는 정부의 첫 ‘흡연폐해 실험실’이 25일 문을 연다.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건물 안에 설치된다. <br/><br/> 그동안 담배 관련 실험실은 민간 차원에서 일부 대학의 부설시설로만 있었다. 미국은 국가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나 식품의약국(FDA)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담배 첨가물을 조사하고 있다.<br/><br/> 흡연폐해 실험실에선 국내 유통 담배에 니코틴, 타르, 암모니아, 흡습성 물질 등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중독성을 강화하는 첨가물질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분석한다. 혈액, 소변, 모발 등 인체시료나 먼지 같은 환경시료에 담배연기를 노출시켜 어떤 위해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담배연기가 암, 심혈관 질환, 감염성 질환, 성장발달장애, 중독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br/><br/> 연구 결과물은 금연정책 수립, 담배소송의 증거 등으로 활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인위적으로 첨가물을 넣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11.txt

제목: ‘온라인 보험슈퍼’ 30일 개장… 싸고 알찬 상품 골라담는다  
날짜: 20151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0241623  
본문: 자동차 보험이나 여행 보험, 실손의료보험처럼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이제 인터넷에서 가격과 혜택을 비교해 보고 고를 수 있게 됐다.<br/><br/>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e-insumarket.or.kr)를 23일 선보였다. 국내 36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207가지 보험을 그 자리에서 비교하고 가입까지 연결해 주는 사이트다. 30일부터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br/><br/>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홍보대사인 가수 겸 배우 임시완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열린 시연 행사에서 보험다모아에 접속해 자동차보험과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았다. 차종과 나이, 원하는 보장범위 등을 입력하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자동차보험부터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났다. 임 위원장은 “<span class='quot0'>보험다모아는 보험사들이 감독 당국만 쳐다보던 시선을 돌려 시장을 쳐다보게 만드는 경쟁 인프라가 될 것</span>”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br/><br/> 지금도 연금보험 등 일부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보험상품을 검색하면 각 보험사의 보험료와 혜택을 비교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협회의 자료는 까다로운 전문 용어와 너무 많은 상품 숫자 때문에 이용하기도 불편하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보험 영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경우도 많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보험다모아는 알기 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종류도 늘렸다. 각 보험사의 자료와 연결해 실시간으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더 찾지 않아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다. 회원가입도 필요 없다.<br/><br/> 우선 30일부터 보험다모아에 접속하면 자동차보험과 실손·여행·연금·보장성·저축성보험 등 모두 6가지 카테고리를 접하게 된다. 여행보험은 국내외·유학생 등으로 다시 세분해서 찾아볼 수 있고, 보장성 보험도 질병·상해·운전자·골프·화재 등으로 세분해서 비교해 놓았다. 보험종류를 골라 필요한 정보를 넣으면 보험료가 저렴한 순서대로 검색된다. 보험 가입은 각 보험사 사이트로 연결돼 온라인으로 직접 보험에 들거나 전화로 1대 1 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br/><br/> 금융위 이동훈 보험과장은 “<span class='quot1'>지금은 표준적인 가격 비교만 할 수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사고 이력 등 할인·할증 요인을 반영한 실제 개인별 자동차 보험료가 산출돼 비교할 수 있도록 가다듬을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암보험과 어린이보험 등도 비교검색이 가능하게 만들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 보험사들은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시연 행사에서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과 한화생명의 연금보험이 가장 저렴한 보험으로 화면에 뜨는 것에도 다른 보험사 담당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br/><br/> 보험다모아가 보험업계에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시연을 지켜본 생보협회 이수창 회장은 “<span class='quot2'>보험업계의 무한경쟁이 시작되는 출발점에 와 있는 느낌</span>”이라고 말했고, 삼성화재 안민수 사장은 “<span class='quot2'>보험사들이 가격을 올리기 어렵게 됐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자동차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가격 비교가 쉽지 않고, 설계사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크다</span>”며 “<span class='quot3'>사이트를 연 뒤 반응을 지켜봐야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12.txt

제목: [이야기] “살려 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 나누고 갈 기회 주세요”  
날짜: 2015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0103268  
본문: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br/><br/>모파상의 소설 ‘여자의 일생’의 한 대목이다. 통속에 따라 그저 그렇게 세월을 살다보면 이렇게 두런거리듯 인생을 마감한다. <br/><br/>여기 여인들이 있다. “<span class='quot0'>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span>”(시 73:26)고 말하는 여인들이다. 지난 12일 전남 보성 복내전인치유센터에서 쇠약한 이들을 만났다. 천봉산 아래 치유센터는 바람 한 자락, 구름 한 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에덴의 원시성을 그대로 간직한 자연 속에 자리했다. 스스로 자, 그럴 연. 여기서 자연은 ‘스스로 그러’했으므로 곧 창조주 하나님이다.<br/><br/>가을이 깊었다. 하지만 남도의 가을은 중부지방과 달리 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지 않는다.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우수수 잎을 털어냈다.<br/><br/> 치유센터 암환자 숙소 ‘평화의 집’ 사람들이 이날 가을 산책에 나섰다. 하루 두 차례 실시되는 센터 프로그램 ‘걷기’. 그 길은 3㎞ 길이의 ‘영성의 길’이다. 센터 측이 설치한 스피커에서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깔렸다. 이 길을 암환우 30∼40명이 이용한다. 몸과 영이 이 길을 걸으며 하나님 생태 속에 흡수되는 산책이다. <br/><br/> 이날 우리는 등산 스틱을 하나씩 쥐고 각자의 방식에 따라 영성의 길로 나섰다. 사각사각 낙엽 밟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함을 확인시켜 준다. 환우들은 소리, 향, 맛, 감촉 등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것들에 절실하다. 살아 있음을 알려주는 통증마저도 감사하다.<br/><br/> 김성경(이하 모든 인물 가명·52) 집사. 대구 미8군 레스토랑에서 29년을 근무했다. 세련된 멋쟁이다. 귀에 착착 감기는 대구 사투리가 매력적이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든든한 직장에서 노후 대책까지 잘 설계해 놓은 ‘똑순이’이기도 했다. 콧대 높은 이 여인, 40대 들어 열두 살 연하남과 ‘결혼하는 사고’를 쳤다. 늦복 터졌다. 부부는 입이 귀에 걸렸다. 자녀는 없다. <br/><br/> 나만 즐거웠고, 나만 행복했다<br/><br/> 어느 날 건강 검진을 받았다. 유방암이었다. 2㎝ 크기의 악성 종양이 있었다. 항암 치료를 받았다. 여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제주도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통증이 무섭게 제 몸을 파고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내가 당신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자복했다. “나 혼자만 당신을 영접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들을 당신 앞에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을 버려두고 당신 앞에서 나만 즐거웠고, 나만 행복했습니다.”<br/><br/> 박우란(50) 선교사. 7년을 캠퍼스 사역하고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 그곳에서 7년, 캐나다에서 3년, 미국에서 4년을 보냈다. 2002년 어느 날 사역지에서 한국 의료선교팀에 의해 간 혈관종이 발견됐다. 그 암세포는 피와 뼈에까지 번져 있었다. 그럼에도 사역지를 떠날 수 없었다. 기도에 의지해 가며 암세포와 싸웠다. <br/><br/> “주님이 몸을 통해 쉬라고 사인을 주신 거죠. 사인이 없었으면 안 쉬었겠죠. 내 몸의 암세포도 원래 착한 세포였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외부 바이러스와 싸우다 변형됐겠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 품속에서 쉬고, 빛을 쬐고, 진동을 느끼게 해주었으면 그렇게 변형되어 나를 공격하지 않았겠죠. 불쌍하게 만들었어요. 제가.”<br/><br/> 경기도 광명시에 산다는 이송현(63)씨. 식도암 환자다. 암 통보를 받고도 울고불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담대한 여인이다. ‘아 내가 내 몸을 너무 소홀히 했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입원하고 짐을 챙겨 이곳까지 왔다. 7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딸 셋을 시집보냈다. 살만 하니 암이라는 못된 친구가 찾아왔다. “여기 와서 교회 생활이라는 걸 처음 했어요. 저는 사랑이란 주거나, 받는 걸로만 알았어요. 나누는 것임을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거와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만난 환우들이 동기간 같아요.” 그는 건강이 회복되면 소외된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br/><br/> 영성의 길은 오르막도 있었고 내리막도 있었다. 햇볕 따스한 양지가 있는가 하면 맞바람만 몰아치는 음지도 있었다. 나비가 안내하는가 하면, 뱀이 스르륵 지나가는 길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어느 한철 아름답지 않은 때가 없었다.<br/><br/> 산책길 여인 7∼8명은 몸 상태에 따라 동행하기도 했고, 따로 걷기도 했다. 수다가 이어졌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에도 웃었다. 휴대전화 등과 같은 문명의 이기가 없어 세상이 궁금할 법도 하나 누구도 묻지 않았다. <br/><br/> 성경씨가 송현씨에게 “<span class='quot1'>남자 친구라도 만들지 그랬어요</span>” 하고 물었다. 송현씨가 “남자에 관심이 없었어. 귀찮아”라고 답했다. 성경씨는 특유의 사투리로 “누가 와서 엎어져 봐요. 재밌어. 떠받들어 주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은데”라고 했다. 소녀들같이 까르르 웃었다.<br/><br/> 사랑 베풀고 갈 기회를 주소서<br/><br/> 채하경(53) 집사. 역시 대구에서 왔다. 학교 교사인 그는 남편 병 수발을 위해 휴직했다.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남편이 덜컥 담도암에 걸렸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남편이었다. 일에 ‘미쳐’ 사는 한국 남자의 전형이었다. 자식들이 저절로 자라는 줄 아는 사람이었다. 반면 하경씨는 ‘아들 바보’였다. 하경씨는 “<span class='quot2'>12년 전 아들이 나를 전도해 교회에 다녔다</span>”고 했다. “<span class='quot0'>온 가족이 성경책 끼고 교회 출석하는 걸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span>”고 말했다.<br/><br/> 지금은 온 가족이 신앙을 가졌다. “<span class='quot0'>내 남편이 11년 만에 주님 앞에 가까이 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에 안 걸렸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기쁨을 몰랐을 것</span>”이라고 토로했다. “내 남편은 굳건하게 주님을 붙잡고 이겨 낼 겁니다. 버텨 주는 남편이 감사하죠.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군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으나 얼굴에 기쁨이 넘쳤다. <br/><br/> 산길이 넓어졌다. 공터 같은 장소였고, 멀리 보성강으로 들어가는 지류 물빛이 빛났다. 여인들이 멈춰 섰다. <br/><br/> 아. 버. 지∼, 아. 버. 지∼ 아. 버. 지∼. <br/><br/> 여인들은 목청껏 주님을 불렀다. 산울림으로 되돌아왔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당신만 들었다. 여인들은 한동안 그렇게 먼 산을, 먼 강을, 먼 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고 기도를 했다. 조용했다. 바람 소리도, 새소리도 멎었다. <br/><br/> 산책 끝나는 길에 ‘여인의 신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경씨 남편 여광염(56)씨. 24시간 아내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행복한 남자다. 그는 고위공무원으로 직업상 바빴다. 평생 새차 한 번 몰아본 일 없다. 늘 중고차였다. 아내 손에 이끌려 음악회에 참석해도 몸에 밴 습관처럼 입구 좌석을 잡는 남자였다. 혹 사고라도 나면 즉각 시민들을 위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일에 빠져 산 남편이었다. 아내는 병마로 퇴직한 남편에게 새 차를 뽑아주었다. <br/><br/> “나는 지난해 6월 15일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장인 장모의 소중한 딸을 데려오면서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내를 보게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 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고 갈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겁니다.”<br/><br/>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br/><br/>1995년 설립된 전인치유프로그램에 의한 암치유 중심의 선교 현장이다. 예배와 상담을 통한 내적치유에 무게를 두고 요양, 영양, 온열, 운동, 해독, 예술 요법을 적용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광주기독병원, 안양 샘병원 등과 연계 진료를 한다.<br/><br/>보성=글·사진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13.txt

제목: [바이블시론-채수일] 삶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날짜: 2015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956331  
본문: 신경학자이자 의사이면서 의료서사작가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던 올리버 색스(Oliver Sacks)가 지난 8월 30일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깨달음’, ‘뮤지코필리아: 뇌와 음악에 관한 이야기’ 등의 번역서로 한국에서도 이미 잘 알려진 그는 영국의 정통파 유대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br/><br/> 그러나 그가 18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그의 성적인 감정을 힐문하면서 그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고, 놀란 어머니는 ‘이 혐오스러운 것, 넌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해’라고 꾸짖었을 때 그는 유대교의 편협함과 잔인함을 싫어하게 되었고, 종교와의 결정적인 균열도 시작되었습니다.<br/><br/> 1960년 의사가 된 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약물중독으로 죽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자신도 환자이면서 뉴욕의 브롱크스에 있는 만성질환자 병원에서 환자들과 만나면서 그는 자신의 천직을 찾아냈는데, 정신분열증이나 신경적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이른바 의료서사작가가 된 것입니다.<br/><br/> 그런데 그가 2005년 한쪽 눈에 안구흑색종이라는 희귀한 종양이 생겼고,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방사선 치료로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14년 전이된 암이 간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고, 몇 달 살지 못할 것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까이 온 죽음은 그에게 자신의 삶을 마치 풍경을 보듯 높은 고도에서 조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불현듯 시야가 걷히고 초점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br/><br/> 그는 죽기 전, 병원에서 쓴 세 편의 에세이를 뉴욕타임스에 게재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의 마지막 에세이, 지난 8월 14일자로 실린 그의 마지막 글, ‘안식일’입니다. 유대교로부터 결정적인 결별을 선택한 의사이자 과학자였던 그가 삶의 마지막에 다시 유대교의 근본정신인 ‘안식일’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올리버 색스는 자신이 죽기 전 쓴 글에서 자신의 모든 삶에서 숨기는 것 없이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br/><br/> “이제 약해졌고, 숨이 가쁘고, 한때는 강건했던 근육이 암으로 녹아 없어진 지금, 나는 초자연적이거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치 있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다. 내 안에서 평화를 얻고 있는 셈이다. 생각이 계속 안식일을 향한다. 휴식의 날, 일주일의 일곱 번째 날, 그리고 인생의 일곱 번째 날이기도 한 안식일, 할 일을 끝내고 좋은 마음으로 쉴 수 있는 바로 그날.”<br/><br/> 안식일은 서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6일간의 사역인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날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여 삶의 의미는 노동과 활동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되고, 쉼은 무의미한 것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아니 일은 삶이고, 쉼은 죽음과 동일시된 것이지요. 압축적 근대화를 이룬 한국사회에서는 일 자체를 삶의 의미와 목적과 동일시하는 시각이 더욱 확고합니다.<br/><br/> 그러나 ‘마지막’을 의미하는 헬라어 ‘텔로스’는 목적, 성취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마지막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일은 쉼에서 완성되고, 죽음은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삶의 성취인 것입니다.<br/><br/> 하지만 높은 실업률과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는 시대, 고령화시대에 안식일을 말하는 것은 뚱딴지같은 소리라고 빈축을 살 일입니다. 그러나 삶의 모순은 삶 안에서가 아니라 삶 밖(끝)에 있는 높은 곳(안식일)에서 조망할 때 더 명확해진다는 것이 올리버 색스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br/><br/>채수일(한신대 총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14.txt

제목: “고위험 산모·조산아 치료 등에 집중 투자”… 여의도성모병원 ‘생명 존중 선도 병원’ 의지  
날짜: 2015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0037243  
본문: ‘숭고한 만남에서 아름다운 이별까지 책임집니다.’<br/><br/>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원장 승기배)이 고위험 산모·조산아 치료와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br/><br/> 병원은 19일 “37개 병상 규모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센터와 14개 병상을 갖춘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둘 다 수익성이 없어 다른 의료기관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다. ‘생명 존중 선도 병원’이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br/><br/> 병원은 앞으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10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말기암 환자는 물론 사별 가족을 위한 지원까지 ‘총체적 돌봄’을 지향한다. 향후 서울성모병원과 통합 운영해 국내 최대인 37개 병상 규모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로 확장할 계획이다.<br/><br/> 가톨릭학원 이사장인 염수정 서울대교구장은 개소 축복식에서 “<span class='quot0'>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span>”고 말했다. 이어 “인위적 죽음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환자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15.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 김한수 교수는... 편도 줄기세포주 세계 최초 수립  
날짜: 2015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653922  
본문: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91년 여의도고등학교, 1997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이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인턴 및 전공의 과정을 이수했다.<br/><br/>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이다. 이에 앞서 2002∼2003년에는 연세의대 이비인후과 강사와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을 지냈다. 현재 이대목동병원 두경부암·갑상선센터장과 홍보실장을 겸임하고 있다.<br/><br/> 주 전문 분야는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질환이다. 두경부에 생기는 양성 및 악성 종양과 갑상선암, 인후두 및 성대 이상에 의한 음성언어장애(목소리 이상)를 바로잡는 일이다.<br/><br/> 김 교수는 최신 의학 연구동향과 기술을 익히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1년과 2003년에는 미국 아이오와대학과 일본 구마모토대학 및 노구치 갑상선 클리닉을 방문해 선진 수술기법을 익히고 다듬었다. 이듬해엔 독일 괴팅겐대학을 다녀왔다. 아이오와대학에선 두경부 분야 해부실습을 익혔고 구마모토대학 등에선 갑상선 암 치료법을 연구했다. 괴팅겐대학에선 구강암, 특히 인후두암의 레이저수술법을 집중 수련했다.<br/><br/> 또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년 동안 다시 미국에 건너가 웨이크 포레스트대학 조직공학재생의학연구소에서 두경부암으로 인해 결손된 안면 및 경부 조직을 줄기세포치료 등으로 재건하는 방법을 연구했다.<br/><br/> 김 교수는 이 대학에서 배운 3D프린팅 및 조직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편도 줄기세포주를 세계 최초로 수립하고, 부갑상선 조직까지 만들어 동물에 적용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국내외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br/><br/> 김 교수는 요즘 하루 평균 80여명의 목질환자를 돌본다. 대부분 목에서 혹이 잡힌다거나 목소리가 이상하다며 그를 찾아오는 환자들이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종일 수술실에서 지낸다. 수술 후 흉터가 거의 눈에 안 띄게 해주는 ‘현미경하 최소 절개 수술’ 분야에서 김 교수가 국내 최고수 실력자란 소리를 듣는 이유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16.txt

제목: 난소암 환자 82% 진행단계서 뒤늦게 발견  
날짜: 2015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641182  
본문: 난소암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3병기 이후 진행단계에서 뒤늦게 암을 발견해 치료받을 기회조차 못 얻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br/><br/> 대한부인종양연구회(회장 김병기)는 최근 한국갤럽연구소와 공동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5개 병원에서 치료 중인 난소암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br/><br/> 난소암 환자가 현재 가장 바라는 것은 새로운 항암제 개발 및 치료(63%), 건강보험 지원(31%) 강화였다. 조사결과 난소암 환자의 82%가 진행 단계에서 암을 발견했으며, 치료 중 재발을 경험한 환자들도 7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난소암 재발 횟수는 평균 2.08회로 조사됐다.<br/><br/>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85%가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다. 항암제 치료비용과 항암제 부작용에 대한 불만족(44%)을 꼽는 이들도 많았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17.txt

제목: [헬스 파일] 환절기와 알레르기 비염  
날짜: 2015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654646  
본문: 답답한 숨소리, 훌쩍거림과 재채기 소리를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환절기다. 공기 중 미세먼지가 많고 날씨도 건조한데다 기온 변화도 심한 때여서 코 막힘, 콧물, 재채기, 눈과 피부 가려움 등 각종 알레르기 증상이 기승을 부린다.<br/><br/>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의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은 15.1%에 이른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전체 환자 중 20대가 22.5%로 가장 많다. 또 환자 중 여자(17.2%)가 남자(13.0%)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계층은 9세 이하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이다.<br/><br/> 알레르기 비염은 먼지, 꽃가루, 집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같은 항원이 콧속 점막을 자극했을 때 과민반응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어릴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서 시작될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작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이 문제다.<br/><br/> 진단은 병력 청취, 비강 내시경 검사 및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알레르기 비염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란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알레르기 비염과 함께 평생 같이 간다는 생각을 갖고 치료에 임하면 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br/><br/> 최근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들은 복용 후 졸림 증상이 거의 없다. 만약 비염 약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전문의와 상의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찾는 것이 좋다. 코 막힘이 심한 경우에는 고주파 및 미세절삭기 등의 도구를 이용한 시술로 쉽게 개선할 수 있다. 이는 부분마취로 5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다.<br/><br/> 알레르기 비염은 암이나 심장혈관질환처럼 목숨을 위협하거나 급하게 치료해야 하는 병은 아니다. 하지만 제때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중이염, 부비동염(축농증), 수면장애 등을 합병해 더 큰 고생을 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br/><br/> 적절한 진단과 치료로 큰 불편 없이 지내는 환자가 많지만, 치료 없이 불편함을 가진 채로 지내는 환자 또한 많은 게 알레르기 비염이다. 적절한 검사와 치료로 쾌적한 공기를 마시느냐, 불편함과 함께 지내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일 뿐이다.<br/><br/>이흥만 고대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18.txt

제목: 통합의학 암재활 주력 ‘다스람요양병원’, 첨단 고주파온열암 치료기 도입 운용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32070  
본문: 다스람요양병원(원장 홍영한·사진)이 최근 통합의학 암재활치료를 위해 첨단 고주파 온열암치료기(Oncothermia, EHY-2000 PLUS)를 도입해 운영한다. 다스람요양병원은 암 진단 후에 수술을 앞둔 환자이거나 수술 후 회복중인 환자·항암·방사선치료중인 환자들에게 치료효과를 높이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개선하는 치료를 제공한다. <br/><br/> 일반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3∼4명중에 한명꼴로 암환자일 정도로 주변엔 암환자 최근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환자복을 입은 암환자들에게는 당혹감과 함께 어떤 치료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현재까지 통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치료는 현대의학의 표준 암 치료이다. 표준 암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말하는데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말해주듯이 암 치료에 있어 표준 암 치료가 가장 강력한 무기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 또한 커서 환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br/><br/> 부작용이 크다고 표준 암 치료를 피해서는 안된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표준 암치료 프로토콜을 따라야한다. 이러한 가운데 주목을 받는 것이 통합의학 암치료다. 이에 대해 홍영한 원장은 “암환자들은 수술과 치료 후 재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상 표준 암 치료(수술·항암·방사선치료)후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는 게 사실이다. 환자가 마음 놓고 편안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통합의학적인 암재활병원이 많이 생겨나야한다”고 강조했다.<br/><br/> 다스람요양병원이 도입한 제4세대 최첨단 고주파 온열암치료기(Oncothermia, EHY-2000 PLUS)는 암조직에 선택적으로 열을 가해 암세포 대사율을 증가시킨다. 또한 산소의 공급을 막아 암세포 증식 억제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해,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br/><br/> 홍영한 원장은 “<span class='quot0'>미슬토 항암면역요법 및 자닥신 면역주사, 고용량 비탑민C 주사 등도 항암, 방사선치료와 병행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 항암, 방사선치료의 부작용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pan>”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1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좋은 음식 바르게 먹으면 만병 예방”… 대한암협회 토크콘서트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39681  
본문: 대한암협회 최근 암 관련 전문가들이 일반인들과 만나는 ‘바른 밥상 밝은 100세, 암을 이기는 우리의 바른 먹거리’ 주제의 암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br/><br/> 이번 암 토크 콘서트는 암 예방과 암을 이기는 먹거리를 소개하고, 암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현직 암 치료 전문의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건강정보를 전달했다. 송지현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서울대병원 노동영 교수, 연세암병원 노성훈 원장, 고려대안암병원 김선한 교수, 서울대병원 조비룡 교수, 성균관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신명희 교수 등이 참여했다.<br/><br/> 콘서트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암 발생 위험인자를 줄이고 예방에 적극 나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한 교수는 “암 발생에 위험하다고 명백히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의사들조차도 그저 식습관이 중요하다, 운동이 좋다 이런 소극적 권유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쁜 음식을 오랫동안 먹으면, 혹은 걷는 운동조차 하지 않고 지내면 암이 생긴다. 더 나아가 생명이 단축된다’는 식으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암 예방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 또한 암에 걸린 후 치료를 받고 극복해낸 암 완치자의 경우 또 다른 두 번째 암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조비룡 교수는 암생존자들이 두 번째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식단조절이나 영양, 재활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암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끝없이 걱정만 하고 지낼 필요도 없고 잘못된 생활습관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평생 건강을 위해 식단조절, 의사와 포괄적인 건강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항암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김치와 된장 등에 대해서도 올바른 섭취가 중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노동영 교수는 “잘못 먹은 된장과 김치는 절대로 항암식품이 될 수 없다. 간접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김치 농도가 3% 미만으로 싱거우면 항암식품이 될수 있으나, 김치의 염분이 8%로 짜다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된장도 훌륭한 항암식품으로 만약 하루 된장섭취량 80g(2큰술)이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맛을 내기 위해 훨씬 많은 된장을 섭취하게 되면, 간에 부담이 돼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건강한 분은 괜찮으나 B형간염 보유자나 간이 약한 분의 된장 권장량이 30g이하 정도다”라고 설명했다.<br/><br/> 이번 콘서트를 준비한 대한암협회 구범환 회장은 “‘잘 먹어서! 암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주제”라며 “좋은 음식을 바르게 먹는 것, 만병을 예방하는 길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들을 고치고 실천한다면 암 예방과 완치도 가능한 만큼, 실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 한편, 이번 암 토크 콘서트는 쿠키건강TV를 통해 오는 25일 오후 7시20분에 방송된다. 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20.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잘못된 의학정보 낳는 대학병원 ‘3분 진료’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43088  
본문: 암환자가 되면 궁금한 것이 많다. 암 여정 중 고통스런 부작용을 만나면 환자는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산처럼 쌓인다. 궁금증은 불안감으로 재탄생된다. 완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낀 환자는 병원치료,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에 대해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을 듣고 싶다. <br/><br/> 암환자 상당수는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최근 들어 대학병원이 환자 진료시간을 늘리려고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진료실에 앉아 나의 주치의를 마주하는 시간을 5분을 넘기지 못한다. 어느 대장암 환자는 “진료 밖 대기실에 나처럼 주치의 얼굴 한 번 보겠다고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과 남은 환자수를 체크하는 간호사,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는 주치의를 보고 있자니 붙잡고 이것, 저것 물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br/><br/> 이처럼 주치의와의 대화에서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진료실 밖을 나선다. 환자는 아쉬움에 금방 집에 가지 못하고 환자 대기실에 잠시 앉는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는 또 다른 암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마음이 한결 평안해진다. 암이란 적군을 향해 함께 싸우는 동료를 확인한 셈이다. 투병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br/><br/> 같은 암환자라도 나타나는 부작용과 암 진행양상이 다르다. 그러나 ‘암환자’란 공통점 하나로 카더라 통신을 통해 들은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는다. 대개 객관적인 근거를 담고 있지 않은 민간요법인 경우가 많다. 누구의 경험이라고 하나, 일관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자신의 경험에 주입시킨다.<br/><br/> 의료진은 환자들끼리 잘못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이는 3분 진료가 낳은 또 다른 부작용이다. 진료실에서 흔히 나누는 대화 중 대표적인 것이 환자의 컨디션과 식사량을 묻는 질문이다.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다. 하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으로 3분을 채우는 실정이다. 의료진도 어떻게 보면 암환자의 암 여정 길에 함께 하는 동지일텐데, 3분 진료는 동료애를 느끼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렇다보니 환자는 진료실 밖 또 다른 암환자를 붙들고 건강관리 방법 등 의사에겐 소소해보일 수 있는 문제들과 고민들을 털어놓는다. <br/><br/> 대학병원서 정기적으로 여는 건강강좌도 암환자들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강의실의 텅 빈 객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암환자라면 알고 있는 암 정의, 발생원인, 치료법 등을 알려준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는 셈이다. 진료시간을 늘려야하는 것은 단순히 환자들의 진료만족도를 높이는 일만이 아니다. 잘못된 의학정보를 걸러내고 환자의 치료의지와 지식을 결집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21.txt

제목: [암정보 게시판] 혈액 속 암세포 측정기 개발 外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41874  
본문: ◇혈액 속 암세포 측정기 개발=국내 연구팀이 특정 물질이 몸 속 암세포와 빠르게 결합해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혈중암세포 측정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한층 더 조기진단이 간단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인제대학교 나노융합공학부 한기호 교수 연구팀이 10분 이내에 혈중암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분리할 수 있는 세포분리기술과 함께 분리된 암세포를 전기적 방법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암세포 측정이 가능하다. 이번 기술은 혈중암세포를 전기적 방법으로 선별할 수 있어 향후 휴대용 자가 암 진단기기 개발을 위한 주요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br/><br/>◇삼성서울병원 개인 맞춤 암치료 클리닉 운영=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센터장 손태성)가 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 맞춤 암치료 클리닉’을 본격 운영한다. 개인 맞춤 암 치료 클리닉은 환자마다 유전체를 분석해 달리 치료하는 방식이다. 암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환자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꼭 맞는 표적항암제를 찾아내는 한편, 그에 따른 혁신 신약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삼성유전체연구소의 ‘캔서스캔(CancerSCAN)’이란 암유전체진단키트를 이용해 암 속성부터 파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br/><br/><br/><br/>◇서울시동부병원 19일 ‘식도염 강좌’=서울특별시 동부병원(원장 김현정)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식도염의 예방과 치료’라는 주제로 시민건강강좌를 연다. 식도염은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내로 역류하여 식도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가슴쓰림이나 산역류 같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식도 역류병’이라고도 일컫는다. 강좌는 동부병원 내과 전문의 유연화 과장이 강사로 나서 △식도염의 올바른 이해 △식도염의 증상 및 치료 △식도염의 예방법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문의: 02-920-9388)<br/><br/><br/><br/>◇췌장암 면역치료제 리아백스 환자 처방=젬백스&카엘이 개발한 췌장암 면역 치료제 리아백스주가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시작으로 췌장암 환자에게 본격 처방이 진행된다. 리아백스주는 지난 4월 시판 허가 이후로 젬백스&카엘 계열회사인 삼성제약을 통해 생산과 병원 유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 해왔다. 이번 처방을 시작으로 본격 시판되며, 전국 16개 병원에서 임상시험 연구 시작과 동시에 판매된다.<br/><br/><br/><br/>◇라보라토리 신파 유방암 치료제 식약처 허가=스페인 제약기업 라보라토리 신파 코리아는 최근 유방암 치료제 ‘신파 아나스트로졸정(1mg)’, ‘신파 레트로졸(2.5mg)’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문의약품 허가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아나스트로졸과 레트로졸은 호르몬성 항암제 중 아로마타제(aromatase) 저해제로 분류되는 약물로 유방암 치료에 수술 후 보조 치료로 또는 유방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3년 의학전문지인 란셋지가 소개한 런던 퀸 메리(Queen Mary) 대학 연구팀의 4000명 대상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나스트로졸이 기존 약물 치료보다 더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22.txt

제목: [암과의 동행] ‘말기암’ ‘진행암’ 왜 성인 80％가 구분못할까?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36355  
본문: 4년 전 유방암으로 한 쪽 유방을 절제한 김모씨. 수술 후 항암치료를 시작했으나 남은 암세포가 줄어든 것도 잠시, 폐로 전이가 일어났다. 주치의는 더 이상의 수술과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항암제를 써서 암 크기를 줄여나가고, 생존기간을 몇 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김씨의 상태는 ‘말기암’에 해당할까, ‘진행암’에 해당할까?<br/><br/>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김상혁, 신동욱 교수와 충북대학교 박종혁 교수 등으로 이뤄진 연구팀이 이 질문을 일반인 2000명에게 물었다. 그 결과 김씨의 상태를 ‘진행암’이라고 정확히 답한 사람은 20.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상당수인 74.5%가 김씨의 상태를 ‘말기암’으로 보았고, 0.7%가 조기암, 4.4%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br/><br/> 이러한 사례는 암환자들이 흔히 겪게 되는 생각의 오류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암환자는 진료실에서 자신의 현 상태를 듣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데, 부정확한 배경지식이 평안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병을 이겨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br/><br/> 말기암에 걸린 사람과 진행암에 걸린 사람은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다. 현재 말기암이라면 호스피스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반면 진행암이라면 다양한 치료방법을 모색하면서 생존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두 암은 치료방향이 다른 암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일반인들이 실제 임상에서 두 암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br/><br/> 연구를 진행한 김상혁(사진)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치료과정 중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져야하는데 ‘항암치료를 통해 1년 이상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자신을 말기암 환자로 판단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민간요법에 몰두하는 등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반대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생을 정리할 수 있는 말기 암환자들이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이지 못한 치료에 매달리게 된다</span>”고 말했다.<br/><br/> 위 설문조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실은 응답자의 교육 수준이 높거나 가까운 친적이나 지인 중 암환자가 있는 경우라도 암 진행 상태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br/><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진단 용어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한 과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말기암과 진행암 두 단어만 놓고 볼 때는 이해되지만, 막상 자신이 암환자가 됐거나 보호자가 됐을 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span>”고 말했다.<br/><br/> 그렇다면 용어의 혼동은 어디에서 비롯될까. 연구팀은 진솔하지 못한 진료실 분위기를 꼽았다. ‘말기’란 용어 자체를 꺼내는 순간 담당 의료진을 신뢰하지 않거나 심한 불안감, 동요를 느끼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br/><br/> 대장암 환자를 둔 한 주치의는 “외국에선 의료진이 환자와 기대여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한국은 남은 수명을 이야기하거나 좋지 못한 치료결과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의료진을 불신하거나 병원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 상투적인 이야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죽음과 관련한 부정적 이야기를 꺼려하는 한국인 정서가 암 용어의 정확한 이해 과정을 생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br/><br/> 김상혁 교수 역시 “<span class='quot2'>의료진도 말기암과 진행암이 무엇인지 환자와 보호자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지적하며 “<span class='quot2'>정확한 이해가 향후 치료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환자와 보호자는 말기암과 진행암에 대해 개념적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한다</span>”고 말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23.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렌비마] 갑상선암 표적치료제로 시판 승인 받아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31112  
본문: 암 중에서 조기에 치료만 잘 받으면 거의 완치에 이를 수 있는 암이 있다. 바로 ‘갑상선암’이다. 갑상선암은 국내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으로, 2012년 신규 진단을 받은 환자 수만 4만4000여명에 이른다. 다만 갑상선암은 비교적 조기 암 상태로 발견되고, 암세포의 성장·전이가 느리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좋다. 실제 1기 갑상선암의 10년 생존율은 98%에 달하며, 말기로 분류되는 3기에 수술해도 10년 생존율이 70%나 된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치료가 가능하나, 암의 진행이 이루어지면 손을 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암이 전이되거나 미분화 갑상선암의 경우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br/><br/> 특히 갑상선암을 제거했거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효과가 없는 환자들의 경우 암으로 인해 사망 위험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럴 때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항암제가 바로 ‘표적치료제’다. 현재 처방되고 있는 갑상선암 표적치료제로는 바이엘헬스케어의 ‘넥사바가’ 대표적이며, 최근 등장한 표적치료제도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br/><br/> 글로벌 제약사인 한국에자이는 자체 개발한 신규 항암제 ‘렌비마캡슐(성분명 렌바티닙메실산염, 이하 렌비마)’이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치료제 용도로 지난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본사인 일본 다음으로 한국에서 렌비마의 시판이 승인됐다. <br/><br/> 렌비마는 국부 재발성 또는 전이 진행,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한 분화 갑상선암을 적응증으로 하여 지난 2015년 2월 미국에서 시판 허가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절제 불가 갑상선암의 치료 용도로 지난 2015년 5월 시판 허가된 바 있다. <br/><br/> 렌비마의 이번 시판 허가는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한 분화 갑상선암에 대한 3상 다기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연구과정에서 렌비마는 위약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무진행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객관적 반응률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상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고혈압, 설사, 피로, 무기력증, 식욕 감퇴, 체중 감소, 구토 등이었다.<br/><br/> 에자이의 츠쿠바 연구소에서 발견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렌비마는 경구 투여 분자 표적치료제로로, 혈관내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VEGFR), 섬유모세포 성장인자 수용체(FGFR), 종양 유전자 KIT, 혈소판 유도 성장인자 수용체(PDGFR)와 같은 일부 분자의 활성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렌비마는 종양 신생 혈관 생성 및 갑상선암 확산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VEGFR)와 더불어 섬유모세포 성장인자 수용체(FGFR)를 동시에 억제한다. <br/><br/> 이번 렌비마 승인을 통해 에자이는 한국의 갑상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함은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로도 시판 승인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에자이는 갑상선암과 싸우고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렌비마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임상적 이점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24.txt

제목: [암과의 동행] 국가암검진 수검률 45.8%… 낮은 신뢰도 탓 국민 외면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57533  
본문: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암이다. 더욱이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 한국인에서 발병이 높은 5대 암에 대해 검진을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암검진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국립암센터가 조사한 ‘2014년 암검진 수검행태’ 결과를 보면 암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국가암검진과 개인 암검진 수검률의 합) 2004년 대비 크게 증가한 67.3%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암검진 수검률만 따로 봤을 때는 2013년 43.6%, 2014년 45.8%에 불과하다. 정부는 제2기 암정복계획(2006∼2015년)을 수정하며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60%에서 5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br/><br/> 국가암검진의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신뢰도, 시간적 여건 등이 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암 검진 후 1년 이내 암이 발생한 경우가 3만599건(2007년 6653명, 2008년 6418명, 2009년 6740명, 2010년 4452명, 2011명 63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암의 특성상 초기의 경우 발견이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제대로 검사하기에는 국가가 보장하는 검진수가 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간적인 문제도 보였는데 여성 고유 암(유방암·자궁경부암)의 경우 취업률이 낮은 여성이 남성보다 여유시간이 많아 검진소요시간이 긴 암검진에 적극 참여하는 성향을 보였다. 소득에 따른 차이도 보였는데 건강보험가입자의 45.8%는 암 검진을 받았으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1.3%만이 검진을 받아 큰 차이를 보였다.<br/><br/> 지난해 국립암센터가 조사한 ‘2014년 암검진 수검행태 조사’에 따르면 암검진 장기 미수검의 가장 큰 이유로 ‘건강하기 때문’(40.2%)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1.5%), ‘검사과정의 힘듦’(16.4%), ‘암 발견의 두려움’(9.6%) 순이었다.<br/><br/>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직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과 암검진 시기 일치 △모든 직장가입자에게 암검진 개별 안내 확대 △국립암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홍보 강화방안 계획 수립·시행 등 암 검진 수검률 향상 계획을 수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일반검진에 비해 암 검진이 다소 낮아 검진기관이 부족한 취약지역에는 이동검진을, 취약대상자에게는 검진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또 바쁘신 분들을 위해 공휴검진기관(1240여개소)에 30% 행정가산율을 지원해 편의를 돕고 있다”라며 “또 올해부터는 직장가입자 사무직 대상자에게 건강검진 주기를 동일하게 맞춰 편의성은 높여 상반기 3%이상 수검률이 상승했는데 메르스 이후 낮아졌다. 때문에 건보공단 이사장 서한문, 반상회,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해 연말에는 이전 수검률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br/><br/> 한편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에 ‘국가암관리’를 위해 전년대비 11억원이 증가한 263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암검진에 전년대비 12억원이 증가한 18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자궁경부암의 경우 검진 연령을 낮추고 간암의 검진주기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데 최근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 증가하고, 배가시간(종양의 크기가 두 배로 증가하는 시간으로 간암의 경우 평균 약 100∼200일)이 빠른 간암의 특이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2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췌장암 생존율 8%… 환자 이중고 덜어줘야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36738  
본문: 대표적인 사망률 1위인 폐암의 5년 생존율은 10년 동안 11%에서 20%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췌장암은 여전히 한 자리수인 8%에 머물러 있는데 전체 암환자의 생존율이 68.1%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고, 10대 암 중에 유일하게 5년 생존율이 하락하기도 했다. 두 질환 모두 수술이 가능한 환자들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생존율의 차이는 치료제의 발전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br/><br/> 실제로 다양한 표적 치료제들이 등장해 생존율이 올라간 폐암과 달리, 지난 10년간 췌장암 분야의 신약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 췌장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는 젬시타빈으로 1990년도 초반부터 사용되어 약 20여년간 사용되고 있으며, 유일하게 국내 보험 급여가 되는 치료제다. 하지만 젬시타빈 역시 췌장암 생존 기간 연장이라는 큰 벽을 넘기는 어려웠다.<br/><br/> 최근 췌장암 생존율 연장이라는 마의 벽을 넘은 치료제가 등장했는데 젬시타빈과 아브락산이라는 항암제를 함께 사용했을 때 생존 기간을 두 달 연장 시킨 것이다. 주요 임상 결과에 따르면, 아브락산과 젬시타빈을 함께 사용하면 사망 위험을 29% 감소시키며, 젬시타빈만 사용했을 때 보다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이 8.7개월로 기존 치료제 보다 2개월이라는 시간을 연장 시켰다. 이와 같은 아브락산의 효과는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를 인체 단백질인 알부민에 부착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바탕이 됐다. 알부민은 인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단백질이므로 용해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 기술을 통해 기존 항암제 대비, 아브락산은 정상세포에는 적은 영향을 주고 암세포에는 집중적으로 작용해 더욱 많은 양의 치료제가 암세포에 도달 할 수 있다.<br/><br/>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 박준오 교수는 췌장암에서 신약의 생존 기간 두달 연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span class='quot0'>1년 생존이 어려운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서 2개월의 생존을 연장시켰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엄청난 효과라고 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실제로 임상을 하면 아브락산으로 치료 받은 환자들이 1년-2년까지도 생존하는 환자들이 꽤 많다</span>”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췌장암의 전체적인 치료 예후는 10년 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생존 기간 2개월을 연장시킨 약제를 비롯해 다양한 병용요법을 시도함으로써 전체적인 췌장암 환자들의 치료 성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br/><br/> 반면 이와 같은 새로운 치료제가 등장해도 실제 환자 치료까지 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아쉬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생존 기간을 연장한 아브락산은 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매우 낮다. 국제 치료 가이드라인에 새로운 치료제가 권고돼도 국내 신약이 보험급여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는 “<span class='quot1'>췌장암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은 병 자체만으로 매우 힘겨운데,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해 치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중고를 겪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span>”고 강조했다. <br/><br/> 한편 췌장암의 90% 이상은 췌관의 샘세포에 암이 생긴 선암이다. 유전적 요인 중 췌장암의 90% 이상에서 K-Ras 유전자의 변형이 발견되고, 모든 암종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이상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다. 증상은 복통과 체중감소, 황달, 소화장애, 당뇨의 발생이나 악화 등이다. 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2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원자력병원, 호스피스 전용병동 개소… 1인실 3개 등 총 7실 15병상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51876  
본문: 올해 7월부터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입원했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br/><br/>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암 환자의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 서비스이다.<br/><br/> 현재 우리나라 말기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3.8%(2014년 기준)에 그치고 있으며, 말기암 환자와 가족이 임종에 임박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택하고 있어 충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br/><br/> 이번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금은 1일 약 1만8000∼2만3000원으로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해 환자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간병료 등의 비급여 비중을 최대한 낮췄다.<br/><br/> 또한 말기암 환자는 대부분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전문 간병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3교대 근무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며, 환자부담은 1일 4000원이다.<br/><br/> 원자력병원 노우철 원장은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지만, 그 간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한 말기암 환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였다. 이번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은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점차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확대로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이용에 불편 없이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br/><br/> 원자력병원은 2012년부터 호스피스 전용병실을 소규모로 운영해 왔으나,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인 호스피스 전용병실 이용료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병상수로 인해 말기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전용병실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원자력병원은 올해 7월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동관7층 전 병동을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으로 새롭게 개소했다.<br/><br/> 원자력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전담 의료팀 구성과 함께 1인실 3개, 3인실 4개 등 총 7실 15병상을 갖추고 지난 10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11월 말에 보건복지부의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기관 심사를 통과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br/><br/> 지난 50여 년 간 우리나라 암 치료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온 원자력병원은 이번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개소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으로 암 진료에서부터 전인적 돌봄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해 암 전문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br/><br/><br/>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27.txt

제목: [암과의 동행-암과 영양] 강남성심병원 김정한 교수 “항암치료중엔 입맛 맞는 것 잘 드세요”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40220  
본문: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린다면 자신에게 드는 원망이 크다. 야식, 술과 담배, 게으른 생활습관 등 무질서한 생활습관이 암을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만들어진다. 이런 환자일수록 엄격한 식생활로 환자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정한 교수는 환자들로부터 지나친 죄책감과 엄격한 생활습관을 주의하라고 당부한다.<br/><br/> 김 교수는 “수술 후 지친 몸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환자는 잘 먹어야한다. 그런데 환자는 암환자 이전에 좋아하던 라면, 삼겹살 등을 일절 끊고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환자가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것을 잘 먹으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br/><br/> 김 교수는 암을 긴 여정으로 비유하며 “조급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면 금방 의지가 바닥난다. 느긋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br/><br/> 느긋한 마음의 환자일수록 소위 암환자 식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음식에 매몰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잘 먹으며 체력을 잘 유지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환자들은 무엇을 먹어야하는지, 특정 음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나의 대답은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고기다. 지방이 많은 고기를 제외하고 돼지 목살이나 등심, 닭고기를 잘 드시라고 말한다. 또 밀가루 음식을 끊는 경우도 드물지 않는데, 평소 라면이나 칼국수를 즐겨 드셨던 분이라면 항암치료 중에도 드시라고 말한다. 다소 맵고 자극적인 라면이 구심을 억제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다. 항암치료 중 오히려 구심 때문에 못 먹는 환자가 많은데 내 입맛에 라면이 어울린다면 먹어서 영양과 체력을 보충해야한다”고 조언했다.<br/><br/> 김 교수가 인터뷰 내내 강조했던 것은 균형이다. 채소 위주의 식단만 고집해서도 안 되고 무리한 운동만 고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질병에 걸려 죄의식에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예민하게 식단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초반부터 과도한 운동과 지나친 식단 조절은 체력과 체중감소로 이어져 페이스 조절에 실패할 수 있다. 채식과 육식을 골고루 하는 식단과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쾌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r/><br/> 김 교수는 항암치료 중 잘 먹지 못하는 환자들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떨어진 체력은 추후 치료결정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정한 교수는 “암 독성으로 떨어진 입맛으로 잘 먹지 못한다면 식욕을 돋궈주는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약을 오래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먹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입맛을 잃지 않게 자신이 선호하는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항암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28.txt

제목: [암과의 동행-완치를 향한 위대한 도전] 난치암 극복 ‘시작이 반’이다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42402  
본문: 혈액암은 혈액, 그중에서도 특히 백혈구에 생기는 암이다. 잘 알려진 백혈병을 비롯해 악성림프종 및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다발골수종 등이 혈액암에 포함된다.<br/><br/> 대부분의 혈액암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료진의 암 진단에 절망하고, 혈액암이라는 낯설고 심각하게 느껴지는 진단명에 한 번 더 절망한다.<br/><br/> 70대의 남자 환자가 휠체어에 실려 가족들과 함께 진료실을 찾았다. 환자는 전신통증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신부전 악화로 인한 요독증으로 정신까지 혼미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했다. 환자는 몇 달 전부터 허리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아왔으나 통증이 점점 전신으로 퍼져나가 식사도 잘 못하고, 몸이 붓는 증상까지 겹쳐 인근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전신의 뼈에 암이 퍼져있고, 신장도 안 좋아 투석을 고려해야하므로 큰 병원 치료를 추천했다고 한다.<br/><br/> 환자는 타 병원의 혈액검사와 영상검사 소견 상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으로 의심되었고, 조금만 더 악화되면 혈액투석을 시행해야하므로 빠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했다. 가족들은 고령의 환자가 힘든 암치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저했으나, 의료진의 설득으로 환자는 서둘러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 등 진단을 위한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고 응급치료를 시작했다.<br/><br/> 이런 경우 조금만 사전 진료가 지연되어도 치료시기를 놓치기 십상이고 치료를 시도하기 전에 사망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치료 의지와 의료진과의 신뢰가 필수적이다. 다행히 환자는 응급치료를 시작하면서 전신통증과 의식상태가 빠르게 호전됐고, 다발골수종으로 확진 후 항암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환자는 약 한달 여간 입원치료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걸어서 퇴원했고, 이후 외래에서 1년 가까이 더 항암치료를 받았다. 현재 환자는 혈액검사 상 혈액암의 흔적이 없어진 완전관해상태로서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위해 내원하고 있다.<br/><br/> 혈액암은 진단을 위한 골수검사나 수술적 림프절 절제를 통한 조직검사 등으로 인해 진단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른 고형암처럼 수술적 치료가 아닌 항암치료를 시행하므로 환자들은 혈액암의 진단과 치료를 고통스럽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와의 병합치료를 통해 많은 혈액암 환자들이 완치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에 임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br/><br/> 치료도 시작하지 않고 지레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제 아무리 난치병도 환자 본인이 꼭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치료를 시작한다면 이미 병의 반은 완치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r/><br/>신동엽 원자력병원 혈액종양센터 과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29.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 요루 주변 피부는 늘 청결하고 건조해야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40663  
본문: 국가암정보센터와 함께하는 ‘암환자 생활백서’에서는 암환자에게 꼭 필요한 장루와 요루, 중심정맥관 등 기구관리 방법을 소개한다.<br/><br/> ◇요루=방광적출술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설하는 방광이 사라지는 수술이므로 소변 배출을 위한 요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장의 일부분을 이용해 인공방광을 만들고 많은 경우 새로운 요로개구부를 갖게 된다. 요로개구부는 소변과 계속 접촉하고 장내벽 일부분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이므로 상처감염과 주변 피부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수다.<br/><br/> 요루 주변의 피부는 비누나 물로 씻고 헹군 뒤 건조를 시켜야 한다. 피부가 건조해야 비닐주머니를 잘 부착할 수 있다. 소변이 농축되면 요루 주위에 흰 회색의 크리스탈 같은 결정체가 형성되고,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분의 양을 증가시켜야 한다. 비닐주머니를 교환할 때에는 요루 위에 거즈를 놓아 소변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해야 한다. 요루 주변의 피부에 이상이 생기거나 열, 오한, 통증, 소변 양상의 변화가 있을 시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br/><br/> 주머니 교환은 배뇨량이 가장 적은 때인 수분섭취하기 전 이른 아침이나 저녁식사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주머니는 1회용이며 교환빈도는 사용되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1/3∼1/2정도 채워지면 주머니를 비운다. 관을 사용해 배뇨하는 경우 손을 씻고 도뇨할 때마다 관을 소독해야 한다. 항상 적어도 2개 정도 여분의 완전한 기구를 가지고 있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br/><br/> ◇장루(인공항문, 스토마)=장루는 외과수술에 의해 생긴 장출구로 변을 내보내기 위한 우회로다. 장루는 신체 일부분인데 이것은 소장이나, 대장의 일부를 복벽 밖으로 빼내어 피부와 함께 봉합한 것이다. 처음에는 복벽 바깥으로 1∼2㎝ 돌출돼 있으며 처음에는 매우 붉은색을 띠고 부풀어 있다. 장루는 신경이 없어 만져도 아프지 않으며, 자극을 주면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으나 꼭 누르고 있으면 곧 멈춘다. 장루의 크기와 모양은 개인마다 다르다. 수술 후 차차 작아져 5∼6주 후에는 거의 자기 모양과 같은 크기가 된다<br/><br/> ▲장루의 종류=①회장루: 보통은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며 소장의 끝부분인 회장으로 만든 장루이다. 일시적인 우회로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다시 복원하고자 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장루이며, 소화 효소가 함유된 묽은 변이 배출되므로 피부에 자극을 잘 일으킨다. ②하행/에스결장루: 통상적으로 복부의 왼쪽 아래에 위치하며 대장의 대부분이 기능하므로 변은 평상시와 같은 상태로 배출된다. 필요에 따라서 관장이나 장 세척을 할 수 있다. ③횡행결장루: 통상적으로 상복부 중앙에 위치하며 횡행결장을 이용하여 루프 형태로 장을 들어올려 피부에 고정시킨다. 변은 약간 되직하게 나온다.<br/><br/> 장루 주머니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피부 보호판, 장루 주머니, 클립, 피부 보호 필름, 피부 보호 연고, 곡 가위, 매직펜(혹은 볼펜), 자, 휴지, 방수포, 반창고, 비닐 주머니, 거즈나 작은 수건(젖은 것과 마른 것)이 필요하다. 물품이 준비되면 장루 주머니 교환을 실시한다.(표 참조) 장루 주머니는 장루보다 약 0.2∼0.3㎝ 정도 크게 오려낸다. 만약 주머니가 잘 맞지 않으면 심한 피부 자극이 생긴다. 피부 자극 종류는 발적에서부터 수포성 피부염이나 궤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장루 부위는 장루 주머니를 교환할 때마다 철저하게 닦고 헹궈야 한다. 장루 주머니 교환 시에는 항상 누공의 크기와 색깔, 배액 내용물의 냄새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또 누공에 자극이나 청색증의 증상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장루 주머니를 비우는 횟수는 각 대상자마다 다르며, 주머니가 1/3∼1/2가까이 차면 비워주는 것이 좋다. 계란, 생선, 양파, 양배추, 채소류 등은 대변에서 냄새가 나게 하므로 방취 용액이나 방취 정제를 장루 주머니에 미리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br/><br/> 대변이 되게 나오면 피부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회장, 횡행결장루 같이 대변이 묽게 배설될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이 많다. 피부 보호판을 너무 크게 오려 배설물에 노출돼 피부 손상이 있을 경우, 장루 주위 피부를 깨끗하게 세척한 후 장루용 파우더를 뿌리고 여분의 분말은 털어내고 피부 보호용 필름을 바른다. 이후 피부 보호판을 다시 재단 후에 부착한다. 피부 보호판을 부착하기 전 장루 주위의 털을 면도하면 모낭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장루 기구 제거 시 리무버를 사용하면 물리적인 자극을 예방할 수 있다. 한번 붙인 피부 보호판은 3∼5일 지나면 녹아서 새어 나와 피부에 자극을 주므로 교환해야 한다.<br/><br/> 장루로 병원에 와야 할 때는 △2∼3시간 이상 지속되는 복통이 있을 때 △장루에서의 과다한 출혈이 있을 때 △심한 피부 자극, 가려움, 혹은 심한 궤양이 있을 때 △장루 크기나 모양, 색깔 변화가 있을 때 △장루판이 1∼2일에 한 번씩 떨어지거나 대변 누출이 잦을 때 등이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30.txt

제목: [암과의 동행] ‘넥시아’ 효능 논란 10년째… “이젠 정부가 규명해야”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56747  
본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암환자들에게 ‘넥시아’는 매우 희망적인 항암 치료제다. 이제는 환자들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효능 검증을 해줘야 한다.” 지난 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이하 환자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항암 치료제 ‘넥시아’의 객관적 검증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br/><br/> ‘넥시아(Nexia)’는 최원철 단국대학교 부총장이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해 만든 한방 암치료제다. 이 항암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06년부터다. 당시 ‘암치료 근거중심의학 심포지엄’에서 최원철 부총장과 이영작 한양대학교 석좌교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넥시아로 치료한 말기 암환자 216명 중 114명(52.7%), 그 중 4기 말기 암환자 22.4%가 5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말기암 치료를 위해 다수의 환자들이 넥시아를 선택했다. 하지만 사용 후 효과를 본 이들도 있었지만 한 달에 300∼400만원인 고액의 약값만 치르고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아지면서 넥시아 효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시작됐다.<br/><br/> 이와 관련 이영작 교수는 ‘후향적 임상연구’ 발표를 통해 넥시아 효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말기 암환자 210명 중 132명(63%)은 의사소견서나 의무기록사본 등 명확한 근거 없이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분석결과”라면서 넥시아의 항암제 효능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상당수의 암환자들이 양방병원의 표준적 치료를 병행하거나 끝난 후 넥시아를 복용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치료 효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원철 부총장은 2009년 11월 25일과 2013년 2월 7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넥시아의 양방 버전인 ‘아징스75(AZINX75)’에 대한 2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았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환자단체측이 알아본 결과 실제 전국 병원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됐지만 현재 식약처는 임상시험 종료사실만 보고했을 뿐 종료날짜와 시험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br/><br/> 넥시아 효능 논란이 이어지자 환자단체는 2014년 11월 ‘넥시아 환자단체 검증위원회’를 구성, 넥시아 치료로 장기생존하고 있는 말기 암환자와 인터뷰 등을 통해 검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에 넥시아에 대한 의견서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으나 넥시아 효능에 대한 뚜렷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br/><br/> 지난 4일 넥시아 검증위원회 활동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단체측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에 ‘넥시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넥시아 효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 △현재까지 넥시아로 치료받은 말기 암환자들의 자료를 기초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후향적 연구를 진행할 것 △식약처가 넥시아의 양방 버전 ‘아징스75’ 관련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넥시아 효능에 관한 과학적·임상적 결론을 내줄 것을 요구했다.<br/><br/> 지난 10여년간 계속된 넥시아 논란의 핵심은 항암제 효능 여부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환자들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환자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br/><br/>박예슬 기자 yes22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31.txt

제목: [암과의 동행] 국내 사망률 2위 간암, 치료 골든타임 지켜라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32673  
본문: 2014년 국내 사망원인 1위 암. 지난 한 해 매일 약 210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그 중 간암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22.8명으로 폐암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암이다. <br/><br/> 간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질환이다. 간에 ‘침묵의 장기’라는 악명 높은 별명이 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간암 환자의 상당수는 초반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간암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며 어느 정도 뚜렷이 증상이 드러날 때에는 암이 이미 진행된 단계에 들어선 후인 것이다. 게다가 간암 환자들은 간경변증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간절제술이나 간 이식 등과 같은 치료를 시행하기에는 이미 상태가 많이 악화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암이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되거나 진행된 간암에서 환자들의 상대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점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br/><br/> 간암 치료에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 간암의 진행단계, 환자의 치료 경과에 따라 치료방법을 달리 해 시행한다면 긍정적인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br/><br/> 보통 간 기능이 잘 보존돼 있고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간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환자의 경우 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간 전반적으로 넓은 부위에 퍼져 있어 수술로 절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br/><br/>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의 환자에게는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하 색전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색전술은 간암의 종괴가 일반적으로 혈관이 잘 발달해있다는 특성을 이용해, 종괴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찾아 그 혈관을 색전 물질로 막는 방법이다.<br/><br/> 간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색전술을 시행한 후에도 병변이 진행하는 환자들은 존재한다. 이처럼 특정 치료법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의 경우 본인의 상태나 적합한 치료 조건 등을 고려해 다른 치료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윤준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색전술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고 색전술로 긍정적인 치료 예후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에 따라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때 무조건 반복해 색전술을 시행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환자의 치료 병기에 따라 색전술 등 기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간암이 진행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나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 이에 2014년 대한간암학회와 국립암센터와 함께 개정한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는 국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간암 진단과 이에 맞는 치료법에 대한 연구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권고안이 담겼다. 여기에는 간기능과 양호한 전신상태를 가진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국소 림프절과 폐 등의 간외 전이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치료법들에 반응하지 않고 암이 진행하는 경우 표적치료제 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br/><br/>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암에 대한 표적치료제는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연구를 통해 위약군 대비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3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유방암 발병 연령 점점 낮아진다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43651  
본문: 국내 유방암 환자가 지난 16년 동안 5배가 늘었고, 현재 20대 여성이 70대가 되면 13명 중 1명은 유방암에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유방암학회(회장 정성후·이사장 한세환)는 지난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 유방암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br/><br/> ◇젊은 층 유방암 발병 증가 전망=조사 결과 유방암 신규 환자가 1만7792명 발생해 16년 사이 약 5배 이상 늘었다. 여성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상피내암/진행성 유방암 포함)도 70.7명을 기록 지속해서 늘고 있다. 젊은 층의 생활 습관이나 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유방암 발병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빨라진 초경 연령, 낮은 출산율과 모유수유 감소 등으로 전 생애 중 여성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유방암학회는 전국 20∼50대 여성 1000명(연령대별 각 250명)을 대상으로 유방암에 영향을 주는 인자 나이, 신장, 체중, 폐경 여부, 모유 수유 여부, 가족력, 유방특수검사 시행 여부, 초산 연령 조사를 통해 유방암 발생률을 예측했다. 그 결과 현재 50대 여성이 74세까지 생존 시 유방암 발병 확률이 3.14%인데 비해 20대 여성이 같은 나이까지 생존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7.42%로 위험도가 약 2.4배 높았다. 지금 20대인 여성 13명 중 1명은 유방암 환자가 될 위험이 있는 셈이다. 같은 나이까지 생존시에도 유방암 발병 확률이 달라지는 것은 비교적 젊은 층인 20∼30대와 중년층인 40∼50대의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한 탓이 컸다. 젊은 층일수록 유방암 원인 중 하나인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br/><br/> ◇연령별 검진과 생활습관 개선해야=최근 유방암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어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0기나 1기에 암을 진단받는 비율이 57.5%로 상승했다. 자기 유방을 보존하는 부분 절제술 역시 계속 상승 중이다. 0∼2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에 달한다. 한국유방암학회는 연령별로 조기검진 권고 지침을 만들었다. 30세 이후에는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권하고,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 검진,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을 할 것을 권한다. 고위험군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위험 인자 중 스스로 조절 가능한 요소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알코올을 하루 10g(알코올 40% 위스키 25㎖, 25% 소주 40㎖, 12% 포도주 85㎖, 맥주 250㎖)을 이상 섭취하면, 폐경 여부와 관계없이 유방암 발생위험이 7∼10% 정도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음주는 삼간다.<br/><br/> 포화 지방 섭취량이 많을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주일에 5회 이상 45분∼1시간 정도 하는 운동과 채소 및 과일 섭취는 유방암 위험을 감소시키는 인자로 꼽힌다. 특히 폐경 후에는 지방 조직이 에스트로겐의 주된 공급원이므로 체중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세환 유방암학회 이사장(아주대병원 유방암센터장)은 “세계보건기구도 한국을 유방암 위험이 큰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젊은 여성은 활발한 사회 진출과 변화한 생활로 정기적인 검진이 더 중요해졌다. 음주, 식생활, 운동 등 스스로 조절이 가능한 인자에 신경 쓰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면 유방암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3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췌장암 치료 보장성강화 어떻게?… 선택 가능한 약제 적어 급여확대 더욱 절실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38674  
본문: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지난 6일 '생존율 한자리수 췌장암, 치료 보장성강화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28회 고품격 건강사회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들은 췌장암의 국내 현황과 심각성, 해외 치료보장 사례, 치료보장 실태 및 보장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나누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했다.<br/><br/>◇주제= 생존율 한자리수 췌장암, 치료 보장성강화 무엇이 필요한가<br/><br/>◇일시= 2015년 11월 6일 오후 3시<br/><br/>◇참석자= 임상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장, 허윤정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박준오 성균관대 의대 혈액종양내과 교수, 박노미 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사<br/><br/>◇진행= 김단비 쿠키뉴스 기자<br/><br/>◇연출= 정현호 쿠키건강TV PD<br/><br/>◇방송= 2015년 11월 16일 오후 7시<br/><br/>-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단골 불치병 췌장암은 어떤 질병<br/><br/>◇박준오= 내가 늘 환자에게 하는 이야기는 암은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인데 췌장암은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병 중 하나이다. 매년 약 500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망건수도 비슷하다. 이런 암은 그리 많지 않은데 그만큼 예후가 안 좋다는 뜻이고, 일반적으로 조기진단해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약 20%이다. 특히 췌장암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생존율이 8%로 두 자리 수를 채우지 못한다.<br/><br/>◇박노미= 내가 근무하는 병원의 2014년도 췌담도암 신환자 대비 수술건수 비율을 봤는데 췌담도암 환자들에 있어서 수술하는 비율이 약 34%였다. 이 말은 반대로 66%의 환자들은 진행된 췌장암으로 내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br/><br/><br/>-췌장암 치료 보장성은 어느 정도<br/><br/>◇박노미= 현재 췌장암 항암치료에 있어 약제비 본인부담이 100%인 약제들이 더 많다. 이것은 아마 다른 암종 보다도 약제의 선택 옵션이 적고, 신약이라고 표현하는 표적치료제도 췌장암에는 없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에서 오히려 더 혜택을 못 보는 것 같다.<br/><br/>◇혀윤정= 예후가 좋지 않아 환자들이 질병 그 자체로도 굉장히 힘든데 치료를 위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한다.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이기에 췌장암처럼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은 우선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br/><br/>◇임상희= 암 종별로 당연히 환자가 느낄 때에는 보장강화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친 약제는 허가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약제 자체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약제의 종류가 굉장히 적어 허가초과 부분에서 약제를 사용하게 된다. 췌장암에서 아마도 이런 전액 본인부담 약제가 많은 것은 정식으로 허가된 약제가 적어 그런 것 같은데 최근 췌장암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약제가 몇 가지 있어 심평원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급여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br/><br/>◇박준오= 좋은 치료방법이 있는데 환자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하는 것은 사실 의사로서 가끔은 자괴감이 들게 한다. 췌장암을 주로 치료하는 종양내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적어도 매년 치료가이드라인, 지침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등재된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제가 있으면 더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제약회사가 아닌 연구자 주도의 임상연구를 활성화 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재원을 아끼면서 환자한테는 최상의, 최선의 치료를 빠르게 도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br/><br/>◇허윤정= 급여가 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한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이 의료진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재원이 아니라 제도가 막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br/><br/><br/><br/>-췌장암 항암치료의 급여확대, 현재와 나아갈 방향은<br/><br/>◇박준오= 췌장암치료의 대표적인 약은 젬시타빈으로 20년 넘게 가장 많이 쓰이고 유일하게 급여가 되고 있는 약제이다. 또 젬시타빈과 다른 약을 병용해서 사용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실패를 했지만 몇 가지 약제가 효과를 보였다. 엘로티닙이라는 표적치료제와 나노파티클 알부민에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를 접목시킨 신약(아브락산)이 있는데 이 약을 젬시타빈과 병용했을 때 훨씬 더 치료 성적이 좋다는 내용이 최근 발표됐다. 1차 요법이 효과가 있다면 의학적으로 볼 때 2차 요법도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췌장암의 경우 2차 요법으로 보험급여가 되는 약이 거의 없어 환자의 1차 치료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보험으로 쓸 수 있는 약이 없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br/><br/>◇임상희= 젬시타빈을 기본으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것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고, 아브락산 병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효과가 개선된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조만간 확대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유방암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췌장암에 급여 확대가 되면 약가인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급여에 반영이 될 것 같다. <br/><br/>◇박노미=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제가 비급여 항목입니다”라는 설명을 하면 사실 환자들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보험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라에서 5년 동안 보험을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고 많이 물어본다.<br/><br/>◇허윤정= 모든 암, 모든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면 다 행복하겠지만 불가능 하다면 전문가가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약제들은 시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환자들도 희망이 보이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생명이 훨씬 더 앞에 있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도가 먼저 진행돼야 이후에 무엇을 급여화 할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다.<br/><br/>◇임상희= 정부에서 허가초과부분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각계의 전문의들이 모인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신청된 내용을 협의해 허가초과지만 꼭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열어놓고 있다. 특히 급여의 기준은 당연히 의학적으로 타당해야 하는데 3상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에서 만든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피어 리뷰가 된 SCI에 등재된 논문을 기준으로 평가해 의학적 타당성, 대체약제 여부, 대체약 대비 비용효과성, 개선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싼 만큼 개선 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급여권으로 최대한 흡수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심평원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으면서 또 근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내년까지 열심히 하면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br/><br/>◇박준오= 최근 큰 두 가지 획기적인 연구가 있었다. 한 가지는 기존의 대장암 위암에 쓰는 약을 이용한 연구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나노파티클에 알부민을 씌워 안에 항암제를 넣은 새로운 기법의 약제인 아브락산을 젬시타빈이라는 기존 항암제와 병용 사용 했을 때 젬시타빈 단독보다 훨씬 더 생존율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되었다. 시급하다면 이런 약제들이 필요 할 것 같다. <br/><br/>◇임상희= 심평원에서 조사를 많이 해서 허가 범위에 해당 되는 것은 필수적으로 급여를 하려고 목표로 잡고 있다. 췌장암 치료제 두 건 정도를 검토 진행 중에 있는데 조만간 확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기는 아무래도 약가인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조정은 되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검토가 마무리 될 거라고 생각한다. 심평원의 급여기준안 검토는 거의 끝났고 약가인하만 조금 남은 상황으로 가능성이 크다. <br/><br/><br/><br/>-효과적인 치료제의 등장과 보험적용의 어려움<br/><br/>◇박준오= 일단 기존의 치료방법에 대해 아브락산과 젬시타빈을 병용하게 되면 생존기간이 2개월 정도 증가가 된다. 2개월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1년을 채 못사는 췌장암 환자에서 평균적으로 2개월이 늘어나는 것은 엄청난 효과이다. 좀 더 고무적인 임상의 결과는 젬시타빈과 아브락산을 병용한 환자들이 1년, 2년 넘어서까지 사용하면서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환자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2년 생존율이 췌장암에서 20%가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이다. 물론 젬시타빈 단독에 비해 아브락산과 병용하면 몇 가지 부작용이 약간 늘어나지만 부작용을 제하더라도 부작용에 비해 생존기간이 향상되고 오랫동안 효과가 유지 된다는 부분은 엄청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br/><br/>◇박노미= 환자와 의료진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사실 환자들은 완치를 목표로 하는 부분이 더 크다.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근거가 있는 명확한 정보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췌장암 환자들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br/><br/>◇허윤정= 환자수가 적기 때문에 보험에 등재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 환자가 많은 질환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췌장암같이 예후가 나쁜 질환에 있어서는 가중치를 줘서라도 기회를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br/><br/>◇박준오= 치료는 진화를 한다. 현재 연구결과는 전이성 췌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2개월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킨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효과 같지만 이런 치료방법이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췌장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 다만 현재 나온 연구결과는 4기암 연구 결과에서 상징적인 결과일 뿐이지 결국은 전체적인 췌장암 환자들의 치료성적을 보면 앞으로 한 가지 약제가 개발됨으로써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희망이다. 정리= 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3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새 피로 바꾸면 몸에 좋습니다”… 일부병원 무분별 ‘혈액정화요법’ 기승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41093  
본문: 일부 병원에서 환자의 피를 뽑아 일정 과정(일명 정화)을 거친 후 혈액을 몸속으로 되돌려 보내는 이른바 '혈액정화요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시술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 시술이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br/><br/> 혈액정화요법 치료비는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에 달한다. 본지 취재 결과 환자들은 이 치료에 드는 비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노화방지, 뇌졸중 예방 등에 효과가 좋다는 말에 현혹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실제 혈액정화요법 시술을 받아 효과를 받았다는 김미자(가명·52)씨의 경험을 통해 해당 치료 과정을 확인했다. 지난 2014년 4월 집에서 청소를 하다 갑자기 쓰러진 김씨. 그는 응급실에 남편과 함께 들렀다고 했다. 혼수 상태였던 김씨는 뇌졸중이 의심돼 급히 응급실에서 CT와 MRI 촬영을 했는데 별다른 이상 증세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응급실에서 몇 시간 지나 증상이 호전이 됐고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어 귀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물 밑에 가라앉는 기분처럼 머리가 멍했다”며 “이러한 증세를 고쳐보고자 혈액순환제나 오메가3를 먹어도 호전이 없었다. 이후 혈액정화요법에 대해 알게 됐고 병원에 들러 약 4시간에 거쳐 피를 뽑아 혈액을 정화하는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br/><br/> 시술 과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취재 결과, 이 병원은 환자의 팔이나 대퇴부, 목에 2개의 주사를 꼽고 주사 2개를 이용해 시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주사에서는 탁한 혈액을 혈액 정화기로 보내고, 나머지 하나의 주사를 통해 정화된 혈액을 다시 몸속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이다. 시술 시간은 약 4시간 정도다. 김씨는 “<span class='quot0'>목에 관을 삽입하고 투석기를 이용해 약 4∼5시간에 거쳐 피를 뽑아 정화시킨 뒤, 다시 정화시킨 맑은 피를 내 몸에 넣는 시술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시술을 받은 후 머리가 멍해진 게 나아진 듯 했다</span>”고 말했다. 김씨는 작년과 올해 두 번 해당 병원에서 혈액정화요법을 받았고, 시술 비용 약 400만원을 지불했다. 그는 시술 효과가 좋다고 여겨져, 주변에도 시술을 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신장 투석환자들에게 쓰이는 시술이 일반인들에게도 나쁠 이유가 없지 않겠냐</span>”며 “<span class='quot0'>일각에선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위험한 시술인지 모르겠다</span>”고 전했다.<br/><br/> 실제 부산 A병원에서는 이 혈액정화요법을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유발물질, 노화물질, 각종 바이러스, 중금속 등 해로운 노폐물을 걸러내는 요법이라고 정의했다. 혈액정화요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질환도 다양하다고 밝히고 있다. 뇌졸중 치료 및 예방, 심근경색 치료, 혈관성 치매, 천식과 아토피 개선, 발기부전 개선, 뇌졸중, 시력과 망막 질환 개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은 혈액정화요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노화 및 식생활 영향으로 혈액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혈액이 탁해지고 끈끈해져 우리 몸 미세혈관까지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어렵게 된다. 혈액을 맑게 하여 뇌졸중, 관상동맥질환을 개선하게 하는 것이 이 요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병원 뿐 아니라 서울,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1회당 200∼500만원하는 고가의 검증되지 않은 혈액정화요법을 버젓이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br/><br/> 그렇다면 혈액정화요법은 왜 위험할까? 한 신장내과 전문의는 “혈액 투석은 콩팥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술이다. 건강한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라며 “피를 걸러내서 외부로 보내고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혈액이 다시 주입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통과할 수 있고 혈소판, 혈구 세포들이 깨지면서 각종 감염 및 부작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진 사람이 외부에서 피를 걸러내어 다시 피를 주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이유도 없고, 혈액정화요법이 뇌졸중 등 각종 질병에 좋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br/><br/> 그렇다면 혈액정화요법 시술은 합법적인 의료행위 일까? 이에 대해 노환규 전(前)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의료 윤리에 위배될 수 있다. 의사들이 수익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시술을 감행할 경우 결국 피해는 환자 몫이 된다”며 “변호사에게도 윤리에 저촉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징계권이 있듯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기구를 만들어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징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br/> 또한 노 전 회장은 “의사들이 저수가로 인해 ‘돈 되는 시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특정 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해 병원이 치료행위를 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 병원들이 하는 의료행위가 의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임의비급여 행위라는 점에서 불법 소지가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장윤형 기자 <br/><br/>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35.txt

제목: [얼굴] 그들 ‘가족’에게는 스무가지 미소와 행복이 있다…  
날짜: 2015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09090  
본문: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 가족의 ‘가족’이 되는 이들이 있다. 2002년 처음 만들어진 ㈔여울돌(yeouldol.com)은 한번 지원을 결정하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그동안 후원한 어린이 중 3명은 어느덧 성인이 됐다. 7명은 후원이 끝나기 전 하늘나라로 갔다. 여울돌은 지금도 20명을 돌보고 있다.<br/><br/><br/>여울돌은 지난 7일 경기도 파주시 문화공간 문리버파크에서 ‘눈물꽃’ 콘서트를 열었다. 희귀질환이나 발달장애 어린이를 둔 30가정을 초대했다. 모금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그 가족을 위로하고 함께 있다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만든 행사였다. 박봉진(40·흑석제일성결교회) 여울돌 대표를 최근 만나 여울돌과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박 대표의 체구는 자그마했다. <br/><br/>운영진 활동 원리, 무급으로 자원 봉사<br/><br/> 이사장인 박 대표를 비롯해 이사 9명, 여울돌 활동을 지원하는 기획·홍보·촬영팀 스태프 25명은 전원 무급이다. “<span class='quot0'>저희 스태프는 2002년 인터넷 포털 다음에 개설된 카페 ‘원경아 힘내라’에서 만났어요.</span>” 여울돌은 2002년 5월 KBS 다큐멘터리 ‘병원 24시’에 희귀질환을 앓고 있던 신원경(당시 4세) 어린이의 이야기가 방송됐다. 여울돌은 ‘하이퍼 아이지엠 신드롬(Hyper IgM Syndrome·선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린 원경이를 돕기 위해 같은 해 12월 만들어졌다. 처음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에 스태프만 50명 가까이 됐다.<br/><br/> “원경이를 돕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지 의논했어요. 대부분 20대 초중반 대학생이었죠. 서울 스태프 중에는 고교생도 5명이나 있었어요. 그때 전 27세였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선배랑 이벤트 업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모인 친구들 중에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여울돌 대표가 됐어요(웃음).”<br/><br/> 여울돌 운영진 대부분은 크리스천이다. 김은정 부대표는 남동생이 원경이와 같은 희귀병으로 20세 무렵 숨진 아픔을 갖고 있다. 김 부대표는 동생처럼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여울돌 활동을 하게 됐다. 10여년 전 대학생이던 스태프들은 현재 사회복지사, 비영리기관 간사, 목회자 등으로 일하고 있다. “이사장인 저를 비롯해 전원이 각자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울돌 활동은 봉사입니다.”<br/><br/> 눈물꽃 콘서트 무대에 서는 가수, 진행자도 모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현대기독교음악(CCM) 아티스트인 강찬 전도사님과 유은성 전도사님은 초기부터 저희를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2007년까지 매년 전국을 돌면서 후원 콘서트를 열었어요. 올해 콘서트는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마련했고 모두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br/><br/><br/><br/> 여울돌 재정원칙, 후원·운영 계좌 분리<br/><br/> ‘유리공주’로 불리던 원경이를 후원하기 위해 출발한 여울돌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후원 아동을 늘렸다. 지금까지 정기 후원한 아동은 30명. 격월로 매월 20만원을 가족에게 지원해 왔다. 비정기 콘서트와 모금으로 전국 각지에서 후원한 아동까지 합하면 60명이 넘는다. “여울돌은 처음부터 후원계좌와 운영계좌를 분리해 운영했어요. 아동 후원을 위해 모금되는 돈은 모두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했어요.”<br/><br/> 후원계좌를 아동을 위해 쓰고, 운영계좌는 단체 유지를 위해서만 쓴다는 얘기다. 다수의 후원 단체가 조직 유지라는 실질적 이유와 효율적 분배라는 편의를 위해 후원과 운영계좌를 분리하지 않는다. “<span class='quot0'>후원자들이 아동을 위해 낸 돈을 아동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건 ‘정직’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span>”<br/><br/> 여울돌은 이 원칙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 한번 후원을 결정하면 만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한다. “정기적으로 후원한 아이들 서른 명 중에 원경이를 포함해 7명은 하늘나라로 갔어요. 3명은 만18세가 될 때까지 후원을 했고 성인이 됐어요. 올해 3월 골수이식 수술을 한 친구는 내년 3월 완치를 기대하고 있어요.”<br/><br/> 박 대표는 도움이 필요한 후원할 아동가정을 직접 찾아다녔다. “얼마나 도움이 절실한지 직접 만나요. 만나야 서로 알게 되고 친해지기도 하죠.” 후원 아동들은 그를 ‘삼촌’이라고 부른다. 2008년 박 대표가 결혼하기 전엔 ‘총각 아빠’로 불렸다. 한 아동 어머니는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걱정해주는 분들은 여울돌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br/><br/><br/><br/> 이사장 취업규칙, 여울돌의 활동 보장<br/><br/> 박 대표를 만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성산로에 있는 그의 직장 근처로 갔다. 그는 ‘바베파파’라는 유아용품 업체에서 일한다. “<span class='quot0'>실은 제가 이 회사에 올 때 여울돌을 소개하고, 여울돌과 관련된 활동을 업무시간 중에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어요.</span>” 박 대표의 취업규칙은 ‘여울돌 활동 보장’이었던 것이다. 네 차례 직장을 옮길 때마다 여울돌의 취지와 활동을 이해해주는 회사로만 갔다. <br/><br/> 병약했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약한 아이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대학 입학 후 고아원 등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녔다. 2002년 여울돌 조직 후 이듬해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았다. 간병과 직장일을 하면서 여울돌 일을 했다. “하나님이 후원자 기도자 아이들 가족들을 연결해주셨어요. 억지로 하려고 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br/><br/> 그는 대화 중 “<span class='quot0'>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죠</span>”라는 말을 자주 했다. 2009년 그는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망막색소변성증(RP)이라는 희귀병 판정을 받았다. 시야가 좁아져 결국 시력을 잃게 되는 병이다. 4000명 중 1명꼴로 걸린다고 한다. “진단 받고 담담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밤눈이 어둡고 주변을 잘 못 보는 게 그것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br/><br/> 그는 자신의 시력이 허락하는 한 여울돌 일을 계속 할 예정이다. 2008년 직장동료와 결혼한 그는 3세 아들과 딸 쌍둥이의 아버지다. “우리 쌍둥이에게 제 병이 유전되진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런 그를 걱정하는 아이도 있다. “예지란 아이는 ‘해가 짧아져서 삼촌이 걱정이 된다’고 해요. 어두워지면 제가 앞을 거의 못 보거든요.”<br/><br/> 박 대표가 후원하는 아이도 박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는 가족인 셈이다. 그렇게 여울돌을 만든 사람, 여울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후원을 받은 아이, 아이의 가족까지 모두 서로에게 의지한다. 사단법인 여울돌이 여울의 맑은 물소리 같은 사랑의 하모니를 만들고 있다.<br/><br/>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36.txt

제목: [추수감사절] 여수 개도 월항교회 “바다, 땅에서 풍요를 주셨네”… 섬 교회의 풍요로운 감사주일  
날짜: 2015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10723  
본문: 12일 오후 전남 여수 앞바다에 있는 개도 월항교회에 도착하자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주민 500여명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개도는 여수 백야선착장에서 배로 20여분 거리에 있다.<br/><br/> 성도들은 바닷가가 훤히 보이는 교회 앞에 추수한 쌀을 비롯해 호박 고구마 모과 무 감 유자 볼락 전어 문어 등 농수산물을 잔뜩 쌓아놓았다. 한 해 동안 정성껏 수확한 농작물과 물고기들이다.<br/><br/> 이 교회 김본암(63) 장로가 이른 아침에 잡은 문어를 손에 들고 “그놈, 참 잘 생겼네”라고 자랑을 하자 찬양 인도를 하는 이강엽(68) 권사는 “<span class='quot0'>우리 집에서 재배한 고구마가 제일 토실토실하고 크고 잘생긴 것 같아</span>”라며 맞장구를 쳤다.<br/><br/>성도들은 올 한 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둘 털어놨다. 성도들의 감사함에는 추수의 기쁨만 있지는 않았다. 91세 장가심 할머니는 “건강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주일예배 때마다 일찍 교회에 도착해 기도드린다”고 고백했다.<br/><br/> 김월례(87) 집사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 주일이 제일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교회생활 3년째인 정인혜(86) 성도는 “올해는 집에 불이 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교인들이 도와줘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금석(74) 집사는 “암에 걸려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지만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다”면서 “이제 항암치료를 두 번만 더 받으면 된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고마워했다.<br/><br/> 이 교회 김종수(67) 담임목사는 숨겨왔던 더 큰 감사의 사연을 밝혔다. 김 목사는 “<span class='quot1'>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목사안수까지 받게 하셨다</span>”며 “<span class='quot1'>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span>”고 간증했다.<br/><br/> 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했다. 조실부모한 그는 열여덟 살에 고향 여수를 떠나 상경했다. 놀고먹다 보니 나쁜 친구와 어울렸고 폭력조직에 가입했다. 죄의 깊이가 날로 더해갔다. 서울 영등포 ‘백마파’ 두목이 됐다. 후배 100여명의 생활까지 책임졌다. 세력 다툼이 이어졌다. 결국 그는 다섯 번이나 수감생활을 반복했다. <br/><br/>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됐다.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려 밤마다 몸부림쳤다. 출소 후 전남 순천 목장개발원 현장에서 나무 베는 일을 감독하면서 한 목회자의 인도를 받아 교회생활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 <br/><br/> 닭똥 같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비둘기 같은 평화가 영혼을 감쌌다. 난생처음 누리는 안식이었다. 이후 그는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다. 자신의 안위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됐다.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총회신학원 부설 여수 성경신학교에서 3년간 성경을 공부했다. 이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고 서울 홍은동 개혁신학원을 졸업했다.<br/><br/> 그는 칼빈대 신학생 이순주(58) 사모와 1987년 결혼한 뒤 2년간 경기도 안양에서 목회를 하고 1990년 7월 이 마을에 왔다. 월항교회가 후임 목회자가 없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농어촌 목회를 자원한 것이다. <br/><br/> “지난날의 잘못이 너무 크기에 조금이나마 뉘우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이 외면하는 도서 벽지를 택했고 외딴 섬 월항교회로 부임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 목회자로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br/><br/> 당시에는 개도로 오려면 여수 뭍에서 두 시간가량 배로 이동해야 했다. 개도 선착장에 내려서도 한 시간을 걸어야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세 살배기 딸은 김 목사가, 두 살인 아들은 이 사모가 안고 걸었다. 교회에 도착해 보니 예배당 벽돌 사이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비가 오면 빗물이 새는 예배당, 고개를 들고는 들어갈 수 없는 오두막 사택이 전부였다. 이런 환경에서 노인과 여성 성도 9명이 첫 예배를 드렸다. 김 목사는 이날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다. 그동안 살아온 힘들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기 때문이다. <br/><br/> 그때부터 함께해 온 박선자(65) 권사는 “목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회개와 구원을 강조하셨다”며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 말씀에는 힘이 있고 성도는 물론 마을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신다”고 말했다.<br/><br/> 어느덧 이곳에서 김 목사 부부는 26년의 세월을 보내며 목회를 해 왔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바닷가가 보이는 언덕에 작지만 아름다운 예배당과 식당을 신축했고 방 3개가 딸린 아담한 사택도 지었다.<br/><br/> 김 목사 부부는 이 마을 26가구의 복음화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김 목사는 마을주민의 집에 전기나 수도 등이 고장 나면 만사를 제쳐 두고 달려간다. 사망한 주민과 유가족들을 위해 장례예배를 드리는 것도 김 목사 부부의 사역 중 하나다.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자살을 하려던 청년을 구해 목회자로 만든 일도 있었다.<br/><br/> 김 목사는 평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다. 세상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월항교회의 올해 목표는 ‘내 집을 채워라’(눅 14:23)이다. 가족 복음화와 월항마을 복음화, 무교회 섬 복음화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다. <br/><br/> 김 목사는 “부족한 종”이라며 “<span class='quot1'>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없었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걸어오는 격려의 전화나 성도들이 감사하다며 놓고 간 쌀과 음식 등 작은 정성도 소중한 힘이자 큰 격려가 된다고 했다.<br/><br/> 김 목사는 교회 사역이 행복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 고된 사역이지만 앞으로 농어촌 목회를 돕는 손길이 많이 늘어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br/><br/> 물론 교회 앞날에 청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느 농어촌교회처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마을사람 대부분이 노인이어서 이분들이 숨을 거두면 농어촌 마을은 무인촌이 되고 교회는 자연스레 문을 닫아야 한다. <br/><br/> 김 목사 부부에게는 작지만 큰 소망이 있다. 아프고 병든 마을 노인들을 모시고 사는 교회 겸 요양원인 ‘소망의 집’을 건립하는 것이다. <br/><br/> 김 목사는 “힘들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며 “마을주민을 섬기고 말씀으로 치유 받는 참된 교회로 거듭나고 싶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름도 빛도 없는 농어촌교회 목회에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br/><br/>개도(여수)=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37.txt

제목: 대한췌담도학회, 13일 췌장암의 날 행사 개최  
날짜: 20151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107971  
본문: 대한췌담도학회(이사장 김호각)는 한국췌장외과연구회(회장 김송철), 한국췌장암네트워크(대표 김선회) 등과 함께 세계 췌장암의 날을 맞아 13일 오후 4∼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br/><br/> 학회는 또 이달 말까지 국내 암 발생률 8위, 암 사망률 5위에 이르는 췌장암의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질환 인지도를 높이는 췌장암 바로알기 순회강좌를 전국의 주요 병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38.txt

제목: ‘코끼리 팔’ 희귀병에 지체장애·종양·폐렴까지… 네팔 소녀 손잡아 주는 희망의 손  
날짜: 20151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946628  
본문: 누군가는 손을 잡아줘야 한다. 혼자서는 세 걸음을 채 걷지 못한다. 9살 소녀는 키 104㎝, 몸무게 20㎏의 작은 몸으로는 버티기 힘든 크고 무거운 오른팔을 갖고 있다. 팔 때문에 자꾸 오른쪽으로 쓰러진다.<br/><br/> 지난 5일 경기도 고양 명지병원 9층 병실에 누워 있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퉁퉁한 오른손을 건넸다. 코끼리 다리처럼 크고 거칠었지만 따뜻한 체온과 함께 작고 예쁜 마음이 느껴졌다. 아이의 이름은 풀 마야. 네팔어로 풀은 꽃, 마야는 사랑을 뜻한다. 네팔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따망족인 소녀는 다딩 지역의 한 산골에서 태어났다.<br/><br/> 지난 5월 마야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나눠주는 쌀을 받으러 길게 늘어선 줄 속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4월 네팔을 덮친 대지진으로 마야네 집도 무너졌다고 했다. 얼굴보다도 더 큰 오른손은 금방 눈에 띄었다.<br/><br/> 구호활동을 하던 장성란(57) 선교사가 말을 걸었다. 하지만 말이 없었다. 대신 엄마가 답했다. 지체장애를 앓고 있어 말이 어눌하다고 했다. 마야는 7개월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태어났을 때부터 오른손이 굵었는데 자라면서 손과 팔이 계속 커졌다고 했다. 무거운 팔 때문에 6살이 돼서야 엄마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일상생활은 불가능했다. 마야의 병은 희귀난치성 질환인 ‘선천성 윤상 수축대 증후군’이었다.<br/><br/> 네팔의 병원에서는 오른팔을 잘라야 한다고 했다. 그 팔과 손을 지켜주고 싶었던 장 선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메신저를 통해 마야의 사진과 소식을 알렸다. 마침 네팔에서 구호활동 중이던 지구촌사랑나눔의 김해성(54) 목사가 소식을 접했다. 김 목사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명지병원과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단체 등이 나섰다.<br/><br/> 마야는 아버지 상커 빌(47)씨와 함께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태어나 처음 탄 비행기였다. 부녀는 카트만두로 가는 길에 옷가지를 담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아버지는 새까만 흙이 묻은 딸의 슬리퍼를 품에 안고 휠체어를 밀었다. 서울 구로구의 이주여성지원센터에서 며칠 지내다 지난 2일 명지병원에 입원했다.<br/><br/> 의료진의 진료결과 오른팔만 문제가 아니었다. 불룩한 배 안에서 종양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암일 수도 있다.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평소 기침을 자주 하던 마야는 폐렴도 앓고 있었다.<br/><br/> 조직검사를 위해 하루 저녁을 굶은 마야는 6일 오후 병실 안에 있는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가만히 바라보다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TV 속 염소만 물끄러미 쳐다보다 네팔의 집안일이 걱정됐는지 “빨리 수술을 마치고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팔이 왜 퉁퉁 부었는지, 배 안에 종양이 왜 있는 건지, 언제쯤 집에 갈 수 있는지를 9살 소녀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김 목사는 “<span class='quot0'>치료를 안 하고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냐</span>”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br/><br/>김판 기자 pa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39.txt

제목: 적색·가공육 매주 2회 섭취 땐 대장암 발병률 18% 높아진다… 옥스퍼드대 연구팀 발표  
날짜: 2015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707620  
본문: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가공육과 적색육을 발암물질로 분류한 가운데 가공육이나 적색육이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또 나왔다.<br/><br/>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팀 키 옥스퍼드대 교수와 캐스린 브래드버리 박사는 3일(현지시간) 리버풀에서 열린 국립암연구소(NCRI) 학술회의에서 적색육이나 가공육을 1주일에 2번 먹는 사람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병 가능성이 1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br/><br/> 또 가공육을 1주일에 4번 먹는 사람은 같은 기간 1번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병률이 42%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br/><br/> 연구팀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0∼69세 남녀 50만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발병률은 흡연에 비하면 훨씬 낮은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 이번 조사에서 1주일에 적색육이나 가공육을 4번 먹는 경우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00명에 78명 정도였다. 2011년 영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인구 1000명당 약 66명인 것에 비해 조금 높은 수치다. 국내 대장암 발병률은 201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약 57명이다.<br/><br/> 의외의 결과도 나왔다. 연구에서 과일, 채소, 곡물 등 식이섬유 음식을 다량 섭취한 사람은 적게 섭취한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병률이 그다지 낮지 않았다.<br/><br/> 국내 암 연구기관인 국가암정보센터는 대장암 발병 위험을 낮추기 위해 채소를 하루 200g 이상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해 왔다.<br/><br/>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40.txt

제목: 암환자 ‘악성 위출구 폐쇄’ 위험 방지 새 스텐트 ‘웨이브’ 국내 의료진이 개발  
날짜: 2015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506907  
본문: 소화기관 암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악성 위출구 폐쇄’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새 스텐트(금속성 그물망)가 국내 의료진에 의해 개발됐다.<br/><br/>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상협(사진) 교수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원자력병원 등 5개 병원 의료진과 함께 악성 위출구 폐쇄증을 막는데 효과적인 ‘웨이브’(WAVE)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br/><br/> 악성 위출구 폐쇄란 암이 위 출구를 침범해 음식물이 넘어가는 장관이 좁아지고(협착) 막혀서(폐쇄) 영양공급 및 소화 기능을 상실하는 병이다. 위·식도암 등 소화기관 암 환자들이 흔히 겪는 합병증이다. 내시경을 이용, 막히거나 좁아진 장관 부위에 스텐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예방한다.<br/><br/> 이 교수팀이 개발한 웨이브는 자가 팽창형 금속성 스텐트(SEMS)의 일종이다. SEMS에는 피막(皮膜)형과 비(非)피막형이 있다. 피막형은 겉을 싸는 막이 있어 암이 스텐트를 침범하기 어려운 반면 스텐트를 고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단점이다. 또 비피막형은 스텐트를 고정시키기가 쉽지만 방어막이 없어 암세포 공격에 쉽게 뚫린다.<br/><br/> 웨이브는 이런 피막형과 비피막형의 단점을 모두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스텐트가 쉽게 고정되도록 양쪽 끝을 피막이 없는 나팔 형태로 만들었으며, 암세포가 침범하지 못하게 피막을 입혔다.<br/><br/> 이 교수팀은 위출구 폐쇄증 암 환자 102명을 각 51명씩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실험군에는 웨이브를, 대조군에는 비피막형 SEMS를 시술한 후 16주간 관찰했다.<br/><br/> 그 결과, 실험군의 스텐트 개통률(68.6%)이 대조군(41.2%)보다 27.4%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시술 후 스텐트의 재협착(막힘)률은 실험군(7.1%)이 대조군(37.7%)보다 대폭 낮게 측정됐다. 재시술 빈도도 실험군(14.3%)이 대조군(37.8%)보다 낮았다.<br/><br/> 연구결과는 미국소화기학회지 ‘아메리칸 저널 오브 가스트로엔테롤로지’(AJG) 온라인판 최근호에 게재됐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41.txt

제목: 몸속에 쌓인 독소 대청소로 건강과 삶의 활력 찾는다  
날짜: 2015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522649  
본문: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성장기였던 60∼70년대에는 자동차를 오래 타 엔진이 마모되면 이를 보링(BORING)해 타곤 했다. 이 작업을 통해 자동차 수명을 연장시켰던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몸도 오래 사용하면 몸 곳곳의 기능이 퇴화되고 독소가 쌓여 질병을 유발한다.<br/><br/> 이런 우리의 몸을 3개월간 집중 관리해 후유증 없이 체중을 줄이고 독소를 빼는 해독건강프로그램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디톡스보링건강법’이다.<br/><br/> 이미 수많은 환자들에게 임상을 실시해 높은 효과를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디톡스보링건강법 이론을 만들어 낸 이는 경기도 일산 신경락한의원 조병준 원장(66세)이다.<br/><br/> 조 원장의 이 건강법 이론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현대인은 음식과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독소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반해 이를 배출시키지 못해 독소의 축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다 어느 수치를 넘어서는 순간 폭발해 질병으로 드러나 몸을 괴롭힌다는 설명이다. <br/><br/> “누구나 일생에 한번은 3개월 해독프로그램을 통하여 독소를 빼내주고 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독소가 다시 축적되지 않도록 식사와 생활 등의 습관을 단단히 고쳐주는 것이 제가 만든 건강법입니다,”<br/><br/> 조 원장은 “<span class='quot0'>병의 원인은 외인(外因)과 내인(內因)으로 분류되는데 외인은 세균성, 외상 등으로 인한 것으로 화농성염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병원치료로 금방 치료가 된다</span>”고 설명한다.<br/><br/> 허나 내인은 생활습관병이라 불리며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해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해 보통 지방 형태로 축적된다. 또 계속적인 염증물질을 배출해 세포와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등 동맥경화와 혈전의 원인을 만들게 된다. 바로 이것이 만성염증이 된다.<br/><br/> “만성염증의 양상은 변비, 비만, 만성피로, 어깨결림, 아토피 부종 등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혈압, 당뇨, 아토피, R.A, 치매, 암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약에 의존하지 말고 음식과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br/><br/> 조 원장은 “<span class='quot0'>내가 음식을 잘못먹어 병이 왔는데 음식을 바꾸지 않고 약만으로 결과인 병만 치료하려고 하니 병이 잘 나을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디톡스보링건강법은 음식을 바꾸고 병이 오는 습관들을 체크하여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현대의학의 발달로 외인, 세균성질환들은 많이 줄었다. 예방주사도 모두 세균에 대한 질병을 예방한 것으로 천연두, 홍역, 결핵, 폐렴 등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내인인 대사성질환들은 원인치료가 되지 않아 오히려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br/><br/> “원인과 증상이 같은 병들은 병원치료가 뛰어나지만 원인과 증상이 다른 병들은 철저한 관리로 잡아야 합니다. 변비, 만성피로, 당뇨, 아토피, 치매, 암 등 대사성질환은 동맥경화, 혈전이 원인인 병들로 독소의 축적을 막는 청혈해독이 꼭 필요합니다.”<br/><br/> 조 원장은 “<span class='quot0'>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35%의 사람들이 반건강 상태에 처해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미병(未病)상태로 아건강(亞健康), 회색지대라고도 불린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는 질병으로 가기 직전의 상태로 피로, 목과 어깨의 통증, 분노, 우울감, 소화불량, 불안감, 수면장애 등 7대 증상</span>”이라고 소개했다.<br/><br/> 보통 문제가 되는 독소의 축적에 의한 대사기능장애는 대부분 성인병으로 이어지는데 거의 과다한 내장지방이 동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br/><br/>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는 평생약을 통해 수치만 조절하는 것은 불순물을 축적시킬 뿐입니다. 약독에 의한 2차적인 문제, 뇌경색, 녹내장, 신부전 등이 많아지는 요즈음은 의학계 일부에서도 약물치료에만 의존하는 치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br/><br/> 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질환들은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겨서 보내야 할 곳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인체에서 자생력으로 압력을 높인 것인데 인위적으로 압력을 낮춰가면 뇌나 신장 등 주요장기에 보내야할 만큼의 혈액공급이 잘 안되어 시간이 갈수록 그쪽 부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br/><br/> “해독과 청혈이 근본치료가 됩니다. 독소가 과다한 내장지방을 제거해나가는 해독은 궁극적으로 약을 끊고 수치가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br/><br/> 조 원장은 최소 일생에 단 한번 이라도 해독치료(디톡스보링건강법)를 할 것을 권했다. 몇십년간 살아온 집정리를 안했으면 쓰레기가 쌓여 있고 곳곳에 먼지가 가득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변기도 하수구도 막혀 오물이 잘 내보내지질 않고 물탱크는 녹이 슬어 녹물이 나오고 문틀이 뒤틀어져 있으면 집에서 살기가 힘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br/><br/> “이런 집은 전문적인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하수구도 뚫어주고 물탱크도 청소를 하고 문틀과 유리창도 바꾸고 온 집안의 쓰레기는 내보내고 도배를 새로 하는 등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오래된 고택이라도 다시 몇십년 살아가는데 편리한 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해독원리를 인체에 적용, 정화시키면 극적인 몸의 변화를 누구나 체험하며 건강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게 된다고 확신합니다.”<br/><br/> 조 원장은 “<span class='quot0'>특히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에 따른 스트레스와 심방으로 인한 과식, 운동부족 등으로 건강을 해친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다</span>”며 “<span class='quot0'>교회 장로로서 목사님들의 경우 모든 면에서 신경 써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span>”고 밝혔다. 그동안 몸과 마음이 상해 열정도 의욕도 적어졌던 유명 목사님들이 많이 내원해 3개월간 해독치료프로그램을 받으시면서 새로운 열정과 집중력으로 목회에 다시 임하시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br/><br/> 인체를 해독시키는 3개월간의 디톡스보링건강법 실천을 강조하는 조 원장은 “<span class='quot0'>잘못된 음식,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에게 해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span>”라며 “<span class='quot0'>목사님과 사모님, 교역자들이 이 디톡스보링건강법 이론을 공부하셔서 성도들에게 강의를 해주셔야 한다고 여긴다</span>”고 말했다. 따라서 조 원장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의 건강강의 요청 만큼은 어떤 일보다 우선해 응하고 있다. (신경락한의원 031-902-2221)<br/><br/>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42.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36)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암센터 폐암팀] 폐암환자 최적 치료법 찾아 회의 또 회의…  
날짜: 2015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510208  
본문: 폐암은 말기에 이르도록 뚜렷한 증상이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만성기침, 가래 등 감기와 유사해 폐암을 의심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상당수의 폐암 진단 환자들이 암세포가 상당히 폐 안팎에 퍼진 다음에야 병원을 찾는 이유다.<br/><br/> 폐암은 또한 전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견 당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약 20∼3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이미 암이 많이 퍼져 수술로 깨끗이 도려내기 힘든 상태라는 얘기다.<br/><br/> 중앙암등록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폐암은 갑상선암과 위암, 대장암에 이어 4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발생빈도는 인구 10만 명당 43.9명꼴이다. 2012년 기준 신규 암 진단 환자 22만4177명 중 9.9%가 폐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있다.<br/><br/> 각 대학병원들이 암병원(암센터)을 설립하며 폐암센터(폐암클리닉)를 빼놓지 않고 운영하는 이유다. 그만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병원간 경쟁도 치열하다. <br/><br/> 폐암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의료기관은 어디일까.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폐식도암센터(센터장 조재일·흉부외과 교수)다. 치료율은 물론 진료 환자 수 측면에서 이 센터 폐암팀을 첫손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br/><br/> 삼성서울병원 폐암팀은 현재 국내 폐암 환자의 약 12∼13%를 떠맡고 있다. 최근 이곳 흉부외과 심영목(62)·조재일(60) 교수팀에게 수술을 받는 폐암 환자는 연평균 1400∼1500명, 혈액종양내과 박근칠(60)·호흡기내과 권오정(59·병원장) 교수팀한테 항암화학요법 및 표적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연평균 1000여 명에 이른다.<br/><br/> 표적치료제란 정상 세포와는 달리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유전적 변이를 식별하여 공격함으로써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를 가리킨다. 암세포가 성장, 증식하는 경로만 차단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의 향상뿐만 아니라 정상세포 손상 위험이 적고, 부작용 피해도 기존 항암제보다 훨씬 적다는 이점이 있다.<br/><br/> 삼성서울병원 폐암팀이 폐암 표적치료 및 수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드림팀으로 각광받게 된 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다학제간 팀워크가 큰 힘이 됐다.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 7개 진료과목 교수진 30여 명의 팀워크는 세계 최고 수준이란 평가를 받는다.<br/><br/> 폐암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치료 방법과 치료율에 큰 진전이 없었다. 60∼70년대 폐암 환자는 4∼5개월밖에 못 살았고, 항암화학요법이 등장한 1990년대에도 고작 6∼8개월밖에 살지 못했다. 항암제 치료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삼성서울병원 폐암팀은 이를 14∼16개월까지 연장시켰다. 5년 생존율은 평균 28.5%로 미국 병원 평균치(15.6%)를 크게 웃돈다. 1∼2병기 폐암의 경우엔 5년 생존율이 무려 82%, 72%에 이른다.<br/><br/>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암센터 폐암팀을 찾는 환자들은 초기 폐암환자뿐만 아니라 국소 진행성 혹은 원격 전이성 폐암 환자까지 다양하다. 이중 정확한 병기 결정 및 최선의 치료 방침 결정이 까다로운 국소 진행성(주로 3병기) 폐암 환자의 경우 환자 개개인에 대한 다학제 협진을 통해 최선의 진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칫 무모하게 수술을 했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br/><br/> 삼성서울병원 폐암팀은 이들 국소 진행성 폐암의 경우 환자들이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암의 크기를 줄여 주거나, 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춰주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폐암 치료 성적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원내외 연구자들과 공동 임상연구를 수행, 다수의 표준 폐암 치료 지침을 마련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43.txt

제목: “한국인 햄·적색육 섭취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 식약처, 공식 입장 발표  
날짜: 2015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535495  
본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햄·소시지·베이컨 등 가공육과 소·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류(적색육)를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 당국이 “우리 국민의 섭취 수준은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국내 식생활 실태 조사와 외국의 섭취권고 기준 등을 참고해 ‘적정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했다.<br/><br/>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차장은 2일 브리핑에서 “<span class='quot0'>IARC 분류는 가공육과 적색육의 과도한 섭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span>”고 밝혔다. <br/><br/> 국민영양조사결과(2010∼2013년)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은 하루 평균 6.0g 수준이다. 매일 가공육 50g을 섭취했을 때 대장암 위험이 18%씩 증가한다는 IARC 발표를 참고할 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가공육 발색과 보존에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의 1일 섭취량(2009∼2010년)도 WHO 섭취 허용량(0∼0.06㎎/㎏)의 11.5%에 불과했다. 또 적색육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61.5g 수준으로, IARC 발표(매일 100g 섭취 시 암 발생률 17%씩 증가)처럼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우리 국민의 가공육 및 적색육의 하루 평균 총섭취량 67.5g은 영국(70g) 호주(65∼100g) 등 외국 권장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가공육 및 적색육 섭취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은 섭취량뿐 아니라 식습관,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br/><br/> 손 차장은 “<span class='quot0'>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노인 등은 건강과 영양학적 균형을 위해 적색육 섭취를 통한 적정 수준의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므로 현재 섭취량을 줄일 필요는 없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다만 적색육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정 연령대 남성(10∼49세)의 경우 육류 섭취 시 채소, 과일 등을 함께 먹고 적당한 운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span>”고 덧붙였다. <br/><br/> 또 불로 직화해 굽거나 튀겨 먹는 것보다 삶거나 쪄서 먹는 것이 조리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다고 식약처는 권고했다. 식약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과도한 가공육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가공육 육함량 표시제를 도입하고 스스로 먹는 양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44.txt

제목: 햄·소시지, 정말 1급 발암물질일까  
날짜: 2015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358795  
본문: 세계보건기구(WHO)가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Processed meat)에 대해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달 26일 ‘붉은 육류(red meat)와 가공육에 대한 소비평가 논문’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IARC는 10개국 2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육류 섭취와 암 발생 상관관계에 대한 800여건의 연구조사를 검토한 결과, 햄이나 소시지 등 공정을 거친 육류나 붉은 고기 섭취가 대장암과 직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매일 50g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대장암 유발 가능성이 18% 높아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특히 가공육의 경우 1군 발암성 물질(그룹1)에 해당하고, 붉은 고기는 2군(그룹2A)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 이번 발표로 전 세계는 물론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북미육류협회는 이번 보고서가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주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소비자들은 붉은 고기는 햄, 소시지 등을 섭취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되묻는 상황이다. 특히 햄과 소비지 등 가공육의 경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 중 하나라는 점에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국내에서는 이번 발표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공육과 붉은 고기 등에 대한 국내 섭취량과 조리법 등 식습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자세한 것은 WHO에서 세부자료를 11월에 공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한 뒤 어떤 근거인지 확인하고, 우리나라 상황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는 육류가 대장암이나 직장암 발생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지난 십수년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것이라며,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하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교수는 “육류가 대장암이나 직장암 발생에 관계가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교과서에서 나오던 견해다. 이번 발표에 언급된 가공육의 경우 1군 발암물질이라고 평가했는데, 암 발생과 그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가공육이 담배나 석면처럼 1급 발암물질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연구결과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1∼4로 평가했을 때, 가공육은 1, 붉은 고기는 2A정도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의미이지, (담배나 석면처럼) 강력한 발암물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붉은 고기나 가공육을 섭취하다 보면 육류 자체 이외에도 첨가물이나, 육류에 투여된 호르몬, 고온 조리시에 생성되는 물질 등이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br/><br/> 따라서 소비자들이 육류 섭취와 관련 이번 발표로 혼란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암 발생은 육류 섭취 이외에도 생활습관, 비만 등에 따라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육류를 절대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문희 교수는 “단백질 섭취는 반드시 필요하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필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빈혈, 무기력감 등 건강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만 육류 섭취를 최소화하고, 고기를 먹더라도 채소를 많이 먹고 금연·금주와 함께 운동을 통해 활동량을 늘려 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45.txt

제목: [쿡닥터의 진료상담] 췌장암 20∼30% 흡연이 원인… 비만 경우엔 위험성 더 커져  
날짜: 2015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353872  
본문: 췌장암은 원래 서구형 질환으로 미국에서는 전체 암 중 네 번째로 많은 암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만에 해도 암 발생 10위권 밖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8위까지 올라서며 그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br/><br/><br/><br/>Q. 췌장암을 일으키는 요인은?<br/><br/> 최근 국내에서 췌장암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간의 흡연, 식생활의 서구화, 인구의 고령화 등이 췌장암 발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큰 환경적 요인으로 꼽힌다. 췌장암 환자의 20∼30%가 흡연에 의한 것이다. 흡연자가 비 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발생 위험도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비만한 사람에게서 췌장암의 발병류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1.2∼3배 증가하고 체질량지수 수치가 증가할 때마다 췌장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만과 관련된 췌장암을 26.9% 추정하고 있다. 췌장암과 관련된 몇 가지 질환이 있다. 급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 당뇨병, 췌장의 낭종 등 그런 질환이다. 이런 질환들이 있다면 혹시 췌장암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br/><br/><br/><br/>Q. 췌장암을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br/><br/> 췌장암은 치료가 어려운 상태에서 발견되기 쉬워 전조증상에 대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고령에서 당뇨병이 발생하거나 오랜 기간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데 갑자기 체중이 감소한다면 적극적으로 췌장암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췌장 낭종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낭종이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췌장암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으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과 내시경초음파를 받는 것이 좋다.<br/><br/> 우리나라에는 드물지만 췌장염 가족력이 있거나 50세 이전에 췌장암 발병 환자가 직계 가족 1명 이상 있거나 나이에 관계없이 가족에 2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가 있을 때는 가족성 췌장암을 의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본히펠린다우증후군과 같은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br/><br/><답변=강남세브란스 암전문병원 췌담도암클리닉 이동기 교수 / 정리=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46.txt

제목: 사회적 편견이 정신과 치료 가로막는다  
날짜: 2015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348891  
본문: 경미한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의료보험가입이 제한된다? 이러한 현실이 적극적인 정신과 진료를 막는 주요한 원인이란 지적이다. 흔히 정신과 병력이 남아있으면 보험사 가입과 취업에 불리하다는 사회적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편견이 실제 피해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br/><br/> 이에 대해 관련 의료진들은 환자들이 정신과 병력이 남아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제약이 많다며,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실제 정신과 병력 때문에 보험가입이 거절당하거나 이후 암 등 다른 질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br/><br/> 한 달 가량 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미한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는 여성은 가입 후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단기 만급형 암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보험기한이 끝나고 수년간 납임한 보험금을 돌려받게 된 여성. 그러나 보험사는 입장을 바꿨다. 가입 당시 여성이 정신병력 유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당 여성은 불면증 진료를 받았던 병원을 찾아 의무기록과 현재 불면증이 완쾌된 상태를 보여주는 의사소견서를 요구했다.<br/><br/> 당시 이 여성 주치의였던 정신과 모 교수는 “보험사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을 경우 가입자로부터 고지의 의무를 부여하고 고지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자는 가입 당시 고지의 사실 조차 모를뿐더러 경미한 불면증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될 만한 정신병력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질환들이 왜 보험금 지급의 거절 사유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r/><br/> 더 큰 문제는 고지할 의무가 있어 가입자가 고지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하게 된다. 또한 (정신질환이) 경미한 가입자가 우울증과 불면증을 정신질환으로 생각하지 않아 알리지 않으며,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다. 가입자는 정신과 진료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도, 알리지 않아도 보험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다.<br/><br/> 정신질환 전문가들은 다양한 종류의 정신질환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정신과 내원 사실과 병력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한다. 또한 동일한 보험사라도 외국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만, 국내에서만 사정이 다른 경우도 있다. 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A 의사는 “국내에서 보험금 지급이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자국에서는 정신 병력이 보험금 지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환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적용한다는 말들이 이다”고 설명했다.<br/><br/> 문제는 민간보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정신과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신과 병력이 남아 보험 가입에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결국 이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방치는 물론 나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민간보험과 관련한 이러한 차별 문제가 해결돼야 경미한 정신질환자의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47.txt

제목: 가족 제대혈, 사용 드물고 보관 어려운데… 왜 위탁업체 ‘유혹’ 방치하나  
날짜: 2015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355436  
본문: 임신·출산박람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 중 하나가 제대혈보관 업체들인데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의 마음을 악용해 일부 가족제대혈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불평등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끝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가족제대혈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음에도 관계 당국은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br/><br/>제대혈은 출산 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골수와 마찬가지로 혈액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뿐 아니라 연골·뼈·근육·신경 등을 만드는 줄기세포가 들어 있어 의학적으로 중요하게 활용된다.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겸상적혈구 빈혈과 같은 난치성 혈액질환, 고셰병, 선천성 면역결핍증과 같은 선천성 질병 등을 치료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예비 부모들을 유혹하고 있다. <br/><br/> 제대혈은행은 제대혈을 필요할 때 녹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혈을 채취해 냉동보관해 주는 업체들을 말하는데 보관 및 사용주체에 따라 가족(위탁)제대혈과 기증제대혈(비혈연간 질병치료 또는 연구 등을 위해 대가없이 제대혈 은행에 제공)로 나뉜다. 문제는 가족제대혈의 경우 산모가 신생아 또는 혈연간의 질병치료를 위해, 즉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고비용을 지불하고 제대혈은행에 보관·위탁하지만 실제 사용은 드물고,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사용은 가능한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족제대혈 부적격 건수(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실 제공)는 2549건으로 △오염 942건 △바이러스감염 246건 △세포수부족 561건으로 나타났다.<br/><br/>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제대혈은행의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014년 말 기준으로 52만3487건의 제대혈이 보관돼 있는데 가족제대혈은행은 산모들을 대상으로 아이가 백혈병 등에 걸릴 경우 보관한 제대혈로 치료할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대혈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인 ‘유핵세포수’를 보면 1㎏ 당 약 1500개가 필요한데 기증제대혈은행의 기준인 8억개의 유핵세포수와 80%의 생존율을 대입할 경우 이식받을 아이의 체중이 42㎏까지만 이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보는 설명하는 사람들이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장밋빛 전망만 소비자에게 전달해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br/><br/> 특히 이러한 유혹(아이가 평생 동안 쓸 수 있다는)에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S사의 경우 제대혈 평생보관형(100년)은 400만원에 달하고, 프리미엄형(30년) 200만원, 안심형(20년) 160만원, 일반형(15년) 135만원에 달한다. 이 회사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공급비용을 제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듯 밝히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건강보험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의 적응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실제 얼마나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I사는 100년 상품이 560만원으로 가장 높은데 병원과 연계해 혜택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회사는 30년 210만원, 20년 보관 167만원, 15년형은 99만원과 125만원의 상품이 있다. C사는 평생보관형의 경우 350만원, 30년 보급형 235만원, 20년 보관 165만원, 15년 보관 125만원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자가제대혈(가족제대혈) 사용건수가 7건에 불과하다.<br/><br/>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족제대혈 계약 불만에 대해 “사적 계약으로 정부에서 관여하기 힘들다. 국회에서 사적계약의 약관을 하나하나 지적했는데 제대혈은행들이 표준약관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마다 다르다. 때문에 표준약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이 있다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며 “현재 소비자약관부터 제대혈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듯 과대·과장광고를 하는 경우 제대혈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핵세포수 등 다양한 제약조건을 명시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년마다 제대혈은행 현지에서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2013년 처음 진행했고, 현재 두 번째 심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br/><br/> 기증제대혈 역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옥 의원에 따르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1년 이후 2013년 말까지 산모로부터 기증받은 제대혈 총 개체수는 2만4056건으로 이중 △오염(107건) △바이러스 감염(74건) △세포수 부족(1만2869건, 1unit 당 최소 세포수 8억개 미만)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증제대혈은 1만4615건에 달한다. 즉 검사를 통과해 이식이나 치료를 위해 보관되고 있는 개체수는 기증제대혈의 40%도 안 되는 944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span class='quot0'>난치성 혈액질환과 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제대혈은 큰 희망</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더욱 체계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제대혈 폐기율을 낮추고, 제대혈 활용율은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span>”라고 지적했다. 백혈병 등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90%가 조직적 합성 항원 기증자를 찾을 확률에 이르기 위해서는 10만 개체의 기증제대혈을 확보해야 돼 정부는 관련 학회나 산부인과 등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실정인데 최근 5년(2009∼2013년)간 연도별 기증제대혈 보관 개체수는 2009년 4961개, 2010년 4751개, 2011년 2884개, 2012년 3277개, 2013년 3280개 등 1만9153개이다. 복지부는 기증제대혈은행 5개소를 지정·운영중으로 총 3만6628unit(2014년 기준)의 제대혈을 보관중이며, 매년 2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기증제대혈 1unit 당 공급단가를 400만원에서 10만3000원에 사용할 수 있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48.txt

제목: [사람 살리는 ‘3D프린팅’] 스르륵, 간·콩팥 ‘출력’… 의료 패러다임 바뀐다  
날짜: 2015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318841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br/> <br/>3D 프린터가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3차원 설계도를 바탕으로 프린터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소재의 입체적 물체를 제작할 수 있는 이 기특한 의료기기가 이제 의료의 혁신을 불러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팅 기술은 제조업을 넘어 의료기기, 재생의료, 의약품 제조 등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br/><br/>3차원 인체 모형으로 수술 부위 ‘한눈에’<br/><br/> 3D 프린팅 기술의 최대 장점은 복잡한 형상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병원에서 널리 사용하는 CT, MRI 같은 영상촬영 장비를 통해 얻은 체내 정보는 영상분석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디자인소프트웨어(CAD)를 거쳐 3D 프린터가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된다. 이걸 바탕으로 3D 프린터는 체내 장기와 똑같은 형태를 출력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체 장기 모형’은 샴쌍둥이 분리 같은 고난도 수술에 활용된다. 지난 6월 중국 상하이 푸단대는 생후 3개월 샴쌍둥이의 붙어있는 엉덩이와 척추뼈 아래쪽 부분분리 수술을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했다. 의료진은 CT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척추뼈 부위를 그대로 출력해 수술 계획을 세우고 몇 차례 연습한 뒤 실제 수술을 진행했다.<br/><br/> 국내 의료현장에서 3D 프린팅 인체 모형의 활용은 흔한 풍경이 됐다. 서울성모병원 심혈관센터 송현·강준규 교수팀은 2013년 3D 프린터로 출력한 환자의 대동맥 모형을 이용해 혈관 분리수술에 성공했다. <br/><br/>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백정환 교수팀은 2013년 부비동암(코암) 제거 수술에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했다. 수술 전에 암 위치와 제거해야 할 뼈 부위 등을 잡았다. 모형에 맞춰 수술했더니 수술 시간이 줄고 수술 정확도는 높아졌다.<br/><br/> 서울아산병원은 지금까지 20건의 신장암 수술(부분절제술)에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했다. 3D 프린터로 찍어낸 실제 신장 크기 모형을 통해 혈관과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다. 이 병원의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는 “<span class='quot0'>3차원 인체 모형을 갖고 수술할 경우 대상 암을 훨씬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 폐암 등 다양한 장기의 암 수술이나 간 이식 등에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맞춤형 장기’로 사람 살리는 시대 온다<br/><br/> 단순 보형물을 몸속에 집어넣는 것뿐 아니라 3D 프린팅으로 살아있는 세포나 단백질을 출력하는 일도 가능해지고 있다. 이른바 ‘바이오 프린팅(Bio-printing) 기술’ 덕분이다. 바이오 프린팅은 세포를 원하는 모양과 위치, 패턴으로 쌓아 올려 3차원 구조의 생체 조직이나 장기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이오 잉크’다. 바이오 잉크는 프린팅하려는 조직의 세포와 이 세포의 증식·분화를 도와주는 지지체(젤 상태 고분자 물질)라고 할 수 있다. 손상된 인체 부위에 심으면 그곳에 원하는 조직, 장기가 자라나는 것이다.<br/><br/> 미국 샌디에이고의 의료기 연구회사인 ‘오르가노보’는 3D 프린팅으로 혈관과 뼈, 콩팥, 간 조직을 찍어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간은 40일 동안 살아남아 ‘인공 장기’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미국 미네소타대와 메릴랜드대,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손상된 쥐의 신경 조직을 되살리기도 했다.<br/><br/> 우리나라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김정범 교수는 최근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척수손상 환자를 고치는 연구를 시작했다. 다친 부위의 척수세포를 3D 프린터로 찍어내 이식하는 것이다. 환자에게서 채취한 피부 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면역거부 반응이 없는 ‘환자 맞춤형’ 척수 조직을 만들 수 있다.<br/><br/> 하지만 아직 바이오 프린팅은 동물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체에 적용되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r/><br/>3D를 넘어 4D 프린팅으로<br/><br/> 지금의 3D 프린팅에 ‘시간’ 개념을 가미한 4D 프린팅 기술 연구도 발걸음을 떼고 있다. 4D 프린팅은 시간에 따라 스스로 모양을 바꾸는 물체를 만드는 기술이다. 지난해 미국 존스홉킨스대가 몸속에서 스스로 조립돼 암세포 하나를 집어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면서 주목받았다.<br/><br/> 4D 프린팅 제품을 만들려면 온도나 습도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스스로 모습이 변하는 ‘스마트 소재’(형상기억합금 등)를 개발해야 한다. 이들 소재를 3D 프린터로 출력해 인체에 이식하는 것이다. 4D 프린팅 제품은 체내에서 특정 조건(열, 진동 등)에 놓이면 스스로 모습이 변한다.<br/><br/> 예를 들어 암,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 시술을 많이 받는데, 사람마다 체형이나 증상이 각기 달라 스텐트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는 게 쉽지 않다. 때문에 여러 번 시술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한호성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럴 때 4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맞춤형 스텐트를 만들어 체내에 삽입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을 바꿀 수 있고 원하는 곳에 맞게 적용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span class='quot1'>4D 프린팅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하면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치료 효과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49.txt

제목: [한마당-정진영] 가정 호스피스  
날짜: 2015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326921  
본문: 2년 전 초여름 돌아가신 외할머니는 몇 년을 요양병원에 계셨다. 계속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 욕창이 수시로 생겨 집에서 더 이상 구완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집과의 마지막이었다. 단 한 번 집에 오시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았다. 요양병원은 ‘요양’과 ‘병원’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좋은 뜻과는 달리 지금 생각해보면 다수의 노인들이 사실상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소 같았다. 죽음 뒤에는 늘 때늦은 후회가 따르는 법이라지만 과연 이런 곳에서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마지막을 기다린 할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죄스러움을 떨칠 수 없다. 삶의 질 못지않게 죽음의 질 또한 중요함에도 ‘어쩔 수 없잖아’라며 통과의례로 대하기엔 죽음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br/><br/> 이달 초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기관인 EIU는 ‘세계 죽음의 질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 80개국 가운데 한국은 18위였다. 임종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고 가족이 심리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평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비교적 높은 이 순위에 동의할 수 없다. 죽음을 앞두고 방문할 수 있는 병원 수, 치료의 수준, 의료진 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 임종과 관련된 국가 지원이나 가족의 심리적 회복 부문 등은 턱없이 낮은 국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br/><br/> 죽음의 질을 높여주는 최선의 방편 중 하나는 호스피스다. 1967년 영국 런던의 한 병원에서 시작된 후 처음에는 통증완화 치료 정도에 그쳤으나 갈수록 정서적 안정에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호스피스를 마지막 삶의 ‘편안한 마무리’를 위한 ‘총체적 돌봄’이라 일컫는다. 국내 호스피스 현실은 취약하다. 말기 암 환자 7명 중 1명꼴인 13.7% 정도가 이용하는 데 그친다. 이용 의사가 있다고 밝힌 비율은 59%다. <br/><br/>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11월부터 호스피스 의료를 크게 확충한다. 호스피스 병상 수를 2020년까지 1400개로 확대키로 했다. 무엇보다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한다는 게 눈길을 끈다. 죽음의 질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기회다. 호스피스는 어쩌면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돌봄인지 모른다. <br/><br/>정진영 논설위원 jyjung@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50.txt

제목: [성림침례교회-‘그리스도 믿음 신학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날짜: 2015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150487  
본문: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은 광주광역시 성림침례교회(김종이 목사·사진)는 21세기 교회 성장을 주도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성림침례교회는 성경에 대한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한다는 취지 아래 매주 화·토요일 ‘그리스도 믿음 신학원’ 교육을 하고 있다.<br/><br/> 교육 과정으로는 창세전의 하나님의 작정,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모퉁이돌을 통한 하나님의 완전하심 등이다.<br/><br/> 강사는 김종이 목사다. 김 목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 그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성자 하나님이 인생이 되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인생의 죽음과 저주, 사망을 깨뜨리신 사건”이라며 “예수의 부활은 가정과 학교, 직장 등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망이 깨지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했다.<br/><br/> 교육을 받은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기도 한다. 시댁과의 제사 문제를 해결 받기도 하고, 화재로 가게를 잃었음에도 예수께서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역경을 이긴 성도도 있다. 예배 중에 어깨 통증이나 우울증, 암 환자가 치료받는 역사도 일어났다. 성도들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나의 기업이요, 응답”이라고 고백한다.<br/><br/> 성림침례교회는 5∼7세 유치부 예배 때부터 이런 부활의 주님을 강조한다. 김 목사는 “<span class='quot0'>성경에 대한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께서 나의 구주되심을 고백하고, 삶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062-265-1001·sunglim.or.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51.txt

제목: [책과 길] 우린 왜… 대한민국 70년의 참회록  
날짜: 2015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201140  
본문: 지난 8월 이인호 KBS 이사장이 1948년 8월 15일, 즉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광복일로 부르자고 제안해 논란이 됐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1945년 8월 15일 대신 정부 수립일을 광복으로 보자는 주장은 왜 나온 것일까?<br/><br/> “<span class='quot0'>1945년 8월 15일, 즉 조선의 온 백성들이 환호했던 그날은 부일 협력 세력에게는 악몽과 같은 사망 선고일이었지만,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한 1948년 8월 15일은 그들이 기사회생한 날이었다.</span>”<br/><br/> 전쟁사·과거사 연구로 유명한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학과)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 양심적 우파가 왜 없는가?’라는 질문도 흔히 들을 수 있는데, 그의 답변은 이렇다.<br/><br/> “분단된 한국은 자주독립 세력은 물론 민권과 평등을 지향하는 모든 정치, 사회 세력을 정치권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민족 단결을 존중하거나 친일 청산, 민족 자주, 반외세, 사회정의, 통일 등을 지향하는 양심적 우파가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다.”<br/><br/> 김 교수의 책 ‘대한민국은 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을 놓고 그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보수의 기원’ ‘반공이 국시가 된 이유’ ‘왜 일본은 사과하지 않을까?’ ‘왜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 되었나?’ 같은 질문들을 다루면서 ‘대한민국이 왜 이런 나라가 됐는가?’ 한탄하는 이들에게 그 절망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한다.<br/><br/> 저자는 “<span class='quot1'>8·15는 사실상 ‘해방’이 아닌 일본으로부터의 ‘분리’였으며, 그 이후 수립된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반(半)국가, 반(半)주권국가였다</span>”고 대한민국 70년사를 개괄한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다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한 러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조선인들은 그냥 구경꾼이거나 동원 대상이었을 따름”이었고 “그래서 전쟁 후의 처리 과정에서도 주역이 될 수 없었다”는 점을 뼈아프게 지적한다.<br/><br/> 저자가 이 책에서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배세력의 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 뿌리를 개화파에서 찾는다.<br/><br/> “<span class='quot0'>일본 의존 개화파는 부일 협력 세력이 되었다가 1945년 이후 미국을 추종하는 반공주의자가 되었고, 이어서 근대화론과 개발독재의 지지자가 되었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세계화, 선진화의 기수가 되었다.</span>”<br/><br/> 이것은 ‘우리는 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느냐?’는 오랜 질문과도 관계된다. 해방과 동시에 미국의 군정 통치에 들어갔고 친일파 청산은 미국의 관심이 되지 않았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심지어 “미국은 항일운동 경력이 있는 민족주의자들을 사실상 좌익으로 간주했다.”<br/><br/> 저자는 “<span class='quot1'>미군정이 보수 세력의 손을 들어준 정책, 즉 식민지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기용한 정책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이나 태평양전쟁기의 짧은 기간을 제외한 1905년 이후 일관된 일본 지지 정책에 비추어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span>”라며 “<span class='quot1'>그것은 이후 70년의 대한민국사를 좌우한 가장 결정적인 선택이었다</span>”고 말한다.<br/><br/> 모든 역사에는 명(明)과 암(暗)이 있게 마련이고, 암 역시 중요한 역사로 기록돼야 한다. 신영복 성공회대 명예교수는 추천사에서 “<span class='quot2'>이 책은 대한민국 70년의 참회록</span>”이라고 평가했다.<br/><br/>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52.txt

제목: 표적 항암제도 안 듣는 암 전이 원인 찾았다… 서울대 이호영 교수팀 첫 규명  
날짜: 2015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110464  
본문: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표적 항암제를 써도 듣지 않고 계속 퍼지는 ‘내성 현상’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 차세대 암 치료제로 주목받는 표적 항암제의 걸림돌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br/><br/> 서울대 약대 이호영(사진) 교수팀은 종양과 그 주변에 모인 정상세포(미세환경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이 표적 항암제의 암 전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처음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개발되는 각종 표적 항암제 중에는 임상시험에서 암을 도로 전이시켜 환자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드는 내성 현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br/><br/> 연구팀은 암 전이 때문에 계속 상용화가 좌절됐던 ‘IGF-1R 표적 항암제’를 대상으로 왜 이런 전이가 일어나는지 관찰했다. 이 항암제는 폐암·대장암 등 주요 암 생장에 핵심 역할을 하는 ‘IGF-1R’ 단백질만 골라 억제하는 약이다.<br/><br/> 연구팀은 이 항암제가 표적을 공략하면서 다른 특정 단백질이 대거 생기도록 자극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 단백질의 영향 때문에 종양과 주변 림프구 등 암이 아닌 ‘이웃 세포들’이 모여 복잡한 상호 작용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새 혈관 생성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렇게 생긴 혈관은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질 때 통로 역할을 한다</span>”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근호에 게재됐다.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53.txt

제목: [행복을 나누는 기업-아모레퍼시픽]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피부관리법 전수  
날짜: 2015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102624  
본문: 1945년 창립한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은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MAKEUP YOUR LIFE(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나눔경영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br/><br/> 대표적인 사회공헌 캠페인은 여성 암 환우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이다. 2008년부터 펼치고 있는 이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br/><br/> 2014년까지 2904명의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여성 암환우 9221명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br/><br/> 2011년부터는 중국에서도 같은 내용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중국 현지 병원 및 중국 환우들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54.txt

제목: 한화생명, 78세도 가입하는 종신보험… 보장도 빵빵  
날짜: 2015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053644  
본문: 78세에도 가입할 수 있고 각종 질병이나 사고 보장 기능도 강화한 종신보험을 한화생명이 최근 출시했다. 최저 사망보험료 월 2만원으로 합리적인 보험 설계가 가능하고, 치매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노인성 질환을 다양한 특약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했다.<br/><br/> 한화생명 최성균 상품개발팀장은 “<span class='quot0'>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은 흔치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적은 보험료로 남은 가족에게 남겨줄 최소한의 상속자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니어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이 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 ‘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확률이 높아지는 노인성 질환 보장 기능을 강화했다. 중증치매 특약은 진단시 매년 300만원씩 최대 10회까지 지급한다. 고도장해 특약도 진단시 매달 가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간 지급한다. 노후실손의료비 보장특약, 암 진단특약도 눈길을 끈다.<br/><br/> 주계약도 선택할 수 있다. 기본형은 일반적인 종신보험과 같고, 여기에 사망후 2년간 가입금액의 10%를 유가족에게 추모금으로 지급하는 추모자금형이 있다. 한화생명과 제휴된 상조업체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주계약(기본형 20년납)과 중증치매 특약, 급성심근경색 특약, 뇌출혈 특약, 고도장해 소득보장 특약을 각각 보장금액 1000만원까지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55세 남성 기준 6만2190원, 여성 기준 5만7440원이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55.txt

제목: [단독] 햄·소시지 섭취 제한… “암 예방 수칙에 반영 검토”  
날짜: 2015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016405  
본문: 정부가 ‘국민 암 예방수칙’에 햄·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섭취 제한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들 식품을 발암물질로 규정했다.<br/><br/>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측은 27일 “내년에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암 유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암 예방수칙 최신판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 예방수칙은 정부가 암 예방을 위해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10가지 생활수칙이다. 현재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만 마시기’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등 술·담배에 관한 지침은 있지만 가공육과 붉은 고기에 관한 언급은 없다.<br/><br/>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가공육과 붉은 고기 문제는 우리도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이번에 IARC에서도 보고가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가공육 등이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근거가 확인되고 국민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 의견이 모아지면 암 예방수칙에 포함시킬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암관리위원회는 보고서 등 문헌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기적으로 국민 암 예방수칙을 수정하고 있다.<br/><br/> IARC는 햄·소시지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 붉은 고기를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우리 정부도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암 유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적극적 섭취 제한 권고는 하지 않아 왔다.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가 홈페이지에서 “붉은 고기와 육가공품은 대장암 및 직장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사용되는 아질산염은 접촉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한다”면서 “섭취를 줄이라”고 당부하는 정도다.<br/><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적으로 위해평가를 한 뒤 가공육과 붉은 고기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얼마나 많이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위해평가를 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어느 정도 먹으면 안전한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임신부의 참치 섭취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56.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35) 건강검진 전문 KMI한국의학연구소] “평생을 건강하게” 종합검진 대중화 주역  
날짜: 2015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835926  
본문: “채용검진을 받았는데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절도 친절이지만 너무 재미있게 도와줘서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랍니다. 물론 간호사분들 역시 바쁜 와중에도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마음 편히 검진 받고 건강하다는 결과를 받으니 기분이 더더욱 좋네요.”<br/><br/> “병원 시설도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해마다 이곳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어요. 다른 곳은 못가겠다는 말입니다. ㅎㅎ 부모님도 매우 만족해하세요.∼”<br/><br/> 29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 (재)KMI한국의학연구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인터넷 블로그 및 검진 후기에 남긴 글이다. 건강검진기관으로서 KMI가 이용자에게 어떻게 각인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br/><br/> 30년 전 우리나라는 의료검사라고 해봐야 혈액검사와 X레이 검사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단층촬영 영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켜켜이 살펴보는 PET-CT검사가 보편화될 정도로 크게 바뀌었다. 건강백세시대를 맞아 바야흐로 건강검진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나라가 됐고, 그동안 KMI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br/><br/> KMI는 ‘평생을 건강하게’라는 목표로 1985년 설립됐다. 현재 서울에선 광화문, 강남, 여의도센터 등 3개 센터가 운영된다. 경기도 수원, 대구, 부산, 광주에도 분원 형식의 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검진센터 7곳에 상주하는 직원은 의료진 134명을 포함해 1350여명이다.<br/><br/> KMI는 우리나라 종합검진 대중화의 주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검진이 보편화된 지금도 KMI는 고도로 훈련된 검진전문 인력과 우수한 장비로 효과적인 검진시스템을 구축, 우리나라 건강검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br/><br/> 2014년 한 해 동안 KMI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80만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을 발견, 조기치료 기회를 잡게 된 사람도 1568명이나 된다. 30년간 축적된 검진정보가 눈에 띄지 않는 암의 씨앗까지도 잡아내고 있는 것이다. KMI는 이를 바탕으로 VIP종합검진센터와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며 차별화된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대학병원들과도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다.<br/><br/> KMI가 검진 희망자로부터 각광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진정성과 신뢰성을 무기로 나눔 의료를 실천하는 나눔 경영에 있다. KMI는 늘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을 돌보고 약자의 편에서 짐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당연한 의무라고 여기는 이규장 이사장의 경영철학을 실천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br/><br/> 최근에는 수협중앙회 의료봉사협약, 경남도 다문화가정 지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야구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펼쳤다.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에게 무료검진 의료서비스를 지원했고, 유가족 자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연탄 30만장을 다문화가정 등 불우이웃에 기증했다.<br/><br/> KMI는 필리핀 등 해외 무료진료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최신의학 연구개발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각급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br/><br/> KMI는 1999년 국내의료기관 최초로 국제품질보증 ISO 인증을 시작으로 2001년 보건복지부장관상, GBCI 글로벌 경영대상 3연패 등을 획득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다. 2011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여성가족부), 2012년 노사상생협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2013년 종합건강검진서비스 부분 소비자 선정 품질만족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나아가 지난해에는 행복 더함 사회공헌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올해는 일하기 좋은 기업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57.txt

제목: [사설] 미세먼지 공습, 실시간 파악도 아직 못한다니  
날짜: 2015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653550  
본문: 전국이 연일 미세먼지 공습에 신음하고 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이번 주 서울과 전북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며칠째 일평균 환경기준 100㎍/㎥을 넘나들고 있다. 국민들 고통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북 익산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125㎍/㎥까지 치솟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안전기준 25㎍/㎥의 다섯 배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이다.<br/><br/> 미세먼지는 지름 10㎛(1㎛=100만분의 1m) 이하의 아주 작은 부유 먼지로 호흡기 질환과 암, 고혈압, 부정맥,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 미세먼지를 흡연보다 해로운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특히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로 불린다.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도 발생하나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매연 등 오염물질에 의해 인위적으로 생겨나기도 한다. <br/><br/> 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물질의 30∼50%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정부가 중국의 ‘농도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중국이 검토를 끝낸 자료를 2∼3시간 늦게 받아보는 형편이니 정확한 예보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예보 정확도를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으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5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br/><br/> 정부는 뒤늦게 2013년 말 초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나아진 게 없다.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식의 대처가 고작이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메르스 이상이다. 초미세먼지와 오존으로 남북한에서 3만명(추정)이 숨졌다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통계도 있다.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58.txt

제목: 한국고령친화산업진흥회 윤항중 회장 “노인시대 대비 민간 컨트롤타워 역할할 것”  
날짜: 2015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425207  
본문: “<span class='quot0'>국내 실버산업 발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국교회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span>” <br/><br/> 육군사관학교 21기로 33년간 군대에 몸담은 직업군인 출신인 윤항중(74) 한국고령친화산업진흥회 회장의 말이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사무실에서 만난 윤 회장은 “<span class='quot1'>1군 지역 기독장교연합회장을 맡으며 꾸준히 기도한 덕에 33년 군 생활 동안 총기사고 같은 안전사고 없이 전역할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도 기도로 준비해 국내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선교에 이바지하는 게 목표</span>”라 밝혔다. 3대째 모태신앙인 윤 회장은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활발한 전도활동을 펼쳐 ‘전도왕’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다. <br/><br/> 1993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그는 크리스천 실버산업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2009년 한국실버산업진흥회를 발족했다. 그러나 곧 새롭게 연 ‘인생 2막’을 접어야 했다. 아내의 유방암 투병 때문이었다. 윤 회장은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그간 야심차게 준비했던 진흥회 일을 잠정 중단했다.<br/><br/> 2010년 암 판정 직후 받은 수술로 아내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자 그는 다시 실버산업에 뛰어들었다. 조직 이름을 ‘한국고령친화산업진흥회’로 바꾼 윤 회장은 지난달 5일 발대식을 열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로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노년층의 삶을 지지할 실버산업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다가오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노년층 사회안전망 확대와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 서는 민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span>”이라 말했다. 이를 위해 진흥회는 실버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기준 마련, 관련 민간자격증을 신설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노인 재취업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고령층 인적자원 교육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br/><br/> 그간 연구진과 임원, 회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인 윤 회장은 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실버타워 건립 등 수익사업에 본격 나선다. 윤 회장은 “<span class='quot1'>실버타운 설립, 황칠나무 사업 등 수익사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 타며 진행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진흥회 내부에 종교부를 설치해 수익금 일부를 호스피스 봉사자 양성과 불우이웃 지원금, 한국교회 선교지원금으로 집행할 예정</span>”이라 말했다. <br/><br/>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59.txt

제목: 동부화재, 3대질병 보장 강화 종합보험 판매  
날짜: 2015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406363  
본문: 동부화재가 보장자산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3대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내인생행복플러스 종합보험’을 출시했다.<br/><br/> 내인생행복플러스 종합보험은 질병사망과 3대 질병 진단을 동시에 보장하는 질병사망 보장형과 3대질병 진단비를 함께 구성한 상품이다. 3대 질병 진단 시 가입금액의 100%를 최고 3000만원까지 선 지급하고, 추후 질병으로 사망 시 다시 최고 30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하는 형태다. 기존에 3대질병과 질병사망을 개별적으로 가입했던 것에 비해 한 담보로 동시에 보장받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br/><br/> 한국인의 주요 질환인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기존에 진단비를 보장했던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사망, 수술, 입원 시에도 보장된다. 또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의 경우 통원치료도 지원한다.<br/><br/> 안면부위에 대해서도 집중 보장한다. 특약 가입시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후 각막혼탁, 각막확장과 같은 합병증 진단 또는 재수술이 보장된다. 후각특정질환수술비는 만성비염, 만성부비동염 등의 수술을 보장하며, 특정골절진단비로 비골을 포함한 안면과 두개골의 골절도 보상받을 수 있다.<br/><br/> 사망·후유장해 담보 고액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가입금액에 따라 2.5%∼4%의 보험료가 할인된다.<br/><br/> 동부화재 내인생행복플러스 종합보험은 100세 만기상품으로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0/15/20/25/30년납 중 본인의 경제활동 사이클에 맞게 납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상해나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잔여기간의 보장보험료 납입도 면제된다. 김진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60.txt

제목: [뉴스파일] 서울 중랑구, 국제규모 인공암벽장 개장  
날짜: 201510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334137  
본문: 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용마폭포공원 안에 국제규모의 인공암벽장인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을 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암벽장은 높이 17m, 폭 30m 규모로 초급·중급·고급 코스로 나눠져 있으며 실내에도 암벽이 있어 우천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의 공인 규격에 맞춰 시공돼 국제대회와 전국대회도 치를 수 있는 이 암벽장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된다. 22일 열리는 준공식에서는 클라이밍 국가대표 송한나래 선수가 시범 등반을 할 예정이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61.txt

제목: [암과의 동행-암과 영양] 이홍기 건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무조건 기름진 음식 기피는 곤란”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44735  
본문: “<span class='quot0'>건강회복에는 채식과 육식의 균형 있는 영양섭취가 중요한데 항암치료 중 육식, 특히 기름진 음식을 피하라는 것은 과학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span>”<br/><br/> 건국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이홍기 교수는 환자가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 암 치료에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건강회복에 충분한 열량섭취 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영양섭취와 일정한 간격의 시간에 맞추어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br/><br/> 그는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단백질 섭취가 필수이다. 균형 있는 영양섭취는 평소 즐겨먹는 음식을 고루 먹음으로써 가능한 것이지 특별한 음식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과도한 영양분 섭취도 삼가야 한다”라며 “채식과 육식은 각각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채식과 육식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필요하다. 간혹 암환자가 항암치료 중에는 육식, 특히 기름진 음식을 피하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과학적 이치에 맞지 않다. 오히려 항암치료 후에는 세포의 빠른 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단백 음식섭취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br/><br/> 뿐만 아니라 “암환자는 암 자체로 인해 위장관 등에서 영양분 섭취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오심 구토 식욕부진으로 인해 음식섭취가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질환의 특성상 고열량의 영양섭취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암과 항암제로 인해 영양분 섭취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br/><br/> 특히 “암환자에게 영양결핍이 생기면 우선 항암제 투여 후 환자의 건강회복, 즉 골수를 포함한 다양한 장기기능의 회복이 늦어지게 돼 이후 항암제를 예정대로 투여할 수 없어 최상의 반응을 기대할 수 없다. 또 체력이 떨어지면 면역기능이 감소해 감염증에 걸리기도 쉽다”라며 “암전문의가 수시로 전문영양사와 상담하면서 실시간으로 환자의 영양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영양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최근 정부의 암환자 교육지원이 환자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돕고, 의료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br/><br/> 그렇다면 암 진행별로 영양관리는 어떻게 다를까. 그는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열량과 영양소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암 치료에 들어간 경우에 영양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 영양공급에 신경 써야 한다. 반면 지지요법만 하는 일부 말기 암환자의 경우 과다한 영양을 주면 오히려 정상세포보다 자라는 속도가 빠른 암세포가 영양을 흡수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영양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식욕부진을 겪는 환자에게는 식욕촉진제(megestrol)를 종종 권고하고도 한다고 밝혔는데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촉진제를 복용해 잃었던 식욕을 되찾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br/><br/>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최상의 암 치료를 위해서는 최적의 암 치료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절한 영양분섭취와 충분한 휴식, 적정한 활동이다. 또 과도하고 편중된 영양섭취는 오히려 몸에 해롭기 때문에 주변에서 근거 없이 떠도는 영양섭취와 관련된 소문에 솔깃하지 말고,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전문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식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62.txt

제목: [암수술 잘하는 병원-고대안암병원 김진 교수] ‘대장암’ 다양한 치료법… 환자 선택폭 넓혀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58388  
본문: 대장암으로 고통 받는 한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대장암은 한국인을 위협하는 암 순위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대장암은 한국 남성을 괴롭히는 두 번째 암으로 꼽힌다.<br/><br/> 대장암 환자가 많아지는 만큼 그 치료방식도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있다. 기본이 되는 개복수술부터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그것이다. 특히 대장암 중 직장암에서 로봇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로봇을 이용해 직장암을 완벽히 제거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진 교수를 지난 8일 만났다.<br/><br/> 김 교수는 복강경과 로봇을 이용해 직장암과 결장암을 제거한다. 그는 대장암을 치료하는 각각의 방식에 대해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강경 수술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로봇은 복강경 단점을 보완하고 정교하고 미세한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개복 수술은 주변 장기와의 유착정도가 심한 재발 암환자에게 좋은 수술법이라고 덧붙였다.<br/><br/> 직장암 환자에게 로봇을 적용했을 때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은 암의 특성 때문이다. 직장암은 일반적인 대장암과 달리 골반강이라는 협소한 공간에 자리하고 있어 암 덩어리까지 접근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로봇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로봇은 3차원 확대 영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부학적 구조를 개복만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좁은 공간에서 로봇 관절을 다양한 각도로 움직이며 안정적으로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결장암과 직장암에 대한 치료는 최소 침습 수술이란 방식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을 제거하는 원칙은 신경과 혈관 등 암 주변 구조물들을 건드리지 않고 깔끔하게, 예쁘게 암 조직만을 떼어내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좁은 공간에서 정밀한 절개를 요구하는 직장암의 경우 로봇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span>”고 소개했다. 문제는 역시 치료비다. 일부 영역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강경과 달리 로봇은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큰 수술법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합병증 적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존율 비교에서는 복강경과 아직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데이터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에게 다양한 수술법을 설명하고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한다</span>”고 말했다.<br/><br/>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설명이 고맙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각 수술법의 장점의 차이는 있지만 암을 제거하는 원칙은 똑같다</span>”며 “<span class='quot0'>모든 설명을 들은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 한편 김 교수는 조기 단계에서 발견율이 높은 위암과 달리 대장암은 여전히 중증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span class='quot0'>검진이 활발한 위암과 달리 대장암은 대장내시경에 대해 환자가 갖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span>”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대장암의 무서운 증가세를 강조하며 50세 이상은 대장내시경을 3년에서 5년 사이 꼭 해볼 것을 권장했다. 또 대장암의 원인으로 꼽히는 육류를 고집하는 식단보다 육류와 생선, 야채 등 다양한 식품군으로 이뤄진 식단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63.txt

제목: 암전문병원 노박의원 노태성 원장 “암, 적절한 치료와 믿음 있으면 얼마든지 완치도 가능”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123118  
본문: “이제 암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이 워낙 다양하게 발달돼 환자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면 얼마든지 완치되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환자가 병을 이기겠다는 자신감과 신앙도 큰 몫을 합니다.”<br/><br/> 책 ‘노박사의 따뜻한 암치료’(생명나무) 저자로 유명한 노태성 원장(60·신촌성결교회 장로)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노박의원은 늘 환자로 붐빈다. 중국동포와 한족 등이 많이 거주하는 이 지역에서 암전문병원으로 소문이 난 것은 노 박사가 쓴 책 제목대로 ‘각 암환자에 맞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 때문이다. <br/><br/> 특히 수술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현대의학의 암 치료를 넘어, 영양면역요법과 운동면역요법·정신(영)면역요법 등도 사용하는 노박의원 치료법은 환자들에게 무리를 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다.<br/><br/> “지난 4월에 55세의 한 목회자 사모님이 ‘대장암 3기말’로 수술이 힘들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내원하셨습니다. 고주파치료와 온열치료, 항암면역주사를 동시에 사용한 결과 상태가 호전되셔서 지난 8월, 수술을 받으셨는데 얼마전 조직검사에서 ‘0기 암’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면역력을 극대화 함으로 암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br/><br/> 노 박사는 환자특성에 맞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자신이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생리학 박사로 미국에서 암유전학을 공부했지만 자연의학을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br/><br/> 그는 “미국 베일러(Baylor) 의과대학에서 잠시 공부할 때 그곳에 자연치료의사(ND)들이 따로 있고, 치유의학이 아주 체계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귀국 후 양방과 함께 자연치료도 병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br/><br/> “자연치료의 핵심은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체온을 올려 면역력을 강화하고 백혈구와 적혈구를 증강하며 체질을 변화시켜 환자 스스로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이 자연치료를 통해 낫는 경우도 있고 보완적 측면에서 자연치료를 통해 고통이 감소되고 생명이 연장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br/><br/> 노 박사는 “<span class='quot0'>질병은 육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정신과 감정, 영혼을 포함한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이 자연의학의 중심적 개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암 등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 절망감 등을 회복시켜 줄 때 인체의 천연방어력이 가동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span>”고 밝혔다.<br/><br/> 노 박사는 늘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하면 이를 연구하는 자세로 도입, 내방환자들에 소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물리적 치료를 넘어 정신적 치료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환자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br/><br/> 따라서 노 박사는 한의사들과도 교류하려는 열린 생각으로 양한방 의사들이 모이는 ‘자연의학회’도 만들었고 암 환자들이 참여하는 블로그와 카페도 개설해 하루하루를 아주 바쁘게 보내고 있다.<br/><br/> 이처럼 늘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이를 나누는데 주저치 않는 노 박사는 지역적 특색을 이용한 중국인 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직원들과 중국어습득에도 도전, 대화를 할만큼 수준급이 됐다. 따라서 이를 발판으로 중국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br/><br/> 7층 건물 전체를 병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노박의원은 입원실 일부가 마치 가정집처럼 암환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아울러 대학병원에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의료기기를 보유해 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약물치료뿐 아니라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균형을 잡고자 다양한 치료를 시도하고 있다.<br/><br/> “현재 인테리어 중인데 ‘다다름’이란 게스트하우스와 까페를 병원 인근에 열고자 합니다. 전시공간도 있어 문화가 없는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이자 치료를 받으러 온 외국인들에게 객실을 저가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br/><br/> 늘 환자를 사랑으로 대하며 새로운 도전에 주저치 않는 노 박사는 “<span class='quot0'>환자들의 안타까운 입장을 생각하며 저비용에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아 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여긴다</span>”며 “<span class='quot0'>‘의술은 인술’이라는 명제를 항상 실천하겠다</span>”고 다짐했다. <br/><br/>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64.txt

제목: [암과의 동행] 림프종, 희귀병 인식 벗고 치료 새 전기 맞나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57453  
본문: 희귀병처럼 매우 생소하게 들리는 ‘림프종’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새로 진단 받는 암 중 2.1%(2012년 기준, 2014년 발표)에 달하며 국내 발생 암 순위 10위(2012년 기준, 2014년 발표)다. ‘러브 스토리’나 ‘라스트 콘서트’와 같은 고전 영화부터 드라마 ‘가을동화’의 송혜교까지 미디어 속 난치병으로 ‘백혈병’이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림프종’이 더 흔하게 발생 하는 셈이다. <br/><br/> 림프종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 특징과 예후도 각기 다르고, 림프종 중에서도 희귀한 림프종이 있다. 양모(68)씨는 최근 이유 없이 목과 입술이 부어오르고 밤이 되면 고열에 시달리다 병원에서 ‘외투세포 림프종’을 진단 받았다. 이 병은 국내 환자가 300여명 뿐인데 재발이 잦고 재발 시 기존 치료가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 1∼2년 밖에 더 살지 못한다.<br/><br/> 림프종은 전신의 림프 조직 세포들이 악성 세포로 변해 생기는 암 이다. 림프종이 발생하는 림프계는 전신에 퍼져 있는데, 주로 체내 미생물에 대한 여과 기능 을 수행한다. 폐암, 위암, 대장암 등처럼 발생한 부위에 따라 구분되는 고형암과 달리 림프종은 전신에 퍼져있는 혈관 내 림프조직에 발생하기 때문에 전신에 전이될 수 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발견이 늦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주로 림프조직이 많이 모여 있는 신체 부위가 부어올라 병원을 찾았다가 발견한다. 전문가들은 목, 겨드랑이, 팔꿈치 귀 뒤 등이 통증 없이 2주 이상 부어 있거나 열이 나고 야간에 식은땀이 나며 체중이 갑자기 많이 줄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라고 권한다.<br/><br/> 1832년 토마스 호지킨에 의해 처음 기술된 림프종은 조직검사에서 리드-스텐버그세포(RS 세포) 유무에 따라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뉜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어떤 종류의 세포에서 종양이 시작 되었는지에 따라 B세포 림프종과 T세포 림프종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림프종을 진단받는 환자의 95%는 비호지킨 림프종 이다. 특히, 비호지킨 림프종은 림프절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부위를 침범 했느냐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br/><br/> 김석진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림프종은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질환</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정보에 더해 다양한 아형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어려워 치료가 쉽지 않아 안타깝다</span>”고 말했다.<br/><br/> 림프종은 대부분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한 가지 약제로는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다른 작용기전과 독성을 가진 치료제를 조합해 치료한다. 림프종 3∼4기는 완치 되었다가도 30% 가량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재발하게 되면 화학요법이 잘 듣지 않는 편이다.<br/><br/> 최근에는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에 실패한 희귀 림프종 치료에 새로운 치료가 가능해졌다. 외투세포림프종은 비호지킨 림프종 중에서도 반복적인 재발이 특징인 예후가 좋지 않은 아형으로서 특히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병하기 때문에 재발 시 부작용이 심한 치료는 선택하기 어려워서 반복적인 재발 후에는 그 치료가 어렵다. <br/><br/> 최근까지는 기존 치료에 실패한 이후에도 약제의 조합을 바꿔 항암화학요법을 반복하는 것 외에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었다. 새로운 치료제(성분명 이브루티닙)는 경구용 치료제 로, 항암제 투여를 위한 입원이나 주사시설 사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일 약제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화학요법을 피할 수 있다.<br/><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복합항암화학요법치료를 반복한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체력 또한 저하돼 효과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새로운 경구용 치료제는 환자들이 입원치료 없이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기존 화학요법 대비 부작용이 적다</span>”고 설명했다. 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65.txt

제목: 대형병원 뺨치는 노박의원 첨단 치료시설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123613  
본문: 노박의원이 암치료에 사용하는 치료법은 10가지가 넘는다. 그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현재 차세대 암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주파온열 치료법’을 들 수 있다.<br/><br/> 이 고주파온열치료는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열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38.5∼42도의 온도를 가해 자연적으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치료법이다. 특별한 통증 없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집중치료할 수 있고 항암약물 및 방사선 치료와 병행할 경우 통증을 완화시켜주게 된다. 노박의원이 갖고 있는 이 온열치료기는 아주 고가이지만 많은 환자들에게 사용돼 효과를 보고 있다. <br/><br/> 면역치료는 영양요법에 기초를 두고 면역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미슬토요법, 메가 비타민요법, 핵산요법, 미네날 요법, 자단신 요법 등을 환자 특성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심리분석과 뇌파분석으로 심신 전체를 파악해 개인특성에 맞는 치료를 해주고 있다.<br/><br/> 아울러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이뮨셀-엘씨’ 주사는 항암면역세포치료제로 자신의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배양, 이를 통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항암제로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 <br/><br/> 노박의원은 진료실, 치료실, 재활암 물리치료실, 암종합검진실, 뇌파분석실, 입원실, 데이케어센터, 고주파치료실 등을 구비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진료는 앞서 밝힌 고주파온열치료 외에 자연의학요법, 암 재활요법을 비롯 내과 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이다. <br/><br/> 노 박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 ‘몸과 마음의 디톡스’(detox·정화, 해독)를 치료의 기본 틀로 삼고 있다. 이 치료 원리는 성경에서 착안됐다. “<span class='quot0'>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span>”(마태복음10장 1절)는 말씀에서 치료의 원리를 찾은 것이다.<br/><br/> 노 박사는 이 말씀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냄(정화)→모든 병을 고침(치료)→모든 약한 것을 고침(회복)으로 이어지는 ‘3박자 치료’ 원리를 치료시스템에 가동시키고 있다.<br/><br/> 예를 들면 육체의 독소를 해독하는 ‘정화단계’에서 모발중금속검사, ECS 검사, 타액호르몬 검사 등을 한다. ‘치료단계’에서는 고주파온열치료를 비롯해 광양자치료 암재활물리치료 고주파전신온열요법 PDT광선요법 등을 사용한다. ‘회복단계’에서는 영양면역요법을 적용한다. 인체의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이 반드시 필요하며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암 치료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양면역요법은 가장 중요한 암의 보조적 치료요법으로 꼽힌다. <br/><br/> 노 박사는 항상 암 치료를 위해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치료에 중요하다고 말한다.<br/><br/>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혈루증 여인, 베데스다 연못가의 소경은 믿음의 소유자들로 그 믿음이 없었다면 병이 낫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br/><br/> 기독병원로서의 사명을 늘 되짚어 보며 기도하는 노박의원 전 의료진은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쁨을 선사하고 또 복음도 함께 전하길 희망하고 있다. 김무정 선임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6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양성자 치료란, 암 부위 정밀 타격… 방사선 부작용 걱정 없애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57765  
본문: 양성자 치료는 1946년 미국 핵물리학자 로버트 윌슨 박사가 최초로 환자치료를 제안한 후 1955년 미국 버클리방사선연구소에서 시작됐다. 수십 년 동안 의료용이 아닌 핵물리연구소의 양성자가속기가 치료 겸용으로 사용돼 왔다.<br/><br/> 양성자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일종이다. 양성자는 원통형 가속장치인 사이클로트론(Cyclotron)을 이용해 빛 속도의 60%(1초에 지구를 4.5번 돌 수 있는 속도)로 수소원자의 핵(양성자)을 가속시켜 암 치료에 이용한다. 가속된 양성자선은 몸속을 통과하면서 암 부위의 앞에 있는 정상 조직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다가, 암 조직 부위에서 최고의 에너지를 쏟고(일명 브래그 피크) 바로 소멸하는 특징이 있다. 암 조직 뒤에 있는 정상조직은 방사선 노출이 없어 정상조직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암 부위를 집중적으로 파괴하면서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효과는 높이는 방법이다. 통과하는 경로에 있는 모든 조직에 손상을 주는 기존 방사선(X-선) 치료법과 달라 ‘꿈의 치료기’로 부르기도 한다.<br/><br/> 양성자 치료를 시행하는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센터는 기존 양성자치료기보다 정밀한 치료가 가능한 최신 장비를 도입했다.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기는 양성자 입자를 가속시키는 가속기와 가속된 양성자 입자를 치료실로 전달하는 긴 통로(전달 장치), 환자에게 양성자선을 쬐어 치료하는 치료실로 구성된다. 현재 치료실은 회전식 2기, 고정식 1기 등 모두 3기로 구성된다.<br/><br/> 양성자 치료 대상 암은 기존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장기 등으로 퍼지지 않은 상태로 특정 부위에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암(고형암)에서 치료효과가 가장 높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폐암, 간암, 자궁경부암, 직장암 및 두경부암 등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암 혹은 전신질환에 속하는 암일 경우에는 양성자 치료대상이 되지 않는다.<br/><br/> 양성자치료는 암 부위를 정확하게 조준하여 에너지를 쬐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며, 식욕부진, 설사, 두통 등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기존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들보다 삶의 질이 높다. 치료과정은 신속하고 고통이 없다. 양성자치료를 받는 시간은 1회 약 20∼30분 정도로, 실제 양성자선이 환자에게 쬐어지는 시간은 2∼3분에 불과하다.<br/><br/> 국립암센터는 양성자 도입비와 유지보수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지만, 운영 합리화를 통해 가급적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렴하게 치료비를 책정했다. 양성자 치료비는 2015년 9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확대 실시돼 18세 이하 소아종양, 복부암(간암 포함), 뇌종양, 두경부암 (안구종양 포함), 폐암, 방사선치료 부위 재발암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급여 실시로 환자 1인당 부담하는 치료비는 100∼800만원으로 질환과 치료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br/><br/>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세 군데의 치료실에서 약 1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총 3만1554건의 치료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국립암센터는 “<span class='quot0'>양성자치료기 도입을 계기로 양성치료 대상 환자 거의 모두를 임상연구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를 양성자선을 이용한 암 임상연구의 중심 국가로 발전시킬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67.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호스피스 병동은 마지막 ‘행복충전소’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47959  
본문: 무의미한 병원 처치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죽기보다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최대한 아프기 전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영어로는 웰다잉이며, 우리말로는 잘 죽는 것에 대한 실천이다. 웰다잉에 대한 고민은 말기 암환자에게서 두드러진다. 호스피스에서 생을 마감한 암환자 수를 살펴보면 2003년 5.1%에서 2008년 6.3%, 2010년 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br/><br/> 호스피스병동을 이용하는 상당수는 남은 인생의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암환자들이다.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암환자들이 호스피스를 이용한다. 직장인 A씨의 아버지는 몇 해 전까지 서울의 한 대형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다. A씨는 “아버지께서 호스피스병동으로 오시기 전까지 정신이 온전하셨지만 점차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하셨다.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진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가족들이 슬퍼했지만 아버지께서 눈을 감는 그 순간만큼은 편안한 표정이셨고 가족들도 평온했던 아버지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온하게 자식 곁을 떠난 아버지의 모습은 남은 가족들이 이별의 슬픔을 이기는 힘이 됐다.<br/><br/> A씨는 의료진의 접근 방식에 놀라워했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주었다는 것이다. 환자와 가족의 고통에 공감하며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가 직접 호스피스병동을 가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료진의 이야기에 어머니를 포함해 가족들이 한 데 모여 아버지의 여생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환자 당사자는 호스피스를 이용한 사실을 모르게 했다고 한다. 이는 호스피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대목이다. 호스피스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임종의 순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간호를 제공받는 곳이지만, 긍정적 정서만 형성돼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는 “<span class='quot0'>호스피스 환자들이 의료진과 모두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진의 통증 관리에도 적대적이다</span>”고 말했다.<br/><br/> 그러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말기 암환자들의 호스피스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호스피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호스피스병동을 이용 중인 한 환자는 “호스피스에 들어가면 금방 죽는 줄 알았다”고 말하며 “막상 와보니 의료진이 통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준다.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 환자로서가 아닌 남은 나의 인생 자체가 존중받는 느낌”이라고 말했다.<br/><br/>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드리고 치열했던 삶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말기 암환자의 경우 호스피스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이 꾸준히 느는 현실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어질수록 국내 호스피스 시설과 전문 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68.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MSD ‘키트루다’·BMS ‘옵디보’ 등] 비소세포폐암 극복 희망 전해주는 면역항암제들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46540  
본문: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암(癌) 중 사망률이 높은 암이 ‘폐암’이다. 폐암은 발병한 이후 쉽게 전이될 뿐만 아니라, 전이 이후에는 속수무책으로 암이 퍼져 사망위험이 높다. 폐암 중에서도 비소세포폐암은 국내에서도 많이 발병하는 암이자, 치명적인 암으로 알려져 있다.<br/><br/> 이러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의 새 장을 열어준 치료제가 바로 ‘면역항암제’다. 차세대 면역항암제들이 흑색종에 이어 폐암 영역까지 치료가 확대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BMS의 ‘옵디보(니볼루맙)’ 등은 본래 흑색종에 적응증을 받은 치료제들이지만 최근 폐암으로 치료 영역을 확대했다. <br/><br/> 옵디보는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신청서 제출 이후 석달만에, 편평 비소세포폐암 2차 약제로 허가를 획득했다. 이후 유럽 집행위원회 승인도 받았다. 옵디보 3상 임상결과에 따르면 이 약물은 PD-1(programmed death receptor-1) 발현 여부와 무관하게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생존률 42%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약물인 ‘탁소텔(도세탁셀)’ 투여군 대비 24%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다. <br/><br/> 최근 차세대 면역항암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키트루다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다. FDA는 종양에서 PD-L1 발현이 확인되고,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 도중 또는 이후에 진행이 확인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3주 1회 용법으로 2㎎/㎏ 투여하는 치료제로 키트루다를 승인했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EGFR 혹은 ALK종양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키트루다를 투여 받기 전에, 이러한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에도 질병의 진행이 확인된 경우에 투여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을 통해 키트루다는 편평세포 뿐 아니라 비편평세포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로 승인 받은 유일한 항 PD-1치료제가 됐다.<br/><br/> 이러한 결과는 KEYNOTE-001 임상에서 근거한 것이다. PD-L1 발현 종양 비율 점수가 50% 이상인 환자에게 키트루다를 투여한 결과, 전체반응률이 41%로 나타나 키트루다는 FDA 혁신적 치료제 지정을 받았으며 신속 승인됐다. <br/><br/> 의료계가 면역항암제가 폐암 치료제 있어서도 ‘면역항암제’가 기존 항암제를 넘어서는 차세대 항암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2세대 표적항암제는 특정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획기적인 치료제이지만, 내성 위험과 적용 가능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의학계가 면역항암제를 3세대 치료제로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체내 면역체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암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암에서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미국 FDA에서 면역항암제를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해 신속허가를 내 준 것은 면역항암제에 대한 임상결과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br/><br/> 앞으로 이러한 면역항암제들이 폐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다만 면역항암제 등장으로 인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도와줄 새로운 면역요법이 도입되면서 환자들의 치료 영역이 확대되고,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은 의미 있게 볼 수 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69.txt

제목: [암과의 동행-전립선암] 고령 환자 복강경·로봇시술로 효과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54921  
본문: 중장년 남성의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등이 빠르게 늘고 있다. 방광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립선암은 발생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수술을 앞둔 중·장년층 환자들은 수술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비뇨기과 주관중 교수에게 비뇨기종양의 모든 것을 들어본다.<br/><br/> 주 교수는 “<span class='quot0'>비뇨기종양은 첫 번째, 종양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제거하고, 두 번째는 삶의 질을 생각하는 치료가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치료가 잘 돼 생명연장은 됐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면 수술 후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비뇨기종양은 문제가 되는 암을 제거하면 없어진 장기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생활에 불편이 생긴다. 소변 배출기능에 영향을 주는 만큼 깔끔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br/><br/> 이에 대해 주 교수는 “<span class='quot1'>수술 후 갖게 될 후유증을 생각할 때 나이가 많으면 앞으로 살아갈 날을 고려해 큰 수술은 권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로 편안한 여생의 마무리를 돕는다</span>”고 말했다. 반면 최근에는 나이가 많아도 건강 상태가 충분히 좋아 수술을 견디고 회복이 잘되는 환자가 늘고 있다. 건강관리에 열심인 세대이다 보니 80세의 나이에도 수술을 잘 이겨내고 있다. 신장암이 커서 대수술을 받은 70대 환자는 수술 후 회복이 빨라 현재는 약물치료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다.<br/><br/>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도 증상이 없는 1기 단계에서부터 종양을 발견해서 좋은 치료 결과를 거두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발전하는 수술법도 환자의 치료 성적을 올리고 있다. 주 교수는 복강경수술, 수부보조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을 사용 한다.<br/><br/> 기존의 개복수술은 복강 내 장기에 접근하기 위해 큰 절개를 하여 출혈도 심하고 회복도 느린 단점이 있다. 그러나 0.5∼1㎝정도 구멍을 뚫고 수술을 진행하는 복강경수술은 최소침습 수술로 환자들의 회복이 빨라졌다. 수부보조 복강경수술은 개복수술과 복강경수술의 장점을 모았다. 일반 복강경수술보다는 조금 더 크게 구멍을 내지만, 개복수술보다는 적게 절개하면서 복강경수술에서 시도하기 힘든 수술에서 효과가 좋다.<br/><br/> 암의 깨끗한 제거만큼 삶의 질 보장이 중요해지면서 로봇 수술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 로봇수술은 의사가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첨단 수술법이다. 정밀한 수술과 빠른 회복이 장점이며 비뇨기종양 분야에서 큰 효과를 내고 있다.<br/><br/> 특히 전립선암은 로봇 수술 혁명의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암이다. 전립선은 크기가 호두알 정도로 작으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골반 안쪽에 있다. 기존에는 큰 절개를 하는 수술로 출혈과 후유증이 많았다. 로봇수술은 기존 복강경 수술보다 10배까지 시야를 확대해 최소 절개로도 전립선을 크게 보고 주변 혈관, 신경까지 시야를 확보한다. 3D화면으로 구현한 원근감으로 섬세하고 튼튼한 봉합이 가능해져서 전립선암 수술 후 발생 빈도가 높은 요실금 예방이 가능하다.<br/><br/> 전립선의 양쪽으로 발기와 관련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간다. 암이 전립선 내부에 국한돼 있으면 양쪽 신경, 혈관 다발을 보존할 수 있다. 한쪽 전립선 피막에 암의 침윤이 있다면 그 부위의 신경, 혈관다발을 암과 함께 제거해야 하지만 반대쪽 혈관을 보존함으로써 발기 기능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다. 정밀한 암 제거와 봉합이 가능한 로봇수술은 신경 혈관다발을 피해 수술로 발기신경 보존 확률을 높이고 있다.<br/><br/> 주관중 교수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설명할 때 수술 뿐 아니라 그 환자에게 적합한 여러 치료 방법들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보호자와 최대한 공동 의견을 모으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노력이 선행돼야 제2인 인생을 행복하게 시작하는 최선의 치료를 선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70.txt

제목: [질환 통계-자궁경부암] 40대 환자가 가장 많아… 10대는 소수지만 증가세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34445  
본문: 자궁경부암 환자가 10대에서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환자수는 2010년 5만3243명에서 2011년 5만3131명, 2012년 5만2996명, 2013년 5만3956명, 2014년 5만7521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40∼49세)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50∼59세), 30대(30∼39세), 60대(60∼69세), 70대(70∼79세), 20대(20∼29세), 80세 이상, 10대(10∼19세)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10대의 경우 2011년 11명에서 2014년 3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br/><br/> 내원일수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는데 2014년 기준 환자 1명당 평균 내원일수는 80세 이상이 21일로 가장 높았고, 이어 △70대 11일 △60대·50대 각각 9일 △40대 8일 △30대 6일 △20대 5일 순이었다. 보험자 부담금도 70대가 16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143만원 △60대 138만원 △40대 121만원 △10대 113만원 △30대 96만원 △20대 7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요양기관 소재지별 환자수를 보면 서울이 2만3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만615명, 부산 5358명, 대구 4842명, 인천 2412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입원·외래로 나누어 보면 전체 5만7521명 중 외래가 5만6092명(입원 1만2219명)으로 크게 높았다.<br/><br/> 반면 비용은 입원의 보험자부담금이 452억원(요양급여비용 487억원)으로 외래 333억원(요양급여비용 366억원)에 비해 높았다.<br/><br/>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 Human Papilloma Virus), 인면역 결핍 바이러스, 허페스 바이러스감염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무엇보다 일찍 성관계를 시작한 경우,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여럿인 경우,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경우에 위험성이 증가한다. 자궁경부암 초기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증상이 전혀 없고, 대부분 진행된 후에 증상을 보인다. 가장 흔한 증상은 비정상적인 질 출혈로 폐경기 이후 출혈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폐경 이전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출혈을 말한다. 또 암 덩어리가 2차적으로 감염되거나 암 덩어리 자체에 괴사가 생기면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생겨 질 분비물이 증가한다. 체중감소는 암이 진행된 단계에서 나타난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궁경부암 초기 환상투열요법이나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수술로 치료된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 다만 조산은 위험성은 다소 증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br/><br/>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7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신규 중증 암환자 작년 진료비 2조 넘어… 1인당 연 평균비용 850만원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36639  
본문: 지난해 전체 진료비 중 악성신생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4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진료비는 54조4272억원으로 이중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가 4조58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신생물 진료인원을 보면 2007년 63만6000명에서 2013년 111만1000명, 2014년 117만20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9.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전년대비 증가율도 5.5%로 주요 만성질환에 비해 가장 높다. 진료비는 2007년 2조4465억원에서 2013년 4조2098억원, 2014년 4조5806억원으로 전년대비 8.8%, 연평균 9.4%의 증가율을 보였다.<br/><br/> 2014년 중증(암) 등록환자를 보면 신규로 등록한 인원은 24만7828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진료인원은 24만4692명이고, 1년간 진료비용은 2조1058억원에 달했다. 연간 1인당 평균 진료비용도 약 85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말까지 누적 암 등록 환자는 157만7152명으로 이중 진료인원은 119만1947명이며, 진료비용은 5조1052억원이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신규 암환자의 경우 약 1%로 만이 등록만 하고 진료를 받지 않았으나. 전체 암환자를 보면 20% 이상이 진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무의미한 치료는 받지 않으려 한다는 분위기를 볼 수 있었다.<br/><br/>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 ‘입원’다빈도 악성신생물 급여현황을 보면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2만5200명 △위의악성신생물 2만2507명 △간및간담내관의악성신생물 1만7751명 △결장의악성신생물 1만4984명 △전립선의악성신생물 9055명 △직장의악성신생물 7820명 △방광의악성신생물 6849명 △췌장의악성신생물 5656명 △유방의악성신생물 4617명 △갑상선의악성신생물 4563명 순이었다. <br/><br/> 한편 2014년 중증질환 산정특례적용 진료현황을 보면 진료인원은 176만명으로 진료비는 9조5992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암 질환이 99만7000명(진료비 4조95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희귀난치성질환 68만명(진료비 3조5098억원) △심장질환 8만2000명(진료비 7693억원) △뇌혈관 3만2000명(진료비 3343억원) △중증화상 9000명(진료비 32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72.txt

제목: [암과의 동행-완치를 향한 위대한 도전] 넘쳐나는 의료정보… 진료는 의사에게 맡기세요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46225  
본문: 가을이 무르익는 이맘때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진료실을 방문했던 젊은 부부가 생각난다. 부인인 환자는 처음 감기로 가볍게 생각했던 증상이 심한 상복부 복통까지 동반되자 인근병원을 방문했고 간 전이가 있는 4기 대장암으로 진단받았다. 환자와 보호자는 대장이 막혀 간 수술은 어렵고, 간은 손대면 더 나빠진다는 주변 이야기에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치료를 주저하고 있었다. <br/><br/> 환자는 대장암으로 장이 막혀 식사를 못하고, 복통을 호소하며 배도 부풀어 있었다. 검사결과 대장암은 대장내시경 호스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진행돼 있었고, 진행된 암조직은 대장 주변조직을 침범하고 있었으며, 인근 소장 주변의 림프절까지 커진 소견을 보였다. 간 전이가 동반된 대장암 4기이나 간 전이 부위는 수술로 절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됐다.<br/><br/> 의료진은 먼저 환자의 활력징후 등 임상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전이된 간을 포함하여 대장암을 한 번의 수술로 제거하기 위한 신속한 처치를 진행했다. 장 폐색으로 인한 전신감염을 예방하고 더 이상의 진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식사가 불가능했던 것을 감안해 혈관을 통한 전신영양 보충과 수액 공급을 시행했다. 또한, 대장암센터의 주도하에 간담도계 의료진들과 함께 전이된 간도 대장암 수술시 동시에 절제하기위한 치료방법을 상의했다.<br/><br/>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수술 전 준비는 잘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술을 하고보니 대장암은 예상보다 진행되어 대장벽을 넘어 주변 복막을 침범하고 있었다. 먼저 대장암센터의 의료진이 암세포가 침범한 주변 복막과 림프절을 포함하는 광범위 대장절제술을 시행했고, 이어서 간담도계 의료진이 전이된 간 제거 수술을 진행했다. <br/><br/>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도 수술 소견과 동일하여 복막침범과 림프절 및 간 전이가 있었다. 환자는 처음 진료실 방문 때와는 달리 불안해하지 않았고, 의료진을 신뢰하며 치료에 적극적이었다. 수술 한 다음날부터 운동도 하고, 별다른 합병증 없이 빠르게 회복했다. 환자는 수술에서 회복 한 후 집중항암화학치료를 6개월 받았다. <br/><br/> 환자는 간으로 퍼진 암에 손대면 더 나빠진다는 속설을 뒤로하고, 의료진에 대한 믿음으로 대장암과 전이된 간을 동시에 절제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치료를 마친 환자는 부인과 함께 꾸준히 정기검진을 받았고, 긴 치료기간 동안 아이들도 키우면서 일상생활을 했다. 환자는 5년이 지난 현재, 재발 없이 완치판정을 받았다. <br/><br/>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암으로 진단받는 순간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는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암이 전이 된 심각한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암 치료의 진실을 외면할수록 그 두려움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치료도 어려워진다. <br/><br/> 이 젊은 부부도 갑작스런 대장암 진단과 연이은 간 전이 진단을 받고 막연히 알고 있던 암에 관한 이야기와 주변사람들의 말에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부부는 의료진으로부터 대장암 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대장암을 이해하며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br/><br/> 대장암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환자들이 암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상식으로 극도의 두려움을 갖고 일상생활도 포기한 채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암을 올바르게 알고 대처한다면, 암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만성질환처럼 평생 관리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br/><br/>문선미 원자력병원 대장암센터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7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자궁경부암 차단 “서두르세요”… 내년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 리스트에 추가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38629  
본문: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강은희(37·가명)씨는 초등학교 6학년 딸을 가진 열성엄마다. 과외, 학원 등 다른 아이가 하는 거라면 뭐든지 우리 아이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그녀는 개학 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뜻밖에 전화를 받았다. 아이가 초등학교 5∼6학년에 받아야 할 필수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않아 걱정된다는 당부 전화였다. 예방접종은 모두 만 12개월 미만이면 끝나는 줄 알았던 은희씨는 아이 성적에만 신경 썼지 정작 중요한 건강 문제에는 소홀한 엄마처럼 보인 것 같아 부끄러웠다.<br/><br/> 아이가 작은 병에라도 걸리면 마음 아픈 것이 부모 마음이다. 올 해 초 메르스가 한 차례 전국을 쓸고 지나가면서 아이의 면역력 강화나 예방접종에 부모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 정부 역시 감염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 가정마다 발생하는 양육비의 부담을 덜고자 만12세 이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br/><br/>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총 11종으로 그 수도 많고 접종 시기도 모두 다르다.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다음 차수에 대한 예방접종일정을 참고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0∼2세)때의 예방접종률은 86%에 달할수록 높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추가 접종률이 낮아진다. 자연스럽게 아이가 자라면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보거나 앞선 사례처럼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 접종 자체를 잊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br/><br/> 사실 필수예방접종이 사람끼리의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만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유아와 초등학생 역시 예방접종을 통한 질환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자녀의 기존 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항체 효과를 최대로 올리기 위해 접종 시기에 모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br/><br/>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4∼6세 어린이는 기초 접종으로 형성된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점차 약해지는 시기로 MMR(2차), DTap(5차), 폴리오(4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해 대부분 추가접종 4가지를 완료하고 입학하지만, 일부 미 접종인 학생들은 빠진 예방접종을 방학 동안에라도 마쳐야 한다. <br/><br/> 초등학교 5∼6학년도 필수 예방접종 목록을 챙겨야 하는 시기다. 이 때는 Td(파상풍/디프테리아 예방 백신) 또는 Tdap(6차,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예방 백신), 일본뇌염(5차) 예방접종이 필수 권장된다. <br/><br/>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확장하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 내년에는 소아 시기 접종해야 할 필수 예방접종이 하나 더 늘어난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 만 12세 이하어린이 무료 접종 항목에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을 추가하는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총 12가지 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br/><br/> 자궁경부암 백신은 자궁경부암의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 Human papillomavirus)의 감염을 예방한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가임기 여성 중에서 여성암 사망률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 약 2분마다 1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다.<br/><br/> 정부의 자궁경부암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등록은 최근 청소년의 첫 성경험 연령이 빨라짐에 따라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만 35세 미만의 젊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자궁경부암에서 35세 미만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990∼1992년 6%에서 2005∼2006년 11.3%로 증가했다. 자궁경부암백신은 자궁경부암 환자의 99.7% 이상에서 발견되는 자궁경부암의 주 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 예방 백신으로 평가 받고 있다.<br/><br/> 이현주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span class='quot0'>HPV질환은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HPV백신은 HPV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궁경부암 뿐 만 아니라 관련 다른 HPV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74.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땐 즉각 의료기관 찾아야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35382  
본문: 예방접종은 약독화 생백신이나 비활성화 백신을 인체에 주입해 인체 내에서 능동적, 수동적으로 면역력을 유도하거나 갖추게 하는 과정이다. 여러 감염성 질환의 발생을 일차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br/><br/> ◇예방접종 백신 종류=약독화 생백신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병원체의 독성을 약화시킨 것이다. 체내에서 증식을 하지만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고 면역 체계만을 자극해서 면역을 유도한다. 소량으로도 면역이 유도될 수 있으며 실제 질병에 걸려서 만들어진 것과 유사한 면역이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드물지만 돌연변이를 일으켜 독성을 회복하게 되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비활성화 백신은 병원체를 배양시켜서 열이나 화학 약품으로 비활성화 시켜 제조한다. 인체 내에서 증식하지 않기 때문에 생백신에 비해 많은 양을 여러 번 접종해야 한다. 면역 효과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생성되는 항체가 질병방어와 무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인체 내 항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성을 회복하거나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br/><br/> ◇백신 접종 방법=예방접종 경로와 부위는 약제에 따라 다르다. 접종 방법이나 부위가 잘못된 경우에는 충분한 예방 효과가 생기지 않거나 이상 반응 발생이 증가한다. 보통 주사로는 근육, 피하, 피내주사법등이 있으며 경구용 백신의 경우는 투여 후 내뱉거나 5∼10분 이내에 토하면 같은 양을 다시 한번 투여해야 한다. 규정된 양보다 소량이나 다량을 접종하거나 일회 규정량을 한번에 접종하지 않고 몇 번에 나누어서 접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r/><br/> ◇독감예방접종(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는 해마다 발생률이 다르지만 수년 간격으로 세계적인 유행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건조하고 추운 11월 말에서 다음 해 4월 사이에 유행하는데 2∼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인플루엔자의 증상으로는 고열과 몸살, 인후통, 두통이 흔하다. 간혹 인플루엔자와 감기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기는 합병증 없이 대부분 1주일 내로 증상이 좋아지는 반면,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심하고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이나 사망은 정상인에게서는 드물지만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나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에게서는 입원이나 사망자수가 정상인의 수십 배 이상이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이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적극 권유된다.<br/><br/> ◇예방접종 금기·주의사항=예방접종 금기 사항은 백신을 접종 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주의해서 접종해야 하는 경우는 백신 접종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면역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이다.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경한 압통이나 발적, 부종 40.5℃ 미만의 발열, 38℃이하의 미열이 있으면서 호흡 기계나 소화기계 증상이 있는 사람, 항생제 치료 중인 사람, 최근 질병에서 회복된 사람, 기족 중 임신부가 있는 경우, 과거의 경미한 이상 반응, 모유 수유, 경련성 질환, 예방접종 이상 반응 가족력 등은 예방 접종의 금기 사항이 아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 즉시 접종기관의 의료인 또는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송병기 기자<br/><br/><자료=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75.txt

제목: [암과의 동행] 고대구로병원 이승룡 교수 “고혈압 잡듯 항암제로 폐암 조절하는 시대 도래”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47375  
본문: 생존율이 낮아 여전히 공포의 암으로 불리는 폐암. 그러나 폐암은 항암제의 일종인 표적치료제의 개발이 두드러지는 암이기도 하다. 특정 유전자의 변이로 발생한 폐암이라면 표적치료제를 통해 극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대구로병원 호흡기내과 이승룡 교수는 “<span class='quot0'>표적치료제를 이용한 환자 상태별 맞춤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폐암의 치료율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span>”라며 “<span class='quot0'>다른 장기로 전이가 일어난 폐암 환자라도 희망은 있다</span>”고 말했다.<br/><br/> 이 교수는 암환자 중 여전히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두려워해 치료에 소극적인 환자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항암제의 개발 뒤엔 항암제의 부작용을 다스리는 약제들의 개발도 이어져 항암치료로 고생하던 암환자들이 과거처럼 많지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항암치료하면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탈모, 구토, 식욕저하, 전신 무력감일 것이다. 그러나 항암제 자체의 부작용도 줄고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약제들도 다양해져 부작용을 능동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br/><br/> 이 교수의 환자 중 고령의 폐암환자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더욱더 항암제의 부작용에 신경을 쓴다. 동일한 약제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라도 환자가 겪는 고통은 고령에서 더욱 심하다. 이 교수는 “치료 중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이다. 부작용을 경험할수록 치료 의지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같은 항암제라도 환자마다 나타나는 부작용이 다르다.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어도 예외의 상황을 염두에 놓고 약제를 선택한다. 부작용을 줄이되 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치료 목표이자 전략”이라고 말했다.<br/><br/> 폐암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진행된 3기 이상 환자들이다. 이는 폐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별검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자는 예외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55세 이상 74세 이하의 연령에서 하루에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했다면 저선량 흉부 CT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또한 금연한지 15년 이내라면 동일한 검사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br/><br/>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폐암 발생 고위험자가 1년에 한번 저선량 흉부 CT 촬영을 했을 때 폐암에 따른 사망가능성이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약제의 개발만큼 중요한 것은 조기진단임을 강조했다. <br/><br/> 한편 고령이면서 저소득층 가정일 경우 치료의 적극성은 더욱 낮아진다. 이 교수는 이점을 안타까워하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의료보험 산정특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기관에서의 의료비 지원혜택이 다양해졌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병원 내 마련된 사회복지지원 부서를 찾아 도움을 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의학치료를 포기하고 효능이 입증되지 않는 민간요법에 몰두하다 보면 치료시기를 놓칠 뿐 아니라 민간요법으로 망가진 몸을 회복하기 위한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자 본인의 적극적인 치료의지만 있다면 폐암도 만성질환처럼 조절해가는 질병으로 평생 살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항암치료 도중에는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약으로 고혈압을 조절해 가듯 항암제로 폐암을 조절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76.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죽음을 삼킨 부활의 능력, 남편 세상 떠났지만 평강 찾아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20796  
본문: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은 후 1년반을 옆에서 병실을 지키는 동안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때 나는 불교 신자였고, 하나님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br/><br/>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환자 아내의 이름은 ‘정자’였다. 그 남편은 위암 환자로 장이 완전히 막힌 마지막 상태였는데 갑자기 “정자야! 무서워! 나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 무서워!” 하며 울부짖었다. 그러곤 “같이 죽자! 너무 무서워서 혼자 못 간다” 하며 팔로 자기 부인 목을 힘껏 조이며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며칠 후 심박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다가 그는 눈을 뜬 채 고통 속에 임종했다. <br/><br/> 나의 남편이 보면 두려워할까 봐 귀를 막아주고, 커튼을 쳐 보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미 나와 남편에겐 죽음의 공포가 덮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공황 상태가 되었다. 당시 우리에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임을 그때 정확히 알았다. <br/><br/> 어느 날 밤에 남편이 자는 나를 갑자기 발로 찼다. 놀라 잠을 깼는데 남편은 울면서 화를 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얼마나 불렀는데 왜 대답하지 않았냐, 너무 무섭다, 나를 데리러 왔다’며 울부짖었다. 그 후 두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영적 세계를 몰랐던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br/><br/> 그때 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누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만 들리면 바로 병실로 데리고 와 기도해 달라고 했고, 원목실 전도사님도 계속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했다.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br/><br/> 나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도를 하던 한마음교회 언니 한 분이 병실로 찾아왔다. 언니는 “<span class='quot0'>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span>”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다. ‘부활’이라는 두 단어가 너무도 선명히 내 귀에 들렸다. “부활? 뭐야?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나는 예수님을 남편과 같이 영접하겠다고 했다. <br/><br/> 그때 남편은 동공이 거의 풀려 있는 상태였지만 너무도 간절한 눈빛으로 복음을 들었고, 우리 부부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 순간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바로 임했다. 부활이 죽음을 삼켜 버렸다. 그리고 2주 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소천했다. <br/><br/> 장례 후 언니와 함께 한마음교회에 처음으로 갔다. 목사님 설교 중에 당신 장모님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보다 네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나에겐 그 말씀이 ‘지은아! 내가 너보다 네 남편을 더 사랑한다. 지금 나와 함께 있다’로 들렸다.<br/><br/> 그때, ‘아! 이 사람 천국 갔구나! 내가 나중에 가서 만나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아이들에게도 ‘너희 아빠 천국 가셨어. 나중에 우리가 가서 만나면 돼!’라고 말해주었다.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 부활의 복음이 나와 남편과 아이들을 살렸다. <br/><br/><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77.txt

제목: [암과의 동행] 무늬만 보장성 강화… 항암제 비급여 ‘강 건너 불구경’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56397  
본문: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무늬만 ‘보장성 강화’라는 지적이다. 실제 암,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br/><br/> 최근 4∼5년간 건강보험재정이 16조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정작 건강보험 보장율은 계속해서 하락세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 환자 등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환자들을 위한 보장성 강화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용 관리를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2014 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0년까지는 적자와 흑자를 반복했지만, 2011년부터 4년연속 당기수지 흑자가 이어져 2014년말 기준 누적수지 흑자는 12조 807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약 4조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br/><br/> 이렇듯 사상최대의 흑자기록 행진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9년(65%)에서 2010년(63.6%), 2011년(63%), 2012년(62.5%), 2013년(62%)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건보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장률 78%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pan class='quot0'>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의 하나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5년까지 70%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는 공단이 2012년 80%까지 확대하겠다던 목표에서 후퇴한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span class='quot1'>정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비급여는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정체시키는 주요 원인</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실질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 특히 항암제에 대한 비급여 부담 문제는 최우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10년 항암제 급여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해 10월부터 적용했다. 당시 복지부는 항암제 급여확대에 연간 212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2014년 건강보험 급여확대 항목별 추계 및 연도별 실지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급여확대에 따른 재정추계는 2120억원이었던데 반해 2014년 급여청구액은 437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실제 의료현장에서 쓰이는 재정은 정부가 예상한 재정추계의 약 20%에 불과한 것. 정부의 급여확대가 말 뿐이라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br/><br/> 암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1위로, 치료 과정에서 가계가 부담하는 비용도 상당해 그 가족과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질병이다. 실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하나로 암질환이 포함돼 있지만, 여전히 혁신적인 신약을 필요로 하는 암환자 중 상당수는 보험급여를 통한 약물복용의 기회도 가져보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 환자들도 많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통해 행복한 복지사회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험은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일부 있다. 따라서 질환에 상관없이 가입자들의 치료보장성을 담보하는 형평성과 함께 남아있는 16조 흑자를 실제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보험이 안되는 치료를 받아 경제적 파탄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r/><br/>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암제는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비급여로 공급된 항암제 약품비는 최대 2110억 원으로 추정되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78.txt

제목: [암과의 동행] 노인 위협하는 다발골수종… 뚜렷한 증상 없어 조기진단에 어려움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55293  
본문: 김모씨(67)는 2년 전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껴 동네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3개월 간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에 차도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한방치료도 병행했다. 통증은 더 악화됐고, 결국 대형병원에서 MRI촬영과 혈액검사를 받아다. 김씨의 진단명은 ‘다발골수종’. 김씨는 다발성 골수종이 상당히 진행돼 뼈의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였다.<br/><br/> ◇65세 이상 주로 발병, 노인성혈액암 ‘다발골수종’=다발골수종은 주로 뼈에서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혈액 내 세포에 이상이 생겨 발병하는 혈액암이다. 다발골수종은 뼈, 신장 등 신체 내 다양한 장기를 침윤하고, 이로 인해 뼈의 통증, 신부전, 빈혈과 출혈, 감염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원인은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 없지만, 방사선이나 특정 화학물질, 면역력약화 등이 꼽힌다. ‘노화’는 다발골수종과 연관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위험인자로, 국내의 경우에도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다발골수종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1∼2년 만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하지만 발병 후에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쉽지 않다. 또한 환자의 자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뼈의 통증, 피로감, 잦은 감염이나 골절 등 다른 노인성 질환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br/><br/> 전문가들은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노인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민창기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다발골수종은 초기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 시에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보다 나은 예후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고령 환자 중 뚜렷한 원인 없이 잦은 피로감이나 무력감, 뼈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정밀 혈액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br/><br/> 특히 다발골수종 유병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세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다발골수종연구회에 따르면 국내 다발골수종 유병률은 지난 30년간 30배 늘었다. 환자수 급증은 진단 기술 발전에도 원인이 있지만, 실제 노인 인구 증가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민창기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다발골수종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약 6500여명으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약 2배에 달한다. 한국의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 수는 현재의 2배까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br/><br/> ◇치료법 발달로, 이제는 ‘만성질환’처럼 관리해야=다발골수종은 불치의 병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1980년대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발달과 함께 2000년대 중반 표적치료제가 개발되면서 환자 기대수명이 5년 이상으로 연장돼 생존율이 크게 향상됐다.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다발골수종의 5년 생존율은 35% 이상으로, 표적치료 도입 전인 2000년도에 비해 15% 이상 증가했다. 민 교수는 “다발골수종은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의 일부에서 완치도 가능하다. 이식이 어려운 환자들이라도 꾸준한 표적항암제 치료를 통해 관리해 나간다면 완치와 다름없는 장기 생존이 가능한 암이다. 표적치료제를 포함한 다양한 병용요법의 효능이 입증된 만큼 충분히 만성질환처럼 관리가 가능하고 실제 10년 이상 생존하는 환자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 다발골수종 환자라면 뼈가 약해져 있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과격한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면역력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등 개인위생에 더 주의를 기해야 한다. 항암치료 중에는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며,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은 치료제와 상호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 상의 하에 복용해야 한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79.txt

제목: [암과의 동행]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 왔나… 의료비 부담은 감소, 체감도 향상은 과제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59387  
본문: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의 건강보험적용을 약속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다. 이에 국민일보 쿠키뉴스에서는 해당 의료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정책실현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br/><br/> 13일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한 질환에 대해 환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을 경감됐으나 그에 반해 정책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까닭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여전히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환자와 그 보호자들이 짊어져야할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br/><br/>◇일시=2015년 10월 13일 오후 2시 <br/><br/>◇참석자=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보건사무관, 김봉석 한국임상암학회 보험위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br/><br/>◇진행=원미연 쿠키건강TV 아나운서 <br/><br/>◇연출=홍현기 쿠키건강TV PD <br/><br/>◇방송=2015년 10월 19일 오후 7시 20분<br/><br/><br/>Q.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무엇인가<br/><br/>◇김한숙=치료에 필요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암, 심장혈관,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해 보험적용의 범위와 상한에 제한을 줄여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공단이 부담하는 정책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일지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건강보험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br/><br/>◇정형선=의료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발생하는 의료비가 크더라도 중증질환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비싸다고 의료를 이용하지 않기는 어렵다. 그만큼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에 치중한 것은 이들 질환이 비용이 많이 들면서 질환이 명확하고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br/><br/><br/><br/>Q. 그렇다면 4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국내 환자수는 얼마나 되며 의료비는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가<br/><br/>◇김봉석=4대 중증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수는 160만명에서 18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암환자가 90만명으로 가장 많다. <br/><br/>◇김한숙=가장 최신 자료인 2013년 진료비실태조사 결과, 4대 중증질환의 의료비 총액은 10조 3465억원, 이 중 비급여(100% 환자 부담) 비용은 1조 5790억원(15.3%)이며 이 중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제외하고 검사, 수술, 약제 등을 위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의학적 비급여는 7344억원(7.1%) 차지한다.<br/><br/><br/><br/>Q. 4대 중증질환 환자들과 가족들은 해당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것 같다.<br/><br/>◇안기종=해당 정책은 현 정부의 임기 실천 공약이었다.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가 100%, 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은 아니지 않나. 돈이 없어 여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 환자가 현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실감하는 정도는 낮다고 본다.<br/><br/>◇정형선=지난 대선때 여야를 막론하고 비급여 부담을 줄이겠다는 식의 발언을 넘어 보장성을 100%로 높이겠다는 식의 공약이 나왔다. 의료라는 것은 이용에 따라 한없이 팽창하는 것이다. 무상의료, 전액보장 등의 내용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실제 지금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다.<br/><br/>◇김한숙=보장성 강화 정책의 취지는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비급여항목을 건강보험이 가능한 급여항목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에서 보장의 의미는 가입자가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데 있다. 따라서 100% 국가 보장은 환자 부담이 전혀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영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흡수하겠다는 의미다. 이 때 아직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과잉의료를 유발할 수 있는 비필수적인 의료는 제외하고 환자의 진단, 치료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가 일차적인 대상이다.<br/><br/><br/><br/>Q.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어떻게 추진되어 왔으며 향후 확대되거나 논의 중인 추가 항목들이 있는가.<br/><br/>◇김한숙=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이 수립된 2013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182항목의 보장 확대가 있었으며 검사/치료 수술 등을 의미하는 행위/치료재료가 76항목, 항암제 등 치료 약제는 106항목을 확대했다. 급여 검토가 짧게는 3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적지 않은 항목을 한꺼번에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환자 요구도가 높고, 명확한 근거가 확보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암과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유전자검사 등이 급여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br/><br/>◇안기종=환자 부담이 20%, 10%, 5%로 낮아졌기 때문에, 실제 금액적인 측면에서 환자가 내야할 금액적인 부담을 줄어든 편이다. 그러나 치료에 필요한 검사 자체가 잦은 편이다 보니 개별 수치로 본다면 보장성을 높아졌지만 전체 지출한 의료비를 따져본다면 환자의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br/><br/>◇김봉석=암환자 중 상당수가 치료에 필요한 약이지만 보험이 되지 않아 경제적 이유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비급여 항목에서 급여로 전환된 얼비툭스 약제의 경우 이미 제네릭이 나온 뒤며 전세계에서 가장 늦게 보험을 받은 나라라고 알고 있다. 전세계 환자들이 얼비툭스의 혜택을 받은 10년 동안 우리나라 환자들은 혜택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최근 항암제 급여를 받은 제품들이 대부분 얼비툭스처럼 특허가 만료되거나 허가 이후 한참이 지난 약제들이 대부분이다. 허가받은 다음 빠른 급여전환이 필요하다.<br/><br/><br/><br/>Q. 보장성이 더 강화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br/><br/>◇안기종=현 정책 안에 2∼4개 질환을 더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가령 신장투석과 간질환도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br/><br/>◇정형선=보장성이란 것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다. 정책의 실현성 측면에서 질환을 순차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으나 환자의 체감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 4대 중증질환 만이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간이식이나 신장투석의 경우 웬만한 4대중증질환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질환으로 국한해 보장의 대상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중심으로 가서 400만 원 이상 부담하는 질환에 대해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br/><br/><br/><br/>Q. 정책 실현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의료비 경감률과 국민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br/><br/>◇김봉석=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급여확대에 따른 재정 추계는 2120억원이었으나 실제 급여청구액은 437억으로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급여확대 효과는 복지부 추정액의 20%에 불과했다. 즉 국가는 재정손실을 우려해 실제로 급여확대나 급여승인을 두려워하지만 이는 실제와 차이가 있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속한 급여전환이 필요하다.<br/><br/>◇김한숙=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는 국민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한 국민 체감형 정책이므로 국민의 정책적 효과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분기별로 전화설문을 통해 체감도와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76.3%, 4대중증질환자의 정책만족도는 66%로 조사됐다. <br/><br/>Q. 앞으로 보장성이 확대돼야 할 부분은?<br/><br/>◇김봉석=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국내 허가를 받은 항암신약 26개 중 현재가지 5 품목만이 급여화가 됐다. 구 치료제보다 최근 개발된 신약의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최신 신약의 보험률을 높이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차세대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 이전 표적치료제의 급여전환보다 빨리 돼야한다.<br/><br/>◇안기종=폐암환자에 사용하는 크리조티닙은 급여전환까지 3년 걸렸다. 평균 9개월을 생존하는 재발성 폐암환자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신약의 혜택만을 기다리기만 한 환자들이 많다. 생명과 직결되고 위급한 질환에 대해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을 때 급여전환 같이 이뤄지길 바란다. <br/><br/>◇김한숙=182항목 중에 106항목이 약제에 해당한다. 신약의 진입이 빠르다보니 급여전환이 상대적으로 늦어 보인다. 그러나 106항목이 약제에 해당하는 만큼 그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도 약제와 항암제 부문에서 높다. 다양한 약제들이 급여전환을 위해 평가 중이다.<br/><br/><br/><br/>Q.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 앞으로 논의돼야 할 부분은?<br/><br/>◇정형선=정부나 공단의 재정 부담만 따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전체 의료비 규모와 환자의 부담을 중심으로 생각해야한다. 정부나 공단의 재정부담도 결국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급여 항목의 축소 내지 규제다. <br/><br/>◇김봉석=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낮은 편이다. 보험 급여까지 소요되는 적지 않은 시간 등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보건당국, 학계, 제약사, 환자단체, 보험사 등 다학제적 상시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80.txt

제목: [크리스천 책갈피] ‘암의 공포’ 극복하는 체계적 치료법  
날짜: 2015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2823712  
본문: 암을 이기는 체계적인 건강 정보를 통해 몸과 영혼이 건강으로 살아나게 하는 책이다. <br/><br/>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정보를 제공한다.<br/><br/> 저자는 전국 각지에서 상담해 오는 암 환자들은 놀랍게도 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 부재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힌다. 답답해 어찌할 바 모르는 이들을 위해 저자는 7가지 건강관리법을 소개한다. <br/><br/> 우리 몸의 치유능력, 즉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암 예방은 물론 암을 이겨내는 길이라고 말한다. <br/><br/> 책은 암 예방 및 암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의학적, 성경적, 통합적 치료뿐만 아니라 저자 자신의 말기암 투병 체험과 건강관리의 중요성, 성공 사례 등을 밝힌다. 혈액과 영양, 체력과 호흡, 체온과 수면 관리법도 소개한다. 특히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br/><br/> 저자는 경기도 일산에서 아름다운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또한 목회사역, 신학교 교수사역과 더불어 강원도 오대산에 있는 ‘사랑이 있는 마을’에서 암 환우들을 위한 상담과 건강 관리법을 교육하고 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81.txt

제목: 한국과학기술정보硏, 제7회 지식창조대상 수상자 ‘웨어러블 2차전지 개발’ 최장욱 교수 등 10명 선정  
날짜: 2015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2859085  
본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15일 제7회 지식창조대상 시상식을 열고 최장욱 카이스트 교수 등 10명을 수상자로 발표했다. KISTI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용 횟수가 세계 상위 1% 안에 드는 논문을 추출한 뒤 학술적 공헌도가 높은 과학자를 수상자로 선정했다.<br/><br/> 최 교수는 2차전지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다. 구부리는 동작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웨어러블 2차전지를 개발했다. 현재 스마트워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br/><br/>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는 메모리 소자와 반도체 물질·공정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이다. 최근 낸드플래시보다 저장하고 쓰는 속도가 1000배 빠르고 크기는 절반 이하인 차세대 저항변화메모리(ReRAM) 개발에 성공했다.<br/><br/> 그가 2010년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게재한 저항변화메모리 관련 논문은 지금까지 700회 가까이 인용됐다.<br/><br/> 김재윤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다양한 나노생체재료를 이용한 약물전달·세포전달·면역치료 분야 권위자다. 최근에는 복잡한 수술과정 없이 간단한 주사만으로 암·전염병 등 각종 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3D 백신 전달체’ 개발 성과를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표지 논문으로 게재했다.<br/><br/> 문주호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박은정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선양국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신현석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자연과학부 교수, 임종환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장석복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 장석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교수도 수상자로 뽑혔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82.txt

제목: [인터뷰] 고신대 복음병원 임학 병원장 “장기려 박사 인술 이어받아 고객 감동의 최고병원 만들 것”  
날짜: 201510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2803822  
본문: “<span class='quot0'>‘한국의 슈바이처’ 고 장기려 박사의 인술을 이어받아 ‘국민안심병원’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span>”<br/><br/> 고신대 복음병원 제8대 병원장에 취임한 임학(54) 병원장은 14일 “<span class='quot1'>고객감동을 위한 융합인프라를 구축해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들겠다</span>”며 이같이 밝혔다. 모교 출신 제1호 병원장인 임 원장은 “<span class='quot2'>투명한 경영마인드와 탁월한 의료기술로 동문들의 자부심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경영하겠다</span>”고 강조했다.<br/><br/> 그는 “<span class='quot2'>정부의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계와 직접 연관된 핵심단어는 융합, 전문화, 고령화, 미래산업 등</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부족한 연구 인프라를 확충해 교수들의 연구환경을 적극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겠다</span>”고 말했다.<br/><br/> 임 원장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 안에 심혈관중환자실(CCU)을 오픈, 중증 심혈관 치료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존하는 최강의 방사선 암치료기로 불리는 트루빔 STX 가동도 서두르고 있다. 암환자의 ‘수술 전 평가 및 퇴원 후 관리 특별병동’ 운영도 확대할 생각이다.<br/><br/> 임 원장은 특히 이 병원 만의 강점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span class='quot2'>고 장기려 박사로부터 이어져 온 60여년의 임상경험 노하우를 살려 ‘해외진출’과 ‘의료관광’에 중점을 두겠다</span>”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부산시와 함께 ‘의료관광의 실크로드’인 카자흐스탄에 종합검진센터를 설립해 의료진을 파견할 계획이다. <br/><br/> 그는 또 “<span class='quot2'>메르스 사태 당시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전염성 호흡기 질환에 안전한 병원으로 인증을 받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음압병상 확충 등에 신경을 쓰겠다</span>”고 말했다.<br/><br/> 임 원장은 아울러 “<span class='quot2'>기독정신을 바탕으로 매년 국내외에서 다양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앞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들의 의대 진학을 돕는 ‘꿈 만들기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임 원장은 진료지원부장, 의과대 학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이식학회 정회원, 미국·유럽신장학회 활동 등 국내외에서 폭넓은 학술활동을 해왔다.<br/><br/>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83.txt

제목: [한마당-김명호] 체르노빌  
날짜: 201510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2724741  
본문: 20세기 최악의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옛 소련 지역의 우크라이나 서북부 체르노빌. 1986년 4월 26일 원자로가 폭발해 방사능 가스와 물질이 4.5㎞ 높이의 공중으로 날아가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거쳐 유럽을 강타했으며, 러시아 한국 일본을 지나 북미까지 도달했다. 발생 후 6년 동안 사망자 8200명, 거주민 13만명 이주, 영향 지역 내 갑상선 질환·백혈병·암 발생률 50% 이상 증가, 방사능 후유증 환자 43만명.<br/><br/> 30년 가까운 이 ‘죽음의 땅’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다. 멧돼지, 노루, 붉은사슴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연구진의 발표가 있었다. 늑대는 다른 지역보다 7배나 많았다고 한다. 사고 후 20년 동안 동물 개체수를 추적해 온 연구진은 ‘원전 사고보다 사냥이나 개발 같은 인간의 위협이 자연 생태계에 더 해롭다’는 분석을 학술지에 실었다.<br/><br/> 체르노빌 관련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보면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 처참하고 황량하게 된 시가지나 농촌 풍경이 나온다. 원전 사고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대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원전 사고보다 인간들의 행위가 훨씬 더 자연을 망가뜨릴 확률이 높다니…. 꽤나 역설적이다. 자연한테는 인간의 탐욕적 행위가 최대의 적인 셈이다.<br/><br/> 다크 투어리즘이란 제법 인기 있는 여행 상품이 있다.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재난·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것이다. 일종의 역사교훈 여행인데, 400만명이 학살당했던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체르노빌도 인기 장소란다. 참혹한 원전 사고를 상기해보자는 취지이긴 한데, 다시 인간의 탐욕이 체르노빌을 상품화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br/><br/> 체르노빌에서 개체수가 서서히 늘어나는 야생동물들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듯하다. “<span class='quot0'>너만 잘하면 지구는 평화스럽고 안전해∼.</span>”<br/><br/>김명호 논설위원 mh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84.txt

제목: ‘肝癌’ 과음보다 B형간염이 주원인… 6개월마다 검진을  
날짜: 201510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2543864  
본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한창 활동적으로 일할 나이인 40, 50대의 남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간암 진단을 받고 쓰러지고 있다. 대한간암학회(회장 엄순호 고대안암병원 교수)는 간암을 빨리 발견, 극복하기 위해 조기간암 감시검사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br/><br/>◇폐암보다 간암이 더 무섭다=간암은 암 중에서도 치료 후 경과가 좋지 못한 대표적인 암으로 꼽힌다. ‘침묵의 암’이라 불릴 정도로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특별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데다 치료율도 아주 낮기 때문이다.<br/><br/>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영석 교수는 “<span class='quot0'>이상 증상을 느낄 때쯤엔 이미 백약이 무효인 경우가 다반사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span>”고 경고했다.<br/><br/>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주요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악성신생물(암)이다. 인구 10만명당 150.9명이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 이 중 간암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2.8명이다. 폐암의 34.4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폐암 사망자가 경제활동을 거의 안 하는 60대 이후 고령층에 집중된 반면 간암 사망자는 일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40, 50대 중년남자가 대부분이라는 데 있다.<br/><br/> 이에 따라 사라지는 돈도 엄청나다. 임 교수는 “<span class='quot0'>간암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담은 2010년 기준으로 약 3조7000억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모든 암 중 1위이며 위암(약 3조6000억원), 대장암(약 2조6000억원), 폐암(약 2조4000억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span>”고 지적했다.<br/><br/>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br/><br/> ◇B형간염 환자는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간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과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바르지 않은 음주문화가 간암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됐는데, 실제 간암의 원인은 70%가 B형 간염이다. B형 간염이 간경변으로 이환되고 나아가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간 질환 전문가들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일반인보다 간암 위험이 100배 이상 높다고 경고하는 이유다.<br/><br/> 현재 우리나라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전 인구의 5∼8%로 추정된다. 이들이 간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검진과 간염 발병 시 곧바로 적절한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것이다.<br/><br/> 적절한 항바이러스 치료는 간암의 전 단계인 간염과 간경변증, 이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고 간암 발생을 초동 단계에서 퇴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br/><br/> 간암은 원격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하면 5년 평균 생존율이 2.8%에 불과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이 2명 중 한 명꼴인 49.3%까지 높아진다. 간암학회 등이 간암 극복을 위해 ‘간암 감시 검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br/><br/> 간암은 2003년부터 국가 암검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40세 이상 만성 B형간염 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년마다 간 초음파 검사 및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가 시행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진율이 33.6%(2013년 기준)에 불과하고 간 초음파 검사 등의 정확도(민감도)가 평균 41.3%에 불과한 까닭이다. 이는 위암의 73.6%, 대장암의 55.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br/><br/> 간암 감시검사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순천향대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는 “<span class='quot1'>눈에 띄지도 않던 초미세 간암 세포가 2㎝ 이상으로 커지는 데는 불과 4개월도 안 걸린다</span>”며 “<span class='quot1'>간암은 발견 시기가 늦을수록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므로 만성 B형간염 환자 등 고위험군은 정기검진 시 간 초음파 검사 외에 CT 또는 MRI 검사까지 추가하는 것이 안전하다</span>”고 조언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85.txt

제목: 백세건강연구소 김서곤 이사장 “수소수, 몸속 유해산소 제거해 많이 마실수록 좋아요”  
날짜: 201510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2514381  
본문: “장수국으로 인정받는 일본의 거대한 음료시장에서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수(水素水)입니다. 건강에 관해서 아주 철저한 일본이 수소수의 효능을 인정하고 이를 상품화 한 것입니다.”<br/><br/> 백세건강연구소 김서곤(76) 이사장은 요즘 온통 수소수 연구에 푹 빠져 있다. 수소(H2)가 환원제 즉 강력한 항산화제인점을 착안해 이를 상시 음용해 몸 안의 활성(독성)산소를 제거해 건강한 몸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 기본원리이다.<br/><br/> 김 이사장은 42년간 의료기기에만 매달려 연구해 온 한국 의료기 시장의 산 증인이다. 특히 국민보건복지 향상과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공로로 대통령 포장 동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그가 운영하는 ㈜솔고는 아태지역 최우수헬스케어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br/><br/> 김 이사장의 의료기기 사업은 그가 30대 초반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수술기구 등을 본 따 관련제품을 만든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br/><br/> “스웨덴 철강회사가 발행한 ‘스테인리스의모든 것’이라는 책자에서 영감을 얻어 수술기구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밀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의료기구 사업에서 7전8기 도전 끝에 100% 해외제품에 의존하던 시장에 의료기 국산화를 시작했습니다.”<br/><br/> 사업실패를 겪어 한 때 알거지가 되기도 했지만 임플란트 기기와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 인증 받은 온열전위치료기를 개발, 대히트를 기록함으로써 메디컬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이어 수소수의 놀라운 효능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분야에 다시 뛰어들었다.<br/><br/> “수분은 인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물에 수소를 녹여 음용수로 사용함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수소는 몸의 유해산소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해 많이 마실수록 몸에 유익합니다.” <br/><br/> 현대인들은 요즘 물을 단순히 수분 보충용으로 마시지 않고 기능이 결합된 물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제품을 선택하곤 한다. 이미 다양한 회사에서 정수 및 알카리수를 만들어 내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지만 솔고가 만들어 낸 수소생성기 ‘수소샘’은 이제 그 효능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br/><br/> “질병은 보통 바이러스에 의한 것과 생활습관에 의한 것으로 양분됩니다. 바이러스 질병은 면역력 증강이 해법이고, 생활습관병은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가 답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노화와 질병의 근본 원인인 세포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솔루션이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수소수 생성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br/><br/> 김 이사장은 백세건강연구소 소장 임동수(58)박사와 손잡고 연구를 했다. 연구핵심은 ‘가장 이상적인 항산화 물질 농도를 가진 수소수를 생성하는 기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br/><br/> 임동수 소장은 서울대와 KAIST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애크론(Akron)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고분자공학)를 받았다. 특히 공학을 인간의 건강분야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응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br/><br/> “수소는 가벼운 물질이기에 보통 10분 후면 날라가 버려 장시간 녹아있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6중 티타늄백금을 이용한 전기분해 시스템을 통해 잘게 쪼개진 수소 분자를 물 분자 사이에 용존시키는 수소수 개발에 드디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br/><br/> 이 분야에서만 13개 특허출원을 이룬 임 박사는 “<span class='quot0'>최대 용존 수소량이 1,200ppb 이상, 용존 기간이 3일, 고온에서도 수소가 용존되는 기술은 국내는 물론 해외업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다</span>”고 했다. 지난해에는 단 1회의 버튼 조작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수소수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한 기기 ‘수소샘’이 나와 큰 인기를 얻고 있다.<br/><br/> 임 소장은 “<span class='quot1'>일본에서 음료수로 판매되는 제품도 금방 날라가기에 빨리 마셔야 하는데 저희 제품(수소샘)은 정수나 생수를 생성기에 넣으면 간편하게 수소수가 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음용수 뿐 아니라 요리와 세정 등에도 적절히 사용해 항산화제로 사용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수소수를 음용해 건강에 도움을 얻은 체험사례는 너무나 많다.<br/><br/> 71세의 김만철씨는 “<span class='quot2'>수소수 음용 후 혈압약과 전립선약을 모두 끊을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2'>물만으로도 이렇게 고질병이 호전되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span>”고 했다.<br/><br/> 극심한 당뇨로 고생했다는 74세의 엄순자씨는 “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진단받아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식품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미미했다”며 “그런데 수소수를 하루 1.2L씩 마시니 얼굴의 검버섯이 엷어지고 혈당수치도 200에서 110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체험사례는 이밖에도 수소수 장기음용을 통해 치매 불면증 비염 아토피 암질환 고지혈증 탈모 변비 등의 증상에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r/><br/>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3'>수소수 체험사례를 살펴보면 당뇨와 혈압, 전립선, 관절염 등 만성병에 높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만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점이 수소샘 기기가 내세우는 제일 큰 장점</span>”이라고 밝혔다.<br/><br/> 김 이사장은 수소수의 이 신기한 효능을 알리기 위해 임동수 박사와 공저로 ‘백세건강 수소수가 답이다’(상상나무)를 출간했다. 베스트셀러인 이 책은 수소수를 생성기 수소샘이 왜 인체에 유익하고 항산화작용을 하는지 그 이론을 자세히 기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br/><br/> 두레교회에 출석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인 김서곤 이사장은 “<span class='quot4'>늘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사업을 하고 있다</span>”고 했다. 그래서 “70억의 세계인구가 새로운 발명과 연구로 더 건강해지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라 믿는다”며 밝게 웃었다(1522-4547,www.sspark24.com).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86.txt

제목: [책과 길] “괜찮아, 괜찮아”… 방사능 오염 대참사 현장서도 일상은 계속된다  
날짜: 201510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2254861  
본문: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4년여가 흘렀다. 당시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이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는 전 세계에 원전 악몽을 현실화시켰다.<br/><br/> 그 대참사의 현장에서도 일상은 계속된다. 겐유 소큐(59·사진)가 2013년 일본에서 발표한 이 소설은 재난의 악몽을 감내하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군상에 관한 이야기다.<br/><br/> 방사능에 노출된 물건은 어디에 버려야 하는가? 방사능에 오염된 흙이며, 나뭇가지 따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수록된 단편들은 우리에겐 먼 얘기지만 재난 현장에서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이 문제를 주요한 에피소드로 하고 있다.<br/><br/> 표제작 ‘빛의 산’은 그런 구체적인 현실을 그리면서도 이를 진혼곡으로 승화시킨 아름다운 단편이다. 재난 이후 이곳 사람들에게는 방사능 제거 작업이 일상이 됐다.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지붕을 걸레질하고 벽을 세척하고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일을 한다. 단편의 주인공인 할아버지는 모두가 꺼려하는, 방사능 제거작업 후에 생긴 쓰레기를 자신의 집터에 가져와 쌓는다. 할머니의 염려에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방사능폐기물은 어느새 거대한 산이 됐다.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는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난다. 화장식은 쓰레기 산의 꼭대기에서 이뤄졌는데 이후 산에서는 묘한 빛이 흘러나와 방사능 투어의 명소가 됐다.<br/><br/> 재난 현장에서 새롭게 터전을 뿌리내리는 이들도 등장한다. ‘기도하는 사마귀’는 묵묵히 지켜가는 사람과 새로 정주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유대에 관한 이야기다. 주인공 야마구치는 쓰나미로 사랑하는 아내는 물론, 경영하던 결혼식장도, 집도 잃어버렸다. 더구나 말기암 판정까지 받았다. 그런 그에게 뜻밖의 결혼식 의뢰가 들어온다. 도쿄에서 구조반으로 왔던 젊은 의사가 현지에서 만난 사회복지과 직원과 사랑에 빠져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야마구치는 주선했던 결혼식을 다 마치지 못하고 쓰러지지만 입가에선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다.<br/><br/> 여러 단편 속에서 이렇듯 터전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심금을 울린다. 보다 현실감 있는 이야기는 재난이 가져온 가족 해체나 인터넷에 떠다니는 유언비어로 인한 불안 등일 것이다. ‘소금쟁이’에서 사고 직후 1차 피난시설이었던 체육관에서 아이만 데리고 사라졌던 치하루가 1년 반 만에 돌아와 결국 남편과 이혼도장을 찍고 돌아가는 내용이 그런 예다. 그럼에도 “괜찮아, 괜찮아”라며 방사능 제거 작업을 하는 토박이들의 모습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수롭지 않게 내뱉은 그 표현이야말로 재난의 현장을 지켜가는 그곳 사람들의 거대한 힘이다.<br/><br/> 2001년 ‘중음(中陰)의 꽃’으로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저력 있는 작가의 작품이다. 소설집은 지난해 일본문화청이 주는 ‘예술선장’ 문학상을 받았다.<br/><br/>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87.txt

제목: 노벨화학상, 스웨덴·미국 과학자 3명 공동 수상 “손상된 DNA 회복원리 밝혀 암 치료의 새 가능성 열어”  
날짜: 201510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2149479  
본문: 올해 노벨 화학상은 ‘생명 현상의 책’으로 불리는 유전자(DNA)의 손상과 복구 메커니즘을 밝혀낸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DNA 손상으로 발생하는 노화나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 스웨덴 출신의 토마스 린달(77) 영국 프랜시스크릭연구소 명예교수, 폴 모드리치(69) 미국 듀크대 생화학과 교수, 터키계 미국인 아지즈 산자르(69)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바이오화학과 교수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span class='quot0'>세 사람은 어떻게 세포가 손상된 DNA를 복구하고 유전정보를 지키는지에 대해 분자 수준에서 규명했다</span>”고 설명했다. 린달 명예교수는 노벨상 수상자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회원으로는 처음으로 영예를 안았다.<br/><br/> 우리 몸의 DNA는 자외선이나 활성산소, 담배연기 속 발암물질 등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 이런 외부 공격이 없어도 세포가 분열하거나 복제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이유로 유전물질이 완전히 분해되거나 혼란을 겪지 않는 이유는 세포 안의 분자시스템이 DNA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손상을 복구하기 때문이다.<br/><br/>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DNA를 이루는 분자의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린달 교수는 DNA도 여러 이유로 손상될 수 있고, 이런 결함을 수리하는 분자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이후 산자르 교수는 세포가 자외선 때문에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과정을 관찰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복구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린다는 점도 알아냈다. 모드리치 교수는 세포가 분열 또는 복제되면서 발생한 DNA 손상을 복구하는 과정을 규명했다. 서강대 화학과 조규봉 교수는 “<span class='quot1'>암은 상당 부분 DNA 유전정보의 이상으로 발생하는데, 우리 몸이 어떻게 DNA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지 밝혀냄으로써 암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span>”고 말했다. 수상자들은 상금 800만 크로나(약 11억2000만원)를 나눠 갖는다.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88.txt

제목: 서울 주택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날짜: 201510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2157443  
본문: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생활고를 겪던 남편이 수면제를 먹여 아내와 딸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br/><br/>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오후 2시쯤 이모(58)씨와 아내 김모(49)씨, 고등학생 딸 이모(16)양이 집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얼굴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쓴 이씨는 거실에 있었다. 손은 뒤로, 무릎과 발목도 헝겊 끈으로 묶여 있었다. 아내와 딸은 안방에서 발견됐다. 아내는 바닥, 딸은 침대에 반듯이 누워 있었다.<br/><br/> 경찰은 이씨의 처조카 김모(28)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씨는 자살을 암시하는 A4 용지 6장 분량의 편지를 김씨에게 보냈다. 편지엔 ‘아내의 빚 때문에 생활고를 겪고 있다’ ‘친척들이 뒤처리를 부탁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br/><br/> 이씨는 이날 오전 이양 담임교사와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0'>아내가 숨져 딸이 경황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했다</span>”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임교사는 이양이 결석하자 경위 파악을 위해 전화를 했다.<br/><br/>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 아내와 딸에겐 저항이나 외상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내와 딸의 시신이 발견된 안방 벽에는 ‘삶이 고단해 먼저 가니 부검을 원치 않는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적은 A4 용지가 붙어있었다. 이씨의 아내는 암 환자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br/><br/>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이씨는 질식, 아내와 딸은 수면제 등 약물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신 상태로 보아 아내와 딸은 전날 사망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br/><br/><br/>신훈 기자 zorba@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89.txt

제목: [웰다잉의 새 모델 ‘가정 호스피스’] 아들 품에 안겨… 감사 편지 남기고…  
날짜: 201510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2026906  
본문: 지난해 12월 28일 세상을 떠난 유옥순(가명·사망 당시 74세) 할머니는 생전에 “병원에서 죽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다. 3기 위암이 대장과 복막까지 전이돼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고도 입원을 거부했다. 남편이 항암 치료로 고생만 하다 세상을 떠난 것을 봤고 손수 벽돌을 쌓아 지은 집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br/><br/> 유 할머니는 뜻대로 충북 옥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삶을 마감했다. 2남3녀의 자식들이 모두 모인 새벽, 큰아들의 품에 안겨 숨을 거뒀다. 충남대병원 호스피스팀이 ‘가정 호스피스’를 통해 할머니가 집에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마지막 6개월을 돌봤다. 임종 뒤 큰아들은 호스피스팀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어머니를 가슴에 안아드렸을 때 숨을 거두셨어요. 정말 편안한 얼굴로 가셨죠. 집에서 임종하는 것이 두려웠는데 너무 행복하고 벅찬 감동이었어요.”<br/><br/> 말기 암 환자가 집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가정 호스피스가 다음 달 공식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6일 “<span class='quot0'>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 단계에 있고 곧 공포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시범사업과 건강보험 수가산정 작업을 거쳐 11월 중에 가정 호스피스를 실시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에서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br/><br/>가장 이상적인 호스피스<br/><br/> 가정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호스피스 형태로 꼽힌다. 모든 것이 익숙한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립암센터 주최로 열린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사례집 출판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최영심 충남대병원 호스피스 간호사는 “<span class='quot1'>말기 암 환자들은 남은 생을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고 싶어 한다</span>”고 전했다.<br/><br/> 가정 호스피스는 전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팀이 정기적으로 환자의 집을 찾아 통증 완화 등 처치를 한다. 충남대병원 호스피스팀은 유 할머니를 매주 2∼3차례 방문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완화의료 병동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했다. 4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가정 호스피스를 계속했다.<br/><br/> 미술치료사도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했다. 미술치료사는 할머니의 말을 받아 적고 이를 액자에 넣어 자식들에게 선물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호스피스팀은 임종 시 증상과 준비해야 할 것 등을 교육했다.<br/><br/> 최 간호사는 가정 호스피스가 가족의 부담을 오히려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쪽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환자의 심리가 안정돼 수발을 들기 편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span class='quot1'>환자가 갑자기 아파하거나 불편해하면 담당 간호사와 통화해 궁금한 점을 묻고 바로 대처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남겨질 가족 고통도 치유<br/><br/> 가정 호스피스는 환자뿐 아니라 남겨질 가족을 돌보는 역할도 한다. 충남대병원 호스피스팀은 지난 1월 숨진 박순규(가명·여·사망 당시 60세)씨의 손녀(9)와 손자(6)에게 지금도 미술 치료를 하고 있다. 2012년 3월 폐암 진단을 받은 박씨는 호스피스 병동과 집, 요양병원을 오가며 완화의료 처치를 받아왔다. 죽음을 앞둔 박씨에게 가장 큰 걱정은 손주였다. 집을 나간 며느리 대신 5년간 키운 아이들이었다.<br/><br/> 호스피스팀의 미술치료사는 박씨뿐만 아니라 두 아이에게도 미술 치료를 실시했다. 엄마에 이어 할머니에게까지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호스피스팀은 박씨가 사망한 뒤에도 아이들에 대한 미술 치료를 1년간 더 하기로 했다. 병원 측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의 그림이 더 밝아지고 화려해졌다”면서 “가정 호스피스가 사별 가족 관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br/><br/> 충남대병원은 지금까지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다. 최 간호사는 “<span class='quot2'>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병동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환자 본인부담이 적어야 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호스피스팀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90.txt

제목: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성과급 재분배는 명백한 불법 제도 늦게나마 정착돼 큰 보람”  
날짜: 201510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1712384  
본문: “저를 음해하는 전단지가 길거리에 수만 장 뿌려지고 노조 집행부가 집까지 찾아와 시위를 벌였지만 신념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반복된 공직사회의 성과상여금 나눠먹기는 잘못된 관행이 분명합니다.”<br/><br/> 임우진(62·사진) 광주 서구청장은 4일 “차등 지급된 성과금을 노조 주도로 다시 거둬 똑같이 분배하는 이른바 나눠먹기는 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제도를 거부하는 불법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임 구청장은 지난 3월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재분배에 전국 최초로 제동을 걸었다.<br/><br/> “암 덩어리를 도려내자는 데 오히려 왜 들쑤셔서 시끄럽게 만드느냐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사유재산의 자율분배’라는 황당한 논리로 거세게 반발했지만 그냥 놔둘수 없었습니다.”<br/><br/> 임 구청장은 “<span class='quot0'>행정자치부가 성과금 지급 방식을 개선해 상정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span>”며 “<span class='quot0'>공공개혁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금 제도가 늦게나마 정착돼 보람을 느낀다</span>”고 말했다.<br/><br/> 그는 “<span class='quot0'>앞에서 받은 성과금을 뒤로 나누는 행태는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노조 탄압이라고 본질을 왜곡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방적 폭언을 들었을 때는 참으로 고통스러웠다</span>”고 덧붙였다.<br/><br/> 성과상여금 제도는 1998년 중앙부처에 처음 도입돼 2002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지만 개인별 성과 측정이 어렵고 단체장이 줄세우기를 한다는 이유로 상당수 지자체 노조가 지급받은 성과금을 다시 거둬 균등하게 재분배해왔다.<br/><br/> 행정고시 출신의 임구청장은 광주시 기획관리실장과 행정부시장,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br/><br/>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91.txt

제목: [한설희 칼럼] 치매 예방엔 바른 먹거리가 중요  
날짜: 201510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1718041  
본문: 뇌의 무게는 우리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의 15%가 뇌로 가며 산소소모량은 우리 몸 전체의 20%나 차지한다. 또한 뇌는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전적으로 포도당에서 얻는다. 따라서 잠시라도 산소가 부족(저산소증)하거나 혈액 내에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면(저혈당) 신경세포는 일순간에 기능을 잃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불과 수분간만 지속된다 하더라도 신경세포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 결국은 신경세포 소멸로 이어진다. 따라서 평소 건강한 신체유지를 위한 유산소 운동과 좋은 먹거리가 뇌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 활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다. <br/><br/> 평소의 건강한 먹거리가 비만, 심장병 그리고 당뇨의 발생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앞 다퉈 내놓는 결과를 보면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식이 섭취 행태가 뇌 건강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앞에 언급한 질병들보다 훨씬 강하다. 더구나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유산소 운동을 365일 빠짐없이 지속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이 아파 금식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아니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왕이면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두뇌 활동을 위해 뇌 건강식을 매일 챙길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br/><br/> 수년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교양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지역을 조사하고 그 지역을 ‘청색지대(블루존)’이라 명명했다. 일본의 오키나와(Okinawa), 이탈리아 사르디니아(Sardinia), 코스타리카 니코야(Nicoya), 그리스 이카리아(Ikaria),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Loma Linda)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블루존의 장수 노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육체적으로 매우 활동적이며, 가족 간의 화목함과 사회적인 유대감이 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박하지만 각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로 만드는 건강한 먹거리에서 찾을 수 있다. <br/><br/>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여름철 잃었던 미각을 돌릴만할 제철 먹거리가 가장 풍성한 계절이 돌아왔다. 오늘은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이 주식으로 즐기는 먹거리인 고구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br/><br/> 누구나 고구마에 대한 향수는 한 가지씩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어려서 손을 호호 불며 그 달콤한 맛에 빠졌던 군고구마는 원래 흉년으로 백성이 굶주릴 때 구황식물로 으뜸이었으며 주성분은 녹말이지만 식이섬유와 각종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br/><br/> 그 중에서도 암 유발물질인 과산화지질 생성을 가로막는 비타민 E,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억제하는 플라보노이드, 라이코펜, 카탈라제 및 슈퍼옥사이드디스뮤타제(SOD) 함량이 높다. 또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A의 함량이 높아 항염증 효과도 크다. 더구나 (혈)당지수(glycemic index, GI라고 함)가 비교적 낮아 당뇨환자의 식이에 도움이 된다. <br/><br/> 몸에 좋은 이러한 성분은 모든 고구마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성분이기는 하지만 특히 오키나와 백세 노인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보랏빛의 자색 고구마에 활성 성분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이 높은 먹거리들은 결국 신체의 노화와 뇌신경의 퇴화를 억제해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기본 틀을 마련해준다. <br/><br/><건국대병원 신경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92.txt

제목: “원인모를 두통·구토땐 뇌 이상 확인을”… 김정훈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말하는 뇌종양  
날짜: 201510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1702646  
본문: 뇌에 발생하는 암, 뇌종양은 성인과 소아를 가리지 않고 전 연령대에서 발생한다. 뇌종양은 해결되지 않는 두통, 좁아진 시야, 청각-후각기능의 감소 등 뚜렷한 전조증상이 있는데 환자는 이러한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증상을 느끼고 방문한 일차 의료기관에서 뇌종양을 의심하지 못하고 정확한 진단이 지연될 경우 치료예후는 나빠진다. <br/><br/> 김정훈(사진)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진단기구와 수술도구의 발전으로 성인의 뇌종양 치료성적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뇌종양을 의심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진단지연이 불량한 치료예후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신경외과적 수술의 진보, 방사선, 항암요법의 발달로 뇌종양의 치료성적이 향상됐지만 다른 종양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조기진단을 위해 두통이나 발작, 후각 소실 등 증상 발생 시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는 환자들의 적극성이 필요하다</span>”고 조언했다.<br/><br/> 안타까운 환자 사례를 묻자 그는 뇌 속에 6㎝크기의 암이 자랄 정도로 병원을 오지 않았던 여성 환자 이야기를 들었다. 다행히 환자는 응급수술로 완벽히 종양을 제거하고 회복 중에 있다고 한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악성이 아닌 양성이라 치료예후가 좋았다</span>”며 “<span class='quot0'>똑같은 뇌종양일지라도 종양이 뇌 속에 자리한 위치나 악성도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므로 완치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음가짐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 한편 뇌종양 치료에 있어 항암요법의 치료효과는 환자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고위험군 뇌종양 환자에서 생존율을 늘리고 합병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뇌종양 위험도에 따라 수술과 더불어 적절한 항암요법을 병행해 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문제는 약값이다. 재발한 교모세포종에 대한 항암치료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환자에 따라 한 달에 8∼9백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소요되는데, 값이 비싼 기존 항암제와 효과가 동일한 복제약이 국내 시판 허가를 받으면서 재발 뇌종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다른 종류의 암보다 건강보험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은 게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비싼 약값은 적극적인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데, 복제약 시판허가는 경제적으로 힘든 뇌종양 환자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span>”이라고 말했다.<br/><br/> 양성뇌종양에 대한 수술적 치료 성적은 우수하다. 그러나 양성종양도 진단이 빨라야한다. 수술 실력이 향상됐어도 진단이 늦어지면 그만큼 수술 후 겪게 되는 합병증 정도가 심해진다. <br/><br/> 김 교수는 “환자에서 나타난 원인 모를 두통을 정신건강쪽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정신과를 내원하는 경우도 있다. 또 냄새를 맡는 감각이 떨어져 이비인후과를 내원해 검사를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해당 과에서 특이한 소견이 없다면 신경외과를 찾아 뇌종양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93.txt

제목: [10월의 묵상] 열매… 옥토라야 좋은 열매 마음 밭을 말씀으로 기름지게  
날짜: 2015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1548945  
본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요 15:1)<br/><br/>"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6∼7) <br/><br/>황금들녘 풍요로운 가을걷이가 시작됐다. 올해는 봄 가뭄에도 불구하고 쌀농사 지역 작황은 예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올 쌀농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대풍이 예상된다. 그러나 풍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열매'는 없다. 벼가 쌀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진정한 농부를 기억하자.<br/><br/>벼농사는 좋은 볍씨를 고르는 일부터 시작한다. 볍씨는 지난 가을에 추수하고 따로 보관해 둔 볍씨를 사용한다. 볍씨는 잘 익고 무거운 것이 좋다. 볍씨는 종자 소독제로 소독해 맑은 물에 담가둔다. 볍씨가 수분을 적당히 흡수해 발아하기 시작하면 모판흙을 넣은 육묘상자에 파종한다. 이것을 못자리라 한다. 여기에 비닐을 씌워 냉해를 방지하고 모가 잘 자라도록 한다. <br/><br/> 못자리의 모가 어느 정도 자라면 논에 옮겨 심어야 한다. 이를 모내기 또는 이앙(移秧)이라고 한다. 보통 5∼6월쯤 하게 된다. 모내기에 앞서 농부는 겨우내 쉬게 했던 논을 갈고 물을 댄다. 논을 가는 것을 써레질이라고 하는데 논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레질을 하면서 비료를 준다. <br/><br/> 벼는 자랄수록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모를 심은 이후엔 거름을 주어서 영양분을 공급한다. 비료는 화학비료 외에도 토양이나 빗물, 관개수 등에 의해 천연적으로 공급된다. 요즘엔 벼 품종 자체가 강해서 비료나 거름을 주지 않더라도 물만 있으면 잘 자란다.<br/><br/> 벼가 자라기 위해서는 기상과 토양 환경이 중요하다. 기상 환경에는 기온과 일조, 강우량이 있으며 토양환경은 흙의 성질이나 구조, 물과 양분을 흡착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토양의 중요성은 신약성경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언급된다. 우리 마음 밭이 옥토와 같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조건이 된다(막 4:20). <br/><br/> 물은 벼의 성장에 절대 조건이다. 벼는 추수 이전에 누렇게 익는 기간을 빼고는 항상 물이 있는 상태에서 자란다. 물은 천연 양분을 공급하고 잡초나 병해충 발생을 억제한다. 논물은 온도가 높아야 좋다. 온도가 낮으면 냉해에 걸리기도 한다. <br/><br/> 예레미야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이렇게 표현했다. “<span class='quot0'>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span>”(렘 17:8) <br/><br/> 가뭄은 좋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최악의 조건이다. 논이 마르면 잡초만 무성해진다. 벼가 잡초에 지는 것이다. 너무 가물면 벼가 타죽기도 한다. 논바닥이 갈라지면서 벼도 죽는다. 성경은 기근을 언급한다. 가장 심한 기근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암 8:11).<br/><br/> 농부는 가뭄에 대비한다. 논바닥이 갈라지기 전에 물을 대야 한다. 보통 지하수를 활용한다. 그런데 지하수는 온도가 낮아서 벼가 상대적으로 덜 여물 수 있다. 특히 지하수와 연결된 논 쪽 벼들은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한다. 물 온도가 벼의 성장에 그만큼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br/><br/> 모를 심어놓으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농부는 끝없이 돌본다. 마치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처럼. 그중 제초는 농사일 중 가장 번거로운 작업으로 꼽힌다. 벼가 자라는 동안 잡초들이 함께 자라 논의 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 한다. 성경에서도 잡초(가라지) 비유(마 13:25)가 등장한다. 가라지의 최후는 불사름이다(마 13:30).<br/><br/> 병충해도 조심해야 한다. 벼가 걸리는 병에는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흰빛잎마름병 오갈병 등이 있으며, 해충으로는 이화명나방 멸구류 매미충류 흑명나방 등이 있다. 요즘엔 병충해에 강한 벼 종자가 개발돼 병에 걸리는 벼는 많지 않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씨(good seed)’를 천국에 비유했다(마 13:24). <br/><br/> 추수는 벼이삭의 90% 이상이 누렇게 변할 때 시작한다. 보통 벼 베기 일주일 전에는 작업이 수월하도록 논의 물을 완전히 빼서 논바닥을 말려준다. 수확된 벼는 건조 과정을 거치며, 건조를 마치면 도정을 하게 된다. 도정은 벼에서 껍질(왕겨)을 벗겨 현미를 만드는 ‘제현(탈각)’과 현미에서 백미를 만드는 ‘정백’ 과정으로 나뉜다.<br/><br/> 경기도 양평에서 40년째 벼농사를 지어온 김문식(62) 장로는 “농사는 하늘을 보는 일이다. 매년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br/><br/> 예수 그리스도는 추수를 비유로 들어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 “<span class='quot0'>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span>”(막 3:26∼29)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시간이다. <br/><br/>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br/><br/><도움말: 김문식 장로, ‘쌀’(김영사) 참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94.txt

제목: 삼성화재 ‘NEW 엄마 맘에 쏙 드는’ 보험, 임신 관련 모든 질환 보장… 국내 최초  
날짜: 201509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816408  
본문: 삼성화재는 기존 자녀보험을 개정한 ‘NEW 엄마 맘에 쏙 드는’ 보험을 판매 중이다. 임신·출산 관련 질환에 대한 실손입원의료비 등 산모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br/><br/> 이 보험은 기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되지 않던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임신 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제외)’ 담보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 담보는 통상적인 분만을 제외한 유산·입덧·임신성 당뇨·자궁경관 무력증·조기진통 등으로 입원 시 1000만원 한도로 입원비의 80%를 보장한다. 임신중독증도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br/><br/> 아울러 뇌성마비와 다운증후군 진단 시 10년간 매년 양육자금을 지원한다. 유치·영구치 치료를 보장하는 ‘치아 보존 치료 지원금’과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중증 뇌수막염 등을 보장하는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암 진단·수술·입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암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암 입원 일당의 경우 입원 1일째부터 보장한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정병록 상무는 “<span class='quot0'>의료 과잉을 억제하면서도 산모의 임신 질환 치료비 부담을 해소해줄 수 있는 상품</span>”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95.txt

제목: 작년 10代 청소년 사망원인 자살 제치고 ‘운수사고’ 1위  
날짜: 201509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845177  
본문: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지난해 10대 연령층의 사망원인 1위가 운수사고로 꼽혔다. 운수사고 10대 사망자 수가 자살자 수를 추월한 것은 2008년 이후 6년 만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운수사고로 사망한 10대는 모두 291명으로 10대 사망원인의 26.2%를 차지했다. 이어 자살(24.7%) 암(14.3%) 등이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됐고 이 중 단원고 학생은 250명이었다.<br/><br/>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26만7692명으로 전년보다 1435명(0.5%) 늘었다. 하루 평균 733명이 세상을 떠난 셈이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조사망률도 527.3명으로 1년 전보다 0.7명(0.1%) 증가했다. 지난해 3대 사망원인은 여전히 암(28.6%), 뇌혈관질환(9.9%), 심장질환(9.1%)으로 이들 요인이 지난해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높아진 사인은 폐렴(10.8%)과 고혈압성질환(6.5%), 심장질환(4.4%) 등이다. 모두 노인성 질환으로 꼽히는 것들이다. 특히 폐렴은 10년 전에 비해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아졌다.<br/><br/> 자살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1만3836명으로 1년 전보다 591명(4.1%) 줄었다.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도 27.3명으로 전년보다 1.3명 감소했다. <br/><br/>세종=이성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96.txt

제목: [함께 나누는 기업-아모레퍼시픽] “당신은 아름다워요” 암환우에 자신감  
날짜: 201509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635047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의 하반기 일정을 지난 16일 시작했다.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외모 변화로 고통 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과 피부관리법 등을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암 환우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br/><br/> 유방암 전문의인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이 지난 2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해당 캠페인에 참여한 환우들의 경우 스트레스 지수가 약 17% 정도 감소했다. 암에 대한 회피적 대응 정도도 12%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 오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캠페인은 서울 및 전국 주요 지역 20개 병원, 810명의 환우를 대상으로 전개된다. 324명의 ‘아모레 카운셀러’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암 수술 후 2년 이내로 현재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중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브로셔, 헤라 메이크업 제품, 프리메라 스킨케어 제품으로 구성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키트’도 제공한다.<br/><br/> 캠페인 외에도 아모레퍼시픽 프리미엄 녹차 브랜드 ‘오설록’, 플라워 서브스크립션(구독) 브랜드 ‘꾸까’, 퍼스널컬러 커뮤니티 ‘컬러즈’ 등 외부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도 체험, 꽃 활용 공예, 나에게 잘 맞는 색상 선택법 등의 교육을 통해 환우들이 심신을 안정시키고 내외면의 아름다움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모레퍼시픽 류제천 부사장은 “<span class='quot0'>아모레 카운셀러와 함께 전개하는 이번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을 통해 환우 여러분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97.txt

제목: [살기 좋은 명품마을을 가다-안정훈 개천골농원 대표] “비염·아토피·변비 등에 특효”  
날짜: 201509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637267  
본문: “<span class='quot0'>알레르기성이나 만성 비염 환자들에게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우리 작두콩이 단연 최고입니다.</span>”<br/><br/> 전남 화순군 개천마을 앞 작두콩 가공공장에서 21일 만난 ㈜개천골농원 안정훈(사진) 대표는 작두콩의 효능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설명했다.<br/><br/> 안 대표는 “<span class='quot1'>열매가 작두같이 생겨 ‘작두콩’이라고 불리는 이 콩은 비염은 물론 치질과 위염, 장염, 중이염, 축농증, 알레르기, 아토피, 변비, 여드름 등에도 효과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 그는 “<span class='quot1'>국내 유명 대학의 의대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항암효과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span>”며 “<span class='quot1'>각종 암은 물론 염증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장질환에 이르기까지 여러 질환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span>”고 덧붙였다.<br/><br/> 작두콩은 면역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A와 비타민C가 다량 들어있다. 일반콩에는 이 성분이 극소량만 들어있다. 작두콩 성분 중 ‘나이아신’으로 불리는 비타민B3는 혈액순환촉진과 혈압강화효과 및 콜레스테롤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1'>작두콩에서 분리한 혈구응집소에는 콘카나발린A라는 단백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해독작용과 항(抗)종양에 효험이 있다</span>”고 했다.<br/><br/> 안 대표는 개천골농원에서 생산된 작두콩 제품은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정성을 다해 만들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br/><br/> 그는 “제초제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작두콩을 가공해 분말가루와 환, 차를 만들고 있다. 생산에 쏟는 정성은 ‘덤’”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작두콩의 효능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재료에 최고의 정성이 더해져 최고의 신뢰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뜻이었다.<br/><br/> 지난해 7월 한국신지식인협회로부터 농업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안 대표는 “<span class='quot1'>최고 품질의 작두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와 가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으로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제품 다양화를 추구하겠다</span>”고 말했다. <br/><br/>화순=글·사진 김영균 기자<br/><br/>▶[대한민국 귀농귀촌 한마당 2015] 목록 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98.txt

제목: 알츠하이머성 치매 ‘빛으로 치료’ 길 열었다  
날짜: 2015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523563  
본문: 국내 연구진이 뇌에 빛을 쪼여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물질을 억제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 빛을 이용한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br/><br/> 카이스트(KAIST) 신소재공학과 박찬범(사진 왼쪽) 교수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센터 유권(오른쪽) 박사팀은 빛에 반응하는 유기분자(포르피린)를 투여한 뒤 빛(청색 LED광)을 쪼이는 방법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안에 쌓이는 것을 억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응집돼 쌓이면서 시작된다. 이 응집체가 뇌세포 손상을 유발해 치매 같은 뇌기능 저하를 일으킨다.<br/><br/> 병 부위에 빛을 쬐는 ‘광역학 요법’은 암 치료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알츠하이머병 같은 뇌질환에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초파리 실험에서 이 방법을 통해 신경·근육 접합부 손상, 뇌신경세포 사멸, 운동성 및 수명 감소 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br/><br/>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빛 치료법은 적은 양의 약물로도 높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span>”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앙게반테 케미’ 최신호에 표지논문으로 발표됐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99.txt

제목: “시험관서 인간정자 배양”… 불임男 희소식  
날짜: 2015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518032  
본문: 프랑스 국립 연구기관이 실험실에서 성숙한 인간 정자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20일(현지시간) 전 세계 불임 남성과 독한 화학적 항암치료로 인해 정자 생성에 어려움을 겪어온 암 환자에게 획기적인 소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br/><br/>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프랑스 연구기관인 게노미크 퐁시오넬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불임 남성의 고환에서 채취한 미성숙 세포를 세포배양기(bioreactor)에서 수정이 가능한 성숙한 정자로 키워내는 데 성공했다. 연구를 이끈 프랑스 생명공학 기업 칼리스템 출신의 필립 뒤랑 박사는 “<span class='quot0'>배양된 정자와 자연적인 정자가 동일한 걸 확인했고 연구 결과를 과학 저널에 공식적으로 발송했다</span>”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특히 “사람 정자를 키워내기 전 쥐와 원숭이 정자도 같은 방식으로 키워냈다”고 밝혔다. 또 추가 연구를 통해 2년에서 4년 사이에 불임 남성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1년 일본 연구진이 쥐 세포를 이용해 정자 배양 및 수정에 성공한 적이 있지만 인간 정자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 <br/><br/>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00.txt

제목: [국가암정보센터와 함께하는 암환자 생활백서] 만성질환 外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413703  
본문: 암환자가 수술과 항암치료(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받는 과정 또는 그 이후에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암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는 암을 극복하고 재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암환자의 건강관리 방법에 알아본다.<br/><br/> ◇만성질환=조절이 안 되는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은 암 치료의 시기를 늦추게 하거나 부작용을 높이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적절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조절하는 것은 치료 후에도 중요하다.<br/><br/> ◇개인위생=암 치료 중에는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 등 위생적인 생활이 중요하다.<br/><br/> ◇구강=암의 치료 중에는 입 안이 헐거나 입맛이 없어지고, 구강 점막이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암 치료 전에 치과 진료를 통해 구강 건강을 먼저 점검 받고 치료 중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br/><br/> ◇예방 접종=암 환자는 폐렴 구균 예방접종과 가을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br/><br/> ◇금연=암환자에게 담배는 해롭다. 반드시 금연을 하고 주위의 담배연기도 피한다.<br/><br/> ◇건강 일지작성 및 메모하기=암의 진단명, 병기, 받은 치료, 검사 결과, 증상, 체중 변화 등에 대해 노트를 마련하여 꾸준히 메모하도록 한다.<br/><br/> ◇주기적인 암검진=암 치료가 끝난 후에도 보통 사람처럼 검진 지침에 따라 다른 암종에 대한 주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차 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기적인 검진과 생활실천은 필수다. 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0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 상대로 이럴수가… “돌팔이 주의하세요”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435704  
본문: 서울 서초구 청계산 인근 찻집과 전국 사찰, 기업체 등에서 환자들에게 침과 주사기 등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조모(60)씨. 그는 ‘만병통치약’이라며 말기 암환자에게 증류액과 마취제를 섞은 액체를 속여 팔았다. 그는 환자들에게 자신을 ‘3대째 의료행위를 하는 집안 출신’이라는 점으로 자신을 거짓 포장하며 전국 각지 사찰과 기업체 등을 돌며 강연하고 침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는 충격적이었다. <br/><br/> 무면허인 조씨는 침에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발라 환자에게 시술했다. 암환자는 통증과 사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취제가 일부 효과를 보인 것. 환자들은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고, 이로 인해 입소문이 나며 조씨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이 무려 440명에 이르게 되었다. 심지어 조씨가 일부 환자들에게 투여한 약은 산삼이나 인삼가루를 보드카로 증류한 액체에 리도카인과 섞은 것으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약이다. 일부 환자 중에는 말기암 판정을 받고 마지막 끈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료를 맡긴이도 있었지만, 효과도 없이 생을 마감한 이도 있었다.<br/><br/> 또한 자신을 한의사라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사기꾼도 있다. 박모(64)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한약을 제조, 판매하고 치료비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무허가 진료소에서 환자들에게 자신이 지어준 약을 먹으면 완치된다고 환자 13명으로부터 약 1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br/><br/> 최근 이처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료를 받는 말기암 등 중증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암에 좋은 보약’, ‘암세포가 없어지는 기적의 약’이라는 등의 홍보문구를 걸고 임상 근거가 없는 약을 파는 업자들도 있다. 암환자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병이라는 이유로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를 악용해 암환자들의 환심을 사서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없는 약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팔아 치우는 사기꾼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br/><br/> 이 뿐만 아니라, 의학적 근거가 없는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등을 팔아 절박한 암환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사기꾼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br/><br/> 한 암 전문의는 “근거가 없는 건강식품이나 약을 먹을 경우 독성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높다”며 “암은 질병이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수술을 받거나 적절한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 근거없는 사기꾼에 속아 치료를 하지 않거나 늦춘다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r/><br/>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02.txt

제목: [암과의 동행-암과 영양] 김태일 세브란스병원 교수 “대장암 가족력 있다면 식이섬유 섭취 늘려야”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445275  
본문: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내시경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건강한 배변습관이다. 다양한 배변문제는 대장암을 알리는 척도임과 동시에 대장암으로 이행될 수 있는 상태임을 암시한다. 즉 평소 건강한 배변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길이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태일(사진) 교수는 평소 먹는 것이 배변 상태를 결정짓는다며 대장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을 들일 것을 강조했다.<br/><br/> 김 교수는 “평소 어떤 식습관을 갖고 있는지가 대장암과 연관이 있다. 기름기가 많은 육류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려야한다”고 조언했다. 부족한 운동량, 술과 담배도 기름진 식사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김 교수는 변이 장에 오래 머물수록 변에서 독성물질 나와 용종이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이 된다고 설명했다.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야하는 까닭도 식이섬유 섭취가 많을수록 숙변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br/><br/> 대장암의 씨앗이라 불리는 대장 용종은 내시경을 통해 그 자리에서 제거된다. 용종을 제거했더라도 제거 당시 용종의 수가 3개 이상이었거나 종양의 크기가 1㎝ 이상으로 컸다면 5년이라는 대장 내시경 주기를 2∼3년으로 그 간격을 줄여야한다. 김 교수는 “종양을 제거했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용종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종양이 만들어질 수 있고 대장의 또 다른 부위에서 용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 김 교수는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한다고 딩부했다. 그는 “대장암은 가족력을 무시할 수 없는 질환이다.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검진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검진 주기도 짧게 잡아야한다”고 말했다.<br/><br/> 한편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내시경을 받는 검진자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50∼60대에서 주로 시행하던 대장내시경이 70∼80대 고령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박 교수는 “90세에도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고령이 내시경을 막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수면 내시경을 할 경우 고령자의 심폐기능 저하 위험 등이 있으므로 시술자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해진다. 내시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일반 대장내시경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일반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말했다.<br/><br/> 대장암 경험자는 완치 후에도 불규칙한 배변습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김 교수는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는 ‘잔변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주로 직장에 가까운 곳에 암이 발생해 대장을 잘라낸 경우다. 배변습관, 식욕감퇴 등 암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심하다면 이에 맞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조언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0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연령별 많이 발생하는 암… 0∼14세 백혈병, 15∼64세 갑상선, 65세 이상에서는 위암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445811  
본문: 암은 50대 초반까지 여성에서 발생율이 높고, 50대 후반부터는 남성에서 발생율이 더 높아진다. 그렇다면 연령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10만명당 연령군별 주요 암발생율을 보면 ‘0∼14세’는 백혈병(4.1명)이 가장 많고, 이어 뇌 및 중추신경계(2.1명), 비호지킨 림프종(2.0명), 갑상선(0.6명), 난소(0.4명) 순이었다. ‘15∼34세’ 기준으로는 갑상선이 41.4명으로 가장 높았고, 유방암(5.2명), 위암(3.1명), 대장암(2.9명), 백혈병(2.8명)이 뒤를 이었다. ‘35∼64세’에서도 갑상선이 148.8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위암(67.7명)-대장암(61.3명)-유방암(59.3명)-간암(39.1명)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에서는 위암(260.9명)이 가장 높았고, 이어 폐암(255.1명)-대장(254.2명)-간암(125.5명)-전립선암(120.5명) 순이었다.<br/><br/> 같은 기간 성별 암발생 순위를 보면 남성의 경우 △0∼14세: 백혈병-뇌및중추신경계-비호지킨림프종-신장-간 △15∼34세: 갑상선-백혈병-대장-비호지킨림프종-위 △35∼64세: 위-대장-간-갑상선-폐 △65세 이상: 폐-위-대장-전립선-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0∼14세: 백혈병-비호지킨림프종-뇌및중추신경계-난소·갑상선 △15∼34세: 갑상선-유방-자궁경부-위-난소 △35∼64세: 갑상선-유방-대장-위-폐 △65세 이상: 대장-위-폐-갑상선-간 순이었다.<br/><br/> 주요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를 살펴보면, 남녀 전체 주요 암의 연평균 증가율은 갑상선암(22.6%), 전립선암(12.7%), 유방암(5.8%), 대장암(5.2%) 순이었으며, 간암(-1.9%)은 199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갑상선암(24.3%), 전립선암(11.4%), 대장암(5.6%)의 경우 증가했고, 간암(-2.2%)과 폐암(-0.9%)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은 갑상선암(22.4%), 유방암(5.9%), 대장암(4.3%)은 증가한 반면, 자궁경부암(-3.9%)과 간암(-1.6%)은 감소했다.<br/><br/> 주요 암종별 연령군별 발생률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4세까지는 ‘갑상선암’, 50세∼69세까지는 ‘위암’, 70세 이후에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여성도 69세까지는 ‘갑상선암’이 가장 많았고, 70세 이후에는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0∼14세: 백혈병 △15∼34세: 갑상선암 등 30대 중반 이전의 남여에서는 같은 암의 발생이 높았고, 이후부터는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35∼64세: 남성-위암, 여성-갑상선암 △65세 이상: 남성 폐암, 여성-대장암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br/><br/> 한편 2013년 기준 사망자 중 10대 암 사망분율을 보면 폐암이 1만7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간암(1만1405명), 위암(9180명), 대장암(8270명), 췌장암(4831명), 담낭 및 기타 담도암(3782명), 유방암(2244명), 전립선암(1629명), 비호지킨림프종(1609명), 백혈병(1593명) 순으로 나타났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04.txt

제목: [암과의 동행-완치를 향한 위대한 도전] 암이란 녀석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법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422771  
본문: 50대 초반의 여성 환자가 위암으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두 달 전부터 소화불량으로 위장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동네 내과에서 위내시경을 받았다. 위내시경 시행결과 환자는 위의 중간부분인 체부와 아랫부분인 전정부에 걸친 진행위암으로 진단 받아 본원의 내과를 거쳐 수술을 하기위해 외과로 전과되어 왔다. <br/><br/> 환자는 소화불량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증상이 위암이라는 소리에 큰 충격을 받고 눈시울을 붉혔다. 위암은 가족력이나 증상이 없더라도 40대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해야 조기발견이 가능한데, 이 환자는 비록 조기발견은 아니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라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시켜 드렸다. <br/><br/> 병리조직검사 소견 상 세포의 모양이 반지모양으로 생긴 미분화 인환세포암으로 진단되었고, 수술 전 정확한 평가를 위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에서 왼쪽 위동맥과 췌장주위의 림프절이 커져 있는 소견이 있어 수술 전 병기는 3기 진행위암으로 진단됐다. <br/><br/> 환자는 위의 75∼80%를 절제하는 근치적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적 소견은 수술전 소견 보다 심한 상태로 예후가 나쁜 보우만 4형 위암이었고, 육안으로도 암세포가 림프절로 침범하여 퍼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암세포는 위벽 전체를 침범해 있었고 잘라낸 림프절 68개중 47개의 림프절에 암세포가 침범하여 퍼져있었으며, 간십이지장인대 부위의 림프절에도 전이가 있었으므로 최종병기는 4기로 판명되었다.<br/><br/> 수술 후 환자는 1년간 항암화학요법을 성실히 받았고 항암치료를 마친 후에도 정해진 외래 진료를 모범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정기검진 중 시행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에서 양측 난소와 자궁에 재발 소견이 있어 산부인과에서 자궁 및 난소를 절제 하였고, 이후 2차로 새로운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다. <br/><br/> 항암치료가 힘들지 않냐는 의료진의 질문에, “친한 친구도 일전에 위암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친구 몫까지 꼭 더 살아낼 겁니다”라며 환하게 웃었다.<br/><br/> 2차 수술 이후에도 환자는 늘 웃는 얼굴로 성실히 항암치료와 추적검사를 받았는데, 작년 6월 9차 항암치료 후 시행한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에서 골반 내 림프절 하나가 커진 소견이 있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br/><br/> 환자의 치료는 아직 진행 중이다. 4기 위암으로 진단 받은 첫 번째 수술 후 지난 3년 반 동안 여러 과 의료진의 협진과 환자의 성실한 협조는 암이라는 고약한 녀석도 고분고분하게 했다. <br/><br/> 병에 굴복하지 않고 나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환자의 긍정적인 생각은 스스로 몸의 면역력을 높여 난치병도 치료하는 최고의 치유법이 될 것이다. <br/><br/>유항종 원자력병원 위암센터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05.txt

제목: [암과의 동행] 고난도 암 수술 3D 복강경 활용 빠르고 안전해졌다… 올림푸스 장비 의료진 고민 해결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423938  
본문: 지난 5월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A(50·남)씨는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소장 끝에서 횡행 결장까지 절제하는 우반결장절제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걱정이 앞섰다. 대수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달리 개복 수술이 아닌 복강경 수술로 큰 흉터 없이 진행됐고, A씨는 입원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다.<br/><br/> 이렇듯 최근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흉터가 덜 남고 회복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어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복강경 수술은 배를 절개하지 않고 복부에 0.5∼1.5㎝ 크기의 작은 구멍을 내고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내시경과 수술 도구 등을 집어넣어 수술하는 방식이다. 개복 수술의 경우 5∼20㎝ 내외의 흉터를 남기지만 복강경은 보통 3∼4곳 정도에 1㎝ 내외만 절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개복 수술에 비해 균이 옮아 곪는 창상 감염 등의 합병증의 위험이 덜하고, 수술 후 생기는 통증도 적다. 회복이 빨라 입원 일수도 짧은 덕분에 빠르게 보편화 되는 추세다. 삼성서울병원 대장암센터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장암 수술에서 복강경 비중이 2009년 50%를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80%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다.<br/><br/> 그러나 평면으로 표현되는 모니터에 의존해서 수술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장기의 거리감과 깊이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해왔다. 최근에는 3D 기술이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병변의 깊이, 눈에 보이는 조직 뒤의 장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을 마치 개복 시야에서처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br/><br/> 올림푸스가 지난 해 선보인 3D 복강경 시스템은 듀얼 렌즈가 의료진의 눈을 대신해 뱃속을 직접 육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영상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제품이다. 선단부에 탑재되어 있는 2개의 고화질 이미지 센서(CCD)로 전송 받는 영상을 전용 장비를 통해 고화질3D 영상으로 전환하고, 의료진은 이 영상을 3D 안경을 쓰고 모니터를 보면 수술 부위를 실제로 보는 것처럼 영상이 구현되는 원리이다. <br/><br/> 또한 올림푸스의 3D 복강경은 끝 부분이 세계 최초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각각 100도까지 구부러져 일반적인 일자형 복강경으로는 보기 힘든 장기 뒤쪽까지 관찰을 가능하게 해준다. 복강경 수술은 뱃속의 좁은 공간에서 수술 도구와 복강경 장비가 함께 움직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도구들과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올림푸스 3D 복강경의 방향전환 기능은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 시켜주면서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에 도움을 주고 있다.<br/><br/> 특히 렌즈와 몸 속 조직 사이 거리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초점이 조절되어 조직을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도움을 주며, 현존하는 제품 중 유일하게 2D 모드와 3D 모드를 버튼 하나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 의료진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br/><br/> 이런 우수한 기능 덕분에 3D 복강경 수술은 효과적인 최소침습 치료의 새로운 모델로 간담췌, 대장항문, 상부위장관, 흉부,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대부분의 외과 수술에서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br/><br/> 지난 4월 열린 대한위암학회 학술대회에서 일본 오사카적십자병원 외과 과장인 카나야 세이치로 교수는 올림푸스의 3D 복강경 시스템으로 수술한 진행성 위암에서의 림프 절제술 관련 프레젠테이션에서 “<span class='quot0'>위암 절제술에서 림프절을 정확히 절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올림푸스의 3D 복강경은 플레인과 레이어 등의 위치와 깊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절개 할 수 있다</span>”고 발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올림푸스한국 SP사업본부 권영민 본부장은 “<span class='quot1'>올림푸스의 3D 복강경 장비는 보다 넓고 깊이 있는 시야 확보를 통해 의료진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환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선진화된 수술 시스템</span>”이라고 강조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06.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 높아도 너무 높은 보험적용 문턱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433934  
본문: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암(癌)’.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무늬만 ‘보장성 강화’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 희귀질환으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증가하고 있다.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높다. 실제 2014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를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4조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 현 정부에서 암환자들에 대한 보장은 확대됐을까. 답변은 ‘아니오’다. 실제 올해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4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항암제 급여가 암환자의 보장성 강화에 주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항암제의 보장성과 환자접근성, 항암제 보험급여 지연 등이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국회차원에서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상설기구의 설치를 권고하고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br/><br/> 암환자들에게 생명연장에 도움이 되는 ‘항암제’는 값비싼 가격으로 인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청구된 항암제 약품비는 2014년에는 8231억원이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항암제 규모가 1조34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2014년 비급여로 공급된 항암제 약품비는 최대 211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지난해 항암제 약품비 중 약 25%에 해당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환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보다 보장성이 크게 확대돼지 않았다.<br/><br/>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약품비 중 암질환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비중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가의 항암제의 허가 및 보험급여 적용 기준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0년 이후 표적항암제 19개가 보험급여 승인이 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0.4개월(2.5년)로, 해외 선진국 20여개국의 평균 1년과 비교해 상당히 늦은 편이다. <br/><br/> 우리나라의 경우 항암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이후 보험등재까지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등 행정적 절차로 인해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혁신적인 신약을 필요로 하는 암환자 중 상당수는 보험급여를 통한 약물 복용의 기회도 가져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잴코리 등을 포함해 획기적 치료제는 정부에서 허가, 지원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려 그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표적항암제의 경우 고가이면서, 특정 환자에게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br/><br/> 결국 보험급여 등재가 어려워지면서 좋은 신약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현재 신약의 보험급여 제도 하에서 비급여로 결정되는 표적항암제에 대한 접근성 개선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에서는 항암제의 임상적 유용성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때문에 보수적으로 급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br/><br/>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는 “<span class='quot0'>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여전히 환자들의 신약에 대한 보장성은 미흡한 실정이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들이 희귀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의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경제성평가 면제 등 보험급여과 관련된 실행이 가속화 돼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br/> 또한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항암제 치료에 필요한 보험급여 적용은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span>”고 꼬집었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07.txt

제목: [항암 밥상-참나물전과 녹두 채소비빔밥] 철분 듬뿍 참나물 빈혈 고민 해소에 큰 도움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447091  
본문: 8∼9월이 제철인 참나물은 향긋한 냄새가 나고 맛이 뛰어나 ‘산나물의 제왕’이라고 불린다. 참나물은 칼륨의 함량이 많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풍부한 칼륨이 체내의 염분을 밖으로 배출한다. 또한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도 좋다. 채소 중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참나물은 잎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며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도 효과적이다. 나물로도 무쳐서 많이들 먹지만, 전을 부치면 참나물 특유의 향과 기름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는 맛있는 요리가 된다. 참나물을 전으로 만들 때는 참나물 특유의 향은 살리고 쌉쌀한 맛을 느낄 수 있게 과한 양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br/><br/> 가을을 대표하는 녹두와 도라지를 활용한 가을 요리로는 녹두 채소비빔밥이 있다. 100가지 독을 푼다고 알려져 있는 해독식품 녹두와 사포닌 이눌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가래를 배출하는 도움이 있는 도라지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요리다. 도라지는 쓴맛이 있어 꼭 물에 담궈 쓴맛을 제거하고 사용해야 한다. <br/><br/> 녹황색 채소 중에서도 β-카로틴의 함유량이 높은 당근도 함께 넣어 요리하면 좋다. 당근의 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하여 피부와 점막을 보호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동맥경화와 암에도 효과적이다. 당근을 잘게 썰면 당근에 들어 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다른 식재료의 비타민 C를 파괴하지만 기름을 넣고 가열하면 열 때문에 효소의 작용이 억제되고, 그로 더하여 β-카로틴의 흡수율도 높아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br/><br/> 장 속을 깨끗하게 만드는 식이섬유와 콜라겐 형성을 돕는 비타민 C가 많이 든 양파를 넣어 함께 즐기는 것도 좋다. <br/><br/> 비빔밥에 들어가는 채소들은 각각의 맛과 향을 살려 조리하는 것이 요리의 포인트이다. <br/><br/> 추석 명절을 지내고 남은 나물을 넣고 비빔밥을 즐겨도 좋은데, 이미 양념이 된 나물이므로 양념장의 양을 조절해서 너무 짜게 먹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br/><br/>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08.txt

제목: [암과의 동행-질환 통계] 65세 이상 노인 남 위암-여 갑상선암 가장 많아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444329  
본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많은 암은 위암과 갑상선암으로 나타났다. <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심사결정자료(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남성의 경우 위암-대장암-전립선암-폐암-간암 순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전립선암이 대장암보다 많았지만 2014년에 대장암이 추월했다. 여성은 갑상선암이 가장 많았고 이어 유방암-대장암-위암 순이었다.<br/><br/> 2014년 기준으로 남성은 △위암 6만2267명 △대장암 5만2688명 △전립선암 5만2107명 △폐암 4만1395 △간암 2만6376명 △갑상선암 7367명 △췌장암 5570명 순으로 많았다. 이를 75세를 기준으로 나눠 보면 65∼74세에서는 ‘위암-대장암-전립선암-폐암-간암’순인데 75세 이상에서는 ‘전립선암-위암-대장암-폐암-간암’ 순으로 전립선암환자가 더 많았다.<br/><br/> 여성에서도 65세 이상에서는 △갑상선암 3만7862명 △대장암 3만4932명 △위암 2만8937명 △유방암 2만4338명 △폐암 1만7258명 △간암 1만1910명 △자궁경부암 7405명 순으로 많았는데 이를 75세 전후로 나눠보면 다른 결과를 보였다. 65∼74세에서는 ‘갑상선암-대장암-유방암-위암-폐암-간암’ 순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에만 유방암이 대장암을 더 많았다. 반면, 75세 이상에서는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크게 줄어들었고, 폐암이 갑상선암을 앞지르며 ‘대장암-위암-폐암-갑상선암-유방암-간암’순으로 확인됐다.<br/><br/> 2014년 1인당 진료비는 남성의 경우 췌장암이 가장 많은 515만원으로 나타났고, 이어 △폐암 460만원 △간암 420만원 △대장암 283만원 △위암 196만원 △전립선암 185만원 △갑상선암 83만원의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24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폐암 172만5000원 △간암 172만1000원 △대장암 117만원 △자궁경부암 81만원 △갑상선암 68만원 순이었다.<br/><br/>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사망원인으로 2000년 이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의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노인 암검진 수검률은 전 연령 평균(43.6%)보다 낮은 37.6%(2013년 기준)에 그쳤는데 연도별 노인 암검진 수검률을 보면 2011년 46.8%, 2012년 33.7%, 2013년 37.6%로 평균 수검률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일반검진 수검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0∼60대 수검률 73.9%에 비해 14.8%나 낮았다. <br/><br/>조민규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0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오리지널이냐 복제약이냐… “생산-출시 과정 알면 선택은 쉬워집니다”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434720  
본문: #사례. 박지원(가명·55세)씨는 당뇨, B형간염으로 만성질환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 어느 날 신문을 통해 현재 복용 중인 처방약 특허가 만료되면서, 동일 성분의 제네릭(복제약)이 100여개나 출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병원에 들러 의사에게 “<span class='quot0'>복용하던 치료제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느냐</span>”고 물었다. 담당 의사는 “<span class='quot1'>지금 처방되는 약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저렴한 약값에 약을 먹을 수 있다</span>”고 답했다. 박씨는 고민에 빠졌다. 같은 저렴한 값이면, 동일 성분이라고 해도 오리지널을 복용하는 것이 제네릭을 먹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 가격도 떨어진다. 때문에 의사에게 “이왕이면 오리지널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br/><br/> 몸이 아플 때 먹는 약도 오리지널과 제네릭(복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똑똑한 환자들이 늘어나며 약에 대한 ‘결정권’도 높아지고 있다. 즉, 내가 먹는 약은 내가 파악해 의사와 논의해 선택하겠다는 것. 그렇다보니,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에 대한 차이점, 의약품 제조사 등을 파악해 약을 복용하려는 환자들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관심을 모으는 것이 바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차이점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환자는 어떤 약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일까. <br/><br/> 오리지널의약품은 최초에 개발된 약으로, 일정기간 특허로 보호를 받는다. 반면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되면 간단한 실험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일종의 복제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제네릭을 오리지널과 주성분, 안전성, 효능 등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언뜻 보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포장만 다른 똑같은 약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약은 개발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다. 오리지널의 경우 임상3상까지의 철저한 검증절차를 밟고 평균 10여년의 시간을 소요해 만든 의약품이다. 반면 제네릭은 여러 단계에 거친 임상시험을 모두 생략하고, 건강한 지원자를 모집해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시험약(제네릭)과 대조약(오리지널)을 각각 투여하고, 또 바꿔 투여한 뒤 혈액을 채취해 약물농도를 측정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시험)을 거친다. 여기서 약효가 오리지널의 80∼125% 범위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동성시험은 한계점도 있다. 시험 과정에서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들이 복용했을 때와 효과 및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품질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오리지널을 분해해 그 생산방식을 알아낸 뒤 만든다 해도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2'>제네릭은 오리지널과 유사 약에 가깝다</span>”고 설명했다.<br/><br/> 그렇다면 제네릭이 많이 처방되는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가격경쟁력’ 때문이다.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에 비해 가격이 낮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인 것. 물론 제네릭은 오리지널약에 비해 가격이 낮다. 하지만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약값 역시 제네릭 출시 이후 약가가 떨어진다. 한국의 보험약가제도에서는 오리지널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만료 첫 해에 오리지널 약값을 기존 약값의 70%로 깎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네릭 보험 상한가와 같은 53.55%로 인하하고 있다. <br/><br/> 한편, 올해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되며, 제네릭들이 앞다퉈 출시될 예정이다. 릴리의 ‘알림타’가 5월 가장 먼저 특허가 만료됐고, 9월에는 릴리의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가, 10월에는 BMS의 B형간염치료제 ‘바라쿠르드’ 등이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다. 시알리스와 바라쿠르드 약물은 벌써부터 특허 만료 이후 줄줄이 나오는 제네릭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값비싼 항암제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6년 벨케이드, 타쎄바, 이레사, 2018년 허셉틴 등이 만료돼 관련 한미약품, 보령제약, 종근당 등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약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사들 사이에선 오리지널약이 제네릭보다 처방에 있어 우세한 편이다. <br/><br/> 똑같은 약이라면 오리지널을 선택할 것인가, 제네릭을 선택할 것인가. 환자와 의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br/><br/>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10.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그들이 굳이 서울 찾는 이유 곰곰 생각해봐야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413271  
본문: 취재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나선 길이었다. 서울대병원이 위치한 혜화역에 내리자 대찬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다. 지하철역부터 병원까지는 꽤 걸어야하는 거리였기에 대찬 비를 뚫고 걸어갈 용기가 나질 않았다. 개찰구 앞에서 대책 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서있었다. 그러자 지하철역을 나서던 한 어르신께서 자신의 우산 밑으로 들어오라 손짓을 하셨다. 거절하지 않고 어르신 옆에 바짝 붙었다. <br/><br/> 감사함에 이것저것을 묻게 됐다. 의사도 아닌데, 어디가 어떻게 아파 오셨냐고 물었다. 어르신은 그날 아침 울산에서 올라왔다고 했다. 돈을 아끼기 위해 기차가 아닌 버스를 택했고, 그 덕에 그날 새벽 다섯 시에 집을 나서야 했다고 한다. 어르신은 울산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세 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두 번이나 갈아타서야 이곳 서울대병원에 도착했다. 그렇게 부산을 떨었지만 결국 늦었다며 진료를 못 볼까 초조해하셨다. <br/><br/> 희귀 골육종을 앓고 있는 소년의 어머니는 자신을 가리켜 ‘운이 좋은 경우’라고 소개했다. 희귀암을 진단받고 해당 지역 병원에서는 서울 소재 병원을 가볼 것을 권했다. 지방과 서울 소재 병원을 오가며 힘겹게 치료를 이어가던 이들은 어느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서울에 방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부모는 그곳을 가리켜 “여러 환아들이 함께 생활하는 소위 환아 합숙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 중에도 자신들처럼 뽑히지 않아 먼 집과 병원을 힘겹게 오고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br/><br/> 두 사례에는 비정상적인 의료계 구조가 여러 갈래 엉켜있다. 어르신은 매번 왕복 8시간을 길에 허비하며 서울대병원을 향한다. 그러나 의료진을 마주하고 앉아 자신의 아픈 곳을 얘기하는 시간은 10분 채 안 된다. 3분 진료가 개선되지 않는 의료 환경과 의료 질 불균형을 초래하는 선진국형 대형병원의 서울 쏠림현상은 현 의료계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구조다. 희귀암 아이를 둔 부모 역시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서울에 올라왔지만 대책이 없었다. 누군가는 무조건 서울을 향하는 환자와 가족을 비난한다. 그러나 ‘무지스럽다’며 환자를 비난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왜 환자들이 앞 다투어 서울로 향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자식이 아프고, 부모가 아픈데 서울에 더 크고 좋은 병원이 있다는 주변의 말은 무시하기 어렵다. <br/><br/> 4대 중증질환보장, 희귀질환보장 등 거창한 이름의 의료지원책이 존재한다. 하지만 의료계 산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양한 이름의 질환 보장정책은 의료계의 비상식적 구조의 연장과 암치료에 따른 가족의 붕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br/><br/>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11.txt

제목: [암과의 동행] ‘The Liver Week’ 성공개최… 대한간학회, 선진국학회와 합동세션 진행 위상 높여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432749  
본문: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한간학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간질환 연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회는 지난해에 이어 The Liver Week라는 학술대회 공식 명칭을 사용하며 국제학술대회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br/><br/> 2015 The Liver Week는 소화기내과 뿐 아니라 간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외과, 영상의학과, 병리학과, 소아과, 이식외과 각 분야 전문가가 모두 모여 우리나라의 간질환 치료현황과 발전된 치료법 등은 공유하는 자리다.<br/><br/> 간학회는 이번에 Curing Liver Disease: Past to the Future를 학술대회 주제로 내걸었다. 지난 20년간 국내 간질환 전문가들은 B형간염, C형간염, 간이식, 간암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발표는 C형간염이다. <br/><br/> 백순구 대한간학회 학술이사(연세대 원주의대)는 “다른 국가에서 처방 가능한 C형간염 치료제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국내 C형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 임상결과가 발표되어 신약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br/><br/> 2015 The Liver Week는 당초 6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한국이 메르스로 진통을 겪으면서 학술대회는 잠정 연기되는 위기에 놓였다. 해외 참석자들의 잇따른 참석 취소로 성공적인 개최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학회는 과감히 9월로 연기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려와 달리 The Liver Week는 국제사회에서 학회의 높아진 위상을 증명했다. 백순구 학술이사는 “<span class='quot0'>The Liver Week는 단순히 대한간학회의 학술대회 명칭이 아니라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한 학회가 국제 학회로 거듭나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실제로 이번 학술대회는 유럽, 일본 학회와의 합동 세션이 많다</span>”고 설명했다.<br/><br/> 기존 학술대회가 해외 의료진을 초빙해 초청강연을 듣는 수동적인 형식이었다면 The Liver Week는 선진국의 간질환 전문가들을 학술대회 세션 좌장으로 선정하거나 토론 패널로 초빙해 이름만 국제학술대회가 아닌 구체적 사례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광협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span class='quot1'>국제 학술대회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번에 참석한 많은 해외 연자들이 학회의 운영과 원활한 학술대회 진행 상황에 놀라워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 한편 The Liver Week를 개최한 대한간학회는 아시아태평양간학회 학술대회 내년 4월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12.txt

제목: [암과의 동행] “CML은 정복 가능한 질환”… 희망·용기 재충전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412722  
본문: “만성골수성백혈병(CML)은 이제 정복 가능한 질환입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이겨내면 됩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CML) 치료의 대가로 평가받는 김동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치료의 중요성과 완치의 희망을 주기 위한 ‘제 5회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날(CML Day)’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3일 반포 한강공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CML 환우와 가족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렸다.<br/><br/> 이날 행사는 서울성모병원 암병원과 루산우회(CML 환우회) 함께 개최됐다. 탤런트 최석구씨의 사회로, CML 연구 및 치료의 권위자인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의 강의, 환우와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수원여대 대중음악과 이정식 교수의 색소폰 공연,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지난 일년을 돌아보는 영상, CML OX퀴즈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다.<br/><br/> 올해는 5회째 맞는 행사를 기념해 ‘한강 3㎞ 달리기 대회’를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개최했다. 참가자는 약 3㎞의 코스를 환우와 함께 뛰면서 어려움과 희망을 나눴다. 한 환우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우들에게 힘을 주시는 김동욱 교수님 그리고 환우들과 3km 코스를 완주해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주치의 말을 준수하고 치료제만 꾸준히 복용하면 우리도 건강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참가비 전액은 만성골수성백혈병 연구에 힘쓰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연구자와 의대 교수들을 위한 교육·연구기금으로 쓰인다. <br/><br/> 그동안 백혈병 하면 불치병으로 여겨져 왔지만,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지난 10년간 효과적인 다양한 표적항암제가 개발돼 급성백혈병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관리하면 장기 생존이나 완치까지 가능해졌다. 그러나 치료를 소홀히 하면 병이 악화돼 결국엔 시한부 삶을 살아야 한다. <br/><br/> 올해 열린 행사에서는 최근 치료제 동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강연이 진행됐다. 최근에는 1세대 치료제 글리벡, 2세대 치료제인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국산 신약 슈펙트 등을 비롯해 3세대 치료제인 이클루시그에 이어 4세대 신약까지 등장해 환자들에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 4세대 신약으로는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ABL001’이 있다. 이 신약은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전 세계 10개 병원에서 동시에 임상을 시작했다. 김동욱 교수는 “<span class='quot0'>임상 진행 중인 4세대 표적항암제는 6개월 이상 투여환자(다른 약제 내성 환자들)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span>”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산약인 슈펙트는 올해 말 1차 치료제 허가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CML 줄기세포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획기적 신약이 개발단계에 있다. <br/><br/> 환자들에게 관심이 되고 있는 2세대 표적항암제 중단연구에 대한 결과도 발표됐다. 김 교수는 “글리벡 중단연구에서 환자 156명 중 109명이 현재까지 치료를 받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는 장기 복용 환자들이 항암제 복용을 중단해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강연에서는 여성 환자들의 임신에 대한 궁금증 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정보의 장이 되었다. 또 각 표적항암제의 주요 부작용을 설명하여 약제에 대한 환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는 시간이 됐다. 한편 CML 데이는 40대 이후 성인에게 주로 발병하는 CML이 9번, 22번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혈액암이라는 점에 착안해 매해 9월 22일 전후로 정해졌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13.txt

제목: [암과의 동행-사람 이야기] 자살은 개인문제 아닌 사회문제… 고위험자 추적 시스템 등 절실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423173  
본문: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자살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다. TV, 신문 등에서 잘 사는 것, 웰빙(Well-being)의 방법론을 이야기할 때 다른 한 쪽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br/><br/> 한국의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기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들 국가들의 평균 자살 사망률과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문제는 자살이 삶을 대하는 개인의 행동방식의 일종으로 동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점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날로 증가하는 국내 자살률 감소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br/><br/> 이원영 중앙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자살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자살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4위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바로 그 다음이지만 한국의 의료복지제도는 질환을 예방하는 데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해서는 형식적 지원에 그친다</span>”고 지적했다.<br/><br/> 실제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자살 재시도 가능성이 높은 자살 고위험자로 분류하고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원영 교수는 그 원인을 ‘턱 없이 부족한 예산’에서 찾았다. 그는 “일본의 경우 자살을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요소로 보고 자살률을 낮추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해마다 약 3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89억 원 정도다. 이 예산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골라내도록 필요한 인력을 응급실에 배치하는 데도 턱 없이 모자르다”고 말했다.<br/><br/> 적은 예산은 연구 활성화에도 제동을 건다. 효과적인 자살 예방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높은 자살률에 비해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국내에서는 자살 고위험자를 위한 정신신경계 약의 처방현황이나 낮은 처방률의 원인 등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조차 어렵다</span>”고 지적했다. <br/><br/> 한편 자살 유가족의 경우 어느 사회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거나 방치되기 일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살 유가족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점도 개선돼야할 부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살 유가족은 일반인에 비해 자살할 가능성이 4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국가적인 추적관찰시스템이 실행돼야한다는 것이다. <br/><br/> 실제로 자살 유가족의 부모를 찾아간 적이 있는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자살 학생의 엄마는 시댁으로부터 ‘아이 잡아먹은 애미’라는 질타를 받고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자살은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족이 불행해지며 그 불행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span>”고 말했다. <br/><br/> 일본은 우리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였지만 효과적으로 줄여나갔다. 막대한 예산 지원이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사회가 자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자살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10년째 부동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한국사회가 한 개인의 자살에 대해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면해야함을 일깨워준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14.txt

제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저소득 희귀난치병 가구 500만원 지원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421817  
본문: 희귀난치성질환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워낙 환자수가 적고, 치료비용은 고가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4년부터 운영하는 ‘희귀난치병 어린이 돕기 프로젝트’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br/><br/> 해당 사업은 국가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아동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 24세 이하 희귀난치성질환(암 포함) 등으로 진단받은 저소득가정 환우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br/><br/>환우·가족과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보건의료 소외계층 환우·가족이 대상이다. 저소득가정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치료비 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인당 500만원(총 30명)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1인당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심사평가원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더욱이 사업을 위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지원하고 있어 더 뜻 깊다. <br/><br/> 뿐만 아니라 ‘건강+행복캠프’ ‘희귀난치병 환아 투병·간병 수기공모전’ ‘행복을 전하는 희망 동화책’ ‘건강+행복 어린이 도서관’ ‘소아암완치자 밴드 레인보우브릿지’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에도 나선다. 건강+행복캠프는 심사평가원 주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환아 가족과 심사평가원 임·직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가족간 유대강화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또 소아암 완치자로 구성된 밴드 레인보우브릿지를 지원해 소아암으로 투병중인 환아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완치의지도 북돋아 주고 있다.<br/><br/>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와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의료전문 심사평가기관이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나눔의 가치실현을 위해 2006년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2007년 ‘심평원봉사단’을 창단해 전 직원이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고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2300여명의 임직원이 1인당 8시간의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임직원의 성금과 매칭그랜트 예산으로 마련된 재원 8700여만원을 디딤씨앗 통장재원으로 해 8069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통해 2011년 ‘나눔문화 실천 대통령 표창’, 2013년 ‘행복나눔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15.txt

제목: [친절한 쿡기자] 열정의 응원으로 25년간 축구사랑 ‘가우초 다 코파’ 죽음에 애도 물결  
날짜: 2015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142082  
본문: [친절한 쿡기자] 클로비스 페르난데스(사진)는 브라질의 축구팬입니다.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을 시작으로 2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브라질 대표팀을 따라다닌 열혈팬이죠. 브라질은 세계 유일의 월드컵 본선 전회 출전국(20회)이자 최다 우승국(5회)입니다. 월드컵의 역사 자체인 셈이죠. 페르난데스는 그중 일곱 번의 월드컵을 관전했고, 두 번의 우승을 목격했습니다.<br/><br/> 페르난데스는 선수 출신이나 협회 관계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드컵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가수 김흥국(56)처럼 연예인도 아니죠.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동네 아저씨입니다. 다만 차림새가 조금 독특합니다. 페르난데스는 언제나 검은색 가우초(남미의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직접 제작한 월드컵 우승트로피 모형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가우초 다 코파’(Gaucho da Copa·월드컵 카우보이)입니다.<br/><br/> 페르난데스가 얼굴을 가장 많이 알린 대회는 2014년 브라질월드컵입니다. 국제축구연맹(FIFA) 홈페이지에 인터뷰가 실리고 유명 음료회사 광고까지 출연할 정도로 유명세를 탔으니까요. 축구에 관심이 없어도 페르난데스의 사진을 보고 ‘아! 이 아저씨?’라며 무릎을 칠 사람이 많을 겁니다. 브라질이 독일에 1대 7로 참패한 4강전을 마치고 페르난데스가 독일 여성 축구팬에게 월드컵 모형을 건넨 순간을 포착한 사진은 지금도 세계 축구팬들 사이에서 브라질이 독일에 빼앗긴 패권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br/><br/> 이 페르난데스가 17일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산타카사병원에서 암 투병 끝에 60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칠레 코파아메리카가 열린 지난 6월까지만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중계방송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런 그의 갑작스러운 부고는 세계 축구계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축구팬들과 선수, 언론인, FIFA 관계자들은 “<span class='quot0'>영면하세요, 가우초 다 코파(RIP Gaucho da Copa)</span>”라는 짧은 추도문을 SNS에 적고 애도했습니다. 영국 일간 미러 등 유럽 언론들까지 그의 부고를 전하고 있습니다.<br/><br/> 페르난데스는 그저 한 명의 축구팬일 뿐입니다. 하지만 25년간 변함없이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열정은 아무나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죠. 페르난데스의 죽음이 가족과 지인의 쓸쓸한 장례식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 축구계의 추모로 이어진 이유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가장 강렬했던 축구팬, 페르난데스가 하나님 곁에서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br/><br/>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br/><br/> ▶[친절한 쿡기자]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16.txt

제목: 고혈압·당뇨 환자 보험가입 쉬워진다… 의무 고지 항목 대폭 줄인 ‘신 유병자 전용보험’ 곧 출시  
날짜: 2015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201408  
본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자가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보장 범위도 모든 질병으로 확대된 새로운 유병(有病)자 전용보험이 출시된다.<br/><br/>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유병장수 시대를 맞아 만성질환 보유자가 1183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과 보장 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현실을 반영했다. 현재 판매 중인 고혈압·당뇨 유병자 전용보험은 대부분 보장 범위가 암이나 사망으로 제한돼 정작 보장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선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br/><br/>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유병자 통계(수술률·입원율 등)가 부족해 관련 상품 개발을 꺼린다고 보고 과거 13년간의 유병자 질병 통계 자료를 이달 중 보험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여건을 조성하면서 유병자가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받는 상품이 개발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br/><br/> 새로 출시되는 유병자 전용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일반보험에 비해 대폭 완화돼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전체 항목 수가 18개에서 6개로 줄고, 입원·수술 여부 고지 기간도 ‘최근 5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되며, 통원·투약 여부 고지 의무는 면제된다. 또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60세에서 75세 이상까지로 확대된다.천지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17.txt

제목: 위암·대장암 예방 ‘항암 김치’ 첫 개발… 분당차병원 함기백 교수팀 연구  
날짜: 201509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5933225  
본문: 위암과 일부 대장암까지 예방하는 ‘항암 김치’가 개발됐다.<br/><br/>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 함기백(사진) 교수팀은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박건영 교수, 인하대병원 이돈행 교수팀과 공동 연구해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과 관련된 위암, 궤양성대장염 연관 대장암 등에 효능을 발휘하는 ‘암 예방 김치’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암 생물학 학술지 ‘온코타깃’ 온라인판에 실렸다.<br/><br/> 위벽에 붙어 사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만성위염, 위궤양, 위축성위염 등을 거쳐 위암이 발생한다. 국내 위암 발생 원인의 70%를 차지한다. 김치에는 락토바실러스플란타늄 같은 ‘착한 유산균’이 많이 들어 있어 유해균을 없애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다.<br/><br/> 연구팀은 기존 김치에 암 예방 기능을 강화해주는 갓·배·버섯·산초·다시마 등 5가지 식품을 첨가해 새로운 김치 모델을 만들고, 이 김치를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쥐에 투여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쥐의 75%에서 위 종양이 발생했으나 암 예방 김치 투여군에서는 15% 에서만 생겼다.<br/><br/> 함 교수는 “<span class='quot0'>14명의 건강한 성인에게 일반 김치와 암 예방 김치를 하루 210g씩 4주간 섭취케 했더니 암 예방 김치 섭취군에서 대장 건강을 지켜주는 장내 세균(박테로이데테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span>”고 말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18.txt

제목: 한화손보, 3대 질병 수술비 차등 지급 보장보험 판매  
날짜: 201509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045182  
본문: 한화손해보험은 고객이 암·뇌질환·심장질환 등 3대 질병 발생시 진단부터 수술, 입원, 중증진단 등 치료 단계별 보장을 강화하는 ‘무배당 마이라이프 굿밸런스 보장보험Ⅱ’를 출시했다. 이 보장보험은 손보업계 최초로 3대 질병 관련 수술비를 수술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br/><br/> 이 상품은 3대 질병 진단비 담보 외에도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외에 중증뇌출혈 및 중증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담보를 신설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수술비, 입원비 담보도 추가해 치료를 위한 전 과정(진단→중증진단→수술→입원)을 다양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상품을 기획했다.<br/><br/> 손보업계 최초로 수술 종류에 따라 상해와 질병수술비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3대 질병 발병 시 진단비를 선지급하는 질병사망 복합 담보도 새롭게 마련됐다. 가입고객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었을 때만 가능했던 계약 전환제도를 중도환급시에도 적용한다. 가장의 은퇴시점에 맞춰 기가입한 보장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립부분 환급금을 은퇴자금으로 활용 할 수도 있다.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일반상해사망, 3대진단비, 주요 특약은 110세, 질병사망은 80세까지며, 기본계약 기준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납입주기는 월납이며 10/15/20/25/30년 납이다. <br/><br/>김진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19.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30) 이화의료원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주웅 교수팀] 물샐 틈 없는 협진치료  
날짜: 201509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5706026  
본문: 여성(부인) 암이란 남성에게 없는 장기인 여성 생식기 계통에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주로 중년 이후 여성 고유 장기에 생긴다는 뜻에서 ‘부인 암’으로 불린다. 모든 암이 그렇듯이 부인 암 역시 비정상 세포들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증식만 거듭할 때 발생한다.<br/><br/><br/> 부인 암에는 자궁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질암, 외음부암 등이 있다. 자궁경부암은 30∼40대,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은 폐경 이후에 많이 생긴다.<br/><br/><br/> 부인 암 치료의 성패는 크게 3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정확한 진단과 숙달된 치료,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그것이다. 따라서 부인 암 치료를 잘 하는 전문병원을 찾을 때 이 기준을 적용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가늠하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br/><br/><br/>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여성 질환 진료 분야에서 쌓아온 강점을 살려 국내 부인 암 환자들을 도울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센터장 주웅 산부인과 교수)도 바로 그런 곳이다.<br/><br/><br/> 이 센터는 정확한 진단과 최고 수준의 치료를 위해 다양한 임상연구와 수술 경험을 가진 의료진을 전면에 배치해 부인 암 치료의 3가지 성공요소를 충족시키고 있다.<br/><br/><br/> 김승철(58) 의료원장과 문혜성(53) 로봇수술센터장, 주웅(44) 부인종양센터장, 정경아(46)·이사라(41)·김윤환(42) 교수 등이 바로 그들이다. 특히 김 의료원장의 뒤를 이어 최근 센터장으로 새로 선임된 주 교수는 전사(戰士)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부인 암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쌓고 있다.<br/><br/><br/> 주 교수팀은 현재 부인 암 치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병리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연관 과목 교수진과 물샐 틈 없는 협진 체제를 갖추고 있다. ‘완벽한 부인 암 치료를 위해 언제든지 아낌없이 협조하는 관계’가 이들의 특징이다.<br/><br/><br/> 수술을 진행할 때도 이들의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은 빈틈없이 가동된다. 예를 들어 난소암 수술의 경우 절제 범위가 커 대장외과, 간담도외과, 흉부외과 교수진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많다. 주 교수팀은 이 경우에도 완벽한 협진 시스템을 가동해 번번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br/><br/><br/> 자궁 주변 조직을 광범위하게 절제해 수술 후 배뇨 및 배변기능 보호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 주 교수팀은 비뇨기과 교수들과 협력해 배뇨 및 배변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신경보존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통해 자궁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데 앞장서고 있다.<br/><br/><br/> 최근 수술 추세는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수술 흉터가 많이 드러나는 개복수술보다는 복강경 수술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주 교수팀도 배꼽 부위에 구멍 한 개만 뚫고 시술하는 최신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 또는 복강경 수술로 자궁 내 혹(근종)과 암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br/><br/><br/> 주 교수팀은 이밖에도 부인 암 환자들이 여성성 상실로 인한 우울감에서 빨리 헤어나 예전처럼 다시 활기차게 새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돕는 ‘파워 업(Power up) 무료강좌’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강좌는 노래 교실, 명상, 국선도, 오카리나 교실, 파스텔화, 글쓰기 교실, 희망 텃밭 가꾸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br/><br/><br/> 또 부인 암 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이 참여하는 환우회인 ‘난초회’를 결성하고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삶의 의지를 북돋워주고 있다. 해마다 연말이면 10년 이상 암 생존자들과 가족을 초청해 장기생존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동행’ 행사도 갖고 있다.<br/><br/><br/> 주 교수는 앞으로 표준화된 암 치료법 외에도 젊은 여성, 고령 환자, 재발 암 환자, 말기 암 환자 등 암 환자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내외 어떤 암 센터와 손잡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노라고 주 교수는 강조했다. 부인 암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br/><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20.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 주웅 교수는 쟁쟁한 실력에 온화한 미소… 부인 암 환자들의 ‘키다리 아저씨’  
날짜: 201509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5705237  
본문: 1972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1990년 광주 서강고, 1996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임상강사를 거쳐 2005년부터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쉐이크칼리파병원에 파견근무 중인 분당서울대병원 마취과 박상헌 교수가 고교 및 서울의대 동창이다.<br/><br/> 주 교수는 자궁암, 난소암 등 부인종양학 전문가다. 2013년 우리나라 산부인과 임상의로는 처음으로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br/><br/> 미국암학회(AACR) 젊은 연구자상, 아시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학회(AOCOG) 젊은 산부인과의사상을 2004∼2005년 잇따라 수상했다. 주 교수는 특히 PET검사가 림프절 전이 자궁경부암 발견에 얼마나 유용한지, 자궁내막암 치료 시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규칙적인 운동과 콩 섭취가 자궁내막암 등 부인 암 발병위험 및 진행 감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규명해 주목을 받았다.<br/><br/> 주 교수는 ‘암 정복의 지름길은 예방’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주 교수가 부인 암 예방 연구에 남다르게 매달리는 이유다. 암 환자를 고치는 것도 가치 있지만 일반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의료자원의 효율성과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까닭이기도 하다.<br/><br/> 주 교수는 요즘 난소암의 재발과 전이를 조기에 예측, 평가할 수 있는 진단법을 개발해 산업화를 추진 중이다. 관련 특허 20여개도 취득 또는 출원했다. 주 교수는 2000년 서울대병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을 받을 때 차트 정리를 차분하게, 그리고 꼼꼼히 했다는 이유로 ‘의무기록우수전공의상’을 받은 특이경력자이기도 하다.<br/><br/> 주 교수는 병원에서 늘 온화한 미소로 환자를 맞이하는 ‘키다리 아저씨’(의사)로 통한다. 어려서 부친의 영향으로 붓글씨를 익히며 수양을 한 것이 진료실에서도 자연스레 배어나오는 것이지 싶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21.txt

제목: 김우창·강현배·백성희·최만수 교수, 제11회 경암학술상 수상자에 선정  
날짜: 201509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5628265  
본문: 경암교육문화재단(이사장 송금조)은 제11회 경암학술상 수상자로 인문·사회 부문 김우창(고려대·영어영문학) 명예교수, 자연과학 부문 강현배(인하대·수학) 석좌교수, 생명과학 부문 백성희(서울대·생명과학) 교수, 공학 부문 최만수(서울대·기계항공공학)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br/><br/> 인문·사회 부문 김 명예교수는 인문학을 넘어 사회와 인간 전반을 성찰한 대표적 지성이며, 자연과학 부문 강 석좌교수는 수학계에서 60여년간 풀리지 않았던 ‘폴야 세고 예측’과 ‘애슐비 예측’의 동치를 증명한 한국의 대표 응용수학자다.<br/><br/> 생명과학 부문 백 교수는 암 전이 억제 유전자 연구 등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공학 부문 최 교수는 나노공학을 기계공학에 접목시킨 세계적 업적을 쌓았다.<br/><br/> 경암교육문화재단은 태양그룹 송금조 회장이 재산 1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해 만든 순수 공익재단이다. 시상식은 11월 6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리며,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2억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22.txt

제목: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암센터-두란노서원, 암환자 위한 목요예배 힐링터치 10주년 감사예배  
날짜: 201509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5533492  
본문: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암센터(소장 정준 교수)와 두란노서원(원장 이형기)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병원 대강당에서 ‘암환자를 위한 목요예배 힐링터치(Healing Touch)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암환자와 보호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힐링터치 예배는 매주 목요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암센터에서 진행된다.<br/><br/> 김양재 우리들교회 목사는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span class='quot0'>절망스런 환경이라도 현재 남겨진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환우들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영육이 모두 회복되길 바란다</span>”고 위로했다.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암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서 “짧지 않은 인생에서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축복한다”고 말했다.<br/><br/> 암환자와 의료진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예배에서 김형중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span class='quot1'>힐링터치 예배에 참석한 환우들이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봤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환우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런 자리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 힐링터치 예배는 2005년 9월 당시 유방암센터장이던 고 이희대 교수 등 의료진이 암환자들을 위해 만든 기도모임에서 시작됐다. 매주 목요일 기도와 찬양, 성경공부를 하며 시작된 모임은 정규 예배로 자리 잡았으며 ‘암환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예배’로 유명해졌다. <br/><br/>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암센터와 두란노서원을 주축으로 온누리교회 횃불남성합창단, 청운교회, 나라니 중창단, 기도모임 UPS, 강남세브란스 원목실에서 예배를 돕고 있다.<br/><br/> 두란노서원 출판본부 팀장 박용범 목사는 “<span class='quot2'>힐링터치 예배가 앞으로도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영혼구원에 목적을 두고 환우와 보호자들을 위로하는 모임이 되길 소망한다</span>”고 전했다.<br/><br/>김아영 기자 cello08@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23.txt

제목: [300자 읽기] 고려 왕조의 위기, 혹은 세계화 시대  
날짜: 2015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5309499  
본문: 한국사에서 소외된 고려사를 대중하게 꾸준하게 소개해온 저자의 ‘몽골 제국과 고려’ 시리즈 3권. 원 간섭기에 고려의 정치 사회를 주도한 ‘부원배(附元輩)’라는 세력을 집중 해부한다. 부원배는 당시 국제어인 몽골어와 한어를 익힌 자들로 몽골 제국과 고려를 넘나들며 활동했다. 저자는 이들을 세계화 시대의 국제인으로, 세계 제국에 뿌리 내린 교포 집단으로 조명하면서 명과 암을 논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24.txt

제목: [책과 길] 엽기적 살인마가 가족이라면… 스티븐 킹, 20년만에 쓴 중편 스릴러  
날짜: 2015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5319937  
본문: 일단 첫 장을 읽었다면 책을 끝까지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속도감을 내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야기의 제왕’ ‘서스펜스의 제왕’으로 불리는 스티븐 킹(68)의 중편소설집 ‘별도 없는 한밤에’는 그의 작품이 그렇듯 뭐라 설명하기 힘든 서술의 마력으로 독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책은 ‘쇼생크 탈출’이 수록된 ‘사계’(1981), ‘미스터리 환상특급’(1990) 이후 20년 만에 쓴 세 번째 중편소설집(2010)이다.<br/><br/> 수록작 네 편 모두 응징과 공모에 관한 것들로 작가 스스로 “독하다”고 할 만큼, 응징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섬뜩하고 강렬하게 담아냈다.<br/><br/> 표제작 ‘1922’에서 농부인 ‘나’는 아내가 장인에게 물려받은 땅을 처분하고 도시로 떠나려 하자 살인을 결심한다. 어린 아들을 공모자로 끌어들이니 잔인하기 그지없다. 대대로 물려받은 농촌의 삶을 떠나는 걸 끔찍이 싫어해서다. 아내를 무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앞 우물에 몰래 묻었고, 사건 현장에 나타난 보안관마저 절묘한 아이디어로 따돌린다. 늙은 젖소를 빠트리고 콘크리트로 우물을 막음으로써 모든 것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기치 않은 복병이 하나둘씩 튀어나온다.<br/><br/> 우선 쥐다. 아내의 시신을 뜯어먹던 쥐는 우물과 연결된 파이프라인에서 나와 가축을 뜯어먹는다. 장면 묘사가 천연덕스러울 정도로 세밀해 더 잔혹하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막지만 쥐는 끊임없이 환영으로 나타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파멸로 몰고 가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br/><br/> 두 번째는 아들이다. 영민한 연기로 완전범죄를 도왔던 14세 밖에 안 되는 아들, 그리고 땅을 물려주고 싶은 희망이었던 아들은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함께 가출하는데….<br/><br/> 마지막으로 돈이다. 아들의 임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빌린 대출은 ‘나’의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되고, 결국 ‘나’는 대지에서 축출되어 벌을 받듯 도시로 밀려난다. 공장으로, 사서로 전전하지만 끝내 8년 만에 호텔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마지막 음절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 채 이런 단말마를 남기고. ‘제발 그만 물어, 제발 이제 그ㅁ.’ 다음날 신문에는 입으로 제 몸을 뜯어먹은 시신이 호텔에서 발견됐다는 엽기적인 사건이 실린다. 나머지 세 작품 가운데 ‘빅 드라이버’는 여성 소설가를 주인공으로 한 미저리 버전을 보는 듯 하다. ‘공정한 거래’는 말기 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주인공이 생명연장을 위해 악마와의 거래조차 불사하는 욕망이, ‘행복한 결혼생활’은 누구보다 다정다감한 남편이 사실은 연쇄살인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경악이 사건을 끌어가는 힘이다.<br/><br/>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25.txt

제목: 55∼74세 흡연자 매년 폐암선별 검사를… 7대 암 검진권고안 제·개정  
날짜: 201509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5213936  
본문: 담배를 하루 한 갑씩 30년 넘게 피운 55∼74세 흡연자는 ‘저선량 흉부CT’를 이용한 폐암 선별검사를 매년 받는 게 좋다. 저선량 CT는 방사선량을 10분의 1가량 줄인 진단 장비다. 금연 후 15년이 지났다면 이 검사를 매년 받을 필요는 없다. 흉부X선, 객담검사, 혈액 종양표지자를 이용한 폐암 선별검사는 효과적이지 않아 시행하지 말라는 권고가 나왔다.<br/><br/>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 위원회는 9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7대 암에 대한 검진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과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갑상샘암 검진 가이드라인이 새로 포함됐다. 기존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의 검진 권고안은 일부 개정됐다.<br/><br/> 위원회는 40∼74세 성인은 증상이 없더라도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암 검진을 2년 간격으로 받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위장조영촬영은 위 내시경을 할 수 없거나 수검자가 원할 경우에 고려토록 했다. 45∼80세는 1년 또는 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기본으로 하는 대장암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장암 검진 시작 연령은 기존보다 5세 앞당겨졌다. 대장 내시경은 출혈이나 천공 등 위험이 비교적 높아 선택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br/><br/> 40세 이상 B·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간경화증 판정을 받았다면 진단 시점부터 검진을 시작해야 한다.<br/><br/> 40∼69세 여성은 유방촬영술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을 2년마다 받는 게 좋다. 만 20세 이상 여성은 무증상이어도 자궁경부암 검사를 3년 간격으로 받으라고 권고했다. 검진 주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국립암센터 김열 박사는 “<span class='quot0'>무증상 성인의 초음파 이용 갑상샘암 검진은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일상적 선별검사로는 추천되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26.txt

제목: [日 “한국 거주 피폭자 치료비도 전액 지급” 확정 판결] “日정부 이겨… 우리 정부가 답할 차례”  
날짜: 201509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5055082  
본문: “일본 정부와 싸워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성의를 보일 차례입니다.”<br/><br/>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낙구(71)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은 감격한 듯 고개를 숙였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일본인과 똑같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라고 판결한 직후였다.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90여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모두 후유증을 안고 사는 피폭 1·2세대 피해자들이다.<br/><br/>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1945년 8월 6일 성 회장은 두 살배기 젖먹이였다. 공습경보 속에 미처 방공호로 피하지 못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왔지만 원폭이 남긴 상처는 70년간 그를 쫓아다녔다. 치매에 시달린 어머니에 이어 성 회장도 평생 피부질환을 앓고 있다.<br/><br/> 대한적십자사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 거주 원폭 피해자는 2535명이다. 대부분 70∼90대 고령이며 평균 나이는 82.5세다. 피부병과 암 등 각종 질병을 달고 산다. 평생을 병과 씨름하다 매년 200여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br/><br/> 일본 정부는 2003년부터 이들에게 매달 원호수당(재해수당)과 연간 의료비, 연 1회 건강검진을 제공해 왔다. 원호수당은 건강관리수당(3만4030엔) 보건수당(1만7070엔) 의료특별수당(13만8380엔) 특별수당(5만1100엔)으로 나뉜다.<br/><br/> 그러나 일본 후생노동성이 원폭에 의한 질병이라고 인정하거나 원폭 중심지로부터 2㎞ 이내에서 직접 피폭된 경우에만 지급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피폭자 건강수첩이 없는 피해자 86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성 회장은 “<span class='quot0'>매달 건강관리수당 30여만원만 받고 있는 회원이 대부분</span>”이라고 했다.<br/><br/> 일본 정부는 국내 원폭 피해자들에게 연간 30만엔(300여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지만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원폭 피해자 이홍현(69)씨는 “<span class='quot1'>1주일에 2, 3번씩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한 달 병원비가 200만원을 훌쩍 넘는다</span>”며 “<span class='quot1'>아픈 몸으로 일도 못하고 식구들에게 폐만 끼치는 상황</span>”이라고 했다. 성 회장은 “<span class='quot0'>암을 포함한 합병증까지 겹치면 연간 치료비가 2000만원 넘게 든다</span>”고 말했다. 원폭 피해자 가운데 20%가량은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들에게 치료비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br/><br/>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도 의료비 전액을 일본 정부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적십자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일본 후생노동성이 판결 내용을 검토해 통보하는 대로 세부 절차 마련에 착수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한국 병원 영수증의 번역과 일본 측에서 정하는 수가 문제 등이 아직 남아 있다</span>”고 했다.<br/><br/>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이 책임을 인정한 만큼 한국 정부도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십자는 현재 원폭 피해자 의료비 중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과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나마 1세대만 해당된다. 2세대 피해자에겐 지원 자체가 없다.<br/><br/> 성 회장은 “<span class='quot0'>현재 받고 있는 지원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 정부를 상대로 뛰어서 얻어낸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1300여명의 2세대 환우들은 방치되고 있다</span>”고 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은 17·18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후 3년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br/><br/>박세환 김판 기자 foryou@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27.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29) 차병원 조성훈 박사팀] 최고 수준 안티에이징 시스템… 면역치료 새장  
날짜: 201509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4913142  
본문: 차병원그룹의 미래형 병원 차움(원장 이동모)이 지난 1일 암, 당뇨, 류머티즘성 질환 등 자가면역 이상 질환 예방을 위해 저항력을 키워주는 ‘면역증강센터’(센터장 조성훈)를 개설, 주목을 받고 있다.<br/><br/> 차움은 면역증강센터 개설과 함께 2000년대 초 국내에서 NK면역세포 치료를 처음 시도, 우리나라 면역치료계의 대부로 불리는 조성훈(50) 박사를 초대 면역증강센터장으로 영입했다.<br/><br/> 차병원그룹의 줄기세포 보관 기술력과 조 박사가 그동안 축적해온 면역치료의 노하우를 통합해 안티에이징(항노화) 치료 및 관리 서비스 시스템을 더욱 확실히 다지기 위한 포석이다.<br/><br/> 보통 사람들은 이상 증상을 느낀 뒤에야 병원을 찾는다. 하지만 암 같은 중대 질환은 이 때 손을 쓸 수 없는 말기단계인 경우가 많다. 질병 치료에 쓸데없이 많은 의료비를 낭비하게 되는 이유다. <br/><br/> 이런 위험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질병 예방 활동이요, 면역력 증진 노력이다. 그러기 위해선 평소 만병의 뿌리인 만성피로 해소와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 면역력 증진 요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br/><br/> 면역력 향상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힘이 된다. 평소 질병예방 차원의 면역 증진 관리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더 큰 손해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br/><br/> 차병원그룹 차움이 그간 질병으로 발전하기 직전의 회색지대, 즉 미병(未病)상태에 주목해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치료를 근간으로 하는 안티에이징(항노화) 치료와 관리 서비스에 집중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br/><br/> 면역은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자연치유력이다.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고, 돌연변이세포가 생길 경우 그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도 면역이다.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면 적어도 신체건강에 대해선 두려울 게 없어진다. 바이러스 공격을 받아도, 뜻밖의 암세포가 생겨도 큰 고통 없이 금방 물리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br/><br/>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 중 가장 강력한 세포는 혈액(백혈구) 속에 있는 NK(Natural Killer·자연 살해)세포다. NK세포는 우리 몸속에 숨은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일일이 찾아내 파괴하고, 암세포와 같은 돌연변이세포를 제거하는 일을 한다.<br/><br/> 사실 우리 몸에선 건강한 상태에서도 암의 씨앗(돌연변이 세포)이 하루 5000여개씩 생기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암세포의 존재를 모르고 건강을 유지하며 잘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NK세포가 은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 싹을 제거하는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br/><br/> 차움 면역증강센터는 앞으로 기존의 서양의학, 동양의학, 통합의학 등을 총 망라한 의료기술력에다 조 박사의 임상경험을 보태 개인 맞춤형 면역치료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br/><br/> 이 프로그램에는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통해 개인의 면역력을 측정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혈액 내 각종 유해 세균을 제거해 피를 맑게 하며 면역기능을 북돋워주는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림프 순환을 순조롭게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해주는 ‘림프 드레이니지’(Lymph-drainage) 마사지, 멀티비타민 등 각종 항산화제를 이용한 면역요법 처방 서비스도 제공된다.<br/><br/> 필요하다면 차병원그룹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도쿄셀클리닉으로 환자를 보내 세포치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받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이 경우 면역 증진을 위한 NK세포 주입술은 2주 간격으로 한번씩, 총 6회 시술이 한 세트로 구성된다. 비용은 1회 450만 원(교통비 별도)이다. <br/><br/> 조 박사는 특히 NK세포를 이용한 면역요법 시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NK세포의 활성도 검사로 암의 발생은 물론 증식 및 전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예측, 평가해준다.<br/><br/> 조 박사는 “<span class='quot0'>앞으로 암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면역세포치료, 푸드 테라피(식이요법)를 연계한 면역 건강식 등의 연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 시행할 생각</span>”이라고 말했다.<br/><br/> 또 바이오기업 ‘차바이오텍’, 일본 도쿄셀클리닉 등과 손잡고 줄기세포치료제와 NK세포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면역치료 효과를 배가시키는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28.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암과 함께 영혼까지 치유, 암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날짜: 201509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4734394  
본문: 나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2차 항암치료까지 받았다. 항암치료는 생각보다 끔찍했다. 3차 항암치료를 앞두고 너무 두려웠는데, 10년 동안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언니가 생각나 기도를 부탁했다.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중보 기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3차 항암치료 이후로 나를 괴롭히던 그 심각한 증상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br/><br/> 나는 왠지 한마음교회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향했다.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경험을 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예배가 시작되어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여 성경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목사님의 설교에 나도 모르게 “아멘”으로 화답했다. <br/><br/> 나는 복음을 듣는 것을 지나치게 싫어했다. 몸보다 영혼이 더 아픈 사람이었다.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br/><br/> 내 몸에 퍼진 암 덩어리들은 더 이상 내게 절망과 슬픔의 징표가 아니었다. 암은 일종의 선물이었다. 그때부터 춘천을 오가며 수요예배와 주일예배를 드렸다. 매일 성경을 읽고 연애하듯 예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br/><br/> 이렇게 생활한 지 정확하게 한 달 뒤 병원에서 항암 3차치료까지의 결과를 알려 주었다. 독한 약을 투여해도 변화가 거의 없다며 실망하는 의사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또 20일이 지났다. 최종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다.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의사선생님께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뼈와 폐로 전이되었던 암들이 없어졌다며 바로 수술을 하자는 것이다. <br/><br/> 이건 뭐지? 분명 뼈로 전이된 암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는데 고작 신체의 일부분인 가슴을 잘라낸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기도로 그 두려움을 물리쳤다. <br/><br/>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 수술을 받았다. 막상 가슴을 열어보니 암이 더 커져 있었다. 그러나 수술이 깨끗하게 잘 되었다. 한쪽 팔이 조금은 불편하고 가슴에는 커다란 흉터가 남았다. 그러나 나의 이 흉터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자랑스러운 훈장이었다.<br/><br/>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암에 걸렸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대단한 사건은 암에 걸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왔던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죽음 앞에 서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 욕심이 끊어졌다. 그 대신 예수님과 천국이 더욱 선명해졌다. <br/><br/> 살면서 머릿속에서 늘어만 가던 물음표가 드디어 하나의 느낌표로 정리되었다. 급할 때만 찾는 존재인 줄 알았던 하나님이 실은 우리의 창조주이셨다.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말 달콤하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br/><br/>천정은 성도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29.txt

제목: 뚱보 주범으로 비타민D 주목… 국내외 학자들 관련성 연구 박차  
날짜: 201509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4819844  
본문: 전 세계 많은 연구진들이 뚱뚱해지는 원인을 연구 중에 있다. 비만이 암과 만성질환의 치료율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관리의 대상을 넘어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들과 비슷한 양을 먹어도 쉽게 살이 찐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주목할 연구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br/><br/> 인종에 상관없이 비만할수록 혈청 비타민D농도가 낮은 것이 확인됐다. 비만과 비타민D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 1만8000명 이상의 체질량지수(BMI)와 혈중 비타민D농도를 알아보는 연구가 노르웨이에서 진행됐다. 관찰 결과 비타민D 섭취가 가장 높은 그룹과 가장 낮은 그룹 사이에서 BMI가 1㎏/㎡까지 차이 나는 것이 확인됐다.<br/><br/> 반대로 체중감량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체중의 5∼10% 감소한 비만여성에서 혈청 비타민D농도가 상승하는 것이 관찰된 연구도 있다. 앞서 연구들이 비만과 비타민D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지금까지 연구들은 비만과 비타민D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체내 낮은 비타민D 농도가 살찌는 체질로 변하는 원인 인자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br/><br/> 연구진들이 비만과 비타민D 연구를 계속하는 이유는 기전에 있다. 비타민D는 지방합성을 유도하는 효소를 억제하고 반대로 지방 분해와 관련 있는 효소를 촉진한다. 즉 비타민D 결핍 상태는 지방축적에 유리한 환경이 된다. 또 비타민D는 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데, 칼슘은 지방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비타민D는 지방 생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로 작용한다.<br/><br/> 그렇다면 과체중 또는 비만한 사람에게 비타민D 보충요법을 시행했을 때 체중감소 효과를 불러올까. 비만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칼로리 제한 식사와 함께 비타민D 125 IU와 칼륨 600㎎을 함께 투여했다. 그 결과 칼슘과 비타민D 보충요법을 시행한 그룹이 칼로리 제한 식사만 시행한 그룹에 비해 내장 지방량과 내장 지방 분포 범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중요한 체중 감량에는 변화가 없었다. <br/><br/> 노르웨이에서 비슷한 연구가 있었다. 445명의 과체중과 비만 성인을 무작위로 골라 1년간 2만 IU의 비타민D를 주 2회 투여하거나, 주 1회 투여하거나, 투여하지 않았다. 세 그룹을 관찰한 결과 비타민D의 최종 산물인 25(OH)D의 농도 변화는 있었지만 체중변화는 없었다. 앞서 연구들에 대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정찬희 교수는 “<span class='quot0'>체중감량에 대한 비타민D 역할을 지지하는 여러 기전들과 실험 근거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비타민D 자체가 체중이나 체중감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작위 대조 연구 근거는 부족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비만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비타민D사용을 권할만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span>”이라고 설명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30.txt

제목: [토론회] 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죽음교육 서두르자  
날짜: 201509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4759007  
본문: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고령화 시대, 노인 보건의료정책과 웰다잉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달 14일 제26회 고품격 건강사회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노인보건의료정책과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논의됐습니다.<br/><br/>◇일시=2015년 8월 14일 오후 2시<br/><br/>◇참석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정윤순 과장, 한가족요양병원 전세일 병원장, 전일의료재단 한선심 이사장, 한국싸나토로지협회 임병식 이사장<br/><br/>◇진행=원미연 쿠키건강TV 아나운서<br/><br/>◇연출=홍현기 쿠키건강TV PD<br/><br/>◇방송=2015년 9월 7일 오후 7시20분<br/><br/>-우리나라 고령화의 현 주소는?<br/><br/>◇정윤순=우리나라 인구구조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2.7%, 저출산 현상 지속,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른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료비가 전체의료비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기준으로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1.5%인데 비해, 건강보험 급여비중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한 급여비용 비율은 전체 비용의 34.5%로 약 17조원에 달한다. 2030년 노인의료비는 총진료비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br/><br/>◇남인순=고령화는 선진국으로 가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영양이나 건강상태가 좋아진점,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돼 기대수명이 늘어난 점 등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고령화의 경우 초저출산과 맞물리면서 진행된다는 점이다.<br/><br/>-국내 고령층의 주요 질환 노인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은?<br/><br/>◇전세일=우리나라 노인층의 경우 암, 중풍,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많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질환 치료보다 예방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빈도가 서양에 비해 더 많은 경향이 있다. 국내 노인 요양시설은 무료, 실비, 유료로 구분되는데 이 중 노인 질병 특성을 다루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한 노인전문시설은 거의 없는 상태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호 연계체계가 미약한 실정이다.<br/><br/>◇남=2014년 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결과, 어르신들의 만성질환률이 89%에 달함.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99%.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치매 노인이 64만8000명, 2024년 초고령사회가 되면 치매환자가 1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3년 노인의료비가 2013년 17조5200억원, 전체 의료비가 50조원으로 34.2% 정도를 차지한다. 고령화로 노인인구 진료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만성질환을 비롯한 노인성 질환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br/><br/>-노인보건의료 정책 평가와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질 강화 방안은?<br/><br/>◇정=정부는 노인층 대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틀니,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방접종 대상자도 보다 넒히고, 관절염 환자에 대한 무료 수술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치매의 경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제도를 개선했다. 이외에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노인층의 사회참여 활성화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는 것도 정책의 방향이다. 특히 복지부는 노인보건의료 정책 비전을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와 활동적 노년(active ageing) 실현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비전하에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건강 형평성 강화’, ‘질병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노인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br/><br/>◇임병식=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은 신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영적인 건강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보건의료정책 방향도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인 영역도 함께 돌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가야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방의학 프로그램인 자연의학이나 자연치유학 등을 안내 지도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갖춰져 있는 만성기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호스피스 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기존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을 활용한 호스피스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br/><br/>◇한선심=정부가 시행하는 노인보건의료정책이 보장성 강화, 질환 예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령화 시대에 맞게 잘 이뤄지고 있다. 다만 국가의 재정을 고려했을 때 고령화 시대에 맞게 노인의 인구의 연령대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노인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위해 대체의학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인보건의료는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정책을 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br/><br/>◇남=OECD에 비해 아직도 노인층의 건강보험 보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체계가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빈곤한 계층이 많아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노인의료 체계 자체가 아직 미정립돼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br/><br/>◇전=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점 중 국내 노인의학 분야가 아직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질병이 있거나 아픈 노인들이 질병 치료나 돌봄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br/><br/>-요양병원 질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br/><br/>◇한=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인이 상주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이다. 그러나 입원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 요양병원에는 신체기능 저하군을 입원하는데 제한을 두고 요양시설에는 고위험군 환자를 못 받겠끔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환자 구별은 없고 인력만 다른 구조를 갖고 가고 있는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현재 요양병원은 규제를 위한 규제 법규가 너무 많다. 대표적으로 당직 의료인 제도의 경우, 1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2명 또는 3명이 있다. 그런데 3명이 365일 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이 자체적으로 간병과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요양병원과 수가에서 차이가 없다보니 선뜻 시설투자를 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부실한 요양병원과 동일하게 평가받는 경우가 다수 있다.<br/><br/>◇정=노인층에게 특화된 의료체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요양단계에서 기능이 잘 정립이 안돼 있다보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재정립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요양병원 이외에도 회복, 전문재활, 호스피스 등 기능별로 분화될 필요도 있다. 요양병원 의료의 질 관련해서 운영을 잘하는 곳도 많지만, 시설인력기준 등이 미흡해 운영이 부실한 요양병원도 다수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이 병원답게 의료 기능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수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체계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한 곳은 퇴출시키는 제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 현재 요양병원 관련 수가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개편안을 만들도록 하겠다.<br/><br/>◇남=중요한 것은 요양병원 관리감독을 정부(보건복지부)가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요양병원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협력이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본다. 국립요양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수가 아주 적고, 민간 위탁운영 방식이다. 정부가 국공립요양병원을 30%까지 확대해서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요양병원의 의료전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br/><br/>◇전=요양병원이 수에 있어서는 많이 있지만, 요양병원별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이 차이가 너무 많다. 따라서 정책적인 차등화를 통해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은 패널티를 주는 등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도 요양병원은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하고, 정부도 요양병원 특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br/><br/>-고령화시대에 필요한 것과 웰다잉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br/><br/>◇한=고령화에 대비 각자 경제적인 독립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층에 대한 다양한 정서적·심리적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웰다잉의 경우 누구나 죽을 수 있다는 죽음예비 교육을 받음으로써, 남은 여생를 좀더 의미 있게 살 수 이도록 해야 한다. 죽음예비 교육으로 품위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웰다잉’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br/><br/>◇전=고령화시대에 고령의 개념과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웰다잉을 통해 개인과 가족, 사회와 국가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완화시켜주려는 인식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웰다잉 인식 확산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고, 죽음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br/><br/>◇임=품위 있는 삶의 운용과 마무리를 위한 죽음준비 교육은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것이며, 웰다잉 인식 확산에도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본래성 회복과 삶의 지혜를 깨닫고 죽음교육을 통한 나눔 실천 등 100세 시대 아름다운 죽음 ‘웰다잉’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br/><br/>◇정=죽음을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을 실천하는 웰다잉 인식 확산은 중요한 사회적 변화다. 이와 관련 올 8월부터 공적 영역에서는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죽음, 그리고 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 주제로 웰다잉 준비 교육과정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효과성 검증 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으로 웰다잉 준비교육을 제공하는 본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최근 정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연명치료 중단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등에 대한 공론화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사회복지계, 시민단체, 일반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화로 이와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br/><br/>◇남=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령화에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노인이라면 겪게 되는 노인의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역할상실, 소외감 등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노인적합직종 확충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이 필요하다. 노인성 질환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율 및 공공의료 확충,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 및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노인 사회참여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리=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31.txt

제목: [300자 읽기] 오늘이 마지막은 아닐거야  
날짜: 2015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4534143  
본문: 둘은 부부다. 절판된 책을 구하다 만났고 장거리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골인했다. 그러나 결혼 2개월 만에 아내가 척추암 판정을 받는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둘은 암 치료 대신 세계 배낭여행을 떠났다. 부부가 같이 쓴 이 특별한 여행기는 애틋한, 그러나 용감한 사랑의 이야기다. 슬픔을 건너는 법, 운명에 맞서 걸어가는 법을 들려준다. 부부는 현재 진주에 정착해 서점에서 일하고 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32.txt

제목: 김승철 이화의료원장 “국내 첫 3인 기준병실 만들고 중환자실은 모두 1인실로 운영”  
날짜: 2015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4529436  
본문: “<span class='quot0'>국내 병원 처음으로 기준병실(일반병실)을 3인실로 하고 중환자실도 모두 1인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span>” <br/><br/> 김승철(사진) 신임 이화의료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신축 중인 ‘이화의료원 마곡병원’의 구체적 청사진을 밝혔다. 마곡병원은 지하 5층, 지상 10층의 1036병상 규모로 2018년 하반기 개원한다.<br/><br/> 기준병실이 3인실이라는 얘기는 3인실에도 건강보험에 적용돼 4∼6인실과 비슷한 입원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3인실의 병상당 면적은 10.29㎡로 의료법상 기준(6.5㎡)보다 1.5배 이상 넓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1'>국내 9개 대형병원 기준병실의 병상당 면적(7.72∼10.07㎡)과 비교해도 넓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감염 위험을 줄이고 환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1036병상 가운데 579병상이 3인실로 배정될 예정이다.<br/><br/> 김 원장은 “3인실도 1인실로 전환 가능한 ‘가변적 구조’로 설계됐다. 향후 의료제도 변화 시 1인실로 탄력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엄격한 감염 관리와 환자의 안정 유지가 필요한 중환자실(96병상)은 모두 1인실로 운영한다.<br/><br/> 김 원장은 “<span class='quot1'>마곡병원은 암·심뇌혈관질환·장기이식 등 고난도 중증질환 특화 병원으로 육성하고 기존 이대목동병원은 여성·소아질환 및 연구중심병원으로 차별화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33.txt

제목: [손에 잡히는 책] 스트레스와 질병간의 복합적인 관계  
날짜: 2015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4555947  
본문: 첼리스트 재클린 뒤 프레는 완벽할 정도의 기교와 풍부한 음악성을 지닌 연주로 유명했다. 하지만 1987년 43세에 다발성 경화증 합병증으로 숨졌다. 절제미보다는 폭발적인 에너지로 넘쳤던 연주와 달리 그는 실생활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성격이었다. 재클린의 언니 플루티스트 힐러리 뒤 프레는 동생의 병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스트레스와 다발성 경화증 합병증은 무관하다는 게 정통 의료계의 견해다. 하지만 저자는 재클린 뒤 프레의 질병과 죽음은 감정의 억압이 초래한 스트레스의 파괴적 영향에 대한 사례라고 주장한다.<br/><br/> 내과 전문의인 저자는 20년간 환자 수백 명의 삶과 경험을 통해 트라우마, 스트레스, 질병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다층적 시선으로 살펴왔다. 그리고 자기희생적인 성격을 성인이 돼서도 바꾸지 않으면 몸이 이를 거부하며 스스로를 공격한다고 주장한다. 재클린 뒤 프레를 비롯해 야구선수 루 게릭, 위대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등을 통해 마음의 상처가 나중에는 천식, 알츠하이머병, 암까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스트레스로 가득 찬 외부 상황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조언한다.<br/><br/>장지영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34.txt

제목: [한마당-김명호] 품격 있는 죽음  
날짜: 201509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4041131  
본문: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부부의 삶과 죽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같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 경제학 박사인 스콧은 교수를 하다 바이올리니스트 아내 헬렌과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 숲속으로 들어가 자급자족 생활을 한다.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삶을 황폐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루 4시간씩 살아가기 위한 농사(육체 활동), 책 읽거나 글 쓰는 작업(지적 활동), 이웃·자연과 함께 있는 시간(교제 활동)을 가졌다.<br/><br/>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그는 육체 노동을 했고, 자서전에는 “일과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늙음을 막는 가장 훌륭한 처방”이라고 썼다. 스콧은 100세가 되던 1983년 8월, 다가온 죽음을 감지하고 곡기를 서서히 끊는다. 일체의 연명적 치료나 물리적 도움을 받지 않고 아내 곁에서 평화롭게 떠난다. 삶과 죽음이 여일(如一)하다.<br/><br/> 30일(현지시간) 별세한 저명한 올리버 색스 뉴욕대 의대 신경학과 교수는 지난 해 암이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따뜻하게 신경질환 환자들의 삶과 재능을 조명했던 그는 지난 2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몇 개월 살지 모르겠으나 더 풍성하고 깊고 생산적으로 살겠다”고 작별인사를 했다. 죽기 직전까지 더 타임스에도 글을 썼다.<br/><br/> 미소 띤 얼굴과 유머. 뇌로 전이된 암 때문에 시한부 생명이라고 고백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말 기자회견 모습은 평안함 그 자체였다. “살날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지만 아주 편안함을 느낀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수천 명의 친구가 있고 멋진 삶을 살았다.” 그는 봉사활동을 계속한다고 했고 17년 동안 해온 주일 성경공부 교사를 지난주에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남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는 카터를 ‘조용한 용기’라고 표현했다. 품격 있는 삶들이다. 품격 있는 죽음, 결국 품격 있는 삶의 결과다.<br/><br/>김명호 논설위원 mh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35.txt

제목: [한마당-김명호] 품격 있는 죽음  
날짜: 20150901  
기자: 김명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901100000022  
본문: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부부의 삶과 죽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같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 경제학 박사인 스콧은 교수를 하다 바이올리니스트 아내 헬렌과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 숲속으로 들어가 자급자족 생활을 한다.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삶을 황폐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루 4시간씩 살아가기 위한 농사(육체 활동), 책 읽거나 글 쓰는 작업(지적 활동), 이웃·자연과 함께 있는 시간(교제 활동)을 가졌다.<br/><br/>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그는 육체 노동을 했고, 자서전에는 “일과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늙음을 막는 가장 훌륭한 처방”이라고 썼다. 스콧은 100세가 되던 1983년 8월, 다가온 죽음을 감지하고 곡기를 서서히 끊는다. 일체의 연명적 치료나 물리적 도움을 받지 않고 아내 곁에서 평화롭게 떠난다. 삶과 죽음이 여일(如一)하다.<br/><br/> 30일(현지시간) 별세한 저명한 올리버 색스 뉴욕대 의대 신경학과 교수는 지난 해 암이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따뜻하게 신경질환 환자들의 삶과 재능을 조명했던 그는 지난 2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몇 개월 살지 모르겠으나 더 풍성하고 깊고 생산적으로 살겠다”고 작별인사를 했다. 죽기 직전까지 더 타임스에도 글을 썼다.<br/><br/> 미소 띤 얼굴과 유머. 뇌로 전이된 암 때문에 시한부 생명이라고 고백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말 기자회견 모습은 평안함 그 자체였다. “살날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지만 아주 편안함을 느낀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수천 명의 친구가 있고 멋진 삶을 살았다.” 그는 봉사활동을 계속한다고 했고 17년 동안 해온 주일 성경공부 교사를 지난주에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남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는 카터를 ‘조용한 용기’라고 표현했다. 품격 있는 삶들이다. 품격 있는 죽음, 결국 품격 있는 삶의 결과다.<br/><br/>김명호 논설위원 mhkim@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36.txt

제목: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올 상반기 11.1% 급증  
날짜: 20150901  
기자: keys@kmib.co.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901100000060  
본문: 인구 고령화로 노인이 쓰는 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치매와 낙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진다며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10조42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2.2%에 불과하지만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이상(36.3%)이다. 70세 이상의 경우 1인당 진료비가 191만원으로 평균의 3.3배나 된다. <br/><b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날 국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 가운데 37.9%는 우리에게 익숙한 암과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에 의한 것이다. <br/><br/> 하지만 치매(알츠하이머병) 등 신경계 질환 및 넘어짐으로 인한 진료비 비중도 32.6%나 된다. 건보공단은 “<span class='quot0'>치매와 낙상이 노인의 진료비 급상승을 주도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관련 진료비를 줄이지 못하면 2060년 가장 늙은 나라가 되기 전에 건보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 증가한 28조6999억원으로 집계됐다.권기석 기자 keys@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37.txt

제목: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올 상반기 11.1% 급증  
날짜: 201509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4115619  
본문: 인구 고령화로 노인이 쓰는 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치매와 낙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진다며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10조42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2.2%에 불과하지만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이상(36.3%)이다. 70세 이상의 경우 1인당 진료비가 191만원으로 평균의 3.3배나 된다. <br/><b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날 국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 가운데 37.9%는 우리에게 익숙한 암과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에 의한 것이다. <br/><br/> 하지만 치매(알츠하이머병) 등 신경계 질환 및 넘어짐으로 인한 진료비 비중도 32.6%나 된다. 건보공단은 “<span class='quot0'>치매와 낙상이 노인의 진료비 급상승을 주도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관련 진료비를 줄이지 못하면 2060년 가장 늙은 나라가 되기 전에 건보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 증가한 28조6999억원으로 집계됐다.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38.txt

제목: [얼굴] 비행 아이들요? 사랑·신앙만이 바꿉니다…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판사  
날짜: 2015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3857857  
본문: 부산가정법원 천종호(50) 판사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 법조계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호통 판사’ ‘호통 대장’ 등의 별명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비행청소년들은 ‘바보’ ‘천10호’ ‘선생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천10호’는 소년원법에 의한 소년원 송치 처분 기간 ‘10호 처분’을 말하는데 그 기간이 2년으로 최고형이나 다름없다. 한데 천 판사가 10호 처분을 자주 내려 ‘천10호’라고 무서워하는 것이다.<br/><br/> 하지만 재판이 끝나고 나면 소년들의 처지에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활동가’처럼 뛴다. 세 자녀를 둔 평범한 아버지 마음에서다. 그의 친구 곽경택(영화감독)은 “<span class='quot0'>천종호는 많은 돈도, 감춰진 허세도, 대단한 출세욕도 없는 그냥 맑고 강직한 판사</span>”라고 밝혔다. <br/><br/> 천 판사를 지난 24일 부산에서 만났다. 인터뷰는 조심스러웠다. 오히려 ‘신앙인’(부산 금정평안교회 피택장로)이라는 이유로 폐가 될까 해서다. 그의 집무실에 이런 액자가 걸려 있었다.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br/><br/><br/><br/> -‘천10호’ 별명이 불편하지 않습니까.<br/><br/> “소년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결정을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합니다. 1개월은 8호, 6개월은 9호, 2년은 10호죠. 따라서 10호 처분은 매우 무거운 경우입니다. 9호 처분보다 10호 처분이 오히려 소년들에게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또는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해서죠. 소년들을 위해서라면 9호 처분을 할 수 있을 때도 10호 처분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br/><br/> -원망도 듣겠습니다.<br/><br/> “고삐 풀린 망아지 같던 녀석들에게 충격으로 다가들겠죠. 그렇게 학교(소년원)에 보내진 녀석들에게 ‘<span class='quot1'>처음엔 판사님 원망 많이 했다</span>. 하지만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습니다.”<br/><br/> 그는 실제 지난 6년간 사법형 그룹홈 설립에 나서 창원 등 경상도 지역 14곳에 청소년회복센터를 열었다. 또 비행소년 전문 상담교육기관 ‘경남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 정규학교 과정 ‘국제금융고 창원분교’ 등도 설립했다. <br/><br/> <br/><br/> “<span class='quot1'>처음엔 판사님 원망 많이 했다</span>”<br/><br/> -호통은 왜 치십니까. 통상 법정 분위기와 많이 다를 텐데요.<br/><br/> “사건당 할애되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3∼4분 정도니까요.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 소년과 보호자에게 조그만 깨우침이라도 주려면 호통칠 수밖에 없습니다. 퍼포먼스 효과라고 할까요. 방청객들은 ‘호통치료’라고 합니다. 호통받은 소년들 중에 ‘마치 아버지한테 사랑의 질책을 당한 것 같아 속이 후련했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어른들에게 강하게 지적 받지 않아 여기까지 온 거죠.”<br/><br/> -격언과 시낭송, 편지 등도 활용하시죠.<br/><br/> “갈등이나 분노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일삼던 종수(가명)라는 아이의 심리에서 종수와 종수 어머니에게 각기 일본 할머니 시인 시바타 도요의 ‘약해지지 마’와 ‘아들에게’를 낭독하게 했습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힘에 겨운 일 생기면 엄마를 떠올리렴…’ 등과 같은 내용이죠. 적대감 뭉치의 아이가 한결 부드러워지죠. 법정에서 부둥켜안고 웁니다. 편지는 더하죠.”<br/><br/> -소년법정은 성인 법정과 차원을 달리하죠.<br/><br/> “아들 몸에 조폭 문신을 보고 자책감에 혼절한 어머니, 암 투병 중에도 나와 자식을 제발 돌려달라고 하는 어머니, 자식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보내다가 ‘집으로 데려가라’는 판사 말에 긴장이 풀려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어머니, 가출 후 원조교제로 생계를 이어가던 딸을 구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소년원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부모, 가슴 밑바닥서부터 터져 나오는 통곡을 주체 못해 꺽꺽 우는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죠.”<br/><br/> <br/><br/> 매년 10만여명 소년범죄 발생<br/><br/> 천 판사는 소년범죄가 살인·성폭행 등 흉포하고 잔인화돼 간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두고 사회에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그는 엄벌과 관용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소년범죄는 경미한 학교폭력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을 위한 재교육이나 재비행 저지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 마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br/><br/> -소년범 현황이 어떻습니까. <br/><br/> “매년 10만명 정도의 소년범이 발생합니다. 그중 중범죄로 소년교도소나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5000여명을 제외한 9만5000여명이 사회로 돌려보내집니다. 그러면 재범 방지가 관건이겠죠. 한데 국가가 제공하는 장치는 보호관찰제도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2013년 기준 재범률이 41.63%입니다. 비행소년 문제는 선거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보니 국회 등 사회가 무관심합니다.”<br/><br/> -가정해체가 소년범 발생의 주된 요인인 것 같더군요.<br/><br/> “소년범 48%가 결손가정 아이들입니다. 또 결손가정은 빈곤문제를 안고 있는데 전체의 70%는 결손·빈곤에 따른 악순환이죠. 그들을 격리하기보다 준(準)가정과 같은 그룹홈 등을 통해 ‘사회적 지위 상승의 희망’을 주어야죠. 아이들에겐 어떤 형태든 ‘사랑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사법적 그룹홈을 그래서 시작한거고요.”<br/><br/> -법률적 판단만 하셔도 될 텐데 굳이 힘든 일을….<br/><br/> “2010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를 맡게 되면서 가정의 해체로 인한 소년비행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어린 시절과 같은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죠. 문제는 우리 사회가 보호소년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그들에게 정작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건 부담스러워하죠. 심지어 교회도요.”<br/><br/>-천 판사님은 법조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롤모델이시더군요.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같이’라는 ‘말씀’에서 여러 가지가 느껴집니다.<br/><br/> “저는 도시빈민의 아들입니다. 7남매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육성회비를 못내 교실서 쫓겨났고, 수학여행은 꿈도 못 꿨죠.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세 끼조차 제대로 해결 못한다는 수치심이 컸습니다.”<br/><br/><br/><br/> 수돗물로 배 채우던 천 판사 소년기<br/><br/> -교회 가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들었습니다.<br/><br/>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함께 놀던 친구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전도팀을 따라 죄다 교회(현 아미동 아름다운교회) 간 거죠. 뒤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고신 측 교회라 엄격했어요. 중·고등부 회장 등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산·경남지역서 유명한 무척산기도원으로 수련회도 가고요. 7남매나 되니 집에선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숙제만 하고 바로 자버리죠.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고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장의자에 누울 수도 있고… 하하. 그러니 공부 못하면 안 되잖아요.”<br/><br/> -주일을 지키기 위해 수학여행을 안 가신건 아니죠.<br/><br/> “친구들에게 주일성수 때문이라고 둘러댔죠. 실제는 수학여행비를 못 내서였고요. 수학여행 못 간 친구가 10명 정도 됐는데 대부분 주일 낀 여행 일정 때문에 안 간 거였어요.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 자녀였던 거죠. 그 친구들에게 ‘나도 그렇다’라고 해야 했죠.”<br/><br/> -과외는커녕 부교재 살 돈도 없는데 공부에 재능이 있었나 봅니다.<br/><br/> “아뇨. 똑똑한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숫기가 없어 ‘삐뚤어 나갈 능력’도 없었어요. 공부와 교회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셈이죠. 가난은 그 무렵에도 계속돼 입시원서도 못 살 형편이었죠. 재수는 언감생심이고요. 대입을 자포자기한 상태가 됐습니다.”<br/><br/> -천사가 나타났다면서요.<br/><br/> “대학 원서접수 마감 날 아미동에서 터덜터덜 걸어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 쪽까지 내려왔는데 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원서접수 마감시간 다 됐는데 뭐하냐고요. 내 처지에 무슨 대학이냐고 했죠. 친구가 ‘야 무슨 소리야 서둘러’ 하며 원서를 사줬어요. 당시는 서점에서 원서를 팔았잖아요. 부산 사람이면 다 아는 문우당이었죠. 그리고 모교인 부산남고에 들러 지원서를 작성해 부산대에 가니 접수마감 30분 전이었습니다. 그가 박명규(세무사)라는 친구였죠. 재작년 창원에서 열린 제 책 출판기념회에서 그 친구를 소개하며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그랬냐?’ 하더군요. 청소년 특강이라도 있으면 이 사례를 얘기해요. ‘여러분의 배려가 누군가에게 삶의 전환점을 마련한다’고요.”<br/><br/> -가난을 피해 군대 가시고, 전역 후에도 희망이 없었죠.<br/><br/> “가난은 삶의 의지를 꺾는 무서운 질병이죠. 부모와 형제들, 교회 식구들, 이웃들 아니면 내가 버틸 수 있었을까 되돌아보곤 합니다. 내 인생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들입니다. 이들 덕에 5전 6기 만에, 스물아홉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니까요.”<br/><br/> -합격 후 ‘가난한 여자친구’를 버리지 않으셨더군요.<br/><br/> “사시 준비하며 사귄 대학 동창인 아내(도인자·교사) 역시 저처럼 가난한 집 딸이었어요. 사시 합격 후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데요. 이러다 아내에게 상처가 되겠다 싶어서 바로 결혼했습니다.”<br/><br/><br/><br/> “<span class='quot1'>교회가 아니었으면 나 없었을 것</span>”<br/><br/> -부인보다 ‘꼿꼿했던 신앙생활’이 역전됐다면서요.<br/><br/> “하하. 제가 고신파 교회를 다녀서 좀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데 나중에 역전됐어요. 저는 판사 생활 20년만 하고 나와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했어요. 제 형제자매 누구도 대학 나온 이가 없어요. 돈을 벌어 돕고 싶었죠. 그러려면 붙임성도 있어야겠기에 술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 다녀야 하나 생각했죠. 30대 초부터 그런 거죠. 그런 저를 위해 아내가 기도했어요. ‘당신이 이러려고 판사된 거 아니잖나’고 하더군요. 아내와 장모님 기도 아니었음 정신 못 차렸을 겁니다. 2006년 무렵 술 끊었어요.”<br/><br/> -올봄 펴낸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등 두 권의 저서 인세 등을 비행청소년을 위해 다 쓰셨더군요. 특강비 등도 예외 없고요. 형제들이 섭섭해 하지 않을까요.<br/><br/> “우리 대개가 소시민으로 살지 않습니까. 제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일 이해해주는 형제들입니다. 많지는 않아도 늘 나눠 쓰려는 형제들이고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추구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공의에 대한 판단을 신탁받은 사람일 뿐입니다.”<br/><br/> -최근 교회 초청 비행소년문제 특강을 통해 청소년지원센터 승합차 운영 문제 등을 해결해 주셨죠.<br/><br/> “제 힘이겠습니까. 교인들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신 거죠. 서울 온누리교회 마리아형제팀 초청으로 휴가를 내서 올라가 특강을 했어요. 3000여명이 참석해주셨죠. 14군데 센터 중 3곳의 승합차를 해결해 주셨습니다.”<br/><br/> -정치인이 되시면 국회 등이 무관심한 ‘비행소년 전용 공동생활가정’ 입법 등이 수월하실 텐데 정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br/><br/> “전혀요.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만 법조인이 법복 벗었다고 부와 권력에까지 욕심내면 안 되죠. 성서적이지도 않고요. 저는 비행소년을 비롯해 법조인이 되려는 후대들에게 모범이 되는 법조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br/><br/> 후기. 천 판사에게 폐가 안 되리라 믿고 그의 마지막 한마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요? 사랑과 신앙이 아니면 변화가 안 됩니다.”<br/><br/>천종호<br/><br/>부산 아미동 산동네 출신.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9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등을 거쳐 현재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2010년 비행으로 내몰린 아이들 재판을 맡으면서 매년 발생하는 10만명의 비행소년 선도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비행소년지원센터인 사법적그룹홈 14곳을 출범시켰다. 저서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가 있다. 부산 금정평안교회 피택장로.<br/><br/>부산=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39.txt

제목: [얼굴] 비행 아이들요? 사랑·신앙만이 바꿉니다…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판사  
날짜: 20150829  
기자: 전정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29100000010  
본문: 부산가정법원 천종호(50) 판사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 법조계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호통 판사’ ‘호통 대장’ 등의 별명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비행청소년들은 ‘바보’ ‘천10호’ ‘선생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천10호’는 소년원법에 의한 소년원 송치 처분 기간 ‘10호 처분’을 말하는데 그 기간이 2년으로 최고형이나 다름없다. 한데 천 판사가 10호 처분을 자주 내려 ‘천10호’라고 무서워하는 것이다.<br/><br/> 하지만 재판이 끝나고 나면 소년들의 처지에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활동가’처럼 뛴다. 세 자녀를 둔 평범한 아버지 마음에서다. 그의 친구 곽경택(영화감독)은 “<span class='quot0'>천종호는 많은 돈도, 감춰진 허세도, 대단한 출세욕도 없는 그냥 맑고 강직한 판사</span>”라고 밝혔다. <br/><br/> 천 판사를 지난 24일 부산에서 만났다. 인터뷰는 조심스러웠다. 오히려 ‘신앙인’(부산 금정평안교회 피택장로)이라는 이유로 폐가 될까 해서다. 그의 집무실에 이런 액자가 걸려 있었다.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br/><br/><br/><br/> -‘천10호’ 별명이 불편하지 않습니까.<br/><br/> “소년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결정을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합니다. 1개월은 8호, 6개월은 9호, 2년은 10호죠. 따라서 10호 처분은 매우 무거운 경우입니다. 9호 처분보다 10호 처분이 오히려 소년들에게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또는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해서죠. 소년들을 위해서라면 9호 처분을 할 수 있을 때도 10호 처분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br/><br/> -원망도 듣겠습니다.<br/><br/> “고삐 풀린 망아지 같던 녀석들에게 충격으로 다가들겠죠. 그렇게 학교(소년원)에 보내진 녀석들에게 ‘<span class='quot1'>처음엔 판사님 원망 많이 했다</span>. 하지만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습니다.”<br/><br/> 그는 실제 지난 6년간 사법형 그룹홈 설립에 나서 창원 등 경상도 지역 14곳에 청소년회복센터를 열었다. 또 비행소년 전문 상담교육기관 ‘경남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 정규학교 과정 ‘국제금융고 창원분교’ 등도 설립했다. <br/><br/> <br/><br/> “<span class='quot1'>처음엔 판사님 원망 많이 했다</span>”<br/><br/> -호통은 왜 치십니까. 통상 법정 분위기와 많이 다를 텐데요.<br/><br/> “사건당 할애되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3∼4분 정도니까요.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 소년과 보호자에게 조그만 깨우침이라도 주려면 호통칠 수밖에 없습니다. 퍼포먼스 효과라고 할까요. 방청객들은 ‘호통치료’라고 합니다. 호통받은 소년들 중에 ‘마치 아버지한테 사랑의 질책을 당한 것 같아 속이 후련했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어른들에게 강하게 지적 받지 않아 여기까지 온 거죠.”<br/><br/> -격언과 시낭송, 편지 등도 활용하시죠.<br/><br/> “갈등이나 분노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일삼던 종수(가명)라는 아이의 심리에서 종수와 종수 어머니에게 각기 일본 할머니 시인 시바타 도요의 ‘약해지지 마’와 ‘아들에게’를 낭독하게 했습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힘에 겨운 일 생기면 엄마를 떠올리렴…’ 등과 같은 내용이죠. 적대감 뭉치의 아이가 한결 부드러워지죠. 법정에서 부둥켜안고 웁니다. 편지는 더하죠.”<br/><br/> -소년법정은 성인 법정과 차원을 달리하죠.<br/><br/> “아들 몸에 조폭 문신을 보고 자책감에 혼절한 어머니, 암 투병 중에도 나와 자식을 제발 돌려달라고 하는 어머니, 자식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보내다가 ‘집으로 데려가라’는 판사 말에 긴장이 풀려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어머니, 가출 후 원조교제로 생계를 이어가던 딸을 구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소년원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부모, 가슴 밑바닥서부터 터져 나오는 통곡을 주체 못해 꺽꺽 우는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죠.”<br/><br/> <br/><br/> 매년 10만여명 소년범죄 발생<br/><br/> 천 판사는 소년범죄가 살인·성폭행 등 흉포하고 잔인화돼 간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두고 사회에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그는 엄벌과 관용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소년범죄는 경미한 학교폭력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을 위한 재교육이나 재비행 저지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 마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br/><br/> -소년범 현황이 어떻습니까. <br/><br/> “매년 10만명 정도의 소년범이 발생합니다. 그중 중범죄로 소년교도소나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5000여명을 제외한 9만5000여명이 사회로 돌려보내집니다. 그러면 재범 방지가 관건이겠죠. 한데 국가가 제공하는 장치는 보호관찰제도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2013년 기준 재범률이 41.63%입니다. 비행소년 문제는 선거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보니 국회 등 사회가 무관심합니다.”<br/><br/> -가정해체가 소년범 발생의 주된 요인인 것 같더군요.<br/><br/> “소년범 48%가 결손가정 아이들입니다. 또 결손가정은 빈곤문제를 안고 있는데 전체의 70%는 결손·빈곤에 따른 악순환이죠. 그들을 격리하기보다 준(準)가정과 같은 그룹홈 등을 통해 ‘사회적 지위 상승의 희망’을 주어야죠. 아이들에겐 어떤 형태든 ‘사랑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사법적 그룹홈을 그래서 시작한거고요.”<br/><br/> -법률적 판단만 하셔도 될 텐데 굳이 힘든 일을….<br/><br/> “2010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를 맡게 되면서 가정의 해체로 인한 소년비행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어린 시절과 같은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죠. 문제는 우리 사회가 보호소년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그들에게 정작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건 부담스러워하죠. 심지어 교회도요.”<br/><br/>-천 판사님은 법조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롤모델이시더군요.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같이’라는 ‘말씀’에서 여러 가지가 느껴집니다.<br/><br/> “저는 도시빈민의 아들입니다. 7남매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육성회비를 못내 교실서 쫓겨났고, 수학여행은 꿈도 못 꿨죠.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세 끼조차 제대로 해결 못한다는 수치심이 컸습니다.”<br/><br/><br/><br/> 수돗물로 배 채우던 천 판사 소년기<br/><br/> -교회 가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들었습니다.<br/><br/>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함께 놀던 친구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전도팀을 따라 죄다 교회(현 아미동 아름다운교회) 간 거죠. 뒤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고신 측 교회라 엄격했어요. 중·고등부 회장 등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산·경남지역서 유명한 무척산기도원으로 수련회도 가고요. 7남매나 되니 집에선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숙제만 하고 바로 자버리죠.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고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장의자에 누울 수도 있고… 하하. 그러니 공부 못하면 안 되잖아요.”<br/><br/> -주일을 지키기 위해 수학여행을 안 가신건 아니죠.<br/><br/> “친구들에게 주일성수 때문이라고 둘러댔죠. 실제는 수학여행비를 못 내서였고요. 수학여행 못 간 친구가 10명 정도 됐는데 대부분 주일 낀 여행 일정 때문에 안 간 거였어요.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 자녀였던 거죠. 그 친구들에게 ‘나도 그렇다’라고 해야 했죠.”<br/><br/> -과외는커녕 부교재 살 돈도 없는데 공부에 재능이 있었나 봅니다.<br/><br/> “아뇨. 똑똑한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숫기가 없어 ‘삐뚤어 나갈 능력’도 없었어요. 공부와 교회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셈이죠. 가난은 그 무렵에도 계속돼 입시원서도 못 살 형편이었죠. 재수는 언감생심이고요. 대입을 자포자기한 상태가 됐습니다.”<br/><br/> -천사가 나타났다면서요.<br/><br/> “대학 원서접수 마감 날 아미동에서 터덜터덜 걸어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 쪽까지 내려왔는데 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원서접수 마감시간 다 됐는데 뭐하냐고요. 내 처지에 무슨 대학이냐고 했죠. 친구가 ‘야 무슨 소리야 서둘러’ 하며 원서를 사줬어요. 당시는 서점에서 원서를 팔았잖아요. 부산 사람이면 다 아는 문우당이었죠. 그리고 모교인 부산남고에 들러 지원서를 작성해 부산대에 가니 접수마감 30분 전이었습니다. 그가 박명규(세무사)라는 친구였죠. 재작년 창원에서 열린 제 책 출판기념회에서 그 친구를 소개하며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그랬냐?’ 하더군요. 청소년 특강이라도 있으면 이 사례를 얘기해요. ‘여러분의 배려가 누군가에게 삶의 전환점을 마련한다’고요.”<br/><br/> -가난을 피해 군대 가시고, 전역 후에도 희망이 없었죠.<br/><br/> “가난은 삶의 의지를 꺾는 무서운 질병이죠. 부모와 형제들, 교회 식구들, 이웃들 아니면 내가 버틸 수 있었을까 되돌아보곤 합니다. 내 인생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들입니다. 이들 덕에 5전 6기 만에, 스물아홉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니까요.”<br/><br/> -합격 후 ‘가난한 여자친구’를 버리지 않으셨더군요.<br/><br/> “사시 준비하며 사귄 대학 동창인 아내(도인자·교사) 역시 저처럼 가난한 집 딸이었어요. 사시 합격 후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데요. 이러다 아내에게 상처가 되겠다 싶어서 바로 결혼했습니다.”<br/><br/><br/><br/> “<span class='quot1'>교회가 아니었으면 나 없었을 것</span>”<br/><br/> -부인보다 ‘꼿꼿했던 신앙생활’이 역전됐다면서요.<br/><br/> “하하. 제가 고신파 교회를 다녀서 좀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데 나중에 역전됐어요. 저는 판사 생활 20년만 하고 나와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했어요. 제 형제자매 누구도 대학 나온 이가 없어요. 돈을 벌어 돕고 싶었죠. 그러려면 붙임성도 있어야겠기에 술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 다녀야 하나 생각했죠. 30대 초부터 그런 거죠. 그런 저를 위해 아내가 기도했어요. ‘당신이 이러려고 판사된 거 아니잖나’고 하더군요. 아내와 장모님 기도 아니었음 정신 못 차렸을 겁니다. 2006년 무렵 술 끊었어요.”<br/><br/> -올봄 펴낸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등 두 권의 저서 인세 등을 비행청소년을 위해 다 쓰셨더군요. 특강비 등도 예외 없고요. 형제들이 섭섭해 하지 않을까요.<br/><br/> “우리 대개가 소시민으로 살지 않습니까. 제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일 이해해주는 형제들입니다. 많지는 않아도 늘 나눠 쓰려는 형제들이고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추구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공의에 대한 판단을 신탁받은 사람일 뿐입니다.”<br/><br/> -최근 교회 초청 비행소년문제 특강을 통해 청소년지원센터 승합차 운영 문제 등을 해결해 주셨죠.<br/><br/> “제 힘이겠습니까. 교인들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신 거죠. 서울 온누리교회 마리아형제팀 초청으로 휴가를 내서 올라가 특강을 했어요. 3000여명이 참석해주셨죠. 14군데 센터 중 3곳의 승합차를 해결해 주셨습니다.”<br/><br/> -정치인이 되시면 국회 등이 무관심한 ‘비행소년 전용 공동생활가정’ 입법 등이 수월하실 텐데 정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br/><br/> “전혀요.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만 법조인이 법복 벗었다고 부와 권력에까지 욕심내면 안 되죠. 성서적이지도 않고요. 저는 비행소년을 비롯해 법조인이 되려는 후대들에게 모범이 되는 법조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br/><br/> 후기. 천 판사에게 폐가 안 되리라 믿고 그의 마지막 한마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요? 사랑과 신앙이 아니면 변화가 안 됩니다.”<br/><br/>천종호<br/><br/>부산 아미동 산동네 출신.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9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등을 거쳐 현재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2010년 비행으로 내몰린 아이들 재판을 맡으면서 매년 발생하는 10만명의 비행소년 선도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비행소년지원센터인 사법적그룹홈 14곳을 출범시켰다. 저서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가 있다. 부산 금정평안교회 피택장로.<br/><br/>부산=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40.txt

제목: [친절한 쿡기자] 유품 정리하다 문득 “왜 새것을 사야 하지?”… ‘200일간 새 물건 안 사기’ 역발상  
날짜: 201508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3843510  
본문: [친절한 쿡기자] 200일 동안 새것을 하나도 사지 않을 수 있을까요?<br/><br/> 최근 미국 온라인 경제매체 쿼츠에 흥미로운 칼럼이 실렸습니다. ‘200일 동안 새 물건 사지 않기’에 도전한 블로거 ‘에시아’의 글이었죠. ‘200일간 휴대전화 없이 지내기’만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이지만 끝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변화를 얻었습니다.<br/><br/> 계기는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암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에시아는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를 비워야 했습니다.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데만 1주일이 걸렸고, 그것을 기부하고 재활용하고 버리는 데 몇 주의 시간을 더 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돈과 시간, 노력이 이 물건들을 얻는 데 들어갔고 결국엔 내버려졌다는 걸요.<br/><br/> 에시아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200일 동안 소유의 즐거움을 버리기로 한 거죠. 식료품, 약, 기초적인 위생물품 외에는 빌리거나 중고를 얻었습니다. 가끔은 그냥 참았습니다. 200일 뒤 에시아는 ‘충분히 풍족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br/><br/> “새것이 아니라면 구할 수 없는 물건도 있습니다. 간혹 엄청난 충동에도 그런 물건을 사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br/><br/> 그는 “세상에 이미 너무 많은 물건이 있다”며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물건을 사들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활용 가게와 인터넷을 둘러보면 쌓여있는 물건에 경악하게 된다면서요.<br/><br/> 중고 제품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재활용 가게에는 가격표와 포장도 떼지 않은 물건도 많았거든요. 에시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쓴 물건은 기쁘게 기부하면서 남이 쓴 물건에는 거부감을 느낀다”면서 기업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경험이 훨씬 즐거웠다고 적었습니다. 물론 200일간 통장잔고도 거의 줄지 않았고요.<br/><br/> 일부 독자들은 “중고라도 새로운 물건을 구입한 건 맞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에시아는 자신이 환경보호 같은 거창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지나가는 경험’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변화가 필요했다는 거죠.<br/><br/> 돈이 있는 사람이 굳이 물건을 사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새것’을 사야 하는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혹은 ‘왜’ 사야 하는지 고민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에시아에게 남긴 건 당연한 일상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는 연습이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방법 말이죠.<br/><br/>박상은 기자<br/><br/>pse0212@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41.txt

제목: [친절한 쿡기자] 유품 정리하다 문득 “왜 새것을 사야 하지?”… ‘200일간 새 물건 안 사기’ 역발상  
날짜: 20150828  
기자: 박상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28100000133  
본문: [친절한 쿡기자] 200일 동안 새것을 하나도 사지 않을 수 있을까요?<br/><br/> 최근 미국 온라인 경제매체 쿼츠에 흥미로운 칼럼이 실렸습니다. ‘200일 동안 새 물건 사지 않기’에 도전한 블로거 ‘에시아’의 글이었죠. ‘200일간 휴대전화 없이 지내기’만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이지만 끝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변화를 얻었습니다.<br/><br/> 계기는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암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에시아는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를 비워야 했습니다.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데만 1주일이 걸렸고, 그것을 기부하고 재활용하고 버리는 데 몇 주의 시간을 더 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돈과 시간, 노력이 이 물건들을 얻는 데 들어갔고 결국엔 내버려졌다는 걸요.<br/><br/> 에시아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200일 동안 소유의 즐거움을 버리기로 한 거죠. 식료품, 약, 기초적인 위생물품 외에는 빌리거나 중고를 얻었습니다. 가끔은 그냥 참았습니다. 200일 뒤 에시아는 ‘충분히 풍족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br/><br/> “새것이 아니라면 구할 수 없는 물건도 있습니다. 간혹 엄청난 충동에도 그런 물건을 사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br/><br/> 그는 “세상에 이미 너무 많은 물건이 있다”며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물건을 사들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활용 가게와 인터넷을 둘러보면 쌓여있는 물건에 경악하게 된다면서요.<br/><br/> 중고 제품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재활용 가게에는 가격표와 포장도 떼지 않은 물건도 많았거든요. 에시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쓴 물건은 기쁘게 기부하면서 남이 쓴 물건에는 거부감을 느낀다”면서 기업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경험이 훨씬 즐거웠다고 적었습니다. 물론 200일간 통장잔고도 거의 줄지 않았고요.<br/><br/> 일부 독자들은 “중고라도 새로운 물건을 구입한 건 맞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에시아는 자신이 환경보호 같은 거창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지나가는 경험’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변화가 필요했다는 거죠.<br/><br/> 돈이 있는 사람이 굳이 물건을 사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새것’을 사야 하는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혹은 ‘왜’ 사야 하는지 고민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에시아에게 남긴 건 당연한 일상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는 연습이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방법 말이죠.<br/><br/>박상은 기자<br/><br/>pse0212@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42.txt

제목: 삼성화재, 업계 최초 임신질환 실손의료보험  
날짜: 201508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3627137  
본문: 삼성화재 ‘뉴 엄마맘에 쏙드는 자녀보험’은 업계 최초로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를 지원한다. 정병록 상무는 “<span class='quot0'>임신질환은 통계가 부족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새 자녀보험으로 산모의 임신질환 부담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br/><br/>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자궁경관 무력증, 조기진통 등으로 산모가 입원하면 입원비의 80%를 보장한다. 많은 산모들이 우려하는 임신중독증도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고령 산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선천성 뇌성마비 및 다운증후군 진단 때에도 10년간 매년 양육자금을 지원한다.<br/><br/> 또 유치·영구치의 충치 치료를 지원하는 ‘치아 보존 치료 지원금’, 중증 뇌수막염 치료비 보장도 있다. 암 질환은 입원 첫날부터 보험금이 지급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43.txt

제목: 삼성화재, 업계 최초 임신질환 실손의료보험  
날짜: 201508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27100000043  
본문: 삼성화재 ‘뉴 엄마맘에 쏙드는 자녀보험’은 업계 최초로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를 지원한다. 정병록 상무는 “<span class='quot0'>임신질환은 통계가 부족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새 자녀보험으로 산모의 임신질환 부담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br/><br/>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자궁경관 무력증, 조기진통 등으로 산모가 입원하면 입원비의 80%를 보장한다. 많은 산모들이 우려하는 임신중독증도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고령 산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선천성 뇌성마비 및 다운증후군 진단 때에도 10년간 매년 양육자금을 지원한다.<br/><br/> 또 유치·영구치의 충치 치료를 지원하는 ‘치아 보존 치료 지원금’, 중증 뇌수막염 치료비 보장도 있다. 암 질환은 입원 첫날부터 보험금이 지급된다.<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44.txt

제목: NH농협생명, 태아 때부터 100세까지 질병 보장  
날짜: 201508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3628420  
본문: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연령에 맞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이 나왔다. NH농협생명의 ‘평생친구NH어린이보험(무배당)’은 태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자주 발병하는 주요 질병을 나이에 맞게 보장한다.<br/><br/> 응급실 내원 진료비가 특약이 아닌 주계약에 포함돼 있다. 입원비, 재해골절 치료비, 깁스 치료비 등 어린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위험도 보장을 받는다. 태아부터 30세까지는 폐렴 중이염 결핵 천식 등 성장기 주요질환입원비를, 그 이후부터 80세 또는 100세까지는 당뇨병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11대 성인병 입원비를 첫날부터 보장한다. 암 보장, 교통재해와 일반재해 보장도 빵빵하다. 부모 유고 시 7세부터 22세까지 매년 학자금을 제공하는 특약도 눈길. 다문화·다자녀 어린이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45.txt

제목: NH농협생명, 태아 때부터 100세까지 질병 보장  
날짜: 201508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27100000045  
본문: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연령에 맞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이 나왔다. NH농협생명의 ‘평생친구NH어린이보험(무배당)’은 태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자주 발병하는 주요 질병을 나이에 맞게 보장한다.<br/><br/> 응급실 내원 진료비가 특약이 아닌 주계약에 포함돼 있다. 입원비, 재해골절 치료비, 깁스 치료비 등 어린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위험도 보장을 받는다. 태아부터 30세까지는 폐렴 중이염 결핵 천식 등 성장기 주요질환입원비를, 그 이후부터 80세 또는 100세까지는 당뇨병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11대 성인병 입원비를 첫날부터 보장한다. 암 보장, 교통재해와 일반재해 보장도 빵빵하다. 부모 유고 시 7세부터 22세까지 매년 학자금을 제공하는 특약도 눈길. 다문화·다자녀 어린이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한다.<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46.txt

제목: 죽은 아내를 위한 7.2㎞ 해바라기 길… 남편이 생전 아내의 소원 실현  
날짜: 2015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3320021  
본문: 바베트 재키시는 꽃을 좋아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해바라기를 좋아했다. 지난해 11월 암 투병 끝에 그녀가 66세로 세상을 떠나자 남편 돈 재키시(65)는 지난 6월 400에이커(1.62㎢)에 그녀를 생각하며 해바라기를 심었다.<br/><br/> 돈은 “아내는 외모뿐 아니라 내면도 아름다웠다”고 추모했다. 미국 위스콘신주 중서부 오클레어를 가로지르는 85번 고속도로 양편은 요즘 해바라기 꽃으로 황금물결이라며 미 NBC방송이 재키시 부부의 러브스토리를 23일(현지시간) 소개했다. 해바라기 꽃밭은 4.5마일(7.2㎞)에 이른다. 2006년 바베트가 다발성 골수종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뒤 부부는 그들의 농장 근처 수백 에이커에 해바라기를 심었다. 돈은 “아내가 당시 해바라기 씨를 팔아 일부 수익금을 암 연구기관에 기부하면 어떠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br/><br/> 지난해 11월 17일 바베트가 세상을 떠나자 돈과 딸 화이트는 그녀의 꿈을 실현시키기로 결심했다. 바베트를 좋아했던 이웃 농장 4곳은 임차료는 되는 대로 달라며 땅을 내줬다.<br/><br/> 이 꽃밭에서 수확한 해바라기씨는 ‘바베트의 희망의 씨앗’이라는 상표로 곧 판매될 예정이다. 해바라기 씨 봉투에는 바베트의 이야기를 담은 쪽지가 들어간다. 딸 화이트는 “우리는 이 해바라기 꽃밭이 ‘사랑의 진술’이 되기 바란다. 4.5마일에 펼쳐진 해바라기 밭은 광대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은 엄마와, 엄마의 인생과 꼭 닮았다”고 말했다. <br/><br/>배병우 선임기자 bwba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47.txt

제목: 죽은 아내를 위한 7.2㎞ 해바라기 길… 남편이 생전 아내의 소원 실현  
날짜: 20150825  
기자: 배병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25100000108  
본문: 바베트 재키시는 꽃을 좋아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해바라기를 좋아했다. 지난해 11월 암 투병 끝에 그녀가 66세로 세상을 떠나자 남편 돈 재키시(65)는 지난 6월 400에이커(1.62㎢)에 그녀를 생각하며 해바라기를 심었다.<br/><br/> 돈은 “아내는 외모뿐 아니라 내면도 아름다웠다”고 추모했다. 미국 위스콘신주 중서부 오클레어를 가로지르는 85번 고속도로 양편은 요즘 해바라기 꽃으로 황금물결이라며 미 NBC방송이 재키시 부부의 러브스토리를 23일(현지시간) 소개했다. 해바라기 꽃밭은 4.5마일(7.2㎞)에 이른다. 2006년 바베트가 다발성 골수종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뒤 부부는 그들의 농장 근처 수백 에이커에 해바라기를 심었다. 돈은 “아내가 당시 해바라기 씨를 팔아 일부 수익금을 암 연구기관에 기부하면 어떠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br/><br/> 지난해 11월 17일 바베트가 세상을 떠나자 돈과 딸 화이트는 그녀의 꿈을 실현시키기로 결심했다. 바베트를 좋아했던 이웃 농장 4곳은 임차료는 되는 대로 달라며 땅을 내줬다.<br/><br/> 이 꽃밭에서 수확한 해바라기씨는 ‘바베트의 희망의 씨앗’이라는 상표로 곧 판매될 예정이다. 해바라기 씨 봉투에는 바베트의 이야기를 담은 쪽지가 들어간다. 딸 화이트는 “우리는 이 해바라기 꽃밭이 ‘사랑의 진술’이 되기 바란다. 4.5마일에 펼쳐진 해바라기 밭은 광대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은 엄마와, 엄마의 인생과 꼭 닮았다”고 말했다. <br/><br/>배병우 선임기자 bwbae@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48.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2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뇌종양센터 김재용 교수팀] 뇌종양, 절반이상 고친다!  
날짜: 2015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3338668  
본문: TV속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불치병 소재로 등장하는 뇌종양은 사실 매우 복잡한 종양이다. 다른 부위와 달리 양성 종양도 암과 같은 대우(?)를 받고 그 종류도 30여 가지나 될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이다.<br/><br/> “뇌종양은 건드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 아예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15∼20% 정도 된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못 고치는 환자보다는 수술 또는 항암제, 방사선 치료로 고칠 수 있는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br/><br/>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뇌종양센터 김재용(47·신경외과) 교수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뇌종양 환자 치료율은 양성과 악성을 모두 합쳐 약 50%다. 어떻게든 둘 중 하나는 살려내고 있다는 말이다. 뇌종양은 두개골 안에 생긴 모든 종양을 총칭하는 병명이다. 물론 뇌 주변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종양도 포함된다.<br/><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사람들이 뇌종양을 불치병이라고 생각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종류 만큼이나 치료율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다</span>”고 말했다.<br/><br/> 뇌종양은 다른 종양과 달리 혹이 두개골 안에서만 자란다.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는 경우란 수모세포종 등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때에도 거의 신경계 밖으로 벗어나는 법이 없다.<br/><br/> 뇌종양은 최초 발생 부위가 어딘가에 따라 원발성 및 전이성으로 구분된다. 원발성은 두개골 안에서 최초 발생한 것이고 전이성은 다른 부위에서 생겨 혈관을 따라 뇌 쪽으로 이사 온 종양을 말한다.<br/><br/> 원발성 뇌종양은 다시 세포 종류에 따라 주변의 신경조직 속으로 파고드는 ‘신경교종’(축내종양)과 그렇지 않고 압박만 하는 비(非)교종성(축외종양), 두 종류로 나뉜다. 신경교종이 전체 뇌종양 중 약 40%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비교종성으로 수막종 20%, 뇌하수체선종 15%, 신경초종 15%, 기타 종양 10% 등의 분포다.<br/><br/> 뇌종양은 악성도에 따라 양성과 악성으로 나뉜다. 양성 뇌종양에는 뇌수막종 두개인두종 청신경초종 뇌하수체 종양 등, 악성 뇌종양에는 역형성신경교종 교모세포종 뇌전이암 수모세포종 등이 대표적이다.<br/><br/> 양성 뇌종양은 대부분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다. 성장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기만 해도 될 때가 적잖다. 종양이 여러 해 동안,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br/><br/> 문제는 이런 양성 뇌종양도 수술이 어려워 완치를 기대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뇌간이나 뇌기저부, 또는 척수 속에 뿌리를 내린 종양은 완전 절제수술이 불가능하다. 수술 범위를 아무리 좁혀도 생명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뇌와 척수에 손상을 안 입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br/><br/> 발병 시 무조건 진단 및 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다.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는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가 낫거나 당분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것에 칼을 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게 뇌종양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br/><br/>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 진료과목의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각도로 협진을 하는 뇌종양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다. 한 사람이 잘못 봐도 다른 의사가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최적의 치료계획을 짜기 위해 여러 의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칠 수 있어서다. 결국 치료 효과도 극대화되기 마련.<br/><br/> 뇌종양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란 신경외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관련 진료과목의 교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최고의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최적의 치료계획을 짜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다.<br/><br/> 환자들은 여러 진료과를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 수고를 안 해도 되고 의료진은 진료 시 각 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시스템은 완치율이 낮은 악성 뇌종양이나 일차 치료 후 재발되었을 때, 치료법 선택이 쉽지 않을 때 빛을 발한다.<br/><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분당서울대병원도 뇌종양 치료에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치료계획을 더욱 완벽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됐고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부위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시술할 수 있게 됐다</span>”고 강조했다.<br/><br/> 김 교수팀은 현재 뇌·척수 종양 수술 및 감마나이프 수술을 연평균 500건 이상 시행 중이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49.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2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뇌종양센터 김재용 교수팀] 뇌종양, 절반이상 고친다!  
날짜: 20150825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25100000051  
본문: TV속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불치병 소재로 등장하는 뇌종양은 사실 매우 복잡한 종양이다. 다른 부위와 달리 양성 종양도 암과 같은 대우(?)를 받고 그 종류도 30여 가지나 될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이다.<br/><br/> “뇌종양은 건드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 아예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15∼20% 정도 된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못 고치는 환자보다는 수술 또는 항암제, 방사선 치료로 고칠 수 있는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br/><br/>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뇌종양센터 김재용(47·신경외과) 교수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뇌종양 환자 치료율은 양성과 악성을 모두 합쳐 약 50%다. 어떻게든 둘 중 하나는 살려내고 있다는 말이다. 뇌종양은 두개골 안에 생긴 모든 종양을 총칭하는 병명이다. 물론 뇌 주변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종양도 포함된다.<br/><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사람들이 뇌종양을 불치병이라고 생각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종류 만큼이나 치료율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다</span>”고 말했다.<br/><br/> 뇌종양은 다른 종양과 달리 혹이 두개골 안에서만 자란다.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는 경우란 수모세포종 등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때에도 거의 신경계 밖으로 벗어나는 법이 없다.<br/><br/> 뇌종양은 최초 발생 부위가 어딘가에 따라 원발성 및 전이성으로 구분된다. 원발성은 두개골 안에서 최초 발생한 것이고 전이성은 다른 부위에서 생겨 혈관을 따라 뇌 쪽으로 이사 온 종양을 말한다.<br/><br/> 원발성 뇌종양은 다시 세포 종류에 따라 주변의 신경조직 속으로 파고드는 ‘신경교종’(축내종양)과 그렇지 않고 압박만 하는 비(非)교종성(축외종양), 두 종류로 나뉜다. 신경교종이 전체 뇌종양 중 약 40%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비교종성으로 수막종 20%, 뇌하수체선종 15%, 신경초종 15%, 기타 종양 10% 등의 분포다.<br/><br/> 뇌종양은 악성도에 따라 양성과 악성으로 나뉜다. 양성 뇌종양에는 뇌수막종 두개인두종 청신경초종 뇌하수체 종양 등, 악성 뇌종양에는 역형성신경교종 교모세포종 뇌전이암 수모세포종 등이 대표적이다.<br/><br/> 양성 뇌종양은 대부분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다. 성장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기만 해도 될 때가 적잖다. 종양이 여러 해 동안,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br/><br/> 문제는 이런 양성 뇌종양도 수술이 어려워 완치를 기대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뇌간이나 뇌기저부, 또는 척수 속에 뿌리를 내린 종양은 완전 절제수술이 불가능하다. 수술 범위를 아무리 좁혀도 생명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뇌와 척수에 손상을 안 입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br/><br/> 발병 시 무조건 진단 및 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다.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는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가 낫거나 당분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것에 칼을 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게 뇌종양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br/><br/>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 진료과목의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각도로 협진을 하는 뇌종양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다. 한 사람이 잘못 봐도 다른 의사가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최적의 치료계획을 짜기 위해 여러 의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칠 수 있어서다. 결국 치료 효과도 극대화되기 마련.<br/><br/> 뇌종양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란 신경외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관련 진료과목의 교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최고의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최적의 치료계획을 짜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다.<br/><br/> 환자들은 여러 진료과를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 수고를 안 해도 되고 의료진은 진료 시 각 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시스템은 완치율이 낮은 악성 뇌종양이나 일차 치료 후 재발되었을 때, 치료법 선택이 쉽지 않을 때 빛을 발한다.<br/><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분당서울대병원도 뇌종양 치료에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치료계획을 더욱 완벽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됐고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부위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시술할 수 있게 됐다</span>”고 강조했다.<br/><br/> 김 교수팀은 현재 뇌·척수 종양 수술 및 감마나이프 수술을 연평균 500건 이상 시행 중이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50.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 김재용 교수는, 최고 권위 UCSF서 수학… 악성 종양 치료 신기원  
날짜: 20150825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25100000043  
본문: 1969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88년 경남고등학교, 1994년 서울대학교 의대를 각각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임의를 거쳐 2003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br/><br/> 김 교수는 뇌종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신경외과 의사를 천직으로 알고 있다. 그는 가족 중 신경계통 질환을 앓는 환자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신경 전문의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의대생 시절 암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자연스럽게 뇌신경계 종양을 전공으로 삼게 됐다. <br/><br/> 김 교수는 현재 미국신경종양학회, 아시아신경종양학회, 미국임상암학회, 미국신경외과학회 뇌종양 분과 등에서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한뇌종양학회 다기관임상시험분과와 대한신경종양학회 교육수련위원회를 각각 이끌며 국내 뇌종양 관련 임상연구와 뇌종양 전문의들을 재교육하는 일에도 열심이다. 2013 WFNS(세계 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뇌종양 분야 학술위원과 대한뇌종양학회 20년사 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br/><br/> 김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UCSF) 메디컬센터에서 ‘신경교종’에 대한 임상연구와 뇌 지도를 이용한 뇌종양 제거술을 익혔다. UCSF 메디컬센터는 뇌종양 수술 쪽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기관이다.<br/><br/> 김 교수는 특히 악성 신경교종 치료 시 수술 후 방사선과 경구용 항암제를 병용하는 방법을 개발, 국내 악성 뇌종양 치료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즘도 이 치료법을 더 발전시키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br/><br/> “뇌는 신비로운 기관인 만큼 구조가 복잡하고 극도로 예민해 수술하기가 까다롭고 정성을 두 배로 쏟아야 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종양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사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그 피로가 싹 풀려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뇌종양 수술 후 치료법 개발 분야에서 아직도 걸음마 수준입니다. 새 치료법을 개발, 각종 뇌종양 환자들의 생존율을 지금보다 배 이상 늘리는데 꼭 기여하고 싶습니다.” 김 교수의 바람이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51.txt

제목: 4대 중증질환 의심자 초음파검사도 健保 적용  
날짜: 20150824  
기자: 권기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24100000055  
본문: 다음 달부터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성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한 차례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br/><br/>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진단 이후보다 의심 단계의 검사에 보험 적용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부 초음파를 기준으로 환자 부담이 21만원에서 1만4000∼4만4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br/><br/> 최신 방사선 치료 기술인 ‘양성자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 등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양성자 치료를 하면 방사선이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야 배출된다. 암이 전이되지 않은 정상 조직을 보호하고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출 수 있지만 비용이 1000만∼3000만원이어서 환자 부담이 컸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안전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 등 암 환자 390∼780명의 의료비 부담이 1800만∼3100만원에서 100만∼150만원으로 낮아질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 또 식도암과 간담도암 등에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의 경우 지금까지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개수에 제한이 없어진다.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 갑상선암을 진단할 때 쓰이는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52.txt

제목: 4대 중증질환 의심자 초음파검사도 健保 적용  
날짜: 2015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3213180  
본문: 다음 달부터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성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한 차례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br/><br/>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진단 이후보다 의심 단계의 검사에 보험 적용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부 초음파를 기준으로 환자 부담이 21만원에서 1만4000∼4만4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br/><br/> 최신 방사선 치료 기술인 ‘양성자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 등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양성자 치료를 하면 방사선이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야 배출된다. 암이 전이되지 않은 정상 조직을 보호하고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출 수 있지만 비용이 1000만∼3000만원이어서 환자 부담이 컸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안전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 등 암 환자 390∼780명의 의료비 부담이 1800만∼3100만원에서 100만∼150만원으로 낮아질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 또 식도암과 간담도암 등에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의 경우 지금까지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개수에 제한이 없어진다.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 갑상선암을 진단할 때 쓰이는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53.txt

제목: 암 투병 카터 前 미국 대통령 “항암치료 받더라도 주일학교는 안 빠질 것”  
날짜: 2015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3122740  
본문: “‘앞으로 살날이 몇 주밖에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놀랍게도 아주 편안했어요. 항암치료를 받더라도 이번 주 일요일 주일학교 봉사활동은 빠지지 않을 겁니다.”<br/><br/> 지미 카터(91) 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카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뇌로 전이됐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밝혔다(사진).<br/><br/> 그는 45분간 진행된 기자회견 동안 때로는 유머를 섞어가며 웃는 낯을 잃지 않고 치료계획을 설명했다.<br/><br/> 에모리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카터 전 대통령은 당장 이날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항암제 1회분을 투여받았다고 소개했다. 의료진은 카터 전 대통령이 고령임에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완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br/><br/> 그는 “나는 멋진 삶을 살았고,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으며 즐겁고 기쁜 생활을 누렸다”고 말했다. 부모와 남동생, 두 명의 누이 등 가족 5명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카터 전 대통령은 “<span class='quot0'>(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span>”고 했다.<br/><br/> 그는 특히 항암치료에 들어간 이번 주를 포함해 “<span class='quot0'>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활동은 매주 할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잦은 해외출장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3주 이상 조지아주의 마라나다 감리교회에 출석해 봉사활동을 해왔다.<br/><br/>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54.txt

제목: 암 투병 카터 前 미국 대통령 “항암치료 받더라도 주일학교는 안 빠질 것”  
날짜: 20150822  
기자: 전석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22100000026  
본문: “‘앞으로 살날이 몇 주밖에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놀랍게도 아주 편안했어요. 항암치료를 받더라도 이번 주 일요일 주일학교 봉사활동은 빠지지 않을 겁니다.”<br/><br/> 지미 카터(91) 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카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뇌로 전이됐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밝혔다(사진).<br/><br/> 그는 45분간 진행된 기자회견 동안 때로는 유머를 섞어가며 웃는 낯을 잃지 않고 치료계획을 설명했다.<br/><br/> 에모리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카터 전 대통령은 당장 이날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항암제 1회분을 투여받았다고 소개했다. 의료진은 카터 전 대통령이 고령임에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완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br/><br/> 그는 “나는 멋진 삶을 살았고,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으며 즐겁고 기쁜 생활을 누렸다”고 말했다. 부모와 남동생, 두 명의 누이 등 가족 5명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카터 전 대통령은 “<span class='quot0'>(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span>”고 했다.<br/><br/> 그는 특히 항암치료에 들어간 이번 주를 포함해 “<span class='quot0'>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활동은 매주 할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잦은 해외출장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3주 이상 조지아주의 마라나다 감리교회에 출석해 봉사활동을 해왔다.<br/><br/>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55.txt

제목: [한마당-임항] 잔류성 유해물질  
날짜: 2015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941778  
본문: 경제활동의 부산물인 유해물질 가운데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는 것들이 있다.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과 중금속들이다. 이들은 생물농축이라는 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인체와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 생물농축이란 먹이사슬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체내 오염도가 단위체적당 7∼10배씩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br/><br/> POPs는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한다. DDT, 알드린 디엘드린 톡사펜 등의 농약류와 폴리염화비페닐(PCB)·헥사클로로벤젠 등 산업용 화학물질 및 다이옥신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12개 물질이 POPs로 지정됐으며, 국내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서 23개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br/><br/> POPs 가운데 다이옥신, PCB, 퓨란 등 3개 물질을 포함한 일군의 화학물질들과 납, 수은, 비소, 유기주석 등 일부 중금속은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통의 정상적 작용을 방해한다. 이 물질들을 내분기계 교란물질(EDCs), 또는 통칭 환경호르몬이라고 부른다. 태아나 어린이의 신체와 생식기관에 기형을 일으키고, 성인의 경우 내분기계통 암이나 생식능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1940∼71년 사이 유산 예방약으로 복용됐다가 생식기 기형 을 유발한 DES(디에틸스틸베스트롤), 베트남전에서 고엽제 원료였던 다이옥신,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만드는 프탈산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br/><br/> 어린이용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의 최대 300배까지 검출됐다고 한다. 유해성 검사 때마다 적발되지만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것은 POPs가 아닌 EDCs 함유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과 정보 공개 외에는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호르몬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전 예방의 원칙에 의해 주요 EDCs를 규제해야 한다. 임항 논설위원 hnglim@kmib. 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56.txt

제목: [한마당-임항] 잔류성 유해물질  
날짜: 2015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21100000019  
본문: 경제활동의 부산물인 유해물질 가운데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는 것들이 있다.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과 중금속들이다. 이들은 생물농축이라는 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인체와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 생물농축이란 먹이사슬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체내 오염도가 단위체적당 7∼10배씩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br/><br/> POPs는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한다. DDT, 알드린 디엘드린 톡사펜 등의 농약류와 폴리염화비페닐(PCB)·헥사클로로벤젠 등 산업용 화학물질 및 다이옥신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12개 물질이 POPs로 지정됐으며, 국내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서 23개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br/><br/> POPs 가운데 다이옥신, PCB, 퓨란 등 3개 물질을 포함한 일군의 화학물질들과 납, 수은, 비소, 유기주석 등 일부 중금속은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통의 정상적 작용을 방해한다. 이 물질들을 내분기계 교란물질(EDCs), 또는 통칭 환경호르몬이라고 부른다. 태아나 어린이의 신체와 생식기관에 기형을 일으키고, 성인의 경우 내분기계통 암이나 생식능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1940∼71년 사이 유산 예방약으로 복용됐다가 생식기 기형 을 유발한 DES(디에틸스틸베스트롤), 베트남전에서 고엽제 원료였던 다이옥신,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만드는 프탈산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br/><br/> 어린이용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의 최대 300배까지 검출됐다고 한다. 유해성 검사 때마다 적발되지만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것은 POPs가 아닌 EDCs 함유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과 정보 공개 외에는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호르몬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전 예방의 원칙에 의해 주요 EDCs를 규제해야 한다. 임항 논설위원 hnglim@kmib. 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57.txt

제목: 사망원인 81%는 만성 질환… 예방 위한 활동은 되레 후퇴  
날짜: 2015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3021922  
본문: 흔히 ‘생활습관병’으로 불리는 만성질환이 우리 국민 전체 사망의 81%를 차지했다. 하지만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나쁜 생활습관’의 관리 및 예방은 미흡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질병관리본부는 21일 서울 가톨릭의대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리는 ‘제5차 만성질환 예방·관리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사망 원인 상위 10개 중 7개는 만성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천식 등 하기도질환,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이다. 다른 사망 원인(손상 12%, 감염성질환 7%)은 일부에 그쳤다.<br/><br/> 하지만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7년 54.7%에서 2013년 47.2%로 줄었다. 반면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자는 2007년 12.5%에서 21.6%로 증가했다. 2013년 흡연율은 24.1%로 2007년(25.3%)보다 조금 줄었지만, 성인 남성 흡연율은 여전히 40%를 넘는다. 고위험 음주율 역시 12.5%에 달했다.<br/><br/> 만성질환의 치료와 합병증 관리도 잘 안 됐다. 성인 10명 중 3명이 고혈압 환자지만 2013년 치료율은 58.6%에 불과했다. 고지혈증도 2005년에 비해 약 6.9% 포인트 늘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국내 성인 1300만명이 비만이며, 특히 남성 비만율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br/><br/>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58.txt

제목: 사망원인 81%는 만성 질환… 예방 위한 활동은 되레 후퇴  
날짜: 20150821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21100000097  
본문: 흔히 ‘생활습관병’으로 불리는 만성질환이 우리 국민 전체 사망의 81%를 차지했다. 하지만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나쁜 생활습관’의 관리 및 예방은 미흡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질병관리본부는 21일 서울 가톨릭의대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리는 ‘제5차 만성질환 예방·관리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사망 원인 상위 10개 중 7개는 만성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천식 등 하기도질환,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이다. 다른 사망 원인(손상 12%, 감염성질환 7%)은 일부에 그쳤다.<br/><br/> 하지만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7년 54.7%에서 2013년 47.2%로 줄었다. 반면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자는 2007년 12.5%에서 21.6%로 증가했다. 2013년 흡연율은 24.1%로 2007년(25.3%)보다 조금 줄었지만, 성인 남성 흡연율은 여전히 40%를 넘는다. 고위험 음주율 역시 12.5%에 달했다.<br/><br/> 만성질환의 치료와 합병증 관리도 잘 안 됐다. 성인 10명 중 3명이 고혈압 환자지만 2013년 치료율은 58.6%에 불과했다. 고지혈증도 2005년에 비해 약 6.9% 포인트 늘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국내 성인 1300만명이 비만이며, 특히 남성 비만율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br/><br/>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59.txt

제목: ‘제대혈’의 배신?… 만병통치 논란  
날짜: 2015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625077  
본문: 제대혈이 유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제대혈 보관 서비스 업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일부 네티즌을 검찰에 고소했다. 가입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갈수록 커지는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br/><br/> 제대혈은 출산 시 태반이나 탯줄에 존재하는 혈액이다. 조혈모세포가 풍부해 난치성 질환 치료에 활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대혈은 자기 치료에 쓰일 확률이 극히 낮아 ‘얼음쓰레기’에 불과하다. 보관료만 챙기는 사기극이다”고 주장하면서 불을 지폈다. 업체들은 “제대혈 산업은 계속 발전 중이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한다. 민간 제대혈은행은 100만∼400만원의 보관료를 받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평생 이를 보관하다 필요할 때 꺼내 치료에 쓰게 해준다. 2001년 이후 국내에서 제대혈 보관에 나선 사람은 52만명이나 된다.<br/><br/> ◇‘기적의 치료제’ vs ‘얼음쓰레기’=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국내에 보관된 기증 제대혈은 4만4667건인 반면 가족 제대혈은 52만3487건이다. 전체의 약 94%가 민간 업체에서 운용 중인 자가 제대혈이다. 같은 기간 제대혈을 이식받은 건수는 가족 제대혈이 390건, 기증 제대혈이 801건으로 이식률은 각각 0.07%, 0.20%다.<br/><br/> 제대혈을 보관했지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상태인 경우 이식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식률 수치만으로 제대혈의 효과나 필요성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현재까지 활용도가 뛰어나지는 않다. 2013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보고서는 제대혈이 보관 건수에 비해 실제 활용 비율이 낮아 관련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백혈병 등 유전적 원인의 질환은 본인이나 가족의 제대혈을 이용하는 게 효과가 없다는 점이 언급됐다.<br/><br/> 시민단체들은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민단체들은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국민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말 세종시 복지부와 청와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혈 보관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백혈병 치료에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를 제시하며 “자가 제대혈 보관 서비스가 백혈병 등 난치병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용될 확률도 많아야 0.04%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br/><br/> 반면 제대혈 서비스 업체들은 ‘바이오 신사업’ ‘미래사업’이라는 점을 들며 향후 발전 가능성과 사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자신한다. 난치병은 발병률 자체가 낮아 이식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보관자 중 성인이 없기 때문에 아직 사용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의학계 입장이라고 강조한다. 국내 제대혈 서비스 시장은 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br/><br/> 한 업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자가 제대혈을 보관한 현재 아동이 성인이 돼 병에 걸렸을 경우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지를 보고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자가 제대혈은 혈액암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 뇌신경계 질환, 성인 암 보조치료제로도 쓰인다. 다양한 케이스로 활용 가능한데 시민단체는 혈액암에 국한해 사용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업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일부 네티즌을 지난 10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br/><br/> ◇소비자 혼란…“서비스 취소와 환불은 불가”=업체와 시민단체의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소비자는 혼란에 빠졌다.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환불받기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약관과 계약서에 따라 이를 번복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 2월 산부인과에 판촉을 나온 상담사 권유로 175만원을 내고 제대혈 30년 보관 서비스에 가입한 민모(29·여)씨는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제대혈을 폐기해도 업체로선 초기 발생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된 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가입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br/><br/> 보건 당국이 2011년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20여개 제대혈은행을 관리하고 있지만 자가 제대혈 관련 계약이나 정보 고지에 대한 일부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2년마다 정기심사를 하고 이때 제대혈 채취·입고·보관·폐기와 과대광고 여부 등을 모두 평가한다</span>”며 “<span class='quot1'>2013년 평가에서 적발된 사례는 없다</span>”고 말했다.<br/><br/>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60.txt

제목: ‘제대혈’의 배신?… 만병통치 논란  
날짜: 20150818  
기자: 김미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8100000130  
본문: 제대혈이 유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제대혈 보관 서비스 업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일부 네티즌을 검찰에 고소했다. 가입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갈수록 커지는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br/><br/> 제대혈은 출산 시 태반이나 탯줄에 존재하는 혈액이다. 조혈모세포가 풍부해 난치성 질환 치료에 활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대혈은 자기 치료에 쓰일 확률이 극히 낮아 ‘얼음쓰레기’에 불과하다. 보관료만 챙기는 사기극이다”고 주장하면서 불을 지폈다. 업체들은 “제대혈 산업은 계속 발전 중이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한다. 민간 제대혈은행은 100만∼400만원의 보관료를 받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평생 이를 보관하다 필요할 때 꺼내 치료에 쓰게 해준다. 2001년 이후 국내에서 제대혈 보관에 나선 사람은 52만명이나 된다.<br/><br/> ◇‘기적의 치료제’ vs ‘얼음쓰레기’=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국내에 보관된 기증 제대혈은 4만4667건인 반면 가족 제대혈은 52만3487건이다. 전체의 약 94%가 민간 업체에서 운용 중인 자가 제대혈이다. 같은 기간 제대혈을 이식받은 건수는 가족 제대혈이 390건, 기증 제대혈이 801건으로 이식률은 각각 0.07%, 0.20%다.<br/><br/> 제대혈을 보관했지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상태인 경우 이식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식률 수치만으로 제대혈의 효과나 필요성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현재까지 활용도가 뛰어나지는 않다. 2013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보고서는 제대혈이 보관 건수에 비해 실제 활용 비율이 낮아 관련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백혈병 등 유전적 원인의 질환은 본인이나 가족의 제대혈을 이용하는 게 효과가 없다는 점이 언급됐다.<br/><br/> 시민단체들은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국민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말 세종시 복지부와 청와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혈병을 앓는 A군(5)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A군이 자가 제대혈 보관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백혈병 치료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업체가 홍보하지만 사실상 자가 제대혈을 사용할 확률은 많아야 0.04%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br/><br/>반면 제대혈 서비스 업체들은 ‘바이오 신사업’ ‘미래사업’이라는 점을 들며 향후 발전 가능성과 사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자신한다. 난치병은 발병률 자체가 낮아 이식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보관자 중 성인이 없기 때문에 아직 사용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의학계 입장이라고 강조한다. 국내 제대혈 서비스 시장은 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br/><br/> 한 업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자가 제대혈을 보관한 현재 아동이 성인이 돼 병에 걸렸을 경우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지를 보고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자가 제대혈은 혈액암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 뇌신경계 질환, 성인 암 보조치료제로도 쓰인다. 다양한 케이스로 활용 가능한데 시민단체는 혈액암에 국한해 사용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업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일부 네티즌을 지난 10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br/><br/> ◇소비자 혼란…“서비스 취소와 환불은 불가”=업체와 시민단체의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소비자는 혼란에 빠졌다.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환불받기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약관과 계약서에 따라 이를 번복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 2월 산부인과에 판촉을 나온 상담사 권유로 175만원을 내고 제대혈 30년 보관 서비스에 가입한 민모(29·여)씨는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제대혈을 폐기해도 업체로선 초기 발생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된 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이에 일부 가입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br/><br/> 보건 당국이 2011년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20여개 제대혈은행을 관리하고 있지만 자가 제대혈 관련 계약이나 정보 고지에 대한 일부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2년마다 정기심사를 하고 이때 제대혈 채취·입고·보관·폐기와 과대광고 여부 등을 모두 평가한다</span>”며 “<span class='quot1'>2013년 평가에서 적발된 사례는 없다</span>”고 말했다.<br/><br/>김미나 기자 mina@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br/>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61.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26) 강남세브란스병원 안철우 교수팀] 당뇨 조기진료에서 합병증 치료까지 속전속결  
날짜: 2015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558024  
본문: 대한민국은 ‘암 공화국’만이 아니다. ‘당뇨 공화국’이기도 하다. 한국인 3명 중 1명은 암을 앓고 있다는데 당뇨 환자도 못지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당뇨 대란이다.<br/><br/> 현재 30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이거나 잠재적인 당뇨병 환자라는 것이다. 게다가 2050년엔 환자수가 59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br/><br/> 설마 그렇게까지 많을까 하고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법하다. 지금 인구수로 얼추 계산해도 전 인구의 11% 이상이 당뇨 환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이다.<br/><br/> 대한당뇨병학회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국내 당뇨관련 역학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국내 30세 이상 성인의 11.9%(319만명)는 당뇨병을, 24.6%(660만명)는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r/><br/> 공복혈당장애란 공복혈당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났지만 아직 당뇨병으로 진단될 정도는 아닌 상태를 말한다. 이 가운데 5∼20%가 1년 안에 당뇨병으로 이환된다. 학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050년이면 국내 당뇨병 환자가 591만명에 이를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공복혈당장애를 가진 이들이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당뇨 대란’이 올 수 있다</span>”고 경고했다.<br/><br/> 1970년대 초반만 해도 국내 당뇨병 환자는 전 인구의 1.5%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3년엔 전 인구의 7.3%에 달했다. 40여년 사이 약 5배가 증가했다.<br/><br/> 원인은 식습관의 서구화와 함께 비만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비만은 당뇨의 최고 위험인자다.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비만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평소 꾸준히 유산소 운동과 식사 조절을 통해 표준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br/><br/> 아울러 40대 이후엔 적어도 1년에 한번은 병원을 방문, 공복 및 식후 혈당검사를 받는 게 안전하다. 그래야 당뇨가 와도 전 단계인 공복혈당장애 상태에서 적절한 처방을 받아 당뇨로 이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br/><br/>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당뇨병센터 안철우(51) 교수는 “<span class='quot1'>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신이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늦게 발견할수록 신장기능 저하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span>”고 지적했다. 당뇨 관리에서는 무엇보다 치명적인 합병증 예방을 위해 조기발견과 꾸준한 혈당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br/><br/> 당뇨 관리의 첫 걸음은 조기발견 및 정기검진을 위한 주치의 선정이다.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한 병·의원의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우선 권장된다. 한번 선정하면 평생 주치의로 삼아 그와 끝까지 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제 어느 때고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자상하게 상담해주는 의사를 찾는다면 더 바랄 게 없다.<br/><br/>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당뇨병센터는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는 의료기관이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안 교수를 중심으로 김경래(64), 박종숙(45), 강신애(40), 남지선(39) 교수팀과 김민진(33), 박소연(35) 전임의팀이 누구보다 세심하게 환자 입장에서 혈당 조절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다.<br/><br/> 이들은 특히 당뇨 관리를 기본으로 뇌하수체질환 및 고지혈증, 비만 및 골다공증, 부신질환 등의 진료를 추가로 특화해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환자 자신이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주치의를 정하면 된다.<br/><br/> 강남세브란스병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환자가 급증하면서 2007년 본관에 있던 내분비·당뇨병센터를 본관 앞 독립 병동으로 옮겼다. 이후 센터는 당뇨병 환자는 물론 대사증후군, 갑상선질환, 부신질환, 골다공증 등 각종 내분비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명품병원으로 빠르게 발전했다.<br/><br/> 요즘 센터를 찾는 당뇨환자는 월평균 4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50%는 혈당조절에 실패했거나 합병증이 나타난 다음에야 당뇨를 뒤늦게 발견한 중환자다.<br/><br/> 안 교수팀은 안저(眼底)촬영, 감각신경검사, 말초동맥경화검사, 경동맥초음파검사 등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고 방문 당일 결과까지 판정하는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일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 진료도 바로 연결한다. 합병증 발생 시 속전속결, 조기치료가 치명상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는 까닭이다.<br/><br/> 당뇨는 합병증 때문에 환자 스스로 병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안 교수팀은 당뇨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당뇨교실을 2주 간격으로 열고 있다. 1일 개인맞춤 당뇨교육과 찾아가는 당뇨교실도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또 분기별로 뉴스레터를 발간, 배포함으로써 환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62.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26) 강남세브란스병원 안철우 교수팀] 당뇨 조기진료에서 합병증 치료까지 속전속결  
날짜: 20150818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8100000036  
본문: 대한민국은 ‘암 공화국’만이 아니다. ‘당뇨 공화국’이기도 하다. 한국인 3명 중 1명은 암을 앓고 있다는데 당뇨 환자도 못지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당뇨 대란이다.<br/><br/> 현재 30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이거나 잠재적인 당뇨병 환자라는 것이다. 게다가 2050년엔 환자수가 59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br/><br/> 설마 그렇게까지 많을까 하고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법하다. 지금 인구수로 얼추 계산해도 전 인구의 11% 이상이 당뇨 환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이다.<br/><br/> 대한당뇨병학회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국내 당뇨관련 역학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국내 30세 이상 성인의 11.9%(319만명)는 당뇨병을, 24.6%(660만명)는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r/><br/> 공복혈당장애란 공복혈당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났지만 아직 당뇨병으로 진단될 정도는 아닌 상태를 말한다. 이 가운데 5∼20%가 1년 안에 당뇨병으로 이환된다. 학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050년이면 국내 당뇨병 환자가 591만명에 이를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공복혈당장애를 가진 이들이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당뇨 대란’이 올 수 있다</span>”고 경고했다.<br/><br/> 1970년대 초반만 해도 국내 당뇨병 환자는 전 인구의 1.5%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3년엔 전 인구의 7.3%에 달했다. 40여년 사이 약 5배가 증가했다.<br/><br/> 원인은 식습관의 서구화와 함께 비만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비만은 당뇨의 최고 위험인자다.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비만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평소 꾸준히 유산소 운동과 식사 조절을 통해 표준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br/><br/> 아울러 40대 이후엔 적어도 1년에 한번은 병원을 방문, 공복 및 식후 혈당검사를 받는 게 안전하다. 그래야 당뇨가 와도 전 단계인 공복혈당장애 상태에서 적절한 처방을 받아 당뇨로 이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br/><br/>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당뇨병센터 안철우(51) 교수는 “<span class='quot1'>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신이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늦게 발견할수록 신장기능 저하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span>”고 지적했다. 당뇨 관리에서는 무엇보다 치명적인 합병증 예방을 위해 조기발견과 꾸준한 혈당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br/><br/> 당뇨 관리의 첫 걸음은 조기발견 및 정기검진을 위한 주치의 선정이다.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한 병·의원의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우선 권장된다. 한번 선정하면 평생 주치의로 삼아 그와 끝까지 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제 어느 때고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자상하게 상담해주는 의사를 찾는다면 더 바랄 게 없다.<br/><br/>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당뇨병센터는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는 의료기관이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안 교수를 중심으로 김경래(64), 박종숙(45), 강신애(40), 남지선(39) 교수팀과 김민진(33), 박소연(35) 전임의팀이 누구보다 세심하게 환자 입장에서 혈당 조절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다.<br/><br/> 이들은 특히 당뇨 관리를 기본으로 뇌하수체질환 및 고지혈증, 비만 및 골다공증, 부신질환 등의 진료를 추가로 특화해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환자 자신이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주치의를 정하면 된다.<br/><br/> 강남세브란스병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환자가 급증하면서 2007년 본관에 있던 내분비·당뇨병센터를 본관 앞 독립 병동으로 옮겼다. 이후 센터는 당뇨병 환자는 물론 대사증후군, 갑상선질환, 부신질환, 골다공증 등 각종 내분비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명품병원으로 빠르게 발전했다.<br/><br/> 요즘 센터를 찾는 당뇨환자는 월평균 4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50%는 혈당조절에 실패했거나 합병증이 나타난 다음에야 당뇨를 뒤늦게 발견한 중환자다.<br/><br/> 안 교수팀은 안저(眼底)촬영, 감각신경검사, 말초동맥경화검사, 경동맥초음파검사 등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고 방문 당일 결과까지 판정하는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일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 진료도 바로 연결한다. 합병증 발생 시 속전속결, 조기치료가 치명상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는 까닭이다.<br/><br/> 당뇨는 합병증 때문에 환자 스스로 병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안 교수팀은 당뇨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당뇨교실을 2주 간격으로 열고 있다. 1일 개인맞춤 당뇨교육과 찾아가는 당뇨교실도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또 분기별로 뉴스레터를 발간, 배포함으로써 환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6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 건강한 여름 나기 요령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52436  
본문: 말복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여름의 기세는 등등하다. 한의학에서 여름 동안에는 낮이 길고 밤이 짧기 때문에 심신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양기(陽氣)를 기르라는 양생법이 있다.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그 이후의 가을이나 겨울의 건강도 따라서 오는 것이다. 특히나 암환자들은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암의 재발이나 진행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여름나기는 중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암센터 한방내과 윤성우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암환자의 건강한 여름나기 방법을 알아본다.<br/><br/> 우선 여름이 덥다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속에 갇혀있지 말고 땀이 날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아침 일찍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식사를 가볍게 하고 나무나 숲이 있는 공기 좋은 곳에서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회 이상 산책이나 조깅을 해야 한다. 이래야만 인체리듬이 건강하게 바뀐다. 땀이 나는 것은 일종의 해독이다. 묵었던 체내 독소는 땀이나 소변을 통해서 배출시키고 깨끗한 생수를 하루 1리터 이상 섭취해서 체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br/><br/> 윤성우 교수는 “케일, 비트, 신선초, 브로컬리 등 각종 제철 채소와 과일로 만든 녹즙과일 주스를 하루 한두잔 섭취하여 신선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도 좋다. 무더운 대낮에 유산소 운동이 힘든 경우에는 요가, 스트레칭, 기공체조, 복식호흡, 명상 등을 하는 것도 암환자의 면역기능을 높이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br/><br/> 여름에는 입맛이 떨어지기 쉽고 설사나 배탈이 자주 날수 있다. 암환자는 암 자체로 인하거나 혹은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 등으로 인해서도 식욕이 쉽게 저하되고 설사가 잘 발생된다. 암환자의 식욕저하나 설사는 영양결핍으로 직결되며 이는 암의 재발과 진행에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찬 음식을 피하고 생식은 조심해야 한다. 입맛이 없을 때는 쌉싸름한 제철음식으로 소화관의 운동을 자극시키는 것도 좋다. 청국장 가루나 낫또와 같은 발효음식도 장기능을 정상화시킨다. <br/><br/> 암환자에게 정신적인 건강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부분이다. 웃음치료는 큰 소리로 땀이 날 때까지 웃는 방법인데 기혈(氣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뇌에서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웃음치료는 기운의 발산을 도와서 여름철에 양기(陽氣)를 기르는데 좋다.<br/><br/> 윤 교수는 “수면은 최소 오후 11시 이전에는 자도록 노력하고 수면하는 동안 코나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수면의 질이 좋도록 각종 암 증상을 관리해야 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6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 건강한 여름 나기 요령  
날짜: 20150817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51  
본문: 말복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여름의 기세는 등등하다. 한의학에서 여름 동안에는 낮이 길고 밤이 짧기 때문에 심신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양기(陽氣)를 기르라는 양생법이 있다.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그 이후의 가을이나 겨울의 건강도 따라서 오는 것이다. 특히나 암환자들은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암의 재발이나 진행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여름나기는 중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암센터 한방내과 윤성우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암환자의 건강한 여름나기 방법을 알아본다.<br/><br/> 우선 여름이 덥다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속에 갇혀있지 말고 땀이 날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아침 일찍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식사를 가볍게 하고 나무나 숲이 있는 공기 좋은 곳에서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회 이상 산책이나 조깅을 해야 한다. 이래야만 인체리듬이 건강하게 바뀐다. 땀이 나는 것은 일종의 해독이다. 묵었던 체내 독소는 땀이나 소변을 통해서 배출시키고 깨끗한 생수를 하루 1리터 이상 섭취해서 체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br/><br/> 윤성우 교수는 “케일, 비트, 신선초, 브로컬리 등 각종 제철 채소와 과일로 만든 녹즙과일 주스를 하루 한두잔 섭취하여 신선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도 좋다. 무더운 대낮에 유산소 운동이 힘든 경우에는 요가, 스트레칭, 기공체조, 복식호흡, 명상 등을 하는 것도 암환자의 면역기능을 높이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br/><br/> 여름에는 입맛이 떨어지기 쉽고 설사나 배탈이 자주 날수 있다. 암환자는 암 자체로 인하거나 혹은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 등으로 인해서도 식욕이 쉽게 저하되고 설사가 잘 발생된다. 암환자의 식욕저하나 설사는 영양결핍으로 직결되며 이는 암의 재발과 진행에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찬 음식을 피하고 생식은 조심해야 한다. 입맛이 없을 때는 쌉싸름한 제철음식으로 소화관의 운동을 자극시키는 것도 좋다. 청국장 가루나 낫또와 같은 발효음식도 장기능을 정상화시킨다. <br/><br/> 암환자에게 정신적인 건강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부분이다. 웃음치료는 큰 소리로 땀이 날 때까지 웃는 방법인데 기혈(氣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뇌에서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웃음치료는 기운의 발산을 도와서 여름철에 양기(陽氣)를 기르는데 좋다.<br/><br/> 윤 교수는 “수면은 최소 오후 11시 이전에는 자도록 노력하고 수면하는 동안 코나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수면의 질이 좋도록 각종 암 증상을 관리해야 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65.txt

제목: [암과의 동행-암과 영양] 폐암환자, 적정 체중 유지해야 부작용 극복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44741  
본문: 65세 이상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진단되는 암은 무엇일까. 바로 폐암이다. 중앙암등록본부의 2012년 암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남성 암환자의 주된 원인은 폐암이었다.<br/><br/> 이처럼 폐암은 고령에서 많이 진단되는 암이다. 그만큼 완치로 가는 그 길이 고될 수밖에 없다. 고령의 암환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 당뇨, 신부전, 폐 기능 저하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암 치료를 주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br/><br/> 폐암의 근치적 방법은 종양이 자리한 폐를 잘라내는 것이다. 폐 일부를 잘라내기 때문에 남은 폐가 제 기능을 해 주어야 환자는 예전처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고령 환자의 경우 본래 폐 기능이 좋지 않았거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폐 절제가 신중해진다. 폐는 간과 달리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이라고 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 최근 폐암 분야의 표적항암제 개발이 두드러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항암효과는 극대화한 신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br/><br/>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변민광 교수는 “<span class='quot0'>고령의 폐암환자라도 암조직을 이용한 유전자검사를 통해 돌연변이 여부가 확인되면 그에 맞는 항암제를 선택해 치료해 나갈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만성질환이나 고령이란 나이가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br/><br/> 폐암환자에서 표적항암제 사용이 많아지고 있지만 항암치료를 둘러싸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오심, 구토, 고통스런 손발 저림 등이 그것이다. 고령의 암환자는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부작용이 두려워 항암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변 교수는 “사용하는 약제에 따라, 개인의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이 다르다. 어떤 암환자는 오심·구토를 호소하지만 어떤 암환자는 부작용을 별로 겪지 않을 수도 있다.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 또 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치료가 들어간다.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잡아가면서 꾸준히 관리한다는 치료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br/><br/> 변 교수는 평소 식사를 잘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암환자일수록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잘 견딘다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환자의 영양관리는 치료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식사를 충분히 하는 것은 심각한 체중감소를 막고 피부와 머리털, 근육, 손상된 장기를 회복하고 형성되는 것을 촉진한다</span>”고 설명했다.<br/><br/> 그러나 암환자가 잘 먹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변 교수는 영양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그는 “암환자의 체중감소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어느 선을 넘으면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 가능한 한 빨리 영양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식욕이 없어 밥 먹는 것이 힘들다면 소량씩 자주 먹는 고열량, 고단백 식사를 추천한다. 밀크셰이크, 꿀차, 푸딩 등이 좋다. 구토나 메스꺼움을 느낀다면 수분이 많고 향이 강한 음식을 피하고 식사 후 바로 움직이거나 눕지 않도록 한다. 설사를 한다면 가스를 발생시키는 콩, 양배추, 브로콜리 식단을 피한다. 위와 같은 생활습관, 식단 조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약물치료로 개선할 수 있다. 식욕은 메게스테롤과 같은 식욕촉진제를 사용해볼 수 있고 구토는 항구토제로 다스릴 수 있다”고 말했다.<br/><br/> 변 교수는 폐암을 진단받고 상심해 있는 고령의 암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료의 희망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암환자 곁에는 그들의 완치를 함께 바라는 주치의가 있다.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꾸준히 관리해 나간다면 완치까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66.txt

제목: [암과의 동행] 방사선 치료 바로알자… 머리 부위 치료할때만 머리카락 빠진다  
날짜: 20150817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36  
본문: 국내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암 환자는 22만 명으로 이 중 절반가량은 치료 또는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된다. 암 치료에 있어 방사선치료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 편견으로 인해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원자력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미숙 박사의 사례와 도움말로 방사선 치료의 편견에 대해 알아본다.<br/><br/> 병원 인근에서 하숙을 하며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환자가 유독 말이 없고 풀이 죽어있어 암에 대한 공포 때문인가 싶어 위로해 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알고 보니 우울증에 빠진 원인은 따로 있었다. 젖먹이 아기가 집에 있는데 따로 나와 혼자 있으니 아기가 보고 싶고 또 걱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집과 병원이 가까운데 가서 돌봐주면 될 것 아니냐고 하니 자신의 몸이 방사선에 오염되었을 것 같아 아기에게 해가 될까 봐 집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br/><br/> 이런 사례는 방사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방사선치료는 치료 순간에만 작용이 일어나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지 치료 장비로부터 벗어나면 몸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방사선 오염이라는 것은 방사능을 가진 물질을 직접 주입하거나 직접 우리 몸에 묻거나 흡입되어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방사선을 쬔다는 것은 방사능을 가진 물질로부터 눈에 안 보이게 빛처럼 나오는 방사선만 이용하는 것이며 그 물질 자체는 새어나오지 않게 단단히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기 엄마는 이제 집에서 통원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고 명랑함을 되찾았다.<br/><br/> “선생님, 머리가 빠집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 암환자나 가족이 항상 물어보는 말이다. 방사선은 국소 요법이므로 치료하는 부위의 피부에만 영향을 준다. 그러니 머리에 방사선 치료를 할 때에만 머리카락이 빠지고 목이나 가슴처럼 머리가 아닌 곳을 치료할 때에는 빠지지 않는다. 다만, 피부 표피세포는 방사선에 약하므로 쉽게 화상을 입는다. 따라서 표피에 가까운 방사선치료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유방이나 목을 치료할 때에는 피부가 상하면 방사선 피부 보호 연고나 크림을 발라 준다. <br/><br/> 항암 화학요법은 몸속으로 들어온 약성분이 전신에 퍼져 암세포를 죽이는 전신요법이므로 성한 머리카락 세포가 상해 머리카락이 빠지고, 위장이 약해져 메스껍고 소화가 안 되며, 골수가 상해 백혈구가 감소한다. 암을 수술로 치료할 때에는 수술 자국이 흉으로 남는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는 자국이 남지도 않고 몸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도 아니므로 장점이 많은 치료 방법이다. <br/><br/> 최근 다양한 방사선 치료 기계들이 개발되고 있다. 방사선 조사면을 조절해 정상조직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환자의 자세 및 호흡에 의한 종양의 움직임 등을 보정하여 치료하는 영상유도 방사선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칼 대신 방사선을 이용한 방사선적 수술이 가능한 사이버나이프 등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한 치료방법 및 질병에 대한 적응증은 다양하므로 의료진과 상담 후 자신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br/><br/>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67.txt

제목: [암과의 동행-희귀암 정보] 악성 골종양, 팔·다리 등 긴 뼈에서 주로 발생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45753  
본문: 골종양은 우리 몸의 뼈에 생기는 종양으로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성 골종양은 뼈를 파괴할 수 있지만 생명에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 반면 악성 골종양은 결합 조직, 연골, 뼈, 혈관과 림프관 등 근골격 조직에 발생한 암으로 이를 흔히 육종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어린이들과 젊은 성인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육종은 우리 몸 206개의 뼈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지만 주로 팔 다리의 긴 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악성 골종양, 팔·다리 등 주로 발생=악성 골종양은 발생하는 원발 부위에 따라 원발성과 전이성으로 구분하는데 근골격 조직에서 발생한 경우 원발성 골종양, 신체의 다른 부위에 생긴 종양이 근골격 조직으로 전이된 종양을 전이성 골종양이라고 한다. 근골격계 종양은 기본적으로 종양 세포가 어떤 세포에서 기원했는지에 따라 분류하는데 악성 골종양의 가장 흔한 종류로는 골육종이 있고, 그 외에 연골에서 발생하는 연골육종, 소아에게 흔한 유잉 육종 등이 있다. 흔히 발생하지 않는 악성 골종양으로는 섬유 육종, 악성 거대 세포종, 척색종 등이 있다.<br/><br/> 2014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보면 2012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22만4177건의 암 가운데 악성 골종양은 남녀를 합쳐 479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0.2%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자 253건, 여자 226건으로 남자가 더 많고, 연령별로는 10대 19.0%, 50대 15.2%, 40대 14.8% 순이었다. 골육종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지나친 뼈의 성장, 선천적인 염색체 이상, 암 유전자, 방사선 노출, 항암제, 골질환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br/> ◇절단 없는 사지 구제술 보편화 추세=악성 골종양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다. 야간 통증, 휴식 중의 간헐적인 통증, 운동 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통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의심할 수 있다. 진단은 원발성 골종양의 경우 원인을 모르는 뼈의 통증이 계속되고 종괴(腫塊)가 만져질 경우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핵의학검사(골 스캔),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진단하며 조직검사로 확진한다. 자칫 진단이 늦어지거나 잘못된 방법의 조직검사로 인해 절단 수술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악성 골종양 환자는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br/><br/> 악성 골종양은 최근 방사선학적인 진단 방법과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의 발달에 따라 치료 결과가 크게 호전되고 있다. 악성 골종양의 치료는 종양의 종류, 크기, 위치, 암의 진행 정도, 환자의 나이, 전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 골연부종양 전문의, 방사선종양학 전문의, 항암제치료 전문의 등이 팀을 이뤄 수술, 방사선, 항암제 등을 조합해 치료한다. 수술 방법도 과거에는 절단술 내지는 관절 이단술(관절에서 절단 또는 분리하는 것) 등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시행되고, 대부분의 경우 사지의 기능을 보존하면서 종양을 적출하는 사지 구제술(보존술)의 비율이 80∼90% 이상을 차지하며 보편화되는 추세다.<br/><br/> 원발성 악성 골종양은 골조직에 림프계가 없어 혈액을 통해 전이가 이뤄지는데 주로 폐나 타 부위 뼈로 전이된다. 5년 생존율은 △골육종 70∼80%(전이 20∼30%) △연골육종 50∼90% △유잉 육종 50∼70%(전이 30% 이하) 등으로 알려져 있다. <br/><br/>박주호 기자 epi0212@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68.txt

제목: [암과의 동행-희귀암 정보] 악성 골종양, 팔·다리 등 긴 뼈에서 주로 발생  
날짜: 20150817  
기자: 박주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41  
본문: 골종양은 우리 몸의 뼈에 생기는 종양으로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성 골종양은 뼈를 파괴할 수 있지만 생명에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 반면 악성 골종양은 결합 조직, 연골, 뼈, 혈관과 림프관 등 근골격 조직에 발생한 암으로 이를 흔히 육종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어린이들과 젊은 성인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육종은 우리 몸 206개의 뼈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지만 주로 팔 다리의 긴 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악성 골종양, 팔·다리 등 주로 발생=악성 골종양은 발생하는 원발 부위에 따라 원발성과 전이성으로 구분하는데 근골격 조직에서 발생한 경우 원발성 골종양, 신체의 다른 부위에 생긴 종양이 근골격 조직으로 전이된 종양을 전이성 골종양이라고 한다. 근골격계 종양은 기본적으로 종양 세포가 어떤 세포에서 기원했는지에 따라 분류하는데 악성 골종양의 가장 흔한 종류로는 골육종이 있고, 그 외에 연골에서 발생하는 연골육종, 소아에게 흔한 유잉 육종 등이 있다. 흔히 발생하지 않는 악성 골종양으로는 섬유 육종, 악성 거대 세포종, 척색종 등이 있다.<br/><br/> 2014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보면 2012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22만4177건의 암 가운데 악성 골종양은 남녀를 합쳐 479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0.2%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자 253건, 여자 226건으로 남자가 더 많고, 연령별로는 10대 19.0%, 50대 15.2%, 40대 14.8% 순이었다. 골육종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지나친 뼈의 성장, 선천적인 염색체 이상, 암 유전자, 방사선 노출, 항암제, 골질환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br/> ◇절단 없는 사지 구제술 보편화 추세=악성 골종양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다. 야간 통증, 휴식 중의 간헐적인 통증, 운동 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통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의심할 수 있다. 진단은 원발성 골종양의 경우 원인을 모르는 뼈의 통증이 계속되고 종괴(腫塊)가 만져질 경우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핵의학검사(골 스캔),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진단하며 조직검사로 확진한다. 자칫 진단이 늦어지거나 잘못된 방법의 조직검사로 인해 절단 수술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악성 골종양 환자는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br/><br/> 악성 골종양은 최근 방사선학적인 진단 방법과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의 발달에 따라 치료 결과가 크게 호전되고 있다. 악성 골종양의 치료는 종양의 종류, 크기, 위치, 암의 진행 정도, 환자의 나이, 전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 골연부종양 전문의, 방사선종양학 전문의, 항암제치료 전문의 등이 팀을 이뤄 수술, 방사선, 항암제 등을 조합해 치료한다. 수술 방법도 과거에는 절단술 내지는 관절 이단술(관절에서 절단 또는 분리하는 것) 등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시행되고, 대부분의 경우 사지의 기능을 보존하면서 종양을 적출하는 사지 구제술(보존술)의 비율이 80∼90% 이상을 차지하며 보편화되는 추세다.<br/><br/> 원발성 악성 골종양은 골조직에 림프계가 없어 혈액을 통해 전이가 이뤄지는데 주로 폐나 타 부위 뼈로 전이된다. 5년 생존율은 △골육종 70∼80%(전이 20∼30%) △연골육종 50∼90% △유잉 육종 50∼70%(전이 30% 이하) 등으로 알려져 있다. <br/><br/>박주호 기자 epi0212@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69.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서울시동부병원 8월 20일 ‘유방암’ 강좌 外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43  
본문: ◇서울시동부병원 20일 ‘유방암’ 강좌=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20일 오후 2시부터 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시민건강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한국 여성들의 암 발병률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동부병원 외과 전문의 조익행 과장이 강연을 펼치고 △유방암의 올바른 이해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 △검진을 통한 유방암의 예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문의: 02-920-9388)<br/><br/><br/><br/>◇암 수술 도중 방사선 치료 가능=강남세브란스병원은 수술 중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IORT 장비를 최근 직장암 환자에게 적용해 성공적으로 시술했다고 밝혔다. IORT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 치료는 지난해 유방암 환자에 이어 두 번째 케이스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대장암센터 백승혁(대장항문외과, 대장암센터장)-이익재(방사선종양학과) 교수팀은 직장암을 앓고 있는 48세 여성환자의 재발 부위를 절제한 후, IORT용 인트라빔 장비를 이용해 약 26분 동안 수술 부위에 직접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를 했다.<br/><br/><br/><br/>◇여의도성모병원 최신 암 유전자 진단장비 도입=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첨단 분자병리 진단장비인 BioView DuetTM Workstation(이하 BioView) 분석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10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이번에 도입된 BioView는 폐암, 유방암, 악성림프종 등의 질환에서 표적항암 치료제사용에 필수적인 유전자 돌연변이(ALK, ROS1, RET, HER2, BCL2 등)를 확인한다. 현재 여의도성모병원 병리과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을 포함한 국내 20여개 대학병원으로부터 연간 1000여건의 검사의뢰를 받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 13종의 돌연변이 검사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br/><br/><br/><br/>◇아바스틴, 1일부터 난소암 치료 급여 적용=한국로슈의 신생 혈관 생성 억제 표적치료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이 8월 1일부터 백금계 저항성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아바스틴은 급여가 적용된 최초 난소암 표적치료제로 백금계 약물에 저항성이 있는(Platinum-resistance)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재발 시 파클리탁셀, 토포테칸 또는 페길화 리포좀 독소루비신(pegylated liposomal doxorubicin)과 병용 투여 시에 적용된다. 한편 아바스틴은 이번 복지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난소암뿐 아니라 자궁경부암 및 직결장암 치료에서도 건강보험급여를 확대 적용받게 됐으며, 자궁경부암의 경우 아시아 최초로 급여를 획득했다.<br/><br/><br/><br/>◇아스트라제네가-이노비오 항암제 개발 협력=아스트라제네카가 이노비오 파마슈티컬스와 항암제 개발과 관련한 제휴를 체결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이노비오의 'INO-3112'의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의 R&D 계열사인 메드이뮨은 INO-3112를 다른 면역치료제와의 병용요법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그 대신 이노비오에 계약금 2750만달러를 지불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7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INO-3112는 킬러 T세포의 반응을 촉진해 자궁경부암의 원인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HPV16과 18에 의해 유발되는 암을 표적으로 하며 현재 자궁경부암과 두경부암을 대상으로 1/2상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70.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서울시동부병원 8월 20일 ‘유방암’ 강좌 外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47527  
본문: ◇서울시동부병원 20일 ‘유방암’ 강좌=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20일 오후 2시부터 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시민건강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한국 여성들의 암 발병률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동부병원 외과 전문의 조익행 과장이 강연을 펼치고 △유방암의 올바른 이해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 △검진을 통한 유방암의 예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문의: 02-920-9388)<br/><br/><br/><br/>◇암 수술 도중 방사선 치료 가능=강남세브란스병원은 수술 중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IORT 장비를 최근 직장암 환자에게 적용해 성공적으로 시술했다고 밝혔다. IORT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 치료는 지난해 유방암 환자에 이어 두 번째 케이스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대장암센터 백승혁(대장항문외과, 대장암센터장)-이익재(방사선종양학과) 교수팀은 직장암을 앓고 있는 48세 여성환자의 재발 부위를 절제한 후, IORT용 인트라빔 장비를 이용해 약 26분 동안 수술 부위에 직접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를 했다.<br/><br/><br/><br/>◇여의도성모병원 최신 암 유전자 진단장비 도입=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첨단 분자병리 진단장비인 BioView DuetTM Workstation(이하 BioView) 분석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10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이번에 도입된 BioView는 폐암, 유방암, 악성림프종 등의 질환에서 표적항암 치료제사용에 필수적인 유전자 돌연변이(ALK, ROS1, RET, HER2, BCL2 등)를 확인한다. 현재 여의도성모병원 병리과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을 포함한 국내 20여개 대학병원으로부터 연간 1000여건의 검사의뢰를 받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 13종의 돌연변이 검사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br/><br/><br/><br/>◇아바스틴, 1일부터 난소암 치료 급여 적용=한국로슈의 신생 혈관 생성 억제 표적치료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이 8월 1일부터 백금계 저항성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아바스틴은 급여가 적용된 최초 난소암 표적치료제로 백금계 약물에 저항성이 있는(Platinum-resistance)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재발 시 파클리탁셀, 토포테칸 또는 페길화 리포좀 독소루비신(pegylated liposomal doxorubicin)과 병용 투여 시에 적용된다. 한편 아바스틴은 이번 복지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난소암뿐 아니라 자궁경부암 및 직결장암 치료에서도 건강보험급여를 확대 적용받게 됐으며, 자궁경부암의 경우 아시아 최초로 급여를 획득했다.<br/><br/><br/><br/>◇아스트라제네가-이노비오 항암제 개발 협력=아스트라제네카가 이노비오 파마슈티컬스와 항암제 개발과 관련한 제휴를 체결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이노비오의 'INO-3112'의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의 R&D 계열사인 메드이뮨은 INO-3112를 다른 면역치료제와의 병용요법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그 대신 이노비오에 계약금 2750만달러를 지불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7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INO-3112는 킬러 T세포의 반응을 촉진해 자궁경부암의 원인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HPV16과 18에 의해 유발되는 암을 표적으로 하며 현재 자궁경부암과 두경부암을 대상으로 1/2상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71.txt

제목: [건강 나침반] 암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갱신·비갱신형 장단점 따져보고 가입 전 세부내역 반드시 확인을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54541  
본문: 우리나라는 암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암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주요사망 원인 1위다. 이러한 암을 보장하는 암보험은 이미 필수보험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가입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암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한다.<br/><br/> 먼저 암에 대한 보장은 면책기간(90일)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계약일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암보험은 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특히 암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됐다가 2년 이내에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기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갱신계약 및 어린이보험 등 일부에서는 면책기간 없이 보장을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br/><br/> 또한 암 진단확정 시점에 따라 회사마다 보험금이 다르다. 암 진단일이 계약일부터 1∼2년 미만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상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br/><br/> 암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암에 비해 치료비용이 저렴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과 암 이외에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에 대해서는 암보험금의 10∼20% 정도 수준으로 보장하는 암보험도 있다. 마찬가지로 소액치료암으로 분류되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의 암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 암진단 담보도 있으니 가입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br/><br/> 암보험에는 암진단 이외에 암수술, 암직접치료입원일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등 암 관련 다양한 특약이 있다. 회사마다 유사한 형태지만 보험금 지급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 전 담당 설계사를 통한 세부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br/><br/>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갱신·비갱신형을 잘 판단해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갱신형 상품은 가입 시점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 갱신시점의 위험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한다. 반대로 비갱신형 상품은 정해진 납입기간 동안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한다. 어떠한 형태가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 잘 고민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br/><br/>정봉환 메리츠화재 장기보험상품파트 차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72.txt

제목: [건강 나침반] 암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갱신·비갱신형 장단점 따져보고 가입 전 세부내역 반드시 확인을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54  
본문: 우리나라는 암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암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주요사망 원인 1위다. 이러한 암을 보장하는 암보험은 이미 필수보험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가입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암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한다.<br/><br/> 먼저 암에 대한 보장은 면책기간(90일)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계약일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암보험은 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특히 암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됐다가 2년 이내에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기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갱신계약 및 어린이보험 등 일부에서는 면책기간 없이 보장을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br/><br/> 또한 암 진단확정 시점에 따라 회사마다 보험금이 다르다. 암 진단일이 계약일부터 1∼2년 미만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상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br/><br/> 암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암에 비해 치료비용이 저렴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과 암 이외에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에 대해서는 암보험금의 10∼20% 정도 수준으로 보장하는 암보험도 있다. 마찬가지로 소액치료암으로 분류되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의 암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 암진단 담보도 있으니 가입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br/><br/> 암보험에는 암진단 이외에 암수술, 암직접치료입원일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등 암 관련 다양한 특약이 있다. 회사마다 유사한 형태지만 보험금 지급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 전 담당 설계사를 통한 세부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br/><br/>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갱신·비갱신형을 잘 판단해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갱신형 상품은 가입 시점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 갱신시점의 위험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한다. 반대로 비갱신형 상품은 정해진 납입기간 동안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한다. 어떠한 형태가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 잘 고민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br/><br/>정봉환 메리츠화재 장기보험상품파트 차장<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73.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 일상 복귀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재발 예방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42  
본문: 암환자가 수술과 항암치료(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 또는 그 이후에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암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는 암을 극복하고 재발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암환자의 일상생활 관리에 대해 알아본다.<br/><br/> ◇운동=가벼운 운동은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을 준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아침저녁 일정하게 30분에서 1시간씩 가볍게 걷는 것이 좋다. 수영이나 자전거, 등산, 골프 등의 가벼운 운동을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고, 3개월 이후에는 본인이 즐기던 어떤 운동도 할 수 있다. 다만 수술 후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중인 경우에는 가벼운 산책 이외의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br/><br/> ◇성생활=수술 후 체력이 회복되면 부부간의 성생활은 정상적으로 갖는 것이 좋다. 수술 후 규칙적인 생활과 금주, 금연을 실천하고 식생활을 조심스럽게 하다 보면 오히려 수술 전 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가족과 부부 간에 같이하는 시간도 늘고, 부부 간의 관계도 더욱 좋아질 수 있다. 암은 신체 접촉에 의해 옮는 병이 아니다. 가족 간의 애정 표현을 많이 하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과 면역 능력에도 도움이 된다.<br/><br/> ◇임신과 출산=젊은 나이의 여성이 암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 후 출산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항암제를 사용하면 난자에 영향을 주거나 생식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월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치료가 종료된 후 월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난소에서 배란이 되는 것이므로 임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방암 같은 경우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에 관련된 호르몬 분비가 암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암이 완치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신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태어날 때 평생 배란할 난자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지만 남성의 경우 정자는 새로 생성된다. 남성의 경우 정자 수와 기능이 정상적이면 임신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몸이 거의 회복된 이후인 수술 후 6개월 정도 이후에 임신을 고려해야 한다.<br/><br/> 암의 진행 정도가 심해 수술 후 항암제치료나 방사선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몸의 상태가 계속 허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술 전 수정란 동결 보관이나, 정자 동결 보관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임신을 염두에 두는 경우 수술 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리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임신인 출산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 수술 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은 필수다.<br/><br/> ◇사회·직업생활=서서히 활동 시간을 늘려 나간다. 치료 후 1개월 정도가 되고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면 직장이나 평소 일하던 장소에서 일을 시작한다. 업무량을 조절해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심한 육체적 활동을 요하는 일은 3개월 이후에 시작한다. 물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74.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 일상 복귀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재발 예방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46106  
본문: 암환자가 수술과 항암치료(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 또는 그 이후에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암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는 암을 극복하고 재발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암환자의 일상생활 관리에 대해 알아본다.<br/><br/> ◇운동=가벼운 운동은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을 준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아침저녁 일정하게 30분에서 1시간씩 가볍게 걷는 것이 좋다. 수영이나 자전거, 등산, 골프 등의 가벼운 운동을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고, 3개월 이후에는 본인이 즐기던 어떤 운동도 할 수 있다. 다만 수술 후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중인 경우에는 가벼운 산책 이외의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br/><br/> ◇성생활=수술 후 체력이 회복되면 부부간의 성생활은 정상적으로 갖는 것이 좋다. 수술 후 규칙적인 생활과 금주, 금연을 실천하고 식생활을 조심스럽게 하다 보면 오히려 수술 전 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가족과 부부 간에 같이하는 시간도 늘고, 부부 간의 관계도 더욱 좋아질 수 있다. 암은 신체 접촉에 의해 옮는 병이 아니다. 가족 간의 애정 표현을 많이 하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과 면역 능력에도 도움이 된다.<br/><br/> ◇임신과 출산=젊은 나이의 여성이 암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 후 출산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항암제를 사용하면 난자에 영향을 주거나 생식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월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치료가 종료된 후 월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난소에서 배란이 되는 것이므로 임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방암 같은 경우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에 관련된 호르몬 분비가 암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암이 완치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신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태어날 때 평생 배란할 난자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지만 남성의 경우 정자는 새로 생성된다. 남성의 경우 정자 수와 기능이 정상적이면 임신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몸이 거의 회복된 이후인 수술 후 6개월 정도 이후에 임신을 고려해야 한다.<br/><br/> 암의 진행 정도가 심해 수술 후 항암제치료나 방사선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몸의 상태가 계속 허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술 전 수정란 동결 보관이나, 정자 동결 보관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임신을 염두에 두는 경우 수술 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리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임신인 출산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 수술 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은 필수다.<br/><br/> ◇사회·직업생활=서서히 활동 시간을 늘려 나간다. 치료 후 1개월 정도가 되고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면 직장이나 평소 일하던 장소에서 일을 시작한다. 업무량을 조절해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심한 육체적 활동을 요하는 일은 3개월 이후에 시작한다. 물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75.txt

제목: [암과의 동행] 노인 암환자 다학제 진료 큰 성과… 분당서울대병원, 최선의 치료법 택해 기간도 단축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41544  
본문: 오는 2040년부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전체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암환자 역시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암정복 과제로 분당서울대병원 김지현 교수팀이 수행한 ‘국내 노인 암환자 현황 및 실태’에 따르면 암환자의 상당수가 65세 이상이다. 특히 노인층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은 ‘암’이다. 위암, 대장암, 폐암, 식도암에서는 이미 노인 암환자의 비율이 각 46%, 50%, 58%, 64%에 달한다.<br/><br/> 이렇듯 노인암 치료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으나, 젊은 암환자와 구분되는 노인암만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암치료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항암제 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 등은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치료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br/><br/> 고령화시대 노년층 암환자만을 위한 맞춤형 치료에 적극 나선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노인암 다학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다학제 진료란 서로 다른 전문 진료 과목 전문의들이 동시에 한 진료실에 모여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상의 진단과 치료계획을 도출할 수 있고, 환자 병기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의료진들은 혈액종양내과(김지현, 김진원), 노인병내과(김광일), 외과(오흥권), 방사선종양학과(송창훈)와 영상의학과(김영훈, 이경호, 박지훈, 이윤진)로 구성된다.<br/><br/> 김진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노인암환자는 암 외에 여러 질환이 같이 있거나 노쇠가 동반돼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고 치료 수단 및 방법을 정하는데 힘든 점이 있다. 따라서 노인 암환자에서 치료 결정 및 관리를 위해 노인 다학제 진료는 아주 효과적이고 유용하다”고 말했다. 보통 다학제 진료의 경우 여러 명의 의사가 합심해 치료에 임하다 보니 비용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최근 다학제 진료 수가가 신설됐고, 중증의 암환자들은 보험급여가 적용돼 치료비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br/><br/> 실제 이 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은 김수미(79·가명)씨는 수술을 받기 전 머리가 모두 빠질 정도로 독하다는 항암 치료에 대한 부담감, 수술 후 일상생활의 가능 여부 등으로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의료진은 김씨에게 ‘노인암 다학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료를 권했다. 예약된 날 다학제 진료실에 들어가는 김씨를 일곱 명의 전문의가 반갑게 맞이했다. 복강경 수술에 대한 질문은 외과 의사가, 수술 후 항암 치료는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방사선치료의 적용에 대한 내용은 방사선종양학과 의사가 자세히 설명했고, 영상검사 소견에 대해서는 영상의학과 의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용기를 내 수술을 받은 김씨는 씩씩하게 항암치료를 받고 일상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진원 교수는 “다학제 진료는 노인의 특성과 암 진행 상태를 고려한 개인형 맞춤치료를 실현하고 노인 암환자의 삶의 질 및 생존을 증가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덜 받거나 혹은 과잉 진료를 받으시는 많은 노인 암환자분들이 다학제 노인암 진료를 통해 적정 진료와 최선의 치료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76.txt

제목: [암과의 동행] 노인 암환자 다학제 진료 큰 성과… 분당서울대병원, 최선의 치료법 택해 기간도 단축  
날짜: 20150817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35  
본문: 오는 2040년부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전체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암환자 역시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암정복 과제로 분당서울대병원 김지현 교수팀이 수행한 ‘국내 노인 암환자 현황 및 실태’에 따르면 암환자의 상당수가 65세 이상이다. 특히 노인층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은 ‘암’이다. 위암, 대장암, 폐암, 식도암에서는 이미 노인 암환자의 비율이 각 46%, 50%, 58%, 64%에 달한다.<br/><br/> 이렇듯 노인암 치료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으나, 젊은 암환자와 구분되는 노인암만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암치료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항암제 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 등은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치료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br/><br/> 고령화시대 노년층 암환자만을 위한 맞춤형 치료에 적극 나선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노인암 다학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다학제 진료란 서로 다른 전문 진료 과목 전문의들이 동시에 한 진료실에 모여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상의 진단과 치료계획을 도출할 수 있고, 환자 병기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의료진들은 혈액종양내과(김지현, 김진원), 노인병내과(김광일), 외과(오흥권), 방사선종양학과(송창훈)와 영상의학과(김영훈, 이경호, 박지훈, 이윤진)로 구성된다.<br/><br/> 김진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노인암환자는 암 외에 여러 질환이 같이 있거나 노쇠가 동반돼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고 치료 수단 및 방법을 정하는데 힘든 점이 있다. 따라서 노인 암환자에서 치료 결정 및 관리를 위해 노인 다학제 진료는 아주 효과적이고 유용하다”고 말했다. 보통 다학제 진료의 경우 여러 명의 의사가 합심해 치료에 임하다 보니 비용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최근 다학제 진료 수가가 신설됐고, 중증의 암환자들은 보험급여가 적용돼 치료비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br/><br/> 실제 이 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은 김수미(79·가명)씨는 수술을 받기 전 머리가 모두 빠질 정도로 독하다는 항암 치료에 대한 부담감, 수술 후 일상생활의 가능 여부 등으로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의료진은 김씨에게 ‘노인암 다학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료를 권했다. 예약된 날 다학제 진료실에 들어가는 김씨를 일곱 명의 전문의가 반갑게 맞이했다. 복강경 수술에 대한 질문은 외과 의사가, 수술 후 항암 치료는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방사선치료의 적용에 대한 내용은 방사선종양학과 의사가 자세히 설명했고, 영상검사 소견에 대해서는 영상의학과 의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용기를 내 수술을 받은 김씨는 씩씩하게 항암치료를 받고 일상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진원 교수는 “다학제 진료는 노인의 특성과 암 진행 상태를 고려한 개인형 맞춤치료를 실현하고 노인 암환자의 삶의 질 및 생존을 증가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덜 받거나 혹은 과잉 진료를 받으시는 많은 노인 암환자분들이 다학제 노인암 진료를 통해 적정 진료와 최선의 치료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77.txt

제목: [암과의 동행-암과 영양] 폐암환자, 적정 체중 유지해야 부작용 극복  
날짜: 20150817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40  
본문: 65세 이상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진단되는 암은 무엇일까. 바로 폐암이다. 중앙암등록본부의 2012년 암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남성 암환자의 주된 원인은 폐암이었다.<br/><br/> 이처럼 폐암은 고령에서 많이 진단되는 암이다. 그만큼 완치로 가는 그 길이 고될 수밖에 없다. 고령의 암환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 당뇨, 신부전, 폐 기능 저하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암 치료를 주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br/><br/> 폐암의 근치적 방법은 종양이 자리한 폐를 잘라내는 것이다. 폐 일부를 잘라내기 때문에 남은 폐가 제 기능을 해 주어야 환자는 예전처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고령 환자의 경우 본래 폐 기능이 좋지 않았거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폐 절제가 신중해진다. 폐는 간과 달리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이라고 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 최근 폐암 분야의 표적항암제 개발이 두드러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항암효과는 극대화한 신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br/><br/>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변민광 교수는 “<span class='quot0'>고령의 폐암환자라도 암조직을 이용한 유전자검사를 통해 돌연변이 여부가 확인되면 그에 맞는 항암제를 선택해 치료해 나갈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만성질환이나 고령이란 나이가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br/><br/> 폐암환자에서 표적항암제 사용이 많아지고 있지만 항암치료를 둘러싸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오심, 구토, 고통스런 손발 저림 등이 그것이다. 고령의 암환자는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부작용이 두려워 항암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변 교수는 “사용하는 약제에 따라, 개인의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이 다르다. 어떤 암환자는 오심·구토를 호소하지만 어떤 암환자는 부작용을 별로 겪지 않을 수도 있다.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 또 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치료가 들어간다.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잡아가면서 꾸준히 관리한다는 치료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br/><br/> 변 교수는 평소 식사를 잘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암환자일수록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잘 견딘다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환자의 영양관리는 치료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식사를 충분히 하는 것은 심각한 체중감소를 막고 피부와 머리털, 근육, 손상된 장기를 회복하고 형성되는 것을 촉진한다</span>”고 설명했다.<br/><br/> 그러나 암환자가 잘 먹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변 교수는 영양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그는 “암환자의 체중감소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어느 선을 넘으면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 가능한 한 빨리 영양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식욕이 없어 밥 먹는 것이 힘들다면 소량씩 자주 먹는 고열량, 고단백 식사를 추천한다. 밀크셰이크, 꿀차, 푸딩 등이 좋다. 구토나 메스꺼움을 느낀다면 수분이 많고 향이 강한 음식을 피하고 식사 후 바로 움직이거나 눕지 않도록 한다. 설사를 한다면 가스를 발생시키는 콩, 양배추, 브로콜리 식단을 피한다. 위와 같은 생활습관, 식단 조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약물치료로 개선할 수 있다. 식욕은 메게스테롤과 같은 식욕촉진제를 사용해볼 수 있고 구토는 항구토제로 다스릴 수 있다”고 말했다.<br/><br/> 변 교수는 폐암을 진단받고 상심해 있는 고령의 암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료의 희망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암환자 곁에는 그들의 완치를 함께 바라는 주치의가 있다.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꾸준히 관리해 나간다면 완치까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78.txt

제목: [암과의 동행] 3세대 치료제 면역항암제, 폐암 치료 가능성 높다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50493  
본문: 중동 국적의 흑색종 환자(81)는 종양이 피부, 겨드랑이 림프구에 이어 뇌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암이 급속도로 전이된 후 환자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만 있는 상태였다. 기존 항암제로는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었기에 의사는 면역항암요법을 사용했다. 면역항암제 투여 3∼4주 만에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 건강하게 밥을 먹고 움직일 수 있게 됐다. <br/><br/> 다니엘 찬 싱가포르 국립대 종양학과 박사는 ‘면역항암제 임상연구 사례’ 발표를 통해 “<span class='quot0'>환자에게서 면역항암제를 사용한 지 3∼4주 만에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항암제 투여 후 약간의 발진은 있었으나 구토도 없으며 백혈구 수치도 정상이었다</span>”며 면역항암요법의 획기적 효능에 대해 말했다. <br/><br/> 지난달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는 2015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에서 베스트논문(Best of ASCO)으로 선정된 연구결과들을 발표하는 순회학회가 열렸다. 이번 학회에서는 아태지역 종양 전문의들이 모여 차세대 항암요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면역항암제’의 주요 임상결과들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면역항암제가 흑색종에 이어 사망률이 높은 폐암의 치료 가능성까지 넓혔다는 임상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br/><br/> ◇면역 항암제 기전 논의 활발=학회에서 의료진들은 ‘면역항암제’가 기존 항암제를 넘어서는 차세대 항암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2세대 표적항암제는 특정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획기적인 치료제이지만, 내성 위험과 적용 가능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의학계가 면역항암제를 3세대 치료제로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체내 면역체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암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암에서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면역항암제를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해 신속허가를 했다. <br/><br/> 그렇다면 면역항암제가 표적항암제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마이클 보이어 호주 시드니대학교 의대 박사는 “아직까지는 면역항암제가 단독요법으로 표적항암제를 완전히 대체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현재까지 돌연변이된 특정유전자를 타킷으로 한 표적항암제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다만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를 함께 투여하는 임상이 진행 중이며, 결과가 좋게 나오는 만큼 두 치료제를 병용하는 요법을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면역항암제 치료효과가 높은 만큼 자가면역질환 등의 부작용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보이어 박사는 “<span class='quot0'>면역 기전과 관련된 부작용은 면역항암제 사용에 있어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현재 항 PD-1 면역항암제의 경우 용량을 조절함으로써 부작용 위험을 낮출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 ◇페암 치료 주목=현재까지 면역항암제는 흑색종 치료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폐암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에 기반해 활발한 임상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임상 연구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연구는 폐암치료에 관한 연구다. 그중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펨브롤리주맙을 이용한 임상결과가 발표됐다, 비소세포폐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병용요법 임상연구에서는 전체 환자 중 59%가 종양 크기의 감소를 보여, 비소세포폐암에 있어서 펨브롤리주맙의 가능성이 주목을 받았다.<br/><br/> 마이클 보이어 박사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PD-1 면역항암제의 임상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이 약제가 ‘마법(Magic)’과도 같다는 것이다. 경과가 좋은 환자들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적 약물이다. 물론 결과가 좋지 않는 환자도 있다. 따라서 최적의 치료 결과를 보이는 환자군을 선별해 치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면역항암제인 펨브롤리주맙의 경우 임상을 통해 좋은 반응률과 지속성을 보여 암환자를 치료하는 패턴을 변화시켰다는 측면에서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이미 흑색종뿐 아니라 폐암 등에서도 입증됐다. 미국에 이어 호주 정부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정부에서도 면역 항암제의 혁신성을 인정하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빠르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장윤형 기자<br/><br/>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79.txt

제목: [암과의 동행] 3세대 치료제 면역항암제, 폐암 치료 가능성 높다  
날짜: 20150817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48  
본문: 중동 국적의 흑색종 환자(81)는 종양이 피부, 겨드랑이 림프구에 이어 뇌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암이 급속도로 전이된 후 환자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만 있는 상태였다. 기존 항암제로는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었기에 의사는 면역항암요법을 사용했다. 면역항암제 투여 3∼4주 만에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 건강하게 밥을 먹고 움직일 수 있게 됐다. <br/><br/> 다니엘 찬 싱가포르 국립대 종양학과 박사는 ‘면역항암제 임상연구 사례’ 발표를 통해 “<span class='quot0'>환자에게서 면역항암제를 사용한 지 3∼4주 만에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항암제 투여 후 약간의 발진은 있었으나 구토도 없으며 백혈구 수치도 정상이었다</span>”며 면역항암요법의 획기적 효능에 대해 말했다. <br/><br/> 지난달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는 2015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에서 베스트논문(Best of ASCO)으로 선정된 연구결과들을 발표하는 순회학회가 열렸다. 이번 학회에서는 아태지역 종양 전문의들이 모여 차세대 항암요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면역항암제’의 주요 임상결과들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면역항암제가 흑색종에 이어 사망률이 높은 폐암의 치료 가능성까지 넓혔다는 임상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br/><br/> ◇면역 항암제 기전 논의 활발=학회에서 의료진들은 ‘면역항암제’가 기존 항암제를 넘어서는 차세대 항암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2세대 표적항암제는 특정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획기적인 치료제이지만, 내성 위험과 적용 가능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의학계가 면역항암제를 3세대 치료제로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체내 면역체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암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암에서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면역항암제를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해 신속허가를 했다. <br/><br/> 그렇다면 면역항암제가 표적항암제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마이클 보이어 호주 시드니대학교 의대 박사는 “아직까지는 면역항암제가 단독요법으로 표적항암제를 완전히 대체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현재까지 돌연변이된 특정유전자를 타킷으로 한 표적항암제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다만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를 함께 투여하는 임상이 진행 중이며, 결과가 좋게 나오는 만큼 두 치료제를 병용하는 요법을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면역항암제 치료효과가 높은 만큼 자가면역질환 등의 부작용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보이어 박사는 “<span class='quot0'>면역 기전과 관련된 부작용은 면역항암제 사용에 있어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현재 항 PD-1 면역항암제의 경우 용량을 조절함으로써 부작용 위험을 낮출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 ◇페암 치료 주목=현재까지 면역항암제는 흑색종 치료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폐암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에 기반해 활발한 임상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임상 연구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연구는 폐암치료에 관한 연구다. 그중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펨브롤리주맙을 이용한 임상결과가 발표됐다, 비소세포폐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병용요법 임상연구에서는 전체 환자 중 59%가 종양 크기의 감소를 보여, 비소세포폐암에 있어서 펨브롤리주맙의 가능성이 주목을 받았다.<br/><br/> 마이클 보이어 박사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PD-1 면역항암제의 임상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이 약제가 ‘마법(Magic)’과도 같다는 것이다. 경과가 좋은 환자들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적 약물이다. 물론 결과가 좋지 않는 환자도 있다. 따라서 최적의 치료 결과를 보이는 환자군을 선별해 치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면역항암제인 펨브롤리주맙의 경우 임상을 통해 좋은 반응률과 지속성을 보여 암환자를 치료하는 패턴을 변화시켰다는 측면에서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이미 흑색종뿐 아니라 폐암 등에서도 입증됐다. 미국에 이어 호주 정부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정부에서도 면역 항암제의 혁신성을 인정하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빠르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장윤형 기자<br/><br/> vitamin@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80.txt

제목: [암과의 동행-완치를 향한 위대한 도전] 당신은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56  
본문: 30여 년 가까이 진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직업을 가진 환자들을 만나게 된다. 직업의 종류를 막론하고 간암이라는 위중한 질환 앞에서도 생업을 포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암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에 본인보다 가족의 생계를 더 걱정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br/><br/> 50대의 남성 환자가 소화불량 증상으로 내원했다. B형 간염바이러스를 갖고 있었고 10cm 가량의 간 종양이 발견됐으며, 검사 결과 2기의 간암으로 확진됐다.<br/><br/> 환자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노부모와 아직 학생인 자식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다. 부인도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환자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치료 후 생업에 얼마나 빨리 복귀할 수 있는지를 재차 물었고, 최선의 치료방법을 찾아보자고 위로해주었다.<br/><br/> 환자에게 수술을 권유했으나 수술에 따르는 고통과 후유증을 걱정해 차선책으로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해 치료했다. 경동맥화학색전술은 간의 악성종양에 혈액과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간동맥)을 찾아 항암제와 색전물질을 주입한 후 혈관을 막아 종양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이다. <br/><br/> 환자는 치료 후 생업에 복귀했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위해 내원했는데, 1년 후 폐로 다시 전이되어 5㎜ 가량의 작은 암 결절이 양쪽 폐에서 한 개씩 발견됐다. 이런 경우 흔히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데 환자는 사이버나이프라는 첨단 방사선 치료장비로 성공적으로 치료됐다. <br/><br/> 방사선 치료 후 1년이 지나 치료했던 폐전이 결절들이 15㎜ 정도로 커진 것이 발견되어 다시 방사선 치료를 했으며 치료 후 암 결절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2년 후에 암 결절이 4㎝ 정도로 다시 커졌고, 방사선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술로 제거해 현재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br/><br/> 의료진과 환자는 정기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마다 긴장하게 되는데, 이 환자는 “<span class='quot0'>수술하고 5년 동안 세 번이나 재발했지만, 식구들의 생계가 저한테 달려있어 앞으로 또 재발한다고 해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span>”라고 하며 가장으로서의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br/><br/> 간암은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거나 만성적인 음주로 간이 상하거나 지방간이 심한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이런 사람들이 간암에 걸리기 쉬운 고위험군이며, 간단한 검진으로 자신의 고위험군 해당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간암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초기에 간암을 발견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40세가 넘으면 정기검진을 꼭 받아야 하고, 간암의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검진을 받아보아야 한다. <br/><br/> 간은 침묵의 장기로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 환자들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까지도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불편한 증상을 느낄 정도면 간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소 병원을 자주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br/><br/>한철주 원자력병원 간암센터장<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81.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바이오시밀러] 복제약 ‘바이오시밀러’는 안전성이 관건  
날짜: 20150817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49  
본문: 암환자에게 항암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암이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환자 생명연장에 기여한다. 하지만 항암제에도 복제약이 있다는 것을 아는 환자들은 많지 않다.<br/><br/>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항암제 복제약을 먹어도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항체의약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효능을 갖는 복제약을 일컫는다. 보통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을 가진 약이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제들보다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면밀해야 한다. 독성이 조금만 더 강하게 나타나도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제와 비교 동등성에 대한 자료뿐 아니라 안전성 자료를 더욱 엄격히 심의해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셀트리온의 ‘허쥬마’의 경우 충분한 안전성 데이터를 관찰하기 위해 3상 임상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서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br/><br/> 암은 치료결과에 따라 사람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복제약 사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암환자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치료제로 치료받지 않고 싶어하지 않는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오리지널약제와 동일한 조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상참여 환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개발회사들이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성공할 수 있다. 개발에 뛰어든 회사 중 이미 중도에 개발을 포기한 곳도 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 테바가 스위스제약사 론자와 함께 개발하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TL-011)는 성과가 없이 종료됐으며 삼성이 2012년 2월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SAIT 101’과 ‘리툭산’의 글로벌 비교 임상시험에 착수했으나 1상 임상을 마치고 개발을 중단한 바 있다. 한화케미칼 역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철수를 선언했다. 세계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의 제네릭 사업부 산도스가 개발하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는 2011년 시작한 3상 임상을 아직도 끝맺지 못하고 있다.<br/><br/>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서도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는 다른 질환 영역보다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일례로 항암제 허셉틴의 경우 발매 초기 7000만원에 달하는 비싼 약가 때문에 환자들에게 약값 부담이 컸다. 영국에서는 2006년 보험급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도중 약 투여를 기다리던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높은 약가 때문에 항체의약품 항암제의 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바이오시밀러가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다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바이오시밀러라는 새로운 영역의 약물이 오리지널 항암제보다 효능과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때 의사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한편, 화이자, 로슈 등 오리지널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바이오시밀러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널리 쓰일지도 눈여겨 볼 일이다. 장윤형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82.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바이오시밀러] 복제약 ‘바이오시밀러’는 안전성이 관건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51100  
본문: 암환자에게 항암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암이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환자 생명연장에 기여한다. 하지만 항암제에도 복제약이 있다는 것을 아는 환자들은 많지 않다.<br/><br/>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항암제 복제약을 먹어도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항체의약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효능을 갖는 복제약을 일컫는다. 보통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을 가진 약이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제들보다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면밀해야 한다. 독성이 조금만 더 강하게 나타나도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제와 비교 동등성에 대한 자료뿐 아니라 안전성 자료를 더욱 엄격히 심의해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셀트리온의 ‘허쥬마’의 경우 충분한 안전성 데이터를 관찰하기 위해 3상 임상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서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br/><br/> 암은 치료결과에 따라 사람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복제약 사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암환자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치료제로 치료받지 않고 싶어하지 않는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오리지널약제와 동일한 조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상참여 환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개발회사들이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성공할 수 있다. 개발에 뛰어든 회사 중 이미 중도에 개발을 포기한 곳도 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 테바가 스위스제약사 론자와 함께 개발하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TL-011)는 성과가 없이 종료됐으며 삼성이 2012년 2월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SAIT 101’과 ‘리툭산’의 글로벌 비교 임상시험에 착수했으나 1상 임상을 마치고 개발을 중단한 바 있다. 한화케미칼 역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철수를 선언했다. 세계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의 제네릭 사업부 산도스가 개발하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는 2011년 시작한 3상 임상을 아직도 끝맺지 못하고 있다.<br/><br/>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서도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는 다른 질환 영역보다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일례로 항암제 허셉틴의 경우 발매 초기 7000만원에 달하는 비싼 약가 때문에 환자들에게 약값 부담이 컸다. 영국에서는 2006년 보험급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도중 약 투여를 기다리던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높은 약가 때문에 항체의약품 항암제의 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바이오시밀러가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다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바이오시밀러라는 새로운 영역의 약물이 오리지널 항암제보다 효능과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때 의사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한편, 화이자, 로슈 등 오리지널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바이오시밀러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널리 쓰일지도 눈여겨 볼 일이다. 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83.txt

제목: [암과의 동행]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그 후… 대기자 늘어 일부 병목 현상, 비적용 말기환자 박탈감 심화  
날짜: 20150817  
기자: 박주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37  
본문: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은 크게 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는 지적이다.<br/><br/>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달에 수백만원 이상 들던 환자 부담이 수십만원 수준으로 약 70∼80%가량 줄어들게 됐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의료병동에 23일간 입원한 뒤 임종을 맞을 경우 전체 진료비 681만8596원 중 43만7035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br/><br/> ◇현장 긍정 평가…문의 늘고 인식 개선 효과까지=시행 후 약 한달이 지난 현재, 일단 현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인식 개선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br/><br/>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과장은 “그전에는 호스피스에 대한 문의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 들어 문의가 부쩍 늘었다. 호스피스는 치료를 포기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그동안 밖으로 말을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됐지만 이번을 계기로 이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br/><br/>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문의가 늘고 이용 환자도 함께 증가하면서 벌써부터 일부 병원에서는 대기환자가 느는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말기 암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이 7월 현재 전국 총 60개 기관, 1009병상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지정신청이 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르면 오는 10월쯤 집에서도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 ◇인프라·간병인준비 부족은 문제…전체 말기 환자로 확대해야=완화의료병동도우미(간병인)에 대한 준비 없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건보 적용이 급작스럽게 이뤄지면서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 60개 완화의료 전문기관 중 간병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곳은 대구의료원이 유일하다. 실질적인 혜택이 반감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br/><br/> 배현석 대구의료원 과장(가정의학과)은 “<span class='quot1'>항암 치료를 받던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호스피스를 이용하던 환자라면 건보 적용 전후 부담에서 큰 차이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실질적인 차이는 간병 서비스에서 발생하는데 기존 하루 4만∼8만원선이던 간병비 부담이 3800원으로 크게 줄면서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 여기에 말기 암환자의 완화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다보니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다른 말기 환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문제다. 한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완화의료에 대한 건보 적용이 암환자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어 다른 말기 환자들은 연명치료 등으로 아직도 큰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웰다잉이 목적이라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br/>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를 통해 완화의료병동도우미 교육과정을 개설, 오는 20일 교육과정 설명회를 거쳐 서울, 대전, 대구를 시작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체 말기 질환자 대상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법’과 ‘연명 의료에 관련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통과 후 여건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r/><br/>박주호 기자 epi0212@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84.txt

제목: [암과의 동행-전립선암] 환자 기대수명·전신상태별 맞춤 치료… 고대안산병원 박재영 교수  
날짜: 20150817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32  
본문: 전립선암은 2012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와 식생활의 변화로 전립선암은 2012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 4위를 기록했다. 5위가 비교적 잘 알려진 간암인 점으로 미뤄 볼 때 전립선암은 더 이상 외국의 병이 아니다.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남성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br/><br/> ◇전립선암 검진=전립선암 검진은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항문으로 손을 넣어 전립선을 만져보는 촉진은 혈액검사(PSA) 수치가 높거나 가족력, 나이 등을 고려해 고위험군일 때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조직검사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br/><br/> PSA 검사는 전립선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알아보는 검사법이다. 고대안산병원 비뇨기과 박재영 교수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보고 난 후 개운하지 않은 등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를 받게 된다. 단순히 PSA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br/><br/> PSA 수치가 높더라도 실제 암일 확률은 절반 이하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과거에는 PSA 검사에 의존해 조직검사가 이뤄졌지만 실제로 암을 발견할 확률이 절반을 넘지 않고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수검자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높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박 교수는 국내 전립선암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조직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한국인 전립선암 위험도 계산기를 개발했다. <br/><br/> 박 교수는 “환자의 항문으로 손을 넣어 전립선의 조직을 채취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검자의 고통이 수반된다. 또한 대장과 가깝기 때문에 대장균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있어 검진은 고위험군을 가려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진료에 사용하는 전립선암 위험도 계산기는 다섯 가지 위험요인을 따져 조직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전립선암의 악성도에 관계없이 수술적 치료를 권하기도 하지만, 고대안산병원에서는 환자의 기대여명과 전신상태를 고려하는 최신 진료 지침에 근거해 최선의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br/><br/> ◇전립선암 치료=전립선암을 진단받아 치료계획을 세울 때 병기와 기대여명이 중요하다. 박 교수는 “암이 전립선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암이 전립선 외에 다른 곳에도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남성 호르몬 차단 요법 등이 시행될 수 있다. 또한 병이 매우 초기인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없이 3개월에 한 번씩 PSA 검사를 하면서 병의 추이를 경과 관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br/> 박 교수는 인터뷰 내내 전립선암이 한국 남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정기적인 PSA 검사를 당부했다. 그는 “PSA검사를 통해 조기 전립선암 발견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술과 방사선 치료에 따른 합병증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 과도한 동물성 지방섭취를 줄이는 식생활과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85.txt

제목: [암과의 동행-전립선암] 환자 기대수명·전신상태별 맞춤 치료… 고대안산병원 박재영 교수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38859  
본문: 전립선암은 2012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와 식생활의 변화로 전립선암은 2012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 4위를 기록했다. 5위가 비교적 잘 알려진 간암인 점으로 미뤄 볼 때 전립선암은 더 이상 외국의 병이 아니다.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남성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br/><br/> ◇전립선암 검진=전립선암 검진은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항문으로 손을 넣어 전립선을 만져보는 촉진은 혈액검사(PSA) 수치가 높거나 가족력, 나이 등을 고려해 고위험군일 때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조직검사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br/><br/> PSA 검사는 전립선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알아보는 검사법이다. 고대안산병원 비뇨기과 박재영 교수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보고 난 후 개운하지 않은 등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를 받게 된다. 단순히 PSA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br/><br/> PSA 수치가 높더라도 실제 암일 확률은 절반 이하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과거에는 PSA 검사에 의존해 조직검사가 이뤄졌지만 실제로 암을 발견할 확률이 절반을 넘지 않고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수검자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높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박 교수는 국내 전립선암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조직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한국인 전립선암 위험도 계산기를 개발했다. <br/><br/> 박 교수는 “환자의 항문으로 손을 넣어 전립선의 조직을 채취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검자의 고통이 수반된다. 또한 대장과 가깝기 때문에 대장균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있어 검진은 고위험군을 가려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진료에 사용하는 전립선암 위험도 계산기는 다섯 가지 위험요인을 따져 조직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전립선암의 악성도에 관계없이 수술적 치료를 권하기도 하지만, 고대안산병원에서는 환자의 기대여명과 전신상태를 고려하는 최신 진료 지침에 근거해 최선의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br/><br/> ◇전립선암 치료=전립선암을 진단받아 치료계획을 세울 때 병기와 기대여명이 중요하다. 박 교수는 “암이 전립선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암이 전립선 외에 다른 곳에도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남성 호르몬 차단 요법 등이 시행될 수 있다. 또한 병이 매우 초기인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없이 3개월에 한 번씩 PSA 검사를 하면서 병의 추이를 경과 관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br/> 박 교수는 인터뷰 내내 전립선암이 한국 남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정기적인 PSA 검사를 당부했다. 그는 “PSA검사를 통해 조기 전립선암 발견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술과 방사선 치료에 따른 합병증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 과도한 동물성 지방섭취를 줄이는 식생활과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86.txt

제목: [알츠하이머와의 전쟁] “증상 진행속도 1/3 감소” 미국 신약개발 큰 진전… MSD 예방약은 임상 돌입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48904  
본문: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 있다. 바로 ‘치매’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인 불명의 치료제도 없는 ‘알츠하이머’는 고령층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질환이다.<br/><br/>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지만, 일반적으로 기억력 감퇴나 지적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치매와는 다른 질환이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뇌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대사 과정에서 ‘독성물질’을 생성해 뇌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베타아밀로이드(beta-amyloid)라는 작은 단백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뇌에 침착되며 뇌세포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발병의 핵심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br/><br/> 알츠하이머는 한 번 발병하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상흔을 남기는 질병이다. 알츠하이머가 발병하면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뇌 조직이 줄어들어 뇌 기능이 떨어진다. 초기에는 기억력 장애로 시작해 계산력과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지만, 이후 이상 행동, 심할 경우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 또한 기억 상실로 인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 <br/><br/> 한국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로 최근 5년간 치매환자는 약 81%, 진료비는 약 120% 증가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암과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모두 합한 비용을 초과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치료제 개발도 시급하다.<br/><br/> 치료제가 없는 알츠하이머 질환은 제약사들에게는 정복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제약회사 일라이릴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솔라네주맙’성분의 이 신약은 뇌세포를 파괴해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알츠하이머의 진행 속도를 3분의 1가량 줄이는 약물이다. 현재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약 4400만명의 치매환자에게 희망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국내 바이오 기업인 메디포스트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조성물을 개발, 국내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br/><br/> 알츠하이머는 진행성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어 예후가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한 약물 개발에 나선 제약사도 있다. 다국적 제약사인 엠에스디(MSD)는 알츠하이머 예방약을 개발하고 현재 국내에서도 임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에스디(MSD)가 개발 중인 ‘MK8931-019(코드명)’ 의약품은 현재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를 위해 약 1500여명 규모의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 국내에서도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이 약물은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을 바탕으로, 뇌의 퇴행 정도가 미세한 알츠하이머 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br/><br/> 한 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현재까지 알츠하이머를 완치하거나 퇴행된 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부재한 만큼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발견하여 뇌의 퇴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의 치료책이다</span>”며 “<span class='quot0'>향후 나올 치료제들이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에 돌입한 환자들에게 큰 효과를 거둘지 기대를 모을 만하다</span>”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87.txt

제목: [알츠하이머와의 전쟁] “증상 진행속도 1/3 감소” 미국 신약개발 큰 진전… MSD 예방약은 임상 돌입  
날짜: 20150817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46  
본문: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 있다. 바로 ‘치매’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인 불명의 치료제도 없는 ‘알츠하이머’는 고령층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질환이다.<br/><br/>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지만, 일반적으로 기억력 감퇴나 지적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치매와는 다른 질환이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뇌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대사 과정에서 ‘독성물질’을 생성해 뇌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베타아밀로이드(beta-amyloid)라는 작은 단백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뇌에 침착되며 뇌세포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발병의 핵심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br/><br/> 알츠하이머는 한 번 발병하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상흔을 남기는 질병이다. 알츠하이머가 발병하면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뇌 조직이 줄어들어 뇌 기능이 떨어진다. 초기에는 기억력 장애로 시작해 계산력과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지만, 이후 이상 행동, 심할 경우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 또한 기억 상실로 인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 <br/><br/> 한국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로 최근 5년간 치매환자는 약 81%, 진료비는 약 120% 증가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암과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모두 합한 비용을 초과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치료제 개발도 시급하다.<br/><br/> 치료제가 없는 알츠하이머 질환은 제약사들에게는 정복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제약회사 일라이릴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솔라네주맙’성분의 이 신약은 뇌세포를 파괴해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알츠하이머의 진행 속도를 3분의 1가량 줄이는 약물이다. 현재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약 4400만명의 치매환자에게 희망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국내 바이오 기업인 메디포스트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조성물을 개발, 국내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br/><br/> 알츠하이머는 진행성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어 예후가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한 약물 개발에 나선 제약사도 있다. 다국적 제약사인 엠에스디(MSD)는 알츠하이머 예방약을 개발하고 현재 국내에서도 임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에스디(MSD)가 개발 중인 ‘MK8931-019(코드명)’ 의약품은 현재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를 위해 약 1500여명 규모의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 국내에서도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이 약물은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을 바탕으로, 뇌의 퇴행 정도가 미세한 알츠하이머 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br/><br/> 한 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현재까지 알츠하이머를 완치하거나 퇴행된 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부재한 만큼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발견하여 뇌의 퇴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의 치료책이다</span>”며 “<span class='quot0'>향후 나올 치료제들이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에 돌입한 환자들에게 큰 효과를 거둘지 기대를 모을 만하다</span>”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88.txt

제목: [암수술 잘하는 병원-이대목동병원 김광호 교수] 대장암, 삶의 질 최우선 고려 다양한 수술 적용  
날짜: 20150817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34  
본문: 2012년 기준으로 국내 65세 이상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1위는 대장암이다. 같은 해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3위를 기록했다. 대장암은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을 통해 용종과 같은 전암 병변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남녀 모두에게 가장 위협적인 암이라고 할 수 있다. 대장암의 원인과 예방법을 이대목동병원 김광호 교수에게 들어봤다.<br/><br/> ◇대장암의 씨앗 ‘용종’ 내시경적 절제로 완벽 제거=김 교수는 대장 용종을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불렀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미루다 보면 대장 내 생긴 용종을 발견할 수 없고 결국 자라서 암이 된다는 것이다. 암으로 꽃피기 전에 씨부터 없애는 작업인 대장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들이 대장내시경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검사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검진 사업을 통해 50세 이상 성인이라면 5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아볼 수 있다. 그 덕분에 과거에 비해 수검률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다수의 성인들이 대장내시경을 힘들어하거나 기피한다. 검사받기 하루 전에 대장을 깨끗이 비우는 약물을 4L정도 마시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 이 약물에 역겨움을 많이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 <br/><br/> 하지만 김 교수는 용종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장의 청결도가 중요하다며 약물의 올바른 복용을 당부했다. 그는 “대장내시경을 하는 이유는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숨어있는 용종을 못 찾고 지나갈 확률이 커진다. 내시경을 다루는 의사의 숙련도도 중요하지만 수검자가 약물 복용에 노력해줘야 정확한 검사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br/><br/> 내시경을 통해 찾아낸 용종은 그 자리에서 제거된다. 김 교수는 용종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용종 제거는 간단한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도 없고 출혈도 금세 멎는다. 간단한 용종 제거를 통해 수검자는 대장암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br/><br/> ◇대장암 삶의 질을 고려한 최선의 치료법=대장암은 암이 발생한 대장 부위를 깨끗하게 절제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개복 수술과 복강경, 로봇수술 등이 적용된다. 김광호 교수가 소속된 이대목동병원은 복강경과 로봇을 이용한 첨단 수술 기법으로 대장암 환자들의 완치와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김 교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술법이 있다. 합병증 위험과 삶의 질을 다각도로 고려해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br/><br/> 대장암은 병기가 높아질수록 재발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진단 당시 병기가 치료 후 예후, 즉 재발에 강력한 영향인자다. 조기발견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김 교수는 “재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기가 가장 중요하다. 3기 이상이면 30∼50%가 2년 내에 재발한다. 따라서 완치된 환자라도 재발 위험성을 두고 추적관찰을 철저히 해야 한다.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며 치료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단비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89.txt

제목: [암수술 잘하는 병원-이대목동병원 김광호 교수] 대장암, 삶의 질 최우선 고려 다양한 수술 적용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40878  
본문: 2012년 기준으로 국내 65세 이상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1위는 대장암이다. 같은 해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3위를 기록했다. 대장암은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을 통해 용종과 같은 전암 병변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남녀 모두에게 가장 위협적인 암이라고 할 수 있다. 대장암의 원인과 예방법을 이대목동병원 김광호 교수에게 들어봤다.<br/><br/> ◇대장암의 씨앗 ‘용종’ 내시경적 절제로 완벽 제거=김 교수는 대장 용종을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불렀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미루다 보면 대장 내 생긴 용종을 발견할 수 없고 결국 자라서 암이 된다는 것이다. 암으로 꽃피기 전에 씨부터 없애는 작업인 대장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들이 대장내시경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검사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검진 사업을 통해 50세 이상 성인이라면 5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아볼 수 있다. 그 덕분에 과거에 비해 수검률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다수의 성인들이 대장내시경을 힘들어하거나 기피한다. 검사받기 하루 전에 대장을 깨끗이 비우는 약물을 4L정도 마시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 이 약물에 역겨움을 많이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 <br/><br/> 하지만 김 교수는 용종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장의 청결도가 중요하다며 약물의 올바른 복용을 당부했다. 그는 “대장내시경을 하는 이유는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숨어있는 용종을 못 찾고 지나갈 확률이 커진다. 내시경을 다루는 의사의 숙련도도 중요하지만 수검자가 약물 복용에 노력해줘야 정확한 검사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br/><br/> 내시경을 통해 찾아낸 용종은 그 자리에서 제거된다. 김 교수는 용종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용종 제거는 간단한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도 없고 출혈도 금세 멎는다. 간단한 용종 제거를 통해 수검자는 대장암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br/><br/> ◇대장암 삶의 질을 고려한 최선의 치료법=대장암은 암이 발생한 대장 부위를 깨끗하게 절제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개복 수술과 복강경, 로봇수술 등이 적용된다. 김광호 교수가 소속된 이대목동병원은 복강경과 로봇을 이용한 첨단 수술 기법으로 대장암 환자들의 완치와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김 교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술법이 있다. 합병증 위험과 삶의 질을 다각도로 고려해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br/><br/> 대장암은 병기가 높아질수록 재발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진단 당시 병기가 치료 후 예후, 즉 재발에 강력한 영향인자다. 조기발견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김 교수는 “재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기가 가장 중요하다. 3기 이상이면 30∼50%가 2년 내에 재발한다. 따라서 완치된 환자라도 재발 위험성을 두고 추적관찰을 철저히 해야 한다.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며 치료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90.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사별 슬픔 자녀도 이해 못할땐 상담 전문가와 만남이 큰 도움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54163  
본문: 5년 전 대장암을 앓던 그녀의 남편은 그 해 단풍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남편은 아내에게 ‘단풍놀이 가자’는 약속 따윈 하지 않았다. 부부는 다가올 이별을 덤덤해 받아들였다. 어느 날 주치의는 아내를 불러 오늘밤 남편이 죽음으로 가는 잠에 빠져들 거라고 말했다. 만약 생에 미련이 있다면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했다. 남편은 다시 깨지 않았다. <br/><br/> 남편이 떠나고 아내는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흔들렸다. 그녀도 스스로 놀랐다고 한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부부가 평생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내는 스스로 병원의 신경정신과를 찾았다.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장성한 자녀들도 있었지만 사별로 인한 슬픔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아내는 “혼자 집을 보던 아이가 엄마를 만났을 때 하소연하는 것처럼 나는 의사선생님 앞에서 응석받이 아이가 되어 지난 일주일 동안 소용돌이쳤던 감정들을 쏟아내곤 했다. 전문가 상담은 사별이라는 낯선 상황에 놓인 나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새로운 삶으로 안내해주었다”고 털어놓았다.<br/><br/> 내년이면 70세가 되는 여성이 있다. 이 여성도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했다. 그녀는 “사별이 주는 감정이 참 독특하다”며 “나도 나이가 들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배우자의 죽음도 상상해보면서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해 왔지만 떠나보내는 마음이 이토록 고통스러울지는 몰랐다”고 고백했다.<br/><br/> 갑작스런 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것도 큰 슬픔이지만 암이란 예견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에도 체감하는 슬픔의 크기는 똑같다. 앞서 두 사연의 주인공 모두 살아온 세월이 길다고 슬픔이 경감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인 극복의 방법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택했다. 두 여성에게는 장성한 자녀들이 있었지만 자식들이 사별로 인한 슬픔을 덜어주진 못한다는 점도 공통적이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슬픈 감정에 빠져있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자식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 때쯤 정신과 전문의를 찾았다.<br/><br/> 사별 극복 수기를 살펴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드물지 않다.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싶은 자와 모든 걸 이해할 준비가 된 심리 전문가가 만났으니 당연한 결과다. <br/><br/> 아직까지 정신과 상담과 일반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또는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데 아직 서툰 우리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조력자가 필요하다.<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9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 걸릴 확률 36.4%… 혹시 나도” 국가암정보센터가 밝히는 5대암 증상  
날짜: 20150817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38  
본문: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4%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혹시 내가 암은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다.<br/><br/> 그렇다면 암은 어떤 증상을 보일까.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암은 면역기능에도 영향을 주고, 체중감소·발열·피로·전신쇠약·식욕저하 등의 전신적인 증세를 보인다. 위·대장·폐·유방·간 등 대표 5대 암의 증상을 보면 ‘위암’의 경우 조기위암은 무증상이 80%로 대부분이고 10%는 속쓰림을 느낀다. 진행성 위암은 60%에서 체중감소를 보이고, 이어 복통(50%), 오심·구토(30%), 식욕감퇴(30%), 연하곤란(25%), 위장관출혈(20%) 등의 증세를 보인다. ‘대장암’은 증상이 나타날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어지거나 변 보는 횟수가 바뀌는 등 배변 습관의 변화 △설사·변비 또는 배변 후 남은 듯한 느낌 △혈변(선홍색이나 검붉은색) 또는 끈적한 점액변 △예전보다 가늘어진 변 △복부 불편감(복통, 복부 팽만) △체중이나 근력의 감소 △피로감 △식욕 부진, 소화 불량, 오심과 구토 △복부에서 종물(腫物) 즉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지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br/><br/> ‘폐암’은 초기 증상이 없음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도 감기 비슷한 기침과 객담(가래) 외의 별다른 이상이 안 보이는 수가 많아서 진단이 매우 어렵다. 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증상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초기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이 기침으로 많게는 폐암 환자의 75%가 잦은 기침을 호소한다. 기침할 때 피 섞인 가래나 피 자체를 뱉어내는 것 역시 폐암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이고, 환자의 약 3분의 1은 가슴 아픈 증상을 호소한다. 이외에도 목소리를 내는 기관인 성대를 조절하는 신경은 폐와 기관 사이의 공간을 지나가는데 폐암이 이 신경을 침범하면 성대에 마비 증상이 오고 그로 인해 목소리가 쉬기도 한다. <br/><br/>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데 간암의 경우에도 증상이 초기엔 거의 없다가 서서히 나타나고, 증상이 뚜렷해졌을 때는 이미 진행된 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상은 오른쪽 윗배에 통증이 있거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 복부 팽만감,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소화불량 등이 있다. 간경변증 환자에게 간암이 발생하면 갑자기 황달이나 복수(腹水)가 심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암이 많이 진행된 뒤에 나타나고 증상이 전혀 없든지 모호하게만 비치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br/><br/>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것으로 진행되면 유방뿐 아니라 겨드랑이에서도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다. 암이 심하게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유방의 피부가 속으로 끌려 들어가 움푹 파이거나 유두가 함몰되기도 하며, 유방 피부의 부종으로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질 수 있다.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그 부위에 잘 낫지 않는 습진이 생기는 것은 유방암의 일종인 파제트병의 증세일 수 있고, 염증성 유방암은 멍울은 잘 만져지지 않으면서 피부가 빨갛게 붓고 통증이나 열감이 있어서 염증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특수한 형태를 보인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9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 걸릴 확률 36.4%… 혹시 나도” 국가암정보센터가 밝히는 5대암 증상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43311  
본문: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4%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혹시 내가 암은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다.<br/><br/> 그렇다면 암은 어떤 증상을 보일까.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암은 면역기능에도 영향을 주고, 체중감소·발열·피로·전신쇠약·식욕저하 등의 전신적인 증세를 보인다. 위·대장·폐·유방·간 등 대표 5대 암의 증상을 보면 ‘위암’의 경우 조기위암은 무증상이 80%로 대부분이고 10%는 속쓰림을 느낀다. 진행성 위암은 60%에서 체중감소를 보이고, 이어 복통(50%), 오심·구토(30%), 식욕감퇴(30%), 연하곤란(25%), 위장관출혈(20%) 등의 증세를 보인다. ‘대장암’은 증상이 나타날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어지거나 변 보는 횟수가 바뀌는 등 배변 습관의 변화 △설사·변비 또는 배변 후 남은 듯한 느낌 △혈변(선홍색이나 검붉은색) 또는 끈적한 점액변 △예전보다 가늘어진 변 △복부 불편감(복통, 복부 팽만) △체중이나 근력의 감소 △피로감 △식욕 부진, 소화 불량, 오심과 구토 △복부에서 종물(腫物) 즉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지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br/><br/> ‘폐암’은 초기 증상이 없음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도 감기 비슷한 기침과 객담(가래) 외의 별다른 이상이 안 보이는 수가 많아서 진단이 매우 어렵다. 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증상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초기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이 기침으로 많게는 폐암 환자의 75%가 잦은 기침을 호소한다. 기침할 때 피 섞인 가래나 피 자체를 뱉어내는 것 역시 폐암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이고, 환자의 약 3분의 1은 가슴 아픈 증상을 호소한다. 이외에도 목소리를 내는 기관인 성대를 조절하는 신경은 폐와 기관 사이의 공간을 지나가는데 폐암이 이 신경을 침범하면 성대에 마비 증상이 오고 그로 인해 목소리가 쉬기도 한다. <br/><br/>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데 간암의 경우에도 증상이 초기엔 거의 없다가 서서히 나타나고, 증상이 뚜렷해졌을 때는 이미 진행된 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상은 오른쪽 윗배에 통증이 있거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 복부 팽만감,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소화불량 등이 있다. 간경변증 환자에게 간암이 발생하면 갑자기 황달이나 복수(腹水)가 심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암이 많이 진행된 뒤에 나타나고 증상이 전혀 없든지 모호하게만 비치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br/><br/>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것으로 진행되면 유방뿐 아니라 겨드랑이에서도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다. 암이 심하게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유방의 피부가 속으로 끌려 들어가 움푹 파이거나 유두가 함몰되기도 하며, 유방 피부의 부종으로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질 수 있다.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그 부위에 잘 낫지 않는 습진이 생기는 것은 유방암의 일종인 파제트병의 증세일 수 있고, 염증성 유방암은 멍울은 잘 만져지지 않으면서 피부가 빨갛게 붓고 통증이나 열감이 있어서 염증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특수한 형태를 보인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93.txt

제목: [암과의 동행-의료정보] 종근당 ‘프리페민’, 월경전증후군 치료제로 각광… 유럽서도 효능 입증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50026  
본문: 월경전증후군(PMS, 생리전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의 80∼90%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 흔한 증상이다. 보통 월경 7∼10일 전에 여러 신체적, 감정적 증상과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났다가 월경과 함께 사라지고 이후 황체기가 시작할 때 다시 반복된다. 월경전증후군을 앓는 여성이 일생에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보내는 시간이 무려 3000일에 달할 만큼 여성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br/><br/> 흔히 나타나는 월경전증후군의 증상은 유방통, 아랫배통증, 두통, 근육통, 체중증가, 여드름, 사지부종, 변비, 피로감, 신경과민, 우울, 무기력감, 불안, 긴장, 외로움 등이 있으며, 행동의 변화로는 집중력 저하, 식욕변화, 수면과다, 의욕저하, 불면 등 모두 200여종에 달할 정도로 개인에 따라 다양한 증상들이 발현된다.<br/><br/> 이전까지 월경전증후군을 위한 치료제로는 진통제(NSAIDs),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호르몬제 등이 있었지만 여러 증상 중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등 월경전증후군의 직접 치료제는 아니었다.<br/><br/> 경증의 월경전증후군은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등 일상 속 습관을 바꾸는 비약물적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산부인과에 방문해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나 치료방법이 없었고, 여성들이 월경전증후군을 질환으로 인식하지 않아 대다수의 여성들이 이를 참고 넘기거나 진통제로 대응해 왔다.<br/><br/> 이러한 상황에서 종근당 ‘프리페민’이 월경전증후군의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프리페민’은 유럽에서 월경전증후군과 월경불순에 임상적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아그누스카스투스 열매에서 추출한 생약성분 월경전증후군 치료제이다.<br/><br/> 프리페민은 1일 1회, 1회 1정의 간편한 복용을 통해 생리전 다양한 증상을 완화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월경 전 증상으로 학업 또는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준다. 복용기간에 비례해 개선효과가 증가하므로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다. 프리페민은 동일성분 의약품 중 유일하게 유럽의약품청(EMA)에 ‘WEU(Well-Established Use)’ 의약품으로 등록돼 있다. 현재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헝가리, 폴란드, 일본 등 14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br/><br/> 종근당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프리페민은 지금까지 치료와 관리에 소홀했던 월경전증후군에 대한 인식을 바꾼 중요한 제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이 적절한 처방 없이 견뎌내야 했던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해 여성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br/>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94.txt

제목: [암과의 동행-의료정보] 종근당 ‘프리페민’, 월경전증후군 치료제로 각광… 유럽서도 효능 입증  
날짜: 20150817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47  
본문: 월경전증후군(PMS, 생리전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의 80∼90%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 흔한 증상이다. 보통 월경 7∼10일 전에 여러 신체적, 감정적 증상과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났다가 월경과 함께 사라지고 이후 황체기가 시작할 때 다시 반복된다. 월경전증후군을 앓는 여성이 일생에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보내는 시간이 무려 3000일에 달할 만큼 여성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br/><br/> 흔히 나타나는 월경전증후군의 증상은 유방통, 아랫배통증, 두통, 근육통, 체중증가, 여드름, 사지부종, 변비, 피로감, 신경과민, 우울, 무기력감, 불안, 긴장, 외로움 등이 있으며, 행동의 변화로는 집중력 저하, 식욕변화, 수면과다, 의욕저하, 불면 등 모두 200여종에 달할 정도로 개인에 따라 다양한 증상들이 발현된다.<br/><br/> 이전까지 월경전증후군을 위한 치료제로는 진통제(NSAIDs),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호르몬제 등이 있었지만 여러 증상 중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등 월경전증후군의 직접 치료제는 아니었다.<br/><br/> 경증의 월경전증후군은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등 일상 속 습관을 바꾸는 비약물적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산부인과에 방문해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나 치료방법이 없었고, 여성들이 월경전증후군을 질환으로 인식하지 않아 대다수의 여성들이 이를 참고 넘기거나 진통제로 대응해 왔다.<br/><br/> 이러한 상황에서 종근당 ‘프리페민’이 월경전증후군의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프리페민’은 유럽에서 월경전증후군과 월경불순에 임상적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아그누스카스투스 열매에서 추출한 생약성분 월경전증후군 치료제이다.<br/><br/> 프리페민은 1일 1회, 1회 1정의 간편한 복용을 통해 생리전 다양한 증상을 완화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월경 전 증상으로 학업 또는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준다. 복용기간에 비례해 개선효과가 증가하므로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다. 프리페민은 동일성분 의약품 중 유일하게 유럽의약품청(EMA)에 ‘WEU(Well-Established Use)’ 의약품으로 등록돼 있다. 현재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헝가리, 폴란드, 일본 등 14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br/><br/> 종근당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프리페민은 지금까지 치료와 관리에 소홀했던 월경전증후군에 대한 인식을 바꾼 중요한 제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이 적절한 처방 없이 견뎌내야 했던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해 여성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br/>이영수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95.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사별 슬픔 자녀도 이해 못할땐 상담 전문가와 만남이 큰 도움  
날짜: 20150817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53  
본문: 5년 전 대장암을 앓던 그녀의 남편은 그 해 단풍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남편은 아내에게 ‘단풍놀이 가자’는 약속 따윈 하지 않았다. 부부는 다가올 이별을 덤덤해 받아들였다. 어느 날 주치의는 아내를 불러 오늘밤 남편이 죽음으로 가는 잠에 빠져들 거라고 말했다. 만약 생에 미련이 있다면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했다. 남편은 다시 깨지 않았다. <br/><br/> 남편이 떠나고 아내는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흔들렸다. 그녀도 스스로 놀랐다고 한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부부가 평생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내는 스스로 병원의 신경정신과를 찾았다.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장성한 자녀들도 있었지만 사별로 인한 슬픔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아내는 “혼자 집을 보던 아이가 엄마를 만났을 때 하소연하는 것처럼 나는 의사선생님 앞에서 응석받이 아이가 되어 지난 일주일 동안 소용돌이쳤던 감정들을 쏟아내곤 했다. 전문가 상담은 사별이라는 낯선 상황에 놓인 나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새로운 삶으로 안내해주었다”고 털어놓았다.<br/><br/> 내년이면 70세가 되는 여성이 있다. 이 여성도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했다. 그녀는 “사별이 주는 감정이 참 독특하다”며 “나도 나이가 들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배우자의 죽음도 상상해보면서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해 왔지만 떠나보내는 마음이 이토록 고통스러울지는 몰랐다”고 고백했다.<br/><br/> 갑작스런 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것도 큰 슬픔이지만 암이란 예견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에도 체감하는 슬픔의 크기는 똑같다. 앞서 두 사연의 주인공 모두 살아온 세월이 길다고 슬픔이 경감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인 극복의 방법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택했다. 두 여성에게는 장성한 자녀들이 있었지만 자식들이 사별로 인한 슬픔을 덜어주진 못한다는 점도 공통적이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슬픈 감정에 빠져있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자식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 때쯤 정신과 전문의를 찾았다.<br/><br/> 사별 극복 수기를 살펴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드물지 않다.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싶은 자와 모든 걸 이해할 준비가 된 심리 전문가가 만났으니 당연한 결과다. <br/><br/> 아직까지 정신과 상담과 일반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또는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데 아직 서툰 우리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조력자가 필요하다.<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96.txt

제목: [질환 통계-구강암] 40대 이상 지속 증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아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43797  
본문: 40대 이상에서 구강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구강암 최근 5년(2010∼2014년)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는 2010년 1만3465명에서 2011년 1만3810명, 2012년 1만4489명, 2013년 1만5121명, 2014년 1만806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br/><br/> 2014년 기준 성별 환자수는 남성 1만2470명, 여성 5590명으로 남성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60대가 가장 많은 3947명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50대(3660명), 70대(2786명), 40대(1615명)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는 50대가 15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1198명), 70대(1129명), 40대(948명) 순이었다. 9세 이하에서도 35명(남성 21명, 여성 14명)이 있었다.<br/><br/>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은 1만3233명(보험자부담금 502억3695만원)이었고, 이어 종합병원(5177명, 168억8544만원), 병원급(2242명, 45억1559만원), 의원급(1494명, 2억5091만원), 보건기관 등(29명, 728만원) 순이었다.<br/><br/> 지역별 환자수는 서울이 9798명(보험자부담금 356억670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2881명, 103억2128만원), 부산(1277명, 54억9966만원), 대구(1227명, 43억995만원), 전남(907명, 32억142만원), 경남(723명, 18억7509만원), 인천(606명, 19억110만원) 순이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인천의 경우 경남보다 환자수는 적지만 보험자부담금은 높다는 것으로, 이는 의료기관 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br/><br/> 구강암은 입안의 혀, 혀밑바닥, 볼점막, 잇몸, 입천장, 후구치삼각, 입술, 턱뼈 등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말한다. 편평상피암이 가장 흔하고 이외에 △구강점막의 작은 침샘에서 발생하는 ‘타액선암’ △턱뼈나 안면부의 근육 등의 연조직에서 발생하는 ‘육종’ △구강점막의 입천장·볼점막·잇몸 등에서 발생하는 ‘악성흑색종’, 드물게 림프종 등이 발생한다. <br/><br/>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흡연·음주·바이러스·방사선·자외선·식습관·영양결핍·유전적감수성 등이 위험요인으로 추측되는데 일반적으로 흡연이나 술을 많이 하는 4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입안이 헐었는데 3주 정도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거나, 입안에 희거나 붉은 병변이 있다거나, 혀나 입안이 아프다거나, 입안에 혹이 만져진다거나, 이가 갑자기 흔들리거나 이를 뽑은 후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거나,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br/><br/> 구강암은 육안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입안을 통해 국소마취 하에 의심되는 부위를 조금 떼어내어 현미경적 진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진행 정도를 알기 위해 CT·MRI·PET·골스캔 등을 시행한다. 초기암인 경우 수술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이며, 진행된 암의 경우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용해 치료한다. 진단 시 구강암의 병기가 진행될수록 재발 가능성이 큰데, 대부분 수술 후 2년 내에 재발하며, 재발 부위는 구강 내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약 25%, 목 림프절 부위에 재발하는 경우가 50%, 전신적으로 원격 전이되는 경우가 10∼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br/><br/>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97.txt

제목: [암과의 동행-인터뷰] 인하대병원 이수연 간호부장… 포괄간호서비스, ‘전인간호 구현’ 자긍심 높아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55831  
본문: “조용하고 쾌적한 병동환경,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 만족하는 간호서비스입니다. 환자 보호자의 간병부담이 줄고 의료의 질도 높아지면서 입원환자가 안전하게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입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br/><br/> 인하대병원은 오는 9월 4개 병동 185병상에 대해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로써 2013년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의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에 참여해 온 인하대병원은 전체 10개 병동 468병상을 포괄간호병동으로 운영한다. 특수병동을 제외한 일반병동의 절반이 넘는 61%에 달하는 수치다. 인하대병원 이수연(사진) 간호부장은 “처음 포괄간호서비스 도입 당시에는 낙상이나 욕창 등 환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오히려 재원일수 감소, 욕창과 낙상 감소, 환자와 보호자 만족도 향상 등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전인간호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자긍심도 매우 높다는 것이다.<br/><br/> 이 간호부장은 “<span class='quot0'>환자나 보호자의 비용 부담 경감, 쾌적한 입원환경 조성, 환자안전 개선,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 등이 눈에 보이는 효과라면, 환자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자가 간호격려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치료와 증상 개선 효과도 있다</span>”고 말했다. 지역 특성상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입원생활을 해야 하는 환자들이 많다보니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하려는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물론 제도 시행 초기에는 환자들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수연 간호부장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꾸준히 포괄간호서비스를 설명하고 환자 스스로 자가간호를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도 적극 나서, 이제는 제도가 안정화된 상태다. 최근에는 다른 병원에서 우리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를 배우겠다고 문의하는 곳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지난 2년의 포괄간호서비스 성과를 다른 의료기관과 공유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정착과 관련 이 간호부장은 “<span class='quot0'>간호 인력을 의료현장에 맞도록 제도를 좀더 보완하고, 중증환자에 맞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정부와 의료현장 모두가 제도 정착을 위해 보다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br/>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98.txt

제목: [질환 통계-구강암] 40대 이상 지속 증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아  
날짜: 20150817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39  
본문: 40대 이상에서 구강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구강암 최근 5년(2010∼2014년)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는 2010년 1만3465명에서 2011년 1만3810명, 2012년 1만4489명, 2013년 1만5121명, 2014년 1만806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br/><br/> 2014년 기준 성별 환자수는 남성 1만2470명, 여성 5590명으로 남성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60대가 가장 많은 3947명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50대(3660명), 70대(2786명), 40대(1615명)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는 50대가 15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1198명), 70대(1129명), 40대(948명) 순이었다. 9세 이하에서도 35명(남성 21명, 여성 14명)이 있었다.<br/><br/>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은 1만3233명(보험자부담금 502억3695만원)이었고, 이어 종합병원(5177명, 168억8544만원), 병원급(2242명, 45억1559만원), 의원급(1494명, 2억5091만원), 보건기관 등(29명, 728만원) 순이었다.<br/><br/> 지역별 환자수는 서울이 9798명(보험자부담금 356억670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2881명, 103억2128만원), 부산(1277명, 54억9966만원), 대구(1227명, 43억995만원), 전남(907명, 32억142만원), 경남(723명, 18억7509만원), 인천(606명, 19억110만원) 순이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인천의 경우 경남보다 환자수는 적지만 보험자부담금은 높다는 것으로, 이는 의료기관 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br/><br/> 구강암은 입안의 혀, 혀밑바닥, 볼점막, 잇몸, 입천장, 후구치삼각, 입술, 턱뼈 등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말한다. 편평상피암이 가장 흔하고 이외에 △구강점막의 작은 침샘에서 발생하는 ‘타액선암’ △턱뼈나 안면부의 근육 등의 연조직에서 발생하는 ‘육종’ △구강점막의 입천장·볼점막·잇몸 등에서 발생하는 ‘악성흑색종’, 드물게 림프종 등이 발생한다. <br/><br/>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흡연·음주·바이러스·방사선·자외선·식습관·영양결핍·유전적감수성 등이 위험요인으로 추측되는데 일반적으로 흡연이나 술을 많이 하는 4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입안이 헐었는데 3주 정도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거나, 입안에 희거나 붉은 병변이 있다거나, 혀나 입안이 아프다거나, 입안에 혹이 만져진다거나, 이가 갑자기 흔들리거나 이를 뽑은 후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거나,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br/><br/> 구강암은 육안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입안을 통해 국소마취 하에 의심되는 부위를 조금 떼어내어 현미경적 진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진행 정도를 알기 위해 CT·MRI·PET·골스캔 등을 시행한다. 초기암인 경우 수술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이며, 진행된 암의 경우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용해 치료한다. 진단 시 구강암의 병기가 진행될수록 재발 가능성이 큰데, 대부분 수술 후 2년 내에 재발하며, 재발 부위는 구강 내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약 25%, 목 림프절 부위에 재발하는 경우가 50%, 전신적으로 원격 전이되는 경우가 10∼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br/><br/>조민규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99.txt

제목: [암과의 동행] 혈액 보유량 뚝… 무수혈수술에 시선 집중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47925  
본문: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혈액 부족 현상에 대한 의료 관계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헌혈의 80%를 차지하는 군인과 학생들이 방학과 휴가를 떠나 헌혈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로 인해 헌혈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내 혈액 보유량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혈액이 필요한 수술을 연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수혈로 인한 감염 및 사망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무수혈 치료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br/><br/> 무수혈 치료 및 수술은 내외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최소화해 수혈을 피하는 치료법이다. 즉 남의 피를 받지 않고 치료한다는 뜻이다. 무수혈의 장점은 수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간염, 에이즈 등에 감염될 위험이 없고 각종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 또 수술 후 더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도 있다.<br/><br/> 무수혈 수술은 1957년 미국에서 처음 성공했고 우리나라는 약 30년 후에야 첫 무수혈 수술이 이뤄졌다. 무수혈 치료센터는 현재 약 30개 국내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암을 비롯해 인공관절, 제왕절개, 심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br/><br/>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무수혈 치료는 철분주사를 통해 수혈을 최소화한 수술요법으로 수혈사고 예방 및 혈액수급 문제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헌혈하는 청년층이 줄고 수혈 받는 노년층이 증가해 혈액의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무수혈 치료에 눈을 돌려야 할 때</span>”라고 말했다.<br/><br/> 수술은 여전히 수혈 방식이 대세이지만 무수혈 방식이 갈수록 주목받는 이유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맥철분주사제가 나오면서 수혈을 할 필요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맥철분주사제는 적혈구를 생산하는 조혈작용에 필수성분인 철분을 환자의 정맥을 통해 혈액 내 적혈구 비율(헤마토크리트) 및 적혈구 내 헤모글로빈 농도를 증가시키는 제제다.<br/><br/> 정맥철분주사제는 출혈이 예상되는 수술 전 투여해 수혈을 줄이고, 수술 후 투여로 적혈구 볼륨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정맥철분주사제는 페린젝트(JW중외제약 판매)로 한 번에 1000㎎의 고용량 철분을 15분에 투여할 수 있어 수혈량을 최소화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정맥철분주사제는 고용량 투여가 어려워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1회 투여 시 40분 이상 소요된다.<br/><br/>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페린젝트 같은 정맥철분주사제는 체내에 신속하게 철분을 공급해 투여 5분 안에 조혈작용을 활성화시켜 신속하게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일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무수혈 치료는 ‘환자혈액관리(Patient Blood Management)’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혈액관리는 혈액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혈 치료는 다른 대안이 없거나 응급상황일 때만 시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제한돼야 한다는 게 환자혈액관리의 핵심이다. 그동안 수혈관리는 환자중심이라기보다는 의료진 중심의 개념이 깔려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혈은 헤모글로빈 수치를 빠르게 교정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적혈구의 반감기가 짧아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게 단점이다. 또한 수혈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HIV나 B형간염 감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br/><br/>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00.txt

제목: [암과의 동행-인터뷰] 인하대병원 이수연 간호부장… 포괄간호서비스, ‘전인간호 구현’ 자긍심 높아  
날짜: 20150817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55  
본문: “조용하고 쾌적한 병동환경,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 만족하는 간호서비스입니다. 환자 보호자의 간병부담이 줄고 의료의 질도 높아지면서 입원환자가 안전하게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입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br/><br/> 인하대병원은 오는 9월 4개 병동 185병상에 대해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로써 2013년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의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에 참여해 온 인하대병원은 전체 10개 병동 468병상을 포괄간호병동으로 운영한다. 특수병동을 제외한 일반병동의 절반이 넘는 61%에 달하는 수치다. 인하대병원 이수연(사진) 간호부장은 “처음 포괄간호서비스 도입 당시에는 낙상이나 욕창 등 환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오히려 재원일수 감소, 욕창과 낙상 감소, 환자와 보호자 만족도 향상 등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전인간호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자긍심도 매우 높다는 것이다.<br/><br/> 이 간호부장은 “<span class='quot0'>환자나 보호자의 비용 부담 경감, 쾌적한 입원환경 조성, 환자안전 개선,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 등이 눈에 보이는 효과라면, 환자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자가 간호격려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치료와 증상 개선 효과도 있다</span>”고 말했다. 지역 특성상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입원생활을 해야 하는 환자들이 많다보니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하려는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물론 제도 시행 초기에는 환자들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수연 간호부장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꾸준히 포괄간호서비스를 설명하고 환자 스스로 자가간호를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도 적극 나서, 이제는 제도가 안정화된 상태다. 최근에는 다른 병원에서 우리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를 배우겠다고 문의하는 곳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지난 2년의 포괄간호서비스 성과를 다른 의료기관과 공유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정착과 관련 이 간호부장은 “<span class='quot0'>간호 인력을 의료현장에 맞도록 제도를 좀더 보완하고, 중증환자에 맞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정부와 의료현장 모두가 제도 정착을 위해 보다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br/>송병기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01.txt

제목: [암과의 동행-암 극복위해 뛰는 사람들] 강기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원장  
날짜: 20150817  
기자: 박주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50  
본문: 국어사전에서 ‘희귀(稀貴)’라는 단어를 찾으면 ‘드물어서 매우 귀함’이라는 뜻풀이가 나온다. 한자도 ‘드물 희(稀)’자에 ‘귀할 귀(貴)’자를 쓴다. 그만큼 특이하거나 보기 힘든 사물 등을 말할 때 흔히 ‘희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희귀의약품은 국내 환자 수가 2만명 이하이거나 동일제제의 연간 총 수입실적이 150만 달러 또는 연간 총 생산실적이 15억원 이하인 의약품으로, 환자의 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br/><br/>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질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1999년 9월 설립됐다. 지난 6월 희귀의약품센터 신임 원장에 취임한 강기후 원장을 만났다. 강 원장은 육사 출신으로 보건복지부를 거쳐 식약처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오송청사이전기획단장, 대구식약청장, 서울식약청장, 대전식약청장 등 35년간 공직에서 생활했다.<br/><br/> -센터가 주로 하는 일은.<br/><br/>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극소수인데다 중증질환이 많아 사회·제도적 지원이 열악한 편이다. 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도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로 제약업체가 공급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센터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거나 국내 제약업체가 공급하지 않는 희귀의약품을 직접 수입해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13만건(1200억원)의 희귀의약품을 공급했다. 지난해 연간 공급 규모는 1만3746건(224억원)으로, 이는 설립 초기 1000건(10억원)에서 13배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br/><br/> -희귀의약품은 고가인 경우가 많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데.<br/><br/> 지난해 2899명의 환자에게 약 92억5500만원어치의 비급여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공급했다. 산술적으로 환자 1인당 약 300만원의 약품구입비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32명이나 됐다. 이처럼 고가의약품의 증가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약품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br/><br/> -센터 설립 16년째다. 아직도 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br/><br/> 대외적인 센터 인지도 향상과 홍보 확대를 위해 그간의 간행물 발간 등 오프라인 홍보 외에 SNS와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SNS, 블로그 등 대학생 기자단 운영, 전 국민 대상 센터 홍보용 포스터·동영상 공모전 개최, 연 4회 SNS 이벤트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br/><br/> -희귀의약품은 경제논리와 생산중단 등으로 수급이 쉽지 않다는데.<br/><br/> 센터의 기본업무에 의약품을 허가 받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 중단 등으로 수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제약업체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생산해 해당 의약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br/><br/> -앞으로 계획은?<br/><br/> 보건과 복지는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 공직의 연장선상에서 환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우리 센터는 중요하고 좋은 일을 하는 곳이다. 직원들이 그만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같이 뛰고 참여하고 해야 할 것 같다. 박주호 기자 epi0212@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02.txt

제목: [암과의 동행] 혈액 보유량 뚝… 무수혈수술에 시선 집중  
날짜: 20150817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44  
본문: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혈액 부족 현상에 대한 의료 관계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헌혈의 80%를 차지하는 군인과 학생들이 방학과 휴가를 떠나 헌혈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로 인해 헌혈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내 혈액 보유량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혈액이 필요한 수술을 연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수혈로 인한 감염 및 사망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무수혈 치료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br/><br/> 무수혈 치료 및 수술은 내외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최소화해 수혈을 피하는 치료법이다. 즉 남의 피를 받지 않고 치료한다는 뜻이다. 무수혈의 장점은 수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간염, 에이즈 등에 감염될 위험이 없고 각종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 또 수술 후 더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도 있다.<br/><br/> 무수혈 수술은 1957년 미국에서 처음 성공했고 우리나라는 약 30년 후에야 첫 무수혈 수술이 이뤄졌다. 무수혈 치료센터는 현재 약 30개 국내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암을 비롯해 인공관절, 제왕절개, 심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br/><br/>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무수혈 치료는 철분주사를 통해 수혈을 최소화한 수술요법으로 수혈사고 예방 및 혈액수급 문제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헌혈하는 청년층이 줄고 수혈 받는 노년층이 증가해 혈액의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무수혈 치료에 눈을 돌려야 할 때</span>”라고 말했다.<br/><br/> 수술은 여전히 수혈 방식이 대세이지만 무수혈 방식이 갈수록 주목받는 이유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맥철분주사제가 나오면서 수혈을 할 필요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맥철분주사제는 적혈구를 생산하는 조혈작용에 필수성분인 철분을 환자의 정맥을 통해 혈액 내 적혈구 비율(헤마토크리트) 및 적혈구 내 헤모글로빈 농도를 증가시키는 제제다.<br/><br/> 정맥철분주사제는 출혈이 예상되는 수술 전 투여해 수혈을 줄이고, 수술 후 투여로 적혈구 볼륨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정맥철분주사제는 페린젝트(JW중외제약 판매)로 한 번에 1000㎎의 고용량 철분을 15분에 투여할 수 있어 수혈량을 최소화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정맥철분주사제는 고용량 투여가 어려워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1회 투여 시 40분 이상 소요된다.<br/><br/>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페린젝트 같은 정맥철분주사제는 체내에 신속하게 철분을 공급해 투여 5분 안에 조혈작용을 활성화시켜 신속하게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일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무수혈 치료는 ‘환자혈액관리(Patient Blood Management)’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혈액관리는 혈액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혈 치료는 다른 대안이 없거나 응급상황일 때만 시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제한돼야 한다는 게 환자혈액관리의 핵심이다. 그동안 수혈관리는 환자중심이라기보다는 의료진 중심의 개념이 깔려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혈은 헤모글로빈 수치를 빠르게 교정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적혈구의 반감기가 짧아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게 단점이다. 또한 수혈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HIV나 B형간염 감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br/><br/>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03.txt

제목: [암과의 동행] 포괄간호서비스, 적절 수가보상으로 새바람 안착시키자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37924  
본문: 인천에 거주하는 A(67·여)씨는 최근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보호자 없는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자식들에게 간병을 부탁하기도, 그렇다고 하루 7만원이 드는 간병인을 고용하기도 부담스러웠다. 지인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동을 알게 된 A씨는 부평힘찬병원을 찾았다. A씨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병원 의료진이 더 많이 신경써주고 있고 병동 환경도 깨끗하고 조용해 오히려 더 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불리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감염병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병원 내 확산 이유 중 하나로 한국 특유의 간병문화가 지목되면서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는 가족 간병과 간병인 고용 등 환자의 사적 간병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병원 입원환경으로 치료효과도 높다는 것이 의료현장의 의견이다.<br/><br/>◇올해 54개 병원 참여=포괄간호서비스는 환자 보호자나 개인고용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병원 내 전담 간호 인력이 24시간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 중심 제도다. 간호 인력을 늘려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처음 시행했다. 2013년 시범사업에는 13개 병원이 참여했다. 이후 지난해 2월 ‘3대 비급여 개선방안에 간병문제 개선’이 포함되면서, 2014년 28개 병원(민간 9, 공공 19)에서 50개 병동 2363병상이 운영됐다. 시범사업은 포괄간호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간호인력충원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2년의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포괄간호서비스 모형을 개발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지방 중소병원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운영된다. <br/><br/> 8월5일 기준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은 54개 병원(민간 37, 공공 17) 86개 병동 3953병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임금남 차장은 “기존 입원료 대신 새로운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를 산정한다. 통상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해 포괄간호병동 입원료 20%를 환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종합병원 6인실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할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은 1만8130원에서 2만2150원 정도다.<br/><br/> ◇달라진 병원환경=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쾌적한 병원(입원) 환경, 환자와 의료진 만족도 향상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시범사업부터 참여 중인 인하대병원의 경우 환자 모니터링 및 간호요구에 대한 즉각적 대응 시스템 구축, 의료진 및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활성화, 욕창·감염·낙상 등 안전사고 방지 체계 마련 등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br/><br/> 이수연 인하대병원 간호부장은 “보호자 없는 병동의 가장 큰 변화는 쾌적한 병원환경 조성이다. 또한 당초 우려와 달리 욕창과 낙상 등이 오히려 줄었다”며 “보호자와 환자, 의료진 모두 달라진 입원환경에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 인하대병원 조사에 따르면 간병료 7만원의 부담이 1만3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줄고, 보호자의 간병 피로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에 대한 간호 인력의 직접 간호시간이 늘어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인하대병원이 실시한 외부고객만족도 결과 포괄병동 만족도는 평균 96.4점이었던 반면 일반병동은 평균 89.4점이었다. 또한 욕창 발생 건수도 2012년 연간 13.8건에서 포괄병동 전환 후 7.5건(2015년 기준)으로 줄었고, 낙상 발생도 2012년 연간 3.0건에서 2015년 연간 0.8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포괄병동의 경우 환자 자가 간호 능력이 향상돼 질병 조기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하대병원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재원일수 7.0일에서 2015년 포괄병동 시범 후 6.1일로 0.9일이 단축됐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고려대 의과대학 안형식 교수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내 감염 발생률의 경우 포괄간호병동은 1일 1000명당 2.1명으로 간병인과 보호자가 상주하는 일반병동 6.9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부평힘찬병원 유일남 수간호사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알고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부쩍 늘었다.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 재활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전인간호를 시행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진의 자부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br/><br/> ◇제도 정착 위한 과제는=포괄간호서비스가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 차단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면에서 좋은 제도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적정한 간호인력 배치와 적절한 수가보상체계 마련이다. 지난 6일 열린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전략 및 제도화 방안’ 세미나에서 안형식 교수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입원료 현실화 및 야간 간호관리료 신설 등을 통한 수가 개선과 간호사 고용을 위한 병원재정 확보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이직과 퇴직 감소를 위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임 차장은 “<span class='quot0'>올해 6월 포괄병동 야간전담제 가산을 5%에서 30%로 확대하고, 포괄간호서비스 모형에 따른 차등수가 개발 등을 통해 참여 병원들이 효과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특히 정부 발표에 따르면 포괄간호서비스는 2018년 전체 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임 차장은 “<span class='quot0'>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참여 병원을 확대하고, 인력 확충과 모형 개발, 전체 병원 적용시 대상기관 선정, 서울과 수도권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보완에 나설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br/><br/> 또한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환자·보호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기존 보호자나 간병인에 의존하던 입원간호서비스를 병원 간호 인력이 담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나, 환자·보호자들의 지나친 간병 요구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임금남 차장은 “<span class='quot1'>포괄간호서비스는 사적 간병문화를 없애고 입원간호서비스를 병원이 책임지는 것으로, 사회적 부담 경감, 입원환경 개선과 감염 차단, 치료효과 증대 등 매우 좋은 제도</span>”라며 “<span class='quot1'>간호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보완에도 적극 나설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04.txt

제목: [암과의 동행] 포괄간호서비스, 적절 수가보상으로 새바람 안착시키자  
날짜: 20150817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31  
본문: 인천에 거주하는 A(67·여)씨는 최근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보호자 없는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자식들에게 간병을 부탁하기도, 그렇다고 하루 7만원이 드는 간병인을 고용하기도 부담스러웠다. 지인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동을 알게 된 A씨는 부평힘찬병원을 찾았다. A씨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병원 의료진이 더 많이 신경써주고 있고 병동 환경도 깨끗하고 조용해 오히려 더 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불리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감염병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병원 내 확산 이유 중 하나로 한국 특유의 간병문화가 지목되면서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는 가족 간병과 간병인 고용 등 환자의 사적 간병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병원 입원환경으로 치료효과도 높다는 것이 의료현장의 의견이다.<br/><br/>◇올해 54개 병원 참여=포괄간호서비스는 환자 보호자나 개인고용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병원 내 전담 간호 인력이 24시간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 중심 제도다. 간호 인력을 늘려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처음 시행했다. 2013년 시범사업에는 13개 병원이 참여했다. 이후 지난해 2월 ‘3대 비급여 개선방안에 간병문제 개선’이 포함되면서, 2014년 28개 병원(민간 9, 공공 19)에서 50개 병동 2363병상이 운영됐다. 시범사업은 포괄간호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간호인력충원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2년의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포괄간호서비스 모형을 개발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지방 중소병원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운영된다. <br/><br/> 8월5일 기준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은 54개 병원(민간 37, 공공 17) 86개 병동 3953병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임금남 차장은 “기존 입원료 대신 새로운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를 산정한다. 통상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해 포괄간호병동 입원료 20%를 환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종합병원 6인실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할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은 1만8130원에서 2만2150원 정도다.<br/><br/> ◇달라진 병원환경=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쾌적한 병원(입원) 환경, 환자와 의료진 만족도 향상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시범사업부터 참여 중인 인하대병원의 경우 환자 모니터링 및 간호요구에 대한 즉각적 대응 시스템 구축, 의료진 및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활성화, 욕창·감염·낙상 등 안전사고 방지 체계 마련 등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br/><br/> 이수연 인하대병원 간호부장은 “보호자 없는 병동의 가장 큰 변화는 쾌적한 병원환경 조성이다. 또한 당초 우려와 달리 욕창과 낙상 등이 오히려 줄었다”며 “보호자와 환자, 의료진 모두 달라진 입원환경에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 인하대병원 조사에 따르면 간병료 7만원의 부담이 1만3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줄고, 보호자의 간병 피로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에 대한 간호 인력의 직접 간호시간이 늘어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인하대병원이 실시한 외부고객만족도 결과 포괄병동 만족도는 평균 96.4점이었던 반면 일반병동은 평균 89.4점이었다. 또한 욕창 발생 건수도 2012년 연간 13.8건에서 포괄병동 전환 후 7.5건(2015년 기준)으로 줄었고, 낙상 발생도 2012년 연간 3.0건에서 2015년 연간 0.8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포괄병동의 경우 환자 자가 간호 능력이 향상돼 질병 조기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하대병원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재원일수 7.0일에서 2015년 포괄병동 시범 후 6.1일로 0.9일이 단축됐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고려대 의과대학 안형식 교수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내 감염 발생률의 경우 포괄간호병동은 1일 1000명당 2.1명으로 간병인과 보호자가 상주하는 일반병동 6.9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부평힘찬병원 유일남 수간호사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알고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부쩍 늘었다.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 재활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전인간호를 시행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진의 자부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br/><br/> ◇제도 정착 위한 과제는=포괄간호서비스가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 차단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면에서 좋은 제도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적정한 간호인력 배치와 적절한 수가보상체계 마련이다. 지난 6일 열린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전략 및 제도화 방안’ 세미나에서 안형식 교수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입원료 현실화 및 야간 간호관리료 신설 등을 통한 수가 개선과 간호사 고용을 위한 병원재정 확보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이직과 퇴직 감소를 위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임 차장은 “<span class='quot0'>올해 6월 포괄병동 야간전담제 가산을 5%에서 30%로 확대하고, 포괄간호서비스 모형에 따른 차등수가 개발 등을 통해 참여 병원들이 효과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특히 정부 발표에 따르면 포괄간호서비스는 2018년 전체 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임 차장은 “<span class='quot0'>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참여 병원을 확대하고, 인력 확충과 모형 개발, 전체 병원 적용시 대상기관 선정, 서울과 수도권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보완에 나설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br/><br/> 또한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환자·보호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기존 보호자나 간병인에 의존하던 입원간호서비스를 병원 간호 인력이 담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나, 환자·보호자들의 지나친 간병 요구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임금남 차장은 “<span class='quot1'>포괄간호서비스는 사적 간병문화를 없애고 입원간호서비스를 병원이 책임지는 것으로, 사회적 부담 경감, 입원환경 개선과 감염 차단, 치료효과 증대 등 매우 좋은 제도</span>”라며 “<span class='quot1'>간호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보완에도 적극 나설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05.txt

제목: [암과의 동행-인터뷰]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의사 건강해야 환자도 건강, 진료환경 개선 총력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53493  
본문: “의사가 건강해야 환자도 건강해진다. 국민 건강을 위해 마음 편히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br/><br/> 올해 100주년을 맞은 서울시의사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에 당선된 김숙희 회장은 ‘회원,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초 회장 후보로 나설 때도 ‘상생, 소통, 의권강화, 마음편한 진료환경’을 강조하며 ‘진료만 하고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br/><br/> 그는 “많은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다. 각 직역의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업무만 한다면 좋겠지만 각각 너무 많은 업무 부담이 있다. 여기에 의료정책은 갈수록 의사에게 부담을 주고, 타 직능의 영역침범이 늘어나는 등 의사로서의 권리는 줄고 의무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힘든 상황이지만 의사가 건강해져야 환자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상생과 소통을 통한 의권강화와 진료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회장으로서 회원이 국민건강을 위해 마음 편히 진료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밝혔다.<br/><br/> 또 100주년을 맞은 서울시의사회의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전문가로서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욕구와 직업인으로서 의사의 권리가 만나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건강 100세에 의사회 역시 건강한 미래 100년을 시작하고 싶다. 올해가 건강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br/><br/> 김 회장은 현 의료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전문가인 의사가 배제된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현 의료시스템은 총체적인 난맥(亂脈)이다. 의료정책의 입안·시도에 전문가인 의사는 배제돼 있고, 건강보험수가는 낮으며, 의료전달체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의사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모든 사안이 연결돼 있어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하나하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의사사회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내부 단합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의사 단체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는데 회원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상태면 지금의 의사단체도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며 “회원들이 의사단체의 주인이 되고, 단결만 된다면 당면한 여러 문제 해결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 또 의료현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는데 우선 ‘원격의료’의 경우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구태여 많은 비용을 들여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춰야 할지 의문이고, 원격의료 자체도 완성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보안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분업’은 국민이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데 반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의사가 낸 처방을 싼 약으로 바꿔주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사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br/><br/> 의료계 내부의 문제인 ‘사무장병원’의 경우는 의사에게 가장 큰 덕목인 윤리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목적으로 병원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의 근본을 왜곡시킬 수 있고, 환자들은 사무장병원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사에 대해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정부당국의 강한 근절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 의료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병의원은 수가에 의해 운영된다.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러한 책임이 일반 병의원에 전가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물건에 보호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수가에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등의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가 해줘야 할 일을 왜 개인 병의원에 부담시키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br/><br/> 한편 메르스 사태에서 서울시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서울시의사회는 향후에도 협력을 통해 국민건강수호에 앞장서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메르스를 비롯한 신종감염병 및 각종 질병의 예방에 있어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위기상황에서도 보건소가 일반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일반진료보다는 국민을 위한 예방사업 및 질병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의사회의 많은 요구를 반영해줬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앞으로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정책마련 및 시행과정에서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0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사전의료의향서 제대로 효력 발휘되려면 통합 등록·관리시스템 절실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39559  
본문: 17평 남짓의 좁은 사무실. 이곳에 평균 연령 60세의 여성들이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전화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사단법인 사무실은 노후에 몸이 아파 병원 신세를 져야할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상담해주는 곳이다.<br/><br/> ◇병문안 중 무의미한 연명치료 목격한 어르신들 상담전화 많아=일반인 누구나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고 원한다면 사전의료의향서를 집 또는 사무실로 받아볼 수 있다. 사무실 한쪽에 내일이면 우체국으로 보내질 우편물들이 가득했다. 모두 사전의료의향서와 그 작성방법이 담긴 우편물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상담 업무뿐 아니라 손수 편지봉투에 사전의료의향서를 넣고 친필로 상담자의 주소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준다. <br/><br/> 이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하루 평균 50통의 전화를 받는다. 일반 전화 상담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단순한 문의 전화가 아니다. 이들이 전화 상담하는 모습을 30분간 지켜봤다. “<span class='quot0'>자식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기 싫다</span>”며 “<span class='quot0'>정신이 온전할 때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다</span>”는 80세 어르신의 전화부터 “<span class='quot0'>부모를 간병하는 것이 너무도 버겁다</span>”는 자녀의 호소 전화까지 저마다 현재의 버거운 삶의 무게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고민을 안고 수화기 너머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자신 혹은 가족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국사회가 터부시하는 죽음을 털어놓는 것이다. <br/><br/> 이곳에서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는 유명숙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웰다잉 강사는 “전화 상담의 대부분이 어르신이다. 이 중에는 잘 안 들려 큰소리를 말해 달라고 할 정도로 노쇠한 어르신도 계신다. 전화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몸이 붓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상황을 목격한 경험들이 있다. 당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물어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br/><br/> ◇의향서 작성한 사실 모르면 무용지물…통합센터 필요성=한국에도 품격 있는 죽음,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거듭하고 있다. 자신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의료상황에서 인공호흡기 의존, 수액주사 등으로 생명을 연장하기만 하는 의료시술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는 일명 웰다잉 법이 국회에 발의됐다.<br/><br/> 지난달 9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성인이면 뇌사, 질병 말기 등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연명의료여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미리 밝혀 놓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 내용에 따라 담당의사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br/><br/> 앞에서 보듯 사전의료의향서는 우편이나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는 현재까지 개인보관이다. 이 경우 작성자가 잃어버렸거나 가족들이 환자가 작성한 사실을 모르면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 지난 9일 발의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보관됐던 사전의료의향서는 통합된 하나의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은 환자의 과거 작성여부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기관에 문의해 알아볼 수 있다.<br/><br/> 홍양희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공동대표는 “사전의료의향서가 분실되거나 가족들이 이 사실을 몰라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웰다잉 법안에는 국립연명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07.txt

제목: [암과의 동행-인터뷰]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의사 건강해야 환자도 건강, 진료환경 개선 총력  
날짜: 20150817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52  
본문: “의사가 건강해야 환자도 건강해진다. 국민 건강을 위해 마음 편히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br/><br/> 올해 100주년을 맞은 서울시의사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에 당선된 김숙희 회장은 ‘회원,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초 회장 후보로 나설 때도 ‘상생, 소통, 의권강화, 마음편한 진료환경’을 강조하며 ‘진료만 하고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br/><br/> 그는 “많은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다. 각 직역의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업무만 한다면 좋겠지만 각각 너무 많은 업무 부담이 있다. 여기에 의료정책은 갈수록 의사에게 부담을 주고, 타 직능의 영역침범이 늘어나는 등 의사로서의 권리는 줄고 의무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힘든 상황이지만 의사가 건강해져야 환자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상생과 소통을 통한 의권강화와 진료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회장으로서 회원이 국민건강을 위해 마음 편히 진료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밝혔다.<br/><br/> 또 100주년을 맞은 서울시의사회의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전문가로서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욕구와 직업인으로서 의사의 권리가 만나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건강 100세에 의사회 역시 건강한 미래 100년을 시작하고 싶다. 올해가 건강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br/><br/> 김 회장은 현 의료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전문가인 의사가 배제된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현 의료시스템은 총체적인 난맥(亂脈)이다. 의료정책의 입안·시도에 전문가인 의사는 배제돼 있고, 건강보험수가는 낮으며, 의료전달체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의사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모든 사안이 연결돼 있어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하나하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의사사회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내부 단합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의사 단체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는데 회원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상태면 지금의 의사단체도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며 “회원들이 의사단체의 주인이 되고, 단결만 된다면 당면한 여러 문제 해결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 또 의료현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는데 우선 ‘원격의료’의 경우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구태여 많은 비용을 들여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춰야 할지 의문이고, 원격의료 자체도 완성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보안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분업’은 국민이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데 반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의사가 낸 처방을 싼 약으로 바꿔주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사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br/><br/> 의료계 내부의 문제인 ‘사무장병원’의 경우는 의사에게 가장 큰 덕목인 윤리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목적으로 병원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의 근본을 왜곡시킬 수 있고, 환자들은 사무장병원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사에 대해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정부당국의 강한 근절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 의료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병의원은 수가에 의해 운영된다.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러한 책임이 일반 병의원에 전가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물건에 보호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수가에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등의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가 해줘야 할 일을 왜 개인 병의원에 부담시키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br/><br/> 한편 메르스 사태에서 서울시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서울시의사회는 향후에도 협력을 통해 국민건강수호에 앞장서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메르스를 비롯한 신종감염병 및 각종 질병의 예방에 있어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위기상황에서도 보건소가 일반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일반진료보다는 국민을 위한 예방사업 및 질병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의사회의 많은 요구를 반영해줬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앞으로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정책마련 및 시행과정에서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br/><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08.txt

제목: [암과의 동행] 사전의료의향서 제대로 효력 발휘되려면 통합 등록·관리시스템 절실  
날짜: 20150817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33  
본문: 17평 남짓의 좁은 사무실. 이곳에 평균 연령 60세의 여성들이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전화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사단법인 사무실은 노후에 몸이 아파 병원 신세를 져야할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상담해주는 곳이다.<br/><br/> ◇병문안 중 무의미한 연명치료 목격한 어르신들 상담전화 많아=일반인 누구나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고 원한다면 사전의료의향서를 집 또는 사무실로 받아볼 수 있다. 사무실 한쪽에 내일이면 우체국으로 보내질 우편물들이 가득했다. 모두 사전의료의향서와 그 작성방법이 담긴 우편물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상담 업무뿐 아니라 손수 편지봉투에 사전의료의향서를 넣고 친필로 상담자의 주소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준다. <br/><br/> 이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하루 평균 50통의 전화를 받는다. 일반 전화 상담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단순한 문의 전화가 아니다. 이들이 전화 상담하는 모습을 30분간 지켜봤다. “<span class='quot0'>자식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기 싫다</span>”며 “<span class='quot0'>정신이 온전할 때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다</span>”는 80세 어르신의 전화부터 “<span class='quot0'>부모를 간병하는 것이 너무도 버겁다</span>”는 자녀의 호소 전화까지 저마다 현재의 버거운 삶의 무게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고민을 안고 수화기 너머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자신 혹은 가족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국사회가 터부시하는 죽음을 털어놓는 것이다. <br/><br/> 이곳에서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는 유명숙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웰다잉 강사는 “전화 상담의 대부분이 어르신이다. 이 중에는 잘 안 들려 큰소리를 말해 달라고 할 정도로 노쇠한 어르신도 계신다. 전화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몸이 붓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상황을 목격한 경험들이 있다. 당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물어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br/><br/> ◇의향서 작성한 사실 모르면 무용지물…통합센터 필요성=한국에도 품격 있는 죽음,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거듭하고 있다. 자신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의료상황에서 인공호흡기 의존, 수액주사 등으로 생명을 연장하기만 하는 의료시술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는 일명 웰다잉 법이 국회에 발의됐다.<br/><br/> 지난달 9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성인이면 뇌사, 질병 말기 등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연명의료여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미리 밝혀 놓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 내용에 따라 담당의사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br/><br/> 앞에서 보듯 사전의료의향서는 우편이나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는 현재까지 개인보관이다. 이 경우 작성자가 잃어버렸거나 가족들이 환자가 작성한 사실을 모르면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 지난 9일 발의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보관됐던 사전의료의향서는 통합된 하나의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은 환자의 과거 작성여부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기관에 문의해 알아볼 수 있다.<br/><br/> 홍양희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공동대표는 “사전의료의향서가 분실되거나 가족들이 이 사실을 몰라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웰다잉 법안에는 국립연명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09.txt

제목: [겨자씨] 삶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을까?  
날짜: 201508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0100000019  
본문: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토록 사랑하였던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와 함께 이태리 피에몬드 지역에 있는 사크로 몬테 산을 올랐습니다. 사크로 몬테는 ‘신성한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체는 그 산을 오르면서 사랑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잔뜩 신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과연 이렇게 세속화된 시대에 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무신론자라도 신성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br/><br/> 니체가 살로메와 함께 그곳을 찾은 이유는 ‘신이 죽은 시대에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크로 몬테라는 곳에는 45개 예배당이 있었고 교회 건물 안에는 성경 인물 400여명의 이야기가 실물 크기 목재 인형과 테라코타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기독교가 발전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니체는 ‘신이 죽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br/><br/>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pan class='quot0'>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span>”(암 5:8) <br/><br/>정영교 목사(산본양문교회)<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10.txt

제목: [힐링노트-박강월] 왕의 긍휼  
날짜: 2015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08100000004  
본문: 내가 문자편지로 섬기고 있는 햇살편지 중보기도 팀에 긴급기도를 요청해온 지체들 중에는 병원에서 포기한 시한부 말기 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그 중 나의 딸보다 겨우 한 살이 많은 젊은 주부가 있어 중보기도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몹시 아프다. 그녀는 세 살, 네 살 두 아이의 엄마이다. 남편이 중국 주재원으로 출국을 하게 되어 건강검진을 받던 중에 폐에서 말기 암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얼굴 한번 본 일 없는 그녀를 위해 기도드릴 때면 번번이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내 모습에 놀라게 된다. 병상에 있을 때의 내 모습이 떠올라서 일지도 모르겠다. <br/><br/> 나도 그녀처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아직 결혼을 못한 딸아이로 인해 얼마나 힘겨웠던가. 가족과 이웃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셨을 성령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전달되어져 온다.<br/><br/> 그때는 내가 마치 반역죄를 지어 이름 모를 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역적인가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었다. 치유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면 곧 의금부 군사 편에 사약그릇이 전달될 것 같아 두려움에 떨기도 했고, 유배생활을 성실히 하며 지은 죄를 진실로 뉘우친다면 이제 곧 왕께서 한양으로 나를 다시 불러주시지 않을까 하는 덧없는 희망도 품으며 근근이 견뎌냈다. 그 시간들은 롤러코스트를 타면서 저글링을 하는 듯 절망과 소망이 끝없이 반복되는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이었다. 성령께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그녀를 위한 치료의 긍휼을 구할 감동을 주셔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br/><br/> “<span class='quot0'>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span>”(사 40:1∼2) <br/><br/>박강월(수필가, 주부편지 발행인)<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11.txt

제목: [힐링노트-박강월] 왕의 긍휼  
날짜: 2015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195330609  
본문: 내가 문자편지로 섬기고 있는 햇살편지 중보기도 팀에 긴급기도를 요청해온 지체들 중에는 병원에서 포기한 시한부 말기 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그 중 나의 딸보다 겨우 한 살이 많은 젊은 주부가 있어 중보기도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몹시 아프다. 그녀는 세 살, 네 살 두 아이의 엄마이다. 남편이 중국 주재원으로 출국을 하게 되어 건강검진을 받던 중에 폐에서 말기 암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얼굴 한번 본 일 없는 그녀를 위해 기도드릴 때면 번번이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내 모습에 놀라게 된다. 병상에 있을 때의 내 모습이 떠올라서 일지도 모르겠다. <br/><br/> 나도 그녀처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아직 결혼을 못한 딸아이로 인해 얼마나 힘겨웠던가. 가족과 이웃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셨을 성령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전달되어져 온다.<br/><br/> 그때는 내가 마치 반역죄를 지어 이름 모를 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역적인가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었다. 치유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면 곧 의금부 군사 편에 사약그릇이 전달될 것 같아 두려움에 떨기도 했고, 유배생활을 성실히 하며 지은 죄를 진실로 뉘우친다면 이제 곧 왕께서 한양으로 나를 다시 불러주시지 않을까 하는 덧없는 희망도 품으며 근근이 견뎌냈다. 그 시간들은 롤러코스트를 타면서 저글링을 하는 듯 절망과 소망이 끝없이 반복되는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이었다. 성령께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그녀를 위한 치료의 긍휼을 구할 감동을 주셔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br/><br/> “<span class='quot0'>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span>”(사 40:1∼2) <br/><br/>박강월(수필가, 주부편지 발행인)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12.txt

제목: 돈 앞에 ‘핏줄’ 없다?… 상속 분쟁 4년 새 倍로  
날짜: 201508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195042289  
본문: 2013년 아버지가 숨지면서 남긴 1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두고 자녀들과 어머니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법정상속비율은 어머니 33.3%, 세 자녀가 각각 22.2%를 나눠 갖도록 정해져 있었다. 자녀 중 A씨는 이 비율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span class='quot0'>2008년부터 부모를 모셨고, 2010년 암에 걸린 아버지가 숨질 때까지 간병을 했다</span>”며 상속재산 중 30%를 기여분으로 받고 나머지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br/><br/> 어머니도 할 말이 많았다. 1950년 결혼한 뒤 남편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혼자서 5년 이상 시부모를 모시고 시동생들을 보살폈다고 주장했다. 또 함께 농사를 지으며 농지를 불하받아 상환을 완료하는 등 남편의 소유 재산 대부분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여분 30%는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br/><br/>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식들에게 넘겨준 재산까지 고려해 원점부터 계산을 다시 했다. 우선 재산에 대한 A씨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기여만 인정돼 13억원 중 20%를 어머니 몫으로 책정했다. 이후 아버지가 이미 자녀들에게 증여했거나 남긴 재산을 모두 더해 보니 37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를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다시 나눴다.<br/><br/> 재판부는 어머니가 받아야 할 재산을 12억여원, 세 자녀가 받아야 할 몫을 각각 8억200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A씨에게 넘긴 재산은 19억여원이었다. 이미 받을 몫을 11억원가량 초과한 셈이다. 어머니는 10억원, 다른 두 형제는 각각 2억3000만원, 6억2000만원을 더 받아야 했다. 결국 남은 부동산은 어머니에게 77%, 두 형제에게 각각 18%, 5%씩 돌아갔다. 소송을 낸 A씨는 되레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다.<br/><br/> 이처럼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 간에 벌어지는 소송이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사건 접수 건수가 2011년 154건에서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br/><br/> 롯데그룹 총수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평범한 이들의 일상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과거 중시됐던 혈연의 가치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정현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13.txt

제목: 돈 앞에 ‘핏줄’ 없다?… 상속 분쟁 4년 새 倍로  
날짜: 20150806  
기자: 정현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06100000064  
본문: 2013년 아버지가 숨지면서 남긴 1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두고 자녀들과 어머니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법정상속비율은 어머니 33.3%, 세 자녀가 각각 22.2%를 나눠 갖도록 정해져 있었다. 자녀 중 A씨는 이 비율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span class='quot0'>2008년부터 부모를 모셨고, 2010년 암에 걸린 아버지가 숨질 때까지 간병을 했다</span>”며 상속재산 중 30%를 기여분으로 받고 나머지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br/><br/> 어머니도 할 말이 많았다. 1950년 결혼한 뒤 남편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혼자서 5년 이상 시부모를 모시고 시동생들을 보살폈다고 주장했다. 또 함께 농사를 지으며 농지를 불하받아 상환을 완료하는 등 남편의 소유 재산 대부분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여분 30%는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br/><br/>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식들에게 넘겨준 재산까지 고려해 원점부터 계산을 다시 했다. 우선 재산에 대한 A씨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기여만 인정돼 13억원 중 20%를 어머니 몫으로 책정했다. 이후 아버지가 이미 자녀들에게 증여했거나 남긴 재산을 모두 더해 보니 37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를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다시 나눴다.<br/><br/> 재판부는 어머니가 받아야 할 재산을 12억여원, 세 자녀가 받아야 할 몫을 각각 8억200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A씨에게 넘긴 재산은 19억여원이었다. 이미 받을 몫을 11억원가량 초과한 셈이다. 어머니는 10억원, 다른 두 형제는 각각 2억3000만원, 6억2000만원을 더 받아야 했다. 결국 남은 부동산은 어머니에게 77%, 두 형제에게 각각 18%, 5%씩 돌아갔다. 소송을 낸 A씨는 되레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다.<br/><br/> 이처럼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 간에 벌어지는 소송이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사건 접수 건수가 2011년 154건에서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br/><br/> 롯데그룹 총수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평범한 이들의 일상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과거 중시됐던 혈연의 가치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정현수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14.txt

제목: 성산생명윤리硏·기독교생명윤리협회 “연명의료 법안, 생명 존엄 훼손 우려”  
날짜: 20150805  
기자: 양민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05100000020  
본문: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권오용)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는 국회에 발의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생명의 존엄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br/><br/>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9일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에는 모든 성인은 사전에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임종단계인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br/><br/>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 본인의 뜻이 아닌 의사나 가족, 위원회 등 제삼자의 결정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 스스로 또는 가족이나 의료인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단을 섣불리 법제화하는 건 소극적 안락사를 조장해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설명했다.<br/><br/> 두 단체는 “법률안에서 연명의료로 정의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은 응급환자나 만성신장병 환자, 암 환자, 호흡기환자들에게 주로 행해지는 의학적 시술”이라며 “법제화가 되면 이들 질병을 앓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연명의료’에 포함시키는 건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연케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서는 “권장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법제화하기 전 시범적 프로그램을 먼저 도입해 사회 인식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br/><br/>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15.txt

제목: 성산생명윤리硏·기독교생명윤리협회 “연명의료 법안, 생명 존엄 훼손 우려”  
날짜: 2015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194752011  
본문: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권오용)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는 국회에 발의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생명의 존엄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br/><br/>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9일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에는 모든 성인은 사전에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임종단계인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br/><br/>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 본인의 뜻이 아닌 의사나 가족, 위원회 등 제삼자의 결정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 스스로 또는 가족이나 의료인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단을 섣불리 법제화하는 건 소극적 안락사를 조장해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설명했다.<br/><br/> 두 단체는 “법률안에서 연명의료로 정의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은 응급환자나 만성신장병 환자, 암 환자, 호흡기환자들에게 주로 행해지는 의학적 시술”이라며 “법제화가 되면 이들 질병을 앓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연명의료’에 포함시키는 건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연케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서는 “권장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법제화하기 전 시범적 프로그램을 먼저 도입해 사회 인식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br/><br/>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16.txt

제목: [쿡닥터의 진료상담] 갑상선암 원인은 방사선 노출… 병원 엑스레이 촬영은 영향없어  
날짜: 2015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194425832  
본문: Q. 평소에 미역을 많이 먹는데 갑상선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나요?<br/><br/>A. 미역과 김,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요오드가 많이 든 음식을 다량 섭취하는 지역에서는 갑상선 유두암이 잘 생기고, 반대로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갑상선자극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 갑상선 여포암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양은 암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 갑상선암 발생과 식습관을 연관짓기는 어렵습니다.<br/><br/>Q. 음식이 아니라면 갑상선암의 원인이 무엇인가요?<br/><br/>A. 갑상선암은 일반 암과 달리 술이나 담배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방사선 노출에 따른 유전자 이상이 가장 강력한 원인인자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지역에서 갑상선암 환자가 100배 증가했다는 역학조사가 이를 반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스를 통해 노출되는 방사선의 양은 갑상선암을 유발한 만큼 유해하지 않습니다.<br/><br/>Q.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인데, 방사능 오염이 갑상선암과 관련이 있나요?<br/><br/>A.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때문에 그 지역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5∼8배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후쿠시마의 어린이들 중 갑상선암 환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린이의 암 발생 가능성이 최대 9배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br/><br/>Q. 남성과 여성 간의 갑상선암에 차이가 있나요?<br/><br/>A.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6배 정도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왜 여성에게 갑상선암이 더 흔하게 유발되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의 갑상선암이 더 공격적이고 재발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r/><br/>정리=김단비 기자<br/><br/><답변=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br/><br/>각종 질병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건강생활팀 김단비 기자(kubee08@kukimedia.co.kr)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질문을 선정, 의료진이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17.txt

제목: [쿡닥터의 진료상담] 갑상선암 원인은 방사선 노출… 병원 엑스레이 촬영은 영향없어  
날짜: 20150803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03100000049  
본문: Q. 평소에 미역을 많이 먹는데 갑상선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나요?<br/>A. 미역과 김,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요오드가 많이 든 음식을 다량 섭취하는 지역에서는 갑상선 유두암이 잘 생기고, 반대로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갑상선자극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 갑상선 여포암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양은 암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 갑상선암 발생과 식습관을 연관짓기는 어렵습니다.<br/>Q. 음식이 아니라면 갑상선암의 원인이 무엇인가요?<br/>A. 갑상선암은 일반 암과 달리 술이나 담배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방사선 노출에 따른 유전자 이상이 가장 강력한 원인인자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지역에서 갑상선암 환자가 100배 증가했다는 역학조사가 이를 반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스를 통해 노출되는 방사선의 양은 갑상선암을 유발한 만큼 유해하지 않습니다.<br/>Q.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인데, 방사능 오염이 갑상선암과 관련이 있나요?<br/>A.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때문에 그 지역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5∼8배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후쿠시마의 어린이들 중 갑상선암 환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린이의 암 발생 가능성이 최대 9배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br/>Q. 남성과 여성 간의 갑상선암에 차이가 있나요?<br/>A.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6배 정도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왜 여성에게 갑상선암이 더 흔하게 유발되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의 갑상선암이 더 공격적이고 재발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r/>정리=김단비 기자<br/><br/>각종 질병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건강생활팀 김단비 기자(kubee08@kukimedia.co.kr)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질문을 선정, 의료진이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18.txt

제목: 서양식 식습관이 부르는 대장암… 간으로 전이될 때 유전자 돌연변이 무려 4배 늘어나  
날짜: 2015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194413001  
본문: 대장암은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한국인을 위협하는 암종이다. 많은 사람들이 곡물 섭취보다 고기 섭취가 많은 서양식 식사를 선호하게 되면서 국내 대장암 발병률은 해마다 높아져 갔다.<br/><br/> ◇대장암 위험요인=대장암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는 50세 이상의 연령, 기름진 음식을 즐겨하는 식사, 비만, 유전적 요인, 선종성 용종 등이 꼽히고 있다.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는 50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5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부모나 형제 중 55세 이하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가 있다면 40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하다. 또한 선종성 용종이 발견된 경우 그 크기에 따라 절제하고 대장내시경 검진주기를 5년에서 3년 이하로 단축시켜 상태를 관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br/><br/>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발견된 대장 용종은 추후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인자로 꼽힌다. 따라서 대장용종이 발견돼 제거했다면 자신의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용종을 발생시킬 만한 행동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에 따르면 대장용종은 흡연과 비만, 소염진통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경우, 잦은 육류 섭취, 낮은 섬유질 섭취, 낮은 칼슘 섭취라는 생활습관을 가졌을 때 생겨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용종을 줄여나가는 생활 및 식습관과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암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내는 일이다.<br/><br/> ◇대장암 유전자 변이별 치료계획 달라져=대장암에서 다양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다. p53 유전자는 암억제유전자로 불린다. 많은 대장암 환자들에게서 암억제유전자 p53이 변이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돌연변이 유전자는 정상적인 세포를 암세포로 변화시킨다. 이 밖에도 종양에서 여러 종류의 돌연변이가 관찰된다. <br/><br/> 국내 연구진이 원발성 대장암과 간으로 전이를 일으킨 대장암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치료계획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내놓았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외과 이원석 교수는 정상적인 대장조직과 원발성 대장암, 간 전이 대장암 등 서로 다른 대장 상태를 가진 15명에 대해 돌연변이 수를 알아보는 전체 엑솜염기서열분석을 실시했다. <br/><br/> 그 결과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에서 가장 많은 돌연변이가 발견됐다. 원발성 대장암에서 1079건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됐으나 간 전이 대장암 조직에서는 이보다 4배 많은 4366건의 돌연변이가 발견됐다. <br/><br/> 암세포 사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원발성 대장암 조직에서는 47%에 그친 반면 간 전이 대장암에서는 67% 발견됐다. 특히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혈관생성 유전자, KDR 단백질이 대장암 원발 부위 조직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전이 병변에서는 26.7% 발견됐다. 이는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 환자에는 KDR 유전자를 타깃으로 한 표적항암제가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연구를 진행한 이원석 교수는 “대장암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을 찾기 위해 원발 부위의 조직을 떼서 약물 반응성 검사를 해본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같은 대장암일지라도 원발 부위와 전이된 대장암 부위에서 다른 돌연변이 분포를 보이므로 대장암의 적정 치료를 위해서 원발 부위 데이터로 치료계획을 세우기보다 전이성 대장암 병변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19.txt

제목: 서양식 식습관이 부르는 대장암… 간으로 전이될 때 유전자 돌연변이 무려 4배 늘어나  
날짜: 20150803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03100000027  
본문: 대장암은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한국인을 위협하는 암종이다. 많은 사람들이 곡물 섭취보다 고기 섭취가 많은 서양식 식사를 선호하게 되면서 국내 대장암 발병률은 해마다 높아져 갔다.<br/> ◇대장암 위험요인=대장암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는 50세 이상의 연령, 기름진 음식을 즐겨하는 식사, 비만, 유전적 요인, 선종성 용종 등이 꼽히고 있다.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는 50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5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부모나 형제 중 55세 이하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가 있다면 40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하다. 또한 선종성 용종이 발견된 경우 그 크기에 따라 절제하고 대장내시경 검진주기를 5년에서 3년 이하로 단축시켜 상태를 관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br/>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발견된 대장 용종은 추후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인자로 꼽힌다. 따라서 대장용종이 발견돼 제거했다면 자신의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용종을 발생시킬 만한 행동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에 따르면 대장용종은 흡연과 비만, 소염진통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경우, 잦은 육류 섭취, 낮은 섬유질 섭취, 낮은 칼슘 섭취라는 생활습관을 가졌을 때 생겨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용종을 줄여나가는 생활 및 식습관과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암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내는 일이다.<br/> ◇대장암 유전자 변이별 치료계획 달라져=대장암에서 다양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다. p53 유전자는 암억제유전자로 불린다. 많은 대장암 환자들에게서 암억제유전자 p53이 변이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돌연변이 유전자는 정상적인 세포를 암세포로 변화시킨다. 이 밖에도 종양에서 여러 종류의 돌연변이가 관찰된다. <br/> 국내 연구진이 원발성 대장암과 간으로 전이를 일으킨 대장암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치료계획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내놓았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외과 이원석 교수는 정상적인 대장조직과 원발성 대장암, 간 전이 대장암 등 서로 다른 대장 상태를 가진 15명에 대해 돌연변이 수를 알아보는 전체 엑솜염기서열분석을 실시했다. <br/> 그 결과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에서 가장 많은 돌연변이가 발견됐다. 원발성 대장암에서 1079건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됐으나 간 전이 대장암 조직에서는 이보다 4배 많은 4366건의 돌연변이가 발견됐다. <br/> 암세포 사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원발성 대장암 조직에서는 47%에 그친 반면 간 전이 대장암에서는 67% 발견됐다. 특히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혈관생성 유전자, KDR 단백질이 대장암 원발 부위 조직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전이 병변에서는 26.7% 발견됐다. 이는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 환자에는 KDR 유전자를 타깃으로 한 표적항암제가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연구를 진행한 이원석 교수는 “대장암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을 찾기 위해 원발 부위의 조직을 떼서 약물 반응성 검사를 해본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같은 대장암일지라도 원발 부위와 전이된 대장암 부위에서 다른 돌연변이 분포를 보이므로 대장암의 적정 치료를 위해서 원발 부위 데이터로 치료계획을 세우기보다 전이성 대장암 병변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20.txt

제목: “행복한 작별 고하려면 마지막 모습 설계해 두자”… 윤영호 교수가 말하는 ‘이상적 죽음’  
날짜: 20150803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03100000025  
본문: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병원에서 많은 사람이 생을 마감한다. 병실 바로 옆 병원 장례식장은 생의 마침표를 찍는 곳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연구소(EIU)가 전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죽음의 질 지수를 평가했다. 한국은 40개 나라 중 32번째다. 꼴찌는 면했지만 불행한 수치다. 죽음의 질은 개인이 얼마나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신체적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답게 이별할 때 죽음의 질은 높아진다.<br/>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 질병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런 이별을 고해야 할 때도 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는 어떤 경우든 평소에 죽음을 준비한 상태라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죽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윤 교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했다. 영화는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납치된 비행기 안의 승객들은 다가올 죽음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다. “<span class='quot0'>사랑해, 고마워, 잘 지내.</span>” 길지 않은 대화에서 승객들은 죽음의 순간을 덤덤히 받아들인다.<br/> 영화 속 하나의 장면에서 이상적인 죽음을 정의한 윤 교수는 “비행기 추락이 예상되자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다. 사랑한다,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테러범에 의해 억울하게 죽는 이 순간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전화 한 통은 슬픔을 이기는 경험이 된다. 전화가 없었다면 남은 가족들은 허망한 사고 소식을 듣고 한동안 실의에 빠졌을지 모른다”고 말했다.<br/> 이어 윤 교수는 말기 암환자에게는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강조한다. 윤 교수는 “어떠한 의학적 처치도 병을 낫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삶에 집착하는 동안엔 죽음을 준비하는 기회조차 잃어버린다. 나 스스로 삶을 정리해 나갈 때 가족들도 나를 떠나보낼 시간을 갖게 된다.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은 남겨질 가족들에게 슬픔을 경감시켜 주는 일이 된다”고 설명했다.<br/> 평소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라고 말하는 윤영호 교수에게 죽음을 위해 스스로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물었다. 윤 교수는 “거창할 게 없다.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편지나 영상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나는 주말에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의 마지막 가는 길은 어땠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하는 편이다. 또 사전의료의향서도 작성해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 완화의료를 통해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사진 찍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영상을 촬영하자고 하면 당연히 안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떠난 자가 남겨놓은 편지나 영상은 가족에게는 그리움을 조용히 삭힐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된다”고 답했다.<br/> 윤 교수는 임종 장소로 병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상당수가 치료에 의존하다 병원에서 눈 감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윤 교수는 “병원은 전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 돼야 한다. 병원이 장례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일은 굉장히 모순적인 현실이다. 현재의 수가체계로는 운영이 불가능해 장례사업을 해야만 하는 비이상적인 구조지만 병원이 삶의 마지막 장소가 되선 안 된다. 바람직한 죽음의 장소가 어딘지 고민한다면 답은 쉽게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br/> 그는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곳에서 죽길 바란다. 차디찬 병원이란 공간에서 눈을 감기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가정에서의 호스피스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예로 아파트와 같은 거주환경에서 죽은 뒤 시체를 옮기는 작업도 많은 노력과 인력이 필요하다. 집에서 임종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다면 집이 임종하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해서 병원이 임종의 장소가 돼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병원과 집의 중간 모습이 있다. 바로 호스피스”라고 제시했다.<br/> 가정과 병원의 중간 형태인 호스피스. 한국의 호스피스 병상은 올 7월 1000개를 겨우 넘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연구소(EIU)가 실시한 죽음의 질 조사에서 한국이 낮은 순위를 기록한 까닭도 인구수에 한참 못 미치는 호스피스 병상 수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호스피스는 집과 같은 공간에서 전문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호스피스가 저 멀리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 많은 사람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죽음이 곧 고통스런 삶의 끝자락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편안히 삶을 마감하는 시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br/> ‘이상적 죽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뤄진 인터뷰의 결론은 평소 자신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계획해 두는 일과 편안히 죽을 수 있는 공간을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었다. <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21.txt

제목: “행복한 작별 고하려면 마지막 모습 설계해 두자”… 윤영호 교수가 말하는 ‘이상적 죽음’  
날짜: 2015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194346938  
본문: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병원에서 많은 사람이 생을 마감한다. 병실 바로 옆 병원 장례식장은 생의 마침표를 찍는 곳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연구소(EIU)가 전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죽음의 질 지수를 평가했다. 한국은 40개 나라 중 32번째다. 꼴찌는 면했지만 불행한 수치다. 죽음의 질은 개인이 얼마나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신체적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답게 이별할 때 죽음의 질은 높아진다.<br/><br/>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 질병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런 이별을 고해야 할 때도 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는 어떤 경우든 평소에 죽음을 준비한 상태라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죽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윤 교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했다. 영화는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납치된 비행기 안의 승객들은 다가올 죽음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다. “<span class='quot0'>사랑해, 고마워, 잘 지내.</span>” 길지 않은 대화에서 승객들은 죽음의 순간을 덤덤히 받아들인다.<br/><br/> 영화 속 하나의 장면에서 이상적인 죽음을 정의한 윤 교수는 “비행기 추락이 예상되자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다. 사랑한다,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테러범에 의해 억울하게 죽는 이 순간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전화 한 통은 슬픔을 이기는 경험이 된다. 전화가 없었다면 남은 가족들은 허망한 사고 소식을 듣고 한동안 실의에 빠졌을지 모른다”고 말했다.<br/><br/> 이어 윤 교수는 말기 암환자에게는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강조한다. 윤 교수는 “어떠한 의학적 처치도 병을 낫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삶에 집착하는 동안엔 죽음을 준비하는 기회조차 잃어버린다. 나 스스로 삶을 정리해 나갈 때 가족들도 나를 떠나보낼 시간을 갖게 된다.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은 남겨질 가족들에게 슬픔을 경감시켜 주는 일이 된다”고 설명했다.<br/><br/> 평소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라고 말하는 윤영호 교수에게 죽음을 위해 스스로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물었다. 윤 교수는 “거창할 게 없다.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편지나 영상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나는 주말에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의 마지막 가는 길은 어땠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하는 편이다. 또 사전의료의향서도 작성해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 완화의료를 통해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사진 찍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영상을 촬영하자고 하면 당연히 안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떠난 자가 남겨놓은 편지나 영상은 가족에게는 그리움을 조용히 삭힐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된다”고 답했다.<br/><br/> 윤 교수는 임종 장소로 병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상당수가 치료에 의존하다 병원에서 눈 감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윤 교수는 “병원은 전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 돼야 한다. 병원이 장례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일은 굉장히 모순적인 현실이다. 현재의 수가체계로는 운영이 불가능해 장례사업을 해야만 하는 비이상적인 구조지만 병원이 삶의 마지막 장소가 되선 안 된다. 바람직한 죽음의 장소가 어딘지 고민한다면 답은 쉽게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br/><br/> 그는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곳에서 죽길 바란다. 차디찬 병원이란 공간에서 눈을 감기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가정에서의 호스피스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예로 아파트와 같은 거주환경에서 죽은 뒤 시체를 옮기는 작업도 많은 노력과 인력이 필요하다. 집에서 임종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다면 집이 임종하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해서 병원이 임종의 장소가 돼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병원과 집의 중간 모습이 있다. 바로 호스피스”라고 제시했다.<br/><br/> 가정과 병원의 중간 형태인 호스피스. 한국의 호스피스 병상은 올 7월 1000개를 겨우 넘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연구소(EIU)가 실시한 죽음의 질 조사에서 한국이 낮은 순위를 기록한 까닭도 인구수에 한참 못 미치는 호스피스 병상 수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호스피스는 집과 같은 공간에서 전문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호스피스가 저 멀리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 많은 사람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죽음이 곧 고통스런 삶의 끝자락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편안히 삶을 마감하는 시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br/><br/> ‘이상적 죽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뤄진 인터뷰의 결론은 평소 자신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계획해 두는 일과 편안히 죽을 수 있는 공간을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22.txt

제목: [얼굴] 암 수술 ‘9전10기’ 새 삶 차인태 前아나운서, 죽음 문 턱에서 하나님이 주신 퀴즈… 정답은, 기도  
날짜: 2015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194217371  
본문: 그는 암병동에서 16개월을 보냈다. 체중이 11㎏이나 줄었다. 미각도 잃었다. 미각을 잃으니 배식 밥차에서 나는 냄새에도 극히 예민해져 구토가 빈번해졌다. 가족과 간병인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다. 약물이나 주사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br/><br/>그는 지난 6년간 아홉 차례 수술을 받으며 9전10기의 삶을 살았다. 그에게 죽음은 ‘무서움의 왕’(욥 18:14)이었다. 그러나 주께선 그에게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고 하였다. 무서움의 왕은 주님 앞에서 무력하다. 그는 평생 기도했고 평생 기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br/><br/>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주여 받아주옵소서.”<br/><br/> 지난 29일을 전후해 차인태(71·서울 영락교회 은퇴장로) 전 아나운서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차 장로는 수술조차 불가한 악성 종양을 신앙으로 이겨냈다. 그렇지만 아직은 관해(寬解)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이 쉽지 않았다.<br/><br/>-SNS를 통해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 투병 전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아홉 차례의 항암치료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전 모습 그대로이신데요. <br/><br/> “중보기도 덕입니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4∼5차 항암치료를 받을 때 이름 모를 청년들의 찬송과 중보기도를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적게는 2∼3명, 많게는 7∼8명의 20대 젊은이들이 매주 토요일과 주일 새벽 사이 천사의 음성으로 저와 환우들을 찾아주었어요. 암병동 끝에서 나지막이 들리는 찬송은 제게 예배시간이었습니다. <br/><br/> -발병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셨지요. 늘 대한민국 대표 아나운서로서의 기품을 잃지 않았고요.<br/><br/> “과분합니다. 2009년 10월 1일이었죠. 경기대 예술대학에서 10여년째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분주했던 날들이었어요. 한데 그날 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어요. 급성폐렴 증세였고요. 2주간의 진단 끝에 악성 림프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장과 폐 사이에 꽈리 모양의 악성 종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술도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더군요.<br/><br/> -‘내일의 죽음’보다 ‘오늘의 고통’이 더 힘드셨겠습니다.<br/><br/> “완치 가능성 40%였습니다. 그마저도 롱 텀(long term)으로 가야 한다고…. 육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24시간 수시로 진행되는 혈압, 호흡, 맥박, 혈당 체크와 간호사들의 신발 끄는 소리가 제 육신의 오늘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내 자신에 대한 원망, 서글픔, 부끄러움, 허탈, 분노, 실망, 무기력이 짓눌렀지요.<br/><br/> -사투였겠습니다.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했는데…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br/><br/> “항암주사 치료가 시작되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붙잡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아이들, 손자손녀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br/><br/> -모태신앙이시죠. 부모님이 평북 선천 등 한국 기독교 발상지나 다름없는 지역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br/><br/> “내 고향 평북 벽동군은 압록강을 사이에 둔 궁벽한 산골입니다. 크리스천인 증조할아버지가 평북 도의원을 지낸 지방 소지주여서 광복 후 북한 체제를 견디기 어려웠어요. 다행히 그때 할아버지가 경북 영천경찰서장으로 계셔서 월남하게 된 겁니다. 의사 면허가 있던 아버지가 경주에서 대한의원을 열었어요. 한데 1950년 6·25전쟁으로 아버지가 징집됐어요. 우리 4남매와 외가 쪽 식구들은 생계 수단이 없어 끼니 걱정을 해야 했어요. 외할머니가 부산 국제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와 경주 시장바닥에서 팔아 생계를 유지했지요. 의사가 귀한 때라 아버지는 야전공병단 군의관 등으로 7년을 근무했습니다. 어머니는 평북 선천 출신으로 신앙 깊은 가문이었습니다. <br/><br/> -4대째 신앙가문이고 손자·손녀까지 가면 6대째인데 깊은 신앙은 어디서 다져졌습니까. <br/><br/> “경주에서 올라와 서울 미동초교를 거쳐 대광고에 진학했어요. 제 실력에 비해 좀 실망스러운 진학이었어요. 하지만 미션스쿨 대광은 저를 붙들어주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그 학교 출신 친구들과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또 연세대 성악과에 진학한 후에는 이화여대 후문 앞 다락방교회를 섬겼는데 거기서 크리스천으로서 역사와 사회를 보는 눈을 길렀어요. 다락방교회는 김활란 박사(여성운동가)가 막사이사이상 수상을 기념해 설립한 교회였어요. 김옥길 당시 이화여대 총장(전 문교부 장관)과 이화여대, 연세대 교수님 등이 많이 출석했었죠. 장상 전 이대 총장이 대학 선배이자 교회 선배였습니다.”<br/><br/> 그는 연세대 졸업 후 1969년 아나운서가 됐다. 그리고 73년 ‘장학퀴즈’ 시작과 함께 스타 아나운서가 됐다. 90년 4월까지 그는 17년간 장학퀴즈 진행자였다. 그가 걸으면 사람들은 “아 저기 장학퀴즈가 간다”고 말했다. 장학퀴즈에 출전했던 배우 송승환, 정치인 김두관(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은 그와의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br/><br/> 그러나 스타 아나운서에게는 쉴 시간이 없었다. 1주일에 14개 프로그램이 주어졌다. 게다가 동요제, 가요제, 기념식, 대통령 취임식 등 중요 행사 진행도 피할 수 없었다. 신혼 이튿날 제주에서 호출당해 서울 녹화현장으로 가는가 하면, 맹장 수술 이틀 만에 녹화에 나서기도 했다. <br/><br/> 74년 8월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영결식 중계, 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에 따른 국민장 중계도 맡았다. 72년 12월엔 시민회관(현 세종문화회관)에서 ‘MBC 10대가수 가요제’ 클로징 멘트 중 화재가 발생 60∼70명이 죽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삶과 죽음이 늘 가까이에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셨다”고 회고했다.<br/><br/> -영락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셨지요. <br/><br/> “제가 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제 작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셨어요. 시온찬양대 대장을 오래했고요. 음악부장, 당회 서기, 홍보출판부장 등 제 삶과 교회는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타사 스카우트 제의나 선거 출마 제의가 들어오면 인간적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날이면 교회에 가서 조용히 묵상했고요. 중심을 잡게 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br/><br/> -요즘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에 원망 안 드세요.<br/><br/> “그럴 리가요. 지난해 7월 12시간 동안 심장판막치환 재수술 등이 있었어요. 깨어난 후 아내의 기도문을 발견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 차인태. 이제 그만 시험하시고 그의 낡은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진정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를 증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다메섹에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건강한 몸을 허락하셔서 주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최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쁘게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하고 말이죠. 아내 기도처럼 주님과 최후에 기쁘게 마주해야지요. 그 전까지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원망스럽겠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지요.”<br/><br/> -수술조차 불가했던 종양이 떨어져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의 헌신과 기도, 섭생과 운동도 큰 힘이 되셨지요. 병으로 애통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는.<br/><br/> “지금까지 내가 산 것, 누린 것, 대접 받았던 것이 본래 내 모습에 비해 얼마나 부풀려지고 과장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더 낮은 자세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치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믿습니다. 저보다 위중한 분들께 제가 조그마한 희망과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br/><br/>차인태<br/><br/>평북 벽동 출신으로 증조부 때부터 지켜온 신앙을 6대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 영락교회 은퇴장로. 연세대 성악과를 나와 1969년 MBC 아나운서가 됐다. 70, 80년대 대한민국 대표 아나운서. 98년 제주MBC 대표이사, 2003년 평북지사, 98년 경기대 예술대 영상전공 교수 역임. 73∼90년 인기 프로그램 ‘장학퀴즈’를 진행했다.<br/><br/>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23.txt

제목: [얼굴] 암 수술 ‘9전10기’ 새 삶 차인태 前아나운서, 죽음 문 턱에서 하나님이 주신 퀴즈… 정답은, 기도  
날짜: 20150801  
기자: 전정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01100000010  
본문: 그는 암병동에서 16개월을 보냈다. 체중이 11㎏이나 줄었다. 미각도 잃었다. 미각을 잃으니 배식 밥차에서 나는 냄새에도 극히 예민해져 구토가 빈번해졌다. 가족과 간병인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다. 약물이나 주사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br/>그는 지난 6년간 아홉 차례 수술을 받으며 9전10기의 삶을 살았다. 그에게 죽음은 ‘무서움의 왕’(욥 18:14)이었다. 그러나 주께선 그에게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고 하였다. 무서움의 왕은 주님 앞에서 무력하다. 그는 평생 기도했고 평생 기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br/>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주여 받아주옵소서.”<br/> 지난 29일을 전후해 차인태(71·서울 영락교회 은퇴장로) 전 아나운서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차 장로는 수술조차 불가한 악성 종양을 신앙으로 이겨냈다. 그렇지만 아직은 관해(寬解)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이 쉽지 않았다.<br/>-SNS를 통해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 투병 전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아홉 차례의 항암치료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전 모습 그대로이신데요. <br/> “중보기도 덕입니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4∼5차 항암치료를 받을 때 이름 모를 청년들의 찬송과 중보기도를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적게는 2∼3명, 많게는 7∼8명의 20대 젊은이들이 매주 토요일과 주일 새벽 사이 천사의 음성으로 저와 환우들을 찾아주었어요. 암병동 끝에서 나지막이 들리는 찬송은 제게 예배시간이었습니다. <br/> -발병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셨지요. 늘 대한민국 대표 아나운서로서의 기품을 잃지 않았고요.<br/> “과분합니다. 2009년 10월 1일이었죠. 경기대 예술대학에서 10여년째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분주했던 날들이었어요. 한데 그날 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어요. 급성폐렴 증세였고요. 2주간의 진단 끝에 악성 림프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장과 폐 사이에 꽈리 모양의 악성 종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술도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더군요.<br/> -‘내일의 죽음’보다 ‘오늘의 고통’이 더 힘드셨겠습니다.<br/> “완치 가능성 40%였습니다. 그마저도 롱 텀(long term)으로 가야 한다고…. 육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24시간 수시로 진행되는 혈압, 호흡, 맥박, 혈당 체크와 간호사들의 신발 끄는 소리가 제 육신의 오늘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내 자신에 대한 원망, 서글픔, 부끄러움, 허탈, 분노, 실망, 무기력이 짓눌렀지요.<br/> -사투였겠습니다.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했는데…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br/> “항암주사 치료가 시작되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붙잡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아이들, 손자손녀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br/> -모태신앙이시죠. 부모님이 평북 선천 등 한국 기독교 발상지나 다름없는 지역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br/> “내 고향 평북 벽동군은 압록강을 사이에 둔 궁벽한 산골입니다. 크리스천인 증조할아버지가 평북 도의원을 지낸 지방 소지주여서 광복 후 북한 체제를 견디기 어려웠어요. 다행히 그때 할아버지가 경북 영천경찰서장으로 계셔서 월남하게 된 겁니다. 의사 면허가 있던 아버지가 경주에서 대한의원을 열었어요. 한데 1950년 6·25전쟁으로 아버지가 징집됐어요. 우리 4남매와 외가 쪽 식구들은 생계 수단이 없어 끼니 걱정을 해야 했어요. 외할머니가 부산 국제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와 경주 시장바닥에서 팔아 생계를 유지했지요. 의사가 귀한 때라 아버지는 야전공병단 군의관 등으로 7년을 근무했습니다. 어머니는 평북 선천 출신으로 신앙 깊은 가문이었습니다. <br/> -4대째 신앙가문이고 손자·손녀까지 가면 6대째인데 깊은 신앙은 어디서 다져졌습니까. <br/> “경주에서 올라와 서울 미동초교를 거쳐 대광고에 진학했어요. 제 실력에 비해 좀 실망스러운 진학이었어요. 하지만 미션스쿨 대광은 저를 붙들어주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그 학교 출신 친구들과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또 연세대 성악과에 진학한 후에는 이화여대 후문 앞 다락방교회를 섬겼는데 거기서 크리스천으로서 역사와 사회를 보는 눈을 길렀어요. 다락방교회는 김활란 박사(여성운동가)가 막사이사이상 수상을 기념해 설립한 교회였어요. 김옥길 당시 이화여대 총장(전 문교부 장관)과 이화여대, 연세대 교수님 등이 많이 출석했었죠. 장상 전 이대 총장이 대학 선배이자 교회 선배였습니다.”<br/> 그는 연세대 졸업 후 1969년 아나운서가 됐다. 그리고 73년 ‘장학퀴즈’ 시작과 함께 스타 아나운서가 됐다. 90년 4월까지 그는 17년간 장학퀴즈 진행자였다. 그가 걸으면 사람들은 “아 저기 장학퀴즈가 간다”고 말했다. 장학퀴즈에 출전했던 배우 송승환, 정치인 김두관(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은 그와의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br/> 그러나 스타 아나운서에게는 쉴 시간이 없었다. 1주일에 14개 프로그램이 주어졌다. 게다가 동요제, 가요제, 기념식, 대통령 취임식 등 중요 행사 진행도 피할 수 없었다. 신혼 이튿날 제주에서 호출당해 서울 녹화현장으로 가는가 하면, 맹장 수술 이틀 만에 녹화에 나서기도 했다. <br/> 74년 8월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영결식 중계, 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에 따른 국민장 중계도 맡았다. 72년 12월엔 시민회관(현 세종문화회관)에서 ‘MBC 10대가수 가요제’ 클로징 멘트 중 화재가 발생 60∼70명이 죽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삶과 죽음이 늘 가까이에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셨다”고 회고했다.<br/> -영락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셨지요. <br/> “제가 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제 작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셨어요. 시온찬양대 대장을 오래했고요. 음악부장, 당회 서기, 홍보출판부장 등 제 삶과 교회는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타사 스카우트 제의나 선거 출마 제의가 들어오면 인간적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날이면 교회에 가서 조용히 묵상했고요. 중심을 잡게 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br/> -요즘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에 원망 안 드세요.<br/> “그럴 리가요. 지난해 7월 12시간 동안 심장판막치환 재수술 등이 있었어요. 깨어난 후 아내의 기도문을 발견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 차인태. 이제 그만 시험하시고 그의 낡은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진정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를 증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다메섹에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건강한 몸을 허락하셔서 주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최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쁘게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하고 말이죠. 아내 기도처럼 주님과 최후에 기쁘게 마주해야지요. 그 전까지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원망스럽겠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지요.”<br/> -수술조차 불가했던 종양이 떨어져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의 헌신과 기도, 섭생과 운동도 큰 힘이 되셨지요. 병으로 애통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는.<br/> “지금까지 내가 산 것, 누린 것, 대접 받았던 것이 본래 내 모습에 비해 얼마나 부풀려지고 과장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더 낮은 자세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치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믿습니다. 저보다 위중한 분들께 제가 조그마한 희망과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br/>차인태<br/>평북 벽동 출신으로 증조부 때부터 지켜온 신앙을 6대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 영락교회 은퇴장로. 연세대 성악과를 나와 1969년 MBC 아나운서가 됐다. 70, 80년대 대한민국 대표 아나운서. 98년 제주MBC 대표이사, 2003년 평북지사, 98년 경기대 예술대 영상전공 교수 역임. 73∼90년 인기 프로그램 ‘장학퀴즈’를 진행했다.<br/>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24.txt

제목: 초기발견 어려운 난치성 부인암도 조기진단 ‘척척’… 여성암 전문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날짜: 20150728  
기자: 의학전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8100000034  
본문: 부인암은 여성에게만 생기는 암을 말한다.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이 그것이다.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는 이들 부인암은 물론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의 양성종양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애쓰는 곳이다.<br/> 부인암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병리과와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정확한 조직병리학적 진단과 영상의학과의 명확한 방사선 판독은 신속한 진료 방향 결정에 도움을 준다. 또 적절한 방사선 치료는 항암제와 수술적 치료의 한계를 개선해 준다.<br/>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는 이를 위해 유기적인 협진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협진 시스템은 또한 진단 분야뿐만 아니라 난소암 등 난치성 부인암 수술을 진행할 때도 어김없이 가동된다.<br/>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는 현장에서 수년 간 축적한 임상지식을 바탕으로 한 부인암 질환 연구 경쟁력도 세계 수준이다. 연구와 진료가 균형을 이루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를 적극 활용한 덕분이다. 이 센터는 현재 조기발견이 어려운 난소암을 빨리 진단하는데 유용한 조기 예측 진단법을 상용화하고, 맞춤 치료법을 개발하는 등 난치성 부인암 정복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br/> 이 부인종양센터는 여성을 배려하는 의료 서비스로 유명하다. 미혼이거나 임신을 앞두고 있는 여성 환자들의 경우 수술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센터는 이들을 위해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적은 로봇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배꼽 부위 1곳만 절개하는 싱글사이트 로봇수술은 흉터가 작아 미용 상 좋을 뿐 아니라 통증이 덜하고 회복시간도 빠르다. 아울러 ‘신경보존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적극 활용해 암 수술 후 배뇨기능장애를 최소화해주는 등 부인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려하고 있다.<br/> 부인암 환자들이 수술 후에도 활기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돕는 ‘파워 업(Power up)’ 무료강좌도 인기다. 환자들이 수술 후 여성성 상실로 우울해하거나 좌절감에 빠지기 쉬운 만큼 △노래 △명상 △국선도 △오카리나 △파스텔화 △글쓰기 △희망 텃밭 가꾸기 등과 같이 심리안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강좌를 꾸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인암 환우회인 ‘난초회’를 운영해 의료진과 환우들의 정보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으며 해마다 암 치료 후 10년 이상 생존자들과 가족을 초대해 장기생존을 축하하는 행사도 갖고 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25.txt

제목: 백남준 부인 구보타 시게코 여사 별세  
날짜: 20150727  
기자: 이광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7100000038  
본문: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1932∼2006)의 부인 구보타 시게코씨가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지난 23일 저녁(현지시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br/> 경기도 용인에 있는 백남준아트센터 측은 26일 “<span class='quot0'>뉴욕에서 백남준 선생과 작품 활동을 함께했던 작가 등으로부터 구보타씨가 암 투병을 하다 현지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span>”고 밝혔다.<br/> 일본 도쿄교육대에서 조각을 전공한 구보타씨는 1963년 백남준이 도쿄에서 퍼포먼스를 벌일 당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으로 거처를 옮긴 두 사람은 연인으로 지내다 만난 지 14년이 지난 1977년 결혼했다. 이후 전위적 예술운동인 ‘플럭서스’ 멤버로 예술적 동반자의 삶을 살았다.<br/> 고인은 세계적 미술잡지 ‘아트 인 아메리카’ 표지에 작품이 실릴 정도로 남편 못지않게 실력을 인정받은 비디오 아티스트였다.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르셀 뒤샹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裸婦)’가 대표작이다.<br/> 그는 1996년 백남준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자신의 예술 활동을 포기하고 남편을 돌봤다. 2006년 사별할 때까지 그와 함께했다. 고인은 3년 전 백남준의 80회 생일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백남준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오늘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21세기 예술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라고 답하기도 했다.<br/> 10년 넘게 연인으로 지냈지만 결혼만은 거부했던 백남준이 돌연 청혼한 이야기 등을 담은 회고록 ‘나의 사랑, 백남준’을 2010년 발간했다. 슬하에 자녀는 없으며, 뉴욕 현지 지인들이 장례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이광형 문화전문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26.txt

제목: [기독여성CEO 열전-(2부) ⑤ ‘곤지암밸리’ 설립자 김정숙 관장] “지친 현대인들 치유합니다”  
날짜: 20150727  
기자: 노희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7100000002  
본문: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태화산 자락에 자리한 ‘곤지암밸리’에 들어서면 심호흡부터 하게 된다. 자연의 향기를 마음껏 들이키면 어느새 몸은 편안해지고 영혼은 맑아진다. 절로 힐링이 된다.<br/> 최근 곤지암밸리 베료자 카페에서 설립자 김정숙(67·분당우리교회 권사) 관장을 만났다. 곤지암밸리 만의 ‘사계절 멋’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봄에는 활짝 핀 꽃을, 여름에는 푸른 생명력을, 가을에는 알록달록 물든 대자연의 풍성함을, 겨울에는 눈 덮인 동화 속 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의 기쁨을 누림으로써 우리의 영·혼·육이 다시 살아나길 기대합니다.”<br/> 의료기 사업을 하는 남편과 두 자녀를 내조하며 소위 ‘강남 사모님’으로 살아온 김 관장이 10년 전 연고도 없는 이곳 야산에 들어와 땅을 고르고 풀을 뽑으며 곤지암밸리를 조성한 이유는 무엇일까.<br/> “30년 전 예수님을 만나고 제 마음속에 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뭔가를 해야 하는데’라는 거룩한 부담이 생긴 거죠.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 좋은 일을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의 영·혼·육을 살리는 쉼터 건립을 꿈꿨습니다.”<br/> 남편 백대기(74) 장로의 재정적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 김 관장은 “<span class='quot0'>남편은 은퇴 후 편안하게 여행 다니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니 많이 만류했다</span>”며 “<span class='quot0'>20년 가까이 마음속 ‘불’ 이야기를 하며 남편을 설득했다</span>”고 털어놓았다. 결국 백 장로는 포기했다.<br/> 땅을 구입하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기도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를 드리는데, 차마 땅 얘기를 할 수 없더라고요. 남들을 의식한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제 안에 무슨 자만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몇 주를 흘려보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가짜다.’ 하나님께서 자만심 가득한 제 믿음을 질타하신 겁니다. 바로 땅 구입에 대한 기도제목을 내놓고 정말 모임에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함께 드린 지 2주 만에 곤지암 땅을 구입했으니까요.”<br/> 곤지암밸리 4만2900여㎡(약 1만3000평) 부지는 기도의 응답이었다. 2005년 5월 땅을 구입하고 김 권사는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의 빌라를 내던지고 이곳 허름한 오막살이로 거처를 옮겼다. 전기장판을 깔고 생활하면서 땅밟기 기도를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꽃을 심고, 토마토 상추 고추 옥수수를 심어 농사를 지었다. 강아지도 12마리를 키웠다. 그렇게 강남 사모님은 농사꾼이 됐다.<br/> “5년 동안 농사만 지었습니다. 땅 문제가 해결되니 건축허가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계 문제도 있었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때가 되면 봇물 터지듯 열린다.’ 5년 만에 설계사와 건축가를 만났고 비로소 협력해 선을 이루게 됐습니다.”<br/> 2010년 개울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건축에 들어갔다. 2012년 4월 준공한 콘퍼런스룸은 당초 교회로 설계됐다. 첫 작품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마음에서다. 120명을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및 소그룹 회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갖췄다. 콘퍼런스룸은 입구부터 독특하다. 건물 외곽에 5m 높이로 돌담을 쌓아 빙 둘렀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연상시킨다.<br/> 김 관장은 “<span class='quot0'>돌담을 쌓은 것은 세상의 것을 차단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span>”고 소개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콘퍼런스룸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5박6일씩 4주간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br/> “암 환자나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을 앓는 분들을 초청해 하루 세끼 과일식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깊은 산속까지 누가 올까’ 싶어 한 기수에 20∼30명을 예상했는데 무려 3000명이 참가 신청을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그만큼 건강한 영·혼·육에 갈급함을 갖고 사는 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br/> 김 관장은 인근 펜션을 모두 예약해 일주일마다 80∼100명을 초청했다. 3박은 풍성한 과일만 먹게 했다. 이후에는 현미밥에 김 관장이 정성껏 키운 유기농 야채로 식사를 제공했다. 하루 세 번 산책하고 묵상의 시간을 통해 말씀이 들어가니 영·혼·육에 생기가 넘쳤다.<br/> 김 관장은 “<span class='quot0'>요즘 성인병이나 생활습관에서 오는 현대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참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는 모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병</span>”이라고 지적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건강할까.<br/> 김 관장은 7가지 실천 항목을 제시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음식 탐하지 않기’ ‘좋은 공기 마시기’ ‘햇볕 쬐기’ ‘절제하기’ ‘인내하기’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기’이다.<br/> “하나님은 경험이 없어도,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쓰시려고 하면 들어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br/> 김 관장은 요즘 곤지암밸리 주최 마라톤대회, 무료 결혼식, 야외음악회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제2의 문화사역을 위해 다시 꿈을 숙성시키고 있다. <br/>◇김정숙 관장 약력= △1948년 서울 출생 △94년 극동방송 ‘사랑의 뜰안’ 진행 △2010년 극동방송 ‘사랑의 뜰안-곤지암 전원일기’편 방송 △저서 ‘자연에서 만나는 하나님’ △현 곤지암밸리 관장 △분당우리교회 권사<br/>광주=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27.txt

제목: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美서 연구용 원자로 도입 50년 만에 原電 수출국 대열  
날짜: 20150727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7100000029  
본문: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원전을 짓게 되면서 ‘원전 수출 국가’가 됐다. 1959년 미국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지 50년 만이자, 1978년 미국 기술로 지어진 첫 원전 고리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0여년 만의 일이다. 과거 해외 원전 기술에 의존했던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 수준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원전 수출 분야가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br/> ◇중동에 짓는 ‘사막의 기적’…UAE 첫 원전 수출=2009년 12월 한국전력공사(한전)는 UAE 원자력공사로부터 UAE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약 270㎞ 떨어진 바라카 지역에 총 4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한전은 프랑스 아레바, 미국 GE-일본 히타치 컨소시엄과 경합 끝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특히 UAE 원전사업은 순수 토종 한국형 원전(APR1400)을 처음으로 수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APR1400은 1400㎿급 가압형경수로로 2002년 개발됐다. 원전을 수출하는 ‘원자력 선진국’에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캐나다에 이어 한국이 6번째로 이름을 올렸다.<br/> 1호기는 201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7월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주요 기기가 설치됐다. 올해는 원자로 등 핵심기기가 설치된다. 지난달에는 2호기에 원자로가 성공적으로 설치됐다. 지난 5월 기준 UAE 원전 1·2호기 종합 공정률은 66%에 달한다.<br/> UAE 원전 수출의 경제적 효과는 200억 달러(약 23조원)에 이른다. 이는 중형 승용차 100만대,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효과와 맞먹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40여개 시공 하도급사들과 80여개 기기 제조사, 원자력 연관 산업 등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원전 수출로 인한 경제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br/> ◇순수 국내 기술 ‘스마트 원자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우리나라는 지난 3월 2조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SMART) 원자로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다는 내용의 ‘스마트 공동파트너십 및 인력양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스마트 원자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중소형 원자로다. 모든 기술과 설계를 우리나라가 개발한 100% 국산 원자로다.<br/> 중소형 원자로 시장은 대형 상용 원전을 건설하기 힘든 소규모 전력망 국가를 대상으로 전망이 밝다. 스마트 원자로 1기 건설비용은 1조원 내외인 데다 건설 기간도 3년 정도로 짧다. 또 인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지 않고 넓게 분산돼 있어 대형 원전을 건설할 경우 송·배전망 구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국가에도 유용하다. 담수 시설을 많이 가동해야 하는 물 부족 국가 역시 스마트 원자로가 파고들 수 있는 틈새시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사우디는 2040년까지 전력의 15∼20%를 소형 원전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13년 미국 네비간트 리서치 리포트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소형 원자로 시장 수요는 18.2GWe(기가와트일렉트릭)로 100MWe 규모인 중소형 원자로 182기에 달한다. 또 2050년까지 중소형 원자로 세계 시장 규모가 약 3500억 달러(약 40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br/> ◇요르단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도 국내 기술로=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2010년 1월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사업을 따냈다. 요르단이 원자력발전 도입을 앞두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교육용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였다. 우리나라는 연구로 건설 경험이 적고, 해외 수출 경험도 전무했기 때문에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세계 10위권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를 우리 기술로 설계·건설·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로는 지금까지도 국내 갑상샘암 치료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연구로다.<br/>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은 열출력 5㎿의 연구용 원자로와 원자로 건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시설, 행정동 건물 등을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북쪽으로 70㎞ 떨어진 이르비드의 요르단과학기술대학교(JUST) 캠퍼스 내 부지에 건설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에는 최초 전원가압 공정에 성공하기도 했다. 최초 전원가압은 원자로에 전원을 넣는 공정으로 본격적인 시운전 착수를 의미한다.<br/> 연구용 원자로 역시 우리나라가 공략할 수 있는 원전 수출 시장이다. 연구용 원자로는 우라늄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용 원자로(원전)와 달리, 핵분열 시 생성되는 중성자를 활용해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암 진단 및 치료 등에 쓰이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식품 멸균 등에 쓰이는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br/>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br/>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사 모두보기] <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28.txt

제목: 국제 해양탐사 참여 박영수 박사, 암 사망 1년 만에 사이언스 등재  
날짜: 20150724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4100000115  
본문: 국제해양탐사프로젝트에 참여해온 해양 과학자의 수년에 걸친 연구 성과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년 만에 세계적 학술지에 실려 빛을 보게 됐다.<br/>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석유자원연구실 고(故) 박영수 박사가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 결과가 24일자 사이언스에 실린다고 23일 밝혔다. 고인은 2013년 7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지난해 8월 62세로 유명을 달리했다.<br/> 박 박사는 2004년부터 26개국 연구자들이 함께 추진해온 국제해양탐사프로그램(IODP)에 2011년부터 참여했다. IODP는 해양 과학 시추를 통해 지구과학의 미해결 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다.<br/> 박 박사는 특히 2012년 ‘IODP 탐사사업 337’의 일환으로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본의 시추선 ‘지구호’에 승선해 일본 시모키타 바깥바다 탐사에 나섰다. 바닷속 2.5㎞ 깊이의 갈탄층(석탄층의 일종)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 시추 탐사를 통해 얻은 시료 분석 결과가 이번 논문에 실렸다. 박 박사는 모두 46명의 공동저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br/> 박 박사는 젊은 연구자도 꺼리는 시추 탐사를 자원했다. 암 판정 전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장기간의 승선생활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암 투병 중에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공동 연구진에 분석 자료를 빠짐없이 제공하는 열정을 보였다. <br/>민태원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29.txt

제목: 3D 프린팅의 기적… 뼈암 10대 여학생 일어났다  
날짜: 20150724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4100000100  
본문: 골반뼈에 암이 생겨 장애를 겪던 10대 여학생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만든 맞춤형 골반뼈를 이식받고 1주일 만에 걸을 수 있게 됐다. 이 학생은 기존 방법으로 치료할 경우 하반신 마비 위험이 있었지만 최신 의료기술 덕분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br/>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골반뼈에 악성 종양이 생겨 골육종을 앓던 강모(16)양이 지난 3월 중순 3D 프린팅을 이용해 만든 ‘인공뼈’(티타늄 소재)로 왼쪽 골반뼈 교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강양은 수술 1주일 뒤부터 걷기 시작했다. 3D 프린팅은 최근 의료계 전반에 활용되고 있지만 이 기술을 이용해 골반뼈 교체 수술에 성공한 것은 국내 처음이다.<br/> 강양은 지난해 7월부터 심한 허리 통증을 느껴 학업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오다 4개월 뒤 골육종 진단을 받았다. <br/>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신동아 교수팀은 강양의 수술 후 삶의 질을 고려해 골반뼈 왼쪽 절반만 제거하고 최대한 신경을 살리기로 했다. 골반뼈 신경을 다 자를 경우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로 대소변 가리는 걸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br/> 신 교수팀은 강양에게 이식되는 맞춤형 골반뼈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확도 높은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다. 신 교수는 “<span class='quot0'>앉았을 때 척추가 상체 무게(30∼40㎏)를 충분히 지탱하고 수술하지 않는 오른쪽 골반뼈와 무게가 거의 비슷하도록 좌우균형이 맞아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3D 프린팅은 컴퓨터로 환자의 뼈 모양에 맞게 정확한 디자인을 통해 만들기 때문에 맞춤형 정장과 같다</span>”고 설명했다.<br/> 수술 시간은 짧아졌고, 회복 속도는 빨랐다. 기존 골반뼈 절제술은 8∼9시간 걸렸지만 3D 프린팅 수술은 2시간 이상 단축됐다. 기존 수술법은 골반뼈 대체물이 환자에게 정확히 맞지 않을 경우 수술 도중 다시 재단해 맞춰야 해서 수술시간이 더 소요됐다. 하지만 3D 프린팅 수술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30.txt

제목: 영적인 눈을 넓혀줄 기도의 핵심 원리… ‘팀 켈러의 기도’  
날짜: 201507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2100000008  
본문: 현대는 기도 부재의 시대라고 할 만하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다. 책에서 저자는 아내가 든 예화를 들면서, 우리에게 기도 없는 삶이 얼마나 영적 건강을 악화시키는지 말하고 있다. <br/> “만일 의사가 당신의 상태가 치명적이어서 이 약을 매일 밤 11시에서 11시 15분까지 먹지 않으면 아침에 죽을 것이라고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너무 피곤하다거나 영화를 보고 있어서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급속도록 피폐해질 것이다. <br/> 기도가 나 자신의 성공, 내 가정, 내 교회만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 책은 우리의 눈을 넓혀 줄 것이다. 살가운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한다.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하게 된다.<br/>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기도를 기도답게 하는 법을 안내해 주는 수많은 책을 섭렵하면서, 저자는 자신에게 가장 도전을 주었던 기도 안내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존 오웬, 장 칼뱅의 기도법을 우리에게 간략하지만 핵심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다. <br/> 책은 저자가 암 투병을 하는 중에 아내와 더불어 시작한 기도 탐구의 열매이기도 하다. 저자는 한국 교회에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 가르치는 대신 자신이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서 배웠던 기도에 대해서 독자들과 나눈다. 기본에 충실한 책이면서 동시에 기도에 대해 깊이 있고 넓게 다루고 있다. 팀 켈러의 기도에 대한 외침은 우리를 머리의 이해에서 그치지 않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는 자리로 이끌고 간다(02-2078-3320).<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31.txt

제목: 중증 ‘근육강직’ 치료길 열렸다… 다시 주목받는 척수강내 ‘약물펌프’ 시술  
날짜: 20150721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1100000034  
본문: 척수강내 약물펌프 시술이 중증 근육강직과 암성통증을 완화시키는 해결사로 급부상하고 있다.<br/> 세브란스병원 장진우(신경외과), 조성래(재활의학과) 교수팀에 이어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이정교 교수팀도 근육강직 환자 4명과 암성 통증 환자 4명에게 척수강내 약물펌프를 시술하는데 성공했다.<br/> 이 시술은 2010년 국내에 첫선을 보였다. 경구 및 주사용 마약성 진통제로 조절이 안 되는 암성통증과 뇌성마비, 뇌손상, 뇌졸중, 척수손상, 다발성 경화증에 의한 중증 근육강직으로 굳은 몸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약물을 요추(허리뼈)부위 척수(요수)를 통해 직접 공급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근육강직 이완용으로는 바크로펜이란 약물, 통제 불능의 암성 통증 완화에는 모르핀이 사용된다. 치료는 뱃속에 바크로펜이나 모르핀을 담은 작은 펌프를 이식하고 가느다란 튜브로 척수강과 연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br/> 암성통증은 대부분 모르핀을 경구(經口) 복용하거나 정맥주사, 척수경막외 주사로 조절된다. 그러나 일부 환자는 고용량 모르핀을 투여하는데도 통증조절에 실패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한다. 심한 변비나 구토와 같은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있다.<br/> 이 뿐이 아니다. 빈번한 정맥주사 및 척수주사도 어렵다. 또 약물백의 체외보관으로 목욕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한 감염 등의 부작용도 심각해 환자나 가족은 물론 의료진조차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다.<br/> 근육강직이란 교통사고나 질환으로 척수가 손상되거나 다발성 경화증으로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몸이 굳는 것을 말한다. 신경 손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팔다리나 몸 전체 근육이 뻣뻣해지게 된다. 근육강직이 오면 정도에 따라 환자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2차 합병증으로 관절이 굳고 변형된다.<br/> 일상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옷을 갈아입기 불편하고, 심지어 혼자 휠체어 타기도 버거워진다. 이때 바크로펜을 복용한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용량을 먹어야 하는 반면, 약효가 반감되는 것이 문제다.<br/> 척수강 내 약물펌프 시술은 근육강직 및 암성통증 환자가 남모르게 겪어야 하는 부작용과 불편을 드라마틱하게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정교 교수는 “<span class='quot0'>척수강 속에 가는 튜브를 넣고 뱃속에 설치한 펌프에 바크로펜 또는 모르핀을 투입하면 입으로 복용할 때보다 훨씬 적은 용량으로 100∼300배 효과를 볼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단 시술 전에 환자 자신에게 알맞은 용량이 얼마인지 정밀하게 점검하는 테스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물론 수술 후에도 통증관리 전문의, 재활치료 전문가, 신경외과 의사의 협진을 바탕으로 한 세밀한 추적 관리가 필수다.<br/> 척수강내 약물펌프 시술은 지난해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선별급여 대상으로 전환됐다. 도입 초기만 해도 수천만원대에 달했던 본인부담액이 800만원대로 대폭 낮아졌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32.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은 치료효과 극대화 시켜  
날짜: 2015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47  
본문: 암 치료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암환자가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 치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조언한다. 치료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조금씩 건강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br/> 또한 암치료 과정에서 암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 항암제는 암세포의 특징인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를 공격한다. 따라서 암세포 이외에 빨리 자라는 세포인 머리카락 세포, 구강이나 식도, 장 점막의 세포, 골수의 조혈모세포 등이 항암제의 공격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탈모, 점막염, 설사, 골수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부작용은 암환자의 몸이 암과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다. 부작용으로 인해 너무 힘들 때는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br/> 치료 중에는 ‘열심히’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체중이 감소하면 치료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항암치료는 우리 몸의 정상 세포를 손상시키기도 하는데, 손상된 세포들이 스스로를 복구하려면 아낌없는 영양분의 지원이 필요하다. 항암치료가 식욕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많이 먹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체중을 유지하고, 충분한 칼로리가 포함된 식사를 하도록 권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몸무게를 2∼4kg 정도 늘리고,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단백질이 풍부한 살코기나 생선, 두부, 달걀, 콩류 등이다.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 있으므로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매 끼니마다 먹는 것이 좋다.<br/>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건강을 되찾는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회복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우선 병을 부른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등 좋은 습관으로 바꾼다.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은 최대한 줄이고, 흡연을 한다면 지금 당장 금연해야 한다.<br/> 의료진을 만날 때는 항상 질문할 목록을 준비한다. 환자는 병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아야 한다. 평소 환자에게 계속되는 증상과 새롭게 나타난 증상, 책을 통해 얻은 정보나 다른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한다. 경험자의 체험담을 귀담아 듣는 것도 암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다. 암을 치료중인 사람이나, 치료를 도와주는 환자 가족들의 체험담을 많이 듣게 되면 투병 의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나는 암환자이지만, 바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순간의 삶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br/>송병기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33.txt

제목: [기획 리포트] 비싼 약값 때문에 생명 포기해야 하나  
날짜: 20150720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40  
본문: “<span class='quot0'>국산 전투기 사업에는 18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방비가 투입되는데, 누군가의 부모나 자식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암(癌) 치료비에는 4조원에 불과한 투자가 이뤄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span>”<br/>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이러한 암 치료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4조2777억원에 달했다. 언뜻 보면 상당히 큰 액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암 관련 진료비에 쓰이는 돈은 정부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쓰이는 무기 몇 대 값에 비하면 극히 적은 액수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사람 수백명의 목숨이 전투기 한 대 값에도 못 미친다</span>”며 “<span class='quot1'>정부가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암 관련 비용에 쓰는 돈이 그만큼 적다</span>”고 말했다. <br/> 갑작스럽게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어린 자식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떨까. 암 판정을 받게 된 당사자와 가족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치료효과가 뛰어난 치료제 등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또 한번 절망에 빠진다. 정부의 예산이 그만큼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는 수치도 있다.<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55조원 중 암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는 4조2777억원이었다. 암상병별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입원 진료비는 폐암 3174억원, 간암 3069억원, 위암 2687억원 순이었다. 외래 진료비는 유방암 3002억원, 갑상선암 1458억원, 폐암 1359억원 순이었다. 일례로, 우리나라 사망률 1위로 알려진 폐암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55조원 중 폐암에 사용된 돈이 4533억원으로 전체 암 진료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br/> 환자가 암을 이겨내는 데 있어 ‘항암제’ 치료는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적은 편이다. 국회 예산 정책처의 ‘2014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공급된 항암제 규모는 1조341억원이며, 건강보험에 청구된 항암제 약제비는 2014년 8231억원이다. 2014년 비급여로 공급된 항암제 약품비는 최대 211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정부가 생명과 직결된 약품비에 사용하는 예산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지난 2014년에 청구된 총 약제비가 13조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항암제의 약제비가 8000억원가량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여전히 항암제는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br/> 제약사가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해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비급여로 사용될 경우에는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크다. 그러면 정부의 보험급여가 이뤄지길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이라는 한정된 재정 안에서 다른 질환자들과의 형평성, 비용경제성 등을 고려해 약값을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이 나와도 허가 사항이 까다롭다. <br/> 일례로 잴코리 등의 항암제도 획기적인 신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자들이 자비로 먹어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다. 이 밖에도 최근 면역항암제 등이 획기적 치료제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비보험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br/> 한 제약사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지난 몇 년간 의약품 혁신을 통해 신약이 개발돼 환자들에게 사용되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3.8% 감소했다. 정부가 암과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확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br/> 만약 누군가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도 값비싼 치료비, 약제비로 생명 연장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있을까.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한 환자는 “정부가 말로만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예산 사용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34.txt

제목: [박선자 교수에게 듣는다] “제철 음식 골고루 드세요”  
날짜: 20150720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43  
본문: 암 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이 환자의 영양관리이다. 때문에 환자 스스로의 관리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가족 모두 영양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보다 빨리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에 고신대복음병원 소화기내과 박선자(사진) 교수에게 암환자의 영양관리 중요성에 대해 들어봤다.<br/> 박 교수는 실제 현장에서 말기 암환자들이 영양결핍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체내에 암이 있는 경우 간이나 비장 그리고 면역체계와 관련된 장기들은 동화상태로 단백질을 축적하는 반면 근육·피부, 그리고 뼈 같은 장기는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들이 영양결핍을 더욱 초래한다는 것이다.<br/> 그는 “암 조직은 에너지적인 요구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며, 암 자체도 포도당 흡수 및 산화의 장애를 통해 당 분해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비정상적인 대사 속도의 증가로 체중감소·영양결핍 등을 일으킨다”며 “특히 말기암 환자들은 악액질(cachexia)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임상적으로 이러한 악액질이 있는 환자들은 체중 감소, 식욕부진, 염증, 인슐린 저항성, 근육단백 분해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또 “암환자가 ‘먹기가 싫다, 입맛이 없다’는 식욕부진을 호소하는데 암 환자들의 흔한 증상이지만 경구나 경정맥영양보충에 의한 열량 섭취의 증가로는 소모 과정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br/> 그렇다면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은 후 영양불균형이나 영양결핍이 암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예를 들어 위암의 경우 수술 후 영양대사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수술 방식에 따라 수술 후 지방흡수나 칼슘흡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항암치료의 경우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오심·구토·점막염 등으로 이차적인 영양불균형이나 영양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영양불량이나 영양섭취가 낮은 환자들의 경우 저용량의 항암제를 투여하더라도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해 이후의 암치료 및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고, 면역저하로 사소한 염증이 발생해도 이것이 패혈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span>”라고 강조했다.<br/> 일례로 박 교수의 환자 중에 평소 육식을 좋아하고 채소를 잘 안 먹던 환자인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채소만 먹어 입맛이 떨어지고 식욕도 더 없어져서 빈혈·체중감소·영양결핍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br/> 박 교수는 “암환자는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어느 단계인지, 어떤 치료가 행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설령 병이 많이 진행되어 완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와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체요법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체력과 건강까지 나빠지는 경우도 흔히 있어 증명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에 너무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가족들이 고기는 안 된다, 뭐도 안 된다며 너무 제한해 영양이 너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철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영양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35.txt

제목: [암과의 동행] 합병증 예방-관리… 암 정복 ‘마지막 숙제’  
날짜: 20150720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38  
본문: #사례. 아버님이 결핵과 신부전증, 고혈압, 인슐린의존당뇨 등이 있으셨는데 췌장암으로 지난해 초 휘플수술(Whipple’s operation: 종양이 췌장의 머리에 발생해 췌장의 우측을 절제하는 수술로 십이지장과 담낭·담도도 함께 절제)을 받으시면서 회복기간 동안 결핵약을 복용하지 못해 재발하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이 끝난 상태이고, 결핵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하라는 식이라 지금은 결핵전문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인데 먹는 약의 양이 너무 많아 병원 의료진들도 놀라더군요. 각각의 질환에 따른 약이 서로 달라서 한번 드실 때 27알 정도를 드십니다.<br/><br/> 암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힘들게 치료받았는데 다시 재발하면 환자로서는 심적·육체적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재발할 경우 항암치료를 더욱 힘들어해 대체의학을 찾거나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위의 사례처럼 합병증까지 있다면 암 치료에 합병증 치료까지 더 해야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까지 감안하면 수십 알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는 환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된다.<br/> 합병증은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또는 치료 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암 종별 합병증엔 어떤 것이 있을까. 신장암의 경우 환자 5∼10%에서 신장 주위의 혈관에 종양으로 인한 혈전이 생겨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간암의 경우 간이 비대해져 다른 장기를 압박해 생기는 질환과 황달과 복수 등이 있다.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 후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갑상선기능저하증에 의한 저칼슘혈증, 반회후두신경 손상에 의한 성대마비 등이 있다.<br/>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치료에서의 합병증은 수술 직후에 일어나는 출혈·장폐색·혈관손상·요관손상·직장파열·폐렴·폐색전증 등 급성 합병증과 방광이나 직장의 기능부전인 만성합병증이 있다. 또 자궁 주변의 조직을 많이 포함해 절제하는 광범위 자궁적출술은 방광이나 직장으로 들어가는 신경조직이 많이 손상될 수 있어 수술 후 배뇨나 배변에 장애가 올 수 있다. 방사선치료로 인한 합병증은 자궁에 비해 방사선에 상대적으로 약한 장점막·방광점막 등이 손상되어 나타난다.<br/> 전립선암의 경우 발기부전이 대표적이다. 또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에서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혈전·요실금·발기부전·요도협착을 비롯해 방광경부의 수축 또는 협착이 올 수 있다. 방사선치료에서도 요도협착과 발기부전을 비롯한 만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전립선 방광루나 직장루처럼 수술치료가 필요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횡문근육종의 경우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과정에서 정상 세포들이 손상돼 여러 합병증이 나타난다. 특히 치료에 흔히 쓰이는 액티노마이신(actinomycin-D)과 같은 항암제는 드물지만 치명적인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흉선암은 수술부위에 따라 폐렴 등 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창상감염, 심방성 부정맥, 폐색전증, 출혈 등이 있을 수 있다.<br/> 이렇듯 각 치료마다 부작용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합병증은 치료 중인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치료를 힘들게 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은 조언한다. <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36.txt

제목: [암과의 동행]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치료 건보 적용, 23일 입원후 임종시 진료비 681만원중 43만원만 부담  
날짜: 201507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42  
본문: 말기 암환자가 2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임종한 경우 말기 암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시, 전체 진료비 681만8596원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43만7035원이다. 이는 지난 15일부터 정부가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입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br/> 이번 호스피스 입원 건강보험 적용으로 말기 암환자들이 임종 직전 완화의료전문기관이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해 통증 등 증상관리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통한 정신적·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종이 임박했을 때 임종관리까지 받을 수 있어, 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환자 가족은 환자 임종을 차분히 준비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기준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 12.7%를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br/> 이용 절차는 말기 암 판정 후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한다. 입원치료 시 말기 암환자의 총 진료비는 하루 평균 28만원에서 37만원(간병급여 포함)이고, 하루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만8000원에서 2만3000원이다. 이에 대해 강도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허용하지 않아 환자부담을 낮췄다”며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또한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말기 암환자 대부분이 밀접한 간병이 필수인 점을 감안,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하루 총 간병급여 8만원에서 환자의 하루 부담금액은 4000원이다.<br/> 현재 말기 암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 기관은 7월 현재 총 60개 기관에 병상수는 1009병상이다. 서울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은 고려대 구로병원(13병상)과 서울성모병원(23병상), 인천·경기지역 상급종합병원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21병상), 아주대병원(11병상), 인천지역암센터·가천대 길병원(16병상) 등이다. <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37.txt

제목: [암과의 동행-토론회] “국가가 고위험군 대상 저선량 CT검진 나서야”  
날짜: 20150720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123  
본문: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사망률 1위 폐암, 조기진단의 필요성은?'을 주제로 지난 17일 25회 고품격 건강사회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폐암의 국내 현황, 그리고 폐암 예방 및 조기진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세수를 흡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폐암 진단'에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br/>◇일시=2015년 7월 17일 오후 2시<br/>◇참석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한폐암학회 조문준 이사장(충남대병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공인식 사무관, 인하대병원 폐암센터 류정선 소장<br/>◇진행=원미연 쿠키건강TV 아나운서<br/>◇연출=홍현기 쿠키건강TV PD<br/>◇방송=2015년 7월 22일 오후 6시20분<br/><br/>-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알려진 폐암의 주요한 원인과 예방법은?<br/>◇류정선=흡연이 폐암의 원인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얼마나 흡연을 했느냐’에 따라 폐암 발병 위험도가 수십 배까지 증가되기도 한다. 나머지 30%의 폐암은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 여성은 원인 불명이 많지만, 가사노동 중 조리 같은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폐암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발병 위험인자를 적극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예방 가능하다. <br/>◇공인식=폐암은 예방이 최우선인 암이다. 폐암은 한 번 발병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폐암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진 ‘흡연’을 줄이는 것이 암 예방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들어온 세금을 흡연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 목적인 부분에 다양하게 쓰고 있다.<br/>-폐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사망률이 높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인가.<br/>◇조문준=국내 폐암은 연간 2만2000여명이 발병하고, 약 1만7000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 암 사망 원인 1위의 질환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에 가장 위협적인 질환이다. <br/>-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암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암 정책 방향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br/>◇공=암에 대한 국가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암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사업, 둘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여 완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국가암검진’이 있다. 셋째,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말기암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들이 편안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정책 방향이 균형 있게 실현되도록 정부 정책 방향을 설정해왔다. <br/>- 국가 암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아쉬운 점은.<br/>◇류=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신의료기술이나 획기적인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기까지 수년이 걸려, 그 사이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잃어간다. 일례로 말기 폐암 환자의 경우 평균 생존기간이 12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신약과 같은 폐암의 치료기술은 갈수록 빠르게 발전, 향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치료기술의 발전을 환자 치료에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급여 허가를 해주지 않거나, 허가해 준다고 해도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년 걸리는 경우가 있어 문제다. <br/>-국내 폐암 치료 환경은 어떠한가. <br/>◇류=폐암 치료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은 ‘완치율’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폐암치료 성공률(5년생존율)은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다만 일본의 2003∼2005년에 수집된 5년 생존율이 29.7%인 반면, 우리나라의 5년 생존율이 거의 절반 수준인 16.2%에 지나지 않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저선량 흉부 CT 등을 이용한 폐암 조기발견 노력, 표적치료제 등 항암제 신약의 허가 및 사용이 신속하고 수월하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점을 보인다. <br/>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암환자에게 PET- 검사의 보험급여를 규제한 조치는 이와 같은 보장성 강화라는 기조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폐암의 효과적 치료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국가 5대 암 중 사망률이 높은 폐암은 조기 검진 대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br/>◇김춘진=불과 10∼20여 년 전만 해도 암이 걸리면 집도 팔아야 할 정도로 치료비 부담이 컸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에서 비보험 영역이 많아 환자 부담이 여전히 높다. 일례로 폐암 치료제 잴코리가 위험분담제 적용 전에 환자가 한달에 드는 약값이 약 1000여만원에 육박했다. 앞으로도 주요 암과 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다.<br/>-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br/>◇류=담배는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므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금년 초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인상 액수가 충분치 않아 원래 목표한 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최근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에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는 등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여 오고 있다. 담뱃값에는 건강증진기금이 포함돼 있는데, 기금의 약 5%정도만 금연사업을 위하여 운용돼 왔다. 이것은 정부의 금연의지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br/>◇공=금연정책이 효과적인 것인지 여부를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에 대한 효과, 그리고 폐암 발생률 및 사망률 감소를 보기 위해서는 수년을 거쳐 추적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에서 흡연 예방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주셨으면 한다. 수년 후 이러한 복지부의 금연정책 노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본다.<br/>◇김=현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했다면 그것은 ‘나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정책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담뱃세 인상의 궁극적 목표가 흡연율 감소로 인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에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장기 흡연자들에 대한 혜택도 늘려야 한다. 30년 이상 장기 흡연자들이 폐암 발병 확률이 높은 것이 입증된만큼, 이들을 위해서 폐암 조기 검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br/>- 국가 주요 암 검진 사업에서 폐암은 왜 제외됐나. <br/>◇조=폐암은 국내 사망률 1위인 암이지만 그동안은 마땅한 조기 검진 방법이 없어 국가 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에 결핵환자가 많아 결절 등이 암으로 오진될 가능성이 있고 흡연자가 흡연 이력 등을 속일 경우 검사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복지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위 양성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형 판정기준을 도입해 이를 극복할수 있다. <br/>◇류=과거 폐암 검진의 생존율 연구 결과에 오류가 많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NLST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그 논란이 잠잠해졌다. 2011년 미국 국가폐암검진연구(NLST)에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을 이용한 폐암검진으로 폐암 사망률이 20% 줄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은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 암 검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br/>◇공=국가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 된 이유는 검진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가 보건학적으로 입증이 된 암이기 때문이다. 현재 폐암은 국가 무료 검진 대상에서는 비용효과성이 입증돼 있지 않고, 표준화 된 검사가 어렵다는 점 등의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민간 의료기관 차원에서 ‘임상 권고안’을 통해 ‘저선량 CT(Low-dose CT)’, 흉부방사선 촬영과 혈청 종양표지자 검사, 객담 세포진 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br/>-저선량 CT를 이용한 폐암 검진의 득과 실은?<br/>◇류=폐암은 늦게 발견할수록 치명적이다. 조금만 일찍 발견이 되도 생존율은 급격히 올라간다. 이는 폐암의 조기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다. 실제 미국에서 시행한 양질의 근거를 가진 대규모 단일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NLST) 결과,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 검진은 단순 흉부 X선을 이용한 대조군과 비교 시 폐암특이사망률을 약 전체사망률을 약 7% 감소시켰다. <br/>◇조=폐암의 조기 진단은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대안이다. 현재 폐암검진권고안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는 약 15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검진에 70%가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0억원(비급여 항목)이 소요된다. 금연사업과 연계하여 금연 성공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시행하면 충분히 득이 될 수 있다. <br/>◇공인식=실보다 득이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현재 CT 검사는 고위험군인 검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고 표준화 할 수 있을지 여부, 폐암 양성 판독의 어려움, 방사능 노출 위험과 더불어,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위해 요소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들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br/>-국가무료암검진에 폐암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br/>◇조=폐암 조기 검진은 사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저선량 CT를 이용한 조기 검진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 폐암 발병위험이 높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금연 후 15년이 경과한 과거 흡연자는 제외) 55∼74세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선별검사를 매년 시행해야 한다.<br/>◇김=장기 흡연자들을 위한 저선량 CT검사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발 늦은 편이다.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폐암과 결핵 결절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특히 결핵 결절과 폐암 분별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가에서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된다. 과거 결핵을 앓았던 환자를 구분해 이들에게는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을 시, 좀 더 세심한 검사를 시행하면 충분히 분별 가능할 것이다. <br/>◇공=국가암검진 개편안은 아직 논의 단계다. 특히 폐암을 국가 암 검진에 포함할지는 확정된 것이 없으며, 비용 효과성 등 다양한 것을 검토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암검진을 도입할 때 충분한 인프라도 구축돼야 한다. 저선량 CT를 보유한 곳이 국내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한정돼 있는 문제도 있다. 환자들의 접근성 확보, 숙달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 확보, 보유한 저선량 CT 의료기기 물량 등도 검토해서 국가암검진 도입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질 때 폐암도 무료 검진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도 가늠할 수 있다. 국민의 요구와 비용효과성 등 다양한 것을 검토해 검진사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시범사업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br/>◇류=담뱃세 인상과 더불어 정부가 금연시도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정작 늘어나는 세수를 적정한 곳에 쓰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담뱃값 인상에 따르는 세수가 확충이 된 만큼,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폐암 검진 역시 5대 암 검진 항목에 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폐암 발병이 높은 사람들, 금연 시도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선량 CT검진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5조원의 세수 중 1000억원만이라도 잠정적으로 폐암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br/>정리=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38.txt

제목: [암과의 동행] 40조원 시장 겨냥 면역항암제 개발 힘쓰지만… 낮은 반응·부작용·비싼 값 ‘3중고’  
날짜: 20150720  
기자: 박주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41  
본문: 면역항암제가 암(癌)치료의 신대륙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약 분야 시장조사기관인 이벨류에이트파마는 2020년 세계 면역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350억 달러(약 39조5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정도다.<br/><br/> ◇암치료의 신대륙 기대감…2020년 40조 시장 성장=면역항암제가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는 기존 항암제와 암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달라 부작용이 적고 기존 항암제 대비 개선된 치료 효과까지 기대되기 때문. 또 이론적으로는 모든 암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항암제는 이름 그대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강화시켜 환자 스스로 암세포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항암제다.<br/> 반면 기존 화학항암제는 정상세포에 비해 증식 속도가 빠른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증식 속도가 활발한 모낭세포와 혈액세포 등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환자들의 머리가 빠지거나 백혈구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이어 선보인 표적항암제는 이러한 화학항암제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암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만을 골라 공격하는 방식을 택했다. 출시 당시 ‘꿈의 암 치료제’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내성 문제와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을 때만 효과를 나타내는 등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br/> ◇국내 리아백스 등 4종 허가…임상연구 활발=현재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면역항암제는 흑색종 치료제 ‘키트루다’(MSD)와 ‘옵디보’(BMS), ‘여보이’(BMS)를 비롯해 이달 판매를 시작하는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삼성제약) 등 4가지다. <br/> 여기에 항암면역세포치료제로 간암 치료에 쓰이는 녹십자셀의 ‘이뮨셀-LC’도 광의적 개념에서 면역항암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뮨셀-LC는 간암에 이어 뇌종양 및 췌장암으로의 적응증 확대까지 기대되고 있다. <br/> 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면역항암제는 작용기전에 의해 부르는 이름일 뿐 통상적으로 항암제는 화학과 바이오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최근 면역항암제와 세포치료제 등의 임상관련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span>”라고 전했다.<br/> ◇“연간 약값이 1억4000만원”…‘그림의 떡’ 우려=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 환자 반응률이 아직 15% 안팎에 불과하고, 면역 강화라는 기전에 따른 부작용 발현율 또한 적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너무 ‘고가’라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br/> 이 가운데 환자 반응률이나 부작용 문제는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고가 우려는 당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와 업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되면 한 번에 1000만원이 넘는 비싼 약값을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난해 9월 옵디보가 출시됐을 당시 연간 약 1500만엔(약 1억3877만원, 체중 60kg 기준)의 높은 약값으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에서 현실적으로 비싼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또 다른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br/>박주호 기자 epi0212@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39.txt

제목: [암과의 동행] 흡연자 외면한 ‘반쪽 금연정책’… 저선량 CT 검진 의무화 절실  
날짜: 20150720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35  
본문: 국내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 무엇일까. 바로 ‘폐암’이다. 폐암은 발병률로만 본다면 남성은 위암, 대장암에 이어 3위, 여성은 5위이지만 ‘사망률’은 가장 높은 치명적인 암이다. 폐암은 증상이 발현됐을 때는 이미 다른 장기에 암세포가 퍼진 경우가 많아 다른 암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검진이 필요한 암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무료 5대 암 검진’ 항목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은 제외돼 있다. 현재 국가 5대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다. <br/> 의료계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흡연을 금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이요, 10∼20년 이상 장기간 흡연자라면 암 조기검진을 통해 폐암 발병위험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문준 폐암학회 이사장(충남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은 “<span class='quot0'>국가에서 폐암에 대한 조기진단을 위해 저선량 CT 검진을 의무화하면 암 발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저선량 CT’를 이용한 선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폐암 검진에 저선량 CT 검진을 권고하도록 명문화했다. 2011년 미국 국가폐암검진연구(NLST)에 따르면 저선량 CT를 이용한 폐암검진으로 사망률이 20% 가량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폐암에 있어 저선량 CT검진이 의무화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폐암검진 권고안’을 통해 폐암검진에 대한 진료지침이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3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5∼74세인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CT를 이용한 폐암선별검사를 매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br/> 이를 위해 의료계는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세수 5조원 중 일부를 폐암 조기검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금연정책에 적극 나선다고 주장은 하지만, 장기 흡연자를 위한 대책 중 하나인 ‘폐암 조기 검진’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반쪽짜리’ 금연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을 금연 예방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담배를 피워온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류정선 대한폐암학회 홍보이사(인하대병원 폐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1'>정부가 국민건강을 담보로 세금을 거두어들인다는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나려면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무엇보다 담배관련 세수가 국제수준에 걸맞은 폐암진료환경 조성 및 보장성강화를 위하여 사용돼야 마땅하다</span>”고 주장했다. <br/> 박근혜 정부가 암과 같은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폐암 등의 주요 암 검사 항목이 국가 무료 검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류 이사는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국제진료지침에 따른 일부 항암화학치료와 치료효과, 재발여부 판단에 효과적인 PET 검사의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어 진료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보장성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역행하고 있다”며 “폐암 발병이 높은 사람들,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저선량 CT검진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를 폐암검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40.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경험-투병중인자 신장질환 위험 3배… 강남세브란스, 강희택·신현영 교수 조사  
날짜: 201507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32  
본문: 암을 경험했거나 치료과정에 있는 암환자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만성신장(콩팥)질환 위험이 3배 가량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br/>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사진 왼쪽)·신현영(오른쪽) 교수 연구팀은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암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마친 40세 이상 암경험자 682명과 일반인 1만727명을 대상으로 만성신장질환 유병률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신장기능과 신장질환 진단의 중요한 기준인 사구체여과율(GFR) 검사에서 ‘암경험자’ 군은 이상 기준인 ‘60㎖/min/1.73㎡’미만으로 나온 비율이 6.2%로, 암경험이 없는 일반인 군의 3.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500㎎ 이상의 단백뇨를 배출하는 비율도 2.2%로 일반인 군의 1.4%보다 높았다. 또한 이들 중 만성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비율도 ‘암경험자’군이 7.4%로, 일반인의 4.0%보다 높게 나오는 등 전체 유병 가능성이 약 2.8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 원인으로 암 경험자들이 고령인데다 암 관련 고칼슘혈증, 신독성을 가진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경험 등을 겪었고, 또한 음주, 흡연, 운동부족 등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 등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강희택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암경험자들의 신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만성 신장질환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기에, 향후 암경험자 건강관리에 있어 만성신질환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span>”고 말했다.<br/>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암예방 저널’에 ‘40세 이상 암경험자의 만성 신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제목으로 발표됐다.<br/>송병기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41.txt

제목: [암과의 동행-암 극복위해 뛰는 사람들] 이진우 녹십자엠에스 연구소장  
날짜: 20150720  
기자: 박주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51  
본문: 녹십자의 자회사이자 진단시약 및 기기 전문업체 녹십자엠에스는 최근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제품인 ‘제네디아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br/> 이 제품은 갑상선암에서 주로 발견되는 BRAF 돌연변이 유전자만을 증폭시켜 종양조직 내 유전자의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갑상선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기존 검사법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기술이 적용돼 맞춤형 암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진우 녹십자엠에스 연구소장(사진)을 만났다.<br/> -‘제네디아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키트’의 장점은.<br/> 기존 염기서열분석법의 경우 검사결과 확인까지 약 이틀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 제품은 2시간 정도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돌연변이가 주로 발생하는 부위만 특이적으로 증폭시키는 녹십자엠에스만의 ‘MEMO-PCR’이라는 기술 때문이다. 이 기술은 정상 유전자의 증폭은 억제하고 돌연변이 유전자의 증폭만 수행하도록 설계돼 발견이 어려운 갑상선암 발생 초기에도 조기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있다. 갑상선 유두암의 약 90%는 BRAF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br/> -‘MEMO-PCR’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br/> MEMO-PCR 기술은 지난해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이다. 흔히 PCR이라고 불리는 핵산증폭기술은 최근 유행한 메르스 확진 검사 등 다양한 검사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는 전체 유전자 중 1∼2개 차이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PCR 검사로는 그 구분이 어렵다. 즉 갑상선 초기일 경우 일반적인 핵산 증폭을 수행하게 되면 정상 유전자와 돌연변이 유전자가 함께 증폭돼 돌연변이 여부를 가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 기술은 핵산 증폭과정에서 돌연변이 유전자만 증폭시켜 이를 통해 검체에 포함된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결국 극소량의 돌연변이 유전자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돌연변이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게 돼 조기진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br/> -MEMO-PCR 기술 외에 현재 중점을 두고 개발 중인 기술이 있다면.<br/> 최근 진단사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다. 2003년 인간유전자지도가 휴먼게놈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이후 맞춤형 의약, 생명연장, 암 정복 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돼 왔다. 최근 발달된 유전자분석기술은 100만∼200만원만 지불하면 단 하루 만에 한 사람의 전체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개인별 유전자분석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별로 성인병을 앓게 될 가능성, 암이 걸릴 가능성, 선천성 유전자 변이 유무 등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돼 예방과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br/> -앞으로의 계획은.<br/> 현재 대장암과 비소세포성폐암과 관련된 ‘KRAS’,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 키트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KRAS는 9∼10월 중, EGFR은 내년 중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뇌종양과 혈액암 관련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 키트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br/>박주호 기자 epi0212@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42.txt

제목: [암과의 동행-완치를 향한 위대한 도전] 암 수술 여덟번 했던 ‘철의 여인’  
날짜: 2015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48  
본문: 환자가 같은 부위에 여덟 번 수술을 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다. 의사의 수술효과에 대한 확신과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난소암 진단 후 여덟 번이나 재발했으나 의사의 결정을 믿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치료하며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환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br/> 난소암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대부분 복강 전체에 암이 퍼진 상태에서 발견되고, 수술과 항암치료로 약 80%의 암이 제거되지만 재발이 자주 일어난다. 재발은 대부분 처음 암이 있던 복강 내에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재발할 경우 처음 진단 때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br/> 환자는 10년 전 난소암 3기로 타병원에서 1차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아 종양이 완전히 없어졌으나, 이후 2년이 조금 안 돼 재발해 절박한 심정으로 본원 외래를 찾아왔다. 검사 결과 암은 간과 비장 주변까지 퍼져 있었고 복부와 함께 폐에도 물이 차 있었다. 수술로도 100% 암절제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환자는 수술에 동의했고, 장장 10시간이 넘는 수술로 완전 절제를 했다. 이후 육안 상으로 보이지 않는 종양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항암치료를 약 1년간 시행했고, 2년간 무병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br/> 하지만 다시 재발이 확인되었고 이전과 유사한 상황이 됐다.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이미 환자는 의사에 대해 강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고, 3차 수술을 권유하자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비장과 대장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통해 이번에도 완전 절제를 시행했다. 이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됐고 결국 매년 한 번씩 개복 수술을 하게 됐다. 환자는 본원에서 일곱 번의 수술을 받았고 타병원에서 시행한 첫 번째 수술을 포함하면 총 여덟 번의 수술을 받은 것이다. 여러 번의 수술로 환자의 배에는 세로로 딱딱한 흉터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피하지방 없이 바로 복강이 접해 있다. <br/> 환자는 여덟 번의 수술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항암치료를 받았다. 현재 복강 내에 작은 크기의 종양이 있으나 증상이 없어 항암치료는 하지 않고 있다. 언젠가 정기검진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br/> “<span class='quot0'>또 수술하자고 하면 하시겠어요?</span>” 환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선생님이 하자고 하면 해야죠. 10년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지켜보니 난소암 재발로 저만큼 오래 산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몇 번씩 수술하자고 하면 그냥 포기하더라구요.”<br/> 다른 암과 달리 난소암은 뇌, 간, 폐와 같은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장기로는 잘 전이하지 않는다. 복강 내에서 주로 재발하고 심할 경우 장폐색을 일으켜 아무것도 먹지 못해 결국 사망하게 된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복강 내 종양만 잘 조절하면 생존 연장이 충분히 가능한 암이기도 하다. 난소암이 재발했다 하더라도 종양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면 생존 연장을 기대할 수 있다.<br/> 인간관계에 있어 신뢰는 기본이다. 하물며 내 생사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의사에 대한 신뢰는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암이 재발하더라도 의료진에 대한 신뢰로 치료의 용기를 낸다면 길고 긴 인생여정에서 암 수술 몇 번 쯤은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br/>유상영 원자력병원 자궁암·난소암센터장<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43.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 환자 마음읽기] 갈 곳이 없어진 메르스 병원 암환자  
날짜: 2015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50  
본문: 지난 한 달여간 한 명의 메르스 환자가 대형병원 몇 곳을 무너뜨렸다. 메르스 여파로 병원만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메르스 한 명의 환자가 다녀간 병원은 외래, 입원, 응급실 진료를 중단하고 임시 폐쇄 조치되면서 해당 병원을 이용하던 환자는 갈 곳을 잃었다. 특히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등이 비슷한 시기에 응급실과 외래진료를 중단하는 바람에 강동구 지역에서의 의료공백은 심각했다. 5세 여아를 둔 부모는 한밤중 아이가 아파도 갈 곳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부모의 경우 한밤중 아이가 아프면 집에서 20㎞ 떨어진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했다.<br/> 대형병원이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부득이하게 병원을 옮겨야 하는 환자들이 발생했다. 특히 암환자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됐다.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다녔던 환자는 자신이 다니던 병원의 폐쇄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주치의는 항암치료가 한 주 늦춰져도 괜찮다며 환자를 안심시켰지만, 환자 마음이 의사와 같을 리 없다. 만약 몸 상태가 안 좋아진다면 한 주 늦어진 암치료 때문일 것이라고 주치의를 원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유방암 환자 김순희(55세)씨는 주치의에게 당분간 병원을 옮기고, 옮긴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옮겨간 병원에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주치의를 다시 찾았다. 환자 말에 따르면 옮긴 병원에서 자신을 마치 감염병 환자처럼 추궁하며 메르스 가능성이 없다는 증명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병원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요구였을지 모른다. 신중하지 못한 배려가 또 다른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치 않은 마음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문전박대까지는 아니어도 이것저것 조사하듯 물어오는 병원의 태도에 암환자는 서운함을 느꼈고 결국 치료를 미루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 김씨의 주치의는 “병원 간 협조가 구두로 협의됐지만 이는 서울시가 나서거나 보건당국이 나서야 하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br/> 메르스가 할퀴고 간 대한민국은 서른여섯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메르스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갑작스런 진료공백으로 당장 먹을 당뇨약과 혈압약이 없어 혼란에 빠진 만성질환자들이 발생했고, 치료가 급한 암환자들은 정기적인 암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인근 병원들이 나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이 겪을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역부족이었다. 대형병원이 감염병 하나로 쓰러지자, 그곳을 다닌 환자들도 덩달아 난민 신세가 된 모양새다.<br/>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는 “본원의 환자를 의뢰한 타 병원에서는 (메르스) 위험도를 평가해 안전하다고 판단이 들 때 환자를 받겠다고 답변해 왔다. 그 위험도 평가라는 것이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이라 환자를 의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르스로 잃은 것을 따질 때 희생자와 경제적 손실만 따져선 안 된다. 제2의 메르스는 또 올 것이다. 신종 감염병으로 한 지역에서 의료공백 현상이 빚어질 때 환자와 병원의 혼선을 최소화할 진료체계, 병원 간 의료협진체계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br/> kubee08@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44.txt

제목: [암과의 동행] 말기 암환자 비타민D 결핍 두드러져  
날짜: 20150720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36  
본문: 체내 비타민D 결핍은 나이 많은 성인, 즉 고령층에서 나타나는 신체현상 중 하나다. 비타민D 결핍은 체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부갑상선기능항진증, 근육소실과 그로 인한 낙상위험의 증가, 골밀도 감소에 따른 골절 위험의 증가다. 그런데 한 연구에서 암환자의 경우, 동일 연령의 비암환자보다 비타민D 결핍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 암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비타민D를 합성할 수 있는 일광 노출기회가 적고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물들이 체내 비타민D를 합성을 막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구심, 구토 등으로 식이에 따른 영양분 섭취가 어려운 상태는 비타민D 합성을 막는 요소가 된다.<br/> 암환자에게서 비타민D 결핍이 두드러지는 만큼, 심각한 결핍이 장기생존율에 악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다. 최윤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최선영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 말기암으로 진단된 만 2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D 농도와 생존기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관찰실험을 벌였다. <br/> 실험대상자인 말기암 환자들의 혈중 비타민D 농도는 평균 8.6ng/ml로 비타민D 중증결핍의 진단기준인 10ng/ml보다 낮았다. 이 수치는 건강한 성인 남성의 평균치인 21.2ng/ml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아 암환자에게서 비타민D결핍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한 최선영 교수는 “<span class='quot0'>본 연구에서 비타민D의 심한 결핍이 말기암 환자의 사망 위험인자는 아니었다</span>”고 설명했다.<br/> 비슷한 연구가 하나 더 있었다.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인천 소재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18세 이상 말기암 환자 133명을 대상으로 비타민D 농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상자의 94.7%가 비타민D 결핍을 보였고 75.9%가 중증의 비타민D 결핍을 보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가천대 길병원 황인철 교수는 “호스피스에 입원한 암환자는 외래를 다니는 다른 병기의 암환자에 비해 식욕부진으로 식사량이 적은 경우가 많고 병원생활로 일조량이 거의 없다. 이는 비타민D 합성이 어려운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br/> 황인철 교수는 “비타민D 결핍에 따른 합병증은 예상할 수 있으나 생존기간을 낮추는 완벽한 독립인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다른 병기의 암환자에 비해 말기암 환자에게서 비타민D 결핍현상이 심화된 것은 거동과 식이섭취가 어려운 말가임 환자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span class='quot1'>비타민D 보충 치료를 받았을 때 수치가 얼마만큼 향상되는지 또는 실제 암환자의 신체능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후속연구를 기대해볼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 노인에게서 비타민D 보충이 근력향상과 낙상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암환자에게서 비타민D 보충이 신체활동능력 개선이나 생존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45.txt

제목: [암 수술 잘하는 병원-고대안암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정승필-성형외과 윤을식 교수] 유방암 아름답게 완치  
날짜: 20150720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30  
본문: 고대안암병원에는 유방암 환우들에게 잘 알려진 두 명의 명의가 있다. 유방내분비외과 정승필 교수와 성형외과 윤을식 교수다. 한국에서의 유방암은 40대 이하 젊은 환자가 주를 이루고, 암 발생 초기단계의 조기유방암 환자가 많다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이런 배경에 한국의 젊은 유방암 환자는 ‘암환자 였다’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싶지 않아 근치적으로도, 미용적으로도 완벽한 치료를 받고 싶어진다. <br/><br/> ◇정확한 진단·다학제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택하라=유방내분비외과 정승필 교수는 한국의 유방암 특수성을 고려한 치료 전략을 세운다. 근치적으로 치료하되 치료에 따른 여성의 삶의 질 저하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 유방보존술 직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치료법은 완전 절제술과 동일한 치료효과를 보인다. 재발률이 낮고 생존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됨에 따라 현재 조기유방암 표준 치료로 유방보존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외과의사인 그는 미용적인 부분보다 완벽한 암의 제거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미용학적 이유로 무조건 유방보존술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종양의 크기와 위치, 유방의 크기 등을 보고 유방보존술 여부를 결정한다. 재발률이 없고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 때 유방보존술을 시행한다”고 말했다.<br/> 정 교수는 유방암 완치를 위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 삶의 질을 고려한 다학제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암환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병원쇼핑 현상을 빗대어 설명했다. 정 교수는 “유방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어딘지, 명의가 누군지 궁금한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대형 병원 두 곳 이상을 다니는 동안 환자는 첫 진단 후 1∼2개월의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처음부터 믿음이 가는 병원을 찾고 바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빠른 암수술을 표방하는 최근 의료 트렌드와 달리 고대병원에서는 환자가 병원을 찾은 그 날부터 열흘 정도의 시간에 걸쳐 진단과 수술 등 암 치료에 필요한 전 과정이 이뤄진다.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우리는 진단 후 수술까지 열흘 이상의 시간을 갖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방침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드린 후 수술을 진행한다</span>”고 말했다.<br/> ◇여성암환자 입장을 고려한 최소 침습 ‘유방재건술’=고대안암병원엔 종양성형술(Oncoplastic surgery)을 도입한 의사가 있다. 성형외과 윤을식 교수는 종양제거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수술 이전과 동일한 가슴을 만들어준다. 종양학적 안전성을 보장한 재건술은 젊은 유방암환자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윤 교수는 “<span class='quot1'>자가 조직으로 유방을 재건하는 방법은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에 비해 수술 후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더라도 예후가 좋다는 장점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br/> 윤 교수는 로봇을 이용해 등에서 유방재건에 필요한 조직을 얻는다. 그는 “<span class='quot1'>자가 조직을 떼어낸 부위에 물이 차는 등 보통의 경우 합병증이 남지만 로봇을 이용할 경우 절개 부위가 없어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성공적인 유방재건술에 있어 외과와 성형외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양 절제 후 재건을 받을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팀이 수술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합병증 가능성 등으로 환자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 있다. 본원에서는 유방암 명의들이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통해 최상의 치료결과를 만들고자 노력한다”고 말했다. <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4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 치료효과 점점 좋아지는데… 간암 사망률 10년 제자리  
날짜: 20150720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29  
본문: 재작년에 위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수는 10만 명당 18.2명이다. 연간사망률 24.2명을 기록한 10년 전과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숨어 있던 조기 위암 환자를 찾아내면서 자연히 생존율이 올랐고 사망률은 줄어들었다. <br/> 그러나 10년째 사망률이 제자리인 암이 있다. 바로 간암이다. 2013년 기준으로 간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수는 연간 10만 명당 22.6명인데, 이 수치는 2003년 사망률과 동일하다.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br/> 간암은 다른 암과 달리 확실한 전단계 질환을 갖고 있다. B형간염 또는 C형간염, 간경변증을 앓고 있다면 해당 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간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그래서 국가암검진 사업 중 간암은 몇 세 이상의 일반인이 아닌 간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따로 선별해 이들에게 간암 선별 검사를 지원해주고 있다. 생존율을 올리고 사망률을 내리는 전략은 얼마나 숨어 있는 고위험군을 찾아내 선별검사를 받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br/> 경희대병원의 심재준 교수가 2011년 한 해 동안 간암 선별 검사를 받은 621명을 분석한 결과, 226명이 B형간염 또는 C형간염, 간병변증 등 고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였다. 이 226명은 의료기관에서 부정확하게 질병코드를 입력한 탓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선별검사를 받게 된 경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비해당자의 불필요한 검진으로 국가 예산의 낭비, 간암 고위험군 방치 등 한국의 간암 사망률을 낮추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br/> 질병분류코드를 이용한 간암고위험군 선별은 비대상자를 포함할 수 있다는 문제 가능성을 안고 있다. 앞서 연구에서 보듯 의료기관이 실수로 간질환 또는 유사질환으로 입력할 경우 간암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불필요한 검진을 받게 된다. 또한 최근 2년간 간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력이 없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br/> 국립암센터 국립암대학원대학교 최귀선 박사는 “공단의 자료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의 누출 위험과 자료의 부정확성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일단 의료기관이 얼마나 질병코드를 정확해 입력했는가에 달려 있다. 간암 검진 대상자는 간경화, B형 또는 C형간염 질환자인데, 실수로 유사질환으로 기록돼 있다면 간암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불필요한 검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br/> 한편 국가 간암 검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수검률이 낮아지는 원인이다. 이에 대해 최 박사는 “만성적인 간질환은 질환의 특성상 환자마다 평소에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있다. 이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공단에서 통보받은 의료기관에서의 검진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국가 간암 검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 박사는 “간질환자에게 있어 초음파 검사는 예방이 아닌 질환의 진행도를 알아보는 추적검사의 개념이므로 급여화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간질환자에게 초음파검사를 보험급여화해서 환자 개인이 주치의에게 주기적으로 추적검사를 받게 한다면 조기 간암 발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47.txt

제목: [위암 치료 이야기-이대목동병원 이주호 교수] 위 절제 전과정을 복강경 시술, 작은 절개창도 없애  
날짜: 20150720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31  
본문: 전체 위암환자의 절반 이상이 조기위암이다. 암 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치료효과가 좋은 조기 위암환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조기 위암 환자가 많아지는 만큼 이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 복강경 절제술도 꾸준히 개발돼 환자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br/><br/> ◇조기 위암 환자를 위한 복강경 위 절제술=위암에 시행되는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통증이 적고 위 기능의 회복이 빨라 일상생활로의 복귀시점도 빨라진다. 즉, 환자가 암치료로 병원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위암센터 이주호 교수는 위암 절제술 전 과정을 복강경으로 시행한 ‘전복강경 원위부 위절제술’의 안전성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의사다.<br/> 기존에 복강경을 이용한 위절제술은 배 위에 뚫은 몇 개의 구멍을 이용해 복강경으로 병변 부위를 절제한 후, 명치 부분을 5㎝ 정도 절개하고 남은 위와 소장을 꺼내 문합하는 시술을 해 왔다. 문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시술방법이 주로 이용돼 왔는데, 이주호 교수는 위 절제부터 위와 소장을 잇는 전 과정을 따로 절개하지 않고 하는 ‘전복강경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한다.<br/> 이에 대해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조그마한 절개창도 따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span>”고 말했다. <br/> 복강경 수술은 조기 위암환자의 표준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위 점막에만 국한돼 있고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없는 조기 위암환자들은 개복수술에 비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훨씬 낮은 복강경 절제술이 더욱 효과적이란 연구결과가 축적됐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개복수술을 받은 조기 위암환자와 복강경 절제술을 받은 조기 위암환자의 장기생존율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조기 위암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합병증 발생이 적어 빠른 사회복귀가 가능한 복강경 수술이 더욱 유리한 수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r/> ◇고령의 위암환자 수술 두려움 극복해야=이주호 교수는 나이를 이유로 수술을 두려워해 치료를 포기하는 고령의 위암환자들을 안타까워했다. 이 교수는 “수술기법이 발달해 고령이더라도 장년층과 비교해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큰 차이가 없다. 수술 후 찾아올 합병증보다 암이 악화되어 환자가 겪게 될 신체적 변이가 더 큰 문제인데, 보호자도 환자도 이를 판단하지 못하고 수술을 포기할 때 안타깝다”고 말했다.<br/> 최근 국내 노인의 기준은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됐다. 이주호 교수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고령의 암환자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년층의 수술 위험도를 평가하는 몇 가지 연구에서 수술 합병증 발생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의료진이 수술을 권하는 것은 완치 가능성이 높고, 수술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수술했을 때 생기는 이점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료진을 믿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준다면 장기생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br/>김단비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48.txt

제목: [암과의 동행] 조기 위암 내시경 치료 후 장기 생존율, 수술환자와 큰 차이 없어  
날짜: 201507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33  
본문: 조기 위암에 대한 내시경 치료 후 장기 생존율이 수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 위암센터 최일주 박사(사진)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국립암센터에서 조기 위암 내시경 치료 적응증으로 내시경점막하절제술을 받은 261명과 수술을 받은 114명의 장기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비교 결과 내시경 치료 후 5년 생존율은 95.7%로 수술 치료 후 93.6%와 비교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팀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기 위암의 내시경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확대 적용한 경우에도 내시경 치료를 받은 165명(5년 생존율 97.5%)과 수술 치료를 받은 292명(5년 생존율 97.0%) 사이에 장기 생존율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br/>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위 전체가 보존돼 치료 후에도 삶의 질이 수술 전과 동일하다. 또 수술 이후 일부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시경 치료 후에 ‘처음 치료한 위암이 완치된 후에 위의 다른 부위에 새로 생기는 위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부 환자에서 있었지만, 추가 내시경 치료로 대부분 완치됐으며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br/> 조기 위암의 내시경 치료 적응증은 위 주변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확인된 위 점막층에 국한되고, 크기 2㎝ 이하의 분화도가 좋은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 치료가 1차 치료로 추천된다. 또한 내시경 치료 확대 적응증은 절대 적응증의 조건을 조금 벗어나지만 림프절 전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기 위암이며, 내시경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내시경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br/> 연구의 책임저자인 최일주 박사는 “내시경 치료의 적응증이 되는 조기위암에 대해서는 내시경 치료 후 장기 추적 결과가 수술과 비교해 손색이 없어서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처음 치료한 위암이 완치된 후에 위의 다른 부위에 새로 생기는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치료 후에 주의 깊은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br/> 한편, 이번 연구 결과들은 소화기내시경 분야 권위의 국제학술지 소화기내시경(Gastrointestinal Endoscopy)과 내시경학(Endoscopy) 최근호에 연이어 게재됐다. <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49.txt

제목: [암과의 동행] 방사선 치료기 국산화 앞당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6MeV급 고출력 방사선 발생 성공  
날짜: 201507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34  
본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기존 장비보다 성능이 우수한 방사선 치료기기 국산화를 앞당기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은 최근 방사선 치료기의 국산화에 있어 핵심 기술인 6MeV(메가일렉트론볼트, 100만 전자볼트)급 고출력 방사선 발생(암치료용 컴팩트형 방사선원)에 성공했다고 밝혔다.<br/> 이번 성과는 국내 최초로 C-밴드형 가속관 기술이 적용됐다. 이는 지난해 1차 개발한 방사선원보다 월등히 향상된 성능을 보임으로써 방사선 치료기 국산화를 앞당길 전망이다. 의학원은 ‘동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포항가속기연구소, ㈜태성정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의학원 측은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수입 방사선 치료기와 동등한 성능을 목표로, 3년의 연구기간 동안 설계·제작·성능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2년차인 지난해 4월에 4MeV급 방사선원 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10개월 동안 고주파 출력과 빔의 집속력을 높여 올해 초 6 MeV급 전자선과 엑스선의 발생 실험에 성공해 3년차 연구를 마쳤다. 6MeV 에너지는 1.5V(볼트) 건전지 40만개로 낼 수 있는 에너지로, 치료용 가속기의 성능 범위에 해당한다.<br/> 이번 연구에 사용된 C-밴드형 가속관은 기존 방사선치료기에 사용되는 S-밴드형보다 길이가 짧고, 방사선 발생에 필요한 전자 가속장치를 소형화할 수 있어 컴팩트형 가속관으로 불린다.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로 방사선 치료기로 개발하면 세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br/> 양광모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 가속관 등 핵심부품들의 제작 기술을 실용화하고, 국내의 강점인 기계와 전자 제어기술 그리고 의료용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방사선 치료기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송병기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50.txt

제목: [항암 밥상-고추흰밥전 & 고추된장무침] ‘고추+된장’ 이 보다 더 좋은 음식궁합 있을까  
날짜: 20150720  
기자: 조규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44  
본문: 고추는 매운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재료이며, 종류에 따라 매운 정도는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단맛도 함께 갖고 있어 매운맛과 단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재료이다.<br/>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에는 혈전 용해력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암뿐만 아니라 관상동맥질환을 예방하기도 한다. 또한 체지방을 연소시키고 발열을 촉진하므로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으며, 엔도르핀의 발생을 촉진시켜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의 발생을 억제한다. 그러나 적당량 이상을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 질환을 발생시키므로 고추를 과하게 넣은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br/> 이 외에도 고추에는 비타민 C가 다른 채소에 비해 특히 많아, 여름철 피로회복에 좋다. 비타민 C의 경우, 감귤의 2배, 사과의 30배 정도가 들어 있으며, 이 비타민 C는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고 철분의 흡수를 도와줘 신체에 활력을 준다. 또한 고추에 들어 있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야맹증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지연시킨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세포의 분화 과정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폐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br/> 캡사이신은 열에 강해 조리해도 영양 성분이 파괴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조리 시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고추전 등의 조리식으로 먹어도 좋다. 다만, 비타민은 열에 약하므로 비타민 섭취를 목적으로 한다면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br/> 고추는 종류에 따라 맛과 영양이 달라진다. 표면이 꽈리처럼 쭈글쭈글한 꽈리 고추는 일반 고추와 달리 아삭함과 매운맛은 적은 반면, 부드럽고 연한 식감이 특징이며, 눈에 좋은 카로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br/> 매운맛이 강하며 외국의 매운 고추에 비해 캡사이신 양은 적지만 단맛이 두 배로 높다고 알려진 청양고추는 비타민 A, C가 풍부하며 유기산 및 칼슘 등이 고루 함유되어 있다. 또한 아삭이 고추는 풋고추와 파프리카, 피망 등의 교잡으로 만든 개량종으로,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과육이 두꺼우며 수분이 많고 맵지 않아 생으로 먹기에 좋다.<br/> 고추는 된장과 궁합이 좋으며, 고추 요리를 할 때 소금 대신 된장을 사용하면 고추의 매운맛을 적절히 완화시키는 동시에 간까지 적당히 할 수 있어 맛을 내기에 좋다. 또한 대표적인 항암 식품으로 알려진 된장과 함께 요리하면 영양을 보완해줘 항암 효과를 높여준다. 시판되는 된장을 고를 때는 콩, 소금, 물만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화학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샘표 백일된장과 같은 된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br/>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51.txt

제목: [질환 통계-전립선암] 환자 4년새 두 배 늘어… 70대 가장 많아  
날짜: 20150720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39  
본문: 남성에서 발병하는 암 중에서 5위인 전립선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선(prostate)은 방광 바로 밑, 직장(直腸) 앞쪽에 있는 밤톨만 한 크기의 남성 생식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전립선암의 대부분은 전립선 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腺癌, 샘세포의 암)으로, 주된 발병 원인은 고령(50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 인종(동양인에서 발생률이 가장 낮음), 유전적 소인, 가족력, 남성호르몬, 당뇨병, 비만, 서구화한 식생활(동물성 지방 섭취의 증가), 감염 등이다. 때문에 동물성 지방이 많은 육류를 절제하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 신선한 과일과 채소, 도정을 하지 않거나 덜 한 통곡식(밀이나 호밀 등), 그리고 콩류 따위를 충분히 먹는 것이 예방에 좋다. 또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일주일에 5회 이상, 매회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유익하다. <br/> 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2010년∼2014년)간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현황을 보면 2010년 3만5688명에 불과하던 환자는 2014년 6만32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진료비 역시 2010년 767억원에서 119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br/> 연령별로는 70대 남성(2만9872명)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1만8512명) △80세 이상(1만1054명) △50대(5053명) △40대(582명) △30대(63명) △20대(20명) △10대(3명) △10세 미만(3명) 순이었다. 평균 연령이 증가하며 고령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80대 이상의 경우 2010년 5570명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1만1054명으로 크게 늘었고, 70대 역시 2010년 1만6271명에서 2014년 2만9872명으로 증가했다. <br/> 이용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았는데 2014년 기준 3만9420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종합병원 2만2375명, 의원급 6485명, 병원급 2838명, 보건기관 96명 순이었다. <br/> 지역별(의료기관 소재지) 환자수는 서울-경기-부산-대구 순으로 많았다. 서울의 경우 2010년 1만7155명에서 2014년 2만8266명으로 늘었고, 경기 지역은 2010년 6344명에서 2014년1만83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br/> 지역별 진료비는 환자수와 차이를 보였는데 2014년 기준 진료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240만원이었다. 이어 울산(237만원), 인천(235만원), 제주(232만원), 부산(208만원), 경남(207만원) 순으로 이들 지역은 전체 평균금액인 198만원보다 높았다. 반면 광주(142만원), 충북(146만원), 강원(153만원), 경북(155만원), 서울(166만원), 경기(168만원)는 낮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환자가 24명에 불과한 세종으로 82만원밖에 안 됐다.<br/> 한편 전립선암은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50세 이상 남성은 개별적인 건강검진에 전립선암도 포함시켜서 가급적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다. 혈중(혈청) 전립선특이항원(PSA) 측정 검사와 직장수지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이면서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기적인 전립선암 검진을 권하지 않는다. 특히 진행된 전립선암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식욕부진과 영양실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공급이 중요하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megestrol acetate)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br/>조민규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52.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성인男 흡연율 5.8%p 감소 外  
날짜: 2015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46  
본문: ◇성인男 흡연율 5.8%p 감소=올해 초 담뱃값이 인상된 후 우리 나라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5.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뱃값 인상 후 흡연율과 담배 반출량은 감소한 반면,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2015 흡연실태 수시조사’ 등 담뱃값 인상 6개월에 따른 금연 효과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흡연실태 수시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544명 대상으로, 지난 5월27일부터 6월10일까지 전화조사로 진행됐다.(95%신뢰수준에 ±1.94%포인트)<br/>◇도시바 CT 애퀼리언 원 1천대 생산 돌파=도시바 메디칼시스템즈는 지난 1일자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 ‘애퀼리언 원(Aquilion ONE)’ 시리즈 1000번째 제품을 생산했다. 애퀼리언 원은 세계 최초로 320디텍터열(Detector Row)을 갖춘 CT로 한 번에 160㎜의 범위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다.<br/>◇서울아산병원 산업부 기술개발과정 선정=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의공학연구소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수술용 의료기기 병원-기업 상시 연계 개발 플랫폼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간 10억원 씩 5년간 총 5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전기 및 레이저 진단치료기기 △심혈관용 기계기구 △자동화 로봇수술기 등을 중심으로 한 수술용 의료기기를 개발한다.<br/>◇암환자 간병 부담 클수록 완화의료 선호=암환자와 가족들은 환자에 대한 간병 부담이 클수록 완화의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암건강증진센터 신동욱 교수·이지은 전문의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 연구팀이 국립암센터와 함께 암환자와 가족 326쌍을 대상으로 ‘환자 간병 부담’과 ‘환자 완화의료 선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분석 결과, 완화의료를 택한 환자는 연명치료를 택한 환자보다 본인이 가족에게 큰 간병 부담을 준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5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종근당 ‘프리페민’, 생약성분 월경전증후군 치료제로 각광  
날짜: 20150720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45  
본문: 월경전증후군(PMS, 생리전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의 80∼90%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 흔한 증상이다. 보통 월경 7∼10일 전에 여러 신체적, 감정적 증상과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났다가 월경과 함께 사라지고 이후 황체기가 시작할 때 다시 반복된다. 월경전증후군을 앓는 여성이 일생에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보내는 시간이 무려 3000일에 달할 만큼 여성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br/> 흔히 나타나는 월경전증후군의 증상은 유방통, 아랫배통증, 두통, 근육통, 체중증가, 여드름, 사지부종, 변비, 피로감, 신경과민, 우울, 무기력감, 불안, 긴장, 외로움 등이 있으며, 행동의 변화로는 집중력 저하, 식욕변화, 수면과다, 의욕저하, 불면 등 모두 200여종에 달할 정도로 개인에 따라 다양한 증상들이 발현된다.<br/> 이전까지 월경전증후군을 위한 치료제로는 진통제(NSAIDs),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호르몬제 등이 있었지만 여러 증상 중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등 월경전증후군의 직접 치료제는 아니었다.<br/> 경증의 월경전증후군은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등 일상 속 습관을 바꾸는 비약물적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산부인과를 방문해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나 치료방법이 없었고, 여성들이 월경전증후군을 질환으로 인식하지 않아 대다수의 여성들이 이를 참고 넘기거나 진통제로 대응하는 수준에 그쳤다.<br/> 이러한 상황에서 종근당 ‘프리페민’이 월경전증후군의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프리페민’은 유럽에서 월경전증후군과 월경불순에 임상적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아그누스카스투스 열매에서 추출한 생약성분 월경전증후군 치료제이다.<br/> 프리페민은 1일 1회, 1회 1정의 간편한 복용을 통해 생리전 다양한 증상을 완화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월경 전 증상으로 학업 또는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준다. 복용기간에 비례해 개선효과가 증가하므로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다. 프리페민은 동일성분 의약품 중 유일하게 유럽의약품청(EMA)에 의해 ‘WEU(Well-Established Use)’ 의약품으로 등록돼 있다. 현재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헝가리, 폴란드, 일본 등 14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br/> 종근당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프리페민은 지금까지 치료와 관리에 소홀했던 월경전증후군에 대한 인식을 바꾼 중요한 제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이 적절한 처방 없이 견뎌내야 했던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해 여성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54.txt

제목: [암과의 동행] 구강내 타석 정확한 진단-제거로 ‘마르지 않는 옹달샘’ 잘 보존해야  
날짜: 20150720  
기자: 임재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49  
본문: 이글이글대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에 시원한 계곡물이 그리운 여름입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의 여름은 장마철에도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가 지속되어 상수원의 물 부족으로 큰빗이끼벌레의 증식이 과다하여 상수도 오염의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br/> 사람의 입안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침샘은 침을 만드는 기관인 입안의 상수원으로, 물을 공급하는 마르지 않는 옹달샘입니다. 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 수 있으며, 침을 계속 순환시켜 입안의 세균을 씻어냄으로써 입안의 위생을 유지합니다.<br/> 입안의 상수원인 침샘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한 원인이 침샘에 생기는 돌(타석)입니다. 담낭이나 콩팥에 돌이 생기듯 침샘에도 석회화가 발생하여 돌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구강위생이 불량하거나 구강 내 세균의 번식으로 인한 염증, 전신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해 침의 화학적 성분이 변하게 되면, 침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침샘관을 통해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저류된 침은 석회화가 진행되고 타석을 만들게 됩니다. 타석이 생기게 되면 음식을 먹을 때 턱이나 귀 주변 부위의 침샘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아프며, 음식을 먹은 후 붓는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음식의 자극에 의해 침의 분비가 증가되는 반면 침이 배출되는 침샘관이 타석에 의해 부분 또는 완전 폐쇄가 되어 침이 침샘 안에 계속 저류되기 때문입니다. 타석은 턱의 아래쪽에 있는 침샘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치료는 수술적으로 타석을 제거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타석의 제거는 대부분의 경우 외부절개 없이 침샘 내시경술이나 입안의 절개를 통해 수술로 치료할 수 있지만, 타석이 침샘 깊숙이 있거나, 오랜 기간 반복된 염증으로 이미 침샘 기능이 소실된 경우는 외부절개를 통하여 침샘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br/> 침샘 내시경술은 침샘관에 내시경을 삽입하여 직접 침샘관 내부를 보면서 수술을 시행하므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최첨단 치료법입니다. 침샘이 붓는 질환 중 타석 외에도 침샘 협착, 침샘관 용종과 같은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침샘에 반복적인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기존에는 약물 치료 후 반응이 없는 경우 침샘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주된 치료법이자 유일한 방법이었으나, 이제는 침샘 내시경술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내시경술은 입안을 통한 최소한의 절개로 얼굴에 흉터가 나지 않으며,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기존 침샘 절제술시 4∼5일 정도 걸렸던 입원기간을 1∼2일로 줄이고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침샘 내시경술로 인한 타석 제거술의 성공률은 90%가 넘어 거의 대부분의 타석을 침샘 내시경술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석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거함으로써 구강 내 옹달샘인 침샘의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br/>임재열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5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조용한 시한폭탄 ‘석면 노출’ 학교… 병원… 노인시설… 건강 약자엔 또 하나의 공포  
날짜: 20150720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28  
본문: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 시설에서 석면이 검출돼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을 핑계로 개선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침묵의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을 유발한다. 석면이 유발하는 대표 질환인 악성중피종의 경우 석면 노출에 의한 기여도가 80∼90%에 달하는데 일시적 노출이나 간접 노출로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런 석면이 유치원을 비롯한 교육시설부터 의료·장애·노인시설까지 성장기나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에서 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br/>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면이 검출된 서울시 초등학교가 전체의 83%에 달했다. 또 조사대상 학교 중 석면자재 비율이 전체 건축연면적 대비 50% 이상인 학교가 161개교에 달했고, 석면자재가 하나도 없는 ‘클린 학교’는 41개교에 불과했다.<br/> 지난해 국정감사에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2012년 12월 기준 전국 초중고의 88%인 1만7265개 학교에서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석면 농도도 법적 기준치의 20배에서 최고 50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2명(평균 재직기간 27년)의 교사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질환자로 인정받았는데 9명이 ‘악성중피종’, 3명은 ‘석면폐’였으며 이 중 9명(2014년 9월15일까지)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br/> 대학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교육부의 국립대학 석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40개 국립대학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그 면적도 건물 전체의 2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학 내 어린이집 천장에서도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이 검출됐는데 대다수 어린이집이 석면자재 사용이 많던 1990년대에 준공된 것으로 확인됐다.<br/>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석면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석면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 개·보수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기능보강예산이나 환경개선 융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br/> 학교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12개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에서 석면이 들어간 천장재 등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병원의 경우 질병에 취약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인만큼 위험이 더 크다.<br/> 한편 석면안전관리법(2012년 4월 29일 시행)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신고를 한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학교, 어린이집 등의 소유자는 법 시행 후 2∼3년 내에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의 위치와 석면비산가능성을 파악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석면을 관리하는 담당 부처가 분산돼 있다는 점인데 석면의 제조·수입·생산의 경우 3개 부처가 담당하고, 석면함유 건축물은 5개 부처, 석면 해체·철거는 2개 부처, 폐석면 처리는 환경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통합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r/> 또 석면의 사용이 지난 2009년부터 금지됐는데 1990년대 가장 많이 소비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잠복기를 거쳐 2030년 이후 석면으로 인한 환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순차적으로 석면자재를 교체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문제로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을 예로 들면 최근 석면 천장이 있는 학교 중 교체가 시급한 8곳에 대해 올해 우선 교체키로 했지만 시 교육청이 지난해 파악한 석면 천장 학교는 436개 유·초·중·고교 중 294개교(67.4%)에 달한다. 이들 학교의 석면 천장을 모두 교체하려면 약 16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올해는 32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천장파손·처짐·얼룩이 심해 미관상 불안감을 주는 학교에 대해 우선 교체에 나선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에도 1277개 학교 중 783개교에서 석면건축물이 확인됐지만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학교에 대해서만 석면을 제거했을 뿐이다. <br/> 앞서 김영주 의원은 “<span class='quot0'>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학교에서 제거되지 않는 이유는 학교환경시설개선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교육부가 제출한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과 실제 석면철거예산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서울시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1조원이 넘지만 석면철거예산은 고작 72억원에 불과했다</span>”고 지적한 바 있다. 석면에 노출된 아이들이 수십년 후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56.txt

제목: [암과의 동행] “건보와 별도 항암제 기금 만들자”  
날짜: 20150720  
기자: 박주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37  
본문: #최근 잦은 설사와 변비로 대학병원을 찾았다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은 이모(57)씨. 이에 더해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많이 진행돼 기존 항암제로는 치료가 힘들다는 말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담당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돼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span>”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해당 약이 아직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 한 달 약값만 500만∼600만원에 이른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뭔가 해법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찜찜한 기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br/>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6년까지 고가항암제 등 155항목에 대해 급여확대를 약속했지만 환자들을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보험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치료약이 개발되더라도 보험이 적용되기까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6∼7년 이상이 소요되다보니 쉽게 잡힐 듯한 느낌에 끝까지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br/> 일단 신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이 중 5%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95%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환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치료제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획기적인 치료 효과가 있더라도 고가의 약값 부담으로 환자들이 생명연장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br/> 이에 환자들은 정부의 보험급여 확대 방침과 환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 차이가 크다고 지적한다. <br/>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span class='quot1'>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기존에 치료방법이 없고,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라면 신속한 급여 결정을 통해 누구나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 안 대표는 이어 “<span class='quot1'>모든 건강정책은 환자, 즉 사람이 우선돼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재정 외에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환자들의 항암제 복용을 지원하는 영국의 항암제 기금(CDF, Cancer Drug Fund) 제도를 검토할 때가 됐다</span>”고 제안했다.<br/> 정부는 고가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지연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들고 있다. 현재의 한정된 건보 재정으로는 비용대비 효과와 임상적으로 가치가 있는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span class='quot2'>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급여화가 쉽지 않은 게 현실</span>”이라면서도 “<span class='quot2'>경제성 평가 면제, 위험분담 대상 지정, 진료상 필수의약품 지정 등으로 비용효과성에 대한 한계를 일부 보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지난 6월말까지 복지부가 급여에 포함시킨 고가 항암제는 내년 말까지 전체 목표 155개의 68% 수준인 106개다. 의료계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라는 명분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3'>현장에서 보면 치료법이 있더라도 너무 고가이다 보니 치료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3'>환자의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박주호 기자 epi0212@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57.txt

제목: [컵스는 어떤 암인가]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7가지  
날짜: 20150718  
기자: 의학전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8100000023  
본문: 암은 발병 초기에 뿌리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무시하기 쉬운 증상을 지나쳐선 안 된다. 암이 보내는 위험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극복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미국 의료정보 전문 사이트 프리벤션닷컴이 과학공공도서관저널(PLoS One)에 실린 논문을 바탕으로 꼽은 ‘무시하기 쉬한 암 증상 7가지’를 소개한다.<br/> (1) 덩어리나 혹=암 환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몸에 원인불명의 덩어리가 있음을 감지했다. 그러나 이들 중 77%는 심각한 질병으로 여기지 않았다. 몸에 전에 없던 덩어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살피고, 이상이 있다고 여겨질 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br/> (2) 기침이나 쉰목소리=기침은 후두암, 폐암, 갑상선암, 림프종의 가장 흔한 증상이다.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는 등 목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전문의를 찾아 원인을 밝혀야 한다.<br/> (3) 배변 습관의 변화=영국 런던대 연구팀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의 18%는 배변 시기, 대변의 양과 크기 변화를 경험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거나 변이 가늘어지는 것은 음식이나 약물의 영향뿐만 아니라 대장암의 전조증상이다.<br/> (4) 소변 습관, 방광 이상=잦은 요로 감염도 경계 대상이다. 전에 없이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방광 부위가 아프면 남녀 모두 한번쯤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을 의심해야 한다.<br/> (5) 지속적인 통증=통증은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미국암협회는 암으로 인한 통증은 서서히 몸 전체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br/> (6) 체중 감소=원인을 모르는 채 갑자기 체중이 4.5㎏ 정도 줄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체중 감소는 췌장암, 위암, 폐암, 식도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증상이다.<br/> (7) 출혈=폐암의 신호는 피가 섞여 나오는 가래와 기침이다. 대변에 묻은 피는 대장·직장암의 표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 출혈은 자궁암 같은 질환을 알리는 경고등이다. 유두 출혈은 유방암, 혈뇨는 방광암이나 신장암의 신호일 수 있다. 외상 등 뚜렷한 이유가 없는 출혈은 암의 전 단계일 수 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58.txt

제목: [출처불명 전이암 증가] ‘컵스’ 잡아야 산다  
날짜: 20150718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8100000063  
본문: 65세 여자 P씨. 올해 초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J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검사 결과 통증은 복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간담도, 췌장, 위, 자궁, 난소 등 복강 내 어떤 장기도 복수를 유발할 병소(病巢)는 안 보였다. 병원 측은 환자의 몸에서 뽑은 복수를 뒤졌다. 거기에서 암세포가 발견됐다. 복부CT를 촬영했다. 그제야 암세포가 보였다. 뱃속에 암세포가 가득 찬 상태였다. 그러나 암세포가 어떤 종류이고,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br/> 55세 남자 K씨. 3년 전 이맘때 소화가 안 되고 기분 나쁜 복통이 계속돼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깨끗했다. 하지만 여전히 배가 아팠다. S병원을 찾아 복부초음파 및 CT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복강 내 췌장 옆쪽에서 이상 염증 조직이 발견됐다. 정체불명의 암세포였다. 어디서 빠져나온 녀석인지 분명치 않았다. 또 다른 S병원을 찾아 다시 검사를 받았다. 그래도 똑같았다. K씨는 그해 연말 숨졌다. 진단에서 사망까지 6개월밖에 안 걸린 초고속 악화였다. 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나이에 고된 항암치료를 감내한 것에 대한 대가치곤 너무나 가혹한 결말이었다.<br/> 정체불명의 암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몸에 암이 생긴 것은 알지만 그 암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미스터리’투성이 출처불명의 암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40대 이후 중장년층을 집중 공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b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암 진료 환자를 분석한 결과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질병 분류코드 C80)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48) 등 원발부위 불명암(Cancer of Unknown Primary Site), 일명 컵스(CUPS) 환자가 연평균 7.5%씩 무려 3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br/> 컵스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층은 50대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40대 18.5%, 60대 19.4%, 70대 14.4%, 30대 10.8% 등 순이었다. 일반 암의 연령별 분포와 비슷한 비율이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신상준 교수는 암이 많이 생기는 고령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 건강검진의 보편화로 우연히 암을 발견하듯 컵스도 같은 루트로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br/> 컵스는 원발부위의 암이 없어져 찾을 수 없는 게 특징이다. 다시 말해 분가를 시킨 암은 보이는데, 그 암을 만든 친정 또는 본가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격이다. 그러니 치료하기는 더 어렵다.<br/> 보통 다른 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단 후 경과 및 향후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데 1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반면 컵스 환자는 두세 차례에 걸쳐 반복 설명해야 하며 최소 3시간 이상 걸리기 일쑤다. 생소한 컵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까닭이다.<br/> 중앙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김희준 교수는 “<span class='quot0'>원인을 못 찾는 담당 의사를 못 믿겠다며 ‘병원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환자가 컵스 환자라는 말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현재로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새로운 검사, 같은 검사를 반복하다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59.txt

제목: [출처불명 전이암 증가] ‘컵스’ 잡아야 산다  
날짜: 20150718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8100000031  
본문: 세 여자 P씨. 올해 초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J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검사 결과 통증은 복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간담도, 췌장, 위, 자궁, 난소 등 복강 내 어떤 장기도 복수를 유발할 병소(病巢)는 안 보였다. 병원 측은 환자의 몸에서 뽑은 복수를 뒤졌다. 거기에서 암세포가 발견됐다. 복부CT를 촬영했다. 그제야 암세포가 보였다. 뱃속에 암세포가 가득 찬 상태였다. 그러나 암세포가 어떤 종류이고,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br/> 55세 남자 K씨. 3년 전 이맘때 소화가 안 되고 기분 나쁜 복통이 계속돼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깨끗했다. 하지만 여전히 배가 아팠다. S병원을 찾아 복부초음파 및 CT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복강 내 췌장 옆쪽에서 이상 염증 조직이 발견됐다. 정체불명의 암세포였다. 어디서 빠져나온 녀석인지 분명치 않았다. 또 다른 S병원을 찾아 다시 검사를 받았다. 그래도 똑같았다. K씨는 그해 연말 숨졌다. 진단에서 사망까지 6개월밖에 안 걸린 초고속 악화였다. 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나이에 고된 항암치료를 감내한 것에 대한 대가치곤 너무나 가혹한 결말이었다.<br/> 정체불명의 암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몸에 암이 생긴 것은 알지만 그 암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미스터리’투성이 출처불명의 암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40대 이후 중장년층을 집중 공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b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암 진료 환자를 분석한 결과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질병 분류코드 C80)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48) 등 원발부위 불명암(Cancer of Unknown Primary Site), 일명 컵스(CUPS) 환자가 연평균 7.5%씩 무려 3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br/> 컵스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층은 50대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40대 18.5%, 60대 19.4%, 70대 14.4%, 30대 10.8% 등 순이었다. 일반 암의 연령별 분포와 비슷한 비율이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신상준 교수는 암이 많이 생기는 고령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 건강검진의 보편화로 우연히 암을 발견하듯 컵스도 같은 루트로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br/> 컵스는 원발부위의 암이 없어져 찾을 수 없는 게 특징이다. 다시 말해 분가를 시킨 암은 보이는데, 그 암을 만든 친정 또는 본가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격이다. 그러니 치료하기는 더 어렵다.<br/> 보통 다른 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단 후 경과 및 향후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데 1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반면 컵스 환자는 두세 차례에 걸쳐 반복 설명해야 하며 최소 3시간 이상 걸리기 일쑤다. 생소한 컵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까닭이다.<br/> 중앙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김희준 교수는 “<span class='quot0'>원인을 못 찾는 담당 의사를 못 믿겠다며 ‘병원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환자가 컵스 환자라는 말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현재로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새로운 검사, 같은 검사를 반복하다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60.txt

제목: [컵스는 어떤 암인가] 본적 없는 ‘떠돌이 癌’ 치료 방법·효과 ‘막막’  
날짜: 20150718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8100000062  
본문: ‘왜 하필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분노와 우울, 원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다. 암 진단 후 치료 과정이 트라우마를 겪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예측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찾아온다.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에 압도당한다.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공포를 경험한다.’<br/> 암 진단 후 2년째 투병 중인 정신과 의사가 한 잡지에 ‘암은 인생의 끝이 아니다’란 제목으로 기고한 글의 일부다.<br/> 어느 날 암에 걸렸다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 대부분 환자가 보이는 첫 반응이다.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인 조기 위암의 경우엔 낫다. 의학의 발달로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해 천수를 누리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br/> 그러나 암 진단 자체가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전이(轉移)암 환자의 고통과 좌절감은 가늠할 수 없다. 꽤 진행된 것도 힘든데 암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경로조차 불투명할 때 환자가 느끼는 당혹감은 헤아리기조차 힘들다.<br/> 원발부위 불명암(Cancer of Unknown Primary Site)을 뜻하는 컵스(CUPS) 환자는 예외 없이 이런 고통과 좌절감, 불안과 우울, 곤혹스러움을 겪는다.<br/> 원발부위란 암이 처음 생긴 곳을 말한다. 암은 대부분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가 뚜렷하다. 그래서 위암, 폐암, 유방암같이 먼저 생긴 부위의 이름을 붙인다.<br/> 문제는 원발부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데 있다. 우연히 발견된 암이 그곳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사온 전이암일 때다. 전이는 대개 암이 해당 장기의 벽을 뚫고 나가 인접 장기를 침범하거나 혈관, 림프관을 따라 다른 장기로 옮겨붙는 형태다. 원발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생기는 원격전이일지라도 본래의 특질을 유지하기 마련이다.<br/> 하지만 컵스는 암 전이의 일반 원칙이 무시된다. 원발부위가 너무 작아 눈에 띄지 않거나 세포 서식 환경이 좋지 않아 전이가 진행된 후 자연 도태됐기 때문이다. 눈에 띄지 않는 전이암은 조직 검사를 해도 특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바로 컵스다.<br/> 컵스는 생각보다 많다. 발생 빈도는 전체 암의 약 2∼6%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전체 암의 4.6% 내외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신상준 교수는 “<span class='quot0'>스위스 미국 핀란드보다는 높고 네덜란드 호주와 비슷한 수준</span>”이라고 말했다.<br/> 컵스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고령인구 증가에 잘못된 생활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 등 환경요인 70%, 유전적 요인 5% 정도로 추정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암의 증가 요인과 다르지 않다.<br/> 중앙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김희준 교수는 “<span class='quot1'>해마다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암을 우연히 발견하는 것처럼 컵스가 발견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span>”고 풀이했다. 이어 “단순히 소화가 안 되거나 목 림프절이 부어 병원에 왔다가 컵스라는 진단을 받고 원발부위를 찾아야 하는 환자도 종종 발견된다”고 덧붙였다.<br/> 컵스는 항암제 위주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하고, 경우에 따라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다. 시스플라틴 에토포사이드, 젬시타빈, 도세탁셀, 이리노테칸 등 플라틴계 및 탁신계 항암제가 주로 사용된다.<br/> 치료 효과는 종잡을 수 없다. ‘약 궁합’이 맞으면 6∼8회 투약으로 드라마틱하게 씻은 듯 종적을 감춘다. 하지만 효과가 없을 경우 두어 달 뒤 곧바로 재발, 이전보다 더 많이, 더 새카맣게 올라온다. 컵스의 치료율이 낮고 생존율도 떨어지는 이유다. 보고에 따르면 컵스 진단 환자의 약 27%가 평균 2년간 생존했고, 나머지 환자는 보통 6∼9개월 만에 사망했다.<br/> 신 교수는 “<span class='quot2'>원발부위 불명암이라면 검사를 제대로 안 한 탓으로 여겨 환자나 보호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는 등 같은 검사를 중복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2'>좀 더 컵스를 이해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span>”고 당부했다. 김 교수도 “<span class='quot1'>불확실한 원발부위를 찾기 위해 병원 쇼핑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원발부위 불명, 그 자체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낫다</span>”고 조언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61.txt

제목: [컵스는 어떤 암인가] 본적 없는 본적 없는 ‘떠돌이 癌’ 치료 방법·효과 ‘막막’  
날짜: 20150718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8100000024  
본문: ‘왜 하필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분노와 우울, 원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다. 암 진단 후 치료 과정이 트라우마를 겪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예측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찾아온다.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에 압도당한다.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공포를 경험한다.’<br/> 암 진단 후 2년째 투병 중인 정신과 의사가 한 잡지에 ‘암은 인생의 끝이 아니다’란 제목으로 기고한 글의 일부다.<br/> 어느 날 암에 걸렸다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 대부분 환자가 보이는 첫 반응이다.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인 조기 위암의 경우엔 낫다. 의학의 발달로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해 천수를 누리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br/> 그러나 암 진단 자체가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전이(轉移)암 환자의 고통과 좌절감은 가늠할 수 없다. 꽤 진행된 것도 힘든데 암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경로조차 불투명할 때 환자가 느끼는 당혹감은 헤아리기조차 힘들다.<br/> 원발부위 불명암(Cancer of Unknown Primary Site)을 뜻하는 컵스(CUPS) 환자는 예외 없이 이런 고통과 좌절감, 불안과 우울, 곤혹스러움을 겪는다.<br/> 원발부위란 암이 처음 생긴 곳을 말한다. 암은 대부분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가 뚜렷하다. 그래서 위암, 폐암, 유방암같이 먼저 생긴 부위의 이름을 붙인다.<br/> 문제는 원발부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데 있다. 우연히 발견된 암이 그곳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사온 전이암일 때다. 전이는 대개 암이 해당 장기의 벽을 뚫고 나가 인접 장기를 침범하거나 혈관, 림프관을 따라 다른 장기로 옮겨붙는 형태다. 원발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생기는 원격전이일지라도 본래의 특질을 유지하기 마련이다.<br/> 하지만 컵스는 암 전이의 일반 원칙이 무시된다. 원발부위가 너무 작아 눈에 띄지 않거나 세포 서식 환경이 좋지 않아 전이가 진행된 후 자연 도태됐기 때문이다. 눈에 띄지 않는 전이암은 조직 검사를 해도 특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바로 컵스다.<br/> 컵스는 생각보다 많다. 발생 빈도는 전체 암의 약 2∼6%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전체 암의 4.6% 내외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신상준 교수는 “<span class='quot0'>스위스 미국 핀란드보다는 높고 네덜란드 호주와 비슷한 수준</span>”이라고 말했다.<br/> 컵스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고령인구 증가에 잘못된 생활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 등 환경요인 70%, 유전적 요인 5% 정도로 추정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암의 증가 요인과 다르지 않다.<br/> 중앙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김희준 교수는 “<span class='quot1'>해마다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암을 우연히 발견하는 것처럼 컵스가 발견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span>”고 풀이했다. 이어 “단순히 소화가 안 되거나 목 림프절이 부어 병원에 왔다가 컵스라는 진단을 받고 원발부위를 찾아야 하는 환자도 종종 발견된다”고 덧붙였다.<br/> 컵스는 항암제 위주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하고, 경우에 따라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다. 시스플라틴 에토포사이드, 젬시타빈, 도세탁셀, 이리노테칸 등 플라틴계 및 탁신계 항암제가 주로 사용된다.<br/> 치료 효과는 종잡을 수 없다. ‘약 궁합’이 맞으면 6∼8회 투약으로 드라마틱하게 씻은 듯 종적을 감춘다. 하지만 효과가 없을 경우 두어 달 뒤 곧바로 재발, 이전보다 더 많이, 더 새카맣게 올라온다. 컵스의 치료율이 낮고 생존율도 떨어지는 이유다. 보고에 따르면 컵스 진단 환자의 약 27%가 평균 2년간 생존했고, 나머지 환자는 보통 6∼9개월 만에 사망했다.<br/> 신 교수는 “<span class='quot2'>원발부위 불명암이라면 검사를 제대로 안 한 탓으로 여겨 환자나 보호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는 등 같은 검사를 중복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2'>좀 더 컵스를 이해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span>”고 당부했다. 김 교수도 “<span class='quot1'>불확실한 원발부위를 찾기 위해 병원 쇼핑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원발부위 불명, 그 자체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낫다</span>”고 조언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62.txt

제목: 광주·전남 암환자 증가세… 생존율은 향상  
날짜: 20150717  
기자: 장선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7100000085  
본문: 광주전남지역 암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16일 광주전남지역 암등록본부 등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동안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1만7168명(남 8751명·여 8417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3년 1만1049명에 비해 55.4% 늘어난 수치다.<br/> 암센터와 암등록본부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각종 암등록 통계를 분석했다.<br/> 이 중 대장암 환자의 경우 2012년 2055명이나 발생해 2003년보다 87.7% 증가했다.<br/> 2012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위암, 대장암, 간암, 갑상선암 순이었으며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49세까지는 갑상선암, 50∼74세는 위암, 75∼84세는 폐암 발생빈도가 높았다. 여성은 69세까지는 갑상선암, 70∼74세는 대장암, 75∼84세는 위암 환자가 많았다.<br/> 암을 치료하는 의료기술 향상으로 암환자의 5년 생존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br/> 1997∼2008년 광주지역 남성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35.5%에서 56.2%로, 여성은 54.7%에서 77.0%로 높아졌다. 전남지역도 1999∼2008년 남성이 31.6%에서 50.8%로, 여성은 51.0%에서 68.2%로 증가했다.<br/>광주=장선욱 기자 <br/>swjang@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63.txt

제목: [손에 잡히는 책-사는 게 뭐라고] 암 선고를 받고 녹색 재규어를 사다  
날짜: 2015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7100000035  
본문: “암은 좋은 병이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멜론 같은 걸 사온다. 나는 또 굴뚝이 되어 있다. 모두들 얼굴을 찌푸리며 ‘요코 씨…’하고 아연실색한다. 제아무리 애연가라도 암에 걸리면 담배를 끊는다지. 흥, 목숨이 그렇게 아까운가.”<br/> 귀여운 노인이라고 할까? 60대 노인의 일상을 기록한 사노 요코의 에세이집 ‘사는 게 뭐라고’는 명랑하고 또 당당하다. 노년에 드리워진 회색빛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다. 늙어간다는 사실에 주눅 들지 않고, 다가오는 죽음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난 뒤 상큼한 녹색 재규어로 차를 바꿔버리는 그런 노인네다.<br/> 그렇다고 노화나 죽음을 미화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다. 노년에도 그런 내면의 힘을 간직하고 있다는 게 놀랍다. 더구나 그는 독거노인이다.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생활해 나간다. 그런데도 삶의 활기와 박력,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br/> 저자는 일본의 유명한 그림책 작가다. 암에 걸려 72세가 된 2010년 세상을 떠났다. 이 책은 죽기 2년 전까지 쓴 15편의 단편소설 같은 에세이를 담고 있다. 부제는 ‘시크한 독거 작가의 일상 철학’.김남중 기자 <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64.txt

제목: “부활, 복음의 원형이자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복음 전국 목회자 세미나  
날짜: 20150717  
기자: 김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7100000123  
본문: “<span class='quot0'>마약 중독자였는데 부활신앙으로 마약을 끊고 삶을 회복했습니다.</span>” “<span class='quot0'>말기 암 환자로 예수님을 영접한 지 2주 만에 암이 주님을 알게 해준 ‘선물’이라고 고백했어요.</span>” “<span class='quot0'>남편 별세 후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이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span>”<br/><br/> 강원도 춘천 소양강로 한마음침례교회(김성로 목사)에서 16일 진행된 ‘제1회 부활복음 전국 목회자 세미나’ 현장. 부활신앙으로 변화된 한마음침례교회 교인들의 간증이 동영상으로 공개됐다. 행사 시작 전부터 교회 본당 1∼2층 예배실은 참석자들로 가득 메워졌다. 전국에서 온 목회자 650명은 네 번의 강의가 끝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세미나의 열기를 더했다. 이들은 부활신앙을 목회에 적용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br/><br/> 주강사인 김성로 목사는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 ‘초대교회를 세운 원형의 복음’ 등을 주제로 강의하며 부활신앙의 능력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span class='quot1'>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전했고(행 4:33), 부활의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span>”며 “<span class='quot1'>부활신앙은 초대교회를 세운 원형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승부수</span>”라고 말했다.<br/><br/> 1990년 교회를 개척한 김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자 고민을 거듭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 ‘말씀 강해’ ‘전도 훈련’ 등을 했지만 진정한 변화를 체험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1년 대학생 수련회를 기점으로 영적 전환기를 맞았다. 부활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김 목사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의 사랑에만 머물렀음을 깨달았다. 강단에서 부활신앙의 말씀을 선포하자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했다.<br/><br/> 2006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온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김 목사는 “<span class='quot1'>부활을 깨닫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비춰주셨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공동체는 이때부터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span>”고 설명했다.<br/><br/> 교회 공동체가 ‘부활신앙’과 ‘예수가 주인 된 삶’에 초점을 맞추니 진정한 영적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자살과 질병, 각종 중독 등을 극복한 성도의 간증들이 쏟아졌다. 2013년 10월부터 시작된 한 기독교방송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400명 넘는 성도들이 간증자로 출연했다.<br/><br/> 김 목사는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간증’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했는지 기록해 예배시간에 나눈다. 김 목사는 “간증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소통하게 하는 통로”라면서 “일일이 심방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간증을 통해 그들의 상황을 알고 영적 교류를 할 수 있다. 교인들도 말씀을 듣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br/><br/> 이날 참석한 고영복 대전 서로사랑교회 목사는 “<span class='quot2'>‘부활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성도들이 간증을 통해 말씀을 실천하도록 목회에 적용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춘천=김아영 기자 cello08@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65.txt

제목: “부활, 복음의 원형이자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복음 전국 목회자 세미나  
날짜: 20150717  
기자: 김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7100000025  
본문: “<span class='quot0'>마약 중독자였는데 부활신앙으로 마약을 끊고 삶을 회복했습니다.</span>” “<span class='quot0'>말기 암 환자로 예수님을 영접한 지 2주 만에 암이 주님을 알게 해준 ‘선물’이라고 고백했어요.</span>” “<span class='quot0'>남편 별세 후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이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span>”<br/> 강원도 춘천 소양강로 한마음침례교회(김성로 목사)에서 16일 진행된 ‘제1회 부활복음 전국 목회자 세미나’ 현장. 부활신앙으로 변화된 한마음침례교회 교인들의 간증이 동영상으로 공개됐다. 행사 시작 전부터 교회 본당 1∼2층 예배실은 참석자들로 가득 메워졌다. 전국에서 온 목회자 650명은 네 번의 강의가 끝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세미나의 열기를 더했다. 이들은 부활신앙을 목회에 적용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br/> 주강사인 김성로 목사는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 ‘초대교회를 세운 원형의 복음’ 등을 주제로 강의하며 부활신앙의 능력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span class='quot1'>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전했고(행 4:33), 부활의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span>”며 “<span class='quot1'>부활신앙은 초대교회를 세운 원형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승부수</span>”라고 말했다.<br/> 1990년 교회를 개척한 김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자 고민을 거듭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 ‘말씀 강해’ ‘전도 훈련’ 등을 했지만 진정한 변화를 체험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1년 대학생 수련회를 기점으로 영적 전환기를 맞았다. 부활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김 목사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의 사랑에만 머물렀음을 깨달았다. 강단에서 부활신앙의 말씀을 선포하자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했다.<br/> 2006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온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김 목사는 “<span class='quot1'>부활을 깨닫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비춰주셨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공동체는 이때부터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span>”고 설명했다.<br/> 교회 공동체가 ‘부활신앙’과 ‘예수가 주인 된 삶’에 초점을 맞추니 진정한 영적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자살과 질병, 각종 중독 등을 극복한 성도의 간증들이 쏟아졌다. 2003년 10월부터 시작된 한 기독교방송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400명 넘는 성도들이 간증자로 출연했다.<br/> 김 목사는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간증’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했는지 기록해 예배시간에 나눈다. 김 목사는 “간증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소통하게 하는 통로”라면서 “일일이 심방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간증을 통해 그들의 상황을 알고 영적 교류를 할 수 있다. 교인들도 말씀을 듣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br/> 이날 참석한 고영복 대전 서로사랑교회 목사는 “<span class='quot2'>‘부활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성도들이 간증을 통해 말씀을 실천하도록 목회에 적용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춘천=김아영 기자 cello08@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66.txt

제목: [오늘의 설교] 일과 쉼  
날짜: 2015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7100000011  
본문: 미국의 과학 잡지 사이언스는 1993년 유전자 ‘p53’을 ‘올해의 물질’로 선정했습니다. 79년에 처음 발견된 이 유전자는 발암 유전자로 알려져 있었으나 보겔스타인 박사와 화이트 박사에 의해 항암 유전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p53이 건강할 때는 손상된 다른 세포들을 통제해 변형된 세포를 만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는 암이나 이상한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p53이 손상돼 다른 세포들의 변이나 나쁜 세포를 생성시키는 것을 못 막으면 우리 몸은 병에 걸립니다. 과학자들은 p53을 세포를 쉬게 해주는 휴식 유전자라고도 부릅니다. 건강한 세포는 세포를 쉬게 해주는 p53을 생산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세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br/>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손상을 받아 ‘쉼의 유전자’인 p53이 생산되지 않아 쉴 수 없게 된 세포입니다. p53이 변이되거나 없어져 ‘쉼의 물질’이 생산되지 않는 것이지요. 과학자들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같은 시험관에 넣고 암세포가 얼마나 빨리 정상세포를 정복하는지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의 p53을 통해 정상세포로 회복된 겁니다. p53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br/> 본문에서 제자들은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들은 식사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십니다. “<span class='quot0'>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span>”고 말씀하십니다.<br/> 사람은 육체·정신적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휴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배를 타고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배에서 내리자마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쉬고자 했던 예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하셨는데 그 잠깐의 쉼은 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span class='quot0'>이때 예수님께서 가졌던 유일한 쉼은 배 타고 가시면서 취했던 선상의 쉼이었을 것이다.</span>” 누가복음 9장 10절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짧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잠깐의 휴식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겐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잠깐의 쉼을 통해서 얻은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산적한 문제 앞에서 복음을 외치고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br/>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쉼은 반성 묵상 대화 독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시간을 내서 묵상에 잠겨 보십시오. 숲 속을 걸어 보십시오. 별들을 응시해 보십시오. 당신이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찬양의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루하루 주님과 소통하며 쉼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br/>이재훈 목사(파주루터교회)<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67.txt

제목: 한화생명, 중대질환 보장에 입·출금도 자유로워  
날짜: 201507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6100000033  
본문: 한화생명은 중도인출과 추가납입 등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을 강화한 ‘스마트플러스 변액유니버셜 CI보험’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br/>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 변액유니버셜 CI보험은 중대한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13가지 치명적 질병(CI) 진단 시 가입금액의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이 상품은 주식·채권 등에 간접 투자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변액보험에, 고객의 요구가 높은 유니버셜 기능을 더해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과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도 가능하게 했다.<br/> 여성만을 위한 ‘여성특정 4대 질병 보장특약’을 탑재한 것도 특징이다.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술(500만원),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200만원), 중증 루푸스 신염(2000만원), 다발성경화증(2000만원) 등을 보험료 갱신 없이 평생토록 보장(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한다.<br/> 암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중대한 암으로 주계약에서 진단자금을 받았더라도 ‘더블케어 암 보장특약’으로 전이 암은 물론 재발 암까지 추가로 진단자금(최대 500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br/> 치매 보장도 강화해 ‘LTC 보장특약’ 가입 시 중증 치매나 일상생활 장해 상태로 진단받을 경우 가입금액만큼의 간병자금을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실손의료보장, 성인병보장 등 다양한 특약을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68.txt

제목: 말기암 호스피스 7월 15일부터 健保 적용  
날짜: 20150715  
기자: 권기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5100000092  
본문: 난소암으로 최근 사망한 A씨(당시 58세)는 숨지기 전까지 대학병원에 51일간 입원했다. 항암치료와 항생제 투여,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진료에 쓰인 돈은 모두 2396만원. 이 가운데 327만원을 환자 본인과 가족이 부담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각종 의료장치에 둘러싸인 채 숨을 거뒀다.<br/> A씨와 상황이 비슷한 환자가 앞으로 병원급 호스피스병동을 똑같은 기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이 102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 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br/> 환자는 호스피스병동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전문 간병서비스를 받는다. 항암치료 대신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처치가 이뤄진다. 심리·영적 문제에 관한 상담서비스도 이뤄진다. 최후의 순간에는 별도 임종실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br/> 보건복지부는 14일 “<span class='quot0'>2003년 암관리법 제정으로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에 이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가 개발됐다</span>”며 “<span class='quot0'>15일부터 호스피스·완화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span>”고 밝혔다. 생존 가망이 없는 암 환자와 그 가족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다 호스피스·완화 의료를 선택할 기회를 넓혔다는 뜻이다. <br/>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완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을 찾아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간병서비스를 이용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은 하루 1만8000∼2만3000원이면 된다. 총 진료비는 하루 28만∼37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정해져 있는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했다</span>”고 설명했다.<br/> 정부는 환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비급여 진료는 최대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병원과 성바오로병원 같은 종합병원 호스피스병동에서 1인실을 쓰려면 비급여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 60곳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br/> 간병서비스는 전문 요양보호사에게 받는다. 이들은 1인당 환자 3명을 3교대로 맡으며 식사 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br/> 이런 서비스를 집에서 받는 가정 호스피스는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2'>연내에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span>”이라고 했다. <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69.txt

제목: 연세대 윤호근·울산대 최경철 교수팀, 암 세포 스스로 죽게 만드는 단백질 발견  
날짜: 20150714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4100000051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 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드는 단백질을 새로 발견됐다. 새로운 ‘타깃(표적) 항암제’ 개발이 기대된다.<br/> 연세대 의대 윤호근(사진) 교수와 울산대 의대 최경철 교수팀은 위암 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세포사멸유도단백질(PDCD5)의 기능과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온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됐다.<br/> 항암 치료는 보통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방법을 쓴다. 세포 사멸은 비정상적이거나 손상된 세포, 노화된 세포가 스스로 죽어 없어지도록 몸속에 입력돼 있는 프로그램이다. ‘p53’이 세포 사멸을 유도해 암을 없애는 대표적 단백질이다. 반면 ‘HDAC3’은 p53의 활성을 방해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왔다.<br/> 연구진은 7년간 암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유전자 변화를 분석한 결과 ‘PDCD5’ 단백질이 ‘p53’을 활성화시키고 ‘HDAC3’의 기능을 잃게 한다는 사실을 찾아냈다.<br/> 윤 교수는 “<span class='quot0'>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PDCD5가 적게 나타날 경우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고, PDCD5를 통해 p53을 활성화하면 암세포에서 종양이 자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span>”고 설명했다.<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70.txt

제목: 200만 화소급 獨 내시경, 분당차병원서 도입 가동  
날짜: 2015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410017897747  
본문: 분당차병원(원장 지훈상)은 현존하는 내시경 중 최고의 화질을 자랑하는 200만 화소급 독일제 칼스톨츠 내시경(사진)을 새로 도입,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br/><br/> 칼스톨츠 내시경은 선명한 이미지를 넓은 화면에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시경의 굴절각을 10∼20도 더 넓혀 위장관 내 접근성을 높인 것도 장점이다. 따라서 기존 내시경 기기로는 판별이 어려웠던 5㎜ 이하 미세 암 조직까지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다.<br/><br/> 이 병원 내시경센터장 조주영 교수는 “<span class='quot0'>칼스톨츠 내시경이 소화기암의 조기진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71.txt

제목: 강남 백화점서 강도가 된 50대 가장… 세월호·메르스 여파 부도·일감 줄어 생활고  
날짜: 20150714  
기자: 김미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4100000074  
본문: 경기도 문산에서 학교 건축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사장 이모(52)씨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평범한 가장이었다. 세월호 불황에 부도가 났고, 곧 재기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한 해를 버텼지만 지난 6월 메르스 여파로 예정된 공사마저 줄줄이 취소됐다. 극심한 생활고를 피할 수 없게 됐다.<br/> 최근에는 밥 한 끼 먹는 것도 버거워 지인이 마련해 준 인근 컨테이너 박스로 거처를 옮겼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와 백혈병으로 골수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형을 돌보면서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다. 이즈음 그는 “딱 500만원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br/> 이씨는 지난 4일 부자가 많이 산다는 서울 강남으로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다. 고급 승용차가 거리를 메웠고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특히 여성 혼자 운전하는 외제차에 눈길이 갔다.<br/> 하루를 꼬박 길에서 보낸 그는 다음 날 오후 9시쯤 강남구 H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A씨(60·여)를 따라 벤츠 승용차에 올라탔다. 직전에 백화점 화단에서 주운 공업용 커터칼을 들이밀며 “빨리 출발하라”고 협박했다. A씨는 “돈을 다 가져가라”며 차 밖으로 나와 비명을 질렀다. 이씨는 놀라 칼을 떨어뜨리고 그 길로 달아났다. 그리고 다시 지하철에 올라 문산으로 향했다. 이씨는 5일 만인 10일 오후 컨테이너 박스에서 검거됐다.<br/>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이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자가 많이 산다는 강남에 가서 사정하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범행 당시 이씨가 밥을 먹지 못해 매우 힘겹게 걷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span>”며 “<span class='quot0'>검거돼 조사를 받을 때도 형사가 시켜준 볶음밥 곱빼기를 허겁지겁 먹어치웠다</span>”고 전했다.<br/>김미나 기자 mina@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72.txt

제목: JW중외제약 ‘리바로’ 국내 첫 대사증후군 임상시험… 환자 65% 콜레스테롤 수치 낮아져  
날짜: 201507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310017874572  
본문: 대사증후군은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앓는 병으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온갖 성인병을 한꺼번에 동반하며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br/><br/> 실제로 대사증후군 환자는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 암 발생 위험이 1.5∼2배, 심뇌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2∼4배, 당뇨병 발병 위험이 3∼5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br/><br/> 대사증후군 환자는 날로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는 850만4867명이었는데, 2014년 991만1256명으로 늘었다. 1년에 평균 3.9%씩 꾸준히 늘어난 셈이다. 전체 환자 중 70세 이상이 29.9%, 50대가 27.5%, 60대가 25.6%로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70세 이상의 70%, 60대의 60% 정도가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br/><br/><br/><br/> ◇이미 고지혈증 환자라면 더욱 철저한 관리 필요=대사증후군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다면 약물 치료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우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안전한 치료제를 선택이 중요하다.<br/><br/> 최근 JW중외제약은 국내 최초로 한국인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인 ‘PROPIT Study’를 통해 자사의 고지혈증치료제 ‘리바로(사진)’의 대사증후군 치료효과와 심혈관 질환 개선, 당뇨병에 대한 안전성 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총 48주 동안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 리바로를 복용한 환자 중 65%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44%의 환자가 대사증후군 환자 분류에서 제외되는 등 비약물군에 비해 월등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또 리바로 복용군은 혈중지질 외에도 비만율, 관상질환 위험률 등이 낮아져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역시 개선됐다. <br/><br/> 특히, 당뇨병 유발 부작용 이슈가 보고된 적이 있는 다른 치료제와는 달리 혈당 증가로 인한 당뇨병 발생의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는 등 당뇨병 문제에 대한 안전성도 입증했다. 이 같은 임상결과는 올해 영국의 임상내분비분야 학술지인 ‘Clinical endocrinology’에 게재되기도 했다. <br/><br/> ◇고지혈증+고혈압 두 가지 증상을 복합제로 간편히=상당수의 고지혈증 환자들의 경우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두 가지 치료제를 한 알로 모은 복합제도 출시됐다. ‘리바로브이’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바로와 고혈압 치료제 성분인 ‘발사르탄’을 합친 복합제로 당뇨병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두 가지 약을 한 번에 복용할 수 있어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br/> 김성래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가 있지만 아직까지 발생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대사증후군의 다른 위험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 당뇨병 발생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대사증후군 개선 효과가 입증된 약물을 전문의로부터 처방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br/><br/>이영수 기자 i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73.txt

제목: ‘뇌(腦)통사고’ 뇌졸중, 예방-치료 새 길 뚫렸다  
날짜: 201507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310017874576  
본문: 암(癌)에 이어 한국인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뇌졸중은 뇌의 혈액 순환 장애에 의해 일어나는 교통사고, 즉 ‘뇌(腦)통사고’라고 할 수 있다.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다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뇌졸중의 원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등 여러 가지 기저 질환을 꼽을 수 있다. 이중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환자의 약 15∼20%는 ‘심방세동’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일종으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다. 때문에 혈관 속에 핏덩어리(혈전)가 생길 위험이 높다. 이렇게 발생한 혈전은 몸속의 혈관을 타고 멋대로 돌아다닌다.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치명적인 사태인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br/><br/> 때문에 심방세동 환자들은 혈전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 치료를 받는다. 이 때 사용되는 성분이 바로 ‘와파린’이다. 치료가 안전하고 편하다면야 구관이 명관이라 할 수 있겠지만 와파린 치료에는 여러 이상반응이 따른다. <br/><br/> 두부, 마늘 및 시금치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음식에 포함된 영양소인 비타민K와의 상호작용이 심해 와파린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식단을 조절해야 할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내원해 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됐다. 이런 불편 외에도 ‘출혈’ 등의 이상반응을 경험하기 십상이었다. <br/><br/> 이런 가운데 와파린 치료로 버티던 심방세동 환자들에게 희망의 끈이 내려왔다.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항응고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환자들이 와파린 초기 치료 없이 바로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br/><br/>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는 기존 와파린 치료의 단점이었던 출혈 발생 위험은 줄이고, 뇌졸중 예방 효과는 높인 새로운 치료 옵션이다. 특히 이번에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된 제품 가운데 하나인 프라닥사의 경우, 서구인보다 와파린 치료가 까다로운 아시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와파린 치료 대비 전체 뇌졸중 가운데 92%를 차지하는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45% 감소시키고, 출혈과 같은 항응고 치료의 이상반응을 개선한 결과를 보였다.<br/><br/> 최기준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와 관련해 “<span class='quot0'>와파린과 비교해 음식에 신경을 덜 쓸 수 있고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적어 환자 복용 편의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급여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특히 아시아 환자는 서양에 비해 뇌출혈이 잦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span>”고 설명했다.<br/><br/> 항응고 치료 2.0 시대,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새로운 치료제의 혜택을 더 많은 환자들이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환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항응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br/> 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74.txt

제목: 틀니·임플란트 70세이상 건보적용, 호스피스 병상 이용 입원료도 혜택…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날짜: 201507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310017874564  
본문: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만 70세로 낮아진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용도별로 차등지급된다.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한 하반기부터 달리지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알아본다.<br/><br/> ◇임플란트·틀니 건보적용 70세 이상으로 확대=먼저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상 194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가 그 대상이다. 임플란트 급여 혜택의 경우 내후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br/><br/> 또한 이달부터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으로 전국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인 중위소득 개념이 새롭게 반영된다.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된다.<br/><br/> 7월 29일부터는 노령연금 일부인 50∼90%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전액 연기만 가능했다. 전액 연기 시 61∼66세 기간 중 연기된 기간에 따라 연 7.2%를 가산해 지급한다. 실업 크레딧 제도에 따라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에서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br/><br/>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보 적용=9월 19일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어린이집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어린이집은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br/><br/> 이와 함께 7월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진료비는 하루마다 정해지는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담배의 위해성을 연구할 첫 국가 연구소인 ‘국가 흡연폐해연구소’가 8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설치된다.<br/><br/>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일반 병의원서도 가능=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지고,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된다.<br/><br/>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9월부터 10%에서 20%로 오른다.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br/><br/> 하반기부터 새로 문을 여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의 요양병원도 3년 안에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br/><br/>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반기부터 식품 분야와 관련,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의무적용(7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업체 관리강화(7월) △인증 사실 표시·광고 허용 범위 확대(9월)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및 영양표시 기준 강화(10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대상 확대(12월)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br/><br/>박주호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75.txt

제목: 메르스 두 달 어쩌다 국민이 병원을 못믿게 됐나… 주범은 병원내 감염  
날짜: 201507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310017874555  
본문: "암환자요? 말도 마세요. 중증환자라고 해서 빨리 진료를 받을 수도 없어요. 간이침대도 없고 앉을 의자도 없어서,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링거액을 주사(정맥주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끔 기침을 심하게 하는 환자들도 있는데, 워낙 병원이 분주하다 보니 환자를 분류할 시간도 없어요. 감염병이 발생하면요? 6인실도 마찬가지죠. 역병이 돌아도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퍼진다면 환자나 의료진들은 속수무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의료현실입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김지원(가명)씨는 응급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다'고 비유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해도 병원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병원 내 응급실은 감염병이 확산되기 좋은 환경이다. 삼성서울병원 등 메르스 감염이 확산된 공간은 '응급실'이었다. 실제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41.5%가 응급실에서 인플루엔자 등 각종 감염병을 경험했다는 조사도 있다. 이는 병원 응급실이 각종 병원체로 오염돼 환자는 물론 의료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뜻한다. 메르스가 삽시간에 퍼진 것은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병원이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라는 점도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신종 감염병 발생 이전에도 우리나라 병원은 늘 감염병에 있어서 취약한 환경이었다.<br/><br/>◇“우리 아버지도 다인실에 있다 사망”, 병원 2차 감염이 더 위험=병원은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모인 공간이다. 의료인도 환자도 감염에 있어서 취약하다.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돼 의료감염으로 질환이 더욱 악화되는 환자들도 많다. 아버지를 여읜 김명수(가명)씨는 “우리 아버지도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갑자기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며 “당시 다인실에 머물러 계셨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돼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의료인들 역시 감염 노출에 취약하다. 실제 2005년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종사자의 30%가 감염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김연하 동아대 간호대 교수는 “<span class='quot0'>병원 응급실은 감염병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가 찾아오는데다 다수의 치료 행위들이 환자의 질병 내력을 전혀 모른 채 이뤄져 늘 감염 위험에 노출된 곳</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 장구나 물품을 의료인이 실제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 이번 메르스 발생 시 ‘세계보건기구(WHO)-한국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 주요 원인으로 ‘환자가 붐비는 응급실과, 다인병실에 여러 환자가 지낸 것’을 지목했다. 특히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다인실에 많은 환자들이 밀집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렇다 보니 각종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전염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허대석 서울대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는 “<span class='quot0'>응급실이나 입원병동, 외래진료실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독립 건물로 분리해 관리하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병원은 한 건물 내에 모든 시설이 밀집돼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보유한 환자가 다른 환자와 밀집된 공간에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번 메르스 사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span>”고 설명했다.<br/><br/> 문제는 이러한 다인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독려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4인실 이상 다인실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는 개정안을 오는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복지부의 방침은 의료기관 내 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현 상황서도, 선진국의 병원 환경 개선 움직임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병상을 1∼2인실로 바꾸는 것이 비현실적 대책이며, 결국 환자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신 국가 재난 시 반드시 필요한 음압병실(병실 내 기압을 낮게 유지해 공기가 복도로 빠져나가지 않게 만든 병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감염관리 전문연구병원을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br/><br/> ◇중소 병원 감염 관리 더 취약=병원 내 2차 감염은 규모가 큰 병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거나 의료기관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소규모 의원에서도 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감염 제2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병의원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교육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전국 의료기관들에 대해 병원감염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며 손 씻기는 물론이고, 중환자실의 철저한 구획화와 소규모화를 통해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우리는 법으로 정한 의료기관들의 병원감염관리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질병관리본부에 전담과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장기 로드맵 마련까지 세분화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우리나라 병원감염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와 의료기관의 의지 부족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실행하기로 했던 감염관리 예방·관리 계획 중 지켜진 것이 거의 없다. 중환자실 칸막이 설치, 의료인 가운 교체, 환경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으나 실제로 실시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br/><br/> ◇의료계 “감염내과 의료진 등 전문인력 확충, 수가 현실화” 요구=의료계는 정부가 감염관리를 위해 인력과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염관리는 눈에 띄는 수입 창출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선뜻 적극적인 인력배치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br/><br/> 주요 대형병원의 감염내과 전문의는 평균 3∼4명에 불과하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유진홍(부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 회장은 “300병상 당 최소 1명의 감염관리 의사, 150병상 미만의 병원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1인 및 150병상 추가 당 1인씩 추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감염 관련한 수가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br/>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76.txt

제목: [힐링노트-박강월] 웃음의 미학  
날짜: 201507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1100000010  
본문: 서편 하늘이 오렌지색으로 고즈넉하게 물들고 있는 저녁, CCM 가수이며 작곡가인 C전도사님이 두 사람과 함께 우리 집을 방문했다. 아래층 계단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호탕한 웃음소리의 주인공들은 C전도사님의 동역자들이지만 그들의 유쾌한 웃음소리는 초면인 내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다. 같이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들의 웃음소리는 그쳐지지 않았다. 처음엔 어떻게 저렇게 모든 대화를 웃음으로 받을 수 있는가 기이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어느새 나도 그들처럼 웃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웃음의 미학을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도 있지만 웃음바이러스는 착한 바이러스라는 확신이 들었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논리가 새삼 피부로 다가온 것이다. <br/><br/> 몇 해 전 CTS 기독교 방송의 ‘박미선의 이브타임’ 토크쇼 패널로 한동안 출연했을 때 웃음강사를 초청한 일이 있었다. 출연진과 촬영진 모두 웃음전도사님이 권하는 대로 억지춘향으로 웃기시작하자 처음에는 어설프고 부자연스러웠지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진짜 웃음으로 전환되는 것이 느껴졌다. 억지로 웃는 것이 어찌 진짜 웃음이 될까 싶었지만 일단 웃고 보니 신기하게도 정말 기뻐지는 것이 아닌가. 의학자들은 우리가 찡그리고 화를 낼 때 양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위장 벽에도 주름이 생겨나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그 주름 사이에 작은 돌기가 생성되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의 배려이다.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자. 항상 웃는 당신으로 인해 오늘도 웃음바이러스가 널리 퍼져나갈 것이 분명하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br/><br/>박강월(수필가, 주부편지 발행인)<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77.txt

제목: [인人터뷰] 조훈현 “내가 묘수를 찾은 게 아니다 그저 생각 속으로 들어갔을 뿐”  
날짜: 20150708  
기자: 김준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08100000038  
본문: 바둑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가장 유력한 것은 고대 중국 기원설이다. 중국의 고전 '박물지'에는 기원전 2300년 요(堯)왕이 아들 단주(丹朱)를 깨우치기 위해 바둑을 발명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오묘한 흑과 백의 역사가 4300여년이 됐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바둑을 두었다는 설이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다. 백제문화가 일본에 전파될 때 바둑도 함께 건너간 것으로 추측된다. 바둑은 일본 막부시대에 국기(國技)로 대접 받으며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바둑을 직업으로 삼는 기사(棋士) 제도와 본인방(本因坊) 등의 바둑가문이 생겼고, 이들에 의해 룰도 정비됐다.<br/>한국에서는 흑·백 각 8개의 돌을 미리 배치하고 두는 순장(順將) 바둑이 20세기 초반까지 성행했다. 그러다 지금과 같은 현대바둑이 도입된 것은 일본에 바둑 유학을 다녀온 조남철 9단에 의해서다. 그는 광복 직후인 1945년 11월 5일 현 한국기원의 모태인 한성기원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바둑 보급에 앞장섰다. 한국기원은 그날을 한국 현대바둑의 기점으로 삼고 있다.<br/> 올해는 현대바둑이 도입된 지 70주년이 된다. 짧은 역사에도 한국 바둑을 세계 중심으로 이끈 주인공은 단연 조훈현(62) 9단이다. 다섯 살에 아버지 바둑에 훈수를 두기 시작할 때부터 환갑을 넘긴 현재까지 58년간 세계 최다승(통산 1935승), 세계 최다 우승(160회)으로 ‘반상(盤上) 황제’로 통하는 이 시대 최고의 승부사가 조 9단이다. 한국 바둑의 전설인 그는 26일에는 ‘영원한 라이벌’ 조치훈 9단과 70주년 기념 특별대국을 벌인다.<br/> 바둑 외에는 좀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해오지 않던 그가 최근에는 자신의 인생을 복기(復棋)한 첫 에세이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을 내 더욱 화제다. 일약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에서 “세상에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으며 생각은 반드시 답을 찾는다”고 역설한 그를 지난 1일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만났다.<br/><br/> -요즘 근황이 어떤지.<br/>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온 지 오래여서 요즘은 바둑 외의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다. 집 앞에 있는 북한산 등산도 하고 아내와 함께 골프 라운드도 가끔 한다. 8년 전부터 골프를 배웠는데 지금은 보기플레이(핸디캡 18) 정도다. 등산은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모든 잡념을 비우는 데 도움이 돼 지금도 거르지 않는다. 최근에 낸 책이 생각보다 잘 팔려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이 많다(웃음).”<br/><br/> -첫 에세이를 내게 된 동기는.<br/> “재작년 두 달 동안 몸이 많이 아팠다. 병원에서 폐를 찍어보니 사진이 온통 허옇게 나왔다. 의사선생이 ‘암이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고 단순 균이라면 약을 먹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더라. 판정하는 데 2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 사이 별 생각 다 들었다. 돌아보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뭐라도 남겨놓자는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됐다. 그동안 바둑 관련 책은 많이 냈지만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책은 처음이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건강 때문에 스스로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br/> (1995년 금연하기까지 그는 지독한 골초였다. 하루에도 네댓 갑을 피울 정도로 담배를 입에 달고 살았다. 그래서 당시 폐 사진을 봤을 때 ‘올 것이 왔구나’ 했다고 한다.)<br/><br/> -‘영원한 라이벌’로 불리는 조치훈 9단과의 70주년 기념 대국을 앞두고 있는데.<br/> “원래는 12일로 잡혀 있었는데 조 9단의 사정으로 26일로 연기됐다. 바둑에서 라이벌은 자신밖에 없다. 자신을 이겨야하는 게 바둑이다. 예전의 추억을 생각해볼 수 있는 대국이어서 재미있게 한 수 한 수 두고 싶다. 아마 조 9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br/> (이번 대국은 한국이 낳은 두 최고 레전드 기사의 대결로 벌써부터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대결은 총 11차례 있었는데 조훈현 9단이 8승3패로 앞서 있다. 가장 최근 대국은 2003년 삼성화재배 8강전이었는데 조치훈 9단이 불계승을 거두었다.)<br/><br/> -조치훈 9단을 평가한다면.<br/> “일본유학 시절 자주 교유했다. 당시 나는 중간에 병역 문제로 귀국해야 했는데 조 9단은 군대가 면제돼 일본에 계속 머무른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몹시 나빴던 기억이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조 9단은 일본 바둑계에서 활약하고 나는 한국 바둑계를 위해 활동하라는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다.”<br/> (여섯 살 때 일본으로 건너간 조치훈 9단은 1980년 일본 최고 타이틀인 명인을 거머쥔다. “<span class='quot0'>명인을 따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겠다</span>”던 국내 팬들과의 약속을 지킨 셈이다. 90년대에는 기성·명인·본인방 등 3개 메이저 대회를 동시에 석권하는 ‘대삼관(大三冠)’을 네 차례 기록하며 일본 바둑을 평정했다.)<br/><br/> -바둑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과 수가 있는지.<br/> “아무래도 ‘바둑 올림픽’이라고 불렸던 1989년 잉창치배 우승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는 당시 결승 5국 초읽기의 급박한 상황에서 판세를 뒤집은 129번째 돌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궁금해한다.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수를 생각해낼 수 있었느냐고. 그럼 나는 대답하곤 한다. ‘그건 지금의 나도 알 수 없다고. 나는 그저 생각 속으로 들어갔을 뿐이다. 내가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답을 찾아낸 것’이라고 말한다.”<br/> (이 대회는 지금도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다. 유일하게 한국 대표로 출전한 조 9단은 잇따라 이변을 일으키며 결승까지 진출, 중국 최고 기사인 녜웨이핑과 맞붙게 된다. 1국은 조 9단 승리, 2·3국은 녜웨이핑 승리, 4국은 조 9단 승리로 2승2패를 이루게 된다. 조 9단은 마지막 대국에서 145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며 초대 챔피언에 오른다.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우승상금 40만 달러를 챙긴 그는 김포공항에서 종로까지 카퍼레이드를 하며 금의환향한다.)<br/> -이창호 9단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내제자(집에서 동거하며 가르치는 제자)에게 숱하게 패했는데 그때 기분은 어땠나.<br/> “내가 열 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세고에 겐사쿠 스승 집에서 9년 동안 바둑을 배웠듯 창호도 아홉 살 때 내 집에 들어와 7년 동안 바둑을 배웠다. 세고에 스승은 바둑보다는 인격, 인품, 인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 나도 창호에게 그렇게 가르쳤다.<br/> 1990년 2월 제29기 최고위전 타이틀을 시작으로 95년 2월 마지막 남은 대왕 타이틀까지 창호에게 모두 빼앗겼다. 패배는 언제나 아픈 법이다. 내가 가르친 제자에게 당한 패배는 더욱 그렇다.<br/> 하지만 무관의 신세로 전락한 그날은 정말 이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유난히 마음이 평화로웠다.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이상하리만치 홀가분했다. 지키려 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막상 다 잃어버리니 자유로웠다.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야’라고.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 덕분에 나는 그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br/>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고 마침내 1998년 국수전에서 도전자로 나서서 창호를 꺾고 다시 정상에 오르는 짜릿한 순간을 맛볼 수 있었던 것 같다.”<br/><br/> -바둑을 둘 때 몇 수까지 내다보는지.<br/>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굳이 말하자만 한 수부터 수백 수라고나 할까. 수치상으로는 700수 앞을 내다본다. 하지만 실전에선 여러 가지 수를 빼면 몇 가지 선택밖에 남지 않는다. 어떨 때는 수백 수는 고사하고 한 수 앞을 보기도 힘들다.”<br/><br/> -바둑이란 무엇이고 앞으로 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지.<br/> “바둑은 잘 두고 못 두고를 떠나 저한테는 인생의 길이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걸을 것이다. 팬들에게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돌려드리고 싶다. 구체적인 형식이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서서히 하나 하나 하고 싶다.”<br/><br/>김준동 논설위원 jdkim@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78.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20) 한양대학교병원 위암클리닉 권성준 교수팀] 진행성 위암환자 생존율 높이기  
날짜: 20150707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07100000004  
본문: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남자 2만1344명, 여자 1만293명 등 3만1637명이 위암 진단을 받았다. 이는 같은 해 새로이 암 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21만8017명) 중 14.5%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각종 암 환자 10명 중 약 1.5명이 위암 환자라는 의미다.<br/> 위암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에선 맵고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삼겹살 같은 고지방 육류를 불에 익혀 먹는 식습관과 관련이 많다.<br/> 우리나라 사람은 탕, 국, 젓갈 등 맵고 짠 음식을 가장 먼저 떠올릴 만큼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있다. 성인의 절반 이상이 위염과 위궤양을 한번 이상 경험했을 정도로 위장병에 취약하다.<br/> 물론 위암이 위장병 때문에만 발병하지 않는다. 위장병을 부르는 맵고 짠 음식에 길들여진, 잘못된 식습관 외에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흡연,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위암 발병에 작용한다.<br/> 위암은 간암 못잖은 ‘침묵의 암’으로 불린다. 2명 중 1명 이상이 첫 진단 시 “<span class='quot0'>소화불량 외엔 평소 특별히 이상한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span>”며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고개를 내젓기 때문이다.<br/>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위암클리닉 권성준(61) 교수팀이 실제로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조사한 자료를 보자. 위암 수술 환자의 57%, 진행성 위암이라 수술을 못하고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의 35%가 암 진단 당시 소화기 계통의 어떤 이상 증상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교수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위암절제수술만 연평균 100여건씩 2800여 건이나 집도했을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위암 수술 전문가다.<br/>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지만 발암 초기(1기 미만)에 발견해 근치(根治)수술을 받을 경우 대부분 5년 이상 무병 생존, 완치 가능성이 높은 암이기도 하다.<br/> 문제는 암의 진행 속도가 빠른 청년 환자가 많아지고, 민간요법 등 엉뚱한 짓을 하다 적정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수술이 가능해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예후(치료 후 병의 경과 및 결말을 미리 짐작하는 것)도 좋지 않다.<br/> 권 교수팀은 진행성 위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 증진을 위해서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행된 위암의 상태에 따라 전통적인 개복수술을 하거나 복강경 및 로봇을 이용한 최소절개 수술로 환자들의 생존기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힘쓰는 것이다.<br/>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위암 수술 실적이 있는 국내 302개 병원의 진료기록을 분석해 수술 사망률을 평가했다. 수술 후 30일 이내 환자가 사망한 ‘실제 사망률’과 암 병기 등을 감안해 전망한 ‘예측 사망률’을 산출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권 교수가 이끄는 한양대학교병원 위암 수술팀은 이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에 해당하는 1등급 판정을 받았다.<br/>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권 교수팀이 수술한 진행성 위암 환자의 평균 생존율은 3기초반 58.4%, 4기 이후 45.1%였다. 이는 같은 기간 위암 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던 일본 국립암센터의 3기초반 45.1%, 4기 이후 14.5%보다 각각 13.3%, 30.6% 포인트 높은 성적이다.<br/> 권 교수는 “<span class='quot1'>위암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자가 고작 20∼30% 선에 불과한 미국인과 유럽인과 달리 우리나라 위암 환자는 10명 중 6명 이상이 수술 후 5년 이상 생존해 완치 판정을 받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와 환자가 힘을 합치면 극복하지 못할 위암은 없다</span>”고 말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79.txt

제목: 큰 업적 남기고 떠난 도윤경 UNIST 교수 “에이즈 등 난치병 예방백신 개발 가능성 제시”  
날짜: 20150707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07100000089  
본문: 5년 넘게 난소암으로 투병하다 요절한 젊은 여성 과학자의 논문이 저명한 학술지에 실렸다. 이 과학자는 논문 게재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눈을 감아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br/> 울산과학기술대(UNIST)는 고(故) 도윤경(43) 교수가 몸속 면역 반응에 중요한 ‘수지상세포’ 중 하나인 ‘폴리큘러 헬퍼 T세포’의 분화 과정을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 논문은 세계적 학술지 셀의 자매지 ‘셀 리포츠’ 최신호(6월 30일자)에 실렸다.<br/> 혈액 등에 존재하는 수지상세포는 바이러스 등 외부 물질이 체내에 침입할 경우 면역계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등 전반적인 방어체계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한다. 이번 논문은 체내 면역 반응의 비밀을 밝혀 흑사병, 에이즈, B형 간염 등 난치성 질병의 예방백신 개발에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br/> 하지만 도 교수는 지난 3월 말 암이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어렵사리 이룬 연구의 결실을 끝내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도 교수는 면역학 분야에서 촉망받는 생명과학자였다. 세계 최초로 ‘수지상세포’를 발견해 201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고 랄프 슈타인만 미국 록펠러대 교수의 제자다. 포스텍 생명과학부와 서울대 분자생물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버지니아의대에서 면역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록펠러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2009년 개교한 UNIST 교수로 부임했다.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중 2010년 2월 난소암 판정을 받았다.<br/> 도 교수는 암 투병 중에도 “사람들이 산속에서 쉬라고 하지만 저는 학교 제 방에서 제일 좋아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 동료 교수들과 이야기하고 점심 먹고, 커피 내기하는 소소한 일상이 좋다”며 연구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고 한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째인 지난 5일 학교 홈페이지에는 추모 글이 많이 올라왔다. 가족과 동료들은 투병 중에도 연구를 쉬지 않던 그를 그리워했다.<br/> 도 교수의 남편인 순천향대 의생명연구원 류성호(47) 교수는 “<span class='quot0'>아내가 고통을 참으며 후학들에게 가르치려 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부심이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진통제를 맞고 학교로 향하던 모습이 선하다</span>”고 말했다.<br/> 20여년 과학자의 길을 함께 걸어온 류 교수는 도 교수와 이번 논문을 함께 이끈 공동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려 아내의 마지막 연구를 지원했다.<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80.txt

제목: 알코올 중독 치료제, 악성 소아 뇌종양 제거 효과  
날짜: 20150707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07100000008  
본문: 알코올의존증(중독증) 치료제 다이설피람(disulfiram)이 소아 뇌종양 중 악성도가 가장 높은 ‘비정형 유기형·간상 종양’(ATRT)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은 소아신경외과 김승기·최승아 교수팀이 쥐 실험을 통해 다이설피람이 ATRT 치료제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김 교수팀은 알데히드탈수소효소(ALDH)를 차단하면 뇌종양줄기세포의 활동과 대사가 억제돼 항암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에 착안했다.<br/> 다이설피람은 ALDH 발현을 억제한다. 알코올의존증 치료제 다이설피람이 뇌종양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뇌종양줄기세포는 뇌종양 안에 조금 존재하는 미분화 세포로 종양의 발생, 재발, 전이에 관여한다.<br/> ATRT는 소아 뇌종양 중 예후가 가장 나쁜 암이다. 수술 후 항암·방사선 치료에도 평균 생존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보통 3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다. 고용량 항암치료에도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애를 태우기 일쑤다.<br/> 김 교수팀은 생쥐 실험군에 다이설피람을, 대조군에 위약을 투약했다. 그 결과 다이설피람을 투여한 실험군의 종양은 대조군의 것보다 4분의 1 크기로 줄었다. 평균 생존기간도 실험군(105일)이 대조군(91일)보다 길었다. 다이설피람이 ATRT 환자의 생존율 향상뿐 아니라 항암·방사선 치료의 강도와 기간을 조절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뜻이다.<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미국식품의약국(FDA)도 시판을 승인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임상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신경종양학 분야 국제학술지 ‘뉴로 온콜로지’ 6월호에 게재됐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81.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 한양대학교병원 권성준 교수는… 일본서 선진 수술법 익혀  
날짜: 20150707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07100000141  
본문: 권성준 교수는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73년 서울고등학교, 1980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및 외과 전공의 과정을 밟았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2007년 한양대학교의료원 기획관리실장, 2009년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2013년부터 한양대학교병원장을 맡고 있다.<br/> 권 교수는 우리나라에 위암 치료 전문의가 많지 않았던 1991년 일본 도쿄 국립암센터 마루야마 게이이찌(80) 교수 연구실에서 선진 위암 수술법을 익혔다. 당시 마루야마 교수팀은 위암 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였다. 권 교수는 마루야마 교수 밑에서 함께 지도를 받은 한국인 외과 의사 7명과 ‘대한위암연구동우회’를 결성, 지금까지 정기학술모임을 갖고 있다.<br/> 권 교수는 대한위암학회 상임이사(1993년∼현재) 및 편집위원장(2001∼2007년)을 거쳐 지난해 제8대 대한위암학회장으로 선출된 우리나라 위암학계를 대표하는 의학자다. 2008∼2012년 대한외과학회 상임이사, 2012∼2013년 대한소화기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br/> ‘치유절제술을 받은 위암 환자에서 3년 무병 생존이 5년 전체 생존을 대치할 수 있는가’란 제목의 임상연구논문으로 2005년 대한위암학회 최우수상을 받는 등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138편에 이른다.<br/> 취미는 등산이다. 권 교수는 “<span class='quot0'>젊어선 주 4일 매일 3명씩 위암 절제수술을 하고 2일은 외래환자를 보느라 쉴 틈도 없었고 취미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었다</span>”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지금은 수술을 하는 의사가 많아 틈틈이 국내외 유명산을 오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했다.<br/> 그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를 두 차례나 다녀왔고, 중국 황산을 4박5일간 비박을 감수하며 걸어서 정복했다. 3000m급 일본의 설산(다테야마), 국내 백두대간 및 지리산 종주도 여러 번 했다. 권 교수는 “<span class='quot0'>산타기로 체력을 다져 60세를 넘긴 지금도 젊은이 못잖게 두어 시간의 수술을 거뜬히 수행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br/>술 실적이 있는 국내 302개 병원의 진료기록을 분석해 수술 사망률을 평가했다. 수술 후 30일 이내 환자가 사망한 ‘실제 사망률’과 암 병기 등을 감안해 전망한 ‘예측 사망률’을 산출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권 교수가 이끄는 한양대학교병원 위암 수술팀은 이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에 해당하는 1등급 판정을 받았다. <br/><br/>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권 교수팀이 수술한 진행성 위암 환자의 평균 생존율은 3기초반 58.4%, 4기 이후 15.9%였다. 이는 같은 기간 위암 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던 일본 국립암센터의 3기초반 45.1%, 4기 이후 14.5%보다 각각 13.3%, 1.4% 포인트 높은 성적이다.<br/><br/>권 교수는 “<span class='quot0'>위암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자가 고작 20∼30% 선에 불과한 미국인과 유럽인과 달리 우리나라 위암 환자는 10명 중 6명 이상이 수술 후 5년 이상 생존해 완치 판정을 받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와 환자가 힘을 합치면 극복하지 못할 위암은 없다</span>”고 말했다. <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82.txt

제목: “신경숙씨 표절 논란, 문학적 게으름 때문에 발생” 복거일씨, ‘역사 속의 나그네’ 간담회서 지적  
날짜: 2015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02100000063  
본문: 중견 소설가 복거일(69·사진)씨는 1일 소설가 신경숙씨의 표절 논란에 대해 “그가 남의 글을 베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문학적 게으름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br/> 복 작가는 장편소설 ‘역사 속의 나그네’(전6권·문학과지성사) 완간을 기념해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문학적 성과는 공적 재산이며 후배 세대에 승계되는 것이다. 작가는 그걸 모아 화학적 결합을 해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가는 화학적 결합을 하면서 문학적 단련, 즉 달구고 때리고 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걸 게을리 해 표절 시비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br/> 그는 “따라서 누구도 표절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걸 걸러내는 것이 출판사 편집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표절 시비가 인 신씨의 소설 ‘전설’(소설집 ‘오래전 집을 떠날 때’에 수록)을 낸 출판사 창비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또 “작가는 불행까지 예술적 자양분을 삼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며 “(신씨가) 원숙한 작품으로 독자 앞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br/> 이번 장편은 무려 25년에 걸쳐, 그것도 암 투병을 하며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설은 1989년 일간지에 연재를 시작해 1991년 세 권으로 출간됐다. 공백기를 거치는 와중인 2013년 여름 간암 판정을 받았다. 그는 “암이라는 의사 얘기를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역사 속의 나그네’는 어떻게 하지였다”며 “마음먹고 쓰니 나머지 세 권을 쓰는 데 1년이 채 안 걸렸다”고 말했다.<br/> 복 작가는 대표적인 보수주의 논객이다. 이 소설의 공백기와 관련도 있다. 그는 1980년대 말 ‘보수주의’ ‘교육의 시장 논리’ 등에 대한 글을 기고하며 문단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이념 논쟁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호흡이 긴 소설을 쓸 여력을 갖지 못했다. ‘역사 속의 나그네’는 21세기(2070년대)의 인물 이언오가 26세기에서 날아온 ‘가마우지’를 타고 백악기 탐험을 떠났다가 16세기 조선사회에 좌초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는 ‘지식 무협 소설’이라고 명명하며 ‘장풍’을 대신해 지식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되는 소설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주인공 이언오는 군사를 조직하며 반상의 평등과 남녀평등을 내세우며 당시 사람들이 꿈꿀 수조차 없는 이상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도를 한다. 그는 “업그레이드된 오락소설로 읽어 달라”고 주문했다.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83.txt

제목: “삶의 깊이 더해준 암 투병, 음악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5년 만에 앨범 ‘50’ 낸 안치환  
날짜: 20150701  
기자: 문수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01100000056  
본문: “암 환자라고 (말)하는 게 혹시라도 동정심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솔직하게 그런 시선은 싫어요. 그래도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나이 오십에 겪은 사건을 음악으로 만들었으니까요.”<br/> 11번째 앨범 ‘50’으로 5년 만에 돌아온 가수 안치환과 30일 서울 서대문구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그는 아팠던 이야기를 하는 게 달갑지 않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안치환은 지난 1년간 직장암 투병을 했고, 그의 이름 앞에 ‘암을 극복했다’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다.<br/> 그는 암 투병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했다. 고통스러웠지만 삶에 깊이를 더한 사건. “그 사건 뒤로 아프지 않았더라면 쉽게 했을 어떤 판단, 어떤 행동을 암을 겪은 뒤로는 하지 않게 됐죠. 이게 제가 겪은 고통의 이면이라고 음악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br/> 안치환의 새 앨범은 ‘사랑이 떠나버려 나는 울고 있어’라는 곡으로 시작한다. 음악 생활 29년차 뮤지션의 복잡한 심정이 담긴 노래다. 그는 “나는 쉼 없이 음악을 하는데 계속 생생함을 갖고 대중과 교류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자괴감, 좌절감을 느끼던 차에 만들었다”고 소개했다.<br/> 이어지는 게 ‘나는 암 환자’라는 곡이다. 그의 삶에 극단적인 변화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과 함께 찾아왔다. 추모 분위기에 그 무렵 잡혔던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그는 문득 건강검진을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계획에 없던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직장암 진단이었다. 뮤지션으로서의 고민은 암과의 싸움으로 이어졌다.<br/> 모든 암 환자가 그렇듯 병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다. 가족과 음악이 돌파구가 됐다.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을 하고 다음날 어스름한 새벽에 깨어보니 아내가 소파에 쪼그려서 자고 있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운데 나와 함께 의지하고 담담하게 새벽을 맞이하는 그 모습에 고마웠고 안도감이 들었어요.”<br/> 이날 새벽의 한 장면은 ‘병상에 누워’라는 곡으로 만들어졌다. 애절한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노래한다. ‘어디까지 온 걸까 당신과 나의 짧은 여행길은 / 어디까지 온 걸까 우리의 이 먼 여행길은.’<br/> 병마와 싸우면서도 그는 매일 음악 현장을 고민한다. 그게 그에게는 삶 그 자체다. “저와 같은 세대에 계속 새로운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50, 60대에게 흘러간 옛 노래나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아이돌 음악밖에 없다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음악이 계속 만들어져야 대중음악도, 대중의 정서도 더 풍부해지는 것 아닐까요.”<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84.txt

제목: 온실가스 37% 감축 확정… 재계 “암덩어리 규제” 반발  
날짜: 20150701  
기자: 이도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01100000085  
본문: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확정했다. 2030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의 37%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당초 내놓았던 안보다 강화됐다. INDC는 우리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약속이다. 당장 부담을 안게 된 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br/>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골자로 한 INDC를 확정했다. BAU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양을 말한다. 2030년 우리나라 BAU는 8억5060만t이다. 이를 3억1472만t(37%) 줄여 2030년에 연간 5억3587만t만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유엔 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INDC를 제출했다.<br/> 환경부는 지난 11일 네 가지 감축 시나리오(1안 14.7% 감축, 2안 19.2%, 3안 25.7%, 4안 31.3%)를 제시했었다. 37%는 이 4개 시나리오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span class='quot0'>4개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위상에 맞는 감축 목표를 요구받았다</span>”고 설명했다.<br/>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에서 25.7%를 줄이고 나머지 11.3%는 해외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 상쇄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세금으로 무리하게 감축 목표를 맞추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r/>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 업종 38개사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과도한 감축 목표는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또 하나의 암덩어리 규제”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br/> 환경단체는 해외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는 문제 등을 꼬집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기후환경팀 처장은 “<span class='quot1'>산업계가 맡아야 할 감축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했다</span>”고 말했다.<br/>세종=이도경 기자 yido@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85.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9) 강남세브란스병원 췌담도암클리닉 이동기 교수팀] 췌장·담도 지킴이  
날짜: 20150630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30100000034  
본문: 췌장과 담도에 생기는 질환은 암이건 염증이건 모두 생명을 위협해 속칭 ‘골치 아픈 질환’으로 꼽힌다. 특히 췌장암은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 간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5% 내외에서 꼼짝도 않고 있는 중대 상병으로 분류된다. 담도암의 5년 생존율도 약 25%에 그친다. 췌담도에 병이 생겼다고 하면 간 질환, 위장병 등 다른 소화기병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공포감을 갖게 되는 이유다.<br/> 그렇다고 대처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췌담도 질환 전문가들은 아무리 막강한 적군(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 치료하면 섬멸하지 못할 병은 없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췌담도 암이 그렇다. 조기 발견은 암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는 수술로 곧장 연결돼 건강을 회복하는데 튼튼한 디딤돌이 된다.<br/> 물론 췌담도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선 조금 신경을 써야 한다. 먼저 췌장암은 당뇨와 관련이 많다. 오랜 기간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췌장암 발생 빈도가 높다. 특히 잘 조절되던 혈당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한 번쯤 췌장암 검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평생 당뇨라곤 모르고 지냈는데, 60대 이후 당뇨가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br/> 췌장암은 어느 암보다도 체중 감소가 심하다. 이유 없이 갑자기 자기 체중의 5∼10% 정도가 줄었다면 췌장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체중 감소 증상을 동반하기 쉬운 당뇨나 만성 췌장염 환자는 항시 췌장암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br/> 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강남세브란스병원 췌담도암클리닉이다. 암병원장까지 역임하고 팀장 역할을 하는 소화기내과 이동기(57)·이세준(53) 교수팀이 간담췌외과 윤동섭(55)·박준성(46)·김재근(41) 교수팀, 영상의학과 이광훈(47)·주승운(37) 교수팀과 함께 각종 췌담도 질환 방어진지를 탄탄하게 구축해놓고 있어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췌담도암클리닉에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췌담도질환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br/>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시술하는 생체부분간이식 수술 후 합병증이다. 생체부분간이식 수술 환자 3명 중 1명꼴로 경험하는 것이므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발생률이다. 대개 공여 받은 간의 담관과 췌담도 암 환자의 담관을 연결해준 부위가 협착증으로 좁아지는 경우가 많다.<br/> 이동기 교수팀은 생체간부분이식 수술 후 이 같은 담관 합병증 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이 교수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찾아올 정도다.<br/> 이 중 가장 인기를 끄는 시술이 공여자와 수혜자의 간을 연결하는 담관 부위가 완전히 막혔을 때 자석을 이용해 뚫어주는 ‘자석문합술’이다. 다른 병원에서는 재수술을 받거나 평생 동안 담즙을 받아내는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하는 것을 내시경 시술로 간단히 고치니 그렇게 간편할 수가 없다.<br/> 이 시술은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한다. 일본내시경학회는 올해 초 학회지에 ‘새로운 시도’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담즙을 받아내는 주머니를 수년간 갖고 다녔다는 한 환자가 이 시술 후 비로소 대중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게 되자 눈물이 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다</span>”고 말했다.<br/> 강남세브란스병원 췌담도클리닉은 담석증 치료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담도에 생긴 담관결석은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만으로 제거해준다. 성공률은 95% 이상이다. 거대 담관결석의 경우엔 풍선확장술로 담관을 부풀린 다음 결석을 빼낸다.<br/> 이 교수팀은 최근 등 푸른 생선에 있는 오메가-3 성분을 경구용 담석 용해제로 개발하는 연구를 추진 중이다. 기왕에 간 기능 개선제로 사용되는 ‘우루소데속시콜린산’ 성분과 합방하면 먹는 약 또는 건강식품으로도 담석을 녹여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이 교수는 기대하고 있다. 이 교수팀은 또한 췌장암의 진단 마커 및 치료 타깃을 찾기 위해 서울대학교 바이오 컨버젼스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항암제 약물 방출 담도배액관 스텐트’ 산업화를 위한 임상시험연구도 새로 시작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86.txt

제목: “호흡기 면역력에 도움”… 활성산소 재발견  
날짜: 20150630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30100000035  
본문: 암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산소 쓰레기 정도로 알려진 활성산소가 경우에 따라선 인터페론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뜻밖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br/>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비인후과 김현직(사진) 교수팀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호흡기 점막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면역계의 핵심물질인 인터페론 분비가 촉진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29일 밝혔다.<br/> 김 교수팀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채취한 호흡기 점막 세포를 시험관 안에서 배양한 후 인플루엔자A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뒤 항산화제로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한 실험군과 아무 것도 주지 않고 그대로 둔 대조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각각 관찰했다.<br/> 그 결과 실험군에서 호흡기 점막 인터페론의 일종인 ‘인터페론 람다’의 분비가 현저히 감소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바이러스 사멸에 관여하는 인터페론 유도성 유전자의 발현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인플루엔자A 바이러스 감염 정도가 대조군보다 더 심해졌다. 호흡기 점막 세포에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도록 막았더니, 뜻밖에도 면역체계의 핵심물질인 인터페론의 분비가 줄어들고 이 때문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악화된 것이다.<br/>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나뉜다. 선천성 면역체계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외부 병원균들과 직접 접촉하는 비강을 포함해 호흡기, 소화기, 생식기 등의 점막에서 작동한다. 이 중 호흡기 점막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그것을 인식하고 저항하기 위한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는데, 점막의 선천성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핵심물질이 인터페론이다.<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바이러스 감염 시 호흡기 점막 내 활성산소 생성과 인터페론 람다 분비를 적절히 조절해주면 호흡기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br/> 연구결과는 미국호흡기학회지(AJRCMB) 5월호 인터넷 판에 실린데 이어 바이러스 분야 국제 학술지 ‘안티바이럴 리서치’ 7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87.txt

제목: [희망을 나누는 기업들-아모레퍼시픽] 여성 암 환우들 고통 분담하고 희망 제시  
날짜: 2015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25100000048  
본문: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은 1945년 창립 이래 인류 공헌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창업자와 CEO가 지속적인 관심과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회공헌활동이 자연스럽게 기업문화로 정착되었다. <br/><br/> 2008년 시작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이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이다.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변화와 탈모 등 외모 변화로 고통 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2011년부터 중국에서도 펼치고 있다.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국내 최초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해 유방건강 의식향상을 위한 핑크리본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br/><br/>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도와 빈곤탈출을 적극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인 ‘희망가게’도 후원하고 있다. 환경보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린사이클 캠페인을 통해 2009년 이후 총 431t이나 되는 공병을 걷어드렸다. 이는 어린 소나무 410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88.txt

제목: [역경의 열매] 이에스더 (17) “요나를 삼킨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날짜: 20150625  
기자: 김무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25100000004  
본문: 많은 분이 금식기도는 경험했지만 단식기도는 해보지 않아 잘 모른다며 설명을 부탁한다. 일반적으로 금식은 물을 마실 수 있고 단식은 물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무엇을 금하는 금식이나 끊는다는 단식은 둘 다 완전한 스톱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은 모세나 물고기 뱃속의 요나, 그리고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에스더와 3일간 식음을 전폐한 바울을 보면 물도 마시지 않았다.<br/>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희생의 기도이기도 한 단식은 영적인 유익은 물론이고 의학적으로도 매우 유익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 단식 기간 중 혈액은 점점 알칼리성으로 바뀐다. 산성체질인 사람이 단식 때 구토현상을 보이는 것은 갑자기 몸에 대량으로 생긴 산성을 미처 배설하지 못해서 비상수단으로 산을 내보내며 몸을 약알칼리로 유지하려는 필사의 노력을 몸 자체가 하기 때문이다.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생리학 교수인 아이비 박사의 실험에 의하면 암 세포를 약알칼리성 혈액 안에 두면 3∼6시간 이내에 완전히 용해되고 만다고 한다.<br/> 이에 따라 단식을 하면 뇌신경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어 기억력이 좋아지고 두통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단식을 마치고 생수를 마심으로 배설을 통해 독소와 노폐물이 거의 빠지면 소변의 색이 맑고 깨끗해진다. 그러므로 나는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급속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신한다.<br/> 단식기도 후 회복기간은 단식 날짜 곱하기 2.5로 하면 좋다. 사실 단식기간보다 회복기간에 응답이 오기에 단식만큼이나 회복기간 기도가 중요하다. 30년 이상의 경험으로 보면 3일 단식기도에 7일 보호식 회복이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br/> 요나3일영성원에서는 단식 기도자들을 온전히 돕기 위해 철저히 예약제를 시행한다. 정규 집회나 기도시간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지만, 단식하며 기도하기 위해 입소할 때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3년 전만 해도 “예약하고 오셨습니까?”라고 묻는 봉사자들을 붙잡고 “뭘 기도하러 왔는데 예약은 무슨 예약” 하면서 언성을 높일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요나가 되어 물고기 뱃속으로 기도하러 오는 곳이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마다 정해진 기도실로 안내를 해드립니다”라며 설명해도 막무가내였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예약제가 보편화된 시대라 이곳 예약제 역시 정착됐다.<br/> 영성원에 입소한 단식 기도자들은 전화연락을 일절 할 수 없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 뱃속에서 통화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세상의 연락줄을 끊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br/> 단식 기간 중에는 외출도 안 된다. 세상이 그립다고 물고기 뱃속을 찢고 나가봐야 물에 빠져 죽는다. 만약 요나가 감사와 순종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뱃속에서 소화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단식 기도자들은 두 길이 아닌 오직 한 길을 택한 만큼, 영적인 물고기 뱃속 안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br/> 참된 단식은 세상적 의지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다. 3일 단식기도는 육적인 신자에서 영적인 신자로, 타락과 멸망 직전에서 부활의 새 신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3일 단식기도를 통해 인간적이며 육적으로 잠든 신앙과 퇴보하여 넘어진 신앙에서 일으킴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해 볼 것을 권한다. <br/>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br/> ▶ 역경의 열매 [기사 모두보기] <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89.txt

제목: [메르스 사태 똑바로 보자] 응급실에 ‘입원’하는 나라  
날짜: 20150625  
기자: 강창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25100000129  
본문: 충남 금산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 조모(75)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서둘러 이송됐다. 패혈증 증세를 보였다. 조씨는 앞서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신장투석과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세균은 이 과정 어디에선가 침투한 것이었다. 패혈증에 걸리면 절반이 죽는다.<br/> 대전의 의사들은 더 이상 손을 쓰기 어렵다고 했다. 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었지만 우선 다른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조씨는 감염수치가 뛰고 신장수치가 곤두박질쳤다. 환부는 짓물렀다. 천안에서 대전으로 와 있던 아들이 아버지를 구급차에 태워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겼다.<br/> 평상복 차림에 의사 가운을 급하게 걸친 신장 전문의가 휴일 오전의 응급실로 불려 들어왔다. 병원 밖에 있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고 온 듯 보였다. 조씨는 여러 합병증 중에서도 신장 상태가 가장 안 좋았다. 서울에 있는 손녀 등이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왔다. 1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은 병상들은 대부분이 차 있었다. 보호자들이 간병하다 보면 자연히 옆 병상을 침범하게 됐다.<br/> 응급실에는 환자보다 보호자가 더 많았다. 환자 한 명에 보호자는 적어도 두세 명이었다. 환자당 한 명이 병원 규정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우르르 몰려와 있거나 떠들썩할 때에만 간호사가 와서 “<span class='quot0'>여기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면 안 된다</span>”며 대기실로 안내했다. 그래도 다들 두 명씩은 응급실에 들어와 있으려고 했다. 외부인이 응급실에 들어가기도 어렵지 않았다. 출입증을 대야 문이 열리지만 환자가 몰리다보니 드나드는 사람도 많아 문은 수시로 열렸다.<br/> 조씨는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인 26일 일반병실로라도 옮겨진 건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 병원 응급실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이 시작될 참이었다. ‘슈퍼 전파자’가 되는 14번 환자(35)가 응급실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시작한 게 27일부터였다. 조씨는 간발의 차로 ‘메르스 지옥’ 한복판에서 벗어난 것이다.<br/> 14번 환자는 29일까지 사흘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매일 200명 넘게 몰려오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무차별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자신도 몰랐다. 이 병원이 메르스 확산 진원지가 된 배경에는 ‘응급실 입원’이 일상화한 대형병원의 의료 관행이 있었다.<br/>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감염은 환자, 보호자, 의료진을 가리지 않았다. 의사와 간호사까지 감염됐다는 사실은 조씨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감염된 누군가가 조씨를 진료할지도 몰랐다. 면역력이 떨어진 신장질환자는 메르스에 특히 취약하다. 조씨는 아직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다.<br/>"유독 삼성서울병원이 다른 데보다 응급실 시스템이 안 좋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오히려 낫겠죠. 일단 자본력과 시설이 좋은 편이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지방에서 일부러 믿고 오시는 건데."<br/> 조모(28·여)씨는 이런 삼성서울병원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대규모로 확산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어 했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대전에서 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남성(75)의 손녀다. 할아버지는 메르스 사태가 한창인 시기에 중환자실에 격리돼 있었다. 최근에야 호전돼 약 한 달 만인 23일 일반병실로 옮겼다.<br/> 할아버지는 고령에 중환자라서 메르스가 터진 뒤에도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없었다고 한다. 받아줄 만한 병원도 없었다. 발이 묶이듯 삼성서울병원에 있으면서 조씨 가족은 환자 병세뿐 아니라 메르스 때문에 마음을 졸여야 했다. 조씨는 "메르스나 안 걸리면 다행이었다. 제일 좋은 시설과 병원, 심지어 의료진조차 전염에 대응을 못한다는 게 의외였다. 상징적 사건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br/>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사태는 대형병원의 왜곡된 응급실 시스템을 부각시켰다. 응급실에 비응급 환자가 넘쳐나고, 큰 병원에 병실을 잡으려고 응급실에 입원하다시피 하는 환자가 많다.<br/>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려드는 환자들=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의 응급실 유리문 안으로 보이는 대기석에는 20여명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대기실은 가득 찼다. 휠체어를 탄 환자와 타지 않은 환자가 섞여 있었다.<br/> 이곳을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한 번은 10분 사이에 환자만 4명이 들어갔다. 팔에 깁스를 한 노인, 다리를 저는 40대 여성 등이다. 모두 혼자 걸어오거나 택시를 타고 왔다. 아주 응급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암병동에서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으러 온 암 환자도 있었다. 그는 "다른 촬영실이 꽉 차서 빈자리인 응급실 촬영실로 왔다"고 말했다. 응급실 앞에 멈춰선 택시에서 환자가 내릴 때마다 출입구를 지키는 보안요원들이 작은 탄식을 내뱉었다.<br/> 20대 여성 환자의 보호자로 동행한 50대 여성은 경기도 김포에서 직접 차를 몰고 왔다고 했다. 오후 5시쯤 만난 그는 "조카가 장염이 너무 심해져서 어젯밤에 왔는데 지금 겨우 이동식 침대에 누웠다. 응급실에 사람이 너무 많다. 10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했다. <br/> ◇"외래진료 와선 의사 보기 힘들다"=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 사이에는 중소형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만연했다. 김포에서 온 여성은 동네의원이 매상을 올리려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싼 약을 준다고 생각했다.<br/> 그는 "서울대병원은 응급실 진료비가 비싸도 수준이 높다. 여기선 1차 병원에서 했던 검사지를 가져오면 중복검사도 안 한다. 기다리는 걸 감수하더라도 알아주는 병원에 오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왔다는 강모(58)씨는 "후배가 뒷골이 아프다고 해서 구급차를 불러서 왔다. 큰 병원에서 검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다. 외래 진료는 당일에 와서 의사 보기가 힘들다"고 했다.<br/> 동네 병·의원에 대한 불신은 경험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 아픈 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임모(39)씨는 "동네 의원은 오진이 많다. 제 조카도 처음에는 비염이라고 해 놓고 이제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 이러니 (동네의원을 가는 게) 병을 키우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했다.<br/> ◇'편법 입원' 창구로 변한 응급실=대형병원 응급실은 입원 경로로 이용되는 경향이 짙다.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받으려고 입원 순서를 기다리는 '응급실 뻗치기'까지 만연하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하루 종일 붐비는 응급실을 중증 응급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외부에서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들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 <br/> 병원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건강보험수가는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가격 차이가 없으니 대형병원으로 몰려들고, 이 때문에 병실이 부족해지면서 응급실 입원이 우선순위를 받으려는 일종의 편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대형병원 응급실의 만성적 과밀화를 빚는 악순환의 고리는 이렇게 만들어진다.<br/>강창욱 심희정 김판 최예슬 기자 kcw@kmib.co.kr<br/> [관련기사 보기] <br/>▶[메르스 사태 똑바로 보자] ‘강요된’ 가족 간병, 메르스 대란 주범<br/>▶[메르스 사태 똑바로 보자] 간병인 필요 환자 387만명… 동원된 가족들 ‘죽을 맛’<br/>▶[메르스 사태 똑바로 보자-‘보호자 없는 병동’ 르포] “간호사들이 24시간 신경 써 줘 든든”<br/>▶[메르스 사태 똑바로 보자] 선진국은… 간호사·전문 간호인력이 간병 업무까지 맡는다<br/>▶[메르스 사태 똑바로 보자] “보호자 어디 계세요?”… 환자 가족이 ‘간호 대체 인력’<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90.txt

제목: ‘중국인전용의원’ 노박의원 노태성 원장 “중국 환자 돌보다 중국 대륙 선교 비전 얻었어요”  
날짜: 20150624  
기자: 김무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24100000017  
본문: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노박의원 노태성 원장은 요즘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을 위한 선교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봉사하고 있다.<br/> 노 원장은 신촌성결교회(이정익 목사) 장로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신촌에 위치한 이 교회에서 중국어 예배부 부장을 맡아 매주 40명 정도 모이는 중국어 예배를 통해 유학생들과 만난다.<br/> “노박의원이 있는 신길동은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많이 살아 환자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저와 직원들이 중국어를 배웠는데 출석하는 신촌성결교회에서도 중국유학생 선교를 맡게 돼 사명감을 갖고 사역하고 있습니다.”<br/> 중국어를 꾸준히 공부해 이젠 한문으로 대화하는 크리스천 중국어 카톡방에서도 활동할 정도인 노 원장은 최근 중국인들이 의료관광으로 한국을 많이 찾아오기에 노박의원에 ‘중국인전용의원’이란 타이틀을 걸고 진료하고 있다.<br/>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 6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신촌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 1만명 넘게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잘 전도하고 양육해 돌아가게 한다면 선교사 파송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br/> 중국선교에 비전을 갖고 활동하는 노 원장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아들 노윤방(28) 씨다. 아들이 신촌성결교회 홍보부에 속해 중국어예배부 동영상도 만들어 주고 관련 뉴스레터 제작도 돕고 있는 것.<br/> 노 원장은 최근 중국인전용의원에 걸맞게 중국에서 오는 환자들을 위한 숙소 외에도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시설을 매입, 리모델링 중에 있다. 18개의 방을 가진 이 시설은 노 원장이 추구하는 중국선교와 의료봉사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br/> “오랫동안 암 환자를 수없이 대하면서 왜 이렇게 선하고 착한 분들이 암에 걸릴까 의문을 갖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br/> 노 원장은 “<span class='quot0'>평생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펼친 바울도 엄청난 시련과 고통, 질병을 계속 주신 것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기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무엇보다 신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도록 항상 권면한다</span>”고 밝혔다.<br/> 노박의원이 암전문병원으로 많은 환자에게 환영받는 이유는 다양한 치료법을 각자에 맞게 제시하면서도 치료비는 저렴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의료보험만으로도 병을 호전시키도록 정성을 쏟는 것은 환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노 원장의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노박의원은 자연치료라도 가급적 보험 적용 테두리에서 진료를 해주려고 노력한다.<br/>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95∼1997년 미국 휴스턴 베일러(Baylor) 의과대학에서 암유전학을 연수한 노 원장은 “<span class='quot0'>그곳에서 자연치료의사(ND)들이 따로 있고, 그런 치유의학이 체계화돼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여기서 큰 도전을 받아 귀국한 뒤 환자들을 자연치료하기 시작했다</span>”고 밝혔다.<br/> “면역치료, 자연치료의 핵심은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체온을 올려 면역력을 강화하고 백혈구와 적혈구를 증강하며 체질을 변화시켜 환자 스스로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방도 자연치료 의학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br/> 노 원장은 “<span class='quot0'>자연치료 방법이 양방 암 치료와 반대개념이 결코 아니다</span>”며 “<span class='quot0'>대학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이 자연치료를 통해 낫는 경우도 자주 있다</span>”고 했다. 또 “보완적 측면에서 자연치료를 통해 고통이 감소하고 생명이 연장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br/> 노 원장은 한의사들과도 교류하려는 열린 생각으로 양방·한방 의사들이 모이는 ‘자연의학회’도 만들었고 암 환자들이 참여하는 블로그와 카페도 개설했다. 자연치료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br/> 자연치료를 통해 고통이 감하고 생명이 연장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노 원장은 신앙적인 이야기와 자연치료의 정신과 경험을 녹여 ‘노 박사의 따뜻한 암 치료’(도서출판 생명나무)를 펴내기도 했다. 이 책은 많은 이에게 생생한 건강정보를 전해주고 있다.<br/> 늘 환자를 먼저 생각하며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노 원장은 노박의원을 중국인전문의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중국선교’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br/>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91.txt

제목: 노박의원 암치료법은… 부작용 억제·면역력 증강 초점 ‘따뜻한 암치료’  
날짜: 20150624  
기자: 김무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24100000014  
본문: 노박의원 노태성 원장은 암환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암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가능한 한 줄이고,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치료법을 사용한다. 노 원장은 이를 ‘따뜻한 암치료’라 부른다. 그가 소개하는 면역을 이용한 암치료법 몇 가지를 알아본다.<br/><br/> ◇미슬토(Mistletoe) 주사 항암면역요법=미슬토는 나무에 반 기생하는 다년성 식물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선 겨우살이라고도 부른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파괴하는 데 쓰인다. 특히 ‘면역조절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며, ‘베타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해 암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미슬토 주사 항암면역요법’은 정식 항암치료제로 등록해 민간요법의 차원을 넘어선 상태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초기 환자는 1∼2년, 중기 환자는 2∼3년, 그리고 말기 환자 등은 그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br/><br/> ◇싸이모신 알파1=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면역조절작용을 하는 이 물질은 동물의 흉선에 존재한다. 사용법은 이를 추출해 항암치료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억제와 각종 종양치료 등에 병행요법으로 쓰인다. 노 원장은 “<span class='quot0'>이것 역시 인체의 자연적인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따뜻한 암치료’의 일종</span>”이라고 말했다.<br/><br/> ◇항암면역세포치료=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즉 ‘T세포’를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T세포는 세균과 같은 항원이 침입했을 때 이를 억제 및 파괴하는 기능을 한다. 이 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환자의 혈액을 추출해 체외에서 T세포를 배양한 다음 이를 다시 환자 몸에 주입해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원리로 한다. 국내에서도 녹십자에서 세포 배양을 해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고가라는 단점이 있지만 항암면역세포주사가 대표적 치료제이다.<br/><br/> ◇고주파 온열암치료=암은 체온이 낮고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아 산소가 부족할 경우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체온을 올리면 그만큼 암의 발생 확률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평상시 운동 등을 통해 우리 몸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암이 열에 약한 점을 이용, 고주파를 흘려보내 암세포의 온도만 선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다. 누구나 치료기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의료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br/> 노 원장은 “<span class='quot0'>이밖에도 면역치료법은 많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자연 치유’에 주력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현대의학은 암치료에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과 항암제를 사용하는데, 물론 암치료에 도움을 주지만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span>”고 했다. 아울러 “암은 치료하기 쉽지 않은 질환이지만 환자가 식습관, 운동,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환자나 가족, 그리고 의료진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김무정 선임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92.txt

제목: 문애리 교수 ‘여성생명과학상’ 수상  
날짜: 20150624  
기자: 김현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24100000137  
본문: 로레알코리아는 문애리(56·사진) 덕성여대 약학대학 교수를 ‘2015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학술진흥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로레알코리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은 생명과학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여성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문 교수는 유방암 전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유방암 전문가로 유방암 치료에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br/> 젊은 여성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펠로십 수상자로는 문재희(37) 서울아산병원 암 연구단 박사 후 연구원, 유승아(38) 가톨릭대 면역질환 융합연구소 연구교수, 이혜미(33) 충남대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연구교수가 선정됐다.<br/>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93.txt

제목: [메르스 사태 똑바로 보자] ‘강요된’ 가족 간병, 메르스 대란 주범  
날짜: 20150624  
기자: 문수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24100000069  
본문: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자 중 3분의 1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가족들이다. 메르스는 ‘병원 내 감염’ 형태로 전파돼 왔다. 병원에서 환자나 의료진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감염된 것은 ‘가족 간병’이라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런 간병문화를 메르스 확산의 주 요인으로 꼽았다.<br/> 왜 우리는 병원에서 환자 돌보는 일을 의료진이 아닌 가족이 하게 된 걸까.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말기 암 환자 신윤숙(가명·59·여)씨 사례는 가족이 간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 의료 시스템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br/> 신씨 가족은 지난 1월 입원 닷새 만에 병원 측으로부터 “<span class='quot0'>보호자가 24시간 상주해야 한다</span>”는 말을 들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상주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두 딸과 남편은 모두 일을 하고 있었다. 급한 대로 간병인을 고용했다. 병원에서 알려준 업체에 전화하니 조선족 간병인이 왔다. 업체는 “인력이 빠듯해 원하는 조건에 맞춰줄 수 없다”고 했다.<br/>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신씨 가족은 곧 알 수 있었다. 24시간 상주하는 간병인은 환자보다 먼저 잠들었다. 신씨가 거동조차 어려워지자 간병인은 오히려 환자를 방치하다시피 했다. 체중 45㎏의 신씨를 휠체어에 앉혀 화장실 가는 게 힘들다며 병실에서 소변을 보라고 하는 식이었다. 간병인 고용 닷새 만에 신씨네는 가족 간병을 택했다.<br/> 딸 정혜인(가명·33)씨는 “간병인을 쓴 5일간 엄마를 고생시켰다고 생각하니 죄송했다. 가족들이 하루 3교대로 엄마를 돌보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br/> 신씨는 입원 열흘 만에 6인실에서 1인실로 옮겼다. 환자의 안정에도 필요했지만 본격적인 가족 간병을 위한 선택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않으며 간병하려면 1인실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br/> 두 딸은 번갈아 휴가를 냈다. 자영업을 하는 남편은 일손을 놓았다. 그리고 세 식구는 ‘간호’를 배웠다. ‘석션’이라 부르는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가래를 빼주고, 열이 나면 냉찜질을 했다. 수시로 체위를 바꿔주고, 소독솜으로 구강 관리를 하며, 가볍게 상처가 나면 소독을 했다. 모두 간호의 영역에 있는 일이다. 신씨처럼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바쁜 간호사 대신 그들의 전문 영역까지 도맡는 경우가 많다. 식사, 목욕, 배변은 ‘당연히’ 가족의 몫으로 여겨졌다.<br/> 의사도 늘 보호자의 도움을 요구했다. 이를테면 상처를 소독하러 병실에 오는 의사는 보호자에게 소독하기 쉽도록 환자의 체위를 바꿔 달라고 했다. 의사가 체위 변경을 돕는 일은 거의 없었다. 보호자는 의사를 돕는 간호사 역할도 하는 셈이다.<br/> 입원 3개월 만에 신씨는 숨을 거뒀다. 정씨는 “<span class='quot1'>병원에서 책임질 일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보호자에게 간호를 맡기는 상황이 역설적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나마 엄마가 마지막 3개월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는다</span>”고 말했다.<br/> 3개월 병원비는 2500만원쯤 나왔다. 암 환자여서 건강보험 진료비는 5%만 부담했는데도 그렇다. 간병 기간에 쓴 가족의 식비나 남편이 일을 못해 생긴 손실까지 계산하면 비용은 더 커진다.<br/> 병원이 책임져야 할 ‘간호’를 환자 가족이 맡게 되면 이렇게 비용 부담도 환자 몫이 된다. 병원은 인건비 부담 탓에 간호사를 충분히 고용하지 않고 있다. 병원이 간호사를 더 채용하려면 간호수가(의료서비스 가격)가 올라야 하는데 정부는 수가 인상에 소극적이다.<br/>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span class='quot2'>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환자 가족은 병원에서 꼭 필요한 인력</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가족 간병이 한국식 병원문화라면 이것은 강요된 문화</span>”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잘못된 문화라고 지적할 게 아니라 간병이 ‘가족의 영역'에서 ‘사회의 영역'으로 바뀌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 [관련기사 보기] <br/>▶이재용 눈물 “메르스 확산 못 막아 사죄”<br/>▶“정부는 왜 그랬을까요” 메르스 숙주병원의 고백 파문<br/>▶“메르스와 사투 대가가 임금 삭감이라니” 의료진 눈물<br/>▶메르스 임신부 출산… 산모·아이 모두 건강해<br/>▶“메르스 진정, 아주 상쾌한 일” 서청원 발언 논란<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94.txt

제목: [메르스 재난] 중증 기저질환자 많아 사망자 계속 나올 우려  
날짜: 20150623  
기자: 이도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23100000086  
본문: 메르스 확산세가 주춤하자 보건 당국이 확진환자 사망률 낮추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중중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많아 사망자는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br/> 전문가들은 보건 당국의 대응 수준에 따라 사망률이 10% 안팎에서 20%까지 10% 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일 것으로 관측한다.<br/>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2일 “<span class='quot0'>사망자가 2명 추가돼 전체 사망자는 27명이고, 사망률은 15.7%로 집계됐다</span>”고 밝혔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95명이며, 이 중 14명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br/> 신규 사망자인 101번 환자(84)는 암 투병 중이었다. 128번 환자(87)는 암과 뇌졸중 등을 앓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고령에다 중증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사망자 가운데 고위험군이 25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92.6%를 차지한다</span>”고 설명했다.<br/> 사망률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특히 중증 환자 관리가 어렵다. 폐렴으로 진행되기 전에 치료해야 하는데 경험 많은 의료진이 다같이 달라붙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각 지역 거점병원에 환자들이 산재돼 있다. 치사율이 10% 내외에서 최대 2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span class='quot2'>사우디아라비아는 처음에 치사율이 40% 이상이었는데 이후 젊고, 비교적 경증 기저질환이 있었던 환자가 나오면서 완치율이 높아졌고, 사망률도 줄었다</span>”고 덧붙였다.<br/> 여기에다 완치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독일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메르스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br/>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3'>중증 기저질환이 있었던 환자들에게서 신장·폐 등의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3'>음성 판정자도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span>”고 지적했다.<br/> 유일한 10대였던 67번 환자(16)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다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일반 병상으로 옮겼다. 이밖에 22번(39·여) 49번(75) 55번(36) 68번(55·여) 130번(65·여) 144번(71) 환자 등이 퇴원해 전체 퇴원자는 50명이 됐다.<br/>이도경 기자 yido@kmib.co.kr<br/> [관련기사 보기] <br/><br/>▶“그걸 왜 한국이 냅니까” 中 메르스환자 27억 배상 폭탄 위기<br/>▶79세 최고령 치매 할머니, 메르스 완치 퇴원…메르스 환자에 희망 메시지<br/>▶“방역망 뚫렸나요?” 격리 해제됐는데 메르스 확진 판정<br/>▶잠복기 열흘 지난 환자 발생… 메르스 확진 3명·사망 2명 추가<br/>▶“메르스 풍자 때문?” 개콘 민상토론 불방 부글부글… 페북지기 초이스<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95.txt

제목: 이강현 응급의학회 이사장 “후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개선 안하면 제2의 메르스 사태 또 발생할 수도”  
날짜: 20150623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23100000028  
본문: “<span class='quot0'>대형병원의 응급실 쏠림 현상,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후진국형 응급실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span>”<br/> 이강현(53)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의 경고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의 근원지가 되면서 감염 위험에 취약한 국내 응급의료체계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br/>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제2의 메르스 사태 발생을 막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 이사장은 지난 9일 강원도 첫 감염자가 나온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br/> -병원 내 감염, 특히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메르스 전파의 주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응급실 밖 5차 감염까지 우려된다.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br/> “삼성서울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병원 응급실 전체의 문제라고 본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여러 원인이 있다.<br/> 첫째, 대학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다. 환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하기 위한 편법으로 응급실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다. 응급실 이용자가 필요 이상 많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감염위험도 높아진다.<br/> 둘째, 응급실 내원 환자의 체류시간이 너무 길다. 병동 내 병상이 이미 초만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병원 전체의 응급실 평균 체류시간은 5.9시간이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 체류시간은 10시간이 넘는다.<br/> 셋째, 응급실 내 감염질환 차단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 감염자용 개인병실 및 음압시설이 부족하고, 응급실 의료 인력도 태부족이다. 2013년 전국 431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시설·인력·장비 충족률이 8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br/> 넷째, 메르스 확산 사태에서 보듯 응급실내 보호자와 방문객이 너무 많다. 말 그대로 응급환자만 이용해야 할 응급실이 병실입원을 위한 경유지로 전락한 것이 큰 문제다.<br/>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메르스 같이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응급실 과밀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를 개편, 대형병원 응급실 환자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 한 예로 일반적 암 치료는 지역 거점병원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수도권의 대형병원에서 치료받기를 고집하는 환자가 많다. 공급은 한정됐는데 수요가 많으니 입원하기가 어렵고, 입원이 어려우니 응급실 입원이란 편법이 나오는 것이다.<br/> -응급실 안팎의 각종 시설 이용에 따른 교차 오염의 위험은?<br/>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응급실은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방 1개를 여러 사람이 같이 쓴다. 비단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이유다.<br/> 응급실 공용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응급실에도 개별 병실제가 도입돼 격리치료가 가능해야 한다. 일부 병실은 음압실로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 물론 전염성 질환자의 경우 음압병실에서 따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br/> -미주 및 유럽 지역 병원의 응급실과 우리나라 응급실의 차이점 세 가지를 꼽으면?<br/> “시설 및 의료인력 부족, 그리고 환자 안전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다. 우리나라 응급실은 환자 1인당 전용 면적, 즉 개인진료 공간이 너무 비좁다. 그 결과 비말 전파 위험이 있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질환 차단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다, 외국에선 응급실도 기본적으로 1인실 구조로 설계돼 있다.<br/> 턱없이 부족한 진료 및 간호 인력도 대폭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해 10분의1 수준의 인력만으로 응급실을 가동하고 있다. 병실 입원 수단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와 뒤섞여 초만원인 응급실에서 절반도 안 되는 인력으로 버터야 하니 ‘병 고치러 갔다가 되레 병을 얻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중환자 응급의료수가 신설 등 체질 개선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 kslee@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96.txt

제목: [메르스 재난] 2차 유행 막바지… 대규모 감염 가능성 낮아져  
날짜: 20150622  
기자: 권기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22100000129  
본문: 메르스 사태가 ‘2차 유행’이 끝나고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환자에 의한 추가 감염 위험이 남아 있지만 대규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br/> ◇76번발(發) 추가 감염 주목=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21일 현황 자료를 보면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35)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에서의 2차 유행은 사실상 종료됐다. 지난 20일에는 신규 환자가 없었다. 21일 확진자로 발표된 삼성서울병원 의사(34·169번 환자)도 14번이 아닌 135번 환자(안전요원)에게 옮은 것으로 보인다. 14번 환자가 이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지난달 27일 이후 약 25일 만에 2차 유행이 종료된 것이다. 평택성모병원발(發) 1차 유행 지속 기간도 25일 정도였다.<br/> 보건 당국이 주목하는 건 76번(77·여·사망) 환자로부터 새로운 유행이 있느냐다. 76번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4차 감염자를 낸 3차 감염자다. 모두 7명이 그에게 감염됐다. 이날 추가된 167번 환자(53)도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168번 환자(36)는 지난 6일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76번 환자의 X선 사진을 촬영한 방사선 기사다.<br/> 76번과 접촉한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당국도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76번에게 감염된 165번 환자와 강동경희대병원 투석실을 함께 이용한 신장질환자 97명이 집중 관리대상이다. 당국은 이들을 1인실에 각각 격리 입원시키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span class='quot0'>기존에 입원한 환자 80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해 서울시와 함께 병실을 확보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환자 3명, 에크모로 치료 중=삼성서울병원에서는 의료진 가운데 추가 감염자 발생이 우려된다. 최근 이 병원에서 나온 확진자는 주로 의사·간호사·방사선사 등이다. 감염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낮은 등급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환자를 돌보다 감염됐다. 정 센터장은 “<span class='quot0'>17일 이전에는 보호 장구 착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보완됐다</span>”고 말했다.<br/> 20일 사망한 112번 환자(63)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다 감염됐다. 당국은 그가 심근허혈증과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밝혔다.<br/> 한편 지금까지 메르스에 걸려 에크모(체외혈액순환기)를 사용한 환자는 모두 8명이다. 에크모는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 산소를 공급한 뒤 다시 넣어주는 기계다. 그중 2명은 이 장치의 도움으로 회복됐다. 3명은 사망했으며 나머지 3명은 아직 사용 중이다. 전체 메르스 환자 중 14명은 상태가 불안정하다.<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br/> [관련기사 보기] <br/>▶“한국인 자멸해라?” 일본 메르스 항체 개발 보도에 이어진 반응이…<br/>▶청와대 홍보수석님, ‘살려야 한다’는 기사가 됩니다… 페북지기 초이스<br/>▶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담당의 1명 추가 확진<br/>▶“메르스 확진자와 함께 목욕했다”… 허위 진술에 대구시 발칵<br/>▶메르스 확진자 19% 의료진…의료 종사자 감염 확산 우려<br/>▶“질병 대응 안해서 끝장난다” 1년전 메르스 예언 (영상)<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97.txt

제목: “男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 주요 전파경로”… 복지부 공식 문건 입수  
날짜: 20150619  
기자: 100sh@kmib.co.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9100000026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br/>‘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는 사실이 정부 공식 문건에서 확인됐다. 이는 동성 간 성접촉과 에이즈 확산의 연관성이 낮다는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br/> ◇“남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률,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아”=보건복지부가 2011년 작성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국민일보 취재결과 밝혀졌다.<br/> 779페이지 분량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중장기 국가계획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020년까지 암 결핵 에이즈 관절염 등 32개 주요 질병을 퇴치하는 게 중점과제인데, 이 중 16번째가 에이즈 퇴치다.<br/> 종합계획은 “에이즈의 감염경로가 밝혀진 사례 중 99%가량은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라며 “이성 간 성접촉과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는 6대 4로 이성 간 성접촉이 더 흔한 전파경로인 것처럼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경우 역학조사에 응할 때 실제의 성정체성을 솔직하게 밝히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전체 에이즈 감염인의 91.7%가 남성에 편중돼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경로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br/> 종합계획은 “동성애자 검진상담소 내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에이즈 감염률은 대략 4%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국 남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일반 성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동성애자 검진상담소를 찾는 동성애자 100명 당 4명이 에이즈 감염자라는 뜻이다. 종합계획은 이어 “남성 동성애자 등과 같은 감염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에이즈 검사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한국의 에이즈 감염실태를 낙관해선 곤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br/> ◇“남성 동성애자 에이즈 검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보건복지부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사업은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검사 수검률(受檢率)과 콘돔 사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감염 취약 계층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에이즈 예방사업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5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 놨다. <br/> 보건복지부는 특히 남성 동성애자 등 감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span class='quot0'>남성 간 성접촉이 주된 에이즈 전파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의 역학적 특성과 항바이러스 제제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남성 동성애자 등과 같은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한 에이즈 검사 활성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span>”고 지적했다. <br/> 보건복지부는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활성화, 콘돔 사용 촉진, 민간단체와 연계한 동성애자 에이즈 검진상담소 운영·확대, 남성 동성애자들의 행태 조사, 동료 동성애자의 전문홍보요원 활용 등 세부 추진계획도 수립했다.<br/>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이며, 공공의료나 보건의료처럼 법률에 근거해 거시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span class='quot2'>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거시적 방향성 내지 지침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에서 동성애자 상담소 운영, 콘돔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국민일보는 ‘남성 동성애자의 성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요 전파경로’라는 정부 입장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이종걸 사무국장에게 전화했으나 이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3'>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과는 인터뷰하지 않겠다</span>”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98.txt

제목: 삼성화재, 임신·출산 등 산모 위한 보장 대폭 확대  
날짜: 201506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8100000034  
본문: 삼성화재는 기존 자녀보험을 개정해 ‘NEW 엄마 맘에 쏙 드는’ 자녀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에 대한 실손입원의료비 등 산모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실손입원의료비에서 보상되지 않던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제외)’ 담보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통상적인 분만을 제외한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자궁경관 무력증,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 시 1000만원 한도로 입원비의 80%를 보장한다. 산모들이 걱정하는 임신중독증도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br/> ‘NEW 엄마 맘에 쏙 드는’ 자녀보험은 선천성 발달장애 중 뇌성마비와 다운증후군 진단 시 10년간 매년 양육자금을 지원한다. 여성의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태아의 선천성 이상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는 점을 상품 설계에 반영한 것이다. <br/> 유치 또는 영구치의 충치 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존치료지원금, 세균성 감염으로 발생하는 중증 뇌수막염 등을 보장하는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암 진단·수술·입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암 보장도 가능하다. 암 입원일당은 입원 첫날부터 지급한다. <br/> 산모를 위한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일정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출산용품 지원, 포토북 제작, 문화체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정병록 상무는 “<span class='quot0'>소중한 내 아이를 위한 엄마의 마음으로 상품을 만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녀보험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엄마들에게 필요한 보장을 담았다</span>”고 설명했다.<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99.txt

제목: 한화생명, 질병 진단 시 가입금액 80% 우선 지급  
날짜: 201506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8100000030  
본문: 한화생명은 중도인출, 추가납입 등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을 확대한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 변액유니버셜 CI보험’을 출시했다.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 변액유니버셜 CI보험’은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13가지 치명적 질병 진단 시 가입금액의 8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중대 질병에 대해 보험으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br/> 여성만을 위한 ‘여성 특정 4대질병 보장특약’도 포함됐다.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술(500만원),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200만원), 중증 루푸스 신염(2000만원), 다발성경화증(2000만원) 등 여성들이 걸리기 쉬운 질병을 보험료 갱신 없이(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평생 보장한다. <br/>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 변액유니버셜 CI보험’은 발병률이 높은 암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암으로 주계약에서 진단자금을 받았더라도, ‘더블케어암보장특약’을 통해 전이암과 재발암까지 최대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치매보장도 가능하다. ‘LTC보장특약’에 가입하면 중증 치매상태나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받을 경우 가입금액만큼 간병자금을 최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br/>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최대 4%까지 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의 계약 가입 시 2.5% 할인혜택을 받는다. 보험료 자동이체로도 1%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한화생명과 협약된 단체 종사자가 가입하면 1.5%의 단체할인 혜택도 있다. 최저가입 기준은 가입금액 1000만원 및 월 보험료 5만원이다.<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00.txt

제목: 죽음 앞두고도 뜨거운 예술혼… 강성원 작가 유작전  
날짜: 20150617  
기자: 이광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7100000035  
본문: 지난 4월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강성원 작가의 유작전이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지난해 11월 암 진단을 받은 뒤에도 병상에서 마지막 개인전을 반드시 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br/> 이번 전시는 예술의전당 미술아카데미에서 그에게 그림을 배운 제자들과 유족이 마련했다. 작가의 작품을 제작연도와 주제별로 선보이며 예술세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전시 타이틀은 ‘평강하고 성스러운 정원으로 가는 길목’으로, ‘삶-나들이’ ‘인생-나들이’ 등 50여점을 소개한다.<br/> 독일 뒤셀도르프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작가는 평소 인간의 문명과 자연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 종교적 감성 등을 화폭에 담아왔다. 1990년대 신표현주의의 기수로 조명을 받기도 했다.<br/> 전시를 준비한 유족 측은 “작가는 몇 년 동안 작은 작업실에서 3000개가 넘는 실리콘을 사용해 작품을 제작하면서 환기시키는 것도 잊고 작업에 몰두했다”며 “그의 마지막 작품은 실리콘으로 만든 자화상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br/>이광형 문화전문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01.txt

제목: 암 사망 딸 냉동 보관 난자로 아이 낳으려던 어머니 ‘좌절’… 英 법원 “안된다” 기각  
날짜: 20150617  
기자: 전석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7100000092  
본문: 대장암으로 23세에 세상을 떠난 딸이 남겨둔 난자로 아이를 낳으려던 영국 어머니의 시도가 좌절됐다.<br/><br/> 영국 고등법원은 M씨(59)가 인간수정배아관리국(HFEA)을 상대로 인공수정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고 BBC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br/> M씨는 딸이 대장암 판정을 받은 뒤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냉동 보관한 난자를 부모에게 맡기면서 아이를 대신 낳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M씨는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미국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HFEA는 딸이 자신의 난자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시술을 금지했다.<br/><br/> M씨는 “딸이 사후에도 자신의 유전자를 활용해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HEFA의 처분은 가족의 인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간섭으로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br/><br/> 이에 대해 HFEA 측은 법정에서 “인간적인 유혹이 있겠지만 딸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신중하게 재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br/><br/> 던건 우슬리 판사는 “<span class='quot0'>딸이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일부가 살아남기를 원했고, 그 소원을 들어주려는 원고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HFEA의 처분은 정당하다</span>”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br/><br/>전석운 기자 swchun@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02.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7)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클리닉 이동현 교수팀] 환자 ‘삶의 질’ 위해…  
날짜: 20150616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6100000038  
본문: “<span class='quot0'>방광에 퍼진 암 때문에 방광을 떼어내고 옆구리에 소변 주머니를 차야 합니다.</span>” 방광암 환자들이 수술 후 의료진으로부터 흔히 듣는 말이다.<br/> 암에 걸린 방광을 수술로 떼어내면 오줌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진다. 따라서 아랫배 안쪽 복벽에 구멍을 뚫고 요로(尿路)를 연결하는 수술(요루형성술)을 받아야 한다. 이른바 요루(尿瘻·요관 대신 소변을 배출하는 길)에는 방광을 대신해 소변을 받을 주머니를 단다. 이렇게 소변주머니를 차면 정상인과 같이 요의를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지 못하게 된다. 요의를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br/> 그래서 방광암 환자들은 두 번 좌절한다. 암 진단 시 치명적인 암에 걸렸다는 사실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지 못하고 소변주머니를 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다.<br/> 소변주머니를 차면 수시로 살펴보고 갈아야 한다. 소변주머니 때문에 대중목욕탕 이용도 어려워진다. 요즘과 같이 날씨가 더워지면 냄새가 날까 두려워 외출도 꺼려진다. 자칫 소변 주머니를 바꿀 때 잘못 관리하면 피부가 헐어 다시 착용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br/> 인공방광수술은 방광암 환자의 이 같은 불편을 덜어줄 목적으로 개발된 치료법이다. 수술은 방광암 절제 후 소변주머니를 차야 하는 요루형성술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인공방광을 만들어 없어진 방광을 대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인공방광은 환자 자신의 소장(小腸)을 필요한 만큼 잘라 만든다.<br/> 문제는 암에 걸린 방광을 걷어낼 때 배뇨 신경과 방광괄약근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소장을 잘라 소변주머니 역할을 할 인공방광을 만들어 요관에 이어 붙여주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경험이 아주 많은 의사라도 4∼5시간이 걸린다. 온 신경을 집중한 상태에서 시술해야 하므로 수술 후 탈진하기 일쑤다. 수술을 할 때 의사가 “무엇이 환자를 위한 길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 인공방광수술이다.<br/>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이동현 교수팀은 다른 의사들이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인공방광수술에 과감히 도전해 ‘전국구 최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br/> 이 교수가 인공방광 수술에 처음 도전한 것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임상의로 일하던 1996년이다. 당시 수술 소요시간은 8∼10시간으로 사실상 하루 종일 수술에 매달려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익숙해져 길어야 4시간이다. 이 교수팀은 최근 3년간 연평균 60여명의 방광암 환자에게 인공방광수술을 하고 있다. 올해는 100명을 넘을 전망.<br/> 남들처럼 방광을 들어내고 아랫배 복벽에 요루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수술했다면 이 보다 3배, 4배 많은 수술실적을 올렸을 것이다. 방광암 절제 후 요루형성술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내외면 충분하다.<br/> 그런데도 이 교수팀이 인공방광수술을 고집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환자들이 원하고,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기 때문이다. 인공방광수술을 받으면 수술 후 대중목욕탕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 종전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br/> 이 교수팀은 특히 여성의 경우 방광암 때문에 인공방광수술을 받을 때 병기에 따라 질을 보존시켜 여성성을 잃지 않게 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발기 능력을 보존시켜 각광을 받는다. 물론 인공방광이 자신의 진짜 방광을 완전히 대신할 순 없다. 인공방광에는 자연 수축기능이 없어 용변 시 배를 짜내듯 눌러줘야 하는 정도의 어려움은 있다.<br/> 방광암은 비뇨기에 생기는 암 중 가장 흔하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위암, 폐암, 간암처럼 발생률이 높지 않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남자 2847명, 여자 702명을 합쳐 3549명이 방광암 진단을 받았다. 표준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7명이다. 신장암(5.9명), 자궁경부암(5.9명)보다 조금 낮은 수치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03.txt

제목: [메르스 재난] 보라매병원도 응급실 폐쇄… ‘환자 엑소더스’ 본격화  
날짜: 20150616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6100000120  
본문: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에 따른 의료 공백과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발(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자와 의심자가 방문한 의료기관들이 잇따라 응급실 등을 일시 폐쇄하면서 지역 내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삼성서울병원의 신규 외래·입원 제한으로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는 ‘환자 엑소더스’도 본격화됐다. 주변 대형병원들은 혹시 감염 의심자가 섞여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br/> ◇삼성서울병원발 메르스 불똥…응급실 폐쇄=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55)는 지난 5일 아들의 외상 치료를 위해 서울 동작구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응급실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후 이런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보라매병원은 즉시 응급실을 한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긴급 감염 차단에 나섰다. 137번 환자는 새로운 슈퍼 전파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병원 측을 더욱 긴장시켰다. <br/> 보라매병원은 CCTV 분석으로 파악한 밀접 접촉자 12명을 자택 격리시켰다. 당시 응급실 체류 환자 38명 등의 명단을 보건소에 전달해 능동 감시대상에 포함시켰다. 병원 관계자는 “16일 오전 9시까지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다. 중앙대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라매병원은 지역 서민들이 주로 찾는 시립병원이다. 하루 평균 120∼150명의 응급환자를 받아왔다. 응급실 폐쇄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br/> 암 환자가 주로 찾는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도 삼성서울병원에 다녔던 감염 의심자가 14일 오후 내원하자 응급실을 일시 폐쇄했다. 병원 측은 “환자가 암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관 7층에 머물러 추적관리 대상이 아니었지만 암 전문병원인 우리 병원 특성상 적극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응급실 잠정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환자는 이후 메르스 1, 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원자력병원은 16일 오전 8시부터 응급실 운영을 재개키로 했다.<br/> ◇환자 엑소더스 본격화…불안해하는 주변 병원들=서울 강남권 대형병원 등에는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 발표 직후 외래진료와 입원환자 이송이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 병원들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옮겨오는 환자를 막지는 않겠지만 기존 환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란 원칙을 세웠다. 환자를 선별적으로 받겠다는 방침이어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br/> 보건 당국, 병원협회, 삼성서울병원은 14일 밤 서울·수도권 병원장 20여명과 긴급 모임을 갖고 삼성서울병원발 환자 대이동에 따른 대비책을 논의했다. 다른 병원들이 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 정보를 제공받아 진료에 적극 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기존 DUR(의약품안심서비스) 시스템과 건강보험공단의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삼성서울병원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진료기록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이 정도로는 모든 감염 의심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의 대형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DUR 시스템은 약 처방 내역이 없는 사람은 확인되지 않고, 정부의 관리 대상에서 빠진 삼성서울병원 방문객이나 업무상 방문자 등 누락자들은 걸러낼 수 없다</span>”고 말했다. 또 “감염 의심자들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받고도 방문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로선 알 도리가 없다”고 우려했다.<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 [관련기사 보기] <br/>▶"전신보호 장구 착용했는데 메르스 감염"… 심폐소생술한 간호사<br/>▶삼성병원 의사 확진자 신분 또 숨겨… 정부, 이번엔 9일지나 실토<br/>▶'막상막하' 日 방사능 예방법과 韓 메르스 예방법… 페북지기 초이스<br/>▶"다 퍼뜨리겠다" 메르스 환자 병원 탈출 소동<br/>▶"박근혜 저격인가요?" 김무성, 메르스 책임론 꺼냈다 뭇매<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04.txt

제목: [메르스 재난] 철저한 통제에도 짙은 불안감…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첫날  
날짜: 20150616  
기자: 정현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6100000078  
본문: 15일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다. 부분 폐쇄 상태임을 알지만 급한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이들이었다. 그밖에는 발걸음이 뜸해 적막해 보이기까지 했다. 헛걸음하는 환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내 최대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은 어느새 환자들의 ‘기피 병원’이 돼버렸다.<br/> 삼성서울병원은 오전부터 본관과 별관의 모든 출입구에 안내직원을 배치해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했다. 직원이나 일부 내원환자를 제외하곤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모든 방문객의 체온을 적외선 카메라로 측정한 뒤 발열상태로 의심되면 다시 체온을 쟀다. 바이러스가 유포됐던 응급실은 2.5m 높이의 철제 펜스에 완전히 가려졌다. 메르스 예진실은 2개로 늘었다.<br/> 내원환자도 가려 받았다. 담당의사가 진료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환자, 기존 환자 중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환자만 사전에 연락한 뒤 들어갈 수 있었다. 환자들은 이런 조치를 불안하게 받아들였다.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H씨는 “약 타러 왔는데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 불안하다”며 “건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부친의 암 진료 때문에 온 P씨(여)는 “집에 아이도 있어서 아버지만 치료받으러 병원 안에 들어갔다”고 했다. P씨는 마스크와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br/> 반면 이 병원 미화원 A씨(여)는 “오히려 병원 내 검사가 철저해져서 다른 곳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8000여명 임직원 전원에 대해 매일 2번씩 체온 체크를 하고 있다. 이상이 있을 경우 별도의 임직원 클리닉에서 진료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8개(200여명 수용)인 격리병동 수를 19개(450여명)로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br/>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br/> [관련기사 보기] <br/>▶“전신보호 장구 착용했는데 메르스 감염”… 심폐소생술한 간호사<br/>▶삼성병원 의사 확진자 신분 또 숨겨… 정부, 이번엔 9일지나 실토<br/>▶‘막상막하’ 日 방사능 예방법과 韓 메르스 예방법… 페북지기 초이스<br/>▶“다 퍼뜨리겠다” 메르스 환자 병원 탈출 소동<br/>▶“박근혜 저격인가요?” 김무성, 메르스 책임론 꺼냈다 뭇매<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05.txt

제목: [암과의 동행-암과 영양] 순천향대병원 원종호 교수 “영양결핍은 치료효과 감소시켜”  
날짜: 20150615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50  
본문: 암환자들이 영양결핍이 될 경우 항암치료나 수술 후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수술 후나 항암치료 과정에서 오심과 구토로 인해 영양 결핍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또한 암환자의 영양결핍이나 불균형은 암환자의 합병증이나 우울증 등 암 이외에 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원종호 순천향대 서울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는 “영양결핍으로 인해 체중감소와 악액질(암 등의 말기에서 볼 수 있는 전신쇠약증세) 등이 나타나면 결국 암과 싸우기 위해 투여하는 항암제의 사용량이 줄게 된다. 결국 암환자의 영양결핍이나 불균형은 암 치료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암을 이겨내기 위한 암환자 영양관리는 중요하다. <br/> 올바른 암환자들의 영양관리에 대해 원 교수는 정답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평상시 즐겨 먹던 음식을 섭취하고, 균형있게 영양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암환자의 식습관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것이다. 원 교수는 “<span class='quot0'>흔히 야채만을 먹는다거나 고기를 먹는 것이 좋지 않다거나 하는 등의 잘못된 암환자 건강관리나 식습관 정보를 따르지 않도록 환자는 물론 가족들도 신경을 써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특히 인터넷이나 주위 사람들이 권하는 민간요법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을 잘못 섭취할 경우 암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br/> 그렇다면 암환자들은 영양관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원 교수는 “<span class='quot0'>암환자가 암치료 이전에 가장 좋아했던 음식을 평상시와 동일하게 먹는 것</span>”을 추천했다. 암 수술 이후나 항암치료 과정의 암환자들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조차 고통일 때가 있다. 따라서 과거 환자가 가장 좋아했고, 즐겨 먹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암환자의 상태에 맞게 음식을 부드럽게 섭취하거나, 짜거나 매운 음식을 삼가야 한다. 원 교수는 “암환자 영양관리는 환자는 물론 주위 가족들의 노력이 필수다. 암환자 본인이 음식 섭취가 필요한 경우 무조건 먹을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br/> 검증된 음식이나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먹는 보편적인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추천된다. 또한 육류섭취도 필요하다. 고기도 가급적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이 암환자들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암환자의 영양균형과 고칼로리 보충을 위해 암환자들이 섭취할 수 있는 형태와 종류를 선택하고, 가장 좋은 음식은 평소 즐겨 먹던 보편적인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br/> 암수술을 받았다면 영향보충으로 몸 상태를 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한다. 암과 싸우고 항암제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최적의 몸상태가 되도록 의료진과 환자,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물론 암의 종류에 따라 개별 암환자에게 맞는 영양치료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원종호 교수는 “<span class='quot1'>암환자가 오심이나 구토가 너무 심해 영향결핍이 우려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항구토제를 사용하거나, 음식섭취를 도와주는 식욕촉진제를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span>”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교수는 “부정확한 정보를 믿지 말아야 한다. 암환자와 가족들이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영양관리 방법 등에 대해 항상 공부하고, 의료진과 대화하려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06.txt

제목: [암과의 동행-완치를 향한 위대한 도전] 암이라는 ‘버거운 짐’ 서로 나눠 들자  
날짜: 2015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51  
본문: 진료실 창문 너머 풍경이 짙푸른 녹음으로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여름이 막 시작되려는 이맘때면 생각나는 환자가 있다.<br/>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병실환자 회진을 하고 있는데, 응급실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공의가 연락을 했다. 응급실에 들어서니 연락한 환자로 짐작되는 50대 여성의 주변으로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br/> 환자는 오른쪽 유방과 겨드랑이의 피부를 뚫고 나온 암 덩어리에서 진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얼굴은 심한 통증으로 일그러져있었다. <br/> 환자는 보호자도 없이 혼자 지내왔으며 치료비 때문에 병원 올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암 부위의 극심한 통증과 상처로 부랴부랴 본원의 응급실을 찾았다. <br/> 당시 환자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으며, 의료진에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본원의 사회사업실 등의 협조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 종양의 크기가 크지만 다른 장기에는 전이가 없어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자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다. <br/> 처음에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전신전이가 동반된 유방암 4기로 생각했다. <br/> 검사 결과 암은 크기가 20cm이상이었으나, 유방암의 여러 종류 중 치료결과가 좋은 점액성 유방암으로 진단됐고, 심한 겨드랑이 임파절 전이는 있지만 다른 장기에는 전이가 없어 유방암 3기 후반이라고 판단했다. <br/> 의료진은 일단 암 덩어리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항암치료를 먼저 시행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환자가 폐경 전 상태이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강한 양성을 띠는 점액성 유방암 환자이므로 에스트로겐을 차단하는 약물인 타목시펜을 투여하고, 난소 절제술까지 고려해보았지만 역시 효과가 없었다. <br/> 고심 끝에 유방암센터에서는 외과를 비롯해 영상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의료진들과의 상의를 통해 방사선치료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br/> 다행히 환자는 방사선치료 효과가 좋아 암 크기를 많이 줄여 처음엔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수술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환자는 현재 외래에서 경구복용 호르몬치료만 시행하면서 재발없이 정기검진을 위해 내원하고 있다. <br/> 환자는 처음 응급실을 찾았을 때의 충격적인 모습은 간데없이 유방암 치료 후 살고자하는 의욕을 되찾아 생업에도 열심히 종사하고 있다.<br/> 유방암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진료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한다.<br/> 암 진단은 예전처럼 사형선고가 아니며, 암은 혼자 감당해야하는 아픔도 아니다. 옛 말에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암환자는 해당기관을 비롯하여 가족과 친지, 친구 등 주변의 도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들과 함께 ‘암’이라는 버거운 짐을 나누어 든다면 암과의 긴 여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br/>노우철 원자력병원 유방암센터장<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07.txt

제목: [암과의 동행-갑상선암] ‘수술=완치’로 생각하면 곤란… 치료 후 꾸준한 관리가 더 중요  
날짜: 20150615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53  
본문: 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이자, 국내에서 급속도로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암이 있다. 바로 '갑상선암'이다. 갑상선암은 진행이 매우 느린 암으로 일명 '거북이암'이라고 불린다. 갑상선암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예후가 좋지만 장기간 경과 후에는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br/> 갑상선 암 수술 후에도 끝이 아니다. 암의 재발을 막으려면 치료 이후에 꾸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갑상선암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지난 5월 22일에 진행된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강좌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갑상선암센터의 장항석 교수(연세대 의대 외과)가 강연자로 나서 '갑상선암, 그 이후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암 수술 후 치료와 관리법에 대해 환자들에게 소개했다.<br/>◇갑상선암 재발 방지 중요=갑상선암은 10년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비교적 치료성적이 좋은 암이다. 그러나 암 수술 이후, 여전히 대다수의 환우들은 괜한 공포와 잘못된 지식으로 ‘실체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장항석 교수는 “환자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적정 치료시기를 놓치고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아는 것이 힘이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아야 수술 후 관리에 대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br/> 장 교수는 “갑상선암에서 가장 확실한 치료는 수술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며 “암 수술 후 평생동안 지속적인 몸 관리가 중요하다. 재발을 방지하고 잔존, 혹은 재발된 병소를 치료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강조했다.<br/>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수술 후 부작용’이다. 장 교수는 “미국의 경우 한해 100개 케이스 이하로 수술하는 의사에게 80%의 환자가 수술을 받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수많은 수술케이스가 있는 의사들이 있다. 이미 90%가 넘는 환자들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고 있으며 수술 후 부작용을 겪는 환자는 1% 내외인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br/> 수술 후 재발 위험에 대비해 꾸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 시카고대학에서 27년간 추적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재발률은 27%였으며 평균적인 재발 시기는 8.1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의 11%는 수술 후 20년 이후에도 재발된다. 때문에 수술 후 재발과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생 꾸준히 관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수술 후 부작용과 재발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며 해결법은 무엇인지 본질을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br/> 갑상선암은 병기가 높을수록, 원격전이가 일어날수록 재발률과 사망률이 높아진다. 갑상선암이 발견 돼도 환자가 자의로 판단해 수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2∼3㎝의 작은 암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기지만 나중에 커지면 겉잡을 수 없이 위험해진다. 이에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 교수는 “갑상선암은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은 곧 사람 목을 졸라 서서히 죽이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며 “한 환자의 경우 30년 전 목에 작은 이물감이 만져졌는데 내버려뒀다. 알고보니 ‘미분화’ 갑상선암이다. 결국 암이 핸드볼공 크기로 진화해서 생명이 위태로웠다. 초기에 수술을 하여 암이 커지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갑상선암 수술 후 보존치료…갑상선호르몬 치료와 방사성 요오드 치료=갑상선암 수술 후에는 재발을 방지하고 잔존 혹은 재발된 암세포를 치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치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갑상선암 수술 후 보조 치료는 크게 갑상선 호르몬 치료와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있다. 갑상선 호르몬 치료는 신지로이드 복용을 말한다. 수술로 인한 갑상선 절제로 체내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고 갑상선호르몬을 투여해 갑상선자극호르몬(TSH)의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해 갑상선 분화암의 성장을 억제하여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br/> 그는 수술 후 갑상선 호르몬의 적정 농도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지로이드 복용 시에도 주의사항은 있다. 장 교수는 “아침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 일정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 만약 복용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생각난 시점에 바로 복용하면 된다. 갑상선 반절제 환자도 병기1에 준해 재발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복용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br/> 갑상선암의 일차적인 치료는 갑상선 절제수술이다. 하지만 수술을 통해 눈에 보이는 갑상선을 완전히 절제했다 해도 아주 적은 양의 갑상선 조직이 남아 있다가 서서히 자라 암이 재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암 조직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필요에 따라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를 투여해 남아 있는 갑상선 조직이나 전이된 암조직을 파괴하게 된다. 장 교수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표적치료의 효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치료는 임신과 수유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환자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br/>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 4주전부터는 갑상선 호르몬 약을 중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갑상선기능저하 증상을 겪는다. 이때 일상생활 활동이 힘들고 운동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장 교수는 “실제 많은 환자들이 요오드를 복용하는 날을 가장 힘들어한다. 이는 요오드 약을 복용해서가 아니라 호르몬제 중단으로 인해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r/> 방사성 요오드 치료할 때 호르몬제를 계속 복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인간 재조합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타이로젠 등을 투여하면 호르몬제 중단 없이 치료가 가능하며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겪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방지하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br/> 모든 치료가 끝나면 재발 방지를 위해 혈청 글로불린 검사, 초음파 검사, 요오드 전신스캔 등을 통한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보통 수술 후 처음에는 3∼6개월마다, 5년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진행한다. <br/> 방사성 요오드 치료 도중 임신을 해도 될까. 장 교수는 “방사성 요오드는 투여 후 그 효과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피임해야 합니다. 치료 후 1년 후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오랫동안 검증됐으며,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치료법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 후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br/> 갑상선암이 재발된 경우 80%가 국소 재발, 20%가 원격 재발이 일어난다. 국소 재발은 재수술이 가능하지만 암이 다른 장기로 원격 재발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장 교수는 “<span class='quot0'>갑상선암이 먼지 같이 퍼져 있거나, 분화가 나쁜 암, 암이 불완전하게 절제됐을 경우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갑상선암을 초반에 얕잡아보고 치료를 소홀해서는 안된다</span>”고 조언했다. <br/> 장 교수는 갑상선암 환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언급했다. 갑상선암 환자는 통증, 식욕 저하, 피로감 등의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불면,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증상을 함께 겪는다. 이에 따라 가족과 직장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장 교수는 “신체 증상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의사의 판단을 믿고 치료에 적극 임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08.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들이 전하는 도전 의지… 유방암, 맹장수술 했다 생각하면서 취미생활도 즐겨요  
날짜: 20150615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38  
본문: 국민일보 건강섹션 ‘암과의 동행’에서는 암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암치료 과정에 도움이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암환자와의 대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폐암·위암·유방암·간암·대장암 환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암환자들이 힘든 항암치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br/><br/>전지현(가명·40대)<br/>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던 1년차 새색시 전지현(가명)씨. 어느 날부터 가슴에 큰 멍울이 만져져 병원에 들러 유방암 검진을 받게 됐다. 2004년 1월 어여쁜 새색시 전씨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의사로부터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암 판정을 받았던 날 전씨는 그야말로 “<span class='quot0'>하늘이 노래지고 눈앞이 캄캄해 진 기분이 들었다</span>”고 표현했다. 하지만 더욱 더 그녀를 두렵게 한 것은 암 자체도 있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다.<br/> 암 투병을 하면서 치료 과정보다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주변 시선’이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괜찮을거야’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 뒤에 ‘뭐 때문에 암에 걸렸을까’, ‘불쌍하다’ 등등 숨은 의미가 느껴질 때 더욱 더 힘들었다는 것. <br/> 암 치료를 받으면서부터 전씨의 일상생활은 ‘유기농 라이프’로 변했다.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던 시기에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주가 됐다. 특히 전씨는 “<span class='quot0'>야채와 단백질 섭취가 가능한 음식들로 차려진 집밥을 꼬박꼬박 챙겨먹고 각종 취미활동과 교회활동,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을 했다</span>”고 말했다. 때때로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서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했다. 전씨는 항암치료 중 구토와 어지럼증, 기운 없음,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유방복원수술을 하지 않아 ‘여성’으로서의 위축감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br/> 10년이 지난 그는 지금 완치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커리어우먼이다. 유방암 환자들은 재발이 많아 수술 후 10년간 예후를 확인해야 한다. 때문에 유방암 수술 후 외과, 항암내과, 방사선과, 산부인과, 내분비내과를 함께 다녀야 한다. 유방암 수술 이후에도 치료비 부담은 여전했다. 전씨는 “암 치료 후 산부인과에 타목시펜 복용 부작용 등의 요인을 살피고자 자궁내막암 검진을 했다. 산부인과 진료비가 생각보다 비싸다. 기본 진료비 외에 초음파와 자궁내막암 검사 등의 검사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범위에 유방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산부인과의 일부 검사비 치료비 등이 지원되지 않았다. 검사비만 한달에 4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약물 부작용이라는데 왜 유방암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암별 치료비 지원에 좀 더 세심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br/> 마지막으로, 전씨는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암 투병 중에는 건강한 생활을 하시되 너무 자신의 병세에 몰두하지 말고 사람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편안하게 생각하라”며 “맹장수술을 했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몸에서 필요한 것을 제거한 것일 뿐이니 지나치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09.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면역항암제] 美 임상종양학회서 이목 집중  
날짜: 20150615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45  
본문: 의학기술 발달과 항암제 개발로 암은 ‘정복 가능한’ 질병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사망한다. 2012년 전 세계적으로 연간 820만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암이 조기 발견되면 종양 절제 수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암이 많이 진행된 환자, 난치암, 암이 재발된 환자들은 항암제를 통해 전이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br/> 최근 항암제는 1∼2세대를 거쳐 3세대까지 진화했다. 1세대 항암제들은 암세포를 빠르게 사멸하는 효과를 지녔지만,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환자에게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 2세대인 ‘표적항암제’는 특정 유전자 변이에 의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해 항암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다만 표적항암제는 암 유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만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하고, 치료제 내성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한다는 점이 한계다.<br/> 최근 3세대 항암제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면역항암제’다. 올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는 수만명의 종양 전문의가 모여 암 연구의 동향과 신약에 대해 담론을 나눴다. 이번 학회의 화두는 단연 면역항암제였다. <br/> 올해 새롭게 발표된 임상 연구 중 다양한 암에 대한 펨브롤리주맙의 효과를 뒷받침 해주는 혁신적 데이터가 종양 전문의들의 주목을 받았다. 펨브롤리주맙은 현재 흑색종에 적응증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 ASCO에서 13개 암 종에 대한 펨브롤리주맙 단독요법 및 병용요법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공개돼 적응증 확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얻었다. <br/> 항암제가 반드시 특정 암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암에서의 임상을 통해 효능을 보이면 적응증이 추가돼 다양한 환자군에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면역항암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해 신속허가를 하는 등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의학계가 면역항암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신체의 면역체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암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암에서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 면역항암제는 흑색종, 폐암, 유방암, 위암, 신장암, 림프종, 두경부암 등 30가지 이상의 암종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에 기반해 활발한 임상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올해 ASCO에서는 흑색종을 비롯해 식도암, 난소암, 비소세포폐암을 포함한 여러 난치성 암에 대해 종양 감소 효과를 보여 그 가능성을 뒷받침했다.<br/> 면역항암제와 관련 난치성 암으로 알려진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약 85∼90%를 차지한다. 매년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약 50만명의 환자들이 비소세포폐암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ASCO에서는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에서 나온 초기 결과가 최초로 발표됐다.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 있어 표준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펨브롤리주맙의 병용요법이 PD-L1 발현에 관계없이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들에게 유망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다. <br/> KEYNOTE-021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은 25명의 환자 중 21명(88%)에게 종양감소 효과를 보였고 28%의 전체 반응률을 보여 항암 효과를 입증했다. 아직까지 면역항암제가 획기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을지, 다양한 암종에 사용할수 있을지 추가 임상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면역항암제가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과 한계를 딛고 암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의학계는 물론 환자들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10.txt

제목: [암과의 동행] 항암제 건보적용 아직 ‘높은 벽’… 약값 마련 어려워 진료포기 속출해서야  
날짜: 20150615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49  
본문: 암은 이제 불치병이 아니라 만성질환이 되어가고 있다. 예전처럼 무조건 죽는 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 관리한다면 만성질환처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가 평등하게 치료를 받기는 어렵다. 일부환자는 치료제가 없거나, 치료제가 있어도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비용이 높아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br/> 최초의 항암제는 나이트로젠 머스타드(Nitrogen mustard)로 2차 세계대전에서 화학무기로 사용된 독성물질이다. 악성종양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1943년 호지킨 림프종 치료에 사용됐는데 분화속도가 빠른 정상세포까지 구분 없이 공격해 탈모·구토·합병증 등의 강한 부작용이 있다. 1977년에는 전립선암에서 70%의 치료효과를 보이는 백금계 화학치료로 3제 복합제가 사용됐고, 1986년 인터페론 알파, 1990년대에는 항원억제 유전자가 발견되며 암 치료의 새로운 변기를 맞게 된다.<br/> 1997년 2세대 항암제인 표적치료제가 처음 등장했는데 특정 유전자변이에 의한 종양세포만을 표적해 작용함으로써 전신 화학항암요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반응율은 높였지만 암 유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치료제의 내성발현이 문제로 제기됐다.<br/> 최근 3세대 항암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면역항암제’이다. 몸속 면역세포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항암제인데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암세포를 면역체계가 인지하고 공격하도록 돕는다.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도 적고, 치료 효과가 좋아 암을 만성질환처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최신 치료제다. 일례로 폐암의 경우 발견됐을 때는 이미 치료 시기가 늦은 경우가 많은데 최근 면역항암제 임상연구에 따르면 폐암에 효과적인 유효성을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며 비소세포성폐암에 획기적인 치료제로 부각되고 있다.<br/> 문제는 이러한 효과적인 치료제들을 환자들이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인데 가격이 비싸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환자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면역항암제가 표적치료제 등과 병용했을 경우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두 가지 약제를 비보험으로 사용했을 경우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치료제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 좋은 치료제다. 약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값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11.txt

제목: [암 수술 잘하는 병원-고려대 안산병원 두경부암 클리닉] 과도한 음주·흡연땐 두경부암 위험 높아  
날짜: 20150615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31  
본문: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이름의 ‘두경부외과’ 진료실에서는 코-입-목 부위에 생겨난 악성 종양, 두경부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암환자를 만나볼 수 있다. 두경부암은 한국인을 위협하는 10대 암 중 여섯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지만 발생빈도에 비해 질환에 대한 인지도와 경각심이 낮은 암이다. 권순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두경부암클리닉 교수를 만나 질환의 특징과 치료적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br/> ◇두경부암 발생률 6위, 경각심은 최하위=두경부암은 종양이 생긴 위치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다. 코에 생겼다면 비·부비동암, 혀에 생겼다면 설암, 입안과 입술에 생겼다면 구강암이다. 또 숨을 쉬고 발성하는 기관인 인두와 후두에 종양이 생겼다면 각각을 인두암, 후두암이라고 부른다.<br/> 이처럼 설명하기 복잡한 두경부암 자체의 특성 때문에 질환의 인지도와 경각심을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br/> 하지만 권 교수는 인터뷰 내내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두경부암이 국가 암 검진프로그램에 속해있지 않는 만큼 얼마나 빨리 진단하느냐는 전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 중 설암과 구강암, 후두암은 질병 신호라고 할수 있는 명확한 초기증상이 있다. 설암과 구강암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3주 이상 낫지 않는 궤양이다. 피곤하면 자연히 생기는 입 속 궤양은 설암과 구강암을 알리는 또 다른 신호이기도 하다. 권 교수는 지속적으로 한 곳에 발생하는 제자리 궤양이거나 약물요법으로도 낫지 않는 궤양일 때 설암과 구강암을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게 치료예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초기병변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한편 인두암, 후두암은 목에서 쉰 목소리가 3주가 이상 지속된다거나 목구멍에서 이물감이 느껴지고, 음식물을 삼키는데 통증을 느낀다면 의심해볼 수 있다. 권 교수는 “의료진의 치료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진단이 늦어지면 살더라도 예쁜 목소리를 영영 못 낼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평생 못 먹을 수 있다. 두경부암은 먹고, 말하는 즐거움을 빼앗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과도한 흡연과 음주가 두경부암의 가장 큰 위험인자이므로, 흡연과 음주를 과도하게 즐기는 경우 두경부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고대안산병원 두경부암클리닉 어떤 곳?=권 교수는 ‘두경부’라는 단어가 일반인에게 어렵게 인식되는 점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는“두경부를영어로 하면 Head and Neck(머리와 목)”이라고 설명하며 “두경부외과는 뇌 아래부터 가슴 윗부분 사이에 위치한 코, 혀, 입, 인·후두, 갑상선, 침샘 등에 생겨난 악성종양을 제거해 치료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br/> 권 교수는 코-입-목에 이상을 느꼈을 때 지체 없이 두경부외과가 있는 대형병원을 찾을 것을 조언했다. 대형병원의 경우 빠른 조직검사가 가능하고, 이후 암을 진단받았을 때 각 신체기관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타 과와의 협진체계가 잘 갖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br/> 권 교수는 “<span class='quot0'>병원을 선택할 때 해당 의료진이 구강과 혀, 후두의 기능을 보존하는 치료전략에 얼마나 중점을 두는지도 따져봐야한다</span>”고 조언했다.<br/> 고대안산병원은 방사선 암치료기 래피드아크를 도입해 두경부암 치료방법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기기는 종양의 위치와 모양에 따라 멈추지 않고 360도 모든 방향에서 방사선을 조사해 치료시간을 단축하고 방사선양이 조절돼 정상조직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한다. <br/>치료기간과 부작용을 줄여 고령의 두경부암 환자도 방사선 치료가 가능해진다. 권 교수는 “두경부암의 종류와 그에 따른 치료법이 다양한 만큼 전문의와 상담 후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해야한다. 두경부를 지키는 원칙은 몸에 대한 관심이다. 쉰 목소리, 궤양 등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조직검사가 가능한 큰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12.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겉만 요란한 의료비 지원… 막상 신청하면 겹겹이 차단막  
날짜: 20150615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34  
본문: 수술비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검사비와 입원비, 약값 등 암환자가 완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은 상당하다. 특히 그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의 암 판정은 곧 가족 경제의 무너짐을 뜻한다. 아내는 암환자가 된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생업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암환자의 가정은 더욱 힘겨워진다. <br/> 암이 간에서 폐로 전이된 환자 박모씨를 만났다. 박씨는 암 진단후 급격히 나빠진 가계를 때문에 괴로웠다고 말한다. 박씨는 “동사무소를 찾아갔다. 당시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를 책임져준다는 얘기를 들은 뒤였다. 찾아보니 의료급여특레제도, 장애연금 등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막상 찾아간 동사무소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내 상태가 국가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내게는 중, 고등학생 아들, 딸이 있다. 가족 중 나 말고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매달 각종 치료비로 몇 백 만원을 지출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가늠할 수도 없다. 겨우 몇 십 만원 하는 자녀 고등학교 등록금도 낼 형편이 안 되는데, 왜 내가 해당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동사무소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의 복지제도는 암환자가 거의 죽기직전의 상태가 돼야 겨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토로했다. <br/> 박씨는 동사무소를 몇 번씩 찾아간 후에 겨우 쌀 5㎏짜리를 받아왔다고 한다. 분명 쌀을 받으러 간 것은 아닐 것이다. ‘쌀이라도 받아왔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당시 겪었던 좌절감이 묻어난다. 박 씨는 암환자가 되기 전부터 집안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고, 암이 간에서 폐로 전이돼 치료과정이 복잡했다. 치료가 복잡한 만큼 지출되는 의료비가 많았다. ‘암으로 죽기 직전의 상태가 돼야 겨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의 말은 사회복지 정책입안자들이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말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그 가짓수만 많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청하러 간 환자들에 생채기만 입히는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볼 때다. 박 씨는 기자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그는 주위에서 암치료 과정에서 생계가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대화 중 ‘제도 안 사각지대’라고 말하곤 했다.<br/> “기자님, 기자님이 알려주세요. 복지부가 만든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 제도 때문에 또 상처 입는 암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암환자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네들 보기에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알아서 혜택을 받아가라는 그 모순된 제도를 세상에 알려주세요.”<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1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들이 전하는 도전 의지… 폐암, 용기내어 진료 수용하며 틈틈이 체력 보충 충실  
날짜: 20150615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36  
본문: 국민일보 건강섹션 ‘암과의 동행’에서는 암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암치료 과정에 도움이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암환자와의 대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폐암·위암·유방암·간암·대장암 환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암환자들이 힘든 항암치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br/><br/>이가영(가명·50대)<br/>“배가 아펐는대 그냥 사소하게 지나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10일 동안 대변도 안보고 해서 집에서 관장을 하는데 대변에서 피가 많이 나와 딸이 간호사라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병원에 가게 됐죠.” 지난 2013년 2월 대장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가영씨는 현재 대장암의 폐와 뇌 전이로 인해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br/> 이가영씨는 처음에 대장암이란 소리를 듣고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나’ 울기도 많이 하고 힘들어했다. 집안에 대장암을 앓은 사람이 없어서 생각도 못했는데, 대장암으로 잘 알려진 모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힘들다는 항암치료도 견뎌냈다. 항암치료를 받던 도중에는 너무 힘들어 그만 두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으나, 의료진의 적극적인 지지로 믿고 치료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폐로 전이가 되면서 다른 병원에서 암과의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폐전이 수술과 머리 수술을 하게 됐죠. 뇌 수술 후 최근에 찍은 PET CT 사진에서 폐전이 왜에는 괜찮다고 하더군요.”<br/> 항암치료 과정에서 다섯 번이나 수술을 받았다는 이가영씨는 처음 수술 받을 때에 비해서는 마음이 많이 담담해졌다고 한다. 처음에는 수술 이야기만 해도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말했다.<br/> 처음 항암치료를 받던 그녀는 항암제와 항암치료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부족했다. 하지만 의료진이 치료를 잘 해주리라는 믿음을 갖고 치료에 임했다고 한다. 물론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항암치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했지만, 오로지 의료진들을 믿고 치료를 받았는 것이다.<br/> “<span class='quot0'>지금 내가 받는 치료에 충실해야죠.</span>” 암 치료를 받으며 겪은 일상생활에 대해 이가영씨는 “<span class='quot0'>집에 있으면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조금씩 하는 여유가 다소 생겼다</span>”며 “<span class='quot0'>운동을 해서 체력이 돼야 다음 치료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니냐</span>”고 말했다.<br/>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는 몸이 너무 힘들고 울렁거려서 밥 먹는 게 가장 힘들었다는 그녀는 발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손발이 저리기도 했다고 항암치료 과정의 고통을 전했다. “항암치료를 안 받아 본 사람들은 몰라요. 항암이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암 투병을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는 선생님들을 믿고 치료 열심히 받자는 생각이 강합니다.”<br/> 주변 암환자들을 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는 그녀는 그래도 지금은 과거보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아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생님들을 믿고 열심히 치료 받을 거고 의료진 여러분들은 너무 잘해주셔서 좋아요. 다른 암환자들에게도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의료진)들을 믿고 하란대로 잘 따르면 암을 이겨내고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1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요관암, 원인 규명 안된 희귀암… 무통성 혈뇨땐 의심  
날짜: 20150615  
기자: 박주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33  
본문: 요관암은 신장(신우)과 방광을 연결하는 관인 요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요로상피세포에서 유래한 요로상피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4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보면 2012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22만4177건의 암 가운데 요관암은 443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0.2%에 불과한 희귀암이다.<br/> ◇정확한 원인 파악 안 돼…혈뇨·통증·수신증 등 나타나=요관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소변이 요관에 머무는 시간과 비례해 이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직업적인 특성상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염료나 도료 등인 벤진, 베타나프틸라신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암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흡연, 유전적 요인, 진통제인 페나세틴이나 항암제(사이클로포스파미드)를 사용한 경우 발생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br/> 증상은 일반적으로 60∼70% 환자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무통성 혈뇨가, 약 12%에서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현미경적 혈뇨가 나타난다. 이와 함께 요관이 혈전으로 막힌 경우나 암이 주위로 진행된 경우 주로 옆구리 쪽에 통증이 느껴진다. 또 종양이 서서히 자라면서 요관을 막아 상부요로가 확장돼 일어나는 수신증(hydronephrosis)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밖에도 체중 감소, 식욕 감퇴, 뼈의 통증 등의 증상이 있다. 최근에는 정기검진 중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통해 별다른 증상이 없는 데도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br/> ◇전이 여부 따라 치료 방법 달라…전이암은 항암치료 시행=요관암 치료는 암이 전이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전이가 없을 경우에는 신요관전적출과 방광부분 절제술 등 근치적 수술법과, 요관부분 절제술 등 보존적 수술법 등 외과적 치료가 시행되지만, 종양이 다른 장기로 전이한 경우에는 외과적 치료 보다는 항암화학요법이 실시된다.<br/> 근치적 수술법은 암이 발생한 쪽의 신장, 요관, 방광벽의 일부를 모두 절제하는 방법으로 요관암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존적 수술법은 신장이 하나밖에 없거나 양측성으로 발생한 경우, 또 신부전 등을 동반한 환자에서 주로 시행된다. 외과적 치료를 시행하면 한쪽 신장을 떼어내도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은 거의 없는 편이다. 인공 투석이 필요한 경우도 매우 드물다.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은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신장 기능 장애, 항암제에 의한 오심, 구토, 식욕 부진, 탈모 등이 있다. 요관암은 암세포의 병기에 따라 생존율에 차이를 보인다. 병기에 따른 5년 생존율을 보면, 각각 생존율이 표재암(T1병기), 국소암(T2병기 이하), 국소진행암(T3-4병기), 전이병변을 동반한 전이암의 경우 각각 95.1%, 88.9%, 62.6%, 16.5%로 보고되고 있다.<br/> 서호경 국립암센터 전립선암센터 전문의는 “<span class='quot0'>요관암의 치료는 전이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span>”며 “<span class='quot0'>전이가 안 된 로우 그레이드로 진단되면 비교적 치료가 쉽지만 근육층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게 되면 신장, 요관, 방광 일부 적출 수술 이후 항암치료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이후에도 방광 내 재발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박주호 기자 epi0212@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15.txt

제목: [암과의 동행-암 극복위해 뛰는 사람들] 임민경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장  
날짜: 20150615  
기자: 박주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29  
본문: 암은 불과 얼마 전만해도 ‘불치병(不治病)’이라는 이미지에 덧씌워져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사용돼 왔다. 다행히 지금은 불치병보다는 난치병(難治病)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졌지만, 지금도 가족이나 주위에 암 환자가 생기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다. <br/> 마음을 추스르고 좋은 정보를 찾아 인터넷 서핑이나 주위의 조언을 듣지만 딱히 참고할 만한 내용도 없다.<br/>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1577-8899)는 이때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위암, 폐암 등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은 물론 소아암이나 희귀암 등 100여개 암종에 대한 정의, 발생부위, 증상, 진단법, 병기, 치료방법, 식생활, 생활법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암 관련 교육, 호스피스, 통계, 강좌 등 다양한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 국가암정보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임민경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 부장을 만났다. <br/> -언제 만들어졌나<br/> 국립암센터 설립(2000년) 때부터 국가 차원에서 암과 관련된 믿을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2004년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를, 2005년 상담센터를 차례로 오픈했다. 처음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17개 암종을 시작으로 최근 소아암, 희귀암 등 100개 암종의 데이터를 아우를 정도로 성장했다.<br/> -국가암정보센터만의 장점이 있다면<br/> 국가암정보센터는 단지 정보만 주는 곳은 아니다. 암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최신 암 통계자료, 암환자를 위한 국가지원프로그램과 동영상, 이미지, 그림책, 만화, 리플릿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암교육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암 포털이라고 보면 된다. 암 환자나 가족은 물론 보건소 등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14명의 간호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상담한다.<br/> -어떻게 운영되나.<br/> 100% 정부 예산(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된다. 연간 예산은 9억원 정도다. 주로 암 예방 홍보를 위한 일에 쓰인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 암예방 수칙 UCC 공모전’ 등 행사는 물론 다양한 암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br/> -보완할 점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br/>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 아무리 좋은 정보도 잘 쓰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다. 또 캔서 서바이버(Cancer survivor, 암 생존자 또는 암 경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는 물론 이들이 암예방 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br/> -당부하고 싶은 말은?<br/> 보다 많은 분들이 국가암정보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과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국가암정보센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신 연극배우 이주실씨나 방송인 박해미씨, 홍서범·조갑경 부부 등 많은 유명인들이 지금까지 도움을 많이 주셨다. 다른 유명인들도 암예방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br/>박주호 기자 epi0212@kukimedia.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16.txt

제목: [질환 통계-노인&암] 남성은 위암·여성은 갑상선암이 가장 많아  
날짜: 20150615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44  
본문: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망 1위는 암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다빈도 노인 보유암은 남성의 경우 △위암(6만2267명) △대장암(5만2688명) △전립선암(5만2107명) △폐암(4만1395명) △간암(2만6376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는 폐암(1905억2406만원), 대장암(1496억1296만원), 위암(1223억2681만원) 순이었다. 여성은 △갑상선암(3만7862명) △대장암(3만4932명) △위암(2만8937명) △유방암(2만4338명) △폐암(1만7258명) △간암(1만1910명)의 순으로 많았는데 진료비는 대장암(1030만5079만원), 폐암(722억4419만원), 유방암(587억8980만원), 위암(584억9076만원) 순으로 높았다.<br/> 그렇다면 이들 환자가 찾는 의료기관은 어디일까. 환자 5명 중 3명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남성, 환자 중복)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67%로 가장 많은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종합병원’ 34%, ‘의원’ 8.4%, ‘병원’ 8% 순이었고, ‘한방병원’에서도 25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갑상선암(여성, 환자 중복) 역시 ‘상급종합병원’이 61%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 31%, ‘의원’ 11%, ‘병원’ 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방병원에는 7명이 있었다.<br/>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사망원으로 2000년 이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의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br/> 자료에 따르면 노인 암검진 수검률은 전 연령 평균(43.6%)보다 낮은 37.6%(2013년 기준)에 그쳤는데 연도별 노인 암검진 수검률을 보면 2011년 46.8%, 2012년 33.7%, 2013년 37.6%로 평균 수검률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일반검진 수검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0∼60대 수검률 73.9%에 비해 14.8%나 낮게 나타났다.<br/> 노인들의 암 검진 수검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이유로 퇴직 후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span class='quot0'>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지만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검진이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기 때문에 암검진 수검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노인들이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암 등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span>”라고 주장했다.<br/> 이러한 가운데 2020년 65세 이상 노인 암환자의 1인당 의료비는 2010년 747만원에서 1039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원광대 김종인 교수)도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성별로는 남성(1083만원)이 여성(969만원)에 비해 더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비용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17.txt

제목: [이것이 궁금해요 Q & A] 갑상선암  
날짜: 20150615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35  
본문: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률 1위 갑상선암. 갑상선암은 최근 유병률이 많이 증가하는 대표적 암 중 하나다. 그만큼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많은 환자들은 갑상선암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 치료 후 식이요법 등에 대해 궁금해 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장항석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갑상선암 수술 후 치료 관리’에 대한 환자들의 궁금점들을 추려봤다. <br/> Q. 방사성 요오드 치료 시 주의할 점은.<br/> -방사성 요오드 치료할 때 호르몬제를 중단하기 때문에 환자의 대부분이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을 겪는다. 따라서 운전이나 중요한 계약 업무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치료 시 흡수되지 않은 방사성 요오드는 주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주변인에게 간접적인 방사능 오염을 줄이기 위해 손을 씻은 후에는 여러 번 물로 헹구고, 변기도 사용 후 2∼3회 정도 물을 흘려 보내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퇴원 직후에는 안아줘야 되는 아주 어린 아이나 임산부와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 <br/> Q. 방사성 요오드 치료 시 호르몬제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br/> -인간 재조합 갑상선 자극 호르몬으로 타이로젠이 있다. 타이로젠을 투여하면 호르몬제 중단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갑상선 호르몬제 중단이 필요 없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방사성 요오드의 체외배출이 촉진된다. 또한 치료 부위 외에 나머지 몸에 불필요하게 방사성 요오드가 노출되는 것을 줄여주고, 방사성 요오드로 나타날 수 있는 침샘 관련 부작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타이로젠은 ▲갑상선호르몬 억압 치료를 끊음으로 생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환자 ▲TSH 억압 치료를 장기간 중단함으로 암 증식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는 환자 ▲갑상선 호르몬 복용을 중단했으나 TSH 혈중 농도가 상승하지 않는 무반응 환자 ▲협심증환자, 신부전환자 등에서 사용하며 평생 1회 보험이 적용된다. <br/> Q. 수술 후 쉰 목소리나 후두염 증상과 목 관리법은. <br/>-수술 후 2일째부터는 약한 스트레칭, 1개월 후부터는 부드럽게 완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고, 3개월 이후에는 수영과 찜질방 이용도 가능하다. 수술 후 흉터는 흉터 관리 제품이나 치료 등을 통해 관리하면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 환자에 따라 수술 부위가 많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 수술 후 성대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 목소리에 변화가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관리를 위해서는 물을 많이 먹고 미세먼지가 적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Q. 갑상선암 수술 후 식이요법은 어떻게 관리하나. <br/>-암이 발생하면 에너지 소비량 및 영양 요구량이 증가하고 소화 흡수율이 감소하여 체내 대사에 변화가 있고, 식욕 부진, 구토 등으로 인해 음식 섭취량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근육량 손실, 체중 감소에 의해 영양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다.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면 감염 위험 및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증가하는 반면, 항암ㆍ방사선 치료 반응이 감소한다. 따라서 적절한 영양 섭취를 통해 치료에 대처할 최상의 요건을 만들어 항암 치료 효과를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환자에게 특별히 좋은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균형 있는 식사가 중요하다.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고 섬유소가 풍부한 잡곡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기름기가 많고 가공된 육류와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해야 한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br/> Q. 갑상선암 유전 가능성과 자녀의 갑상선암 검사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br/>-유전되는 갑상선암은 5% 정도다. 다만 가족 중 유독 갑상선암에 많이 걸렸을 경우, 가족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갑상선암 발병이 걱정이 된다면 학교생활 등이 영향이 없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사춘기가 지나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면 된다. 하지만 가족성 수질암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부모가 가족성 수질암일 경우 자녀들의 갑상선암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아진다. 이 경우에는 가족 모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검사해 암의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장윤형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18.txt

제목: [이것이 궁금해요 Q & A] 갑상선암  
날짜: 20150615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141  
본문: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률 1위 갑상선암. 갑상선암은 최근 유병률이 많이 증가하는 대표적 암 중 하나다. 그만큼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많은 환자들은 갑상선암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 치료 후 식이요법 등에 대해 궁금해 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장항석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갑상선암 수술 후 치료 관리’에 대한 환자들의 궁금점들을 추려봤다. <br/><br/> Q. 방사성 요오드 치료 시 주의할 점은.<br/><br/> -방사성 요오드 치료할 때 호르몬제를 중단하기 때문에 환자의 대부분이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을 겪는다. 따라서 운전이나 중요한 계약 업무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치료 시 흡수되지 않은 방사성 요오드는 주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주변인에게 간접적인 방사능 오염을 줄이기 위해 손을 씻은 후에는 여러 번 물로 헹구고, 변기도 사용 후 2∼3회 정도 물을 흘려 보내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퇴원 직후에는 안아줘야 되는 아주 어린 아이나 임산부와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 <br/><br/> Q. 방사성 요오드 치료 시 호르몬제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br/><br/> -인간 재조합 갑상선 자극 호르몬으로 타이로젠이 있다. 타이로젠을 투여하면 호르몬제 중단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갑상선 호르몬제 중단이 필요 없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방사성 요오드의 체외배출이 촉진된다. 또한 치료 부위 외에 나머지 몸에 불필요하게 방사성 요오드가 노출되는 것을 줄여주고, 방사성 요오드로 나타날 수 있는 침샘 관련 부작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타이로젠은 치료할 때 제한없이 평생 1회 보험적용이 가능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추적검사를 할 때에는 ▲갑상선호르몬 억압 치료를 끊음으로 생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환자 ▲TSH 억압 치료를 장기간 중단함으로 암 증식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는 환자 ▲갑상선 호르몬 복용을 중단했으나 TSH 혈중 농도가 상승하지 않는 무반응 환자 ▲심폐기능 저하 환자에 한해서 평생 1회 보험이 적용된다. <br/><br/> Q. 수술 후 쉰 목소리나 후두염 증상과 목 관리법은. <br/><br/>-수술 후 2일째부터는 약한 스트레칭, 1개월 후부터는 부드럽게 완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고, 3개월 이후에는 수영과 찜질방 이용도 가능하다. 수술 후 흉터는 흉터 관리 제품이나 치료 등을 통해 관리하면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 환자에 따라 수술 부위가 많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 수술 후 성대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 목소리에 변화가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관리를 위해서는 물을 많이 먹고 미세먼지가 적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br/><br/> Q. 갑상선암 수술 후 식이요법은 어떻게 관리하나. <br/><br/>-암이 발생하면 에너지 소비량 및 영양 요구량이 증가하고 소화 흡수율이 감소하여 체내 대사에 변화가 있고, 식욕 부진, 구토 등으로 인해 음식 섭취량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근육량 손실, 체중 감소에 의해 영양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다.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면 감염 위험 및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증가하는 반면, 항암ㆍ방사선 치료 반응이 감소한다. 따라서 적절한 영양 섭취를 통해 치료에 대처할 최상의 요건을 만들어 항암 치료 효과를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환자에게 특별히 좋은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균형 있는 식사가 중요하다.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고 섬유소가 풍부한 잡곡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기름기가 많고 가공된 육류와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해야 한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br/><br/> Q. 갑상선암 유전 가능성과 자녀의 갑상선암 검사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br/><br/>-유전되는 갑상선암은 5% 정도다. 다만 가족 중 유독 갑상선암에 많이 걸렸을 경우, 가족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갑상선암 발병이 걱정이 된다면 학교생활 등이 영향이 없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사춘기가 지나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면 된다. 하지만 가족성 수질암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부모가 가족성 수질암일 경우 자녀들의 갑상선암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아진다. 이 경우에는 가족 모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검사해 암의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br/><br/>장윤형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19.txt

제목: [항암 밥상-두릅 소고기 산적] 특유 쌉쌀한 맛 일품… 항암에너지 듬뿍  
날짜: 2015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46  
본문: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지금의 시기에도 딱 적합한 식재료가 있다. 바로 두릅이다. 두릅나무의 새 순을 말하며 봄에 나는 두릅은 그 맛과 효능이 연중 제일이라고 한다. 4∼5월에 땅 위에 돋아난 새순을 잘라낸 ‘땅 두릅’과 나무에 달리는 ‘나무 두릅’이 있으며, 특히 봄에 채취한 두릅은 금 두릅으로 불린다. 갓 피어난 어린 순을 꺾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고 초장에 찍어 먹으면 쌉싸래한 맛과 독특한 향이 입안에 퍼진다.<br/> 두릅은 춘곤증과 여러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몸에 활기를 주는 나물로,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풀어 항시 긴장 상태에 놓여있는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에게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비타민을 보충해 활력 있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혈당치를 떨어뜨리고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다. 또한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간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 간 기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특히 두릅에는 항암효과가 뛰어난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증식을 억제하는 등 암을 예방해주는 항암효과가 있다.<br/> 두릅은 인삼이나 오갈피와는 친척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오갈피 나무과의 식물은 뛰어난 약성이 있는데 두릅나무 역시 인삼이나 오갈피 못지않은 약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두릅에는 인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이 함유돼 있는데, 두릅의 사포닌과 비타민C는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주는 암 예방효과가 있다. 사포닌 성분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씻어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피를 맑게 한다. 혈당과 혈중의 지질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어 혈당치가 높은 당뇨환자의 증상을 완화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 뜨거운 물에 데쳐 먹어도 비타민 성분은 잘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두릅을 데쳐먹는 경우가 많다.<br/> 두릅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소고기가 있다. 소고기를 먹을 때는 비타민, 무기질 등 다른 기타 영양소 섭취에 신경 써야 하는데, 이런 소고기를 더욱 건강하게 먹으려면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다. 맛이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두릅에 있는 비타민이 소고기의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기 때문에 체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좋은 소고기와 두릅은 함께 먹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낸다. <br/> 두릅과 소고기를 활용한 요리로는 ‘두릅 소고기 산적’이 있다. 두릅과 양념한 소고기를 꼬챙이에 꿰어 기름을 두르고 지진 후 초간장을 곁들이면 맛과 영양이 훌륭한 일품 요리가 완성된다. <br/>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20.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들이 전하는 도전 의지… 대장암, 암과 함께 휴가 떠난다는 심정으로 치료 받아  
날짜: 20150615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40  
본문: 국민일보 건강섹션 ‘암과의 동행’에서는 암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암치료 과정에 도움이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암환자와의 대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폐암·위암·유방암·간암·대장암 환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암환자들이 힘든 항암치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br/><br/>강길동(가명·60대)<br/>기계제조 분야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강길동씨는 지난 2012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회사에서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던 대표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강씨가 의사로부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당시 심경은 말로 할 수 없었던 심경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평소에도 낙천적이고 대범하던 강씨는 병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긍정적이었다. 그는 암 판정 이후 이내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고 의사를 적극 믿고 치료에 임하기로 마음을 돌렸다고 했다. <br/> 처음에는 대장암에 좋다고 하는 각종 민간요법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찾아보기도 했다. 더불어 미국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획기적인 치료법이 있는지 묻기도 했으며, 러시아 등 외국에서 지인으로부터 암에 좋다는 버섯 등의 각종 식품을 선물로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강씨는 “<span class='quot0'>의사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치료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의사 지시에 따라 항암치료제 집중하기로 했다</span>”고 말했다. <br/> 첫 진단 때도 강씨는 대장암 말기였기 때문에 상태가 많이 심각했다. 장도 유착됐다. 1차 수술 때는 복강경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하지만 이후 간으로 암이 전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후 간 부분 절제수술을 받았다. <br/> 항암치료 당시에는 항암제와 함께 표적항암제인 아바스틴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치료는 성공적이었다. 강씨는 “다른 환자에 비해 큰 항암제 부작용이 없어 항상 재날짜에 항암제 치료를 받았다. 물론 손발끝 저림증상이라던지 부종 등의 부작용이 있었으나 괜찮은 편이었다”고 말했다. <br/> 지난해 암재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최근 대장으로 또 한번 암이 재발돼 지난 6월 초 대장부위의 전절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지금 병실에서 회복중이다. <br/> 암치료를 하며 생활에도 미세한 변화는 있었다고 했다. 사회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술과 담배도 일절 끊었다. 강씨는 장 건강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고 날음식은 가급적 자제했다. 다른 생활은 이전과 동일하게 생활했다. <br/> 연이어 재발의 아픔을 겼었지만 그는 여전히 밝고 건강한 모습이다. 강씨는 “암하고 친구 삼아 휴가나 다녀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았다. 물론 암이 재발되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내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 건강해질 것”이라며 “일단 암이 발병했다면 근거 없는 민간요법 등에 의지하지 말고 의사를 믿고 치료에 적극 임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br/>장윤형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2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들이 전하는 도전 의지… 위암, 생소한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날짜: 20150615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37  
본문: 국민일보 건강섹션 ‘암과의 동행’에서는 암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암치료 과정에 도움이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암환자와의 대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폐암·위암·유방암·간암·대장암 환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암환자들이 힘든 항암치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br/><br/>최윤희(가명·50대)<br/>어느 날, 피를 토해 병원을 찾았고, 임파선까지 전이된 위암을 판정받았다. 진단을 받는 순간, 그동안 위 관리를 하지 않은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고 술과 커피를 즐겼다. 위에게는 무리는 주는 일이다. 평소 건강을 자신하는 나 역시, 위암환자가 됐듯 건강을 자신하지 말고 위에 안 좋은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자제하고 때마다 건강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br/> 친정 엄마도 유방암으로 고통스런 항암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항암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운 좋게도 나는 항암제 부작용이 드믄 편이다. 엄마가 유방암 항암치료로 고통스러운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나 역시 구심 구토, 머리 빠짐 등을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런 증세는 없었다. 다만 발바닥 피부가 아기 엉덩이처럼 약하게 물러져서 맨발을 딛고 걷기가 어려워 한 여름에도 수면양말을 신었다. <br/> 처음부터 대형병원은 온 것은 아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치료확신이 서지 않아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어 임상시험 중인 좋은 약이 있으니 참여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여러 병원을 떠돌다 서울까지 왔는데, 처음부터 임상시험을 해보자는 얘기를 들으니깐, 매우 불쾌하고 속상하더라. 임상시험하면 떠오르는 것이 병원이 환자를 ‘마루타’로 삼는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임상에 참여한 덕분에 놀랄 정도로 전이 암이 줄어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됐지만, 당시 임상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쾌했다. 만약 당시 의료진이 조금만 더 상세히 설명을 해줬더라면, 임상시험에 대한 거부감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 같다. 단순히 신약의 혜택을 먼저 보는 것이란 설명은 이 병원, 이 의료진만 믿고 이곳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설득되지 않는 말이다. 유명한 명의는 환자들과 정성껏 얘기할 시간이 없다.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물으면 무조건 걱정 말라, 괜한 걱정이다 하면서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환자의 보호자의 마음은 다르다.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고, 현재 받은 치료가 나에게 어떤 효과를 보이는 건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치료들이 남았는지, 자세히 알려준다면 환자들의 불안감은 줄 것이다. 이런 암환자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려는 의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2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들이 전하는 도전 의지… 간암, 의료진은 증세와 함께 환자 마음도 봐줬으면  
날짜: 20150615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39  
본문: 국민일보 건강섹션 ‘암과의 동행’에서는 암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암치료 과정에 도움이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암환자와의 대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폐암·위암·유방암·간암·대장암 환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암환자들이 힘든 항암치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br/><br/>김영민(가명·50대)<br/>처음 항암치료를 시작할 때, 부작용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고통스러울지는 몰랐다. 내가 선택한 표적항암제는 일반적인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덜한 편이라고 들었는데 나의 경우는 달랐다. 이처럼 부작용은 암환자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느 환자는 큰 고통 없이 지나가는 반면 어떤 환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지나간다. 나의 경우 항암제 때문에 손발이 붓고 발톱이 살에서 떨어져나가기 일쑤였다. 발톱이 빠져 걸을 때마다 고통이 심했다. 심할 때는 두 발로 걸어 다니지 못하고 기어 다닐 정도였다.<br/> 항암치료의 또 다른 부작용이었을까. 사람이 감정적으로 변하더라. 평소 눈물이 없는 편인데 일상적인 대화에도 ‘울컥’하며 눈물이 났다. 우울한 감정에 쉽게 빠지곤 했다. 나의 우울한 심리는 가족들에게 전염되곤 했다. 7년 전 암 판정을 받았을 당시 자식들이 모두 중고생이었다. 또래 아이들의 비해 밝지 못하고 그늘이 있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br/> 나의 경우 간암 치료 후 4년 6개월 후에 폐로 전이된 사실을 알았다. 간 부분절제술에 이어 폐 부분 절제술을 받았다. 그 후 항암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았다.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해보았다. TV나 신문을 통해 ‘효과적인 항암치료가 임상 막바지다’, ‘새로운 면역항암제가 나왔다’ 식의 뉴스를 볼 때마다 빨리 개발되기를 소원한다. 재발이나 전이 등 훗날 일어날 만약을 대비해 효과적인 약이 개발돼있기를 바란다.<br/>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은 환자들은 의사의 권유로 신약을 알게 된다. 그러나 신약의 경우 아직 보험급여가 되지 않거나 그 기준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신약을 권유받고도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된다. 나의 경우도 처음 표적항암제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한달에 400만원하는 약값이 감당되지 않아 치료를 포기했다. 보험급여 기준이 넓어져서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암환자가 줄어들기 바란다. <br/> 대학병원 선생님들은 대개 무뚝뚝하다. 환자들에게 친절했으면 좋겠다. 환자들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희망을 얻기도 하고, 기분이 급격히 우울해지기도 한다. 병만 들여다보지 말고 환자를 들여다봐주길 바란다. 몇 개월에 한번 만나는 환자에게 조금 친절하게 대해준다면 환자들은 큰 위안을 얻고 갈 것이다. <br/>김단비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23.txt

제목: [암과의 동행] 후코이단 효능 규명 논문 봇물  
날짜: 20150615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48  
본문: 해조류의 항암물질로 알려진 후코이단 관련 학술논문이 잇따라 발표되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데이터 베이스(Pubmed, www.pubmed.org)에 올해만 벌서 54편의 논문이 등재됐다. 논문 발표국 역시 상당히 다양하다. 후코이단 산업이 비교적 큰 우리나라, 일본, 중국, 호주는 물론이고 브라질,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이며, 현재까지 누적된 논문편수만 1200편에 달한다.<br/> 논문은 주로 후코이단의 항암작용에 관한 것으로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기능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신생혈관 억제 기능 ▲암의 전이를 막는 혈소판 점착 억제기능 ▲면역력을 높이는 면역증강기능 등이 활발하게 규명되고 있다. 최근에는 후코이단이 어떤 경로를 통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사멸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기전 연구 논문이 주로 등재되는 추세다. 이러한 연구 붐은 최근 들어 세계 후코이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조류가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갈조류의 항암물질인 후코이단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제 후코이단 시장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br/> 후코이단 업계는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현재 약 20억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국제 후코이단 시장이 5년 내에 두 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역귀, 다시마 등 후코이단을 생산할 수 있는 해양자원이 풍부한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국내산 미역귀 후코이단은 후코이단 품질의 기준인 황산기 함량이 30%를 넘나들 정도로 높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시장에서의 전망도 밝은 편이다. 백수오 사태 이후 건강식품에 소비자의 평가기준에 학술논문의 양과 질이라는 평가기준이 추가됐고, 후코이단 등 논문자료가 풍부한 소재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 후코이단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br/> 정부지원으로 설립된 후코이단 전문기업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span class='quot0'>후코이단 관련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연구는 해외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세계시장이 급성장 하는 만큼 논문자료와 품질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24.txt

제목: [암과의 동행-투병 현장 리포트] 암환자에 가장 절실한 것은 국가의 보장성 강화  
날짜: 20150615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30  
본문: 암환자는 치료의 어려움과 치료비용 부담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주변인의 암환자에 대한 이해와 위로, 친절히 설명해주는 의료진 등 기본적인 것과 국가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절감 등 정부지원이었다.<br/> 암환자는 ‘암입니다’라는 의료진의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과 함께 ‘왜 내가 암?’이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든다고 말한다. <br/>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A씨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폐로 전이돼 3차례의 수술, 다시 뇌로 전이돼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그는 “처음 대장암이라는 말을 듣고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나 많이 울고 힘들었다. 집안에 대장암을 앓은 사람도 없어 생각도 못했다. 5번 수술을 받다보니 처음에 비해 마음이 많이 담담해졌다”라며 당시 힘들었던 시기를 토로했다.<br/> 유방암 3기로 진단받아 10년만인 지난 해 완치판정을 받은 B씨는 처음 암진단을 받았을 때 “하늘이 노래지고,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또 결혼 후 1년 만에 진단을 받아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br/> 반면 가족력이 있는 암환자들은 일부 예상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간암 진단 후 폐로 전이돼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C씨는 “형과 동생이 간암이었기에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br/> 진단을 받은 뒤에는 의료진과 수술, 항암치료 등 치료방향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암환자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큰데 치료가 효과는 있을지, 부작용으로 얼마나 힘들지, 의료비는 얼마나 들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br/> A씨는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너무 힘들었다. 울렁거려 밥 먹기도 힘들었다. 발에 감각도 떨어지는 것 같고, 손발도 저렸는데 안받아본 사람들은 모른다. 항암치료가 얼마나 힘든지”라며 고충을 토로했다.<br/>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도 많았는데 C씨는 “정해진 용량대로 약을 복용하면 손발톱이 살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세균감염 때문에 붕대로 감아놓기도 했고, 발톱이 뭉개져 걸어 다닐 수도 없었다”라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고, 올해 초 위암으로 진단받아 임파선으로 전이된 D씨는 “발바닥 피부가 다 벗겨져 한여름에도 푹신한 수면양말을 신지 않으면 발을 딛고 서기가 어려웠다”라고 고통스러워했다. B씨 역시 “항암치료 중 구토와 어지럼증, 기운 없음, 임파부종 등의 부작용을 겪었고, 방사선 치료 중에는 치료부위의 가려움증, 유방복원 수술을 하지 않아 ‘여성’으로서 위축 등을 겪고 있다”라고 치료 부작용을 호소했다.<br/> 그렇다면 환자들은 자신이 받는 치료에 대해 알고 있을까. A씨는 “의료진이 항암치료를 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고, 새로운 치료법도 찾아본 적이 없다. 자식들은 나 모르게 찾아보는 것 같은데 그게 더 스트레스로 다가왔다”라고 밝혔고, C씨는 “표적항암제를 의사의 권유로 쓰게 됐다. 그런데 치료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만 심해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 가족들과 이별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br/> 무엇보다 환자들은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기대가 큰데 현재의 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새로운 치료법을 찾는데 몰두 할 수밖에 없다. 임상시험에 참여해 치료효과를 보고 있는 D씨는 “지역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말해 병원을 옮겨 아직 임상중인 항암제로 치료중인데 놀라울 정도로 암이 줄어 이제는 수술이 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아직 확신이 없는 임상중인 약을 사용한다는 생각에 불안감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C씨의 경우는 현재 받는 표적항암제치료의 효과가 적어 다양한 치료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의료진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이나 치료제를 접했는데 최근 뉴스를 통해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가 치료효과는 크고 부작용은 적다는 말을 듣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br/> 암환자들은 정부정책에 아쉬움도 보였다. C씨는 “처음 표적항암제 치료를 권유 받았을 때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치료를 포기했다. 나중에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는데 급여가 더 빨리 됐다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다. B씨 역시 “유방암의 경우 재발율이 높다. 더욱이 치료제로 타목시펜을 복용해 자궁검진을 자주 받았는데 검사비가 포함되면 의료비가 적지 않다. 그렇지만 정부지원 치료비에 유방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포함되지 않아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다. 타목시펜 부작용이라는데 왜 유방암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치료비 지원이 좀 더 세심하게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섬세한 정부정책을 주문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25.txt

제목: [암과의 동행] 문혜성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장, 배꼽에 단일공 뚫어 자궁 근육층내 종양 제거  
날짜: 20150615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32  
본문: 명의들의 공통점은 저마다 특화된 의술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문혜성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장 역시 자신만의 특화된 의술로 많은 여성들의 생명을 구한 의사다. 문 센터장은 산부인과 교수로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등 자궁과 난소에 자라난 양성 종양을 그만의 특화된 로봇술기로 제거한다. 자궁과 난소 종양으로 고통 받는 전 세계 여성 환자들이 문 교수의 수술법을 듣고 이 병원을 찾는다고 한다. 문 교수를 만나 여성을 위협하는 자궁질환과 특화된 의술에 대해 들었다.<br/> 진료실에서 국내 자궁 근종의 급증을 실감 하냐고 묻자,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문 교수는 “자궁 근종 환자가 늘었다기보다, 상태가 극도로 안 좋은 자궁 근종 환자가 많아졌다. 환경호르몬, 공해, 심한 스트레스 환경 등 과거에 비해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아지면서 자궁 근종의 심각성도 커졌다”고 말했다.<br/> 문 교수가 치료하는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종양이다. 자궁근종은 자궁 내 양성종양이 위치하는 자리에 따라 △근층내근종 △점막하근종 △장막하근종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점막하근종은 자궁 가장 안쪽 내막에 생기는 것으로 수정란이 착상하지 못해 난임의 원인이 되고 임신이 되더라도 유산, 조산할 확률이 높아진다. 점막하근종은 제거하기 위해 복강경 수술, 개복수술, 로봇수술이 고려된다. 문 교수는 복강경 수술과 개복수술의 장점을 합친 로봇수술 방법을 이용해 자궁 내 종양을 제거한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자궁근종 제거수술의 핵심은 자궁의 근육층을 얼마나 복원시켜주는가에 있다. 근육층에 자리한 종양을 적은 출혈만으로 정교하게 제거하고 다시 꼼꼼히 봉합해줘야 이후 임신했을 때 근육층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로봇을 이용한 수술법은 자궁의 근육층을 꼼꼼하게 봉합할 수 있을뿐더러, 개복하지 않아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르다”고 설명했다.<br/> 문 교수는 로봇기기를 이용해 배꼽에 단 하나의 구멍만 내어 자궁 내 종양에 접근한다.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른 이유다. 문 교수는 이전에도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법을 개발해 38㎝ 이상의 거대 종양을 흉터 없이 제거해 의료계를 놀라게 했다. 여기에 로봇을 이용해 다른 장기와 유착을 줄이고 봉합력을 높였다.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로봇을 이용하더라도 최소 3곳을 절개한다는 게 문 교수의 설명이다. 문 교수는 “우리 병원에서는 좁은 배꼽을 통해 로봇팔을 환자 뱃속으로 집어넣어 종양을 제거한다. 똑같은 로봇을 이용하더라도 수술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항상 새로운 술기를 익히고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 문 교수눈 “앞으로의 수술법은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바른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소 침습수술 형태로 진화해갈 것”이라며 “이대목동병원은 그동안 시행해온 단일공 복강경 수술경험을 바탕으로 로봇수술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전보다 진보된 수술결과를 도출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br/> 문 교수가 속해있는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여성암 분야를 전문으로 세 명의 여성 교수가 자궁과 난소 질환을 흉터를 거의 남기지 않고, 꼼꼼하게 봉합하는 로봇수술로 정복해 나가고 있다.<br/>김단비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26.txt

제목: [메르스 3차 유행 비상] 치사율 10% 돌파… 사망자 15명 대부분은 고령인데다기저질환 앓아  
날짜: 20150615  
기자: 이경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118  
본문: 부산의 첫 번째 메르스 확진자인 81번 환자(62)가 사망하면서 국내 메르스 확진자 145명 가운데 사망자는 15명이 됐다. 이 환자는 평소 간 기능이 좋지 않았지만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br/> 국내 메르스 치사율은 14일 현재 두 자릿수인 10.34%를 기록했다.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된 확진자 5명, 대전 건양대병원과 대청병원에서 5명, 삼성서울병원에서 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br/> 10% 안팎의 치사율은 국제적인 메르스 치사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유럽질병통계청이 2012년부터 지난 10일까지 집계한 메르스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동 10개 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 수는 모두 1155명(사우디 1028명)이다. 이 가운데 479명이 사망해 치사율은 41.4%로 집계됐다.<br/> 중동지역의 치사율보다 우리가 훨씬 낮은 것은 우리의 의료 수준이 높고,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가 동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적극적인 접촉자 관리로 경증 환자가 많이 진단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한감염학회는 “<span class='quot0'>방역이 강화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가 수행된다면 경증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폐렴 발생이나 사망률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span>”고 밝혔다.<br/> 현재까지 사망자는 대부분 고령에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만성폐쇄성질환, 판막질환, 다발성 장기 부전 등 기저질환에 시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4명은 암 투병 중이었고, 이 중 2명은 말기 환자였다.<br/> 사망자들의 평균 연령은 66.73세로 집계됐다. 15명 중 10명(66.7%)이 70대 이상이었고 60대는 4명(26.7%)이었다. 유일한 50대 사망자는 25번 환자(57·여성)였다.<br/>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br/> [관련기사 보기] <br/>▶경주 메르스 괴담이 현실로? 경찰 과잉 수사에 시민들 ‘격앙’<br/>▶“답답한 정부 때문에 화병 걸릴 뻔” 메르스 격리자 울분<br/>▶삼성서울병원서 메르스 의사 또 발생… “격리시키겠다더니?”<br/>▶“한국인들, 낙타 오줌까지?” 중국 네티즌들 억지… 한중일 삼국지<br/>▶“지금도 완전 늦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 ‘조기 종식’ 발언 뭇매<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27.txt

제목: [암과의 동행] 종근당 ‘프리페민’ 생약성분 월경전증후군 치료제로 각광  
날짜: 20150615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47  
본문: 월경전증후군(PMS, 생리전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의 80∼90%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 흔한 증상이다. 이 중 환자로 진단이 되는 여성은 20∼30%에 달한다. 월경전증후군을 앓는 여성이 일생에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보내는 시간이 무려 3000일에 달할 만큼 여성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br/> 흔히 나타나는 월경전증후군의 신체적 증상으로는 유방통, 아랫배통증, 두통, 근육통, 체중증가, 여드름, 사지부종, 변비, 피로감 등이 있다. 감정적 증상으로는 신경과민, 우울, 무기력감, 불안, 긴장, 외로움 등이 있으며, 행동의 변화로는 집중력 저하, 식욕변화, 수면과다, 의욕저하, 불면 등 모두 200여종에 달할 정도로 개인에 따라 다양한 증상들이 발현된다.<br/> 월경전증후군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의 불균형과 프로락틴(유즙분비자극호르몬)의 과도한 분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까지 이 증상을 위한 치료제로는 진통제(NSAIDs),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호르몬제 등이 있었지만 여러 증상 중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등 월경전증후군을 타깃으로 하는 치료제는 아니었다.<br/> 이러한 상황에서 종근당 ‘프리페민’이 월경전증후군의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프리페민’은 유럽에서 월경전증후군과 월경불순에 임상적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은 제품으로 스위스 생약전문회사 젤러(Zeller)에서 생산해 종근당이 수입한 일반의약품이다. 이 제품은 아그누스카스투스 열매에서 추출한 국내 최초 생약성분(식물성분) 월경전증후군 치료제이다.<br/> 아그누스카스투스 열매는 고대시대부터 한방치료제로 사용돼 왔으며 월경전증후군 치료에 임상적인 근거를 가진 유일한 생약제제이다. 월경전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프로락틴의 과도한 분비를 줄여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br/> 프리페민은 1일 1회, 1회 1정의 간편한 복용을 통해 생리전 다양한 증상을 완화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월경 전 증상으로 학업 또는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준다. 복용기간에 비례해 개선효과가 증가하므로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다.<br/> 종근당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프리페민은 지금까지 치료와 관리에 소홀했던 월경전증후군에 대한 인식을 바꾼 중요한 제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이 적절한 처방 없이 견뎌내야 했던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해 여성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28.txt

제목: [암과의 동행]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센터 “내집 처럼 머물며 가족건강 챙기세요”  
날짜: 20150615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41  
본문: 최근 평균수명이 길어지며 단순히 오래 살기만을 바라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꿈꾸는 현대인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최근 단순한 진료를 넘어 건강과 휴식, 생활습관 상담, 체형 관리 등 평생건강관리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이 주목받고 있다. 이제는 병원이 아플 때만 가는 곳이 아니라 내 몸을 평소에도 점검받을 수 있는 개인별 ‘관리’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br/>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는 국내 최대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의 건강검진센터로서 가족단위 평생건강관리를 콘셉트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검사결과에서 가족력 가능성이 높은 소견은 별도로 관리해 가족 단위의 건강관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공간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심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연결선’이라는 인테리어를 콘셉트로 고객들이 내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만의 특별함에 대해 알아보자. <br/> ◇가족단위의 통합적 건강관리의 메카=가족은 함께 밥을 먹고 생활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공유하는 공동체이므로 유사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암·고혈압·당뇨와 같은 질병들은 가족의 유전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가족은 공통된 질병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생건강증진센터는 가족건강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br/> 평생건강증진센터의 가족건강관리 프로그램은 가족 개개인이 건강검진을 따로 받는 것보다 가족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과 환경에 맞춰 검진을 진행한다. 가족의 질병력을 검사하고 이에 기반하여 가능성 있는 질병을 확인해 생활습관 교정을 제시한다. 아울러 유전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발병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제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방안을 제시한다.<br/> ◇응급 시에도 신속하게, 고객응급진료(CUT, Customer Urgent Treatment)시스템=건강검진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 몸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많은 건강검진센터가 응급소견의 발생 후 사후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의 시스템은 다른 곳과 차별화 된 특징이 있다. 바로 ‘고객응급진료 시스템’이다. CUT(Customer Urgent Treatment) 프로세스로 명명되는 고객응급진료 시스템은 건강검진으로 고객 건강상의 긴급한 문제를 확인한 경우, 서울성모병원 외래 연결을 통해 응급 진료와 처치를 받을 있는 시스템이다. 일례로 모를 두통으로 고통 받던 러시아 환자가 두개골 내에 혈액이 고여 있다는 판정을 받고 하루 만에 수술을 받아 완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센터는 고객응급진료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건강 이슈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r/> ◇신속·정확한 건강검진 위한 최첨단 인프라 구축=평생건강증진센터는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고 있는 11개 진료과 30명의 교수급 의료진과 100여명의 숙련된 전문 인력이 맞춤형 건강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안구광학단층촬영기(OCT), VP1000 장비 등 건강검진에 필요한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br/> ◇‘딱딱하고 무거운 검진센터’는 가라,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센터=보통 병원에 있는 건강검진센터는 무겁고 딱딱한 느낌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본관 4층에 위치한 센터는 개인고객들에게 ‘건강검진’이라는 느낌보다는 휴양지에서 힐링하는 듯한 느낌을 제공한다.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개인과 기업 고객을 완전히 분리된 장소에서 실시함으로써 각 고객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29.txt

제목: [암과의 동행] 메르스의 병원 내 감염 확산 이유는?… 바이러스에 취약한 환자들 많기 때문  
날짜: 20150615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42  
본문: 최근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가 확산되며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평택성모병원을 시작으로 한 병원 내 감염이 지역 간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내에서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무엇이고, 병원 밖 지역 전파 가능성은 없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br/> 국내 메르스 전파 경로는 평택성모병원에서 시작됐다. <br/> 첫 번째 메르스 환자 A씨(68)가 거친 의료기관은 모두 4곳이다. 그는 중동에서 귀국한 뒤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충남 아산시의 아산서울의원을 지난달 3번 외래로 찾았다. 8번 환자(46·여)는 이때 A씨에게 주사제로 처치를 하면서 감염이 됐다. A씨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15일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해 17일까지 입원했다. 아내뿐 아니라 같은 병실에 있던 3번 환자(76·사망)가 이때 감염됐다. 3번 환자의 아들과, 딸도 이때 감염됐다. 같은 병동 환자와 가족, 의료진에게까지 바이러스가 전달돼 평택성모병원에서만 37명(12일 기준)이 감염됐다. 첫 환자로부터 직접 전파는 37명, 추가 전파인 3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다수로 파악됐다. 이후 직접 접촉한 환자, 추가 전파를 통해 병원에서 격리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br/> 병원 내 환경은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원내 감염 발생율이 5∼10%라고 알려져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는 “<span class='quot0'>병원 내 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바이러스가 숙주로 삼기 좋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메르스 바이러스가 먹잇감으로 삼기 좋아하는 고령자, 면역 저하 환자,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많아서</span>”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인실이 많고 환자를 가족들이 직접 간병해야 하고, 병실 방문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지는 한국의 독특한 의료 환경도 메르스 확산을 크게 만든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br/> 메르스 폐렴환자가 기침으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뿜는 상태에서 병원 내 열악한 환경, 부실한 감염관리 실태, 통제되지 않는 병문안 문화 등과 겹치며 다수의 2차, 3차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슈퍼 전파자로 작용했을 것이다.<br/> 문제는 공기 전파 가능성이다. 의료계는 공기 전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메르스는 발열 등의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사람 대 사람이 접촉했다고 해서 바로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span>”고 말햇다. 메르스의 감염 전파력은 2003년 사스 또는 2009년 신종플루에 비해 낮다. 김 교수 역시 “메르스는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 가래 등에 포함돼 있는 바이러스가 주변 2m 이내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만 전파된다. 만약 공기 전파가 감염 경로라면 현재 환자 수보다 수백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br/> 메르스가 지역사회에서 유행할 가능성이 있을까 여부를 두고 우려섞인 목소리도 많다. 김우주 교수는 “<span class='quot1'>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환자는 의료기관과 관련된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아직 입증된 지역사회 감염자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고 접촉자들을 빈틈없이 추적해 방역망을 벗어난 환자를 찾아 격리한다면 메르스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메르스에 간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최근에는 사우나 등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지며 추가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br/> 세계보건기구도 공기전파 가능성을 제기했다.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공기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이 에어컨 등을 통한 에어로졸로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먼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도 살펴야 하는 이유다. <br/>장윤형 기자<br/><br/> [관련기사 보기] <br/>▶경주 메르스 괴담이 현실로? 경찰 과잉 수사에 시민들 ‘격앙’<br/>▶“답답한 정부 때문에 화병 걸릴 뻔” 메르스 격리자 울분<br/>▶삼성서울병원서 메르스 의사 또 발생… “격리시키겠다더니?”<br/>▶“한국인들, 낙타 오줌까지?” 중국 네티즌들 억지… 한중일 삼국지<br/>▶“지금도 완전 늦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 ‘조기 종식’ 발언 뭇매<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30.txt

제목: [메르스 고비] 확진 아버지와 삼성병원 방문… 14번 환자가 전파 추정  
날짜: 20150613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3100000064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을 받은 아버지와 함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던 경기도 성남의 초등학생(7)이 1차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이었다가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13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최종 확진하면 국내 첫 ‘10세 미만 메르스 감염자’가 된다.<br/><br/> 12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어린이는 91번 감염자로 확인된 아버지(46)와 함께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병문안을 갔다.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35)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15∼17일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68)에게서 ‘2차 감염’된 14번 환자는 같은 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체류하며 다수의 의료진·환자·방문객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br/><br/> 91번 환자는 당시 응급실에서 1시간가량 머물렀고, 지난 8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어린이도 이때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차 감염자’인 아버지와 밀접 접촉을 통해 옮은 ‘4차 감염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r/><br/> 아버지의 확진 판정으로 격리 조치된 이 어린이는 지난 9일 체온이 37.8도로 오르며 발열 증상을 보여 1차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다.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12일 오전 검체를 채취해 실시한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성남시 측은 밝혔다.<br/><br/> 이 어린이는 현재 열이 떨어졌고, 별다른 호흡기 증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열 증상이 나타난 후 함께 자택 격리 중이던 가족 외에는 외부 접촉이 없었다. 지난 6일 이후 학교에도 가지 않아 추가 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경기도 보환연 검사에서 잠정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증상이 없고 연령적으로 발생이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검체 채취를 다시 해 국립보건연구원이 재확인 중</span>”이라고 말했다.<br/><br/> 소아·청소년의 메르스 감염 사례는 많지 않다. 지난해 유럽소아감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012년 첫 메르스 발생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아·청소년 14명이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다. 연령대는 최소 9개월부터 최대 16세까지다. 이 가운데 선천성 신증후군을 앓던 9개월 아이와 중증 폐질환인 섬유종낭포증을 가진 2세 아동은 숨졌다. 나머지는 대부분 증상 없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br/><br/> 보건 당국도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아이들은 메르스에 잘 걸리지 않으며 걸린다고 해도 무증상이며 완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 성인들처럼 기저질환(지병)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 대한소아감염학회 김경효 회장은 “<span class='quot1'>천식 등 중증호흡기질환이나 폐질환, 신부전, 면역저하(암·수술 환자 등)가 있는 아이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br/>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일 뇌수술을 받은 16세 청소년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에게 감염돼 67번째 환자로 기록됐다. 김 회장은 “<span class='quot1'>아직 국내에는 소아·청소년 환자 사례가 극히 드물어 학회 차원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 [관련기사 보기] <br/>▶"메르스 의사·경찰 모두 30대인데 에크모라니" 퍼지는 공포 <br/>▶"박원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메르스 의사 가족 주장 논란 <br/><br/>▶복지부-삼성서울병원 이해 힘든 4가지 의혹… 이름 노출 않으려 숨겼나<br/>▶메르스 다과회였겠지… 정부 모의 대응훈련 '뭇매'<br/>▶강용석 "박원순, 아들 군 면제 재판 덮기 위해…" 음모설 제기 논란<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31.txt

제목: [저자와의 대화-이어령 전 장관] “딸과의 시간 30초 만이라도 주어진다면 ‘굿나잇 키스’ 할 겁니다”  
날짜: 20150612  
기자: 윤중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2100000001  
본문: “흔히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땅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묻어두는 것만은 아닙니다. 죽음은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떨어진 자리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히려 살아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삶을 더 푸르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추임새로 돌아오지요.”<br/>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독백처럼 들렸다. 이어령(81) 전 문화부 장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침없었지만 사이사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2012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딸 이민아(1959∼2012) 목사의 3주기를 맞아 평소 가슴속에 묻어뒀던 사연을 담은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열림원)를 최근 펴냈다. <br/> 이 책은 칠순이 훌쩍 넘어 딸의 헌신적인 기도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회심한 이 전 장관이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딸을 가진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수많은 사람에게 보내는 위안과 희망의 고백록이다. <br/> 고(故) 이 목사는 이 전 장관과 강인숙 건국대 명예교수의 맏딸로 태어났다. 첫 결혼에 실패하고 미국에서 검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다 실명 위기와 큰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그 뒤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남미 등에서 청소년 구제활동에 헌신하다가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br/> 10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한 음식점에서 만난 이 전 장관은 “<span class='quot0'>사람들은 남에게 자기의 우는 모습이나 눈물자국 같은 것을 보여주기를 꺼려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자기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던 기억이 있을 것</span>”이라고 했다. <br/> 자신도 그랬다. 영원히 가슴속에 묻어두고 갈 작정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건네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개켜두었던 글들이 급기야 세상 밖으로 나와 책이 되고 말았다. <br/> 처음엔 딸을 잃은 슬픔을 독백처럼 썼다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독백은 대화가 되어 딸에게 이야기하는 글로 바뀌었다.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급기야는 3인칭으로 바뀌면서 하나의 산문이 되고 시가 됐다고 했다. <br/> 이 전 장관은 “<span class='quot0'>딸이 이혼하고 괴로워할 때, 피붙이를 잃고 넋이 나가 주저앉았을 때, 앞을 보지 못해 길을 더듬을 때, 암에 걸려 투병할 때도 사랑하는 딸 곁에 있지 않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 수많은 날, 홀로 피눈물을 흘렸을 딸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먹먹하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span>”고 흐느끼듯 말했다. <br/> 아버지는 딸을 잃고서 딸의 죽음 자체보다 평소에 ‘굿나잇’같이 아주 평범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가슴이 아프게 다가왔다고 털어놨다. 어린 딸은 아버지에게 새 잠옷을 자랑하면서 굿나잇 키스를 받고 싶었지만 글쓰기에 몰입한 못난 아버지는 그 짧은 순간, 고개를 한 번 돌리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br/>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주신다면, 딱 한 번만이라도 좋아요. 낡은 비디오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딸은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겠지요.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면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던지고, 읽다 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펴 딸의 가슴을 안을 겁니다. 딸의 키가 천장에 다다를 만큼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딸의 눈, 상기된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할 겁니다.”<br/> 이 전 장관은 책이 나온 뒤에도 자신이 딸에 대해서 쓴 이 글들이 책으로 나온 것에 대해 가시처럼 마음에 턱하고 걸린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요즘은 왜인지 자꾸 울음이 난다’는 말을 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들려주려고 이 글을 썼다고 했다.<br/> 그는 아버지로서의 글쓰기와 지식인으로서의 글쓰기를 통합한 창작 행위를 통해, 딸을 잃은 슬픔을 세상의 모든 생명을 품에 안는 사랑으로 풀어냈다고 했다. “딸은 먼저 갔지만,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글들이 나와 내 딸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와 딸에게 바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의 인세 수입은 딸이 생전에 했던 희망을 잃은 청소년을 돕는 일에 쓸 계획입니다.”<br/> 이 전 장관은 아직도 ‘초보 아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의 가슴을 향해 비수를 날렸다. “세상 아버지들은 죽을 때까지 ‘초’ 자를 떼지 못하는 초보 운전수일 수밖에 없는가 봅니다. 아버지들은 딸을 구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딸이 아버지를 구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말이지요. 얼마나 많은 딸들이 임당수에 빠져 목숨을 잃어야 눈먼 아버지들이 눈을 뜨게 될까요. 그걸 알면 아버지들은 절대로 전쟁 같은 것, 남의 생명을 빼앗는 폭력 같은 것, 숲을 사막으로 만드는 환경을 파괴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br/>글·사진=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32.txt

제목: [메르스 이번주 고비] 국내 메르스 환자 주증상은… 발열 > 기침 > 가래 > 근육통 順  
날짜: 20150610  
기자: 김찬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0100000068  
본문: 국내 메르스 환자들이 가장 많이 보인 증상은 발열, 기침, 가래, 근육통 순이었다. 기저질환은 고혈압이 많았고 당뇨와 암 등도 있었다.<br/><br/>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9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환자 58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행하는 메르스의 임상 양상을 발표했다.<br/><br/> 분석 결과 환자 10명 중 9명꼴로 발열(52명·89.6%), 3명 중 1명꼴로 기침(20명·34.4%) 증세를 보였다. 객담(가래)과 근육통 증상을 나타낸 환자는 각각 13명(22.4%)이었다. 호흡곤란(18.9%) 두통(13.9%) 설사(10.3%) 등도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또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흉부 X선 촬영을 했더니 29명이 폐렴 증상을 보였다.<br/><br/> 아무 증상을 보이지 않은 환자도 1명 있었다.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초기에 중증이 다수를 차지하다 환자가 늘면서 경증 내지 일부 무증상 사례가 나타났다</span>”고 설명했다.<br/><br/> 환자들이 메르스 감염 전에 갖고 있던 질환 중에는 고혈압(10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당뇨(8명) 암(7명) 만성폐질환(6명) 만성간질환(5명) 심장질환(5명) 등이었다.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21명이었다.<br/><br/> 또 국내 메르스 환자에게는 신장 기능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사우디아라비아는 환자 가운데 만성신부전 환자가 상당수 있었고, 이들이 더 중증으로 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선 만성신장질환자가 현재까지 없다.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치명률이 낮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br/><br/> 환자 상당수는 인터페론(44.2%) 리바비린(48.0%) 로피나비르(25.0%) 같은 항바이러스제 투약 치료를 받았다.<br/><br/>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br/><br/> [관련기사 보기] <br/><br/>▶“메르스 하도 바빠 라면 먹었다” 청와대 또 라면 논란… 페북지기 초이스<br/><br/>▶청정 강원도 뚫렸다… 원주서 2명 첫 메르스 양성 반응<br/><br/>▶“아몰랑~ 한국 국격은 어디로” 뉴욕타임즈 메르스 극딜 만평<br/><br/>▶방역복이 민망해… ‘울릉도 관광’ 격리환자 버티기 사진 ‘시끌’<br/><br/>▶“안전하다면서요!” 삼성서울병원장이 말을 바꿨다<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33.txt

제목: 세균감염 막으려면 ‘WHAT’ 관리하세요  
날짜: 20150609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9100000038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급속 확산으로 각종 바이러스 및 세균감염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비단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고온다습한 날씨의 여름철에는 식중독, 장염, 눈병 감염까지 세균성 질환이 활개를 쳐 ‘왓(WHAT)’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br/><br/> WHAT은 습기(Wet), 손(Hands), 에어컨(Air conditioner), 주방기구(Tools)를 뜻하는 영어의 첫 글자를 조합한 말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손 관리다. 중앙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최성호 교수는 “<span class='quot0'>철저한 손 씻기만으로도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질환의 50∼70%를 차단할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br/><br/> ◇습기(Wet)=땡볕 쪼이는 날 못잖게 비 오는 날도 많은 여름철에는 습도 관리가 중요하다. 실내습도가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세균이 증식하기 쉽고 공기 중 곰팡이 포자도 확연히 증가한다.<br/><br/> 특히 ‘아르페르길루수 푸미가투스’라는 곰팡이균은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암 치료 및 각종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폐렴을 유발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호흡기 감염증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을 막으려면 제습기 등을 이용해 실내습도를 적정하게 유지시키고 빨래는 건조기로 말리는 것이 낫다. 참고로 실내온도가 24도 이상일 때 적정 실내습도는 40∼50% 수준이다.<br/><br/> ◇손(Hands)=다양한 인사법 중 악수가 세균감염경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보고가 있다. 실제 감기 바이러스부터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이르기까지 바이러스와 세균은 손을 통해 옮겨져 각종 호흡기 감염증, 장염, 식중독을 유발한다.<br/><br/> 친구나 자신의 얼굴을 자주 만지는 버릇이 있다면 손에 묻은 세균을 관리하는데 바짝 신경을 써야 한다. 손이 세균을 전파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br/><br/>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손을 물로만 씻기 보다는 비누칠을 곁들일 때 세균제거 효과가 높다. 단, 세균을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선 40∼60초 이상 손을 깨끗이, 구석구석, 꼼꼼히 닦아야 한다.<br/><br/> ◇에어컨(Air conditioner)=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이 많아지면서 가정 및 회사에서 에어컨 사용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br/><br/> 레지오넬라균은 에어컨, 샤워기, 수도꼭지에서 주로 발견되는 세균이다. 폐렴과 호흡기 이상 증상을 동반하는 레지오넬라병을 일으킨다. 만성 폐질환, 당뇨, 고혈압 등이 있거나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발병 위험이 높아지므로 조심해야 한다.<br/><br/> 레지오넬라균 감염을 예방하려면 에어컨 응결수 물받이 배관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물받이 필터를 적어도 주1회 소독해야 한다.<br/><br/> ◇주방기구(Tools)=가족의 위생관리는 사실 주방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중독, 장염 등 여름철의 주요 감염성 질환은 음식물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음식물과 직접 접촉하는 주방도구는 자칫 잘못 관리할 경우 세균전파의 온상이 되기 쉽다. 주방 곳곳을 닦는데 쓰이는 행주는 반드시 끓는 물에 소독한 다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br/><br/> 만약 삶아서 관리하기가 귀찮다면 전자렌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행주를 물에 담근 상태로 8분 동안 전자렌지에 돌리면 삶아서 소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34.txt

제목: 암투병 동료 위해 산삼 쾌척… 서울 수서경찰서 박호 경위, 직접 캔 산삼 다섯뿌리 기증  
날짜: 2015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810017485519  
본문: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대치지구대 박호(54) 경위가 암 투병 중인 동료 경찰관에게 산삼 다섯 뿌리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가 내놓은 산삼은 25년근 세 뿌리와 15년근 두 뿌리다. 시가 500만∼7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수서서는 이 산삼을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선에서 근무 중인 이 경찰서 직원과 역시 암으로 투병 중인 직원 가족 등 두 명에게 나눠 전달했다.<br/><br/>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29년째 일하고 있는 박 경위는 “<span class='quot0'>평소 등산을 취미로 삼고 있는데 7년 전부터 약초 공부를 하다 보니 간혹 산삼 같은 것이 보이게 됐다</span>”고 말했다. 그는 휴일을 맞아 평소처럼 산에 올랐다가 8부 능선 한쪽 골짜기에 산삼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발견했다고 한다. 박 경위는 “지난달 초 우리 경찰서에서 50대 직원이 잠자다 갑작스레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래서 힘들고 몸이 좋지 않지만 묵묵히 일하는 동료를 위해 산삼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박 경위가 산삼을 기증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몸이 약해 학업을 포기하려는 명문대 학생과 혈액암 환자에게 직접 캔 산삼을 기증했었다.<br/> 김미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35.txt

제목: 암투병 동료 위해 산삼 쾌척… 서울 수서경찰서 박호 경위, 직접 캔 산삼 다섯뿌리 기증  
날짜: 20150608  
기자: 김미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8100000057  
본문: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대치지구대 박호(54) 경위가 암 투병 중인 동료 경찰관에게 산삼 다섯 뿌리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가 내놓은 산삼은 25년근 세 뿌리와 15년근 두 뿌리다. 시가 500만∼7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수서서는 이 산삼을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선에서 근무 중인 이 경찰서 직원과 역시 암으로 투병 중인 직원 가족 등 두 명에게 나눠 전달했다.<br/><br/>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29년째 일하고 있는 박 경위는 “<span class='quot0'>평소 등산을 취미로 삼고 있는데 7년 전부터 약초 공부를 하다 보니 간혹 산삼 같은 것이 보이게 됐다</span>”고 말했다. 그는 휴일을 맞아 평소처럼 산에 올랐다가 8부 능선 한쪽 골짜기에 산삼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발견했다고 한다. 박 경위는 “지난달 초 우리 경찰서에서 50대 직원이 잠자다 갑작스레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래서 힘들고 몸이 좋지 않지만 묵묵히 일하는 동료를 위해 산삼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박 경위가 산삼을 기증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몸이 약해 학업을 포기하려는 명문대 학생과 혈액암 환자에게 직접 캔 산삼을 기증했었다.<br/> 김미나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36.txt

제목: [메르스 비상] 메르스 환자 거쳐간 병원 이용해도 될까요?… 수술·진료 예약 환자들 전전긍긍  
날짜: 20150608  
기자: 문수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8100000073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24곳이 공개됐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선택과 판단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 24곳 병원에는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이미 다녀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br/> 병원 공개는 ‘피해야 할 곳’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혹시 감염됐을지 모를 의심환자를 찾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이 병원들을 기피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건 올바른 대응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br/> 예를 들어 삼성서울병원에 예약된 환자가 있다면 예정대로 진료를 받는 게 좋다. 실제로 암 환자 김모(57)씨는 조만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로 지금 예약된 진료를 미뤄야 할지, 수술 병원을 바꿔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현명한 선택은 예정대로 진료와 수술을 받는 것이다.<br/>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span class='quot0'>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가 많이 나왔지만 응급실에서만 발생했고 이미 1주일 이상 지나면서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처럼 대형병원에서 중요한 치료가 예약된 경우에는 진료를 피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미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분들의 건강을 우려해 공개한 것인 만큼 해당 의료기관을 피할 이유가 없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br/> 정부도 24곳 병원이 기피 대상인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7일 브리핑에서 “<span class='quot1'>환자가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그 병원에 갔다간 감염된다고 인식하지 않도록 해 달라</span>”고 말했다.<br/> 정부는 환자가 1명씩 나온 의료기관 2곳도 감염 우려가 없다고 단언했다. 메르스 환자가 3명 이상 나온 의료기관 4곳 역시 기피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평택성모병원은 지난달 29일 이미 폐쇄돼 방문 자체가 안 된다. <br/> 삼성서울병원은 환자가 나온 응급실만 신규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 건양대병원(환자 5명 발생)이나 대전 대청병원(3명)도 현재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br/>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활동하는 기간이 최대 48시간</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바이러스가 살아 있는 동안 해당 병원에 머물렀던 게 아니라면 감염 우려는 없다고 봐도 좋다</span>”고 말했다. 이미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의료기관은 현재 시점에서는 위험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br/> 다만 메르스 환자가 머물렀던 시기에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면 건강 상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br/> 메르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시기(48시간)를 감안하면 환자가 거쳐 간 이틀 뒤까지로 볼 수 있다. 이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이후 37.5도 이상의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치료받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 [관련기사 보기] <br/> ▶▶▶▶ 메르스 확산 비상 기사 보기◀◀◀◀ <br/>▶“메르스병원 24개 그걸 틀리냐” 엉터리 발표에 ‘부글부글’ (확정 병원명 포함)<br/>▶“35번 의사 환자 30일 오후부터 고열” 말했으면서… 페북지기 초이스<br/>▶[명단]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경유 24개 병원명<br/>▶“메르스 신상공개라고요? 천만의 말씀” 이재명 성남시장 추가글… 페북지기 초이스<br/>▶“대한민국 대통령이 박원순인가요?” 조국 등 야권 인사 성토<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37.txt

제목: [메르스 확산 비상] 자가 격리자, 단독 화장실 사용하세요… 의협 메르스 확산 방지 지침  
날짜: 20150606  
기자: 김재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6100000040  
본문: 서울의 대형병원 의사가 1500여명이 모인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별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감염을 막을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 지침을 제시했다. 지침에는 자가격리자를 위한 7가지 행동요령과 가족 및 밀접 접촉자를 위한 행동요령 11가지와 6가지가 각각 담겼다.<br/><br/> ◇자가격리자를 위한 예방조치=자가격리 대상자는 의료처치 목적 이외의 외부 출입을 삼가야 한다. 직장, 학교, 공공장소 등에 가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지 말라고 의사협회는 권고한다. 자택 내 사람들과 떨어져서 다른 방을 쓰고 단독으로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 식사도 따로 하는 게 좋다. 다른 사람과 같은 방에 있을 때와 의료인을 방문할 때는 항상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가 없다면 옷소매에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해야 한다. 사용한 휴지는 봉지를 씌운 쓰레기통에 버리고 즉시 비누와 물로 손을 씻어야 한다. <br/><br/> 또 비누와 물로 자주 철저하게 손을 씻어주어야 한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식기, 컵, 수저, 수건, 침구 등을 자택 내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함께 사용했다면 사용 후 세척제와 물로 철저하게 씻어주어야 한다. 만일 의심증상(호흡기 증상, 발열 등)이 발생한다면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 관할보건소 또는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으로 연락해 지시받는 게 좋다. <br/><br/> ◇가족 및 밀접 접촉자를 위한 예방조치=자가격리 대상자와 동거 중인 사람은 치료 등에 대한 설명과 지시를 잘 이해하고 환자 및 감시 대상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나머지 가족원은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에서 생활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노인 또는 특정 질환(만성 심장, 폐 또는 신장질환과 당뇨병, 암)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생활해야 한다.<br/><br/> 환자 및 감시대상자의 혈액, 체액 또는 땀, 침, 가래, 콧물, 토사물, 소변, 용변 등과 같은 분비물을 만지거나 접촉해야 할 때 일회용 마스크, 가운과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가운, 장갑 폐기 후 바로 손을 씻어야 한다. 자가격리자와 생활용품을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r/><br/> 또 카운터, 식탁, 손잡이, 욕실기구, 변기, 전화기, 키보드, 태블릿PC 등 접촉이 많은 표면을 매일 닦아야 한다. 사용한 모든 장갑, 가운, 마스크, 오염된 물건은 세탁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환자나 대상자의 증상을 감시하고 증상이 악화되면 관할보건소 또는 메르스 핫라인으로 연락해야 한다. 본인의 건강상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와 밀접한 접촉을 했다면 격리자 가족에 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br/><br/>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br/><br/> [관련기사 보기] <br/><br/> ▶▶▶▶ 메르스 확산 비상 기사 보기◀◀◀◀ <br/><br/>▶문형표도 유체이탈…“에어컨 확산 가능성 있지만 공기 전파 아니다? 뭔 소리?”<br/><br/>▶김성근 감독도 메르스에 움찔 “이런 시국에 야구를 해”<br/><br/>▶“깜빡이도 안 켜면서 웬 메르스 호들갑” 윤서인 빈축<br/><br/>▶[전문] 문형표 “박원순, 정부 잘못한 것처럼 발표”<br/><br/>▶문형표, 메르스 병원명 첫 공개 “평택성모병원 전수조사”<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38.txt

제목: [메르스 확산 비상] 평소 지병있는 50대 이상 메르스 바이러스에 치명적  
날짜: 20150603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3100000109  
본문: 보건 당국이 2일 발표한 메르스 사망자 2명은 모두 바이러스나 세균성 감염병에 취약한 만성질환 보유자들이었다. 평소 갖고 있던 지병(기저질환)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방아쇠’ 역할을 했을 수 있다.<br/> 메르스 고위험군은 50세 이상 고령자나 천식, 만성폐질환 및 호흡기질환, 신장(콩팥)질환, 당뇨병, 면역저하질환(암, HIV 감염자)을 갖고 있거나 항암치료, 장기이식,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환자 등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메르스 환자 연령 분포의 중앙값은 50세였고, 많은 사망자가 이런 공통적 위험요인을 갖고 있었다.<br/>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고려대 구로병원 교수)은 “<span class='quot0'>메르스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처럼 폐를 침범하지만, 콩팥 기능을 망가뜨리는 특성도 갖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첫 사망자 Z씨(57·여)는 천식·고혈압과 함께 ‘의인성 쿠싱증후군’(관절염 치료용 스테로이드 약물복용에 따른 질병) 등 여러 질환을 갖고 있었다. 천식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입원했다가 첫 환자 A씨(68)와 접촉했고 이후 상태가 나빠져 급성 호흡기능 상실로 끝내 숨졌다.<br/>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0'>Z씨는 만성폐질환인 천식에다 면역 억제를 일으키는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면역력이 매우 떨어진 상황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치명적 상황이 초래된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천식은 공기가 들락거리는 길인 기관지에 염증이나 근육 경련이 발생해 호흡이 어려워지는 질환이다.<br/> 두 번째 사망자 F씨(71)는 중증호흡기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오랫동안 앓아왔다. COPD는 담배나 먼지, 가스 등이 원인이며 숨쉴 때 기관지가 좁아지거나 파괴되고 기관지 끝인 폐포가 망가지면서 천천히 폐기능이 저하돼 숨이 차게 되는 병이다. F씨는 2011년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을 잘라낸 상황인 데다 70대라는 고령이 치명적인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두 사람을 진료한 의료진도 “<span class='quot1'>두 사망자는 호흡기질환을 갖고 있다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돼 상태가 악화됐을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 앞으로도 메르스 사망자가 속출할 가능성은 배제키 어렵다. 현재 확진 환자 25명 가운데 사망한 2명을 빼고도 11명이 50대 이상 고령자다. 그중에는 만성질환자도 적지 않으며 실제 2, 3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 [관련기사 보기] <br/> ▶▶▶▶ 메르스 확산 비상 기사 보기◀◀◀◀ <br/>▶“메르스 아몰랑, 미국 갈거야” 박근혜 유체이탈화법 또 도마<br/>▶화성시 초교 22곳 휴업검토… 1곳은 이미 휴업<br/>▶사스 예방 모범국 한국, 메르스 민폐국 전락… WHO 12년전 대응 인정<br/>▶서울대 공원 낙타 2마리 격리 조치 “메르스 공포 때문”<br/>▶“메르스, 우리 아이 어떡해?”… 사우디 통계 “어릴수록 감염자 적어”<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39.txt

제목: 두 차례 암 극복한 92세 美 할머니, 여자 마라톤 최고령 신기록 세웠다  
날짜: 20150602  
기자: 이종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2100000061  
본문: 두 차례 찾아온 암을 이겨낸 92세 할머니가 최고령 여성마라톤 신기록을 수립했다.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고 다리 한쪽이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온전치 못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42.195㎞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했다.<br/><br/> 주인공은 미국 출신 해리엇 톰슨이다. 톰슨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로큰롤 마라톤에서 7시간24분36초 만에 결승선을 주파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br/><br/> 그는 92세 65일의 나이로 완주에 성공해 이 부문 최고령자로 기록됐다. 종전 기록은 92세 19일의 나이로 2010년 호놀룰루 마라톤을 완주한 글래디스 버릴이 보유하고 있었다. 톰슨은 작년에 7시간7분42초로 풀코스를 완주해 90대 이상 여자부 세계기록을 1시간30분 정도 앞당기기도 했다.<br/><br/> 이날 결승선 근처에는 톰슨의 사연을 전해들은 참가자와 시민 등이 몰려들어 최고령 기록의 수립을 축하했다.<br/><br/> 마라톤 주최 측 대변인 댄 크루즈는 “<span class='quot0'>그는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들어올 때도 (지친 기색이 없이) 강해 보였다</span>”고 말했다.<br/><br/>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거주하는 톰슨은 무려 17차례나 로큰롤 마라톤을 완주했다. 그는 두 번이나 암을 극복했다.<br/><br/> 톰슨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도전이 어느 때보다 힘겨웠다고 털어놓았다.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고 다리 한쪽이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br/><br/> 톰슨은 “<span class='quot1'>위독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리 치료를 받으면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완주를 했다는 사실이 다만 기쁠 뿐</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span class='quot1'>내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좋다</span>”고 덧붙였다.<br/><br/> 사실 그는 음악가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세 차례나 공연한 클래식 피아니스트로서 육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마라톤을 시작한 것도 70세가 넘어서였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이 백혈병, 림프종 환자를 위한 모금을 도와달라며 마라톤 동참을 권유한 것이 계기였다.<br/><br/> 톰슨은 “<span class='quot1'>그때 가족 여러 명을 암으로 잃었기 때문에 막연히 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냥 걸을까 했는데 옆에서 다들 뛰니까 나도 엉겁결에 뛰기 시작했다</span>”고 회고했다. 그는 내년에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했으나 상황은 작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br/><br/>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40.txt

제목: 국산 면역세포 치료제, 간암 재발률 40% 낮춘다  
날짜: 20150602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2100000038  
본문: 토종 면역세포 치료제가 간암 재발위험을 40%나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 서울대학교병원은 소화기내과 윤정환(사진)·이정훈 교수 연구팀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5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간암 생존자 230명을 대상으로 국산 면역세포 치료제의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면역세포 치료로 간암 환자의 재발 및 사망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처음이다.<br/><br/> 연구팀은 연구 대상자를 면역세포 치료군(115명)과 1차 치료 후 특별한 추가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115명)으로 나누고 총 60주간(1년3개월) 추적, 관찰하며 각 군의 재발률과 사망률을 조사했다. 연구 및 치료용 면역세포는 국내 바이오기업 녹십자셀이 제공했다.<br/><br/> 그 결과 1차 치료 후 무병생존기간(암이 재발하지 않고 생존하는 기간)이 대조군은 30개월에 그친 반면 면역세포 치료군은 평균 44개월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면역세포 치료군의 무병생존기간이 대조군보다 무려 1년2개월이나 길었다. 면역세포 치료군은 재발률과 사망률 역시 대조군에 비해 각각 37%, 79%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br/><br/> 윤 교수는 “간암은 완치 목적의 치료(수술, 고주파열치료, 에탄올주입술)를 받더라도 보통 5년 내 재발률이 70%에 달해 1차 치료 후 재발 및 사망 위험을 낮추는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 앞으로 면역세포 치료가 간암환자의 재발 및 사망률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br/><br/> 연구결과는 소화기학 분야 국제학술지 ‘가스트로엔테롤로지(Gastroenter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41.txt

제목: [기고-고기 가즈타카] 국제산업보건대회에 바란다  
날짜: 2015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2100000007  
본문: 국제산업보건대회가 지난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3년마다 개최하는 산업보건 분야의 가장 큰 대회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올해 제31회 서울대회는 국제산업보건위원회와 한국의 안전보건공단,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br/> 국제산업보건위원회는 1906년 설립됐다. 산업보건 분야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목표다. 국제산업보건위원회는 국제산업보건대회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다.<br/> 지금 세계는 글로벌 경제체제가 확대되면서 고용환경이 다양화되고, 근로자의 건강 수준 차이도 점차 커지고 있다. 때문에 각국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br/> 국제산업보건위원회는 그동안 직업병 예방을 위해 다른 국제기구나 세계 여러 나라와 석면 금지, 업무상 질병 예방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활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병 목록 최신화 작업이다. 2010년 국제노동기구의 직업병 목록 개정 작업에 참여해 직업병의 범주를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인자로 인한 질병, 호흡기 질환, 피부병,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직업병 범주에 포함됐다. 정신질환과 행동장애는 2010년 처음으로 직업병 목록에 올랐다.<br/> 이번 서울대회에는 35개의 과학분과위원회와 국제산업보건위원회 실무그룹이 함께 모여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논의한다. 산업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험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와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를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br/> 국제산업보건위원회에 소속된 과학분과위원회는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병 예방 문제를 다뤄왔다. 지난 3년간 100회가 넘는 학술회의와 심포지엄을 통해 세계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건강 문제나 산업보건 서비스 취약분야 등 핵심 현안들을 파악해 왔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진전된 논의 사항은 이번 서울대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br/> 먼저 고령화,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생식위험, 사회심리적 요인, 교대근무 및 작업생산성 저하, 면역독성학, 심장학, 신경독성학, 산업위생 등 근로자 건강 유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성과가 논의된다. 또한 서비스업, 간호학, 산업의학, 산업보건교육훈련, 농업, 건설업, 화학산업, 소규모 사업장, 실업문제 등 분야에서도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일하는 여성이나 광업, 나노물질, 응급치료와 같은 분야를 다루는 분과의 실적도 주목할 만하다.<br/> 특히 이번 서울대회에선 처음으로 글로벌 정책포럼이 개최된다. ‘산업보건 발전을 위한 도전과 동력’을 주제로 산업보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산업보건의 미래 비전과 실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과 새로운 형태의 산업보건 서비스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다.<br/> 이번 국제산업보건대회가 2015년 이후 산업보건 분야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양한 사례 연구 발표를 통해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길 바란다.<br/> 아울러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15년 서울대회의 성공을 기원한다.<br/>고기 가즈타카 국제산업보건委 회장<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42.txt

제목: 서울시, 4대 중증질환 外 저소득층 고액 진료비 9∼10월부터 ‘안심의료비’ 지원  
날짜: 20150602  
기자: 김재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2100000098  
본문: 정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4대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서울시가 하반기부터 의료비를 지원한다.<br/><br/> 서울시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외 질병으로 고액 진료비를 지출하는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안심의료비’ 제도를 9∼10월 중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지원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br/><br/> 시는 일단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스템’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최저 생계비 200% 이하(200% 초과 300% 이하는 별도 심사 후 지원), 재산 2억7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 수준은 최대 2000만원이다.<br/><br/> 대상자를 파악하는 방식은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여기서 나아가 각 자치구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계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br/><br/> 시는 올해 안심의료비 사업을 위해 35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안심의료비 사업이 환자안심병원처럼 공공의료 지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에서 처음 시행한 환자안심병원은 병원 책임 아래 간호사가 다인병상의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한다. <br/><br/>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43.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⑮아주대병원 점막하종양클리닉 김진홍 교수팀] 위·식도 점막下종양 치료 새 길 개척  
날짜: 20150602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2100000036  
본문: 위·식도에 생긴 종양 덩어리를 개복하지 않고 내시경만으로 깨끗이 없앨 수 있을까. 피부를 째는 수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환자의 마음이다.<br/><br/>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진홍(59) 교수팀은 환자들의 이런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점막하종양클리닉을 운영 중이다.<br/><br/> 점막하종양이란 말 그대로 위·식도 점막 아래에 존재하는 점막하층 또는 근육층에 생긴 종양을 가리킨다. 상피하종양이라고도 한다. 위·대장 내시경 검사가 보편적으로 이뤄지면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된 용종은 점막층에 혹이 생긴 경우다.<br/><br/>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2%가 점막하종양을 갖고 있다. 이 중 약 40%는 근육층에서 발견되고 있다. 위암의 1∼3%가 점막하종양에 의해 생긴다. 따라서 위·식도 안에서 점막하종양이 발견되면 무조건 도려내는 것이 원칙이다.<br/><br/> 음식이 소화되고 대변으로 배설되는 소화관은 해부학적으로 4개 층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가장 안쪽 층인 점막층은 음식물이나 분변과 직접 맞닿는 면이다. 위암, 대장암 등 종양성 질환, 소화성 궤양, 염증성 질환 등 대부분의 소화기병은 점막층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입이나 항문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면 점막층을 직접 관찰하고 조직 채취와 동시에 병변을 비교적 쉽게 잘라낼 수 있다.<br/><br/> 그러나 점막층 아래쪽에 깊숙이 위치한 점막하층이나 근육층에 병이 생겼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내시경으로 검사해도 정상 점막으로 덮인 융기성 덩어리 형태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br/><br/> 예를 들어 담요 표면에는 조그마한 먼지가 붙어 있어도 눈에 쉽게 띄어 손가락으로 집어낼 수 있다. 하지만 담요 밑에 사과, 배, 참외가 있으면 모두 볼록하게 튀어나온 형태만 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과이고, 배며 참외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다.<br/><br/>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조직검사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조직검사를 할 때 점막층을 특수 기구로 절개해야 하고 그로 인해 출혈위험이 뒤따른다는 점이다.<br/><br/> 김 교수팀은 이 때문에 내과, 외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 교수들과 협진하는 체제를 구축해놓고 있다. 점막하종양을 진단하는 기본검사는 내시경 초음파검사다. 태아의 상태를 보기 위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것처럼 점막하종양을 관찰하려면 내시경 끝에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기구를 부착한 내시경 초음파의 역할이 중요하다.<br/><br/> 김 교수팀은 최근 20년간 내시경 초음파검사 장비 운영 능력을 키웠다. 특히 2005년에 도입한 선형 내시경 초음파 장비는 기존 방사형 장비와 달리 검사 중 바늘을 삽입해 조직을 채취하는 ‘세침흡인생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점막하층 관찰과 조직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br/><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점막하종양 중 근육층에 생긴 것은 대부분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적검사를 철저히 하며 적절한 제거대책을 찾아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br/> 최근 김 교수팀은 뿌리가 너무 깊어서 내시경 시술만으로 떼어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장관외과 허훈·한상욱 교수팀과 협업하는 ‘하이브리드 노츠(Hybrid NOTES)’법을 적용,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치료법은 김 교수팀이 내시경으로 점막하종양 부위의 위벽을 전층(全層)에 걸쳐 전기칼로 도려내어 구멍을 내면 한 교수팀이 복강경 수술로 종양조직을 도려내고 위장을 봉합해주는 방법이다.<br/><br/> 김 교수팀은 이뿐만 아니라 점막하종양을 도려내지 않고 열에너지로 응고시켜 파괴하는 내시경적 고주파 소작술을 점막하종양 치료에 적용하는 연구도 하고 있다.<br/><br/> 김 교수팀은 또한 병리과 및 영상의학과 교수진과도 정기적으로 정례 토론회를 갖고, 임상 소견을 교환하며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김 교수팀의 이런 협업, 협진 노력은 의료진의 발전뿐만 아니라 환자 진료 수준의 질적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br/><br/> 한편, 김 교수팀은 위식도 점막하종양 환자들을 돕기 위해 점막하종양 전문 홈페이지(www.점막하종양.com)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점막하종양의 진단 및 치료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44.txt

제목: 노바티스, ‘새 치료옵션’ 2세대 ALK 양성 표적항암제 개발  
날짜: 2015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110017445252  
본문: 표적항암제가 개발되면서 폐암치료는 획기적으로 진보했다. 최근 10여년 새 폐암환자에게서 암세포를 만드는 다양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고, 해당 유전자를 차단하는 표적항암제 개발이 두드러졌다. 폐암환자의 약 70%가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폐암환자의 상당수는 수술과 더불어 항암치료를 받게 된다. 따라서 표적항암제의 진보는 병기가 높은 폐암환자에게 완치라는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희망이 된다. <br/><br/> ◇폐암과 유전자변이 그리고 표적항암제 치료=같은 폐암환자라도 종류가 다르다. 검사를 통해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 폐암의 종류가 나뉘고 사용하는 약제도 달라진다. EGFR 유전자가 폐암에서 발견되면서 이 유전자를 차단하는 다양한 표적항암제가 만들어졌다. 문제는 ALK 유전자 변이를 지닌 폐암환자다. EGFR 유전자에 비해 비세포 폐암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비율이 2∼7%에 지나지 않아 해당 유전자를 타깃으로 하는 항암제의 개발이 더딘 편이다. 그러나 ALK 양성 폐암환자는 음성 환자에 비해 암세포 증식이 빠르고 전이가 잘돼 악성암으로 꼽힌다. 재발 위험이 2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나 간 전이 위험이 높다는 보고가 있어, ALK를 타깃으로 하는 다양한 표적항암제의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br/><br/> ◇2세대 ALK 양성 표적항암제 등장 ‘뇌 전이 막는 유일 대안’=ALK 유전자변이가 발견된 경우 지금까지 크리조티닙(Crizotinib) 성분의 표적항암제로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표적치료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존 표적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세대 ALK 억제제 표적항암제가 개발됐다. 노바티스에서 나온 세리티닙(Ceritinib) 성분의 자이카디아(Zykadia)는 조기 허가승인을 받을 정도로 임상연구에서 크리조니팁에 내성을 갖는 환자에서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과거 ALK 표적항암제 치료경험이 있는 폐암환자 163명과 치료경험이 없는 83명을 대상으로 자이카디아를 투여한 결과, 약제에 반응하는 환자군이 61.8%를 차지했다. 여기서 자이카디아로 첫 치료를 시작한 83명의 환자군의 질병무진행 생존기간이 18개월을 웃도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br/><br/> 특히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일컬어지는 뇌전이 폐암환자에게서도 치료 가능성이 입증됐다. 암이 뇌로 전이된 124명의 환자에게 자이카디아를 투여한 결과, 55.6%가 약제에 반응했고 29명이 참여한 임상연구에서 3분의 1이 자이카디아 투여 후 뇌로 전이된 종양의 크기가 줄었다. <br/><br/> 자이카디아 임상연구를 진행한 마가렛 듀건 박사(노바티스 글로벌 프로그램 헤드 수석부사장)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기자와의 만남에서 “암 유전자를 연구하는 정밀 종양학의 최신 성공 사례로 자이카디아를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폐암환자는 기존의 ALK 억제제를 투여했을 때 1년도 안 돼 병이 진행됐다. 자이카디아를 이용한 임상시험에서 병의 무진행기간이 1년을 넘겼다는 점과 치료제에 대한 반응률이 약 56%에 달했다는 점, 뇌로 전이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사실은 이전과 다른 획기적인 결과”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에서 높은 치료효과가 지속적으로 도출될 경우 1차 치료제로 승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br/><br/> ◇자이카디아, 가치 인정받아 이례적 빠른 승인=자이카디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혁신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로 분류됐다.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빠른 허가승인이 가능하다. 현재 자이카디아는 국내와 상가포르에서 과거에 크리조티닙 항암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거나 뇌로 전이를 보이는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허가승인을 받았다. 지금까지 미국, 유럽연합, 멕시코, 칠레, 한국, 과테말라, 에콰도르 등에서 허가를 받았다. 유럽 여성 폐암환자 연대기구(WALCE) 스테파니아 발론 국제관계 담당관은 “ALK 양성 비소세포 폐암을 겨냥한 치료 대안이 매우 제한적인 형편임을 상기할 때 자이카디아의 허가승인은 폐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이카디아의 본격적인 국내 출시가 예상돼 폐암환자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br/><br/>싱가포르=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45.txt

제목: [빨간불 켜진 고령자 의료정책] 진료비 늘어도 환자만족도 제자리… 베이비부머들 본격 진입땐 어쩌나  
날짜: 2015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110017445219  
본문: 국내에서 75세 이상 노인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비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고민도 함께 늘고 있다. 은퇴 직후 인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비다. 실제 노인들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 보유한 자산, 연금에서 높은 지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br/> 특히 75세 이상 노인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도 늘면서 고령자들에게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예비노인 계층인 베이비붐 세대가 해당 연령이 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인의료에 대한 별도의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해 이들 노인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80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김준석(가명)씨는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모든 부담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짊어져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그나마 민간보험에 가입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모님 의료비 부담으로 심각한 가정의 재정파탄 위기까지 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정부가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령의 부모들을 책임져야 하는 자식 입장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크다. 고령자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국가차원의 의료정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br/>앞으로 노인 인구가 더 늘기 때문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포함한 전체 노년층의 의료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 국민의 7%에 불과했지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2017년 65세 인구비율은 전체 국민의 14%를 넘어서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65세 인구비율이 전체 국민의 20%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노인 진료비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령에 따라 전기노인(65∼74세), 후기노인(75세 이상), 예비노인(55∼64세)으로 구분해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후기노인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진료비 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01만명, 진료비는 19조3551억원으로 전년보다 10.4% 늘었다. 전체의 11.9%인 노인인구가 진료비의 35.5%를 쓴 것으로, 진료비 집중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r/><br/>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 예비 노인이 노인인구로 진입하면서 진료비 부담이 더 증가한다는 점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 예비노인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면 노인진료비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노인진료비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양해야 할 노년층이 늘고 관련 의료비도 늘어나는 만큼, 고령사회에 적합한 노인의료정책 개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br/><br/> ◇국내 노인의료정책 ‘낙제점’, 인센티브제 등 맞춤형 정책 도입해야=우리나라 노인 1명당 약 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약 40%가 노인 진료비에 쓰이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재호 대한노인의학회 정책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일반인과 거의 동일하게 노인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없다”며 “노인에 맞는 의료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질병 예방 중심으로 노인 의료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 그는 대표적인 것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꼽았다. 노인층은 복합만성질환을 대부분 갖고 있어 만성질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 이용량도 꾸준히 증가한다. 이에 노인들의 만성질환 발생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운영된다. 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별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재호 정책부회장은 “<span class='quot0'>노인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노인 의료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중증 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하는 노인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노년층이 금연과 금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실천했을 때 건강보험료와 병원에서의 외래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방식이다.<br/><br/>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한 곳을 지정해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선택의원제를 연계하는 것도 방법도 대안으로 꼽힌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span class='quot1'>노인들이 특정 병원을 선택해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10%만 부담토록 하고 그 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연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일부에서는 고령자의 의료이용율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여러 곳의 병원을 방문해 중복처방, 부작용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의약분업 시행 이후 수십조원이 넘는 비용이 조제료 등 약품비에만 치중돼 지출되는 것도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2'>약품에 대한 효능, 중복처방, 효과, 부작용에 대한 환자 모니터링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선택분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조제료를 절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노인본인부담은 총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1500원을 지출하지만,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정률제인 30%가 적용돼 4500원대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경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은 부담이 된다. 신영석 부원장은 “노인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필요하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가 가구 보유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상위에 속한다는 분석도 있다. 노인본인부담금을 경감하려면 현행 정률제와 정액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의료체계 개편 절실=국내 70세 이상 노인 입원 환자의 경우 17.5%가 전체 입원비의 64.6%를 소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 상당수는 ‘암’이라는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이 다가오는 시점에 의료비 부담이 절정에 이른다.<br/><br/>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 건강생태주기별 보건사업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노인들의 사망 전 의료비 지출규모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사망자의 사망시점에서 36개월 이전의 월평균 의료비(건강보험진료비)는 36만7000원이었으나, 사망 2개월 전의 월평균 의료비는 260만8000원, 사망 1개월 전의 월평균 의료비는 284만6000원으로, 사망 36개월 이전에 비해 6.8배 증가했다. 우리나라 암환자의 경우, 암으로 인한 전체 의료비의 약 3분의 1 가량을 임종 한 달 전에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생애말기에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으며 많은 의료비 지출이 발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통증관리가 미흡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등 최선이 아닌 차선의 치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r/><br/> 선우덕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3'>환자 뿐 아니라 환자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말기암 등 중증 노인 환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돼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3'>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진료체계를 개편하고 환자 주거지 근처의 완화의료기관 또는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송의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또한 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는 “공공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말기암, 중증 노인 환자에게 입원일수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다. 지역공동체 중심의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노인 1000만명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해다.<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em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46.txt

제목: 약가제도 개선안은… 경제성평가 면제 통해 보험등재 기간 단축 기대  
날짜: 2015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110017445228  
본문: 최근 발표된 약가제도 개선안은 2012년 일괄약가 인하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개편 및 재정비여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신약 보험약가제도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설명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의 큰 줄기는 대부분 변동 없이 확정됐다. <br/><br/> 이번 개선안에서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신약 약가 결정 시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 가치 반영 △희귀암·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특례제도의 신설 △협상 절차 생략을 통한 보험 등재 기간 단축이다. 이전 신약의 약가 결정에 있어서는 신약이 효과 개선, 부작용 감소, 편의성 등을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로 평가해 왔다. 때문에 대체약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폭넓게 설정되어 있어 신약이 20∼30년 전의 치료제와 비교해 신약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즉 결국 국가가 효과 좋은 최신의 치료제가 있어도 우선적으로 오래된 약을 사용토록 하는 정책을 펴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br/><br/> 이번 개선안에서는 대체약제가 아닌 비교약제의 개별 약가 수준까지 인정하도록 변경돼 약제 급여목록에 등재된 대체약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개선안에도 한계가 지적되는데 희귀암·희귀질환 치료제들은 치료제 개발 자체가 어려워 새로운 신약의 출시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몇십 년 만의 혁신적인 치료제가 첫 등장했을 때 결국 기존의 대체약제와 비교한다는 점이다.<br/><br/>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약의 보험급여 여부를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은 경제성평가로 통상적으로 제약사가 경제성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평가받기까지 1∼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경제성평가에서는 비용-효과성과 비용-효용성의 조건을 판단하는데 최근 혁신적인 신약이 등장하면서 도입초기와 평가의 방식이 변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 <br/><br/> 기존 약제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료효과가 뛰어난 혁신적인 신약의 경우, 특히 전이성암과 같은 생존율이 매우 낮은 질환의 생존을 늘려 만성질환으로 질환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신약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의 경제성평가로는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제약업계는 토로한다. 예를 들면 그동안 치료적 대안이 없던 말기암환자 치료에 어떤 신약이 뛰어난 치료효과를 나타내 생존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계속 약값은 누적되어 결국 비용효과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의 경제성평가 모델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고, 심평원도 현 평가체계를 재점검하고 한국형 경제성평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계획 중이다. 환자들도 신약의 효과를 체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급여까지 기다리는 한계가 있어 기존 약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기준이 마련돼 환자들이 혁신적인 신약의 치료가 하루빨리 이뤄지기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br/>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47.txt

제목: 로봇수술 건보적용 놓고 의료계 찬반 양론  
날짜: 2015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110017445235  
본문: 정부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로봇수술을 이용한 암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로봇수술 급여화와 관련해 찬반론이 엇갈려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br/><br/> ◇정부, 로봇수술 선별급여 적용 가닥…시기 등 미정=정부는 로봇수술에 대해 선별급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선 로봇수술의 선별급여를 통해 건강보험 영역에서 관리하며 급여 전환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선별급여는 비용효과성은 미흡하지만 급여 요구가 있는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50∼80%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 이는 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하는 중간 단계로 3년 이내에 경제성 재평가를 통해 급여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br/><br/> 그러나 로봇수술의 경우 아직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데다 로봇수술을 도입한 곳이 몇몇 대형병원에 국한된 현실에 비춰볼 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br/><br/> 가장 큰 문제는 비용효과성이다. 기존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수술에 비해 비용은 2∼3배 정도 비싸지만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달 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내에서 로봇수술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 전립선암에 대해 로봇수술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고가의 비용에 비해 삶의 질 개선 효과가 기존 수술 대비 크지 않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전립선암 로봇수술은 복강경이나 개복 등 기존 수술 대비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다소 효과는 좋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기존 수술과 비교해 합리적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br/><br/> ◇의료계 급여화 환영 vs 시기상조 찬반 엇갈려=로봇수술 급여화와 관련해 국내 의료계의 반응은 찬반 양쪽으로 엇갈리고 있다. 로봇수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급여화해야 한다는 급여화 찬성 쪽과 아직 데이터 확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 있다.<br/><br/>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로봇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기본 원칙만을 재확인하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열린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로봇수술 관련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지만 선별급여 적극 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br/><br/> 김한숙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자료 수집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 학회 및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집단인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선별급여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로 언제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br/><br/>박주호 기자 epi0212@@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48.txt

제목: [인터뷰] 정한영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응급대비 교수급 전문의 24시간 상주  
날짜: 2015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110017445221  
본문: ‘암’보다 무서운 병이 있다. 바로 ‘심뇌혈관질환’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인구가 10만 명당 50.3명,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인구가 50.2명으로 각각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신속한 치료가 최우선이다.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망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후유장애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떠안게 될 수 있다. 인천지역은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 뇌졸중 및 당뇨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이 전국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br/><br/> 무엇보다 서해 원거리 도서지역들이 분포돼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골든타임이 지켜지기 어려운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지역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지역이 인천이다. 인하대학교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문제를 해결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한영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사진·재활의학과 교수)을 만나 센터의 주요한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br/><br/> 인하대병원은 환자들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3월에는 신관을 증축했으며, 전문적인 치료시설과 최첨단 장비를 확충해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심뇌혈관질환에서 핫라인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 꼭 필요한 제도다. 센터는 이러한 핫라인 시스템으로 지역사회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 교수진과 직접 전화 연결로 환자 전원에 대한 의사 결정을 신속히 해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정한영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응급상황을 대비해 야간과 주말에도 교수급 전문의들이 365일 24시간 상주하며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들이 응급실에 내원하면 최종 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해 심장과 뇌 기능을 가능한 한 보존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평가심사원에서 실시한 ‘2014년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기도 했다.<br/><br/> 심뇌혈관 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센터는 지역사회를 위해 ‘예방관리’에도 집중적인 홍보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의료의 개념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확대된 시점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예방관리 및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도 개선 차원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센터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지역시민이 운집하는 야구장, 축구장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 전광판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공익광고를 송출하는 등 조기증상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r/><br/> 심뇌혈관 발생 이후에 재활치료도 중요하다.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환자 후유장애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정 센터장은 “<span class='quot0'>환자가 심장이 뛰는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 생활관리를 통해 환자가 가정과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센터는 조기재활치료실, 심장운동치료실 등 전문재활 인프라를 통해 최고 수준의 재활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양질의 재활 서비스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최신 장비 구축, 재발방지 교육,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기관과의 연계구축 등을 통해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br/><br/> 정한영 센터장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유해요인을 잘 관리해야 한다. 흡연, 음주를 가급적 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면 심뇌혈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49.txt

제목: [책과 영성-팀 켈러의 기도] 기도는 주문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  
날짜: 20150530  
기자: yunjs@kmib.co.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30100000015  
본문: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하지만 기도를 기도답게 하는 법을 설명하거나 안내하는 글은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 저자는 기도의 여러 면모를 빈틈없이 살핀 후 우리가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는 기도(슬픔, 상실, 사랑, 용서)에서부터 시작해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용사였던 아우구스티누스, 마르틴 루터, 존 오웬, 장 칼뱅 등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특히 저자 자신이 2년 동안 기도의 훈련으로 얻은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 준다. 나아가 기도를 한층 개인적이면서도 강력하게 만드는 길과 기도를 몸에 배게 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신학적, 예배학적, 목회적, 실천적인 기도 안내서다.<br/><br/> 저자는 갑상선 암을 겪는 인생의 어려움 중에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책은 저자가 2년여 동안 기도에 대해 배우고 탐구한 것들을 치열하게 적용하고 훈련한 시간을 가진 후에 얻은 결과물이다.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에 성공한 저자의 초대에 응해 보자.<br/><br/>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뉴스위크에서 ‘21세기의 C 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은 저자는 현재 리디머 장로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뉴욕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통해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br/><br/> 리디머 교회 성도들은 ‘맨해튼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회중’이라고 불린다. 개척 당시 50여 명의 성도로 시작한 이 교회는 현재 3만 명 이상이 교회 웹사이트에서 팀 켈러의 설교를 다운로드 받아 듣고, 약 8000 명의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교회로 성장했다. 이런 이유로 그에게는 ‘대도시에서 가장 성공한 기독교 복음 전도자’라는 별명이 붙여졌다.<br/><br/> 그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버크넬 대학을 졸업하고 고든콘웰신학교와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공부했다. 국내에 소개된 저서로는 ‘팀 켈러의 일과 영성’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당신을 위한 로마서 1, 2’(이상 두란노) 등이 있다.<br/><br/> 바른 기도를 꿈꾸는 이들은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안다. 많은 이들은 인생 후반부에 이 같은 기도를 체험한다.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고 하나님 앞에선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 <br/><br/> 저자는 기도를 잘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도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된 기도는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주 중요하다고 한다.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며,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다 <br/><br/> 기도는 결코 주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기도는 잘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br/><br/>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 한국 교회에 팀 켈러는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하는 키워드를 던지고 있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답인 건 맞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바른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다.<br/><br/> 책을 번역한 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줄곧 잡지사와 출판사에서 취재, 기획, 번역 등을 해왔다. 여행하고 사진 찍는 일을 일상의 즐겨찾기에 넣어 두고 있다. 지은 책으로 ‘벽수씨의 교회 원정기’(포이에마)가 있다. 번역한 책으로는 ‘래디컬’ ‘래디컬 투게더’ ‘팔로우 미’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닉 부이치치의 허그’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상 두란노) 등이 있다.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50.txt

제목: [가족행전] ‘참살이힐링마을’ 이호영 목사, 가위손에서 정원사로… 믿음의 씨앗, 은혜로 피었습니다  
날짜: 20150530  
기자: 노희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30100000017  
본문: "이건 망촛대라고 하는 건데, 된장에 무치면 감칠맛 나요. 저건 산딸기예요. 성전을 오르다가 산딸기 따먹고, 옆에 있는 뽕잎도 따요. 저건 인동초, 으름, 다래순입니다. 여기 오디 한번 잡숴 봐요."<br/><br/> 보기엔 그저 그런 풀 같은데, 그의 눈엔 무엇 하나 허투루 이뤄진 게 없다. 경기도 안성 보개면 '참살이힐링마을'에는 이런 산야초가 120여 가지나 된다. 주인장 이호영(55) 목사가 18년 전 1만3223㎡(약 4000평) 대지에 나무를 심고 가꾼 열매들이다. 이 목사는 "나는 심기만 했을 뿐 자라고 거두신 이는 하나님"이라며 "다 들풀 같아도 먹으면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 말했다. 참살이힐링마을에 가면 '산야초효소가든'이라는 식당에서 건강음식을 맛볼 수 있다.<br/><br/> 지금은 깊은 산골에서 사람들에게 치유와 쉼을 주기 위해 숲을 가꾸는 섬김이로 살고 있지만, 원래 그의 직업은 전설적인 헤어디자이너였다. "갈퀴로 돈을 긁어모을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를 계기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신학교에 들어가고 2004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27일 참살이힐링마을에서 이 목사를 만났다. 부(富)가 보장되는 '가위손'을 버리고 산야초를 키우는 '정원사'로 사는 이유를 들었다.<br/><br/>돈은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게 중요하다<br/><br/>20대 초부터 미용을 해온 그는 선배와 함께 서울 서초동에 ‘이홍머리방’을 열었다. 두 사람의 성을 따서 지었다. 선배 ‘홍 선생님’은 미용 기술이 뛰어났다. 특히 손님이나 직원들을 대하는 데 있어 배울 점이 많았다. 틈틈이 예수님도 전했다.<br/><br/> “제가 어렸을 때 잠깐 교회에 다닌 적은 있지만, 무엇 때문인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홍 선생님을 보면서 ‘아, 저런 분도 계시네?’ 생각했죠. 늘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br/><br/> 그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고 싶었다. 그래서 휴일이면 보육원이나 양로원에서 미용봉사를 했다.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미용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br/><br/> “보육원에 간 첫날, 다섯 살쯤으로 보이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좀 줬어요. 그런데 그의 형이란 아이가 갑자기 동생을 밀쳐내더니 제가 준 간식을 뺏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으로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저씨 같은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교회에서도 사랑 사랑하면서 이렇게 먹을 거 주고 나면 나중에 찾지 않아요. 아저씨도 이렇게 주다가 안 올 거잖아요. 왜 먹을 거 주면서 사진 찍어요? 왜 우리는 계속 버림만 받아야 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 같았어요.”<br/><br/> 삼풍백화점 붕괴, 삶의 전환점이 되다<br/><br/> 30대 초반 그는 사랑을 나누는 헤어디자이너로 유명세를 탔다. ‘심장병 어린이 돕기’ 같은 자선 헤어쇼를 열면 1000명이 넘게 모일 정도였다. 그날도 자선 헤어쇼를 계획했다.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에서 말이다.<br/><br/> “방송에 나올 정도로 홍보를 많이 하고 준비했지요. 1500명 이상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행사 한 달 전쯤에 교통사고로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뒷일을 수습하느라 쇼를 두 달 뒤로 연기했지요. 그런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겁니다. 헤어쇼를 그냥 진행했다면…. 아찔하죠.”<br/><br/> 그때 그는 생각했다. ‘아, 이게 뭐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것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낡은 성경책. 예전에 ‘홍 선생님’은 일하는 틈틈이 이 성경책을 읽었다. 가끔 무슨 내용이 써있는지 궁금해 하곤 했다. 그는 일을 미루고 성경책과 바리캉(머리를 깎는 기구), 50만원을 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방황하다 도착한 곳이 한얼산기도원이다.<br/><br/>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물질적인 풍요로도 채워지지 않던 제 마음이 비로소 후련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내려가면 돈 버는 일 안 하고 어둡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입니다.”<br/><br/> 운영하던 5개의 이홍머리방을 모두 지인들에게 넘겼다. 일을 하면서 만난 이들과는 연락을 끊고 지냈다. ‘홍 선생님’이 목회자 사모가 됐다는 소식도 한참 뒤에 들었다.<br/><br/> “물질을 좇는 삶은 물 위를 걷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슬아슬해요. 풍덩 빠지잖아요. 하지만 믿음 위에 세워지면 그런 두려움은 싹 사라져요. 그래서 믿음을 좇기로 결심했지요.”<br/><br/> 97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신학교에 들어갔다. 이홍미용선교회를 통해 무료로 제자들도 키웠다. 조건은 딱 하나. ‘선교에 힘쓰자’는 거다. 그렇게 지금껏 키운 제자들이 2500여명. 개별적으로 제자들에게 연락해 함께 미용봉사를 하러 다닌다. 외국인근로자센터, 알코올중독자·정신질환자 요양병원, 군부대, 양로원 등 한 달에 평균 10곳으로 봉사활동을 다닌다. 흑산도, 홍도 등 섬 선교를 한 지도 벌써 12년째다.<br/><br/> 섬기고 나누기 위해 숲을 가꾸다<br/><br/> 신학교에 들어가고 처음 낙도로 선교를 떠났는데, 그곳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한 은퇴 목사를 만났다. 궁금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태우며 기도하는지….<br/><br/> “<span class='quot1'>목사님, 기도제목이 무엇입니까</span>” 하고 물었다. 노목회자는 “내가 갈 곳이 없다”고 답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span class='quot1'>은퇴하신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span>”<br/><br/> 그때부터 악착같이 땅 500평만 달라고 떼쓰듯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대지를 안성에 허락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를 고민할 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주셨다. “<span class='quot1'>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span>”(고전 3:6∼7)<br/><br/> 그는 나무와 풀을 가져다 심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 목사는 섬김의교회, 황토방, 편백나무방, 게스트하우스, 식당, 미용실도 지었다. 재정이 넉넉지 않다보니 이 모든 시설을 손수했다. 건설 현장에서 쓰다 남은 자재나 버려진 가구들을 얻어와 짓다보니 천장에는 곳곳에 못 자국이 나 있다.<br/><br/> “가끔 오시는 분들 중에 환경만 보시고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좀 안타까워요. 여기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런 숲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복인데 말입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 눈에 바벨탑이 쌓여가고 있어요.”<br/><br/> 그럼에도 참살이힐링마을은 활짝 열려 있다. 최근까지 암 환자 가족이 황토방과 편백나무방에서 묵었다. 이 목사의 꿈은 소박하다. 은퇴 목회자, 쉼이 필요한 선교사, 몸이 아픈 이들과 산야초를 가꾸고 건강음식을 나누며 친환경적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섬기는 게 숲을 가꾸는 이유다(참살이힐링마을 031-676-1009).<br/><br/>안성=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51.txt

제목: 6월 5일은 ‘암 환자와 가족 위한 기도의 날’… “암 환자 치료받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날짜: 20150529  
기자: 노희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29100000003  
본문: “암 환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특히 가난한 암 환자가 골고루 치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펼치소서. 암을 통하여 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암 환자와 가족이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br/><br/> ‘한국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모임’(한가모)의 기도 제목들이다. 오는 6월 5일은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의 날’이다. 한가모와 암퇴치운동본부, 21세기바보모임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제일교회(홍정기 목사) 로뎀홀에서 ‘제16회 한국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쉼터 세미나와 기도의 날’ 행사를 열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같이 기도한다.<br/><br/> 한가모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암으로 7만 명이 숨지고 20만 명의 새로운 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투병중인 암 환자는 100만 여명. 그 가족까지 합하면 250만 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 조무성(64·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사진) 한가모 대표는 “<span class='quot0'>이런 상황에서 암 환자를 위한 기도의 불씨는 계속 타올라야한다</span>”고 말했다.<br/><br/> 행사에선 ‘호스피스 수가제도의 영향과 한국호스피스협회의 대응방안’ ‘쉼터의 효과적인 준비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가난한 암 환자들을 돕는 방법과 관련해 ‘샬롬쉼터’ 만들기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조 대표는 “<span class='quot1'>성남에서 호스피스선교회 등을 운영하는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과 협력해 암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교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암 환자와 가족들을 쉼터를 통해 섬길 것</span>”을 제안했다. <br/><br/>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52.txt

제목: “생명은 신의 영역… 가족이라고 맘대로 결정할 수 없다” 정부·국회 ‘존엄사법’ 입법 추진 교계 우려  
날짜: 20150528  
기자: 유영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28100000028  
본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존엄사법’ 입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교계에선 무분별한 법제화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br/>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은 28일 “연명치료 중단의 절차 등을 담은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존엄사법)안’을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와 조율해 이 법안을 만들었으며 지난 2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br/> 존엄사는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의 한 환자가 부인의 요구로 퇴원한 뒤 사망하자 환자의 동생이 의료진을 살인혐의로 고발하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2008년에는 김모 할머니의 가족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이듬해 병원 측에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려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했다.<br/> 존엄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항암제투여 등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0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병원에선 환자 본인을 상대로 연명치료 의사를 확인한 뒤 실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확립된 절차는 없는 상태다.<br/>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존엄사 대상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 한정된다.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의식불명 등으로 환자의 뜻을 직접 묻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언장이나 일기장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면 가족 2명 이상의 동의로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기 힘든 경우에도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br/> 교계에선 가족의 동의만으로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존엄사가 남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생명은 어느 단계에 있든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span>”라며 “<span class='quot0'>절대적으로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면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해선 안 된다</span>”고 말했다. 이어 “생명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대리 결정토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어떤 치료도 효과를 볼 수 없는 말기환자이고 환자가 자기 의사를 자율적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의사들의 중복 진단과 병원윤리위원회의 판단 및 협의의 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연명치료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br/> 국군수도병원 박재형 교수도 “<span class='quot1'>연명치료 중단은 본인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명치료 계획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단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span>”고 말했다.<br/> 존엄사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2'>생명의 주권은 신의 영역에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환자의 가족은 물론 본인도 생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span>”고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2'>연명치료에 따른 치료비 부담 등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span class='quot3'>존엄사가 법제화되면 병원의 제한된 시설과 가족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을 수 있다</span>”며 우려했다.<br/>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53.txt

제목: “은행, 미래의 VIP ‘노령 자산가’ 잡아라”  
날짜: 20150527  
기자: 선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27100000088  
본문: 해외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경제력 있는 노령층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非)금융 서비스에 눈을 돌리고 있다. 노령층 자산가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재테크뿐 아니라 건강·스포츠·여행 등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아직까지 비금융 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실정이다.<br/> 26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금융사의 시니어고객 대상 비금융 서비스 사례’ 보고서를 통해 “<span class='quot0'>금융사를 이용하는 시니어고객은 금융·비금융상의 필요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사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span>”고 밝혔다.<br/> 연구소는 미국 웰스파고은행, 일본의 SMBC은행,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등을 비금융 서비스 제공의 성공사례로 꼽았다. 웰스파고은행은 노령 자산가들이 독립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예약 및 약 처방, 간병인 서비스, 집안 관리 등 생활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노령층 자산가의 가족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고객충성도 강화 및 은행의 대외이미지 제고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r/> SMBC은행의 ‘SMBC Club 50s’는 50세 이상으로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예수금 잔고 500만엔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 및 노후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거래잔고 1000만엔 이상 고객에게 전화 건강상담, 암 및 건강검진 할인, 여행 할인 등을 제공한다. 영국의 바클레이스은행은 노령층 고객 대상 디지털기술 교육 인력 7000여명을 고용해 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br/> 반면 우리나라는 노령 자산가에 대한 비금융적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소는 “급격한 고령화 진전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빠르게 증가하는 노령층 고객을 위해 국내 금융사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 국내 시중은행이 노령층에 제공하는 비금융 서비스는 외환은행의 ‘행복 노하우 클럽’, KB국민은행의 ‘골든라이프 서비스’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 ‘행복 노하우 클럽’은 연금 입금실적에 따라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우대 서비스(PH등급), 녹십자 헬스케어, 여행사 상품 할인, 상조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54.txt

제목: [헬스 파일] 메르스 두려워 할 이유 없다  
날짜: 20150526  
기자: 이재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26100000029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확진 환자가 3명으로 늘면서 메르스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r/><br/> 메르스는 2012년 6월 첫 인체 감염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확인됐다. 병원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후 증상 발현까지 잠복기는 2∼14일로 알려져 있다. 초기 증상은 발열, 기침, 오한, 인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과 같이 독감 증상과 매우 유사하다.<br/><br/> 일부 환자는 중증으로 진행하면서 호흡부전, 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당뇨나 암,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신장질환과 같은 만성 생활습관병을 갖고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br/><br/> 메르스의 전파경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오만과 이집트의 경우 메르스를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 항체가 낙타한테서 발견됐다. 카타르 지역에서도 메르스 환자가 접촉했던 낙타가 이 바이러스의 RNA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낙타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주요 숙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실제 발병자의 30%가 낙타와 직접 접촉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예방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 감기치료처럼 눈에 보이는 증상 완화치료와 합병증을 막거나 늦추는 치료 위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br/><br/> 메르스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선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하고 2차 세균감염이 의심될 때는 항생제 처방도 필요하다. 신장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투석 치료가 필요하다. <br/><br/> 메르스는 사스와 유사한 경과를 밟는다. 사망 시 원인질환도 폐렴과 호흡부전증후군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사스는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말할 때 튄 침방울에 섞인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반면 메르스는 에볼라처럼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점이 다르다.<br/><br/> 따라서 메르스는 단시간에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일반 국민은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다만 당분간 중동지역 여행을 삼가되, 불가피한 경우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는 게 좋겠다. 또 위험지역 여행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받도록 하자. <br/><br/>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55.txt

제목: [가정예배 365-5월 25일] 주께서 주신 기도  
날짜: 201505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25100000002  
본문: 찬송 : ‘하늘에 계신(주기도문)’ 636장 (통 548장)<br/><br/>신앙고백 : 사도신경<br/><br/>본문 : 마태복음 6장 9∼13절<br/><br/>말씀 :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의 일입니다. 전쟁이 길게 지속되면서 병사들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링컨 전 미국대통령 휘하에 있던 장군이 링컨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span class='quot0'>각하, 우리가 전쟁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우리 편인 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고달플 일은 없을 텐데요.</span>” 그 순간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br/> “이봐, 나는 하나님이 남군 편인지 북군 편인지 거기에 관심 없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남군 편이냐 북군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있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해.”<br/>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 아래 있게 하고, 하나님 편에 있게 하는 기도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찾게 됩니다. 뜻밖에도 대한민국은 주기도문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기도 전 주기도문이 우리 손에 먼저 건네졌기 때문입니다.<br/> 184년 전, 칼 구츨라프라는 선교사가 동인도 회사의 암 허스터 호를 타고, 조선 순조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습니다. 그는 쫓겨나기 직전 서해의 고대도에 머물면서 짧은 기간 동안 주기도문을 번역해 줍니다.<br/> 우리가 생각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그냥 암송해버리고 마는 이 주기도문에는 뜻밖에도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주가 있습니다. 우리네 삶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만 산다면 우리 모두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b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우리가 그 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고백 속에 ‘관계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br/> “<span class='quot0'>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span>”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일까요? 이 기도 속에 이런 열망을 담아 보셨나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지인, 나의 친척,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나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를 그날을 허락하옵소서.’ 이렇듯 주기도문은 우리를 선교의 열망을 담아 헌신으로 이끌기도 합니다.<br/>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고독하거나 외로울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응답의 확신도 함께 합니다. 주님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겠다’ 하셨습니다(마 18:19∼20). 주기도문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볼 수 있을까요?<br/><br/>기도 :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첫 선물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제 가정을 재건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br/>주기도문<br/>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56.txt

제목: [총리 후보 황교안] 고승덕·김용덕과는 같은 반… ‘영감’처럼 항상 진중  
날짜: 20150525  
기자: naa@kmib.co.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25100000055  
본문: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는 경기고등학교의 마지막 비평준화 세대인 1976년 72회 졸업생이다. 당대의 명문고였던 경기고 72회는 동기 720명 중 450여명이 서울대에 진학했다. 대학교수가 된 동기가 169명, 법조인이 44명, 의사는 88명이나 된다(2011년 기준). 학창시절 3년을 공유한 고교 친구들이 2015년 한국 사회의 ‘지도층’이 된 셈이다.<br/> 정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김기준 의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등 주로 야당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여권에선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황 후보자와 같은 반 친구였다. 법조계에는 김용덕 대법관,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이 현직 고위 법관으로 재직 중이다. 재계 인맥도 탄탄하다. 현대제철 우유철 대표이사 부회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안건희 이노션 대표이사, 동양생명 구한서 사장, LG유플러스 강문석 부사장 등이 눈에 띈다.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이용걸 세명대 총장이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다.<br/> 76년 경기고 졸업앨범을 보면 황 후보자는 3학년 때 문과 1반에서 수학했다. 고승덕 전 의원, 김용덕 대법관, 성낙송 원장 등과 같은 반이었다. 노회찬 전 대표는 문과 2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과 11반이었다. 황 후보자는 1∼3학년 모두 반장을 지냈고, 전교학생회장 격인 학도호국단 연대장을 맡았다.<br/> 동창들은 황 후보자가 공부만 하는 전형적인 ‘학구파 모범생’은 아니었다고 평가한다. 한 동창생은 24일 “워낙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웬만큼 잘해서는 기억에 남지도 않는다. 오히려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던 친구는 김용덕 대법관과 고승덕 전 의원 정도였다”고 말했다.<br/> 황 후보자는 고교 시절 공부 못지않게 노래 부르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교내에서 남성 4중창단을 조직해 지역·종교 문화행사 등에 여러 번 참여했다. 서울 대방동 성당 행사에서 그의 중창단이 ‘아베마리아’를 불렀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취임 전인 2012년 12월 동문 7명과 ‘KG하모니밴드’라는 이름으로 색소폰 밴드 공연을 갖기도 했다.<br/> 동창들은 그를 고교생답지 않게 과묵했던 학생으로 기억했다. 한 72회 졸업생은 “농담을 해도 무게 있는 농담만 해서 ‘영감’ 같다는 생각도 했었다. 항상 진중하고 어른스러웠고, 친구 앞에서도 전혀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동창은 “노회찬 전 대표는 농담을 많이 하고 친구들에게 장난도 잘 쳤는데 황 후보자 성격은 완전히 반대였다”고 회상했다.<br/> 황 후보자는 학생회장을 지내면서 교내 활동도 활발히 했다. 한 동창생은 “졸업식 후인 76년 2월 경기고가 화동교사(校舍)에서 영동교사로 이전했다. 황 후보자가 당시 이삿짐 트럭 행렬 중 맨 앞 차량에 타서 교기를 들고 서 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br/> 황 후보자는 졸업앨범 말미에 교사 이전과 졸업을 아쉬워하는 편집후기도 남겼다. 그는 ‘은행나무 여윈 가지에 흰 눈발이 서리니 벌써 헤어져야 하는가 보다. 남들이 말하는 고교시절. 잘 보내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이어 ‘괜히 스산해지누나. 왜일까? 이 교사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은 아닐까? 잊혀지진 않겠지, 친구 얼굴, 선생님 모습. 아늑한 뒷동산. 살벌했던 자습실. 하나. 정녕 이대로 멀어져 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br/> 황 후보자는 검찰 재직 중이던 2008년 1월 고3 담임선생님이 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택에 병문안을 가기도 했다. 동행했던 같은 반 친구는 “선생님께서 ‘죽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을 봤다’며 좋아하셨고 반가움에 계속 눈물을 흘리셨다. 쩌렁쩌렁했던 선생님께서 변한 모습에 다들 눈시울이 붉어졌고, 다같이 큰절을 올렸던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br/> 황 후보자가 앞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공교롭게도 ‘절친’으로 알려진 이종걸 원내대표가 철저한 검증을 공언한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span class='quot0'>황 후보자는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바타</span>”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span class='quot1'>공안정치의 상징을 총리 후보자로 내세운 것은 우리나라의 위기</span>”라고도 평가했다. 동창들은 “두 사람의 친분은 상당히 두터웠지만 평소 성향이나 정치적 지향점은 전혀 달랐다”고 기억했다.<br/> 이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에게 날을 세우면서도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황 후보자의 딸 성희(29)씨 결혼식에는 축하 화환을 보냈다. 직접 참석하려다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황 후보자는 동문회에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았고, 법무부와 검찰에도 청첩장을 돌리지 않았다. 식장에는 축의금 테이블과 방명록이 없었다. 식권은 가족과 친지 등에게만 미리 나눠줬고 따로 여분도 없었다.<br/> 300석 규모의 식장은 가득 찼고 복도에도 하객이 몰렸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진태 검찰총장이 화환을 보냈다. 황 후보자는 식장에 들어서면서 “가족들과 작은 결혼식을 하려고 알리지 않았다. 딸을 보내는 마음이 애석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주례는 성대 법대 동창인 강영호 특허법원장이 맡았다. 황 후보자는 후보 지명 뒤 결혼식 사실이 알려지자 식장을 옮기는 방안도 고려했다고 한다.나성원 기자 naa@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57.txt

제목: 삼성화재, 업계 첫 임신·출산 실손입원의료비 보장  
날짜: 201505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21100000078  
본문: 삼성화재는 기존 자녀보험을 개정해 ‘NEW엄마 맘에 쏙 드는’ 보험을 출시했다. 업계 최초로 임신·출산 관련 질환 실손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분만을 제외한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자궁경관 무력증,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 시 1000만원 한도로 입원비 80%를 보장한다. 임신중독증도 최초 1회 진단비를 보장한다. <br/> 출산이 늦어져 태아의 선천성 이상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선천성 발달장애 중 뇌성마비와 다운증후군을 진단받을 경우 10년간 매년 양육자금도 지원한다. 실질적 보장 혜택을 강화해 ‘치아보존치료 지원금’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비’도 보장에 넣었다. 암 진단·수술·입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등 종합적인 암 보장도 가능하다. 암 입원 일당은 입원 첫날부터 보장된다. <br/>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일정 가입조건 만족 시 출산용품 지원, 포토북 제작, 문화체험 중 한 가지 서비스를 1회 이용할 수 있다. <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58.txt

제목: 메리츠화재, 노후 설계용 ‘건강보험 백년해로’ 인기  
날짜: 20150521  
기자: 김진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21100000036  
본문: 보장은 넓히고 더 큰 혜택을 담은 메리츠화재의 ‘(무)건강보험 백년해로’의 꼼꼼한 보장이 입소문을 타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br/> 건강보험 백년해로는 기존에 주를 이뤘던 암, 뇌, 심장 부위의 3대 질환 보장에 희귀난치성질환까지 포함해 특정 4대 중증질환을 집중 보장한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적절한 치료법이나 약품이 개발되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br/> 메리츠화재는 희귀난치성질환 중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7대 질환(▲재생불량성빈혈 ▲파킨슨병 ▲모야모야병 ▲전신성 홍반루프스 ▲만성신장질환 ▲심근질환 ▲운동뉴런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업계 최초로 개발해 상품을 차별화 했다. 또 말기암진단비 담보를 신설해 4기암 진단 시 가입금액을 100%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간암, 폐암, 뇌암, 백혈병 등의 특정암 진단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해 암보장을 더욱 강화했다. <br/> 또 신개념 납입면제 기능도 추가됐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보장보험료는 물론 적립보험료까지 납입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고도후유장해 생활자금 특약에 가입하면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매월 초회 월납기준 영업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까지 지급받게 된다.<br/> 이 외에도 초음파, 내시경, CT촬영 등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검진을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건강검진비용 지원서비스로 실질적 혜택을 더했다. 15세부터 65세 연령의 고객이 80세, 90세, 100세 만기로 보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 5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김진환 기자 goldenbat@kukinews.com<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59.txt

제목: [기획] “서울이 싫다” 고향 전출 줄서는 경찰관들… 상반기만 316명 ‘엑소더스’  
날짜: 20150521  
기자: 최예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21100000129  
본문: “다들 고향 가고 싶어 하죠. 서울 떠나서 지방근무 하려는 경찰이 많아진 지 꽤 됐어요.”<br/> 지난 17일 만난 서울의 한 지구대 A경사는 올 초 고향인 전북으로 전출 신청을 했다.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서울이 나을지 모르나 높은 집값과 물가가 부담이었다. 근무지가 서울이든 지방이든 월급과 수당은 같으니 굳이 다세대주택을 전전하며 교육비에 허덕이기 싫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3일 발표된 지방경찰청 간 인사 교류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다. 그는 “안 될 줄 알았다. 보통 4∼5년 기다려야 한다더라”고 했다.<br/> 경찰의 ‘서울 엑소더스(탈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치안 수요가 많은 서울은 업무 강도가 세다. 자연히 승진시험 준비할 시간은 부족하다. 보수는 서울이나 지방이나 같은데, 높은 물가에 ‘서울살이’는 고달프다. 경찰채용시험에선 지방 수험생도 모집인원이 많은 서울에 지원하곤 하지만, 일단 합격하면 이런 이유로 지방 전출을 꿈꾸기 시작한다는 것이다.<br/> 서울지방경찰청의 ‘최근 3년간 전입·전출자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긴 경찰은 2013년 304명에서 지난해 437명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서울로 유입된 경찰은 205명에서 167명으로 감소했다. 올 상반기 인사 교류에서도 벌써 316명이 지방으로 빠져나갔다. 전입자는 87명에 불과해 감소 인원만 229명이다. 전출 대기자는 2000명이 넘는다.<br/> 지방 전출은 신청 순서대로 기회가 주어진다. 부모의 투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차례가 앞당겨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서 ‘특별한 사정’에 ‘점수’를 매겨 순서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가족이 비교적 치료하기 쉬운 갑상선암 투병 중일 경우엔 점수가 낮고, 말기 암일 경우에는 높은 식이다. 같은 위암도 1∼3기를 나눠 배점할 정도다.<br/> 이들이 지방에 가려는 공식적인 사유는 대개 ‘부모 봉양’ 또는 ‘주말부부 해소’라고 한다. 하지만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서울과 지방의 근무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르다</span>”고 했다.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나 강남구 역삼지구대의 경우 하루에 112 신고만 200건 안팎이 떨어지지만, 지방에는 도시 전체의 112 신고가 수십 건에 불과한 곳도 많다.<br/> 지방 근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서울의 한 지구대 팀장은 “<span class='quot1'>예전에는 지방 가는 게 좌천으로 여겨지곤 했지만 요새는 그렇지도 않다</span>”며 “<span class='quot1'>승진시험도 지역마다 따로 실시하기 때문에 서울이 특별히 승진에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span>”고 했다.<br/> 이렇다 보니 서울의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등장했다. 지구대의 경우 1명만 빠져도 빈자리가 크다. 이번 인사로 2명이 전출된 모 지구대 팀장은 “빠진 인원이 언제 충원될지 알 수 없다. 벌써 교대근무 등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서울의 경찰 수는 2만명이 넘어 비율로 따지면 많은 인원이 빠져나갔다고 보기 힘들다</span>”고 했다.황인호 최예슬 기자<br/> inhovator@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60.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 ‘진단=사형선고’ 관념부터 떨치고 스스로 최선 다하려는 의지 길러야  
날짜: 20150518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46  
본문: 처음 암 진단을 받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떻게 암을 받아들이고 치료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2회에 걸쳐 국가암정보센터가 소개한 ‘대한암협회의 권고수칙’을 싣는다.<br/> ◇암을 받아들이는 자세=우선 암 진단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을 사형선고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암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암은 난치병이긴 하나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다. 암 진단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생존하는 사람들 속에 포함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과 각오를 다져야 한다.<br/> 암 진단 후 ‘암이 전염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만 가족 중 누군가 암을 앓게 된다면 나 역시 암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걱정하게 된다. 이때는 암 진단 후에는 환자가 겪는 심리 상태를 의료진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암 진단 후 대부분의 환자는 다음과 같은 심리 상태를 겪는다. ▲부정: 의사의 진단이 잘못됐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 다닌다. ▲분노: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나”라고 생각한다. ▲타협: “내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며 제한적으로 수용한다. ▲우울: 슬픔과 침묵에 젖어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수용: 상황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인 후에야 진정한 치료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섯 단계의 과정을 겪는 시간이 짧을수록 치료가 빨라지고 예후 또한 좋다.<br/> ◇올바른 암 지식을 가져야=가족 중 누군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예전에 잘못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자신 때문에 가족이 암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을 느낀다. 스스로를 책망하는 태도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환자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진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와 가족이 느끼는 혼란과 궁금증에 대해 가장 많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담당 의료진이다. 환자가 의료진을 신뢰하지 못하면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사와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다.<br/> 암환자와 가족 모두 암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암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가 암 진단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암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암의 정체와 치료법에 대해 정확히 알면 나와 가족이 느끼는 두려움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 또한 잘못된 정보에도 쉽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에 여러 가지 암과 관련된 정보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상업적 목적의 잘못된 정보들도 섞여 있다. 따라서 암환자와 가족 모두 암에 대한 올바른 치료방법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br/> 암과 싸우는 여정은 크고 작은 망설임들의 연속이자, 많은 이야기들에 현혹되기 쉽다. 이럴 때 엄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며 방향을 잡아갈 사람이 필요하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 기나긴 암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6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 극복하려면 디스트레스 수치부터 줄여라  
날짜: 20150518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39  
본문: 한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인 암을 진단받은 환자와 그 가족은 높은 사망률과 치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우울·불안 등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특히 상당수의 환자들은 치료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암 치료의 발달로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인 치료 순응도를 위한 디스트레스 관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br/> 디스트레스는 암환자의 인지·정서·행동과 같은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영적 측면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개념으로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투병 과정과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정신과적 장애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아져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된다. <br/> 일례로 유방암 고위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디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여성일수록 검진 순응도가 낮다는 보고가 있다. 부인과 암은 치료 과정에서 신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수술로 인해 여성성을 가진 신체기관들을 잃게 될 수 있어 자괴감에 빠질 수 있고, 본인의 암 때문에 자녀들의 감정적인 영향이나 변화에 걱정이 늘게 된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유방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상실감으로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보존술을 선호하고, 절제술을 하더라도 재건술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br/> 위암과 같은 소화기 계통 암은 오심·구토·복부팽만·설사·변비와 같은 증상들이 환자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대장암에서는 회맹부를 제거할 경우 설사를, 남성 장루환자는 성기능저하 및 발기부전을 자주 겪음에 따라, 이로 인한 심리적 위축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피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br/> 때문에 최근 암환자의 디스트레스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적정 시기에 심리사회적 중재 및 관리를 할 경우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의료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내는 2009년 디스트레스 관리 권고안이 개발됐음에도 실제 적용 및 활용 정도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암이 환자의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정신종양학이 다양한 직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br/>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발간한 ‘우리나라 암 환자에서 나타나는 정신질환의 위험도 및 정신과 진료의 특성 연구’에 따르면 전체 암환자들 중 수면장애, 불안장애, 기타 신경증 그리고 기부장애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면장애의 빈도는 성별, 암 종류와 상관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br/> 또 정신질환 발생 시기는 남녀 모두 암 진단 시에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정신질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으로는 중간계층 보다 양 극단에 위치한 사람에서 정신질환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 유무에 따른 정신질환의 차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 일반 질환에서는 73%에서 정신질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암환자는 51.6%에서 정신질환을 호소했다. 반명 여성은 질환 자체에 대해 민감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반 질환에서 37.7%로 남성(26.9%)에 비해 높았고, 암환자에서도 57.8%가 정신질환을 호소했다. <br/>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암에서 정신질환 발생이 높았는데 수면장애·정동장애·불안장애·성기능장애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위암·간암·폐암·대장암에서도 정신질환 발생 빈도가 높았다. 반면 여성에서는 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폐암·간암·위암·갑상선암 등 대부분의 암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br/>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62.txt

제목: [암과의 동행-질환통계 ‘소아암’] 완치율 80% 불구 3∼5년 장기치료 동반  
날짜: 20150518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41  
본문: 소아암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 80%의 완치율을 보이지만 발병에서 완치까지 3∼5년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 소아암은 크게 혈액암과 고형종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혈액암은 몸속의 혈액세포에 암이 생겨 증식을 하는 질환으로 백혈병 등이 있으며, 고형종양은 몸속의 세포 중 일부가 악성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뇌종양 등이 있다. <br/> 소아암은 현재까지 발생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으나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방사선에 많이 노출된 경우,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 혹은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 감염 등을 들 수 있지만 성인에 비해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소아의 경우 검진의 기회가 없어 조기에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아암은 성장이 빠르고 조직이나 장기의 심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창백하고 빈혈 지속 △피가 잘 멎지 않음 △온몸에 멍이 있는 경우 잘 없어지지 않음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이 3주 이상 지속 △신체의 각 부위에서 통증이 3주 이상 지속 △지속적으로 두통 호소 및 구토를 동반하고 특히 새벽에 심한 경우 등의 징후를 보인다.<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 진료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병은 ‘백혈병’으로 3484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의 22.1%를 차지했고, 이어 ‘뇌 및 중추신경계’(11.0%), ‘비호지킨 림프종’(10.0%) 순으로 높았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백혈병과 같이 혈액암의 일종으로 소아암에서는 혈액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 이 기간 소아암 진료인원은 2010년에 비해 모든 연령구간에서 증가했는데 2010년 1만2000명에서 2014년 1만4000명으로 연평균 3.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15∼17세로 2010년보다 진료인원이 30.2% 증가(1093명)했다.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14세(31.5%)였으며, 15∼17세(28.9%), 5∼9세(22.1%), 5세 미만(17.5%) 순으로 높았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831억원에서 2014년 약 877억원으로 진료인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는데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2014년 여성 대비 남성 진료인원의 비율은 약 1.2 정도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r/> 한편 정부는 만 18세 미만(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소아암 환자에 대해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및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진찰료·입원료·식대·투약·조제료·주사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검사료·영상진단료·방사선치료료·치료재료대·포괄수가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해 지원된다. 또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6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환자도 장애인 등록하면 혜택 늘어  
날짜: 20150518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50  
본문: #사례1. 아버님이 암으로 판정되어 4월에 수술한 후 현재 요양 중인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할까요.<br/>#사례2. 작년까지는 항암치료를 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 후의 유방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데 장애인에 해당되나요.<br/> 위 사례들처럼 가족 중에 암환자가 있는데 장애인 등록으로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우선 첫 사례는 암 수술을 한 연도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사례는 항암치료가 끝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br/> 납세자연맹 장애인 판정에 대한 상담 사례를 보면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는 중증환자 요건인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700만원에 제한받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모든 암환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만 가능한데 법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병명과 관계없이 의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장애인공제를 받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다.<br/> 문제는 많은 병의원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환자 등 중증환자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대상이 된다는 내용과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br/> 암 등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병·의원(한의원 등 포함)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유방암은 장애인공제가 안 된다’ ‘방광암은 소변주머니를 달고 생활하시는 분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 ‘장애인증명서는 발급 안 되고 진료소견서 발급만 가능하다’ ‘의사 생활 10년 동안 암환자에 대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준적이 없다며 발급을 거부하는 의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병의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인터넷상담 코너에 질의한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출력해 납세자연맹에서 병원에 보내는 공문과 함께 보여 주라고 조언했다. <br/> 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암 등 중병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 보아 ‘환자 가족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더라도 병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고, 연말정산 때 세금혜택 이외에 다른 혜택은 전혀 없다’고 설명하라고 덧붙였다.<br/> 한편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며, 중증 암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사망 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가 치료된 연도까지는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일례로 2010년 1월에 항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도 2010년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br/>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64.txt

제목: [건강 나침반] 구강내 유해세균 제거는 전신질환 예방의 지름길  
날짜: 20150518  
기자: 황정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56  
본문: 최초의 치과 기록은 1만8000년 전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치 의학과 의학의 고대 기록은 기원전 4000년경의 이집트에서 볼 수 있다.<br/> 히포크라테스(기원전 460-377)는 관절 통증과 피부 질환의 원인을 썩은 치아로 생각해서 환자의 썩은 치아를 뽑았다.<br/> 17세기에서 18세기에 세균의 발견과 세균이 질병의 주요한 원인임을 알게 된 후 구강 건강과 세균의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됐다. 당시 로버트 코호에 의한 단일 병원체 인과관계가 유행했으나 많은 질병의 원인을 하나의 세균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최근의 분자 생물학은 질병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우리 몸의 면역 작용 그리고 항상성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질병이 유발되는 과정을 그럴듯하게 잘 증명하고 있다.<br/> 인간들이 수렵과 채집의 생활방식에서 농경문화로 바뀌는 시기인 1만 년 전에 구강 내 세균의 구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음이 과거 인류의 치석 세균 분포 조사로 밝혀졌다. 구강 내 세균 중 진지발리스와 같은 혐기성 세균들이 우리 구강 내 자리 잡게 됐으며 암, 류머티스관절염, 당뇨병, 심혈관질환등 전신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br/> 현재 암에 의한 사망률은 심혈관질환의 사망률에 이어 두 번째이다. 암 사망 원인 중 25%가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담배와 알코올 소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구강 세균이 암을 유발하는 것이 증명됐다는 점이다. 푸조박테리아와 진지발리스에 감염된 세포의 반응은 암세포의 반응과 일치한다. 구강 소화기 암과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갑상선암과 관련을 보이며 클라비박터, 랄스토니아, 칸디다 등도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구강 내 세균이다.<br/> 류머티스 관절염과 피부건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은 진지발리스의 PAD효소와 관련해 발생된다.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구강 세균과 류머티스가 관련 있음이 알려진 것은 오래됐으나 진지발리스 균과의 관계는 최근에 밝혀졌다.<br/> 진지발리스에 감염되면 MMP효소가 증가해 피부 호흡기 위장관 혈관 등의 기저세포층을 파괴하여 피부 노화,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 역류성식도염, 크론병 등이 유도된다.<br/> 그 외 구강 세균은 혈관 세포에 침투하여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을 유발하고 폐염증질환, 비알코올성 간질환, 만성신장염의 발생에도 관여한다.<br/> 구강 내 해로운 세균에 의한 전신 질환을 예방하려면 구강 내 세균의 분포를 정상세균군으로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만성 감염의 핵심이 되는 유해한 세균들을 구강 내에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최근 염증성 두통 건선 당뇨병 등의 전신질환을 동반한 치과 환자들이 구강 내 해로운 세균을 제거한 후 증상이 호전되거나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다. 구강 내 충치와 잇몸 염증의 단순한 개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감염이 돼 있어도 통증이 적거나 멀쩡해 보이는 것이 구강 내 혐기성 감염의 특징이기 때문에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세균의 감염 여부는 물론 구성 비율과 수량 등을 알 수가 있어서 유전자 검사가 유용하다. 근관(신경)치료가 돼 있는 치아와 조립형 임플란트는 혐기성 세균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균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면 유해 세균은 사라진다.<br/>황정빈 신세계치과 원장<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65.txt

제목: [암 수술 잘하는 병원-인하대병원 유방암·갑상선외과센터] 당일 진료-검사… 감동주는 원스톱 의료 구축  
날짜: 20150518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36  
본문: “당일 진료와 당일 검사라는 원스톱 의료서비스로 유방암과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최상의 만족도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성형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다학제 협진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수술 후 유방 상실감이나 항암치료 부작용 등에 환자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죠.”<br/> ◇환자들이 만족하는 맞춤형 암 치료=인하대학교병원 유방암·갑상선외과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김세중(사진) 교수는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유방암과 갑상선암의 경우 특화된 전문화 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목표로 설립된 유방암·갑상선외과센터(이하 센터)는 외과, 영상의학과, 내분비내과, 종양내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유기적으로 협진을 실시해 특화된 진료를 제공한다. 특히 이 센터는 지역 내 유방암,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보다 좋은 치료환경과 암 진단·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속 진료’와 ‘감동 진료’를 비전으로 원스톱 진료서비스와 다학제 협진, 암환자와 보호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개별 암환자에게 최적화된 항암치료와 수술, 수술 후 관리와 환자 심리상담 등이 제공되는 맞춤 암치료가 우리 센터의 방향</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환자가 한 곳에서 암 진단과 치료, 치료 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br/> 이를 위해 인하대병원 유방암·갑상선외과센터는 유방암과 갑상선암 치료를 전담하는 핵심진료 그룹, 진료지원 그룹, 환자 교육, 재활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세분화해 암 진단에서부터 세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암 예방과 검진 교육을 실시하고, 수술을 받은 환우들과의 협조를 통해 항암 치료 전후 환자들에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센터에서는 암환자를 전담하는 전문 간호사와 영양사들이 항암치료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수술과 항암치료 후 식단 관리, 재활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br/> ◇조기 발견과 예방이 최선=여성암은 초기에 발견해 수술을 받으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높지만 말기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15%로 낮아져,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김세중 교수는 “<span class='quot1'>40세 이상 여성이라면 유방 초음파 등 2년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주기적인 자가검진을 통해 암을 미리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유방암의 경우 절제 수술 후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 혜택이 일부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문의가 늘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 교수는 일단 수술이나 항암치료가 결정되면 담당 의료진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암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br/> “모든 암 치료는 환자는 물론 가족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암 치료 시 잘못된 정보를 접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은데,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치료 방법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진과 함께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김 교수는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는 전문화, 특성화를 통해 환자 개인에 가장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66.txt

제목: [항암 밥상-검은콩국수] 글리시테인 풍부한 ‘블랙 푸드’ 대표 주자  
날짜: 20150518  
기자: 조규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45  
본문: 최근 웰빙 열풍과 함께 ‘컬러 푸드(color food)’가 주목받고 있다. 컬러 푸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유의 색상을 가진 자연식품을 말한다.<br/> 과일과 채소 등에 함유된 천연 색소가 몸에 나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진 바 있으며, 특히 미국 암 협회는 컬러 푸드의 항암효과에 주목해 하루에 5가지 이상 다른 색깔을 지닌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Five a day’라는 공식 구호와 함께 다양한 컬러 푸드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을 정도다.<br/> 컬러 푸드 중에서도 ‘블랙 푸드’는 항산화, 항암, 항궤양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블랙 푸드에는 검은색을 내는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 항산화 능력을 길러주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및 암을 예방해준다.<br/> 블랙 푸드의 대표 주자로는 검은콩을 빼놓을 수가 없다. 검은콩에는 노란콩에는 들어있지 않은 글리시테인(glycitein)이라는 항암물질이 들어있으며, 검은콩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노화 억제 및 항암 효과가 일반 콩의 4배 이상 높고, 다른 곡류에 비해 단백질이 2∼3배 풍부하기도 하다.<br/> 이외에도 검은콩에는 골밀도를 유지하고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 또한 규칙적으로 콩을 섭취하면 중성지방을 낮춰주며,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고밀도지방단백질(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br/> 검은콩은 10월경에 서리를 맞은 뒤 수확하는데, 서리를 맞아가며 자란다고 하여 ‘서리태’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리태는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질이 매우 풍부하고 신체의 각종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 B군, 특히 B1, B2와 나이아신 성분이 풍부하다.<br/> 이 검은콩을 고를 때는 껍질은 검은색, 속은 파랗고 윤기가 많이 나는 것을 고르고,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상온에서 3개월가량 보관이 가능하다. 검은콩 속 안토시아닌 성분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으므로 조리 전에 물에 오래 두는 것은 좋지 않다.<br/> 다가오는 여름에는 시원함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콩국수’를 검은콩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비주얼부터 맛까지 평범한 콩국수와는 다른 새로운 식탁을 완성할 수 있다. <br/>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67.txt

제목: [암과의 동행] “담뱃값 인상했으니 국가 5대암 무료검진에 폐암도 포함시켜야”  
날짜: 20150518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38  
본문: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자 이에 따른 세수가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세수를 활용해 ‘국가 무료 5대 암 검진’에서 폐암 검진도 필수 항목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폐암학회의 주요 교수들은 입을 모아 “<span class='quot0'>담뱃값 인상에 따르는 세수가 확충이 된 만큼,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폐암 검진 역시 5대 암 검진 항목에 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span>”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암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한해서만 국가 무료 암 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폐암은 흡연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암이며, 한국인 사망률 1위에 해당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 5대 검진에 폐암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숙환 대한폐암학회 회장(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급증하고 있고 특히 한해에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는 수가 약 1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5대암에 폐암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문준 폐암학회 이사장(충남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은 “<span class='quot1'>정부의 금연정책은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국가에서 폐암에 대한 조기진단을 위해 저선량 CT 검진을 의무화하면 암발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그동안은 폐암과 관련된 저선량 CT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근거 자료가 부족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폐암 검진에 저선량 CT 검진을 권고하도록 명문화 했다. 조 이사장은 “<span class='quot2'>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는 30갑년(30년동안 매일 1갑씩 피운 것을 뜻함) 이상 흡연한 자 혹은 금연 후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55∼80세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1년마다 저선량 CT를 권고하고 있다</span>”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2011년 미국 국가폐암검진연구(NLST)에 따르면 저선량 CT를 이용한 폐암검진으로 사망률이 20% 가량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br/> 최근 국내에서도 ‘폐암검진 권고안(초안)’을 통해 폐암검진에 대한 진료지침이 나왔다. 그동안 국립암센터는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 폐암검진 권고안 개발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 문헌고찰에 기반한 폐암 검진 권고안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이 보고서에는 ‘3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5∼74세인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CT를 이용한 폐암선별검사를 매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br/>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의료계는 정부가 주요한 조세 수입원인 담뱃세를 잠정적 폐암환자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정선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과거에 담배회사를 키워준 만큼, 금연 정책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담뱃세 인상과 더불어 정부가 금연시도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정작 늘어나는 세수를 적정한 곳에 쓰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폐암 발병이 높은 사람들, 금연 시도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선량 CT검진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5조원의 세수 중 1000억원만이라도 잠정적으로 폐암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br/>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68.txt

제목: [암과의 동행-완치를 향한 위대한 도전] 모진 삶 이겨온 저력으로 또다시 용기를  
날짜: 201505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55  
본문: "인생의 후반이 시작되는 60대에 찾아온 암은 환자에게 최대의 난관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세월 숱한 역경을 극복한 저력으로 또다시 용기를 낸다면 암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환자는 하마터면 목소리를 잃고 말도 못할 뻔했지만 의료진을 믿고, 살아야겠다는 굳은 의지로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br/><br/>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치료경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어 ‘착한 암’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치료시기를 놓쳐 기관지 막힘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거나, 목소리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의료진은 생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숨쉬고, 말하는 등의 기능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게 된다. <br/> 60대 초반의 여성 환자가 목소리 이상으로 진료실을 찾았다. 환자는 시장에서 행상을 하면서 어렵사리 다섯 명의 자식을 대학까지 보냈고, 자신의 건강은 챙길 겨를이 없었던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다. <br/> 환자는 한 달 전부터 쉰 목소리가 나고, 잠잘 때 쌕쌕거리는 소리와 함께 숨쉬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환자는 후두검사에서 우측 성대마비 소견을 보였고, 성대마비 원인검사를 위해 시행한 목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 갑상선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피막을 침범하는 7cm 크기의 갑상선암이 발견되었다. <br/> 환자는 종양의 기관지 내부 침범도 의심되어 기관지 보전여부가 수술의 관건이었다. 의료진은 추가적인 검사로 기관지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기관지 내부로 침범한 종양을 관찰할 수 있었다. <br/> 환자는 지금껏 힘들게 살아왔고 이제 좀 살 만한데 웬 날벼락이냐며, 손주들과 얘기할 수 있게 목소리만은 꼭 찾아달라고 의료진의 두 손을 꼭 잡았다. 환자의 주름 가득한 거친 손에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br/> 의료진은 기관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갑상선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과 동측 임파선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또한 암이 침범한 기관지는 연골 세마디를 제거한 후 주위에 있는 근육을 돌려서 기관지의 빈 공간을 막아주는 큰 수술을 시행했다. 갑상선암의 침범이 의심되었던 우측 되돌이 후두신경도 같이 제거했다. <br/> 환자는 암이 후두신경과 주위 근육 및 기관지까지 침범해 심각한 상태였지만,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후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및 후두성형술을 통해 원래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말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호흡도 편히 할 수 있게 됐다. <br/> 현재 환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위해 내원한다. 환자가 찾아와 “과장님 덕분에 편하게 숨쉬고, 말하면서 지냅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의료진은 큰 보람을 느낀다.<br/> 인생의 후반이 시작되는 60대에 찾아온 암은 환자에게 최대의 난관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세월 숱한 역경을 극복한 저력으로 또다시 용기를 낸다면 암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환자는 하마터면 목소리를 잃고 말도 못할 뻔했지만 의료진을 믿고, 살아야겠다는 굳은 의지로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br/>이국행 원자력병원 갑상선암센터장 <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69.txt

제목: [암과의 동행-인터뷰]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정순 교수 투병으로 소모된 에너지 만큼 식사로 보충하라  
날짜: 20150518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44  
본문: “비슷한 연령대 폐암4기 환자 두 분이 있습니다. 암의 진행정도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분은 희망적으로 치료 중이지만 나머지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차이는 그동안 ‘식사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가’에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정순 교수는 비슷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치료결과를 보여준 두 환자의 사례를 보여주며 ‘무조건 잘 먹는 것’이 암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줬다. 극단적인 사례였지만, 결코 드물지 않다고 강조했다. <br/> “영양상태가 좋은 암환자는 체중과 근육량의 손실이 적어 항암치료를 받더라도 피로감을 덜 느끼고 치료반응도 좋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례 중 결과가 좋지 못했던 환자분은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따른 경우였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급속도로 상태가 나빠졌고,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몸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음식, 저 음식 피하다보면 영양불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평소에 암을 예방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지만, 일단 암환자는 짜든, 맵든 본인 입맛에 맞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액질에 대비해야 합니다.”<br/> 악액질은 비교적 생소한 용어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암환자가 공통적으로 겪는 증상이다. 암의 진행에 따라 체중이 감소하고, 지방 및 근육의 손실, 영양분의 흡수와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악액질이 나타난 환자는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에 대해 낮은 반응을 보이고 암환자의 10∼20%는 극심한 악액질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수는 악액질이 암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며 악액질에 대비한 고단백 식사를 강조했다. <br/> “건강한 사람을 연비 좋은 신차에, 암환자를 연비가 낮은 오래된 차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연비가 좋지 못한 오래된 차는 신차에게 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죠. 암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식사를 했을 때 건강한 사람에 비해 소모하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또 악액질 상태가 되면 음식을 섭취해도 필요한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잘 먹어도 부족한 이유입니다.”<br/> 장 교수는 병원을 찾은 암환자에게 ‘무엇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잘 먹었는지’를 물어본다고 한다. 밥 한 공기도 제대로 비우지 못했다면 악액질이 나타날 위험신호라고 강조했다. <br/> “피로감, 식욕부진 등으로 정의되는 악액질은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암환자가 5kg 이상의 체중감소, 근육(팔근육 등)의 감소 등이 나타난다면 악액질로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합니다. 악액질을 유발하는 악성종양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방법이지만, 투병 중인 암환자라면 식이 섭취를 늘리는 스스로의 노력과 약물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섭취량을 늘려 지방과 근육을 소실을 최대한 막아야합니다.”<br/> 최근 악액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악액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약물들이 다양하게 개발돼있다. 장 교수는 다양한 약물 가운데, 체중증가에 효과를 보인 약물요법을 대해 이야기했다. <br/> “악액질이 암치료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악액질 상태를 개선하고 체중 증가, 식욕 촉진에 도움을 주는 약물이 개발돼있습니다. 약물요법을 통해 입맛을 올리고, 체중을 증가시켜 삶의 질과 치료반응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br/> 장 교수는 암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인생을 달리기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달리는 코스는 저마다 다릅니다. 암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조금 힘든 코스를 달리는 것뿐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암환자라고 낙담할 필요도, 쉽게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달리는 와중에 만난 암이란 난코스를 지나,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70.txt

제목: [암과의 동행] ‘호스피스 건보 적용’ 병원급 23일 입원 기준 44만원에 완화의료 이용  
날짜: 20150518  
기자: 박주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33  
본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7월 15일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전문병상(입원형) 외에 가정이나 일반병상에서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1963년 강원도 강릉 갈바리의원(마리아의 작은 자매회)을 통해 국내에 호스피스 개념이 처음 도입된 후 약 50년 만에 국내 호스피스 역사에 일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치료가 어려운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 넓은 의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br/><br/>◇말기암 환자, 44만원으로 완화의료 이용=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완화의료를 받는 환자가 통상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서 입원하는 기간인 23일을 기준으로 총 진료비 682만원 가운데 환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44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완화의료 간병 급여가 미적용되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입원할 경우 간병비를 포함해 환자부담 금액은 약 196만원(총 진료비 506만원, 간병비 161만원)이 발생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br/>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통과되면 법령 개정을 거쳐 6월 중으로 청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의료기관과 대국민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관련 제도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줄여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집에서 받는 호스피스 서비스도 건보 적용=이와 함께 가정에 머무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와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말기암 환자나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br/>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8일 암 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말기암 환자가 가정(가정형 호스피스)과 치료 병상(자문형 호스피스)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 체계를 다양화해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호스피스 병상은 전국적으로 56개 기관에서 939개를 운영 중이지만 전체 말기암 환자 중 12.7%만이 평균 23일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이용률과 짧은 서비스 이용 기간을 보이고 있다.<br/>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6시간 추가 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1급), 전담 간호사 등이 한 팀을 이뤄 환자 상태를 점검한다.<br/>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치료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물론 일반 의료기관, 특히 소위 ‘빅5’ 병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복지부는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는 7월 중으로, 자문형 호스피스는 하반기 중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br/>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26만8100명 중 병원에서 임종을 맞은 환자는 7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재택 임종은 16.6%에 불과했다. 암 환자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비율은 2013년 89.2%나 됐다. 재택 임종은 8.5%였다.<br/>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최대한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시행을 준비 중이고, 자문형 호스피스는 빠르면 10월을 목표로 학계 및 현장의 의견을 통해 기준, 보상방식 등에 관한 중지를 모으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통해 말기암 환자가 적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률을 높여 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박주호 기자 epi0212@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7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죽음도 축복받을 수 있어” 명지병원 완화의료센터 허수정 간호사  
날짜: 20150518  
기자: 박주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35  
본문: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흔히들 잘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목적은 잘 사는 데 있어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삶의 의미를 찾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하니까요.”<br/>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의 곁을 지키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함께해 온 완화의료 호스피스가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을 71편의 시(詩)에 담아내 화제다. 주인공은 명지병원 암통합치유센터 내 완화의료센터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허수정(사진) 간호사. 허 간호사는 최근 ‘우리 삶의 마지막 희망별곡(希望別曲)’이라는 제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집을 발간했다. 문단에 등단하지 않았지만 말기암 환자를 치료하고 떠나보내며 그들과 나눈 시간과 다양한 감정들을 그만의 따뜻한 문체로 담아냈다.<br/> 허 간호사는 “죽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비참할 수도 행복할 수도 있다. 생명을 존중하고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며 “주변과 함께 교감하고 나누는 죽음이 돼야 죽음도 축복받을 수 있고 의미 있는 완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br/> -시를 쓰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br/> “16년 이상 호스피스를 하다 보니 너무 안타까운 환자들이 많았다. 혼자만 알기에는 아쉬웠다. 그래서 그동안 호스피스협회 자유게시판에 틈틈이 일기 형식으로 시를 올려 왔다. 이번 시집은 말기암 환자들이 아니더라도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동안의 글들을 다듬어서 펴낸 것이다.”<br/> -제목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목적이 잘 묻어난다.<br/> “처음 제목은 ‘오직 사랑만 남아라’였다. 그러다 몇 해 전 죽음에도 희망이 있냐는 질문을 받은 기억이 났다. 당시 희망이 있다고 자신 있게 답했던 내 모습도 떠올랐다. 통증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희망이 없을 것 같지만 ‘아프지 않게 죽고 싶다’, ‘△△가 보고 싶다’ 등도 넓은 의미의 희망이라는 생각에서 ‘우리 삶의 마지막 희망별곡’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다.”<br/> -호스피스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살고 죽는 것이 웰빙, 웰다잉이라고 보나?<br/> “호스피스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 우리 모두 ‘죽음’, ‘늙음’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다 결국엔 ‘싫다’, ‘두렵다’, ‘아프다’는 말만 되뇌다 죽게 된다. 죽음이나 늙는 것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이고 죽음도 자연의 순리라고 순응하며 그에 맞춰 풀고 가는 것이 웰빙이고 웰다잉이라고 생각한다.”<br/> -앞으로 계획이나 소망은?<br/>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이번 시집을 계기로 그럴 수 없게 됐다. 글이든 뭐든 죽음에 대해 기여하고 싶다. 호스피스는 물론 청소년 자살이나 부모님 세대의 죽음 등에 부족하나마 밀알이 되고 싶다.” 박주호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72.txt

제목: [암과의 동행] 호스피스 활성화 법안 봇물  
날짜: 20150518  
기자: 박주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34  
본문: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법안들이 오는 7월 15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br/>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부산 금정)은 최근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다른 말기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는 말기 환자를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담당의사와 전문의사 각각 1명이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한 모든 환자로 확대해 질병에 상관없이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br/> 법안에는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1곳을 ‘중앙 호스피스 센터’로 지정하고 권역별로 호스피스 센터를 만드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호스피스의 날 제정(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5년마다 호스피스 종합계획 수립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br/>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부천 오정)은 국가적 차원의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촉구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최근 발의했다. <br/> 결의안은 △웰다잉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환자의 호스피스 선택 보장 및 선진화된 건강보험체계 마련 △말기환자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호스피스의 날 지정 △호스피스재단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br/> 이에 앞서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전북 고창부안)은 지난달 초 암환자뿐 아니라 소생이 어려운 다른 질병의 말기 환자도 완화의료 대상에 포함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주호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7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정부 2015 의료비지원 변경… 꼼꼼히 챙겨야 불이익 없어  
날짜: 20150518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42  
본문: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르면 등록신청 통보방법과 성인 암환자의 지원금액이 변경됐고, 지원제외 항목에 상급병실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br/> 우선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와 지원 기간, 변경신고 및 환수·차감 안내 등의 통보를 전화·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신청자 요청시 서면 통지 가능)하도록 신설했다. 지급절차도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개인 파산·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계좌를 제3자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지원 대상자로부터 지급계좌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 결정무,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계좌 변경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변경 처리하도록 신설했다.<br/> 이와 함께 지원제외 항목으로 ‘상급병실료’를 추가했고,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해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환수조치 동의 문구를 추가했다.<br/> 특히 성인 암환자 지원 금액이 변경됐는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원발성 폐암을 중복으로 진단받은 경우 기 지원 암종 의료비 및 폐암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br/> 다만 폐에서 전이암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는 이 같은 지원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폐암 정액금 100만원’ 지원이 불가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으나 2015년 신규 등록·지원 신청을 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4년 원발성 폐암 진단 후 2015년 신규 등록·지원 신청한 경우 ‘정액금 10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예산부족으로 인한 2013년 미지급자, 2014년 미신청·미지급자는 ‘정액금 10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br/> ‘건강보험가입자’는 폐암 정액금 100만원 지원이 불가(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 폐암 진단자)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으나 2015년 신규 등록·지원 신청을 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5대 암종 의료비 및 폐암을 합산해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본인일부부담금으로 200만원을 모두 지원한 경우 폐암 의료비를 추가 지원할 수 없다. <br/> ‘폐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되면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시 발생한 폐암 의료비를 포함해 ‘본인일부부담금 추가 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으로 연간 지원 상한 금액 2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합산 100만워’ 범위 내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이후 발생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이 안 되며, 당해 연도 폐암 ‘정액금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 조민규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74.txt

제목: [암과의 동행-인터뷰] 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 정준원 교수 “고도의 전문성 갖춘 최고 혈액암센터 추구”  
날짜: 20150518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40  
본문: “암세포들은 약제를 이겨내는 내성기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약효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대로 제시간에 약을 드셔서 복약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br/> 세브란스병원 정준원 혈액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만성골수성백혈병은 다른 혈액암과 다르게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환자가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치료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 만성기에서 급성기로 넘어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만성골수성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 이하 CML)은 9번과 22번 염색체 이상(필라델피아 염색체의 출현)으로 인해 골수에서 조혈모세포가 병든 혈액세포를 만드는 혈액암이다. 과거 ‘백혈병’ 하면 불치병으로 여겼지만, 지난 10년간 다양한 표적항암제가 개발돼 치료를 받으면 완치까지 가능해졌다.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2001년도 이전만 해도 CML은 항암치료를 하거나 조혈모세포이식을 통해 치료 하는 방법 외엔 없었지만, 지금은 표적항암제가 개발돼 생존율이 90% 정도로 좋아졌다</span>”고 설명했다. <br/> 표적항암제 투여는 백혈병 치료에 있어 핵심이다. 최근 획기적인 표적항암제들의 잇따른 개발로 생존율이 높아지자 환자들은 매일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암과 동반자가 돼 살아가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점에 와 있다. 치료제로는 글리벡, 타시그나, 스프라이셀, 슈펙트 등이 대표적이다. 1세대 치료제에 이어 2세대인 타시그나, 스프라이셀 등의 표적항암제들이 등장하자, 환자들은 다양한 치료제 선택이 가능해졌다. 이제는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염두에 두는 것은 다양한 항암제 중 어떠한 약제가 개인에게 제일 좋은 약제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치료 도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치료전략을 바꿔야 하는지,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해야 하는지 등이다</span>”고 말했다. <br/> 아직까지 평생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인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는 몇 년 이상 장기간 복용하면 자칫 약제 투여에 소홀하기 쉽다.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일정한 시간에 맞춰 약제를 복용하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복용해야지만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최소 혈중 농도가 유지되기 때문</span>”이라고 덧붙였다. <br/> 특히 만성골수성백혈병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꾸준히 관리하는 만성질환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암 자체 관리와 함께 이상반응(Adverse Effect)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는 “<span class='quot0'>평균 수명이 약 6년 정도밖에 안 되던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완치되게 할까 하는 점이 중요했지만, 이제 과거와 비교해 월등히 생존율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질병과 무관하게 환자분들을 괴롭히게 되는 부작용, 합병증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치료 성적이 좋은 약제일수록 치료 성적만큼이나 치료에 수반되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관심에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 <br/> 1, 2세대 약제에 실패한 환자들을 위한 3세대 항암제나, 보완되는 치료제의 등장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는 “3세대 치료제는 타이로신키나제 억제제일 수도 있고, 면역체계와 연관된 약제가 될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신약을 이용한 임상연구가 주요 병원들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br/> 정준원 교수는 현재 연세의료원 연세암병원의 혈액암센터장이기도 하다. 연세암병원 혈액암센터는 1981년 국내 최초로 골수이식에 성공했고 국내 최고의 이식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혈액암센터는 현재까지 약 1000례 이상의 이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2006년도에 증설된 최첨단 조혈모세포이식 병동과 함께 국내 최초로 원스톱 개념을 도입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팀원들에 의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앞서 실시하고 있는 최고의 혈액암센터다. 정 교수는 “암예방센터에서는 암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 있는 고위험 환자들에게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꾸준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한다. 암이 발병하기 전 단계에서 관리를 통해 암이 발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75.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셀트리온 유방암 치료양 신약물질 특허 취득 外  
날짜: 201505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47  
본문: ◇셀트리온 유방암 치료양 신약물질 특허 취득=셀트리온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유방암 치료용 신약물질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특허는 ‘돌라스타틴 10 유도체,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항암제 조성물’에 대한 것으로,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유방암 치료신약 CT-P26의 항체에 결합시켜 치료 효과를 높이는 항암 화합물질에 관한 것이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제약과 공동개발하고 있는 CT-P26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ADC(Antibody-Drug Conjugate) 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유방암 치료용 신약이다. 셀트리온 측은 “<span class='quot0'>CT-P26 신약물질 특허를 계기로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에 이르는 셀트리온 개발 전략 실행에 탄력이 붙을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br/>◇출산 경험 많으면 유방암 발병시 생존율 우수=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유방센터 이정선 교수와 부산백병원 임상시험센터 오민경 교수팀이 1993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유방암학회에 등록된 유방암환자 2만9167명을 분석한 결과 폐경 전후 유방암 환자들의 자녀수와 첫 분만 나이에 따라 생존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유방암에 걸렸을 때 자녀 2∼3명을 출산한 여성이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유방암 치료 후 생존율이 최대 61% 증가했다. 또한 폐경 전 유방암 환자 중 자녀를 1명 출산한 여성이 출산하지 않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유방암 치료 후 생존율이 53% 증가했고, 2명 출산 시 61%, 3명 출산 시 42%, 4명 출산 시 10% 늘었다. 하지만 5명 이상 출산여성은 출산하지 않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33% 생존율이 감소됐다.<br/><br/>◇바이오 빅데이터 약물작용점 발굴 분석법 개발=국내 연구진이 바이오 빅데이터에서 약물작용점을 발굴하는 분석법을 개발해, 빅데이터 기반의 항암신약개발 프로세스 구축 성과를 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NExT연구과 남승윤·김연희 박사 연구팀이 바이오 빅데이터에서 약물작용점을 발굴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의 다학제적 노력을 통해 PATHOME(작용기전 및 전사체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이라는 네트워크 분석법을 개발했고, 작용기전의 검증이 가능한 약물작용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연구팀은 이 분석법을 한국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위암’ 바이오 빅데이터에 적용해 HNF4α-WNT5A로 이뤄진 새로운 약물작용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br/><br/>◇순천향대부천병원 20일 ‘위암’ 건강강좌=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20일 오전 11시부터 병원 본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위암 완치는 가능한가’, ‘위암 오해와 진실’ 등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이날 강좌에는 외과 조규석·정귀애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문의: 032-621-5753)<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76.txt

제목: [암과의 동행] “내시경 검사 한국형 가이드라인 필요”… 50대 이상 대장암 유병률 韓·美 비교  
날짜: 20150518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43  
본문: 한국과 미국 남성의 대장암 유병률은 비슷한 반면, 여성의 대장암 유병률은 한국 여성이 미국 여성보다 낮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사진) 교수 연구팀은 미국 버지니아 메이슨병원 연구팀과 공동으로 ‘한국인과 미국인의 대장 종양 특성 비교’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br/> 이번 연구는 강동경희대병원과 미국 버지니아 메이슨병원에서 각각 대장내시경 선별검사를 받은 50∼60대 남녀 5653명(한국인 약 2193명, 미국인 약 3460명)을 비교해 그 차이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진행성 종양의 경우 한국남성 유병률은 7.1%로 미국남성의 7.4%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여성은 2.7%의 유병률을 보여 4.7%의 미국여성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한 크기가 10㎜이상인 큰 폴립의 평균크기, 발생률도 한국여성이 더욱 낮았다. 연구팀은 “과거 한국과 미국에서 대장 종양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두 나라의 특성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br/>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인과 미국인의 대장 종양 특성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한국인의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적정시기 논의에 밑거름이 될 중요한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2012년 발표한 우리나라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가이드라인은 ‘미국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권고안’을 따라 남녀 동일하게 50세 이상이면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 마련의 토대가 된 미국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권고안은 서양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어서 우리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인과 서양인은 식습관, 생활환경, 체격조건 등이 다른 만큼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br/> 이에 대해 차재명 교수는 “<span class='quot0'>기존에 서양인·아시아인을 기준으로 한 대장질환 조사는 많았지만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적정시기를 구체화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인의 대장질환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span>”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논문은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지 게재가 결정됐으며, 최근 열린 대한장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77.txt

제목: [암과의 동행] 방사선 관련 학회 “원전과 갑상선암 관련 없다”  
날짜: 20150518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48  
본문: 2012년 고리원전 인근에 20년 가까이 거주한 이모씨의 가족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원전에서 배출된 방사선 영향으로 암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민 이씨 본인은 직장암이었고, 배우자 박씨는 갑상선암, 아들은 선천성 자폐증이었다. <br/> 당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고리원전에서 7.6km 떨어진 곳에 산 이들 가족이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직장암과 선천성 자폐증을 앓았던 이씨와 그의 아들은 기각됐지만 갑상선암을 앓던 배우자 박씨의 경우는 인정됐다. 판결의 요지는 박씨가 원전 부근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서 발전소에서 내보낸 방사선에 노출됐고, 그로인해 갑상선암을 걸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여성들에게서 갑상선암이 증가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수원은 항소했다. 그리고 오는 7월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br/> 한국원자력학회와 대한방사선방어학회는 지난 6일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의 주제로 원전 주변주민과 갑상선암에 관한 과학적 분석을 다뤘다.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과학적인 방법의 접근으로는 방사선과 질병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br/> 서울대 원전역학조사팀은 국내 원전주변주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펼쳤다. 고리, 월성, 영광, 울진 등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5km 이내 거주 주민과 원전종사자의 암 발병률을 조사했다. 5km 이상 30km이하 근거리 지역을 대조지역을 삼았다. 조사결과, 여성에서의 갑상선암의 발생률은 원자력발전소 5km 이내 주변 지역에서 100만 명당 61.4명 꼴 인데 반해 5km이상 떨어진 지역에서의 발병률은 43.6명에 그쳤다.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 것이다. 하지만 조사팀은 이에 대해 5km이내 주변지역과 그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에서 노출되는 환경방사선량(자연방사선량+인공방사선량)의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원전 주변 방사선량은 0.01밀리시버트 정도로 낮게 관리돼 있으며 음식과 땅, 대기를 통해 노출되는 자연방사선량 모두를 따져도 원전 바로 옆과 그 외 지역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br/> 학회들은 이 지역에서 발병한 여성 갑상선암의 경우 ‘방사선 이외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론 분석했다. 갑상선의 80∼90%는 아직까지 그 근거를 알 수 없으며, 유전적 소인, 요오드 섭취 과다 혹은 결핍, 다출산, 유산경험, 다이어트, 인위적 폐경, 조기검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원자력학회, 대한핵의학회, 방사선종양학회 등은 “만약 방사선 피폭이 원인이었다면 갑상선암 외에 방사선 피폭과 인과관계에 놓여있는 다른 암(위암, 유방암, 폐암, 백혈병)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어야 하나 유독 갑상선암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원전주변 거주 남녀 모두에게서 갑상선암이 높은 경향을 보여야하나 여성에서만 높았다. 또 원전 주변에 오래 거주할수록 갑상선암의 발생이 높아야하나 거주 기간과 비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전이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다.<br/> 한때 국내 갑상선암의 무서운 발병률이 과도한 검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들 학회도 원전주변 주민들이 한수원과 지자체가 제공하는 건강검진의 혜택으로 타 지역 주민들에 비해 갑상선 검진 기회가 많았다고 말했다. 갑상선암이 검사빈도가 높을수록 많이 발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전 주변 높은 검진률과 발병률을 따로 떼어놓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 기간동안 내놓은 학회의 학술적 주장은 향후 항소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78.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환자 마음읽기] 맘에도 없는 1인실… 입원비 걱정에 애타는 보호자들  
날짜: 20150518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57  
본문: 암병동 간호사와 보호자 간에 실랑이가 벌어진다. 병실 문제다. 입원하고서 하루, 이틀만 2인실을 사용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다인실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문 모씨도 입원 당일부터 다른 환자들처럼 예외 없이 2인실을 배정받았다. 바로 다인실 변경요청을 넣어놓았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변경된다는 소식이 없다. 1인실의 하루 병실료는 40∼50만원, 2인실은 20∼30만원, 5인실 또는 6인실인 다인실은 하루 1∼2만원 꼴이다. 병실료 차이가 크다.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암환자들에게 병실비는 수술비 못지않게 부담이 되는 항목이다.<br/> 다인실 변경을 위해 간호사들에게 사정하는 경우, 또는 과일이나 음료수를 들고 찾아가 친밀감을 표시하는 경우 등 그 모양새가 다양하다. 반대로 엄포를 놓는 보호자들도 있다. 그만큼 병실은 보호자들에게 스트레스, 골칫거리다. <br/> 이런 환자의 부담을 인식한 정부는 6인실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4인실까지 확대 적용했다. 또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전체 병실의 70% 수준까지 확대해 일반 병실 부족으로 인해 원치 않은 1∼2인실 입원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보호자들은 이런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 다인실에서 만난 후두암환자의 보호자는 보름 만에 2인실에서 5인실로 변경됐다고 말한다. 입원비만 300만원이 넘게 나왔다며 푸념했다. <br/>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팀은 상급병실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원환자 1만 명과 1461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서울의 대형병원 상위 5곳의 2인실 비중은 61.6%로, 일반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로 입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급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약 3일(2.8일)정도 소요됐으며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약 60%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호자를 포함해 열 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는 다인실을 찾아가보니 그곳의 모두가 상급병실을 거치고 왔다고 한다. <br/> 일반병상 부족은 상위 종합병원으로 갈수록 심해진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 대해 정책 입안자는 만약 일반병상이 많아지고, 지금보다 대형병원의 문턱이 더 낮아지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과 장기입원환자 문제 등 의료전달체계를 망가뜨리는 요소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수술비, 검사비 외에 입원비 압박에 신음하는 암환자들이 많다. 대장암 환자 보호자 박모씨는 “당장 수술을 해야 돼서 1인실로 들어왔는데, 수술날짜가 미뤄진다는 소리에 입원비부터 걱정됐다. 우리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병실 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79.txt

제목: [암과의 동행] 미국·벨기에도 역학조사 “상관없음” 결론… 원전주변 거주인들 높은 검진율에 주목해야  
날짜: 20150518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49  
본문: 김종순 전 대한갑상선학회장은 한국원자력학회와 대한방사선방어학회 공동 학술대회 기간에 기고문을 통해 “<span class='quot0'>현재까지 정상 운영 중인 원전 주변 주변에 대한 국외의 역학조사에서 원전의 영향으로 갑상선암이 발생한다는 사례가 보고 된 바 없으며 주민이 갑상선암으로 소송을 내지도 않았고 원전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바도 없다</span>”고 말했다.<br/> 62개의 원자력시설을 가진 미국도 국내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미국 워싱턴주에는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시설이 들어서있다. 1988년 미국 의회의 지시 하에 미국보건부 산하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핸포드 원자력시설에서 방출된 방사선요오드피폭으로 주변주민에서 갑상선암이 증가했는지를 알아보는 역학조사를 펼쳤다. 결론은 핸포드 원전시설 주변지역의 갑상선질환 발병률이 타지역 어떤 갑상선 질환 발병률보다 더 높다는 증거가 없었다. <br/> 미국에서 한차례 더 비슷한 조사가 진행됐다.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학교는 미국 65개 원전 주변 지역을 15마일 이내, 15∼30마일 이내, 30∼40마일 이내로 나눠 각각의 갑상선암 발생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와 갑상선암 발생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br/> 벨기에 공중보건과학연구소와 정부원자력통제기관은 벨기에 4곳의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과 이 국가와 인접한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조사한 결과, 원전 반경 20km이내에서 갑상선암 발생증가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나라 밖 이런 상황에 대해 정준기 서울대의대 핵의학교실 교수는 “원전을 많이 운영해 왔던 여러 선진국에서 역학 조사가 있었으나 원전과 갑상선암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접해 보지 못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에서 65개 원전 시설 주변 주민에게 실시한 대규모 역학조사에서도 암위험도의 증가는 없었다”고 말했다.<br/> 전문가들은 원전 주변 거주 주민의 검진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종순 전 대한갑상선학회 회장은 “원전주변지역 주민은 타지역(원거리 비교지역)에 비해 갑상선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의료검진 혜택이 많으므로 갑상선암 발병률이 증가했을 것이다. 이를 학회에서는 집중검진 효과(Screening effect)라고 부른다. 경찰을 동원해 열심히 도둑을 잡았다 해서 그 지역을 우범지역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설명했다. <br/> 김소연 한국수력자원자력 방사선보건연구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1'>원전주변 울타리 경계지역에 주민이 거주한다는 가정으로 아무리 최대한으로 추정해도 주민이 받을 수 있는 방사선량은 한해 0.0286 mSv 미만이며, 이는 미국에 비행기로 한번 왕복했을 때 받는 선량인 0.1mSv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치</span>”라고 말했다.<br/> 김 원장은 또 “지역마다 국가마다 노출되는 자연방사선량은 다르다. 우리나라가 연간 3 mSv인데 반해 브라질 과라파리시는 연평균 10 mSv(최대 788.4 mSv)로서 훨씬 높은 자연방사선량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률 조차도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br/> 김단비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80.txt

제목: [암과의 동행-인터뷰] 올림푸스한국 타마이 타케시 의료총괄부문장 “임상현장 요구 기술 꾸준히 개발”  
날짜: 20150518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52  
본문: “올림푸스는 지난 1919년부터 인류의 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해 진단, 치료 분야의 첨단 의료기기 개발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의료진과의 꾸준한 협력 연구로 첨단 제품 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br/> 지난 4월 올림푸스한국 의료총괄부문장 겸 신설된 GI(Gastrointestinal)사업본부장을 겸임하게 된 타마이 타케시(사진) 부문장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이 올림푸스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br/> 광학기술을 기반으로 1919년 설립된 올림푸스는 현미경과 소화기내시경, 카메라 등 사업분야를 확대하며 외과수술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로 성장했다. 창립 초기 일본 내 현미경 국산화를 목표로 했던 올림푸스는 1949년 ‘광학기술을 이용해 위암을 치료하는 데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도쿄대학 부속병원 외과 의사 우지 다쓰로의 생각에서 본격적인 내시경 개발에 나선다. 위 카메라 개발에 착수한 올림푸스는 1950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고, 1952년 ‘가스트로 카메라 I형(GT-I)’을 상용화했다. 이는 현재 올림푸스가 추구하는 ‘의료진과의 협력 연구를 통한 제품 개발’이라는 사업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 이에 대해 타마이 타케시 부문장은 “<span class='quot0'>의료진과의 공동 개발은 보이지 않던 곳을 보이게 하고, 치료 불가능했던 부분을 치료 가능토록 하는 올림푸스의 강점</span>”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림푸스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꾸준히 개발함으로써, 독창적인 기술로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올림푸스는 소화기내시경과 외과수술장비 영역 2개로 의료사업 분야가 나뉜다. 또한 전 세계 6개 대륙 200여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의료분야 사업을 펼치고 있다.<br/>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는 올림푸스가 바라보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화기내시경 의료진과 의술을 보유한 곳’이다. 타마이 타케시 부문장은 “최근 한국 의료진이 개발한 수술법이 주목을 받을 정도로 한국 의사들의 수준은 세계 최고다. 또한 복강경 수술 등 관련 분야를 실제 임상현장에 활용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올림푸스는 이러한 한국 의료진의 성과를 도와 세계적인 진단·치료 분야 경쟁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 의료진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올림푸스한국은 지난 4월 의료사업부문 사업 성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의료분야 사업부서를 의료총괄부문으로 통합했다. 한국 생활 3년차인 타마이 타케시 부문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span class='quot0'>새로 개발된 첨단 제품과 기술을 한국 의료진에게 가장 먼저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span>”라며 “<span class='quot0'>국내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높이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span>”라고 밝혔다.<br/> “올림푸스의 제품과 기술로 삶의 질을 높이며 인류에 공헌할 수 있다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조기 진단과 최소침습치료로 질병 치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올림푸스의 기업 철학은 인류를 위한 공헌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타마이 타케시 부문장은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첨단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올림푸스의 노력을 지켜봐 달라”고 힘줘 말했다. <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8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유방암 재건수술, 제일병원 ‘3D 시뮬레이션’ 눈에 띄네  
날짜: 20150518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37  
본문: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이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유방절제수술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재건술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8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이 비용이 필요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결정으로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환자 부담금이 200∼400만원으로 줄었다.<br/> 유방암 환자들에게 유방재건수술은 절제수술을 받은 후 심리적 충격이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양은정 제일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대인관계와 사회생활 등에서 수술 이전과는 다른 삶의 조건과 환경에 놓이게 된다. 유방재건술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살고 싶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방암 환자들에게 자신감은 물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유방절재건술은 유방절제를 한 후 보형물이나 자가조직을 이용해 원래 유방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유방재건술에는 환자 본인의 등, 엉덩이, 배 등의 살을 떼어 하는 자가조직이식과 유방보형물을 이용한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수술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양 교수는 “<span class='quot0'>유방절제수술 후 남아있는 유방의 두께와 크기, 환자의 선호도, 등과 배·엉덩이 등의 조직 양을 고려해 환자화 충분히 상의한 후 재건방법을 결정하게 된다</span>”고 말했다.<br/> 또한 유방암 환자가 유방절제를 했다고 해서 모두 유방재건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은정 교수는 “<span class='quot1'>암의 병기, 림프절 전이 여부 등 유방암 예후나 재발률 등을 감안해 외과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재건술을 결정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제일병원의 경우 유방외과와 성형외과 전문의 협진으로 환자에게 적합하고 안전한 유방재건술을 찾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성형외과 전문의가 검사와 수술, 처치 등 전 과정을 직접 시행하고,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2년전 도입한 ‘3D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재건술 시행 전에 수술부위를 촬영 수술 계획을 준비한다. 3D 스캐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첨단 스캔장비로 환자들의 몸을 정확하게 측정해 수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 교수는 “환자마다 특성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 개인에 최적화된 수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일병원의 경우 의료진간의 협업과 협진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최적화된 유방재건술을 위한 3D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수술 결과와 환자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br/> 물론 모든 환자가 유방재건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혜택은 완전 유방절제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2∼3년전 유방절제술을 받은 경우라도 건강보험 혜택으로 유방재건술을 받을 수 있다. 양은정 교수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문의가 늘었지만, 부분절제를 한 경우 보험혜택 적용이 안돼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환자들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같은 유방암 환자인데도 차이가 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부 적용기준이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고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유방암 환자들과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세부지침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상 환자를 좀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br/> 송병기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82.txt

제목: [암과의 동행-환경과 건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 사망… 끊이지 않는 공포  
날짜: 20150518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58  
본문: “<span class='quot0'>임신초기 처음으로 아기 심장소리를 들은 그 기쁨으로 3년 동안 두 아이를 품는 과정에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선택권이 없는 새 생명들에게 매일매일 독성물질을 먹였다.</span>”<br/>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두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권민정 주부. 그는 “<span class='quot0'>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을 몰라 매일 태아에게 독성물질을 먹인 것에 다름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묵인하고 이익창출만 바라보는 기업과 그를 옹호하는 무지한 정부는 하루 빨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br/> 권씨와 같이 마트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목숨을 잃거나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 수백명에 달한다. <br/>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500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또 한 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환경보건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시연(45·여)씨가 9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br/> 센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둘째 아이 출산을 전후해 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기 시작해 2011년까지 겨울마다 매달 3∼4개씩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 왔다. 2001년 말부터 폐섬유화증 등 각종 폐질환에 시달린 이씨는 지난달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와 질환 간의 인과관계 2차 조사에서 ‘거의 확실’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충남대병원에 입원했고 갑작스럽게 지난 9일 낮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또한 센터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발표 때 살아있던 다른 성인 피해자 한 명도 현재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지 약 4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피해신고는 약 530건이며 이 중 환자는 390명, 전체 사망자 수는 최근 사망한 이들까지 합치면 총 142명이 됐다. 피해자 530명 중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1∼2단계 판정을 받은 이는 221명에 불과하며, 건강모니터링 지원을 받는 3단계 판정을 받은 이는 61명이다.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단계 판정을 받은 240명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br/> 지난 2011년 6월 당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생명을 잃을 뻔했던 강나래 양의 아빠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째인 지금 우리들의 피해는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정부의 빠른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은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사건과 다름없다. 국민이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br/> 이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가 폐 이외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가 12일 문을 열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를 유해화학물질 노출 분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고 12일 개소식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조사·연구를 위해 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해 연간 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 서울대 의과대학 등 14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번에 개소한 유해화학물질 노출 분야 환경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 등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건강영향의 인과관계를 조사 연구한다. <br/> 특히 현재 진단이나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 이외 장기의 영향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서울아산병원은 막중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아산병원은 지난 2011년 4월 7명의 원인미상의 중증 폐질환자들을 발견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원인규명이 명확히 된다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br/> 한편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10만 가지가 넘는다. 이 화학물질이 모두 안전성이 검증된 상태에서 사용되지는 않는다. <br/> 독성이나 인체영향, 환경 피해 등이 충분히 평가되지 않은 채 쓰이는 일이 상당히 많다.<br/> 노동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화학물질 중에는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 있다. 흔히 고위험물질(발암물질·돌연변이물질·생식독성물질·환경호르몬·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생태계에 축적되는 물질 등)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br/> 노동환경연구소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외국은 정부 차원에서 발암물질처럼 위험한 화학물질 정보를 생산하거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금지물질 목록을 공표하고 사회 캠페인을 벌이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적극적</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그렇지만 불행히도 한국은 이러한 노력이 거의 없다</span>”고 지적했다. <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83.txt

제목: [사설] 유서대필로 몰아간 검찰·국과수·법원 사죄하라  
날짜: 2015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5100000027  
본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가 완전히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이 14일 유서대필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이 “<span class='quot0'>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span>”며 무죄 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고 재심을 청구한 지 7년 만이다.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br/> 이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남긴 유서가 평소 김씨의 필적과 다르다며 유서 대필자로 강씨를 지목했다. 국과수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사법부도 무죄를 주장하는 강씨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결국 그는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다. 무죄의 결정적 근거는 2007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에서 김씨의 노트와 낙서장을 발견해 다시 실시한 필적감정 결과였다. 유서와 노트의 필적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사위는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날 무죄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br/>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교훈은 엄중하다. 당시 검찰이 김씨의 노트와 낙서장을 찾아냈더라면, 법원이 강씨의 주장에 귀 기울였다면, 국과수 감정인이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런 억울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검찰, 법원, 국과수가 진실규명 노력보다는 정권 눈치 보기에 바빴고 진실에는 침묵했던 결과다. 검찰과 법원 등이 진실을 외면하는 동안 강씨는 20년 넘게 고통을 겪어 왔다. 현재는 간암 수술까지 받고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span class='quot1'>저는 여전히 1991년도에 살고 있어요</span>”라는 그의 말에 뭉클할 따름이다. 누명이 또 하나의 ‘암덩어리’라고 했다. <br/> 이런 점에서 사법부가 끝까지 한마디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서울고법에서 재심을 진행한 재판부도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날 대법원도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역사가 왜곡되고 국민 한 사람의 삶이 철저히 망가졌는데 함구로 일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br/> 이제라도 검찰과 법원, 국과수는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는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도 위증 등의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해도 최소한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공안 조작극의 실체도 낱낱이 밝혀내 ‘제2, 제3의 강기훈’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게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다.<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84.txt

제목: 난소암 조기진단 ‘완소난소 캠페인’  
날짜: 20150512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2100000067  
본문: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리즈 채트윈)는 어버이날과 겹치는 세계 난소암의 날을 맞아 난소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완소난소 캠페인’을 새로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br/><br/> ‘완전 소중한 난소의 건강을 지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완소난소 캠페인’은 일반 여성들에게 난소암을 상징하는 민트리본을 달아주며 건강강좌 개최 등을 통해 난소암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다,<br/><br/> 난소암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인 암이다. 여성호르몬을 만들고 난자와 생식세포를 저장하는 난소에 발생하는 암이다. 한번 발병하면 치료해도 재발 위험이 높고, 일단 재발 시 완치를 기대하기 힘든 난치성 암으로 꼽힌다.<br/><br/> 별다른 초기증상이 없어 환자 중 70%이상이 3기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도 문제다. 난소암 이해를 돕기 위한 강좌는 6월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된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85.txt

제목: 30년 만에 입원환자 수 10배… 지역 유일 3차 의료기관 성장  
날짜: 20150512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2100000069  
본문: 고대안산병원(병원장 차상훈)이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1985년 5월 6일 100병상 규모로 개원한 고대안산병원은 그동안 두 번의 증축을 통해 830병상 규모 대형 상급종합병원급으로 성장했다.<br/><br/> 연간 외래 환자수는 6만6153명에서 62만8853명으로, 연간 입원 환자수는 1만9371명에서 21만2356명으로 늘었다. 수술건수 역시 643건에서 1만44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br/><br/> 차상훈(사진) 병원장은 11일 “<span class='quot0'>지역 유일의 3차 의료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에게 늘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다짐했다.<br/><br/> 고대안산병원은 현재 내·외과 협진을 통한 진단과 치료, 전문성 높은 암 치료 등 환자 맞춤형 진료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br/><br/> 차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최근 암센터, 무균병동, 뇌혈관·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개소한 데 이어 최상의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심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 진료환경도 대대적으로 개선해 지역주민 거점병원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했다</span>”고 말했다.<br/><br/> 고대안산병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인천보호관찰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MOU를 체결, 새로운 영상진단기기 등 의료기술 개발 연구도 선도하고 있다.<br/><br/> 차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올 한 해 동안 미혼의 선남선녀 인연 만들어주기, 사랑으로 한 걸음 자선기금 마련 걷기 대회, 다문화가정 의료지원 및 무료검진 행사 등 개원 30주년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기획,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 고대안산병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과 나눔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곧 의료봉사단도 발족시킨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86.txt

제목: 미국 뉴욕주, 네일살롱 노동착취 등 실태조사… 한인들 반발  
날짜: 20150512  
기자: 손병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2100000234  
본문: 미국 뉴욕 주(州)가 주내 네일살롱을 대상으로 노동착취·차별 여부 실태조사를 비롯한 긴급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뉴욕 네일살롱의 업주와 직원 상당수가 한인이어서 한인 사회 전반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네일살롱을 운영하거나 근무해 생계를 이어가는 한인이 많아서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뉴욕타임스가 한인이 주로 운영하는 네일살롱을 다루면서 이례적으로 한글 기사도 내보내는 등 한인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인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br/><br/>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한국인이 주도하는 뉴욕 네일살롱의 노동착취와 임금차별을 고발한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 긴급대책을 지시했다고 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br/> 쿠오모 주지사는 관계기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네일살롱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매니큐어에 들어 있을 수도 있는 유해 화학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직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br/><br/> 또 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리 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고지문을 한국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만들어 업소에 게시하도록 했다.<br/><br/> 네일살롱 직원에 대해서는 마스크는 물론 장갑까지 착용, 고객과의 피부접촉이나 화학물질 처리에 따른 감염을 막도록 했다.<br/><br/> 쿠오모 주지사는 전날 성명을 내고 “<span class='quot0'>뉴욕주는 임금착취와 부당노동행위와 싸워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오늘 새로 구성된 TF를 통해 이런 전통을 적극적으로 따르려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 쿠오모 주지사는 “<span class='quot0'>노동자들이 힘겹게 번 임금을 빼앗기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강탈당하는데 우리가 그냥 방관하지는 않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현재 뉴욕주 일원에는 6000∼7000개의 네일살롱이 영업 중이며, 이중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은 300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br/><br/>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11일에도 ‘완벽한 손톱 뒤에서 신음하는 네일살롱 노동자'라는 제목으로 뉴욕주 일원의 네일살롱 관련 두 번째 기사를 싣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다수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 아울러 네일살롱에서 사용되는 화장품 등 화학약품 가운데 일부가 암, 호흡기 질환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네일살롱에서 주로 사용되는 20개 화학약품 가운데 17개 정도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건당국의 지적도 있다고 소개했다.<br/><br/> 한인 네일살롱 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일부 업체의 문제점을 마치 한인업소 전체의 문제인양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뉴욕한인학부모협의회 등 일부 한인교포단체도 뉴욕타임스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시위를 계획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br/><br/>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87.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⑫ 경희대치과병원 권용대 교수팀] 무너져내린 턱뼈 질환자 일으켜세우는 ‘드림팀’  
날짜: 20150512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2100000066  
본문: 5년 넘게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황모(70·여)씨는 얼마 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치아를 뽑았다. 그런데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겨 다시 병원을 찾았다.<br/><br/> 황씨는 병명도 생소한 턱뼈괴사증이란 진단을 받았다. 한마디로 턱뼈가 썩어 무너져 내리는 중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잇몸에 생긴 염증이 잘 낫지 않는다고 여겨 병원을 찾아갔다가 중증 턱뼈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자 황씨는 몹시 놀랐다.<br/><br/> 의사는 황씨에게 치료를 위해 그동안 복용하던 골다공증 약을 먹지 말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고농도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한다고 처방했다. 그게 끝이 아니다. 황씨는 썩어 무너진 턱뼈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다른 부위 뼈를 이식해 복구하는 수술까지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br/><br/> 그동안 황씨가 복용한 골다공증 치료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성분이 포함된 약이다. 값도 싸고 골다공증 예방 효과도 좋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최근 황씨처럼 약의 장기 사용에 따른 합병증으로 턱뼈가 썩어서 주저앉는 턱뼈괴사증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br/><br/> 턱뼈괴사증은 일반인에게는 아직까지 낯선 치과질환이다. 세계적으로 2003년에야 첫 환자가 발견됐다. 국내에 알려진 지도 10년 정도에 불과하다.<br/><br/> 그렇다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턱뼈괴사증은 골다공증 치료제를 장기 복용하는 고령자에게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골다공증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br/><br/> 턱뼈괴사증은 ① 잇몸이 주저앉아 턱뼈가 노출돼 있고, ② 골다공증 치료 목적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③ 턱 부위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턱뼈 주위에 생긴 염증이 8주 이상 낫지 않고 지속될 때 의심할 수 있다.<br/><br/> 발병 초기에는 별다른 통증도 없이 잇몸 뼈가 드러난다. 틀니로 덮이는 잇몸 부위가 헐고 뼈가 드러나거나, 이를 뺐을 때 생긴 상처가 잘 낫지 않다가 염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잇몸에서 조금씩 고름이 나오거나, 임플란트가 헐거워져 갑자기 빠지는 경우도 있다.<br/><br/> 문제는 이를 일반적인 치과 증상이라고 가볍게 여겨 치료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많다는 점이다. 턱뼈괴사증이 진행 중일 때 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나중에 뼈를 이식해도 원상복구가 힘들어진다. 게다가 임플란트도 심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br/><br/> 골다공증 환자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다. 장기 복용을 할 경우 턱뼈괴사증을 유발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역시 현재 우리나라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쓰이는 약이다. 이는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국내 골다공증 환자와 약 복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그만큼 부작용 경험자 수도 증가할 것이란 얘기다.<br/><br/> 턱뼈괴사증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치과의사 혼자 힘으론 안 된다. 골다공증과 류머티즘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뿐만 아니라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제제 역시 턱뼈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br/><br/> 경희대치과병원 난치성턱뼈질환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턱뼈괴사증 퇴치를 위해 구강악안면외과 전문 치과의사, 골다공증 전문 내분비내과 의사, 류머티즘 전문 류마티스내과 의사가 협진을 하는 곳이다.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권용대(45·난치성턱뼈질환센터장) 교수와 이정우(39) 교수,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핵의학) 김덕윤(54) 교수, 류마티스내과 이연아(42) 교수 등이 바로 그들이다.<br/><br/> 2013년 7월 문을 연 경희대치과병원 난치성턱뼈질환센터는 암 치료를 위해 시행한 방사선 치료나 골다공증 치료약 및 류머티즘 치료제의 장기복용 후 발생한 턱뼈괴사증 외에 골수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 턱뼈종양 등에 의한 염증성 턱뼈질환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다.<br/><br/> 경희대 치과병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난치성턱뼈질환을 치료하며 나름의 진단과 치료 기준을 확립했다. 권 교수는 “<span class='quot0'>턱뼈에 발생하는 각종 염증성 질환을 살펴보면 일반 감염에 의한 기존의 골수염은 감소하는 반면 골다공증 약과 스테로이드제제 등 치료 약물과 관련된 턱뼈 괴사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span>”라고 말했다.<br/><br/> 권 교수팀이 국내에서 해마다 새로 발견해 치료하는 약물 관련 턱뼈괴사증 환자는 연평균 40여명에 이른다. 대부분 다른 병원 내분비내과 의사 또는 치과의사들이 턱뼈괴사 또는 골수염이 의심된다며 정밀진단검사를 의뢰한 환자다.<br/><br/> 권 교수팀은 2013년부터 매년 12월 난치성턱뼈질환을 주제로 개원의 대상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특별히 약물관련 턱뼈괴사증에 대한 일반 치과의사 및 내분비내과 의사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br/><br/> 또 그 동안 임상연구경험을 바탕으로 골대사학회, 골다공증학회 등과 협의해 한국인 약물관련 턱뼈괴사증 진단 및 치료지침을 제정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88.txt

제목: 휴 잭맨 심경 고백 “피부암 있어”  
날짜: 20150511  
기자: 김동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1100000213  
본문: 배우 휴 잭맨이 <span class='quot0'>18개월 동안 4개의 피부암 세포를 발견했다</span>.<br/><br/>영국 매체 피플은 10일(현지시간) 휴 잭맨이 “<span class='quot0'>18개월 동안 4개의 피부암 세포를 발견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호주에서 자라면서 햇빛 아래 노는 걸 좋아했지만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고, 결국 피부암에 걸렸다</span>”고 말했다고 밝혔다.<br/><br/>그는 “<span class='quot0'>암에 걸리는 사람을 보며 나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이런 고백이 다른 이를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 이야기를 들려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그는 엑스맨에서 17년간 울버린을 연기해왔다.<br/><br/>김동우 기자 love@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89.txt

제목: 미래부, 사물인터넷 공모결과 발표… 융합실증 사업 본격 착수  
날짜: 20150510  
기자: 김준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0100000078  
본문: 미래창조과학부 융합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조기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융합실증 사업 공모결과를 10일 발표했다.<br/><br/> 총 8개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인 끝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컨소시엄(가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컨소시엄(에너지), 카톨릭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보건의료), 자동차부품연구원 컨소시엄(자동차)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은 세부 내용 조율 및 협약 과정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하며 향후 3년간 추진할 계획이다.<br/><br/> 개방형 홈 사물인터넷(IoT) 실증 사업은 TV, 냉장고와 같은 다양한 전자제품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 공통요소(API)를 개발하고, 이를 모든 기업에게 개방해 호환성 부재로 인한 홈 IoT 분야의 시장 저해요인을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br/><br/> 스마트그리드 보안 실증 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최근 본격 도입되기 시작하는 스마트 계량기, 에너지관리시스템, 전기차 충전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대한 보안 취약성을 분석하고 국내 보안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한다.<br/><br/> 중증질환자 애프터케어 실증 사업은 암,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자의 퇴원 후 재택재활 및 건강관리를 도와주고 의료진에게는 환자별 맞춤 진료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1000여 명의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br/><br/> 스마트 카톡(Car-Talk) 실증 사업은 차량의 서비스 안전성, 보안성, 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도로시험장 개선, 일반도로 실증 인프라 구축 등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운전편의, 차량관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br/><br/> 미래부는 향후 IoT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발굴, 중소·중견기업 육성, IoT 시큐리티센터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br/><br/>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90.txt

제목: [가족행전] “팀이란,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모임”… 팀이라는 이름의 新가족 ‘울랄라세션’  
날짜: 20150509  
기자: 강주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9100000097  
본문: 2013년 2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10층의 한 병실. 암 투병을 하던 울랄라세션의 리더 임윤택은 생애 마지막으로 찬송 '내 주를 가까기 하게 함은'을 불렀다. 울랄라세션의 동생들은 이 노래를 담은 CCM 앨범 '써니 데이(Sunny Day)'를 8일 발매했다. 뿐만 아니라 '울랄라프레이즈(Ulala Praise)'를 만들었다. 2011년 '슈퍼스타K3(슈스케)' 출연 당시 동생들과 CCM 음반을 만들고 싶다던 그의 바람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br/><br/> 요즘 인기 있는 그룹은 대부분 연예기획사의 '작품'이다. 그러나 울랄라세션은 자생적이다. 임윤택과 멤버 박승일은 10대 때 동네 사회복지관에서 함께 춤을 췄던 사이이다. 멤버들은 노래와 춤을 위해 10여년 함께 살아왔다. 서로를 사랑하고 책임지기 위해 울랄라세션은 영역을 넓혀간다. 새 노래들이 이 사랑의 유산을 증명하고 있다. 울랄라세션은 '울랄라패밀리(Ulala Family)'이다.<br/><br/><br/><br/><br/>'뭔가 문제 있는' 동네 아이들의 신 <br/><br/>울랄라세션의 베이스보컬이자 울랄라프레이즈 리더인 박승일(34)과 세션 크루 출신으로 프레이즈에 합류한 최도원(30)·하준석(28)을 서울 동작구 현충로 울랄라컴퍼니 사무실이 있는 건물 4층 옥상에서 최근 만났다. 앨범 제목처럼 햇빛이 반짝이는 평일 오후였다. 울랄라컴퍼니는 울랄라세션과 울랄라프레이즈가 소속된 기획사이다.<br/><br/> 박승일에게 울랄라세션의 리더였던 임윤택을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물었다. “고1 때예요. 시내버스 328번 기점이 있던 복지관이요.” 서울 양천구 신월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1997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이다. 10대 청소년들이 동네 공터마다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 남성그룹 ‘듀스’와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때이다.<br/><br/> “당시엔 춤 열풍이 굉장했죠. 저도 춤을 좋아했어요. 단짝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이 모든 춤을 복합적으로 추는 ‘춤의 신’ 레전드가 있다면서 그 복지관엘 데려갔어요. 거기서 형을 처음 봤어요. 그래봐야 형이랑 저랑 딱 한 살 차이예요. 하하.”<br/><br/> 춤을 추던 친구들은 평범하지 않았다. “춤추던 애들 중엔 얌전하게 공부하는 친구는 드물었어요. 대부분 집안 형편이 안 좋거나 가족관계가 나쁘거나 친구가 없거나 정신적 약점이 있거나…. 형도 어릴 때 흥분조절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br/><br/> “(윤택이) 형은 원래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어른들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형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문신을 하고 춤추고 노래한다니까 거부감을 느꼈던 거죠. 언젠가 저한테 ‘나는 주님을 보고 싶은데 무슨 권리로 나를 막는지 모르겠다’며 화를 냈죠. 저희 어머니도 10년 넘게 제가 춤추는 걸 반대했어요.”<br/><br/><br/><br/> "형이랑 해볼래?"로 모인 패밀리 <br/><br/> 현재 울랄라세션 공식 멤버 박승일 김명훈 박광선 군조 4명과 프레이즈 멤버 박승일 최도원 하준석은 모두 ‘교회 오빠’다. 그동안 수많은 크루(객원멤버)와 댄서가 울랄라세션과 함께했다. 주로 동네 후미진 곳에서 춤추던 친구들이다. “<span class='quot0'>우리는 함께 춤추거나 노래한 친구들을 다 울랄라패밀리라고 해요.</span>”<br/><br/> 주로 어떻게 크루를 모집했는지 박승일에게 물었다. “형이 어디 갔다 오면 누군가를 데려와서 저한테 보라고 해요. 제가 트레이닝 담당이거든요. 그럼 제가 노래와 춤을 시켜보고 평가를 하죠.” 프레이즈 멤버 최도원과 하준석의 첫인상이 궁금해졌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최도원은 춤을 위해 중 2때 상경, 유승준의 방송안무팀 ING에서 활동했다.<br/><br/> “도원이는 끼가 많고 표현력이 좋았어요. 근데 목소리를 떠는 ‘쿠세’(癖, 나쁜 습관)가 있었죠. 팀 생활을 잘해요.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동생들 잘 돌보고…. 준석이는 촌스러웠어요. (다 함께 웃음) 딱 하나 봤어요. 성실해보였고 감성이 있었어요. 그 감성이 순수함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br/><br/> 울랄라세션의 크루 선발 기준은 감성과 심성인 모양이다. 최도원은 임윤택을 고교 시절 매점 앞에서 한 번 만났고, 2010년 서울예대 입학 후 다시 마주쳤다. “형이 입학식 공연을 하러 왔었어요. ‘너 형이랑 같이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하준석은 2008년 군 복무 시절 건군60주년 기념 뮤지컬 공연단에서 임윤택을 만났다.<br/><br/> “뮤지컬 중대에 HOT 출신 강타와 배우 겸 가수 양동근이 있었어요. 원래 저는 교회에 안 다녔는데 중대원 대부분이 주일에 교회 가서 저도 갔어요. 전역한 뒤 형이 ‘형이랑 노래하자’ 그랬죠.”<br/><br/><br/><br/> 임윤택 "암 투병 사실 방송하면 기권" <br/><br/> 울랄라세션에도 2009년 해체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몇 달 뒤 임윤택이 멤버들을 다시 소집했다. “형이 강타 선배님과 뭔가 준비하다가 (울랄라세션에서 함께했던) 동생들이 없으니까 외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내가 너희들을 좋아하긴 좋아하나봐’ 그러더라고요. (미소) ‘울랄라’란 즐겁다는 의미의 만국 공통 감탄사래요. 이름처럼 저희는 싸우지 않고 늘 재미있게 지냈어요.” 다시 뭉친 울랄라세션은 비보이 스타일 춤과 랩, R&B, 발라드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하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br/><br/> 2010년 말 임윤택은 위암 진단을 받는다. 의사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생존한다고 했다.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우리 형이냐고. 안 그래도 우리한테는 열악한 환경과 가정을 주셨으면서….” 박승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br/><br/> 진단 후 동생들은 수술비를 벌기 위해 경기도 하남 미사리 카페촌에 노래를 부르러 다녔다. “한 번은 형이 우리를 따라왔어요. 수술 직후라 피를 받는 혈액주머니를 허리춤에 매단 상태였는데 남색 손수건으로 그걸 가리고 무대에 올랐어요. 우리한테 미안했나 봐요.” 최도원은 “그런데 정말 감쪽같았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이죠”라고 덧붙였다.<br/><br/> 2011년 초 임윤택은 멤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net의 슈스케에 출연하자고 했다. “형 몸으론 할 수 없는 거였죠. 형은 방송사 측에 ‘내가 암 판정 받았다는 것은 내보내지 말아 달라. 만약 내보내면 우리 팀은 기권하겠다’고 했어요.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죠. 암 투병이 알려지면 우리는 제대로 실력을 평가받을 기회를 잃고, 시청자들은 우리를 동정할 거라고 했어요.”<br/><br/><br/>그의 암 투병 사실은 방송 초반엔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가 소아암 병동 위문 공연을 하게 됐어요. 형은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를 다 밀고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형이 마지막에 모자를 벗었어요. '형도 너희들처럼 아프다. 하지만 동생들과 함께 꿈을 이뤄나가고 있다. 너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 멤버들도 아이들도 다 울었죠."<br/><br/><br/><br/>팀워크는 '내 것' 포기하는 데서 <br/><br/> 임윤택은 이날 후 암 투병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형은 자신의 투병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2011년 9월 말 첫 생방송 '달의 몰락'을 부를 때 임윤택은 사망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다.<br/><br/> "첫 생방송을 앞두고 위경련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어요. 형은 출연하겠다고 하고 멤버들은 울면서 말리고…. 병원과 방송국 측이 다 각서를 요구했어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형은 난 죽어도 무대에서 죽을 테니 너희도 목숨 걸고 노래하라고 했죠."<br/><br/> 임윤택은 이날 무사히 '달의 몰락'을 불렀다. 울랄라세션은 11월 중순 최종 우승했다. 임윤택은 당시 수상 소감에서 "15년 동안 못난 리더 따라주느라 고생한 동생들 위해서 출연하게 됐다. 팀이란 뭔가 잘하는 이들의 모임이 아니라 팀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했다. 임윤택이 목숨을 걸고 무대에 섰던 이유였다.<br/><br/> 리더는 2013년 2월 11일 소천했다. 암 선고 후에도 3년여를 더 살다 간 것이다. "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 멤버들이 참 힘들었죠. 평소 모태신앙인 명훈이한데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명훈이는 항상 '형, 잘될 거야.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답을 주실 거야'라고 해요. 그럼 제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도 전 방황을 많이 했어요. 월급 날 돈을 다 털어 술집을 전전하고…."<br/><br/><br/><br/> 형의 유산 '울랄라프레이즈' <br/><br/> 그러다 문득 박승일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울랄라세션은 나의 소중한 가족이자 형이 물려준 재산인데 내가 이러고 있다는 게 창피했어요. 슈스케 출연할 때 형이랑 CCM 만드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찬양 앨범으로 더 큰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br/><br/> 박승일은 곁에 있어준 최도원 하준석과 서울 서대문교회에 출석하며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br/><br/> 울랄라프레이즈의 첫 앨범 '써니 데이'에 실린 9곡 중 8곡은 모두 직접 작곡과 작사한 것이다. 블랙 가스펠부터 발라드, 워십, 힙합까지 다양하다. 번안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은 임윤택이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이다. "목사님이 병실에서 형한테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노래가 뭔지 물었어요. 입 모양으로 '타·이·타·닉'이라고 하더군요."<br/><br/> 미국 영화 '타이타닉(1997)' 중 배가 침몰하는 장면에서 이 찬양의 원곡이 현악4중주로 흘러나온다. "형의 마지막 마음 같았어요. 두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형의 그 마음을 그리며 불렀어요."<br/><br/> 타이틀곡 '아버지'는 하준석이 만들었다. "CCM 앨범을 만들기로 하고 가장 처음 시작한 곡인데 가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준석이가 한 10번 악보를 엎었어요. 저는 형이 주님의 일을 충분히 하고 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길을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줬으니까요. 무대에서 즐겁고 행복한 저희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요."<br/><br/> 울랄라세션은 수익금 일부를 유족인 아내 이혜림(32)씨와 딸 리단(3)에게 보낸다. 울랄라프레이즈는 오는 21일 오후 7시 전북 전주대 희망홀에서 열리는 '청년복음전도축제' 무대에 선다.<br/><br/> 2시간여 인터뷰 후 셋은 또 연습을 하러 간다고 했다. "KBS '불후의 명곡'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매일매일 연습이에요." 아픔 속에서 핀 꽃같은 청년들이다. 울랄라！<br/><br/><br/>강주화 기자 rula@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91.txt

제목: [가족행전] “팀이란,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모임”… 팀이라는 이름의 新가족 ‘울랄라세션’  
날짜: 20150509  
기자: 강주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9100000192  
본문: 2013년 2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10층의 한 병실. 암 투병을 하던 울랄라세션의 리더 임윤택은 생애 마지막으로 찬송 '내 주를 가까기 하게 함은'을 불렀다. 울랄라세션의 동생들은 이 노래를 담은 CCM 앨범 '써니 데이(Sunny Day)'를 8일 발매했다. 뿐만 아니라 '울랄라프레이즈(Ulala Praise)'를 만들었다. 2011년 '슈퍼스타K3(슈스케)' 출연 당시 동생들과 CCM 음반을 만들고 싶다던 그의 바람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br/><br/><br/><br/>요즘 인기 있는 그룹은 대부분 연예기획사의 '작품'이다. 그러나 울랄라세션은 자생적이다. 임윤택과 멤버 박승일은 10대 때 동네 사회복지관에서 함께 춤을 췄던 사이이다. 멤버들은 노래와 춤을 위해 10여년 함께 살아왔다. 서로를 사랑하고 책임지기 위해 울랄라세션은 영역을 넓혀간다. 새 노래들이 이 사랑의 유산을 증명하고 있다. 울랄라세션은 '울랄라패밀리(Ulala Family)'이다.<br/><br/><br/><br/>‘뭔가 문제 있는’ 동네 아이들의 신<br/><br/><br/><br/>울랄라세션의 베이스보컬이자 울랄라프레이즈 리더인 박승일(34)과 세션 크루 출신으로 프레이즈에 합류한 최도원(30)·하준석(28)을 서울 동작구 현충로 울랄라컴퍼니 사무실이 있는 건물 4층 옥상에서 최근 만났다. 앨범 제목처럼 햇빛이 반짝이는 평일 오후였다. 울랄라컴퍼니는 울랄라세션과 울랄라프레이즈가 소속된 기획사이다.<br/><br/><br/><br/> 박승일에게 울랄라세션의 리더였던 임윤택을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물었다. “고1 때예요. 시내버스 328번 기점이 있던 복지관이요.” 서울 양천구 신월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1997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이다. 10대 청소년들이 동네 공터마다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 남성그룹 ‘듀스’와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때이다.<br/><br/><br/><br/> “당시엔 춤 열풍이 굉장했죠. 저도 춤을 좋아했어요. 단짝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이 모든 춤을 복합적으로 추는 ‘춤의 신’ 레전드가 있다면서 그 복지관엘 데려갔어요. 거기서 형을 처음 봤어요. 그래봐야 형이랑 저랑 딱 한 살 차이예요. 하하.”<br/><br/><br/><br/> 춤을 추던 친구들은 평범하지 않았다. “춤추던 애들 중엔 얌전하게 공부하는 친구는 드물었어요. 대부분 집안 형편이 안 좋거나 가족관계가 나쁘거나 친구가 없거나 정신적 약점이 있거나…. 형도 어릴 때 흥분조절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br/><br/><br/><br/> “(윤택이) 형은 원래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어른들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형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문신을 하고 춤추고 노래한다니까 거부감을 느꼈던 거죠. 언젠가 저한테 ‘나는 주님을 보고 싶은데 무슨 권리로 나를 막는지 모르겠다’며 화를 냈죠. 저희 어머니도 10년 넘게 제가 춤추는 걸 반대했어요.”<br/><br/><br/><br/> “형이랑 해볼래?”로 모인 패밀리<br/><br/><br/><br/> 현재 울랄라세션 공식 멤버 박승일 김명훈 박광선 군조 4명과 프레이즈 멤버 박승일 최도원 하준석은 모두 ‘교회 오빠’다. 그동안 수많은 크루(객원멤버)와 댄서가 울랄라세션과 함께했다. 주로 동네 후미진 곳에서 춤추던 친구들이다. “<span class='quot0'>우리는 함께 춤추거나 노래한 친구들을 다 울랄라패밀리라고 해요.</span>”<br/><br/><br/><br/> 주로 어떻게 크루를 모집했는지 박승일에게 물었다. “형이 어디 갔다 오면 누군가를 데려와서 저한테 보라고 해요. 제가 트레이닝 담당이거든요. 그럼 제가 노래와 춤을 시켜보고 평가를 하죠.” 프레이즈 멤버 최도원과 하준석의 첫인상이 궁금해졌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최도원은 춤을 위해 중 2때 상경, 유승준의 방송안무팀 ING에서 활동했다.<br/><br/><br/><br/> “도원이는 끼가 많고 표현력이 좋았어요. 근데 목소리를 떠는 ‘쿠세’(癖, 나쁜 습관)가 있었죠. 팀 생활을 잘해요.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동생들 잘 돌보고…. 준석이는 촌스러웠어요. (다 함께 웃음) 딱 하나 봤어요. 성실해보였고 감성이 있었어요. 그 감성이 순수함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br/><br/><br/><br/> 울랄라세션의 크루 선발 기준은 감성과 심성인 모양이다. 최도원은 임윤택을 고교 시절 매점 앞에서 한 번 만났고, 2010년 서울예대 입학 후 다시 마주쳤다. “형이 입학식 공연을 하러 왔었어요. ‘너 형이랑 같이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하준석은 2008년 군 복무 시절 건군60주년 기념 뮤지컬 공연단에서 임윤택을 만났다.<br/><br/><br/><br/> “뮤지컬 중대에 HOT 출신 강타와 배우 겸 가수 양동근이 있었어요. 원래 저는 교회에 안 다녔는데 중대원 대부분이 주일에 교회 가서 저도 갔어요. 전역한 뒤 형이 ‘형이랑 노래하자’ 그랬죠.”<br/><br/><br/><br/> 임윤택 “암 투병 사실 방송하면 기권”<br/><br/><br/><br/> 울랄라세션에도 2009년 해체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몇 달 뒤 임윤택이 멤버들을 다시 소집했다. “형이 강타 선배님과 뭔가 준비하다가 (울랄라세션에서 함께했던) 동생들이 없으니까 외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내가 너희들을 좋아하긴 좋아하나봐’ 그러더라고요. (미소) ‘울랄라’란 즐겁다는 의미의 만국 공통 감탄사래요. 이름처럼 저희는 싸우지 않고 늘 재미있게 지냈어요.” 다시 뭉친 울랄라세션은 비보이 스타일 춤과 랩, R&B, 발라드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하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br/><br/><br/><br/> 2010년 말 임윤택은 위암 진단을 받는다. 의사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생존한다고 했다.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우리 형이냐고. 안 그래도 우리한테는 열악한 환경과 가정을 주셨으면서….” 박승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br/><br/><br/><br/> 진단 후 동생들은 수술비를 벌기 위해 경기도 하남 미사리 카페촌에 노래를 부르러 다녔다. “한 번은 형이 우리를 따라왔어요. 수술 직후라 피를 받는 혈액주머니를 허리춤에 매단 상태였는데 남색 손수건으로 그걸 가리고 무대에 올랐어요. 우리한테 미안했나 봐요.” 최도원은 “그런데 정말 감쪽같았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이죠”라고 덧붙였다.<br/><br/><br/><br/> 2011년 초 임윤택은 멤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net의 슈스케에 출연하자고 했다. “형 몸으론 할 수 없는 거였죠. 형은 방송사 측에 ‘내가 암 판정 받았다는 것은 내보내지 말아 달라. 만약 내보내면 우리 팀은 기권하겠다’고 했어요.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죠. 암 투병이 알려지면 우리는 제대로 실력을 평가받을 기회를 잃고, 시청자들은 우리를 동정할 거라고 했어요.”<br/><br/><br/><br/>그의 암 투병 사실은 방송 초반엔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가 소아암 병동 위문 공연을 하게 됐어요. 형은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를 다 밀고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형이 마지막에 모자를 벗었어요. ‘형도 너희들처럼 아프다. 하지만 동생들과 함께 꿈을 이뤄나가고 있다. 너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 멤버들도 아이들도 다 울었죠.” <br/><br/><br/><br/> 팀워크는 ‘내 것’ 포기하는 데서 <br/><br/><br/><br/> 임윤택은 이날 후 암 투병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span class='quot0'>형은 자신의 투병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span>” 2011년 9월 말 첫 생방송 ‘달의 몰락’을 부를 때 임윤택은 사망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다. <br/><br/><br/> “첫 생방송을 앞두고 위경련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어요. 형은 출연하겠다고 하고 멤버들은 울면서 말리고…. 병원과 방송국 측이 다 각서를 요구했어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형은 난 죽어도 무대에서 죽을 테니 너희도 목숨 걸고 노래하라고 했죠.” <br/><br/><br/><br/> 임윤택은 이날 무사히 ‘달의 몰락’을 불렀다. 울랄라세션은 11월 중순 최종 우승했다. 임윤택은 당시 수상 소감에서 “15년 동안 못난 리더 따라주느라 고생한 동생들 위해서 출연하게 됐다. 팀이란 뭔가 잘하는 이들의 모임이 아니라 팀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했다. 임윤택이 목숨을 걸고 무대에 섰던 이유였다. <br/><br/><br/><br/><br/> 리더는 2013년 2월 11일 소천했다. 암 선고 후에도 3년여를 더 살다 간 것이다. “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 멤버들이 참 힘들었죠. 평소 모태신앙인 명훈이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명훈이는 항상 ‘형, 잘될 거야.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답을 주실 거야’라고 해요. 그럼 제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도 전 방황을 많이 했어요. 월급 날 돈을 다 털어 술집을 전전하고….” <br/> <br/><br/><br/>형의 유산 ‘울랄라프레이즈’ <br/><br/><br/><br/> 그러다 문득 박승일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울랄라세션은 나의 소중한 가족이자 형이 물려준 재산인데 내가 이러고 있다는 게 창피했어요. 슈스케 출연할 때 형이랑 CCM 만드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찬양 앨범으로 더 큰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br/><br/> <br/> 박승일은 곁에 있어준 최도원 하준석과 서울 서대문교회에 출석하며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br/><br/> <br/><br/> 울랄라프레이즈의 첫 앨범 ‘써니 데이’에 실린 9곡 중 8곡은 모두 직접 작곡과 작사한 것이다. 블랙 가스펠부터 발라드, 워십, 힙합까지 다양하다. 번안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은 임윤택이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이다. “목사님이 병실에서 형한테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노래가 뭔지 물었어요. 입 모양으로 ‘타·이·타·닉’이라고 하더군요.” <br/><br/><br/><br/> 미국 영화 ‘타이타닉(1997)’ 중 배가 침몰하는 장면에서 이 찬양의 원곡이 현악4중주로 흘러나온다. “형의 마지막 마음 같았어요. 두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형의 그 마음을 그리며 불렀어요.” <br/><br/><br/><br/><br/> 타이틀곡 ‘아버지’는 하준석이 만들었다. “CCM 앨범을 만들기로 하고 가장 처음 시작한 곡인데 가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준석이가 한 10번 악보를 엎었어요. 저는 형이 주님의 일을 충분히 하고 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길을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줬으니까요. 무대에서 즐겁고 행복한 저희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br/><br/><br/><br/> 울랄라세션은 수익금 일부를 유족인 아내 이혜림(32)씨와 딸 리단(3)에게 보낸다. 울랄라프레이즈는 오는 21일 오후 7시 전북 전주대 희망홀에서 열리는 ‘청년복음전도축제’ 무대에 선다. <br/><br/><br/><br/> 2시간여 인터뷰 후 셋은 또 연습을 하러 간다고 했다. “KBS ‘불후의 명곡’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매일매일 연습이에요.” 아픔 속에서 핀 꽃같은 청년들이다. 울랄라！<br/><br/><br/><br/>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92.txt

제목: [가족행전] “팀이란,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모임”… 팀이라는 이름의 新가족 ‘울랄라세션’  
날짜: 20150509  
기자: 강주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9100000190  
본문: ‘뭔가 문제 있는’ 동네 아이들의 신<br/><br/>울랄라세션의 베이스보컬이자 울랄라프레이즈 리더인 박승일(34)과 세션 크루 출신으로 프레이즈에 합류한 최도원(30)·하준석(28)을 서울 동작구 현충로 울랄라컴퍼니 사무실이 있는 건물 4층 옥상에서 최근 만났다. 앨범 제목처럼 햇빛이 반짝이는 평일 오후였다. 울랄라컴퍼니는 울랄라세션과 울랄라프레이즈가 소속된 기획사이다.<br/><br/> 박승일에게 울랄라세션의 리더였던 임윤택을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물었다. “고1 때예요. 시내버스 328번 기점이 있던 복지관이요.” 서울 양천구 신월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1997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이다. 10대 청소년들이 동네 공터마다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 남성그룹 ‘듀스’와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때이다.<br/><br/> “당시엔 춤 열풍이 굉장했죠. 저도 춤을 좋아했어요. 단짝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이 모든 춤을 복합적으로 추는 ‘춤의 신’ 레전드가 있다면서 그 복지관엘 데려갔어요. 거기서 형을 처음 봤어요. 그래봐야 형이랑 저랑 딱 한 살 차이예요. 하하.”<br/><br/> 춤을 추던 친구들은 평범하지 않았다. “춤추던 애들 중엔 얌전하게 공부하는 친구는 드물었어요. 대부분 집안 형편이 안 좋거나 가족관계가 나쁘거나 친구가 없거나 정신적 약점이 있거나…. 형도 어릴 때 흥분조절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br/><br/> “(윤택이) 형은 원래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어른들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형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문신을 하고 춤추고 노래한다니까 거부감을 느꼈던 거죠. 언젠가 저한테 ‘나는 주님을 보고 싶은데 무슨 권리로 나를 막는지 모르겠다’며 화를 냈죠. 저희 어머니도 10년 넘게 제가 춤추는 걸 반대했어요.”<br/><br/><br/><br/> “형이랑 해볼래?”로 모인 패밀리<br/><br/> 현재 울랄라세션 공식 멤버 박승일 김명훈 박광선 군조 4명과 프레이즈 멤버 박승일 최도원 하준석은 모두 ‘교회 오빠’다. 그동안 수많은 크루(객원멤버)와 댄서가 울랄라세션과 함께했다. 주로 동네 후미진 곳에서 춤추던 친구들이다. “<span class='quot0'>우리는 함께 춤추거나 노래한 친구들을 다 울랄라패밀리라고 해요.</span>”<br/><br/> 주로 어떻게 크루를 모집했는지 박승일에게 물었다. “형이 어디 갔다 오면 누군가를 데려와서 저한테 보라고 해요. 제가 트레이닝 담당이거든요. 그럼 제가 노래와 춤을 시켜보고 평가를 하죠.” 프레이즈 멤버 최도원과 하준석의 첫인상이 궁금해졌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최도원은 춤을 위해 중 2때 상경, 유승준의 방송안무팀 ING에서 활동했다.<br/><br/> “도원이는 끼가 많고 표현력이 좋았어요. 근데 목소리를 떠는 ‘쿠세’(癖, 나쁜 습관)가 있었죠. 팀 생활을 잘해요.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동생들 잘 돌보고…. 준석이는 촌스러웠어요. (다 함께 웃음) 딱 하나 봤어요. 성실해보였고 감성이 있었어요. 그 감성이 순수함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br/><br/> 울랄라세션의 크루 선발 기준은 감성과 심성인 모양이다. 최도원은 임윤택을 고교 시절 매점 앞에서 한 번 만났고, 2010년 서울예대 입학 후 다시 마주쳤다. “형이 입학식 공연을 하러 왔었어요. ‘너 형이랑 같이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하준석은 2008년 군 복무 시절 건군60주년 기념 뮤지컬 공연단에서 임윤택을 만났다.<br/><br/> “뮤지컬 중대에 HOT 출신 강타와 배우 겸 가수 양동근이 있었어요. 원래 저는 교회에 안 다녔는데 중대원 대부분이 주일에 교회 가서 저도 갔어요. 전역한 뒤 형이 ‘형이랑 노래하자’ 그랬죠.”<br/><br/><br/><br/> 임윤택 “암 투병 사실 방송하면 기권”<br/><br/> 울랄라세션에도 2009년 해체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몇 달 뒤 임윤택이 멤버들을 다시 소집했다. “형이 강타 선배님과 뭔가 준비하다가 (울랄라세션에서 함께했던) 동생들이 없으니까 외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내가 너희들을 좋아하긴 좋아하나봐’ 그러더라고요. (미소) ‘울랄라’란 즐겁다는 의미의 만국 공통 감탄사래요. 이름처럼 저희는 싸우지 않고 늘 재미있게 지냈어요.” 다시 뭉친 울랄라세션은 비보이 스타일 춤과 랩, R&B, 발라드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하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br/><br/> 2010년 말 임윤택은 위암 진단을 받는다. 의사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생존한다고 했다.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우리 형이냐고. 안 그래도 우리한테는 열악한 환경과 가정을 주셨으면서….” 박승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br/><br/> 진단 후 동생들은 수술비를 벌기 위해 경기도 하남 미사리 카페촌에 노래를 부르러 다녔다. “한 번은 형이 우리를 따라왔어요. 수술 직후라 피를 받는 혈액주머니를 허리춤에 매단 상태였는데 남색 손수건으로 그걸 가리고 무대에 올랐어요. 우리한테 미안했나 봐요.” 최도원은 “그런데 정말 감쪽같았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이죠”라고 덧붙였다.<br/><br/> 2011년 초 임윤택은 멤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net의 슈스케에 출연하자고 했다. “형 몸으론 할 수 없는 거였죠. 형은 방송사 측에 ‘내가 암 판정 받았다는 것은 내보내지 말아 달라. 만약 내보내면 우리 팀은 기권하겠다’고 했어요.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죠. 암 투병이 알려지면 우리는 제대로 실력을 평가받을 기회를 잃고, 시청자들은 우리를 동정할 거라고 했어요.”<br/><br/>그의 암 투병 사실은 방송 초반엔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가 소아암 병동 위문 공연을 하게 됐어요. 형은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를 다 밀고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형이 마지막에 모자를 벗었어요. ‘형도 너희들처럼 아프다. 하지만 동생들과 함께 꿈을 이뤄나가고 있다. 너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 멤버들도 아이들도 다 울었죠.” <br/><br/><br/> 팀워크는 ‘내 것’ 포기하는 데서 <br/><br/><br/> 임윤택은 이날 후 암 투병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span class='quot0'>형은 자신의 투병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span>” 2011년 9월 말 첫 생방송 ‘달의 몰락’을 부를 때 임윤택은 사망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다. <br/> “첫 생방송을 앞두고 위경련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어요. 형은 출연하겠다고 하고 멤버들은 울면서 말리고…. 병원과 방송국 측이 다 각서를 요구했어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형은 난 죽어도 무대에서 죽을 테니 너희도 목숨 걸고 노래하라고 했죠.” <br/><br/><br/> 임윤택은 이날 무사히 ‘달의 몰락’을 불렀다. 울랄라세션은 11월 중순 최종 우승했다. 임윤택은 당시 수상 소감에서 “15년 동안 못난 리더 따라주느라 고생한 동생들 위해서 출연하게 됐다. 팀이란 뭔가 잘하는 이들의 모임이 아니라 팀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했다. 임윤택이 목숨을 걸고 무대에 섰던 이유였다. <br/><br/><br/> 리더는 2013년 2월 11일 소천했다. 암 선고 후에도 3년여를 더 살다 간 것이다. “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 멤버들이 참 힘들었죠. 평소 모태신앙인 명훈이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명훈이는 항상 ‘형, 잘될 거야.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답을 주실 거야’라고 해요. 그럼 제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도 전 방황을 많이 했어요. 월급 날 돈을 다 털어 술집을 전전하고….” <br/> <br/><br/>형의 유산 ‘울랄라프레이즈’ <br/><br/><br/> 그러다 문득 박승일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울랄라세션은 나의 소중한 가족이자 형이 물려준 재산인데 내가 이러고 있다는 게 창피했어요. 슈스케 출연할 때 형이랑 CCM 만드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찬양 앨범으로 더 큰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br/> 박승일은 곁에 있어준 최도원 하준석과 서울 서대문교회에 출석하며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br/><br/><br/> 울랄라프레이즈의 첫 앨범 ‘써니 데이’에 실린 9곡 중 8곡은 모두 직접 작곡과 작사한 것이다. 블랙 가스펠부터 발라드, 워십, 힙합까지 다양하다. 번안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은 임윤택이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이다. “목사님이 병실에서 형한테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노래가 뭔지 물었어요. 입 모양으로 ‘타·이·타·닉’이라고 하더군요.” <br/><br/><br/> 미국 영화 ‘타이타닉(1997)’ 중 배가 침몰하는 장면에서 이 찬양의 원곡이 현악4중주로 흘러나온다. “형의 마지막 마음 같았어요. 두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형의 그 마음을 그리며 불렀어요.” <br/><br/><br/> 타이틀곡 ‘아버지’는 하준석이 만들었다. “CCM 앨범을 만들기로 하고 가장 처음 시작한 곡인데 가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준석이가 한 10번 악보를 엎었어요. 저는 형이 주님의 일을 충분히 하고 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길을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줬으니까요. 무대에서 즐겁고 행복한 저희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br/><br/><br/> 울랄라세션은 수익금 일부를 유족인 아내 이혜림(32)씨와 딸 리단(3)에게 보낸다. 울랄라프레이즈는 오는 21일 오후 7시 전북 전주대 희망홀에서 열리는 ‘청년복음전도축제’ 무대에 선다. <br/><br/><br/> 2시간여 인터뷰 후 셋은 또 연습을 하러 간다고 했다. “KBS ‘불후의 명곡’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매일매일 연습이에요.” 아픔 속에서 핀 꽃같은 청년들이다. 울랄라！<br/><br/>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93.txt

제목: 국내 연구진, 항암제 부작용 최소화 길 열었다… 신경전달물질 ‘뉴로펩타이드 Y’ 발견  
날짜: 201505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810017217522  
본문: 경북대 배재성(사진)·진희경 교수팀이 골수조혈줄기세포를 이용해 항암제 부작용을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 ‘뉴로펩타이드 Y’(NPY)를 발견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7일 밝혔다. 심각한 항암제 부작용인 급성 골수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 항암치료요법 중 항암제를 이용한 화학약물치료법은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특히 급성골수손상은 골수 재생성에 관여하는 조혈줄기세포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만성 골수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암 환자가 화학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br/><br/> 연구팀은 유전적으로 NPY가 나타나지 않는 생쥐의 골수는 정상 생쥐의 골수보다 조혈줄기세포 수가 적은 것을 발견했다. NPY는 뉴로펩타이드 중 하나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에서 풍부하게 분비된다. 식욕중추를 조절하거나 다양한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다.<br/><br/> 연구팀은 조혈줄기세포의 감소가 세포 생존·유지에 필수적인 골수 내 신경세포와 내피세포가 죽었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또 NPY가 나타나지 않는 생쥐의 조혈줄기세포 감소는 항암치료를 받은 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골수손상 부작용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분야 학술지인 ‘엠보 저널’ 4월 27일자에 실렸다.<br/><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94.txt

제목: 가정형 호스피스 健保 적용… 7월부터 시범사업 들어가  
날짜: 20150508  
기자: foryou@kmib.co.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8100000300  
본문: 말기 암 환자가 집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게 ‘가정형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말기암 환자나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도 하반기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br/><br/> 보건복지부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암 관리법 시행규칙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br/><br/>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26만8100명 중 병원에서 임종을 맞은 환자는 73.1%로 역대 최고치였다. 재택(在宅) 임종은 16.6%에 그쳤다. 특히 암 환자는 병원에서 숨을 거두는 비율이 2013년 기준 89.2%나 됐다. 암 환자의 재택 임종은 8.5%에 불과하다. 이들을 위한 의료 인력과 장비가 병원 등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br/><br/> 이런 임종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부는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기존 ‘가정간호’ 제도는 간호사가 환자를 1회 방문할 때마다 건강보험에서 3만∼4만원 정도만 지원돼 종교기관 등에서나 후원금을 보태 운영하곤 했다.<br/><br/> 7월 시작되는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가정에 머무는 말기 암 환자를 위해 미비했던 지원을 확 늘렸다.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 집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6시간 추가 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1급), 전담 간호사와 성직자가 한 팀이 돼 환자 상태를 점검한다. 통증을 줄이는 약물 투여와 치료가 주된 역할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잠시 병원에 입원했다가 호전되면 다시 집으로 옮기는 방식도 활용된다.<br/><br/>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치료 병동에 있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도 6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현재는 2009년 시작된 입원형 호스피스만 운영 중인데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span>”며 “<span class='quot0'>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제공 체계를 다양화해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여 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95.txt

제목: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 적용  
날짜: 20150507  
기자: 문수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7100000288  
본문: 오는 7월부터 가정에 머무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말기암 환자나 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도 하반기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br/><br/> 보건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한다.<br/><br/> 가정형이나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6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1급), 전담간호사를 각각 1인 이상 둬야 한다. 간호사의 경우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지만 가정형 호스피스의 경우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가정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도 필수 인력으로 인정된다.<br/><br/> 복지부는 7월 중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해, 하반기 중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담 병상을 운영하는 ‘입원형 호스피스’만 운영 중이지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가정형 혹은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br/><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96.txt

제목: “된장국을 만들 때면 항상 엄마가 생각나요” 사망한 어머니 레시피대로 7년째 된장국 끓이는 日 소녀  
날짜: 20150507  
기자: 이종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7100000112  
본문: ‘탁탁탁… 쓱싹쓱싹.’<br/><br/> 오전 6시가 되면 부엌에는 어김없이 파를 써는 소리가 울린다.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를 가는 소리와 함께 냄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일본식 된장국인 미소 된장을 끓이고 있는 이 요리사는 야스타케 하나(12)양이다. 그녀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7년째 아버지와 자신의 아침 밥상에 들어갈 된장국을 끓이고 있다.<br/><br/> 하나가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를 잃고 나서부터다. 하나의 어머니 치에(2008년 사망)씨는 유방암으로 33세의 젊은 나이에 눈을 감았다. 그녀가 처음 암 진단을 받은 것은 25세였던 2000년의 일이었다. 하나를 출산한 지 1년도 채 안 돼 암이 폐와 장기 곳곳에 전이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들었다.<br/><br/> 투병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의 필요성을 절감한 그녀는 자신의 병치레 과정과 음식에 대한 생각을 블로그에 기록했다. 또 엄마 없이 자랄 하나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밥과 된장 등 음식을 스스로 해먹는 방법도 적어놓았다. 하나는 엄마의 가르침대로 된장부터 집에서 직접 만들어 된장국을 끓인다. 이런 하나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아버지 야스타케 신고(51)씨는 2012년 아내의 투병기부터 어린 딸이 커가는 이야기까지 엮어 ‘하나양의 된장국’이란 제목의 책을 아내와 딸까지 3명의 공동 명의로 출간했다. 이 책은 곧 베스트셀러가 됐다.<br/><br/> 특히 이 가운데 하나가 쓴 ‘엄마와의 약속’이란 글은 초등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에도 실렸다. 이 글에서 하나는 “된장국을 만들 때면 항상 엄마가 생각난다”며 “(된장국을) 만들 때 엄마가 옆에 있는 느낌이 들어 아주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는 출산을 하면 병이 재발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나를 낳아줬다”고 소개한 뒤 “내 생명은 스스로 지킨다는 것이 엄마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하나양의 스토리를 6일자 신문에 소개하며 그녀의 사연을 담은 영화가 12월 일본에서 개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br/><br/>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97.txt

제목: 죽은 어머니 레시피대로 7년째 된장국 끓이는 12세 日소녀 이야기  
날짜: 20150506  
기자: 이종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6100000297  
본문: ‘탁탁탁…쓱싹쓱싹’<br/><br/> 아침 6시가 되면 부엌에는 어김없이 파를 써는 소리가 울린다.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를 가는 소리와 함께 냄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일본식 된장국인 미소 된장을 끓이고 있는 이 요리사는 야스타케 하나(12)양이다. 그녀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7년째 아버지와 자신의 아침 밥상에 들어갈 된장국을 끓이고 있다.<br/><br/> 하나가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를 잃고 나서부터다. 하나의 어머니 치에(2008년 사망)씨는 유방암으로 33세 젊은 나이에 눈을 감았다. 그녀가 처음 암 진단을 받은 것은 25세였던 2000년의 일이었다. 하나를 출산한 지 1년도 채 안 돼 암이 폐와 장기 곳곳에 전이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들었다.<br/><br/> 투병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의 필요성을 절감한 그녀는 자신의 병치레 과정과 음식에 대한 생각을 블로그에 기록했다. 또 엄마 없이 자랄 하나가 혼자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밥과 된장 등 음식을 스스로 해먹는 방법도 적어놓았다. 하나는 엄마의 가르침대로 된장부터 집에서 직접 만들어 된장국을 끓인다. 이런 하나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아버지 야스타케 신고(51)씨는 2012년 아내의 투병기부터 어린 딸이 커가는 이야기까지 엮어 ‘하나양의 된장국’이란 제목의 책을 아내와 딸까지 3명의 공동 명의로 출간했다. 이 책은 곧 베스트셀러가 됐다.<br/><br/> 특히 이 가운데 하나가 쓴 ‘엄마와의 약속’이란 글은 초등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까지 실렸다. 이 글에서 하나는 “된장국을 만들 때면 항상 엄마가 생각난다”며 “(된장국을) 만들 때 엄마가 옆에 있는 느낌이 들어 아주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는 출산을 하면 병이 재발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나를 낳아줬다”고 소개한 뒤 “내 생명은 스스로 지킨다는 것이 엄마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하나양의 스토리를 6일자 신문에서 소개하며 그녀의 사연을 담은 영화가 12월 일본에서 개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br/><br/>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98.txt

제목: [뉴스파일] 영산강 상류 민물고기 감염실태 조사  
날짜: 201505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5100000237  
본문: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5월과 10월 중에 영산강 상류인 용산교와 광주호, 충효교 부근 등에서 민물고기의 기생충 감염실태를 2차례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광주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영산강에 서식하는 어류의 간흡충증 등 감염여부를 판명하게 된다. ‘간디스토마’로 알려진 간흡충증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암 연구 전문기구(IARC)에서 1급 발암성 병원체로 분류한 고위험 병원체이다.<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99.txt

제목: 보험사의 꼼수… 맞는 항암제는 되는데 먹는 항암제는 안된다?  
날짜: 20150504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4100000336  
본문: 김경희씨는 암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를 전액 보장해주겠다는 유명한 민간보험상품에 가입돼 있지만 현재 수천만에 이르는 경구용 항암제 치료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암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준다는 보험상품인데, 왜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가장 일반적인 항암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것일까.<br/><br/> 치료비를 전액 보장해준다는 보험상품 중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원기간 동안 들어간 치료비를 보장한다고 말한다. 이 약관조항의 맹점은 바로 ‘입원기간’이다. 김씨의 경우 경구용 항암제, 즉 병원에서 항암제를 처방받아 집에서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를 처방받았고, 보험사는 ‘환자가 입원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br/><br/> 그러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암환자들은 치료효과는 좋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경구용 표적항암제의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퇴원하지 않고 계속 병실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는 논리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특히 경구용 항암제로 연구·개발되고 있는 지금의 의료환경과 역행하는 꼼수조건이라는 것이다. <br/><br/> 환자단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천문학적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민간보험사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말기암환자가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가정에서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먹으며 행복하게 보내는 기회까지 빼앗는 반인권적 횡포를 부리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경구용 표적항암제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일부 민간보험사의 행위를 고발하는 1인 시위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진행 중에 있다. <br/><br/> 이번 일과 관련된 민간보험사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복용하는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거부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 제기 역시 민간보험사의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보통 3∼5년이 걸린다. 표적항암제를 복용하는 말기암환자들은 시간이 없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의 협상안을 제시할 것이다. 암환자들은 이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br/><br/> 최근에는 홈쇼핑 채널을 통해 민영보험사의 다양한 보험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여기서 세세하게 달린 약관조항을 읽어주더라도 한 번도 암환자가 되어보지 않은 일반인들은 이 조건들이 훗날 어떤 방식으로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판단하기가 힘들다. <br/><br/> 한편,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에 분쟁이 일어나도 이를 해결해 줄 기관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팀장은 “보험사의 횡포를 해결해주는 기관이 지금에는 금융감독원 정도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실질적인 분쟁을 해결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해결해주지 않는다. 가입자들은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다.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질병이나 사고를 전부 보상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실손형 의료보험은 보장해주지 않는 영역이 많다.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안게 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들을 달아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